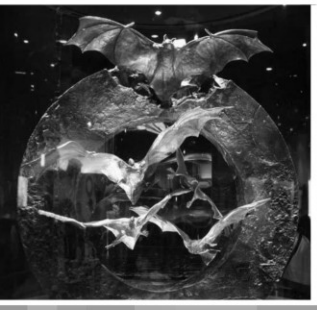


함평군사 제3권

| 제2장 | 민간신앙(民間信仰) / *28*

제1절 동제(洞祭) _ *28*

1. 개요 _ *28*
2. 마을별 사례 _ *34*
   1) 함평읍 자풍리 노송마을 당산제
   2) 함평읍 대덕리 백곡마을 당산제
   3) 함평읍 수호리 대등마을 당상제
   4) 신광면 삼덕리 덕천마을 당산제
   5) 대동면 용성리 정창마을 당산제
   6) 대동면 덕산리 아차동 미륵제
   7) 엄다면 송로리 송촌마을 당산제
   8) 학교면 학교리 회춘동 당산제
   9) 나산면 수하리 마산마을 산신제·천룡제· 당산제
   10) 월야면 계림리 가차마을 동제
   11) 해보면 용산리 소성마을 비석할머니와 동제
   12) 손불면 대전리 수문마을 입석·수산제
   13) 나산면 나산리 방하마을 천룡제

제2절 장승 _ *44*

제3절 수산의례 (뱃고사) _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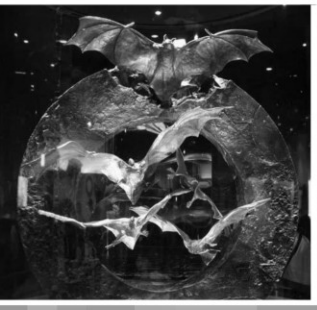
1. 개요 _ *46*
2. 사례 _ *46*
   1) 함평읍 석성리 주포마을 이기상 사례
   2) 손불면 석창리 석계마을 김종표 사례
   3) 손불면 월천리 백옥마을 김재철·조인술 사례

제4절 기산제(箕山祭) _ *48*

1. 개요 _ *48*
2. 전승현황 _ *49*
   1) 무속제의
   2) 유교제향

제5절 가정신앙 _ *52*

1. 개요 _ *52*
2. 전승현황 _ *53*



| 제3장 | 구비전승 / 61

제1절 전설(傳說) _ 61

1. 개요 _ 61
   1) 엄다면(58편)
   2) 나산면(38편)
   3) 월야면(25편)
   4) 신광면(65편)
2. 사례 _ 64
   1) 감악산 용굴과 극락사
   2) 기산영수와 함평
   3) 동섬과 탕건바위
   4) 수문이 불맥이제의 유래
   5) 비운의 아차동 장사
   6) 향교 뒷산에 얽힌 전설
   7) 처녀를 수장한 돈내보
   8) 포향정 소나무
   9) 아차동 미륵할머니
   10) 앵소산 맹리의 산소의 전설
   11) 장산들 백비 전설
   12) 용호마을의 용신당·용신제

제2절 민요(民謠) _ 74

1. 개요 _ 74
   1) 엄다면(27편)
   2) 나산면(13편)
   3) 월야면(10편)
   4) 신광면(28편
2. 노동요 _ 81
   1) 모찌기 소리
   2) 모심기 소리(상사소리)
   3) 논매는 소리(무상삼장/문열가)
   4) 장원질 소리
   5) 밭매는 소리
   6) 등짐소리
   7) 개장치는 소리
   8) 가락홀태기 소리
   9) 매통질 소리
   10) 보리타작 소리
   11) 방아찧는 소리
   12) 맷돌노래
   13) 지경다구기 노래
3. 기타요 _ 93
   1) 둥당애타령
   2) 귀뚜라미타령
   3) 담방구타령
   4) 시집살이노래(양님땅땅 양님이는)
   5) 진주낭군
   6) 강실도령
   7) 엿타령
   8) 액풀이
   9) 애기어루는 소리①
   10) 애기어루는 소리②
   11) 자장가①
   12) 자장가②
   13) 거무 노래(거미 노래)
   14) 흥글 노래
   15) 원망요
   16) 흥타령
   17) 상여소리

제3절 가요(歌謠) _ 104

1. 칠실(漆室)우국가(憂國歌) 28장(章) _ 104
2. 호남가(湖南歌) _ 119
3. 기성가(箕城歌) _ 122

| 제4장 | 축제(祝祭) / *134*

제1절 축제의 개관 _ *134*

1. 축제의 의미와 성격 _ *134*
2.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축제의 위상 _ *135*

제2절 함평의 축제 _ *136*

1. 함평 나비 대축제 _ *136*
   1) 추진 배경
   2) 축제 개요
   3) 축제장 조성 경과
   4) 축제장 준비 및 연출
   5) 관광객 유인전략과 홍보과정
   6) 축제장 운영 및 행사
   7) 함평나비축제의 영향
2. 대한민국 국향대전 _ *146*
   1) 탄생 배경
   2) 개요
   3) 전개 과정
   4) 준비 과정
   5) 행사 내용
3.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개최 _ *154*
   1)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의 위상
   2) 개최배경과 기본방향
   3) 조직 및 기구
   4) 추진 경과
   5) 회장 기반조성 및 전시관 등 시설물 설치
   6) 전시 연출
   7) 홍보 및 관람객 유치 활동
   8) 행사
   9) 회장관리 및 운영
   10) 수익 사업
   11) 재정
   12) 주요 성과
4. 대한민국 난 명품대전 _ *190*
   1) 추진 배경
   2) 창설 과정
   3) 전개 과정
   4) 전시개요 및 조직도
   5) 개최 실적
   6) 성과
5. 그 밖의 축제 _ *195*

| 제5장 | 관광(觀光) / 197

제1절 함평군 관광의 개황 _ 197
1. 현대 산업으로써 관광 _ 197
2. 광복이후 관광의 변천사와 함평의 관광 여건 _ 198
3. 함평의 관광 행정 _ 199

제2절 함평의 관광 사업체 _ 200
1. 식품·접객업소 현황 _ 200
2. 관광여행사 등록 현황 _ 201
3. 숙박 시설 현황 _ 201
4. 유원시설업 _ 201

제3절 함평의 관광자원 _ 202
1. 자연자원 _ 202
1) 천연기념물 현황
2) 해수욕장 현황
2. 문화적 관광자원 _ 203
1) 역사 자원
2) 역사 관련 각종 전시 및 기념관
3. 함평의 축제 _ 206
4. 스포츠 관광자원 _ 206
5. 사회적 관광자원 _ 207
6. 복합적 관광자원 _ 208
1) 엑스포 공원
2) 함평자연생태공원

제4절 관광 홍보 및 안내 _ 212
1. 관광 홍보 _ 212
2.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_ 212
3. 함평생태관광협회 _ 213
4. 문화관광해설가 및 해설사 육성 활용 _ 214
5. 관광 안내소 _ 215

제5절 관광객 _ 215
1. 2009년도 방문관광객 _ 216

제6절 추진중인 관광 개발사업 _ 216
1.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조성사업 _ 216
2. 대동제 상류 생태관광지 (수목원 조성) 개발 _ 216
3. 사포 관광단지 조성 _ 216

제10편 문화재·함평지역 발굴 유적·노거수

| 제1장 | 문화재 / 220

제1절 국가지정 문화재 _ 222

1. 국가지정 문화재 시·도 현황 _ 223
2. 함평군의 국가지정 문화재 _ 224
   1) 대동면 향교리 팽나무·느티나무·개서어나무 줄나무
   2) 함평읍 기각리 북가시나무의 자생북한지대

제2절 시·도지정 문화재 _ 227

1. 시·도별 지정 문화재 현황 _ 228
2. 전라남도지정 문화재 현황 _ 229
3. 함평군의 전라남도지정 문화재 _ 230
   1) 남도노동요
   2) 양재리 이팝나무
4. 등록문화재 _ 240

| 제2장 | 함평지역 발굴 유적 / 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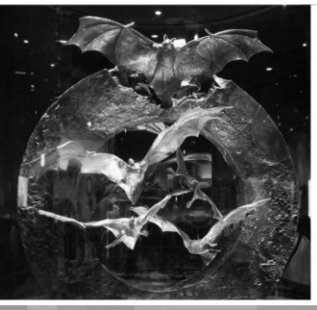
제1절 서해안고속도로 구간 유적 _ 246

1. 함평읍 성남 유물 산포지 _ 247
2. 함평읍 국산 유물 산포지 _ 247
3. 함평읍 옥산 유물 산포지 _ 247
4. 함평읍 중량 유적 _ 247
   1) 청동기시대
   2) 철기시대
   3) 삼국시대
5. 함평읍 장년리 장고산 유물 산포지 _ 254
6. 함평읍 장년리 당하산 유적 _ 254
   1) 구석기시대 유적
   2) 신석기시대(제3문화층)
   3) 청동기시대
   4) 철기시대
7. 손불면 죽림 유물 산포지 _ 257
8. 손불면 소명동 유물 산포지 _ 257
9. 신광면 무송 유적 _ 257

제2절 국도 22호선 구간 유적 _ 258

1. 해보면 용산리 백토 유적 _ 258
   1) 청동기시대의 돌널무덤
   2) 철기시대의 집터와 널무덤
   3) 삼국시대의 돌방무덤
   4) 저장구덩이(저장혈-貯藏穴)
2. 월야면 외치리 고분 _ 261

| 제3장 | 노거수 / 262



제11편 읍·면·마을사

| 제1장 | 읍·면 마을 변천 개요 / 276

제1절 읍·면의 변천 _ 276

제2절 리(里)와 마을 _ 278

제3절 마을의 변천 _ 279

1. 개관 _ 279
2. 선사시대의 마을 _ 281
3. 고대·삼국시대의 마을 _ 282
4. 고려시대의 마을 _ 283
5. 조선시대의 마을 _ 284
6. 일제강점기 때의 마을 _ 285
7. 광복이후 시대의 마을 _ 286

| 제2장 | 읍·면 마을사 / 287

제1절 함평읍(咸平邑) _ 287

제2절 나산면(羅山面) _ 361

제3절 대동면(大洞面) _ 450

제4절 손불면(孫佛面) _ 510

제5절 신광면(新光面) _ 589

제6절 엄다면(嚴多面) _ 636

제7절 월야면(月也面) _ 683

제8절 학교면(鶴橋面) _ 755

제9절 해보면(海保面) _ 846

서해안고속도로
22
▲ 봉고산
▲ 문수산
▲ 모락산
해보
함월부정각
신정
함경김홍신생가터
송촌시
봉무봉공원
24
월이
23
함평자연생태공원
송월리고인돌공원
장백루이용나무
15
전남하구장
나산
▲ 고산봉
▲ 기산봉
대동제느티나무숲
숫대감송공원
함평군
보광사 범종
함평공설초등장
24
함평나비대축제
고막삭교
무안
나주 →

Contents

| 제1장 | 세시풍속 *12*
집필 / 정경성

| 제2장 | 민간신앙 *28*
집필 / 정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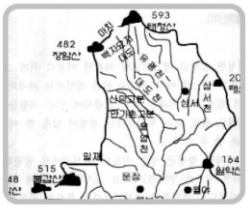
| 제3장 | 구비전승 *62*
집필 / 정경성

제9편 세시풍속·민간신앙·구비전승·축제·관광

| 제4장 | 축제 135
집필 / 나홍채

| 제5장 | 관광 197
집필 / 나홍채

제1장 세시풍속(歲時風俗)[1]



제1절 세시풍속 개관

사람들이 모여 사회를 이루고 오랫동안 사노라면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하나의 관습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것이 그 사회에 정착되어, 일년 열두 달을 주기로 달마다 관습적으로 되풀이되는 특수한 생활행위·연중행사를 지켜왔으니 이를 '세시풍속'이라 한다. 이러한 관습들은 옛날부터 세시(歲時)·세사(歲事)·월령(月令)·시령(時令) 등으로 불러 특히 그 계절성이 강조되며 춘하추동의 4계절의 변화와 더불어 생활의 리듬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처럼 정월 설날·대보름·입춘, 이월 초하루·영등·경칩, 삼월 삼짇날·한식·청명, 사월 초파일, 오월 단오, 유월 유두·삼복, 칠월 칠석·백중, 팔월 추석, 구월 중구, 시월 시제, 십일월 동지, 십이월 그믐(제석) 등등은 대표적인 한민족의 세시풍속들이다.

이 중 입춘·청명·동지는 태양의 변화에 따른 절기들이고, 정월 초하루는 입춘 전후의 15일 사이에 드는 날로서 달(月)이 없어졌다 생기는 첫날(朔日)이다. 이월 초하루도 삭일이며 현재도 일부 농촌에서는 한해 농경이 시작되는 첫날이라 하여 다양한 세시의례를 행한다. 대보름은 그야말로 그 해 처음으로 만월이 되는 날이고 칠월 백중은 그 해 중간의 만월이다. 추석은 추중(秋中)만월로서 가장 중히 여기는 명절 중의 하나였다. 한편 삼월 삼짇날·오월 단오·칠월 칠석·구월 중구는 이른바 중일(重日)이다. 그 밖에 사월 초파일은 불교에서 전래된 명절이며, 십이월 납일은 동지 후 제 3말일(末日)을, 제석은 그 해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2].

이러한 세시풍속은 민간신앙이나 농경생활과 관련된 것이 많다. 특히 농경사회에 있어서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절의 변화에 따라, 봄이 오면 논과 밭에 씨를 뿌리고 가꿔, 가을이 되면 그 곡식을 거두어 들어야 한다.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가운데 풍속이나 관습은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는 생활의 피곤을 잊고 주기적으로 여가를 마련하여 즐기며 마음과 생활을 윤택하게 한다. 또한 인간과 자연과의 필연적인 관계에서 자연의 은혜, 자연의

1) 여기에는 기술된 함평지방 세시풍속은 다음의 책을 참고하여 정리했다.
함평군, 『함평군사』, 함평군사편찬위원회, 1984. 국립목포대학교박물관·전라남도·함평군, 『함평군의 문화유적』, 1993. 영화촌마을사편찬위원회, 『영화촌마을사』, 1993. 문화체육부·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나산들의 사산마을』, 1996. 사단법인 함평군향토문화연구회·나산마을사편찬추진위원회, 『나산마을사』, 1996. 신영호, 『함평-문화유산탐구-』, 향지사, 1997, 국립문화재연구소, 『전라남도 세시풍속』, 2003

2) 조경만·박광석, 「고흥지방의 민속자료」, 『고흥군의 문화유적』, 국립목포대학교박물관·전라남도·고흥군, 1991. 368쪽

혜택에 고마움을 표시하며 나아가 신에게 감사드리고, 조상신을 숭배하고자 하는 농경민의 생활관을 볼 수가 있다.

함평지역의 정초에서 연말까지의 풍속은 제천의식, 조상숭배, 예점(豫占)행위, 농경 사상, 놀이 등 한민족 일반적인 세시풍속과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들의 대부분은 촌로(村老)들의 기억 속에서 미미하게 찾을 수 있는 과거의 일이며, 지금은 수많은 세시일 가운데 전통적 관행은 정월의 설날·대보름, 팔월의 추석 때에나 볼 수 있을 뿐이다.

제2절 월별 세시풍속

1. 정월의 세시풍속

1) 설날

정월 초하루는 한해의 시작을 의미하는 일 년의 첫날이며, 3대 명절 중 하나인 설날이기도 하다. 설은 새해의 첫 출발을 의미하는 날이니, 모든 일을 쉬고 언행을 삼가며 한해의 출발을 새롭게 맞이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한 외지에 나가있던 자손들도 고향에 돌아와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통념으로 되어 있어 설의 의미를 더울 값지고 크게 한다.

이날 아침에는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다는 인사로 새 옷이나 깨끗한 옷을 입고 조상신께 차례를 지낸다. 이는 조상에 대한 세배이기도 하다. 또한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 정성껏 장만한 음식을 차려놓고 성묘를 한다. 차례를 위해서나, 세배 오는 손님 대접을 위해서 장만하는 여러 가지 음식을 '세찬'이라고 한다. 세찬 중에서 어느 집에서나 만드는 대표적인 것은 떡을 썰어 국을 만든 떡국이다.

이것으로 차례를 지내고 가족이 둘러앉아 아침을 먹는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떡국을 먹어야 비로소 나이 한 살을 더 먹는다고 하는데 '그동안 떡국을 몇 그릇 먹었느냐'는 말은 곧 올해 나이가 몇인가 라는 말로 통용되고 있다. 떡국밖에도 집안 사정에 따라 다양하고 푸짐한 음식들이 마련된다.

한편 설 차례상을 차릴 때는 성주상을 따로 준비하는 가정이 있었다. 이 뿐만 아니라 집안 곳곳에 신이 있다고 믿었던 터라 부엌·측간·장독대 등에 음식을 차려 놓기도 했다.

2) 정월 초하루의 습속

(1) 세배하기

성묘를 다녀오면 집안어른이나 이웃의 웃어른을 찾아가 새해 인사를 올리는데, 이것을 세배라 한다. 세배 할 때는 보통 덕담을 주고받는다. 보통 어른에게 '만수무강 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라고 하며, 아랫사람에게는 '올해는 농사 잘 짓고 건강해라' '올해는

장가가거라' '소원성취 하게'하는 등으로 그 처지와 환경에 알맞은 말을 해 준다. 세배를 하고 나면 어린아이에게는 세배한 대가로 세뱃돈을 주고 장성한 사람에게는 음식 등을 내 놓기도 한다.

(2) 토정비결보기

정초에는 자신과 가족의 운세를 미리 알고자 하는 생각으로 토정비결을 본다.
토정비결은 토정 이지함(李之函)이 만든 예언서이다. 개인에 따른 점괘를 산출하여 보는데, 점괘의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크게 태세(太歲), 월건(月建), 일진(日辰)으로 나누어 먼저 태세수에 연명(年命)을 합하고 이를 8로 나누어 남는 숫자를 첫 괘로 한다. 다음은 월건수에 생월(生月)의 일수를 합하는데, 큰 달이면 30일, 작은 달이면 29를 합하여 6으로 나누고, 거기에서 남는 수를 둘째 괘로 한다. 세 번째는 생일 숫자에 일진수를 합한 수를 3으로 나누어 남는 수를 마지막 괘로 한다. 이상 세 개의 괘를 차례로 합하여 책에서 같은 괘의 숫자를 찾는다. 연운(年運)과 월별 운이 나뉘어 있어 이를 읽고 그해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것이다[3].

(3) 정초의 놀이

예전에는 정초에 강강술래·널뛰기 등 다양한 놀이가 행해졌지만, 지금은 남녀노소 구별 없이 동그라니 29개의 윷판을 놓고 말 4개가 먼저다 돌아오면 이기는 윷놀이와 화투놀이가 벌어질 뿐이다.

3) 정초의 금기

정월 1일부터 12일까지의 십이지일(十二支日) 일진(日辰)에 따라 동물의 이름을 붙였다. 지금은 거의 지키지 않지만, 각 날에는 몇 가지 금기사항과 습속들이 있다. 이 12지일은 다시 동물의 털의 유·무에 따라 유모일(有毛日)과 무모일(無毛日)로 나누는데, 뱀날·용날은 무모일이고 이 밖의 날은 유모일이다.

(1) 쥐날(子日)

정월의 첫 번째 맞는 자일(子日)이다. 이 날은 귓속말을 하지 않는다. 쥐가 듣고 소문이 퍼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또 일찍 불은 끄면 그 해 쥐가 농작물을 갉아먹는다는 속신이 있어 밤새 불을 밝혀 놓는다.

(2) 소날(丑日)

이날 연장을 다루거나 칼질을 하면 농사철에 쟁기 보습이 부러진다고 한다. 그래서 김치 등도 전날 미리 썰어 놓는다.

(3) 호랑이날(寅日)

3) 전라남도, 『전라남도지』 제19권, 전라남도지편찬위원회, 1995. 141쪽

호랑이가 많았던 시절에는 이날 호환이 있다하여 산에 가는 것을 금했다.

(4) 토끼날(卯日)

특별한 금기와 습속이 전하지 않는다.

(5) 용날(辰日)

용날에 우물물을 길으면 농사철 일할 때 마다 비가 온다는 속신이 있다.

(6) 뱀날(巳日)

이날은 일년동안 모아둔 머리카락(빗질할 때 빠진)을 모아 헝겊에 싸서 불태운 막대기를 들고 '배암 죽이자' 또는 '뱀짖자' '구렁이짖자' 소리를 반복하며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닌다. 이는 그 해 집안에 뱀이 들어오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주술적 행위이다. 또한 뱀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날 나뭇가지를 들고 다니거나 집안 이곳저곳을 들썩거리는 행위를 금했고, 한지에 '백사(白巳)'·'흑사(黑巳)'·'황사(黃巳)' 등의 글자를 쓴 부적을 뱀이 나올만한 곳에 거꾸로 붙여놓기도 한다.

(7) 말날(午日)

말날 특히 정월 초하루가 오일(午日)일 때 장을 담그면 좋다고 한다. 말이 콩을 좋아한데서 이 같은 속신이 생긴 듯 하다.

(8) 염소날(未日)

특별한 금기와 습속이 전하지 않는다.

(9) 원숭이날(申日)

이날은 사람 날이라 해서 일을 하지 않고 하루를 쉬었다.

(10) 닭날(酉日)

닭날에 일하면 닭이 곡식을 파헤친다는 속신이 있어 일을 하지 않았다.

(11) 개날(戌日)

개의 눈에는 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귀신이 보인다는 속신이 있어 이날은 점을 보러 다니곤 했다.

(12) 돼지날(亥日)

바느질을 하면 일년 내 손가락이 아프다하여 바느질을 하지 않았다.

이밖에 정월 초하루에는 빨래를 하거나 널지 않는다. 조상들이 차례상을 받기위해 들어오다 걸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빨랫줄까지 모두 거두어 놓는다고 한다. 정초에 여자가 다른 집에 가

면 재수가 없다는 속신이 있어, 여자들이 외출을 삼가 했다. 큰 가시가 많은 엄나무를 방문 위에 걸어두면 귀신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도 전해온다.

4) 입춘(立春)

입춘은 24절기 중에서 첫 번째 절기이다. 음력 1월, 양력 2월 4일경이며, 태양의 환경이 315° 에 와 있을 때인 봄으로 접어드는 전후이다. 음력으로는 섣달에 들기도 하고 정월에 들기도 하며, 정월과 섣달에 거듭 들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봉춘(再逢春)이라 한다. 정월은 첫 번째 드는 달이고, 입춘은 정월에 첫 번째로 드는 절기이다[4].

함평에서는 이날 소원하는 바를 한지에 적은 입춘축(立春祝)을 대문·기둥·문설주 등에 붙인다. 그 내용은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陽多慶)'이 일반적이고, 이밖에 '춘만건곤복만가 천증세월인중수(春滿乾坤福萬家 天增歲月人중水)' '개문만복래 소지황금출(開門萬福來 掃地黃金出)' 등 다양한 글귀의 입춘축을 써 붙인다.

입춘에는 보리뿌리가 잘 내리도록 보리밭을 밟아준다. 그냥두면 뿌리가 들떠서 보리가 말라 죽거나 뿌리가 약해 잘 자라지 않는다고 한다. 소에게는 옛날 죄인에게 하던 칼을 씌운다. 두껍고 긴 널빤지의 한끝에 구멍을 뚫어 칼을 만들고 붉게 칠하여 이것을 소의 코뚜레부터 머리까지 올라오게 꽂는다. 이러한 습속은 백정이었던 '도환'의 귀신으로부터 소의 급사(急死)를 막기 위한 방책이었다.

5) 정월 대보름의 습속

음력 1월 15일은 '정월 대보름' 또는 '첫보름'이라 부른다. 이날을 콩·팥·수수·쌀·보리를 섞어지은 오곡밥과, 고구마순·토란대·녹두·고사리나물 등 갖가지 나물을 장만하여 조상께 제사를 지낸다.

(1) 잠안자기

보름날 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희어 진다는 속신이 있어 아이들은 애써 졸음을 참는다. 혹 잠든 사람에게는 밀가루를 눈썹에 칠해 놀리기도 한다.

(2) 조리밥얻기

대보름날 '세성'이 사는 집에서 체나 조리에 밥을 얻어먹으면 일년 내 감기에 걸리지 않고, 더위를 타지 않으며 명이 길어진다는 속신이 있다. 아이들은 얻어온 밥을 절구통에 앉아 먹었다.

(3) 소 밥주기

보름날은 소에게 오곡을 먹게 하여 어떤 곡식이 풍작인지 미리 알아보는 습속이 있다. 만약 소가 쌀을 먼저 먹으면 쌀 풍년, 보리를 먼저 먹으면 보리풍년이 든다고 예점(豫占)한다.

---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8, 1997. 833~844쪽

(4) 망월점(望月占)

보름 저녁에 달을 보고 그해 농사의 풍흉을 예점했다. 곧 달빛이 밝고 두터우면 풍년이 들고, 붉고 엷으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또한 보름달을 먼저 보면 그해 운수가 형통한다는 속신이 있어 남 보다 앞서 보기를 다투었다.

(5) 복조리 걸기

복조리는 그 쓰임새·생김새에서 비롯되었는지 복을 긁어 담는다는 속신이 있어 방안이나 큰 방 문 위에 걸어놓는다. 마을을 다니며 파는 조리장수에게 사거나, 정초 장에 가서 사온다. 보통 2개를 사서 방문 위에 엇갈려 걸어둔다. 조리 안에는 곡식의 씨앗을 넣어두기도 한다.

(6) 가랫불 놓기

보름날 밤 피마자대와 생대나무를 마당에 쌓아놓고 태우는데, 이때 나는 피마자의 고약한 냄새와 "탁탁" 요란하게 터지는 대나무 소리가 잡귀들을 쫓아낸다고 한다. 불이 어느 정도 잦아들면 아이들은 '가랫불 넘자'라고 하면서 불을 뛰어 넘기도 했다.

(7) 쥐불놀이

보름 전날 밤에는 논·밭둑에 불을 지른다. 풀 속에 숨어있는 해충들의 알을 죽임으로써 풍년농사를 기대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통조림 등의 깡통 밑과 옆에 수많은 구멍을 뚫고, 철사를 긴 손잡이를 달아 만든 '불깡통' 놀이를 한다. 이 깡통에 작은 장작개비를 넣고 불을 지펴 돌리면 곧 불이 사려지는데, 이것을 돌리고 다니면서 논·밭둑에 불을 지르거나 공중으로 높이 던져서 불꽃놀이를 하기도 한다.

(8) 더위팔기

보름날 아침 일찍 일어나 만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 대답하면, '내더우'하고 더위를 판다. 이렇게 하면 여름철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불려진 사람이 이것을 알아차리고 대답대신 '내더우 니더우 가래더우'하고 되받아 먼저 더위를 팔기도 한다.

(9) 개보름쇠기

보름날에는 하루 종일 개에게 밥을 주지 않는다. 밥을 주면 그해 파리가 들끓는다는 속신 때문이다. 개 보름 쇠듯 한다는 속담도 여기서 나왔다.

(10) 이명주(耳明酒)와 부럼

보름날 새벽에 데우지 않은 청주 한잔을 마시면 귀가 밝아지고 좋은 소식만 듣는다는 속신이 있었다. 또한 호두·대추·밤·잣·은행 등을 깨물고 "종기와 부스럼이 나지 않게 해 주시오"하며 마당이나 지붕에 던지면 종기와 부스럼이 생기지 않는다고 믿었다.

(11) 노두놓기

개천에 놓인 징검다리를 '노두'라 한다. 그해 자식의 운세가 나쁘다는 것을 미리 안 부모들은 정월 열 나흗날 저녁, 사람들이 개울에 쉽게 건너다닐 수 있도록 '오장치'에 모래를 담아 징검다리를 놓았다. 적선(積善)을 함으로써 자식의 액운을 막아보고자 했던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습속이다.

(12) 제웅버리기

제웅이란 짚으로 허수아비 모양을 만들어 그 속에 직성(直星)이 든 사람의 생년월일을 적어 놓고, 노자 동전 혹은 쌀을 함께 넣어 만든 것을 말한다. 직성이 든 사람이 있는 집에서는 이것을 만들어 버린다. 남자의 직성은 11, 20, 29, 38, 47, 56세에 들고, 여자는 10, 19, 28, 37, 46, 55세에 든다고 한다. 직성이 들면 그 해 액운이 따르기 때문에 대물로서 바쳐지는 것이다. 제웅을 길에다 버리거나 혹은 도랑이나 개천에 버린다. 또는 물에 띄어 보내는 수도 있다[5]. 함평에서는 이 같은 내용과 조금 다르게 사춘기에 접어든 자식들의 액운을 막아주기 위해 제웅버리기가 행해졌다.

(13) 동제(洞祭)

동제는 마을의 평안과 농사풍년을 당산할머니·할아버지 등 초자연적 존재에게 기원하는 제사의례로서 매년 정월 보름을 전후해 지내오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민간신앙 편 참조).

(14) 줄다리기

정월 보름의 대표적인 놀이는 마을 사람들 전체가 참여하는 줄다리기였다. 보름날 아침에 집집마다 볏짚을 거두어 어른 팔뚝만한 크기로 줄을 드렸으며, 줄을 당긴 후에는 당산나무에 감기도 했다. 줄다리기는 보통 남·여로 편을 갈라 했는데, 여자가 이겨야 풍년이 든다고 믿었다. 함평에서는 학교면 학교리 회춘동, 엄다면 송로리 송촌, 해보면 용산리 소성, 대동면 용성리 정창, 나산면 나산리, 함평읍 자풍리 노송·대덕리 백곡·수호리 대동마을 등이 줄다리기를 했다. 지금은 중단(광복 이전 중단)되었지만, 함평읍에서 동부와 서부로 나눠 겨뤘던 줄다리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줄다리기는 동부(현 기각리와 함평리 일부)와 서부(내교리 쪽)로 나눠 힘을 겨뤘다. 정월 초부터 동부와 서부에서는 줄다리기에 쓸 줄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 길이는 50m가 넘었고, 앞고리부분의 지름이 1m, 끝부분만도 10~20cm에 달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구시장 쪽에서 줄다리기를 했으나 장소가 비좁게 되자, 이후에는 영수교 밖인 읍에서 향교로 가는 길로 바꾸었다. 아침 일찍부터 흥겨운 농악이 연희되면서 분위기를 조성했고, 점심때쯤 줄다리기가 시작되었다. 향교와 수호리 사람들이 동부와 서부 편에 가세하여 대 성황을 이뤘고, 한때는 줄다리기에 참여한 사람이 천여 명에 이르기도 했다고 한다.(15) 기타

5) 전라남도, 『전라남도지』 제19권, 전라남도지편찬위원회, 1995. 152쪽

정월 열 나흗날은 나무를 아홉 짐 하고 밥도 아홉 번 먹으로라는 말이 있다. 보름날 새벽에는 일찍 우물을 떠오면 좋다고 하여 남들보다 먼저 우물을 길러오고자 경쟁하며, 이 물로 치성을 드린다. 보름날 저녁 집 밖에 짚을 깔고 밥과 나물을 차려 놓는데, 이것을 '걸판'이라고 한다. 이 걸판을 먹으면 기(氣)와 복(福)이 들어오고 잡귀를 쫓아낸다고 하여 동네아이들이 가져다 먹었다. 보름에 두부를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하여 찬 음식을 데우지 않고 그대로 먹었다. 여름 '살쐐기(피부병)'를 예방하고자 음식에 고춧가루를 넣지 않고, 찬물을 마시지 않았다. 이밖에 정초에 만들어 놀던 연에 불을 붙여 하늘로 날려 보내 액막이를 하고, 나이 수대로 다리밟기, 집안의 모든 방에 밤새 불을 켜놓고, 자정이 넘으면 대문을 열어 복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습속 등이 있었다.

2. 2월의 세시풍속

1) 초하루

함평에서는 음력 2월 1일을 '하드렛날' '하레드레날'이라 부르고 있다. 이날을 콩·벼·보리·조·목화씨 등을 볶아 먹었고, 농사철 벌레가 생기지 않는다는 속선이 있어 이것을 밭 귀퉁이에 뿌리기도 했다. 이런 연유로 2월 초하루를 '버러지 볶는날'이라는 말이 생겨난 듯 하다. 또 이날 칡을 캐 먹으면 아이들에게 약이 된다는 말도 전한다.
전통 농경에서 2월 초하루는 본격적으로 농사일이 시작되는 때였다. 그래서 농군들은 하루를 편히 쉬며 일년 농사를 준비했다.

2) 영등일

2월 1일 영등할머니가 하늘에게 내려와 2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다시 올라간다고 한다. 이는 바람을 관장하는 풍신이기 때문에 바람이 생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어촌에서 주로 모시고 있다.

부엌이나 장독대에 황토를 쌓고 거기에 대나무를 세우고, 그 위에 물그릇을 올려놓는다. 정성에 따라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 놓고 비는 집도 있고 날을 걸러하는 집도 있다. 그러나 처음 내려오는 초하루와 올라간다는 스무날은 떡을 해 놓고 정중하게 모신다. 그해 바람이 순조로워야 바다 일이 잘되기 때문에 극진히 지낸다. 세설(世說)에 영등할머니가 며느리와 함께 내려오면 그해 바람이 거칠고. 딸과 함께 내려오면 바람이 순조로워 좋다고 하는데, 역시 세상살이가 그대로 풍속이나 전설에 투영되고 있는 예라고 할 수 있다[6].
함평에서의 영등일에 대한 관념은 이와는 조금 다르고 약하게 나타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월 1일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40일 동안 계속된다.

6) 전라남도, 『전라남도지』 제19권, 전라남도지편찬위원회, 1995. 158~159쪽

·2월 1일 비가 오면 '물영등 내렸다'하여 2월 한달 내 비가 내릴 것으로, 바람이 불면 '바람영등 내렸다'하여 40일간 계속 바람이 세차게 불 것으로 생각한다.
·2월 1일 영등할머니가 딸을 데리고 오면 바람이 불고,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 비가 온다. 비가 오는 것은 며느리의 치마를 얼룩지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3) 경칩일(驚蟄日)

24절기 가운데 세 번째 맞는 절기로 우수와 춘분 사이에 들어있다. 음력으로는 2월 중에 양력으로는 3월 초순경이 된다. 경칩은 글자 그대로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나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무렵이다. 함평 지역에서는 이날 '용알'·'미룡알'을 먹으면 허리가 아프지 않고, 몸에 좋다고 하여 산골짜기 깨끗한 물을 찾아서 '용알'·'미룡알'을 주워 먹었다.

4) 좀생이별 보기

음력 2월 6일 또는 7일에 좀생이 별(昴星)과 달의 거리를 보고 그 해 풍흉을 점치는 풍습이 있었다. 좀생이 별이 달 뒤에 있으면 풍년이 들고 달보다 앞서 있으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3. 3월의 세시풍속

1) 삼짇날

음력 3월 초사흗날을 이른다. 흔히 '삼월삼짇날'이라고도 하며, 한자로는 상사(上巳)·원사(元巳)·중삼(重三), 또는 상제(上除)라 쓴다.
이 날은 강남에 갔던 제비가 돌아오는 날이라 하여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제비를 맞았다. 삼짇날을 즈음해서는 나비가 날기 시작하는데, 처음 보는 나비의 색깔로 길흉을 점치기도 했다. 곧 흰나비를 먼저 보면 상복(喪服)을 입게 되고, 노랑나비나 호랑나비를 먼저 보면 운수대통하고 건강하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당산나무의 새 잎이 피는 상태를 보아 풍흉을 점치기도 한다. 잎이 한 번에 모두 피면 그 해에는 물이 많아 풍년이 들고, 잎이 여러 번 나눠 조금씩 피면 비가 적게 내려 모내기가 힘들 것으로 믿는다.
부녀자들은 이날 화전(花煎)놀이를 갔다. 진달래꽃이 만발한 산야(山野)를 찾아가 찹쌀가루에 진달래꽃을 섞어 참기름에 지진 전을 먹으며 하루를 즐겼던 것이다.

2) 청명(淸明)

청명은 24절기 가운데 5번째 맞는 절기로 춘분과 곡우 사이에 들어 있다. 대개 한식의 하루 전날이나, 때로는 한식과 겹치기도 한다. 함평에서는 특별한 습속은 전하지 않고, 다만 농가에서 봄갈이를 시작하는 날로 알고 있을 뿐이다.

3) 한식(寒食)

동지(冬至)를 보내고 105일째 되는 날이 한식이다. 24절기 속에는 들지 않는다. 설날·단오·추석과 함께 우리나라 4대명절의 하나이기도 하다. 2월에 한식이 드는 해는 철이 이르고, 3월에 드는 해는 철이 늦다. 그래서 '2월 한식에는 꽃이 피어도 3월 한식에는 꽃이 피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한식은 중국 진나라의 어진 선비 개자추(介子推)가 산에 숨었다가 억울하게 불에 타 죽었다는 전설이 세전(世傳)되는 날이다. 함평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세전되고 있는데, 개자추를 애도하기 위해 더운밥을 먹지 않고 찬밥을 먹는 날로 여긴다. 쑥떡이나 약밥, 찬밥을 먹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또 한식은 조상의 묘를 손보는 날로 알고 있다. 묘가 헐었으면 다시 사토를 입히고, 주위에 나무를 심는다. 이장(移葬)이나 합장(合葬)을 준비한 집안에서는 대개 이날을 잡아 행한다.

4) 곡우(穀雨)

24절기의 하나로 청명과 입하 사이에 들어 있으며, 태양의 황경이 30° 에 해당하는 때이다. 음력 3월, 양력 4월 20일경이 되며, 그때부터 본격적인 농경이 시작된다. 곡우 때쯤이면 봄비가 잘 내리고 백곡이 윤택해진다. 그래서 '곡우에 가물면 땅이 석자가 마른다', 즉 그해 농사를 망친다는 말이 있다.[7] 함평의 농가에서는 이날 못자리를 하기 위해 볍씨를 담근다.

4. 4월의 세시풍속 – 초파일

우리나라의 본래 세시는 홀수 달은 양(陽)달이라 하여 둘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이니 1월 1일,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을 지내고, 짝수 달은 음달이라 하여 그달 보름을 절일(節日)로 삼는다. 그러나 4월달은 보름의 절일 의식이 없어지고 대개 석가탄신일인 초파일을 크게 생각한다.

『고려사』에 의하면 연등행사는 정월 보름에 하던 것을 고쳐 고종 때 권신(權臣), 최이(崔怡)가 초파일로 옮겼다 한다. 초파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절에 찾아가 등을 사 단다. 등의 이름에는 수박등·연꽃등·마을등·칠성들·오행등·일월등·공등·배등·종등·북등·누각등·난간등·화분등·가마등·머루등·병등·항아리등·방울등·자라등·수복등·태평등·만세등·남산등이 있다. 초파일의 연등회는 오늘날에도 성대하게 벌어지는 의식이며, 주로 아녀자들이 집안 식구들의 무병과 성공을 염원하는 일이 많으며, 기사(祈事)를 하는 등 일련의 모든 것을 통틀어 '공들인다'고 한다[8].

함평지역에서도 이날 불교 신자들은 가까운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있다. 대게 해보며 광암리 모악산 자락에 있는 용천사와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에 있는 불갑사를 찾는다.

5. 5월의 세시풍속

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1997년. 700쪽
8) 전라남도, 『전남의 세시풍속 – 풍속·놀이·당산제·농악』, 전라남도 향토문화총서 제29집, 1988년. 46쪽

1) 단오(端午)

단오는 우리나라 4대명절의 하나로 꼽아 왔다. '수릿날', '천중절', '중오절', '단양수리'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수릿날이란수레바퀴 모양으로 떡을 만들어 먹은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열양세시기』에서는 수뢰일(水賴日)이라고 표기하고, 이날 죽은 굴원을 제사지내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또는 '수리'란 순수한 우리말로 고(高), 상(上), 신(神) 등을 의미하는 데서 유래하게 되었다는 설도 있다. 이 단오는 중부 이북 지방에는 큰 명절로 되어있으나 우리 전남 지방에서는 아주 약하다.[9] 함평에서도 이날을 명절로 생각하지 않고, 다만 몇 가지 습속과 그네뛰기 놀이가 전해질 뿐이다.

2) 창포(菖蒲)와 약초

단오 날 아침에 창포를 베어다가 속대를 삶은 물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지고 향이 난다고 한다. 단오에는 온갖 풀이 약이 된다는 말이 있다. 특히 익모초는 여름철 더위를 먹어 입맛이 없을 때 생즙을 내어 마셨던 상비약인데, 해뜨기 전 뜯어야 약효가 좋다. 이밖에 단오 날 상추를 띄워 세수를 하면 버짐이 피지 않는다는 말도 전한다. 단오 때는 무슨 풀이든 약이 된다고 하여 들에서 100가지 풀을 뜯어서 단오 이슬을 맞춰 말렸다가 약으로 쓴다.

3) 써레씻이(써레시침)

모심기가 끝나면 각 집의 사정에 따라서 써레시침을 한다. 모내기가 끝냈으므로 더 이상 써레를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씻어두면서 그동안 수고한 일꾼들을 위로하는 것이다.

6. 6월의 세시풍속

1) 유두(流頭)

음력 유월 보름은 유두일이다. 유두는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데서 유래했다. 이때는 용신제(龍神祭) 또는 농신제(農神祭)를 논이나 밭에서 지냈다. 찰떡을 하여 물꼬나 둑 밑에 한 덩이씩 놓으며 "물새지 말고 농사 잘되게 해 주시오"하는 기원을 했고, 또 농사 풍년을 바라는 마음으로 떡을 떼어 논가에 뿌렸다. 또 유두 무렵에는 천둥이 치는데. 이 천둥소리를 '유두할애비 운다'고 한다. 이 '유두할애비'가 유두 날 어느 때 우는가를 보아 그해 농사의 풍흉을 예점(豫占)하는 습속이 있었다. 곧 울음소리가 아침 일찍 들리면 이른 곡식이 잘되고, 오후에 들리면 늦은 곡식이 잘 된다는 것이다.

2) 삼복(三伏)

초복(初伏)·중복(中伏)·말복(末伏)을 합해 삼복이라 하는데, 여름의 더위가 가장 절정을 이루는 시기에 들어 있다. 하지(夏至)로부터 세 번째 경일(庚日)이 지난날이 초복, 여기서 열흘이

9) 전라남도, 『전라남도지』 제19권, 1995년. 161쪽

지나면 중복, 다시 열흘이 지나면 말복이 된다. 말복은 월복하여 중복으로부터 20일째 되는 날일 수도 있다. 이 무렵이면 사람들은 식욕을 잃게 되고, 땀을 많이 흘러 쇠약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복날에는 '복다름' 한다하여 개를 잡아 끓여먹거나, 닭을 잡아서 인삼·대추·마늘 등을 넣고 푹 삶아 먹음으로써 쇠약해진 몸을 보신하다.

7. 7월의 세시풍속

1) 칠석(七夕)

7월 7일 칠석에는 견우와 직녀의 일년에 한번 상봉한다는 애틋한 전설이 있다. 이날은 칠석다례(七夕茶禮)라 하여 올벼를 사당에 바쳤고, 자식들의 명과 복을 비는 칠성제(七星祭)를 지냈다는 말이 전한다. 까치를 위해서 담장 위에 까치밥을 올려놓는다.

2) 백중(百中)

7월 보름은 백중이다. 온갖 곡식이 마련되는 때라서 백종(百種)으로도 불린다. 백중은 일년을 반으로 나눌 때 처음 시작되는 달이기 때문에 중원(中元)이라고도 하며, 정월 대보름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예축 행사가 벌어지고, 농가에서는 여름 농한기에 들어 하루를 쉬며 논다. 각 가정에서는 음식을 장만하여 조상에게 차례를 올린다. 전에는 백중에 즈음하여 농촌에서는 장원례를 하였다. 그해 농사가 가장 잘된 집에서 마지막 논매기(만물)가 끝나면 그 집 머슴을 소에 태우고 풍물을 울리면서 주인집에 들어간다. 주인은 술과 안주를 내어 일꾼들을 대접하는 것이다[10].

이날 엄다면 엄다리 불암 마을에서는 농악과 함께 노동요를 부르며 힘겹게 하루를 보냈다. 이 노동요는 1977년 10월 20일 전라남도무형문화제 제5호 "남도노동요"로 지정된 바 있다. 한편 나산면 대정마을과 동신마을에서는 이날 두 마을만의 세시행사인 차일계(遮日契)를 치르고 있다. 본래 이 차일계는 두 마을이 각기 있었으나, 1992년 합계를 하고 강신일(講信日)도 정월 20일에서 백중날로 옮겼다. 이때부터 백중날에는 마을사람들이 이인정(里人亭)에 모여 잔치를 벌이며 하루를 쉰다.

8. 8월의 세시풍속

1) 추석(秋夕)

추석은 음력 팔월 보름이다. 정월의 설과 함께 가장 크게 생각하는 명절이라 할 수 있다. 이 무렵이면 오곡과 백과가 풍성하여 사람들의 마음까지 넉넉하다. 사람들은 팔월 보름을 일년 중 가장 좋은 날로 여겼고, '오월 농부, 팔월 신선', "일년 삼백육십이 더도 덜도 말고 팔월 한가위만 같으라"는 말도 생겨났다. 또한 객지에 사는 이들은 고향을 찾는 날이며, 헤어졌던

10) 전라남도, 『전라남도지』 제19권, 1995년. 164쪽

가족들이 모두 만나는 날이다. 그래서 동네 공터에는 귀향인이 타고 온 자가용이나 관광버스로 빈틈없이 가득 차기도 한다.
추석날 아침에는 햅쌀로 빚은 송편과 대추·밤·배·사과·감 등의 햇과일로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어 풍요로운 결실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한다. 머슴을 두고 농사를 짓던 시절에는 옷과 음식 등을 마련하여 집에 보내고 며칠을 쉬게 했다.

2) 추석의 습속

(1) 성묘하기

추석 때 가장 중요한 행사는 성묘이다. 아침 일찍부터 온 산야가 성묘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는데, 햇곡식·햇과일로 정성을 들여 장만한 음식을 조상의 묘 앞에 차려놓고 결실에 대한 고마움과 일년 동안 무사하게 지낸 감사의 인사를 한다. 성묘를 하기 위해서는 추석 전 백중 무렵부터 미리 벌초를 하는데, 조상의 산소에 미리 찾아가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낫 등으로 베고, 무덤이 허물어 졌으면 떼를 입혀 보기 좋게 다듬는다. 선산에 잡초가 무성하고 이상이 있으면 조상에 대한 불효이고, 수치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2) 올벼신미

올벼신미는 조상숭배를 곁들인 천신의식(薦新儀式)의 하나이다. 추석 무렵 햇나락 가운데 잘 익은 나락을 한줌쯤 베어다가 실로 묶은 다음 방문 위나 안방 윗목 또는 기둥에 걸어 놓고 절을 한다. 그해 농사풍년에 감사하는 동시에 이듬해에도 풍년이 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함평에서는 이 같은 행위를 '올개심리', '오리심리', '올벼심리'라 부른다.

(3) 추석의 놀이

예전에는 수십 명의 여자들이 무리를 이루어 서로 손을 잡아 둥글게 원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며 밤새도록 뛰고 놀았던 강강술래가 마을마다 행해졌지만, 지금은 가족과 친지, 친구들 사이에 화투놀이가 벌어진다. 일부 마을에서는 추석 연휴를 맞아 푸짐한 상품을 걸고 노래·장기자랑대회, 체육대회를 열어 한데 어우러지는 행사를 갖기도 한다.

9. 9월의 세시풍속 – 중구(重九)

음력 9월 9일을 중구, 중양절이라고 한다. 이는 양수(陽數)가 둘 겹쳐있기 때문에 부르는 이름이다. 양수인 홀수가 겹친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도 다 중양이 될 수 있겠으나, 중양이라 하면 중구를 가리킨다. 중구 때는 벼 수확은 물론, 콩·팥·조·수수·깨·고구마에 무·배추 등 김장채소 거두기까지 겹치는 농번기라 잠시라고 쉴 겨를이 없다. 함평에서도 이날은 명절로 생각하지 않고, 다만 3월 삼짇날 날아 온 제비가 이날 다시 강남으로 돌아간다고 알고 있을 뿐이다.

10. 10월의 세시풍속

1) 시제(時祭)

음력 시월은 해월(亥月), 상월(上月, 상달), 상동(上冬), 맹동(孟冬), 양월(良月)이라고도 한다. '해월'은 월건법(月建法)상의 시월이 12지 중에 '해(亥)'이기 때문에 나온 이름이고, '상월·상달'은 햇곡식을 신에게 드리기 가장 좋은 달이란 뜻에서 붙여졌다. '상동'과 '맹동'은 음력 시월이 겨울의 첫 달임을, '양월'은 수(數)가 시월의 '십(十)'에서 가득 참을 의미한다.

예로부터 한해의 농사가 끝나는 시월에는 시제, 즉 문중제사를 지내왔는데, 함평에서는 이를 '시사', '시앙', '세앙', '산제'라 한다. 대개 사월 중 길일을 택해 고조 이상의 조상들에게 해마다 한번 묘제(墓祭)를 지내오고 있다. 시제를 위한 비용은 문중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제답(祭畓)를 마련하여, 여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충당한다. 문중 자손들은 묘소에 가서 벌초와 주위를 청소한 다음, 진설·참신·강심·초헌·아헌·종헌·사신·철상 등의 절차에 따라 제사를 지낸다.

2) 김장하기

시월 하순에는 집집마다 가을에 가꾸어 온 무와 배추를 거두어 김장을 담근다. 겨울철에 신선한 채소를 구하기 어려웠던 시절에는 겨우내 먹을 김치를 미리 많이 담가서 저장해 두어야 했다. 그래서 "김장김치는 겨울의 반양식이다"는 말까지 생겨났다. <농가월령가>에도 "무 배추 캐어 들여 김장을 하오리다/앞내에 정히 씻어 염담(鹽淡)을 맞게 하소/고추 마늘 생각 파에 젓국지 장아찌라/독 곁에 중두리요 바탕이 항아리라/양지에 가가(假家)짓고 짚에 싸 깊이 묻고/바기 무 알암밤도 얼잖게 간수하고"라는 김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구절이 나온다.

김장은 봄철의 젓갈 담그기에서 초가을의 고추·마늘의 준비, 김장용 채소의 재배 등 준비하는 데에 반년 이상이 걸린다. 김장을 담그는 채소로는 무와 배추가 주로 쓰이고, 마늘·파·생강·고춧가루에 간을 맞추기 위해 소금·젓갈류가 들어간다. 김장을 하기 위해서는 무·배추를 다듬어 씻고, 소금에 절이는 등 일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3~4집이 품앗이를 한다. 이렇게 김장을 다 담그면 독에 넣어 땅에 묻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먹었다.

지금은 식생활과 주생활양식이 많이 변하여 김장 풍속도 많이 달라져 있다. 즉, 겨울철에도 신선한 채소와 숙성된 젓갈을 쉽게 시장 등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김장을 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땅속에 묻어두던 옹기김장독은 플라스틱김장독과 김치전용 냉장고가 대신하고 있다.

11. 11월의 세시풍속

1) 동지(冬至)

음력 11월은 동짓달이다. 다른 말로 '중동(仲冬)', '지월(至月)'이라고도 한다. 중동은 이 달이 겨울 복판이기 때문에, 지월은 이 달에 동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동지는 24절기 중 22번째 절기로써 대설(大雪)과 소한(小寒) 사이에 들어있다. 하지(夏至)로부터 차츰 밤이 길어지기 시작하여 동짓날에 이르러 극에 도달하며, 다음날부터는 차츰 밤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동지는 일년 중에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다. 함평에서는 동지를 '애동이'와 '노동지'로 구분하여 쇠고 있다. 즉, 동지가 11월 상순에 들면 '애동지', 하순에 들면 '노동지'라 하는데, 애동지에는 팥죽을 쑤지 않고, 대신 시루떡을 한다.

2) 동짓날의 습속

동짓날에는 팥을 고아 죽은 쑤고, 여기에 찹쌀가루로 새알만한 떡을 만들어 넣어 끓인 '동지죽'을 먹는다. 함평에서는 이것을 '새알죽'이라고도 한다. 이 동지죽도 정월 설날에 먹는 떡국과 마찬가지로 '동지죽을 먹어야 비로소 나이 한 살을 더 먹는다'는 말이 있다. 또한 동지죽은 색깔이 붉기 때문에 잡귀(雜鬼)를 쫓고 액(厄)을 물리친다는 속신이 있어 대문·벽·마당·담장 등 집안 곳곳에 뿌렸다. 상에 오른 동지죽을 보고 이듬해 농사의 풍흉을 예점(豫占)하는 사람도 있었다. 즉 동지죽을 그릇에 떠놓고 잠시 있으면 죽에 균열이 생기는데, 금이 잘 가면 이듬해 풍년이 든다고 믿었다. 동짓날에 눈이 많이 오고 추우면 이듬해 농사가 풍년이라는 말도 전한다.
또한 동지에는 일년 동안 부렸던 머슴을 새경을 주어 집으로 돌려보내 쉬게 했다.

3) 기타

겨울에 고드름이 많고 적음을 따져 다음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기도 한다. 고드름이 많이 열리면 벼농사가 잘되어 풍년인데, 고드름이 많이 열린다는 것은 그만큼 겨울이 춥다는 뜻으로, 해충이 다 얼어 죽어 풍년이 든다는 것이다. 반대로 날이 따뜻하면 해충이 죽지 않고 논두렁에 서식하여 다음해 농사에 해를 끼친다고 믿었다.

12. 12월의 세시풍속 – 그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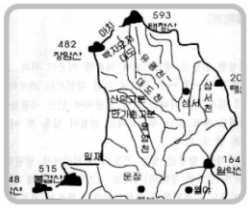
일년 열두 달 가운데 맨 마지막 달인 12월은 섣달이라 하며, 섣달의 마지막 날을 그믐이라 한다. 함평에서는 '금날'이라고도 한다. 그믐날은 한해의 마지막 날로써 모든 일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려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 날은 빌려온 연장을 돌려주고, 빌려준 연장은 찾아온다. 외상이 있는 사람은 이날 모두 갚아야 하는 것으로 안다. 그믐날 밤에는 집안 곳곳에 불을 밝히고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는다. 이날 잠을 자면 눈썹이 희어 진다는 속신이 있어 아이들은 애써 졸음을 참는다. 혹 잠든 사람에게는 밀가루를 눈썹에 칠해 놀리기도 한다. 근래에 새로 생겨난 세시풍속으로, 양력 섣달 그믐날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과 '송년회'를 갖

는 사람들이 많다. '송년회' 역시 한 해를 반성하고, 다음해를 보람차게 설계한다는데 본 뜻이 있다.

13. 윤달의 세시풍속

일년 열두 달 외에 간혹 윤달이라는 달이 하나 더 끼어있다. 함평에서는 이 달을 '공달'이라고도 한다. 윤달은 4년에 한번씩 돌아오는데, 그해에는 어느 한 달이 연달아 두 번 있게 된다. 윤달은 일년 열두 달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재액(災厄)이 없는 달로 알려져 있다. 속담에 '윤달에는 송장을 거꾸로 세워도 탈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이 달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 탈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소에 꺼려하는 묘의 보수, 이장(移葬), 이주(移住) 등을 서슴없이 행한다.

제2장 민간신앙(民間信仰)



제1절 동 제(洞祭)

1. 개요

마을 사람들의 공동체적 삶 모습과 삶 공간은 사람들 자신들만의 현존 뿐 아니라 그 너머에 존재하는 조상들이나 여타 초자연적 존재들과 더불어 이루어진다. 이것이 전통적인 마을 사람들 삶의 공동체적 양식이며 마을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이다. 동제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이 공동으로 신봉하는 초자연적 존재에 대해 행하는 공동의례이다. 동제는 사람들과 초자연적 존재와의 관계 성립이라는 순전한 종교적 의미 뿐 아니라 그 공동의 신앙을 갖고 공동으로 의례를 행한다는 점에서 집합의식의 표출과 강화라는 사회 문화적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동제의 변화, 예를 들어서 그 약화와 소멸은 마을 사회와 문화 자체의 그 어떤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11].

함평군 동제의 경우도 제의의 과정이 우리나라 대부분 마을들이 그러하듯이 간소화되거나 소멸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현행되고 있는 동제를 중심으로 그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2월 1일·1월 3일이 제일인 곳도 있으나 대체로 정월 보름을 중심으로 동제를 지낸다. 제관은 1명~5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동회를 열어서 덕망이 있고 정결하며 생기복덕(生氣福德)이 맞는 사람으로 엄격히 선출했던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연장자, 이장 등이 제를 주관한다. 제물로는 메·주(酒)·과(果)·포(脯)·탕(湯)·떡에 돼지고기나 소고기 등이 옛날과 거의 변함없이 제상에 오른다. 제의과정은 대부분 유교식 절차를 따르고 있다. 특히 예전에 비해 많이 간소화된 것은 금기사항과 동제를 신성시했던 마을 사람들의 의식이다. 곧 제관이 제의 전 바깥출입, 부부 동침, 언행 등을 삼간다거나 제장 주위와 마을 입구에 황토를 깔고 금줄을 쳤던 행위 등이 완화 또는 생략되어 있다.

그러나 비록 약식화 되어 있는 의례이지만 다음의 몇 가지 관점에서 그 의의가 이야기 될 수 있다.

먼저 종교적인 측면에서 그 기능을 보면, 동제는 동민들에게 살아 있는 현재적 종교로서 정신적 불안을 해소시켜주고 생활적 희망을 주고 있다. 동제는 재앙과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고 풍요로워지기 위한 동민들의 공동제의여서 동제를 통하여 동민들은 심적 균형을 유지하고, 생활의 불안을 해소하며, 동제를 통하여 건강과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생활적 희망을 가

11) 조경만·박광석, 「고흥지방의 민속자료」, 『고흥군의 문화유적』, 국립목포대학교박물관, 1991. 348쪽

지게 된다. 또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동제는 사회적 정통성을 계승시켜주면서 동민들의 심적 유대와 단합을 가져오고 자주적 의지력을 주기적으로 보강시켜 주는 기능이 있다. 과거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동안 조상들이 지내온 동제를 그대로 답습, 계승하면서 동민들이 한 마을의 공동운명체라는 소속감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조상들이 생활해온 '본(本)'을 그대로 이어가게 된다. 따라서 사회변동 속에서도 동제는 사회적 정통성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와 같은 동제를 통하여 동민들이 공동으로 풍요와 건강을 지키려는 생활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어 동민들의 소속감과 유대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동제는 또 자기가 사는 자기 마을의 풍요와 건강을 자기 스스로 지키겠다는 자주적 의지력을 길러주는 결과와 함께 서로가 합심하여 자기의 생활터전을 자기가 지켜나가려는 자주력을 후대에 물려주는 본보기가 된다. 그래서 동제는 한국재래의 종교·사회적 '본(本)'이 그대로 계승되는 문화적 정통성을 간직하고 있다[12].

여기에 수록된 마을별 사례는 기존에 조사된 내용으로, 『함평군의 문화유적』·『나산마을사』·『나산들의 사산마을』 등의 책을 인용하였다. 여기서는 이 책의 내용을 전제하거나 함평군사의 체제에 맞게 재편집했고, 조사 당시와 변화가 심한 가구 수, 인구 등은 삭제했음을 미리 밝혀둔다.

한편, 전남대학교 나경수 교수가 「호남마을굿총서」로 첫 번째 펴낸 『함평군 마을굿』에는 현재(2006년 조사기준)까지 이어지고 있는 동제 33개소가 소개되어 있다. 이 책은 조사지역의 마을개관, 당산제의 개요, 당산제의 준비, 당산제의 진행, 영험담, 총회(결산)와 부대놀이, 당산제에 대한 주민의식 등을 자세히 기록하여 이해가 쉽다. 다음 표[13]는 함평군에서 조사(문헌, 현장조사)된 46개소의 동제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1> 함평군의 동제 현황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당형태	당신명칭	전승여부	기 타
나산면 구산리 원구산	당산제	정월 열나흗날(자정~15일 새벽 3시)	당산나무 (팽나무)	· 웃당산(당산할아버지) · 아랫당산(당산할머니, 제사는 지내지 않음)	지속(2006년 현장조사)	· 제관 6명과 화주 1명 선정 · 화주는 당산제를 지내고 3일 후에 삼오제를 지내야 함 · 현재 당산굿을 치며, 축문 있음
나산면 나산리 방하	천룡제	택일(섣달 그믐경 자정)	제단	· 천룡지신	중단	
나산면 수하리 마산(말뫼)	산신제 청룡제 당산제	정월 열나흗날(저녁5시~새벽1시)	당산나무	· 산신(산신제) · 청룡이(청룡제) · 당산할머니 (당산제)	중단	· 지신밟기를 했으나 중단

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7, 1997. 325쪽

13) 나경수 외, 『함평군 마을굿-호남마을굿총서[1] 함평군편-』, 민속원, 2007. 324~329쪽 '함평군 마을굿 문헌 및 현장조사 현황' 표 인용. 이 표 가운데 참고문헌·제보자 항목은 삭제했음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당형태	당신명칭	전승여부	기 타
나산면 용두리 선박	당산제	정월 열나흗날	당산나무	· 당산할아버지 · 당산할머니	중단	
나산면 월봉리 안영/용산	당산제	정월 열나흗날(밤 9시~12시)	당산나무(느티나무)	· 당산할아버지(마을입구 도로변)	지속(2006년 현장조사)	· 유사 3명 선정하여 제를 지냄 · 현재 당산굿을 치며, 축문 있음
나산면 이문리 사장	당산제	정월 열나흗날	당산나무	·윗당산(할아버지) ·아랫당산(할머니)	중단	· 걸궁
대동면 강운리 상강	당산제	정월 대보름(14일 자정)	당산나무(팽나무)	· 당산할아버지(마을입구 모정 옆)	지속(2006년 현장조사)	· 제주 1명 선정하여 제를 지냄 · 현재 지신밟기 전승
대동면 덕산리 아차동	미륵제(당산제)	정월 열나흗날(자정)-원래 이월 초하루에 지내다, 1990년 현재 날짜로 바꿈	선돌(입석)	· 미륵할머니(당집이 있음) · 아들미륵(사위라고도 함, 마을입구) · 딸미륵(모정 앞에 있음)	지속(2006년 현장조사)	· 미륵할머니 설화가 전함 · 여자 1명이 제를 주관 · 현재 지신밟기 전승 · 축문 있음
대동면 용성리 금성	당산제	정월 열나흗날	당산나무	· 당산할머니	중단	· 줄다리기 · 걸궁
대동면 용성리 정창	당산제	이월 초하루(오전 11시)	당산나무	· 당산할머니(당산할매)	중단	· 걸궁
손불면 궁산리 덕산	당산제	정월 대보름	당산나무	· 당산할아버지 · 당산할머니	중단	· 걸궁
손불면 대전리 수문	수살제	정월 열나흗날(오전 7~8시)	입석	· 수살님	중단	
손불면 월천리 어전	당산제	정월 대보름	입석 당산나무	· 당산할아버지 · 당산할머니	중단	
신광면 동정리 수정동	당산제	정월 대보름(정오)	당산나무(느티나무)	· 당산할머니(마을입구 모정 앞) · 당산할아버지(제사 지내지 않음)	지속(2006년 현장조사)	· 이장과 원로들이 제를 주관 · 제물은 부녀회에서 장만 · 줄을 드려 당산에 옷을 입힘 · 현재 당산굿을 침
신광면 동정리 신여	수살제	정월 대보름(정오)	당석(입석)	· 암수살님	중단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당형태	당신명칭	전승여부	기 타
신광면 삼덕리 덕천	당산제	정월 초사흘 (밤 10~11시)	당산나무	· 할아버지당산 · 할머니당산 · 아들당산(웃당산, 웃수살거리) · 딸당산(아랫당산, 아랫수살거리)	지속(2006년 현장조사)	· 제관 5명 선정하고, 혼자 사는 여자(50세 이상) 1명을 선정하여 제물을 장만하게 함 · 축문이 있고, 당산굿을 침
신광면 원산리 덕동	당산제	정월 대보름 (오전 10시)	당산나무 (마을 숲)	· 당산할머니(마을 입구의 느티나무) · 당산할아버지 (제사 지내지 않음) · 아들당산(제사 지내지 않음)	지속(2006년 현장조사)	· 제관 1명이 제물 장만과 제사의 모든 과정 주관(여자도 가능) · 치배들이 당산굿을 침
신광면 월암리 연천	당산제	정월	당산나무 (느티나무)	· 당산할머니(마을 어귀 모정 앞) · 당산할아버지 (제사 지내지 않음)	지속(2006년 현장조사)	· 촌유사 1명과 제관 3명이 주관 · 입석과 당산에 줄을 감음 · 줄다리기는 5~6년 전부터 중단 · 굿을 치고 한글 축문을 읽음
엄다면 송로리 송촌	당산제	정월 대보름 (밤 8시경)	당산나무 (소나무)	· 당할머니 · 당할아버지는 1988년 동각 건립 때 없어짐	중단	· 줄다리기
엄다면 신계리 우평	당산제	정월 대보름	당산나무 (팽나무)	· 당산하나씨	중단	
엄다면 신계리 장동	당산제	정월 대보름 (오전 10시)	입석	· 당산하네(마을 왼쪽 밭둑에 있음) · 당산할매(마을 오른쪽 밭둑에 있음	지속(2006년 현장조사)	· 마을촌장이나 이장이 주관 · 5~6년 전까지 줄다리기를 하고 2기의 입석에 줄을 감았음 · 현재도 당산굿을 침
엄다면 신계리 화계	선독제	정월 대보름	입석	· 할매독(할머니독, 마을입구 오른쪽)	지속(2006년 현장조사)	· 마을이장이 화주를 맡아 제물을 장만하고 현장에서 제관을 선정함 · 줄을 드려 할매독에 옷을 입힘 · 대학생 농악패가 마당밟기를 해줌
월야면 계림리 가차	선독제 (동제)	정월 대보름	당석(입석)	· 어른님선돌 · 망구님선돌	중단	
월야면 용월리 월봉	당산제	정월 대보름 (오전 10시)	당산나무 (소나무)	· 당산(당산나무)	지속(2006년 현장조사)	· 연장자순으로 돌아가면서 제관을 맡음 · 축문을 읽음
월야면 월계리 덕산	당산제	8월 15일(양력), 칠월 백중에 지내다 20년 전부터 현재 날짜로 변경	당산나무 (느티나무)	· 당산할머니 · 마을 뒤 칠봉산을 당산할아버지라 하는데, 제를 지내지 않음	지속(2006년 현장조사)	· 7명의 제관을 선정하는데, 생기복덕이 맞으면 여자도 가능 · 당산굿과 샘굿을 침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당형태	당신명칭	전승여부	기 타
월야면 월계리 석계	당산제	정월 열나흗날(오전 10시)	입석	· 선돌(석계당산)	지속(2006년 현장조사)	· 마을이장이 제관 · 줄을 드려 줄다리기를 하고 선돌에 옷을 입힘
월야면 월야리 순촌	당산제	정월 열나흗날(오전 11시)	당산나무(팽나무)	· 당산(마을 입구 시정거리)	지속(2006년 현장조사)	· 제관 1명 선정 · 줄을 드려 당산에 옷입히기 · 농악을 치고 축문을 읽음
월야면 정산리 서촌	당산제	정월 열나흗날(저녁 7시)	당산나무(왕버들)	· 당산(모정 왼쪽)	지속(2001년부터 당산제를 지내기 시작함, 2006년 현장조사)	· 마을이장이 주관
월야면 고막리 원고막	당산제	정월 열나흗날(자시)	당산나무(팽나무)	· 당산할아버지(1970년대 수몰) · 당산할머니(고사함) · 당산아들(마을 앞 천변에 있음)	지속(2006년 현장조사)	· 마을이장이 제주 ·당산굿을 침
학교면 월산리 송정	당산제	정월 열나흗날(오후 5~7시)	당산나무(느티나무)	· 당산할아버지(원래는 소나무이나, 고사한 뒤 느티나무를 심어 제를 지냄)	지속(2006년 현장조사)	· 마을이장이 제관 · 당산굿을 치고, 축문을 읽음
학교면 월산리 신흥동	당산제 선독제	정월 대보름(오전 8~11시) 칠월 백중(오전 10시)	당산나무 입석	· 당산할머니(소나무, 모정 옆) · 선독	지속(2006년 현장조사)	· 제관 4명을 선정하여 제 지냄 · 줄다리기 한 후 당산에 줄감기 함 · 선독제는 마을이장과 촌계장이 주관하여 지냄
학교면 학교리 회춘동	당산제	이월 초하루(오전 11~12시)	당산나무(팽나무)	· 당산할머니(당산할매)	지속(2006년 현장조사)	· 줄감기
함평읍 가동리 가동	당산제	정월 대보름(정오)	당산나무(소나무)	· 소나무당산(마을 중앙)	지속(2006년 현장조사)	· 노인회장과 이장이 제관 · 줄을 만들어 줄다리기를 하고 당산에 줄을 감음 · 농악패가 굿을 침
함평읍 대덕리 고양촌	당산제	정월 열나흗날(정오)	당산나무	· 할머니당산(팽나무, 마을 앞 도로변) · 할아버지당산(느티나무, 마을 뒤편)	지속(2006년 현장조사)	· 노인회장이 제주 · 농악을 치고 줄을 만들어 당산에 줄을 감음
함평읍 대덕리 백곡	당산제	정월 대보름(오전 9시)	당산나무(팽나무)	· 당산할머니(마을 앞)	지속(2006년 현장조사)	· 자원한 마을사람이 제주 · 줄을 만들어 당산에 옷 입히기

전승지역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당형태	당신명칭	전승여부	기 타
함평읍 성남리 성북	당산제	정월 대보름(정오)	당산나무 (소나무)	· 당산할머니 (마을 입구) · 당산할아버지 (마을 입구)	지속(2006년 현장조사)	· 제관 3명과 '당산제 시리' 해 놓는 사람 1명을 선정 · 줄을 만들어 줄다리기를 하고 당산에 옷 입히기 · 농악대가 굿을 치고 축문을 읽음
함평읍 성남리 소등	당산제	정월 열나흗날(저녁 8시)	당산나무 (팽나무 2) 우물	· 당산할머니 (마을회관 앞) · 당산할아버지 (마을회관 앞)	지속(2006년 현장조사)	· 촌계 때 유사 1명 선정 · 당산굿, 샘굿, 지신밟기를 함
함평읍 수호리 대등	당산제	정월 대보름(오전 11~12시)	당산나무 (느티나무)	· 당산할머니 (모정 옆)	지속(2006년 현장조사)	· 마을 당골과 연장자가 제 주관 · 농악을 치고 줄을 만들어 줄다리기를 한 후 당산에 줄감기
함평읍 수호리 송정	당산제	정월 대보름(오전 10~12시)	당산나무 (팽나무)	· 당산할머니 (마을 앞)	지속(2006년 현장조사)	· 이장이 제를 주관 · 샘굿을 치고 줄을 만들어 당산에 옷 입히기. 줄다리기는 7~8년 전에 중단
함평읍 자풍리 노송	당산제	정월 열나흗날(오후 5시)	당산나무 (팽나무)	· 큰당산(팽나무 2그루, 당산할머니) · 작은당산 (팽나무 1그루) · 우물	지속(2006년 현장조사)	· 제관 3명을 선정하고 제물은 이장이 장만 · 우물을 품고 샘굿을 치며, 대보름에 줄을 만들어 줄다리기를 한 후 당산에 옷 입히기
함평읍 장교리 자명	당산제 (시정제)	이월 초하루(오전 10~11시)	시정(모정)	· 당산신 (마을 입구 시정)	지속(2006년 현장조사)	· 마을 최고령자가 제관을 맡음 · 축문을 읽음
함평읍 진양리 양림	당산제	정월 열나흗날(오후 4~5시)	당산나무 (느티나무)	· 당산(당산신, 마을 뒤쪽에 있음)	지속(2006년 현장조사)	· 마을이장이나 연장자가 '헌주'를 맡아 제를 주관 · 농악을 치고 축문을 읽음
해보면 대각리 오두	당산제	정월 대보름(오전 10시)	당산나무 (느티나무)	· 당산나무 (마을 동쪽 열녀각)	지속(2006년 현장조사)	· 마을 연장자나 이장이 제 주관 · 줄을 드려 당산에 옷 입히기 · 당산굿을 침
해보면 산내리 원산	당산제	정월 대보름(오전 ~12시)	입석(선독)	· 선독할매 (모정 앞)	지속(2006년 현장조사)	· 마을 연장자가 제를 주관 · 줄을 틀어 선독에 옷 입히기
해보면 용산리 소성	당산제	정월 대보름(오전 10시)	입석(선독)	· 비석할매 (마을회관 근처)	지속(2006년 현장조사)	· 마을 연장자 서너명이 제 주관 · 줄을 틀어 비석에 옷 입히기 · 지금도 굿을 침
해보면 용산리 주현	당산제	정월 열나흗날(오전 11시)	당산나무	· 뒷동산(해보중학교 뒤 플라타너스 당산할아버지) · 앞당산(모정 옆 소나무, 당산할머니)	지속(2006년 현장조사)	· 제장마다 3명의 제관을 선정 · 줄을 만들어 줄다리기를 한 후 당산에 옷 입히기 · 샘굿을 침

2. 마을별 사례

1) 함평읍 자풍리 노송마을 당산제[14]

노송마을은 해발 257m의 감방산 남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행정구역상 함평읍 자풍리에 속하며, 소재지에서 무안군 지도읍을 잇는 국도를 따라 약 6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노송이라는 마을 이름은, 마을이 형성되기 이전에 울창한 소나무 숲을 이루고 있었다 하여 붙여진 것이다. 주민들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당산나무는 마을 앞에 50cm 간격을 두고 서 있으며 서쪽은 할아버지당산, 동쪽은 할머니당산으로 불린다. 두 그루 당산나무 앞에는 극락사가 폐사된 후 옮겨온 동자상이 세워져 있다.

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1월 15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제를 지내오고 있다. 제는 당산할머니에게만 지낸다. 단 마을에 부정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해에 제를 지내지 않는다.

제일이 다가오면 회의를 통해 덕망 있고 부정이 없는 사람 중에서 수헌 1명, 아헌 1명, 종헌 1명, 심부름하는 집사 2명의 제관을 선정한다. 제물을 과자류와 밤, 대추, 과실류, 술 등을 이장이 구입해 온다. 제에 드는 비용은 마을 공동자금에서 충당하는데, 1992에는 5만원 정도 소요되었다. 제 하루 전인 14일에는 마을의 정화를 위해 굿을 치며 마을을 한바퀴 돈다. 이때 청년들이 꽹과리나 징을 치며 각 호마다 보통 한뭇씩의 짚을 거두러 다닌다. 거두어들인 짚은 줄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제 당일 오전 9시경에는 진설-헌주-재배-헌식-음복 순으로 제가 진행된다. 독축과 소지는 없고 구두로 기원 내용을 고한다.

제를 지낸 후 남, 여 편을 갈라 줄다리기를 하는데 횟수는 정하지 않고 여러 번 해서 많이 이기는 쪽을 승리로 한다. 여자가 이기면 풍년이 든다는 속신이 있다. 줄다리기가 끝나면 할머니당산에 옷을 입힌다. 15일에 옷을 입힐 때도 있고 16일에 입힐 때도 있다. 줄다리기 횟수가 많아지면 하루를 넘겨 옷을 입히기 때문이다. 할머니당산에 옷을 입힌 후 마을 공동 우물에 샘굿을 치고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지신밟기를 한다. 동원되는 풍물은 징 1, 꽹과리 3, 장고 1, 소고 5개 정도이며 마을 사람이면 누구나 농악대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 지신밟기에 걷힌 수입금은 마을 공동비용으로 사용된다.

2) 함평읍 대덕리 백곡마을 당산제[15]

백곡마을은 읍 소재지에서 영광을 잇는 국도를 따라 약 2km정도 떨어져 있다. 과거에는 동백이 우거졌다 해서 동백정마을로 불리었다고 한다. 주민들의 주요 생업은 농업이다.

이 마을에서는 매년 정월 대보름 정오경에 당제를 지낸다. 당제의 신격은 당산할아버지, 할머니이며 제장을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동백방죽 앞의 두 그루의 당산나무 앞이다. 현재 제

14) 조경만·서인석·곽유석·선영란, 「함평군의 민속자료」, 『함평군의 문화유적』, 국립목포대학교박물관·전라남도·함평군, 1993. 316~317쪽

15) 주 3)과 같은 책 317쪽

는 당산할머니에게만 지내고 있다. 제일이 가까워지면 마을 회의를 통해 연장자 중에서 부정이 없는 한 사람을 제주로 선정한다. 제물을 밤, 대추, 사과, 배, 건포, 곶감, 돼지머리 등이며 제주나 젊은이들이 함평장에서 구입해 온다. 구입해 온 제물로 부정이 없는 집에서 음식을 장만한다. 제 비용은 마을 공동 비용에서 충당하는데, 4만 5천원 정도 소요된다.

제일 아침, 이장이나 마을민 중 한사람이 당산나무 앞에서 징을 쳐 제의 시작을 알린다. 징소리를 들은 주민들은 짚을 한 뭇, 두 뭇씩 가지고 나와 줄을 만드는데 단, 부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이는 제외된다. 줄이 완성되면 남, 여 편을 갈라 줄다리기를 한두 차례 한 후 마을사람들이 어깨에 줄을 메고 당산할머니에게 옷을 입히러 간다. 이때 농악이 함께 흥을 돋운다. 옷 입히기가 끝나면 제주 혼자 제를 지낸다. 제는 진설-재배-헌식-음복 순으로 진행된다. 음복은 제주 혼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마을 주민 모두가 함께한다.

제가 끝난 후 저녁 무렵 1년의 회계·결산보고, 건의사항, 임금결정 등을 의논하기 위한 마을 총회가 열린다.

3) 함평읍 수호리 대등마을 당산제[16]

대등마을은 읍 소재지에서 서쪽으로 약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마을사람의 주요 생계수단은 농업이다.

이 마을에서는 매년 정월 대보름에 두 번 제를 지낸다.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에 한번 지낸 후, 당산나무에 옷을 입힌 뒤 다시 제를 지낸다. 당제의 신격은 당산할머니이다.

제관은 제주 1명과 집사 2명이다. 제주는 마을 최고 연장자인 촌장이 맡으며, 집사는 마을에서 덕망 있는 연장자 중에서 선정한다. 제일 일주일 전부터는 당산나무에 금줄을 쳐서 신성한 곳임을 알리고 제주는 부정한 일을 삼간다. 제물로는 과일류, 나물, 술, 돼지고기 등이 소요되며 제물구입은 주민들의 기증금으로 충당된다.

제일 아침이 되면 풍물꾼들이 풍물을 치면서 각 호마다 짚을 거둔다. 이렇게 거둔 짚을 당산나무 주위로 가져오면 주민들 모두가 참여하여 줄을 만드는데, 이때 부정한 사람은 제외된다. 대보름날 오전 11시경 진설-헌주-재배-헌식-음복 순으로 제가 거행된다. 모여든 모든 사람이 음복을 한 후 마을 사람들은 줄을 들고 온 마을을 한바퀴 돈 후 남, 여 편을 갈라서 3회 정도 줄다리기를 한다. 이기는 편의 1년 운수가 좋다는 속신이 있어 서로 이기려 하나 여자들의 애교와 재치에 남자들이 져준다고 한다. 줄다리기가 끝나면 풍물을 치며 당산나무에 옷을 입힌 후 당산할머니에게 잔을 올린다.

제가 모두 끝나면 주민들이 마을 정자에 모여서 술을 마시며 남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이후, 20여명으로 구성된 풍물꾼들이 가가호로를 돌며 지신밟기를 한다. 지신밟기 때 거두어들인 돈은 마을자금으로 비축되며 일부는 따로 떼어 어버이날 경로잔치 비용으로 사용된다.

4) 신광면 삼덕리 덕천마을 당산제[17]

16) 주 3)과 같은 책 318쪽
17) 주 3)과 같은 책 319쪽

덕천마을은 면소재지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농업이 주업이다.

마을에는 네 그루의 당산나무가 있다. 시정 앞에 딸당산(아랫당산, 아래 수살거리), 마을 중앙에 할아버지, 할머니당산, 덕천사 부근에 아들당산(웃 당산, 웃 수살거리)이 있다. 이 마을에서는 매년 정월 초사흘 저녁 10시경에 당산제가 거행된다.

주요 제장은 마을 중앙에 위치한 할아버지, 할머니당산나무이다. 제관은 제 당일날 연장자 중에서 깨끗하다고 인정되는 분이 담당하며, 제장 주위에는 제 당일 금줄을 치고 황토를 깐다.

제물은 돼지머리, 삼색과일, 나물, 시루떡 등 혼자 사는 여자 중에서 선정된 이가 제물장만을 한다. 제에 드는 비용은 각 호당 성의껏 거출하며 부족할 경우 마을 공동자금에서 충당한다. 제는 진설-헌주-재배-축문-소지-음복 순으로 진행된다. 축문은 해마다 작성한다. 1993년 축문의 나용은 다음과 같다.

堂山祝
維歲次癸酉正月甲辰朔三日丙午幼學相胤敢昭告于
堂山之靈惟此歲首一祭其常神其保佑拒災生祥居民多福百穀盈餘六畜繁盛永尊厥居淸酌脯果儀物不穰誠意攸將神其尙 饗

음복은 제관이 먼저하고 참석한 주민들이 함께 한다. 제가 끝나면 걸궁과 함께 흥겨운 놀이가 계속된다.

한편 음력 정월 보름에는 당산나무에 줄을 감는 의례도 있고, 마을에 부정이 있는 경우에는 2월 초하루에 줄을 감기도 한다. 각 호당 거출한 짚으로 줄이 완성되면 당산나무 앞에서 줄다리기 후 줄을 감는다. 줄 감기가 끝나면 지신밟기와 새암굿을 친다.

마을의 많은 주민들은 당산이 영험하다고 믿고 있으면 6.25 한국전쟁 때처럼 나라가 혼란하고 시끄러우면 할아버지 당산나무가 울면서 빨간색 수액(피)을 흘린다는 이야기도 전해온다.

5) 대동면 용성리 정창마을 당산제[18]

이 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2월 1일 오전 11시경에 당산제를 지낸다. 당산제의 신격은 당산할매이고, 제장은 마을 앞 시정 옆에 있다.

제관은 제 당일 참석한 연장자 중에서 제일 깨끗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되고, 제에 쓰일 제물은 돼지머리, 삼색과일, 나물, 술 등으로 이장이 구입해 온다. 물건을 구입할 때 값을 깎으면 정성이 부족해진다 하여 물건 값을 깍지 않는다. 제에 소요되는 경비는 호당 거출하여 충당한다. 제 당일 아침이 되면 각 호당 한 뭇씩의 짚을 가지고 시정으로 나와 남녀노소 없이 함께 줄을 만든다. 이후, 남 녀 편을 갈라 줄다리기를 한 후 농악놀이와 함께 당산나무에 줄을 감는다. 그 후에 제가 거행된다.

제는 진설-헌주-재배-음복 순이며, 음복 때에는 제관이 먼저 하고 제에 참석한 사람들 중 희망자가 음복한다. 제가 끝나면 마을 주민들은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흥겨운 놀이를 계속한다.

18) 주 3)과 같은 책 320쪽

6) 대동면 덕산리 아차동 미륵제[19]

이 마을에서는 매년 미륵제를 지내고 있다. 전에는 음력 2월 1일에 제를 지내왔으나, 1990년부터 정월 열나흘 날로 옮겨 지내고 있다.

미륵제의 신격은 미륵할머니·아들미륵·딸미륵이며, 제장은 제각 안에 있는 높이 128cm, 두께 66cm, 폭 56cm의 미륵할머니 선돌과, 시정 앞에 위치한 높이 78cm, 두께 34cm, 폭 50cm의 아들미륵, 마을입구에 위치한 높이 108cm, 두께 36cm, 폭 40cm의 딸미륵이다.

미륵할머니 선돌은 옛날 마을 어른들의 꿈에 자꾸 현몽한 것을 대나무 숲에서 찾아 현재의 위치로 옮겨 세워진 것이라 한다. 머리모양은 사람의 형상을 닮았고, 몸체에는 아무런 조각이 없다. 얼굴에는 눈·코·입 등을 사람 모습대로 그려 넣었다. 좌대와 몸체의 하부에는 크고 작은 다섯 개의 둥글고 길쭉한 돌을 세워 놓았는데 이들은 미륵할머니의 손자 '애기돌'이라 한다.

마을 주민들은 미륵할머니가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 역할을 하며, 아들을 점지해주는 분이라고 믿고 있다. 실제로 미륵할머니의 영험으로 아들을 낳았다는 사례들도 있다. 이와 같은 영험함 때문인지 사람들이 제장 주위에서는 항상 행동을 조심하고, 개고기와 같은 부정한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가까이 가지 않는다고 한다.

미륵제의 제관은 마을에서 깨끗한 부부를 선정하여 왔으나 현재는 혼자 사는 사람이 더 부정이 없다 하여 이들 남·여 중에서 1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제관은 제3일 전부터 제장 주위에 황토를 깔고 금줄을 친 후 목욕재계를 하고 부정한 곳의 출입도 삼간다. 제물은 돼지머리, 시루떡, 삼색과일, 나물류, 메, 국 등이다. 제물장만은 마을 위쪽에 있는 고랑샘에서 한다. 제의 경비는 마을 공동자금에서 충당한다.

제일 저녁이 되면 3곳의 선돌 주위에 불을 밝히고 농악을 친다. 자시에는 진설-헌주-재배-소지 순으로 미륵할머니께 제를 지낸 다음, 그 제물로 아들미륵과 딸미륵에게 제를 지낸다. 과거에는 제를 지낸 다음 당산나무에 줄을 감았다고 하나 지금은 행하지 않는다.

7) 엄다면 송로리 송촌마을 당산제[20]

송촌마을은 무안과 함평의 경계를 이루는 광주-목포간 도로변에 있다. 마을 주위가 낮은 구릉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소나무가 무성하게 숲을 이루고 있어 송촌(松村)이라 불렀다 한다. 주요 소득원은 농업이다.

이 마을에서는 음력 정월 보름 밤 8시 경에 당산제를 지낸다. 신격은 당할머니이고, 마을입구에 있는 당산나무 앞이 제장이다. 원래는 할아버지, 할머니 당산나무 두 그루가 있었으나, 1988년 마을 동각 건립 때에 할아버지 당산나무는 소멸되고 현재는 할머니 당산나무 한 그루만 남아있다.

예전에는 마을 연장자 중에서 깨끗한 사람 1명을 제관으로 선정하였으나, 10여년 전부터는

19) 주 3)과 같은 책 322쪽
20) 주 3)과 같은 책 320쪽

마을 이장이 제를 주관해 온다. 한편 마을 부녀회에서는 삼색과일, 나물, 돼지머리 등의 제물을 구입하여 이장 집에서 음식을 장만한다. 제의 경비는 기부금과 마을 부녀회비로 충당된다.

제 당일이 되면 각 호마다 짚을 걷어 줄을 만든다. 이어, 남 녀 편을 갈라 줄다리기를 한 후, 진설-헌주-재배-소지 순으로 기원하는 제가 진행된다.

한편 마을 아주머니들이 따로 촛불을 켜놓고 집안의 화목과 자신들의 출세를 기원하기도 한다. 또한 이 당산나무 잎이 일시에 돋우면 마을에 풍년이 들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가뭄이 든다는 속신도 있다.

8) 학교면 학교리 회춘동 당산제[21]

회춘동은 면소재지에서 월호리를 잇는 도로를 따라 약 1km 떨어진 곳에 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농사를 짓는다. 이 마을에서는 매년 정월 보름 오후 2시경에 당산제를 지내며, 당산제의 신격은 당산할매이다. 제장은 3단의 지대석 위에 있는 당산나무이다.

예부터 이 마을에는 당산할머니의 영험함을 보여 주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온다.

과거 당산나무 자리에 큰 고목이 있었는데, 강한 폭풍우에 견디지 못하여 쓰러지고, 그 뿌리에서 새순이 한창 돋아날 무렵 마을에 질병이 돌고 죽는 사람이 많았다. 어느 날 이 마을 앞을 지나던 선비가 "영험스런 나무에 제사를 모시지 않아 폐촌이 되었구나"라는 탄식을 하였고, 이 말을 들은 주민들이 제를 지내자 마을이 태평하고 6.25동란 중에도 사상자 한 명 없이 무사하였다.

제관은 제 당일 선출하는데 연장자 중에서 제주 1명과 젊은 층에서 집자 2명이 제관이 된다. 제물은 돼지머리, 시루떡, 삼색과일, 나물, 메, 국 등이며 제물구입과 장만은 마을 부녀회에서 주관한다. 제에 드는 경비는 각 호당 거출한 돈으로 충당하고 부족하면 지신밟기 때 모아둔 자금으로 충당한다.

제 당일 아침이 되면 제장 주위에 금줄을 치고, 각 호마다 짚을 들고 마을 앞산으로 모여 줄을 만든다. 이후 남 녀 편을 갈라 줄다리기를 한다. 여자편이 이기면 풍년이 든다하여 대부분 여자들이 승리한다. 줄다리기가 끝나면 당산나무 앞에 줄을 가져다 놓고 제를 지낸다. 제 순은 진설-헌주-재배-축문-소지-음복 순이다. 축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몇월 몇일 당산할머니에게 제를 올립니다. 제물은 충분치 못해도 충분히 음복하시고 마을의 안정과 동민의 건강과 자손들의 번창을 비옵니다."

음복은 제관과 집사가 먼저하고 나머지 참석자 중 희망자들이 한다. 제가 끝나면 걸궁을 치며 줄을 감는다.

9) 나산면 수하리 마산마을 산신제·천룡제·당산제[22]

마산마을은 면소재지와 약 2.5km 떨어진 곳에 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농업이 주업이다. 마을 남쪽으로는 국사봉, 북쪽으로는 옥녀봉이 자리 잡고 있다.

---

21) 주 3)과 같은 책 321~322쪽
22) 주 3)과 같은 책 323~324쪽

속칭 '말뫼'라 부르기도 하는 이 마을은 매년 1월 14일 저녁 5시부터 새벽 1시까지 산신제, 천룡제, 당산제 순으로 동제를 지낸다. 산신제에서 신봉되는 신격은 산신이고, 천룡제는 천룡이, 당산제는 당산할머니이다. 산시제의 제장을 국사봉 중턱에 있으며, 천룡제의 제장은 마을 뒷산에 당산제의 제장은 당산거리라 부르는 곳에 있다.

제 4일 전에 생기복덕을 보고 축관 1명과 유사 2명을 선정한다. 일단 제관으로 선정되면 유사는 제 3일 전부터 당산 제장 주위와 제관 집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깔며 목욕재계 하는 등 정성을 다한다. 유사는 제 지내기 전부터 제가 끝난 1년 후까지 출산, 상이 있는 집을 피하고 부정을 삼가며, 축관도 제 후 3개월까지 부정한 곳의 출입을 삼간다. 제물은 명태, 콩나물, 미역, 삼색과일, 생선 등으로 촌계장이 나산장에서 구입해 온다.

제물장만은 유사 집에서 하는데 양념은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 비용은 540평의 동제답에서 나오는 벼 5가마의 소작료로 충당한다. 제 당일 5시경에 유사와 축관이 국사봉에 올라 삼색과일, 나물, 모치, 시루떡, 술 등을 제단에 진설해 놓고 재배-독촉-소지 순으로 산신제를 지낸다. 축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山神祝
惟神有靈 有求必聽 吉慶鼎臻 而我衆生 有願必遂 災異咸消 玆値上元 于以頻藻
物誰韮薄 群情顒若 潔以酒禮 誠則懇至 神其格思 庶幾眷顧 尙 饗

산신제를 마친 유사와 축관은 마을 뒷산으로 옮겨 천룡제를 지낸다. 제물과 제 순은 산신제와 동일하다. 천룡제 축문은 다음과 같다.

天龍祝
國駟來龍 衆魔退伏 而我衆生 震坎逶迤 百祥湊集 偏被其佑 旣受福祿 歲正月望
揖彼迴酌 遠除災異 祇遵古禮 薦此明粢 庶幾靈神 來歆來格 尙 饗

산신제와 천룡제가 끝나면 이어 당산제를 지낸다. 당산제는 진설-허주-재배-독축-소지-음복 순이다. 제물은 국, 밥, 떡, 건명태, 탕, 모치(생선), 미나리나물, 무나물, 뜸부기나물, 대추, 밤, 감 등이다. 당산제 축문은 다음과 같다.

社壇祝
惟我土神 擇仁莫居 芯芬享祀 赫〇靈異 莫非神佑 齊心祝願 神其眷顧 辟除不祥
居此生靈 災消福降 攘去疫虞 永無艱虞 三豊大登 敢將至誠 六畜繁滋 用伸虔告
謹告 尙 饗

음복은 제관, 마을주민 순으로 한다. 제사에 쓰인 음식을 먹으면 그해 운수가 좋다하여 제에 참석한 주민들은 서로 음복을 하려고 한다. 제가 끝나면 풍물을 치며 모닥불을 피워놓고 당산

거리(시정)에서 흥겨운 놀이를 계속하다 자정이 지난 후에야 각자 집으로 들어간다. 15일에는 가가호호를 돌며 지신밟기를 한다. 유사 집에서부터 먼저 시작하여 동네를 한바퀴 돈다. 지신밟기가 끝나면 촌계회의가 있다. 이 자리에서 동제에 대한 결산보고와 여타 사항들을 타협하고 요구사항을 수렴한다. 또한 1년 마을사업에 대한 지출 결산보고도 겸한다.

10) 월야면 계림리 가차마을 동제[23]

가차마을은 동쪽으로 주전, 북쪽으로 구룡목, 남쪽으로 시목마을과 이웃하고 있는 행주형(行舟形)의 집촌(集村)이다. 마을 뒤로 가치남 뒷등이 있고 앞으로 고래실 들과 기야대 들이 펼쳐져 있다. 이 마을에는 주전마을과 경계를 이루는 도로에 '망구님 선독'이, 함동수리조합 제방둑 위에 '어른님 선독'이 있다. 매년 정월 보름이 되면 선독에서 제를 지내고 줄을 감는다. 남성우월주의 탓인지 '망구님' 보다는 '어른님'에 대한 공경이 더 강하다고 한다.

제관은 마을의 연장자 중에서 선정한다. 제물을 삼색과일, 시루떡, 건포, 술 등이며 제에 사용되는 경비는 각 호당 거출한다. 또한 제 하루 전인 열나흘 날이 되면 각 호당 짚 한 뭇씩을 거출하여 줄을 만든다. 제일 저녁 8시경이 되면 남·여 편을 나누어 줄다리기를 한 후 어른님 선독에 줄을 감고 제를 지낸다. 제의 절차는 진설-재배-초헌-독축-아헌-종헌-소지 순이다. 제가 끝나면 제관이 먼저 음복하고, 제에 참석한 주민들이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11) 해보면 용산리 소성마을 비석할머니와 동제[24]

소성마을 앞 공터에 '비석할머니'라 불리는 입석 1기가 서 있다. 1979년에 주민들이 2단의 시멘트 기단을 만들어 이 입석을 보호한 바 있다. 매년 정월 대보름 오전 11시경에 비석할머니에 대한 제를 지낸다. 제관은 특별히 선정하지 않고 제 당일 참석한 최고 연장자가 술 따르고 먼저 의례를 행하는 정도이다.

제물은 돼지고기, 메, 미역국, 삼색과일, 나물류 등이며 제에 사용되는 비용은 호당 거출한다. 제 하루 전인 14일에는 부정이 있다고 생각되는 집을 제외하고 호당 한 뭇씩의 짚을 거출하여 동네 청년들이 줄을 만든다. 줄 만들기가 끝나면 우선 샘굿을 치며 한바퀴 돈다. 제 당일에는 마을 주민들이 공터에 모여 남, 여로 편을 갈라 줄다리기를 한다. 줄다리기가 끝나면 11시경에 진설-헌주-재배-소지-음복 순으로 제를 지낸다. 제 지낼 때 아들을 낳지 못한 집에서 술 따르며 아들 낳기를 기원하면 소원을 이룬다는 속신도 있다.

12) 신광면 동정리 신여마을 수살맥이[25]

신여마을은 면소재지에서 북서쪽으로 약 6km지점에 있다. 1983년까지만 해도 마을 앞에는 좌측에 숫 수살이, 우측에 암 수살이 있었다. 그러다가 농지정리 작업 때 숫 수살은 땅속에 묻혀버리고 현재 암 수살만 남아있다.

마을에서는 매년 정월 보름 암 수살에 줄을 감는다. 14일 집집마다 짚을 걷어 줄을 만든 다

23) 주 3)과 같은 책 323쪽
24) 주 3)과 같은 책 325쪽
25) 주 3)과 같은 책 326~327쪽

음 15일 정오경에 남 녀 편을 갈라 줄다리기를 하고 줄을 감으며, 마을에 부정이 있으면 2월 1일에 한다. 특별한 제는 지내지 않으며 단지 걸궁치면서 암 수살에 줄을 감고 인사를 드리는 방식이고, 구경 온 주민들은 세 번 목례로 인사한다. 10여년 전에는 암 수살에 감아 놓은 줄에 교인들이 불을 지른 사건이 있었고 그 후 2년 동안 줄을 감지 않은 적도 있다.

이 마을에 수살맥이를 세운 것은 마을 뒷산인 학이봉의 학(형상)이 날아가지 못하게 다리를 묶어두기 위함이라는 말이 전해온다.

13) 손불면 대전리 수문마을 입석·수살제[26]

수문마을은 면소재지 마을로 이 마을에서는 매년 1월 14일 오후 7시에서 8시 사이에 수살제를 지내며 15일에는 줄을 감는다. 신격은 수살이며, 제장은 수살 앞이다. 부정이 없는 자가 제관이 되고 제물구입 등의 준비는 이장이 한다. 음식마련은 이장이 지목한 부정이 없는 집에서 한다. 비용은 가구당 쌀 한 되씩을 거출하여 충당한다.

제 순서는 진설-헌주-재배-음복 순이다. 음복 때에는 제관이 먼저 음복하고 풍물꾼들과 구경 온 동네 주민들 중 희망자가 한다. 그 다음에 15일 아침이 되면 집집마다 짚을 걷어 줄을 만들고 줄다리기를 한 후 옷을 입힌다. 마을 주민들은 수살에 옷을 입히지 않으면 마을 최고령자 꿈에 나타나 춥다고 꾸짖으므로 해년마다 거르지 않고 옷을 입힌다고 한다.

14) 나산면 나산리 방하마을 천룡제(天龍祭)[27]

방하마을은 원래 진주강씨들이 개촌(開村)했다고 전해오나 자세한 자료는 없다. 이후 1570년경 이웃 대정마을에 입촌한 안충달의 둘째 아들인 안사면이 옮겨와 살면서 죽산안씨의 자작일촌이 되었고, 대대로 많은 인물을 배출해 냈다.

천룡제는 방하마을을 중심으로 마을의 번성과 아울러 과거에 합격하는 인재가 많이 나오기를 기원하기 위해 지내던 마을 제였다. 천룡제는 중간에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제의를 봉행치 않다가 마을의 인맥이 끊기게 되자. 마을 사람들이 뜻을 모아 1798년부터 제를 다시 지내게 되었다. 이듬해 1799년에는 제의의 유지를 위해 천룡계라는 동계(洞契)를 만들고, 제 봉행에 필요한 경비 조달을 위해 전답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1805년 계중수를 거쳐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다.

방하마을의 천룡제는 이 제의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과 관련된 <음지천룡계안>과 창계(創契) 후 두 번째 문서인 <천룡계전곡경리부>가 남아있다. 특히 이 <천룡계안>에는 천룡제를 지낼 때의 진설도(陳設圖)와 계를 만들 때의 취지가 나타난 회유문(回諭文), 모임을 통해 합의된 사항을 기록한 완의(完議), 천룡제계서(天龍祭契序), 제 일시 및 합의 사항을 정리한 10조목의 조약, 제향시의 거원(擧員), 천룡제 축문(祝文), 계에 참여한 구성원 명단의 좌목(座目) 등이 남아있어서 주목된다. 그리고 이 천룡계를 운영하면서 계의 구체적 시행 내용을 기록한 <천룡계전곡경리부>는 제향시의 기금인 수입·지출 내력과 계 소유 전답의 소출관리, 추수기나 경작자에

26) 주 3)과 같은 책 327쪽
27) 사단법인 함평군향토문화연구회·나산마을사편찬위원회, 『나산마을사』, 1996. 213~225쪽

게 받아들인 전곡의 수입이 기록되어 있으며, 계에서 소유하고 있는 임대 물건의 사용료를 받은 내역과 매년 구입한 제물의 목록과 그때그때 시행한 유사가 기록한 물건기(物件記)가 있다[28].

천룡제의 제의 절차를 준비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관(祭官)의 선정과 택일(擇日)

천룡제 제관의 선정과 택일은 섣달그믐께 그 해의 천룡제 유사(有司)들이 모여서 마을사람들 가운데 생기(生氣)와 복과 덕망을 맞춰보고 선발을 한다. 대체로 나이가 지긋하고 몇 차례 제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제를 치를 유사로 뽑히는데, 집안에 산고(産故)와 상(喪)이 없어야 한다. <음지천룡계안>에 의하면 제향시 거원은 헌관(獻官) 3인, 축관(祝官) 1인, 집사(執事) 1인, 정재(正齋) 1인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은 제관 두 사람과 음식 준비하는 정재부부를 선정한다. 제당일 제장에는 이 네 사람만 올라갈 수 있다.

제관으로 일단 선정이 되면, 천룡제일을 기준으로 앞 뒤 3일간은 철저히 금기를 지키는데, 대문 앞에 황토를 깔고 금줄을 쳐서 근신 중임을 알리고 잡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매일 찬물로 목욕재계하며 화장실 출입 후에도 반드시 목욕재계 하는 등 각별히 정결을 유지하고, 부부간에도 각방을 쓴다. 제를 지낸 뒤에도 6개월간은 상가 출입을 삼가는 등 일신상의 몸가짐에 유념한다. 이렇게 엄격히 근신행위를 하는 것은 만약, 그 해에 마을 내에서 우환이 발생하면 천룡제를 잘못 지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천룡제 날짜 택일한 후 만약 마을 내에서 출산이 있거나 초상이 나면 2월로 연기하여 제를 지낸다.

·제물 준비

제물의 준비는 가까운 나산장(4일, 9일)을 이용하지만 날짜가 여의치 않으면 함평읍 장에서 살 때도 있다. 구입은 유사 2명이 한다. 물론 물건값을 깎는 등 흥정을 하지 않는다. 또한 잡인과의 상면도 피하고 말도 되도록 적게 한다.

제물 준비는 정재(正齋)가 맡는다. 제물에는 일체 간을 하지 않으며, 제주(祭酒)도 과거에는 '둠벙주'라는 민속주를 담가 썼으나 지금은 막걸리를 사다 사용한다. 제물 준비에 필요한 그릇은 매년 새 것을 구입하여 사용한 뒤 정재가 가져간다.

·경비(經費)

천룡제를 지내기 위한 소요 경비는 천룡계에서 지출되는데, 계를 만들 당시 회유문에서 기룡동·방하동·남호동 주민들에게 돈(錢)과 쌀(米) 그리고 조(租) 등을 개인의 형편에 따라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은 위토답이 마련되어서 소출을 받고, 천룡제 소유의 차일 임대료를 받아 적립하여 계를 꾸려 나간다. 또한 방하 마을로 새로 이사 온 세대가 천룡계에 입계할 때 내는 쌀 3되도 계 자금으로 적립된다.

·신위(神位)

<천룡제계서>에 '이 제사는 천신(天神)과 지지(地祇)에게 지내는 것이므로 공경한 마음을 갖

28) 자세한 내용은 『함평군사』 제1권 1036~1040쪽 참조

고 예의를 다 한다'라 한 것으로 보아 본래는 신위가 둘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은 '천룡지신(天龍之神)'이란 한 분의 신위를 모시고 있다.

·제차(第次)

유사들에 의해 제관과 정재가 정해지고 제일이 결정되면 제관·정재는 자신의 집 대문, 천룡제 제장 입구, 제단 주위에 황토를 깔고 왼 새끼를 꼬아 백지를 끼운 금줄을 쳐서 잡인의 출입을 금한다. 천룡제는 밤 12시에 시작된다. 4명의 제관들이 제장으로 갈 때는 인적이 드문 대숲 사이의 옛길을 택한다. 그것은 정갈치 못한 주민들을 만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제의 시간을 미리 알려 제장 주변의 통행을 금하고, 제가 끝날 때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한다.

차례는 유교식으로, 먼저 단을 청결히 한 다음 향을 피우고 초를 켜서 제장을 정화한 뒤 설상(設床) 한다. 이어 제관 재배-초헌(정재)-독축-종헌-재배-철상 순으로 진행된다. 제가 끝나면 과일과 몇 가지 제물을 백지에 쌓아 땅에 묻은 다음, 소지를 올린 뒤 조용히 내려온다. 제관들은 정재 집에서 간단히 음복을 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간다.

·음복(飮福)

제를 끝내고 그날 점심은 음식을 준비한 정제 집에서 마을의 전 계원들과 음복례를 한다. 이때는 천룡계를 결산하고, 품삯이나 정각의 수리 같은 마을내의 중요한 안건 등을 협의 결정한다. 천룡제를 지낼 동안에는 쇠 소리를 내지 못하지만, 이때부터는 풍물을 치는 등 마당밟기 준비에 들어간다.

·천룡제 축문

維歲次 某年 某月 干支(朔) 某日 幼學 某 敢昭告于 天龍之神 伏惟尊靈 ○嶽以降 尊以磅礴 洞之中央 上下人民 東南廛麗 人物繁殖 灾厲驅除 倉箱且盈 婦子其寧 文明以定 蓮桂交芳 崗巒體勢 永世光大 居此生靈 一心將事 儀同祀社 體重報賽 粢幣雖薄 誠敬則至 正月蠲吉 庸薦炯卮 率以爲常 歲歲無違 惟神監顧 永佑玆土 尙饗

모년 모월 모일에 유학 모는 천룡산 산신에게 고합니다. 존령께서는 완연한 산악으로 뻗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엄한 모습은 우리 마을 중앙에까지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산 상하의 주위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동쪽과 남쪽에는 산이 여기 저기 엉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번창하고 재액을 몰아냈습니다. 창고와 상자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주민들은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문명이 발달하였고 문관과 무관도 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만(崗巒)의 모습은 영원히 크고 빛났습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의식은 사직제와 같고 그 예의는 그 은혜를 갚는데 치중하였습니다. 제수와 폐백(幣帛)이 비록 박하였지만 성의는 지극하였습니다. 정월의 길일을 택하여 청결한 술잔을 올립니다. 이 행사를 상례로 삼아 해마다 어김없이 이행하였습니다. 오직 신명께서는 우리 주민들을 돌보시어 영원히 이 땅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많이 드시옵소서.

제2절 장 승

1. 개요

장승은 민간신앙의 한 형태로 마을 입구나 길가에 세운 목상이나 석상으로 마을의 수문신·수호신, 사찰이나 지역간의 경계표, 이정표 등의 구실을 한다. 나무기둥이나 돌기둥의 상부에 사람의 얼굴 형태를 소박하게 그리거나 조각하고 하부에 천하대장군·지하여장군 등의 글씨를 새겨 거리를 표시한 민속조각품으로 보통 남녀로 쌍이 되어 마주 서있다. 장승은 동제의 주신 또는 하위 신으로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솟대·돌무더기·신목·서낭당·선돌 등과 함께 동제 복합문화를 이루고 있다. 장승은 첫째 마을입구나 동제신역(洞祭神域)에 세워진 마을장승으로 마을 수호와 벽사(辟邪)·축귀(逐鬼)·방재(防災)·진경(進慶)의 기능을 가지는가 하면, 둘째, 사찰 입구나 사방경계에 세워진 사찰장승으로 호법금제(護法禁制)와 절의 경계표시, 잡귀의 침입을 막는 사찰수호의 기능을 가지기고 하며, 셋째, 지역간의 경계·성문·병영·해창(海倉)·관로(官路) 등에 있는 공공 장승으로 이정표 겸 거리 신으로 성문·병영·길과 해운의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남성 성기를 상징하여 잉태를 시켜주기도 하고, 반대로 코나 눈을 갉아서 감초와 섞어 삶아 낙태의 비방 약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밖에 소원에 따라 풍년·풍어·건강·소원성취 등의 포용력을 지니고 있다[29].

함평군의 장승은 『전남지방 장승·솟대신앙』 에 따르면 3개 마을에서 모두 4기가 조사되었다. 다음의 마을별 사례는 이 책의 내용을 전제하되, 함평군사의 체제에 맞게 재편집했다. 조사지 개관은 함평군사의 읍면마을사와 중복되어 생략한다. 관련 의례 또한 제1절의 동제와 일부 중복된 내용이 있어 인용하지 않았다.

2. 마을별 사례

1) 대동면 덕산리 아차동 미륵할머니

아차동에는 미륵할머니라는 동제의 신체를 비롯하여 3기의 선돌이 있다. 미륵할머니는 이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동제의 주신이고 나머지 2기의 선돌은 미륵할머니의 자손으로 간주된다. 딸미륵으로 불리는 선돌은 마을 입구 김씨 효열각 옆에 있고, 또 하나 즉 아들미륵은 마을 안쪽 당산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정자 앞에 있다. 그리고 미륵할머니는 이곳 정자에서 약 20m 북쪽 보호각 내부에 안치되어 있다.

미륵할머니가 있는 제각은 정·측면 1칸의 와가로서 앞에는 판독이 불가능한 현판이 걸려 있고 전면에 쌍 여닫이 문이 달려 있다. 구전에 따르면 미륵할머니는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마을 노인들의 꿈에 나타나 대나무 숲에서 옮겨온 것이라고 하였다. 정확한 위치는 모르나 나주

29) 조경만·심운정, 「나주시의 민속자료」, 『나주시의 문화유적』, 나주시·목포대학교박물관, 1999. 466쪽

군 어디라고 하였다.

비교적 둥근 자연석 돌기둥의 상부에 사람의 눈·코·입을 붓으로 그려 넣었는데 새긴 흔적은 없다. 바로 앞에는 네 개의 크고 작은 돌을 나란히 세워두고 그 앞에 평평한 단을 마련해 두었는데 네 개의 돌을 일컬어 미륵할머니의 자손들이라고 하였다. 마을 앞 당산나무와 효열각 옆에 세워져 있는 아들미륵과 딸미륵은 단순한 선돌이다.

미륵할머니 당산석이 지금 이 마을 사람들의 직계조상이 마을을 세울 당시부터 있어왔는지 아니면 그 후에 옮겨 온 것인지 알 수 없다. 다만, 현재 살고 있는 함평 이씨가 입향한 1600년대 이전으로 미륵할머니의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지는 못할 것이다. 미륵할머니에 대한 궁금증은 마을 주민들도 마찬가지이다. 단지 윗대 어른들 때부터 오늘날과 같은 제의를 진행해 올 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30].

2) 함평읍 자풍리 노송마을 당산석

마을 앞에 50m 간격을 두고 각기 당산나무와 마을 주민들의 쉼터인 정자가 있다. 당산할아버지와 당산할머니라고 불리는 당산석은 바로 이들 당산나무 아래에 있다. 이들 당산석은 높이가 70cm에서 80cm로 아주 나지막하다. 생긴 모습도 동자가 얌전하게 서 있는 형태이다. 그래서 동사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동자상은 마을 북쪽 감악산 기슭에 극락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이 사찰이 폐사된 수 이곳으로 옮겨 왔다고 구전된다. 이들 당산석은 오랜 풍우에 의해 얼굴의 형태를 알아 볼 수 없게 마모되어 있다.

당산할머니는 당산나무 뿌리 사이에 비스듬히 세워져 있는데 민둥머리에 귀가 상대적으로 길고 손은 앞쪽으로 모아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맞은편 당산할아버지도 외형은 당산할머니와 조각 수법과 재질에서 매우 흡사하여 동일인에 의해 같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측된다.

마을을 등지고 보았을 때 왼쪽 당산 숲이 당산할머니이고, 맞은편이 당산할아버지이다. 제사는 당산할머니에게만 올리고 당산할아버지 쪽에는 간단한 술만을 올리고 나머지는 생략한다[31].

3) 함평읍 장교리 칠언마을 석상

마을 앞으로 좁게 난 농로에는 금방 눈에 띠는 4H 선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50m 거리에 또 다른 선돌 1기가 있다. 마을에서는 이 돌을 살맥이 할아범이라고 부르지만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것은 이 돌의 내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살맥이 할아범은 마을 쪽을 향해 서 있는데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만을 통해 보면 문무관석과 매우 흡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본래 이 돌과 쌍을 이루는 석상이 또 하나 있었으나 마을길을 넓히고, 지붕을 개량하던 지난 1970년대 새마을 사업 때 매몰되었다고 전한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본다면 칠언 마을의 석상은 이미 1970년대 이전부터 마을 주민의 관심을 받지 못

30) 국립민속박물관, 『전남지방 장승·솟대신앙』, 1996. 277~278쪽
31) 주 20)과 같은 책 279쪽

한 것으로 판단된다.

머리는 사모처럼 단을 이루고 측면에서 귀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아무런 조각 흔적이 없다. 이 돌은 총 쏘는 표적이 되어 얼굴부분이 훼손되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얼굴은 조각된 흔적은 있으나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게 파괴되어 있다. 현재 상반신만 노출되어 있고 하반신은 묻혀 있다.

제3절 수산의례(뱃고사)

1. 개요

어업은 바다의 안정된 상태와 불안정한 상태를 민감하게 포착하여 그에 적응해야 하며, 계절과 조류의 주기, 어류의 서식과 이동, 그리고 기후에 의해 항시 지배되는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업을 다른 어느 생계양식보다 더 자연 과정의 흐름에 적응해야 하는, 그리고 자연력의 통제, 자연조건의 변화에 더 좌우되는 생계양식이라 할 수 있다.

뱃서낭, 뱃고사, 선기(船旗) 각종의 금기, 꿈 이러한 사물과 현상들은 위와 같은 환경 속에서 어민들이 자연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가운데 설정된 주술적 종교적 장치들이다. 예를 들어, 어민들은 불시에 배의 안전과 인명을 해치려 하는 자연의 위협을 '뱃서낭이 우는' 현상으로 인지하며, 이러한 경험을 하고나면 조업을 중단하곤 한다. 또 문화적으로 비정상적이거나 부정하다고 규정된 범주에 속하는 사물 등을 우연히 만나면 긴급히 회피함으로써 다가올 자연의 재해를 피한다. 풍어는 뱃서낭, 용왕과 같은 초자연적 존재를 신봉하고 그들을 위무함으로써 성취된다고 믿는다. 뱃고사의 시간을 밀물 때로 한정하는 것은, 물이 밀려드는 현상처럼 복이 밀려들어오라는 유감주술적(類感呪術的)인 의도가 작용하기 때문이다[32].

함평군은 짧은 해안선과 주변 바다에서의 어족고갈로 인해 어업이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또한 해안을 끼고 있는 마을에서도 넓은 간척지를 개간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삼기 때문에 갯제나 뱃고사 등의 수산의례가 드물다. 현재 갯제를 지내고 있는 마을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배를 가진 몇몇만이 개인적으로 뱃고사를 지내오고 있다. 그나마 전보다 횟수도 줄고 내용도 간소하다[33].

여기에 수록된 사례는 기존에 조사(목포대학교박물관·전라남도·함평군, 『함평군의 문화유적』, 1993)된 내용임을 미리 밝혀둔다.

2. 사례

1) 함평읍 석성리 주포마을 이기상 사례[34]

32) 이종철·조경만, 「신안지방의 민속자료」, 『신안군의 문화유적』, 국립목포대학교박물관·전라남도·신안군, 1987. 250쪽
33) 주 3)과 같은 책 328쪽
34) 주 3)과 같은 책 328~329쪽

이기상은 정남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몇 년 전 배를 팔았다. 배를 판 후에도 계속해서 그는 배의 선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씨가 지내는 고사는 섣달그믐고사, 대보름고사, 추석고사이다. 전에는 서뭇고사를 지냈으나 현재는 고기가 잡히지 않고 나쁜 일이 생기면 고사를 지낸다. 각 고사의 내용은 비슷하며, 이씨는 대보름고사를 제일 크게 지낸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대보름고사를 예로 든다.

고사를 일주일 정도 남겨 놓으면 제관은 상을 당하거나 산고 든 집의 출입을 삼가며 몸을 깨끗이 한다. 제관은 주로 선주가 되며 때에 따라 선장도 된다. 고사 3일전부터 돼지머리, 떡, 과일, 나물, 메밀묵, 조기 등을 준비한다. 메밀묵은 도깨비가 좋아하는 음식이므로 꼭 준비한다. 또한 비늘 없는 생선은 뱀을 연상시키므로 쓰지 않는다. 음력 정월 14일 낮에 배를 청소하고 오색기를 단다. 밤이 되면 만조에 맞추어 선원들이 지게로 음식을 운반한다. 이때 개고기를 먹은 선원이나 부인이 산고 든 선원은 제외되고 여자들은 절대 배에 오르지 못한다.

먼저 선장실에 있는 뱃서낭 앞에 상을 차린다. 그 다음 고기 담는 통 위, 뱃머리 그리고 배 뒤편에 간단히 음식을 차려 놓는다. 정남호에는 여자 서낭을 모신다. 배내리기 전에 이씨가 꿈을 꾸어 신격이 여성이 되었다. 서낭 형태는 삼색실과 바늘 3개, 분, 삼색헝겊을 상자에 담아 선장실 벽에 부착해 놓은 것이다. 의례는 뱃서낭 앞에 진설한 상에서 시작된다. 먼저 술잔을 올리고 절을 세 번한 후 "동해바다 가든지 서해바다 가든지 순풍 만나서 사고 없이 함평 주포 이기상 배 최고 도장 해주십시요"라고 주문을 외운다. 주문이 끝나면 바다귀신을 위해 바가지에 밥 세 숟가락, 떡 세 조각, 나물 세 젓가락을 합하고 물을 부어 저은 다음 뱃머리와 배 뒤편에서 수저를 떠 바다에 던진다. 이 의식이 끝나면 선주가 먼저 음식을 먹고 참가한 선원들이 먹는다. 남은 음식은 집에 가지고 와 다음날 동네사람들과 나누어 먹는다.

2) 손불면 석창리 석계마을 김종표 사례[35]

석계마을에서는 김종표만 2t짜리 소형어선을 소유하고 어장 일을 생업으로 삼고 있다. 그는 개맥이·덤장·삼중망을 동네 앞 갯벌에 설치하여 숭어·모치·새우·전어 등을 잡고 있다. 전에는 섣달그믐고사, 대보름고사, 추석고사, 서뭇고사를 지냈으나, 현재는 섣달그믐고사와 고기가 아주 잡히지 않을 때 뱃고사를 지낸다.

김씨의 섣달그믐고사는 제관이 되는 자신이 몸을 깨끗이 하고 부정타는 일을 하지 않는다. 제일 2~3일전부터 돼지머리·시루떡·과일·메밀묵 등을 장만한다. 특히 메밀묵은 도깨비가 좋아한다고 해서 반드시 준비한다. 그믐날 낮에 오색기 2개를 배 좌우로 꽂아 놓고 선실을 깨끗이 청소해 둔다. 밤이 되면 들물에 맞추어 준비된 음식을 선착장으로 운반한다. 먼저 선실하고 배 앞머리 좌측, 배 후미 우측에 간단히 음식을 차려 놓는다. 기관방 진설상 앞에서 절을 세 번 한 다음 "무식한 인간들이 뭘 압니까 그저 내년에 나가면 재수 있게 해 주십시요"하고 주문을 외운다. 주문이 끝나면 짚과 깨대, 수나무가지를 묶어 기관방에서 불을 붙여 "잡귀야 물러가라 불이야 불이야"하고 외치면서 배를 한 바퀴 돈 다음 배 뒤편에서 바닷물을 살짝 띄운다. 그 불이 오랫동안 타면 재수가 좋아 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한다. 김씨에 의하면 짚은 깨

35) 주 3)과 같은 책 329쪽

끗한 것의 상징이고 깨대는 고기가 깨알처럼 많이 불으라는 뜻이며 소나무가지는 불에 잘 타기 때문에 함께 묶어 띄운다.

고사가 끝나면 밤새 배에 불을 켜 놓고, 기관방에는 3~4일간 차려 놓은 음식을 그대로 둔다.

3) 손불면 월천리 백옥마을 김재철·조인술 사례[36]

백옥마을에서 현재 뱃고사를 지내고 있는 집은 없다. 김재철·조인술의 뱃고사는 20여년전 유자망 어선 선원으로 오랫동안 있으면서 경험했던 내용이다.

다른 마을에서와 같이 이곳에서도 섣달그믐고사, 대보름 고사, 추석고사, 서뭇고사 등이 행해졌다. 또한 그물을 처음 만들어 어장에 나갈 때도 고사를 지낸다. 뱃고사 내용은 거의 비슷하며, 여기에서는 그물을 처음 만들어 어장에 나갈 때 지내는 고사를 실례로 들어본다.

선주가 주로 제관이 된다. 제관은 상을 당하거나 산고 든 집에는 가지 않고 몸을 깨끗이 한다. 출항 3일전 새벽 선주의 집 대문에 창호지를 끼운 금줄을 치고 대문 앞바닥에 군데군데 황토를 깔아 놓는다. 또한 오색기(빨강·흰·노랑·청·흑색)를 처마에 기대 세워 놓는다. 선주집에서는 이때부터 돼지머리·시루떡·나물·과일·메밀묵 등 제물을 준비한다. 메밀묵은 도깨비를 달래기 위해 특별히 준비한다.

출항하는 날 오전 들물 때에 맞추어 준비해 놓은 제물을 선주와 선원들이 배로 운반한다. 이때 선장은 오색기를 들고 간다. 여자들은 배에 오를 수 없으며 선주와 선장·선원들이 배에 올라 선장실에 있는 서낭 앞에 진설한다. 뱃머리, 고기 담는 통 위, 배 뒤편에도 간단히 음식을 차려놓는다. 술잔을 올린 다음 절을 세 번하고 "선당님네 본당님네나 뭘라 봅서리껴 그저 고기머리 간데 뱃머리 가고 뱃머리 간데 고기머리 가고 가는데 마다 만선해 주십시요"하고 주문을 외운다. 주문이 끝나면 바가지에 제물을 약간씩 담아 섞은 다음 사방으로 바다에 던진다. 고사가 끝나면 동네로 들어와서 이웃과 음식을 나누어 먹고 다시 선창으로 가 출항한다.

제4절 기산제(箕山祭)[37]

1. 개요

예부터 함평에는 해마다 성대히 봉행해 오던 기산제(箕山祭), 영수제(潁水祭), 사직제(社稷祭)의 삼대제향(三大祭享)이 있었다. 이 제향은 군민화합의 밑바탕이 되어 왔으나, 1920년대말 일제가 우리 민족문화의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그 맥이 잠시 끊어졌었다. 촌로들의 고증에 의하면 사직제는 관주도의 제향이었고, 기산제와 영수제는 민주도의 제향이었다. 또한 사직제 보다는 기산제가 훨씬 성대하여 참여자가 수 천 명에 이르렀고 농악대도 열 마을 가량이 참여하였다고 한다.

36) 주 14)와 같은 책 320쪽

37) 이 글은 이현석이 촌로들의 고증을 받아 회보(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향토사연구 제3집』, 1991. 171~180쪽)에 발표했던 것으로, 군사체제에 맞게 재정리했다.

기산제는 147.3m의 주봉에서 무속제의(巫俗祭儀), 주봉 끝자락에 자리한 성황사(城隍詞)에서 유교제의(儒敎祭儀)가 함께 봉행되었는데, 무속제의는 농공상인(農工商人)이, 유교제의는 관(官)·향교(鄕校)·사인(士人)들이 주도하였다. 일제가 기산제 봉행을 막았을 때는 무인(巫人)들이 군유산 산당(山堂)에서 '산당제(山堂祭)'란 이름으로 기산제의 절차를 계승하기도 했다. 기산제는 함평읍의 불교 여신도 단체인 관음회원들에 의해 1979년부터 1983년까지 5회에 걸쳐 약식불교산제로 거행한 바도 있다.

2. 전승현황

함평군향토문화연구회의 주관으로 기산제가 전승된 것은 1984년부터이다. 1979년부터 1983년까지 함평읍 불교 여신도회인 관음회에서 5회에 걸쳐 약식 불교 산제가 봉행되었지만, 전승 기산제라고 할 수는 없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기산봉 중턱에 상수도 취수장 공사를 한 1982년부터 함평에는 크고 작은 인명 피해와 좋지 못한 사건들이 잇달아 일어났고, 이러한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산, 영수제가 전승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모아졌다. 이에 기산제는 1984년 10월 4일 군민의 날 전야제 행사의 하나로 전승되었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승 기산제는 여러 촌로들의 증언에 의해 주봉에서는 무속제의, 제2봉인 팔각정에서는 유교제의를 올리고 있다. 무속제의는 다행히도 군유산 산당제 봉행 절차의 맥을 잇고 있던 조광명(趙光明), 노행자(魯行子) 등에 의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

고증에 의해 전승된 기산제 발행순(發行順)은 다음과 같다.

1) 무속제의

(1) 길굿

농악대가 길굿을 치며 시가를 행진한 후 제단에 이른다.

(2) 산신대(山神竹) 설치 및 진설

농악대가 시가행진을 하는 동안 산신대를 설치하고 진설을 마친다. 제 전일 제단 주위에 금줄을 친다. 제물은 옛 격식에 맞추어 준비한다.

(3) 고천악(告天樂)

징을 33번 친다.

(4) 삼제주(三祭主) 채화(採火)

삼제주(천신, 산신, 지신) 신위 전에 나아가 두 번 절하고 채화 화로 앞으로가 화경으로 불씨를 일군 후, 그 불씨를 향로에 담아 산신상 앞에 옮겨 놓는다. 이는 채화용으로 부싯돌·성냥·화경 등을 썼다는 증언에 따랐다.

(5) 분향

삼제주가 분향한 다음 산신, 천신, 지신의 순으로 술을 올리고 두 번 절한 후 무인(巫人)들 뒷좌석에 앉는다.

(6) 서제(序祭)

무인들이 일어나 두 번 절하고 산신제를 올리게 된 경위를 고한다. 이어 부정경 산왕예참법 산황경 등 불경을 봉독한다. 무속제의에 불경이 봉독되고 있는 것은 무속에 불교가 접목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7) 고풀이 축원

고를 풀면서 각도(各道) 관산신(管山神) 주문과 산령축문(山靈祝文)을 외운다.

(8) 신수(神樹)에 신 내림

신수(神樹)잡이에게 신이 내리면 산천이 떠나갈 듯 농악을 울리고, 제주는 산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듣고 제주가 산신에게 원하는 바를 말하는 등 소원 성취를 빈다.

(9) 음복

산신상에 차려 둔 음식을 내려 모두 함께 먹고 마신다.

(10) 신위 봉행 성밟기

농악대를 앞 세우고 곳베를 밟으며 신위 봉행자가 옛 성을 100m 가량 내려가 팔각정으로 향한다. 이곳에는 유교 제향 준비가 되어 있고, 유교제향의 삼헌관(三獻官)이 나와 신위를 맞는다. 옛날 기산제는 성밟기로 무속 제향이 끝났으나 전승 기산제에는 유림측과 타협하여 문화전승의 무속제의 신위를 맞아 제를 지내고 있다.

2) 유교제향

기산제 홀기(笏記)에 의한 제향순서는 다음과 같다.

三獻官祝及執事以下 箕山君主神位前 拜位序立

行參神禮
獻官及執事以下 箕山君主神位前 皆再拜 各就位

行降神禮
初獻官 詣香案前 北向跪 三上香 再拜 退復位

行初獻禮
初獻官 詣箕山君主神位前跪
執事 斟酒于盞 授獻官
獻官 執爵 跪受祭之茅 上以授執事
執事 受之尊于神位前
獻官 興小退復位
三獻官諸執事以下 俱跪
祝官 奉祝版 詣獻官之左東向 跪讀祝文 興退復位
初獻官 俛伏興再拜 降復位
亞終獻官諸執事以下 俱興

行亞獻禮
亞獻官 詣箕山君主神位前跪
執事 斟酒于盞 授獻官
獻官 跪受執爵 以授執事
執事 受之尊于神位前
獻官 俛伏興再拜 降復位

行飮福禮
執事 奉神位前爵 詣授初獻官
獻官 跪受祚飮爵 再拜 退復位

行辭神禮
獻官祝及執事以下 皆再拜
祝官 焚祝文
白禮畢

各界代表 再禮

祝燈行進

제5절 가정신앙

1. 개요

전통적 가정생활은 집안 곳곳에 좌정(坐定)한 신들과 함께 이루어져 왔다. 집터에서부터 대청·부엌·우물·곳간·변소에 이르기까지 온 집안이 가족원들의 생활공간을 지켜주는 신들로 가득 한 것이다.

어떤 신들은 자기들이 수호하는 공간자체에 내재하는 존재양식을 취하는가 하면, 어떤 신격(神格)들은 따로 특별한 가시적 물체를 자신의 신체로 삼아 현현(現顯)하기도 한다. 우물을 지켜주는 샘신 혹은 용신이 전자의 대표적인 경우이고, 대청 상량(上梁)에 올려진 대나무나 그 밑의 단지를 자신의 신체(神體)로 삼아 현현하는 성주신이 후자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가정에 존재하는 신으로는 대체로 성주신·조상신·삼신·조왕신·터주신·제왕신·업신·샘신·측신·문신·불두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신격들이 명칭은 물론 존재하는 양식 역시 지역에 따라 다르며 그 역할 또한 다소간의 차이를 보인다[38].

함평군의 가정신앙은『한국의 가정신앙-전라남도편-』에서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신앙대상 중 비교적 인식이 남아 있는 것은 성주, 지앙[삼신], 조왕, 철륭 정도이다. 그 중에서도 전승이 비교적 강하게 남은 것은 성주이다. 성주는 집안에서 가장 높은 신으로 인식되지만 현재 그 신체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다만, 안방 윗목 구석에 선반을 올리고 조사의 이름을 써 넣은 석작을 가리켜 성주라고 하거나, 항아리를 모시고 쌀이나 나락과 같은 곡물을 채우고 성주라고 했다는 제보에서 과거에는 성주의 신체가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뚜렷한 신체는 없지만, 제사나 차례를 지낼 적에는 반드시 성주 앞에 상을 차리고 성주를 위한다. 그 때문인지 일부에서는 성주를 조상과 동일하게 여기는 제보자도 있었다.

지앙의 경우 아이의 출산과 육아를 관장하기에 주로 산모의 출산 전후에 위하는데, 평상시에는 성주 지앙을 함께 위한다 하여 매달 초사흗날이나 자식들의 생일에 성주와 지앙을 함께 위하기도 하였다. 성주의 경우는 상에 음식을 차리지만, 지앙은 바닥에 짚을 깔고 음식을 차렸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병원에서 출산을 하면서 지앙에 대한 의례를 찾기 어렵아고 한다.

조왕의 경우는 부엌의 개량과 함께 그 전승이 점점 약화되는 추세이다. 다만 아직도 유왕공을 드린다 하여 조왕에 물을 떠놓고 자식들의 안위를 비는 가정이 있다.

가신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면서 그에 따른 의례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다. 과거 대표적인 의례이던 올배심리도 지금은 의례를 하는 가정을 손에 꼽을 정도이다. 올배심리의 경우는 추석을 전후하여 지냈는데, 이때 성주와 지앙, 조상을 위하였다. 이렇듯 여러 의례들이 약화되는 이유로는 크게 종교관의 변화로 인한 신체들의 소멸과 의례를 담당하던 주부의 고령화 등을 들 수 있다[39].

38) 이종철·조경만,「진도지방의 민속자료」,『진도군의 문화유적』, 국립목포대학박물관·전라남도·진도군, 1987. 235쪽

39) 국립문화재연구소,『한국의 가정신앙-전라남도편-』, 2008. 689쪽

다음의 마을별 사례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펴낸『한국의 가정신앙-전라남도편-』수록 내용을 인용하였다. 여기서는 이 책의 내용을 전제하되, 함평군사의 체제에 맞게 재편집했다. 마을개관과 정기적·일상적 의례 등은 함평군사의 읍면마을사, 세시풍속 편과 일부 중복된 내용이 있어 인용하지 않았음을 미리 밝혀둔다.

2. 마을별 사례

1) 나산면 나산2구 방하마을[40]

(1) 성주

안방의 윗목을 가리켜 성주라고 한다. 제보자에 따라서는 조상과 동일하게 여기기도 한다. 외부에서 이바지음식 등이 들어올 경우, 성주 앞에 먼저 고하고 먹었다.

현재 뚜렷한 신체를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마을사람들은 여전히 허궁으로 성주를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예전에는 오가리나 항아리 형태의 성주가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오가리 안에 조상의 성명을 써서 넣고 안방 윗목의 시렁 위에 모셔놓았다고 한다. 오가리 안에는 쌀과 같은 곡물은 넣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심길순씨 댁에서는 예전에 안방구석에 성주항아리를 모셨다고 한다. 항아리 안에는 나락을 채웠으며, 가을에 햇 나락으로 갈아주고 묵은 것은 찧어서 밥을 해먹었다. 이때 밥을 하면 먼저 성주 앞에 차려놓고 고한 다음에 먹었다고 한다. 현재 심길순씨 댁에서는 성주항아리가 없지만, 설이나 정월 보름,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성주에 밥을 담아 놓는다고 한다. 방 윗목에 밥을 놓는데, 떡이나 나물 등 장만한 것들을 함께 차려놓는다.

(2) 지앙

지앙은 아이를 점지해주고 출산이나 육아를 관장한다. 뚜렷한 신체 없이 안방 윗목에 지앙이 있다고 여기면서 허궁으로 모신다. 산모가 출산하려고 하면 지앙판을 차렸다가 출산 후 3일 후에 밥과 미역국을 해서 지앙을 위해주고, 매 이레마다 일곱이레를 같은 방법으로 지앙을 위해준다. 아이가 잘 자리길 비는데, 만일 산모의 젖이 적거나 하더라도 밥과 미역국, 백설기를 해서 지앙 앞에 차리고 젖이 많기를 빌었다.

그 후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에도 생일이면 밥과 미역국을 차리고 자식의 안위를 빈다.

(3) 조왕

조왕은 부엌의 부뚜막을 말한다. 공을 드리는 사람은 매일같이 조왕에다 물을 떠놓고 자식이 잘 되길 빌어준다고 한다.

제보자 김요순씨는 30여 년 전까지 조왕에 공을 들였다고 한다. 공을 드리게 된 계기는 절에

40) 방하마을에서는 심길순(여, 당시 80세), 윤길현(여, 당시 74세), 김요순(여, 당시 72세)이 제보했다.

서 공을 들이면 좋다고 권했기 때문인데, 특히 아들의 학업을 위해서 공을 들였다고 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세수를 하여 몸을 깨끗이 하고 조왕에다 물을 떠놓는다. 그리고 아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비손을 하고 밥을 먹었다.

처음 조왕을 위했을 때에는 마을 샘에서 물을 길어다 놓았으나 수도가 나오면서부터는 수돗물을 받아서 올렸다고 한다.

(4) 철륭

집 뒤란을 가리켜 철륭이라고 한다. 설날, 정월보름, 추석에 차례를 지내면서 철륭을 위하기도 하는데, 가정에 따라서는 정월 열 나흗날 저녁에 밥을 갖다 놓고 위하기도 한다. 철류에는 밥 1그릇과 술 1잔을 놓는데, 술은 막걸리를 많이 사용한다.

철륭에 있는 나무를 잘못 베면 탈이 나기 때문에 나무를 벨 때에는 조심해야 한다. 탈이 나지 않게 하려면 나무를 베고 난 후 고추를 태워 예방을 했다고 한다.

(5) 업

집안에는 그 집안의 재복과 관련된 업이 있는데, 사람들 눈에는 띄지 않는다고 한다. 보통 구렁이를 업이라고 여기는데, 구렁이가 그 집을 나가면 집안이 망한다고 여긴다.

(6) 측간귀신

측간(변소)에 귀신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 측간에서 자빠져 병이 나면 낫지 않는다고 한다.

(7) 동정잽이[동토잡기]

흙이나 나무를 다뤘다가 탈이 나면 동정이 났다고 여긴다. 점쟁이가 아니더라도 마을에서 동정을 잘 잡는 사람이 있으면, 동정잽이를 해주었다.

동정잽이는 부엌의 부뚜막이나 동정이 난 바로 그 장소에서 의례를 한다. 동정이 났는지의 여부는 고추를 태워 냄새로 판단한다. 만약 고추를 태웠는데도 매운 냄새가 나지 않으면 동정이 난 것이다.

부엌의 부뚜막 앞에서 도끼와 짜구[자귀]를 두들기면서 동정을 잡는 경을 읽는데, 7번 반복해서 경을 읽는다. 혹은, 동정이 난 곳에 고추와 쑥불을 태워 연기를 내고 부적을 써 붙여서 잡기도 한다.

또 철륭에 있는 나무를 잘못 베면 탈이 나기 때문에 나무를 벨 때에는 조심해야 한다. 탈이 나지 않기 위해서는 나무를 베고 한 후 고추를 태워 예방을 한다.

(8) 주장맥이[주당맥이]

상가(喪家)를 다녀와서 몸이 아프거나 하면 '주당(혹은 주장)을 맞았다'고 하여, 주당맥이(혹은 주장맥이)를 한다. 주당 맞은 사람을 가마니에 둘둘 말아 마당 복판에 두고, 그 주위를 돌면서 일종의 주언(呪言)을 한다.

(9) 잔밥 먹이기

갑자기 다리가 아프거나 하면 잔밥 먹이기를 하는데, 마을에서 잘 하는 분들이 있어 이들을 불러다 하였다. 잔밥을 먹이는 방법은 됫박에 쌀을 담고 보자기로 싼 다음 아픈 곳을 두드린다. 그런 다음 보자기를 끌러보아 됫박의 한쪽이 조금 패어 있으면 잡귀가 먹고 나갔다고 여긴다. 됫박의 남은 쌀은 그냥 밥을 해서 먹는다. 다만, 다른 집으로 쌀을 가져가서 잔밥 먹이기를 했을 경우에는 그 집에 쌀을 주고 온다.

(10) 엄나무 걸기

엄나무 가지를 베어 와서 방의 문설주 위에 걸어두면 잡귀가 들어오지 못한다고 한다. 주로 정월에 걸었다.

(11) 부적 붙이기

정월에 점쟁이를 찾아가 1년 신수를 보는데, 수가 좋지 않다고 하면 부적을 받아다가 집안에 붙이거나 몸에 소지한다.

2) 손불면 대전리 수문마을[41]

(1) 성주

성주는 그 집안에서 가장 높은 신이라고 한다. 전에는 방 윗목에 항아리를 모셔두고 쌀이나 나락과 같은 곡물을 채워 성주라고 여겼다. 혹은 조상들의 이름을 써서 넣어둔 오가리를 안방 구석의 시렁 위에 모셔두고 성주라고 여겼다. 한번 오가리 안에 조상들의 이름을 써서 모시면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나 요즘은 항아리나 오가리와 같은 성주의 신체를 찾기 어렵다. 대부분 한국전쟁 와중(제보자들은 이를 '인공'이라고 한다)에 없어졌다고 한다. 그래도 여전히 허궁으로라도 성주의 존재를 인식하여 보통 방 윗목을 성주라고 여긴다.

곡물을 채운 항아리는 가을에 햇곡이 나면 햇나락이나 햅쌀로 갈아주고 묵은 것은 덜어내어 밥을 해먹었다. 가정에 따라서는 먼저 성주항아리 앞에 밥을 차려놓았다가 먹기도 하였다.

(2) 지앙

지앙은 아이를 점지해주고 출산과 육아를 관장한다고 여겨지며, '지앙할머니'라고 불린다. 아이가 잘 자라는 것은 지앙이 돌봐줘서라고 하며, 10살 안까지는 지앙할머니가 아이들을 받아준다고 말한다. 지앙할머니가 아이들을 받아주기 때문에 툇마루에서 아이가 떨어져도 다치지 않고 무사하다는 것이다.

지앙의 신체가 확인되지 않는 가정에서도 방 윗목을 가리켜 지앙이라고 한다. 지앙을 위할

41) 수문마을에서는 이순례(여, 당시 79세), 정영금(여, 당시 79세), 양계덕(여, 당시 77세), 김정순(여, 당시 76세), 정소은(여, 당시 65세), 강갑순(여, 당시 60세)이 제보했다.

적에는 방바닥에 짚을 깔고 그 위에 음식을 차린다.

아기를 출산할 때 지앙판을 차리는데, 강갑순씨는 짚을 깔고 그 위에 상을 놓았다고 한다. 물과 미역을 놓고, 쌀을 상에 붓고, 촛불을 밝히고 실을 놓았다. 3일간 두었다가 미역국과 밥을 해서 지앙을 위하고 산모와 식구들이 먹었다. 그런 다음 이레 되는 날마다 지앙을 위해주었는데, 세이레(삼칠)를 위해주었다고 한다. 가정에 따라서는 일곱이레(칠칠)를 위해주는 경우도 있다.

(3) 조왕

부엌 부뚜막을 가리켜 조왕이라고 한다. 조왕을 위하는 가정에서는 매일 아침 물을 떠다 놓고 위하는데, 요즘은 조왕을 위하는 사람을 보기 어렵다고 한다.

(4) 철륭

집 뒤란을 가리켜 철륭이라고 한다. 제보자에 따라서는 장광을 철륭이라고 하는 이도 있다.

철륭을 위하는 가정은 오가리에 나락을 담아서 모셨다고 한다. 가을에 햇나락이 나면 나락을 채우는데, 묵은 것은 덜지 않고 새것을 채운다고 한다. 그리하여 오가리가 차게 되면 나락을 덜어내어 찧어서 밥을 해 먹고 다시 오가리를 채운다고 한다.

철륭에 있는 나무를 함부로 베어버리면 탈이 난다고 하여 조심하는데, 강갑순씨는 집 뒤란을 철류이라 여기면서도 철륭이 항상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하여 조심한다고 한다.

(5) 업

모든 집마다 업이 있다고 하며, 보통 큰 구렁이를 가리켜 업이라고 한다. 나뭇단을 쌓아놓은 곳에 업이 있다고 하는데, 업구렁이는 눈에 띄지 않는다고 여긴다. 만약 그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으려면 눈에 띄고 그 집을 나간다고 한다.

(6) 측간귀신

측간(변소)에 귀신이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으나, 측간에서 자빠지면 약도 없다고 한다. 보통 시름시름 앓다가 죽거나 병신이 된다고 한다.

(7) 도신

도신은 주로 정월에 하였다. 도신하는 날짜는 점쟁이가 잡아준다. 도신할 날을 받은 가정에서는 부정한 것을 가려야 한다. 그래서 의례를 하기 사흘 전에 왼새끼로 꼰 금줄을 대문 앞에 걸고 양 옆으로 황토를 놓기도 한다.

예전에는 탁발을 다니던 중들이 도신을 해주기도 하였다. 영광군 군남면 연흥사에서 탁발을 많이 왔다고 한다.

도신을 하면 먼저 부엌의 조왕에서부터 위한다. 솥에서 밥을 푸지 않고 솥뚜껑을 열어놓고 밥주걱을 꽂는다. 그 밖에 장만한 음식들은 그대로 부뚜막 위에 차린다. 소지는 누구누구에게 올리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3장을 올린다고 한다. 부엌에서 빌고 나면 방으로 간다. 방

에서도 소지를 여러 장 하는데, 성주 앞에서 한다. 이때 성주와 지앙 모두 상을 차리고 조상상도 차린다. 조상까지 빌고 나면 상을 가지고 마당으로 나가 내전을 하면 끝난다.

(8) 유왕공[용왕공]

현재 마을에서 강갑순씨가 유왕공을 드리고 있다. 제보자가 유왕공을 드리게 된 계기는 자식들 태몽이 물에서 받았으면 조왕에 물을 떠놓고 자식들 잘 되게 정성을 드려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말과 탁발을 다니던 중이 공을 들일 것을 권했기 때문이다.

태몽을 물에서 받았다는 것은 물가에서 거북이를 보거나 큰 돌을 보듬는 등 물가와 관련된 꿈을 꾼 것을 말한다. 즉, 물과 관련되었기에 유왕공을 들여야 하는 것이다.

강갑순씨는 물 1그릇을 떠 놓으면서 마음속으로 아들을 위한다고 하는데, 주택개량을 하면서 부뚜막이 없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싱크대 위에 떠놓고 있다. 예전에는 생각나는 대로 떠놓았으나, 지금은 보통 초사흗날 떠놓았다가 한 달 정도 두고 다시 다음 달 초사흗날 갈아준다.

(9) 동정잽이[동토잡기]

집안에 물건을 잘못 들이거나 흙이나 나무를 다룰 때 방위가 나쁘면 탈이 나서 몸이 아플 수가 있다. 이것을 가리켜 '동정난다'고 하며, 이때 하는 맥이를 '동정잽이'라 부른다. 점쟁이를 부르지 않더라도 마을에서 동정잽이를 잘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불러다 한다.

부엌의 두뚜막 앞에서 하는데, 고추를 태워 매운 냄새가 나지 않으면 동정이 났다고 판단한다. 그러면 부뚜막 앞에 앉아서 도끼나 짜구[자귀]를 두들기며 동정잽이 경을 읽는다. 경은 흙이나 나무를 다루는 경이 각기 다르다고 한다. 한 제보자에 의하면 정지문간 앞에 돌이 있었는데, 이것을 파내버리고 동티가 나서 몸이 아팠던 적이 있다고 한다.

(10) 잔밥 먹이기

몸이 아픈 경우 잔밥 먹이기를 하여 낫는 수가 있다. 그 방법은 쌀을 담은 됫박을 보자기에 싸서 아픈 사람의 아픈 곳을 두드린다. 그런 다음 보자기를 풀어보면 쌀이 움푹 파여 있는 경우가 있는데, '성주가 먹으면 큰 귀에서 줄고, 객귀가 먹으면 옆에서 준다'고 한다. 잔밥 먹이기를 한 쌀은 밥을 해먹는다.

(11) 철륭에서의 예방

철륭에 있는 나무를 함부로 베어버리면 탈이 난다고 하여 조심하는데, 탈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철륭에 빌어야 된다고 한다. 어느 제보자에 의하면 할머니가 "이 나무를 벤다고 하니, 자식이 하는 일을 막을 수도 없고 못할 수도 없고, 나는 그런께 우리 새끼들 좋게 해주시오"라며 철륭에 빌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철륭의 나무를 베어내면 식구가 아프고 우환이 나기 쉽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

그 밖에 나무를 베기 전에 미리 여자들의 속옷을 걸어놓고 사흘정도 지낸 다음 나무를 베면 괜찮다는 말도 있다.

강갑순씨의 큰집에서 장광 위의 참나무를 베고는 시숙이 다리가 많이 아팠던 일이 있었다고 한

다. 하도 아파서 점을 치니까, 철륭의 나무를 베서 그랬다고 하여 점쟁이를 불러다 굿을 했다. 그래도 단번에 낫질 않아 다른 점쟁이를 불러 굿을 하는 등 3번을 하고서야 비로소 나았다고 한다.

(12) 주장맥이[주당맥이]

수가 사나우면 초상집에 다녀오거나 산에 묘를 쓰러 갔다 와서 몸이 아플 수가 있다. 이를 '주장 맞았다'고 하며, 이를 치료하기 위해 주장맥이를 행한다.

먼저 주당 맞아 아픈 사람을 거적에 말고 죽은 사람처럼 일곱 매듭을 묶어 마당 복판에 눕힌다. 그리고 그 주변을 서너명의 사람들이 도굿대[절굿공이]를 가지고 땅을 두들기면서 맥이를 한다.

(13) 삼재막이

삼재가 들면 절에 가서 삼재막이를 한다. 부적을 받거나 하지 않고 삼재든 사람이 무사히 삼재를 널길 수 있도록 불을 밝히고 공을 드린다고 한다.

(14) 엄나무 걸기

방문 문설주 위에 엄나무 가지를 걸어두는 것을 잡귀를 쫓는다고 해서이다.

(15) 부적 붙이기

정월에 절이나 점쟁이를 찾아가 1년 신수를 보고 수가 좋지 않다고 하면 부적을 받아다가 집안에 붙여 예방을 한다. 또한 춘첩(春帖)을 받아다가 붙이기도 하는데, 그 해 모든 일이 잘 풀리길 염원하는 뜻을 담고 있다.

3) 학교면 학교리 회춘동[42]

(1) 성주

대개 안방 윗목에 허궁으로 성주를 모신다. 예전에는 윗목 구석에 선반을 만들어 조상의 이름을 써넣은 석작을 올려놓고 성주라고 하는 가정도 있었다. 그래서인지 조상을 성주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체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둘 태워 요즘은 구경하기 어렵다고 한다.

성주를 집안에서 가장 어른이라고 여기며, 제사를 지낼 때에는 성주부터 상을 차리고 지앙을 위하고 조상을 위한다.

과거에는 혼사가 있으면 당골이 와서 성주상을 차려놓고 빌어주었다고 한다. 또한 마을의 남자가 장가갈 적에도 성주 앞에 절을 하고 갔다고 한다.

(2) 지앙

방구석에 지앙을 모시는 가정도 있었다. 지앙은 아기를 점지해주고 출산과 육아를 관장하는

42) 회춘동에서는 김용서(남, 당시 84세), 이양림(여, 당시 80세), 김정례(여, 당시 79세), 김봉심(여, 당시 68세), 신행춘(남, 당시 67세), 정국임(여, 당시 60세)이 제보했다.

신으로 '지앙할매'라고 부른다.

올배심리나 조구심리, 또는 명절차례에 지앙을 위하는데, 상이 아닌 바닥에 짚을 깔고 음식을 차린다. 그러나 동지에는 별도로 지앙 몫의 팥죽을 떠놓지 않는다.

아이를 낳으면 지앙에 판을 차리고 쌀과 미역, 물을 떠놓는다. 이를 3일간 두었다가 밥과 미역국을 해서 지앙 앞에 먼저 고하고 식구들이 먹는다. 보통 아들과 딸을 구분하지 않고 칠칠을 위해주며, 아이가 10살이 될 때까지 지앙이 돌봐준다고 믿는다.

(3) 조왕

조왕에 공을 드리는 사람은 아침마다 물을 떠다놓고 조왕에게 빈다. 대개 이를 가리켜 유왕공을 드린다고 말한다. 유왕공을 드리는 사람은 조왕에 물을 떠놓고 자식들이 잘 되길 위한다고 한다. 매일 아침 물을 길어와 부뚜막에 떠놓는다. 이때 식구 수대로 숟가락으로 쌀을 떠서 놓기도 하는데, 식구가 5명이면 쌀을 다섯 숟가락 또 놓는 격이다. 이를 가리켜 '좀들이쌀'이라고 한다.

원래 조왕은 부엌의 부뚜막을 가리키는데, 요즘은 입식부엌으로 개량되어 부뚜막이 없어지자 조왕을 위하는 가정도 찾기 어렵다고 한다. 이따금 아직도 조왕에 물을 떠놓고 자식의 안위를 비는 가정이 있는데, 이 경우 싱크대에 물을 떠놓고 조왕을 위한다.

(4) 철륭

집 뒤란을 가리켜 '철륭'이라고 한다. 철륭은 여느 가정에서 모시는 것은 아니고 집 뒤에 산이 있어 집터가 세다고 하는 경우 모신다. 집터가 세면 우환이 있기 때문에 철륭을 위하는데, 장광과 철륭은 다르다고 여긴다. 보통 철륭에 있는 나무를 함부로 베어내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해서 나무를 벨 때에는 예방을 한다.

(5) 업

집에 사는 구렁이를 업이라고 한다. 집마다 업이 있는데, 이 구렁이가 나오면 업이 나갔다고 해서 좋지 않게 여긴다.

(6) 동정잽이[동토잡기]

집안에 물건을 잘못 들이거나 집안의 물건을 함부로 손대면 식구 중에 아픈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점을 쳐보아 동정이 들었다고 하면, 동정잽이를 해서 동정을 잡는다.

의례는 점쟁이를 부르기도 하지만, 마을에서 동정을 잘 잡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의계를 하였다. 보통 부엌의 부뚜막 앞에서 경을 읽으면서, 도끼와 짜구[자귀]를 두드려 쇳소리를 내고 동정을 잡는다.

특히 철륭에 있는 나무를 잘못 베면 탈이 난다고 해서 조심한다.

(7) 주장맥이[주당맥이]

초상난 집에 다녀와서 앓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장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주장맥

이를 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상여가 나갈 적에 주당에 걸리면, 상여를 가져와서 주장 맞은 사람을 태우고 돌아다니면 낫는 수가 있다.

(8) 삼신타기

아이를 낳지 못하면 점쟁이를 불러 삼신을 탄다. 삼신을 탈적에는 남모르게 의례를 하므로 삼신을 타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방법을 잘 모른다고 한다.

(9) 삼신 위하기(지앙 위하기)

출산을 하려고 하면, 쌀, 미역, 물을 떠놓고 지앙판을 차린다. 출산 후 3일간 두었다가 3일째 되는 날 밥과 미역국을 끓여서 지앙 앞에 차려서 지앙할머니를 위한 다음 식구들이 먹는다. 그리고 매 이레되는 날 같은 방법으로 밥과 미역국을 해서 지앙을 위한다. 보통 일곱이레(칠칠)를 위해주는데, 아들이나 딸을 구별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한편, 아이를 출산하면 세이레나 일곱이레까지는 외부와의 접촉에 조심한다. 특히, 아이를 낳은 가정과는 대면하는 것도 삼간다. 자치 대면을 했다가 지앙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앙다툼이 생기면 아이가 울거나 보채고 산모의 젖이 박해진다고 한다. 이러면 산모의 젖이 돌아오도록 지앙에게 빌어야 된다고 한다.

(10) 아이팔기

손이 귀한 집이나 아이가 명운을 짧게 타고난 집에서는 아이의 명이 길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점쟁이나 절에 아이를 팔기도 한다. 만일 점쟁이에게 팔았을 경우에는 대가로 점쟁이의 옷을 장만해준다.

(11) 부적 붙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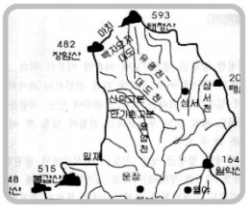
정월에 점쟁이가 절에 가서 신수를 보았을 때 수가 좋지 않은 식구가 있으면, 부적을 받아오기도 한다. 받아온 부적은 방문 옆이나 위에 붙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몸에 소지하도록 한다.

(12) 엄나무 걸기

엄나무가시를 '호랭이가시'라고 부른다. 엄나무가지를 걸어두면 잡귀가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여, 방문 문설주 위에 걸기도 한다.

이양림씨 댁에는 방으로 들어가는 방문 위에 엄나무가지를 걸어두었다. 엄나무가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걸어놓게 되었는데, 이사를 하면 엄나무가지를 걸어둬야 한다고 해서 걸게 되었다고 한다.

제3장 구비전승



제1절 전 설(傳說)

1. 개요

전설(傳說)이란 '전해오는 옛이야기' 이다.

학술적으로는 전해오는 설화(說話)를 신화(神話)와 민담(民譚)과 전설로 분류한다. 전(傳)이 뜻하는 바와 같이 전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전해오는 통시간적(通時間的)인 존재이며, 이 시간에 따라 널리 전파되므로 넓은 공간에 파급된 문화형태라 하겠다. 전달하는 내용, 전달하는 사람, 전달방법, 이것을 수용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다는 점은 언어나 문학·언론과 비슷하지만, 일정한 형식과 내용이 결합한 형태로 전하는 과정을 수없이 대를 물려서 현재까지 이르렀다는 시간의 여과(濾過)와 사라질 것은 사라지고 살아남은 것만 전승하였다는 적자생존한 점이 다른 문화현상과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아무 것이나 전설이라고 할 수 없고, 일정한 민족 또는 지방에서 민간에 의하여 내려오는 설화인데, 신화가 신격중심(神格中心)이라면 전설은 인간과 그 행위를 주제로 이야기한 것이다. 전설은, ①말하는 화자와 듣는 청자가 그 이야기의 사실을 믿으며, ②이야기를 뒷받침하는 기념물이나 증거물이 있으며, ③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어서 역사에서 전설화하였든가. 혹은 역사화의 가능성이 있는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43].

여기에 수록된 전설은 전라남도가 1991년 펴낸 『전남의 전설』 에서 함평군 관련 부분만 발췌한 9편, 함평군사편찬위원회 간행 『함평군사』 에서 발췌한 4편, 전라남도교육연구원 발행 『우리 고장의 전설』 함평군편에서 1편 등 총 14편이다.

『전남의 전설』 은 편자인 김정호(전 전라남도영산호관광농업박물관장, 현 진도문화원장)가 전남일보(현 광주일보)에 「전설의 현장」 이란 제목으로 1975년 10월 29일부터 1977년 12월 9일까지 200회에 걸쳐 연재한 글을 엮은 것이다. 편저자는 당시 문적(文籍)에 기록된 전설소재를 조사하고, 현장을 확인한 후 구술자 중심보다는 확실한 물적과 합리성 있는 것들을 골라 실었다고 한다[44].

1984년에 펴낸 『함평군사』 에는 용호(龍湖)마을, 사산(射山)마을과 안영동(安永洞, 雁永洞)마

4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 527쪽
44) 김정호 편, 『전남의 전설』, 전라남도, 1991. 머리말 참조

을의 줄나무, 앵소산 맹리(孟里) 선산, 호명산, 장산들 백비(白碑), 나산리의 석파(石破) 무인재(無人材), 수문이 불맥이굿, 아차동 미륵 할머니, 포향정 소나무, 운림마을, 조피곡(趙避谷)과 장군바위, 삼천동(三泉洞)과 삼천동(三千洞), 철성산 호랑이굴, 농(籠)바우, 새나꼴 방울바우, 감악산 용굴, 평릉에 얽힌 전설 등이 수록되어 있다.

1995년 발행된 『우리 고장의 전설』 함평군편은 『함평군사』 에서 2편(앵소산 맹리, 조피곡과 장군바위)을 제외하고 대부분 재인용 했고, 여기에 '진정한 친구', '노허의 정려(旌閭)', '정녀(貞女)' 3편을 추가해 실었다. 이번 군사에 '진정한 친구'와 '정녀' 전설은 함평군과 관련성이 적고 전국적인 전설로 판단되어 수록하지 않았다.

한편, 함평군의 설화는 『한국구비문학대계』 6-2 전라남도 함평군편, 『나산마을사』 등에 잘 정리되어 있다.

『한국구비문학대계』 6-2 전라남도 함평군편은 지춘상 전 전남대교수가 엄다면, 나산, 월야면, 신광면에서 채록한 185편의 설화를 수록한 것으로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엄다면(58편)

도골이와 개골이, 죽은 아이 살린 이야기, 이야기 잘 해서 경상도 감사가 된 이야기, 권불십년, 선풍곽씨 시조의 적선, 초분(草墳)과 양한림, 양마부와 문둥이 각시, 처갓집 식구 속여먹은 사위, 구미호(九尾狐)와 삼족구(三足拘), 유성룡과 이여송, 유성룡과 김덕령, 첫날밤에 반다지 속에 들어 있는 중놈, 도깨비 본 이야기, 둔갑한 여우가 낳은 아들, 호랑이 덕에 장가 간 나무꾼, 움직이는 철마, 쌀 나오는 구멍, 딸각바위, 장군바위, 선학(仙鶴)덕에 소문난 문장, 사명당은 임진사, 머리털 팔아 제상(祭床)차린 며느리, 비상 먹고 남편 살린 열녀, 상좌(上佐)가 건드린 주모, 게발에 물린 여자와 중, 남의 명당 쓰고 잘 산 삼형제, 칠삭둥이 낳을 명당, 은혜 안 잊어 부자된 이야기, 못 믿을 것은 여자, 아들복 많은 사람. 간부와 놀아난 여인, 열두 큰 애기 얻은 총각, 둔갑한 지네와 닭, 과부 얻는 법, 과부 둘 얻은 총각, 혼이 나가서 애기로 태어난 이야기, 인도환생한 이야기, 염라대왕의 심판, 개과천선, 적선(積善)해서 부자된 동생, 고분지통, 술 따르는 아내보고 성난 남편, 양반아들과 백정딸, 남편의 나병 고치고 자살한 열녀, 잘 사는 방법, 잘 사는 비결, 두들기면 떨어지는 대추나무, 도깨비와 호랑이의 혼(魂), 꾀로 마적 대장이 된 이야기, 기지(機智)로 원님이 된 건달, 율곡의 형님과 풍신수길, 이율곡과 유성룡, 똘감 명당, 명당불, 지네명당, 쥐꼬리 명당, 부자된 나무장사, 별뫼마을은 소혈

2) 나산면(38편)

서당선생 장가보낸 제자, 와락(臥樂)마을의 유래, 상객가서 실수한 술꾼, 명당 쓰고 주인딸 얻은 머슴, 손자 살리고 범잡고, 물동이에 떨어진 연(鳶), 피장파장, 고침단면(高枕短眠), 사필귀정(蛇必歸井), 김춘택(金春澤) 이야기, 용천사(龍泉寺)에 얽힌 전설, 풍수설로 본 사산(射山)마을, 노루가 잡아준 명당, 용소(龍沼)와 메기바위, 천주봉과 기우제, 고추장 좋아하는 삼부자, 신돈(辛旽)과 불개, 장승에 비단 판 비단장수, 송구봉과 이여송, 명당 혈을 잘라 망한 이야기, 공방살(空房煞), 익살맞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왕수인(王修人) 이야기, 도술부린 화가, 병 고치는

고환, 왕희지와 선화(扇畵), 관천일월동(觀天日月同), 진묵대사의 도술, 과객들의 내기, 정승 낳으려고 벙어리 된 처녀, 안영이 이야기, 계묵(桂墨) 이야기, 생쌀만 먹는 며느리, 되찾은 형제간의 우애, 돌 노적과 금덩이, 첫날밤에 박색신부 속인 신랑, 정직한 사돈, 지혜로 도둑 잡은 관장

3) 월야면(25편)

남근 자랑, 월야(月也)의 지명 유래, 월악산 주변의 전설, 기우제(祈雨祭), 방귀 잘 뀌는 며느리, 도둑놈과 방귀, 게으름뱅이와 도둑, 호랑이로 둔갑해서 여자를 희롱한 중, 벌(蜂)과 명당, 새끼로 말을 바꾼 이야기, 잉어등과 개미, 고생해서 살림 이룬 부부, 서당선생 장가 보낸 동자, 부자과부 속여 얻은 건달, 며느리와 딸, 도깨비와 강부자, 효자와 효부, 사이 나쁜 고부간과 아들, 이웃집 처녀 꾀어 벼슬한 총각, 불효아들이 효자된 이야기, 최지천 이야기, 최고운과 중국 사신, 서당선생의 계간(鷄姦), 백지소지(白紙訴紙), 삼천갑자 동방석

4) 신광면(65편)

장인 도둑 버릇 고친 사위, 시어머니 도둑 버릇 고친 며느리, 쇠바위, 머슴 효자, 호랑이와 효자, 첫날 밤에 똥 눈 신부, 맷짝이 합쳐져서 결혼한 남매, 부자집 돈 둘러낸 건달 화보, 큰애기 속여 먹은 두부장사, 해원(解寃)해 주고 잘 사게 된 장난꾸러기, 도적놈에게 빼앗긴 마누라, 형제인 지성(至誠)과 감천(感天), 토끼에게 속아 함정에 빠진 호랑이, 호랑이와 효자, 며느리 방구에 소리개가 된 시아버지, 방구 잘뀌는 여자와 꽹과리, 효자 자랑, 뚝덕 방망이, 친정 아버지 속여 부자된 딸, 무식한 지관(地官), 명당과 칠도감사, 복숭아 먹고 잉태하고 비둘기가 키워준 애기, 용천사(龍泉寺) 전설, 수은(睡隱)선생과 맹자정(孟子亭), 왕씨(王氏)가 전씨(全氏)된 이야기, 점괘로 살아난 뱃사공, 목사(牧使) 둘러먹은 사령, 나성대와 나귀, 파계승 신돈, 둔갑합 백여우와 너구리, 견원(甄萱) 지렁이, 소금 장수 이야기, 거짓말 잘하는 사윗감, 덕진 다리, 구렁이가 된 처녀, 처녀 원귀, 용이 올라간 명당, 경암과 풍신수길, 상객사거 실수한 이야기, 김도령과 이낭자, 쥐의 배필은 두더쥐, 촌부인 지혜로 살인자 찾을 사천군수, 한국판 노아의 방주, 도깨비 돈으로 산 땅, 임진왜란과 소상방죽, 과부를 속여 화간한 쟁기질꾼, 서화담과 처녀, 집 보는 처녀속인 행인, 현명한 이어사(李御使), 사돈 옆에 두고 하는 성교, 노루가 잡아준 집터와 삼족구(三足拘), 호식(虎食) 1. 호식(虎食), 2. 늙은이의 한탄, 늙은 신랑과 아기 신부, 이야기 돌림, 점 잘 치는 무식한 선생, 재치있는 이방, 옷 훔친 대원군, 양자 빼앗은 과부, 혼령(魂靈) 도움 받은 송지지단, 세 모녀의 소망, 네 계집이 내 계집, 개목이 샌님목, 명마바위 전설

『나산마을사』에 수록된 구전설화는 강현구(광주금호고등학교 교사)가 채록한 것으로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문바위 전설/탕건바위 전설(김정호편, 『전남의 전설』, 전라남도, 1991. 재인용), 못된 일꾼, 꾀 많은 머슴, 고름장이 없어진 사연, 귀신 쫓은 편작, 강태공과 나뭇꾼, 전화위복, 솔재 노씨 할머니 묘, 호식(虎食) 당할 명당(明堂) 터, 도깨비 방망이, 나무꾼 이야기

2. 사례

1) 감악산 용굴과 극락사

함평읍 자풍리에 있는 감악산 동북쪽에 용굴이 있는데 '용추'라고도 불린다. 이 산을 무안군에서는 감방산이라 부르고 있다. 용굴은 지상 50m나 되는 절벽이 온통 암석으로만 둘러 있고 깊이 숨겨있어 그 깊이를 측정할 수가 없다. 용굴에는 항시 지면 가득히 원수(原水)가 차 있으나 흐르지도 않으며 또한 솟구치지도 않음으로 용굴의 깊이와 원수의 양은 헤아릴 수 없다. 『면성지』에 따르면 '원수는 수 백절인지라 확인하기 어려우나 사호(함평군 학교면 월호리 사포를 말함)와 서로 통하니 그 기량이 군자와 견준다 하여 사람으로는 가히 이렇다고 말할 수 없다'고 적고 있다.

사호와 상통한다는 설은, 옛날 어느 관광객들이 용굴의 깊이를 명주실패로 측정하고자 실을 풀어 용굴에 넣던 중 실수로 실패를 떨어뜨렸는데, 뒷날 사호 강위에 이 실패가 떠올랐다는데서 비롯되었다.

굴아래에 극락사라는 유지가 있는데 이 절은 고려시대의 고찰이라고 한다. 그 건립연대나 폐사연대를 알 길이 없는 절이지만 뒤뜰에 있었던 돌구멍에 얽힌 전설이 있다.

돌구멍에는 신기하게도 한 사람이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나왔다 한다. 어느 날 스님 한분이 이 절을 찾아 왔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양식으론 배를 채울 수가 없어서 식량이 나오는 구멍을 쌀이 많이 나오게 할 생각으로 부지깽이로 쑤셔버렸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그 돌구멍에서는 쌀이 나오지 않고 빈대가 수없이 쏟아져 나와 절방에서 거처할 수가 없어 폐사되고 말았다. 지금도 그 옛터의 돌부리를 파헤치면 빈대자국이 있다고 한다.

자풍리 노송마을 입구에 동자상 돌부처 2기가 있다. 이 돌부처는 극락사의 유물로 '살맥이 돌'이라고도 한다.

절의 남쪽에는 '현천'이란 샘이 있는데, 이 근처 무지개는 현천에서 시작된다고 하며 이 물로 목욕하면 더위를 모른다고 전해온다. 가뭄이 들때는 감방산 정상에서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2) 기산영수와 함평

함평은 함풍과 모평을 합해 현을 만든 1409년부터 불려진 이름이다.

함평은 예부터 땅이 기름져 농사가 잘되었고, 특히 쌀맛이 좋고 질이 좋아 '함평 쌀밥만 먹은 사람은 상여도 더 무겁다'는 옛 속담이 나올 정도이다. 함평에는 명산과 깊은 산골짜기가 없다.

그러나 기산영수로 불리는 명승지가 있다. 함평읍의 주산과 그 산을 감돌아 흐르는 함평천을 중국 하남성 등봉현의 전설적인 땅에 비유하여 기산영수라 했던 것이다. 중국의 역사는 요순으로부터 시작된다.

요는 BC 2367년에 산서성 평양에 도읍을 정하고 50년간 왕위에 올라 선정을 베풀었다. 그

러나 요 임금 같은 태평성세에도 세속을 싫어했던 인물이 있었으니 소부와 허유는 세상을 등지고 하남성 기산에 숨어 살았다. 요임금은 단주라는 아들을 두었으나 그 아들이 어질지 못해 임금자리 물려줄 사람을 찾던 중 기산에 숨어사는 소부와 허유가 그 자리를 맡을만한 인물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요임금은 사람을 기산에 보내 그의 의향을 전했다. 소부가 이 말을 전해듣자 펄쩍 뛰며 사람을 되돌려 보낸 뒤 기산밑 영수에 귀를 씻었다. 마침 이 때 소에게 물을 먹이려 이 냇에 온 허유는 소부가 귀를 씻고 있음을 발견하고 그 연유를 물었다. 소부가 가로되 "나더러 임금자리를 맡으라니 그 소리를 들은 귀가 불결하여 씻는다"하므로 허유는 끌고 왔던 소를 소부가 귀를 씨고 있던 내 위쪽으로 몰고 가면서 "나는 미물인 소에게도 소부가 귀를 씻은 더러운 물을 먹일 수 없다."고 했다고 전한다.

사실로 이 두 인물의 살았던지는 알 수 없으나 후대에 기산영수라 하면 두 인물을 관련시켜 생각하는 전설적인 지명이다.

사람들은 함평공원 부근의 내와 함평읍의 주산을 언제부터 기산영수라 부른지는 알지 못한다. 다만, 이곳에 조선 세조때 단종의 왕위찬탈을 못마땅히 여기고 벼슬을 마다하며 이곳에 정각을 짓고 살았던 인물이 있었으므로 그가 지은 이름이 아닐까 생각할 뿐이다.

세조대 이곳에 영파정이란 정각을 짓고 은둔한 인물은 함풍이씨 이안이란 사람이다. 그의 할아버지 이희림은 청주판관을 지냈고, 아버지는 제학을 지낸 연고로 단종 2년(1454)에 박팽년의 추천으로 남부참봉에 특채된 사람이다. 그러나 이듬해 6월 세조가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빼앗자 더러운 세상이라고 한탄하며 벼슬을 버리고 고향인 함평에 내려가 정각을 짓고 "루(樓)가 높아 날아가는 기러기는 등만 보이고 루 아래 물이 맑아 헤엄치는 새우의 수염을 헤아리겠다"는 시를 읊으며 기산지지의 생활을 했었다.

얼마되지 않아 조정에서 그의 인품을 알고 사헌부장령 벼슬을 내렸으나 자신을 소부와 허유에 비유하여 벼슬 않고 지내다 30년만인 1474년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그 후손들은 모두 벼슬길에 나서 아들은 정5품인 부사직 벼슬을 했고 증손대에서는 대사간 벼슬을 지내는 등 명문을 이루었다.

3) 동섬과 탕건바위

현재의 나산면은 1932년 행정구역 개편 때 평릉면과 식지면을 합해 만든 면이다. 이 때 면소재지도 삼축리로 옮겼지만 그전의 면소재지는 이곳에서 냇을 건너 1km지점의 나산리였다. 나산은 대정, 동신, 방하 등 세 마을을 합한 곳으로 전통있는 마을로 친다. 주민들은 이 마을은 마한 시대부터 있던 마을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역시 전통있는 마을답게 마을에 정각이 있고 연못이 있으며 연못 둑에는 수 백년 된 고목 20여 그루가 있다. 삼축서 나산천을 건너 마을로 접어드는 논 가운데 10m 간격으로 5~6평 가량되는 섬 3개가 있다. 섬이라기보다 큰 무덤같지만 이곳에 소나무가 3~4그루 씩 서 있고 주민들은 이곳을 「동섬」이라 부른다.

마을 사람들에 의하면 옛날 이 마을에서 과거 급제자가 많이 나와 그때마다 솔대대신 동섬 하나씩을 만들어 과거급제자를 낸 동리의 명예를 과시했다 한다. 한 때는 그 수가 일곱 개에

달했으나 경지 정리를 하면서 4개가 없어지고 지금은 3개가 남아 있다.

옛날에는 과거에 급제하면 어사화를 쓰고 피리부는 광대인 솔창을 앞세우고 금의환향했으며, 마을에 도착하면 솔대를 세워놓고 영고를 울리며 축하회를 열었다. 그러나 나산만은 입목대신 자그마한 섬을 만들어 이곳을 중심으로 축하회를 열었다니 특이한 풍속이다.

이 마을에서 최초의 급제자는 안충달이다. 그는 조선 중종때에 과거에 급제해 정5품인 병조정랑을 지냈다. 5대손 여지는 효종조(1649~59년)에 설서(設書) 벼슬을 했고 여기는 종 4품인 창평군수를 지냈다. 또 여지의 손자 치택은 정 5품인 사헌부 지평 벼슬을 했고 동생 치중도 과거에 급제했다. 치택의 아들 형직은 정조조(1776~1800년)에 정3품인 참의벼슬을 하는 등 일문이 명성을 떨쳤다.

이 때문에 이곳 사람들에게는 교만함이 있었다. 그 교만과 관련한 전설이 마을 가운데 있는 이인정곁 바위에 전해온다.

이인정은 3칸의 정자로 개수한바 있는데, 개수당시 상량문에 이 정각은 1670년에 지었다는 기록이 있었다 한다. 그러므로 이 정각은 안여지가 설서 벼슬을 하다 내려와 지은 것으로 추측된다. 정자 곁에는 1천 4백평짜리 연못이 있고 그 둑에는 수 백년 된 물버들, 느티나무, 팽나무 등 20여 그루가 서있다.

이 연못은 정각의 풍자를 돋우는데 큰구실을 하고 있지만 마을 뒷산이 옥녀봉(186.8mm)이라 불리웠기 때문에 옥녀의 거울로 만들었다고 전한다. 정각 곁 느티나무는 당산목으로 섬김을 받아 소머리를 놓고 제사했으나 지금 이 풍습은 끊기고 나무마저 한쪽만 남았다.

정각 북쪽 3m지점에 높이 2m, 폭 3m 가량의 바위가 있고 이 바위를 이곳 사람들은 '탕건바위'라 한다. 이에 얽힌 전설은 다음과 같다.

마을에 한 중이 들렀는데, 양반위세가 지나치게 심하고 사람을 박대하므로 그 버릇을 잡아줄 심산으로 정각 밑에 이르러 "동네의 좋은 우물자리가 있는데 냇물을 길러 먹다니 이상하다"는 말을 흘렸다. 이 말을 들은 정각 위의 사람들은 솔깃한 얘기라 중을 불러 우물자리가 어디냐고 물었다. 중은 저 연못가 10m밖에 서있는 버드나무를 뽑아내면 그 자리에서 물이 솟을 것이라고 일러 주었다. 반신반의 하면서도 사람들은 중이 말한데로 버드나무를 베어내고 그 뿌리를 캐내자 물이 콸콸솟아 연못으로 흐르며 물고기 2마리가 노니는게 아닌가, 사람들은 환성을 지르며 이 중을 대접하고 "보아하니 귀승의 안목이 높은 듯하니, 마을이 더욱 번성할 비책을 일러 달라."고 간청했다. 중은 이인정에 올라 주변을 둘러보더니 정각 바로 밑에 있는 바위를 한참 살핀 뒤 "저 바위를 깨뜨리면 이 마을에 더 큰 인물이 나올 것이요"라고 말했다. 동네 사람들은 중의 얘기가 그럴 듯싶었으므로 청년들을 시켜 바위를 깨뜨리기 시작했다. 일을 거의 마칠무렵 바위를 깨뜨리던 청년이 피를 토하고 급사했다. 사람들이 놀라 중을 찾으니 중은 이미 동네를 빠져 나가 버린 뒤였다. 이 일이 있은 뒤로 나산에서는 큰 인물이 나질 않았다. 사람들은 중이 마을 사람들의 교만함과 박대를 보복하려고 탕건바위를 깨뜨리게 했고 이 때문에 동네에서는 큰 인물의 맥이 끊기고 말았다고 전해온다.

4) 수문이 불맥이제의 유래

함평읍에서 서북쪽으로 14km를 가면 함평만 갯가에 대전리라는 마을이 있다. 이 마을은 동북에 노승산을 북쪽에 군유산을 두고 있다. 손불면의 면소재지이며 마을앞에 간척 농지가 있다.

대전리는 수문, 대행, 면소재지의 저전을 합하여 부르는 행정리 이름이다. 이중 수문마을의 남흥동 북쪽에 '중울음재'가 있고 재미나는 민속이 내려오고 있다.

옛날 어느 고승이 함평에서 옷밥골재(원래 옻밭골재)를 넘어와 좋은 절터를 찾고 있었다. 마을 뒤를 둘러싼 산의 형세가 좋아 보이므로 무릎을 치면서 좋아했다. 고승이 자세히 지형을 살피더니 앞산마루에 화귀가 걸려 있고 저수지 동쪽의 뒷 뫼 형국이 나빠 명당을 망쳤다고 탄식했다. 노승산으로 올라가는 재에 이르러 앞산마루를 쳐다보고 다시 계곡을 내려다보면서 엉엉 울었다고 한다. 이후부터 이곳을 '중울음재'라 부르기 시작했으며 이 고개가 바로 노승산에 오르는 수문마을 뒷길이다.

이같은 지리 때문에 노승은 이곳에서 절터찾기를 포기했다. 돌아서려던 노승이 마을을 내려다보더니 마을의 한 노인에게 "이 마을은 계속 번창할 것이나 화재가 많을 것이 염려되고 계곡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것이다."고 알려 주었다. 이 말을 들은 노인이 노승에게 애원하며 그 액맥이 방법을 물었다. 마을 건너편을 가르키며 노승이 말하기를 "저기 보이는 수문 위의 언덕에 커다란 항아리 3개를 묻고, 그 항아리에 바닷물과 우물물을 반반씩 부은 뒤, 뚜껑을 덮고 흙을 덮어서 무덤처럼 해두었다가 불이 나거든 열어보라"고 했다. 말을 들은 노인은 마을회의를 열어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다. 물항아리를 사오는 일은 '웃대미마을'에서 뚜껑돌을 만드는 일은 '아랫대대마을'에서, 항아리를 묻는 일은 '동그대미마을'에서 맡기로 했다. 항아리를 묻는 날은 정월 대보름 당제를 지내고 좋은 날을 가려 하기로 했다. 이때부터 불을 막는다는 뜻의 불맥이제 풍속은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뒤로부터는 불이 나는 횟수가 적어졌으나 중간마을(동그대미)에서 불이 나 열어보니 가운데 항아리만 물이 말라 있었다. 아무리 살펴봐도 깨진 곳이 없었으므로 다시 물을 채우고 묻어 두었다. 아랫마을에서 불이 나 열어보니 이번에는 아래쪽 항아리만 물이 없어져 있었고, 윗마을에서 불이나 열어보니 역시 윗항아리만 물이 없어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동쪽의 제일 윗항아리가 '웃대미아을'것이고, 가운데 것이 '동그대미'것이며, 아랫것이 '아랫대미'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 뒤부터는 음력 2월 1일 오전에 정결한 제주를 골라 제를 지내고 농악을 울리며 물항아리를 열어 보았다. 물이 없어진 항아리가 있는가 살펴보고 물이 많이 줄어든 항아리는 미리 준비한 바닷물과 우물물을 반반씩 섞어 채웠다. 물이 많이 줄어든 마을은 특히 그 해에 화재를 조심하도록 경고했다. 특히 이날은 제물을 많이 마련해 이곳을 지나는 행인들에게까지 음복을 시키며 큰 잔치를 벌이기 때문에 동네 행사로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항아리는 옷밥골재를 지나 장터마을로 접어드는 길목에 있는데, 우체국과 지서가 들어서고 밭으로 개간되면서도 물항아리가 묻힌 8평가량은 그대로 남아있다. 각각 1m 간격으로 묻혀 있으며 물을 채운뒤 석판으로 뚜껑을 씌우고 항아리와 석판뚜껑 사이는 진흙으로 매웠다. 그

석판 위로는 70cm가량 흙을 덮어놓고 있다.

마을 뒷산 계곡에 있는 낭떠러지에서는 사람이 떨어져 죽거나 병신이 되는 일이 많았다. 사람 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산을 넘어서 마을로 들어오다 낭떠러지를 쳐다보고 겁을 집어먹고 도망가기도 하였다. 이곳에는 사슴이 넘어졌다는 "도록골"과 노루가 넘어졌다는 "도장골"이 있다. 불맥이제가 있던 어느해에 이곳 낭떠러지 입구를 막아 사람의 통행을 금지시켜 명당의 흠이 되는 두 곳을 막기도 하였다.

이 마을이 수문이라 불리게 된 것은 간척공사가 되기 전에는 바닷물이 들어오는 수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곳의 지형은 숨은 신선이 글을 읽는 은선독서형국으로 은곡이라 그 이전부터 불렸던 명당 자리였음을 알 수 있다. 불조심을 생활화 했던 옛 모습이 전설과 곁들여 동제가 된 좋은 본보기요 민속의 하나다.

5) 비운의 아차동 장사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서 북쪽으로 10리 거리에 덕산리 1구 '아차동'이란 마을이 있다. 100여호에 이르는 큰 마을이지만 도로에서 보기에는 몇 호 보이지 않는다. 동네에 들어서며 동네가 겉보기보다 크기 때문에 '아차 잘못보았구나'하는 말이 절로 나와 아차동이라 했다고 전한다. 이 마을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도 있다.

옛날 풍수에 밝은 사람이 죄를 지어 포졸에 끌려 한양으로 가다 이 마을 앞에서 쉬게 되었다. 마을 뒷산으로 바라보니 명지인지라 이곳을 지나는 주민을 붙들고 목마르니 술 한 잔만 주시면 그 은혜로 좋은 자리 하나를 알려주겠노라고 했다.

이씨성을 가진 마을 사람은 명당이란 말에 귀가 솔깃해 그의 원대로 술 한잔을 대접하고 자리 하나를 얻었다. 이 자리 덕이었던지 몇 년 뒤 이씨는 아들 하나를 낳았다. 그런데 그 아이는 어깨밑에 깃이 달려 생후 일년도 못되어 뛰어날으며 병정놀이를 하는 등 괴동 노릇을 했다. 문중에서는 필시 이놈이 우리 가문을 망할 놈이라고 문중회의를 열고 죽이기로 했다. 문중에서는 이 아이를 죽이려고 굶겨보았으나 죽지 않았다. 소년은 스스로 내가 태어날 곳에 태어나지 못했다며 '내 위에 벼 석섬을 올려놓고 매일 죽만 쑤어 먹이라'고 했다. 그래도 했더니 아이는 정말 죽고 말았다. 얼마되지 않아 나라에서 이 마을에 대장군감이 태어났다고 해서 데리러 왔다며 사람이 찾아왔다. 이때야 이씨문중에서는 그들이 어리석었음을 깨닫고 「아차」 했으나 이미 늦은 뒤였다. 이런 연유로 마을이 이름이 아차동 이라 불리게 되었다.

6) 향교 뒷산에 얽힌 전설

향교 뒷산은 약마등(躍馬嶝)이지만, 흔히 사람들은 명륜당이 자리잡은 산이라 하여 명륜산이라 부른다. 1960년대까지 백로떼가 몰려가 앉았기 때문에 '노산' 또는 '황새골'이라고도 했다.

옛날 이 황새골에서 10리 동쪽 고산봉 밑 송산 마을에서 17세 난 소녀가 매일밤 차례로 없어지는 괴변이 일어났다. 딸을 가진 사람들은 원님에게 알리고 이 괴변을 막아달라고 탄원했다. 원님은 그에게도 17세난 딸이 있었으므로 그곳에 딸을 데리고 나아가 진상을 조사키로 했다.

포수들로 하여금 철통같이 딸을 지키게 하고 밤을 맞았다. 밤이 으슥해지자 굉음이 울리는가 싶더니 바람을 일으키며 어둠을 뚫고 눈을 번쩍이며 무엇인가 그들 곁으로 다가오는 듯 했다. 원님은 포수들에게 일제히 활을 쏘라고 명령했다. 한창 소동 뒤에 거대한 새의 비명이 울리고 공중에서 황새 한 마리가 멀리 떨어졌다. 이처럼 황망중에 검은 물체에만 정신을 잃은 나머지 원님의 딸을 보호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말아 뒤늦게 원님의 딸이 없어진 사실을 알았다. 사람들이 소스라쳐 뒤졌더니 황새가 죽은 거리에서 얼마되지 않은 곳에 원님의 딸이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있었다. 황새가 원님의 딸을 나꿔채 달아나다 활에 맞아 죽은 것이다. 원님의 딸이 죽은 자리에서는 바위가 솟아 올랐다. 사람들은 죽은 자리를 '황새골'이라 하고 원님딸이 떨어져 죽은 뒤 솟은 바위를 '처녀바위'라 불렀다. 이 황새골이 바로 향교리 뒷산이고 그 바위는 향교안에 있다고 한다.

7) 처녀를 수장한 돈내보

돈내보는 10리 가량 밑에 있는 나산면 면소재지인 삼축리 앞 들 5백여 정보에 물을 대주는 수리시설이다. 이 보는 1968년 시멘트로 튼튼히 만들어 졌지만 그전에는 돌만으로 만들어졌으면서도 튼튼한 편이었다. 일부자료는 축조 연대를 1592년이라 쓰고 있으므로 사실이라면 4백여년전의 수리시설이다. 지금 볼 수 있는 시멘트 보는 길이가 60여m로 나선서 2km쯤 상류에 있으며 삼도~나산 간 도로에서 1백m거리에 있다. 보 50m 거리에 양수장 건물이 있으므로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다. 보의 위치가 물결이 도는 돌머리라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얽힌 전설이 있다.

옛날 이 보 밑에서 봇물을 이용해 물레방아를 돌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이 보는 이슬비만 내려도 터져버릴 만큼 튼튼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보에 의지해 농사를 짓는 삼축리 사람들은 애를 태웠으며, 물레방앗집은 항시 생계의 위협을 받았다. 어느 날 비가 와 보가 터져 또 보수할 것을 걱정하던 삼축리 사람들과 물레방앗간 주인 꿈에 신선이 나타났다. "이곳에 처녀를 제물로 바치지 않는 한 너희는 절대로 보를 온전히 보전하지 못할 것이나라."는 현몽이었다. 이 꿈 얘기는 온 동네에 퍼졌으나 제수로 바칠 처녀를 구할 길이 없었다.

물레방앗간에는 돈내라는 착한 딸이 있었다. 보가 터질 때마다 생계가 위협을 받는 가정형편과 보 공사에 바칠 처녀 때문에 수심에 잠겨있는 아버지를 생각한 효녀 돈내는 아버지 몰래 보에 나아가 스스로 투신자살했다. 이후부터 보는 3백여년간 터질 줄 몰랐고 사람들은 이 보를 '돈내보'라 불러 그 처녀의 효성을 기렸다.

이 보 이름에 대해 일설에는, 원래 나산천을 도천이라 불렀는데, 도천이라 한 것은 물이 돌아 빠져 '돌내' 또는 '돈내'라 하던 것을 한자화한데서 연유한다.

또 다른 전설은 보가 자주 터져 고심하고 있었는데, 한 도승이 지나다가 그 사정을 듣고 용왕님께 처녀 제수를 올려야 괜찮을 것이라 일러주었다. 사람들은 산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얘기를 듣고 걱정이 태산 같았다. 이 무렵 여아를 등에 업은 걸인 여인이 마을에 들어오자 이 여인에게 돈을 주고 여아를 사서 제물로 바쳤는데, 그 걸인 여인은 벼락 맞아 죽고 말았다.

한편에서는 박첨지라는 사람이 동네일을 위해 자기 딸 도례를 제물로 바쳐 그 이름이 비롯되

었다고도 한다.

돈내보는 여아를 수장시켜 만든 보라 비가 오면 봇물 흐르는 소리가 마치 처녀가 우는 것 같고 '돈내' '돈내' 하는 소리로 들린다고도 한다.

이와는 달리 1972년 9월 함평군 교육청이 민속문화교육자료집으로 발간한 이 보의 전설은 사연이 좀 다르고 많이 각색된 듯싶으나 소개한다.

옛날 나산에 가난한 노부부가 뒤늦게 아들 하나를 낳았다. 이 부부는 아이가 여섯 살 나던 해 세상을 떠났다. 아이의 이름은 제동이였다. 제동이는 고아가 되어 걸식하던 끝에 어느 부자집 초동으로 들어가 자랐다. 제동이는 나이 30이 되도록 총각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머슴살이를 해야 했다. 뒤늦게 주인집 딸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으나 그녀마저 부모들이 정해준 이름난 가문으로 시집을 가 버렸다. 사랑을 잃은 제동은 자기신세를 비관, 마을 앞 보에 나가 투신자살 하고 말았다. 제동이가 보에 빠져 죽고부터 이 보는 이슬비만 내려도 터져버려 봇물로 농사를 짓던 아랫마을 사람들은 비온 뒤마다 보를 다시 막아야 하는 큰일이 생겼다.

어느 날 보의 보수사업에 동원되던 마을사람들 꿈에 제동이가 나타나 "총각으로 죽어 원혼을 씻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불쌍히 죽을 나를 위해 예쁜 처녀를 하나만 보내주시면 다시는 보가 터지지 않도록 해주겠습니다."고 말하고 사라졌다. 이튿날 보 보수에 나온 사람들은 원혼을 달래기 위해 처녀 구할 길을 걱정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보 밑 물레방앗간집 착한 딸 돈내가 마을과 부모를 위해 투신자살했고, 이후부터 보가 터지는 일이 없어졌으며 보의 이름이 '돈내보'가 되었다는 것이다. 지금도 보에서 2km 상류에 물레방아 터가 있다.

8) 포향정 소나무

엄다면 화양리 포향정 뒷산에 둘레가 3.5m가량 되는 수령 250년가량의 소나무가 있다. 여기에는 성과 이름이 같았던 까닭으로 두 사람의 운명이 뒤바뀔 뻔한 이야기가 전해온다.

지금부터 200년 쯤 전에 엄다면 화양리 정양 마을과 포향정 마을에 '서명중'이란 성과 이름이 같은 두 사람이 각기 앞뒤 마을에 살고 있었다. 포향정 마을 서씨는 마음이 곱고 착한데 반해 정양마을 서씨는 심술이 사납고 마음씨가 바르지 못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포향정 마을 서씨는 병을 앓고 있었다. 달이 어슴츠레한 어느 날 밤 병고에 시달려 잠 못 이루고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밖에서 이상한 기척이 있어 문틈으로 바깥을 살펴보니 검정 옷을 입은 괴한 세 사람이 쑥덕거렸다.

"이 집이 서명중의 집이지?"

"아니 뒷동네에도 서명중이가 있는데"

"이 집일까?"

"그런 것 같아"

얼핏 예감이 자기를 데리러 온 저승사자란 걸 깨닫고 부인을 깨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승에서 나를 데리러 온 저승사자들이 분명하니 급히 마당에 짚을 깔고 사자 밥을 지어 대접하라'고 했다. 남편의 말을 들은 부인은 진수성찬은 아니지만 정성껏 음식을 마련하여 그들을 대접했다. 식사를 마친 세 사람은 잘 먹었다는 말을 하고 떠났다. 얼마 후 그들 세 사람이 다

시 나타났다.
“하마터면 착하디착한 당신을 데려갈 뻔 했소. 데려갈 사람은 바로 여기 이 사람이요.”
자세히 보니 그들의 뒤에는 꽁꽁 묶인 뒷마을 서명중이가 벌벌 떨며 서 있었다. 한 사내가 앞으로 나서며, “이 마을 뒷산 소나무에 마을을 수호하는 수호신이 살고 있으니 정성스레 잘 보호할 것이며 당신도 더 착한 마음으로 여생을 사십시오. 그럼 우리는 갑니다.”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날 밤 정양 마을 서명중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 온 마을이 떠들썩했다. 그런 뒤로 포향정 마을 서명중씨는 차츰 회복이 되어 오래 살았다 한다. 오늘날까지 저승사자가 일러준 포향정 뒷산 소나무는 잘 보호하여 가지하나 부러뜨리지 않으며, 나무에 올라가면 몸이 나무에 붙어버린다는 속신 때문에 올라가지도 손대지도 않는다 한다.

9) 아차동 미륵할머니

아차동 마을은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에 있다.
오랜 옛날 이 마을에 비라도 올 것 같은 음산한 밤이면 마을 옆 대밭에서 소름끼치는 해괴한 울음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불길한 징후라고 걱정들을 하며 너도나도 앞을 다투어 그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대밭으로 가보았다. 그러나 대밭을 아무리 샅샅이 살펴보아도 다른 것은 없고, 흡사 미륵과 같이 생긴 바위만이 덩그러니 서 있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마을 사람들이 돌아서려는 순간 또 한 차례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 울음은 마을 사람들 발걸음을 그 자리에 묶어버렸다. 마을 사람들은 하도 해괴하고 오싹오싹 소름이 끼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그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경건히 미륵바위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엎드려 두 손 모아 빌기 시작했다.
“미륵 할머니 어리석고 죄 많은 저희 인간들을 가엾게 여기사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시는 연유를 말씀해 주시옵소서.”하고 나서 수없이 절을 하니 이상하게도 울음소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뚝 그쳤다. 그날 밤 그 할아버지 꿈에 미륵 할머니가 나타났다.
“나는 너희 마을을 지키는 미륵 할머니다. 너희는 나를 너무 푸대접했느니라. 너희에게 부탁이 있다. 나를 아늑한 자리에 집을 지어 안치해주면 너희 마을은 모두 재액이 없으리라.”하고는 홀연히 사라졌다. 다음날 이 꿈 얘기를 듣고 온 마을 사람들이 의논해서 미륵 할머니 바위를 대밭에서 옮겨 좋은 자리에 제당을 지어 안치시켰다. 그리고 매년 음력 2월 초하룻날을 제사 날짜로 정해 음식을 장만하고 목욕재계하는 등 정성스레 제사를 지냈는데, 그런 뒤로는 이 마을엔 아무 재앙이 없다한다.

10) 앵소산 맹리 산소의 전설

이 마을에 살고 있는 김해김씨의 파조는 목경이요, 입향조는 맹리이다. 김해김씨 경파는 앵소산에 입향조 맹리를 모시고 선산을 이루며 살고 있었는데 그의 5대손 광립은 인조 때 안주목사로 부임 중 이괄의 난을 맞아 도원수 장만의 휘하에서 공을 세웠으므로 진무공신에 올랐고 그의 아들 속은 부산진 수군 절세사를 지냈으며 속의 아들 7형제가 모두 현달하여 무과에 급제

하자 왕이 국지관을 불러 현지를 답사하여 가문의 내력과 지세를 알아보게 하였다.

국지관이 현지에 임하여 내사한 결과 앵소신은 명당으로 계속 인재가 속출하고 가세가 비대하여 언젠가는 나라에 큰 화근이 될 징후가 엿보인다고 왕에게 무고하여 아뢰었다. 이에 왕이 곧바로 앵소산의 맹리 선산을 파헤치고 지금의 쌍령재 산혈을 끊고 백양동으로 내려 뻗은 산맥을 절단하여 맹리의 비석을 쓰러뜨려 없애라고 명령하였다.

지엄한 왕명대로 모든 산혈을 끊고 비석을 쓰러뜨리자 부녀자들까지 이에 항거하다가 유혈이 낭자하여 피가 사흘 동안 흘렀다는 가슴 아픈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그 후 이곳 맹리의 후손들은 벼슬한 사람이 없다고 전해진다.

11) 장산들 백비 전설

먼 옛날 효성이 지극한 부부가 홀어머니 한분을 모시고 살았다. 노모는 병을 앓아누워 계시면서 망령이 들어 하나 밖에 없는 어린 손자가 눈에 보일 때마다 개로 보였던지 잡아서 해달라고 조르는 것이었다. 하루는 부부가 의논 끝에 서로 위로하면서 홀어머니의 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해 사랑스런 자식을 어머니께 바치기로 하였다. 참으로 비장한 결단이었다. 차마 못할 짓인 줄 알면서 창자를 끊는 아픔을 누르고 귀여운 아들을 솥에 넣고 불을 지피다가 솥뚜껑을 열어본 즉 애는 간 곳 없고 거기에 커다란 동자삼 한 뿌리가 삶아져 있었다. 불가사의한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그 때 마침 죽은 줄 만 알았던 아들이 마을에서 놀다가 돌아오면서 어머니를 부르는 것이었다. 부부는 너무도 감격해서 아들을 안고 한참 울었다. 효심에 감동한 하늘이 아들을 동자삼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그 동자삼을 잡수신 어머니는 병이 나아 오래 오래 살았고 그 효자 부부도 아들을 데리고 행복하게 살았다 한다. 백비를 내린 까닭은 어머니에 대한 효행은 갸륵하나 인명을 소홀히 한 죄 또한 묵과할 수 없어 백비를 내렸다 한다. 그 백비가 장산들 논두렁에 세워져 있던 것을 1987년 5월에 사동 입구로 옮겨 놓음으로써 효의 귀감이 되고 오가는 사람들의 심금을 올려주고 있다.

12) 용호 마을의 용신당·용신제

학교면 소재지에서 7km쯤 지나 영산강변에 이르면 영산포에서 학교면 석정리 고막천(古幕川)에 이르는 배야(背野) 마을을 안고 흐르는 곡강(曲江)이 있다.

이 곡강은 고려 때 강이 지세(地勢)에 등져 흐르는 3대강의 하나로 되어 있으며 이 강의 배류지(輩流地)에 용호(龍湖)라는 유서 깊은 강촌(江村) 마을이 평화롭게 자리하고 있다.

뒤로는 산자수려(山姿秀麗)한 속금산(束錦山)이 그 위풍을 자랑하며, 강 건너 서쪽에는 고문산이 우뚝 솟아 있다.

고문산은 예부터 사람이 하나 들어갈 만큼 굴이 뚫려 있었는데 그 길이가 몽탄강(夢灘江)에 이른다고 하며 먼 옛날 이 굴에는 옥황상제(玉皇上帝)의 노여움을 사 지상에 내려온 백년 묵은 이무기 한 쌍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비가 오면 굴 앞 강변은 호수(湖水)로 변하였고, 이를 계기로 본래 용이었던 한 쌍의 이무기는 그 호수에 나와 목욕재계(沐浴齋戒)하고 다시 용이 되기를 옥황상제께 빌었다고 한다.

그 정성이 지극하여 마침내 옥황사제의 윤허(允許)가 있어 승천(昇天)을 하기에 이르렀다. 우뢰(雨雷)가 번뜩이며 소낙비가 쏟아지는 어느 날 숫 용이 먼저 승천하고 있을 무렵 마을의 한 여인이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 소리치자 다음으로 승천할 암 용은 부정한 아낙의 눈에 띄어 그만 승천하지 못한 채 땅에 떨어져 죽고 말았다고 한다. 그 후 이 마을은 질병이 끊어지지 않았으며 가뭄 때문에 흉년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암 이무기의 저주라고 믿어 용신당(龍神堂)을 짓고 매년 용신제(龍神祭)를 지낸 뒤부터 가뭄을 면할 수 있었다고 하며 용이 승천하였던 그 강을 용연(龍淵)이라고 하고 그 강변마을을 용호(龍湖) 마을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 오고 있다.

13) 운림마을

대동면 운교리에 운림이라 불리는 마을이 있다. 옛날 이 마을에는 도술을 부리는 운림처사라는 분이 살고 있었는데, 키는 9척에 풍채 또한 우람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감히 접근하기를 두렵게 하였다.

임란을 겪고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왜병들은 함평고을에도 물밀 듯이 쳐들어 왔다. 왜병은 함평고을을 휩쓸고 기산들을 가로질러 대동면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이를 미리 짐작한 운림처사는 마을 앞들을 바다로 만들어 왜병의 질주를 막았다. 왜병들은 깜짝 놀랐다. 방금까지도 눈앞에 넓은 들이 펼쳐져 있었는데, 어느새 바다가 되어 있으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왜병들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망설이는 틈을 타서 운림처사는 마을 주민들을 모두 완전한 곳으로 피난을 시켜 놓았다. 왜병들은 괴이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어찌할 수 없이 막무가내로 바다를 향해 말을 달렸다. 이게 웬일인가? 그 푸른 바다에서 먼지가 일고 말을 탄 왜병들은 무난히 마을에 이를 수가 있었다. 그제야 왜병들은 운림처사의 도술임을 깨닫고 운림처사를 찾았으나 간 곳이 없고 마을 사람들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왜병들은 할 수 없이 그대로 지금의 영광 쪽으로 진격해 가고 말았다. 이리하여 이 마을을 운림마을이라 부르게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며 운림마을 앞 들판이 보름동안 바다가 되었다 하여 '보름 바댓들'이라 불리게 되었다.

14) 노호의 정려(旌閭)

효자 노허(1545~1581)는 자가 극화, 본관은 함평으로 조선 명종·선조대의 인물이다. 어릴 때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서모를 친어머니처럼 모셨다고 하며, 부모에 대한 봉양을 어찌나 지극히 하였던지 한번은 눈보라치는 추운 겨울에 얼음으로 덮인 두꺼운 방죽(지금의 엄다면 성천리 노도리 방죽)의 얼음을 두들겨 깨고 잉어를 잡아다 어버이를 봉양하였다고 한다. 또한 부친께서 심한 중병을 얻어 거동을 못하고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 피가 부족하여 수혈을 하지 않으면 곧장 생명이 끊어진다는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에 그는 절지 수혈로 부친의 생명을 구하고 병을 치유, 회생케 하여 40여년을 더 생존토록 하였다는 것이다. 실로 감복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디 그 뿐인가 효자 노허가 어느 해 극심한 춘궁기를 맞게 되어 양식이 없어 부모의 봉양이 어렵게 되자 그는 갓 나온 보리 모개를 어루만지며 서럽게 울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

지 그 해는 어느 해보다도 보리 모개가 일찍 여물어 가까스로 그 위급함을 모면케 되었는데, 이는 하늘이 감복하여 그렇게 되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처럼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였다는 사실은 그가 죽고 난 뒤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1636년(인조 14) 조정으로부터 명정(命旌 : 왕이 내린 정려)을 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후손들은 복호(면세)를 받게 되었다. 이후 정려를 건립하여 하였으나 그해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자 실행치 못하다가 그로부터 25년 후인 1661년(현종 2)에서야 후손들이 힘을 모아 정려를 건립하게 되었다. 1804년(순조 4) 한번의 중수를 거쳐 현재의 건물은 1864년(고종 1) 그의 9대손인 노복렬(魯福烈)에 의해서 다시 중수된 것이다.

효자 노허의 정려는 함평읍 진양리 대진마을 입구에 있다. 중수 당시 노복렬이 선조의 효행을 상소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노허는 가선대부 이조판서로 증직되기도 하였다.

제2절 민 요(民謠)

1. 개요

민요는 민중들 사이에서 저절로 생겨나서 전해지는 노래를 두루 일컫는다. 특정 개인의 창작이거나 아니거나 창작자가 문제되지 않는다. 악보에 기재되거나 글로 쓰이지 않고 구전(口傳)된다. 엄격한 수련을 거치지 않고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악곡이나 사설이 지역에 따라 노래 부르는 사람의 취향에 맞게, 노래 부를 때의 즉흥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민요는 이런 특징을 지니기에 민중의 소리이고, 민족의 정서를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예술이라고 평가된다. 민요는 민속이고, 음악이고, 문학이다. 민속으로서의 민요는 구비전승(口碑傳承)의 하나이되, 생업·세시풍속·놀이 등을 기능으로 하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집단적인 행위를 통하여 불리어지는 기회가 많은 점이 구비전승의 다른 영역과 다르다. 음악으로서의 민요는 일반 민중이 즐기는 민속음악에 속하는 창악(唱樂)이되, 전문적인 수련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에서 판소리·무가·시조·가사 등과 구별된다. 문학으로서 민요는 구비문학의 한 영역이며 일정한 율격을 지닌 단형시라는 점이 설화·속담·수수께끼 등에서는 찾을 수 없는 특징이다. 민요는 이러한 민속·음악·문학의 복합체로 존재할 따름이지, 그 세 측면이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45].

민요는 그 기능에 따라 보통 노동요(勞動謠), 의식요(儀式謠), 유희요(遊戱謠)·놀이요, 기타요로 나누어진다. 이 가운데 노동요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것은 노동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 행동통일을 기할 수 있고, 흥겨워서 잠시나마 고된 일이 잊혀 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동요는 다시 농사일에 따른 농요, 어로 작업할 때의 어로요, 이 밖의 일과 관련된 기타 노동요로 나눌 수 있다. 농요에는 '모 찌는 소리'·'모심는 소리'·'논매는 소리' 등의 논농

4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8』, 1997. 765쪽

사 노래와, '밭 매는 소리'·'도리깨질 소리' 등의 밭농사 노래가 있다. 기타 노동요에는 나뭇짐을 지고 가며 부르던 '등짐소리', 집터를 다지며 부르던 '지경다구기 노래', 주로 부녀자들이 집안일 할 때 부르던 '방아 찧는 소리'·'맷돌노래' 등이 있다. 의식요는 사람의 일생에 따르는 통과의례(通過儀禮)와 일년 동안의 절후에 따른 세시의례(歲時儀禮)를 거행하면서 부르는 노래로 장례의식 때의 '상여소리'와 정초 지신밟기 때 부르는 '액풀이'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유희요·놀이요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로 '시집살이 노래'·'애기어루는 소리'·'타령류', 그 밖의 갖가지 노래를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여기에 수록된 함평군 민요는 이같이 세분하지 않고, 노동요와 기타요로 나누어 정리했다. 정리된 민요는 기존에 조사된 자료에서 발췌했다. 지금까지 함평군에서 채록된 민요는 『한국민요대전 2』 전라남도민요해설집, 『한국구비문학대계』 6-2 전라남도함평군편, 『나산마을사』, 『노래를 지키는 사람들』, 『나산들의 사산마을』, 『전남의 민요』, 『전남의 농요』, 『함평의 민요』 등에 잘 정리되어 있다.

『한국민요대전 2』 전라남도민요해설집은 MBC가 1989년 제주도를 시작으로 사라져가는 구전민요를 발굴, 녹음, 보존하기 위한 <한국민요대전> 사업에 착수하여, 1990년 두 번째로 함평을 비롯한 전남전역의 민요를 채록한 것이다. MBC는 이것을 선곡, 편집, 채보, 사설감수, 주해과정을 거쳐 1993년 전라남도 21개군 80여 마을의 342곡을 골라 20장의 음반으로 제작한 바 있다. 여기에 함평군 민요는 모찌기 소리(먼들소리), 모심는 소리(상사소리), 논매는 소리(무상삼장 외 3곡), 풍장소리(애롱대롱), 논매는 소리(긴소리/들래기소리), 논매는 소리(무삼벗기는 소리), 논매는 소리(재넹기소리), 논매는 소리(풍장소리), 논매는 소리(긴소리/맘조시), 풍장소리(에로지풍장), 밭매는 소리, 방아 찧는 소리, 맷돌노래, 둥당애타령, 귀뚜라미타령, 담바구타령, 시집살이노래, 진주낭군, 베틀노래, 강실도령, 상여소리 등이 수록되어 있다.

『한국구비문학대계』 6-2 전라남도 함평군편은 지춘상(전 전남대교수)이 엄다면, 나산면, 월야면, 신광면에서 채록한 78편의 민요를 수록한 것으로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엄다면(27편)

모찌리 노래(먼들소리), 모심기 노래(상사소리), 논매기 노래, 덜래기 노래(논매기 노래), 장원질 노래, 등짐 소리, 개장치는 소리, 가락홀태기 소리, 매통질 소리, 방아타령, 보리타작 노래, 말박는 소리, 상여소리, 콩밭매기 노래, 엿타령(1), 엿타령(2), 성주풀이, 액풀이, 애기어루는 소리(1), 애기어루는 소리(달강달강)(2), 자장가(1), 자장가(2), 거무 노래(거미 노래), 사랑가, 강강수월래, 둥당이 타령

2) 나산면(13편)

상사소리, 논매기 노래(문이가), 장원질 노래, 고리두래질 노래, 다구질 소리, 장타령, 강강술래, 밭매기 노래, 물래 노래, 방아찧는 노래, 시집살이 노래, 상여소리(공포소리), 흥글노래

3) 월야면(10편)

모찌기 노래(먼들소리), 상사소리(모심기 노래), 논매기 노래, 밭매기 노래, 시집살이 노래, 방아타령(디딜방아 타령), 맷돌질 노래, 지경다구기 노래, 성주풀이, 상여소리

4) 산광면(28편)

늦은 산타령(육자배기 산타령), 산타령, 흥타령, 개구리타령, 사거리, 모찌기 노래, 상사소리(모심기 노래), 논매기 노래, 덜래기 소리, 세화자 소리, 장원질 노래, 상여 소리, 달구질 소리, 성주풀이, 보리타작 노래, 등짐소리, 맷돌질 노래, 방아타령, 장타령, 담방구 타령, 베틀노래(1), 밭매기 노래(1), 강강술래 흥글타령, 밭매기 노래(2), 둥당이 타령, 원망요, 베틀노래(2)

『나산마을사』에 수록된 민요는 김동현(광주교육대학 교수)이 채록한 것으로 상여소리, 강강술래, 둥당게 타령, 짧은 성주풀이, 물레타령, 화투타령, 장타령, 베틀노래, 시집살이 노래, 사모곡, 신세타령, 아들에게 등이다.

『전남의 민요』, 『전남의 농요』에 수록된 함평군 민요 자료는 『한국구비문학대계』 6-2 전라남도 함평군편을 재인용한 것이다.

『함평의 민요』는 이소라(민족음악연구소 소장)가 1984년부터 채록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CD와 함께 제작했다. 이 책에는 함평의 민요를 모찌는 소리, 모심는 소리, 논맴소리, 장원질소리, 수확요, 소부림말·물품기, 운반노래(두엄·등짐·진상노래, 목도소리), 콩밭노래·맷돌·방아찧는소리, 길쌈노래, 풀소구소리·나무꾼소리, 터다짐소리·곡갱이질소리, 동요, 흥민요, 의식요로 분류했고, 이해하기 쉽게 각각의 악보를 게재했다.

이 책에서 이소라는 함평민요의 특색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함평민요는 넓은 평야만큼이나 풍부한 농요의 고장이다. 특히 논맴소리 중 한·두가지만 문화중심(cultural center)에 있어도 그 곳이 예사로운 지역이 아닌데, 함평에서는 14여종의 논맴소리가 불리우고 그 가운데서 절반 정도(①무삼베낌, ②아리시구나, ③더들게, ④대로리 류, ⑤청태산 마구할미류, ⑥얼싸좋소 말물어보소, ⑦호야소리 등)가 문화중심의 위치에 있다. 이는 군내의 고인돌·옹관묘와 함께 고대로부터 상당한 세를 가진 부족이 살고 있었을 것을 짐작케 한다. ②는 전읍면적이며 전파권이 인접시군에 널리 미침에 비해 ①은 서부지역에서 불리우며 무안군과 영광군에 전파시킨다. ③은 모평방면에서는 수집되지 않았는바, 나주시와 함평군의 무안방면이 출처지로 보인다. ④는 함풍방면이 문화중심이며 영광군에 전파시킨다. ⑤는 대동면의 개성적인 논맴소리로, 장성군과 영광군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⑥은 대동면에서, ⑦은 손불면에서 수집된다.

탁 트인 넓은 들판에 서서 노래하는 자연환경의 영향에서인지 고음의 설소리꾼이 적지 않았다.

모찌는 소리는 먼들 류이다. 이는 곡성·화순·보성·고흥군을 경계로 하여 그 이서인 서부 전남에서만 발견된다. 받음구의 '무언들'은 모찌는 행동 즉, 모를 묶어내는 작업을 형용하는 어휘에서 유래한다고 보아진다.

함평의 모심는소리 일반형은 잦은 상사류인 "에 - 에헤 헤로 사하뒤요" 형이다. 이들은

보편적으로 (메)와 (받)이 각각 중중모리 2장단씩이며, 기음의 4도윗음에서 종지한다. 구성음은 육자배기선법인 미라시도(Y2)의 단2도가 조금 높아져 솔도레미의 구성을 보이는 S2가 우세하다. 농부가형 긴상사는 상사하의 '하'를 '상사'보다 4도아래로 떨어뜨리면서 굵게 요성함이 특징인데 비해 함평의 일반형은 '사'보다 '하'를 높여 내거나 동음으로 낸다. 못방구의 구음을 "돗대봉 돗대봉 도돗대 도돗대 돗대봉"으로 외우고 있는 가창자가 있었다.

논매기는 3회하며 초벌·두벌·만드리를 일반적으로 20일·보름·열흘만에 한다. 그리하여 모심은지 45일만에 논매기가 끝이 난다. 대동면의 백련과 금성동에서는 두벌이라는 용어 대신에 한 벌이라 일컬었다. 7월 백중께에 상두(두레정산)를 하고 놀았다. 이 날 백련마을에서는 진서술, 머슴술, 이사술, 쇠머리술을 한턱 내었다.

함평의 논맴소리로는 무삼베끼는 소리, 아리시고나 류, 더들게 류, 세화자, 방애로세, 대로리 류, 청태산 마구할미 류, 호야소리 등의 어염소리 및 아리시고나의 맺는소리 류와 그밖에 어헐싸 절씨고나, 얼싸좋소 말물어보소, 어리둥천에 절로, 오헤라 사하 등이 있다.

무삼베낌소리는 서부지역인 신광면·손불면·대동면·엄다면에서 논매러 들어가서의 첫소리로 불리웠다. 함평군이 그 전파의 중심처에 있으며, 일반적인 받음구는 "오-얼룰룰룰" 계통이다.

아리시구나 류는 받음구가 2종("오 그렇제"와 아리시구나)이며, 영산강 유역의 옹관묘제 사회를 배경으로 창출된 유장한 논맴소리로 전 읍면에서 수집된다. S1. t4 또는 t1의 음조직이 다수를 차지한다. 함평군은 그 문화중심에 놓여 있다. 무안군에서는 영산강이나 바다가 가까운 곳에서, 영암군에서는 뱃길이 가까운 북서쪽에서 발견된다. 나주시는 그 서부지역에서 주로 불리웠다. 아리시구나 류를 끝맺을 때 손불면에서는 호야소리+맺는소리로 매듭짓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타 읍면에서도 맺는소리들이 마련되어 있다.

더들게소리는 잦은 논맴소리로 모평방면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무안방면인 학교면과 엄다면 및 함풍방면의 신광면과 대동면에서 수집되었다. 서부 나주시와 북부 무안군에서도 불리우며 화순군 춘양면이나 신안군 비금면에까지 그 전파의 흔적이 보인다. 서부 나주시와 함평군의 무안방면 들녘이 그 문화중심에 있다.

세화자소리는 그 문화중심이 서남부 화순군과 동남부 나주시 지대인 전남의 논맴소리이다. 신광면에서 일반형에 속하는 세화자가 녹음되었다

월야면의 긴 논맴소리 방애로세는 장성군·영광군의 것과 동일계이다. 고창군의 방게류나 전북 방게류의 담양형인 마흐흥게와는 계를 달리하지만 무관하지는 않아 보인다.

대로리 류는 만드리 때의 풍장소리로 손불면, 대동면 등 함평군의 함풍방면이 그 문화중심이다.

청태산 마구할미 류는 3행 또는 2행 가사를 매행 마다 3회씩 제창하는 독특한 형식의 논맴소리이다. 대동면이 그 문화중심에 있다. 다른 곡으로 넘길 때 "이리 - "라고 신호하는 예는 함풍방면 논맴소리의 한 특색이다.

'어헐싸 절씨고나' 곡과 '얼싸좋소 말물어보소' 곡은 대동면의 개성이 담긴 멕받형식의 잦은 논맴소리이다. '어리둥천에 절로'는 해보면 용산리 소성마을의 만드리 풍장소리로 선입

후제창(先入後齊唱)에 알맞다.

오헤로 사하는 월야면에서 수집된 만드리 풍장소리이다. 잦은가락인 풍장 사거리의 일반형에 속한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받음구 끝부분이 '사하뒤여' 또는 '사하뒤요'인 경향이 있으나 월야면의 그것은 '사하들로'이다.

만드리 하고나서 상일꾼을 소에 태우고 가며 불렀던 풍장굿소리는 멕받형식으로, 함평군의 받음구로는 함풍방면의 "애롱 대롱"과의 문화접변 현상으로 보인다. 그밖에 "애로우니 대롱", 관세나 대롱, "애로지 대로지 기와바지가 좋소", "해롱 때롱 오공콩 때롱" 및 "애농대농 상사대농"이 녹음되었다.

수확요로는 개장치는 소리, 나락 홀태질, 매통 및 도리깨질소리를 수집하였다. 잘된 나락은 홀태질 하고 못된 나락은 개상에다 볏뭇묶음을 내리쳐서 낟알을 떨구는 개장치기를 하며 그래도 안떨어지는 것은 도리깨질했다고 한다. 군내의 종도리깨꾼들은 "어우" "어이" "어구다" "어우다" 등으로 소리치면서 도리깨를 내리쳤다.

소부림말로는 "자라자라 자라자라" 하고 조용히 잦게 연타하는 왼쪽지시어가 있다. 오른쪽으로 가게 할 때는 고삐를 우측으로 잡아당기면서 "이리" 또는 "이러" 한다. "자라!" 하고 크게 외치면 빨리가라는 뜻이 된다. 돌머리 돌때는 "와" 하여 멈추게 한 다음 "이라" 한다. 앞으로 가라는 신호는 "이러이" 또는 "이라 이라" 이다. 뒤로 물릴 때는 "물러!" 한다. 조심하라는 "저저 저저" 이고 멈추라는 "와" 또는 "야" 이다.

맞드레소리는 수를 세는 일반형이다. 주된 받음구는 "어흐" "어하" "어두레" "으레두레" 이며, 이따금씩 어루새끼, 어그렇지, 옳지 그렇지, 앗다 재밌다 등으로 흥을 돋운다. 스물을 셀 때는 사오 이십의 '사오'를 사위의 뜻으로 풀어나가곤 한다. 그밖에 십단위 가사를 보면 오륙은 삼십, 마흔찬다, 오팔갔네, 백에 절반, 예순환갑, 인간칠십, 고로롱 팔십, 구십당산, 일로 일백 등이 있다.

두엄노래·등짐노래로는 고창군이 문화중심인 뒤요 류가 녹음되었다.

진상노래는 학교면 소재의 춘부뜰에서 생산한 쌀을 한양으로 진상보내기 위해 운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 희귀요이다. 받음구는 "어화 기화 기화자 좋네" 이다.

목도소리는 들어올릴 때의 준비동작에 해당하는 긴 소리부분과 2분박 리듬의 행진부분 및 내려 놓으라는 신호부분("어저 놓고")으로 구분되면, 통민요에 속한다.

"오, 예-라, 맷-돌"을 받음구로 하는 맷돌노래가 수집되었다.

물레노래로는 '물레야 가락아 에뱅뱅 돌아라'를 산아지 곡풍에 얹어 부르는 일반형이 나왔다.

향토토민 창의 베틀노래에서는 '옥난<간>에 베틀차라' 또는 '월궁에 노던 황애기는 옥낭강에다 베틀놓고'로, 무안군과 고창군에서 시집온 가창자들에게서는 '하늘에다 베틀놓고, 구름잡어 잉애걸(고)'로 시작하는 예가 있었다.

함평군의 부녀들은 둥당애당의 선율을 응용하여 노래하고는 그 끝에다 둥당애당의 후렴구를 붙여 매듭을 짓는 경향이 보였다.

터다짐소리와 곡괭이질소리로는 상사류를 불렀다. 받음구 예는 '얼럴럴' 내지 '어럴럴

럴' 상사도야의 '도야' 형이 얼럴럴상사 '디야' 내지 '뒤야'의 '디야' 형보다 조금 우세했다.

동요로는 어낭굴, 깍쟁이 돌리기, 잇발빠진 노장구, 새(쑥꾹새·파랑제비·파랑새·황새)를 소재로 삼은 것, 곤충(잠자리·매미)·귀뚜라미) 및 거무노래, 다양한 다리헤기동요, 앞뒤로 애기를 어룰 때의 달꿍달꿍 형, 자장가, 아릿논에 거마리 등 말이음동요, 하늘천따지, 군사실 및 동기타령이 있다.

함평부녀의 흥민요는 둥당애곡풍이 많음을 발견하였다. 강강(도)술래를 즐겨 놀았다. 사춘성님 민요는 내가 왔다고 괄세말라는 류와 시집살이가 어떤가 묻는 류가 대종을 이루지만, 함평에서는 전자가 수집되었다. 둥실 걸려있는 물건을 소재로한 둥기다당실, 논주인집에 가서 놀때나 유대군들이 쉴 참에 부르기도 했다는 정든님 정서로고나, 밤중에 살짝 들린 공부하는 우리님, 시집살이 류, 접신놀이요인 춘향아씨, 댕기, 산아지 곡풍의 불갑산 연실봉과 그밖에 진도아리랑, 창부타령 맺음구, 따박네 등 부모잃은 서러움, 쌍금쌍금, 나무동티, 미색에 반하여 담을 뛰어넘다 옷을 찢긴 류, 맏딸애기가 인물좋다는 소문을 듣고 세 번 찾아가서야 겨우 본다는 편지왔네, 담배, 화초사거리·길사거리와 유관한 흥민요 사거리, 흥타령, 국문뒷풀이, 엿타령, 달거리, 각설이, 진주낭군, 심청전이나 춘향전 글읽기, 수궁가의 줄거리인 쉬포리타령 등이다.

의식요로는 줄멤소리, 삼신비손, 도신, 농악고사(정지굿·성주굿·샘굿), 치병 풍속요(물림손·동토경·주장맥이) 및 만가 등이 수집되었다.

음정월 보름날이나 2월초하루에 줄당기기를 한 후 입석이나 당산나무에 줄을 감는 마을들이 현재까지도 있다. 대동면 백호리 백련동에서 장원질소리 애롱대롱을 원용한 줄멤소리가 나왔다.

손불면 양재리 모량에서는 정지굿에서 포수가 (a)정지구석도 네구석, 방구석도 네구석, 광구석도 네구석, 삼사십이 열두구석인디, (b)모지랑 볘 빗자락으로 싹싹 씰어다가 걷워 짊어지고 (c)해남 갓머리 이동지 작은 메누리 오얏 콧구멍에다 둥구지르고 (d)일이삼채굿으로 멋지게 놀아라 외치고는 (e)조왕상에 떠 놓은 물을 갖고 나와 지붕에다 쫙 찌끄러버린다. (a)는 일반적인 구절이다. (b)의 '짊어지고' 대신에 손불면 김병선 창과 신광면 신현기 창에서는 '장구통'에 담어갖는다. (c)의 '해남 갓머리'를 김병선도 '해남 갓모리'로 둥실 띄우고로 표현하나 신현기는 칠산앞바다에 띄어버린다.

만가로는 토지신독축과 널액막음소리 및 운구소리(댓소리, 긴가난보실, 세마디 어노, 춤상여, 두마디행상, 한마디어노, 작은나무아미타불 류) 등이 나왔다. 묘터가래질소리나 달구질소리는 없다.

문턱에다 바가지를 엎어놓고 관으로 눌러 콱! 깨고나가는 풍속은 군내가 거의 공통이다. 손불면에서는 문턱에다 톱으로 열십자를 그리는 마을들이 있었다. 널액막음 때에 모평방면에서는 '복', 함풍방면에서는 '중복막자'라고 하는 경향이 보인다. 뱅인들이 널을 방밖으로 모시고 나오면 마루 밑에 한줄로 머리를 숙이고 서있는 생인(喪人)들 머리위로 관을 넘기는 풍속을 동3면과 손불면 등지에서 확인하였다. 이때 "관세암보살 – 나무아미타불"을 반복하여 부르곤 하는데, 손불면 어전에서는 "어 넘차, 어넘차" 하며 관을 넘긴다. 잦은 나무아미타불 류는 방밖 운구소리와 까끄막소리 및 하관 직전의 운구소리로도 활용된다.

발인제를 마치고 먼 길을 떠나기 위해 유대군들이 상여를 에워싸고 앉으면, 설소리꾼은 댓소리를 시작하며, 이어서 긴가난보살 류를 가창한다. 함평군 댓소리의 반복구 예는 끝부분을 가난보살 계통으로 매듭짓는 것이 다수이나 손불면과 신광면 덕산의 경우는 타불형이고, 무안방면인 엄다면과 학교면의 것은 긴 입말형과 긴가난보살형을 각각 반복한 다음 다시 이를 되풀이하는 형태를 취한다.

동구안 상여소리라 일컬을 수 있는 긴가난보살 류를 월야면 전하리에서와 같이 댓소리가 따로 없는 곳에서는 댓소리 대용으 쓰기도 한다. 비고정박 리듬인고로 핑경을 시종일관 잦게 흔들며 가창하는 경향이다. 댓소리에 비해 육자배기선법이 증가세를 보인다.

세마디 어노는 전남 서부지역(곡성-화순-해남을 잇는 선의 서쪽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받음소리가 3분박4박 내지 내재4박 3마디씩인 행상소리이다. 메김소리를 3마디씩인 예도 있지만 4마디씩인 경우가 더 많으며, 그 제3, 4마디는 고정구 적이다.

세마디 어노는 함풍방면과 무안방면에서 수집된데 비해 춤상여는 모평방면인 월야면에서 나왔다. (메)와 (받)이 각각 내재6박 4마디씩이다. 핑경은 1마디에 2회씩, 즉 내재 제1박과 제4박에 흔든다. 받음소리의 (a)시작어 '에-'가 장인(長引) 또는 동음연타되는 점. (b)둘째마디 앞부분이 상행-하행-상행-하행의 진행을 하는 점. (c)셋째마디에서 어허의 '허'를 장인한 후에 잠시 쉬는 점. (d)셋째마디에서 "어허-, 너엄차"라 하여 "어이가리넘차"와 조금 다른 어휘를 쓰는 점은 전남형 춤상여의 일반적 특징에 속한다.

두마디 행상소리는 어가리넘차류와 비(非) 넘차류로 대별되나, 군내의 것은 함평읍을 제외하고는 후자에 속했다. 그 메김소리가 3마디씩인 경우는 대개 그 제3마디가 "어 허이 어허노" 류의 고정구이고 두마디행상 마을에서는 세마디 어노가 녹음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두마디행상이면서도 메김소리가 3마디씩인 예는 세마디 어노의 영향을 받아 그러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여를 올려 매거나 내리는 신호로는 "태고"가 많다. 월야면 전하리에서처럼 긴가난보살의 받음구를 2회 복창한 다음, 설소리꾼이 "에헤에-헤허어, 이보..." 하고 멕이기 시작함을 신호로 상여를 일제히 올려메고, 어노소리를 하며 길을 가다가 설소리꾼이 긴가난보살의 받음소리로 돌리면 상여를 내려놓을 준비를 하여 "태고"에서 완전히 내리기도 한다.

만가는 S계통과 Y계통이 음조직의 주축을 이루지만, 잦은 소리로 오면 S계통의 비중이 높아진다. 기음종지 내지 줏대음종지가 다수를 차지한다[46].

46) 이소라, 『함평의 민요』, 함평군, 2002. 39~42쪽. 이소라는 이 글에서 책에 게재된 민요의 일련번호를 예시하여 함평군 민요의 특색을 설명했으나, 여기서는 함평군사의 체제에 맞게 일련번호를 삭제하고 일부는 재편집했다.

2. 노동요

1) 모찌기 소리

(1) 학교면 금송리 반곡마을 사례[47]

에하라 먼들
　　에헤라 먼들
무세1) 무세 모를 무세
　　에헤라 먼들
우리 농군은 무기가 일이네
　　에헤라 먼들
이 모를 무어가지고
　　에헤라 먼들
오늘 심을 놈을 무어야 할 터인디
　　에헤라 먼들
안 무어져서 못 무것네
　　에헤라 먼들
그나 저나 무어보세
　　에헤라 먼들
무는 대로 무어 가주고
　　에헤라 먼들
물을 마시고 심어보게
　　에헤라 먼들
시 때가 넘으면2) 못 숭구니
　　에헤라 먼들
지둥같은 팔목에다
　　에헤라 먼들
황소같은 심을 내서
　　에헤라 먼들
무어보세 무어보세
　　에헤라 먼들
심을 주어 무어보세
　　에헤라 먼들
얼른 무세 얼른 무세
　　에헤라 먼들
쩌기 쩌기 참거리3) 나오네
　　에헤라 먼들
참거리 나오믄 쉬어가지고
　　에헤라 먼들
모슴으로 갈 준비를 해여보세
　　에헤라 먼들

주해 : 1)(모를)찌세
　　2)시(時) 때가 넘으면
　　3)일을 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먹는 식사

(2) 엄다면 엄다리 번등마을 사례[48]

에해라 먼들
　　에해라 먼들
먼들소리는 어디를 갔다
　　에해라 먼들
엇그저께 청춘이더니
　　에해라 먼들
오날 백반 한심5) 허네
　　에해라 먼들

47) MBC, 『한국민요대전 2 - 전라남도민요해설집 -』, 1993, 608쪽. 1989년 12월 28일 나병수(1923년 생)에게 채록
48) 지춘상, 『전남의 농요』, 전라남도, 1987, 100~103쪽. 1980년 8월 25일 채록한 것으로 앞소리를 천학실·윤예병이 메겼고, 뒷소리는 강영진·정원길·홍종철·윤정중이 받았다.

철따라서 돌아를 오네
에해라 먼들
철통1) 같은 두팔찌로
에해라 먼들
문덕문덕2) 무어3)를 주쇼
에해라 먼들
불사약이 어데가 있다
에해라 먼들
보고픈가 불사약은
에해라 먼들
에해라 먼들
에해라 먼들
산천초목 젊어를 가고
에해라 먼들
우리농군들 늙어를 가네
에해라 먼들
잘모았네 잘모았네
에해라 먼들
우리마을 농군들은
에해라 먼들
협동으로 농사를 짓네
에해라 먼들
에해라 먼들
에해라 먼들
이렇게도 짜릅그나4)
에해라 먼들
상엽이홍어에 이월화라13)
에해라 먼들
여관한등 독불면허니14)
에해라 먼들
객심하사로 전처련고15)
에해라 먼들
마소마소 그리를 마소
에해라 먼들
청춘괄세를16) 그리를 마소
에해라 먼들
에해라 먼들
에해라 먼들
먼들소리6)는 어디를 갔다가
에해라 먼들
철철마닥에7) 돌아를오네
에해라 머들
가세가세 어서를 가세
에해라 먼들
이수건너서 백로주8) 가세
에해라 먼들
백로행강을9) 같이 가세
에해라 먼들
소지노화 월일선은
에해라 먼들
초강어부가 부일배라
에해라 먼들
알락서산에 해떨어지고
에해라 먼들
월출동령에 달솟아오네
에해라 먼들
운산한산 석경사하니10)
에해라 먼들
백운심처가 유인간이라11)
에해라 먼들
형거자에 북림만하니12)
에해라 먼들
늙어지면은 못노느니
에해라 먼들
꼿은17) 피어서 열얼홍이오18)
에해라 먼들
달도차면은19) 기우나니
에해라 먼들
인생일장20) 춘몽이라21)
에해라 먼들
아니나 놀고 무엇을 허리
에해라 먼들

노자 좋네 젊어서 놀세　　떨떨그리고22) 놀아를 보세
　　에해라 먼들　　에해라 먼들

주해 : 1)철통(鐵桶). 쇠로 만든 통처럼 두 팔이 단단하고 굳세다는 뜻으로 쓰임
2)무더기
3)'무이다', '찌다'는 뜻과 비슷한 말로 '모찌다'를 '모문다'라고 한다
4)짧고나
5)한심(寒心)하다. 정도에 지나치거나 모자라서 가엽고 딱하다
6)뒷소리가 "먼~들"로 나오기 때문에 모찌기노래를 '먼들소리'라고도 함
7)철철마다. 절기(節氣)마다
8)당나라 때 이태백이 금릉 봉황대에 올라 읊은 시
9)白鷺行江
10)雲山寒山 石徑斜
11)白雲深處 有人家
12)停車坐愛 楓林晩
13)霜葉紅於 二月花
14)旅館寒燈 獨不眠
15)客心何事 轉捷然
16)靑春恝視. 청춘을 없이 여기지 말라
17)꽃은
18)열흘홍. 十日紅
19)초승달이 차차 커져서 둥글게 차면은 즉 만월이 되면
20)人生一場
21)春夢. '봄새에 꾸는 꿈'이라고 풀이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헛된꿈'이란 뜻으로 사용된다
22)떵떵거리고. 호기롭게
주 10)~13)은 두목(杜牧)의 '산행(山行)'을 잘못 읊은 것임
주 14)·15)는 고적(高適)의 '제야작(除夜作)'을 잘못 읊은 것임

2) 모심기 소리(상사소리)[49]

헤 헤헤루 사아뒤요　　상사소리는 어디를 갔다가
　　헤 헤헤루 사아뒤요　　헤 헤헤루 사아뒤요
어울러보세 어울러보세　　철철마다1) 돌아을 온가
　　헤 헤헤루 사아뒤요　　헤 헤헤루 사아뒤요
상사소리를 어울러보세　　간다 봐라 나는 가네
　　헤 헤헤루 사아뒤요　　헤 헤헤루 사아뒤요

49) 주 5)와 같은 책 609쪽

정든님 따라서 나는 가네
　　헤 헤헤루 사아뒤요
으렁숭 저렁숭 잘 어울러지네
　　헤 헤헤루 사아뒤요
이도 노래 저도 노래
　　헤 헤헤루 사아뒤요
아이고나 답답 내 서럼아2)
　　헤 헤헤루 사아뒤요
서럼에 지쳐서 내 못 살겄네
　　헤 헤헤루 사아뒤요
우리 님은 어디를 가서
　　헤 헤헤루 사아뒤요
나를 이리 고생을 시긴가
　　헤 헤헤루 사아뒤요
먼디 사람이 듣기가 좋네
　　헤 헤헤루 사아뒤요
옆에 사람은 보기도 좋고
　　헤 헤헤루 사아뒤요
얼씨구 좋구나 다 잘도 허네
　　헤 헤헤루 사아뒤요
수시쌀 씻는디 번번히 봄시러3)
　　헤 헤헤루 사아뒤요
맹감씨4) 씻는다고 저 지랄허니
　　헤 헤헤루 사아뒤요
못 하겄네 못 하겄네
　　헤 헤헤루 사아뒤요
이 놈의 시집살이 내 못 하겄네
　　헤 헤헤루 사아뒤요
앞산은 멀고 뒷산은 가직해5)
　　헤 헤헤루 사아뒤요
자쳐보세 자쳐보세
　　헤 헤헤루 사아뒤요
논배미도 다 되어가고 소리도 자추세
　　헤 헤헤루 사아뒤요
헤 헤헤루 사아뒤요
　　헤 헤헤루 사아뒤요
요 배미 숭고서 장구배미로 가세
　　헤 헤헤루 사아뒤요
방이야6) 방이야 방구7) 밑의 방이야
　　헤 헤헤루 사아뒤요
이 방을 미면8) 여그는 끝나네
　　헤 헤헤루 사아뒤요

주해 : 1)철철마다
　　2)서러움
　　3)수수쌀 씻는 지 번번히 보면서
　　4)산에 나는 식물
　　5)가까워
　　6)(논배미의)부분
　　7)북처럼 생긴 농악기의 한 가지
　　8)메우면

3) 논매는 소리(무상삼장/문열가)[50]

학교면 금송리 반곡마을 논매는 소리는 논매는 벌수에 관계없이 <무상삼장>-<긴소리>-<절사소리>-<긴들래기소리>-<절사소리>-<잦은들래기소리> 순으로 부른다.

<긴소리>의 시작은 <무상삼장> 삼절로, 끝은 <재넘기소리>로 맺는다. 가창방식은 '메기고

50) 주 5)와 같은 책 612~614쪽

받는 형식'이나 받는소리 부분은 세 패로 나누어 "아리씨구나", "헤~호호 호호 에야", "마뒤여"를 한 패씩 차례로 돌아가며 부른다.

<긴들래기소리>는 <긴소리>류인 <문열가소리> 한 절을 부른 후에 시작된다. <자진들래기소리>는 일을 마무리 지으며 부르는 소리인데, 받는소리가 두가지로 나온다. 일렬로 논을 매어 가다가 막바지에는 가장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 이 우 울룰룰룰루"하는 함성을 지르며 논 가운데로 둥그렇게 에워싸며 모여 끝낸다[51].

<무상삼장>

세사는 금산척 헤이요오 생아는 주일 배를
　　마뒤요
서정이 강상월이 헤이요오이고 허 여시 팔관난이라1)
　　마뒤요
동각에 설중매를 헤이요오 매일 장천이라2)
　　마뒤요

<문열가>

　　아오 허이 이허 이헤아 마뒤요
오늘도여 허 허어허이 히여
오늘도야 심심허고 요뇨허고3) 적막한 곳에 들어왔네 (에 그렇지)
에에에 이히 이히여도
노래자리씩이나 불러를 보세
　　에아헤 허어허 어허야 마뒤요
날 다려가소 허 허어허이 히허어
날 다려가소 나를 다려를 가소
한양낭군아 날 다려가소 (에 그렇지)
허어 어허어 이히 이히이도
지발덕분에 날 다려를 가소
　　에아헤 허어허 어허야 마뒤요
나주영산 허 허어허 이 히허어
나주나 영산포 돈내기 새암에는4) 상추 싸는 저 큰아그 (에 그렇지)
허어 어허어 이히 이히 어도
상출랑은 씻랑은 겉잎은 내버리고 속잎만 잡어 훨훨 씻소
　　에아헤 허어허 어허야 마뒤요
영암이라 허 허어허이 히허어
영암이라 월출산은 땅이야 걸고도 거다하네 (에 그렇지)
허어 어허어 이히 이히 여도
죽었던 다래넝출이5) 새순이 나데
　　에아헤 허어허 어히야 마뒤요
영광 한량 허 허어허 이 히허어
영광 한량 양엽이 토시는 해동창6) 큰 애기 첫 솜씰레 (에 그렇지)
허어 어허이 이히 이히 여도
해동창 큰애기 첫 솜씨일레
　　에아헤 허어허 어히야 마뒤요
재너머 가네 헤 허어허이 이허어
재너메 말이로다 마오장성7) 장잎장담 안에8) 썩 들어서니 (에 그렇지)
에헤 이히 이히어도 장다리꽃은 만발하고
정월 영계는9) 찌글찌글 울고
자고새면 오늘같은 날이 또 있으랴
　　에아헤 허어허 어허야 마뒤요

<긴 들레소리>

호호호하 헤 들래호

<절싸소리>

오헬싸 저리씨고나

51) 주 5)와 같은 책 614쪽

호호호하 헤 들래호
늘어진 들라기를10) 해여를 보세
호호호하 헤 들래호
옳제 그리여 다 잘도 허 허네
호호호하 헤 들래호
가세 가세 월선이 집으로
호호호하 헤 들래호
월선이 집으로를 놀러를 가네
호호호하 헤 들래호
걸렸구나 걸렸구나
호호호하 헤 들래호
거문고만 걸렸구나
호호호하 헤 들래호
얼싸 좋다 놀다를 가세
호호호하 헤 들래호
산에 올라서 옥을 캐니
호호호하 헤 들래호
이름이 좋아서 산옥이라 했제
호호호하 헤 들래호
상투는 짤라서 주머니 담고
호호호하 헤 들래호
망근아11) 풍잠아12) 너 잘있거러
호호호하 헤 들래호
마구자 철갑에 13) 양총을 메고서
호호호하 헤 들래호
강원도 접전에 싸우러 간다
호호호하 헤 들래호
돌려보세 돌려를 보세
호호호하 헤 들래호
절사소리로 돌려를 보세
호호호하 헤 들래호
송쿠리어염을 하세15)
호호 호호 호호하하 들 들래기호
옳게 그렇제 다 잘허네 다 잘도 허네
호호 호호 호호하하 들 들래기호
한편에서는 소리를 허고
오헬싸 저리씨고나
절싸소리 해여를 보세
오헬싸 저리씨고나
옳제 그렇제 다 잘도 허 허네
오헬싸 저리씨고나
요도 노래 저도 노래
오헬싸 저리씨고나
질걸어 가는데는 활개가 날개세
오헬싸 저리씨고나
우리 농부는 소리가 날개세
오헬싸 저리씨고나
돌려보세 돌려를 보세
오헬싸 저리씨고나
자진 들래기로 돌려를 보세
오헬싸 저리씨고나

<잦은 들래기소리>
호호호호 호호하하 들 들래기호
호호 호호 호호하하 들 들래기호
자른 들라기 소리를 허여를 보세
호호 호호 호호하하 들 들래기호
아이고 답답 내 설음이야
설음에 지쳐서 못 살겄네
호호 호호 호호하하 들 들래기호
세월아 네월아 가지를 말어라
장안호걸이 다 늙어진다
호호 호호 호호하하 들 들래기호
다 되얐네 다 되야가네
서말락배미가14) 다 되야가네
호호 호호 호호하하 들 들래기호
양쪽 갓을 쭉 따려가지고서
한편에서는 어염허소
호호 호호 호호하하 들 들래기호
옳제 그렇제 다 잘 허네 다 잘도 허네
호호 호호 호호하하 들 들래기호

주해 : 1)뜻 모름
2)세상일은 거문고 석자요, 생애는 술한잔이라 서쪽 정자에는 강위의 달, 동쪽 누각에 눈 속 매화와 매 일 길게 취하리라. 유사한 가사가 실명씨의 시조에 있음. '여시팔관난'은 무관하게 끼어든 듯 함
3)괴괴하며 쓸쓸하고
4)나주에 있는 샘의 이름
5)다래넝쿨
6)지명. 해보면을 말하는 듯
7)뜻 모름
8)장잎은 벼 따위의 이삭이 나오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잎. 장담의 뜻은 모름
9)정월에 알에서 깬 어린 닭
10)늦은 들래기(소리)
11)망건
12)망건의 당 앞쪽에 꾸미는 물건
13)마고자처럼 덧입는 쇠로 된 갑옷
14)서말이 생산되는 논배미
15)양쪽 가를 쭉 따라 가지고서 송쿠리 어염을 허세. 어염은 아직 일이 남은 논의 부분으로 조여 들어 가서 마치는 것이며 송쿠리어염은 그 모양을 소쿠리에 비유한 것

4) 장원질 소리[52]

머슴을 두고 농사를 짓던 전통농경에서는 '초벌', '두벌'을 매고 마지막 김매기인 '만드리'가 끝나면 '장원질', '장원례'라 하는 농사관행을 벌였다. '만드리' 때는 벼의 포기 수나 키 등의 생육상태를 보고 그해 농사의 풍흉을 짐작할 수 있었다. '장원질'은 농사를 가장 잘 지은 머슴을 뽑아 소에 태우고 마을로 들어오면서 벌이는 놀이인데, 이 때 불려졌던 노래가 바로 '장원질 소리'이다.

애농 대롱 상사 대농
애농 대롱 상사 대농
대농소리를 어디를 갔다 철따라서 찾아를 왔네
애농 대롱 상사 대농
태고라1) 천왕씨는2) 목덕으로3) 왕을 했고
애농 대롱 상사 대농
염제라4) 신농씨는5) 농사짓기를 지도했네
애농 대롱 상사 대농
다했구나 다했구나 춘하일은9) 다해했네
후생이6) 뽄을 받어7) 오늘까지 익혀와
애농 대롱 상사 대농
전라도라 너른들에8) 오곡씨를
애농 대롱 상사 대농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수풍작이 좀도 좋네
애농 대롱 상사 대농
잘되었구나 잘되었어 금년시절도 잘되어아
애농 대롱 상사 대농
가세가세 어서를 가세 참봉댁으로14)

52) 주 6)과 같은 책 129~131쪽

애농 대롱 상사 대농
칠월이라 백중날은 모심들의10) 노는날
애농 대롱 상사 대농
큰돗11)잡아서 뒷게 놓고 재쟁거리고13)
놀아를 보세
애농 대롱 상사 대농
들어를 가서
애농 대롱 상사 대농
닭잡아서 죽을쓰고15)막걸리로 재쟁거리세
애농 대롱 상사 대농
애농 대롱 상사 대농
애농 대롱 상사 대농

주해 : 1)태고(太古)
2)중국 태고시절에 전설적인 임금
3)목덕(木德)
4)염제(炎帝). 신농씨를 이르는 말
5)중국 전설의 제왕. 농사·법·의료·교역 등을 농민에게 가르쳤다고 함
6)후생(後生)
7)본을 받아
8)넓은 들
9)춘하(春夏)일. 즉 모내기와 논매기
10)머슴의 전라도 방언
11)큰 돼지 잡아서
12)뒤집어 놓고
13)꽹과리를 재쟁치면서, 건들거리면서
14)참봉댁(參奉宅)으로
15)'장원질'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주인집에서는 전례(傳例)에 따라 닭을 잡아 죽을 쑤어 주기 때문에 비롯된 것임

5) 밭매는 소리[53]

사래질고 장찬1) 밭에
멧골같이2) 지신3) 골을
요내 골도 못 매는디
벗의 골만 맞으라네
이골 매고 저골 매고
삼시골을 매고 보니
넘어가네 넘어가네
일락서산에4) 넘어가네
친구친구 어서 오서
이골 저골 다 매는데
외골 잡고 못 오는가

주해 : 1)곧고도 긴
2)산골
3)풀이 우거진
4)일락서산(日落西山)

53) 주 5)와 같은 책 624쪽. 1989년 12월 27일 나산면 우치리 계동마을 윤수복(1919년 생)에게 채록했음

6) 등짐소리[54]

뒤요 뒤요 호호 호호
뒤요 뒤요 호호 호호
어허야 등짐일세 어허야 등골에서 땀이나네
뒤요 뒤요 호호 호호
어허야 두짐짝을 졌드니마는
뒤요 뒤요 호호 호호
어허야 종일두룩 등짐해
뒤요 뒤요 호호 호호
양다리새에 가랫대스네
뒤요 뒤요 호호 호호
어허야 등가죽이 무너를 난다
뒤요 뒤요 호호 호호

7) 개장치는 소리[55]

'개장치는 소리'란 벼를 양손으로 쥘 만큼 적게 묶고서 그 다발을 양손으로 움켜잡고, 매통이나 통나무를 옆으로 뉘어 놓은 위에 두들겨 나락을 떨어낼 때 부르는 민요다. 일종의 벼타작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작업을 '개장친다'고 한다. '개장친다'는 대게 혼자 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늘어서서 하기 때문에 이때 이 민요를 흥겹게 부르면서 일을 한다.[56]

익카익카 익카익카
익카익카 익카익카
자지로 자지로1) 뚜들어 주소2)
익카익카 익카익카
이 나락을 곱게찧어서
익카익카 익카익카
나랫님께 진상허고
익카익카 익카익카
자손교육도 시켜주고
익카익카 익카익카
우리 나라 지름진땅에
익카익카 익카익카
벼나락을 실어놓고
익카익카 익카익카
하나님이 보호하사
익카익카 익카익카
우수풍작이 좀도나 좋네
익카익카 익카익카
세월아네월아 가지를 마라
익카익카 익카익카
익카익카 익카익카
익카익카 익카익카
자지로자지로 뚜들어주소
익카익카 익카익카
곱게 곱게 타주해서3)
익카익카 익카익카
날방아를 찧어갔고
익카익카 익카익카
나랏님에 진상가고
익카익카 익카익카
암데로4) 받쳐보세
익카익카 익카익카
익카익카 익카익카
익카익카 익카익카
조심허소 조심허소
익카익카 익카익카
요내 눈에 꺼시락든다5)
익카익카 익카익카
익카익카 익카익카

54) 주 6)과 같은 책 132쪽
55) 주 6)과 같은 책 133~135쪽
56) 주 6)과 같은 책 133쪽

우리 농군들 다 늙어가네　　익카익카 익카익카
주해 : 1)자주자주
2)'두들기다'의 전라도 방언
3)타작(打作)해서
4)아무 곳에나
5)보리모개에 붙은 가시랭이의 전라도 방언

8) 가락홀태기 소리[57]

'가락홀태 소리'란 벼훑이로 벼를 훑으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벼훑이는 벼 낟알을 떨어내는 전통농기구의 한 종류로 두 개의 가는 나무 가지 끝을 동여매어 마치 집게와 같다. 이 집게 사이에 벼이삭을 끼고 훑어내는 것을 함평에서는 '가락홀태질'이라 하는데, 무료를 달래고 노동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노래가 불리어졌다. 한 사람이 메김소리를 하면 여타의 일꾼들은 뒷소리를 한다.

운종정달배1) 귀가 엷어　　한무지나락은5) 귀가찍고
시렁시렁 홀태기야　　시렁시렁 홀태기야
배가얇아서 잘떨이지고　　나락은 나도 쌀은 나쁘네
시렁시렁 홀태기야　　시렁시렁 홀태기야
중실배2) 백배가 좋다마는　　물산두 서리쌀밥
시렁시렁 홀태기야　　시렁시렁 홀태기야
다마금3)이 더욱 좋네　　물고밑에 물천어잡어
시렁시렁 홀태기야　　시렁시렁 홀태기야
조실역도4) 좋다마는　　풋콩놓고 밥을지어
시렁시렁 홀태기야　　시렁시렁 홀태기야
바람이 불면은 잘떨어지네　　부모님께 전해드리세
시렁시렁 홀태기야　　시렁시렁 홀태기야
주해 : 1) ~ 5) 벼 품종 이름

9) 매통질 소리[58]

에해라 맷통　　이나락을 깎아지고
에해라 맷통　　에해라 맷통
맷통소리는 어디를 갔나　　첫재로는 나라봉양
에해라 맷통　　에해라 맷통
가을마다 찾어를 오네　　둣째로는 선영봉양
에해라 맷통　　에해라 맷통

57) 주 6)과 같음 136~137쪽
58) 주 6)과 같은 책 138쪽

싯째로는 자손교육
에해라 맷통
새벽바람 찬서리에
에해라 맷통

매갈기가 손시럽네
에해라 맷통
에해라 맷통
에해라 맷통

10) 보리타작 소리[59]

어구로구나
어우어우 어우어우
등골에서 땀이 난다
어우어우 어우어우
어구로구나
어우어우 어우어우
날이날마다 도리깨질허기
어우어우 어우어우
우리동무 잘도허네
어우어우 어우어우
어구로구나
어우어우 어우어우

다리에다 힘을주소
어우어우 어우어우
허리를 꾸부리소
어우어우 어우어우
여기있다 여기를 보소
어우어우 어우어우
저기있다 저기를 봐라
어우어우 어우어우
눈을 똑똑히 뜨고 보소
어우어우 어우어우
이 마당치고 뒷마당쉬세
어우어우 어우어우

11) 방아찧는 소리[60]

디딜방아 찧는 소리이다. 디딜방아에는 보리나 조를 찧는데, 두 패로 나뉘어 방아를 찧었다. 방아찧을 때의 떠들썩한 분위기가 흥겨운 곡조에 잘 담겨있다.

여 여섯이 찧는 방에
한몸 한뜻 당거주소
웃가래서1) 심써주먼
밑가래서 심써줌세
어깨야 다리야 한심2) 써라
오늘 밤도 야심허다
방아씰으는 저 부인네
당거주소 당거주소
오야라 장창 당거주소
웃가래서 힘써주먼
밑가래서 당거줌세
방아씰으는 저 부인네

꾕기3) 괼지 모르는가
괴기사 괼레마는
한 바탕만 당거주소
웃가래서 당거주먼
밑가래서 심써줌세
어깨야 다리야 한심써라
오늘밤도 야심허다
괴기사 괼레마는
한 바탕만 당거주소
당거주소 당거주소
오야라 장창 당거주소
어느 누가 사정볼까

59) 주 6)과 같은 책 143쪽
60) 주 5)와 같은 책 625쪽. 1989년 12월 27일 신광면 삼덕리 덕산마을 이영숙(1933년 생)에게 채록

굉기 괼지 모르는가 굉깃대가 사정보제

주해 : 1)위에서 찧는 사람
2)큰 힘
3)디딜방아 일을 마치고 방아를 위로 들어올려 괴어 놓는 Y자형의 나무. 굉기대라고도 함

12) 맷돌노래[61]

오헤라 맷돌 오헤라 맷돌
오헤라 맷돌 덩컬덩컬 수제비뎅이
서리렁 서리렁 매갈세1) 오헤라 맷돌
오헤라 맷돌 사우상으로 다 오리네
이 매 갈아 멋할랑가 오헤라 맷돌
오헤라 맷돌 꼬두상투2) 끄덕임서3)
덩컬덩컬 수제비죽 오헤라 맷돌
오헤라 맷돌 생벌써이기4) 내 처럽네5)
사우상으로 다 오리네 오헤라 맷돌
오헤라 맷돌 영감아 곶감아 오래만 살소
할멈할멈 죽지마소 인절미 콩찰떡 꿀 볼라줌세

주해 : 1)맷돌, 매통 곡식 가는 도구의 통칭
2)숱이 적은 상투
3)끄덕이면서
4)'생배곯기'라는 뜻
5)'처량하네'라는 뜻

13) 지경다구기 노래[62]

어럴럴럴 상사도야 어울러 보세 어울러 보세
어럴럴럴 상사도야 어럴럴럴 상사도야
어럴럴럴 상사도야 상사소리를 어울러 보세
어럴럴럴 상사도야 어럴럴럴 상사도야
먼디 사람은 듣기도 좋고 허럴럴럴 상사도야
어럴럴럴 상사도야 보리방아 물붓어놔 생각이 난다
옆에 사람은 보기도 좋게 허럴럴럴 상사도야
어럴럴럴 상사도야 상사소리가 듣기도 좋네
어럴럴럴 상사도야 허럴럴럴 상사도야
어럴럴럴 상사도야 씨엄씨 모리게2) 고초장 먹고

61) 주 14)와 같은 책 626쪽. 1989년 12월 27일 나산면 우치리 계동마을 윤수복(1919년 생)에게 채록
62) 주 6)과 같은 책 178~179쪽. 1981년 7월 15일 월야면 월악리 지변마을에서 채록한 것으로 앞소리는 정진동이 메겼고, 뒷소리는 김봉춘·정기덕·정광모가 받았다.

삼백근 몽끼가 벌날듯허네
어럴럴럴 상사도야
어럴럴럴 상사도야
어럴럴럴 상사도야
어럴럴럴 상사도야
어럴럴럴 상사도야
한발걸어 쾅도 놓세
허럴럴럴 상사도야
두발끔 걸어서 콰쾅쾅 놓고
허럴럴럴 상사도야
시아마니 죽었다고 시언이 아더니1)
허럴럴럴 상사도야
울넘에 달넘에 호화똥싸네3)
허럴럴럴 상사도야
씨엄씨 죽기를 고수를 하더니
어럴럴럴 상사도야
보리방아 물부어놓고 씨엄씨 생각
어럴럴럴 상사도야
울넘에 달넘에 깔베는 총각
어럴럴럴 상사도야
눈치만 찻거든 떡받아먹소
어럴럴럴 상사도야

주해 : 1)시원해 하드니. 시원하다고 하드니
2)'모리게'는 '모르게'의 전라도 방언
3)호화똥은 설사라는 뜻

3. 기타요

1) 둥당애타령[63]

수건수건 반포수건1)
사랑불에2) 걸어놓고
이리감서 눈물닦고
저리감서 눈물닦고
눈물이 저워서 떨어졌냐
앞바람도 불지말고
뒷바람도 불지말고
소소리 강풍만3) 내 때레라4)
당기 둥당혜 둥당에 더

연이란 년 연이란 년
나주 앞에 연이란 년
열일곱에 여우장게5)
나 작다고 마닥허드이6)
수건 씨고 단발하고
댕기 폴아 신 사신고
수건이 얇아서 떨어졌냐
이 산을 넘으면 살으리까
저 산을 넘으면 살으리까
갈수록이 태산일세
갈수록이 태산일세
앞바람도 불지 말고
뒷바람도 불지 말고
소소리 강풍만 내때레라
당기둥당애 둥당애덩

개개가네7) 개개가네
우리 어매 개개가네
자식 정도 있건마는
임의 정만 못하든가
앞바람도 불지말고
뒷바람도 불지말고

63) 주 5)와 같은 책 627쪽. 1989년 12월 29일 손불면 양재리 모량마을 엄덕례(1919년 생)에게 채록

실렸구야 실렸구야　　소소리 강풍만 내때레라
새복 바람에 실렸구야　　당기둥당애 둥당애당

주해 : 1)반베수건. 반베는 반물빛의 실과 흰실을 섞어 짜며 띠나 수건을 만드는 폭 좁은 무명
2)사랑부리라고도 하는데 부엌에 거는 살강. 선반을 일컬음
3)소소리바람은 회오리바람
4)내리 때려라
5)여의자 하니까
6)마다고 하더니
7)개가(改嫁)가네

2) 귀뚜라미타령[64]

이돈님(여, 1930년생)이 열너댓살 때 친정에서 배운 노래로, 밭에서 일할 때나 미영잣을 때, 그리고 놀면서도 불렀다고 한다. 원래는 두 사람이 귀뚜라미 부부로 가장해서 목소리를 높고 낮게 해서 불렀다고 한다. 친정에 가고 싶은 아낙네의 심정을 귀뚜라미 부부의 이야기로 비유해 담아내고 있다.[65]

꾸뚜라미 헤레 친정에나 기고지가 헤　　누게다 지고 갈까말까 헤
가소 그려 허　　지게다리 지고 가소 그려 허
멋 갖고1) 갈까 말까 헤　　집은 누가 볼까 말까 헤
정절편이나2) 져갖고 가소 그려 허　　꾸뚜라미 지가 보고 지가 하

주해 : 1)뭣 갖고
2)인절미, 찰떡

3) 담방구타령[66]

구야 구야 담방구야　　와삭이 바삭이 몰려갖고9)
동래나 워리 월산에1) 담방구야　　여자 쌈지 한 쌈지요
너그 국이 좋담서야　　총각에 싸지 쌈지가 한 쌈지라
괴한의 국이 국이를2) 귀경왔냐　　댐배 한 대 먹고나 보니
은도 없고 금도나 없고　　목구녕 속에 속에서 실안개가 돌고
담방구씨 한나를 갖고 왔네　　또나 한 대 먹고나 보니
매도3) 매도 열도나 매도　　목구녕 속세 속에서 다단개10) 돈다
매도나 매도마닥4) 짤라 묻어　　또나 한 대 먹고나 보니
화초밭에 화총 숭거　　임의나 새 생각이 절로 나네
폭폭이나 잡어 행게5)　　물질로 가제 물질로 가여

64) 주 5)와 같은 책 628쪽. 1989년 12. 26일 엄다면 엄다리 불암마을에서 이돈님(1930년 생)에게 채록
65) 주 5)와 같은 책 628쪽
66) 주 5)와 같은 책 629쪽. 1989년 12월 29일 손불면 양재리 모량마을 국봉례(여, 1928년 생)에게 채록. 이 노래 뒤에도 길게 사설이 이어지나 다 기억하지 못했다.

영오리고 동오리고6)
그네야 강수7) 드는 칼로
오리 송송 뿌어다가8)
불과 같이 나는 볕에
저석에 저성폴로11) 물질로 갑시다
물도 질고 임도나 보고
겸사 겸사로 물질로 갑시다

주해 : 1)동래, 월산은 경남의 지명
2)대한의 국. 즉 우리 나라
3)마디
4)마디마다
5)포기 포기나 잡어행궈
6)'영오르고는'는 '약오르고'의 와전인듯. '동오리고'는 '대궁이 오르고'라고 함. 즉, 다 자랐다는 뜻
7)뜻 모름
8)베어다가
9)말려갖고
10)뜻 모름
11)뜻 모름

4) 시집살이노래(양님땅땅 양님이는)[67]

며느리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시아버지의 행위와 이에 대한 남편의 항거가 특징적이다. 며느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시아버지의 존재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상상력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생각된다.

양님 땅땅 양님이는
시집 가기 원허드니
시집 가던 사흘만에
모숭그러 나스라네
활등같이 곱은 질에1)
활 쏘데끼2) 쏘아가서
논 가운데 들어가니
굵은 비는 다망다망
가랑비는 짜락짜락
에라허고 못 숭겄네
집이라고 돌아옹게
시름시름 시아버지
아가아가 메늘아가
손발 씻고 들오너라
나스라먼 나스지요
숭그라먼 숭그지요
박속같은 요내 다리
거둥거둥 걷어 엱고
일어나소 일어나소
이리 참서 일어나소
저리 참서 일어나소
그래해도 안 일어나
박속같은 요내 손길
가슴 우게 영거봉게
아주가고 영영갔네
어머니도 들어보이쇼
아버지도 들어보이쇼
장인 장모 알고보먼

67) 주 5)와 같은 책 630쪽. 1989년 12월 27일 신광면 삼덕리 덕산마을 이영숙(여, 1933년 생)에게 채록

손발 씻고 들어강게
사약 떠다 엱어 놓고
간장 떠다 영거 놓고
한 모금을 마시라서
한 모금을 마셔보니
사대삭신 물러나네
두 모금을 마시라서
두 모금을 마셔보니
아조 가고 영영 갔네
성당선배 내오심서
양님땅땅 양님이는
시집살이 강허담서3)
대낮잠이 웬일인가

멋이라고 대답헐께
동네사람 알고보먼
멋이라고 대답헐께
앞논 폴아 생에4) 찌고
뒷논 폴아 널 짜주소
얖은 구녁 짚이 파서
꽉꽉이나 묻어주소
서울질로 나는 뛰네
삼부모5) 죽었다고
핀지왕래 허시글랑
그때게나6) 내얼굴 보소
이별허고 나는 가네

주해 : 1)굽은 길에
2)활쏘듯이
3)고되다면서
4)상여
5)부모
6)그때에나

5) 진주낭군[68]

하늘에다 베틀 놓고
구름 잡어 잉애 걸어1)
참나무의 보드집에2)
비자낭기3) 북에다가4)
청포도포7) 지을라네
그 남지기8) 멋 헐랑가
우리 성님 시집가먼
가매얼개9) 얽을라네

얼렁절렁 짜느랑게
윳집망구5) 불싸러 와서6)
그 베 짜서 멋 헐랑가
우리 오빠 장개가면
물멩지10) 단속곳 치매
포두집11) 바람에 팔랑팔랑
박속같은 저네 살성12)
장부 간장 다 녹겄네

주해 : 1)잉아. 베틀의 날실을 아래위로 움직여 한 간씩 걸러서 끌어 올리도록 맨 굵은 실
2)바디집. 베틀에 바디를 끼우는 테. 바디는 날실 사이에 씨실을 넣고 다지는 기구로 이 바디에 따라 천의 곱기가 결정됨
3)비자나무
4)날실 사이를 드나들며 씨실을 내보내는 배 모양으로 생긴 기구
5)이웃집 할머니

68) 주 5)와 같은 책 633쪽. 1989년 12월 27일 나산면 우치리 계동마을 윤수복(여, 1919년 생)에게 채록

6)'불씨를 얻으러 와서'라는 뜻
7)푸른 빛의 베로 만든 도포
8)나머지
9)가마문
10)물명주
11)바디집
12)살결

6) 강실도령[69]

강질 강질 강도령은
강울책을1) 품에 품고
임안땅에 장개들어
장개떡이2) 어쩌든가
서른두간 지와집에
마흔두간 대벽방에3)
금오비단 홑이불은
덮을 데끼4) 돋아놓고
원앙금침 자우비개5)
둘이 빌 데끼 돋아놓고
새별같은 요강대우
느리느리 밀쳐 놓고
방 안에는 연꽃 피고
문 우그는 6) 피꽃 피고
핏자꼬리 연자꼬리7)
하늘에 천자 걸어놓고
한 대문을 열어보니
안종도 열에 다섯
바깥종도 열에 다섯
한 대문을 열어보니
누웠는 말도 열에 다섯
섰는 말도 열에 다섯
한 대문을 열어보니
양가매도8) 열에 다섯
금동우도9) 열에 다섯
병일레라 병일레라
꽃자리를 마다시고
짚자리만 딜이라네
떡국 상은 마다시고
미역 상만 딜이라네
아랫방에 처남남매
반말이나 허고가네
웃방에 상각손님10)
오던 질로 도상허세11)
장인장모 나서시소
반절이나 하고가세
에라허고 요망한놈
반절백이 못 배왔냐
자네 딸 행실 보면
반절도나 감사하네

주해 : 1)강도령의 '강'자를 따른 책 이름
2)장가(를 든) 댁
3)도배가 잘 된 방
4)덮을 듯이
5)둘이서 베는 베개
6)문 위에는

69) 주 5)와 같은 책 634쪽. 1989년 12월 27일 나산면 우치리 계동마을 윤수복(여, 1919년 생)에게 채록

7)신부가 해산하느라고 어질러진 방을 모사한 구절
8)놋쇠가마
9)금 동이
10)혼인 때 가족이나 일가 중에서 신랑이나 신부를 데리고 가는 사람
11)돌아가세

7) 엿타령[70]

싸구려 사구려
막파는 엿이야
임피 금강 호돈엿
개성이라 인삼엿
강원도 생청엿이야
동래 부산이 설탕엿
청산봄의 대추엿
고창 임실의 꼬깜엿
전라개명의 생강엿이야
새악씨 동구리 배방엿
열아홉살 묵은 큰애기가
동삼물로 빚었든가
지름이 질질 흐른엿
정말 싸구려 파는 엿
어디로가면 돈이마니 받고
그저엿으로 줍디가
이리오라면 이리와
호남선 철둑 같은 엿이야
장성갈재 점봇대 같은 엿이야
울금졸금의 참쌀엿
평퍼졌다 나발엿이란다
지금이 질질 흐른엿
시살먹은 어린애가 먹고나면
빨래독을 들쳐이는 엿
남자들이 먹고나면
생바우를 뚫는 엿
여자들이 먹고나면
새동해주를 짜리는 엿
백살 노인이 먹고나면
하랫저녁 아홉 번석 하는 엿
정말 싸구려 파는 엿
허랑방탕에 주는 엿이야
정말 싸구라 파는엿

8) 액풀이[71]

동해는 동기장군에
독말께 독안장
독갑을입고 독갑을쓰고
독안에독촉을 떨쳐입고
동쪽에서 떠들어오는
서해는 석기장군에
석말께 석안장
석갑을입고 석갑을쓰고
석안에서촉을 떨쳐입고
섯쪽에서 떠들어오는

70) 지춘상, 『한국구비문학대계』 6-2 전라남도 함평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315~316쪽. 1980년 8월 25일 엄다면 엄다리 번등마을 천학실(남, 당시71세)에게 채록
71) 주 28)과 같은 책 319~320쪽. 1980년 8월 25일 엄다면 엄다리 번등마을에서 채록한 것으로 앞소리는 천학실이 메겼고, 뒷소리는 천학실과 김영환(남, 당시 59세)이 받았다.

대기수살을 막어내자
어허어루 액이야
어리중천에 액이로구나
남해는 남기장군에
남말께 낙안장
낙갑을입고 낙갑을쓰고
낙안에낙촉을 떨쳐입고
남쪽에서 떠들어오는
대기수살을 막아내자
어허어투 액이야
어리중천에 액이로구나

대기수살을 막어내자
어허어투 액이야
어리중천에 액이로구나
북에는 북기장군에
북말께 북안장
북갑을입고 북갑을쓰고
북안에북촉을 떨쳐입고
북쪽에서 떠들어오는
대기수살을 막아내자
어허허루 액이야
어리중천에 액이로구나

9) 애기어루는 소리 [72]

둥게둥게 둥게야
둥게 마치 꽂감인가
참나무 방망인가
달머지게도1) 생겠네
경상두 방앗곤가
뭉실뭉실도 잘생겠네
오동나무 밑이든가
밀끔허게도 잘생겠네

몽탄강에2) 숭앤가3)
뭉실뭉실도 잘생겠네
니모빤듯 뚜부몬가
너붓허게도 잘생겠네
둥게둥게 둥게야
둥게 마치 꽂감인가
참나무 방망인가
달머지게도 생겠네

주해 : 1)야무지게도
2)숭어가 많이 나는 무안의 몽탄강
3)숭어인가

10) 애기어루는 소리 ②[73]

들강 들강
서울갔다 오는길에
밤한톨 주워다가
뜨까군쪽 남은것은
울아바니 드리고서
살쪼금 남은것은
울할머니 드리고저

선반우게 얹었더니
머리감은 생쥐가
들낙들낙 다까먹고
쪼금쪼금 남었길래
너랑나랑 먹었고나
들강 들강

11) 자장가 ①[74]

72) 주 28)과 같은 책 320~321쪽. 1980년 8월 25일 엄다면 엄다리 번등마을에서 전경녀(여, 당시 60세)에게 채록
73) 주 28)과 같은 책 321~322쪽. 1980년 8월 25일 엄다면 엄다리 번등마을 곽판순(여, 당시 67세)에게 채록

자장자장 우리애 기
잠도잘도 잘잔다
우리 애기는 꽃밭에다 뉘어놓고
놈의 애기는 갯똥밭에 뉘어놓고
자장자장 잘도잔다

12) 자장가 ②[75]

은자동아1) 놋자동아2)
은을 주먼 너를 사니
옥을 주먼 너를 사니
둥게야둥게야 둥둥게야
징게망게3) 외얏들
못짜리 봅다4) 인자와
둥둥 둥겐가

주해 : 1)은자동(銀子童)
2)동자동(銅子童)
3)전부의 김제·만경들
4)모판을 밟다가

13) 거무 노래(거미 노래)[76]

거무야 거무야 왕거무야1)
니아줄은2) 엇다맸냐
경산두3) 금강산
뒤진개4) 자진개
돈부꽃 동질게
양금산 꾀꼬리
정아르 정알5)
진벌장네6) 내사랑이다
타지 잠깐만 맺었네
거무야 거무야 왕거무야

주해 : 1)왕거미. 여름에 수레바퀴 같은 거미줄을 치는 보통의 큰 거미
2)너의 줄을
3)경상도
4)~6)뜻 모름

14) 흥글 노래[77]

제비제비 파랑제비
능금 한쌍 물어다가
성밖에다 집을 지어
돈으로는 방돌 놓고
바늘로는 지둥허고
원초리로 대문달고
대문안에 저처녀야
뉘 간장을 뇍일라고
저리곱게 생겼느냐
내가머시 곤가마는
성루 복송 꽂일래라

74) 주 28)과 같은 책 322쪽. 1980년 8월 25일 엄다면 엄다리 번등마을 이안심(여, 당시 52세)에게 채록
75) 주 28)과 같은 책 323쪽. 1980년 8월 25일 엄다면 엄다리 번등마을 이안심(여, 당시 52세)에게 채록
76) 주 28)과 같은 책 323~324쪽. 1980년 8월 25일 엄다면 엄다리 번등마을 전경녀(여, 당시 60세)에게 채록
77) 주 28과) 같은 책 548쪽. 1980년 11월 29일 나사면 초포리 사산마을 백정례(여, 당시 67세)에게 채록

15) 원망요[78]

배꽂은 장개가고
석류꽃은 퇴인서고
맨드래미 장모잡고
해당화는 후배스고
남산촌아 웃지마라
기욱선이 희롱마라
개꽂은 장개간다
첫날밤을 차라준게
신부가 들어더니
형님처럼 밑이
공단가꾼 원했더니
형님밑이 구실가꾼
웬일이고
모단 당추 원했더니
쥐꼬리 당추 웬일인가
씨암탁 잡여 관격만 잘허먼
이시변이 내못잣까

16) 흥타령[79]

경부선 철로야 응응응
전라남도 호남선아
너는 무슨 사무가 없어
부부지정 우리님을
부질없이 실어다가
가픈 동서가 웬일이란 말이냐
이내 마음을 그리웁게 하네
나의 심사 산란허여
울음이 얄미워라
허
국화야 너는 어이
삼월 동풍을 다 보내고
낙목한철 찬바람에
허
적막공산에
슬피 우는 저 두견아
조그만이 어조난 아니저도
슬픈 울음이 무산 일로
너도 깊은 한으로서
울고지고 있단만은
너만 외로이 피었으니
아마도 농상고절이
너뿐인가 하노라
아이고 대고 어허
성화가 났네
허

17) 상여소리[80]

<댓소리>
허허어 어이
아허이여 어이
에헤에헤 히이히
에헤에헤 히이히이
가난보살
에헤에헤 이히이히
가난보살

78) 주 28)과 같은 책 904쪽. 1980년 8월 22일 신광면 삼더리 덕산마을 최금희(여, 당시 94세)에게 채록
79) 나승만·고혜경, 『노래를 지키는 사람들 – 남도민요기행 –』, 문예공론사, 1995, 281·283쪽
80) 주 28)과 같은 책 306~313쪽. 1980년 8월 25일 엄다면 엄다리 번등마을에서 채록한 것으로 앞소리는 천학실(남, 당시 71세)이 메겼고, 뒷소리는 강영진(남, 당시 57세)·윤예병(남, 당시 62세)·정원길(남, 당시 72세)·홍종철(남, 당시 72세)·윤정중(남, 당시 40세)이 받았다.

가난보살
에헤에헤 이히이히
가난보살
아허허어 어이
어허이여 어이
에헤에헤 히이히
가난보살
에헤에헤 이히이히
가난보살
아허허어 어이
아허이여 어이
에헤에헤 히이히
가난보살
에헤에헤 이히이히
가난보살
아허어 어이
아허이여 어이
<운상소리>
허허 허허
어허이 어허노
어허이 어허노
허허 허허
어허이 어허노
어허이 어허노
인제가면 언제올까
언제 오실줄 내모르겠네
어루가자 어허노
어허이 어허노
허허 허허
어허이 어허노
어허이 어허노
북망산천 머다허니
문턱밑에가 북망산이라
어루가자 어허노
어허이 어허노
허허 허허

<가난보살>
가난보살
가난보살
어허이여 어이
이제 가시면 언제나 오실라요
언제 오시줄을 내모르겠네
가난보살
어허이여 어이
장생불사 허랐드니마는1)
황천길로만 내가 돌아를 가네그려
가난보살
어허이여 어이
먹던밥을 개덮어 놓고2)
들든 수제가 상녹이 나겠네그려
가난보살

명전공포 운아삽은
천리강산을 앞을 세우네
어루가자 어허노
어허이 어허노
허허 허허
어허이 어허노
어허이 어허노
가세가세 어서를 가세
하관시간이 늦어를 간다
어루가자 어허노
어허이 어허노
허허 허허
어허이 어허노
어허이 어허노
서룬두명 유대군들
발을 맞차서 소리를 허소
어루가자 어허노
어허이 어허노
허허 허허

어허이 어허노
어허이 어허노
못가겄네 모가겄네
차마서러서3) 내 못가겄네
어루가자 어허노
어허이 어허노
허허 허허
어허이 어허노
어허이 어허노
공든하니 백발이요
면치 못헐것 인생 죽엄이라
이루가자 어허노
어허이 어허노
허허 허허
어허이 어허노
어허이 어허노
<언덕 올라갈 때 부르는 소리>
어화
어화
어화
어화
조심허소 조심해
어화
부데부데4) 조심허소
어화
어화
어화
조심허소 조심허소
어화
우리 상두군 조심허소
어화
이리 보아도 우리 상두군
어화
저리 보아도 우리 상두군
어화
가네가네 우리 가네
어허이 어허노
어허이 어허노
어허이 어허노
어허이 어허노
다잘허네 다잘도헌다
어허이 어허노
우리 계원들 다잘도허네
어허이 어허노
어이가리 어허노
어허이 어허노
가세가세 어서를 가세
어허이 어허노
저기 쉬어서 어서를 가세
어허이 어허노
어나리 어허노
어나리 어허노
우리 상두군 조심허소
어화
고생허네 고생허네
어화
우리 계원들 고생허네
어화
잘 보투소 잘 보투소
어화
우리계원들 잘보투소
어화
또랑있네 또랑있네
어화
건네 뛸대 조심허소
어화
올라가세 올라가세
어화
일락태산을 올라가세
어화
어느때나 다갈거나
어화

어화
잘 보투소5) 잘 보투소
어화
이리봐도 이리봐도
어화
잘구리 우리 장군
어화
어화
어화
어화
어화
어화
조심허소 조심허소
어화
주해 : 1)하려고 했더니만
2)개(蓋) 덮어놓고. 밥그릇 뚜껑을 덮어놓고
3)차마 서러워서
4)부디 부디. 아무쪼록
5)잘 버티소

우리 구신 도벽허네
어화
어화
어화
잘도가네 잘도가네
어화
우리 계원 잘도가네
어화
곱게곱게 운상허세
어화
우리 곱게 곡행허세
어화

제3절 가 요(歌謠)

1. 칠실(漆室) 우국가(憂國歌) 28장(章)[81]

이덕일(李德一, 1561~1622)이 지은 작품으로, 그의 문집 칠실유고(漆室遺稿)에 실려 있다. 이덕일의 본관은 함평, 자는 경이(敬而), 호는 칠실(漆室)이다.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使) 은(誾)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학문을 닦아 문명을 떨쳤다 한다. 정유재란(丁酉再亂) 때에는 피난민을 모아 의병을 조직하여 각처에서 공을 세웠고 이순신(李舜臣)의 막하에서 활동했다. 이순신이 전사한 후에는 축성제구책(築城制寇策)을 논하였고, 이정귀(李廷龜)의 천거로 절충장군(折衝將軍)에 올랐다. 광해군 때 국정이 문란해짐을 한탄, 벼슬을 버리고 향리인 대동면 향교리로 돌아와 담쟁이덩굴, 칡덩굴 등이 우거진 곳에 한 칸 띠집 칠실(漆室)을 짓고, 이곳에서 나라 근심에 쌓인 채 여생을 마쳤다.

우국가 28장은 칠실이 벼슬을 버리고 향리로 돌아온 1613년부터 인목대비(仁穆大妃)가 서궁

81) 이현석, 「칠실 이덕일의 우국가 28장」, 『함향』, 사단법인함평군향토문화연구회, 2004. 이현석은 이 글에서 우국가 28장의 가치, 제작시기, 작가 이덕실의 생애 등을 자세하게 서술했다. 여기서도 이 글을 대부분 인용했으나, 일부는 함평군사의 체제에 맞게 재편집했다.

(西宮)에 유폐된 무오년(1619)까지의 약 7년 동안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1732년 11월에 칠실유고 인쇄본을 펴내면서 후손 이세추(李世樞)의 서문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일찌기 창계(滄溪) 임영(林泳)[82] 공이 복산(福山)에 성묘를 갈적마다 항상 나의 종대부(從大父) 집에 들렀는데, 반드시 먼저 공의 유고를 찾아서 맨 먼저 우국가 28장을 읽다가 '관산월(關山月)' 한 곡조에 이르러서는 영탄하며 왕실을 높이는 긴긴 한이 담긴 생각이 있다고 탄식하였다. 다음으로는 강도소(江都疏) 한 편을 읽고는 또 그 분 지혜의 폭이 넓은 것을 감탄하였으며 대동법이 대법(大法)임을 감탄하였다. 그리고 폐대비 의론을 배척하는 상소를 읽고는 홀연 놀랍고도 두려워 낯빛을 바꾸고는 '의리가 삼엄하고 곧은 기운이 늘름하여 결코 한낱 무인(武人)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 분의 묘문(墓文)을 써 줄 것을 허락하였는데 이루지를 못하였고 노촌(老村) 임상덕(林象德) 공이 그 뜻을 이어서 우국가 발(拔)을 써 주었다」

이 글에 따르면 1696년 이전에 서귀거사 이기발(李起渤)이 초사의 문체(文體)를 모방하여 어세(語勢)를 강하게 하는 어조사 사(些)로 연결한 번사(飜辭)가 첨부된 우국가와 강도소(江都疏), 폐대비 의론 배척 상소문 등으로 구성된 칠실유고의 원본 또는 필사본을 종대부 집에서 보관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학자이기도 한 창계가 성묘 길에 읽어보고 감탄을 했다니 그 비중을 가히 짐작할 수가 있다.

창계가 타계한 이후 칠실의 5대손 이세추는 우국가의 비중을 알고 홍문관 부교리 임상덕(林象德)의 우국가후서(憂國歌後敍, 1709년 봄), 금성 나이장(羅以樟)의 우국가후(憂國歌後), 진사 이사성(李師聖)의 칠실전(漆室傳, 1708년), 이조참판 권상하(權尙夏)의 묘갈(墓碣, 1711년), 연안 이희조(李喜朝)의 가승후(家乘後, 1713년), 장암 정호(鄭澔)의 묘지명(墓誌銘, 1723년) 글을 받아 발간 준비를 마쳤으나, 여의치 않아 1732년에야 인쇄본을 발간한 것으로 보인다.

우국가를 지은 동기와 시기에 대해서는 1709년에 임상덕이 쓴 '우국가후서'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뭇 간신들이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자 벼슬할 뜻을 끊고서 작은 집 한 칸을 지어 칠실(漆室)이라 이름 하였다. 거기서 살면서 항상 혀를 차며 혼잣말을 하였다. 그윽한 시나 감탄의 문장으로는 그의 뜻을 펼 수가 없어서 가끔 가요(歌謠)에 의탁하였으니 그가 지었던 28장은 대부분 그 무렵에 지은 것들이다. 하루는 병상에 누워서 대비를 폐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울음을 이기지 못하고 '내 비록 무부(武夫)이나 일찍이 국록을 받았으니 죽고 사는 것이 아까워서 말 한마디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는 원흉의 목을 베어 인륜을 바르게 하기를 청하는 상소를 썼다. 자신이 서울로 올라가 바치려하였으나 임금께 알리기도 전에 서궁(西宮)이 이미 닫혀 버렸다. 이로부터 가요도 부르지 않고 다시 짓지도 않고 혼자서 때때로 통곡만 할 뿐이었다」

82) 임영(1649~1696)은 나주 사람으로 대사헌과 전라관찰사를 역임했다.

칠실이 고향으로 내려와 모옥(茅屋) 한 칸을 지은 해가 1613년, '폐대비척소(廢大妃斥疏)'를 올린 때가 1619년 5월 9일이기 때문에 우국가 28장은 이 사이에 지어진 것이다. 성품이 강직하여 자기의 뜻을 굽히면서까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대부분 혼자 지내면서 나라 일을 걱정했다. 그래서 쌓이고 쌓인 의분과 충성의 맹세를 우국가 저작을 통해 나타내고자 했을 것이다.

우국가에 대한 선현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먼저 번사(飜辭)를 쓴 이기발은

「들으니 장가(長歌)는 통곡보다 더 슬프다고 한다. 노래 곡조가 28장에 이를 정도로 많으니 공의 슬픔도 대단했나 보다. 내가 그분의 우국가를 보았더니 수심(愁心)에 차 있고 비분강개함이 초나라 굴원대부(屈原大夫)의 세상을 아파하고 잠 못 이루던 정성이 있었다. 곡조를 따라가며 장(章)을 넘겨보니 사람으로 하여금 모르는 사이에 감발(感發)하고 탄식하게 할 뿐이었다」

고 하였고, 임경회는 '우국가서'에

「일찌기 우국가 28장을 지었는데 항상 충분심이 치솟을 때는 읊어 강개한 회포를 풀 걸리로 하였으니 장(章)마다 곡(曲)마다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위한 정성이 아님이 없다」

고 하였고, 임상덕은 '우국가후서'에

「내가 그분의 노래를 보니 답답해하고 불평스런 마음에서 터져 나온 것으로 간드러지면서도 지극히 호탕하여 간간이 기특한 기운이 넘쳐흐르며 높은 절개와 복받치는 의기의 소리가 섞여 있다. 늘 세상일이 어지럽고 강산이 막히면 칼을 들고 병(兵)을 치며 우조(羽調)[83]로 노래하였으니 바로 가슴 속에 쌓인 불평스러운 마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상상하여 그를 본 듯하게 한다」

고 하였다.

우국가 28장을 각 장의 노랫말에 짙게 깔린 배경에 따라 다음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임진 정유재란의 뼈아픈 상처를 되새겨 읊은 노래 : 1~7장, 27장(8수)
② 붕당 싸움을 보고 상심하여 읊은 노래 : 13~22장장, 25~26장(12수)
③ 충간의 심정을 읊은 노래 : 8~12장, 23~24장, 28장(8수)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제1장과 2장에서는 저자가 품었던 큰 뜻을 이루지 못한 상심을 스스로 위로하고 있다. 저자가 문반(文班)인 아버지, 할아버지와는 달리 무과(武科)를 택한 까닭을 밝히고 있다. 그도 임진란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문과에 응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임진란이 일어나 임금이 의주로 피란을 하고 나라 전역이 적의 손아귀에서 분탕되자

83) 오음(五音)의 하나인 우성(羽聲)의 곡조

"나라가 위급하고 임금이 욕을 당하니 마땅히 칼을 들쳐 매고 전장에서 적과 싸우다 죽는 것이 대장부의 옳은 일로 삼아야 한다"고 결심하고 낮에는 말을 달리며 활 쏘고 칼 쓰는 연습을 하고 밤에는 병서를 읽어 무예를 연마하여 1594년 별시(別試)에서 절친한 친구 강항(姜抗)이 문과를 택하라는 간절한 권유를 뿌리치고 무과에 응시하여 을과(乙科)에 급제했었다. 이러한 그의 포부를 노래한 1, 2장은 자탄음(自嘆吟)이지만 그 배경에 임진란의 뼈아픈 상처가 스며 흐르고 있다.

우국가 원문을 보면 제1장, 제2장~제28장으로 지칭하여 배열되어 있다. 임상덕의 '우국가후서'와 나이장의 '우국가후'에는 제4장 무성탄가(無城歎歌), 제7장 관산월가(關山月歌), 제8장 몽성교가(夢聖敎歌), 제9장 막이도가(莫移都歌), 제10장 득민심가(得民心歌), 제13장~제15장과 제17장~제22장의 9수는 상붕당가(傷朋黨歌), 제24장 순천명가(順天命歌) 등 절반인 14수(首)에 별칭이 적혀 있다. 원래 별칭이 모두 붙어있었던 것을 편집과정에서 넣지 않았는지 14수만 별칭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하 우국가 각 장은 충남대학교에 소장된 『칠실유고(漆室遺稿, 1732. 11월 간행)』 원문에서 옮겼고, 아래에 맞춤법에 의해 고쳐 썼으며, 어려운 용어는 주석을 붙였다. 원문은 세로쓰기로 되어있어 우일장(右一章), 우이장(右二章) 등 '우(右)'자가 씌어 있으나 여기서는 가로로 썼기 때문에 '우(右)'자를 생략하였다.

제1장(第一章)
學問을후리티오反武1)을ᄒᆞ온뜻은
三尺劍2)둘러메오 盡心保國호려터니
ᄒᆞᆫ일도ᄒᆞ옴이업ᄉᆞ니눈물계워ᄒᆞ노라

학문을 뿌리치고 반무를 하온 뜻은
삼척검 둘러 매고 진심보국 하려터니
한 일도 하옴이 없으니 눈물 겨워 하노라
1)반문 : 여러 대 무관으로 있던 집안이 문관으로 있다가 그 자손이 다시 문관으로 돌아가는 일
2)삼척검 : "삼척장검"의 준말. 크고 긴 칼

제2장(第二章)
壬辰年淸和月의 大駕西巡3) ᄒᆞ실날의
郭子儀4) 李光弼5) 되오려 盟誓러니
이몸이不在6)론들노알니업서ᄒᆞ노라
3)대가서순 : 임진란(1592)때 왕이 의주(義州)로 피란함을 말함
4)곽자의 : 당나라의 무장. 대위중서령(大尉中書令)원로가 됨
5)이광필 : 고려 명종 때의 화가. 임금과 함께 산수풍경을 자주 그림

6)불재 : 자신의 재주를 겸손해 하는 말

제3장은 나라가 자기에게 걸고 있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각성을 노래하고 있으며 역시 임진 정유왜란의 한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제3장(第三章)
나라히못니즐거슨 네밧긔뇌여업다
衣冠文物을 이대도록 더러인고
이怨讐못내갑풀가칼만ᄀᆞᆯ고잇노라

나라에 못 잊을 것은 네 밖에 뉘 더 없다
의관 문물을 이토록 더럽혔는고
이 원수 못내 갚을 가 칼만 갈고 있노라

제4장(無城歎歌-무성탄가로 이름 붙여짐)과 제5장, 제6장은 외란을 당해 위기에 몰렸을 때 의거할 곳이 있어 불리한 전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천혜의 성이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음을 한탄하고 또 그러한 성을 쌓을 만한 곳을 찾아보지도 않는 세태를 탄식하며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 답답한 마음을 알아 구충천에 아뢰라는 하소연을 읊은 노래다.

이 노래는 1610년에 그가 올린 대동강도소(大同江都疏)를 이해하여야 한다.

그는 이 상소에서 대동법을 시행할 것과 강화도성(江華島城)을 비롯한 우리나라 각 성의 허점을 지적하고,

「신은 곰곰이 평상시의 견문을 시험 비교하니 형세의 유리함이 팔도(八道) 중에서 거의 첫째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영암성(靈岩城) 남쪽 월출산(月出山) 계곡입니다. 이 산을 소금강(小金剛)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월악(月岳)이라고도 합니다. 나주와의 거리가 두 번 쉴참 쯤 되며 둘레가 팔십여리가 됩니다. 온 산이 모두 층암 절벽이어서 빙 둘러 성을 쌓는다면 십여읍(邑)의 민물(民物)을 수용하기에 충분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산동(孤山洞)으로 말하면 냇물이 마르지 않고 샘물이 하나 둘 아니며 또 창창하게 나무가 많으니 성을 만들 터에 혹은 성을 쌓지 않아도 될 곳이 있고 쌓아야 할 곳이 있으니 공이 적게 들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는 광활하여 몇 만 명의 사람이 들어갈지 모릅니다. 천왕봉(天王奉), 구정봉(九井奉) 두 봉우리가 동과 서에 대단히 높이 솟아 있어서 사방 백여리를 훤히 볼 수 있습니다. 동서남북엔 출입할 지름길이 있으며 내려 보일 산이 없습니다. 동쪽으로는 한 골짜기와 이어지고 있는데 이름이 보제(補祭)입니다. 형세가 이와 같으니 두 골짜기를 합하여 한 성을 쌓는다면 더욱 크고 험악할 것입니다. 성 밖 사면(四面)은 골짜기마다 험하게 막혔으니 사람들이 웅거하면 돌을 던져서도 적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 정유년에 왜적이 남하할 때 이 산을 지나면서도 수색하지 못한 것은 어찌 이 험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옛날 신하 곽(郭再佑)가 산에 올라서

두루 돌아보며 적을 막을 좋을 곳으로 이 산만한 형세가 없다고 했습니다.」

라 하였다.

월출산 계곡이 천혜의 성터라는 것은 칠실과 절친했던 영광 사람 강항이 정유재란 때 일본에서 포로생활이 풀려 귀국했을 때 올린 상소문(그의 저서 간양록-看羊錄-에 실려있음)에도 나와 있고 함평 사람 정호인(鄭好仁)의 상소(정유피란기-丁酉避亂記-에 실림)에도 나와 있어 정유재란 이후 식자 간에는 상당히 깊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며 특히 칠실은 이 상소 외에도 정유재란 때부터 월출산 축성(築城)의 타당성을 여러 번 진언한 것으로 전해온다.

칠실의 상소를 귀담아 듣지 않던 조정은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게 항복하고서야 월출산에 성을 쌓지 않은 것을 크게 후회하였다.

제4장(第四章) - 무성탄가(無城歎歌)
城잇사되막으랴녜와도홀일업다
三百二十州7)의엇디엇디딕킬게오
아모리藎臣精卒8)인들의거업시어이ᄒᆞ리

성 있으되 막으려 너 와도 할 일 없다
삼백 이십주의 어디 어디 지킬게오
아무리 신신 정졸인들 의거 없이 어이하리
7)삼백이십주 : 임진란 당시의 현(縣)이상 행정구역 수
8)신신정졸 : 충신과 정예의 병졸

제5장(第五章)
盜賊오다뉘막으리아니와셔알니로다
三百二十州의누고누고힘서홀고
아모리애고애고흔들이人心을어리ᄒᆞ리

도적 오나 뉘 막으리 아니 와서 알리로다
삼백 이십주의 누구 누구 힘써 할까
아무리 에고 에고한들 이 인심을 어이하리

제6장(第六章)
어와셜운디오ᄉᆡᆼ각거든셜운디오
國家艱危를알니업서셜운디오
아모나이艱危알아九重天9)의ᄉᆞᆯ오쇼셔

어와 서러운지고 생각 거듭 서러운지고
국가 간위를 알 수 없어 서러운지고
아무나 이 간위 알아 구중천에 사뢰소서
9)구중천 : 궁정「韓兪」一封朝秦九重天

제7장 관산월가(關山月歌)에 대해 조운(趙雲) 임경회(林慶會)는 우국가서문(憂國家序文)에,

「관산통곡(關山慟哭)의 노래와 상심압수풍(傷心鴨水風)의 곡조는 사람의 입에 전파되었으니 바로 왕실을 높이는 한(恨)과 세상을 돕는 교훈이라 말할만하다. 그런데 그 때의 정치를 거역하는 것이라 하여 비방을 받을까 두려워했다」

하고 하였고,
나이장(羅以樟)은 우국가후문(憂國家後文)에,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께서 한가할 때면 언제나 관산월 한 곡조를 읊으시며 '임금께 충성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정신만이 아니라 본디 왕실을 존중하고 길이 한스러워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하였다」

고 하였으며
우암 송시열(尤庵 宋詩烈)은 통곡 관산월을 보고 영탄하며

「왕실을 높이고 세상을 교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뜻이 있다」

고 하였으며
창계 임영(滄溪 林泳)은 역시 영탄하며,

「왕실을 높이는 긴긴 한(恨)이 담긴 생각이 있다」

고 하였다.
임진란 때 선조왕이 피란처인 의주(義州)의 행궁(行宮)에서 뼈아픈 심정을 달랬던 이 시 한 구절을 노래에 인용한 칠실의 가슴은 왜란의 치욕적인 상처를 절대 잊지 말자는 절규로 떨었을 것이다.

제7장(第七章) – 관산월가(關山月歌)
慟哭關山月과傷心鴨水風을10)

先王이쓰실적의누고누고보온게오
ᄃᆞᆯ불고바람불적이면눈의삼삼ᄒᆞ여라

통곡관산월과 상심압수풍을
선왕이 쓰실 적에 누구 누구 보온게오
달 밝고 바람 불 적이면 눈에 삼삼하여라
10)통곡관산월과 상심압수풍 : 선조 대왕이 의주에서 지었던 시의 한 구절로 관소(關所 또는 고향)를 비추는 달이 통곡을 하고 압록강 바람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뜻

제8장부터 제12장까지는 나랏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한 충간(忠諫)의 뜻을 배경에 깐 노래다.

이 중 제8장 몽성교가는 나라가 영원히 잘 되려면 수덕(修德)하는 일밖에 없다는 간절한 충간의 마음을 꿈을 빌어 전달한 차원 높은 노래다.

제8장(第八章) – 몽성교가(夢聖敎歌)
쉼의와니ᄅᆞ샤ᄃᆡ聖太祖神靈계셔
降祥宮디으시고修德을ᄒᆞ랴테다
나라히千年을느르심은 이일이라ᄒᆞ더이다

꿈에 와 이르시되 성태조 신령께서
강상궁 지으시고 수덕을 하랍데다
나라의 천년을 누리심은 이일이라 하더이다

제9장 도읍 옮기는 것은 말리라는 이 노래는 1610년에 칠실이 올렸던 "대동 강도소(大同 江都疏)"를 먼저 알아야 이해가 된다. 중신들이 장차 있을지 모르는 외란(外亂)에 대비하여 강화도성(江華都城)을 수축(修築)하고 여차하면 피란을 해야 한다는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극구 반대하는 상소를 하였는데 강화도의 지리와 형세, 수비의 여건, 역사적인 고찰을 장문(長文)으로 상세히 적은 후,

「신은 보건데 강화도로 피한다는 것은 적(賊)의 수풀 속으로 피하는 것이요, 강화도로 들어간다는 것은 위험하고 망하는 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저절로 외적을 불러 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결론을 지었고, 나라를 지킬 축성의 적지는 영암군의 월출산 계곡이라고 진언했었다(제4장 설명 참조).

제9장(第九章) – 막이도가(莫移都歌)
마ᄅᆞ쇼셔마ᄅᆞ쇼셔移都ᄯᅳᆺ마ᄅᆞ쇼셔
一百적勸ᄒᆞ여도마ᄅᆞ쇼셔마ᄅᆞ쇼셔
享千年不拔鞏基11)ᄅᆞᆯ더져어히ᄒᆞ시릿가

마옵소서 마옵소서 이도 뜻 마옵소서
일백 적 권하여도 마옵소서 마옵소서
향 천년 불발공기를 던져 어리 하시리까
11)불발공기 : 공고히 다져서 다시 빼낼 수 없음

제10장 득민심가는 제8장 몽성교가와 맥이 연결되는 노래다. 덕(德)을 닦으면 그것이 바로 민심을 얻는 길이며 천년 사직을 온전히 지탱하는 길이라는 평소 자기의 소신을 태조대왕이 꿈에 일러준 가르침이라 강조하고 있는 노래이다.

제10장(第十章) – 득민심가(得民心歌)
마ᄅᆞ쇼셔마ᄅᆞ쇼셔疑心마ᄅᆞ쇼셔
得民心外예ᄂᆞᆫᄒᆞ올일이업ᄂᆞ이다
享千年夢中傳敎ᄂᆞᆫ귀예錚錚ᄒᆞ여이다

마옵소서 마옵소서 의심 마옵소서
득인심 외에는 할 일이 없나이다
향 천년 몽 중 전교는 귀에 쟁쟁하오이다

제11장은 선혜(宣惠)를 고루하는 정책을 펴라는 충간(忠諫)의 노래다. 이 노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610년에 올린 "대동 강도소(大同 江都疏)" 중 대동(大同)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는 이 소에서,

「공사(公私)의 경비가 모두 말라버린 폐단을 구하기 위해서는 역(役)을 가볍게 하고 세금을 박하게 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습니다. –략–
오늘날 공부(貢賦)와 요역을 모두 전결(田結)에 다 부과하니 1년에 전답(田畓) 1결에 10여석이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수확하는 곡식이 부역의 공납에도 부족하게 되어 여러 고을 백성들이 끓는 물 속에는 있는 것처럼 괴로워합니다. 그리하여 전답을 원수 같이 생각하고 부역을 병(病)처럼 생각하여 신음이 끊이지 않고 집을 떠나 방랑하는 것이 계속되어 전야(田野)는 점점 황폐해지고 마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기름을 짜고 살을 깎는 듯한 혹독한 재촉과 각박하고 독하게 하는 폐단을 이루 말할 수 없고 거꾸로 매달린 듯 설 자리를 잃음과 추위와 굶주림에 울부짖음과 초췌하고 고생스러운 형편을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부역의 해독은 심하지만 그러나 국

가에 들어가는 것은 8~9에 2~3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부역은 백성에게 해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또한 이익이 없습니다. -략-
지난 계묘년의 양전안(量田案)으로 지금의 비용을 맞추어 보면 팔도의 전결은 57만여 결(結)입니다. 모든 전세(田稅)와 공물과 잡역 등을 면제하고 1결에 다만 쌀 20말과 포(布) 2필을 거두면 쌀을 80여만 석이 되고 포는 2만 2천여 통(同)이 됩니다. 이중 절반은 경창(京倉)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각읍에 두어야 합니다. -략-
전하가 처음 즉위하셨을 때 특별히 선혜청(宣惠廳)을 설치하시니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운 빛으로 머리를 들고 눈을 닦고 모두 잘 살게 되기를 바라보았는데 결국은 경기(京畿)내외 백성만 특별히 베푸는 은혜를 입게 하고 7도(道)의 백성들은 모두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다같이 보고 다같이 사랑하는 전하의 마음으로 왜 다친 사람 보듯 하지 않습니까. 신의 쌀과 포에 대한 대책은 바로 경기내(京畿內)의 선혜청에서 하는 일입니다」

라고 진언하였다. 여기서의 "대동(大同)의 소(疏)는 훗날 대동법이 되어 시행되었다.

제11장(第十一章)
뵈나하貢賦對答쏠씨허徭役對答
옷버슨赤子12)돌이비곯파셜워ᄒᆞ닉
願컨대이뜻이ᄅᆞ샤宣惠고로ᄒᆞ쇼셔

베 짜서 공부 대답 쌀 찧어 요역 대답
옷 벗은 적자들이 배고파 서러워하네
원컨대 이 뜻 알으셔 선혜 고루 하소서
12)적자 : 갓난아이. 임금이 백성을 갓난아이처럼 여겨 보살피며 사랑한다는 뜻으로 "백성"을 일컫는 말

제12장은 진심국사가(盡心國事歌)라 이름 붙일 수 있는 노래로 높은 벼슬아치들에게 공명과 부귀를 멀리하고 주대를 가지고 바른 국정을 펴라는 충간을 하고 있는 노래다.

제12장(第十二章)
功名과富貴란餘事로 혀여 두고
廊廟上大臣13)네盡心國事ᄒᆞ시거나
이렁셩져렁셩ᄒᆞ다가내죵어히ᄒᆞ실고

공명과 부귀는 여사로 하여 두고
낭묘 상대신네 진심국사 하시거나

이렁성 저렁성 하다가 내종 어이 하실고
13)낭묘 상대신 : 조정의 대정을 보살피는 의정부의 높은 벼슬아치란 말

제13~22장은 붕당 싸움의 상심을 읊은 노래다.

임상덕은 '우국가후서'에서 "상붕당(傷朋黨) 9장은 애처롭고 간절하게 반복하여 곧으면서도 조급하지 않으니 응당 조정의 사대부들에게 듣도록 했다면 겁을 먹었으리라" 했고, 나이장은 '우국가후'에서 "상붕당 9장은 굴장년(屈長年) 9장의 노래와 더불어 그 애처로움이 한가지다. 율곡과 같은 큰 현인이라도 오히려 조정(調停)할 수 없었는데 공은 팔을 걷고 강개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답답하게 여겼던 것이다"라고 했다.

여기서 '상붕당 9장'은 제13장~제22장 중 제16장을 제외한 9수(首)를 말한다. 그러나 제16장의 내용도 붕당 싸움의 상심을 읊었으며 제25장과 제26장도 맥을 같이하는 노래로 '상붕당 12장'이라 불러야 할 것 같다.

제13장은 나라를 위한 싸움인가 아니면 옷밥에 묻혀 할 일이 없어 하는 싸움인가, 붕당 싸움의 성격을 물었다. 제14장은 자기편이 옳다며 두 편으로 갈라 날마다 하는 싸움에 고립무조(孤立無助)는 왕임을 밝혔다. 제15장은 이제 동서 싸움을 제발 스스로 말라고 호소했다. 제16장은 그만 말리자, 진실로 말려야 탕탕평평한 세상이 온다고 하였다. 제17장은 이겨서 즐겁고, 져서 슬플 것도 없는 승패에 불관한 것이 붕당 싸움이라는 것을 일깨웠다. 제18장은 자기편을 던져버리고 자기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 하면 붕당 싸움은 끝이 난다는 것을 설유했다. 제19장은 두 편이 서로 양보할 줄 몰라 하는 싸움이니 성군이 준칙이 되어야 말릴 수 있다고 했다. 제20장은 인간사 가소로운 것이니 모 없이 공도를 지키자는 호소문이다. 제21장은 붕당 싸움이 국가에 해로운 줄을 모르고 그저 하는 싸움이라면 해롭다는 것을 일러 주어야 한다고 했다. 제22장은 국가에 해로운 줄 알고도 모르는 척 싸운다면 해롭다는 것을 일러 주어 무엇 할 것이냐고 난감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제13장(第十三章) - 상붕당가(傷朋黨歌) 1
힘써ᄒᆞᄂᆞᆫ싸홈나라爲ᄒᆞᆫ싸홈인가
옷밥의뭇텨이셔일업서싸호놋다
아마도근티디아니ᄒᆞ니다시어히ᄒᆞ리

힘써하는 싸움 나라 위한 싸움인가
옷 밥에 묻혀 있어 할 일 없어 싸우는가
아마도 그치지 아니하니 다시 어이하리

제14장(第十四章) - 상붕당가(傷朋黨歌) 2
이ᄂᆞᆫ져외다ᄒᆞ고져ᄂᆞᆫ이외다ᄒᆞ닉
每日의ᄒᆞᄂᆞᆫ일이싸홈ᄲᅮᆫ이로다

이즁의孤立無助ᄂᆞᆫ님이신가ᄒᆞ노라

이는 저거다 하고 저는 이거다 하네
매일에 하는 일 싸움뿐이로다
이 중의 고립 무조는 님이신가 하노라

제15장(第十五章) – 상붕당가(傷朋黨歌) 3
마롤디여마롤디여이빠홈마롤디여
傷可更東西14)를싱각ᄒᆞ야마를디여
眞實로말기옷말면 穆木濟濟15)ᄒᆞ리라

말지여 말지여 이 싸움 말지여
상가경 동서를 생각하여 말지여
진실로 말고 말면 목목제제 하리라
14)상가경 동서 : 동서붕당(東西朋黨)의 옳고 그름
15)목목제제 : 온화하며 위의(威儀)가 넘치고 조심하여 엄숙함

제16장(第十六章)
마리쇼셔마리쇼셔이빠홈마리쇼셔
至公無私16)히마리쇼셔마리쇼셔
眞實로마리옷마리시면蕩蕩平平17)ᄒᆞ리이다

말리소서 말리소서 이 싸움 말리소서
지공무사이 말리소서 말리소서
진실로 말리고 말리면 탕탕평평 하리이다
16)지공무사 : 지극히 공평하여 사사로움이 없음
17)탕탕평평 : 싸움 시비 논쟁 따위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음

제17장(第十七章) – 상붕당가(傷朋黨歌) 4
이이귄ᄃᆞᆯ즐거오며져디다셜울쇼냐
이긔나디나나즁의젼혀不關ᄒᆞ다만은
아모도씨ᄃᆞᆺ디못ᄒᆞ니그를셜워ᄒᆞ노라

이기인들 즐거우며 졌다고 서러울 소냐
이기나 지나 나중에 전혀 무관하다마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니 그를 서러워하노라

제18장(第十八章) – 상붕당가(傷朋黨歌) 5
이외나져외나즁의그만져만더져두고
ᄒᆞ올일ᄒᆞ오면그아니죠ᄒᆞᆯ손가
ᄒᆞ올일ᄒᆞ디아니니그셜워노라

이거나 저거나 나중에 그만 던져두고
하올 일 하오면 그 아니 좋을 손가
하올 일 하지 아니하니 그를 서러워하노라

제19장(第十九章) – 상붕당가(傷朋黨歌) 6
이라다올ᄒᆞ며졔라다글을랴
두편이ᄀᆞᆺᄐᆞ여이싸홈아니마ᄂᆡ
聖君이準則되시면절노말가ᄒᆞ노라

이라고 다 옳으며 저라고 다 그르랴
두 편이 같아서 이 싸움 아니마네
성군이 준칙이 되시면 절로 말가 하노라

제20장(第二十章) – 상붕당가(傷朋黨歌) 7
어와可笑로다人間事可笑로다
모업시궁그러是非을아니ᄒᆞᆫ다
아모나公道을직키여모나본ᄃᆞᆯ엇더ᄒᆞ리

어와 가소롭다 인간사 가소롭다
모 없이 궁글어 시비를 아니한다
아무나 공도를 지키어 모아본들 어떠하리

제21장(第二十一章) – 상붕당가(傷朋黨歌) 8
이제야ᄉᆡᆼ각과라모르고ᄒᆞᄂᆞᆫ도다
國家의害로온줄혈마알면그러ᄒᆞ랴
반ᄃᆞ시모로고ᄒᆞ면일너볼가ᄒᆞ노라

이제야 생각하니 모르고 하는 도다
국가에 해로운 줄로만 알면 그러랴
반드시 모르고 하면 일러 볼가 하노라

제22장(第二十二章) - 상붕당가(傷朋黨歌) 9
알고그린ᄂᆞᆫ가모로고그린ᄂᆞᆫ가
아니알오도모로노라그린ᄂᆞᆫ가
眞實로알고그리면닐너무ᄉᆞᆷᄒᆞ리요

알고 그러는가 모르고 그러는가
아니 알아도 모르노라 그러는가
진실로 알고 그러면 일러 무엇하리요

제23장은 왕에게 충간할 기회를 달라는 하소연의 마음을 노래한 것이다. "물으소서 물으시면 자상하고 역역히 사뢰리다. 하늘이 높고 먼들 사뢸 길이 없으리까" 이 얼마나 가슴 뿌듯이 와 닿는 절규의 몸부림인가. 칠실은 이 장을 짓고 애태우는 몇 날 밤을 지새웠을 것이다.

제23장(第二十三章)
무ᄅᆞ쇼셔ᄉᆞᆯ올이다이말ᄉᆞᆷ무ᄅᆞ쇼셔
仔詳히무ᄅᆞ시면歷歷히ᄉᆞᆯ올이다
하ᄂᆞᆯ이놉고먼들노ᄉᆞᆯ올길업ᄉᆞ이다

물으소서 사뢰리다 말씀 물으소서
자상히 물으시면 역역히 사뢰리다
하늘이 높고 먼들로 사뢸 길 없사이까

제24장 순천명가(順天名歌)는 적덕(積德)이 세상을 다스리는 근본이니 왕이 그 뜻 알아 국정을 펴라는 충간의 노래다. 그리고 이 장은 제8장 수덕(修德)을 권하는 노래와 제10장 득인심(得人心)하라는 노래와 함께 왕실의 무궁함을 기원하는 노래로 수덕하고 적덕하면 바로 득인심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일깨우고 있다.

제24장(第二十四章) - 순천명가(順天名歌)
我聖祖積德으로餘慶千歲18)ᄒᆞᄋᆞᆸ시니
先王도效則ᄒᆞ샤順天命ᄒᆞ시니다
聖主ᄂᆞᆫ이ᄯᅳᆺ알ᄅᆞ샤千萬疑心말라쇼셔

아 성조 적덕으로 여경천년 하옵시니
선왕도 효칙하셔 순천명 하시니
성주는 이 뜻 알으셔 천만 의심 마옵소서

18)여경천세 : 조상이 착한 일을 하여 경사로움이 자손 천세(千世)에 미침

제25장~제26장은 붕당 싸움의 상심을 노래한 결장(結章)으로 볼 수 있다. 제25장은 붕당 싸움만 하고 공도시비(公道是非)는 하지 않아 그르친 정사(政事)가 물과 불보다 더 깊고, 더운 화근이 되는 것을 보고 크게 탄식한다. 제26장은 자기 일만 생각하고 나라 일을 하지 않는 붕당 싸움에 나라가 망한다면 누구를 궂다 할 것이냐는 한심스러움을 통탄하고 있다.

제25장(第二十五章)
빠홈애시비만ᄒᆞ고公道是非아닌ᄂᆞᆫ다
어이ᄒᆞᆫ時事이ᄀᆞᆺ티되엿ᄂᆞᆫ고
水火도곤깁고더운환이날노기러가노마라

싸움에 시비만 하고 공도시비 아니한다
어이하여 시사 이 같이 되었는고
수화보가 깊고 더운 환이 날로 길어 가는구나

제26장(第二十六章)
나라히궂드면딥이조차구ᄃᆞ리라
딥만도라보나라일아니ᄒᆞᄂᆡ
ᄒᆞ다가明堂19)이기울면어ᄂᆡ딥이궂ᄃᆞᆯ이요

나라가 궂으면 집 조차 궂으리라
집만 돌아보고 나라 일 아니 하네
하다가 명당이 기울면 어느 집 궂달 것이요
19)명당 : 임금이 조회를 받던 정전(正殿)

제27장은 임진·정유왜란의 뼈아픈 상처를 읊은 제1장~제7장의 결장(結章)으로 볼 수 있다. 금은 옥백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들끓는 서울, 결코 잊지 말아야할 임진·정유란의 참상을 잊고 거짓말로 여기는 사람들이 들끓는 세상을 안타깝게 여기며 이 장을 지었을 것이다.

제27장(第二十七章)
어와거주일이金銀玉帛20)거주일이
長安百萬家의누고누고딘녀ᄂᆞᆫ고
어즈아壬辰年ᄭᅳᆺ글이되니거즛일만여기노라

어와 거주일이 금은옥백 거주일이

장안 백만가 누구 누구 지녔는고
어즈아 임진년 뜻글이 되니 거짓 일만 여기노라
20)금은옥백 : 예물로 가지고 오던 금과 은, 옥과 비단

제28장은 우국가의 종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공명과 부귀를 버리고 한 칸 띠집에 혼자 앉아 잘못되어 가는 나라꼴을 바라보며 때로는 격노하고 답답해하며 서러워하는 우국의 나날, 진정 이 나라를 아끼고 사랑한 우국지사(憂國之士)의 참 모습을 볼 수 있다.

제28장(第二十八章)
功名을願챤커든富貴인들빅알소냐
一間茅屋의苦楚히홈자안자
밤낫의憂國傷時를못내셜워ᄒᆞ노라

공명을 원찮거든 부귀인들 보일소냐
일간 모옥에 고초이 홀로 앉아
밤낮에 우국 상시를 못내 서러워하노라

2. 호남가(湖南歌)

호남가는 호남지방의 지명을 노래로서 풀어나가는 독특한 사설 구성을 하고 있는 판소리 단가(短歌)이다. 특히 호남의 각 지방의 지명을 풀어 임금의 성덕을 송축하므로 송도가로 분류되기도 한다.

현재 판소리 단가로서 전해지는 호남가의 사설을 살펴보면, 신재효본의 호남가 사설만을 쓰고 있다. 신재효본 이외의 전해지는 이본(異本)으로는 『악부(樂府)』, 『가집(歌集)』 등에 보이는 호남가가 있으며 최근에 공개된 일본 천리대(天理大) 소장 호남가, 대전 장택수씨 소장 조선팔경가(朝鮮八景歌) 중의 호남가 등이 있다. 더욱 단가의 사설로 보이지는 않지만 팔도가(八道歌)의 전라도 부분은 일종의 호남가라 할 수 있어, 예전에는 오늘날 전해지는 단가 호남가의 사설과는 다른 많은 호남가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전해지는 단가 호남가의 음악을 살펴보면, 유성기 음반에 취입된 임방울의 단가 호남가가 바디에서 조금씩 변화를 준 호남가가 거의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일제 강점기에 취입된 임방울, 정정렬 등 여러 명창들이 남긴 호남가의 사설을 보면 사설에 있어서 신재효본 호남가의 사설과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소리는 명창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보인다[84].

호남가는 호남출신이면 누구나 직접 부르지는 못할망정 한번 들으면 곧바로 흥을 느끼게 된다. 특히 첫머리인 '함평 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랴하고'까지는 거의 부를 줄 안다. 그래서 '호남가'의 이름은 몰라도 '함평천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이 노래 제목이 '함

84) 이진원, 「단가 호남가 형성과 변화 연구」, 『한국음반학 제10호』, 한국음반학회, 2000. 187~188쪽

평천지'인 것으로 아는 사람이 많을 정도이다. 호남의 수많은 고을을 두고 첫머리에 함평이 불리우게 된 것을 군민은 큰 자랑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 노래는 1백년 만에 볼까말까 한 목소리라는 임방울(林芳蔚)에 의해 더욱 진가를 나타냈다[85].

호남가가 불려지기 시작한 때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문헌기록에서의 호남가는 1821년부터 1823년까지 함평현감을 지낸 권복(權馥)의 함산가(咸山歌)[86]에 처음 찾을 수 있다. 첫 구절(호남의 여러 고을 노래하는 호남가도)에 보이듯이 호남가는 이미 1800년대 초 이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이다.

작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설이 있으나 조선시대의 문인이자 지식인인 이서구(李書九, 1754~1825)가 정조 17년(1793)과 순조 20년(1820)에 걸쳐 두 차례 전라감사를 지내면서 지은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그 후 민요로 구전되던 것이 경복궁 낙성식(1867년) 때 전국명창대회에서 전라도 대표가 호남가를 불러 장원을 하면서 비로소 전국에 퍼지기 시작해서, 호남가는 민초와 선비들이 함께 음유(吟遊)한 우리의 유일무이한 곡으로 전래되었다.

한말(韓末)과 일제치하에서는 고향을 그리는 향수와 나라 잃은 망국의 한을 달래는 비원의 노래로 애창되면서 구전되기도 하였으며, 조선 고종 때의 가객 동리(桐里) 신재효(申在孝, 1812~1884)에 의해 현재 불리는 형태로 곡을 고쳐지게 되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현재 호남가는 판소리와 가야금 병창 곡으로 불리어 지고 있고, 사설을 비교해 보더라도 판소리 창자나 병창자들의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대게 판소리 창자들이 부르는 단가 호남가에 비하여 병창자들이 부르는 호남가는 사설이 축약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이는 가야금병창이라는 장르의 특성 때문에 사설을 일정 분량으로 줄여 부르는 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87].

가야금 병창곡으로서의 단가 호남가는 여러 이본(異本)이 있으나, 현재까지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많지 않으며, 그 중 박귀희 호남가의 사설과 그 해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함평천지(咸平天地) 늙은 몸이 광주고향(光州故鄕)을 보랴허고
제주어선(濟州漁船) 빌려 타고 해남(海南)으로 건너 갈 제
흥양(興陽)에 돋은 해는 보성(寶成)에 비쳐 있고

85) 함평군사편찬위원회, 『함평군사』, 1984. 930

86) 권복이 지은 칠언귀(七言句)의 한시로 당시 동헌 현판에 새겨져 있어서 군민들에게 애송되었다고 전한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주42와 같은 책 937쪽 참조).

호남종고설명구(湖南從古說名區)	호남의 여러 고을 노래하는 호남가도
선교함평제일주(先敎咸平第一州)	첫머리에 함평천지 부르지를 않았던가
가경기산임영수(佳景箕山臨潁水)	경치 좋은 기산봉은 영수천과 어울리고
영찰용천방군유(靈刹龍泉傍君遊)	영찰은 용천사요 군유산은 명산 일세
현동칠면사기북(縣東七面士冀北)	군의 동쪽 7개면은 선비 많은 고을이라
가가독서극명덕(家家讀書克明德)	집집마다 글을 읽혀 박은 덕 다져가며
현서왕왕출기재(縣西往往出奇才)	서족에선 이따금씩 기재들이 태어나고
영중백설생안색(郢中白雪生顔色)	영중 마냥 백설 같은 미인들 생겨나네
주필만성함산가(走筆漫成咸山歌)	이름 하여 이 노래를 함산가라 하였으니
함산불로청만고(咸山不老靑萬古)	함산이여 늙지 않고 만고에 푸르러라

87) 서태경, 「가야금병창 '호남가' 연구 -김종기, 오비취, 박귀희의 선율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11쪽

고산(高山)의 아침안개 영암(靈岩)을 둘러있다

모두가 함께 어울려서 평화(咸平)롭게 살아가는 좋은 세상(天地)에
늙은 몸이 광명한 고향(光州)을 보려고
온 백성을 구제(濟州)하는 큰 배(漁船)를 빌려 타고
남쪽지방(海南)으로 건너 갈 제
아침에 돋는 해(興陽)는 보배의 땅(寶城)을 비추고 있고
높은 산(高山)의 아침 안개는 신령한 바위(靈岩)에 둘러 있네

태인(泰仁)하신 우리 성군(聖君) 예악(禮樂)을 장흥(長興)허니
삼태육경(三台六卿)의 순천심(順天心)이요
방백수령(方伯守令)의 진안군(鎭安郡)이라

인자(泰仁)하신 우리 성군(聖君)
예의 바르고 즐겁게 살아가는(禮樂) 세상을 크게 일으키니(長興)
삼정승 육산서(三台 六卿)는 하늘의 뜻을 따르고(順天心)
지방의 모든 수령(方伯守令)들은
백성을 편안(鎭安)하게 다스리는 구나

고창성(高敞成)에 홀로 앉어 나주풍경(羅州風景)을 바라보니
만장운봉(萬丈雲峯)이 높이 솟아 칭칭한 익산(益山)이요

탁 트인 언덕(高敞)에 높이 앉아
삼라만상(森羅萬象) 펼쳐진(羅州) 좋은 풍경을 바라보니
산들은 높이 솟아 구름 위에 떠있고(萬丈雲峰)
백리 담양(白里潭陽)어 흐르난 물은 구부구부 만경(萬頃)인데
용담(龍潭)의 맑은 물은 이 아니 용안처(龍安處)며
능주(綾州)에 붉은 꽃은 곳곳마다 금산(錦山)이라

백리(白里) 담양(潭陽), 흐르는 물은 굽이굽이 큰강(萬頃)되니
용담(龍潭)의 맑은 물은 용(龍)이 살던 곳이 아니련가
비단같이 고은 마을(綾州)에 붉은 꽃(복숭아꽃을 의미)이
만발하니 금수강산(錦山)이라

남원(南原)에 봄이 들어 각색화초(各色花草) 무장(茂長)허니
나무 나무 임실(任實)이요 가지가지 옥과(玉果)로다

남원(南原)에 봄이 깃들어 각색(各色) 화초(花草) 무성하니
나무나무 열매 맺고(任實) 가지가지 구슬 같은 과실(玉果)이로다

풍속(風俗)은 화순(和順)이요 인심(人心)은 함열(咸悅)인데
이초(異草)는 무주(茂朱)허고 서기(瑞氣)는 영광(靈光)이라

미풍양속(美風良俗)은 평화롭고 순직(和順)하며
인심(人心)은 모두가 기쁨이 넘치(咸悅)는데
선경(仙境)에 피는 꽃(異草)은 울긋불긋 피어(茂朱)있고
상서로운 기운(瑞氣)은 신령스런 빛(靈光)으로 피어나는 구나

창평(昌平)한 좋은 시절 무안(務安)을 일삼으니
사농공상(士農工商)은 낙안(樂安)이요 우리형제 동복(同福)이로구나

태평(昌平)한 좋은 세상에 편안하기 힘을 쓰니(務安)
사농공상(士農工商) 온 백성이 즐겁게 사는구나(樂安)
우리 형제(兄弟)는 우애(友愛)하니 한 핏줄 한 뱃속(同福:腹)이로다

농사(農事)허는 옥구백성(沃溝百姓) 임피사의(臨陂蓑依)가 둘렀으니
삼천리(三千里) 좋은 경(景)은 호남(湖南)이 으뜸이로다
거드렁거리고 지내보세

농사하는 우리 농부 비옷(臨陂蓑依)을 둘러 입고
팔도(八道)의 좋은 경(景)은 호남(湖南)이 으뜸이라
거드렁 거리고 지내보세[88]

3. 기성가(箕城歌)[89]

기성가는 나산면 삼축리 출신의 박봉혁(朴奉赫, 1873~1935)이 38세 되던 1874년에 지은 노래이다. 함평의 여러 마을에 대한 충효와 경관을 노래한 것으로 풍수지리에 연계한 유교적 사상을 근간으로 만들어졌다. 일제 강점기 시절 함평의 유림들에 의해 민요조 또는 단가조로 불려졌다는데, 단가 풍으로 부르는 것이 더 잘 어울린다고 한다.

88) 주44와 같은 책 11~13쪽

89) 사단법인 함평군향토문화연구회·밀양박씨 수재문중, 『주해 영언전』, 1991. 44~55쪽. 나산면 월봉리 출신 박봉혁(朴奉赫, 1873~1935)이 지은 것으로 권선가(勸善歌), 조선가(朝鮮歌) 등 11곡과 함께 그의 노래집 『영언(永言)집』에 실려있다. 함평의 여러 마을에 대한 충효와 세거(世居), 경관(景觀) 등을 노래로 집약한 것으로 모두를 외우면 각 마을의 내력을 알게 된다.

함평의 52개 마을, 54명의 인물, 그리고 14개의 산과 18점의 유적·유물이 소개된 가사가 200여구에 달하는 대작이다. 따라서 기성가를 외우면 함평의 역사를 알게 된다. 기성가는 함평의 객사였던 기성관에서 시작하여 지금의 나산면 삼축리인 쌀울에서 끝을 맺는다.
기성가 원문과 해설은 다음과 같다.

春三月好時節에	춘 삼월 호 시절에
春服얼 떨쳐입고	춘복을 떨쳐 입고
箕城舘[90]차자가니	기성관 찾아가니
鑿山通道[91]그가운데	착산 통도 그 가운데
邑基[92]가개량[93]하야	읍기가 개량하여
富貴人만니나나	부귀인 많이 나나
先王殿牌[94]어듸가고	선왕전패 어디 가고
客舍[95]가空舍되야	객사가 공사 되어
鴃舌聲[96]만난구나	격설성만 나는구나
箕山祠[97]바릭보니	기산사 바라 보니
朴東湖[98]吳石門[99]의	박동호 오석문의
杖屨跡[100]만남나머구나	장구적만 남았구나
箕山山頂올라가셔	기산산정 올라 가서
前後左右도라보니	전후 좌우 돌아 보니
男女老少往來邊에	남녀 노소 왕래변에
萬化方暢蝴蝶舞[101]와	만화방창 호접무와
萬樹綠陰禽鳥聲[102]언	만수녹음 금조성은
變치아코前갓구나	변치 않고 전 같구나
大華[103]을南望하니	대화를 남망하니
山抱野蓮[104]그가운듸	산포야연 그 가운데

90) 함평현의 객사. 연탄공장으로 사용하다가 1972년에 철거함
91) 산을 뚫어 길을 낸다는 뜻. 잣고개로 통하는 국도 23호선 개설을 말함
92) 읍터
93) 어질고 착함이 발하여
94) 지방 관청의 객사에 군주를 상징한 전(殿)자를 새겨 세운 패
95) 중앙 관리가 지방 나들이 때 머무는 집
96) 접동새, 뱁새소리, 재잘거림, 잡소리, 일본말 소리나 일본 관헌의 구두소리
97) 일명 유애사로 암행어사의 계파 등으로 파면당한 현감 6명을 모신 사당. 억울히 파면된 현감만 모심. 1868년 훼철
98) 동호는 박정원(朴鼎元)의 호, 1617~1618 재임. 인목대비 폐모 상소론자들을 향교에서 두들겨 쫓아 냄
99) 석문은 오이익(吳以翼)의 호. 1657~1658 재임
100) 지팡이와 삼신. 이름 난 사람이 머문 흔적
101) 온갖 꽃들이 피어나고 벌나비가 춤을 춤(날아다님)
102) 온갖 나무가 우거져 그늘을 만들고 날짐승이 울어 댐
103) 함평읍 내교리 외대화
104) 산을 안고 들을 접하여. 수산봉과 앞의 들을 말함

牟掌令으胎址[105]되고
海洞[106]얼바릭보니
曺栗齋으世址[107]로다
거름얼재촉하야
潁水亭[108]나려가셔
觀德亭[109]구경하고
淸淨한白石上[110]에
낫도싯고귀싯치니
飮犢[111]하난져老人이
巢父[112]거동分明하다
咸邑市[113]에中火[114]하고
鄕校村[115]을니닉가니
李氏으世居[116]로다
莊壇文杏[117]바릭보고
大成殿[118]드라가셔
周五聖[119]宋六賢[120]과
五東의十八縣[121]얼
次序로拜禮하니
日月山斗[122]分明하다
高山峰[123]에썸찍올나
西方村野두루보니

모장령의 태지 되고
해동을 바라 보니
조율재의 세기로다
걸음을 재촉하여
영수정 내려가서
관덕정 구경하고
청정한 백석상에
낮도 씻고 귀 씻으니
음독하는 저 노인이
소부 거동 분명하다
함읍시에 중화하고
향교촌을 지나가니
이씨의 세거로다
장단문행 바라 보고
대성전 들어가서
주 오성 송 육현과
오동의 십팔 현을
차서로 배례하니
일월산두 분명하다
고산봉 섬찍 올라
사방 촌야 두루 보니

105) 모장령이 태어난 곳. 장령은 모달겸(牟達謙)의 호. 1789년 문과에 급제하여 사헌부 장령을 지냄
106) 함평읍 수호리 해동
107) 조율재 집안의 세거지. 율재는 조정(曺鋌)의 호. 인조 때 급제하여 군수를 지냄
108) 함평천 중류 함평 공원과 접한 하천을 영수정이라 부름. 영수정 또는 영파정. 정자는 현 함평 공공도서관 동편쪽에 있었음
109) 이안이 건립한 영파정이 소실된 후 지은 정자. 영수정, 영파정이라 하다가 관덕정으로 고침
110) 흰돌이 있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여울(白石淸灘에서 출전)
111) 송아지에게 물을 먹임
112) 중국 고사에 나오는 선비. 요 임금이 그에게 나라를 맡기고자 하였으나 사양하고 기산에 들어가 나무 위에서 기거했다
113) 함평 시장. 지금의 기각리 구시장. 강정시라고 부리기도 했다
114) 길을 가다가 중도서 지어 먹는 점심
115) 대동면 향교리 향교. 인조 때 이곳에 향교를 세움. 원래 향교는 함평읍 내교리 외대화에 있었다
116) 함평이씨 이덕일(李德一)가의 세거지
117) 향교를 말함. 공자가 은행나무 밑에서 제자를 가르친데 유래
118) 향교 내에 있는 공자를 모신 사당. 향교의 주 건물
119) 공자, 안자, 증자, 자사자, 맹자
120) 주돈이, 정호, 정이, 주희, 장재, 소옹(邵雍)
121) 우리나라 18현(설총, 최치원, 안유, 정몽주,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이황, 김인후, 이이, 성혼, 김장생, 김집, 송시열, 조헌, 송준길, 박세채)
122) 해와 달과 북두칠성. 인간의 근본적인 의례
123) 대동면 소재의 산(359m). 일명 필봉

江亭里[124]에聞人[125]나고 강정리에 문인 나고
高山洞內外里[126]에 고산동 내외리에
李咸平君後裔[127]로다 이 함평군 후예로다
龜山里[128]지ᄂᆡ가니 구산리 지내가니
盧府使[129]李龍溪[130]의 노부사 이용계의
古基[131]가여그로다 고기가 여기로다
天柱峰[132]올나가셔 천주봉 올라 가서
松陰下에바람쏘고 송음하에 바람 쐬고
採藥老人作伴[133]하니 채약 노인 작반하니
鹿門山[134]採藥하던 녹문산 채약하던
龐德公[135]이恰似하다 방덕공이 흡사하다
畓洞[136]얼西望하니 답동을 서망하니
幽人의肥遯處[137]요 유인의 비둔처요
白羊洞[138]南望하니 백양동 남망하니
背山臨水하온中에 배산임수 하온 중에
金望軒[139]李百谷[140]의 김망헌 이백곡의
胎地가여그로다 태지가 여기로다
百也山[141]건네가니 백야산 건너가니
道川水廻抱上[142]에 도천수회 포상에
李孝友[143]의四尺佳城[144] 이효우의 사척 가성
雲中半月[145]分明하니 운중 반월 분명하니

---

124) 대동면 강운리 강정. 담양전(田)씨의 세거지
125) 이름난 사람. 담양전씨가 배출한 2명의 정언과 광주부사를 역임한 장인택(1852년 문과 급제)을 말함
126) 대동면 덕산리 고산동
127) 시조 언(彦)의 군봉이 함풍군(함평군)이기 때문에 이 함평군의 후예라고 함
128) 나산면 구산리
129) 노극창(盧克昌, 1482~1568)의 관직명. 호는 송계. 담양부사 겸 광주부사 남원부사를 지냄
130) 용계는 이시정(李時廷)의 호. 숙종 때 학자로 글씨에 능함. 현 향교의 상량문을 썼다
131) 오랜 세월이 흘러간 옛터
132) 나산면 우치, 월봉, 원선리에 소재한 산(337m). 상봉에 화순분화구의 형태가 있음. 군내 제2봉
133) 약을 캐는 노인과 길동무를 함
134) 중국에 있는 산 이름
135) 후한말 양양 사람으로 유표가 여러 번 불렀으나 응하지 않고, 녹문산에서 가족과 함께 일생을 마침
136) 나산면 원선리 답동. 논골이라 부름
137) 속세를 떠나 조용히 은신하는 사람이 살이 토실토실 오를 곳
138) 나산면 덕림리 백양동. 경주이씨 최초 입촌지
139) 망헌은 김광립의 호. 백양 영당에 영정이 있음
140) 백곡은 이회원의 호. 백양 영당에 영정이 있음
141) 나산면 삼축리 상축에 있는 해발 88.4m의 산
142) 길과 물이 안고 도는 곳
143) 효우는 이접의 호. 성리학자로 기성군 이긍의 동생. 사산사 배향
144) 네 자 묘. 묘의 견고함을 성에 비함. 즉 뚜렷한 명당이라는 뜻
145) 구름에 싸인 반달. 풍수지리설상의 명당

達士聞人[146]만니나고 달사 문인 많이 나고
牛峙里[147]西望하니 우치리 서망하니
箕城君[148]의生長處요 기성군의 생장처요
草浦[149]射山[150]兩里中에 초포 사산 양리 중에
李進修堂[151]世基로다 이진수당 세기로다
斗流峯[152]下杻洞里[153]난 두류봉 하축동리는
鄭籃浦[154]의胎地로다 정남포의 태지로다
羅山市에療飢하고 나산시에 요기 하고
里仁亭[155]구경하니 이인정 구경하니
魯靈光이彷佛[156]하고 노영광이 방불하고
玉女峰[157]상다다르니 옥녀봉상 다다르니
玉女端坐秀麗한듸 옥녀단좌 수려 한데
羅山里安氏世基[158] 나산리 안씨 세기
理病保眞[159]遺風잇고 이병 보진 유풍 잇고
東南山勢바릭보니 동남 산세 바라보니
安荷谷[160]의夫人幽宅 안하곡의 부인 유택
胡僧禮佛[161]丁寧하니 호승 예불 정녕하니
達士聞人만니나고 달사문인 많이 나고
松巖里[162]바릭보니 송암리 바라보니
辛進士[163]으擇處[164]로다 신진사의 택처로다
五秀山[165]登臨하야 오수산 등임하여

146) 이름이 날린 평판있는 선비
147) 나산면 우치리(신촌, 화정, 계동). 남하한 불갑산맥이 매봉을 기봉으로한 누어있는 소의 형국
148) 함평이씨 기성군의 군봉. 이조판서를 지냄. 사산사에 배향
149) 나산면 초포리 초포
150) 나산면 초포리 사산. 옹관이 매장된 고분이 마을 뒷산에 있다
151) 진수당은 세종조에 사마시에 합격한 이순지(李舜枝)의 호
152) 나산면 삼축리에 소재한 야산
153) 삼축리 아랫마을과 동축을 말함. 동축은 작자의 출생지
154) 남포는 정이방(鄭以方)의 호. 남원부사와 예조판서를 지냄
155) 죽산안씨들이 나산리에 세운 정자로 군내에서 대표적인 정자
156) 노 나라(현 산동성에 있던 나라) 영광 땅과 방불함
157) 나산 마을 뒷산. 마을 앞의 저수지를 옥녀의 거울이라고 전한다
158) 대정, 동신, 방하마을. 나산면의 죽산안씨 최초 정착지
159) 죽산안씨 이병제, 보진당을 칭함
160) 하곡은 안충달(安忠達)의 호. 중종 때 문과 급제. 병조좌랑. 노극창의 사위
161) 호나라 풍의 예불(풍수지리설상의 형국으로 명당)
162) 송암, 죽리, 송계, 상촌, 음지 양지, 불무동, 양산등 8개의 자연마을로 형성된 나산면 내의리 광산노씨와 영산신씨 입향지
163) 영산신씨 신유장(辛裕章)을 말함. 부자가 진사를 함
164) 가린 곳. 고른 곳
165) 나산면 용두리와 월야면 용월리에 소재한 해발 194m 산. 맑은 물이 다섯 군데 있다 하여 오수산이라고 하는데 군내의 산중 기암괴석이 많기로 으뜸

東西南北바릭보니 동서남북 바라보니
內外의甑山里[166]난 내외의 증산리는
金甑山[167]의世基되고 김증산의 세기되고
世洞[168]의內外里난 세동의 내외리는
鄭雪齋[169]의後孫이요 정설재의 후손이요
龍頭里[170]東西村언 용두리 동 서촌은
兪鵄軒[171]의古址되고 유초헌의 고지되고
眞泉洞[172]에船湖里[173]난 진천동의 선호리는
金忠貞[174]의後裔로다 김충정의 후예로다
眞泉에涌藥水[175]난 진천의 용약수는
廬山瀑布掛川[176]갓터 여산폭포 괘천 같아
每年七夕白踵日[177]에 매년 칠석 백중일에
男女老少雲集하야 남녀 노소 운집하여
沐浴얼爭先[178]한다 목욕을 쟁선한다
大鶴坪[179]西望하니 대학평 서망하니
擊壤老人[180]康衢[181]갓티 격양노인 강구 같이
含哺鼓腹[182]하난구나 함포고복 하는구나
月岳山[183]을나가셔 월악산 올라가서
西方勝景바릭보니 사방 승경 바라보니
月也面處處마다 월야면 처처 마다
鄭忠莊[184]鄭文景[185]의 정충장 정문경의

166) 나산면 이문리 증산. 시루뫼라 함. 평들과 창들을 안고 있음
167) 증산은 김덕생(金德生)의 호. 태종이 등극하는데 크게 힘쓴 공신
168) 월야면 용월리 내세·외세 마을. 정가신의 후손인 정웅·정진이 성촌(成村)
169) 설재는 정가신의 호. 한림학사 역임. 오산사 배향
170) 식지와 갈동으로 구성된 마을. 기계유씨 세거지로 어옹산망(漁翁散網) 형국이라 전한다
171) 초헌은 유순인(兪舜仁)의 호. 태종이 등극하는데 크게 힘쓴 공신
172) 월야면 용월리로 참샘골이라 함. 사람이 사는 집은 없었으나 참샘골이란데서 진천동이라 한 것 같음
173) 나산면 이문리 선박 마을
174) 충정은 김몽복의 호. 임란공신으로 선호사에 배향
175) 약수가 솟음. 함평군에서 제일 물이 찬 샘. 원래 '찬샘'이었는데 '참샘'으로 바뀌었음
176) 여산폭포를 하늘에 건 것 같다. 여산폭포는 중국 강서성에 있음
177) 칠월 칠석과 백중. 칠석(음 7월 7일) 백중(百中이라고도 함. 음 7월 15일)
178) 서로 앞 다툼함
179) 고머리 앞들로 일명 한새(황새, 학) 들
180) 격양가를 부른 노인. 중국 당요 때 늙은 농부가 태평한 세월이 즐거워 땅을 치면서 불렀다는 노래
181) 강구연월(康衢煙月)의 준말로 태평한 시대의 평화스러운 거리 모습
182) 세상이 태평하여 배부르게 먹고, 배 두드리며 즐거워 만족해 하는 모습. 혁서씨(赫胥氏) 때 백성들이 배부르게 먹고 할 일이 없었다는 고사(莊子·馬蹄)
183) 함평, 광주, 장성을 경계하여 월야면 월악리에 소재한 해발 164m의 산. 다래기라 부름
184) 충장은 정황(鄭璜)의 시호. 월야면 입향조 정함도의 선대. 검교상서좌부복사 겸 우림중랑장(羽林中郎將)
185) 문경은 태종 때 현달한 동래정씨 흠지(欽之)의 시호

餘蔭[186]이壯하도다　　여음이 장하도다
士印亭[187]八烈閣[188]언　　사인정 팔열각은
後人의慕效處요　　후인의 모효처요
禮洞[189]얼바릐보니　　예동을 바라보니
安參議[190]의餘蔭잇고　　안참의 여음 잇고
西村[191]얼望見하니　　서촌을 망견하니
李進士[192]의世居로다　　이진사의 세거로다
松亭里[193]바릐보니　　송정리 바라보니
張參贊[194]의古基되고　　장참찬의 고기 되고
外峙[195]을遠望하니　　외치를 원망하니
鄭百花亭[196]邁軸處[197]요　　정백화정 매축처요
玉女峰[198]西望하니　　옥녀봉 서망하니
抱琴[199]한거동갓다　　포금한 거동 갔다
月陽山[200]건네가니　　월양산 건너 가서
城山[201]牟坪[202]東西村이　　성산 모평 동 서촌이
尹氏의古基되야　　윤씨의 고기 되어
翰林[203]四梅[204]餘蔭잇다　　한림 사매 여운 잇다
發美里[205]바릐보니　　발미리 바라보니
背山臨水그가운듸　　배산임수 그 가운데
鄭微窩[206]의遺風잇고　　정미와 유풍 잇고
倉西[207]을仔細보니　　창서를 자세 보니

186) 선조가 끼친 공덕으로 자손이 받는 복
187) 월야면 월악리 내동 소재. 내동 입향조 정함도(함종현령)와 그의 세 아들 유(維, 고창현감), 면(綿, 횡성현감), 주(紬, 무안현감) 네 부자가 함도의 생일에 인끈을 걸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
188) 정유재란 때 영광 묵방포에서 자결한 지변마을 팔열부녀의 장한 절개를 기리기 위해 세운 정려
189) 월야면 예덕리 예동. 500년 전 주씨가 터를 잡았고 350여년 전 죽산안씨가 입촌
190) 죽산 안형직(安衡稷)을 말함. 정종조에 문과급제 하고 참의를 지냄
191) 월야면 정산리 신기 마을에 속함
192) 진사를 지낸 이유순(李孺淳)을 말함
193) 월야면 용정리에 속함. 1750년경 인동장씨가 입촌. 학 형국이라 하여 학과 관련 소나무를 택해 송정이라 함
194) 인동장씨 함평군 최초 입촌자 장백림(참찬 벼슬)의 후손이 이룬 마을이라는 뜻
195) 진주정씨 집성촌. 월야면 외치리 외치 마을. 재 넘어 있는 마을이라는 뜻
196) 백화정은 정휴동(鄭休東)의 호. 현재도 벽화정이 남아 있다
197) 「揷架 滿軸」 많은 서책을 구매하여 강구하던 곳
198) 해보면 금덕리에 있는 산
199) 거문고를 껴안음
200) 해보면 해보리에 있는 산. 불갑산 남악. 고려 때 월양사가 있었다
201) 해보면 용산리에 속함. 지금은 소성이라 부름
202) 백제 때 다지현. 고려 때 모형현의 소재지. 상모와 하모로 나눔
203) 모평 입향조 윤길(尹吉)을 말함. 벼슬이 한림
204) 사매당은 윤삼거(尹三擧)의 호. 현재도 사매당 액호의 정사가 있음
205) 해보면 해보리 발미
206) 미와는 정덕요(鄭德曜)의 호. 현재 '미와초당'이 있고, 주자 갈필이 보관되어 있음

金谿抱卵彷似[208]한듸　　금계포란 방사 한데
李介石軒[209]胎地로다　　이개석헌 태지로다
紫陽山[210]下 紫陽祠[211]난　　자양산하 자양사는
悔尤遺風[212]閉塞하야　　회 우 유풍 폐색하여
古墟中에春草[213]나고　　고허 중에 춘초 나고
知足실[214]鄭松溪[215]난　　지족실 정송계는
宣武原功[216]卓越하다　　선무원공 탁월하다
佛甲上頂[217]强登[218]하니　　불갑상정 강등하니
蓮實峰[219]이揷天[220]하고　　연실봉이 삽천하고
月明庵[221]이脫塵한듸　　월명암이 탈진 한데
佛甲寺[222]龍泉寺[223]에　　불갑사 용천사에
炊煙[224]나자明月쓰자　　취연 나자 명월 뜨자
夜半鍾聲[225]이러나니　　야반 종성 이러나니
寒山寺[226]가여그로다　　한산사가 여기로다
巖石間奇花靈藥　　암석간 기화 영약
歸景얼못다하고　　귀경을 못 다하고
君遊山[227]건네가셔　　군유산 건너 가서
西海를遠望하니　　서해를 원망하니
中華[228]가咫尺갓고　　중화가 지척 같고
往來하난져商船이　　왕래하는 저 상선이

---

207) 해보면 대창리 창서. 옛날 사창이 있어 창골이라 함
208) 풍수지리학상 닭이 알을 품고 있는 명당. 그 모습과 닮았다
209) 개석헌은 이홍직(李弘稷)의 호. 영조 때 문과 등과 경상·충청도사, 영광군수 등 역임
210) 계동 뒷산 110m
211) 주자, 송시열을 배향하던 사우. 계동과 모평사이에 있었음. 지금은 논이됨. 하마비가 남았음
212) 회암(주회의 호), 우암(송시열의 호) 의 유풍
213) 오랜 세월 동안 폐허된 채 있는 서원지에 봄풀이 나고
214) 해보리에 속함. 진주정씨 자작일촌
215) 송계는 정충량(鄭忠良)의 호
216) 임진·정유재란의 공신. 선무원종공신록. 정충량은 2등 공신에 채록
217) 함평군과 영광군의 경계에 있는 산의 정상
218) 힘겹게 오름
219) 불갑산의 최정상. 연꽃 봉우리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 해발 595.9m로 영광군과 경계 지점
220) 하늘을 찌를 듯이 솟음
221) 해보면 금계리에 있던 암자. 달 밝은 암자에 티끌도 없음
222) 영광군 불갑면에 있는 절
223) 해보면 광암리에 있는 절. 통일신라시대 행사존자가 창건. 6.25 한국전쟁 때 불탐. 석등이 도지정문화재
224) 밥 짓는 연기
225) 밤중의 종소리
226) 중국 강소성 소주부 풍교진에 있는 절. 당나라 장계의 풍교야박(風橋夜泊)의 시에 의하여 널리 알려짐. 지금은 산문과 본당이 남았을 뿐 이름 그대로 한산함
227) 함평군과 영광군 경계를 이루는 함평에서 제일 높은 산(403.7m). 서상산(瑞祥山)
228) 중국

湘水[229]를지ᄂᆡ오니 상수를 지내 오니
三閭近日無恙[230]한가 삼려 근일 무양 한가
新光面疊疊山野 신광면 첩첩산야
碩人[231]의家居處요 석인의 가거처요
孫佛面孫僧拜祖[232] 손불면 손승배조
拜師하난弟子갓고 배사하는 제자 같고
牆洞[233]얼바ᄅᆡ보니 장동을 바라보니
李駙馬[234]의世基 이 부마의 세기 되고
碧草洞[235]望見하니 벽초동 망견하니
鄭諮議[236]의得智地[237]요 정자의 득지지요
甘南[238]얼望見하니 감남을 망견하니
全氏[239]의世傳되고 전씨의 세전 되고
德川里[240]仔細보니 덕천리 자세 보니
牟截江[241]의 遺來址요 모절강의 유래지요
燕川[242]얼望見하니 연천을 망견하니
李陽山[243]의餘蔭잇고 이양산 여음 잇고
伏峙[244]을望見하니 복치를 망견하니
沈氏[245]의古基되고 심씨의 고기 되고
華洞[246]前魯孝旌閭[247] 화동전 노효 정려
事親人의效心處요 사친의 효심처요
板橋村[248]지ᄂᆡ가니 판교촌 지내가니

229) 중국 관서성에서 발원하여 호남성을 거쳐 동정호에 이르는 강 이름. 시인들에 의해 많이 노래된 강
230) 초나라 충신 굴원을 말함. 삼려대부(三閭大夫)에서 출전. 충간이 받아지지 않자 물에 빠져 죽음. 요즘(근일) 근심이나 아픔이 없는가(무양)
231) 큰 덕을 쌓은 자
232) 풍수지리설상의 형국이 면 이름이 됨. 손불면의 지세
233) 손불면 죽장리 장동. 담골이라 부름. 발봉산, 계동산, 호두산, 우아산이 담처럼 둘러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
234) 양성이씨 입향조 이암손(李岩孫)을 말함. 1460년경 담골에 입촌
235) 손불면 동암리에 속함. 마을 앞산이 와우여서 푸른 풀을 상징하여 붙인 이름
236) 광주정씨 인근(仁謹)을 말함. 덕천군수를 지냄
237) 지혜를 얻은 곳. 지혜를 배운 곳
238) 감능기라 부름. 손불면 산남리에 속함. 감나무가 많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239) 천안전씨
240) 신광면 삼덕리에 속함. 함평모씨 집성촌. 둘레 10m 가까운 느티나무가 있음
241) 태종조에 급제하여 세종조에 사간을 지낸 모순(牟洵
242) 신광면 월암리 연천. 제비내라 부름. 경주이씨 집성촌
243) 경주이씨 이창석(李昌碩)
244) 신광면 복흥리에 속함. 꿩이 엎드린 형국이라 붙여진 이름. 복재라 부름. 복치 명당 터는 회진임씨 묘소가 됨
245) 청송심씨
246) 함평읍 진양리에 속함. 노허의 정려는 하느리(大律)에 있는데 화동마을 앞이라 한 것은 노허의 태생지를 알리기 위함이 아닌가 함
247) 노후(魯詡)의 효자 정문
248) 대동면 운교리에 속함. 한양조씨 집성촌

趙司評[249]으世居로다　조사평의 세거로다
德餘村[250]背山枕夜　덕여촌 배산침야
金德巖[251]의世基되고　김덕암의 세기 되고
良林里[252]지ᄂᆡ가니　양림리 지내가니
張警齋[253]의箕裘[254]　장경재의 기구로다
酒浦[255]럴暫間지ᄂᆡ　주포를 잠간 지내
漁村落照구경하고　어촌 낙조 구경하고
佳川里[256]지ᄂᆡ가니　가천리 지내가니
羅松坡[257]으餘韻잇다　나송파의 여운잇다
春村里[258]지ᄂᆡ다가　용촌리 지내다가
朴高敞[259]後裔家에　박고창 후예가에
療飢을暫時하고　요기를 잠시하고
大泉里[260]李氏村前　대천리 이씨 촌전
滿足[261]쉬여宿所하고　만족 쉬어 숙소하고
道峙[262]上올나가셔　도치상 올라가서
永豊[263]얼東望하니　영풍을 동망하니
李咸豊君碩塚[264]좃타　이 함풍군 석총 좋다
鶴橋들[265]나려가셔　학교들 내려 가서
秧歌土鼓飽聞[266]　앙가 토고 포문하고
臥村[267]얼지ᄂᆡ가니　와촌을 지내 가니
徐阿干[268]의後裔里요　서아간의 후예리요

249) 효종 때 문과에 급제한 조원서(趙遠瑞)
250) 지금의 덕산. 고려 때 여씨가 덕을 쌓아 살았던데서 유래. 전 대동면 소재지
251) 덕암은 김보(金寶, 1537~1570)의 호
252) 함평읍 진양리에 속함. 인동장씨 자작일촌
253) 군자감정을 지내고 선무원종공신록에 책록된 장우한(張宇翰)을 말함
254) 대를 물려 준 곳
255) 수랑개. 함평읍 석성리에 속함. 황실이, 엽삭의 집산지였음
256) 가내. 함평읍 가동리. 군내에서 1개 마을이 1개리를 이루고 있는 유일한 마을. 금성나씨 집성촌
257) 금성나씨 나각(羅珏)의 호. 병자호란 때 창의. 저서로 「송파록」 이 있다
258) 옥산리에 속함. 지형이 방아코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 지금은 용촌(龍村)으로 씀
259) 고창 현감을 지낸 밀양 박형산(朴亨山)을 말함
260) 함평읍 대덕리 대천. 한샘이라 부름. 영풍면 터가 있고 마을 뒤에 차고 깨끗한 샘이 있다
261) 불킨 발
262) 자풍리와 무안군과의 경계에 있는 재. 돗재. 멧돼지가 많아 붙여진 이름
263) 자풍리의 옛 이름. 이곳에 향(鄕)이 있었다
264) 함평이씨 시조 언(彦)의 묘소
265) 학다리 들. 함평군에서 제일 넓은 들
266) 모내기 노래와 못 방구소리를 실컨 듣고. 들이 넓음을 상징
267) 엄다면 성천리에 속함. 이천서씨의 집성촌. 고성이씨가 터를 잡았고 임란 때 병조좌랑을 지낸 서경춘이 낙향 정착함. 토기와를 많이 구어내던 곳이라서 와촌이라 함
268) 이천서씨의 시조 서중대(徐仲臺)를 말함. 신라 때 아찬벼슬을 함

松山里[269]지ᄂᆡ가니 송산리 지내 가니
蔡務安[270]의後孫살고 채무안의 후손 살고
杓山里[271]지ᄂᆡ가니 표산리 지내 가니
鄭進士[272]의世傳되고 정진사의 세전 되고
淸水[273]斗洞[274]구경하니 청수 두동 구경하니
背山向野[275]가운ᄃᆡ 배산향야 가운데
魯岳隱後蕃然[276]하다 노악은 후 번연하다
金迪洞[277]지ᄂᆡ가니 금적동 지내 가니
山疊野沃[278]하온中에 산첩야옥 하온 중에
徐孝堂[279]으世基로다 서효당의 세기로다
鐵城山[280]올나가셔 철성산 올라가서
玉洞里[281]바ᄅᆡ보니 옥동리 바라보니
山高水廻[282]하온中에 산고 수회 하온 중에
尹老坡[283]으어진夫人 윤노파의 어진 부인
貞烈分明裵氏[284]갓다 정열분명 배씨 같다
高幕院[285]南見하니 고막원 남견하니
魚鹽船이滿浦[286]하다 어 염선이 만포하다
날이이무져물거날 날이 이미 저물 거늘
몸困하고飢渴[287]하야 몸 곤하고 기갈하여
十餘面方方谷谷 십여면 방방곡곡
歸景얼못다하고 귀경을 못 다하고
거름얼밥비하여 걸음을 밥비하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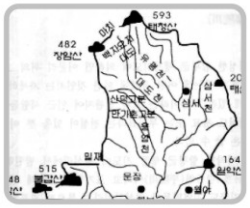
269) 학교면 월산리에 속함. 평강채씨가 입촌하여 성촌
270) 무안현감을 지낸 평강 채영희(蔡榮禧)를 말함
271) 학교면 마산리에 속함. 진주정씨 집성촌. 마을 주위에 고인돌, 돌방무덤, 돌널무덤, 독무덤 등이 집중 분포하여 마치 묘제의 박물관 같은 곳이다
272) 진주성 싸움에서 전사한 선무원종 1등공신 정감(鄭瑊)을 말함
273) 학교면 마산리 청수원
274) 학교면 복천리 속함. 마을이 산에 쌓여 꼭 말(斗)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 함평노씨 집성촌
275) 뒤에는 산이 둘러있고, 앞은 넓은 평야를 바라봄
276) 함평노씨 노신(魯愼)의 호. 그 후예들이 번성하다
277) 대동면 금곡리에 속함. 이천서씨 입향지로 자작일촌 함
278) 산은 첩첩이 싸여 있고 들은 기름짐
279) 이천서씨 서호(徐顥)을 말함
280) 대동면 월송 금곡 상옥리에 소재한 262.5m의 산. 석성이 있다
281) 400여년 전 파평윤씨가 입향하여 이룬 마을. 자작일촌. 오령진주 형국이라 인재가 많이 난다고 함
282) 산은 높고 물이 휘감아 돔
283) 노파는 임진왜란 때 장성 남문창의의 주역 윤황(尹趪)의 호
284) 윤황의 부인. 대구배씨로 열행을 행함. 파평윤씨 삼강문
285) 학교면 고막리 고막원. 옛날 원(院)이 있어 부르는 이름. 원터는 지금 정자터
286) 고깃배와 소금배가 포구에 그득함. 고막포에는 1960년대까지 배가 드나들었다
287) 허기지고 목마름

長波平[288]瞬息지ᄂᆡ
杻洞弊廬[289]도라오니
老妻난麥飯짓고
雉子[290]난候門[291]하니
二十南遊江淮[292]하던
司馬子長[293]完然하고
栗里松菊[294]직거하던
陶元亮[295]이恰似하다
咸平땅모든靑年
이로ᄅᆡ불러보쇼
浪遊보단有助하리

장파평 순식 지나
축동 폐려 돌아오니
노처는 맥반 짓고
치자는 후문하니
이 십 남유 강회하던
사마자장 완연하고
율리 송국 즐거하던
도원량이 흡사하다
함평땅 모든 청년
이 노래 불러 보소
낭유 보다 유조하리

288) 옥동에서 나산에 으르는 들 이름
289) 저자의 집. 나산면 삼축리 동축
290) 어린 자식들
291) 문밖에 마중 나와 문안 인사 드림
292) 20여세에 회강(하남성에서 발원하여 강소성을 거쳐 황해로 흐르는 중국의 3대강의 하나. 회수) 남쪽을 유람함
293) 중국의 역사학자 사마천
294) 밤나무, 소나무, 국화 등 전원생활을 말함
295) 중국 동진말 오류 선생이라 자처하던 도연명을 말함. '귀거래사'를 남김. 저자 자신을 사마천과 도원량에 비교함

제4장 함평의 축제



제1절 축제의 개관

1. 축제의 의미와 성격

축제의 통상적인 사전적 의미는 「축하하여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거나 또는 경축하여 벌이는 큰 잔치나 행사를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우리의 축제는 마을 등 지역 공동체 집단 구성원 등이 주체가 되어 공동 부조 하에 경비를 마련하고 그 집단의 번영과 풍요를 기원하는 동시에 협동을 다지는 동제·산신제·수륙제 또는 마을굿 등으로 불리는 지역 축제와 동맹(東盟), 영고(迎鼓), 무천(舞天)등과 같은 제천 의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제례적(祭禮的)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축제에는 종교성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동질의 집단이나 개인이 특정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신에게 의지하여 일상을 영위하는 새로운 에너지를 얻으려는 기부행위 즉, 주술적인 행위가 결과적으로 축제의 원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술적인 종교적 제의행사를 중심축으로 하여 풍물 굿·노래·춤 등 재미를 추구하는 놀이가 뒤풀이 형태로 결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축제가 오늘에 이르러서는 노래자랑 등 각종 경연대회, 체험학습, 문화·예술 공연 등 행사적 요소가 가미되어 무언가 특정한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변화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축제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나 특정 사회단체가 주체가 되어 경비를 조달하여 전통문화를 계승한다거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동시에 경제적 가치 창출에 목적을 두고 개최된다. 즉, 축제의 구성은 특산물·특정경관·인문자원 등 당해지역에서 내세울만한 특정 소재를 모토로 하고 체육행사, 유희적 놀이, 각종 경연대회, 예능 및 문화 예술 공연, 각종 전시와 체험 행사를 가미한다.

따라서 전통적 축제는 종교성과 오락성이 공존하는 신명나는 잔치를 통하여 공동체 구성원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내발적 요소를 갖고 있는데 반해 현대축제는 내부적 구성원의 즐거움을 추구하기 보다는 외부에 나타내어 지역 이미지를 홍보하고 관광 상품화하여 관광객을 증폭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을 촉진 시키고자 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2.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축제의 위상

1995년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해당 자치단체 및 주민과 끈끈한 연고가 있는 인사들이 자치단체장에 취임함에 따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이때 모든 자치단체장들에게는 통일신라시대 이후 지속되어온 왕도중심주의·중앙집권주의에 의해 일관되게 길들여져 온 틀을 일거에 깨뜨리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지역 사회의 새로운 질서와 가치를 창출하여 주민의 총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 시켜야 하는 과제가 부여되었다. 도시 지역에서는 그 동안 압축 성장에 의한 인구의 도시 집중과 산업화에 따른 생활환경의 파괴, 급속한 도시 개발에 의한 상권 재조정에 의한 도심 공동화, 모든 시민에게 균질한 문화 향수 기회 부여, 갈수록 심화되는 빈부 격차 그리고 교육·교통·주택 문제 등을 해결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이라는 과제와 마주하였다.

농촌 지역 역시 때마침 불어온 농·수산물 수입 개방과 도시민에 비해 절대적인 소득 수준의 빈곤,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및 부녀자화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 취약, 문화 향수의 소외지대로 방치됨에 따라 산업화를 주축으로 한 압축성장의 그늘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으며, 피폐화가 날로 가속화됨으로 낙후된 지역 개발과 주민 소득 증대를 통하여 농촌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절대 절명의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러한 때 취임한 자치 단체장들은 도시 지역은 도시 지역대로 농촌 지역은 농촌 지역대로 제각기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할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고심했으며 이때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관광 산업이다.

더구나 한국관광공사의 「1995년도 관광동향에 대한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외국인 1명을 유치할 경우 신발 126켤레, 칼라TV 16대를 수출 하는 효과와 같고 5명을 유치할 때에는 엑셀 승용차 1대를 수출하는 효과와 맞먹는다는 통계 발표와 더불어 산업화에 따른 후유증을 이미 경험한 바 있었기 때문에 지역 경영에 고심하던 자치단체장들은 경제적·문화적 측면에서 관광산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1989년에 있었던 해외여행 자유화와 더불어 생활양식의 다양화에 의해'레저'를 비롯한 여가 선용 활동은 범사회적인 붐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관광산업이라는 것이 자치단체장이나 몇몇 사람의 의지에 의해 단시일 내에 정착될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자원의 빈곤과 빈약한 자치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자치 단체가 우선 짧은 기간 내에 집객 효과를 올릴 수 있고 부수적으로 지역 내 정치적 카리스마를 확보하는데도 유리하며 손쉽게 접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도 나도 「축제」를 기획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단 기간에 1,000여개에 가까운 지역 축제가 우후죽순처럼 탄생했으며, 과도한 경쟁으로 후유증도 만만치 않아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 가고 있지만 어차피 경쟁에서 밀린 축제는 소멸해 가고 차별화 되고 경쟁력 있는 축제는 더욱 발전해 지역 사회발전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했다.

제2절 함평의 축제

1. 함평 나비 대축제

1) 추진배경

민선 자치 2기가 출범한 1998년경의 함평은 4만 3천 여 명의 인구와 군민의 71%가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업 군으로 산업 구조가 취약하여 군민 소득이 낮고 재정자립도 마저 12% 정도에 그치고 있어 군세가 매우 빈약한 실정이었다. 더구나 국가적으로는 IMF 구제 금융으로 차입한 외환으로 국가 경제를 꾸려가야 하는 절대 절명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군민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여건 때문에 갓 취임한 이석형 군수에게는 위기 탈출을 위한 변화의 새바람을 불러 일으켜 낙후된 함평이 역동성을 되찾고 지속가능한 고장으로 탈바꿈시켜야 하는 크나큰 과제가 부여되었다. 이때 착안된 시책이 함평이 농업군으로서 향후 경쟁력을 가지려면 고 부가가치의 차별화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선호하는 도시 소비자에게 다가가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이른바 친환경 농업을 시행하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력을 증진시켜 화학비료를 저감시켜야 한다는 인식하에 녹비작물인 자운영을 군 전역에 장려 하였다.그러나 아무리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한다 할지라도 소비자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부질없는 일이므로 친환경 농업 현장을 직접 확인시킬 수 있는 계기가 필요했다. 한편, 민선2기가 출범하자마자 그해 8월에 함평읍을 끼고 흐르는 함평천에 방치된 넓은 둔치를 잘 가꾸어 하천 경관을 개선하고 향후 이벤트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내 농업 경영인 후계자들이 참여하여 심은 99천㎡의 메밀단지는 다음달 불어 닥친 태풍 「예니」가 물고 온 폭우로 쑥대밭이 되었다. 폐허가 된 둔치 위에 내년 봄을 기약하며 유채꽃 씨를 재 파종하고 활용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으나 이미“유채꽃=제주도”라는 등식이 온 국민에게 확실히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소재를 개발 타 지역과 차별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염 되지 않은 친환경 생태 보전 지역을 연상케 하는‘나비’를 소재로 축제를 개최하여 도시민이 직접 함평을 방문 친환경 농업 현장을 확인토록 함과 아울러 경관 농업을 통한 관광 소득도 늘려 간다는 전략 하에 「함평나비대축제」를 기획하게 된 것이다.

2) 축제개요

(1) 명칭 : 함평나비대축제

(2) 개최시기 및 주제

년 도	축제기간	주 제	부 제	대표나비	명예 대회장
1999(제1회)	5.5~5.9	함평으로 나비보러 오세요	없음	호랑나비	–
2000(제2회)	5.5~5.9	〃	새천년을 함평나비와 함께	산제비나비	–
2001(제3회)	5.4~5.13	〃	한국방문의 해를 함평나비와 함께	노랑나비	–
2002(제4회)	5.4~5.12	〃	나비와 꽃 천연염색의 만남	작은주홍 부전나비	서영훈
2003(제5회)	5.3~5.11	〃	자연과 인간, 문화예술의 만남	배추흰나비	박경리
2004(제6회)	5.1~5.9	〃	나비와 꽃으로 만든 농촌 어메니티	왕오색나비	황우석
2005(제7회)	4.30~5.11	〃	나비와 곤충 꽃이 만드는 미래의 세계	큰멋쟁이나비	성경륜
2006(제8회)	4.29~5.8	〃	'나비의 비상'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암끝검은 표본나비	차범석
2007(제9회)	5.3~5.8	〃	나비의 세상! ECO 함평	사향제비나비	허경만
2008(제10회)	5.3~5.12	〃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함평나비와 함께!	홍점알락나비	김성훈
2009(제11회)	4.24~5.10	나비=꿈	나비와 함께 함평에서 희망의 노래를	꼬리명주나비	크리스찬 키르쉬

※ 크리스찬 키르쉬 : 독일인, 국제델픽위원회 사무총장

(3) 년도별 개최장소

년도별	주행사장	주무대	비고
1999년	함평천 함평군민회관	대경보 둔치	
2000년~2007년	함평천 수변공원 친환경 농업지구	대경보 둔치('99~'03) 친환경농업지구 잔디광장('04) 나비주유소 앞('05~'07)	'03부터 주행사장을 「나비축제장」 으로 총칭함
2008년~2009년	엑스포 공원	함평농협 주차장('08) 엑스포공원 북문주차장('09)	나비축제장이 엑스포 공원에 편입 확대됨

(4) 주 최 : 함평군

(5) 주 관 : 함평군 나비축제 추진위원회(민간인으로 구성, 군수가 위촉)

(6) 년도별 축제비용

(단위 : 백만원)

년도별 / 재원별	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계	6,040	250	335	501	452	660	645	690	707	600	350	850
국비	1,140					50	60	130	150	100	350	300
군비	4,900	250	335	501	452	610	585	560	557	500		550

※ '08 군비는 엑스포 사업비에 포함.

(7) 함평 나비 축제의 위상

· 문화관광부 선정 대한민국 예비축제 : 2년 연속(2002~2003)
· 문화관광부 선정 대한민국 우수축제 : 3년 연속(2004~2006)
· 문화관광부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 : 3년 연속(2007~2009)

(8)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농림수산해양부, 전라남도, 광역자치단체, 각급 교육청,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군단위 기관·사회단체, 각 언론사 등 다수

3) 축제장 조성 경과

나비대축제 계획 확정 즉시 나비 사육 전문가 정헌천을 초빙 농업기술센터 내에'곤충연구소'를 설립하여 나비 사육을 시작하는 등 지원 조직을 갖췄고 대경보 주변 함평들 전역에 5월에 개화하는 자운영을 파종하여 경관을 정비, 꽃과 나비가 어우러지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대경보 하단 고수부지에 비닐하우스 800㎡를 설치 나비의 일생을 관찰 할 수 있는 나비 생태관을 연출하여 제1회 나비축제를 개최한바 함평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몇 시간씩 교통 체증을 일으키고 도로변 주유소의 기름이 동날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대 성공을 거뒀다. 이에 축제 준비 관계자를 비롯한 군민 모두가 나비 축제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매년 축제장 보강 사업이 이뤄졌다.

먼저 건설과에서는 축제장 탐방이 용이하도록 자전거 도로를 개설키로 하고 2000년도에는 함평천 좌·우안 2.7km를, 다음연도에 6.6km를 추가하여 폭2.8km, 연장 9.3km를 개설 완료하여 2007에 시행한 자연 하천 복원 사업 시행으로 철거 되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01년부터 2003년도까지 함평천 도섭지 및 둔치 20만평에 창포 300만본, 꽃창포 5만본, 붓꽃 50만본을 심어 수질 정화를 도모하고 유채꽃 포장 일부를 대체 식재하여 변화를 꾀했을 뿐 아니라 함평교 주변 둔치에 나비 모형등 다양한 형태의 수련포를 설치하여 하천 경관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였다. 산림·축수산과에서는 2001년부터 2002년도까지 함평천 제방을 보토하여 화목류 및 녹음수 등 14,312본을 식재하고 파고라, 원두막형 정자, 평의자, 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평소 군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함평천 수변공원을 조성해 나갔다.

또 인근 엄다면 성천지구에 65ha에 이르는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에 이어 2005년까지 헌수목 동산, 돈나숲, 라일락 및 소나무 동산, 느티나무거리 조성 등을 위해 5,977본을 추가 식재하고 체력 단련 야외 운동기구 설치와 각종 편의 시설을 확충했다.

이와 함께 축제장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1999~2000년까지 축제장 배면인 함평읍 수호리 수산봉 일대 산불 피해 미복구지 7,000㎡에 나비 모형을 만들고 철쭉 등 4종의 화목류 175천본 식재와 더불어 나비 모형 가장 자리에 네온을 설치함으로써 축제장 주변이 4계절 청정한 경관이 유지되도록 면모를 크게 일신시키면서 함평읍 시가지와 조화를 이루도록 배

려했다.

한편, 하천 둔치 가설 비닐하우스에서 운영했던 나비생태관은 밀려드는 관광객 수용과 생태관 연출에도 규모의 한계가 있어 좀 더 넓고 반영구적인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2000년도에 함평여자중·고등학교 동편 함평천 제방과 인접한 부지를 매입 철재 빔 와이드 스판 나비생태관 120평을 신축하고 이듬해 동일 구조의 원예치료관 640평을 신축하여 축제장 내 생태전시관이 규모화 되었다. 또한 2003년도에 친환경 농업관 400평을 벤로형 유리온실 구조로 신축 함평군의 친환경 농업 실천 의지를 관람객들에게 은연중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 함평천 수변공원과 나비생태관, 원예치료관, 친환경농업관의 시설과 부지를 통합하여 2003년부터 「나비축제장」으로 명칭을 일원화 하였다가 2008년 엑스포가 개최됨에 따라 「엑스포공원」으로 통칭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관과 시설이 완비되기까지의 사업비는 국·도비, 상사업비, 특별교부세 등으로 조달하였고 공공근로 인력도 중점 투입되었다.

4) 축제장 준비 및 연출

(1) 개요

축제장 준비와 운영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사의 참여 없이 함평군청 소속 공무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연출하고 운영한다. 따라서 경관 조성, 실내연출, 체험학습 등 전 분야에 걸쳐 참여한 공무원들은 축제가 폐막되면 2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동안 실행한 축제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해 대비책을 세우고 군민 여론 청취와 국·내외 관련 현장 벤치마킹, 축제에 대한 대중의 시대적 취향 등을 파악하여 6월 중에 다음 년도 축제 기획안을 확정하고 거의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준비한다.

(2) 상시 관리

축제장 연출은 생태 축제의 성격상 축제가 임박한 시점에서 세트화 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일부 실내 연출이나 관람 동선 등은 축제 직전에 연출이 가능하지만 축제장 주변의 하천이나 농경지 등의 경관 조성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년 내내 철저히 준비한다.

함평천 수변공원에 식재된 각종 수목 및 화목류는 시기에 맞춰 전지 또는 보식하거나 지속적으로 비배 관리를 하고 제방 둔치와 제방은 유채, 갓, 무를 전면적에 파종하여 김메기와 비배관리를 철저히 하여 축제 기간에 탐스럽고 아름다운 꽃이 개화 토록했다.

또 수련이나 창포 등 수생식물도 축제 시기가 개화 시기보다 약간 빠르기 때문에 평시에 대비한다. 이러한 일들은 경험이 있거나 농업이나 식물 관련 직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담하여 주로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 추진한다. 들녘 경관 조성은 각종 일상 업무와 시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정책 목표 달성과 축제 비용을 절감 하면서 축제 기간 동안 볼거리화 시킨다. 즉, 녹비생산 사업과 경관 농업 사업비로 자운영과 무, 갓, 유채를 파종하여 큰 들판이 꽃물결을 이루도록 할 뿐만 아니라 나비모양이나 글씨가 나타날 수 있도록 꽃 색깔을 배열하여 평소에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홍보 효과를 거두고 축제 기간 중에는 농촌 체험 꺼리 제공과 봄의 정취를

한껏 만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들녘 경관 조성 사업은 농경지 소유 농민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또한, 군내 각 간선 도로변에 매년 꽃잔디, 유채, 금계국 등을 심어 꽃길을 조성하고 소공원을 정비하는 한편 행락객이 도로에서 관찰이 가능한 지점에 나비 문양이나 축제 문구, 각종 나비 상징물을 설치하여 함평에 진입하면 나비 축제의 고장임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면서 축제 분위기도 고조될 수 있도록 각 읍면별로 분담 추진하였다.

(3) 체험장 및 야외전시

각 실과소별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분야와 연관시켜 관광객 체험 거리를 개발하여 소관 부서의 책임 하에 준비하고 운영한다. 필요한 재료는 소재에 따라 년중 준비하기도 하고 구입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하거나 독지가나 생산자단체를 비롯한 유관기관·단체들의 협찬에 의하기도 한다. 체험장은 축제추진위원회의 축제장 배치 계획이 확정되면 축제 직전에 현장에 설치한다. 이밖에 실외연출은 정크아트, 특별 포토존, 관상용 호박 터널등 관광객의 관심을 끌만한 이색적인 아이템을 매년 새롭게 도입하여 시의적절하게 배치한다.

(4) 생태관 연출

생태관은 함평나비축제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서 축제 때마다 관람객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다 입장할 정도로 가장 인기가 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나비생태관과 원예치료관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직 공무원들에 의해 매년 테마를 달리하여 기획되고 연출된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자들은 축제가 끝나면 한가로운 휴식을 즐길 틈 없이 다음 년도 연출 아이템 개발에 열병을 앓다시피 한다. 왜냐하면 축제가 성공하려면 관광객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발 시켜야 하는데 해마다 똑같은 모습을 보여 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광객의 동향을 세밀히 파악하여 새로운 아이템을 도입, 늘 새롭게 진화하는 축재를 만들기 위해 소재 개발에 끊임없이 고민한다. 그동안 생태관 기획 및 연출은 기술센터 이순영에 의해서 주도 되었다. 친환경농업관은 각종 곡물, 과채류, 이색 농산물, 특용작물, 약용식물, 각종 과수 등이 재배되는 전과정과 친환경 농법 시연장을 연출하여 관람객들에게 신비로운 영농 현장 관찰 기회를 제공하면서 함평군의 친환경 농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농산과 농업직 공무원들이 전담하여 재배 순기에 맞추어 관리했으며, 최초 기획·연출은 정찬득이 담당했다.

양서 파충류 생태관은 일반인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각종 뱀, 두꺼비, 개구리등 각종 양서 파충류를 대부분 임차하여 가설 건축물 내에 연출한 전시관으로 환경보전과에서 담당하였으며 초기에는 환경미화요원 등의 도움이 컸다.

5) 관광객 유인 전략과 홍보 과정

함평나비대축제가 탄생한 1999년도에는 행사 준비 기간이 짧아 주로 광주·전남권을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펼쳤으나 제1회 축제가 성황리에 마치게 됨에 따라 그 여세를 몰아 2회때 부

터는 전국을 겨냥하여 활용 가능한 모든 홍보 수단을 총 동원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나비축제가 전국화 가능성이 있고 제1회 축제에서 얻은 자신감의 발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 결국 나비축제는 전국화에 성공했고 이를 밑바탕 삼아 엑스포라는 국제 행사로 발돋음 했다.

(1) 광역홍보

나비축제의 전국화를 위해서 축제의 준비 과정에서부터 축제 기간과 축제 폐막 후의 성과 분석에 이르기 까지 신문·방송·잡지 등 대중 매체를 적극 활용 뉴스 보도화 시키고 KBS 6시 내고향, 세상의 아침, 기상뉴스영상, 전국노래자랑 등 각종 방송 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하여 활용하는 한편 중앙지는 물론 지방지와 잡지, 주간지 등이 성공한 축제에 대한 기획 특집 기사를 앞 다투어 취급함에 따라 이에 적극 협조하여 해마다 축제의 위상을 높이는데 성공했다. 또한 광주광역시 (주)전남도청 분수대 앞 대형 선전탑을 시작으로 서울 광화문 네거리 대형 선전탑, 서울시 주요 간선 도로변 육교현판 등 대도시 주요 거점에 광고탑, 현수막, 육교현판 등을 설치하여 세인의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음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 홍보는 향우회가 중심축이 되어 출향인사들이 직장 동료와 함께 나비축제장 구경 가기 등 발품을 팔고 비용을 부담 하는 등 고조된 참여 열기에 도움 받은바 컸다. 특히 지구의 날, 청와대 나비 날리기 행사, 현충일 기념 현충원 추모 나비 날리기 행사, 5·18 국립묘지 추모 나비 날리기 행사 등은 함평 나비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2) 개별 홍보

공직자와 군민들 각자가 지연·학연·혈연 등을 연계하여 전방위적으로 연고 마케팅을 전개하였다. 관외 거주 직원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 각 가정마다 팸플릿을 돌렸고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나비축제 안내서와 관람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광주·전남지역 소재 학교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조별 담당제를 실시 아침 등교 시간에 교문에서 직접 팸플릿을 배부하여, 홍보 활동도 전개했다. 또 군민들은 친지나 지인들에게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하여 나비 축제를 홍보하였다. 통신을 활용한 홍보는 군 산하 공무원을 비롯한 유관 기관·단체 임직원 그리고 희망하는 군민들의 핸드폰을 활용 나비 축제 홍보 컬러링을 설정하고 관내 유관기관·단체 전화기 수신음에도 축제 내용을 홍보토록 했다. 특히 사이버 군민 135천여명에게 매년 나비 축제 홍보 SMS 문자 발송을 해 많은 사람들에게 함평 나비축제가 확실히 각인 되도록 하였다. 또한 군민과 출향인사들이 함께 축제 기간 동안 함평에서 동창회·계모임 등 각종 모임 갖기 운동 등을 전개했다.

(3) 홍보관 운영

곤충연구소가 구심점이 되어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나비·곤충 관련 자료와 살아 있는 나비를 활용 대도시 백화점 로비나 매장에 나비축제 홍보관을 설치하고 우리군 농·특산품을 입점 시켜 판촉 행사를 병행 하였다. 이러한 홍보관은 1999. 4. 5 ~ 4. 18(14일간) 광주 소재

신세계 백화점을 시발로 서울·부산·울산 등 대도시까지 확대하여 연례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나비 축제 홍보와 더불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도시 소비자와 직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각종 국제 행사, 박람회, 컨벤션센터 등에서 개최되는 주요 행사에 수시로 출장 다니며 홍보관을 설치했다.

※ 홍보 매체 및 수단별 내용

구 분	내 용
TV방송	뉴스보도, 각종 기획 및 프로그램유치(KBS,MBC,KBC,YTN,아리랑TV등)
일간 신문	보도자료 및 사진 자료 제공, 특집기사 협조(중앙 및 지방지)
홍보물 배부	포켓용 수첩, 리플렛, 포스터, 종합안내서
시설물 설치	대도시 선전탑, 조명광고, 전광판, 육교현판
현수막 게시	고속도로 상·하행선 휴게소, 대도시 육교 및 다중 집합장소, 도내 주요 간선 도로변, 주요 시가지 등
홍보관 운영	서울·부산·광주·울산 소재 현대·롯데·신세계백화점, 박람회 및 국제 회의 등 각종 행사장

※ 매년 지속적 반복 실시

6) 축제장 운영 및 행사

축제장 운영 및 행사는 나비축제추진위원회 주관 하에 유관기관·단체와 군청 각 실과별로 해당 업무와 연계하여 분담 추진하고 사회단체 및 민간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이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민·관 합동 추진 체제이며 대부분의 비용은 함평군 예산에서 지원되지만 행사의 성격에 따라 유관 기관 단체 및 민간에서도 협찬하여 운영되었다.

(1) 행사장 운영

행사장 관리와 진행은 대부분 공무원들이 전담하였으나 주차 안내 및 교통 지도는 공무원·교통경찰·의용소방대원·모범운전자회 등이 참여하고 회장 내 청소 및 편의 시설 관리와 회장 안내 등은 자원봉사자 요원 중심으로 운영한다. 유관 기관 및 사회단체 협조 업무나 협찬 행사는 당해 기관 단체 책임 하에 운영 관리 되었다. 또한, 주민 참여 코너를 개설하여 식당, 가판대, 편의점, 간이 휴게소, 체험코너 등에 군민이 참여토록 하여 주민 소득 증대를 꾀하도록 하였다. 회를 거듭할수록 축제장의 범위가 확대되고 밀려드는 관광객의 안전을 살피기 위해 축제장 경비와 무대 및 음향시설 등은 전문 업체에 점차 위탁하였다.

(2) 행사 프로그램

행사는 공식행사·체험행사·전시행사·문화예술행사·경영수입·학술행사로 구분할 수 있다.

공식 행사는 개·폐막식 위주로 진행된다. 개막식은 주민, 출향향우, 외부 주요 초청인사가 참여하고 2000년도부터 주한 외교관들도 초청하여 나비축제 세계화의 초석을 다졌다.

폐막식은 군민들과 함께 축제 운영 및 관리에 참여한 모든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뒤풀이 형태

로 진행되었다. 그 밖에 그 동안 운영되었던 체험·전시·문화예술 등 각 분야 행사의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년도별 진행 프로그램

단위 : (건)

년도별 / 행사내용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계	24	46	51	57	62	65	64	69	47	37	56
체험행사	5	11	17	14	14	18	17	21	17	12	16
전시행사	1	10	6	5	8	7	7	7	5	3	4
문화예술행사	13	20	23	30	33	32	33	33	20	22	30
경영수입행사	4	5	5	8	7	8	8	7	5	5	5
학술행사	1							1		1	1

나) 현행 장기간 지속 프로그램(2009년 현재까지)

개 시 년 도	프 로 그 램 명
1999년(제1회 ~ 제11회)	전통가축몰이체험장, 나비도자기체험, 환경퀴즈놀이
2000년(제2회 ~ 제11회)	친환경농업체험, 양서·파충류자연학습장, 누에일대기학습장 미꾸라지잡기체험, 보리·완두그스름체험, 전통민속놀이체험 재래농기구전시장, 조찬기도회
기 타	함평나비마라톤대회('01부터), 찬양콘서트('02부터), 전통자수전시('04부터), 전국실버댄스경연대회('05부터)

다) 3회 이상 진행 후 중단된 프로그램

진행횟수	프 로 그 램 명
5회 이상	반달곰전시('99~'04), 가장행렬('99~'03), 환경푸른음악회('99~'04) 환경그림·글짓기대회('99~'04), 어린이날기념공연('99~'04) 도립국악단공연('99~'04), 씨름왕선발대회('99~'05), 마당극공연('99~'06) 남도노동요시연('99~'03), 나비우표전시('00~'04), 나비연날리기('00~'04) 어린이한마음큰잔치('00~'05), 나비사랑전국어린이동요대회('00~'08) 호남가경창대회('02~'06), 함평천지국악한마당('02~'06)
4회 이상	생활유물전시('99~'02), 나비주제학생작품전시('00~'03), 야생화전시('04~'07) 노인작품전시('03~'06), 나비·곤충조형물전시('04~'06)
3회 이상	타조전시('00~'02), 청소년댄싱경연대회('01~'03), 웰컴투코리아('02~'04) 목포MBC도전가요열전(기간 중 3회)

※ 나비 축제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은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여러 프로그램이 전국으로 전파되었다.

7) 함평 나비대축제의 영향

(1) 사회·문화적 측면

함평나비대축제가 갖는 의미는 여러 측면에서 고찰해 볼 수 있지만 축제 자체가 함평군에서 기획되어 추진되었기 때문에 우선 대내적인 측면과 대외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대내적으로는 첫해부터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관광객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집객 효과를 거두고 생태 환경 축제를 지향함으로써 친환경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폭발하기 시작한 시대적 조류에 부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중 매체를 적극 활용한 광역 홍보에 치중한 전략과 맞아 떨어져 단숨에 유명세를 타게 되었고 축제의 기획 내용과 운영 등 모든 분야에서 기존의 축제와는 철저히 차별화되었기 때문에 지명도가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다.

개최 초기부터 문화관광부 지정축제, 3년 연속 우수축제, 3년 연속 최우수축제에 선정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언론 및 세간의 여론이나 학계 등 전문가 그룹에서의 공통된 견해도 축제하면 함평나비축제라는 등식이 성립될 정도로 지역 축제의 성공 모델이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축제라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2000년도부터 2009년 7월까지 발표된 나비 축제 관련 기록물을 국회 도서관에서 자료 검색한 결과 총 51건으로 단행본 4건, 박사논문 2건, 석사논문 15건, 학술지 게제 논문 등이 30건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나비·곤충산업 하면 함평이 연상될 정도로 국민들에게 각인되었다.

이는 출향인은 물론 군민 모두에게 함평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 주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함평군이 생태 관광의 메카로 거듭나는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군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농업 부분의 투자 예산을 늘려 군민 모두의 소득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검토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모성 경비의 비중이 높은 축제행사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독단적인 재정 운용이라는 비판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고 혹자는 축제를 통해 대중의 인기를 집약시켜 특정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축제를 창시한 이석형 군수가 공약에 의한 군민의 심판으로 내리 3선을 연임함으로써 축제 개최에 대한 군민의 합의가 이뤄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과 함께 행사 경비와 입장료 수입만을 단순 비교하고 지역 경제 파급 효과와 지역 이미지 개선 등 무형의 효과를 간과한 것은 효과 분석 기법 상 중대한 오류라는 지적도 있다. 아무튼 나비축제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가진 군민들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군민은 나비축제가 추동력을 지니고 더욱 발전해 가기를 열망하고 있다.

나비축제를 통해 조성된 함평천 수변공원(현재는 엑스포공원)은 아침·저녁으로 가족 단위나 이웃과 함께 삼삼오오 짝을 지어 대화를 나누며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등 주민 여가 선용이나 휴게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2) 행정 내부적 측면

나비축제 개최 이후 행정 내부의 변화상 중 하나는 축제 준비와 운영 관리에 따른 공무원의 업무량이 대폭 늘어났다는 점이다. 그러나 나비축제가 첫 회부터 내·외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됨에 따라 그 성과에 대해서 전 공무원이 함께 공유하고 크게 고무되어 남다른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되었다. 또한 관행에 의존하여 일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에 다같이 고심하고 타 자치단체의 사례 분석을 통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자세로 전환 하는 등 전향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이러한 공직 사회의 변화는 결국 군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였다. 다만, 해마다 늘어나는 업무량에 상응하는 보상이 충분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나비축제를 통해 중앙 행정 기관에서 함평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긍정적 시각으로 변함으로써 함평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 함평천 자연하천복원사업 등 정부의 각종 공모 사업에 응모하면 대부분이 당첨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3) 지역 경제적 성과 측면

지역 축제 파급 효과는 먼저 나비 축제 10년 동안 지역 상권이 크게 개편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축제 전 함평읍에는 변변한 횟집하나 없고 외지인이 찾는 식당은 5일 시장 주변 몇몇 비빔밥집 정도였다. 그러나 축제 개최 10여 년 동안 횟집만 해도 20여개에 육박하고 외지인이 찾는 규모화 된 일반식당도 10여개 이상 추가로 늘어나 관광버스가 찾아오는 등 기존의 도·소매업 중심의 상권이 식음료 중심으로 재편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현상은 인근 골프장 내장객의 영향도 무시하지 못하겠지만 나비축제를 통하여 개선된 지역 이미지와 축적된 접객요령, 함평천지 한우 홍보효과 등 나비축제 시너지 효과라 할 것이다.

함평나비축제는 타 지역 축제와는 다르게 첫해부터 500원의 입장료를 징수했으며 2008년 제11회 축제 입장료는 성인 기준 7,000원이다. 또한 주민 참여코너를 마련 판매 수익을 올리도록 유도했다. 2008년 엑스포를 제외한 나비축제 10회 동안 조사 가능한 직접 수입을 용역기관에 의뢰해 조사한바 개최 비용은 57억원이나 직접 수입은 223억원으로 개최 비용 대비 4배에 이르고 간접 수입까지 포함하면 974억원으로 17배에 이르는 직·간접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4) 기타

곤충연구소의 곤충 사육 기술을 주민들에게 이전하기 위해 1개의 곤충마을 10농가를 선정 각종 나비,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수서곤충, 메뚜기 등을 직접 생산하여 학습용이나 애완용으로 판매하여 소득을 올린다거나 나비 날개를 이용한 공예품을 생산 한다거나 곤충 학습 용구를 개발·보급하는 벤처 농가가 육성되고 있다.

※ 나비대축제 경제적 성과분석

(단위 : 백만원, 만명)

구분	개최 기간	개최 비용	관광객수(만명)	효과						
				계	직접수입					간접효과
					소계	입장료	나비 상품 판매	축제 참여 업체	관내 업소	군이미지 및 농축산물 홍보
계		5,674	1,175	97,438	22,283	3,849	1,044	6,888	10,492	75,165
제1회 ('99)	5.5~5.9 (5일)	250	60	6,364	1,006	38	14	166	788	5,358
제2회 ('00)	5.5~5.9 (5일)	335	75	8,115	1,222	150	35	85	952	6,893
제3회 ('01)	5.4~5.13 (10일)	505	123	8,242	1,254	201	29	119	905	6,988
제4회 ('02)	5.4~5.12 (9일)	452	131	8,207	1,292	170	40	150	932	6,915
제5회 ('03)	5.3~5.11 (10일)	660	142	10,249	2,538	374	109	741	1,314	7,711
제6회 ('04)	5.1~5.9 (9일)	645	154	10,378	2,637	396	162	1,048	1,031	7,741
제7회 ('05)	4.30~5.11 (10일)	690	163	10,569	2,912	511	177	1,151	1,073	7,657
제8회 ('06)	4.29~5.8 (10일)	707	171	12,298	3,477	687	202	1,477	1,111	8,821
제9회 ('07)	5.3~5.8 (5일)	580	102	10,084	2,113	304	108	565	1,136	7,971
제11회 ('09)	4.23~5.18 (17일)	850	53	12,932	3,822	1,018	168	1,386	1,250	9,110

※ 자료제공 : 함평군문화광관과
※ 참고사항
· 2008년 제10회는 엑스포에 포함
· 엑스포 공원 완공으로 제11회 입장객수는 검표소 통과 인원(9회 까지는 일정 지점 통과 인원수)
· 자료 조사기관은 전문기관(목포대 부설연구소)에서 용역 수행

2. 대한민국 국향대전

1) 탄생 배경

2003년 제5회 나비대축제가 개최되기까지 축제장 연출 면에서나 운영 면에서 완성도를 높여가면서 해마다 각종 기록을 경신함에 따라 그 전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축제 전문가들의 평가는 물론 타 축제 관계자들도 함평나비대축제가 지역 축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앞다투어 내어 놓았으며, 벤치마킹 대상으로 급부상하였다.

방송·신문·잡지 등 각종 언론매체들도 집중 조명함에 따라 축제 관계자는 물론 모든 공무원들이 크게 고무되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지도직 공무원들은 나비축제의 주역으로서 크나큰 자부심과 함께 새로운 일거리를 찾기 위한 의욕이 넘쳐나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재학시설 「국화반」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던 완도 출신 고찬훈 지도사는 대학시절 익혔던 국화 재배기술과 작품 활동 경험을 현장에 접목시켜 보고자 하는 생각을 평소에 늘 가져왔었다. 고찬훈 지도사는 때마침 1직원 1작목 특기 갖기를 적극 권장하였던 당시 기술 보급과장 이순영 소장에게 평소의 생각을 피력하게 한다.

이순영 과장 역시 화훼전문가로서 국화 신품종 육종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중이였으며 전임지인 광주시와 나주시 근무시절에 국화 재배를 전담하며 전국체전 등 전국 규모의 행사를 치른 경험과 화훼단지 주재 지도사를 지냈던 터라 국화축제를 매개체로 하여 농가가 국화재배에 참여하면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국화 축제도 성공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고 축제의 기본 틀을 구상하여 이석형 군수에게 보고하게 되었다.

이석형 군수 또한 생태체험 관광과 친환경 농업이 함평 발전의 핵심축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하에 나비 축제를 성공시켰지만 봄에 개최되는 나비축제만으로는 미흡하므로 사계절 관광객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는 나비축제에 버금갈 만한 가을축제 개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던 중이어서 국화축제 건의를 받자 즉시 구체적인 시행 계획 수립을 지시하고 곧바로 실천에 옮김으로써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탄생하게 되었다.

2) 개　　요

- 2004년 : 2004 가을나비축제
- 2005년도 이후 : 대한민국 국향대전

(1) 명　칭

(2) 주　제

· 2004 : 가을의 풍요로움과 국화 향기에 취해 보세요!
· 2005 : 국화 따라 나비가 훨훨!
· 2006 : 가을과 국화, 나비
· 2007 : 국화 향기 그윽한 가을날의 향연
· 2008 : 함평 국화향에 취하고! 인정에 취하고!
· 2009 : 晩秋의 深香 그리고 屈起
<늦가을 국화의 깊은 향기를 맡으며 희망을 갖고 일어나라는 의미>

(3) 주 최 : 함평군

(4) 주 관 : 함평군 축제추진위원회

(5) 장소 및 기간

년도별	장 소	기 간
2004	나비 축제장(함평읍 내교리)	6일:11.2(화)~11.7(일) - 6일간
2005	〃	17일:10.28(금)~11.13(일) - 17일간
2006	함평자연생태공원(신광면 가덕리)	17일:10.27(금)~11.12(일) - 17일간
2007	〃	24일:10.26(금)~11.18(일) - 24일간
2008	〃	26일:10.29(수)~11.23(일) - 26일간
2009	함평 엑스포공원(함평읍 내교리)	25일:10.29(목)~11.22(일) - 25일간

(6)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비 고
1,050	70	90	90	150	200	450	

※ 소모성 축제 경비임(자산 취득비 및 기반 정비비 별도)

(7) 후 원

: 농림수산식품부(농림부), 농촌진흥청,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 농협중앙회함평군지부, 전남대학교 국화연구회, 대한민국 국화동호회등

3) 전개과정

나비축제장이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기반 시설을 갖추게 되면서 나비생태관, 원예치료관, 친환경농업관 등 전시공간도 확보되었다. 그러나 나비축제 이후에는 유휴 시설로 방치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에 국화 전시회가 발의됨에 따라 나비축제장을 활용하여 국화전시회를 갖기로 결정하고 전시회의 명칭도 나비의 고장을 강조하고 나비 축제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2004 가을나비축제」로 정하여 2004. 11. 2 ~ 11. 7(6일간)기간 동안 개최 한 바 관람객들의 뜨거운 반응에 전시회를 늦가을의 관광 상품으로 정착 시킬 수 있다는 충분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확신 속에 2005년에는 더욱 짜임새 있게 준비하고 전시회 명칭도 새롭게 공모 한 바 당시 농업기술센터 박우규 소장이 응모한 「대한민국 국향대전」으로 정하여 「2005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17일간 개최하였다.

나비축제로 얻은 명성과 새로운 연출 기법에 매료되어 나비축제에 버금가는 관광객들의 호응에 주최 측에서는 전시회 자체를 본격적으로 축제화 시키자는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그러나 농경지와 연접된 나비축제장은 신록이 우거지는 봄에는 나비축제장으로서의 정취가 있지만 가을걷이가 끝난 들판은 늘 황량하기 때문에 꽃을 주제로 한 축제장으로서는 그 분위기

가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2006년 7월에 개장한 대동면 운교리 소재 함평 자연생태 공원으로 개최 장소를 옮기기로 결정하였다.

자연생태공원은 저수지를 끼고 산속에 위치한 관계로 주변 가을 단풍을 차경으로 삼으면 국화 작품 연출이 나비축제장 보다 훨씬 용이하고 진입로 주변이 농경지임으로 국화 들녘 연출이 가능했다. 이러한 입지 여건 때문에 국향대전은 유명세를 타게 되었고 해를 거듭 할수록 밀려드는 관광객 수용이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다. 휴일에는 인근 마을은 물론 공원 진입부 국도 23호선 4차선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할 만큼 극심한 주차난을 겪게 되고 생태공원이 군의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관람을 마친 관광객은 식사 등을 하기 위해서 인근 영광이나 고창지역으로 유출되는 경향이 있어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반감되는 실정이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출면에서 자연생태공원에 비해 다소 한계가 있지만 관광객의 접근성과 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을 뿐 아니라 함평읍 시가지와 연접되어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월등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엑스포 공원」으로 축제 장소를 2009년부터 옮기기로 결정하였다.

그동안 축제장 운영은 문화관광과를 총괄 부서로 정하고 각 실과별로 해당 업무와 연계하여 분담 추진하되 함평군 축제추진위원회의 주관 하에 유관기관, 각종 자생단체가 참여하여 추진하였다. 특히, 자생적 취미활동 모임인 「대한민국 국화 동호회」와 「전남대학교 국화 연구회」의 적극적인 참여도 행사 운영에 큰 보탬이 되었다..

4) 준비과정

국화축제는 국화 작품의 원예적 가치와 예술성을 감상하고 늦가을의 풍요로운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봄철 나비축제에 이은 또 하나의 명품 축제로서 4계절 내내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관광 함평의 입지를 다지는 한편 이를 밑돌삼아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목표가 내재되어 있다.

국내에는 수백 개의 크고 작은 국화 전시회가 열리고 있고 「대한민국 국화협회」는 일제 강점기에 결성한 이래 60여회의 전시회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후발 주자로 참여한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그들을 압도하고 최고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내용면에서 타 전시회와 철저한 차별화와 규모화가 필요했다. 그 동안의 국내 전시회는 다륜작·현애작·입국작·복조작 등이 주류를 이루고 가끔 모형작을 곁들여 전시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었다. 이러한 정형화된 국화 전시회의 틀을 깨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국화 작품 개발과 작품 제작에 걸맞은 신품종 육종이 필요했다. 이러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추진부서를 어메니티계로 지정하여 이순영 과장의 지휘 하에 임광섭, 고찬훈, 최선희 지도사가 전담하여 신품종육성, 국화분제, 국화산경, 테마작품, 대형 모형 작품에 대한 기술 습득과 병행하여 직접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제작 기술과 회장 연출 기법을 조직 내부에 축적시키는 결과를 얻게 되고 이는 회를 거듭 할수록 진화 되었다.

또한 함평 국화축제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유발시키고 국화 작품에 대한 관심 있는 일반인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국화동호회」를 전국적으로 모집하여 결성하고 이들을 직장인 반과 일반인 반으로 구분하여 매년 3~10월까지 격주 또는 매주 1회씩 농업기술센터로

집합시켜 고찬훈 지도사가 직접 이론 교육과 병행하여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실습과정에서 만들어진 작품(분재작·모형작)은 축제장 내 일정 공간에 전시하고 이를 품평하여 2006년도부터 우수 작품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등 각급 훈격을 시상함에 따라 보람과 긍지를 갖게 되어 매년 전국에서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동호회 활동을 통해 습득한 국화 분재 기술은 전국 각지의 국화 전시회로 전파 되고 있다.

지역별 참여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국화 동호회 년도별 가입현황

(단위 : 명)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비고
3,005	400	1,034	482	410	367	312	

※ 자료제공: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 대한민국 국화 동호회 권역별 가입 현황

(2009. 3. 21 현재)

권역별	가입인원		2009 교육 참석 현황		비고
	인원	점유율	인원	점유율	
계	2,693	100	312	100	
함평	533	19.8	64	20.5	
목포	271	10.1	45	14.4	
전남	725	26.9	70	22.4	함평·목포 제외
광주	940	34.9	105	33.7	
수도권	61	2.3	6	1.9	
충청	24	0.9	4	1.3	
전북	90	3.3	10	3.2	
영남	48	1.8	8	2.6	
제주	1	0	0	0	

※ 자료제공: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5) 행사내용

(1) 개막행사

식전·식후행사는 물론 개식사, 축사 내빈 소개로 이어지는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되는 별도의 개막식 등 요식 행사를 과감히 생략하고 개막일 09:00에 축제장 입구에서 축제 추진 책임자와 초청 내빈과 함께 테이프 절단 및 축하 나비 날리기와 축제장 개장을 알리는 팡파르를 울린 다음 관람객과 함께 자연스럽게 축제장을 관람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임과 동시에 전야제, 식전행사, 개막식, 식후 축하 공연, 각종 공연 행사등으로 요란하게 진행하는 타 축제와는 달리 간단한 개장식에 그침으로써 개막식부터 확실하게 차별화 시켰다.

(2) 축제장 연출

가) 국화전시

최초로 개최되는 「2004 가을나비축제」는 국화 전시회를 처음 시도하는 해 임으로 작품의 내용이 관행적인 타 전시회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다만, 전시장 동선 주변에 가을곤충 등을 배치 가을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수 있도록 배려했다.

「2005 대한민국 국향대전」부터는 그동안 국내에서 선보여 왔던 모든 작품에 비하여 질과 수량 면에서 규모화 시키고 국화를 이용한 분재 작품을 석부작, 목부작, 일반 작품 형태로 추가하여 국내 최초로 선보임으로써 국화 전시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2006년 이후 장소를 함평자연생태공원으로 이전한 후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대형 기획 작품과 특별 전시물을 추가하고 특히 생태공원 진입부에 10,000여평의 오색국화 들녘을 조성하여 관람객들의 폭발적인 호응과 탄성을 자아내게 함으로써 단번에 대한민국 최고의 국화 전시회로 부상하게 되었다.

나) 축제장 경관 연출

① 나비축제장(2004~2005년)

나비축제 전시 공간인 나비생태관(2,116㎡)과 원예치료관(1,322㎡)에 국화 작품을 중점 전시한 가운데 살아있는 가을벌레를 곁들이고 카나리아 등 12종의 조류를 방사하였으며, 친환경 농업관(1,322㎡)에는 희귀 호박 품종, 이색 농산물, 우리군 농·특산물을 전시하고 실외 광장에는 국화동산, 호박탑, 국화 포토존, 읍면별 허수아비 작품을 전시하였다.

② 함평자연생태공원(2006~2008년)

생태공원 자체가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원 내 관람 동선에 따라 각종 기획 작품과 특별 전시물을 배치하고 호박, 솔방울, 찔레 등 가을 열매 식물과 고추·옥수수·조·볏단 등 가을걷이 곡물 및 채소류를 활용한 각종 조형물을 생태공원 직원들의 주관 하에 제작, 축제장 곳곳에 조화롭게 배치하여 가을의 정취와 함께 야외 전시 국화 조형물이 돋보이게 하는 한편 생태 녹지섬에 조, 수수, 콩, 볏단, 기장 등을 전시 연출하여 학습장화 하였으며 특히 공원 입구 오색 국화 들녘은 관람객들을 축제장 초입부터 감동시켰다.

다) 체험행사

짚공예·수수깡 공작물 만들기, 추수체험(절구질, 멧돌질, 타작 등), 항아리속 군밤줍기, 고구마 구워먹기, 콩 볶아먹기, 뻥튀기, 전통민속놀이(투호, 널뛰기 등)를 기본으로 매년 실행했다. 또한 장소를 자연생태공원으로 이전 후에는 한국 춘란 전시 및 화분 심기와 국화따기, 국화 차 만들기 등 국화 관련 상품 만들기 체험이 추가되었다.

라) 문화행사

고정 무대를 설치하여 진행하는 공연 행사는 당초부터 지양해 왔다. 국화 전시와 관련 있는

꼭 필요한 행사와 생태 관광과 연관된 문화행사를 매년 다양하게 개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년도별	문 화 행 사 내 용	특별이벤트
2004	·특이행사 없음	·황우석 포토존
2005	·시낭송회, 호남가경창대회(보건소 열린무대)	·멧돼지 스파링
	·향토작가 특별 초대전(노인회관)	
2006	·연극인 박정자 초청공연(민예학당)	
	※ "엄마는 오십에 바다를 발견했다"	
	·한국전통음악 보존 및 계승학술연구발표(생태공원 집회동)	
	·문화관광 해설가 전국경연대회(생태공원 집회동)	
2007	·문화난장(민예학당)	
	·황승옥 예술단 노인위안잔치(생태공원 집회동)	
	·제2회 문화관광해설가전국경연대회(생태공원 집회동)	
	·남도노동요 시연	
2008	·국화음식 페스티벌(생태공원 집회동, 20팀)	·오바마 포토존
	·제3회 문화관광해설가 전국경연대회(생태공원 집회동)	
	·나비 국화 관련 시 낭송회(기획 작품 전시장)	
	·함평 예술인 합동 작품 전시회(특별 전시실)	
	·나비작가 김혜정 초청 전시회	

※ 년도별 문화행사 개최 현황

바) 개최성과

① 총 평

국향대전은 봄철 나비축제의 화려함보다는 가을의 고즈넉하고 심플(simple)함을 고조 시키기 위해 문화예술행사나 공연 행사는 가급적 지양하고 국화작품 전시를 통한 가을의 정취에 젖게 함과 동시에 체험 위주로 운영한 결과 관광객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내면서"환상적이다", "전국에서 와 볼만하다", "역시 함평이 최고다","함평에서 준비한 축제는 역시 명품이다"라는 찬사와 함께 매년 관람객 평균 증가율 30% 이상을 기록했다.

또한 5년 동안 입장료 수입만 23억원에 달하고 행사장 판매 수입 역시 24억원에 달하였다. 여기에 지역 내 식당, 숙박업소, 운수업계, 주유소 등 연관 업소의 수익을 합산하면 나비축제와 맞먹는 소득 향상을 이끌어 냈을 뿐만 아니라 나비축제에 이은 또 한번의 성공을 거둠으로써 군민 화합을 이끌어냈고 생태 관광산업의 성공 가능성을 고무시켰다.

이러한 성과를 부러워하는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단이 전국에서 이어졌고 관계·학계·법조계·경제계·언론계 등 각계각층의 인지도 높은 유명인사들이 방문 러시를 이뤄 지역 이미지를 크게 고양시켰다.

② 년도별 입장객

(단위 : 천명, %)

구분	계	2004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계	1,292	117	176	150	219	125	242	111	333	138	205	62
유료	553	-	57	49	77	135	134	174	189	141	136	72
무료	699	117	119	101	142	119	108	-24	144	133	69	52

※ (%)는 전년대비 증가율이며 년평균 관람객 증가율 31%
※ 2009년은 초대권 미발행

③ 년도별 입장료 수입

(단위 : 천원, %)

계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285,931	93,731	0	311,551	332	533,529	171	758,890	142	588,230	77

※ 2004년은 무료

④ 축제장 내 각종 판매 현황

(단위 : 천원)

품 목 별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2,402,246	171,997	266,602	529,478	740,140	694,037
나르다상품	152,410	19,918	15,387	26,778	19,133	71,194
농·특산물	608,824	74,770	56,197	90,500	126,204	261,153
먹거리장터	861,698	72,880	167,608	296,300	162,770	162,140
함평천지 한우직판장	152,450	-	-	-	122,350	30,100
기타 (국화상품,편의점등)	457,414	4,421	27,410	115,900	309,683	169,450

※ 2004년은 판매장 미 운영

※ 년도별 대한민국 국향대전 작품 전시내용

구 분	년도별				
	2005	2006	2007	2008	2009
특별전시	·국화산경포토장 ·금강산 산경	·무지개빛 국화꽃섬(3,300㎡)	·좌동 ·국화동산	·풍악산 국화산경 - 120㎡ ·국화지도로 배우는 한국사 40점	· 좌동 1,980㎡ · 천사의 섬 · 꿈과희망탑
기 타		·국화들녘 33,000㎡ ·국화꽃길 10㎞	·좌동 ·좌동 20㎞	·좌동 ·좌동 30㎞	· 좌동20,000㎡ · 좌동 · 특수화분 1,000점(원형등) · 풍요로운 가을관 등 4개관 운영

3.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개최

구 분	년도별				
	2005	2006	2007	2008	2009
일반작품 전 시	·분재작 ·복조작 ·입국다간작 ·현애대작 ·다륜대작	·신품종 분재작 60점 ·목부·석부분재 작 40점 ·복조작 400점 ·입국다간작 400점 ·현애작 35점 ·다륜대작 35점	·좌동 60점 ·좌동 60점 ·좌동 300점 ·좌동 200점 ·좌동 50점 ·좌동 10점	·좌동 60점 ·좌동 60점 ·좌동 300점 ·좌동 200점 ·좌동 50점 ·좌동 10점	· 좌동 5점 · 좌동 25점 · 좌동 1,000점 · 좌동 430점 · 좌동 42점 · 좌동 5점
				※ 전시장 내 나비 게이트 설치	
국화동호회 작품전시		·분재작 -목부,석부,일반작 300점 ·특수모형작 30점	·좌동 400점 ·좌동 50점	·좌동 200점 ·좌동 28점	· 좌동 600점 · 특수모형작 20점
기획작품 전 시	·다륜 3층 접목작 ·거목목부작 ·대형대한민국지 도 ·반원형대형 국화꽃탑(r:8m)	·한옥형 5층국화 꽃탑(H:8m) ·곤충모형작 8점 ·국화거리조성 직립형 화분(H:2m) 300개	·좌동 ·세계의 풍물조형 (독립문, 석가탑, 첨성대, 거북선, 에펠탑, 피사의 사탑,피라미드등) ·국화터널 70m	·승례문1/2복원 국화꽃탑 ·좌동 ·마법의 성 설치 ·국화만리장성 400m ·대형다륜작 (7그루 2008송이)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곤충모형작10점 · 황소·펭귄· 남극· 대형분재작 등

1)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의 위상

(1) 엑스포의 의의와 특성

흔히 엑스포(EXPO)라 부르는 세계 박람회는 엑스포지션(exposition)의 줄인 말로, 국제적 규모로 개최되는 문화와 산업에 관한 박람회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것을 모아서 펼쳐 보이는 행사"라는 의미에서 박람회라 통칭하고 있다.

국제 박람회 기구(BIE) 협약 제1조에는 엑스포의 개념과 목적을 "세계 박람회는 일반 대중의 교육과 계몽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인류 노력에 의해 성취된 발전성과를 제시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발전을 추구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엑스포의 기원은 서구의 고대 사회에서 찾기도 하지만 근대적 의미의 엑스포는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인 알바르공에 의해 1951년 영국 런던 하이드 파크에서 16개국이 참가하여 140일 동안 개최 한 「수정궁 박람회」를 효시로 보는 견해가 지배 적이다.

이러한 엑스포의 종류는 지역박람회·국내박람회·국제박람회·산업박람회·무역 박람회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성격상 세계 박람회 기구의 공식 적인 인정을 받은 엑스포를 「공인 엑스포」라 지칭하고 이를 다시 매 5년마다 1회 개최되는 등록 엑스포와 등록 엑스포 사이에 개최되는 인정 엑스포로 구분 되며 둘 다 국가의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하여 참가국을 유치 할 수 있다. 이와 대칭 되는 개념으로 비공인 엑스포가 있는데 이는 「10억 이상 국제 행사 유치·개최등에 관한 규정 심의위원회 심의(국무총리 훈령 제391호)」에 의거 정부로부터 승인 받은 승인엑스포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개최하는 지역엑스포로 통상적으로 구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제 박람회 사무국(BIE)이 인정한 전문 박람회로서 1993년 개최된 「대전엑스포」가 최초의 공인 엑스포이다.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는 비록 비공인 엑스포이나 세계 곤충학회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고 정부의 승인을 얻어서 개최된 국제 행사였다.

(2)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의 비전과 목표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는 함평군의 자연적 특성과 인문 환경적 여건을 십분 활용하여 미래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즉, 나비와 곤충이 살아 숨쉬는 천혜의 생태환경과 잘 가꾸어진 함평의 자연적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 이미지를 구체화하고 이러한 이미지를 엑스포를 통해 대외에 홍보함으로써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엑스포를 범국민적 축제로 그리고 전 세계적 모델로 자리매김시킴으로써 곤충을 통한 생물 산업의 메카로 부상해 나간다는 장기적 전략이 내재되어 있다.

세계 유일의 곤충을 소재로 한 엑스포를 지향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는 세계적인 환경 선진국의 위상을 확립한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또한 이를 지역화 하여 21세기 함평의 위상을 확립하고 새로운 문화 관광 이미지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 2008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의 비전과 목표

곤충을 기반으로 한 세계 유일의 환경 엑스포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비전	▶ 지역과 국가 균형발전의 원동력 ▶ 지역혁신의 전환점 ▶ 획기적인 주민소등 증대의 출발점
목표	△ 환경 및 곤충산업의 세계적 집결지화 △ 국내·외 방문객을 통한 관광수익 획기적 증대 △ 사업 투자를 통한 고용효과 창출 △ 지역 브랜드화 및 관련 인프라의 구축
효과	· 국가적 차원 – 세계적인 환경선진국의 위상 확립 · 지역적 차원 – 21세기 함평의 위상 확립과 새로운 문화관광 이미지 형성

2) 개최 배경과 기본 방향

(1) 행사개요

· 명　　칭 :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2008 Hampyeong world Butterfly & Insect Expo, Korea)
· 주　　제 : 미래를 만드는 작은 세계
　　(Small World makes the future!)
· 부　　제 : 기적을 찾아서!(Finding Miracle!) → 곤충
　　작은 세계의 메커니즘!(Mechanism of Small world!) → 환경
　　미래의 꿈!(Dreams of Future!) → 인간
· 기　　간 : 2008년 4월 18일 ~ 6월 1일(45일간)
· 장　　소 : 함평군 함평읍 엑스포공원
· 주　　최 : 전라남도·함평군

· 주　　관 : (재)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 사 업 비 : 391억
　(국비 78억원, 도비 39억원, 군비 149억원, 특별교부세 84억원, 사업외수입 41억원)
· 회장규모 :　약 109만㎡
· 행사내용 : 환경 및 생태·곤충과 연계된 학술, 교역, 전시, 행사 등
· 후　　원 :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부, 환경부, 건설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경기도교육청,　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남도교육청, 한국관광공사, 한국곤충학회, 한국응용곤충학회,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농협중앙회, 금호그룹, (주)세실, 롯데칠성음료(주), (주)티켓링크, 남해고속, (주)더블유오육, 함평천지복분자영농조합법인, 나비랑버섯영농조합법인, 1001안경콘텍트등

(2) 기본방향

가)엑스포 개최를 통하여 환경 및 곤충과 관련한 세계적인 연계 산업들이 함평을 중심으로 결집될 수 있도록 함평 엑스포가 이를 위한 상징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나) 국내·외 방문객을 통한 관람 수익을 획기적으로 증대하는 한편 이 같은 성과가 차후 나비대축제로 이어져 장기적인 관광수입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엑스포 회장 기반시설을 비롯한 회장 조성과 행사 운영에 지역 주민과 업체가 참여토록 하여 고용 효과를 창출해 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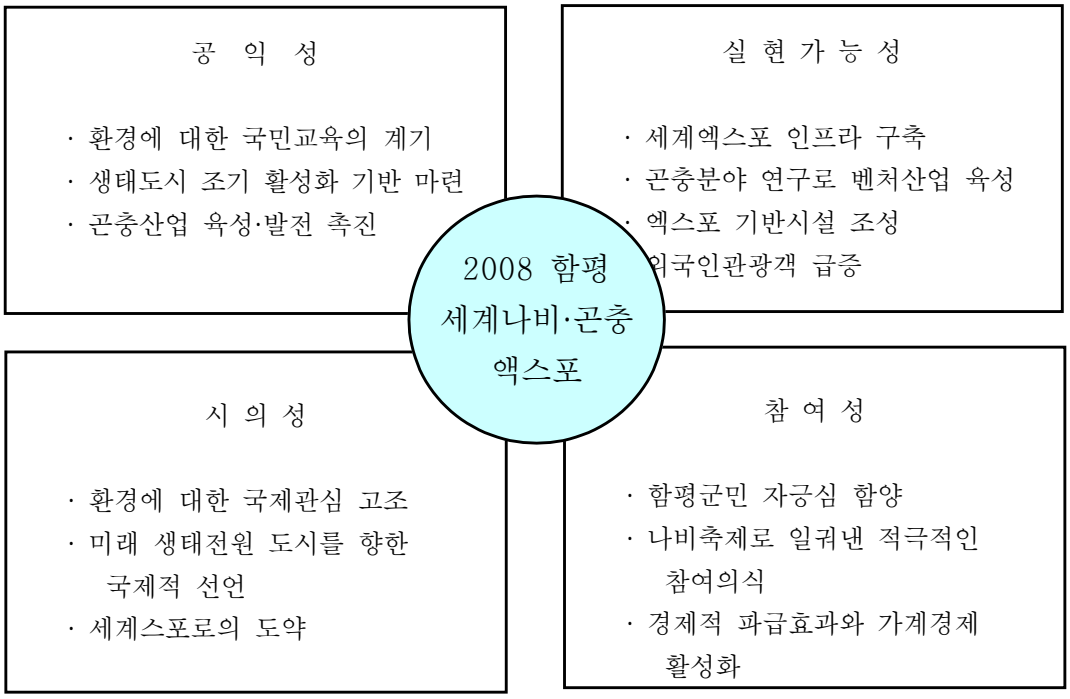
라) 나비축제로 쌓아온 지역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여 고양시킬 수 있도록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의 4가지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이의 실천을 통하여 장기적인 함평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전환점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3) 개최배경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는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나비·곤충을 생물 산업 차원에서 접근하여 함평의 미래를 이끌어 갈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데서 출발한다.

1999년부터 시작한 함평나비대축제는 성공적인 친환경 생태 체험 축제로 국내·외적으로 평가를 받은 바 있고 이를 통하여 주민소득 창출과 지역 브랜드를 고양시켜 모든 함평인이 고장에 대한 높은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 아울러 군민과 공무원이 똘똘 뭉쳐 준비하고 축제장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군민 화합을 도모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문화관광부로부터 우수축제와 3년 연속 최우수축제로 지정받는 영광을 안았다. 함평군 개명 600주년 및 나비대축제 10주년 기념과 더불어 환경과 인간의 조화를 통해 미래를 열어간다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지역적·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상징화 하는데 개최 배경이 있다.

(4) 함평 엑스포의 의의



3) 조직 및 기구

(1) 기 구

가) 이사회 : 10인(당연직 4, 위촉직 6)

· 당연직 : 군수, 함평군의회의장, 전라남도 도의원 2

· 위촉직 : 민주평통함평군협의회장, 문화원장, 농협대표조합장, 농업경영인연합회장, 여성단체협의회장, 출입기자협회장

· 이사회개최 : 총 21회

나) 조직위원회 : 55명

(재)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는 위원장을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부위원장을 이석형 함평군수와 재광 향우인 이정재 전 광주교육대학총장을 선출했다. 위원은 학식과 덕망 있는 각계 인사 중 조직위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였다. 조직위원장은 대내·외적으로 엑스포 행사추진 제반 사항을 대표한다. 그러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수석 부위원장인 이석형 군수가 총괄 대행토록 정관에 명시했다.

○ 조직위원회 구성현황

계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비고
		임명직	선출직	계	관외	출향향우	관내	군직원	
55	1	1	1	52	20	15	10	7	

다) 사무국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기획부와 운영부를 두었다. 기획팀·총무팀·홍보팀·국제협력팀·행사팀 등 5개 팀의 기획부와 운영부 산하에 운영팀·수익사업팀·국내유치팀·시설연출팀·곤충응용팀 등 5개 팀을 둬 1총장 2부장 10팀장 직원 32명 등 45명으로 전원 함평군에서 파견한공무원으로 구성되었다.

○ 사무국 정원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농촌지도사	기능직	비고
45	1	2	9	12	17	1	2	1	디자인 계약직 3명 별도

라)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는 분야별로 전문 지식이나 기술적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계분야 유력인사를 위촉하였다. 또한 학계·행정계·경제계·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자문을 얻기 위하여 부분별 자문위원을 위촉하였다. 전문가 자문위원 위촉은 2006년 6월 15일을 시발로 필요에 따라서 부문별로 추가 위촉 하였고 자치단체장과 기업인을 별도로 위촉하였다.

○ 자문위원 위촉 현황

계	총괄	기획	홍보	행사운영 수익사업	전시연출	곤충응용	자치단체장	기업인	비 고
172 (2)	9 (1)	1	9 (1)	9	12	7	78	47	

※ ( )에서는 외국인 수

마) 고 문

조직위원회 고문은 각 분야에서 경륜과 전문성을 겸비한 국내·외 유력인사를 위촉하였다. 내국인은 행정·교육계 인사가, 외국인은 곤충학계, 교육계와 정계 인사가 비교적 많이 위촉되었다.

계	내국인	외국인	비고
28	19	9	

※ 광역단체장 7명, 교육감 5명 포함

바) 범국민지원협의회

범국민지원협의회는 엑스포 준비 및 운영의 전반적인 지원과 일반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붐 조성 및 홍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했다.

○ 범국민지원 협의회 현황

구분	계	농업	학생	공무원	기타	비고
계	11,543	2,356	1,886	1,369	5,937	
관내	4,955	2,253	989	401	1,302	
관외	6,603	103	897	968	1,635	

사) 지원 조직 구성

① 함평군 지원단

· 총괄지원단장 : 부군수
· 총괄관 : 기획예산실장
· 총괄지원팀 : 1개팀
· 기능별 지원팀 : 8개팀(16개 실과)
※ 조직·의전팀, 도로·교통팀, 관광·숙박팀, 곤충산업육성팀, 보건·환경팀, 재난안전관리팀, 영선·차량지원팀, 마케팅·자원봉사팀
· 보조지원팀 : 2팀(생태공원지원팀, 읍면지원팀→9개 읍면)

② 유관기관 단체 지원 협의회

유관기관·단체지원협의회는 행사준비 및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과 관련하여 기관 단체별로 지원가능한 행정·재정·인력 기술 등 제반 사항에 대한 협조 및 조정 역할을 수행했다.

함평군이 총괄 지원 역할을 담당하며 참여기관·단체별로 고유의 업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지원·협조를 담당했다. 유관기관·단체별 세부 추진사항은 엑스포 조직위원회의 담당 업무 관련 팀과 협의를 통해 원만한 지원 협조체계를 구축 추진했다.

○ 구성 현황

계	기관수	공 사	각종 조합수	공 단	기 타	비 고
24	11	4	4	2	3	

③ 홍보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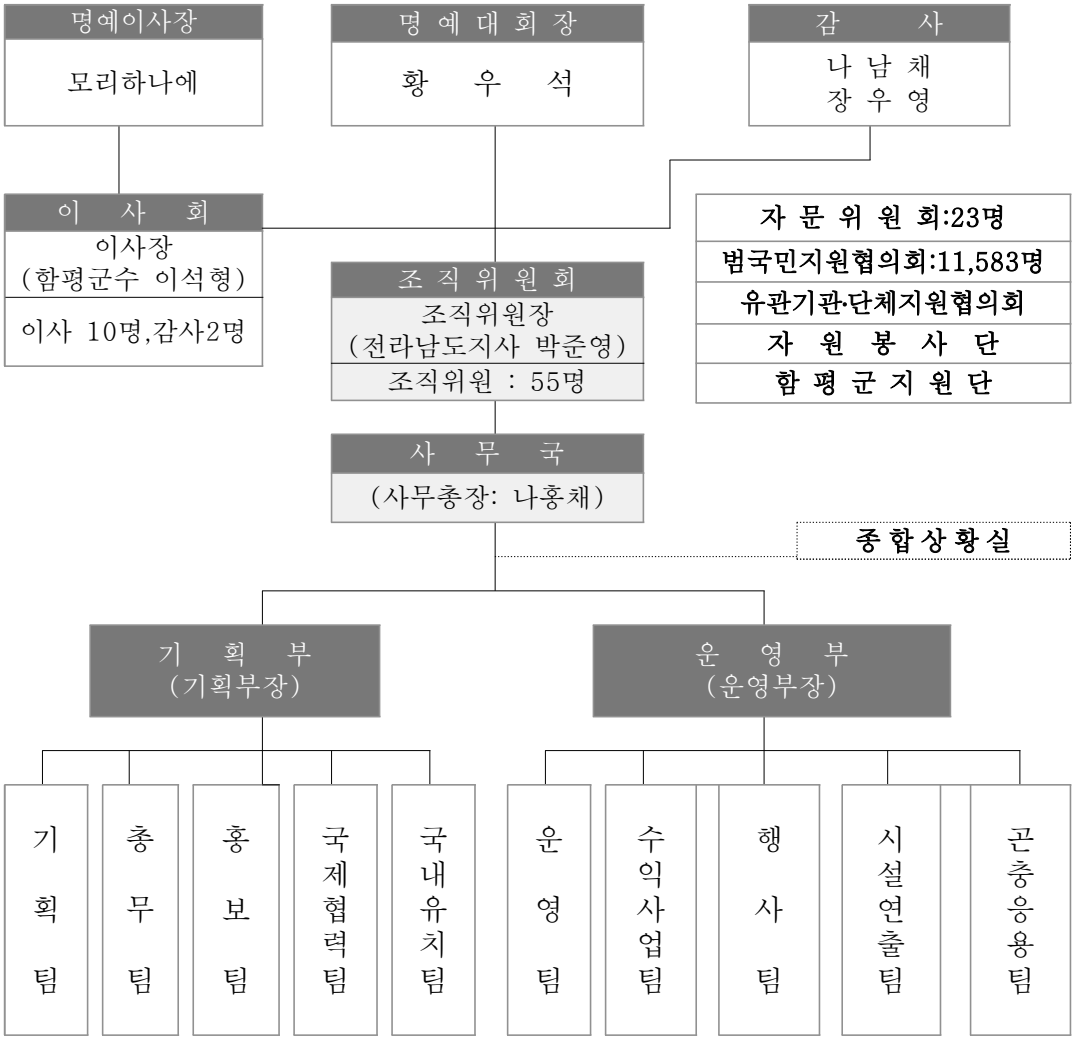
홍보대사는 각 분야별로 엑스포를 대외에 홍보하고 각종 홍보 행사에 참여하며 일반인의 관심을 유도하는 등 2008 함평엑스포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 위촉 현황

계	체육계	방송및연예인	문화계	교육계	기타	비고
70 (7)	16	7 (1)	10 (1)	29 (1)	8 (4)	

※ ( )는 외국인임

(2) 기구표



4) 추진경과

(1) 개요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는 함평나비대축제를 5회째 개최하는 동안 유래 없는 성공을 거둠으로써 나비축제를 세계적인 환경엑스포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이 있었고 그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물밑 분석 작업을 통해 성공 개최의 확신을 갖게 되어 개략적인 사업 계획 등을 마련, 제6회 함평나비대축제를 앞둔 2004년 2월 24일 함평문화체육센터에서 각계각층의 군민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개최를 선포함으로써 그 서막이 올랐다. 그로부터 조직을 갖추고 세부계획 수립· 정부의 승인·회장조성·대외홍보와 관람객 유치·엑스포 운영 등으로 진행된 경과를 정리해 보면 대략 5단계로 구분 할 수 있다.

○ 단계별 주요 추진사항

단계별	시행연도	추진요목
1단계(도입기)	2004	· 엑스포 개최 선포 및 기본구상 · 실무 추진 기획단 발족
2단계(준비기)	2005~2006	· 국제행사 개최 계획 승인 · 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 엑스포 세부계획 수립 추진
3단계(회장조성 및 홍보기)	2006~2007	· 본격적인 홍보 활동 · 나비산업특구 지정 · 엑스포 회장 기공 및 시행 · 도입시설 및 전시메뉴얼 확정 추진
4단계(개최기)	2008	· 홍보의 다각화 · 국제곤충학회와 공조 · 적극적인 유치 활동 및 입장권 예매 · 회장 운영
5단계(마무리)	2008	· 개최 결과 분석보고(이사회, 함평군의회 등) · 결과 보고서 제출(문화관광부) · 차기 엑스포 기본 구상

2) 연차별 엑스포 추진 경과

○ 2004년

일 자	추 진 사 항
2004. 02. 24	·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개최선포 (각계각층 대내·외 인사 1,500명)
2004. 03. 15	· 엑스포 개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 완료
2004. 04. 30	· 곤충산업 학술대회 개최
2004. 07. 20	· 실무추진기획단 발족(김강남 담당 외 3명)
2004. 08. 18	· 엑스포 기본계획 용역 완료
2004. 09. 01	· 엑스포 기본계획 설명회 개최
2004. 10. 27	· 국제행사개최계획서 제출(전라남도)
2004. 12. 10	· 국제행사개최계획서 제출(국무조정실)

○ 2005년

일 자	추 진 사 항
2005. 01. 19	·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 함평엑스포 지지 선언
2005. 01. 21	· 국제행사 개최계획 승인(국무조정실)
2005. 02. 01	· 국제행사 개최계획 국가승인 기념행사(자연생태공원, 5,000명)
2005. 04. 19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행정자치부, 사업비 353억원)
2005. 04. 26	·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공포(함평군 조례 제1795호)
2005. 06. 30	· 엑스포 E·I 개발용역 완료
2005. 07. 12	· 조직위원회 설립 발기인대회(발기인 함평군수 등 10명)
2005. 07. 21	· 재단법인 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허가신청
2005. 08. 04	· 재단법인 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허가(전라남도 제1호)
2005. 08. 09	· 재단법인 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등기
2005. 08. 31	· 재단법인 엑스포조직위원회 사업자 등록 (조직위원장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추대)
2005. 09. 09	· 재단법인 엑스포조직위원회 제1차 이사회 (명예대회장 황우석 서울대 교수 추대)
2005. 09. 13	· 조직위원회 신조직인 사용공고
2005. 09. 22	· 재단법인 제2차 이사회 개회(조직위원 54명 선임)
2005. 09. 23	·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및 총괄 직무대행
2005. 10. 06	· 조직위원회 재산 이전보고(전라남도)
2005. 10. 17	· 엑스포 조직위원회 사무국 개소(2부 5팀 20명)
2005. 10. 20	· 총회, 조직위원회 출범 및 범국민지원협의회 결의행사
2005. 11. 02	· E·I 상표등록 대상품목 선정
2005. 11. 23	· (재)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현판식

○ 2006년

일 자	추 진 사 항
2006. 02. 01	· 엑스포 나비 날리기 성공기원 행사
2006. 02. 16	· 함평·고성엑스포간 자매결연 조인식
2006. 03. 02	· 엑스포 예산 확보를 위한 문광부 방문
2006. 03. 08	·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기념배지 판매(7종)
2006. 03. 09	·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한글인터넷 주소 등록
2006. 03. 13	· 엑스포 디자인센터 개소식
2006. 03. 20	· 종합 실행계획 중간보고회 개최 · 나비·곤충 워크숍 개최
2006. 03. 24	· 연예인 홍보대사 위촉계획 수립
2006. 03. 28	· 김웅남 전라남도 국제관계자문대사와의 토론회
2006. 04. 06	· 제5차 이사회 개최(각종 규정, 수익사업 등 확정)
2006. 04. 28	· 함평곤충응용학회 학술심포지엄 개최 · 엑스포 자문위원 초청방문(독일 크리스티네)
2006. 05 18	· 수익사업 승인(전라남도)
2006. 06. 12	· 볼리비아 호이킹답둡 대사 방문
2006. 06. 15	·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자문위원 위촉행사(23명) · (재)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E·I 사용 승인
2006. 06. 20	· 함평나비산업특구(도시관리계획 변경)승인
2006. 07. 03	· 민선 4기 군수 취임 및 자연생태공원 개원 축가 기념 2008 엑스포 성공기원 나비날리기 행사 개최
2006. 07 11	·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
2006. 07. 21	· 2006 나비·곤충전문가(Meyer-Rochow)특별 초청 강연
2006. 08. 03	· 엑스포 개최시기 및 기간 조정(2008.4.10~5.21→4. 18 ~6. 1)
2006. 08 28	· 기반조성사업 계약 체결 -(주)호반건설

일 자	추 진 사 항
2006. 08. 31	· 2006 내나라 여행박람회 참가
2006. 09. 06	·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남북공동제안 승인 회신
2006. 09. 08	· 2006 광주비엔날레 엑스포 홍보 실시
2006. 09. 12	· EXPO 관람시설 공식명칭 통일 · EXPO 입장권 종류 및 입장요금 확정
2006. 09. 22	· 엑스포 사무국 본격 운영(1총장 2부 10팀)
2006. 09 24	· 2006 중국심양세계원예박람회 벤치마킹 및 엑스포 홍보
2006. 10. 10	· 공익성 기부금 승인(재정경제부)
2006. 10. 19	· 엑스포 기반조성사업 기공식
2006. 11. 09	· G4(한국·중국·일본·대만)국제 난전시회 참석 엑스포홍보,조경수 조사
2006. 11. 10	·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전시영상분야 자문위원 위촉(2명)
2006. 11. 11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걷기대회 2008 엑스포 홍보
2006. 11. 12	· JCA KOREA-서울 세계대회 2008엑스포 홍보- 홍보관 운영
2006. 11. 14	· (재)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제9차 이사회 개최 · 공식상품화권자·공식공급권자 선정 제안공모 사업설명회 개최
2006. 11. 15	· 국제관광박람회(상해) 엑스포 홍보
2006. 11. 22	· 수익사업 유치보상금 지급률 개정 관련 토론회 개최
2006. 11. 24	· 중국 국안광고문화그룹과 업무제휴 협약 체결
2006. 11. 27	· 호주 및 필리핀 해외홍보
2006. 12. 11	· 재단 기본재산 무상증여 허가(전라남도)
2006. 12. 13	· 2008 함평엑스포 공식상품화권자 및 공식공급자선정-범양산업진흥(주)
2006. 12. 14	· 2008 함평엑스포 홍보를 위한 2006 국제체험학습박람회 참가
2006. 12. 15	·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사업계획 변경승인(문화관광부)
2006. 12. 21	·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실내·외 전시연출공사 계약 체결
2006. 12. 29	· 2008 엑스포 해외홍보물 제작 계약 체결

○ 2007년

일 자	추 진 사 항
2007. 01. 09	·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전시영상관 및 부대시설공사 계약체결
2007. 01. 10	· 2008함평엑스포장 및 화양근린공원 조경을 위한 필리핀 벤치마킹
2007. 01. 12	·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휘장사업자 계약 체결
2007. 01. 17	· 국내·외신 기자 초청 설명회 개최 및 관광협력 협약식
2007. 01. 23	· EXPO 함평군 지원단 정례회의 개최(국제나비관 신축 및 전시연출)
2007. 01. 26	· 한글인터넷주소 추가 등록(2008 엑스포, 함평엑스포, 나비엑스포) · 2008 엑스포 수익사업 자문위원 위촉(휘장사업분야-4명)
2007. 01. 30	· 2008 EXPO 마스코트 로마자 표기 활용(Arumi, Daumi)
2007. 02. 05	·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홈페이지 오픈에 따른 이벤트 실시
2007. 02. 12	· EXPO 함평군 지원단 정례회의 개최(엑스포 관련사업 14건)
2007. 02. 13	·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설맞이 홍보(서울·광주 톨게이트)
2007. 02 15	·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수익사업 (영업·임대사업 분야)자문위원 위촉
2007. 02 23	· 2008엑스포 홍보동영상 제작 · 아룸이, 다움이 조형물 설치
2007. 03. 07	·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기반조성사업 통신·전기·소방 계약 체결
2007. 03. 09	· 엑스포 조직위원회 범국민지원협의회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 위촉
207. 03. 13	· EXPO 함평군 지원단 정례회의 개최
2007. 03. 20	·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민간투자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2007. 03. 26	·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기록영상 제작 용역 계약 체결 ·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기반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계약 체결

일 자	추 진 사 항
2007. 03. 30	· 2007국제 봄꽃 박람회시 2008함평엑스포 홍보관 운영
2007. 04. 07	·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기획자문위원 방문 현장 설명
2007. 04. 17	· 제9회 함평나비대축제 초청장 발송 및 2008엑스포 홍보
2007. 04. 18	· 2008 엑스포 D-365 기념행사 개최
2007. 04. 19	·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방문에 따른 엑스포 현장 설명 · 군민건강걷기대회 2008 엑스포 홍보
2007. 04. 21	· 제9차 흥부기행 일행 방문에 따른 엑스포공원 현장 설명
2007. 04. 22	· 2008 함평엑스포 마라톤대회 홍보
2007. 04. 27	· 전국 청년 시장·군수 구청장회의에 따른 엑스포 현장설명 및 기념식수
2007. 05. 01	· 2008 함평엑스포 외신기자단 함평 팸투어 실시 · 제9회 함평나비대축제시 2008 엑스포 홍보관 운영 및 홍보 · '천하오' 홍보대사 위촉 및 외신기자 초청 설명회 개최
2007. 05. 12	· 제2회 살기좋은지역만들기 걷기대회 행사(고령군)참가 엑스포 홍보
2007. 05. 15	· 함평군과 서울 광진구 새마을부녀회 자매결연에 따른 엑스포홍보
2007. 05. 18	· 2008 함평엑스포 D-day 날짜표시판 제작
2007. 05. 21	· 엑스포장 주변 경관연출을 위한 초화류 및 수목 식재
2007. 05. 28	· 엑스포공원 기반조성용 초화류 육묘 이식
2007. 05. 29	· 민간투자사업자 공유재산 사용계약 체결(고성 당항포랜드) · 2008함평엑스포 벤치마킹을 위한 경기도 부천시 관계자 방문
2007. 06. 06	· 제52주년 현충일 추념식 기념 나비 날리기 행사(서울 현충원)
2007. 06. 08	· 2007 명사초청 시·음악회 봄행사 및 2008함평엑스포 홍보(강원도)
2007. 06. 11	· 2008 함평엑스포 해외인터넷 홍보 실시
2007. 06. 14	· 2008 함평엑스포 스포츠스타 홍보대사 위촉(16명)
2007. 06. 15	· 2008 함평엑스포 공식후원명칭 사용 승인(환경부)
2007. 06. 18	· 청목회 회원 및 자매결연 단체 등 자문위원 위촉(40명)
2007. 06. 21	· 2007 북경국제여유박람회 서울시 함평엑스포 홍보
2007. 06. 22	· 2008 함평엑스포 공식후원은행 협약체결(농협) · 2008 함평엑스포 홍보대사 승낙 - 탤런트 고두심
2007. 06. 23	· 각종 행사에 따른 엑스포 홍보(5·18 기념문화센터 등)
2007. 06. 25	· 공식공급자 및 공식후원자 계약체결(3개 업체)
2007. 06. 26	· 2006신세계 E-mart 공항점 전남 농·특산물전 참여에 따른 홍보
2007. 06. 27	· 2008 함평엑스포 공식지정호텔 협약 체결
2007. 07. 03	· 2007 지역혁신 한마당행사 참여에 따른 2008 엑스포 홍보 · 2008 함평엑스포 입장권판매 총괄대행기관 계약(농협)
2007. 07. 05	· 충북 보은군 지역혁신 협의회 엑스포 현장 방문 · 2008 함평엑스포 공식 후원명칭 사용 승인(농촌진흥청)
2007. 07. 06	· 해외 봉사활동을 이용한 엑스포 홍보단 위촉(전남대학교)
2007. 07. 09	· 전국초등교장단 연수회 엑스포 홍보
2007. 07. 13	· 2008 함평엑스포 참가 및 교류 협정 체결을 위한 일본 방문
2007. 08. 01	· 2008 함평엑스포 홍보대사 위촉
2007. 09. 06	· 2008 함평엑스포 입장권 예매개시 기념 더블이벤트 개최
2007. 09. 18	· 2008 함평엑스포 총괄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 · 재경함평향우회 방문 2008 함평엑스포 설명회 개최
2007. 09. 23	· 2008 함평엑스포 추석맞이 홍보-고속도로 영업소 및 휴게소(군 관내)
2007. 10. 08	· 2008 함평엑스포 총괄고문 및 자문위원 추가 위촉 · 제88회 전국체육대회 2008 함평엑스포 홍보관 운영
2007. 10. 09	· 2007 광주충장로축제 2008 함평엑스포 홍보
2007. 10. 10	· 농산어촌투자유치설명회 2008 함평엑스포 홍보
2007. 10. 11	· 2008 함평엑스포 종합업무 보고회 개최 · 2008 함평엑스포 유관기관단체지원협의회 개최
2007. 10. 12	· 제24회 김포문화예술제 2008 함평엑스포 홍보
2007. 10. 15	· 함평군 지원단 지원사업 로드맵 작성
2007. 10. 18	· 제4회 동아시아 국제박람회 참가

일 자	추 진 사 항
2007. 10. 26	· (재)함평엑스포와 대한수의사회 간 업무제휴 체결 · 국향대전 2008 함평엑스포 홍보관 운영
2007. 10. 27	· 제2회 생명평화 친환경농업축제 홍보관 운영
2007. 10. 28	· 제2회 UCLG 제주세계총회 2008 함평엑스포 홍보관 운영
2007. 10. 31	· 국립중앙박물관과 MOU 체결 · 국립중앙박물관과 업무제휴협의 체결
2007. 11. 01	· 중국산동성 관광기자 팸투어 실시 · 광주시초등교장 함평팸투어 실시 · 2008 함평엑스포 임대시설사업자 선정 사업설명회 개최 · 2008 함평엑스포 홍보 및 입장권 예매 안내담당제 실시 1단계(준비단계) 실시
2007. 11. 02	· 문화관광해설가 초청 2008 함평엑스포 설명회 개최
2007. 11. 07	· 함평군과 과학기술부 국립중앙과학화 MOU체결 후속 업무 추진
2007. 11. 08	· 수도권지역 초등교장·교감 함평 팸투어 실시
2007. 11. 09	· 2008 함평엑스포 홍괄고문 위촉
2007. 11. 15	· 2007 경기국제관광박람회 2008 함평엑스포 홍보관 운영 · 2008 함평엑스포 주관여행사 선정 및 협약 체결
2007. 11. 19	· 2008 함평엑스포 홍보동영상 시사회 개최
2007. 11. 30	· 2008 함평엑스포 주제영상캐릭터 포토스팟 제작 완료
2007. 12. 01	· 2008 함평엑스포 범군민 손님맞이 3대 질서 운동 전개
2007. 12. 03	· 2008 함평엑스포 회장 운영 경비 대행업체 선정 추진
2007. 12. 05	· 제3회 문화관광박람회 2008 함평엑스포 홍보관 운영
2007. 12. 10	· 2008 함평엑스포 임대시설운영사업자 계약 체결
2007. 12. 11	· 2008 함평엑스포 TV 홍보방송 개시
2007. 12. 12	· 2008 함평엑스포 경비업무 대행 계약 체결
2007. 12. 17	· 2008 함평엑스포 주관여행사 추가선정 및 협약 체결
2007. 12. 21	· 함평엑스포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계약 체결

○ 2008년

일 자	추 진 사 항
2008. 01. 09	· 2008 함평엑스포 D-100일 기념 행사 개최
2008. 01. 11	· 서울 롯데월드 함평 홍보관 개소 · 2008 함평엑스포 주관 여행사 관광 협약 체결
2008. 01. 12	· 일본 토쿠시마여행업체 함평 팸투어 실시
2008. 01. 15	· 중국산동(제남)관광 함평설명회 개최 · 2008 함평엑스포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2008. 01. 28	· 전국 주요 학원 및 체육관 엑스포 관광객 유치 추진
2008. 01. 29	· 전국농업경영인 이사회 관광객 유치활동 추진
2008. 01. 31	·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 참석 및 엑스포 홍보·예매활동 실시
2008. 02. 02	· 설맞이 2008 함평엑스포 붐 조성 깃발 게시
2008. 02. 05	· 무등산 공원 내 호수생태원 2008 함평엑스포 홍보
2008. 02. 06	· 설맞이 2008 함평엑스포 홍보 개시
2008. 02. 19	·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참석 및 엑스포 홍보·예매활동 실시
2008. 02. 20	· CMB 우리동네 TV 함평군 방영
2008. 02. 21	· 광주지역 산업협의회 기관장 모임 엑스포 홍보
2008. 02. 27	· 2008 내나라여행박람회 2008 함평엑스포 홍보관 운영 · (주)남해고속 관광협약 체결
2008. 03. 10	· 공중파 방송국 스팟광고 제작 및 방송 · 서울시 광진구청 초·중·고등학교장 간담회 엑스포 홍보
2008. 03. 25	· 엑스포 개최 결과 보고서 용역 계약 체결
2008. 4. 18~6.1	· 엑스포 개막 및 운영

일 자	추 진 사 항
2008. 07. 21	· 엑스포 개최 결과 분석 보고(이사회)
2008. 07. 24	· 엑스포 개최 결과 분석 보고(함평군의회)
2008. 12. 05	· 엑스포 개최 결과 보고서 제출(문화관광부)
2008. 12. 23	· 차기 엑스포 개최 기본 계획 수립 용역 계약 체결

5) 회장 기반 조성 및 전시관 등 시설물 설치

(1) 개 요

2008 함평엑스포 개최 장소는 5개 권역을 포괄한다. 즉, 엑스포회장, 화양근린공원, 함평천 저류지(하천 내 인공습지)를 행사장으로 하고 행사장 밖의 1·2주차장과 함평천 둔치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위 치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및 수호리 일원

나) 규 모

(단위 : ㎡)

계	엑스포회장	화양근린공원	함평천저류지	주차장	함평천둔치
1,066,903 (322,738)	147,108 (44,500평)	193,271 (58,464평)	309,092 (93,500평)	87,432 (26,448평)	330,000 (100,000평)

다) 회장 조성 기본 방향

· 엑스포의 테마와 기본 이념을 반영하는 나비 모양 형태로 회장 조성
· 시설별 주제 공간에 맞게 전통·생태적 분위기의 친환경적인 시설물 설치
· 관람객 편의 위주로 조성(음수대, 녹음, 안내시설, 쉼터, 야외전시물, 기타 등)

(2) 회장 구성

가) 기존 시설물 활용

기존 시설 활용 대상은 함평여자중·고등학교 체육관과 나비대축제 기반 시설인 ①나비생태관 ②원예치료관 ③친환경농업관 ④화장실 2동 등이 있다.

○ 함평여자중·고등학교 체육관 → 함평갤러리관(대한민국미술협회 30인 초대전, 관광함평 사진전)
○ 나비생태관(1,652㎡) → 운영관으로 개축
○ 원예치료관(1,983㎡) → 국제곤충관으로 전환 운용
○ 친환경농업관(1,322㎡) → 존치 후 재정비
○ 화장실 2동 → 존치

나) 신규 도입 시설

① 영구시설 : 주제영상관, 국제나비·곤충표본관, 화석관, 한국토종민물고기전시관, 그린어메니티관, 남이나라대사관, 3L하우스홍보관, 농·특산품전시관, 1·2주차장
② 임시시설 : 기념품타운, 자치단체·기업홍보관, 중국관, 버드하우스작품전시관, 식당, 웨건, 편의점 등

(3) 연계사업

가) 화양근린공원

화양근린공원 내 시설로는 체육시설(체력단련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광장 및 공원(연결 광장, 야외공연장,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미로, 야생화단지 등), 전시·자료시설(황금박쥐생태관, 숲속의 곤충마을 등), 도서관(관리사무실, 열람실, 세미나실 등), 기타(화장실 3동, 정자, 주차장 등)가 있다. 이러한 시설의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원시설 활용 : 황금박쥐생태관, 숲속의 곤충마을, 야외공연장(주무대), 산책로,어린이놀이터, 미로, 야생화단지, 화장실 등
② 연계활용
㉮ 게이트볼장 → 피크닉장
㉯ 족구장 → 보조무대, 연 날리기 체험장
㉰ 근린공원 주차장 → 피크닉장, 임시진료소, 임시파출소, 119대기소
㉱ 도서관 → 대한민국 인간 문화재 공예품전

나) 함평천 저류지(함평천 자연하천 복원사업 2지구)

함평천 저류지 내 시설은 실개천, 호수, 관찰데크, 수생식물식재지, 야생초 화원, 식이식물원, 호습성식물원, 산책 및 탐방로, 이벤트광장 등이다. 이곳에 도입한 시설은 대부분 체험시설로 대형 여치집조형물, 보리·완두그스름체험장, 마꾸라지잡기 체험장, 파충류체험장, 동물농장, 가축몰이체험장, 오리배체험장, 천연염색체험장 등이다.

다) 금호아시아나관

금호그룹에서 함평엑스포조직위원회에 20억원을 협찬하여 철골 판넬조 2층을 신축하였다.

국내 30대 기업 중 유일한 협찬사이다. 이는 금호그룹 창업자인 금호 고 박인천 회장의 유지인 사회공헌을 위해서 박삼구 회장 주도하에 기탁하였다. 이 건물 1층에는 화석관, 나비·곤충표본관, 한국토종민물고기전시관이 들어섰고 2층은 식당을 겸한 다목적 집회동으로 꾸며졌다.

라) 기타

① 신규사업 : 국도 24호선 1.8km 4차선 확·포장(162억), 황금박쥐생태관 조성사업, 엑스포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유치, 나비랜드 유치, 회장조경 도시숲사업, 지중화사업 등 7건
② 기존사업 : 함평천 자연하천복원사업, 화양근린공원조성사업(소도읍육성), 오수차집관로 매설, 소하천정비 등 4건

(4) 관리 시설현황

가) 실내 전시시설

구분	시설명		규모	내용	비고
1	주제관	소 계	2,996㎡		나비특구
		영 상 관	306㎡	207석 규모 3D입체영상관	
		하천홍보관	375㎡	함평천이야기를 주제로 한 5개 테마관	
		프리쇼룸	148㎡	나비곤충을 주제로 한 프리쇼 공간	
		R & D 관	94㎡	곤충 게놈프로젝트 테마관	
		사무실 등 기타	2,073㎡	사무실, 화장실, 모유수유실 등	
2	금호관	소 계	1,471㎡		나비특구
		화 석 관	80㎡	화석으로 본 곤충의 진화와 출현	
		표본전시관	282㎡	국내·외 나비·곤충표본전시관	
		토종민물고기관	282㎡	국내토종민물고기 112종 1,966마리전시	
		휴 게 실 등	827㎡	휴게실, 화장실 등(2층)	
3	생태관	소 계	5,794㎡		나비특구
		국제나비관	1,844㎡	국제나비생태관	벤로형유리온실
		국제곤충관	1,980㎡	국제곤충생태관	와이드스판형 비닐온식
		친환경농업관	1,322㎡	친환경농업생태관	벤로형유리온실
		준 비 실	648㎡	나비·곤충에 필요한 초화류 보관소	비닐하우스
4	테마전시관	소 계	1,369㎡		화양근린공원
		숲속의곤충마을	676㎡	나비곤충 모형을 통한 곤충마을 테마관	나비도서관
		황금박쥐테마관	693㎡	순금 162kg의 황금박쥐모형등 테마관	별도건물
5	친환경농산물전시관		99㎡	우리 군 친환경 브랜드 전시관	나비특구
6	육아휴게실		50㎡	모유수유실, 어린이휴게실	〃
7	그린어메니티관		645㎡	농림부 및 지자체 어메니티 홍보관	막구조
8	운영관		1,656㎡	행사기간 운영관 및 창고 활용	별도건물
9	중국관		398㎡	중국 음식 판매 및 전시(휴게시설)	중국풍 대나무건물
10	민속주점		51㎡	한국 전통 음식 판매 식당	목조 초가
11	남이나라홍보관		27㎡	남이섬 홍보관 및 휴게시설	목조 와가
12	함평나비랜드		3,960㎡	12종 놀이시설	민자유치

나) 야외시설

시 설 명		계	EXPO회장	화양근린공원	생태습지공원
시설물	야 외 화 장 실	6개소	3개소	3개소	
	야 외 공 연 장	2개소	1개소	1개소	
	목 재 데 크	1개소			1개소
	어린이놀이터	1개소		1개소	
	체 육 시 설	2개소	1개소	1개소	
	게 이 트	3개소	3개소		
	기 념 비	3개소	2개소	1개소	
	가 로 등	246개	160개	85개	1개
	웨 건 판 매 대	25개소	25개소		
전시물	포 토 스 팟	3개소	3개소		
	거 대 곤 충	15개	15개		
	상 징 조 형 물	1개소	1개소		

시 설 명		계	EXPO회장	화양근린공원	생태습지공원
	미 로 원	1개소		1개소	
편의시설	의 자	147개	24개	113개	10개
	정 자	10개소	5개소	4개소	1개소
	음 수 대	9개	2개	7개	
교량	목 재	10개소	5개소		5개소
	암 거	2개소	1개소		1개소
산 책 로		4,050m	650m	500m	2,900m
분 수		7개소	6개소		1개소
주 차 장		89,032㎡	87,432㎡	1,600㎡	

6) 전시연출

(1) 전시연출 기본방향

엑스포 회장의 전시 연출은 실내연출과 실외연출로 구분하고 기본 방향은 ○ 주제적 차원에서 환경과 곤충·인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연출적 차원에서 '테마의 연출'과 '공간의 변화'가 있는 연출을 통해서! ○ 환경적 차원에서 생태 환경을 적극 이용한 전시공간은 교육의 장으로! ○ 운영적 차원에서 관람객 및 함평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의 장으로! 정하였다.

시 설 명	규 모	내 용	관리운영
국제곤충관	1,980㎡ 와이드스판 비닐온실	· 국내·외 곤충 85종 15,310마리 방사 ※ 외국곤충 45종 1,606마리(말레시아,대만,일본) · 대형금강산 조경(300㎡) · 옛마을 풍경, 닥종이 미니어처(동심의 세계 연출) · 생명 산업 누에관(60㎡) · 12단계 누에생태, 특이누에 113종, 특허품 누에고치 53종 등 · 관찰원(벌, 수서곤충, 잠자리, 개미 등) · 실내조경(초화류 및 야생화 74종 64,721본) · 기타(수서생물, 곤충 로봇 등)	·곤충응용팀 ·전라남도 잠종장
국제나비관	1,844㎡ 벤로형 유리온실	· 국내나비 23종 290,295마리 방사 · 국외나비 27종 19,116마리 방사 · 나비 우화장 및 나비의 한살이 연출 · 국제교류관(필리핀 팔라완) · 국화분재 및 야생화 동산 · 대형 포토장 · 실내 조경(먹이 및 흡밀식물 103종 50,199본) · 기타(나비모빌, 성공기원 연, 로봇 등)	·곤충응용팀 ·곤충연구소
전시영상관 (주제관)	2,997㎡ 지하1층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 270석 규모	· 주제전시관(143㎡, 프리쇼 전시공간) – 촉감, 영상, 움직임, 소리, 지식을 테마로 한 다섯가지 작은 세계 체험 · 주제 영상물 "아하!나비구조대" 풀3D애니메이션 상영 · 함평천 홍보관 · 나비곤충 R&D관	·시설연출팀
나비곤충 표본전시관	282㎡	· 국내외 450종 9,000마리 나비곤충 표본 전시	·시설연출팀

시 설 명	규 모	내 용	관리운영
토종민물 고기전시관 (과학관)	282㎡	· 한국고유민물고기 111종 수계별 전시 – 서한아지역, 남한아지역, 동북한아지역 · 국내외 민물고기 112종 1,966마리 전시 · 포토존, 대형 수족관 등	·시설연출팀
화석전시관	80㎡	· 함평에서 출토된 곤충식물 화석 전시 · 화석의 복원 영상물 방영	·시설연출팀

(2) 실내전시

시 설 명	규 모	내 용	관리운영
친환경 농업관	1,323㎡ 벤로형 유리온실	· 선인장동산, 논두렁, 연밭수생식물 관찰폭포, 우물가, 앵두나무, 숲속의 계곡, 버섯모음전, 낱가리, 숲속의 동물가족, 토끼와 자라동산, 목장 · 사군자동산, 성황당, 연못, 수박참외밭, 고추밭, 호박밭, 돌탑, 전통농기구, 다락밭, 열대과수원, 다년생과채류, 천적농업 및 친환경농업시연등 · 농작물 250종 13,901본(주) 식재 – 유실수 18종 48주, 약용식물 29동 3,528본, 관상용호박 31종 1,625본, 야채류 11종 2,500본. 특용작물 28종 4,200본, 쌈채소 15종 1,000본, 선인장 50종 1,000본	·곤충응용팀 ·친환경농산과
황금박쥐 생태관	693㎡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반지하	· 순금 162kg, 은280kg으로 제작된 황금박쥐 조형물 전시 · 황금박쥐 표본 1점 · 박쥐의 일대기, 박쥐와 인간과의 관계, 황금박쥐 분포도등 박쥐의 생태에 대한 판넬 전시	·환경보전과
그린 어메니티관	645㎡ 막구조 스프링텐트	· 농림부 주제관 2개관 · 자치단체관 6개관 – 제천, 한방엑스포, 보령시머드축제, 여수엑스포, 고성공룡엑스포, 우포늪(람사르총회), 함평나비 축제 등 홍보관	·국내유치팀
갤러리함평	430㎡ 함평여중 체육관	· 한국미술협회 선정 30인전(나비곤충 소재 그림) · “하늘,땅,바람과함께 함평을 보다”주제로한 전문 사진작가 사진작품 50점 전시	·시설연출팀
숲속의 곤충마을	676㎡ 철근콘크리트 스라브3층	· 숲속의 곤충들의 4계절 생활을 상상한 미니어처 작품으로 연출 · 5종 미니어처 100점	·건설과
농특산품 전시관	100㎡ JCI모형	· 함평의 농산물, 특산품, 각종 가공식품 전시	·친환경농산과
버드하우스 프로젝트유치	900㎡	· 새집과 지구환경 문제를 연계한 14개국 유명 작가 86명 67점 전시 – 건축가 4명, 산업디자이너 10명, 우주디자이너23명, 공항디자이너6명, 자동차 및 요트디자이너 9명, 미술관디자이너6명, 일본 및 한국학생 12명	·국제협력팀

(3) 야외전시

가) 게이트

① 정　문 : 이미지다리 1식, 나비바람개비 17개, 파라솔 5개, 게이트검표소 4개, 엑스포 로고싸인물 3(엑스포주제, 종합안내 ,시설이용), 대형토피어리
② 북　문 : 엑스포로고, 게이트, 파라솔, 검표소 3개
③ 매표소 : 매표소 6동 12개 창구(정문3, 북문3), 매표 안내 사인 2개

나) 상징조형물

① 작 품 명 : 꿈·사랑/함평2008(Dream, Love Hampyeong 2008)
② 재　　질 : 도장용 내기후성 특수강철, 내방수성·내약품성 특수도장
③ 기안자재 : 마천석 화강암
④ 규　　모 : 가로 5.5m.× 새로7m × 높이 7.7m
⑤ 좌대규격 : 지름 9m × 높이 2.5m
⑥ 감상동선 공간 : 2008× 2008× 50(H/m)
⑦ 제 작 자 : 홍익대학교 변건호교수

다) 조형전시물

① 주제영상 캐릭터 포토스팟 : 3개소 23점(대형1, 소형2)
② 거대곤충조형물 : 6종 18마리(장수풍뎅이, 메뚜기, 사슴벌레, 무당벌레, 사마귀, 하늘소 등 각 3마리)
③ 조형의자 : 24개(단면 타입1개, 양면 타입12개)
④ 벽화 : 7개소(각종 수·배전반 등)

라) 기타 전시물 : 꽃예술작품, 곤충애벌레모형부착형가로등, 나비곤충모형싸인물 등

(4) 경관조성

가) 개요

회장 내 경관관리 실면적 46,732㎡와 연접된 함평천 저류지와 화양근린공원과 함께 검토하여 일관성을 유지시키고 회장 전체가 평면 공간이므로 대형 교목으로 변화를 주는 한편 엑스포 회장 내는 포트묘를 식재하여 통일감과 조형미를 표출시켰고 화양근린공원과 함평천 저류지는 사스타데이지, 꽃양귀비, 수레국화, 안개꽃, 유채, 갓 등을 식재 또는 씨 부림하여 자연미와 봄의 정취를 느끼게 함으로써 화훼 박람회보다 더 아름답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 수목 및 초화류 식재내용

· 교목 : 소나무 등 42종 1,680본
· 관목 : 홍가시나무 등 18종 33,295본

· 지피식물 : 백문동 등 4종 8만본
· 초화류 : 14종 38품종 471만본

다) 분화

13종 14,740본(능소화 ,브겐베리아, 꽃완두콩, 꽃양귀비, 해바라기, 붉은엉겅퀴, 수국, 수련, 붉은아카시아, 송엽국, 꽃창포, 휑킹용사피니아등)

라) 경관시설물설치 : 3종 21개소(벽화수, 조형열주, 지구본 꽃탑)

(5) 남이나라 대사관

함평 엑스포와 업무 협약 관계를 맺고 있는 (주)남이섬이 엑스포 회장 내에 변형 원두막 형태의 목조 와가로 신축한 건물로서 행사 기간 동안 관람객 쉼터로 활용하였다.

(6) 기타 전시시설 – 3L하우스 홍보관

(주)제로하우스에서 1동 50㎡를 인슈블럭을 이용하여 엑스포 회장 내에 신축한 에너지 절약(1㎡당 3L/년 석유소비)형 건물로서 CO_2절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건축한 것이다. 행사기간 동안 수유실 및 제로하우스 기업 홍보관으로 활용하였다.

7) 홍보 및 관람객 유치 활동

(1) 전개과정

엑스포의 성패는 우선 목표 관람객 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고 관람객 유치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홍보활동 전개 여부가 관건이다. 그동안 나비축제로 다져온 명성과 기반 위에 자연과 곤충을 소재로 개최되는 함평 엑스포임을 중심 부각하고 인간을 둘러싼 자연과 환경을 배려한 국제적 행사로서의 위상을 부각시키는데 홍보의 주안점을 두었다.

시기별로 컨셉을 정하여 지역별·계층별로 특화 활동을 전개하면서 조직위원회를 구심점으로 하여 행정지원단과 기관단체 지원협의회 그리고 민간이 전 방위적으로 함께 하였다.

광역홍보는 방송·신문·잡지 등 대중 매체 및 인터넷 등 온라인 홍보에 중점을 두었고 직접 홍보는 방문 설명회 및 초청 팸투어, 홍보관 설치, 대도시 다중 밀집지역과 교통량이 많은 곳에 홍보물을 설치하거나 직접 배부하였다. 그리고 광고 및 홍보 대행사 위탁, 주관 방송사 및 협력 방송사를 선정 활용함으로써 홍보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였다.

이와 더불어 지역별 주관 여행사 지정을 통하여 관광객 유치 및 홍보의 거점기지를 마련하였다. 특히 행정 지원단은 각 실·과·소별로 광역 시·도 단위의 관람객 유치 책임제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각급 향우회를 방문, 단체 관광객 유치 활동을 펼쳤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재외공관 및 재외한인회에 각종 홍보물을 발송하고 E—mail 홍보를 실시하면서 국내 외국인 집단 거주지를 방문 유치 활동을 펴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인 홍보활동과 관람객 유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2) 홍보 및 유치 활동 체계 구축

요 목	추진기간	사업규모	내 용
홈페이지구축	'07.2.5~종료시	1식	· 엑스포개요, 준비과정, 행사진행사항소개 – 각종 공지사항, 주민 참여코너 등
홍보대사위촉	'07.3~'08.4 (14개월)	5개 분야 65명	·해외(5), 스포츠스타(17), 예술인및연예인 (12), 초등학교 교장(27), 기타(4)
주관여행사선정	'07.11.15	22개업체	· 전국 시도별 1개 업체이상, 모객시 특전제공
공식숙박업소지정	'07.6.27	9개 업체	· 호텔 : 객실 800실 2,238명수용 – 광주, 목포, 영암, 신안, 장성 · 관내 : 85개소 1,600명(모텔, 민박 등)
광고대행사지정	'08.3~6(4개월)	1개사 (아시아애드)	· 중앙지신문광고, 인터넷광고, 배너광고, UCC송출등
주관 및 협력 방송사 선정	'08.3~6(4개월)	3개사	· 주관방송사 : KBS · 협력방송사 : 목포MBC, KBS

(3) 각종 홍보물 제작·설치

요 목	기 간	규 모	내 용
인 쇄 물	'07.1~'08.3 (15개월)	10종 267천부	·포스터, 브로슈어, 리플렛7종, 책자 등
유치판촉물	'06.10~'08.1 (16개월)	6종 39천점	·풍선, 메모지, 핸드폰액정크리너, 기념뱃지, 기념액자, 명함지갑, 공기청정기, 3D페이퍼등
교통시설물홍보	'08.2~5 (4개월)	4종	·KTX영상광고, 지하철와이드광고(서울,부산), 공항플렉스광고(제주,광주), 버스랩핑(군내, 서울)
옥외광고물	–	4종 38개소	· 전광판 3개소(서울,광주), 홍보탑(광주,서울), 야립간판(국도), 육교현판(서울,부산,광주, 대구,경기,경남,경북, 전남,함평) ※ 현수막 200개 별도
홍보동영상제작 (CD, DVD)	'07.2.23	2회 2,000개	· 한·영·중·일어판 13분 · 각종 홍보관, 학교, 여행사, 공공기관등배부

(4) 홍보관 설치

구분	총계	국 내						국 외				
		소계	박람회	각종 행사	국제 공항	백화점	기타 (관내)	소계	일본	중국	대만	호주
횟수	22	16	4	6	1	3	2	6	1	3	1	1

※ 서울 롯데월드 내 상설 홍보코너 운영(년중)

(5) 언론 매체 및 잡지 보도

매체별	계	방송사	통신사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잡지	사보	인터넷	인터뷰
매체수	82개사	9	2	12	13	9	16	12	9	
보도횟수	2,162회	194	426	132	526	211	79	43	432	119

※ 사설 4개사, 칼럼 2개사, 기고문 2개사 게제

(6) 방송프로그램 유치

가) 주관 방송사 운영

주관 방송사 및 협력 방송사는 엑스포에 관한 체계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엑스포 준비 과정부터 행사 진행사항에 이르기까지 뉴스보도, 특집방송, 이벤트후원, 개막식 및 전야제 중계, 특집프로그램 중계, 대형프로그램유치, 광고 등을 수행했다.

나) 유치현황

(단위 : 회)

구분		계	KBS	MBC	KBC	아리랑	KTX	CMB	중국 제남	기타
계		60	28	7	7	2	2	2	1	11
국내	전 국	35	17	5	4		2			7
	지 방	22	11	2	3			2		4
국 외		3				2			1	

※ 기타는 불교방송, EBS, X-sports, 리빙TV, MBN, FTV, TV-K, 경남방송, 부산경남방송, 양천방송, CMB광주방 등,

(7) 함평 팸투어 및 설명회

(단위 : 회)

계	설 명 회					팸 투 어			
	소계	기자단	향우회원	학교장	기타	소계	학교장	여행사	언론인
16	8 (2)	4 (2)	1	1	2	8 (3)	4	2 (1)	2 (2)

※ ( )내에는 외국인 임.

(8) 매체광고

가) 신문·잡지광고 : 55개 매체 59회

계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	주간신문	월간잡지	주간잡지	인터넷신문	계간잡지
54개사/59회	12/12	16/17	13/14	8/10	1/1	4/4	1/1

나) 방송 SPOT광고 : 8개 매체, 3,332회 노출

다) CJ미디어 협찬 광고

· TV SPOT : 13개사 2,081회(CJ미디어, CJ케이블넷)
· LED SPOT : 1,184대 1,182,872회(이마트 대형서점 등)
· 영화관 스크린 SPOT : 34개관 9,044회(CGV 9개 지점)

라) 포털 사이트 검색

· 사이트명 : 네이버, 다음, 네이트, 엠팟, 야후, 드림위즈, 구글, 천리안

· 검색내역

계	웹문서	뉴스	이미지	동영상	블로그	카페글
508,989	479,430	7,303	9,089	747	9,226	3,194

8) 행사

(1) 행사구성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행사는 사전행사, 공식행사, 상설행사, 체험행사, 특별·부대행사로 구성하였으나, 사전행사, 공식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는 행사의 다양성 및 방대성으로 인하여 크게 주무대, 거리무대 및 퍼레이드, 프린지공연, 시가지'나비무대'등 장소별로 구분하여 실행하였다.

사전 행사로는 2006년 10월 19일 엑스포 기반시설공사 기공식 행사를 시작으로 민간단체가 주최한 2007년 4월 18일 D-365·2008년 1월 9일 D-100일 기념 엑스포 성공기원 다짐행사 등이 개최되어 엑스포 붐 조성에 큰 몫을 차지하였다.

공식행사는 4월 17일 개막식과 KBS 축하쇼, 4월 18일 개장식, 6월 1일 폐막식이 있었으며, 군민은 물론 국내·외 주요인사 등을 초청한 가운데 방송중계를 통해 모든 진행 상황을 대외적으로 알려 엑스포 홍보에 큰 몫을 자치하였다. 화양근린공원 야외 공연장 주무대 행사장에서는 상설행사 4종, 자매결연단체 등이 협찬 출연한 우정의 날 12회, 국가의 날 2개국, 이벤트 행사 17종으로 이색적이면서 수준 높은 다양한 공연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진행하였다.

엑스포 회장 내 거리무대 및 퍼레이드 행사장은 상설행사 7종, 이벤트행사 2종, 나비 퍼레이드 등이 상설되어 대기 관람객의 지루함을 해소하는 한편 관광객과 함께하는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는 이벤트 장소로 각광 받았다. 프린지 공연 행사는 상설행사 6종, 이벤트 행사 4종으로 행사장 곳곳에서 페스티벌을 펼침으로써 휴식공간과 블거리를 제공하였다.

시가지 '나비무대'행사는 휴일과 나비축제 기간 등 22일 동안 31종의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는 폐장 이후의 야간 특별행사로 관광객의 체류시간 연장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고품격 문화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진행하였으며 2008년 5월 3일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전라남도민과 함께하는 KBS열린음악회를 개최하여 전국적인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체험행사는 소달구지체험, 전통짚공예 등 전통민속체험 7종, 나비· 곤충생태체험, 나비·곤충 연 만들기 등 주제체험 2종, 매직비누방울 체험 등 기타체험 2종 등으로 구성·운영되었다.

※ 행사 구성표

구 분		조 직 위	함평군지원단	대 행 사
계(114)		39	29	46
사전행사 (6)		· 엑스포기공식 · D-365기념행사(민간주최) · D-100기념행사(민간주최) · 엑스포 성공기원 대법회	· 나비마라톤 · 엑스포 성공기원 조찬기도회	
공식행사 (6)		· 폐막식 · 자치단체 우정의 날 (12개 지자체) · 국가의 날(2개국)		
주무대 (21)	상설 행사(4)	· 전라남도립국악단 수요상설공원		
이벤트 (17)		· 광주동구 구립 합창단 · 관내 어린이 공연단 · 여수여도초등학교 오케스트라 공연 · 서울 강남구 오케스트라공연 · 안양어울림풍물예술단 · 새어울림 장구 공연 · 아리랑 고적대 · 세계 음악 여행	· KBS TV쇼 진풍명품	
거리 무대 (9)	상설 행사 (7)	· 청소년의 달 경찰악대 행사 · 관람객 100만 돌파일 기념행사		· 나비가족화합 레크레이션 · 나비·곤충퀴즈쇼 · 추억의 아코디언 · 신기한 톱 연주 · 환상의 칵테일 쇼 · 스파이더맨게임 · 함평나비브라스앙상블
	이벤트 (2)			
퍼레이드(1)				· 판타스틱 나비 퍼레이드
프린지 (10)	상설 행사 (6)	· 고공줄타기 묘기		· 안데스 전통민속공연 · 아룸이·다움이 캐릭터 퍼포먼스 · 타이거마스크 원정대 퍼포먼스 · 추억의 아코디언 공연 · 삐에로 마임쇼
	이벤트 (4)	· 아리랑 고적대 퍼레이드		· 벌 사나이 퍼포먼스 · 쌍산 김동욱 서예 퍼포먼스 · 스프로킷 노리단 퍼레이드

구 분	조 직 위	함평군지원단	대 행 사
나비무대 (38)	· 청소년세계문화 페스티벌 · 몽골민속예술단 초청공연 · 찬양 콘서트 · KBC 축하쇼 · 육군 군악대 공연 · 광주·전남 미스코리아 선발대회(한국일보) · 목포MBC 라디오 생방송 EXPO 특집 축하쇼 · KBS 빛고을 가요 차차차 · 광주 CMB 열전 동네방네 (상가번영회)	· 군민의 날 행사 (연례행사) · 평양민속 예술공연 · 신민요공연 · 어버이날 기념식 · 3군(영광·함평·고창) 합창제 · 전남예술고교 공연 · 해보 사물놀이 · 서울시 시도 교류 문화 콘서트 · 지구야 놀자 연극 · 추억의 7080 · 김금옥 벨리댄스 · 광주 필하오닉 오케스트라 · 쇼TV 유랑극단 · 외국인 장기자랑 (연례행사)	· 칵테일쇼 · 초당대 ACROSS댄스 · 이수연 벨리댄스 · 퍼니밴드 공연 · 해양대 싸이보그 · 퓨전 국악 · 뮤지컬 “이태원” · “비트 써클”공연 · 초당대 경호시범 · 이경화무용단 공연 · 비보이 갬블러 공연 · 트롯 “현경” · 목포대 KOMA · KMA 마샬아츠 공연 · J&H 이미테이션 프로댄스 쇼
부대행사 (7)	· KBS열린음악회	· 실버댄스 경연대회 (연례행사) · 전국 청소년 건강 댄스 페스티벌 · KBS 전국 어린이 동요제(연례행사) · 전국새농민대회 · 영호남 경영인대회	
기타 이벤트 (4)	· 석가탄신 기념 방생체험 · 스승의 날 기념 관람 · 부부의 날 기념 관람 · 어버이날 기념 돋보기 증정		
체험행사 (12)	· 소달구지체험(농업경영인) · 돗자리 체험 · 나비·곤충체험 · 천연염색체험 · 나비·곤충 연 만들기 체험 (노인회)	· 미꾸라지체험 (수산경영인회) · 전통짚공예체험 · 보리·완두그스름체험 · 동물농장체험 · 전통민속놀이체험 · 나비·곤충탁본뜨기 · 비눗방울체험	

9) 회장 관리 및 운영

(1) 회장 운영의 개요

회장 운영은 관람객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도모하고 엑스포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제반 행위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전시·행사·영업시설 그리고 편의시설 등 엑스포의 모든 요소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소기의 관람 목적을 만족스럽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 청결, 친절, 봉사의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회장 운영 체계의 구축과 신속·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합리적인 운영시스템 도입으로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관람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은 물론, 이를 통해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엑스포가 진행되는 동안 회장 관리·운영은 전반적으로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뤄 졌다고 볼 수 있다. 부분적으로 때에 따라 진행 요원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으나 투입 인력을 기동성 있게 조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 엑스포 기간 동안 비교적 날씨는 쾌청한 편이었으나 5월 4일(일) 오후에 6만 여 명이 입장한 가운데 갑자기 비가 내려 혼란이 발생하였으며 5월 11일(석가탄신일)에는 8만6천명이라는 기간 중 최대 인파가 집중되어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었으나 1일 입장객 5만 여명 까지는 무리 없이 소화해 냈다.

기간 중 5만 명 이상 입장일은 4일이었다. 관람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쉴 공간이 다소 부족 했으며 국제 나비 생태관등 인기 있는 전시관 입장을 위해서 상당한 시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현상도 이따금씩 나타나기도 했지만 큰 사고 업이 마무리 되었다.

(2) 회장 운영 관리 체계

가) 종합상황실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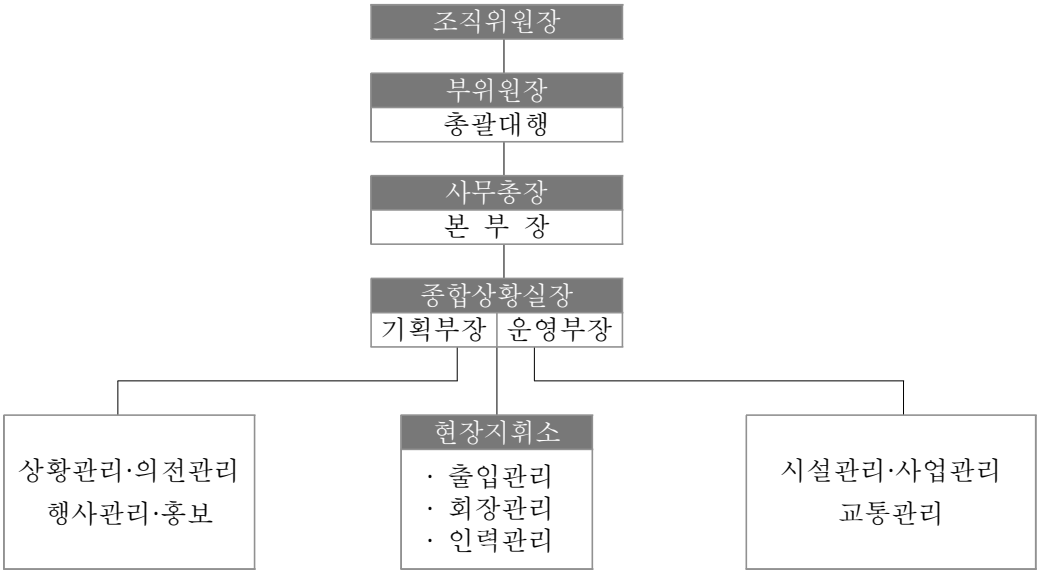
2008년 4월 10일부터 운영된 종합상황실은 주제관 3층에 위치하였으며, 상황실, 회의실, 방송실, 브리핑실로 구성되었다. 주요 임무는 엑스포 개막 준비 상황부터 회장 운영의 지휘 체계를 일원화하여 모든 상황의 종합·조정·통제 역할을 24시간 수행하였으며 12개소의 폐쇄회로 CCTV와 무전기 100대를 지급 전반적인 상황 유지를 도모하였다.

나) 현장 지휘소

운영 팀장의 주관 하에 운영관에 위치하였으며, 경호경비·도우미·자원봉사·운영인력 휴게실, 대행사 사무실, 유관기관 사무실, 물품창고, 청소관리실, 프레스센타로 구성되었다.

물품 공급과 운영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 또는 조정하고 회장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원과 조정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 체계도



(3) 인력관리

투입인원은 자원봉사자, 업무대행 용역, 유관기관단체, 행정지원, 조직 위원회 사무국 직원들로서 평일에는 519명, 휴일에는 622명을 투입함으로써 엑스포 기간 중 총 25,293명의 운영 인력이 투입되었다. 모든 인력은 투입 전에 안전교육과 운영 매뉴얼에 대해서 3차에 걸쳐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유니폼과 함께 중식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교통비가 실비로 지급되었다.

※ 인력 배치 및 참여인원

(단위 : 명)

구 분		참여 인원	1일 투입인원	누계 인원	배치 장소 및 임무
계		1,241	519(622)	25,293	
자원봉사	일반 자원 봉사 소계	342	114(117)	5,178	
	· 함평군 여성자원봉사대	130	50	2,250	전시관 안내
	· 백일홍회(군간부공무원 부인)	74	25	1,125	〃
	· 함평군 생활개선회	53	10(13)	498	〃
	· 문화관광해설자협회	30	10	450	행사 안내
	· 바르기 살기 협의회	20	10	450	전시관 안내
	· 손불면 무농약 단체	28	7	315	체험장 안내
	· 함평군 수의사회	7	2	90	동물보호소 운영
자원봉사	교통 및 주차장 관리소계	325	20(30)	1,350	
	· 함평군 자율방범대	296	10	450	주차안내
	· 함평군 모범운전자회	20	10(10)	450	시가지 쪽 노상 배치
	· 함평군 농업경영인회	10	10	450	주차안내

구 분		참여 인원	1일 투입인원	누계 인원	배치 장소 및 임무
	청소 관리 소계	42	42	1,890	
	· 함평군 사회복지협의회	22	22	990	회장 내 청소관리
	· 개인 지원자	20	20	900	화장실 청소관리
	기 타	59	46	2,070	
	· 진행요원	35	35	1,575	회장 질서유지 및 운영
	· 통역요원	17	17	765	외국어 및 수화
	· 개인자원봉사	7	4	180	대여소 관리 등
대행 용역	대행 인력소계	114	114	5,130	
	· 경비(유니버셜 보디가드)	48	48	2,160	회장 내·외곽 경비 및 질서
	· 도우미(도우미 앤 나레이터)	48	48	2,160	유지
	· 매표(티켓 링크)	18	18	810	관광객 안내매표관리
유관 기관	유관기관 참여인원 소계	53	53	2,385	
	· 119 안전센터	3	3	135	안전센터 운영
	· 우체국	2	2	90	임시우체국 운영
	· 농협	2	2	90	자동인출기 관리
	· 이동파출소	3	3	135	치안유지
	· 경찰서 현장 지휘본부	5	5	225	치안 및 교통질서
	· 교통경찰	38	38	1,710	교통안내
행정지원(함평군청)		260	85(175)	5,265	주차장및시가지교통소통
조직위원회		45	45	2,025	상황관리 및 유지

(4) 기타

1) 안전관리	회장 경비 용역업체가 회장 전역을 24시간 경비 체제를 유치하면서 도난 예방, 질서유지, 잡상인 단속,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가운데 CCTV 17대를 상시 운영하는 한편 관별 SECOM을 설치하였다.
2) 소방·방재관리	119안전센터를 설치, 소방 공무원이 현지에 주재했으며 야간에는 경비 용역 업체가 대행했다.
3) 회장운영보험	회장 내 주요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 관람객의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였으며 회장 내 전시시설에 대한 화재 보험에도 가입했다.
4) 보건위생 및 환경위생관리	종합적인 의료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역 유관기관 및 의료 기관과 연계한 회장 내 의료지원시설 3개소의 운영과 함께 후송 병원 3개소를 지정하였다. 또한, 식품 위생 점검반을 구성하여 회장 내 식음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유통식품, 종사원 위생 및 주방위생 관리 실태를 매일 순회 점검토록 했다.
5) 청소관리	환경 미화부, 자율미화반, 자원 봉사자, 환경 녹지반 등 4개 반을 편성하여 회장 내 시설물 18개소, 화장실 30개소, 쓰레기통 35개, 쓰레기 집하장 등에 대한 구역별 책임제를 실시하였다.
6) 편의시설운영	편의시설 11개소, 공공서비스 시설 6개소 등 17개소를 설치 시설별 적정 인원을 배치 운영하였다.
7) 방송·통신시설	회장 내 각종 안내방송 주요 프로그램 안내를 위해 08:30~19:00까지 정규 및 수시 방송과 함께 중·일·영어 등 외국어 방송도 실시하였다. BGM 방송은 배경음악, 행사안내, 미아찾기 등이며 회장 내 통신은 구내전화, 무전기, 휴대폰 등을 활용했다.
8) 교통 및 주차관리	경찰, 행정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을 안내 및 주차관리요원으로 배치하고 종합교통통제소를 운영하였다. 주차장은 1,2주차장 1,328대(대형415, 소형1,793), 임시주차장 9개소 9,523대(대형70, 소형 9,453)등 총 10,851대의 주차 면수를 갖추었다,
9) 프레스센터 운영	운영관에 언론 취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관 방송사실, 방송기자실, 기자실 등 3개소로 구성된 프레스센터를 운영하였다
10) 접견실운영	주제관 내에 귀빈실, 제1접견실, 제2접견실등 3개의 접견실을 마련하고 엑스포장을 방문한 정치계·경제계·문화계·학계·법조계·지자체·기업체 등 214팀 7,860명을 접견하였다.

10) 수익사업

(1) 개요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의 실질적인 수입 창출을 도모하고자 국내 타 엑스포의 각종 사례조사를 통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 5월 18일 전라남도의 수익사업 승인을 받고 2007년 7월 25일 제14차 이사회를 통해 수익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수익사업은 입장권 판매사업, 휘장사업, 임대사업, 협찬사업 등 4개 사업으로 구분 수행한 결과 입장권 판매사업은 목표치에 미달했으나 여타 사업은 목표액을 상회했다.

※ 사업별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목 표 액	추 진 실 적	주 요 내 용
계	19,902	13,629	
입 장 권 판 매 사 업	18,522	9,341	· 총판매량 : 102만 9,743매 · 예매기간 : 2007. 9 ~ 2008. 3(7개월) · 현장판매 : 2008. 4. 18 ~ 6. 1(45일간)
휘 장 사 업	200	233	· 공식상품화권자 : 1개 부문 1개사 · 공식공급자 : 6개 부문 6개사 · 공식후원사 : 2개사 · 휘자사용료 : 57건 170만원(유료 8, 무료 49)
협 찬 사 업	430	3,054	· 자발적인 지정기탁금품에 대해 함평군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 · 97건 33억 1,900만원(기부품 포함) – 기부금 : 72건 30억 5,350만 4천원 – 기부품 : 25건 2억 6,590만1천원 상당
영업·임대 사 업	750	967	· 관람편의용 시설위주로 운영 · 운 영 시 설 : 19종 50개 시설 · 참여 업체수 : 111개사 · 주요시설 : 웨건판매대15, 매점8, 페이스페인팅2, 식당3, 호텔뷔페, 민속주점, 기념품타운, 곤충판매점2, 함평나비랜드, 기타10종 16개시설
기 타 사 업	–	3	· 민간투자사업 : 296만 695원 (만화 103만 5,720원, 캐릭터상품 192만4,975원)
이 자 수 입	–	31	· 2005 ~2008. 6월까지(3,009만 5,039원)

(2) 입장권 판매사업

입장권 판매는 총괄 대행 기관을 농협중앙회 함평군지부로 지정하고 농협에서는 (주)티켓링크와 광주은행에 2차 대행기관을 지정 추진하였으며 판매는 에매와 현장 판매로 구분 실시하였다. 7개월에 걸친 예매기간 동안은 조직위원회에서 엑스포 홍보 및 유치 활동과 병행하여 다각적인 판매 전략 등 경영마인드를 접목한 on·off line 전방위적인 판매 활동을 전개한 결과 63만매를 상회했다. 이는 전체 판매량의 62%로써 함평군이 가진 역량을 총 동원하여 성취한 결과라고 하겠다.

현장판매는 티켓링크에서 17개 매표창구에 전산 판매 방식으로 판매한바 389,518매를 판매함으로써 총 1,023,284매에 9,341 백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목표입장객 2백만명의 51%이며 입장수익 목표액 18,522백만원의 50%의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최근 개최된 타 자치단체의 1일 평균 유료 입장객수와 비교하면 울진 2만명, 고성 1만명, 금산 1만7천명인데 비하면 함평 엑스포는 2만2천명으로 타 엑스포 보다는 호응도가 월등하며 1일 평균 입장료도 울진 1억 5천만원, 고성 1억 2천만원, 금산 1억 1천만원이데 함평 엑스포는 2억 7백만원으로 함평 엑스포가 1억원 가까이 많은 편이다. 다만 수도권과 원거리에 있는 지리적 여건과 목표 관람객 산정이 너무 높게 책정된 오류 때문에 목표 달성이 어려웠다 할 것이다.

※ 입장권 종류별 판매실적

구 분			입장요금 (단체할인요금)	판 매 량(매)					판매금액(천원)		
				계	예매		현장판매		계	예매	현장 판매
					보통권	단체 할인	보통권	단체 할인			
계				1,023,284	5,818	627,948	355,031	34,487	9,341,604	5,041,440	4,300,164
보통 입장권		어 른	15,000(13,000)	191,423			169,296	22,127			2,827,091
		청소년	11,000(9,000)	12,088			9,305	2,783			127,402
		어린이	9,000(7,000)	52,510			46,286	6,224			460,142
		유 아	6,000(5,000)	24,595			21,242	3,353			144,217
할인 입장 권	사전 판매 할인	어 른	13,000(11,000)	309,044	2,097	306,947				3,413,678	
		청소년	9,000(7,000)	57,539	386	57,153				403,545	
		어린이	6,000(5,000)	181,295	767	180,528				907,242	
		유 아	4,000(3,000)	83,735	415	83,320				251,620	
		가족권	35,000	2,153	2,153					75,355	
	특별 할인	어 른	7,000	85,120			85,120				595,840
		청소년	6,000	1,974			1,974				11,844
		어린이 및유아	4,000	5,443			5,443				21,772
전기간 통용 입 장 권		어 른	50,000	222			222				11,100
		청소년	40,000	4			4				160
		어린이	30,000	12			12				360
기 타				16,127			16,129				100,236

※ 기타는 GS제휴할인권 및 차액권임.

(3) 휘장사업

엑스포 조직위에서 보유하고 있는 휘장 및 마스코트, 공식 명칭 등 유·무형의 사용 권리를 부여하여 2억원의 휘장 사업료 징수를 목표로 추진하였는바 10건에 2억 3,300만원의 실적을 올림으로써 목표액 대비 115%의 실적을 거양하였다.

※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계	공식상품화 권 자	공 식 공급자	공 식 후 원	휘 장 사용료	비 고
233 (10건)	156 (1건)	55 (6건)	20 (2건)	2 (2)	

※ E·I 등 상표등록 현황
· E·I 등록 : 18건 414류(상표 16건 338류, 서비스표 2건 76류)
· 주제 영상 캐릭터 등록 : 55건(상표 42건, 디자인 13건)

(4) 협찬 및 후원사업

엑스포를 통한 기업의 홍보 가치 실현과 기대 효과를 거두는 한편 사회 공헌을 위해서 일정 금액 및 물품을 자발적으로 제공 받는 사업으로써 함평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직위원에서 기탁 받았다. 2006년 10월 10일 재정경제부로부터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받아 기탁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 세액 공제가 가능토록 하였다.

특히,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20억원과 농협 함평군지부의 7억원의 기탁금은 회장조성 및 운영에 큰 힘이 되었다.

· 후원사업 실적 : 10개 업체 775백만원
· 기 탁 금 : 72건 3,053백만원
· 기탁물품 : 25명 18건 266백만원 상당

(5) 영업·임대사업

엑스포 회장 내 영업·임대시설(식음료, 판매)를 설치·운영하여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입점업체로부터 적정 임대료 징수로 엑스포 재정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식당, 기념품 판매점, 캐릭터 상품 판매점, 웨건판매대, 함평군 고유 브랜드인 나르다 상품점을 운영하였다.

기념품타운을 제외한 대부분의 입점 업체는 지역 주민으로 제한하여 주민 소득 증대를 도모하였다.

○ 영업·임대시설 입점업체 선정 결과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계	웨 건 판매대	매점	식당	민속 주점	기념품 타 운	나비 랜드	곤 충 판매점	체험 시설	기 타
업체수	246	15	5	12	1	30	1	1	44	2
시설수	50	15	8	4	1	1	1	2	16	2
임대료	967	245	128	187	30	147	45	16	162	7

○ 민간부분 판매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시설수	업체수	매출액	비율(%)	비 고
계	197	164	4,295	100.0%	
웨 건 판 매 대	15	15	322	7.5	
매 점	8	5	480	11.2	
곤 충 판 매 점	3	2	159	3.7	2
공 식 기 념 품 점	6	1	277	6.4	
기 념 품 타 운	59	30	576	13.4	
캐 릭 터 샵	4	1	48	1.1	
페 이 스 페 인 팅	2	2	63	1.5	
중 국 관	1	1	65	1.5	
식 당	5	13	1,133	26.4	
나 비 랜 드	1	1	199	4.6	
숙 박 업 소	84	84	475	11.1	민박 72/303
기 타	9	9	498	11.6	

※ 자치단체 기업홍보관 : 43,400천원(임대료 24업체) 미포함
  - 총 참여업체 수 35개 기업·자치단체

사) 기 타

① 문화 콘텐츠(만화) 개발사업

나비·곤충을 소재로 한 함평 엑스포 주요 관람객 중의 하나가 어린이인 점을 감안, 주 고객층의 눈높이에 맞는 간접 홍보 효과를 증폭시키면서 수익사업의 다각화를 꾀하고 지속적인 수입원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 콘텐츠 사업을 추진하였다. 문화 콘텐츠 개발은 종이 비행기사의 제안에 의해서 종이 비행기사의 200백만원과 조직위원회가 투자한 77백만원 등 총 277백만원으로 「천년마법 황금나비전」 만화를 각 권 170쪽 기준 1~3권(총 10권 계획) 우선 발간하고 투자자 판매분은 3%, 조직위의 판매분은 30%를 조직위와 분배하는 조건으로 추진하였다. 발행된 만화는 전국 서점에 배포하는 한편 엑스포 기간 중 회장에서 판매하였다. 더불어 주제 영상 캐릭터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엑스포 주제 영상 애니메이션'아하!나비구조대'에 등장

하는 주요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사업을 전개할 목적으로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인 (주)DK 미디어와 전액 제작사 부담으로 캐릭터 상품, 4D어드렉션 TV에니메이션 등을 개발 추진하되 캐릭터 상품은 총 매출액의 5%, 4D 어드렉션 추가 제작 배급은 10%, TV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화 로열티는 50%를 분배하며 1단계 사업으로 캐릭터 상품화 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영상물 방영·배급권 사업은 2017년까지 진행토록 하였다.

이러한 문화 컨텐츠 사업은 엑스포 개최 이후 전담 추진부서가 구성되지 않아 답보 상태에 있다. 그러나 향후 정상적인 사업 추진 시 실적에 따른 수익 창출이 기대된다.

② 함평 나비랜드 민간 투자 유치

엑스포를 찾는 관람객에게 유희와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엑스포 공원 사후 활용 및 나비 축제 등 지역축제와 평상시 함평을 찾는 관람객에게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 공모를 통해 「함평나비랜드」를 유치하였다. 주요 내용은 놀이시설 13기종(안전성검사대상 10, 비검사대상 3)을 설치, 비용 13억을 제안자가 전액 투자하고 2010. 12. 31까지 부지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년간 45백만원씩 납부하고 있다.

11) 재 정

(1) 예산 확보

엑스포 개최에 따른 엑스포조직위원회 세입은 출연금과 사업의 수입으로 추진했다. 함평군 일반 회계에 계상된 국·도비와 군비를 출연 받고 조직위원회 수익사업 특별 회계에 계산된 국비·기금·지정 기탁한 협찬금품을 전입 받아 조직위원회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다.

엑스포 개최 승인 당시 중앙 투·융자 사업 심의위원회 사업비 승인액은 353억원이며 재원별 내역은 국비 72억원, 도비 135억원, 군비 146억원이었다. 그러나 국비와 군비는 제 시기에 지원되었다 할 수 있으나 도비 조달이 원활하지 못하여 특별교부세로 충당하였고, 이중 일부는 군비로 재원 대체하였으며 특별교부세 확보과정에서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인 이용섭 향우의 적극적인 지원과 나비축제 명성에 도움 받은바 컸으며 총 출연금은 계획보다 3억원이 부족한 350억원을 확보하였다. 일부는 수익사업 특별회계 협찬금품을 지원받았다.

엑스포 준비 과정에서 도비가 제때 확보되지 않아 적정 시기에 사업 규모를 확정지을 수가 없으므로 발주 시기가 지연된다거나 적기 홍보 또는 섭외에 많은 지장을 초래 하는 등 개막 직전까지 많은 애로가 있었다. 최종 확보된 예산은 다음과 같다.

가) 세입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출 연 금	사업외 수입				
			소 계	국비	기금	지정기부금	이자수입
합 계	39,178	35,056	4,122	450 (그린어메니티관)	600 (문화관광기금)	3,054 (협찬금)	18

나) 출연금 내역

(단위 : 백만원)

계	국비	도비	군비	특별교부세			
				소계	도분	군분	군비재원대체
35,056	7,792	3,900	14,946	8,418	4,500	1,918	2,000

(2) 예산 배분 및 집행

재원 배분은 기반 조성비용이 73%로 배분율이 높고 경상경비, 홍보비, 행사비 순이다. 기반조성은 엑스 조직위 예산 외에 함평군 본청에서 7건을 발주 마무리하였다.

가) 주요 사업별 예산 배분 및 집행현황(조직위 예산)

(단위 : 백만원)

분 야 별	예산 배분액	비율 (%)	집행액	잔액	세 부 내 역
합 계	39,178	100	37,958	1,220	
□ 홍 보	2,324	6	2,260	84	· 홍보분야 2,324(광고대행비 455)
□ 행 사	2,149	5	2,009	140	· 행사분야 2,149(행사대행비 887)
□ 기반조성사업	28,435	73	28,173	262	
기반조성 및 조경	12,047	31	11,878	169	· 기반조성 및 조경 9,087 · 회장 전기, 통신, 소방 2,960
전시영상관 및 부대시설	5,406	14	5,332	74	· 전시영상관 및 부대시설 5,406
회장 실내·외 전시연출 및 정비	6,660	17	6,654	6	· 회장 실내외 전시연출 4,834 · 회장 주변 및 임시주차장 1,826
국제나비생태, 곤충 시설연출	4,322	11	4,309	13	· 국제나비생태관 조성 1,400 · 나비곤충관 운영 및시설연출 2,922
□ 경상경비	6,270	16	5,516	754	
국내·외 유치협력 및 수익사업, 회장운영	3,619	9	2,982	637	· 국제협력 617 · 수익사업 191 · 국내유치 60 · 회장운영 2,131 (경비용역 125,도우미 125, 화장실임대 13, 물품 임대 90)
사무국운영	1,471	4	1,354	117	
백서,영상물제작	1,180	3	1,180		· 기획연구용역(백서 등) 150 · 주제영상물 1,030

나) 엑스포 회장 및 주변 본청 시행 사업 (별도 사업)

건 수	금 액	사 업 내 용
7건	6,557	· 야외곤충 전시관 조성공사 : 678 · 2008함평엑스포 상설주차장 조성공사 : 675 ·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설치 사업 : 192 · 엑스포장 주변 함평천 초화류 식재공사 : 79 · 도시숲 조성사업 : 1,446 · 함평천지생태원 조경공사 : 151 · 엑스포부지(제1,2주차장) 매입 : 3,336

12) 주요성과

(1) 경제적 상승효과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총 효 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비 고
생 산 유 발 효 과	288,595	247,251	41,344	
고용유발효과(명)	4,171	2,881	1,291	
소 득 유 발 효 과	65,321	50,658	14,662	
부가가치유발효과	120,561	73,862	46,699	

※ 목포대학교 용역 결과

(2) 주요 외국인사 방문 현황

구 분		국 가 수	인 원	비 고
계		32개국	337명	중복국가 8개국
객막식	소 계	24개국	132명	중복국가 1개국
	주한외교사절	20개국	46명	외국대사
	우호교류	5개국	86명	자치단체 등
국제학술심포지엄		7개국	10명	곤충학자
교류협력 및 관람		8개국	195명	자치단체 등

※ 외국기자단 9개사 13명 별도
※ 중복된 국가는 1개국으로 처리

(3) EXPO 기간 중 업무협약(투자협정) 현황

협약일시	대상기관(기업체 등)		협약분야
	기관명	대표자	
2008. 5. 10	경기도 김포시	강경구	우호증진 및 교류협력
2008. 5. 16	필리핀 팔라완주 푸에르토 프린세사시	에드워드 S.하게돈	나비·곤충사업

2008. 5. 28	광주 월광교회	김유수	중·고등 대안학교 설립 (200억원 규모)
2008. 5. 28	(주)제로하우스	김성모	건축자재 생산공장 설립 (70억원 규모)
2008. 5. 29	경남 마산시	황철곤	축제 공동 마케팅
2008. 5. 30	웅진그룹	윤석금	도서 기증(2,000권)

(4) 주요 인사 방문 현황

구 분		방문현황			비 고
		팀 수	인 원	대표자 성명	
계		215	7,861		
대 통 령(전직)		1	16	노무현 등	
국무총리(전·현직)		3	3	한승수 등	현승종, 조순
장·차 관 급		3	3	국토해양수산부장관 장관용 등	산림청장, 전 행자부장관(박명재)
광역자치단체장		4	4	서울특별시장 등	경기, 울산, 전남
국회의원(전·현직)		12	191	국회부의장 이상득 등	국회의원 12
법 조 계		10	50	헌법재판소장 이강국 등	전 검찰총장(정상명) 광주고등검찰청검사장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학 계		11	177	상지대 총장 김성훈 등	전남대총장 강정채
언 론 계		12	49	광주 MBC사장 윤영관 등	
새 마 을 단 체		1	3,000	새마을운동 중앙회장 이의근등	
기 업 계		16	802	금호그룹회장 박삼구 등	
벤치마킹단	소 계	183	5,222		
	자 치 단 체 (광역·기초)	80	3,296	부산 남구청장 이동철 등	
	의 회 (광역·기초)	46	661	경남 거창군의회 의장 신형기등	
	기 타	57	1,265	생태운동나라 서경석 목사 등	

(5) 타 엑스포 입장객 및 입장 수입 비교

(단위 : 천명, 백만원)

타 엑스포	기 간	관람객	유료관람객		무료관람객
			인 원	금 액	
2005 울진엑스포	'05.7.22~8.15(25일간	630	501	3,757	129
2006 고성엑스포	'06.4.14~6.14(52일간)	1,540	968	6,494	572
2006 금산엑스포	'06.9.22~10.15(24일간)	680	416	2,603	264
2007 경주엑스포	'07.9.7~11.5(60일간)	1,403	1,016	7,800	387
2008 함평엑스포	'08.4.18~6.1(45일간)	1,266	1,018	9,341	248

4.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

1) 추진배경

함평은 춘란을 연구하는 학계나 애란인 등 각계각층의 인사는 물론 일본, 대만, 중국의 춘란 애호가들 까지도 인정하는 한국 춘란의 최고의 자생지일 뿐만 아니라 희귀 변이종과 원예적 가치가 뛰어난 우수 품종이 다수 발견되어 한국 춘란의 메카로 일컬어져 왔다.

이러한 자연적 여건을 밑거름 삼아 한국 춘란의 가치를 더욱 고양시켜 함평을 한국 난 문화의 구심 지역으로써 위상을 굳히는 한편 세계적인 난의 명소로서 위치를 확고히 다지기 위하여 난을 종류별로 상설 전시하는 분류관을 비롯하여 난의 육종과 배양, 그리고 유통에 이르기까지 최첨단 시설을 갖추는 종합 계획을 수립 정부에 건의하여 정부로부터 97농림사업으로 「한국자생난보존육성사업」을 승인 받아 「난공원」 조성 사업을 1998. 6. 27일 착공하여 3년여만인 2001년 2월 27일 시설물을 완공하고 전시난을 구입하고 실내 전시 시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환경친화적인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확대하여 2005년 말 준공 목표로 조성 중이였다.

관내 애란인들은 뜻이 맞는 동호인들끼리 개별 난우회를 조직하여 난의 배양에서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애란 생활을 하면서 난 단체들이 함평 난 협의회(회장 임병재)를 구성하는등 난인들이 단체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었다. 더구나, 함평군 에서는 최초로 결성한 난 단체인 함평 난우회에서는 지역 단위 난 전시회를 1987년부터 17회째 개최 중이었기 때문에 전시회 개최 경험에 있어서나 인적 자원에 있어서 전국 규모의 난 전시회를 무난히 치를 수 있는 역량이 지역에 축적되어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 중앙 단위 난 전시회 개최 경향은 전국에 회원 단체를 둔 6개의 중앙 단체가 4~5개의 봄 전시회를 개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국 규모의 중앙 단체는 내면적으로는 상호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타 단체의 전시회에 출품은 매우 소극적이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국내의 모든 애란인에게 문호를 개방한 다고 할 지라도 결국은 주최하는 단체에 소속된 회원전의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난계에서는 특정 단체의 회원 전시회가 아닌 전국의 모든 애란인 자신이 애장품을 출품하여 함께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명실상부한 전국 규모의 전시회를 은연중에 갈망하는 분위기였다.

이러한 때에 국내 유일의 난 관련 상설 전시장·배양장·유통센터등 종합적인 첨단 시설과 친환경적인 대단위 생태공원의 준공을 앞두고 함평군이 중심이 되어 전국의 모든 애란인에게 문호를 개방한 전국 규모의 전시회를 개최하여 난의 고장 함평의 명성을 더욱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을 구상하게 된다.

2) 창설과정

2003년 하반기에 「함평난공원」 완공에 즈음하여 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함평군과 애란인 간의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당시 함평에는 함평 난 상인회(회장 임병재), 함평난우회

(회장 강종삼), 천지난우회(회장김영출), 기산난우회(회장 전남식), 함평난인회장(회장 이병석)등 6개의 난 동호회에서 500여명이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난 상우회를 제외한 타 단체는 대부분 함평 난우회 활동을 하다가 뜻이 맞는 사람끼리 분화되었기 때문에 타 단체에 대해서는 매우 배타적인 폐쇄성이 내재 되어 있었다. 따라서 난 관련 행정을 펼쳐야 하는 함평군의 입장은 관내에서 활동하는 6개의 난 단체가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다. 행정 당국에서는 각 단체와 비교적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함평 난 상우회측에 함평 난의 육성과 함평자연생태공원(난 공원을 확대한 명칭) 활성화를 위한 함평군의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이에 따른 함평난 상인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평군의 노력으로 6개 단체가 참여하는 「함평난 협의회」를 결성하고 초대 회장에 임병재 함평 난 상인회 회장이 취임 하였다. 임병재 회장은 「함평 난 협의회」 결성을 기념하고 난의 성지로서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동안 함평 난우회에서 개최하여 오던 「함평 난 전시회」를 함평 난우회 개별 전시회가 아닌 「함평 난 협의회」 소속 전 회원 단체가 참여하는 「연합 전시회」 개최를 제안 하였다.

그러나 당시 한국 난계의 화예품 시회는 춘란의 개화 시기인 3월 첫째 주말에 지역 단위 개별 단체 전시회, 둘째 주말에 시·도 단위 연합 전시회, 셋째 주말에 중앙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었다.

따라서 「함평 난 연합 전시회」를 개최하려면 둘째주 주말에 개최하여야만 하는데 때마침 전라남도 난 연합회에서 「전라남도 연합 전시회」를 창설하여 둘째 주말에 이웃 군인 무안에서 개최키로 결정함에 따라 난 문화협회 소속인 함평 난우회가 난색을 표명하였고 첫 전시회부터 타 단체 전시회와 경쟁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였다.

이에 대한 함평군의 의사는 기왕 전시회를 하려면 난에 대한 함평의 명성에 걸맞게 보다 더 큰 틀에서 접근하여 난 인들의 중론을 모으면 적극 돕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크게 고무된 「함평 난 협의회」 임원과 각 단체 회장들은 2004년 봄 연합 전시회를 포기하고 2005년 봄에 전국 규모의 전시회를 개최키로 합의하고 「함평 난 협의회」를 보다 더 결속력있는 「함평 난 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1년여 동안 준비와 군비 4천만원을 지원받아 「대한민국 난 명품대제전」을 창설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6개 단체 회장들의 깊은 이해 속에 적극적인 참여와 함평 난 상인회 회원들의 노력이 컸었다.

3) 전개과정

전국 규모의 난 전시회를 개최하려면 기존의 중앙 전시회를 개최하는 단체와 원만한 관계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는 전국 애란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하기 때문에 전시회 성공의 관건인 출품작의 수량이나 질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 단체들과의 관계가 비교적 원만하고 전국 각지의 난계 주요 인사들과 폭넓은 교유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당시 한국 난 상인 총연합회 홍기용 회장(나산면 수상리 거주)과 자연 생태공원 관리 사업소 나홍채 소장이 전면에 나서서 수차례 걸쳐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전시회 개최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한편에서는 임병재 연합회장을 구심점으로 하여 개별 난우회 회장들과 고재영, 이만호등이 중심이 되어 치밀하게 전시회 개최 준비를 진행했다. 기대 반 우려 반 속에 드디어 「2005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을 2005. 3. 5(토) ~ 3. 6(일)까지 개최하게 되었다. 개최 결과 각계각층의 애란인이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첫 전시회 치고는 작품의 수량이나 질 면에서 수준급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특이한 것은 전시회 기간동안 꽃샘 추위속에 눈발이 날리는 불순한 날씨임에도 이틀 동안 5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전시회에 참가한 애란인들을 놀라게 했다. 지금까지 여느 전시회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이는 산채지에 처음 개최되는 전국 규모의 전시회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첫 전시회의 성공을 바탕으로 2006년과 2007년 전시회도 성황을 이루 웠고 더 나아가 함평 전시회에 입상 작품들이 국내 각종 전시회의 대상(大賞)을 거의 휩쓸게 되어 단숨에 대한민국 최고의 난 전시회로 부상한다. 이를 바탕으로 2008년에는 문화체육센터로 장소를 옮겨 중국 곤명시 난화 협회가 참여하는 국제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2009년에는 출품자나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새롭게 조성된 함평 엑스포공원 전용 전시관으로 장소를 옮겨 개최하고 영예의 대상(大賞) 훈격도 국내 난 전시회 사상 최초로 국무총리 상으로 격상시켰다. 훈격을 격상 시키는 데는 이석형 군수와 공원관리사업소 이광우 소장의 노력이 지대했다.

4) 전시개요 및 조직도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은 함평군이 주최하고 함평 난 연합회가 주관하여 전시회 전반을 진행 하였으며 추진 체계상 조직은 매년 추대 또는 위촉하는 바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명예대회장 : 사회 저명인사 추대
○ 대 회 장 : 함평군수
○ 대회고문 : 중앙 단위 난 단체 이사장 또는 회장 역임자 추대
○ 대회자문위원 : 중앙 난 단체 현직 회장 추대
○ 대회지도위원 : 광역시·도단위 연합회 이사장 또는 회장등 각 단체별로 안배하여 추대
○ 수석부대회장 : 함평 난 연합회 회장
○ 부대회장 : 함평관내 개별 난 단체 회장
○ 준비위원장
· 전 시 : 연합회 소속 능력 있는 인사 추대
· 행 정 : 함평 생태공원 책임자(공무원)
○ 운영위원장 : 연합회 소속 유력 인사 임명
○ 편집위원장 : 연합회 소속 유력 인사 임명
○ 사무국장 : 연합회 소속 유력 인사 임명
○ 부장(기획,연출,의전,연설등) : 연합회 소속 유력 인사 임명

5) 개최실적

(1) 년도별 개최 개요

년도별	기간	장소	명예 대회장	연합 회장	후원	협찬	준비위원장	
							전시	행정
'05	3.5~6	자연생태공원	대한적십자사총재 서영훈	임병재	농림부등 17개기관단체	난세계 난과생활	홍기용	나홍채
'06	3.4~5	〃	前 농림부장관 김성훈	강종삼	농림부등 9개기관단체	〃	홍기용 배상호	나홍채
'07	3.3~4	〃	〃	〃	농림부등 8개 기관단체	〃	최종운	정택규
'08	3.1~2	농어민 문화센타	난문화협회 초대이사장 박상길	〃	농림부등 16개기관단체	〃	이만호	정택규
'09	3.28~29	엑스포공원	前 헌법재판관 김양균	고송주	농림해양수산부등 16개기관단체	〃	총괄집행 위원장 고송주	이광우

※ 주최 : 함평군, 주관:함평난연합회

(2) 년도별 출품 및 시상 현황(분)

년도별	출품작수(분)			시상작수(분)			심사위원장		대상작 부상
	계	화예	엽예	계	화예	엽예	소속	성명	
'05	382	249	133	149	95	54	경남 난 문화협회	이원기	중형승용차
'06	392	285	107	121	90	31	〃	〃	1,000만원 상당 황금
'07	378	316	62	142	136	6	울산 한국춘란회	김성진	〃
'08	614 (192)	446 (106)	168 (86)	214 (63)	124 (22)	90 (41)	부산난 문화협회	장판득	〃
'09	468	358	120	160	115	45	대구난 연합회	김규식	〃

'08년 ( )에서는 중국춘란 작품수임

(3) 년도별 시상 분야별 현황

년도별	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장려상	금상	은상	동상	기대품상	기타
2005	149	1	2	2	13	32	32	32	32	30	-
2006	121	1	2	2	13	-	26	26	26	23	-
2007	142	1	2	2	13	-	27	26	26	46	-
2008	214	2	4	4	13	1	27	24	27	54	59
2009	160	1	2	4	13	-	29	31	28	50	-

※ 시상작 기준 : 대상(화예), 최우수(화예, 엽예 각 1점), 우수상(화예, 임예 각 1점), 특별상(화예, 엽예 구분 없음), 장려상 이하(각 부분별 시상)
※ '08년은 우수상 이상은 중국 춘란 화예와 엽예품 추가, 기타는 중국 춘란

(4) 년도별 대상(大賞) 수상 현황

구분 \ 년도별	2005	2006	2007	2008		2009
				한국 춘란	중국 춘란	
훈격	농림부장관	좌 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수상자	손세운 (부산)	임성재 (울산)	정길호 (광주)	유홍섭 (강원도)	박지혜 (전북)	김송재 (부산)
품종	황화소심 (천황소)	황화소심 (황금소)	홍화소심 (화산소)	중특복색화 (태극선)	엽예 (대당용봉접)	두화소심 (일월화)
부상	소나타승용차	천만원상당 황금 컵	좌동	좌동	좌동	좌동

※ (　　)는 수상자의 출신지, 품종은 품종명

(5) 년도별 최우수상 수상 현황

구분 \ 년도별	2005	2006	2007	2008		2009
				한국 춘란	중국 춘란	
훈격	전라남도지사	좌동	좌동	좌동	좌동	농림식품부장관
	전라남도의회의장	좌동	좌동	좌동	좌동	환경부장관
수상자	장판득 (부산)	손세운 (부산)	이행우 (대전)	장범철 (인천)	전미정 (전북)	김택식 (충주)
	문정호 (마산)	이수연 (부산)	박영복 (서울)	박준영 (울산)	정수연 (전북)	김건호 (부산
품종	홍화 (화랑)	중투화	두화소심 (일월화)	황화소심 (황금소)	기화	황화색설 (황비)
	단엽	단엽	중투호 (사천왕)	중투 (장군)	수정	단엽복륜 (신라)
부상	황금 50돈	금 350만원	좌동	좌동	화동	금 250만원
	〃	〃	〃	〃	〃	〃

※ 상단은 화예, 하단은 엽예

(6) 기　타

년도별	소요예산(만원)			판매행사(만원)			관람객(명)
	계	군비	주관단체	계	난거래액	나르다상품	
'05	9,574	4,000	55,745	21,800	20,300	1,500	55,000
'06	10,243	5,000	5,243	25,720	25,400	320	60,000
'07	10,610	5,000	5,610	28,000	28,000	–	41,000
'08	9,659	5,000	4,659	32,150	32,000	150	50,000
'09	9,582	5,000	4,582	112,620	112,000	620	53,000

○ 참고자료(2005년도 지역별 출품작 현황)

(단위 : 분)

구분 \ 지역별	계	관내	전남	광주	전북	수도권	충청권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제주 기타
계	382	228	26	25	16	17	20	19	16	15
화예	249	146	17	17	11	12	14	11	10	11
엽예	133	82	9	8	5	5	6	8	6	4

6) 성과

국내 최초로 자치 단체가 직접 전국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국내 6개 중앙 단체 회원들이 별다른 부담 없이 고르게 참여 하는 국내 유일의 전시회로 발돋움 했다. 또한 군단위에서 개최되는 전국 전시회라는 지리적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우수한 작품들이 대거 출품되어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이 결과적으로 한 해의 화예품 전시회를 결산하는 왕중왕을 선발 하는 전시회라 칭 하는데 별다른 이론이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

이러한 결과로 전시회 개최 5년 만에 국내 난 전시회 사상 대상 훈격이 국무총리상으로 격상되 일본이나 중국과의 어느 정도 권형을 이루게 되었다. 이에 타 지역 애란인들은 "과연 난의 고장 함평답다"는 찬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공론이 갈수록 고조 되고 있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함평을 매우 부러워하는 분위기다. 전시회 개최 지역이 난의 산지라는 특성 때문에 지역 애란인들의 난에 대한 안목과 감상 수준을 한 차원 높이고 참가자들과 교류를 통하여 난 배양 지식과 유통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되기도 했다.

이로 말미암아 지역 내 난 배양 농가의 소장난도 정당한 평가와 함께 제값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난에 대해서 무관심 했던 주민들도 수준 높은 작품 감상을 통해서 난의 원예적 가치를 이해하는 계기가 됨에 따라 난 생활의 대중화를 꾀하는데 기여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은 난의 고장 함평이라는 지역적 명성을 고양시키면서 전국 애란인들의 한마당 축제로 확고한 위치를 굳힘과 동시에 산지의 배양 농가들의 의욕을 크게 고무시키는 전시회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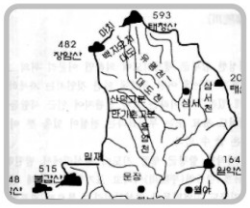
5. 그 밖의 축제

민선 2기가 출범하여 「함평나비대축제」 성공과 더불어 각 읍면이 경쟁적으로 가로 화단을 비롯한 공원 조성이 이루워 졌다. 여기에는 때마침 시행된 공공근로 사업을 활용하였으며 나산면에서 시작한 솟대·장승공원 조성 사업이 기폭제가 되기도 하였다. 공원 조성을 추진한 읍면에서는 조성된 공원을 활용하여 읍면 단위 축제를 기획하게 되었는바 그 시발이 나산면에서 시작한 「허수아비·솟대장승 한마당」 행사였다. 그 이듬해는 해보면에서 용천사 주변에 군락을 이루고 있는 꽃무릇(속칭 상사화)을 정비하여 「꽃무릇공원」을 조성하여 개최한 「꽃무릇 큰

잔치」이며 뒤이어 월야면에서 월야면 용월리 방축 저수지 주변에 「달맞이공원」조성하고 「달맞이축제」가 탄생함으로써 읍면이 주관하는 3개의 축제가 탄생하게 된다.

이러한 3개의 축제 모두 초창기에는 면민의 날 행사를 겸하였다. 함평군의 동부 3개면(일면 동3면)이 가을철 거의 비슷한 시기에 3개의 행사가 동시에 개최됨에 따라 이를 한데 묶어 상호 파급 효과를 거두워 보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3개면 주요 인사들이 회동을 갖고 「풍년맞이 어울 마당」이라는 표제아래 동일 기간 동안에 각 각 행사를 개최하되 3개면이 윤번제로 주관하기로 했으나 크게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 동안 이들 3개 축제 중 「꽃무릇큰잔치」는 10여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집객하는 성과를 거두어 나비축제·국향대전과 함께 3대 축제라 할 정도로 성장하였고 「달맞이 축제」는 정월 대보름날 전래 세시풍속을 재현하는 「달집태우기」 행사로 전환 되었으며 「허수아비·솟대장승한마당」은 규모 있게 출발 하였으나 면민의 날 부속 행사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다. 이와 같이 이들 3개 축제는 축제를 이끌어 가는 지역민과 출향 향우들의 의지가 결집된 내발적 동력에 의해서 명암이 엇갈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5장 관광(觀光)



제1절 함평군 관광의 개황

1. 현대산업으로써 관광

관광의 어원은 중국 주나라시대(B.C. 12~A. 12) 역경(주역)의 “관국지광”(觀國之光. 주역 64괘중 12괘 風地觀조)이라는 구절에서 유래 했다고 한다.

“나라의 빛을 보는 것” 으로써의 관광은 다른 나라 또는 지방을 구성하는 문물과 제도 그리고 풍광이나 경승을 본다는 뜻으로 단순히 응시하는 수준이 아니라 철저하게 분석하여 관찰하는 시찰(視察)의 의미가 강하다. 우리나라에서 “관광”이란 용어가 최초로 등장한 문헌은 “고려사절요”(1,115년 고려예종 11년)이다. 당시 기록은 “상국을 초빙하여 문물제도를 시찰한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이러한 본래적 의미의 관광이 시대의 흐름과 인간 생활 모습 및 방식의 변모에 따라 변화해왔고 특히 현대 사회에 있어서 관광은 시장 경제의 바탕위에 교통의 발달과 정보화와 국토 공간의 동질화가 급속히 진행됨으로써 계층적인 면에서나 지역적으로나 생활양식이 엇비슷해 지면서 경제적 측면을 비롯하여 문화 및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됨으로써 관광은 산업의 주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지역 정체성 확립과 지역 가치의 향상, 직·간접 고용효과 유발, 투자 유발에 따른 지역 사회 개발 촉진, 주민 소득 및 세수 증대 등 문화적으로나 경제·사회적으로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게 된 관광 산업은 관광 수요자에게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을 포함한 모든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파생한다. 즉 여행사, 숙박업. 식·음료업, 운수업, 컨벤션산업, 축제 등 각종 이벤트. 리조트업, 특산품 및 기념품 등 쇼핑시설, 각종 체험 활동, 관람시설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영활동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광산업은 지방화와 함께 지방 자치가 정착되면서 지역 활력을 증진시키고 지속적인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수단으로 관광 산업에 대한 지방 자치 단체의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자치 단체 내부의 역량에 따라 그 성과는 천차만별이다.

2. 광복이후 관광의 변천사와 함평의 관광 여건

독일의 지리학자 크리스탈러(Christaller)는 현대 관광의 발전 과정을 관광지 형성과 관련하여 제1기(1700~1840), 제2기(1840~1870), 제3기(1870~900), 제4기(1900~1930), 제5기(1930년 이후)등 다섯 과정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일제로부터 국권을 회복한 광복 이후의 60년대까지의 우리나라의 관광 연역을 살펴보면

- 1948 : 외국 관광단 최초입국, 미국의 노스트웨스트항공사와 팬아메리칸항공사 서울 영업소 개소
- 1954 : 교통부 육운국에 관광과 신설
- 1958 : 철도호텔개업, 관광직행열차 및 관광버스 운행, 출입국절차간소화, 국내·외 관광홍보개시
- 1961 : 관광사업 진흥법 제정·공포
- 1962 : 문화재 보호법 및 관광공사업법제정, 관광공사발족, 통역안내시험제도실시
- 1967 : 한국 최초로 지리산 국립공원 지정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한국에 있어서 50년대는 관광 행정이 태동한 시기이며 60년대는 관광기반 조성기라 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청와대 내에 “관광개발계획단”이 설치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관광지 개발이 촉진되기 시작하였다. 이 때의 국내 관광 행태는 명승지나 사적지 또는 고찰을 순회하는 차원의 단체 관광과 수학 여행 등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꽃구경이나 단풍놀이 등 소풍 수준의 자연 풍광을 즐기는 정도였다. 그 후 7~80년대에 진입하여 경제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산업 시찰 등 선진지 견학, 휴가철 피서, 오락, 유흥 등의 행락 형태로 변모하고 이예 편승한 풍속 영업 관련 상인들과 일부 부동산 업자들이 관광 사업이란 명분을 앞세워 난 개발을 주도함으로써 관광의 의미가 왜곡된 저질 관광 풍토가 조성되기도 했으나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거치면서 정부 차원의 정비가 이루워 지고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실시와 국민 소득 향상과 관광에 대한 인식이 변하여 여가 활용과 여유를 즐기기 위한 관광형태로 변모하였고 이제는 개인이나 가족, 동호인끼리 자아 실현과 능력 개발을 위한 테마관광과 체험 관광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관광 형태의 흐름속에서 함평은 80년대까지는 관광의 불모지로 방치되어 있었다. 외지 관광객을 유입시킬만한 관광 자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알려진 명승지나 자연 자원은 물론 내세울만한· 사찰도 없었으며 개발된 관광지도 없었다. 다만 82년도에 본격적으로 다듬기 시작한 돌머리 해수욕장과 신흥 해수찜이 외지 관광객이 찾는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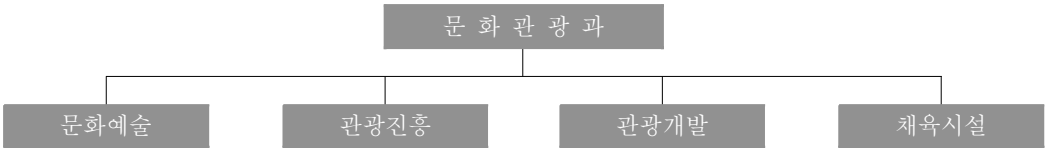
그러나 민선 자치 시대가 개막한 90년대에 관광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테마 공원인 " 난 공원"과 "함평나비대축제"등이 기획되어 추진함으로써 2000년대에 접어들어 관광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증대 되었다. 이에 고무된 행정 당국은"난 공원"을 자연생태공원으로 확대 조성하고 읍면에는 장승·솟대 공원, 꽃무릇공원, 달맞이공원 등이 속속 조성됨과 아울러 복합 기능을 가진 엑스포 회장 조성과 황금박쥐 생태관, 생활유물전시관, 일강김철선생기념관 및 상해임시정부청사 이전 복원 등이 완료됨과 동시에 함평나비축제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역 축제로 확고한 위치를 굳히고 꽃무릇 큰잔치. 대한민국난명품대제전,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날로 명성을 더해감으로써 함평이 생태관광의 메카로 주목받게 되어 연간 관광객 300만 시대를 열게 되었다. 이러한 대폭적인 관광자원 확충과 급증하는 관광객 증가율에 걸맞은 소득증대와 향후 날로 다양해지는 관광객의 취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시책 개발이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특히 군의 동북부와 연접한 140만 광주 시민과 30km 내외의 거리에 위치한 목포권 관광객의 유인책도 절실하다. 또한 지근거리에 있는 2개의 비행장과 호남선철도, 2개 노선의 고속도로, 4개 노선의 국도 등이 통과하는 양호한 접근성을 활용한 잠재 관광객을 유입 시키려는 줄기찬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3. 함평의 관광행정

함평군의 관광 행정은 문화관광과가 담당하고 있으며 기구와 현황은 다음표와 같다.

1986년까지는 일반 관광 행정을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하고 관광개발업무는 새마을과에서 분담하다가 1987년 문화공보실에 관광계를 신설 일원화 시켰다가 1997년 나비축제장등 개발중인 각종 관광지의 조경사업과 연계시키기 위하여 산림관광과를 신설 이관시켰고 그 후 나비대축제 성공과 더불어 대대적인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2000년에 문화관광과를 신설 관광업무를 총괄토록하고 담당계를 분야별로 세분화하는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 문화관광 행정 공무원 정원

구 분	계41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무기계약직	기 타
계	22	1	4	6	3	3	2	3	

구 분	계41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무기계약직	기 타
문화예술	9	1	1	1	1	2	1	2	
관광진흥	4		1	2		1			
관광개발	4		1	1	1			1	
체육시설	5		1	2	1		1		

문화관광과 업무 분장 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예술담당부서에서는 군립도서관 및 미술관 관리. 향교·사찰 등 종교업무, 지방예술진흥, 군사편찬, 문화예술단체 지도육성. 각종 문화재 및 향토유적지관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산업관리, 출판업 및 인쇄업 신고 등을 맡고 있다. 관광진흥 담당부서에서는 나비축제 등 각종 축제의 종합 기획 및 실행, 관광사업체의 등록·허가·신고·지정 및 지도, 관광 종사원 양성 관리, 관광홍보 총괄 및 홍보물 제작, 관광 안내소운영, 명가·별미집 관리, 관광통계자료작성, 해수욕장운영관리, 기타 관광 진흥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관광개발 담당부서에서는 권역별 관광종합개발 계획 수립, 각종 관광 시설 및 관광지 조성 사업 추진, 생활 유물 전시관 운영, 민박사업 추진 관리, 온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체육진흥담당부서에서는 공설운동장·농어민문화체육센타·야구장·축구장·국궁장·골프스윙연습장·테니스장 등 각종
공공 체육 시설물 운영 및 유지 관리,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각종 체육 단체 지원, 각종 체육 대회 추진 및 지원, 직장 경기부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 밖에 엑스포공원, 자연생태공원, 화양근린공원은 별도 부서에서 관리 운영 하고 있다.

제2절 함평의 관광사업체

관광진흥법상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여 영리목적을 영위하는 관광사업은 여행업, 관광 편의시설업, 카지노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 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등 7개 분야이지만 함평에는 여행업 6개사와 유원시설업 3개소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관광객 관련 유사업종을 포함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생태관광의 메카로써 위치가 더욱 확고히 다져지고 엑스포공원 등 복합적 관광자원들이 활성화되면 관광사업체는 물론 유사업종이 증대될 전망이며 특히 민박, 체험장, 식·음료업은 확대될 전망이다.

1. 식품접객업소현황

계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
	소계	다방	기타					
217	28	15	13	348	7	4	11	19

※ 자료제공 : 함평군

2. 관광여행사 등록현황

등록번호	업 소 명	대표자	영업구분	허가일	폐업일	사업장소재지
1	(합)백마 관광여행사	백맹조	국내여행업	89.5.27	-	함평 기각 884-3
5	(주)코리아나여행사	김영열	국내여행업	2001.3.7	2006.4.21	해보 문장 822-1
6	나비관광 여행사	정동권	국내여행업	2002.2.21	2008.8.26	해보 문장 676
7	(유)월드 투어여행사	정주희	국내·외여행업	2007.1.29	-	해보 문장 833-51
8	(주)천지 여행사	이건행	국내여행업	2007.5.11	-	함평 내교 204-3
2010-1	(주)온누리 여행사	김수자	국내여행업	2010.6.10	-	함평 내교 152

※ 자료제공 : 함평군

3. 숙박시설현황

구 분	계	여관	민박	오토캠핑	수련시설					해수찜	나비베이스타운
					생태공원	학생의 집	문화의 집	일강기념관	녹색체험학교		
업소수	113	15	88	1	1	1	1	1	1	3	1
객실수	559	293	235	10	4	3	2	1	4	-	7
수용인원	2,830	586	1,322	52	10	150	4	20	25	215	50

※ 자료제공 : 함평군

4. 유원시설업

허가번호	업 소 명	대표자	업 소 소재지	허가일	시설물		비 고
					종수	수량	
2007-1	(주)하니비 테마랜드	한봉한	대동 운교 500-1	2007.5.15	11종	11대	자연생태공원 내(민간투자)
2008-1	함평나비랜드	김성태	함평 수호 1154-1	2008.4.17	21종	22대	엑스포공원 내(민간투자)
2010-1	(재)함평세계나비·곤충 엑스포조직위	박윤식	함평 수호 1157-1	2010.7.7	1종	1대	물놀이형

※ 자료제공 : 함평군

제3절 함평의 관광자원

관광자원에 대한 개념은 학문적 관점에 따라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학자들이 제시한 정의도 다양하다. 또한 이에 따른 분류 방법도 여러 갈래이다. 더구나 함평의 관광 자원은 빈약하여 이러한 분류 유형을 모두 충족할 수 없다. 다만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시하는 분류 방식과 학자들의 분류 방식을 참고하여 함평의 관광 자원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자연자원

함평의 자연자원 중 특별한 것은 없으나 함평만 해변의 2개 해수욕장과 고산봉 폐금광 일대의 멸종 위기동물인 붉은 박쥐 집단 서식지, 먹황새도래지 및 수달 등이 서식하는 대동댐 주변, 우수 명품 한국 춘란이 군 전역에 자생하는 등 동·식물류와 천연기념물 2종 등이 내세울 만하다. 산악 자원은 불갑산 연실봉(517m), 군유산(402m), 천주봉(375m), 고산봉(359m)등으로 주로 등산로로 활용하고 있으며 군유산을 비롯하여 산지 곳곳에 우수 품질의 차나무가 자생한다. 하천은 영산강 하류가 관통하고 국가 하천은 3개소 44.93km이며 지방 2급 하천 17개소 102.77km와 그 밖에 소하천 248개소 340,325km이다. 이 중 함평천 중류에 엑스포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저수지는 158개소로써 이 중 대동제와 대동댐이 가장 방대하고 대동제 주변에 자연생태공원이 소재하며 주변 일대에 관광지 개발이 진행 중이며 월천제 등 10여개소의 유명 낚시터가 있다. 특히 한국의 갯벌은 세계 5대 갯벌국(國)의 1국이며 함평만 갯벌 14.79㎢가 여기에 속하며 거의 훼손되지 않았다.

1) 천연기념물 현황

2009. 12. 현재

지정번호	명 칭	소 재 지	지정년월일	비고
108호	팽나무·느티나무· 개서나무의 줄나무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948-2	1962.12.03	
110호	붉가시나무 자생북한대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산12-2	1962.12.03	

※ 자료제공 : 문화관광과

2) 해수욕장 현황

2009. 12. 현재

시설명	위치	면적(㎡)	백사장		이용객(명)	시설물					
			연장(㎞)	면적(㎡)		탈의장		샤워장		화장실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동
돌머리해수욕장	함평읍 석성리	118,800	2	110,900	202,350	-	-	1	132	2	136
안악해수욕장	손불면 월천리	9,900	0.1	20,000	30,950	1	66	1	66	1	66

인공풀장		쉼터		쓰레기장		야외무대		안내소		전망대		음수대		갯벌체험데크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규모	개소	면적(㎡)	개소	길이(m)
1	7,900	18	234	-	-	1	66	1	82	1	18m/45㎡	3	30	1	250
1	200	4	52	-	-	1	66	1	13.2	-	-	1	10	-	-

※ 자료제공 : 문화관광과

2. 문화적 관광자원

1) 역사자원

함평군에서는 선사유적, 불교유적, 유교유적, 도요지등 다양한 역사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군 전역에 산재한 고인돌과 고분은 특기할 만하다. 그 중에서 손불면 죽암리 장고분과 월야면 예덕리 신덕 고분 및 만가고분군은 영산강 유역의 고대 한·일간 문화 교류를 밝히는 단초를 지니고 있는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내포 하고 있다. 또한 25점에 이르는 문화재가 관내에 산재하고 있으며 유형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함평군의 역사유물

(단위 : 개소/기)

고인돌		고 분		전통사찰	향 교	사액서원	성지	도요지	고건축	비고
군립수	기 수	군집수	기 수							
64	464	31	약100	2	1	1	4	13	35	

※ 1992년 함평군의 문화 유적(목포대) 조사
※ 세부 내용은 제2~6편 해당 조항을 볼 것

(2) 함평군의 등록 문화재

계	보 물	등록문화재	지 방 문 화 재					비 고
			소 계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문화재자료	
25	1	3	21	5	1	8	7	

※ 함평군 문화관광과 제공

2) 역사 관련 각종 전시 및 기념관

함평군 관내 현존 역사 관련 전시관 및 기념관은 모두 민선 2기 이후에 건립되거나 복원된 것으로 이는 지역의 정체성 확립이 근본적인 목적이나 부차적으로 관광 자원 확충이 내포되어 있다 하겠다. 이들 시설들을 내용별로 구분해보면 선조들이 일상 생활에 사용했던 근대 유물을 한데모아 용도별로 분류 전시하고 있는 "생활유물 전시관"이외는 모두 항일 독립 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생활유물전시관"은 당초 나산면 삼축리 박현순이 평생 수집하여 축동 마을 앞 자신의 비닐하우스 내에 간이로 전시하고 있던 유물 1,225점을 함평군이 모두 매입하여 폐교된 이문초등학교 부지에 전시관을 신축 전시하고 있으며 상해 임시 정부 청사를 재현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 독립운동 역사관"은 일강 김철 선생이 천석지기에 달하는 사유 재산을 처분하여 중국 상해시 마당루에 있는 당시 대한민국 임시 정부 청사 건물을 매입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비로소 단독 청사를 갖게 되었던 뜻을 기리고 후세의 귀감으로 삼고자 고향에 세워진 일강 김철 선생 기념관과 나란히 벽돌집 형태의 중국 현지 건물이 원형대로 재현되어 역사 교육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밖에 문장 4.8 만세 발상지인 낙영제와 항일 독립운동가 안후덕 선생의 생가를 복원하였고 일강 김철 선생과 남일 심수택 의병장의 기념관까지 건립하게 된 배경은 함평이 상해 임시 정부 수립 및 운영에 함평 출신 항일 독립 운동가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던 유서 깊은 고장으로 자리 매김하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시설물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유물전시관

- o 건립배경 : 전통 생활 유물 전시를 통하여 생활 역사 체험과 추억거리 제공을 위함
- o 추진기간 : 2005. 12. ~ 2006. 09.(10개월)
- o 사 업 비 : 13억
- o 규　　모 : 호박과 장수풍뎅이 모형의 ABR공법의 특수 건축물 4층 230평
- o 전시내용 : 농기구, 어로기구, 의류및복식, 농산물가공기공, 각종 규방용품, 주방기구등 1,225점

(2) 일강 김철 선생 기념관

- o 건립배경 : 일강 선생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충의와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함
- o 추진기간 : 1999 ~ 2003. 6(5년)
- o 사 업 비 : 2,173백만원(국비 500, 도비 530, 군비 1,143)
- o 규　　모 : 부지 10,773㎡, 전통 한옥 5동(92평)
- o 시설내용 : 사당, 기념관, 생활관, 내삼문, 관리사, 일강선생동상, 주차장등

(3)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 운동 역사관

o 건립배경 : 중국 사하이 마당루 임시정부 청사 재현으로 범 국민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함
o 추진기간 : 1999 ~ 2009. 6.(공사기간 : '08. 12 ~ 09. 6, 개관일 : ;09. 6. 29.)
o 사 업 비 : 1,981백만원(분권교부세 757, 군비 1,224)
o 규 모 : 적벽돌 지상 3층 876㎡(중국 현지 건물 원형 재현)
o 시설내용 : 임시정부수반 김구선생 집무실, 정부집무실, 회의실, 화장실, 침실, 주방 등과 체험공간으로 1920년대 상하이 일제의 만행과 독립 지사고문모습, 함평이 품은 임시정부(임시 정부의 중국 내 활동 역사)등 3개 테마 전시 공간

(4) 문장 4.8만세 발상지 「낙영재」 복원

o 추진배경 : 석천 김중수 선생의 문화생 6명이 문장 4.8만세 운동을 모의한 장소인 석천선생의 서당 「낙영재」를 복원 독립지사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함
o 추진기간 : 1999. 11. ~ 2005. 4. 7(공사기간 : '04. 10 ~ '05. 4)
o 사 업 비 : 255백만원(국비 100, 도비 50, 군비 105)
o 규 모 : 부지 5,581㎡, 목조 4칸 겹집 64.8㎡, 부속사 12.92㎡]

(5) 독립운동가 석정 「안후덕 생가」 복원

o 추진배경 : 사재를 임시정부에 헌납하고 임시정부 산하 "애국단", "한인청년회"에 가입 하는 등 독립 운동에 헌신하신 선생의 위훈을 기리기 위함
o 추진기간 : 2005. 11. ~ 2010. 4.
o 사 업 비 : 510백만원(국비 340, 군비 170)
o 규 모 : 전통한옥 기념관 1동, 생가 1동

(6) 남일 심수택 의병장 기념관

o 추진배경 : 1907년부터 1909년까지 전남 남서부 지역에서 의병 활동을 하였으며 특히 영암 사촌 전투에서 일본군 대장 평금산(平琴山을 사살하는 등의 위명을 떨치고 순절한 심수택 의병장의 위훈을 기리기 위함
o 추진기간 : 1999. ~ 2003. 6.(5년)
o 사 업 비 : 2,173백만원(국비 500,, 도비 530, 군비 1,143)
o 규 모 : 부지 10,770㎡, 전통 한옥 3동 77㎡(사당, 삼문, 부속사)

3. 함평의 축제

함평에는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세시 풍속이외는 계획된 축제는 없었다. 그러나 민선 2기가 출범하면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관광 산업 육성이 함평군의 주요 시책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역 축제가 기획되어 본격적으로 추진 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그 동안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유출 되어왔고 이러한 감소세를 둔화 시키거나 인구를 증가 시킬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에서 교류 인구 즉 관광객이라도 증대 시켜 보자는 고육지계였다고 할 것이다. 나비축제를 시점으로 솟대·장승·허수아비 한마당, 꽃무릇큰잔치, 대한민국난명품대제전, 대한민국국향대전 등 다수가 추진되었고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었다(구체적인 내용은 제4장 함평의 축제편 참조)

○ 함평의 3대 축제

축제명	개최기간	최초개최	장 소	소 재
함평나비대축제	5월 5일 전후 17일 내외	1999년	엑스포공원	나비와 꽃
대한민국국향대전	10월 하순부터 17일 내외	2004년	〃	국 화
꽃무릇큰잔치	9월 셋째 일요일 전후 3일간	2000년	용천사 일대	용천하 꽃무릇

※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나비축제장에서 처음 개최한 후 자연생태공원으로 옮겼다가 주차장 문제 해결과 함평읍 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엑스포 공원으로 위치 변경

4. 스포츠 관광자원

관광 소득 유발 효과가 비교적 큰 스포츠 시설은 골프장이다. 관내에는 2004년도에 다이너스티 골프장이 18홀 규모로 개장하였다가 2009년 27홀로 확장한바 있고 퍼블릭 골프장인 함평나비cc가 시험 라운딩을 마치고 내부 사정으로 정식 개장을 못하고 있으며 3~4개 회사가 골프장 조성을 추진 중에 있다. 전남 야구협회 전용 야구장에서는 광주 전남 사회인 야구 클럽 대항전 및 종별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나비베이스타운에는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2군 경기가 열리며 겨울철이면 전지훈련 팀들이 2개 구장을 찾고 있다. 이 밖에 태권도, 배드민턴, 국궁, 테니스 등 각종 대회가 관내 체육 시설 등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므로 관련 대회 유치 역량에 따라 체육 시설 이용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18홀 정규 코스를 갖춘 파크골프장은 국내에서 가장 경관이 좋아 신종 “나비 골프 대회”도 개최되고 있다. 2009년 말 현재 관내 체육 시설은 다음과 같다.

○ 체육시설현황

(면적 : ㎡)

실내체육관		야구장		국궁장		공설운동장		골프장		파크골프장		게이트볼		테니스		골프연습장	
면적	수용인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홀수	개소	홀수	개소	면적	개소	면수	개소	타석수
3,379	945	2	12,198	1	237	1	7,920	1	27	1	18	14	6,715	1	8	1	20

※ 학교 체육시설 제외

5. 사회적 관광자원

100여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해수찜은 유황석을 장작불로 달구어 바닷물을 끓이고 그 물과 온기로 찜을 한다. 해수찜은 산후통, 신경통, 아토피 등 피부병에 특효가 있어 지역주민들 사이에 민간요법으로 오랜 세월 널리 활용 되다가 80년대 접어들어 현지 해수탕 업주들의 대폭적인 시설개선과 대구 출신 김순옥이 해수탕 업에 가세함에 따라 그 신비한 효과가 전국각지에 알려져 부인들을 중심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현행법상 해당 법규가 없어 여인숙업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함평에는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은 지정된 곳이 없으며 별도로 군립공원 지정 조례도 없는 실정이나 도시계획법상 공원 지구로 몇곳이 지정 되어 있으나 관광지로써 역할은 미비하다. 그 밖에 관광농원과 신활력 사업으로 개발한 나산강 레포츠장 등이 있다.

시설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해수찜 업소 현황

업소명	면적(㎡)	찜탕수	동시수용인원	연간이용객	1일숙박가능인원	부대시설	개업일
함평신흥해수찜	265.92	26	100	2,500	70	숙박,식당	1995.1.20
신흥해수찜	207.42	14	90	3,000	45	숙박,식당	1995.5.01
주포해수찜	338.19	30	150~200	1,500	100	숙박,식당	1995.5.01

※ 자료제공 : 함평군 문화 관광과

○ 관광농원 현황

농원명	위 치	대표자	면 적	수용인원	1일숙박가능인원	개원일	주업종
천지관광농원	해보면 금덕리	류중권	2ha	100	40	1992. 6	농산물판매
백호관광농원	대동면 백호리	김상철	4ha	-	-	1994.4.	-
신흥관광농원	손불면 궁산리	김순옥	1.2ha	-	-	1996.7.	-

※ 자료제공 : 함평군

○ 나산강 레포츠장 현황

위 치	대표자	주요품목	개업일	동시수용인 원	1일 이용가능인원	비 고
나산면 삼축리	신승수	- 뗏목타기 체험 - 물분수 터널 - 카약체험 - 강 레프팅 - 수영장 - 쪽배운영	2010. 6	500명	1,000명	신활력 사업비와 민간투자로 조성

※ 자료제공 : 함평군 기획 예산실

○ 관광객이 자주 찾는 주요 공원 현황

공 원	위 치	면 적	주요시설	부대행사 및 주용도	조 성 개시일
함평공원	함평읍 기각리	22,000㎡	현충탑, 세심성, 관덕정, 척화비, 기념비	· 현충일, 광복절 등 참배행사, 근린공원	1967.8
장승및앵두공원	나산면 나산리	39,000㎡	카약장, 주무대, 음수대, 숲속광장, 왕버들야영장, 장승·앵두희망동산, 앵두길	· 면민의날 등 각종 야외행사, 산책로, 공원	1999.1 2009.4
꽃무릇공원	해보면 대각리	1.5㎢	주무대, 야생화단지, 약수터, 분수대, 항아리조형물 등	· 꽃무릇큰잔치 · 면민의날행사	2002.4
달맞이공원	월야면 양정리	7.1ha	주무대, 잔디구장1, 족구장1, 수련포, 박터널1, 그네1, 돌탑1, 육묘정 6개소, 연자 방앗간1, 음수대 1, 분수대 2, 각종 운동기구, 조형물, 백련지 등	· 면민의날행사 · 정월대보름세시 풍속놀이 재현행사 · 지역민 및 외지 관광객 볼거리 제공	2002.11

※ 자료제공 : 함평군

6. 복합적 관광 자원

1) 엑스포공원

○ 축제편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참조

2) 함평자연생태공원

민선 초대 정원강 군수가 함평이 한국 춘란의 자생지로서 지리적 여건과 기후적인 여건이 최적지라는 이점을 활용 “난공원”조성을 착안 한국 자생란 보존 육성사업을 농림부로부터 유치하여 1998. 6. 27. 착공하였으나 민선 2기 이석형 군수가 취임한 이듬해에 「함평나비대축제」가 집객면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됨에 따라 이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농림부의 「우리꽃 생태학습장 조성사업」 산림청의 「무궁화 동산 조성 사업」 및 「산림욕장 조

성사업」 환경부 「곤충 생태관 조성사업」 문화관광부 「청소년 야영장 조성」 사업등을 잇따라 난 공원 조성 사업지구에 유치하여 이를 포괄 하기위해 「난 공원」을 「자연생태공원」으로 확대 시켰다. 대동제 축조전 이 지역의 핵심 마을은 대동면 운교리 매월촌 장산 마을과 신광면 월암리 매월촌 구터였으나 장산마을에는 자연생태공원이 조성되었고 신광 매월촌 구터에는 수목원등 관광지 조성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장산마을 최초 입촌 성씨는 奘氏들로써 오지기와를 생산 하다가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구전되고 있으며 '95년도까지 1가구(금산리 조병구)가 거주 하였다. 본 공원은 국내 최초로 6개 부처의 사업을 동일 공간에 유치하여 복합적인 시설을 갖춘 유일 사례로서 그 조성 과정과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함평군 대동면 운교리 500-1
· 사업기간 : '98. 6. 27 ~ '06. 7. 03(8년)
· 사 업 비 : 220억(국비 59, 특교 및 양여금 41, 도비 21, 군비 99)
· 규　　모 : 건물 25동/4,631㎡, 온실 8동/2,280㎡)
　- 부 지 : 410,465㎡(꽁원 262,930, 야영장 77,062, 시설지구 70,473)
· 시설내용 : 전시시설 9종, 관람시설 13종, 편익시설 등 10종

(2) 조성경위

· '96. 6. 23 : 발의(농수산부장관 우리군 방문시)
· '96. 12. 20 : '97농림사업으로 『한국자생란보존육성사업』 확정
· '98. 6. 27 : 『난공원조성사업』 착공
· '01. 1. 1 : 『함평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개소
· '01. 2. 27 : 『난공원조성사업』 완료
· '02. 4. 6 : 『반달가슴곰관찰원』 준공
· '02. 4. 6 : 『무궁화동상조성사업』 완료
· '03. 4. 22 : 자연생태과학관 등록(자연사 전문과학관)
· '04. 12. 30 : 공원 내 호반도로 2.1km 포장
· '05. 1. 13 : 관리사무소 신축
· '05. 1. 31 : 곤충생태관 조성사업 완료
· '06. 6. 30 : 나비·곤충애벌레 생태관 신축
· '06. 7. 3 : 개원

(3) 기 구

· 기구신설 : 2000. 12. 09(함평군조례 제1981호)

사 업 명	사 업 개 요	투자비 (백만원)	사업기간	관련부처
계		22,000	8년	
한국자생란 보존육성사업	·토지매입 : 208,373㎡ ·전시관1동, 부대시설5동 ·유리온실8동, 기타3종	총액 : 6,524 국 : 3,272 도 : 886 군 : 2,366	'97~ '01.2.21	농림부 (농산과)
곤충생태관 조성사업	·곤충표본전시관시설 ·벽천및바닥분수 ·수변데크, 쌈지공원등	총액 : 4,923 국 : 1,538 도 : 440 군 : 2,945	'00.5.19 '05.1.25	환경부 (환경보전과)
생태학습장 우리꽃 조성사업	·꽃단지24,000㎡:98종168천본 ·생태연못 1지 : 1,047㎡ ·초정,목교등 조경구조물 등	총액 " 840 국 : 395 군 : 445	'01. 9. 3~ '02. 5. 15	농림부 (농산과)
반달곰관찰원 (산림욕장)	·곰사육장 1동 196㎡ ·반달가슴곰 입식 : 13마리 ·곰놀이시설, 폐수처리시설 등	총액 : 400 국 : 20 도 : 60 군 : 140	'99.1.7~ '99.10.30	산림청 (산림수산과)
무궁화동산	·산책로 개설 : 2.4km ·무궁화 식재 : 9,400주 ·전망대 1동 등	총액 500 국 : 400 군 : 100	'01.11.8~ '02.4.6	산림청 (산림수산과)
호반도로	·공원내 간선도로 및 호반도로 포장 : 2.1km	총액 : 1,000 국 : 800 군 : 200	'03.11~ '04.12.31	건설부 (건설과)
청소년 야영장	·관리동1동, 집회동1동 ·야영텐트 동 290명 ·부대시설 3종	총액 : 2,500 국 : 1,600 군 : 900	'04.1.6~ '04.12.31	문화관광부 (문화관광과)
집단시설 지구조성	·부지매입 ·임시주차장 정비 ·경관지구 조성	총액 : 1,410 국 : 750 도 : 265 군 : 395	'04.9.1~ '06.6.30	행정자치부 (자연생태공원)
애벌레 생태학교	·사이버생태관 30평 ·나비생태관 40평	총액 : 259 국 : 259	'06.1.6~ '06.6.24	행정자치부 (총무과)

(4) 조성현황 및 투자 내용

(양여금 및 특별교부세는 국비에 포함)

사 업 명	사 업 개 요	투자비 (백만원)	사업기간	관련부처
공원주변 경관 및 공익조림	·경관수 식재(수목원) ·절개지 녹화 ·꽃길 조성등	총액 : 2,110 국 : 690 도 : 300 군 : 1,120	'02.1.20~ '06. 6. 30	산림청 (산림과)
정크아트 환경 조각공원	·대형 10점 ·중형 10점 ·소형 35점	총액 : 500 국 : 100 군 : 400	'05.11.23~ '06.7.	문화관광부 (문화관광과)

사 업 명	사 업 개 요	투자비 (백만원)	사업기간	관련부처
자체사업	·기존시설물 보강 ·공원경관 가꾸기 ·관람시설 확충	총액 : 1,034 군 : 1,034	'02.1.20~ '06.6.30	함평군 (자연생태공원)

※ ( )안은 함평군청 관련 부서, 개관 당시 현황임

(5) 주요 시설현황

구 분	단위시설	규 모	내 용
전시시설 (5개시설 1.668.41㎡)	나비곤충 표본전시관	지상 2층 710,09㎡	·나비표본 : 60점 75종 677마리 ·곤충표본 : 18점 36종 777마리
	춘란관	철근/유리 166,32㎡(50평)	·춘란 : 31종 163분(기증 135분, 구입 28분)
	풍란관	철골/유리 231㎡(70평)	·소엽풍란 : 75종 214분 ·석부작 : 127점 ·대엽풍란 : 2종 17분, 목부장 : 34점 ·새우란 등
	동양란관	철골/유리 330㎡(100평)	·동양란 : 산천보세외 38종 310분 ·나비먹이식물 : 황벽나부외 16종 28분 · 기타
	자생란관	철골/유리 231㎡(70평)	·자생란분화 : 복주머니난외 23종 161분 ·자생란산경 : 자란복륜외 8종 1,110본
전시시설 (4개시설, 1,428.8㎡)	나비생태관 (양란전시)	철골/유리 660㎡(200평)	·선인장 : 금황환외 50종 300본 ·관엽류 : 드라세나외 60종 3,500본 ·수목류등
	양란관 (초화육묘관)	철골/유리 330㎡(100평)	·신비디움외 5종 1,000본
	나비곤충 애벌레관	지상 1층 242.8㎡	·애벌레관 107.65㎡ ·나비생태관 123.45㎡ ·화장실 11.7㎡ ·애벌레및곤충전시대 8개
	반달곰 관찰원	철콘 196㎡(60평)	·야생동물사육시설 ·폐수처리시설등
관람시설 (10개시설 61,912㎡)	수서곤충 관찰학습장	2,418㎡ (732평)	·연못 : 3지 ·순련, 창포 등 수련식물
	우리꽃생태 학습장	24,001㎡ (7,260평)	·초본류 : 98종 168,160본(진입로,온실주변포함) ·생태연못 : 1,047㎡
	장미원	600㎡(180평)	·러브외 44종 1,320주
	목단원	430㎡(130평)	·48종 259주
	괴석원	676㎡(205평)	·괴석 28점
	무궁화동산	33,000㎡ (10,000평)	·무궁화 : 9,400주 ·산책로 : 2.4km ·초본류(참나리, 원추리 등) : 112,000본
	생태녹지섬	3,600㎡ (1,200평)	·대동저수지내, 관람객 볼거리제공(국화원)
	수변 관찰데크	330m	·관찰데크
	외래꽃생태 학습장	1,050㎡ (318평)	·계절별 교체 식재
	연및수련원	4,000㎡	·수련 및 좌하련 200종 29,000본 식재

제4절 관광 홍보 및 안내

함평군의 관광 홍보는 각종 인쇄물, 대도시 홍보관 운영 및 옥외 광고물 설치, 팸투어 등 직접 홍보와 방송, 신문, 잡지 등 대중 매체와 온라인망을 활용한 광역 홍보를 실시하고 각종 축제 등 특정 시기에는 직접광고 등을 하고 있다. (축제편 참고) 또한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실시간 관광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인터넷상 홈페이지를 구축 활용하고 있다. 관광 안내는 관광 안내소 운영, 함평생태관광협의회, 문화관광해설가협회, 생태관광안내자회 등을 육성하여 방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1. 관광 홍보

축제편 홍보란 참조

2.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함평군은 1998년부터 함평군 홈페이지를 운영을 시작하여 2009년 기준년간 476만건의 접속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한글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국어로 제공하고 있으며 7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고 문화 관광 코너에서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관광 코너는 함평나비축제, 대한민국국향대전, 꽃무릇큰잔치, 함평관광, 문화유산, 교통·숙소·음식, 생태체험관, 커뮤니티 등 8개 목록으로 세분화 되어 있으며 추천관광지, 해변, 전시 및 박물관, 체험학습장, 문화유산 등 개별 관광자원에 대해서 네티즌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한다. 또한 함평자연생태공원과 엑스포공원의 단일 홈페이지와의 접속이 가능토록 메인 화면에 베너창이 개설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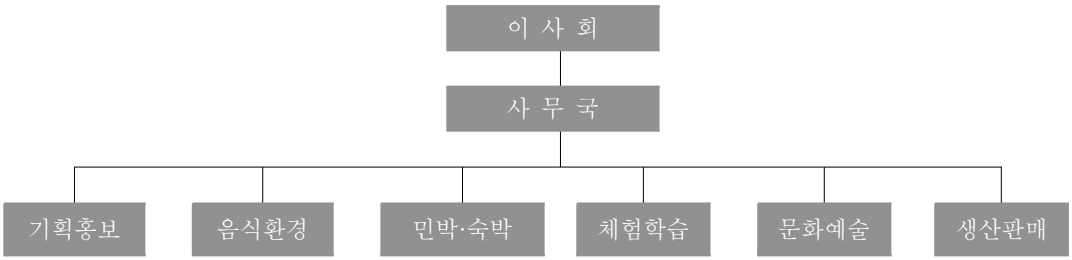
(6) 기타 추가 시설

구 분	단위시설	규 모	내 용
관람시설 (3개시설, 13,223㎡)	자란동산	2,800㎡(847평)	·자란 55,000본 ·개나리 4,500본 ·수국 300주
	사군자동산	600㎡(181평)	·갯국 6,000본 ·아이비 2,500본 ·적송 40주 ·소사 20주 · 대나무 51주 ·오죽 60주
	정크아트 조각공원	1,960㎡(593평) 7,863(2,380평)	·조형물 대 10점, 중 10점, 소 35점 설치
편익시설 (10개 시설)	주차장	792㎡(240평)	·대형 20대, 소형 135대
	화장실	64㎡(19평)	·남여, 장애인
	전망대	2.4km	·팔각정, 목조 2층
	산책로	37.5㎡	·무궁화동산 내
	정 자	6동	·목조기와 : 5 ·목조초가 : 1
	파고라	514㎡, 지상1층	·관리사 주위에 설치 – 넝쿨식물 식재 후 그늘막 형성

구 분	단위시설	규 모	내 용
	판매장	165㎡(50평) 200㎡(61평)	·나르다 상품판매 ·매점 등
	인공폭포	바닥분수 : 30㎡	·벽천
	분 수	바닥분수 1조 부력분수 50개	·풍란관 앞 ·생태녹지섬 내 5개
	의 자	99.178㎡	·관람객 휴식
청소년 야영장		관리동(지상2층) 실내집회동 취사장 2동 공동샤워장 야영데크 5면 (텐트 40동 설치분량)	·청소년 야영시설
관리시설	사무실	279.04㎡, 지상1층	·1층: 판매장 및 휴게실 ·2층 : 사무실
	매표소	35.51㎡(11평) 지상1층, 지하1층	·자동발매기 설치
	관리사	150㎡(45평)	·지상1층 : 관리사, 관사 ·지하1층 : 기계실, 중앙물탱크실 등

3. 함평생태관광협회

주민이 직접 군 관내 생태관광시설과 마을단위 체험 관광 자원을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인하고 소득화 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으로 정착시키는 한편 엑스포 공원이 사계절 함평관광의 허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가, 기업, 식·음료, 숙박 등이 상호 연계성을 갖을 수 있는 총체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그운영 주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신활력 사업의 일환으로 "함평생태관광협회"를 순수 민간 조직으로 결성하였다. 이는 행정주도의 시설 및 행사 중심과 계절형 관광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2009. 4. 14. 발기인대회 및 생태관광 활성화 포럼을 개최하고 전라남도의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2009. 7. 14 비영리 사단법인을 등록(고유번호 412-82-07051)함으로써 법적 요건을 갖추고 운영 체제는 이사회, 사무국,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구표는 다음과 같다.



이사회는 이사장, 감사, 이사 12명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의 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심의, 임원의 임명동의, 제규정의 제정·개정·폐지 등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 기구로써 협회를 대표한다. 사무국은 회무를 총괄 집행하고 홈페이지관리, 분과위원회 사업 조정 및 지원 그리고 분과위원회별 연계성을 유지시키는 조정자 역할을 한다.
분과위원회는 6개 분과 81명으로 분야별 구체적 업무를 집행한다. 그리고 별도 조직으로 생태관광안내자를 관리하는바 안내자의 업무는 엑스포 공원 및 관광지 안내, 각종 이벤트 개최시 안내, 통역 등 지원, 곤충 생태학교 체험 강사등으로 활용되며 안내자는 공개 모집 후 장기 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설립이후 협회의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 생태관광안내자교육('09.8.14~10.28 : 총 42개 과정 100시간 71명)

· 함평곤충생태학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학습자료 확충 8종, 학습공간마련, 곤충문화체험 영상 매뉴얼 개발 2종, 체험프로그램운영 3종

·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 2010관광콘텐츠융합사업"선정 : 120백만원 확보

· 생태관광네트워킹 활동 : ECO함평포럼개최 1회, 함평생태관광리더 육성 2회 80명, 관광협회 홈페이지 구축(민박 70개소, 펜션 6개소, 음식점 17개소 정보 등록)

4. 문화관광해설가 및 해설사 육성 활용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함평의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을 통하여 이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양성된 전문 인력은 함평군이 주관한 교육을 이수한 문화관광 해설가와 전라남도 주관 교육을 이수한 문화 관광 해설사 등 2종류가 있다. 이들은 함평군으로부터 소정의 실비를 제공받고 문화관광시설에서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거나 지역 축제 개최시는 회장안내와 설명은 물론 외국인에게 통역까지 수행한다. 이들의 애향심과 탐구 열정에 함평군의 이미지를 한 차원 고양시킨바 있다. 각 교육 과정별 이수 사항과 활동 현황은 표와 같다.

○ 문화관광해설가 및 해설사 활동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해설사			해설가		
		소계	'08교육이수	'09교육이수	소계	'05년 이수	'06년 이수
계	61	8	3	5	53	20	33
활 동	46	7	2	5	39	10	29
비활동	15	1	1	-	14	10	4

※ 자료제공 : 함평군 문화 관광과

5. 관광안내소

함평군에서 운영하거나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관광안내소는 엑스포 주차장에 종합안내소를 상설운영중이며 함평읍 공용터미널, 함평역, 서해안고속도로, 무안공항고속도로 등 상·하행선 고속도로 휴게소 4개소, 생활유물전시관, 상해임시정부독립운동역사관, 자연생태공원, 용천사 꽃무릇공원, 돌머리해변 등지에서 관광안내 홍보물을 제공하고 있다.

○ 함평 관광 종합 안내소 현황

위 치	개설년도	안내원수	면적	시설내용	운영주체	보유장비
엑스포공원 황소주차장	2010	1	66.41	·안내소 ·버스기사 휴게실	생태관광협회	컴퓨터, 팩스, 복사기, 프린터 등

※ 자료제공 : 함평군 기획 예산실

제5절 관광객

함평군 통계 연보에 의하면 함평을 방문하는 연간 관광객수는 80년대 말은 5만명 정도로 대부분 돌머리해수욕장 방문객이 주류이고 5년이 지난 1995년에는 20만명인바 이는 신흥 해수찜이 활성화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1999년에는 102만명으로 관광객 100만명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1999년은 함평나비대축제 탄생한 해이다. 2005년 452만명, 2008년 609만명으로 집계 되었다가 2009년에는 185만명으로 줄었다. 통계상 급격히 관광객 수가 줄게 된 배경은 그 동안 축제 관람객 수 집계 방법상 오류를 개선한 결과이다. 2009년 기준 계절별 관광객 점유율은 봄 58%, 여름 27%, 가을 11%, 겨울 4% 순이다. 봄철의 점유율이 높은 것은나비축제의 영향이며 여름철은 돌머리 및 안악해변의 해수욕장의 영향을 받고 가을철은 꽃무릇큰잔치와 대한민국 국향대전의 관람객이 주종을 이룬다. 참고로 2009년 제11회 함평나비대축제를 기준으로 한 관광객의 관광 행태는 여성에 비하여 남성 방문객이 5%정도 높은 편이며 전남·광주에 거주자가 52%이며 수도권은 16%를 약간 상회한다. 체류 기간은 83.4%가 당일 관광이며 숙박객은 16.6% 수준이며 전체 관광객의 1인당 평균 소비 지출은 84,202원이다.

1. 2009년도 방문관광객수

(단위 : 명)

계	봄(3~5월)	여름(6~8월_	가을(9~11월)	겨울(12~2월)	비 고
1,855,458 (100%)	1,077,678 (58.1%)	494,533 (26.7%)	212.,139 (11.4%)	71,088 (3.8%)	

※ 자료제공: 문화관광과, 연도별 현황은 통계 연보 참조

제6절 추진중인 관광 개발 사업

1.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조성사업

○ 위　　치 : 함평군 신광면 가덕리 426번지 일원
○ 부지면적 : 85,000㎡
○ 사 업 비 : 17,500백만원('08년 4,772, '09년 5,667, '10이후 7,111)
　– 공사비 : 16,000백만원(균특60%, 지방비40%), 토지매입비등 15,000백만원(특별교부세, 군비)
○ 사업기간 : 2007 ~ 2011년(5년간)
○ 도입시설 : 뱀 생태관, 악어쇼공연장, 전시장, 편익시설, 주차장 등

2. 대동제 상류 생태관광지(수목원조성)개발

○ 위　　치 : 함평군 신광면 월암리 및 대동면 운교리 일원
○ 부지면적 : 118,000㎡
○ 사 업 비 : 12,000백만원('08까지 1,522, '09년 1,833, '10년이후 9,167)
　– 공사비 : 11,200백만원(균특 60%, 지방지 40%), 부지매입 1,327백만원(군비)
○ 사업기간 : 2006~2012(7년)
○ 도입시설 : 오감유치원, 잔디피크닉장, 약용식물원, 명상치유원, 피톤치드치유원, 소리치유원 등

3. 사포 관광 단지 조성

○ 위　　치 :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및 월호리 일원
○ 부지면적 : 298,543㎡
○ 사 업 비 : 23,247백만원(공공투자 15,624, 민간투자 762)

- 공공투자 15,264백만원(국비 7,454, 군비 7,810)

○ 사업기간 : 2008 ~ 2015(8년간)

○ 도입시설

- 1단계 : 연수원지구(기아타이거즈 전용 야구 연습장)
- 2단계 : 도로, 전망대, 오토캠핑장 등 공공 기반 편익 시설
- 3단계 : 이주자 제공용 펜션, 매점, 음식점 등 민간 분양 시설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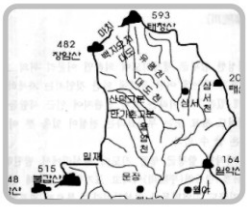
| 제1장 | 문화재 220
집필 / 신영호

| 제2장 | 함평지역 발굴유적 246
집필 / 이명헌

| 제3장 | 노거수(老巨樹) 262
집필 / 신영호

제10편 문화재·함평지역 발굴유적·노거수

제1장 문 화 재



문화재의 의미를 간략히 정의하자면 인류 문화 활동의 소산으로서 예술·과학·종교·도덕·법률·경제·민속·생활양식 등에서 문화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화란 인간 고도의 정신활동의 산물로만 보느냐, 아니면 인간정신의 소산의 일반으로 폭넓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문화의 개념은 달라진다.

그에 따라 문화재의 정의와 대상 역시 달라지며, 구체적으로 각 나라나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에서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특수 재산들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서는 문화재를 다음과 같이 분류·정의하고 있다.

①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 건조물(建造物)·전적(典籍)·서적(書籍)·고문서·회화·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소산으로서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②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큰 것.

③ 기념물(記念物) : 패총(貝塚)·고분(古墳)·성지(城址)·궁지(宮址)·요지(窯址)·유물포함층(遺物包含層) 등과 같은 사적지로서 역사상·학술상 가치가 큰 것, 경승지(景勝地)로서 예술상·관상상(觀賞上)가치가 큰 것,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 포함)·식물(자생지 포함)·광물·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④ 민속자료(民俗資料) :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과 관습 및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하는 데 불가결한 것 등을 말한다.

위와 같은 문화재들은 그 중요도에 따라 여러 지정문화재로 분류된다.

①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사적, 사적 및 명승,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② 시·도 지정문화재

③ 문화재자료가 있다.

한편 토지·해저 · 건조물 등에도 포장(包藏)된 문화재인 매장문화재(埋葬文化財)는 있다.

UNESCO에서는 1970년 46개국이 가입한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에서 문화재에 대한 폭넓은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즉 이 협약에서 정의한 문화재란 고고학·선사학·역사학·문학·예술 또는 과학적으로 중요하면서 다음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종교적 또는 세속적인 근거에 따라 특별히 지정한 재산을 말한다.

① 진기한 수집품과 동물군·식물군·해부체 및 고고학적인 관심 물체.
② 과학 및 공업의 역사와 관련되는 재산, 또는 민족적 지도자와 사상가·과학자·예술가들의 생애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과 관련된 재산.
③ 정규적 또는 비밀리에 행해진 고고학적 발굴 및 발견의 산물.
④ 해체된 예술적 또는 역사적 기념물의 일부분 및 고고학적 유적, 비문·화폐·인장 같은 것으로 100년 이상 된 골동품.
⑥ 인종학적 관심의 물체.
⑦ 미술 관련 재산으로 다음의 4가지에 관한 것으로, 첫째, 재료를 불문하고 전적으로 손으로 제작된 회화·유화·도화(단 공업의장과 손으로 장식한 공산품은 제외), 둘째, 재료 여하를 불문하고 조각 및 조각기술의 원작품들, 셋째, 목판화·동판화·석판화의 원작들, 넷째, 재료를 불문한 미술적인 조립품 및 몽타주(합성화).
⑧ 단일물체 또는 집합체의 여부에 관계없이 우표나 수입인지 같은 형태의 인지물, 녹음·사진·영화로 된 기록물, 100년 이상 된 가구와 오래된 악기 등이다.

이상의 UNESCO 협약 중 특징적인 것이라면 인류의 문화유산과 더불어 동물군·식물군과 같은 자연유산도 중요한 문화재로서 취급했다는 점이다.

UNESCO는 이미 1964년 제13차 총회에서 문화재의 범위를 자연유산에까지 넓혔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인류의 자연유산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는 제반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 다른 특징은 '과학 및 공업의 역사와 관련된 재산', '녹음·사진·영화로 된 기록물' 등과 같은 현대의 과학문명과 관련된 것들을 적극적으로 문화재의 범주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문화재란 곧 옛 것이며 비현대적인 것이라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탈피한 것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다음은 우리 함평의 지정문화재 현황이다.

함평군 문화재 현황

2009.12.31 현재

계	國家指定			登錄文化財	道指定				
	小計	寶物	天然記念物		小計	有形	無形	記念物	資料
27	3	1	2	3	21	5	1	8	7

제1절 국가지정 문화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사적 및 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 등 8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국보는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으로 2008년 소실(燒失)되어 전 국민의 가슴을 울렸던 서울의'숭례문'과'훈민정음'등이 이에 속한다.

보물은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무구 등의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며 서울의'흥인지문','대동여지도'등이 이에 속한다.

사적은 기념물중 유적·제사·신앙·정치·국방·산업·교통·토목·교육·사회사업·분묘·비 등으로서 중요한 것을 뜻하며 '수원화성'과 '경주 포석정지' 등이 이에 속한다.

사적 · 명승은 기념물중 사적지·경승지로서 중요한 것을 말하며 '경주불국사경내 부여구두래일원' 등이 이에 속한다.

명승은 기념물 중 경승지로서 중요한 것으로'명주 청학동의 소금강','상백도 하백도 일원'등이 이에 속한다.

천연기념물은 기념물 중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지질 · 광물로 나누어지며 이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으로 '달성의 측백수림', '노랑부리백로' 등이 이에 속한다.

중요무형문화재는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으로 '종묘제례악'과 '양주별산대놀이' 등을 이야기한다.

중요민속자료는 의식주·생산·생업·교통·운수·통신·교역·사회생활·신앙 민속·예능·오락· 희 등의 중요한 것으로서'덕온공주 당의','안동 하회마을'등이 이에 속한다.

2009. 6. 30 현재 국가지정 문화재는 전국 건이며 우리 함평군은 천연기념물 2건과 함께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68호이던 고막천 석교가 2003년 3월14일 보물로 승격되어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모두 3건의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다.

나산면 초포리 사촌 출토 청동기 유물, 정유피란기 원본 등은 국보 또는 보물에 해당하고, 월야면 예덕리 만가촌 고분과 대동면 금산리 이음돌 고분 등이 사적지에 해당하는 문화재이나 아직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국가지정문화재 현황이다.

국가지정문화재

2009. 6. 30 현재

종별 / 시도	국 보	보 물	사 적	사적 및 명 승	명 승	천 연 기념물	중요무형 문화재	중 요 민속자료	계
합 계	310	1587	482	10	51	390	114	257	3,201

1. 국가지정 문화재 시·도 현황

2009년 6월 30일 현재 서울이 지정 건수 820건으로 가장 많고, 경북 588건, 전남 330건, 경남 237건 순위이다.

다음은 시 · 도별 국가지정문화재 현황이다.

시 · 도별 국가지정 문화재 현황

2009. 6. 30 현재

종별 / 시도	국 보	보 물	사 적	사적 및 명 승	명 승	천 연 기념물	중요무형 문화재	중 요 민속자료	계
서 울	153	505	68	1	2	12	30	49	820
부 산	3	21	4	0	2	7	3	0	40
대 구	3	38	7	0	0	2	0	5	55
인 천	1	21	18	0	1	10	4	0	55
광 주	2	8	2	0	0	1	1	3	17
대 전	08	3	1	0	0	0	0	0	4
울 산	2	5	4	0	0	3	0	1	15
경 기	91	128	64	0	1	16	8	10	236
강 원	9	56	16	0	7	33	1	11	133
충 북	13	71	18	1	8	22	3	22	158
충 남	27	91	47	1	1	14	3	19	203
전 북	6	86	34	0	3	30	2	13	174
전 남	18	156	40	3	9	56	13	35	330
경 북	54	283	101	3	11	59	7	70	588
경 남	10	107	52	1	5	42	9	11	237
제 주	0	3	6	0	1	41	3	8	62
기 타	0	5	0	0	0	42	27	0	74
합 계	310	1587	482	10	51	390	114	257	3,201

전라남도 시 · 군별 국가지정 문화재 현황

구분 / 시군별	국가지정 문화재								
	소 계	국 보	보 물	사 적	사적및 명승	명 승	천연기념물	중요 무형문화재	중요 민속자료
계	346	20	156	44	0	15	60	14	37
목포시	3	0	0	1	0	0	1	1	0
여수시	18	1	12	2	0	1	1	0	1
순천시	64	4	38	5	0	3	3	1	10
나주시	28	0	12	7	0	0	2	2	5
광양시	6	0	1	2	0	0	2	1	0
담양군	14	0	6	1	0	3	3	1	0
곡성군	10	0	8	0	0	0	0	1	1
구례군	31	6	17	3	0	1	2	1	1
고흥군	6	0	4	0	0	0	2	0	0
보성군	14	0	4	0	0	0	2	1	7
화순군	16	1	6	3	0	0	4	0	2
장흥군	17	2	9	1	0	0	3	1	1
강진군	19	2	8	3	0	0	5	0	1
해남군	30	2	14	5	0	2	4	1	2
영암군	16	2	9	1	0	0	1	0	3
무안군	4	0	0	1	0	0	2	0	1
함평군	3	0	1	0	0	0	2	0	0
영광군	8	0	4	0	0	1	2	0	1
장성군	10	0	2	4	0	1	3	0	0
완도군	11	0	0	2	0	2	7	0	0
진도군	13	0	1	2	0	1	6	3	0
신안군	5	0	0	1	0	0	3	0	1

2. 함평군의 국가지정 문화재

指定番號	種 別	名 稱	數量	所 在 地	指定年月日
제1372호	寶 物	함평고막천석교	1기	학교면 고막리 629 외	2003. 03. 14
제108호	天然記念物	함평대동팽나무,느티나무,개서어나무의 줄나무	1원	대동면 향교리 948-2 외	1962. 12. 03
제110호	〃	함평붉가시나무	1원	함평읍 기각리 산12-2	1962. 12. 03
계	3				

1) 함평고막천석교

•종 목 : 보물 제1372호
•지정일 : 2003.03.14
•소재지 :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629
•시 대 : 고려시대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함평군수

일명 '똑다리', 또는 '떡다리'라고 불리는 이 석교는 함평군 학교면과 나주시 문평면의 경계 사이를 흐르는 고막천을 가로지르는 다리이다. 고려 원종 14년(1273) 무안 법천사의 도승 고막대사가 도술로 이 다리를 놓았다는 전설이 있다.

총 길이 20m, 폭 3.5m, 높이 2.5m로서 5개의 교각 위에 우물마루 형식의 상판을 결구한 널다리로서 동쪽으로는 돌로 쌓은 석축도로가 7~8m 연결되고 다시 물살을 가르기 위해 세운 최근의 콘크리트 다리가 이어지고 있다.

고막천 석교는 널다리이면서도 목조가구의 결구수법인 주두의 가구법을 택한 것이 특징이다. 다리의 상판은 우물마루 형식을 간직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목조건축과의 관련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서측 가장자리 1경간은 수리 시에 우물마루를 널마루로 깔아 다양한 상판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다리기초는 하상의 뻘에 생나무말뚝을 전 구간에 걸쳐 촘촘히 박고, 이 위에 규격이 큰 장방형의 절석을 정교하게 깔아 급류에도 휩쓸려 나가지 않도록 하여, 지금까지 홍수에도 견뎌온 가장 튼튼한 교량기초 구조를 보이고 있다.

수중 지하 바닥은 지반보강을 위해 나무말뚝을 촘촘히 박아 이를 지지대로 하였으며, 그 주위에 잡석을 일정 두께로 깔아 바닥이 급류에 휩쓸려 나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 공법을 택했다.

여름에 다리에 나가 앉아 있으면 뱀이나 모기에 물리지 않는다고 하며, 19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100석을 실을 수 있는 범선이 출입을 했다고도 한다.

서기 1390~1495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막천 석교는 널다리형식으로 원래의 위치에 원형을 간직하고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 유일의 다리로서 보기 드문 공법을 사용했으며, 석교가 지닌 교량사적 중요성을 지닌 귀중한 자료이다.

2) 대동면 향교리 팽나무·느티나무·개서어나무 줄나무

- 종　　목 : 천연기념물　제108호
- 명　　칭 : 함평 향교리 느티나무·팽나무·개서어나무 숲(咸平 鄕校里 느티나무·팽나무·개서어나무 숲)
- 수량/면적 : 14,917㎡(지정구역)
- 지 정 일 : 1962.12.03
- 소 재 지 : 전남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산 948-2
- 소 유 자 : 함평군
- 관 리 자 : 전남 함평군

줄나무란 길가나 도로변에 줄처럼 길게 심어져 가로수 역할을 하는 나무들을 말한다.

함평 대동면의 줄나무는 향교초등학교 옆에 있는 옛날 도로변에 심어져 있으며, 지정 당시 팽나무 10그루, 개서나무 5그루, 느티나무 15그루, 푸조나무, 곰솔, 회화나무, 개잎갈나무가

각 1그루 씩, 합하여 34그루가 2열로 자라고 있었다.

그 후 나무병원 등에서 치료하는 등 보호 처리를 하였으나 태풍과 자연 고사에 의해 절반이 줄어들어 2008년 12월 현재 팽나무 2그루, 느티나무 12그루, 개서나무, 푸조나무, 곰소리 각 1그루, 합하여 17그루가 2열로 자라고 있다.

이들 나무의 나이는 대략 350살쯤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무들이 심어지게 된 배경에는 풍수지리학상 함평면 수산봉이 불의 기운을 품고 있어 그 재앙을 막기 위함이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즉, 인조 3년인 1625년에 함평읍 내교리 외대화에 있던 함평향교를 이곳 대동면 향교리로 이건한 후, 향교 명륜당 서남쪽에 있는 함평읍 수호리의 수산(水山)이 풍수학상 화산(火山)이므로 그 불기를 막기 위해 당시 유림대표인 정방(鄭紡), 이양림(李楊林) 등 여러 사람이 협력하여 내교리 향교 터(현 나주임씨 선산)에서 자라던 나무를 옮겨 심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줄나무는 무안 청천리의 '팽나무와 개서어나무의 줄나무'와 이곳 밖에 없다. 특히 이곳의 줄나무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으로부터 벌판과 마을을 보호하는 방풍림의 기능 또한 갖추고 있다.

우리 선조들이 자연을 이겨낸 지혜가 담겨있는 매우 중요한 문화적 자료가 되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3) 함평읍 기각리 붉가시나무의 자생북한지대

- 종　　목 : 천연기념물　제110호
- 명　　칭 : 함평 기각리 붉가시나무 자생북한지(咸平 箕閣里 붉가시나무 自生北限地)
- 분　　류 : 자연유산 / 천연기념물/ 생물과학기념물/ 분포학
- 지 정 일 : 1962.12.03
- 소 재 지 :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산12-2
- 소 유 자 : 함평군
- 관 리 자 : 전남 함평군

붉가시나무(Quercus acuta Thunberg)는 참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로 추위에 약해서 주로 산기슭과 계곡의 양지에서 자란다. 재질이 단단하고 잘 쪼개지지 않으며 보존성이 좋아서 가구나 선박 등을 만드는데 이용된다. 붉가시나무라는 이름은 그 목재가 붉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붉가시나무는 우리나라의 난대림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상록수로 제주도와 남쪽 해안지방에 주로 분포하지만, 육지에서는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가 붉가시나무가 자라는 북쪽 한계선이 되기 때문에 식물분포학상 보존가치가 커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이 나무는 기각리 구기산 마을 예전 천부자 집 뒤안에 자라고 있는데 큰 나무는 높이 8m, 수관(樹冠) 너비 5m 가량이며 열매가 잘 열린다.

나무가 제대로 자라면 높이 20m, 직경 0.6m까지 자랄 수 있는 큰키나무며, 어린 가지에는 갈색인 부드러운 털이 많이 나고 잎에 자루가 있다. 나무끼리는 서로 같이 자라며(互生) 장타원

형 또는 장란형(長卵形)인데 끝이 갑작스럽게 날카롭고 녹색이다. 위쪽에는 적은 수의 톱니(거치-鋸齒)가 나있고, 길이 6~15cm 가량이며 잎이 두껍고 단단하다.

꽃은 6월경에 암수꽃이 따로 피며 수꽃은 꼬리 모양인 화서(花序)를 이루어 매달리고, 암꽃이삭은 위쪽 앞 겨드랑이에 2~5개가 직립하여 붙는다. 수꽃의 꽃받침은 6개며 깊이 쪼개지고 수효가 많다. 암꽃은 털이 많이 있는 총포(總苞)로 덮이며 화주(花柱)는 3개다. 열매는 도토리와 흡사하다.

붉가시나무는 참나무과에 속하는 상록활엽교목으로 우리나라 난대림의 구성분자이고 봄에 새로 나온 잎과 새 가지에는 갈색의 연모가 밀생하지만 곧 없어진다. 이러한 분포상의 성상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목재가 단단하고 색이 불그스레하여 이용도가 높은 나무며, 붉가시나무라는 명칭은 목재의 색이 붉기 때문이다.

제2절 시·도지정 문화재

■ 시·도지정문화재 현황의 개념[296]

○ 문화재 지정제도는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을 엄격한 규제를 통하여 항구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제도이며

○ 시도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시·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에 의거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 등 4개의 유형으로 분류되며, 문화재자료는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지 않은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정한 문화재이다.

■ 시·도지정문화재 의의 및 활용도

○ 시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현황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지정추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주로 문화재 관련 기초 통계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시 도 지정문화재 현황 및 추이

○ 시·도에서 '07년까지 시·도유형문화재 및 시·도무형문화재 등의 지방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총 6,643건으로 10 년 전인 '98년에 비해서 약 3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98 : 4,889건 → '08 : 6,770건)

○ 그러나 '02년을 정점으로 해서 5.0%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던 것이 '03년부터는 종전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긴 했지만 매년마다 2.0% 내지 3.7%의 완만한 상승추세를 이어가며 회복기미를 보이다 '06년부터 다시 전년도에 비해 다소 낮은 증가율을 보임

296) 시 · 도지정 문화재에 관한 이 글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에서 발췌 인용한 글이다.

○ ‘97년부터 '02년까지 시·도에서 지정한 지방문화재가 매년 3.5% 내지 5.0% 정도의 높은 증가추세를보인 것은 주로 시·도유형문화재 및 시·도기념물, 문화재자료 등이 시·도무형문화재 및 시·도민속 자료 등에 비해 월등히 많이 지정되어 상승세를 주도했기 때문임

○ 반면,‘03년부터는 종전에 비해 증가세가 2.0% 내지 3.7% 정도로 다소 둔화된 것은 그동안 상승세를 주도해 왔던 시·도유형문화재 및 시·도기념물, 문화재자료 등의 증가폭이 감소했고 또한 시·도무형 문화재 및 시·도민속자료 등도 역시 그렇게 많이 지정되지 않은 것이 높은 상승률로 이어지지 않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또한 `06년부터 증가추세가 다소 둔화된 것은 그동안 상승세를 주도해 왔던 시도무형 문화재및 시도민속자료 등이 다른 종목에 비해 적게 지정된 것으로 기인함

■ 향후 전망

○ 앞으로 시도에서는 다른 종목 못지않게 시도무형문화재 및 시도민속자료 등을 신규로 집중 발굴하여 전략적으로 지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그 여하에 따라서 향후 증가 추이는 현격히 달라질 것으로 전망됨

유형문화재 : 건조물,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무형문화재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기념물 : 사지. 고분. 패총. 성지. 궁지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경승지로서 예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것 그리고 동.식물, 광물들 중에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민속자료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습관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

문화재자료 :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중 시·도지사가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

1. 시·도별지정 문화재 현황

시·도별 문화재 지정 건수는 2009. 6. 30 현재 전국적으로 6,868건이며 경남 1,172건, 경북 1,113건, 전남 805건, 충남 674건, 경기 547건, 전북 512건의 순위를 보이고 있다.

유형문화재 지정건수 순위는 경남, 경북, 충북, 전남 순위며, 무형문화재 지정건수는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순위이고, 기념물은 경남, 전남, 경기, 충남 순위이고, 민속자료는 경북이 119건으로 단연 많으며 전남, 전북, 서울 순위고, 문화재 자료는 경북, 경남, 충남, 전남 순위를 보이고 있다.

시 · 도지정 문화재 현황

2009. 6. 30 현재

종별 / 시도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문화재자료	합계
서 울	256	36	26	29	45	392
부 산	96	14	48	5	49	212
대 구	80	16	17	4	43	130
인 천	55	18	54	2	20	149
광 주	27	15	26	7	26	101
대 전	33	14	40	2	48	137
울 산	18	4	46	0	18	86
경 기	175	40	183	11	138	547
강 원	144	19	78	4	124	369
충 북	254	17	115	16	65	467
충 남	161	34	157	19	303	674
전 북	193	27	107	34	151	512
전 남	214	33	187	40	231	805
경 북	338	28	134	119	494	1113
경 남	434	30	240	20	448	1172
제 주	24	17	49	7	5	102
기 타	0	0	0	0	0	0
합 계	2472	362	1,507	319	2,208	6,868

2. 전라남도지정 문화재 현황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총 건수는 2008. 12. 31 현재 건으로 전국 시·도 중 지정건수 순위 3위이다.

함평군은 18건으로 전남 시·군 중 지정건수 순위로 15위에 해당한다.

<표 5> 전라남도지정 문화재 시·군별 현황

구분 / 시군별	도 지 정 문 화 재					문화재자료
	소 계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계	718	219	37	192	40	230
목포시	10	3	1	3	0	3
여수시	26	5	3	5	2	11
순천시	59	26	3	9	3	18
나주시	53	14	1	16	4	18
광양시	14	5	1	5	0	3
담양군	50	11	4	12	5	18
곡성군	27	8	1	3	1	14
구례군	22	10	0	3	0	9
고흥군	47	11	2	23	0	11
보성군	20	10	1	1	2	6
화순군	54	18	1	16	1	18

구분 / 시군별	도 지 정 문 화 재					문화재자료
	소 계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장흥군	54	26	0	9	6	13
강진군	34	14	3	9	2	6
해남군	38	11	3	13	1	10
영암군	53	9	0	21	8	15
무안군	19	2	2	4	3	8
함평군	21	5	1	8	0	7
영광군	30	8	1	9	2	10
장성군	40	16	0	8	0	16
완도군	9	0	1	2	0	6
진도군	24	6	6	7	0	5
신안군	14	1	2	6	0	5

3. 함평군의 전라남도지정 문화재

함평군의 국가지정 문화재는 3건<표 2 참조>이며 전라남도지정 문화재는 21건<표 6 참조>과 등록문화재 3건으로 모두 합해 27건이 지정되었다.

현재 함평에 현존하는 신광면 보여리 보전마을 선돌, 대동면 용성리 금성산성 등이 기념물 지정에 해당하는 문화재며, 대동면 향교리 고산사 마애불은 유형문화재, 문화재자료에 해당하지만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지정된 문화재의 개별 소개는 각 시대별 유적유물에서 소개한 문화재는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2000년 이후에 지정된 문화재와 본서에서 소개하지 않은 문화재만 소개한다. 등록문화재는 다음절에 소개하므로 이 절에서는 도 지정문화재만 소개한다.

<표 6> 함평군의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일람표

2009. 12. 31 현재

指定番號	種 別	名 稱	數量	所 在 地	指定年月日
제 84호	有形文化財	용천사석등	1기	해보면 광암리 415	1981.10.20
제113호	〃	함평향교	1곽	대동면 향교리 590-1	1985. 2.25
제146호	〃	곤재우득록목판	48매	엄다면 엄다리 493	1987. 6. 1
제171호	〃	석불입상	1기	함평읍 함평리 154-1	1990. 2.24
제172호	〃	함평보광사범종	1개	함평읍 함평리 288	1990. 2.24
제 5 호	無形文化財	남도로동요	1인	엄다면 엄다리 575	1977.10.20
제 8 호	記 念 物	팔열부정각	1동	월야면 월야리 155-1	1974. 5.22
제 55호	〃	예덕리고분군	1원	월야면 예덕리 산170-3외	1981.10.20
제117호	〃	양재리 이팝나무	2주	손불면 양재리 산 96-1	1988.12.21
제122호	〃	마산리고분군	1원	학교면 마산리 산 16-2외	1988.12.21
제143호	〃	신덕고분군	2기	월야면 예덕리 산 177	1992. 3. 9
제151호	〃	금산리방대형고분	1기	대동면 금산리 산 84-2	1994. 1.31

指定番號	種 別	名 稱	數量	所 在 地	指定年月日
제152호	〃	죽암리고분	1기	손불면 죽암리 333-3	1994. 1.31
제158호	〃	용월리지석묘군	1원	월야면 용월리 367-2	1995.12.26
제150호	文化財資料	이규행가옥	1동	나산면 초포리 657	1987. 6. 1
제168호	〃	영파정	1동	함평읍 기각리 904-3	1988.12.21
제176호	〃	척화비	1기	함평읍 기각리 906-7	1990. 2.24
제230호	〃	진양리 화동고분군	2기	함평읍 진양리 산 8-1	2001. 9.27
제231호	〃	대덕리 고양고분군	2기	함평읍 대덕리 295-5외	2001. 9.27
제250호	“	함평 이재혁 가옥	1동	함평읍 함평리 379-2	2004. 2.13
제251호	“	함평 이건풍 가옥	1동	나산면 초포리 659-1	2004. 2.13
계	21				

※ 전통사찰 : 2개소 [용천사(제45호) ‘88.7.27지정, 보광사(제60호) ’88.10.5지정]

1) 남도노동요

- 지정여부 :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5호
- 보 유 자 : 남도노동요보존회
- 지 정 일 : 1977년 10월 20일
- 전승지역 : 전라남도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

<남도노동요>는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전남 서부 평야지역의 긴소리권에서 전승되는 노동요, 특히 들노래를 이르는 말이다.

전남의 들노래는 음악적 특성과 가창 방법으로 보아 크게 세 개의 분포권으로 구분되는데,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전남 서부 평야지역의 ‘긴소리권’, 섬진강 유역에서 여천과 고흥으로 뻗어 내린 전남 동부지역의 ‘산아지타령권’, 그리고 남해와 서남해 도서 해안지역의 ‘절로소리권’이 그것이다.

‘긴소리권’에 해당되는 지역은 무안군, 함평군, 나주군, 광산군, 영광군, 영암군의 서부 지역, 장성군의 남부 지역, 담양군의 영산강 유역 등지다. 이 지역에서 전승되는 <모찌는소리>, <모심는소리>, <논매는소리>, <장원질노래> 등은 음악성이 뛰어나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에서 전승되는 남도노동요는 <모찌는소리>, <모심는소리(늦은상사소리, 작은상사소리)>, <논매는소리(무삼벗기는소리, 외주삼장, 긴소리, 들내기소리)>, <풍장소리>, <등짐소리>, <홀태소리>, <개상질소리>, <매통질소리>, <디딜방아소리> 등으로 짜여져 있다. 그 중에서도 <논매는소리>의 <긴소리>가 이 지역의 특성을 대표하는 소리다.

<긴소리>는 <논매는소리>의 중심 소리로 느리게 부르기 때문에 <진소리>라고도 한다. 구성음은 ‘도 레 미 파 솔 라’이며 소리가 높은 상성에서 형성된다. 각 마디의 길이가 고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설소리꾼의 능력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된다.

노래의 중간에 높은 청의 구음을 떠는 소리로 길게 이어 내면서 변화를 주면 긴소리의 특성이 훨씬 잘 드러난다. 또 중간에 사설을 읊조리는 식으로 이어가는 창법을 구사하며 설소리 중

간에 농군들이 제창으로 “어-그렇제!”하는 샛소리를 지른다. 그래서 소리가 매우 느리지만 힘찬 느낌을 주며, 실제로 소리를 하는 데 힘이 많이 든다.

<남도노동요>는 천학실(1910.11.5~1991.8.23)에 의해 전승되었다. 천학실은 함평 엄다리에서 태어났으며 젊어서부터 농사일을 하면서 들노래를 익혔고 걸궁패에서 소고잡이를 한 적이 있고 명창 강남중(姜南中)에게서 판소리를 배우기도 했다.

특히 들노래에 관심이 많아 이 지역의 전통 소리꾼들을 찾아 다니며 전승되는 들노래를 배워 30여 곡의 들노래를 익혔다. 그러나 천학실이 작고한 이후 함평 엄다리의 남도노동요 전승이 중단된 상태에 있지만 무안, 함평, 나주 등지에는 천학실이 부른 남도노동요가 온전히 전승되고 있는 지역이 많다. 천학실이 불렀던 남도노동요(들노래)로는 <모찌는소리>, <모심는소리>, <논매는소리>, <풍장소리>, <등짐소리>, <홀태소리>, <개상질소리>, <매통질소리>, <디딜방아소리> 등이 있다.

기능보유자 천학실이 작고한 후 그에게 남도노동요를 익혔던 엄다면 불암리 마을 사람들이 본존회를 만들어 기능전수를 하고 있다.

2) 양재리 이팝나무

- 종　　목 : 시 · 도기념물 제117호 (함평군)
- 명　　칭 : 함평 양재리의 이팝나무(咸平良才里의이팝나무)
- 수　　량 : 2주
- 지 정 일 : 1988.12.21
- 소 재 지 : 전남 함평군 손불면 양재리 산96-1
- 소 유 자 : 사유
- 관 리 자 : 함평모씨종중

이팝나무란 이름은 꽃이 필 때 나무 전체가 하얀꽃으로 뒤덥여 이밥, 즉 쌀밥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 여름이 시작될 때인 입하에 꽃이 피기 때문에 ‘입하목(立夏木)’이라 부르기 시작하여 입하목에서 입하나무를 거쳐 오늘의 이팝나무가 되었다고 한다.

손불면 양재리의 이팝나무는 두 그루가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양재리에 사는 모수택씨 소유인 수정재(守靜齋) 뒤편 동산 소나무 숲속에 두 그루가 나란히 자라는데, 한 그루는 높이가 14m, 둘레는 3.04m이며, 다른 하나는 높이 12m, 둘레 1.43m로 차이가 크다.

크기로 보아 큰 것은 나이가 200여 년 정도로 추정하며, 작은 것은 100년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팝나무는 물푸레나무과에 속하는 갈잎 넓은잎나무로 학명은 Chionanthus-retusa이고 우리나라 중부 이남의 각 지방에 분포되어 있는 세계적인 희귀종이며, 일본과 중국 및 대만에도 자라고 있다.

꽃은 5~6월에 하얗게 피는데 한꺼번에 피기 때문에 이때는 나무의 모든 가지에 눈이 덮여있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다. 꽃은 길이가 1.2~2㎝, 너비가 3㎜로 5~6월에 새 가지에서 피며, 꽃대에는 마디가 있다. 꽃받침은 4장으로 깊게 갈라지며, 흰색의 꽃잎도 4장이다. 2개의 수술

은 꽃잎의 통부분 안쪽에 붙어 있으며, 씨방은 2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열매는 9~10월에 검은색으로 익는다. 잎이 피침형이고 꽃잎의 너비가 1~1.5㎜인 것을 긴잎이팝나무(var. coreana)라고 한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가장 큰 이팝나무는 순천시 승주군 쌍암면 평중리에 자라는 것으로 높이 16.5m, 가슴 높이의 줄기 둘레가 4.46m이고, 광양 유당공원의 이팝나무는 높이가 15m, 가슴 높이의 줄기 둘레가 3.27m이다.

우리나라의 크고 오래된 이팝나무에는 거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이팝나무의 꽃이 많이 피고 적게 피는 것으로써 그해 농사의 풍년과 흉년을 점칠 수 있다는 그것이다.

이팝나무는 물이 많은 곳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므로 비의 양이 적당하면 꽃이 활짝 피고, 부족하면 잘 피지 못한다. 물의 양은 벼농사에도 관련되는 것으로, 오랜 경험을 통한 자연관찰의 결과로서 이와 같은 전설이 생겼다고 본다.

남쪽지방에서는 정원수나 풍치수로 심는데 목재는 건축·가구재로 쓰고, 목부에서 염료를 추출한다. 식물 전체를 지사제 · 건위제로 사용하며, 꽃은 중풍치료에 쓰이기도 한다.

함평 양재리의 이팝나무는 오래되고 큰 나무로 생물학적 보존가치가 크므로 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3) 함평 진양리 하동고분군[297]

- 소 재 지 : 함평군 합평읍 진양리 하동(산8-1 임야2,975m2, 노기표외 4인소유)
- 수　　량 : 2기 분포 / 2기 측량
- 환　　경

유천리 미출고분이 입지하는 구릉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해발 40m 내외의 구릉은 다시 높아져 해발 86m의 야산을 이루는데 화동은 야산의 남동쪽 기슭에 위치한다. 고분은 마을의 서쪽에 있는 산기슭의 능선상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은 해발 86m의 야산이 완경사를 이루며 남쪽으로 내려오는 곳으로 동쪽으로는 함평천 주변에 형성된 평지가 조망되고 서족으로는 서해쪽으로 이어지는 구릉성 산지가 바라다 보이는 곳이다. 이번에 측량된 고분은 분형이 뚜렷하게 남아 있는 2기이다.

- 현　　상

2기의 고분이 동서로 2~3m 정도의 간격을 두고 나란하게 있는데 학교 운동장이 조성되면서 분구 끝자락 일부가 훼손되었다.

① 1호분 : 동쪽에 있는 대형고분인데 분구의 남쪽과 남동쪽 끝자락에 민묘가 조성되어 있다. 분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20m 내외, 높이 3.3m내외이다.

② 2호분 : 서쪽에 있는 소형고분으로 분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12~13m이다.

4) 함평 대덕리 고양고분군

297) 함평 진양리 하동고분군 · 함평 대덕리 고양고분군 · 함평 이재혁가옥 · 함평 이건풍가옥 등은 전라남도에서 발행한 『전라남도문화재 지정보고서』에서 발췌 인용한 글이다.

- 소 재 지 : 함평군 합평읍 대덕리 고양마을 295-5 등 5필지 14,496m2 (295-5 임 912m2, 295-7 임 2,287m2 <이상 최일옥소유>, 325-3 묘지 400m2, 325-3 임 6,050m2<이상 손길섭외>, 525-4 임 4,856m2<최판용 외>)
- 수 량 : 2기 분포 / 2기 측량
- 환 경

고양 마을 서쪽에 있는 증봉(해발 134.5m)은 남동쪽으로 내려오면서 해발 99m의 산을 형성하고 점차 낮아지는데 해발 50m 정도까지는 비교적 급경사를 이루고 그 이하로는 완경사를 이루(해발 13남동쪽으로 진행하는 구릉은 해발 25m 정도부터 북동쪽으로 내려오는데 이 구릉의 능선상에 2기의 고분이 위치하고 있다.

1호분은 구릉이 점차 높아져 정상을 이루는 해발 30m 부근에 위치한다. 2호분은 1호분에서 북동부쪽으로 15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는데 점차 낮아지던 구릉이 다시 올라가면서 형성된 구릉 말단부의 정상에 해당한다. 2기의 고분은 평지쪽으로 돌출한 구릉에 위치하는데 함평천유역의 충적평지를 조망하기 좋은 지점이다.

- 현 상

1호분과 2호분은 각각 큰 동산과 작은 동산으로 불리는데 1호분은 구릉 중간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2호분은 구릉 말단부에 있다

① 1호분 : 분구의 남쪽과 동쪽 끝자락에 각각 2기의 민묘가 조성되면서 분형이 약간 변형되었고 분구 정상에는 도굴갱으로 보이는 함몰부가 있다. 분형은 원형이며 규모는 주변 지형을 이용하여 축조하였기 때문에 분구 끝자락이 확실하지 않아 추정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직경 20m 내외, 높이 2m 내외로 판단된다.

② 2호분 : 분구 정상부에 민묘가 조영되어 있으며 그 주변에는 석실의 석재로 보이는 판석이 노출되어 있다. 분구는 비교적 잘 남아있지만 남동쪽과 북서쪽 자락에 민묘가 조영되면서 약간 변형되었다. 분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27m 내외, 높이 4m 내외이고 분정에는 직경 12m 내외의 평탄부가 형성되어 있다.

5) 함평 이재혁가옥

- 문화재명 : 함평 이재혁가옥(咸平 李載爀家屋)
- 소 재 지 :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379-2
- 시 대 : 19세기말~20세기 초반(현존 사랑채 1917년)
- 면 적 : 1,785m2
- 소 유 자 : 이재혁(토지등기대장상 소유자, 1893~1992)

1. 입지 유래

이재혁 가옥은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에 자리한다. 함평리는 함평의 중심지이며, 조선시대 후기에는 동현내면(東縣內面)에 속한 상주고리(上朱庫里)와 하주고리(下朱庫里), 서현내면에 속한 대

사동으로 기록(<호구총수(戶口總數)>, 1789년)으로 확인되며, 1906년 9월 24일 동현내면은 서현내면과 합하여 기성면이 되고 상주리(上朱里)와 하주리(下朱里)로 바뀐다. 기성면은 다시 1914년 영풍면(永豊面)과 합하여 함평면으로 바뀌시면 기성면에 속했던 상주리, 동상주리, 동하주리, 하주리와 누각리(樓閣里) 각 일부를 합하여 함평리가 된다. 함평면은 1963년 1월 1일 함평읍으로 승격되며, 현재는 함평 1리(山城, 桃花)와 2리(大寺, 氷現)로 나뉘어 4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이재혁 가옥이 있는 곳은 함평 2리에 속한 대사(속칭 한적골)마을에 속한다.

함평리 대사마을은 함평읍 곤봉산 지맥의 아래 마을로 대사동(1789년 <호구총수>의 마을명)이라 불렀고 뒤에는 "상주(上朱, 1912년 행정구역 개편 때 이름)"라고 부르다가 지금에는 대사동이라고 다시 부르고 있다. 옛날 이곳에 큰 절이 있었다하여 "대사동(大寺洞)"이라고 이름지었다 한다. 마을 안 골짜기를 한적골(한절골) 또는 대사골이라고 한다.

이 마을 에서는 오래전에 임씨글이 들어와 살았다고 하나(<세종실록지리지> 함풍현의 토성에 임씨가 있는데 그들의 세거지였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임씨들의 후손은 살지 않는다. 그 뒤에 함평이씨, 함평모씨, 인동장씨가 들어 왔고 광복전까지는 그들의 후손이 함평의 거부를 자처할 만큼 넉넉하게 살았다. 지금은 여러 성씨가 모여 살고 있다.

함평이씨 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鵬緖(1779~1809)-敦華(1796~1860) - 警憲(1825~1855) - 啓松(1841~1884) - 東範 (1869~1940)
載昇(1890~1959) **載嫝**(1893~1992)-正行(1917년 생)-建宗(1944년 생)

이 가옥은 이진사가(李進士家)로 알려져 오는데, 그 주인공은 이동범이다. 바로 이 가옥을 지은 인물이다. 이동범은 호를 석암(石庵 琀쓣자는 경연(敬然)이 砆沒璻뫃ᄢ2년 조경묘(肇慶廟) 참봉을 지냈고砆沒만경과 은률군수를 지낸 인물이기도 하다. 함평 공원안에 있는 세심정(洗心亭)을 짓는데 주도하였으 砆沒4천석의 부호를 알려졌다고 한다.

한편, 백범 김구(1876-1949)가 전북 남원을 출발하여 무안(목포)으로 가던 길에 함평의 <이진사가>에 보름남짓 머물렀다고 하는데, 이곳이 바로 이재혁 가옥이다. 이 시기는 1898년경으로 육모정의 계단을 갖춘 규모있는 지하실에서 밤에 주로 은거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낮에는 현재는 헐리워진 본채 7칸 집의 다락방에서 기거하였다고 한다.

육모정은 이동범의 부친인 이계송(啓松, 1841~1884)이 1880년대 초에 지은 정자로 연못 가운데 육각형의 정자를 짓고 지붕을 따로 덮었기에 '육모정(六茅亭)'이라 하였다고 한다. 육모정 밑에는 난리를 대비하여 설치해 둔 비밀 토굴이 있었고, 현재 헐리어 팔려간 7칸 본 채에는 몇이 숨어 지낼 수 있는 다락방이 마련되어 있었다. 김구는 낮에는 토굴에서, 밤에는 다락방에서 기거하였으며 이동범의 가족 몇 이외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김구가 숨어 지냈던 육모정은 1925-1926년에 현재 국도 23호선(당시 2등도로)가 개설되면서 도로에 편입되었다. 이동범은 도로가 개설되기 1년 전인 1924년에 도로에 편입되는 육모정을 철거 매각하고, 원래 사랑채였던 현 이재혁가(李載嫝家, 이동범의 아들) 옆에 육모정 연못의 돌

을 옮겨 새로이 연못을 마련하고 연못안에 육모정 크기와 똑같은 육각형 몸체에 기와를 얹은 정자를 지어 『연정』이라 이름하였다(1924년 간행 <기성지(箕城誌)> 정각조에 연정이 올라 있다). 연정은 1980년대에 팔려 경기도로 옮겨갔고, 지금은 연못도 흙이 거의 메워진 상태에 있다.

2. 건립연혁과 건물배치

이 가옥은 함평이씨 이동범(李東範, 1869-1940)이 20세기 초반경에 건립한 것으로 전한다. 이동범의 아들인 이재혁(李載爀, 1893~1992)이 대를 이어 거주하였는데 이 시기에 일부가 헐리고 현재는 사랑채와 문간채만이 남아 있다. 사랑채 뒤편에 있던 안채는 원래 7칸 겹집이었다고 하는데, 1946년경에, 사랑채 동쪽편에 세워졌던 육모정은 1984년경에 각각 헐렸다고 한다. 현재 남아 있는 사랑채는 상량(上樑)장혀에 『丁巳二月二十五日開基二十八日安礎同日立柱』라 기록되어 있어 1917년에 지어졌음을 알 수 있고 문간채는 『歲在己巳四月二十三日開基安礎同月二十五日戊寅未時上樑子坐』라고 상량(上樑) 장혀에 기록되어 있어 1929년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가옥은 현재 문간채와 사랑채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을 입구의 골목길 우측에 남향으로 자리하고 있는 문간채를 들어서면 각종 수목과 화초들로 가꾸어진 사랑뜰이 나타나고 그 안쪽에 ㄱ자형의 사랑채가 자리하고 있다. 본 가옥에서 특히 주목되어지는 것은 사랑채 우측의 넓은 터에 연못을 파고 그 중앙에 정자를 건립한 것인데 현재는 아쉽게도 건물은 없어지고 자연석 바른층 쌓기한 기단만이 이전되어 6각형으로 남아있다.

3. 평면 및 구조형식

1) 사랑채

사랑채는 ㄱ자형집이다. 평면 구성은 후퇴(後退)를 포함한 2칸 대청을 중심으로 좌측으로는 부엌을 배치하였으며 꺽어진 부분은 우측으로 앞쪽에 1칸 다락을 드리면서 2개의 방을 배열하였다. 가로 칸 전퇴(前退)부분에는 툇마루를 설치하였으며 대청과 부엌 뒷면, 그리고 꺽어진 부분의 앞쪽에는 각각 쪽마루를 시설하였다.

구조로는 화강암 장대석(長大石)으로 바른층 쌓깋한 기단위에 다듬은 방형(方形) 초석을 놓고 그 위에 19.5각(角)의 방주(方柱)를 세웠으며 가구(架構)는 2고주(高柱) 5량가(樑架)이나 대청 중앙부분만은 1고주(高住) 5량가(樑架)로 되어있다.

도리(道里)는 모두 장혀(長?)로 받혀진 납도리를 사용하였으며 대청 중앙부분의 종량(宗樑) 위에는 원형(圓形)의 마루대공을, 그리고 방 부분의 대량(大樑) 위로는 사다리꼴형에 대공을 놓아 종도리(宗道里)를 받게 했다.

창호(窓戶)는 대청 전면(前面)에 4짝의 미닫이 유리문을 달았으며 각 방에는 아자살의 미닫이문을 달고 덧문으로 쌍여닫이 띠살문을 설치, 지붕은 한와를 얹힌 합각지붕이며 처마는 겹처마로 되어있다.

2) 문간채

문간채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팔작집이다. 중앙칸에는 쌍여닫이의 판장문(板長門)을 달아 본 가옥의 출입문으로 이용하였으며 좌측 1칸은 방으로, 그리고 우측 1칸은 광으로 꾸며 사용하였다. 구조 형식은 기단(基壇) 형성없이 다듬은 방형(形) 초석위에 방주(方柱)를 세운 3량가(樑架)의 민도리집 구조로 되어있다. 본 건물에서는 정자살과 빗살무늬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방 뒷벽의 창이 특히 눈에 띈다.

6) 함평 이건풍가옥

- 문화재명 : 함평 이건풍가옥(咸平 李建豊家屋)
- 소 재 지 : 함평군 나산면 초포리 659-1
- 시　　대 : 조선시대
- 소 유 자 : 이건풍
- 규모,면적 : 안채, 사당, 헛간채, 1,607m2

1. 입지 유래

이건풍 가옥은 함평군 나산면 초포리 사산마을에 자리한다. 지금의 초포리는 초포(草浦)마을, 사촌(沙村)마을, 환곡(環谷)마을(이상 초포 1리), 사산(射山)마을, 입석마을(이상 초포 2리)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시대에는 평릉면(平陵面)이라 했는데 조선후기의 기록(<호구총수(戶口總數)>,1789년)에는 평릉면은 38개 마을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데, 구초포(舊草浦), 하포리(下浦里) 등이 지명이 확인된다. 일제감정기이니 1914년에 행정구역을 통폐합하면서 평릉면의 이름은 그대로 불려 지지만, 평릉면에 속했던 입석리(立石里), 하관리(下官里), 사산리(射山里), 장송리(長松里),초포리(草浦里)와 환곡리(環谷里), 사촌리(沙村里), 분토리(分土里) 각 일부를 합하여 초포리라 부르게 된다. 평릉면은 1932년에 식지면(食知面)과 합해져 나산면이라 부르게 된 이후 현재에 이른다.

초포리는 지난 1987년 2월 22일 이 마을 주민들에 의해 발견된 돌널무덤(석관묘)에서 출토된 청동기 유물들이 출토되었고 주변의 고분군으로 보아 고대부터 주거생활 공간으로 알맞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마을 주변으로 우뚝 솟구친 천주봉의 정기가 서린 자그마한 수풀이 세로로 놓여 있으니 서편은 사산(射山), 동편은 초포(草浦)이다.

초포리의 입향 성씨로는 함평이씨가 가장 빠른 듯 싶다. 조선조 중종때의 인물인 이순화(李舜華)는 초포마을에, 이순지(舜枝)는 사산 마을에 정착하였다. 이순지와 이순화는 형제간으로 효우공(孝友公)으로 부르는 이접(李摺)의 손자이다.

이순지가 정착한 사산마을은 1914년 행정구역개편이전까지는 사산(士山)이라고 표기했는데 근방에서 손꼽히는 좋은 터로 알려진 곳으로 별로 높지도 않은 마을 뒷산이 활모양과 같다 하여 마을 이름을 “사정뫼”라 불렀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부터 “사산(射山)”이라 쓰고 있다.

사산마을은 이순지(舜枝) 정착 이래 현재까지 500여년 동안 후손들이 자작일촌을 이루고 살고 있다. 현재의 이건풍 가옥은 초포리 사산 입향조 이순지의 종가로 그 후손이 10대를 살다가 후

대인 이민승(敏昇, 22세손)대에 이르러 이순화(舜華)의 후손인 이명룡(李命龍, 1708~1789, 23세손)이 초포마을에서 현재의 사산마을 이건풍가옥으로 이주하면서 현재까지 생활해 오고 있다. 이건풍가옥은 초포리에 정착한 함평이씨의 종가인 셈이다. 즉, 사산 입향조인 형 이순지의 우손이 10대를 살다가 초포 입향조인 동생 이순화의 후손(11세손) 이명룡이 정착하여 현재까지 가풍을 이어가고 있다. 초포리에는 함평이씨의 시조인 이언(彦) 등 7위를 배향한 사산사(射山祠)가 있다.

초포리 입향 함평이씨 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李摺 –②云卿　　舜枝[사산]–汝霖–軾–忠仁– ○ – ○ – ○ – ○ – ○ – 敏昇–○
舜華[초포]–繼貞–輅–永弘–啓沃–祥雲–有城–必新–淦–②運泰–命龍

奎緖–敦賢(敦德)–東憲–啓華–志範–載馨–謹行–建風

이순지는 조선 중종대의 인물로 진사(進士)를 지냈고 함평노씨(咸平盧氏, 浩의 딸)와 혼인하였고 묘는 사산촌 뒤에 있는데, 9세손 이홍직(弘稷)이 묘갈을 세우고 행장을 지었다. 동생인 이순화는 무과에 올라 만호(萬戶)를 지냈다고 하며 금성정씨(錦城鄭氏)와 혼인하였고 묘는 사산촌 뒤에 있는데 11손이자 현재의 이건풍가옥으로 다시 자리를 잡은 이명룡이 묘갈을 지었다. 이명룡(李命龍, 1708~1789)의 자(字)는 성윤(聖允), 성서(聖瑞)이며 호는 혹일헌(或逸軒)이다. 생부는 이운승(李運升, 이운태의 동생)이다. 외조부(外祖父)는 남원윤씨 윤상훈(尹尙勳), 처부(妻父)는 도강김씨 김중형(金重衡)이다. 1759년(영조 35)에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15)에 입격하여 정랑 등을 지냈다. 이명룡의 손자인 이돈현(돈덕, 1760~1810)과 이돈하(1770~1834) 형제도 각각 1789년(정조 22, 式年試 兵科 14)과 1807년(순조 7, 식년시 兵科 5)에 문과에 급제한다. 이처럼 이명룡의 정착 이후 조손(祖孫) 3인이 문과에 급제하는 등 인물을 낸다.

이건풍가옥에는 6종 41건의 고문서가 보존되어 오고 있다. 대부분이 앞에서 언급한 이명룡과 그의 손자인 이돈현(돈덕), 이돈하 형제의 것으로 19세기 과거 관리 임용에 관한 교지류가 주종을 이루는데 이는 약 70여년간 3대에 걸친 조손(祖孫)의 관력(官歷)을 연대순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종류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시권(試券, 5점) : 1759년 이명룡(52세) 문과, 1807년 이돈하 문과, 1822년 이돈　덕(38세) 문과, 연대와 작성자 미상 2건
- 고강단자(考講單子, 3건) : 1819년 이돈덕, 1822년 이돈덕, 미상 1건
- 홍패(紅牌, 1건 : 1807년 4월 18일 이돈하 문과 병과 제 5인 급제 교지
- 교지(敎旨, 27건)
  - 1763년 7월 19일　이명룡 통훈대부 성균관 전적, 11월 25일 병조좌랑
  - 1764년 2월 11일　이명룡 공조 정랑, 8월 5일 청암도 찰방
  - 1765년 6월 22일　이명룡 병조정랑
  - 1774년 8월　　이명룡 어모장군 선전관
  - 1787년　　이명룡 80세 가자(加資) 통정대부

- 1802년 정월초 9일 이돈덕 조봉대부 성균관 전적, 이돈현(돈덕)5월 13일 통훈대부 사헌부 감찰, 7월 11일 이돈현 경기전령
- 1804년 7월 1일 이돈현 예조좌랑, 7월10일 이돈현 예조정랑
- 1806년 2월 14일 이돈현 후릉령(厚陵令)
- 1807년 2월 20일 이돈현 예조정랑, 4월 25일 이돈현 병조좌랑
- 1808년 1월 22일 이돈현 종부시 주부, 8월 6일 이돈현 금천도 찰방
- 1816년 3월 24일, 12월 22일 이돈하 성균관 전적
- 1817년 2월 13일 이돈하 병조좌랑, 12월 27일 은계도 찰방
- 1818년 6월 12일 이돈하 사헌부 지평

• 교첩(敎牒, 4건)
- 1798년 8월 4일 이돈덕 통사랑
- 1799년 8월 27일 이돈덕 소령원 수봉관(민덕기로 잘못 이름이 기록되어 시정한 내용)
- 1808년 4월 이돈하 승사랑
- 1808년 8월 이돈하 소령원 수봉관

• 첩문(帖文, 1건) : 1802년 예조의 예문관에서 발급한 문서로 성균관 전적이었던 이돈덕(敦德)의 이름을 이돈현(敦賢)으로 개명한 내용.

2. 건축 현황

이건풍 가옥은 초포리 입향 함평이씨 종가(宗家)로서 마을 개기(開基) 당시에 지은 500여 년이 된 가옥이라고 하나(소유자 이건풍옹 증언,1919년생) 상량문 등을 확일할 수 없어 현재의 건물이 처음 자리 잡을 당시의 건물이라는 것은 전하는 사실 그대로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 현재는 지붕이 개량되어 있다. 소유 자에 따르면 본래 한와였는데 조부(李載馨, 1853년생)때에 초가로 바꿨다가 1964년경에 현재처럼 시멘트기와로 바꾸었다고 한다. 이러한 증개축 등으로 옛모습을 잃긴 하였으나 목재의 규모나 치목의 기법, 높은 기단 등으로 보아 고가임에는 틀림없다. 건물은 현재 안채와 사당, 그리고 헛간채로만 구성되어 있으나 배치도에 표시한 바와 같이 1970년대 까지만 해도 사랑채 2동이 더 있었다. 지금은 채소밭으로 사용하고 있다.

안채는 ㄷ자형 평면구조로 이 지역의 一자형 구조와 큰 차이를 보인다. 一자형은 조선후기의 보편적인 구조이다. 서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두벌대의 기단위에 막돌 초석을 놓아 방주를 세운 ㄷ자형 평면형식의 홑처마 팔작 지붕집이다. 기둥과 도리등은 모두 거칠게 다듬은 원형재를 거의 그대로 사용되었다. 본 건물의 외부 기둥은 밤나무기둥이다. 정면 5칸 측면 3칸의 규모이며 중앙으로 2칸 대청이 넓게 드려져 있고 우측으로는 안광, 그리고 좌측으로는 안방과 정지로 이어진다. 날개부분은 우측이 작은방, 좌측은 정지로 넓혀져 ㄷ자형 구조가 된다. 옛날에는 작은방 앞쪽으로 부엌이 하나 더 설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겹집형식으로 꾸며진 뒤쪽부분은 1930년대에 증축된 부분이라고 한다. 내부 창호는 최근에 미닫이문으로 교체하였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1칸 반의 굴도리 장혀집이다. 3량가(樑架)에 두리기둥으로 꾸몄다. 지붕은 홑처마 맞배지붕으로 되어있다.

헛간채는 2칸의 우진각 집인데 상량에 <歲在甲申潤四月初八日開基同日安礎九日甲午竪注同日未

時上樑>의 기록이 있는데, 소유자에 따르면 60년전쯤 지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 갑신년은 1944년으로 보인다.

4. 등록문화재

지정문화재가 아닌 근·현대시기에 형성된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근대문화유산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을 말한다. 근대문화유산이란 '개화기'를 기점으로 '한국전쟁전후'까지의 기간에 축조된 건조물 및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가 중심이 된다. 그 이후 형성된 것일지라도 멸실 훼손의 위험이 커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할 경우 포함되기도 한다.

오늘날 근대문화유산 중 보호되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이며, 대부분은 각종 개발행위와 도시화 및 경제적 논리에 의해 철거되거나 훼손될 위기에 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종래의 지정제도로는 어려움이 있고 문화재 보호방법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어, 기존 지정제도의 보완적 제도로서 신고제와 지도, 조언, 권고를 기본으로 하는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근대는 전통과 현대를 잇는 가교적 역할을 하는 시기이며 우리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시기로써 이 시기에 생성된 역사적 산물은 당대의 문화, 역사를 반영하는 결과물이다.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재조명과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보존·관리하여 후세에 전승하는 것은 우리민족의 역사·문화적 전통을 지켜나가는 일이며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등록문화재의 주된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먼저 근·현대의 상징적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등 다양다종한 근대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제도이다.

다음으로 지도 · 조언 · 권고 등 완화된 보호조치를 취함으로써 소유자의 자발적인 보호에 기초하는 신고위주의 제도이다.

세 번째로 당해 문화재의 외관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내부를 용도나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보호와 동시에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세제지원 및 수리에 대한 보조금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제도를 시행한다.

2008년 12월 31일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문화재는 제1호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중구의 '남대문로 한국전력 사옥'부터 제438호로 지정된 충남 천안시의 '소록우체국 우체통'까지 모두 438기가 지정되어 있다. 현존하는 등록문화재는 일제 강점기 이후 근대에 생성·건축된 유물 및 유적이 중점적으로 등재되어 있다.

함평에는 제63호로 지정된 '함평 구)학다리역 급수탑'과 제117호와 제118호로 지정된 '함평천주교회'와 '함평군 월호리 282번지 가옥 및 창고' 가 있다.

한편 이들 등록문화재외에도 1954년 전쟁고아들을 수용하기 위해 건립된 복지시설로 고아원생들이 직접 벽돌을 구워 쌓았다는 '자광어리이집'도 등록문화재 지정이 검토되고 있다.

함평의 登錄文化財

指定番號	種 別	名 稱	數量	所 在 地	指定年月日
제63호	登錄文化財	함평 구)학다리역 급수탑	탑1기	학교면 학교리 878-30	2003. 6.30
제117호	登錄文化財	함평천주교회	성당1	함평읍 내교리 340	2004.12.31
제118호	登錄文化財	함평군월호리282번지 가옥및창고	가옥1, 창고1	함평군 학교면 월호리282	2004.12.31
계	3				

1) 함평 구)학다리역 급수탑

- 지정번호 : 등록문화재 제63호
- 지정연도 : 2003년 06월 30일
- 소 재 지 :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 878-30
- 수 량 : 탑1기

우리나라의 철도는 1900년 경인선 개통을 시작으로 경부선(1901년), 경의선(1906년)에 이어 1913년 호남선이 개통됨에 따라 전국적인 철도 운송 시대에 접어들었다.

우리 함평은 학교면 학교리 878번지에 1913년 5월 13일 학교역(일명 학다리역)으로 개통되어, 1913년 5월 15일 최초로 영업을 개시했다. 당시 구간은 학교↔목포간으로 명칭은 남부선이었으며 호남선 개설 당시 최초로 개통된 구간이기도 했다.

이렇듯 학교역은 호남선을 넘어 우리나라 철도 역사상 한 획을 그었던 지역으로 1977년도에는 100만명의 승객을 달성하는 등, 전남 서남부 지역의 교통 요충지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구(舊) 학교역에 현존하는 급수탑은 1917년 착공되어 1921년 10월 14일에 완공되었다. 이후 1955년 9월 30일까지 34년 동안 증기기관차에 급수를 했다. 학교역 급수탑은 현재 전국에서 보존되고 있는 몇 안되는 급수탑이다. 특히 다른 지역의 급수탑이 콘크리트 시설인데 비해 석조물이라는데 큰 보존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 근대 유물이지만 한국 철도사의 귀중한 자료로 인정되어 등록문화재 제63호로 지정되었다.

『학교역사(鶴橋驛史)』에 따르면 일제강점 초기인 1913년(大正 2) 5월 13일에 학교↔목포간 영업이 개시되었고 동년 7월 1일부터 학교↔나주간이 연장 개업되었다. 그리고 5년 후인 1918년 말 간이 가급수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

1921년(大正 10) 10월 1일 기관차의 부족한 급수의 필요에 따라 승강장 (남행 1일 180척-북행 1일 30척, 만수편측 사용 폭9척)을 연장 준공했다. 같은 달 14일 1917년에 세운 신설계획 사업의 하나인 급수시설 설비를 완공했다. 이때부터 급수를 시작해 종래의 가급수 설비를 철거했고, 1922년에는 탄수방 3인을 감축했다.

디젤기관차의 등장과 함께 증기기관차기 폐지되자 1955년 10월 1일 급수탑으로서 가치를 잃게 되었고, 한동안 학교리 878-30번지인 현 위치에 방치되었다.

하지만 구 학교역 급수탑은 지난 34년 동안 호남선 열차 운행시 열차에 물을 공급했던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인정되어 2003년 6월 30일자로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향후 문화재로 지정되어 후세들에게 역사 교육의 한 장소로서 일익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2) 함평천주교회

- 지정번호 : 등록문화재 제177호
- 지정연도 : 2004. 12. 31
- 소 재 지 :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340

함평지역의 초기 천주교 전파와 역사를 같이하는 건축물로서 지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건물의 최초 건립은 1949년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한국전쟁 기간 방화로 소실되었다가 전쟁 중이던 1952년 10월13일에 복구된 건축물이다.

최근 도로가 확장되면서 출입구가 철거되어 옮겨졌으나, 근대에서 현대로 변화하는 성당건축의 변화 시기에 건립된 건축물로서 현대적 성당건축의 시초라 볼 수 있다.

건물은 지상 2층의 붉은 벽돌 외벽마감으로 되어 있으며, 아치형식의 창문과 지상 2층 상부에는 첨탑이 형성되어 있어 천주교 건축의 특징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벽돌 길이는 19㎝의 길이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게 보전되어 있으며 들여쌓기나 내쌓기는 보이지 않고, 일층과 이층을 구분하는 띠줄이 있어 2단적인 입면을 보이고 있다.

현재 건물의 1층은 사무공간 및 예배당으로 2층은 예배당으로 사용되고 있고, 2004년 12월 31일 등록 문화재 제117호로 지정되었다.

3) 함평군 월호리 282번지 가옥 및 창고

- 지정번호 : 등록문화재 제118호
- 지정연도 : 2004. 12. 31
- 소 재 지 : 함평군 학교면 월호리 282

일제강점기에 가장 번화하였던 학교면 가는 도중에 위치하고 있는 중천포는 그 당시에는 영산강에 연결되는 나루터로 사용되었다. 또 일제시대에 일본 주재사무소로 이용되기도 해 일본사람이 직접 관리하는 터미널로서 곡식들을 걷어 일본으로 가지고 가는 역할을 했다고 전한다.

영산강의 줄기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중천포의 건물은 일본인 지주의 주택으로 정방형 형태로 정사각형의 형태를 가진다. 흙벽에 나무판을 덧대어 사용한 것이 일제강점기 건축물임이 확연히 표면에서 드러난다. 나루터에서 영산강을 이용하여 쌀을 운송하기가 유리했기 때문에 건립된 창고 또한 원형이 잘 남아있다.

목조 2층과 우진각지붕으로 지어진 건물은 중천포 옆에 건물을 덧대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건물의 창문과 외관은 그대로 보전되어 있으나 지붕을 개조하여 현재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과거 일본 지주주거의 공간구성을 잘 알려 줄 뿐 아니라, 이 지역이 일본인들의 주된 활동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역사의 현장이므로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5. 함평군의 문화재 자료

국가와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는 아니나 향토사나 국가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를 함평군의 문화재자료라 이름 붙여 보았다.

이들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군 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군에서는 조례는 아직 만들지 않았으나 이들 문화재에 대해 중요한 문화재니 훼손하지 않도록 경고 안내판을 설치한 바 있다.

<표 7> 함평군의 문화재자료 일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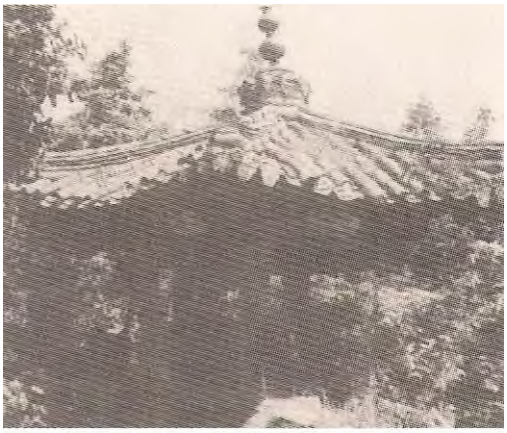
종류	문 화 재 이 름	소 재 지	시 대	참 고
석조물	고산사(高山寺) 마애불 사기봉(沙器峯) 마애불 보전 선돌 주곡 선돌 용흥동 선돌 용천사 해시계 군유사(君遊寺) 부도 넓다리	대동면 향교리 고산봉 손불면 북성리 사기봉 신광면 보여리 보전 월야면 계림리 주곡 엄다면 성천리 용흥동 해보면 광암리 용천사 함평읍 함평리 함평읍 함평리	고려시대 〃 청동기시대 〃 〃 조선시대 고려시대 고려시대	
고 분	망월동 독무덤군 석계 고분군 고두 고분군 윤암 고분	학교면 월호리 망월동 월야면 월계리 석계 해보면 금덕리 고두 엄다면 엄다리 제동	마한시대(?) 〃 〃 〃	
고인돌	노송 고인돌군 광영 고인돌군 연당 고인돌군 석계 고인돌군 운곡 고인돌군 나막 고인돌군	함평읍 자풍리 노송 나산면 구산리 광영 월야면 월악리 연당 월야면 월계리 석계 해보면 상곡리 운곡 대도면 금곡리 나막	청동기시대 〃 〃 〃 〃 〃	
건축물	이인정	나산면 나산리 대정	조선시대	
유 물	사촌출토 청동기 유물	나산면 초포리 사촌	청동기시대	1987. 2 광주박물관 소장
전 적	정유피란기 원본	월야면 출신 정호인 저	조선시대	전남대학교박물관에 보관
사 적	대굴포 전라수영 터 고려자기 도요지	학교면 곡창리 대곡 손물면 양재리 장재동	〃 고려시대	
꽃	용천사 상사화 군락지	해보면 광암리 용천사	-	
노거수	덕천느티나무 이재혁가 호랑이가시나무 담골 은행나무 사산 줄나무 안영동 줄나무	신광면 삼덕리 덕천 함평읍 함평리 손불면 죽장리 장동 나산면 초포리 사산 나산면 월봉리 안영동	수령 800년 〃 150년 〃 700년 〃 450년 〃 400년	제3장 노거수를 볼 것

육모정(六茅亭, 연정-蓮亭)

육모정은 1880년대 초에 이계송(李啓松)[298]이 지은 정자로 연못 안에 육각형의 정자를 짓고 지붕을 띠로 덮었기에 육모정이라고 하였다.

1898년 3월 19일 인천감옥에서 탈옥한 김구(金九. 일명 창수-昌洙)가 바로 호남 잠행(潛行)에 들어 남원의 김형진(金亨鎭) 집에서 며칠 머물다가 남행하여 당시 진사였던 이동범(李東範)[299]의 집을 찾아 보름 가량 숨어 지내다가 무안으로 떠났다.
육모정 밑에는 난리를 대비하여 설치해 둔 비밀 토굴이 있었고, 현재 헐리어 팔려간 7칸 본채에는 몇이 숨어 지낼 수 있는 다락방이 마련되어 있었다.
김구는 낮에는 토굴에서, 밤에는 다락방에서 기거하였으며 이동범의 가족 몇 이외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김구가 숨어 지냈던 육모정은 1925~1926년에 현재 23호선 국도(당시 2등도로)가 개설되면서 도로에 편입되었다.
이동범은 도로가 개설되기 1년 전인 1924년에 도로에 편입되는 육모정을 철거 매각하고 원래 사랑채였던 현 이재혁가(李載爀家. 동범의 아들) 옆에 육모정 연못의 돌을 옮겨 새로이 연못을 마련하고 연못 안에 육모정 크기와 똑같은 육각형 몸체에 기와를 얹은 정자를 지어 "연정"이라 이름하였다.<1924년 간행 기성지(箕城誌) 정각조에 연정이 올라있다.>

연정의 규모 : 연못 지름 7m, 둘레22m.
면적 22.98m2 연못을 건너는
돌다리 길이 2.1m. 폭 0.8m.
두께 0.2m


연정의 모습

건물형태 : 지정(地政) 1m 한 변의 길 이 3.1m의 기층을 돌로 쌓고 넓이 9m2 토반 위 여섯 모서리에 높이 2.5m의 둥근 나무기둥(지름 0.23m)을 세워 한와를 올렸으며 지붕 꼭대기에 옹기로 특수 제작한 방울을 삼층으 로 올렸다.
연정은 1980년대 말에 팔려 경기도로 옮겨갔고 지금은 물이 마른 연못만 남았다.
조국에 돌아온 김구는 1946년 9월 보은의 남도순방 여정을 떠났다.
9월 24일 광주를 거쳐 다음이 나주 이진사가로 일정이 잡혔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이었다. 원래 김구가 피신했던 곳은 함평의 이진사집이었는데 48년 전의 일이라 김구가 착각했던 것이다.
나주로 향하던 김구는 함평군민들의 열화와 같은 바람으로 현 함평초등학교 교정에서 강연을 하였고 이진사의 후손과 상면하였다.
호남 여정을 마친 김구는 이동범의 아들 재승과 재혁을 경교장으로 초청하였고, 그 뒤 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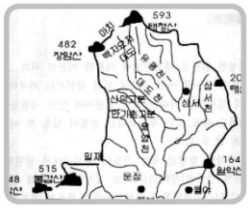
298) 이계송 : 1841~1884. 본관 함평. 일명 홍규(弘奎). 1871년 무과에 급제하여 첨추를 지냈다.
299) 이동범 : 1869~1940. 호 석암(石菴), 만경(萬頃). 계송(啓松)의 아들. 진사를 거쳐 1902년에 만경군수, 이어 은률(殷栗)군수를 지냈으며 3,000석의 부호였다.

백범 김구선생의 함평 강연
함평초등학교 교정

인 김신이 이동범가를 방문하여 2주정도 머물렀으며, 그 후

김구의 후손과 이동범의 후손들이 상호간 왕래하는 인연을 오래도록 이어오고 있었다.

제2장 함평지역의 발굴 유적



1999년부터 서해안고속도로 함평-영광 구간 공사와 국도 22호선 확포장 함평-영광 구간공사가 시공됨에 따라 파괴가 불가피한 유적에 대해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기록 보존과 활용을 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서해안고속도로 구간에서 9개소, 국도 22호선 구간에서 2개소의 유적이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어 발굴되었으며, 이들 유적의 발굴이 모두 끝나는 2000년도에 유적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나와 본 군사에 그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며 추후 발굴이 시행되는데로 보강하기로 하며, 여기서는 지금까지 시굴 또는 발굴된 유적에 대해 「지도위원회 및 현장설명회 자료」[300]에 의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제1절 서해안고속도로 구간 유적

발굴 대상 유적은 모두 9개소로 <표 8>과 같다.

<표 8> 발굴조사 대상유적 및 조사현황

1999. 7. 31 현재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조사 내용		조 사 현 황	발굴기관
			1차	2차		
1	성남유물산포지	함평읍 성남리 지성	시굴	발굴	청동기, 삼국시대	목포대학교
2	국산유물산포지	함평읍 만흥리 국산	발굴		삼국시대(?)	〃
3	옥산유물산포지	함평읍 옥산리 옥산	시굴	발굴	신석기시대	〃
4	중 량 유 적	함평읍 장년리 중량	발굴		청동기, 삼국시대	〃
5	장년유물산포지	함평읍 장년리 장고산	시굴	발굴	삼국시대(?)	〃
6	장년당하산유적	함평읍 장년리 당하산	발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시대	〃
7	죽림유물산포지	손불면 죽암리 죽림	시굴		유적 없음	전남대학교
8	소명유물산포지	손불면 죽암리 소명동		발굴		〃
9	무 송 유 적	신광면 함정리 무송	시굴	발굴	원삼국시대	〃

300) 서해안고속도로(무안-함평-영광간) 건설공사구간 문화유적 발굴조사개요. 목포대학교박물관·전남대학교박물관. 1999. 7. 31

1. 함평읍 성남유물산포지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널무덤(토광묘-土壙墓) 2기를 발굴하였다.
1호무덤 규모 : 길이 260cm. 폭 100cm. 깊이 10cm.
출토유물 : 경배(짧은목단지). 양이호. 철기류. 대롱옥·곱은옥 등 크고 작은 옥구슬 60여점
2호무덤 규모 : 길이 120cm. 폭 90cm. 길이 20cm.
출토유물 : 납작바닥단지(평저호-平底壺)

2. 함평읍 국산유물산포지

발굴 시작단계에 있다.

3. 함평읍 옥산유물산포지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 토기편이 수습되었으며 발굴 시작단계에 있다.

4. 함평읍 중량유적

청동기·철기·삼국시대의 유적이 발굴되었다.

중량유적 전경(항공촬영 사진)

1) 청동기시대

3기의 움집터(수혈주거지-竪穴住居址)와 고인돌 2기를 발굴하였다.
집터는 모두 평면형태가 원형이며 주거 내부 중앙부에 타원형의 작업공 구덩이를 만든 송국리형 주거지 형태다. 그러나 타원형 구덩이 안에 두 개의 기둥구멍(주공-柱孔) 흔적이 대칭적으로 세워지는 일반적인 송국리형 집터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집터 안 중앙부에 말각형에 가까운 구덩이가 파여 있고 그 주변부로 9개의 기둥이 방형으로 둘러진 특징을 지니며 자연경사도가 높은 남쪽 부위에 계단식 출입구가 확인되었다. 3기의 집터에서 돌화살 등의 석기류와 소량의 무문토기 밑부분이 출토되었다.

중량유적 1호 널무덤

중량유적 각골지석묘군 1호 덮개돌

고인돌은 각골에서 덮게돌이 덮힌 1기와 하부의 널방(묘실-墓室)이 부분적으로 남은 1기를 발굴하였는데 덮게돌이 덮힌 고인돌은 하부구조가 교란되어 바닥부위만 부분적으로 남아있었고 출토 유물은 없다. 백곡마을 묘제공원에 옮겨 복원하였다.

2) 철기시대

움집터 10채와 산능선 정상부에서 널무덤 2기가 발굴조사 되었다.
주거지는 평면형태가 모두 방형계로 산사면부를 "ㄴ"자 모양으로 파내어 만든 구덩식이며 내부에서는 화덕자리와 벽구, 지붕을 받치기 위해 세운 기둥 흔적이 조사되었다.
1호 널무덤 규모 : 길이 270cm. 너비 100cm. 깊
이 2cm. 구덩 안에서 나무 관을 안치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찰진 질흙띠가 길이 200cm, 80cm 크기로 확인되었다.
출토유물 : 철검, 적갈색연질토기편.
2호 널무덤 규모 : 잔존길이 200cm. 너비 100cm. 깊이 4cm. 1호 무덤과 같이 나무관을 안치한 흔적이 남아 있다.
출토유물 : 토기 1점
이들 널무덤이 위치한 주변부위로 월야면 예덕이 만가촌 고분에서와 같이 평면형태가 사다리꼴에 가까운 도랑이 확인되었으며, 도랑은 자연 경사도가 높은 서북쪽 부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도랑의 최대 폭은 200cm 정도며 최대길이는 90cm 정도이고, 도랑 바닥은 불규칙하며 2~3차에 걸쳐 내부 퇴적이 되었다. 마지막 퇴적이 이루어진 부분에서 시루와 단지토기편이 수습되었다. 널무덤이 안치된 주구내의 내변 규모는 길이 27m, 최대폭 20m 정도다.

3) 삼국시대

집터 100여 채<표 7>, 널무덤 1기, 독무덤(옹관묘-甕棺墓) 1기, 네모꼴무덤(방형분-方形墳)을 에워싼 것으로 추정되는 도랑 등이 발굴조사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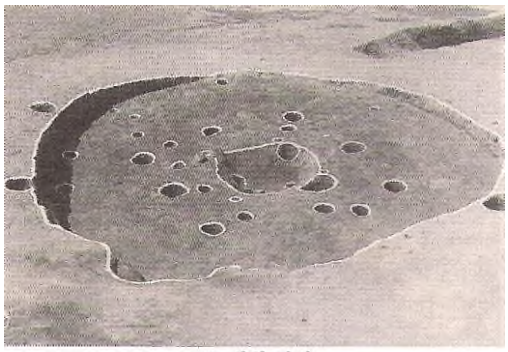
<표 9> 중량유적 주거지 조사 현황

1999. 7. 31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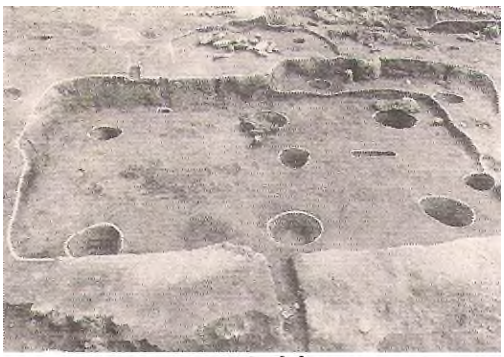
호수	규 모 (cm)			벽구 유무	화덕 유무	평면 형태	장축방향	출 토 유 물	참 고
	장축	단축	깊이						
1	450	357	14		유	방형계	북동-남서	바리. 가락바퀴. 갈돌편. 토기편	소실집터
1-2	870	480?	15	유		〃		호	
1-3	266	200	25	유	유	〃	북동-남서	바리. 토기편	
1-4	509?	362?	22		유	〃		바리. 호	
1-5	267	134?	22		유	〃		바리. 호	
2	318	260	13		유?	〃	북동-남서	바리. 호. 가락바퀴.	
3	318	290	21		유	〃	북동-남서	장란형토기	
4	374	217?	10		유	〃		이중구연토기. 갈돌. 토기편	소실집터
5	249?	112?	5			〃		바리	
6	374?	320?	7		유	〃		호. 시루. 바리. 토기편	
7	534~535		50			원형계	남 - 북	돌화살. 돌검편	
8	302	186	10			〃	북서-남동	바리. 귀때(주구-注口)토기?. 호	
9	624	152	10			〃		석기류. 토기편	
10	470?	170?	17			〃		석기류. 토기편	
11	722	440	72	유?		〃	북서-남동		
11-2	243?	233?	15			〃			
12	479	353?	48		유	〃		장란형토기. 시루	소실집터
13	296?	276?	29			〃			〃
14	290	267?	31			〃		토기편	
15	389	193?	34		유	〃			소실집터
16	436	336	24			〃	북서-남동	대부토기. 잔발. 목항아리. 사발	〃
16-2	568	382?	48		유	〃		호. 바리. 시루. 토기편	
16-3	320	292?	38		유	〃		호	
17	580	135?	34?			〃		바리. 시루. 토기편	
17-2	540	184?	14			〃		양이부호. 양이개	
17-3	340	150?	22			〃		장란형토기. 시루. 방추차	
18	229	177?	20	유		〃		양이호. 숫돌. 토기편.	
19	742	453	26		유	〃	북동-남서	바리. 호. 가락바퀴.	
19-2	490	442	100		유	〃	북동-남서	토기편	
20	480	328?	50	유	유?	〃		바리. 호. 토제품.	소실집터
20-2	356	248?	30			〃		토기편	
20-3	376	237?	22			〃		호	
20-4	273	252?	23	유		〃		호. 철기류. 독널편.	
21	420?	375?	48		유	원형계		호. 바리. 양이.	
22	467	117?	17			〃		숫돌	
23	326?	252?	26			〃		토기편	
24	560	260?	24	유		〃		바리. 호	
25	301	191?	32			〃		토기편	
26	550	340?	13			〃		장란형토기. 호. 바리. 대부 토기	
26-2	370	154?	27		유?	〃		호. 대부토기.	
27	168	162?	10			〃			
28	314	227	18			〃	북서-남동	호. 이중구연. 숫돌. 철기류	
29	488	224	21			〃	북서-남동	호. 가락바퀴.	
30	424	390?	35			〃		바리. 호. 가락바퀴. 독널편	
30-2	320	62?	18			〃			
31	266	100?	10	유		방형계		귀때토기. 호	
32	507	390	48		유	〃	북서-남동	호. 갈판	소실집터

호수	규 모 (cm)			벽구 유무	화덕 유무	평면 형태	장축방향	출 토 유 물	참 고
	장축	단축	깊이						
32-2	554	65?	13			〃		호	
33	402?	392	44	유		〃		호. 토기편	
33-2	244	177?	11			〃		가락바퀴. 갈돌편	
34	314	228	40	유	유	〃	북서-남동	바리. 이중구연. 호. 방추차. 갈돌. 독널편	
34-2	346	290	10		유	〃	북서-남동	바리.	
35	320	294	27			〃	북서-남동	독널편. 호. 바리	
35-2	291	278	30		유	〃	북서-남서	발. 호	
35-3	292?	186?	36			〃		시루. 손잡이토기. 갈돌.	
35-4	376?	248?	10			〃		바리. 철기류	
36	510	499	49			〃	북동-남서	호. 바리. 돌도끼	
36-2	534	290?	26	유		〃		시루. 호. 바리. 손잡이토기. 돌화살	
36-3	356	302?	24		유?	〃	북서-남동	가락바퀴. 토기편	
36-4	480?	246?	34			〃			
37	364	347?	43	유	유	〃	북서-남동	호. 가락바퀴. 갈판. 갈돌.	소실집터
37-2	176?	168?	10			〃	북서-남동	토기편	
37-3	248?	189?	15			〃		토기편	
38	조 사 진 행 중								
38-2	〃								
38-3	〃								
39	〃								
39-2	〃								
39-3	〃								
39-4	〃								
40	296	192	18	유		방형계		이중구연토기.	
41	357	356?	23	유		〃		토가편	
41-2	.304	178	23			〃	북서-남동	토기편	
42	438	319?	14		유	〃		장란형토기. 숫돌	
43	538	431	37		유	〃	북서-남동	바리. 장란형. 시루. 호. 갈돌. 돌화살	
44	487	280	30		유	〃	북서-남동	장란형. 호. 사발. 시루. 바리. 옹판편. 옥. 갈돌	
45	606	342?	32			〃		사발. 쇠칼	
46	640	520	28			〃	북동-남서	토기편	
47	조 사 진 행 중								
47-2	〃								
47-3	〃								
47-4	〃								
48	360	338	21		유	방형계	북동-남서		
48-2	334?	240?	17			〃		호. 숫돌. 토기편	
48-3	330	320	34			〃	북동-남서		
49	346	232?	23		유	〃		호. 토기편	
49-2	366	278	9		유	〃	북동-남서	장란형. 바리. 호. 돌도끼. 숫돌	
50	474	358	32	유	유	〃	북동-남서	바리. 석기류. 토기편	
50-2	조 사 진 행 중								
50-3	374	198?	12			방형계		석기류. 토기편	
51	600?	580	15		유	〃		바리. 손잡이달린완. 돌화살. 철기류. 토기편	
51-2	440?	435	12		유	〃		바리. 장란형. 호. 석기류. 토기편	소실집터
51-3	456	140?	19			〃			
52	조 사 진 행 중								
53	433?	268?	22			방형계		바리. 시루. 옥구슬	소실집터

호수	규 모 (cm)			벽구 유무	화덕 유무	평면 형태	장축방향	출 토 유 물	참 고
	장축	단축	깊이						
53-2	543?	154?	23			〃		돌화살. 토기편.	
53-3	437	270?	8		유?	〃		시루. 호. 토기편	
53-4	485?	170?	7.5			〃			
54	226?	325	10			〃		개	
55	550	440	62			〃		장란형토기. 갈판. 토기편	
55-2	710	620	62			〃		장란형토기. 흠돌	
55-3	조 사 진 행 중								
56	364	350?	10					쇠칼편	
57	364	350	30		유	방형계	남 - 북	시루. 바리발. 토기편	
57-2	220?	150?	14					토기편	
58	조 사 진 행 중								
59	〃								
60	〃								
61	조 사 진 행 중								
62	〃								
63	〃								
63-2	〃								
64	〃								
6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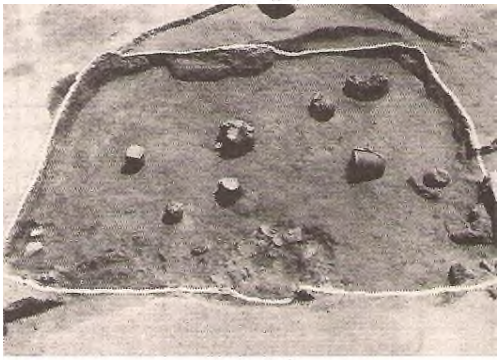


7호 원형 집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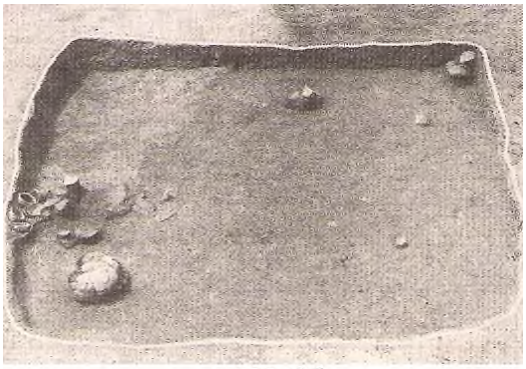
19호 집터

44호 집터



47호 집터

47-4호 집터 화덕자리


48호 집터

49호 집터

48호 집터 출토 유물

중량유적 집터 출토 토기류

중량유적 출토 철기류

널무덤(토광묘-土壙墓) 1기가 발굴되었다.

잔존 규모 : 길이 90cm, 너비 120cm, 깊이 12cm

장축 방향 : 북동-남서에 가깝다.

껴묻거리 : 짧은목 단지 1점, 이중구연 형태의 미니츄어 단지 1점 38호 집터 축조과정에서 북쪽 부분이 반 이상 유실된 채 발견되었는데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삼국시대 집들이 집중적으

중량유적 출토 석기류

로 들어서기 전에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독널무덤(옹관묘-甕棺墓)

집이 폐기된 이후에 쌓인 흑갈색 사질점토층에서 발굴했으며 전용독과 항아리형 토기를 결합한 이음식독널(합구옹-合口甕)로 바닥부위 일부만 남아있고 출토 유물은 소옥편 1점이다.

무덤을 에워싼 도랑

분묘를 에워싼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도랑이 확인되었다.

국도 23호선 공사 때 이미 서쪽 부분이 훼손되었으나 평면형태는 방형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며, 도랑 내변의 직경이 30m로 동·서·남·북의 규모가 거의 동일한 점을 볼 때 농경지가 되면서 형체가 없어진 무덤 또한 방형계였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북쪽 도랑 안에서 독널편과 함께 괴석들이 묻혀 있는 점으로 보아 분구내에 독널무덤과 함께 돌방무덤도 축조되었을 가능성을 보인다.

도랑의 규모 : 너비 250~554cm, 깊이 25~125cm

형태 : 단면은 U자형에 가까우며 바닥의 깊이는 불규칙하고 모서리 부분의 경우는 깊이가 얕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출토 유물과 유물의 성격

도랑을 돌아가며 다량의 토기류들이 출토되었는데 호형(壺形)토기와 함께 특이하게 15개체 이상의 이형토기(원통형토기-圓筒埴輪)가 출토되었다.

이형토기는 대부분 도랑의 바닥면에서 노출되었으며 일부에서는 2~3 개체가 인접되어 출토되었고 절구모양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연질이나 경질의 경우도 1개체가 확인되었고, 바닥면은 전면이 막혔거나 중앙에 둥근 구멍이 뚫린 경우로 구분되며 외면처리는 삿무늬(승석문-繩蓆文)를 전면에 두드림하였거나 무늬 없이 처리한 예가 있다.

대체적으로 장고형고분(전방후원형고분)에서는 이형토기와 함께 분구 주변에 제사용 토기들을 배열하고 묻고 있는데 중량의 도랑에서도 그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 들어 새 자료가 속출되고 있는 원통형토기는 매장주체가 돌방으로 확인된 6세기대를 전후하여 축조된 광주 명화동고분과 월계동 1호 무덤 등 장고형고분에서 수습된 바 있으며, 현재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주 반남면 신촌리 9호 무덤에서도 출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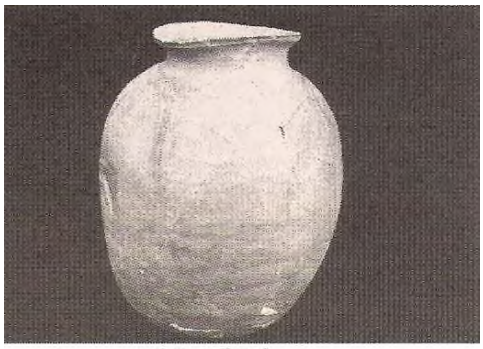
신촌리 9호 무덤의 경우는 독널무덤을 축조한 후 그 주변에 원통형 토기를 배열한 것으로 확인되어 독널무덤 후기 단계로부터 원통형토기의 배열 행위가 이루어졌음이 밝혀졌다.

도랑의 북쪽부위 노출상태

도랑의 남쪽부위 이형토기 출토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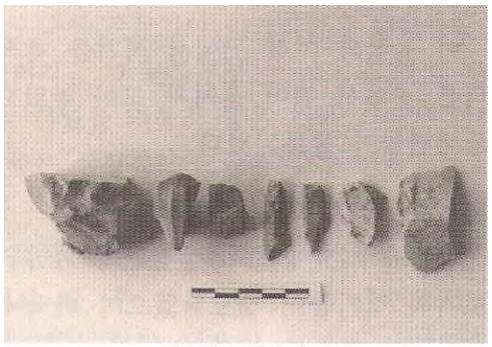
중량 유적의 도랑에서 출토된 이형토기의 경우는 기존에 조사된 원통형토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밑바닥이 막히거나 중앙에 둥근 구멍이 뚫렸고 절구형이며 함께 출토된 호형토기와 변형조족무늬의 두드림 흔적 등을 볼 때 6세기 전반 말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촌리 9호 무덤과 명화동, 월계동 무덤 등에서 출토된 원통형토기의 껴묻기가 변형되면서 등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복원한 출토 이형토기


출토 호형토기

5. 함평읍 장년리 장고산 유물 산포지

장고산 장고형고분 방부(方部)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수점의 적갈색 연질토기편과 성격이 불명한 윤곽선을 확인하였다.


출토된 구석기 유물

6. 함평읍 장년리 당하산 유적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에 이르는 광범위한 시대의 유적이 발굴되었다.

1) 구석기시대 유적

2개의 문화층이 확인되었으며 모두 후기 구석기시대에 해당한다.
구석기시대 유적은 함평군에서 처음 확인되었고 특히 해안가에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제1문화층 출토유물 : 가파른날긁개, 주먹도끼 등 → 큰격지떼기 전통이 우세하다.
제2문화층 출토유물 : 세형몸돌, 돌날, 기술격지, 격지 등

2) 신석기시대(제3문화층)

출토된 신석기시대의 유물

화덕자리(노지-爐址), 석기제작소, 깐돌(부석-敷石) 유구, 원형, 유구 등이 발견되었고 출토유물로는 단사선, 접선무늬, 지자(之字)무늬, 손톱무늬, 격자무늬, 물결무늬 등 다양한 무늬의 토기편과 석제를 비롯하여 돌도끼, 굴지부, 원형긁개, 측면긁개, 칼, 끌, 갈돌, 갈판 등의 석기가 있다.
이 유적은 신석기후기에 해당하는 유적으로 보며, 전남지방 서해안 일대에서는 아직 신석기시대의 유적이 발견된 바 없다.

화덕자리 : 2기가 발굴되었다.
1호 화덕자리 : 유적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돌들이 대부분 불을 먹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2호 화덕자리 : 화덕자리 주변에서 돌도끼 4저, 다량의 토기편이 수습되었고, 여러 점의 격지가 출토되어 2호 주변에서 석기 제작이 일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인접한 곳에서 다양한 무늬의 토기가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사용 흔적이 있는 도끼도 나왔다.

석기제작소
이 유적의 여러 곳에서 석기를 제작한 흔적을 볼 수 있고, 한 지점에는 석재를 다른 곳에서 떼어 옮겨와 모아 놓았으며, 주변에서 여러 종류의 망치와 격지, 돌도끼편들이 출토되었다.

깐돌유구 : 2기가 확인되었다.
깐돌유구는 방형과 장방형에 가까운 형태를 하였고, 유구 안에서 신석기시대의 토기와 석기들이 출토되었으며 바닥에 특별한 시설이 없이 편평하게 돌을 배치하였다.
이 깐돌유구는 북한의 청호리, 강원도 춘성군 내평리 등에서 발견된 유적과 비교되며 그 기능은 집터, 토기굽는 장소, 조리장소 등 다양하다.

원형유구 : 2기가 확인되었다.
특별한 시설은 없고 몇 점의 석기가 출토되었다.

3) 청동기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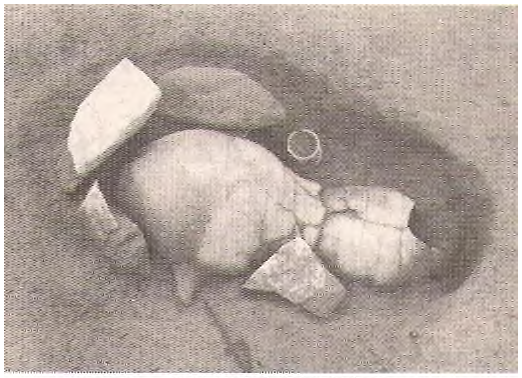
한국식 동검

유일하게 언덕사면에서 한국식동검(세형동검-細形銅劍) 1점이 출토되었는데 여러 차례 사용하
고 재생한 흔적이 보인다.

4) 철기시대

이 시기의 유구는 모두 제 3문화층과 함께 공존하고 있다.
널무덤 3기, 독무덤 2기, 소형구덩이(小形土壙) 6기가 발굴되었고, 독무덤 2기, 널무덤 1기에서만 유물이 출토되었다.
널무덤(토광묘-土壙墓) : 3기 중 껴묻거리가 나온 1기를 소개한다.
규 모 : 길이 112cm. 폭 64cm. 깊이 31cm.
장축방향 : 북서. 언덕 사면에 위치한다.
출토유물 : 항아리 1점

독무덤(옹관묘-甕棺墓)
1호 독널 : 소형 독널이다.
능선과 직교하는 길이 42cm, 폭 39cm의 타원형 구덩이에 묻혀있는데 독널의 총 길이는 42cm이다. 독널은 먼저 북서쪽으로 토기의 몸통부를 세우고 몸통부 쪽으로 토기를 뉘어 매장하였다. 뉘인 토기의 아가리 쪽은 다시 큰토기의 아가리편을 덮어놓았다. 이 독널의 형식은 하나의 토기를 뉘어놓은 것이지만 그 몸통부로 그 토기를 막고 토기의 아가리를 얹어놓은 것이어서 마치 두 개의 독널을 맞물려 놓은 것과 차이가 없다. 이러한 매장 방법은 두 개의 독널을 맞물려 놓은 상징적인 모습을 갖는 변형야식으로 볼 수 있다.


2호 독널의 출토 모습

2호 독널 : 길이 103cm, 폭 90cm의 구덩이를 판 후 한쪽 구덩이를 측면으로 깊이 파서 끼워 넣듯이 토기를 넣고 다시 큰토기를 그 토기에 끼워놓은 후 주변에 돌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 놓았다. 독널의 총길이는 70cm며 독널 안에 아주 작은 목항아리(장경호) 1점을 껴묻기 하였다.

구덩이(土壙)

구덩이는 6기가 확인되었는데 처음에 질흙과 함께 주변 반경 10m 전후에서 토기의 파편들을 발견하여 수습한 후 그 아래에서 상부가 유실된 구덩이를 확인하였다. 이들 구덩이 주변에는 동일한 토기편이 산재해 있었다. 구덩이 안에는 질흙이 충적되어 있었고 구덩이 안에는 다른 유물은 없었다.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의 유구와 유물은 전남지방의 고인돌사회에서 독무덤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 동안 충분한 자료가 없었던 이 시기를 메꾸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발굴된 한국식동검, 널무덤, 구덩이(토광), 독널 등은 서로 비슷한 시기의 것으로 독널의 경우 광주 신창동 유적 출토 독널과 비교될 수 있다.

7. 손불면 죽림 유물 산포지

구릉사이의 얕은 계곡 내부에서 다른 곳에서 흘러들어 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원삼국시대의 시루편과 적갈색 연질토기편을 수습하였다.

8. 손불면 소명동 유물 산포지

발굴 시작 단계에 있다. 수많은 집터가 모습을 보이고 있다.

9. 신광면 무송 유적

신광면 함정리 산 77-1번지내의 45×35m 조사구역에서 중복된 집터를 포함하여 11기의 원삼국시대 집터를 확인하였다.

등고선을 따라 3열로 배열되었고 집터의 평면형태는 방형이나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나란한다.

단면형태는 경사면을 파고 만들었기 때문에 "L"자형을 이루고 있고 집터에는 벽구가 만들어졌으며 일부 집터에서 화덕자리나 기둥구멍이 확인되었다.

출토 유물은 큰항아리, 이중구연호(二重口緣壺), 잡이달린 항아리, 장란형토기, 덩이쇠(철정-鐵鋌), 쇠칼(철도자-鐵刀子) 등이며 1호 주거지 출토 이중구연호 안에서 탄화미가 나왔다.

집터의 분포상황과 이 일대의 지형으로 보아 공사구간에서 벗어난 구릉 위쪽으로도 계속 집터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표 10> 무송주거지 발굴 현황

호수	평면 형태	장 축 방 향	규 모 (m) 장축×단축×깊이	내부구조			출 토 유 물	참 고
				벽구	노지	주공		
1	장방형	북동 – 남서 (N 40° E)	450×380×40	○		4	큰항아리. 이중구연호. 탄화미. 수정. 쇠손칼	벽구가 양쪽으로 돌출됨
2	〃	북동 – 남서 (N 57° E)	380×305×50	○			장란형토기. 잡이달린항아리. 덩이쇠. 가락바퀴	남쪽 일부 유실
3	〃	북서북–남동남 (N 22° W)	390×350×38	○			토기편	선(선) 3호 후(후) 3–1호
3–1	방 형	북서북–남동남 (N 22° W)	380×360×50	○	○	2	〃	
4	〃	북동 – 남서 (N 52° E)	395×290×31	○	○	2	외반구연호. 토기편	반파
5	〃	동북동–서남서 (N 63° E)	340×260×70				토기편	선 5호 후 5–1호
5–1	〃	동북동–남서서 (N 69° E)	408×243×48	○			〃	
6	〃	북서 – 남동 (N 56° W)	320×175×33	○			〃	반파
7	〃	북서 – 남동 (N 40° W)	330×120×10	○			〃	〃
8	〃	북서 – 남동 (N 37° W)	350×220×33	○			〃	〃
9	〃	남 – 북 (N 2° E)	333×200×18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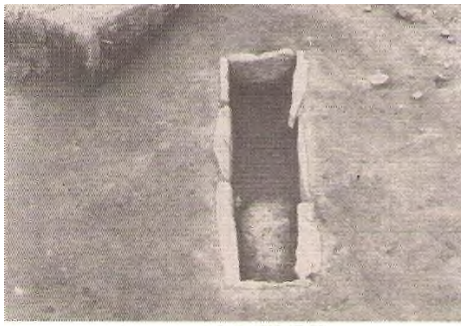
제2절 국도 22호선 구간 유적

1. 해보면 용산리 백토 유적

“방잔등”이라고 부르는 낮은 구릉에서 청동기시대의 돌널무덤, 철기시대의 집터와 널무덤, 삼국시대의 돌방무덤 등 다양한 유적이 발굴 확인되었다.

1) 청동기시대의 돌널무덤(석관묘–石棺墓)

구릉의 정상부에서 5부 능선에 걸쳐 유적이 형성되었으며 청동기시대 돌널무덤 계통의 분묘 10기가 발굴되었는데 돌널무덤 6기 뚜껑돌 없은 널무덤(石蓋土壙墓) 4기이다. 이 무덤들은 생토


1호 돌널 무덤

면을 파내고 널방을 만든 구덩식(수혈식-竪穴式)으로 모든 무덤은 뚜껑돌을 가지고 있는데 뚜껑돌은 판석(板石)을 2~3매 이용한 것과 괴석이나 할석을 이용한 것이 있다. 이들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은 소량의 토기편과 돌화살 1점, 옥 1점으로 껴묻기가 성행하지 않은 시기의 무덤들이다.

이런 유형의 돌널무덤과 뚜껑돌을 얹은 널무덤은 아직 전남지방에서는 발굴 조사된 바가 없으며 부여 송국리 발굴 유적과 유사하다.

<표 11> 용산리 백토 발굴 돌널무덤 일람

1999. 4. 10 현재

번호	장축방향	크 기 (cm)			벽 시 설	바 닥 시 설	참 고
		길 이	폭	깊 이			
1호	동-서	165	35	25	판석 수매	부분 판석	
2호	〃						유실
3호	〃	175	40	25	판석 수매	없 음	돌화살 1점
4호	〃	120	35	20			뚜껑돌 얹은 널무덤
5호	〃	175	40	25	할 석	부분 판석	옥 1점
6호	〃				판석 수매		유실
7호	〃	190	45	30		없 음	뚜껑돌 얹은 널무덤
8호	〃	125	25	25	부분 판석	부분 판석	
9호	남-북						조사 중
10호	동-서				할 석	판 석	유실

2) 철시기대의 집터와 널무덤

(1) 집터

구릉 정상부에서 말단부에 이르는 전역에 산발적으로 8기가 확인되어 발굴하였는데 민묘 조성으로 인하여 대부분 파괴를 입어 그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이들 집터는 경사면을 "L"자형으로 파내고 조성한 움집으로 모두 방형을 띠고 있으며 이들 집터에서 다량의 토기가 출토되었다.

<표 12> 용산리 백토 철기시대 집터 발굴 일람

1999. 4. 10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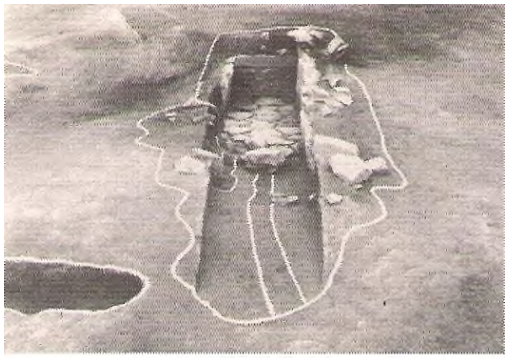
3호 집터

(2) 널무덤

등고선 방향과 일치하게 장축을 갖고 있으며 크기는 장축 210cm. 단축 60cm, 깊이 35cm며 구덩 내부에서 단지 1점, 대로옥 1점이 출토되었다.

번호	크 기 (cm)			시 설		출 토 유 물	참 고
	장축	단축	깊이	벽구	노지		
1	330	295	20	유			민묘로 파괴
2	520	340	20			다량의 토기편	
3	360	350	35			호형토기. 자루달린토기. 바리형토기. 장란형토기	
4	340						민묘로 파괴
5						가락바퀴. 항아리. 장란형토기. 바리형토기	대부분 유실
6	530	390	22		유	장란형토기. 바리형토기	
7	320	296	26			항아ㅣ	
8	660		34			대형항아리. 직구호(直口壺). 사발. 바리. 가락바퀴	대부분 유실

3) 삼국시대의 돌방무덤



돌방무덤의 모습

2기를 확인 발굴하였는데 1호는 완전히 파괴되어 흔적만 남았고, 2호는 3벽이 일부남아 발굴 조사하였다. 2기의 돌방무덤은 흙을 파내고 돌방을 만든 반구덩식이다. 2호 무덤은 등고선 방향과 직교하는데 크기는 장축 570cm, 단축 110cm, 깊이 90cm이며, 양쪽은 장벽은 3매의 판석과 2단의 할석으로 이루어졌고, 단벽은 1매의 판석과 1단의 장대석으로 이루어졌다. 돌방 바깥쪽에는 벽석을 보강하기 위해서 할석과 질흙으로 충진하고 있다. 출토 유물은 없으며 6세기 후반에 조성한 것으로 본다. 함평읍 대덕리 백곡 마을 앞 묘제공원에 옮겨 복원하였다.

4) 저장구덩이(저장혈-貯藏穴)

9호 집터 남서쪽의 논에서 2기가 발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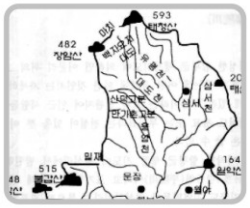
1호 지정구덩 : 크기가 120×100×30cm 이고 내부에 소량의 박, 외의 종자와 다량의 도토리

류 등이 나왔다.
2호 지정구덩 : 크기가 170×110×25cm 이고 내부에서 삼족기, 홈돌 등의 유물과 소량의 박, 외의 종자, 다량의 도토리류가 출토되었다.
당시의 식생활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

2. 월야면 외치리 고분

발굴 준비 단계에 있다.

제3장 노거수



노거수(老巨樹)의 사전적 의미는 수령(樹齡)이 많고 커다란 나무를 뜻한다. 함평 또한 노거수가 많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함평에서는 1982년까지 도나무(道木), 군나무(郡木), 읍·면나무(邑面木)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었다. 이후 1982년부터는 군나무, 읍·면나무, 마을나무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군(郡)에서 일괄 관리했었다. 하지만 2009년 현재 군(郡)에서는 어떠한 노거수 목록도 소장하고 있지 않았으며, 관리 또한 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999년 간행된 함평군사(咸平郡史)와 2003년 발간된 문화유적분포지도(文化遺蹟分布地圖 - 함평군편 -)를 토대로 노거수 편을 다시 작성하고자 한다.

여기에 필자는 2003년 『문화유적분포지도』 발간시 함평의 노거수를 직접 조사하고 노거수편을 집필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본고는 당시의 문화유적분포지도가 주된 자료였음을 밝혀둔다. 함평군 노거수를 담당하고 있는 군청 실무 과(科)와 담당자는 이 자료를 토대로 노거수들의 수령과 수고직경, 흉고직경, 수간직경 등을 다시 측량하고 목록을 작성해 노거수를 관리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본고에 실린 노거수의 순서는 함평읍을 먼저 싣고, 다음은 면별로 가나다순으로 게재했다. 다음은 함평군 노거수 목록이다.

함평군의 노거수

(단위 m)

품격	지정번호	지정 년월일	소재지	수종	수령	높이	둘레	소유자	관리자	참고
마을나무	10-22-1-10-2	82.12.03	함평 가동리 가동 255. 256	소나무	250	20	2.5			당산제
마을나무	10-22-1-10-19	94.04.20	함평 가동리 가동 572-1	느티나무	150	21	3.5			
천연 기념물		62.12.03	함평 기각리 구기산 687	붉가시 나무군(群)				국가	함평군	110호
군나무	10-22-1	82.12.03	함평 내교리 함평초등학교내	느티나무	500	15	5.5			
			함평 대덕리 대천 491	팽나무	400	15	3.5			당산제
마을나무	10-22-1-14-3	82.12.03	함평 대덕리 백곡 66-1.2	팽나무	350	23	3.5			당산제
마을나무	10-22-1-1-54	98.05.15	함평 만흥리 초동산 17-1	소나무	130	15	2.7	마을		

품격	지정번호	지정 년월일	소 재 지	수 종	수 령	높 이	둘 레	소유자	관리자	참 고
			함평 수호리 송정	느티나무	200	15	3.3			
마을나무	10-22-1-9-5	98.05.16	함평 옥산리 옥산전 547	팽나무	120	18	3.6	마을		한그루 고사
			함평 옥산리 흥룡 260-1	소나무 2그루	200,500	15	1.5			2그루
마을나무		00.06.	함평 자풍리 노송62-1 62-4	팽나무 2그루	400	15	4	마을		
마을나무	10-22-1-13-20	95.06.07	함평 진양리 화동 8-3	느티나무	250	25	4.9	마을		
			함평 함평리 대사 392-2	호랑가시나무	200	3.5	0.9			이재혁 가옥
읍면나무	10-22-2-7	94.04.20	함평 함평리 123-1	팽나무	300	20	2.8			함평 군청
마을나무	10-22-1-1-18	95.06.07	함평 함평리 120-1	팽나무	150	14	3.8			함평 경찰서
마을나무	10-22-1-1-1	82.12.03	함평 함평리 45	팽나무	300	22	2.8			
			나산 구산리 원구산 19-2	느티나무 나군(群)	200-400	18-20	1.8-4.1			8그루
마을나무	10-22-7-13-58	87.08.29	나산 구산리 원구산 356-1	느티나무 (가)	300	18-20	2.7-4.4	마을		예전 동제
마을나무	10-22-8-1-11	82.12.03	나산 구산리 삼구 216-1	팽나무	350	18	7.0			
마을나무	10-22-7-7-38	95.06.07	나산 나산리 대정 675	느티나무 (나)	270	23	5	마을		
마을나무	10-22-7-38-2	87.08.29	나산 나산리 대정 696	느티나무 (가)군	250-300	18-23	2.4-3.3	마을		
			나산 삼축리 동축 996	목련나무	150	7	1.4	박현순		
마을나무	10-22-1-66	98.11.01	나산 삼축리 백야산 126	백일홍	400	7	1.5-2.0	함평이씨		5그루
마을나무	10-22-7-1-33	95.06.07	나산 삼축리 분토 846-4	느티나무	250	23	4.23	마을		
			나산 삼축리 상축 951	느티나무	300	13	2.3-3			2그루
마을나무	10-22-7-7-34	95.06.07	나산 송암리 송암 585-2	느티나무	250	22	4.72	마을		당산목
			나산 송암리 음지 152, 151	느티나무	400	3.5-4	9-11			2그루
마을나무	10-22-7-6-37	95.06.05	나산 수상리 대안촌 175-1	느티나무	230	23	4.1	마을		

품격	지정번호	지정 년월일	소재지	수종	수령	높이	둘레	소유자	관리자	참고
읍·면나무	10-22-2-6	82.1203	나산 수하리 마산 270	느티나무(가)	600	25	4.6	나산면		당산목
			나산 수하리 마산 22	느티나무(나)	300	24	3.8			
			나산 수하리 장재 787	느티나무	350	25	4.1			
			나산 수하리 화전 353	버드나무	600	8	6			
			나산 용두리 선박 63	느티나무	300	10	2.5			
마을나무	10-22-7-9-39	95.06.07	나산 우치리 계동 404	느티나무	250	18	4.9	마을		당산목
마을나무	10-22-7-9-8	82.12.03	나산 우치리 우치 1020-1	왕버드나무	600	30	6.8	마을		
군나무	10-22-4	82.12.03	나산 월봉리 월봉 112	느티나무(나)	800	18	6	함평군		
마을나무	10-22-7-11-50	95.06.07	나산 월봉리 안영 89-34	느티나무(가)	200	15	4.4	마을		
			나산 월봉리 안영 489	느티나무군	200	15	4.4			군락형성
마을나무	10-22-7-5-49	95.06.07	나산 이문리 사정 686	느티나무(나)	400	12	5.7	마을		
마을나무	10-22-7-5-36	95.06.07	나산 이문리 사정 876-2	느티나무(가)	230	23	4.3	마을		
마을나무	10-2-7-5-35	95.06.07	나산 이문리 원이문 954-3	느티나무	220	23	3.7	마을		
			나산 초포리 사산 658	동백나무	200	20	1.2			
			나산 초포리 사산 1104-1	느티, 개서나무	250-450	15-20	3.5-4.0			군락형성
			나산 초포리 사산 658	모과나무	350	20	1.7			
마을나무	10-22-7-10-57	98.05.16	나산 초포리 사산 1104-1	팽나무	450	18-20	3.5-4.0	마을		2그루
마을나무	10-22-7-10-9	82.12.03	나산 초포리 초포 626	느티나무	350	20-8	4.6-4	마을		2그루
읍·면나무	10-22-6-14	97.04.23	대동 금산리 감산 151-1	느티나무(가)	350	33	3.4-3.8	대동면		2그루 당산제
읍·면나무	10-22-6-13	97.04.23	대동 금산리 감산 209-1	느티나무(나)	400	25-27	3.5-3.6	대동면		2그루 당산제
마을나무	10-22-6-10-32	95.06.07	대동 금산리 노적 619-8	느티나무	270	15	5.5	마을		
마을나무	10-22-6-7-48	95.06.07	대동 덕산리 고산 79	푸조나무	400	12	5.1	마을		

품격	지정번호	지정 년월일	소재지	수종	수령	높이	둘레	소유자	관리자	참고
군나무	10-22-6	94.04.20	대동 덕산리 고산 156	느티나무군	600	20-25	3.8,4.5,5.1	함평군		3그루
마을나무	10-22-6-7-31-1	95.06.07	대동 덕산리 외덕 230-2	느티나무(가)	240	18	4.1	마을		
마을나무	10-22-6-7-31-2	95.06.07	대동 덕산리 외덕 344-1	느티나무(나)	220	18	4.1	마을		
			대동 덕산리 외덕 233-1	팽나무	250	15	3.5			
군나무	10-22-10	94.06.07	대동 덕산리 외덕 378	느티나무	350	20	6.7	함평군		
			대동 백호리 보화 955	느티나무	300	12	4			
			대동 서호리 호정 16	팽나무	400					7그루
마을나무	10-22-6-7-31-1	97.08.29	대동 서호리 성정 41	회화나무	200	20	2.5	마을		
읍·면나무	10-22-6-11	96.06.07	대동 서호리 호정 188	느티나무	340	23	6.6	대동면		
			대동 연암리 옥련 473-2	팽나무	300	20	4.0			
마을나무	10-22-6-8-47	95.12.09	대동 용성리 괴정 694-2	느티나무(가)	300	20	4.3	마을		
마을나무	10-22-6-8-47-2	97.09.20	대동 용성리 괴정 694-2	느티나무(나)	200-300	13-20	3.0-4.3	마을		3그루
			대동 용성리 구룡동 528	느티나무	300	20	4.0			
마을나무	10-22-6-8-53	97.09.20	대동 용성리 금성동 203-2	느티나무	500	13	4.5	마을		
군나무	10-22-3	82.12.03	대동 용성리 정창 132	느티나무	500	30	6.8	함평군		당산제
천연기념물	제108호	62.12.03	대동 향교리 남교	팽나무, 느티나무, 개서나무						16그루
마을나무	10-22-6-6-30	95.06.07	대동 향교리 남교 462-2	느티나무	240	25	3.6	마을		
마을나무	10-22-6-11-65	98.11.01	대동 향교리 향교 590-1	은행나무군	450	15-20	2.2-3.7	마을		3그루
읍·면나무	10-22-2-3	82.12.03	손불 궁산리 덕산 135-1	느티나무(가)	400	25	5.3	손불면		당산제
마을나무	10-22-2-9-5	82.12.03	손불 궁산리 덕산 320-1	느티나무(나)	360	11	3.8	마을		
군나무	10-22-9	94.06.07	손불 동암리 동백 541-1	느티나무(가)	410	23	8.0	함평군		
군나무	10-22-2	82.12.03	손불 동암리 동백 541-1	느티나무(나)	500	15	5.3	함평군		

품격	지정번호	지정 년월일	소재지	수종	수령	높이	둘레	소유자	관리자	참고
			손불 동암리 벽초 61-2	버드나무군	500	14-13	5.4-3			2그루
마을나무	10-22-2-11-4	82.12.3	손불 산남리 내감 2859	팽나무	500	11	3.8	마을		
			손불 산남리 용흥 247-1	느티나무	500	11	3.8			당산제
기념물	제117호	88.12.21	손불 양재리 장재동 43	이팝나무	200-100	14-12	3.4-1.4	전라남도		
마을나무	10-22-2-2-56	98.05.16	손불 양재리 장재동 616	팽나무	200	16	4.5	마을		
마을나무	10-22-2-4-22	94.04.20	손불 월천리 어전 61-2	느티나무	150	18	3.2	마을		당산제
			손불 죽장리 응암 120	팽나무	400	13	5.21			
			손불 죽장리 장동 288-4	느티나무	500	14	2.3			
마을나무	10-22-2-7-15	94.04.20	손불 죽장리 장동 40	팽나무	250	15	2.3	마을		
읍·면나무	10-22-2-1	82.12.03	손불 죽장리 장동 362-1	은행나무	700	14	7	손불면		
			손불 죽장리 죽사동 471-10	느티나무	200	10	3.2			
마을나무	10-22-2-1-6	82.12.03	손불 학산리 금곡 570-2	느티나무	360	18	3.3	마을		
			신광 가덕리 가덕 159-3	느티나무	200					
			신광 가덕리 가덕 313-11	동백나무숲						
			신광 계천리 사천 310-3	느티나무군						2그루 당산제
마을나무	10-22-3-3-25	95.06.07	신광 동정리 수정동 504	느티나무(나)	210	18	4.8	마을		
읍·면나무	10-22-2-9	94.04.20	신광 동정리 676	느티나무(가)	210	18	4.8	신광면		
			신광 동정리 신여	느티나무	350					
마을나무	10-22-3-8-16	94.04.20	신광 복흥리 복치 204-2	느티나무군	300-200	12-13	3.9-3.4	마을		2그루
군나무	10-22-5	94.04.20	신광 삼덕리 덕천 510-1	느티나무	800-500	12	9.4-5.8	함평군		2그루
마을나무	10-22-3-2-24-1	95.06.07	신광 송사리 삼천동 100-1	느티나무	210	25	4.3	마을		

품격	지정번호	지정 년월일	소재지	수종	수령	높이	둘레	소유자	관리자	참고
마을나무	10-22-3-2-23	95.06.07	신광 송사리 송계 1013-1	느티나무	200	23	4.35	마을		
읍·면나무	10-22-2-8	94.04.20	신광 원산리 덕동 217	느티나무	300	15	4.0	신광면		당산제
읍·면나무	10-22-2-10	94.04.20	신광 월암리 연천 1027	느티나무	550	13-12	4.5-4.0	신광면		2그루 당산제
마을나무	10-22-3-6-59	98.11.01	신광 함정리 구봉 산 11-1	소나무						김철생가내
마을나무	10-22-3-4-17	94.04.20	신광 함정리 연화 235-1	느티나무	300	10	4.2	마을		
			엄다 삼정리 원삼정 488-1	팽나무, 버드나무	200	18-17	3.6-4.7			4그루
			엄다 성천리 와촌 477-1	팽나무(가)						할머니 당산
마을나무	10-22-5-7-7	82.12.03	엄다 성천리 와촌 519-1	팽나무(나)	350	25	5.2	마을		
군나무	10-22-5-5	82.12.03	엄다 성천리 와촌 53-12	왕버드나무	300	20	5.4	함평군		할머니 당산
마을나무	10-22-5-2-29	95.06.07	엄다 송로리 송촌 834-1	왕버드나무	250	15	5.5	마을		할머니 당산
			엄다 송로리 해정 286	회화나무	350	10	2.3			
			월야 양정리 양지 512	소나무군						
			월야 외치리 백야 601-3	팽나무	500	10				
마을나무	10-22-9-4-14	82.12.03	월야 외치리 외치 116-1	팽나무군	300	25	3.3	마을		3그루, 모과1
마을나무	10-22-9-10-45-1	95.06.07	월야 용암리 방하 364-3	느티나무	240	21	4.5	마을		
마을나무	10-22-9-11-46	95.06.07	월야 용정리 복룡 89-5	팽나무	180	12	3.1			
			월야 용정리 송정 18	소나무	150	25	3.3			
			월야 월계리 덕산 539	느티나무군	200	12	3.5			2그루
마을나무	10-22-9-3-68	98.11.01	월야 월계리 덕산 573	상수리나무	400	20	3.1	마을		
			월야 월계리 석계 424	백일홍	150	8	1.6			
마을나무	10-22-9-6-44	95.06.07	월야 월악리 지변 155-1	느티나무	260	18	4.9	마을		
			월야 월야리 순촌 314-1	팽나무						당산제

품격	지정번호	지 정 년월일	소 재 지	수 종	수 령	높 이	둘 레	소유자	관리자	참 고
			월야 정산리 서촌 787-2	왕버드나무군	150-200	10-12	3.1-4.4			
마을나무	10-22-4-5-61	98.11.01	학교 고막리 광진 304	팽나무	300	20	4.5	마을		
마을나무	10-22-4-2-27	95.06.07	학교 고막리 원고막 629	팽나무	210	18	4.3	마을		당산제
			학교 곡창리 원곡 780	소나무군	100-150	8-15	1.5-2.2			30여 그루
마을나무	10-22-4-8-62	98.11.01	학교 금송리 반곡 695-3	느티나무	350	28	5.5	마을		2그루
마을나무	10-22-4-9-63	98.11.01	학교 금송리 방우동 67-3	소나무	250	26	4.5	마을		
			학교 마산리 신기 278-2	물버드나무	300	15	3			
			학교 마산리 신평 320-1	주엽나무	150	15	2.2			
마을나무	10-22-4-3-64	98.11.01	학교 마산리 청수원 730	팽나무	450	28	3	마을		
마을나무	10-22-4-1-51	97.04.23	학교 복천리 내동 9062-1	느티나무	400	27-30	3.4-5.5	마을		2그루
읍·면나무	10-22-2-4	82.12.03	학교 복천리 두동 724	느티나무	550	14	4.8	학교면		
마을나무	10-22-4-2-60	98.11.01	학교 복천리 장동 427-2	느티나무	350	22	5	마을		
			학교 사거리 명암 467-2	이팝나무	100	10-11	1.1-1.6			학다리고교
마을나무	10-22-4-6-28	95.06.07	학교 학교리 회춘동 731	팽나무	190	18	3.7	마을		당산제
마을나무	10-22-8-4-67	95.06.07	해보 광암리 광동 208	느티나무	300	24	4.4	마을		
			해보 금계리 금산 426	팽나무	450	10	5			
마을나무	10-22-8-5-42	95.06.07	해보 금덕리 유정 433-1	팽나무	240	20	4.5	마을		
마을나무	10-22-8-2-12	82.12.03	해보 대창리 창서 270-2	팽나무	300	20	2.2	마을		
마을나무	10-22-8-8-43	95.06.07	해보 산내리 송산 180	팽나무	500	23	5	마을		
마을나무	10-22-8-1-11	82.12.03	해보 상곡리 모평 635	느티나무군	500	25	5	마을		군락형성
읍·면나무	10-22-8-12	86.06.07	해보 용산리 대성 395-1	은행나무	350	20	7	해보면		
			해보 해보리 발미 580	느티나무	500	15	4			

※ 군나무, 읍 · 면나무, 마을나무 등의 표시가 없는 것은 2003년 새로이 조사된 것임.

군나무 10-22-1 느티나무
함평초등학교 내

군나무 10-22-3 느티나무
대동면 용성리 99

군나무 10-22-4 느티나무
나산면 월봄리 월봉

군나무 10-22-2 느티나무
손불면 동암리 546

면나무 10-22-2-3 느티나무
손불면 궁산리 1071

면나무 10-22-2-1 은행나무
손불면 죽장리 261

면나무 10-22-2-6 느티나무
나산면 수하리 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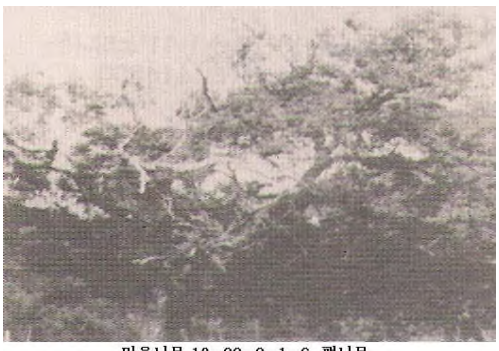
면나무 10-22-2-4 느티나무
학교면 복천리 907

면나무 10-22-5-5 왕버들나무
엄다면 성천리 40

읍나무 10-22-7 팽나무
함평군청 내

마을나무 10-22-1-10-2 소나무
함평읍 가동리 182-1

마을나무 10-22-1-14-3 팽나무
함평읍 대덕리 290



마을나무 10-22-2-1-6 팽나무
손불면 학산리 64-1

마을나무 10-22-2-9-5 느티나무
손불면 궁산리

마을나무 10-22-2-11-4 느티나무
손불면 산남리 42

마을나무 10-22-5-7-7 팽나무
엄다면 성천리 519

마을나무 10-22-7-9-8 왕버들나무
나산면 우치리 264

마을나무 10-22-7-10-9 느티나무
나산면 초포리 사산

마을나무 10-22-7-13-10 팽나무
나산면 구산리 17-1

마을나무 10-22-8-1-11 느티나무
해보면 상곡리 414

마을나무 10-22-8-2-12 팽나무
해보면 대창리 273

마을나무 10-22-9-4-14 팽나무
월야면 외치리 670

<표15> 미지정된 노거수

번호	소재지	나무종류	나무나이	높이(m)	둘레(m)	면적(㎡)	유형	소유	참고
1	대동면 금산리 감산	백일홍	300	13	1.3	110	노목거수	개 인	이재혁가
2	함평읍 함평리	호랑가시나무	200	9	1.2	90	거 수	개 인	여러주가 자람
3	학교면 사거리	이팝나무	150	15	2.0	130	거 수	학중·고	

Contents

| 제1장 | 읍·면 마을사 변천 개요 276
집필 / 신영호

| 제2장 | 읍·면 마을사 287

제1절 함평읍(咸平邑) 287
집필 / 신영호

제2절 나산면(羅山面) 361
집필 / 나홍채

제3절 대동면(大洞面) 450
집필 / 최권진

제4절 손불면(孫佛面) 510
집필 / 고일석

제11편 읍·면마을사

제5절 신광면(新光面) 589
집필 / 이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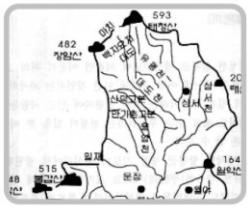
제6절 엄다면(嚴多面) 636
집필 / 김창훈

제7절 월야면(月也面) 683
집필 / 정현철

제8절 학교면(鶴橋面) 755
집필 / 박광웅

제9절 해보면(海保面) 846
집필 / 고송주

제1장 읍·면 마을 변천 개요



제1절 읍·면의 변천

오늘날 읍(邑)과 면(面)은 군(郡)의 하부 행정구역이다. 그런데 이 읍과 면은 그 원천을 같이 하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시(市)와 군(郡)이 서로 분리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계속되어 오다가 최근에야 나누어지게된 것과 그 발전 과정이 거의 같은 것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르면 면(面)은 원래 조선시대에 있어서 권농관(勸農官)의 지역 배치에서 유래한 것이며, 1600년대에 쓰여진 『반계수록』에 '면(面)'이라는 명칭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 시대에 이미 이같은 용어를 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무튼 면(面)·방(坊)·사(社)로 불리운 조선시대의 면은 몇 개 또는 몇 10개의 동리(洞里·마을)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명령 전달체로서 반 자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는 행정구역은 아니었다.

면이 법적 뒷받침을 받은 시기를 가리켜 대부분 1910년 10월의 <면에 관한 규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배적이기는 하나 <지방구역 정리의 건>이 공포된 1906년 9월 이전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1906년 9월 <지방구역 정리의 건>이 공포될 때 전국의 면 수는 4,338개 면이었다.

1910년의 조치에 의해서 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더욱 명확해졌고, 이때까지도 여러 가지로 불리어 오던 명칭이 면(面)이라는 명칭으로 통일되게 되었다. 그리고 1913년 3월 총독부령 제16호로 <면경비부담방법(面經費負擔方法)>이 공포되면서 면에서 소용되는 경비지출을 위해 면부과금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자치단체로서의 첫걸음을 내걷기 시작했던 것이다.

우리 함평군은 조선초기 함풍(咸豊)과 모평(牟平)의 양현을 합하여 함평현(咸平縣)으로 만들어졌다가 1894년 함평군(咸平郡)으로 개칭된 지역이다. 당시 행정구역은 동현내면(東縣內面)을 비롯하여 평능면(平陵面), 식지면(食知面), 갈동면(葛洞面), 월악면(月岳面), 해보면(海保面), 대야면(大也面), 서현내면(西縣內面), 영풍면(永豊面), 대동면(大洞面), 신광면(新光面), 손불면(孫佛面), 다경면(多慶面), 해제면(海際面) 등 14개 면이었다. 그러던 것이 1910년에는 다시 지금의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속한 장본(章本), 여황(艅艎), 오산(烏山)과 장성군 동화며 지역인 대화(大化)등 5개 면이 함평군에 이속되었다.

이후 부(府) 및 군(郡)과 함께 면의 구역을 크게 바꾸기 시작하여 1914년에 마무리 지어졌다. 이때 개편 이전가지의 면은 면적·인구·재력면에서 크게 격차가 있었으나 대체로 면적은 약 4방리(1방리는 사방 1리의 면적), 호수는 최저 800호를 기준으로 삼아 미달하는 지역은 인근 지역을 서로 병합 조정했었다.

이리하여 1906년 전국적으로 총 4,338개 면이었던 것이 1910년에는 4,322개 면으로, 그리고 1914년에는 2,518개 면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이 시기에 조정 개편한 면의 행정구역이 대체적으로 거의 변동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함평군은 1914년 부·군 통폐합시 장본·적양·여황 등 3개 면을 나주에, 오산면을 광주에, 대화면을 장성군에, 다경·해제를 무안에 각각 이속하고, 대신 무안에서 신노(新老)·좌촌(佐村)·금동(金洞)·진례(進禮)를 함평군에 이속하였다. 그리고 갈동·월악·대야 3개 면을 월야면으로 폐합 개칭하였으며, 서현내·영풍 2개 면을 함평면으로, 금동·진례·좌촌 등 3개 면을 학교면으로, 신노를 엄다면으로, 동현내면은 대동면으로 폐합함으로써 10개 면이 되었다.

1917년 총독부령 제1호 <면제(面制)>에 의해 면의 사업 능력이 인정되어 지방 공공업무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고, 호별할(戶別割)·지세할(地稅割)·특별부과금 사용료·수수료 등 자체 재원 조달 능력이 강화되는 한편, 보통 면과 구분되는 지정면(指定面)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오늘의 읍(邑)의 전신이라 하겠다.

이때 지정된 지정면은 면 가운데에서도 비교적 인구가 많고 상공업이 발달되어 도시적인 면모를 갖춘 곳을 지정했다. 지정면에는 자문기관인 상담역을 두고 특히 기채권(起債權)을 인정하는 등 그 기능을 강화했다. 이 시기에 지정되어 승격된 면은 총 23개 면이었다.

읍제(邑制)는 1930년 12월 1일 총독부 제령 제11호로 공포되고 이듬해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때의 읍·면수는 읍 41개, 면 2,403개였고, 1945년에는 읍 107개, 면 2,243개였으며, 1948년 정부수립 당시 북한 지역을 제외한 읍·면의 수는 읍 73개, 1,456개였다.

1949년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굳혔으나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군 자치제가 시행되어 자치단체로서의 법인격(法人格)을 잃어 순수한 군의 하부 행정구역으로 변모되었다.

1961년의 읍·면수는 읍 83개, 면 1,405개였고, 1970년에는 읍 91개, 면 1,382개소가 되었다. 이어 1973년도의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과 1978년 조정, 1981년의 시 승격 및 읍 승격 조치에 의하여 1983년에는 읍 187개, 면 1,266개였다.

우리 함평군은 1914년 9141932년 평능과 식지 양면을 합해 나산면으로 개칭 10개 면이던 것이 9개면이 되고, 1963년 함평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1읍 8개면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읍 8면은 함평읍, 나산면, 대동면, 손불면, 신광면, 엄다면, 월야면, 학교면, 해보면이다.

제2절 리(里)와 마을

리(里)는 우리나라에 있어 최말단 지방 행정구역이다. 여기에는 공부상의 리인 법정리(法定里)와 행정 운영상의 리인 행정리(行政里)로 구분하고, 일종의 명예적인 이장이 있다.

법정리의 출현을 살펴보면 1917년 6월 총독부 제령(制令) 제1호의 <면제(面制)>에 의해 법적 근거를 갖고, 같은해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에 의한 것이라는 게 지금까지의 통설이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그 시기를 더 상한하여 보아야 한다는 이론도 적지 않다. 왜냐면 그것은 1909년 6월 25일 법률 제20호 <지방구역과 명칭의 변경에 관한 건>의 공포를 계기로 1910년 2월부터 각 도의 도령(道令)으로 <면내 동리촌(洞里村)의 폐치분합(廢置分合)과 그 명칭 및 경계의 변경에 관한 건>이 공포되고 이에 근거하여 많은 지역이 정비를 보게 되었으며 191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부군(府郡)의 구역개편, 그리고 같은해 4월 1일부터 시행한 면의 구역개편때 동리의 정비가 단행되어 전국의 리수(里數)를 28,181개로 확정하였다. 여기에서의 전국 리수는 부(府)와 동(洞)을 포함한 숫자이다.

어쨌든 이렇게 하여 그 명칭과 관할지가 결정되어 큰 변동이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현행 법정 행정구역으로서의 리에 대한 근원을 1917년이 아닌 1914년으로 상한하여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옛날의 동리(洞里)는 각 시대편에서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선시대의 것만 간략히 요약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조선시대에 있어서는 동(洞)이나 리(里) 이외에도 동리라는 개념을 가진 포(浦), 평(坪), 촌(村), 향(鄕)이라는 명칭들이 있었다. 그 조직은 지방의 전통과 관례에 입각하여 유지되어 왔었고 동리에는 주민들의 추천으로 수령이 임명하는 동장(洞長), 구장(區長), 리정(里正), 존위(尊位) 등이 있어 자체 재산을 관리해 왔었다. 즉 관습에 따른 준 자치적 법인으로서의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겠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리(里)라는 명칭은 1914년을 전후한 행정구역의 대 개편때 생겨나고, 그 후 1917년에 더욱 명확한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리는 193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읍면제>에 의하여 읍면이 법인격을 갖게 됨과 아울러 그 법인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읍면의 하부 행정구역이 됨과 동시에 그 재산도 흡수되고 말았다.

그 후 1949년 지방 자치법은 종래의 동리제를 그대로 계승하여 시, 읍, 면과 시의 구에 동, 리를 두되 그 구역은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條例)로서 정하도록 하였다. 이것이 오늘날의 법정리(法定里)인 것이다. 법정리를 조정할 경우 많은 법정 공부(公簿)를 고쳐야하는 폐단이 있어 이를 함부로 변경할 수 없는 제약을 받고 있다.

1983년 6월말 전국의 읍면 법정리는 16,223개, 행정리는 35,300개, 자연마을은 67,366개 마을이었다. 당시 우리 함평군은 104개 법정리, 232개 행정리, 485개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던 것이 1996년말 현재는 104개 법정리, 270개 행정리, 484개 자연마을, 541개 반(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3절 마을의 변천

1. 개관

마을이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생활의 단위로서 인간생활의 기본단위인 가족 또는 집들이 모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통합을 이루고 있는 지역집단을 말한다.

마을·골(谷)·동리·취락 등의 용어로도 사용되는 마을의 개념과 그것에 대한 연구의 관심은 여러 학문분야에 따라 각기 다르다.

예를 들면 지리학에서는 가옥의 집합상태인 마을 입지조건과 발생·발달·형태·기능 등에 주로 관심을 가지는 반면에, 경제사학에서는 마을의 공동체적 성격과 마을을 형성하는 기본단위로서의 가구가 생업과 관련하여 어떤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지는가에 일차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즉 농림어업의 생산양식과 입지조건 및 그것에 의하여 영위되는 가구의 경제생활과 지역산업구조의 전개에 관심을 기울인다. 한편 사회학 및 문화인류학에서는 도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농산어촌의 지역사회를 총칭하여 마을이라고 규정하고, 마을의 사회 관계와 사회구조 및 계층구조 등에 관심을 가지면서 인간관계의 사회문화적 통합을 주로 다룬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자연촌 또는 자연마을과 행정적으로 설정한 행정촌 또는 행정마을의 개념규정도 마을의 연구에서 중요시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촌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에서도 행정 동·리의 밑에 취락 또는 마을이 있고, 다시 그 밑에 인보집단(隣保集團)으로서의 마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연마을의 일반적인 형태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자연마을과 행정마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는 견해도 있다.

첫째는 자연마을과 행정마을이 일치하는 것이고, 둘째는 두 개 이상의 자연마을이 하나의 행정마을을 구성하는 것이며, 셋째는 하나의 자연마을이 두 개 이상의 행정마을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마을의 형태는 분류의 기준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을의 성립과정에 따라 자연촌과 행정촌이 구분되며, 생업의 기반에 따라 답작촌(沓作村)·전작촌·원예작물촌 등을 포함하는 농촌과 어로촌·양식어촌·수산제조업촌 등을 포함하는 어촌 및 광산촌·임업촌·축산촌·관광촌 등이 구분된다.

가옥의 밀집도에 따라서는 집촌(集村)과 산촌(散村)이 구분되고, 마을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는 평야촌·산촌(山村)·하곡촌(河谷村)·강촌·해촌·교외촌 등으로 나누어진다.

마을의 기능면에서는 역촌(驛村)·진촌(鎭村)·도진촌(渡津村)·신앙촌 등이 구분 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씨족구성에 따라서는 동성촌 또는 동족마을과 각성촌 또는 비동족마을이 구분된다.

이와같이 다양한 마을의 형태는 사회·문화·경제·정치 등의 여러 측면에 걸친 변화에 따라 마을의 특성을 더욱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만든다.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물리적 속성과 주민들의 응집성 및 마을구조의 포괄성이 뚜렷해야 마을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우선 마을의 물리적 속성으로는 지리적으로 구역이 한정되어 있어서 마을 자체가 전체로서의 한 생활단위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을은 특정한 명칭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마을의 이름을 지칭함으로서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다른 이웃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어느 마을이라는 인식이 뚜렷해야 한다.

마을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켜 주고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려면 식료와 주거, 기타의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인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마을의 자원과 인구 및 기술상태는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농촌에 있어서 농작물과 농업기술 및 인구의 규모와 직업구성 및 분업의 정도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밖에 어촌과 산촌, 기타의 생태적 조건이 다른 지역에서도 인구와 자연 및 기술상태는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마을의 제한된 구역내에 있는 자원은 그 마을의 인구에 적합해야 하고, 자원개발의 기술에 따라 인구의 부양 능력이 달라지며, 생활양식이 변화함에 따라 인구의 규모와 자원의 관계가 달리지기도 한다. 한 마을이 얼마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주민들이 몇 대에 걸쳐 살아왔는가, 그리고 인구의 이동이 얼마나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나며, 왜 일어나고 있는지도 그 마을의 물리적 속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마을사람들의 응집성은 그들이 얼마나 통합되어 있으며 공통의 감정을 가지고 협동하는가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마을사람들의 구성이 동족이건 비동족이건 간에 3대(代) 이상의 오랜 거주 역사를 가지고 서로 친밀한 면대면(面對面)의 상호작용을 계속 할 때 그 마을의 통합정도는 높다고 하겠다. 특히 마을 사람들이 그들의 생계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생산과 분배를 공동으로 하거나, 협동관행이 철저하게 지켜질 때에는 응집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마을사람들이 오랫동안 함께 살며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의 가문을 잘 알며, 어떤 사건에 대하여 공동의 기억내용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같은 마을사람들이라는 일체감 내지 연대감을 더욱 강하게 해준다.

그밖에도 마을사람들의 신앙과 의례활동이나 공동체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데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생활의 여러측면에서 협동을 증가시키고 단결을 강화하는데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학력과 재력 기술 기타의 모든 능력면에서 성공적이고 활동적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한 마을 안에서 양극화되어 그들 사이에 잠재적인 분열의 조짐이 보일 때에는 통합과 공통의 감정 및 협동이 깨어질 위협을 받게 된다. 단결과 분열, 조화와 갈등, 연대와 반목이 한 마을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는 그 마을 내부의 사정이나 상호관계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외부 세계의 사정이나 상호관계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된다. 그 중에서도 도시화와 상업화는 마을사람들의 전통적인 응집성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도시사람들과 도시의 여러가지 제도들이 마을 사람들을 이용하고 통제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마을사람들 중에서 더 유능한 사람은 도시로 끌려나갈 가능성이 더욱 많고, 그들의 조상이 오래 누리고 살던 출생지 고향은 협소하고 초라한 마을로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산업화에 따라서 마을의 기업가들은 서로 다른 재능과 배경을 가진 이웃 사람들을 잘 이용하기도 한다.

마을의 구조 또는 조직의 포괄성은 그 마을의 여러 가지 규범과 제도 및 문화특질, 그리고 마을이 그 일부를 이루고 있는 전체사회의 여러 세력을 얼마나 내포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그 마을의 구조는 전체사회와의 관련 하에 고려되어야 한다. 마을의 규범과 질서는 국가의 법률과 질서가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켜지고 마을의 경제는 국가경제의 일환으로 운영되며, 마을의 정치·종교·교육 기타 여러 가지 제도와 생활양식의 요소들이 모두 전체사회와의 관련 하에서 유지되고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마을의 구조를 다룸에 있어서 과거에 서양의 인류학자들이 미개사회의 한 부족이나 소규모 사회를 완전히 독립된 폐쇄사회로 다루었던 방식과는 달리 접근해야 될 것이다.

마을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마을사람들의 지위와 그에 따른 역할의 구조를 보아야 하

고, 가족과 혼인제도에 따른 거주의 원칙 및 인구이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을의 행정인 지역구조와 정치·경제·사회관계의 면에서 권리·의무와 자격조건 및 그 밖의 여러 가지 세력에 의하여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전술한 바와 같다.

마을이 물리적인 속성들로 연속되고, 마을의 구성원들이 여러 세대를 거쳐 내려오면서 공동의 경험과 기억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 외부의 세력에 따라서는 그들의 역할이 변화하고 협동과 제재의 규범이 바뀜으로써 마을의 구조가 변화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마을이 행정적인 지역구조의 면에서나 공동체생활의 면에서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과 변화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2. 선사시대의 마을

기록이 전혀 없는 선사시대의 마을에 관한 실태를 알 수 있는 자료로는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주거지와 거기에서 출토된 유물들일 것이다. 그런데 원시적인 농업이 시작되기 이전에 구석기시대에는 수렵과 채취 및 어로경제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정착생활을 하지 못하고 주로 이동생활을 하였으며 마을의 형성이 불가능하였다. 설사 구석기 시대의 것으로 생각되는 동굴주거의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마을과 결부시킬 수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선사시대의 마을 양상을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는 수혈주거지(竪穴住居址)일 것이다. 특히 신석기시대를 대표하는 빗살무늬토기 문화시대의 수혈주거지는 주로 황해도를 비롯해 평안남·북도와 함경북도 등지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청동기 및 초기 철기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무문토기 문화시대의 수혈주거지는 남한의 한강유역을 비롯하여 소양강유역 및 서해안과 북한의 압록강·두만강·대동강 등의 하천 평야지대를 포함한 전국에 걸쳐 100여 개나 발굴 조사되었다. 그리고 무문토기 문화시대의 주거지에서는 반월형석도와 돌낫 등이 다수 발견되어 초기 농경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하나의 유적지에서 다수의 주거지가 발견되는 것은 마을을 이루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더구나 시기적으로 구분되는 주거지끼리 서로 중복되어 있는 것은 당시의 마을이 농경에 적합한 지역 또는 생활환경이 좋은 지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마을이 계속 존재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중복이 심한 곳일수록 그 지역이 당시 주민들의 생활에 적합하였던 곳이었음을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들 주거지가 발견되는 지리의 지형적 조건으로서는 거의 모두가 하천이나 평야가 앞쪽에 전개되는 구릉지대 또는 대지의 위라는 것이다. 그것이 구릉의 경사면에 있는 경우나, 대지 위에 있는 것이나 모두가 하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 까닭은 농경과 깊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주거지의 상태와 출토된 유물의 특성을 살펴보면 주거가 폐기된 증거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화재로 인한 폐기와 이주(移住)에 의한 폐기로 구분된다. 특히 후자는 생활환경이 더 좋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또는 부족들 간의 원시적인 전쟁 때문에 주거를 폐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한 경우가 아닌가 여겨진다.

이 시기에는 벌써 농경이 일반적으로 행하여져서 재산이 축적될 수 있었고, 부(富)의 관념이

발생하여 거대화 된 마을에서는 사회계급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족들간에는 영토의 분쟁도 일어났을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분쟁을 예견한 부족의 지배자는 전략적으로 자기가 통솔하는 부족들의 거주지역을 미리 적당한 장소로 옮긴 다음에 이전의 주거시설을 모두 불태워 버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 때 마을 또는 부족을 대표하는 촌장 또는 족장의 권력은 매우 컸을 것으로 추측된다.

함평 또한 1999년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시굴 및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이미 전기 구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이 거주했음이 밝혀졌다.

3. 고대·삼국시대의 마을

기록상에 나타난 고대의 마을은 『삼국지』와 『후한서』 및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에 기록된 신화와 전설의 기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삼한시대의 진한 서벌(徐伐) 사로(斯盧) 6촌(村)은 알천양산촌·돌산고허촌·취산진지촌·무산대수촌·금산가리촌·명활산고야촌 등이었다. 이것은 아무리 늦어도 『위지』의 기사에 나타나기 이전에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삼국유사』에는 6촌의 기원과 촌장의 이름, 발상지, 6촌과 6부(部) 및 사성(賜姓)의 관계 등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해석에 관하여는 논란이 많고 아직까지 뚜렷한 정설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들 초기의 6촌은 씨족으로 구성된 마을로서 각 마을은 각각의 족장 밑에 혈연적 또는 지연적으로 결합된 사회조직을 이루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듯하다. 이들 6촌의 마을들은 계곡 밑 경작지를 낀 산록과 하천의 주변에 집촌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6부에는 이미 재산과 부 및 권력에서 차등이 발생하여 계층의 분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던 것 같다. 그 당시 각 급의 족장세력을 편제하는 데에 각 지방 마을의 등급을 진촌(眞村)·차촌(次村)·상촌(上村)·제1촌·제2촌·제3촌 등으로 구분한 것은 그러한 계급분화의 특성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고구려의 주통촌(酒桶村)과 백제의 해촌(海村)·정촌(井村)·고사부촌(古沙夫村)·벌음촌(伐音村) 및 신라의 자연촌과 행정촌 구분에서 우리는 삼국시대의 마을제도를 밝혀볼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그 당시의 마을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755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신라촌락문서(新羅村落文書)」이다. 여기에는 지금의 청주인 서원(西原) 지방에 있었던 4개 마을의 지역적 범위와 3년간에 걸친 호수, 인구수, 우마(牛馬)의 가축수, 논·밭·마전(麻田)의 토지면적, 뽕나무, 잣나무, 호두나무의 수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변동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의 한 마을인 사해점촌(沙害漸村)의 사례를 보면 조사 당시에 마을의 지역적 범위가 5,725보이고 호수는 19호 이며 인구수는 275인이었다. 이것은 3년간의 호구와 인구이동 및 출생·사망·혼인 등의 인구동태 숫자를 모두 합한 것이다. 말은 25마리, 소는 22마리였다. 논면적은 102결2부4속인데 그 중 호구에 주어진 것이 94결2부4속이고 호구에 주어진 것 이외의

논이 8결이었다. 밭 면적은 62결10부7속인데 모두가 호구에 주어진 것이었다. 마전은 1결9부이데 모두 호구에 주어진 것 이외의 밭이었다. 뽕나무는 1,004그루, 잣나무는 120그루, 호두나무 112그루였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사실은 촌주위답 19결70부가 일반호에 주어져서 분할 경작되고 관모답(官謨畓) 4결과 내시령답(內視令畓) 4결은 일반호구에 주어진 것 외에 국가권력에 의한 특수 관료답의 형식으로 마을에서 공동경작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신라촌락문서」에 나타난 마을들은 행정촌이 아니라 자연촌이었으며, 촌주는 각 자연촌에 모두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개의 자연촌에 한 사람의 촌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자연촌들은 규모가 매우 작았기 때문에 사실상 각 자연촌에 촌주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촌주가 관할하는 범위는 자연촌이 아니라 몇몇의 자연촌을 포함하는 일정한 행정적 지역단위의 마을, 즉 행정촌이었다고 추측된다.

4. 고려시대의 마을

고려시대 전기까지도 향촌사회의 구조는 대체로 자연촌이 독자성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규모에 이르지 못하고 몇 개의 자연촌을 묶은 지역촌 또는 행정촌이 중심적인 기능을 하였다.

이러한 행정촌을 대표하는 대소의 촌장(村長) 또는 촌정(村正)은 마을 내에서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들의 신분은 일반백성에 속할 뿐 주·부·군·현의 지배적인 기인(其人)·향리(鄕吏)·인리(人吏) 등과는 구별되었다.

고려시대의 향리들은 인리성(人吏姓)을 가졌지만 백성들은 백성성(百姓姓)이라는 특정한 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양민(良民)들은 자연적 혈연적 유대로 결합된 사회집단으로서 각각 특정한 마을을 생활 근거지로 하였다. 이들 일반 백성들의 마을은 토성(土姓)·촌락성(村落姓)·촌성(村姓)이라는 이름 아래 결집된 혈족단체의 거주지였으며, 인리성을 가진 향리들도 혈연적 자연마을을 이루고 대대로 군현의 지방민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국가는 이들 혈족집단의 수장과 향리들을 통하여 마을을 지배하고 통치하였다.

마을의 농민을 파악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국가는 그들의 혈족적 결합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고려 말기에 이르러서는 혈연의 순수성이 상실되어 이성잡거(異姓雜居)의 현상이 나타나 혈족단체의 수장(首長)을 매개로 하여 국가가 마을을 지배하고 파악하는 과거의 낡은 방법이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혈연단체의 족단(族團)은 국가권력의 지배 대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지역 단체만이 남게 되었다.

고려시대의 마을은 이들 일반백성 또는 양민이 거주하는 마을과 천민 또는 특수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마을이 구별되어 있었다. 군현제의 특수한 형태인 향(鄕)·소(所)·부곡(部曲) 등을 구성하는 마을은 일반양민과 신분적으로 구별되는 천민이나 특수한 직업을 가진 집단이 거주하는 특수한 마을이었으며, 그 수효도 매우 방대한 것이었다.

한편 토지의 강력한 국가관리를 원칙으로 하는 전시과제도(田柴科制度)에 의하여 중앙의 왕실·사원·양반관료·서원·관청 등이 봉건지배층과 지방토호들에게 집중된 광대한 토지는 농장(農莊)이라는 명목으로 장원(莊園)마을을 형성하였다. 농장은 가신(家臣)과 가노(家奴)들을 통

하여 관리되었으며, 노비와 전호(佃戶)에 의하여 경작되었다. 그리고 농장에 대하여는 면세와 면역의 특전이 주어졌다.

농장의 관리인은 장두(狀頭)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농장주의 하수인으로서 농장주를 대신하여 농장내의 전호를 지배, 감독하고 그들로부터 농산물을 징수하여 농장주에게 바치는 동시에, 잉여생산물을 고리대로 이익을 챙기는 등 농장내의 사무를 처리하였다.

한편 장원마을에 거주하는 전호들은 농장주에게 노역과 생산물을 바치는 대신에 국가에 대한 부역과 조세·의무를 면제받고 있었지만, 농장주와의 주종관계를 벗어 날 수 없었다. 또 장원마을의 면역과 면세 부분에 해당되는 부역과 조세가 국가 지배하의 농민들은 유민의 길을 택하거나 투탁에 의하여 농장에 들어가 장객(莊客)이 되기도 하였다.

농장주와 경작자 사이는 병작반수(竝作半水)라 하여 수확량을 반씩 나누는 분익소작(分益小作)이 매개가 되고 있었다. 농장주와 관리자와 경작자는 상호간에 경제적 관계 외에도 경제 외적 강제가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그 밖에도 고려시대에는 전국의 운수와 교통노선의 제도 정비에 따라 교통로의 역(驛) 기능을 담당하였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역촌(驛村) 및 하천과 해안의 도선(渡船) 기능을 담당하였던 사람들의 도진촌(渡津村), 외적의 방위와 행정적 기능을 담당하였던 진촌(鎭村) 등의 특수한 기능적 마을들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5. 조선시대의 마을

조선시대에는 초기에 군현제도 정비에 따라 향·소·부곡 등의 지방 하부 행정구획이 혁파되고 면리제도(面里制度)가 실시되었다.

『경국대전』의 호적조와 오가통사목(吾家統事目)에서는 5호를 1통으로 하고 거기에 통주(統主) 또는 통수(統首)를 두며, 5통(統)을 1리(里)로 하고 거기에 이정(里正)과 2명의 유사(有司)를 둔다고 규정하였다. 또 몇 개의 리를 합쳐 1면(面)을 만들고 거기에 권농관(勸農官)을 두었다.

이러한 오가통제도는 마을 행정상의 자치조직으로 고려시대의 선행제도였던 오보제(五保制)를 따른 것이다. 즉 보(保)는 5호로 편성된 자치적 행정단위로 마을사람들의 연대 책임하에 범죄를 적발하고 피해자를 구조하며, 부정한 인신매매나 도망자를 수색하는 등의 의무가 부과되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호(戶)는 자연 가호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자연촌을 그대로 행정촌으로 편성한 것이다.

신라와 고려시대처럼 몇 개의 자연촌을 묶어서 행정촌으로 편성하지 않고 자연촌을 그대로 행정촌에 편성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전결(田結)과 호구수에 의한 완전한 군현제도가 확립되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자연촌이 독자성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규모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조선시대의 마을은 대략 20호 내지 30호 또는 크게 100여 호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마을에는 이도里導)·이정(里正)·동수(洞首)·존위(尊位)·좌수(座首) 등의 명칭을 가진 사람들이 마을의 잡역과 심부름을 하였다.

마을의 임원들은 매년 정월에 개최되는 대동회(大洞會)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동회에는 마을주민들이 각 호에서 한 사람씩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마을은 단순한 행정적 단위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공동체적 사회생활의 단위였기 때문에 그들의 주요 사회관계와 집단들이 마을내에 누적되어 있었고 하나의 자치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마을의 공공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도로·교량·우물·동사(洞舍)등의 축조와 개수작업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실시하였다. 그러한 일들은 대동회의 결의를 거쳐서 각 호당 얼마씩 비용을 할당하여 갹출하고 노역을 부과함으로써 마을주민들이 모두 참여하였다.

동족마을은 신라와 고려시대에도 있었지만, 우리 나라의 마을사에서 동족마을의 중심세력을 이루고 있었던 것은 조선시대였다. 1930년에 실시한 동족마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그 당시에 양반과 유림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살고 있었던 저명한 동족마을, 1,685개 가운데서 1430년 이전에 형성된 것이 207개였고, 1430년에서 1830년 사이에 형성된 것이 997개였다. 따라서 발생연대가 분명하지 않은 458개를 제외하면 조사된 저명 동족마을의 81% 이상이 조선시대에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동족마을들은 원래 그 지방에서 관직 또는 세력을 가지고 있던 지배적인 성씨의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형성하기도 하였고, 세도가의 자손들이 분가하여 새로 형성하기도 하였다. 또 중앙정부에서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이 고향 또는 광대한 사유지가 있고 연고지를 찾아 은퇴하면서 형성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동족마을 중에는 하나의 성씨만으로 구성된 것도 있지만,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지배적인 성씨와 소수의 다른 성씨들도 구분된 것들도 많았다. 특히 저명한 양반 동족마을에서는 그들의 유명한 선조의 사당(祠堂)을 마련하고 서원(書院)을 건립하여 후손들 중에 높은 관직에 오른 사람들을 많이 배출하였다.

6. 일제강점기 때의 마을

일본은 우리나라에 식민지 지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행정 간소화라는 명목으로 조선시대의 동리(洞里)를 폐합하는 지방행정제도의 개혁을 실시하였다.

그들은 종래의 자연발생적인 마을들을 2개 내지 3개씩 통폐합하여 법정동리로 묶고, 이정·이도·존위·좌수·동수 등의 명칭을 철폐하여 구장(區長)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었다.

이러한 지방행정제도의 개혁은 이른바 자연촌과 행정촌이라는 일본의 이중구조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이식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종래의 동리장은 모두 해직시키고 새로이 구장을 임명하는데 낡은 사상을 일소하고 식민지 행정에 솔선수범하는 지방의 유력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실제로 일제의 식민지 행정기관이 지방의 유력자로 임명하려던 양반유생들은 식민지의 정치와 행정에 반대하고 그 시행을 방해하는 예가 많았다. 새로 선정된 구장들은 무급의 명예직으로 하고 그들의 임무를 대폭 간소화하여 마을의 지방자치 업무를 대부분 면(面)의 행정으로 이관시켰다.

농업과 축산·과수·권농 기타의 산업조직과 마을의 자치단체들을 면 단위로 설립하고 면의 행정 지도하에 두었다. 이처럼 마을의 주요 자치 기능들을 축소 또는 약화시키고 면의 행정기능을 확대, 강화시킴에 따라 지역사회 구조의 비중도 마을단위에서 면으로 옮겨졌다.

한편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토지조사 사업도 마을주민들의 경제생활과 계층 구조를 크게 변화시켰다. 일제 토지 소유권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유권의 정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신고주의 방법을 택하였다. 이는 하나의 토지에 다원적인 토지 소유권이 존재하는 당시의 우리나라 농촌 사회에서 신고주의 방법을 택함으로써 하나의 권리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리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7. 광복이후 시대의 마을

1945년의 광복 이후 한국의 마을에서는 일제의 식민통치를 청산하고 자율적인 생활이 이루어졌다. 토지소유에 의한 농가 계층에도 변화가 있었다. 식민지 시대에 일본인들의 소유였던 귀속농지와 지주 소작관계의 재조정으로 남한에서는 광복 당시에 비하여 1949년에는 지주 겸 자작농과 자작 겸 소작농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순 소작농의 비율이 절반 이상 감소되었다.

농지개혁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6·25 한국전쟁으로 전국의 마을은 일대 변동을 겪었다. 전쟁으로 마을을 떠나 외지로 나간 사람들이 많았고, 외지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그 마을에 정착한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인구의 대 이동은 우리나라의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었다.

1960년대 이후의 전국적인 도시화와 공업화 및 경제성장에 따라 마을의 청소년들과 경제적 상위계층 및 하위계층 사람들이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찾아 가까운 중소 도시나 멀리 대도시로 빠져 나감으로써 마을주민들의 연령별 인구구성이 바뀌고 가구 수와 인구 수도 감소현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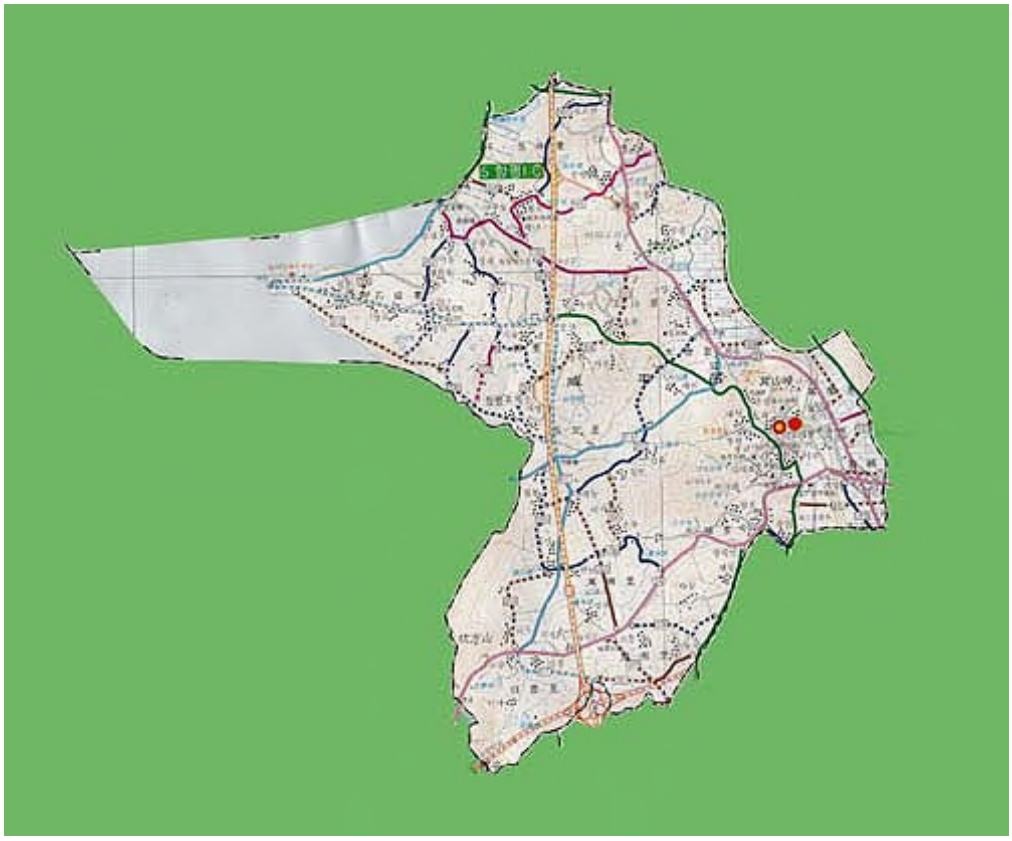
1970년대 전국적으로 실시된 새마을운동도 마을의 하부구조를 크게 변화시켰다. 경지정리, 농로확장, 상수도시설, 주택 및 변소 개량, 전기 및 전화 가설 기타 농촌·산촌·어촌의 소득증대 사업과 환경·위생·보건 등 전반적인 생활개선사업이 이루어져 마을 생활이 크게 변화하였다. 도시화가 급소하게 진전됨에 따라 농촌·산촌·어촌의 생산 구조도 크게 변화하였다. 도시의 수요에 맞추어 비닐하우스 채소 재배와 과수 및 어업생산이 자가 소비를 위한 생계 경제에서 시장 판매를 위한 상업 경제로 전환되었다. 농산어촌의 인구가 도시로 계속 유출됨에 따라 마을에서는 인구의 공동화 현상이 생겨나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전국의 어느 마을에서나 빈 집들이 늘어나고 노인 과다현상이 나타났다. 그 대신 농업의 기계화가 계속 추진되고 작물의 종자개량 및 화학비료와 영농방법이 개선되어 농업생산의 구조와 생산력의 면에서는 큰 발전을 이룩하였다. 도로망과 교통수단도 발달하여 전국의 마을과 도시가 1일 생활권으로 통합되었다. 더구나 텔레비전·라디오·신문 등 대중매체의 보급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각종 정보 전달이 신속해짐에 따라서 마을은 더 이상 고립된 소우주가 아니게 되었다. 전국의 다른 마을들뿐만 아니라 인근 중소 도시와 대도시가 긴밀한 연계의 망을 이루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교통·통신·정보의 면에서 거리를 단축하게 되었다.

제1절 함평읍(咸平邑)

집필 / 신 영 호

가동리(佳洞里) / 295
기각리(箕閣里) / 296
내교리(內橋里) / 303
대덕리(大德里) / 311
만흥리(萬興里) / 314
석성리(石成里) / 317
성남리(城南里) / 324
수호리(水湖理) / 327
옥산리(玉山里) / 333
자풍리(自豊里) / 338
장교리(長交里) / 342
장년리(長年里) / 346
진양리(津良里) / 350
함평리(咸平里) / 358



1. 함평읍 사무소

1956년대에는 기각리 누각 현 함평온천장 자리에 있었고 1960년대에 기각리 906-7번지로 옮겼으며 대지면적 450평이다.

현재 읍사무소 건물은 1990년에 준공했다.

2. 연혁

함평읍 관할 지역은 백제때 굴내현(屈乃縣), 통일신라시대와 고려때는 함풍현(咸豊縣) 땅이었으며 조선시대에는 함평현(咸平縣)에 속했었다. 그 뒤 1895년 함평군에 속해 군 소재지가 되었다.

1895년 당시 현재의 함평읍 관할지역에는 3개 면이 설치되어 있었다. 서현내면(西縣內面; 소재지 대천저수지 앞)과 동현내면(東縣內面; 소재지 기각리), 그리고 영풍면(永豊面; 소재지 만흥리 국산)이 바로 그것이다.

서현내면은 현 내교리 외대화를 비롯 수호리의 수산·소등·송정 · 대명·신기, 장교리의 칠언·월봉, 만흥리의 발산, 대덕리, 진양리, 장년리, 성남리의 성남 등지가 관할구역이었다.

동현내면은 현 함평리, 기각리, 대동면의 향교리, 강운리가 관할 구역이었다. 그리고 영풍면은 신라 이후 조선조 초기까지 특수 행정구역인 영풍향(永豊鄕)으로 고려 명종 2년(1172년) 이전까지는 나주목의 관할지였다가 이때부터 함평현 감무가 관할하게 되었다.

영풍면은 지금의 수호·성남·만흥·옥산·가동·석성리 등이 관할 구역이었다.

1906년 서현내면과 동현내면을 합해 기성면(箕城面)을 신설하였으나 영풍면만은 독립면으로 행정구역이 조정되었다. 그러다 1914년 기성면(현 대동면의 향교리와 강운리는 이 때 대동면으로 편입됨)과 영풍면을 합쳐 함평면(咸平面)이 신설되었다. 오늘날의 법정리는 이때 출현되었다.

1914년 당시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신설된 리(里)에 소속된 마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동리(佳洞里)

가천(佳川) 전역과 연동(年洞), 묘동(廟洞), 모산리(帽山里) 각각 일부지역

▶ 기각리(箕閣里)

동부리(東部里; 현 교육청 부근) 전 지역과 백곡(栢谷), 기산(箕山), 천변(川邊; 현 구시장 및 거멍다리 부근), 누각리(樓閣里)의 각 일부지역

▶ 내교리(內橋里)

기성면의 내대(內大), 외대(外大), 신기(申基), 광교(廣橋), 서부리(西部里) 전 지역과 하주리(下朱里) 일부지역

▶ 대덕리(大德里)

기성면의 고양(古良), 덕흥(德興), 대천리(大泉里) 전지역과 백곡(栢谷; 현 작곡재 아래)의 일부 지역

▶ 만흥리(萬興里)

영풍면 초동(草洞), 만년(萬年) 전 지역과 성북리(成北里), 기성면의 발산리(鉢山里) 각 일부 지역, 목포부 신노면 신흥리(申興里) 전 지역

▶ 석성리(石城里)

영풍면 성재(成才), 석두(石頭), 성덕리(成德里) 전 지역과 묘동(廟洞) 일부 및 기성면의 세은리(細隱里) 전 지역

▶ 성남리(城南里)

영풍면의 기성(箕城), 장지(長支) 전역과 신풍(申豊), 성북(城北), 소등리(小等里), 기성면 발산리(鉢山里) 목포부 신노면 장동(壯洞) 각 일부 지역 그리고 기성면 성남리(城南里) 전 지역

▶ 수호리(水湖里)

영풍면 해동(海東), 대등(大等), 평호리(平湖里) 전 지역과 기성면의 소등(小等), 송정(松亭), 수산리(水山里)의 각 일부, 그리고 대명(大明), 신기리(新基里) 전 지역. 목포부(木浦府) 신노면(新老面; 현 엄다면)의 정양(正陽), 중양(中陽), 농은(農隱), 용흥리(龍興里) 각 일부지역.

▶ 옥산리(玉山里)

영풍면의 옥산(玉山) 전역과 용촌(龍村), 흥룡(興龍), 가작리(加作里) 전 지역과 모산리(帽山里)의 일부지역

▶ 자풍리(自豊里)

영풍면의 가양(加良) 전역과 신풍(申豊), 비아리(比牙里)와 기성면의 발산리(鉢山里) 각 일부 지역과 목포부 신노면 금곡(金谷), 자연(自然), 노송정리(老松亭里) 전지역

▶ 장교리(長交里)

영풍면 자명(自明), 주교(舟交), 장동(長洞), 칠현리(七玄里)와 기성면의 산음(山陰), 월봉리(月峰里) 전지역

▶ 장년리(長年里)

기성면의 장고(長古), 월선(月仙), 백여리(白余里) 전 지역과 영풍면의 연동리(年洞里), 손불면 죽림리(竹林里)와 목교리(木橋里)의 각 일부

▶ 진양리(津良里)

기성면(箕城面)의 중양(中良), 대진(大津), 구성(九成), 양림리(良林里) 전 지역과 화동(化洞) 일부지역

▶ 함평리(咸平里; 함평읍 소재지)

상주(上朱; 현 대사동), 동상주(東上朱; 현 산성), 동하주리(東下朱里; 현 군청 부근) 전 지역과 하주(下朱), 누각리(樓閣里)의 각 일부 지역

이후 함평면은 1962년 11월 21일 법률 제1177호에 의거 함평읍(咸平邑; 1963. 1. 1)으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른다.
2009년 12월 31일 현재 함평읍은 법정리 14, 행정리 39, 66개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동리(佳洞里) : 가동
▲기각리(箕閣里) : 옥천·누각(1구), 시장·신촌(2구), 구기산(3구), 신기산(4구), 구시장(5구)
▲내교리(內橋里) : 서부(1구), 내대화·광교(2구), 신기(3구), 동부(4구), 외대화(5구), 동광ⓐ·거송라뷔랑ⓐ(6구), 주공ⓐ(7구)
▲대덕리(大德里) : 고양촌(1구), 대천·백곡(2구)
▲만흥리(萬興里) : 국산·만년(1구), 초동(2구)
▲석성리(石城里) : 성재·덕흥·신설포(1구), 석두·성곡(2구), 청학·성덕(3구)
▲성남리(城南里) : 소등(1구), 성북·지성(2구)
▲수호리(水湖里) : 예동·평호·수산(1구), 해동·대등(2구), 송정(3구)
▲옥산리(玉山里) : 흥룡·가작(1구), 용촌·모산·옥산(2구)
▲자풍리(自豊里) : 신풍·금곡(1구), 노송·비아(2구)
▲장교리(長交里) : 산음·칠언(1구), 월봉·작동(2구), 자명(3구)
▲장년리(長年里) : 장고산(1구), 월선·구주포(2구), 백년(3구)

▲진양리(津良里) : 양림·가금·갑골(1구), 중량·하동(2구)
▲함평리(咸平里) : 산성·도화(1구), 대사·빙현(2구)

현재의 읍사무소는 함평읍 기각리 906-13번지에 있으며 대지 면적은 450평이다. 시설 규모로는 사무실 20평, 창고, 민원실 각 70평, 회의실 60평 등이다.
직원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구 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고용인	합계
명	1	5	4	6	1	2		19

3. 경지면적·가구·인구수

※ 2009년 12월 현재

구분 / 리별	자 연 마 을 명	경 지 면 적(ha)			가구수(호)	인 구 수(명)		
		계	전	답		계	남	여
계	39개리, 66개 마을	2,267	1,011	1,256				
가동리	가동	99	57	42	80	166	80	81
기각리1	옥천, 누각	23	3	20	191	717	337	380
기각리2	시장, 신촌	20	3	17	227	545	268	277
기각리3	구기산	45	14	31	123	271	131	140
기각리4	신기산	20	5	15	158	344	175	169
기각리5	구시장	20	2	118	141	296	145	151
내교리1	서부	21	2	19	142	331	162	169
내교리2	내대화, 광교,	34	13	21	181	386	183	203
내교리3	신기	17	6	11	195	468	212	256
내교리4	동부	23	8	15	265	627	319	308
내교리5	외대화	33	13	20	52	118	62	56
내교리6	동광ⓐ·거송라뷔랑ⓐ	11	6	4	204	652	323	329
내교리7	주공ⓐ	15	6	7	299	887	424	463
대덕리1	고양	109	46	63	76	145	59	86
대덕리2	대천, 백곡	88	36	52	83	156	70	86
만흥리1	국산, 만년	91	42	49	66	168	79	89
만흥리2	초동	68	32	36	32	67	35	32
석성리1	성재, 덕흥, 신설포	107	69	38	94	180	87	93
석성리2	석두, 성곡	105	54	51	123	305	122	163
석성리3	청학, 성덕	95	46	49	104	239	130	109
성남리1	소등	64	29	35	40	88	43	45
성남리2	성북, 지성	87	38	49	64	128	63	65
수호리1	예동, 평호, 수산	57	25	32	75	137	68	69
수호리2	해동, 대등	72	30	42	58	109	53	56

구분 / 리별	자연마을명	경지면적(ha)			가구수(호)	인구수(명)		
		계	전	답		계	남	여
수호리3	송정	46	22	24	20	44	21	23
옥산리1	흥룡, 가작	67	31	36	68	151	73	78
옥산리2	용촌, 모산, 옥산	67	25	42	67	156	80	76
자풍리1	신풍, 금곡	79	42	37	40	88	42	46
자풍리2	노송, 비아	85	45	40	47	96	44	52
장교리1	산음, 칠언	82	43	39	69	124	60	64
장교리2	월봉, 작동	76	39	37	61	119	57	62
장교리3	자명	65	29	36	45	101	56	45
장년리1	장고산	67	45	22	51	124	64	60
장년리2	월선, 구주포	72	25	47	63	124	59	65
장년리3	백년	51	19	32	53	110	64	46
진양리1	양림, 가금, 갑골	65	10	55	99	222	108	114
진양리2	중량, 하동	94	41	53	95	192	91	101
함평리1	산성, 도화	25	10	15	122	246	116	130
함평리2	대사, 빙현	28	12	16	202	479	226	253

4. 함평읍의 10대 성씨

순위	씨족명	가구수	집단거주지
1	김해김씨(金海金氏)	540	기각리, 대덕리
2	함평이씨(咸平李氏)	349	성남리
3	광산김씨(光山金氏)	147	기각리, 내교리, 함평리
4	금성나씨(錦城羅氏)	134	가동리, 수호리
5	함평노씨(咸平魯氏)	130	진양리 중량
6	밀양박씨(密陽朴氏)	120	옥산리
7	인동장씨(仁同張氏)	79	진양리 양림
8	해주최씨(海州崔氏)	70	대덕리 고양
9	전주리씨(全州李氏)	64	기각리, 장교리
10	경주이씨(慶州李氏)	60	장교리 칠언

5. 역대 함평읍장 명단

대(代)	성명	출신지(리별)	재임기간	비고
1	조장현	수호리		면장
2	이완범(李垸範)	내교리		면장(공적비)

대(代)	성 명	출신지(리별)	재 임 기 간	비 고
3	이 계 윤 (李啓潤)	내 교 리		면장
4	서 상 기 (徐相基)	내 교 리		면장
5	권 승 일 (權承一)	기 각 리		면장
6	문 종 현 (文淙鉉)	기 각 리		면장
7	이 계 손 (李啓孫)	기 각 리		면장
8	문 종 현 (文淙鉉)	기 각 리		면장(선거)
1	나 승 현 (羅承鉉)	수 호 리		읍장
2	박 정 순 (朴程淳)	함 평 리	1964. 04. 01 ~ 1972. 02. 26	읍장
3	조 홍 현 (曺洪鉉)	수 호 리	1972. 03. 06 ~ 1974. 07. 12	읍장
4	김 하 균 (金夏均)	대 덕 리	1974. 07. 16 ~ 1986. 06. 30	읍장
5	김 재 길 (金在吉)	성 남 리	1986. 07. 01 ~ 1993. 06. 30	읍장
6	모 봉 수 (牟奉洙)	손 불 면	1993. 07. 01 ~ 1998. 06. 30	읍장
7	문 학 주 (文學周)	함 평 리	1998. 07. 01 ~ 1998. 09. 04	읍장
8	정 정 남 (鄭正南)	학교면 마산리	1998. 09. 05 ~ 2000. 01. 23	읍장
9	김 광 호 (金光浩)	석 성 리	2000. 01. 24 ~ 2000. 03. 16	읍장
10	박 형 필 (朴刑弼)	대동면 향교리	2000. 03. 17 ~ 2003. 09. 26	읍장
11	김 규 준 (金奎準)	학교면 고막리	2003. 09. 27 ~ 2005. 08. 07	읍장
12	이 윤 성 (李允聖)	수 호 리	2005. 08. 08 ~ 2007. 07. 22	읍장
13	정 영 오 (鄭榮午)	나 산 면	2007. 07. 23 ~ 2008. 07. 27	읍장
14	김 양 현 (金良鉉)	기 각 리	2008. 07. 28 ~ 현 재	읍장

6. 면의원(面議員) 명단

대(代)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직업	학력·경력	소속정당	비 고
제1대	의장	장권표(張權杓)	1923. 03. 03	내교리 216-7	공업	기자	자유당	
	부의장	이재권(李載權)	1910. 02. 07	장년리 755	농업	〃	〃	
	의원	이계태(李啓泰)	1910. 11. 28	기각리 910	〃	이장	〃	
	〃	이찬모(李贊模)	1892. 12. 19	함평리 61	대서	면서기	〃	일명 李基相
	〃	모남식(牟南植)	1907. 11. 26	함평리 257	정미업	기독교 총무	〃	
	〃	김성중(金成仲)	1918. 03. 05	석성리 31	농업		〃	
	〃	정만채(鄭萬采)	1918. 04. 03	자풍리 642	〃	이장	〃	
	〃	모규섭(牟奎燮)	1908. 12. 17	수호리 201	〃	〃	〃	
	〃	최규영(崔圭永)	1917. 10. 21	대덕리 991	〃		〃	
	〃	나필환(羅弼煥)	1907. 01. 29	수호리 977	〃	이장	〃	
	〃	김용희(金龍喜)	1894. 08. 12	기각리	〃	농회기수	〃	
	〃	박학균(朴學均)	1914. 11. 11	옥산리 83	〃	이장	〃	
	〃	양일동(梁日童)	1922. 09. 07	기각리 683	〃	중졸, 이장	〃	

대(代)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직업	학력·경력	소속정당	비 고
	〃	오정자(吳貞恣)	1901. 05. 26	기각리 726	〃	중학교사	대한부인회	
제2대	의장	이재기(李載期)	1918. 08. 21	기각리 873	〃	중졸, 군서기	자유당	서기 3년
	부의장	문효익(文孝益)	1923. 01. 15	기각리 857	상업	중졸, 경찰	〃	경찰 6년
	의원	박중균(朴仲均)	1928. 06. 20	옥산리 268	농업	교육구 서기	〃	서기 3년
	〃	김영창(金永昌)	1927. 02. 20	수호리 275	〃	중졸, 의원	〃	의원 3년
	〃	신재옥(申載玉)	1917. 12. 01	함평리 364	〃	국졸, 농회기수	〃	기수 1년
	〃	김원영(金元永)	1928. 10. 15	석성리 571	〃	대졸, 중학교원	〃	교원 3년
	〃	이돈만(李敦萬)	1913. 11. 03	함평리 253	〃	보통학교졸, 의원	〃	의원 3년
	〃	김영률(金永律)	1923. 05. 17	장교리 156	〃	중졸, 의원	〃	〃
	〃	양일동(梁日童)	1922. 09. 07	기각리 683	〃	중졸, 의원	〃	〃
	〃	이재평(李載平)	1923. 07. 04	장년리 718				
	〃	노병수(魯炳脩)	1923. 11. 05	진양리 795	농업	국졸, 의원	자유당	의원 3년
	〃	고원상(高元相)	1917. 03. 12	기각리 904	〃	중졸, 의원	〃	〃
	〃	정만채(鄭萬采)	1918. 04. 03	자풍리 642	〃	국졸, 의원	〃	〃
3대	의원	이재평(李載平)	1923. 07. 04	장년리 718				
	〃	장종기(張鍾基)	1938. 06. 17	진양리 521				
	〃	김관천(金棺千)	54세					
	〃	나기열(羅基烈)	1917. 12. 06	수호리 546				
	〃	김병우(金炳雨)	1919. 07. 29	내교리 599				
	〃	이민복(李敏福)	1919. 06. 25	대동 덕산 61				
	〃	장선표(張善杓)	1919. 03. 07	진양리 999-8				
	〃	최동진(崔東鎭)	1920. 07. 25	장교리 160				
	〃	고원상(高元相)	1917. 03. 12	기각리 904				
	의원	문효익(文孝益)	1923. 01. 15	기각리 857				
	〃	이병남(李丙南)	1927. 02. 20	대덕리 972				
	〃	김영창(金永昌)	1927. 02. 20	수호리 275				
	〃	박중균(朴仲均)	1928. 06. 20	옥산리 268				

7. 마을사(史)

이명 : 가나다 순

1) 가동리(佳洞里)

함평군에서 단일 자연마을로 이(里)를 이루는 유일한 이(里)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가내(佳川) 마을 외에 연동(年洞), 묘동(廟洞), 모산(帽山) 등의 일부가 편입되었으나 농경지만 편입되었을 뿐 호구(戶口)는 편입되지 않았다.

(1) 가동(佳洞)

○ 마을 이름의 유래

보통 사람들은 마을 이름을 '가내'라 부른다. 이는 마을 앞 개천의 모래가 아름다워 가내(佳川)라 하다가 1914년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지금처럼 가동(佳洞)으로 바뀌 부르게 되었다. 가내는 가천(佳川)의 순수한 우리말이다.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166	85	81	80	44	36	118	60	49	7	2	수도작 양과

○ 거주성씨

성 씨	금성나씨	함평이씨	기 타
가 호	58	17	5

○ 마을의 형성

함평읍의 여러 이 가운데 유일하게 1개 마을만으로 형성된 이이다. 마을로부터 5~6백m 떨어져 있는 반고개, 빗가리라 부르는 곳에서 옹관묘와 조개무지가 야산 개발 때 노출 파괴되었고, 마을 바로 앞 남산에서도 옹관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보면 오랜 옛날부터 이곳에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성씨가 어떤 흥망성쇠를 겪었는지는 전해오는 얘기가 없다. 다만 금성나씨 나세장(羅世章·시조로부터 19세손)이 정작한 기록만 남아 있을 뿐이다. 금성나씨의 가동마을 정착은 500여년 전이 된다.

500여년 전 장성현감을 지낸 박고창이 터를 잡고 나씨의 후예를 사위로 맞아들여 박씨는 옥산으로 건너가고 금성나씨가 주축으로 마을을 형성하였으며 현재도 이 마을은 금성나씨의 자작일촌이나 다름없다. 나씨의 뒤를 이어 함평이씨가 입촌하여 그 후손이 지금도 이 마을에 살고 있다.

○ 유물과 유적

·옹관묘와 조개무지 : 마을로부터 약 6백여 미터 떨어져 있는 반고개, 빗가리라 부르는 곳에서 옹관묘와 조개무지가 야산 개발 때 노출 파괴되고, 마을 앞 남산에서도 옹관이 출토됨.
·현감 서상정(徐相鼎) 영세불망비 : 나주정씨 삼효비가 있는 도로변에 부러진채 있었음. 호패형 비로 건립연대는 미상.
·나씨 삼효비 : 나씨 삼효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국삼강록』 효행편에 등재되어 있다. 이 비는 후손들이 1896년에 건립한 것으로 나정량, 나정우, 나정륜 등 삼형제에 대한 효행 사실을 기록한 비다. 이들은 효성이 지극하여 부친이 위독하자 서로 앞을 다투어 단지 주혈하고 상을 당해서는 삼형제 모두 묘 옆에 움막을 짓고 3년간 시묘하였다. 그리고 홀로 계신 어머님을 한집에서 의좋게 모시고 살다 모친상때도 전과 같이 했다.

○ 중요한 지명

·가내(佳川) : 마을 앞 계천의 모래가 아름다워 마을 이름을 가내(佳川)라 했다. 가내는 순수한 우리말이다.

○ 배출인물

·나병삼 : 명지대 교수
·나남채 : 함평군청 총무과장, 기획실장 역임
·나병연 : 초등학교장 역임
·나홍채 : 현 함평군청 기획실장
·나명주 : 함평조청 의사과장
·나명권 : 현 초등학교장 (서울)
·나병구 : 현 나산고등학교 교장
·나홍주 : 초등학교교장 (서울)
·나승도 : 서울 구치소 부소장 역임
·나금도 : 상공부 부이사관 퇴임

2) 기각리(箕閣里)

기각리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이제(里制)를 실시하면서 기성면의 동부리(東部里; 지금의 신기산 교육청 일대) 전역과 백곡리(柏谷里; 구기산과 접한 백곡마을의 땅), 기산리(箕山里), 천변리(川邊里; 현 구시장 및 신시장), 누각리(樓閣里) 등의 일부 지역을 묶어 기각리라 했다.

기각리라는 이름은 기산에서 '기(箕)'자와 누각에서 '누(樓)'자를 따서 기각리(箕閣里)라 했다.

(1) 옥천(玉泉)

○ 마을 이름의 유래

옥천(玉泉)이란 마을 이름은 지금도 '옥샘'이라 부르는 샘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함평현의 객사를 지을 때 인부들이 이 샘물을 먹었다고 하는데 현존하고 있는 이 옥샘은 오랜 역사를 가진 샘이다.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401	186	215	120	25	95	18	2	11		5	벼 상업

○ 거주성씨

성 씨	광산김씨	전주이씨	기 타
가 호	45	30	45

○ 마을의 형성

이 마을은 행정구역 개편 이전까지는 누각마을이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비대해진 누각마을을 분리하면서 형성된 마을이다.

(2) 누각(樓閣)

○ 마을 이름의 유래 : 누각마을은 함평리와 내교리 중간에 위치한 마을이다. 마을 이름은 예전 희우루(喜雨樓)라는 누각이 있었던 곳이라서 누각(樓閣)이라고 했다.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316	151	165	71	35	36	12	1	7		4	벼 상업

○ 거주성씨

성 씨	광산김씨	전주이씨	기 타
가 호	25	15	31

○ 마을의 형성

마을의 정확한 형성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다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비대해진 누각마을을 분리하여 옥천마을이 형성되었고, 또한 이때 현 함평군청이 있는 일대가 함평리 도화마을에 편입되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이 마을은 오래전부터 번성했던 마을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3) 시장(市場)·신촌(新村)

○ 마을 이름의 유래

시장마을은 예전부터 장시(場市)가 열렸던 곳이라서 시장이라 하고, 신촌은 근래 새로이 형성된 마을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545	268	277	227	56	171	17	3	16		8	벼 상업

○ 거주성씨

성 씨	김해김씨	함평이씨	기 타
가호	26	21	180

○ 마을의 형성

신·구시장을 통틀어 예전에는 기영리라 불렀다.(1789년 호구총수지명), 그러던 것이 후에 영수 천변에 위치한다 해서 천변리(1914년 행정구역 개편명)라 개칭하여 불렀다.

옛 시장은 처음에는 강정시(江亭市), 후에는 읍전시(邑前市)라 불렀고, 지금은 함평장 또는 함평시장이라 부르고 있다. 현재 살고 있는 성씨는 수십성이며 그 가운데서도 김해김씨를 비롯 함평이씨, 밀양박씨 등이 많이 살고 있다.

○ 중요한 지명

·고망다리 : 지금의 함평교(咸平橋)의 옛 이름이다. 일제강점기 때 놓은 나무다리에 콜타르를 칠해 검게 보이므로 일명 '거멍다리'라고도 불렀다.
·향교다리 : 지금의 영수교의 이름으로 전에는 대천교(大川橋)라 하였다.
·고망다리 들 : 함평교 부근 일대의 들판.

○ 배출인물

·권승일(權承一) : 제1대 함평면장 ·허 전 (許銓) : 전 포병학교장

(4) 구기산(舊箕山)

구기산

○ 마을 이름의 유래

기산이라는 마을 이름은 중국의 하남성 등봉현 남동쪽에 있는 기산(箕山)이라는 지명에서 따온 이름이다. 그리고 기산마을 동쪽을 휘감고 도는 냇을 영수(潁水)라 하는데 이 또 한 그곳의 지명에서 따온 이름이다.

흔히들 함평을 예찬할 때 "기산 영수로 이름 높은 곳"이라고들 한다. 중국의 기산 영수는 "기산지절(箕山之節)" ,"기산지지(箕山之志)"로 고사에서 비유되고 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오직 청렴하게 기산에서 살던 허유(許由)가 요 임금으로부터 자기에게 양위를 할까 한다는 말을 듣고 듣지 못할 소리를 들었다 하여 영수에게서 귀를 씻고 있었다. 소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오던 소부(巢父)가 허유의 귀 씻은 물을 소에게 먹일 수 없다며 상류로 올라갔다는 고사가 서린 지명들이다.

어쨌든 함평의 기산 영수라는 이름은 조선시대 초기부터 불려졌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1454년 단종의 퇴위에 항거하며 관직을 버리고 신숙주의 동생인 신말주(申末舟)와 함께 향리(현 구기산)로 내려와 허유와 소부의 지조를 추앙하며 티없이 살기로 맹세한 이안(李岸)이 냇가에 정자를 짓고 영파정(潁波亭)이란 액호를 붙인 뒤 '기산(箕山)'과 '영수(潁水)'라는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안이 낙향하여 살기전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영수천은 대천(大川)으로 기록되어 있고, 기산이란 이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편 산의 형국이 키(사투리·치) 형국이어서 '기산(箕山)'이라 했다고도 하나 그보다도 중국의 지명에서 따온 따란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을 것 같다.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271	131	140	123	40	83	59	14	31	5	8	벼 상업

○ 거주성씨

성 씨	김해김씨	함평노씨	광산김씨	기 타
가 호	18	12	11	82

○ 마을의 형성

구기산에는 처음 함평이씨가 세거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1454년 박팽년의 천거로 참봉직에 있다가 단종 퇴위에 항거하며 신말주와 함께 관직을 버리고 낙향한 이안이 1455년 현 관덕정 자리에 영파정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그 뒤 함평이씨의 뒤를 이어 입촌한 성씨는 약 400여년전 대구서씨로 알려진다. 선조때 사간원 헌납으로 있던 서세방이란 사람이 1589년 기축옥사가 있게되자 벼슬을 버리고 기산에 정착했다는 것이다. 현재 이 마을에서 제일 많은 가구를 차지하고 있는 김해김씨는 근세에 백곡에서 이주 정착한 성씨다.

○ 자생조직

명 칭	창립년도	인원	목 적	참 고
친목계	1978년	23	마을주민 상호간 단합	

○ 유물과 유적

·천연기념물 붉가시나무 : 이 나무는 참나무과에 속하는 난대성 늘푸른 넓은 잎 나무로써 직경 60cm, 높이 20cm, 가량 자랄 수 있는 나무이다. 구기산 마을 집 뒤 기산산록(이병조 소유대지)에 자라고 있는 북가시나무는 자생북한지대에 자라고 있는 나무로 큰 나무는 현재 13그루며 열매에서 자연 발아한 어린 나무는 수십주에 이른다.

이 나무는 약 200여년 전부터 자생했던 것으로 알려져 오고 있으며, 원래 집주인은 천씨성을 가지 부자였다고 하나. 1962년 12월 3월 천연기념물 제110호로 지정되었다.

·관정루지(觀亭樓址) : 현 구기산 마을회관 옆 구릉 함평이씨 선산에 세워졌던 누(樓)로 1443년에 현감 김계보가 지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없다. 다만 관정루기(觀政樓記; 정인지 씀)와 관정루에 대한 성임(成任)의 시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적혀 전해오고 있으며 연못가의 돌 일부가 남아 있다.

·영파정(潁波亭·潁水亭·觀德亭) : 현재 관덕정이라 부르고 있고, 영수정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는 정자이다. 이 정자는 단종의 퇴위에 항거하여 낙향했던 이안(李岸)이 지은 정자로 영파정(潁波亭)이라 했다. 정유재란대 왜적의 손에 의해 소실되고 후손들이 영파정 유허비를 세웠으며 그후 영파정 옛 터에 영수정을 세웠고 참찬 오연상, 현감 윤종의, 어사 이면상 등이 쓴 싯귀가 전하고 있다. 1807년 7월 권재우 등 유지들이 뜻을 모아 중수하였고, 1937년 이동범 등 여러 사람들이 개수했으며, 궁도무예의 도장으로 활용했었다. 그러던 것이 영수천 직강공사로 인해 과녁이 멀어 궁도장 구실을 못하게되자 한 때 농촌지도소 함평읍지소의 사무실로 활용되기도 했다. 1987년부터 현재까지는 함평군 국악협회에서 쓰고 있다. 1988년 12월 21

일 도문화재자료 제166호로 지정되었다.

·세심정(洗心亭) : 이 정자는 전 은율군수를 역임한 이동범(李東範)이 1937년에 건립한 정자이다. 지금은 함평공원의 전망대로 활용되고 있다. 1977년과 1987년 등 두차례에 걸쳐 보수했다.

·함평공원 :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공원으로 현재 현충탑이 서 있는 자리가 일본인들이 신사(神社)를 세웠던 곳이다. 함평공원은 원래 조성되기 이전에는 초분(초빈)골로 쓰이던 곳이었다. 현재 함평공원에는 1977년에는 세운 충혼탑을 비롯하여 죽봉 김태원 항일의병장 의적비 및 다수의 기념비와 군내에 산재해 있던 역대 현감들의 공적비 등이 한데 모아져 있다.

·척화비(斥和碑) : 일제강점기에 군청 뒷 뜰에 파묻혀 있던 비를 1977년 공원으로 옮겨 세워 놓았다.

·고인돌 : 기산초등학교 관사 내에 1기의 고인돌이 있고, 대동면 덕산리와의 경계 지점에도 7기의 고인돌이 있다. 원래 20여기에 달하는 고인돌군이었으나 밭을 일구며 훼손하여 현재는 7기만 남아 있다.

○ 중요한 지명

·토들이보 : 나들이 위에 있던 보. 지금은 경지정리 때 묻혀 없다.

·나드리 다리: 나들이 자리에 있는 다리.

·나드리 들 : 고망들 북쪽에 있는 들판 이름.

·북만주 : 기산봉 북쪽 구기산과 접한 곳, 겨울에 춥다하여 붙여진 이름.

·은행샘 : 전에 함평 관아의 안 샘이었다고 함.

○ 배출인물

·윤근환 : 농협 중앙회장, 농수산부장관

·정순기 : 제2대 함평단협장

·이재건 : 육군대령 예편

·이명석 : 목포 영해동 파출소장

(5) 신기산(新箕山)

신기산

○ 마을 이름의 유래

이 마을은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호구가 늘어나자 기산에서 떨어져 나왔다 하여 신기산으로 부르게 된 마을이다.

현재 교육청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동부(東部)에 속했던 지역이며, 중앙교회와 보건소쪽은 기산(箕山)에 속했던 지역이었다.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344	175	169	158	30	128	23	5	15		3	벼

○ 거주성씨

성 씨	김해김씨	함평노씨	기 타
가 호	18	16	124

○ 마을의 형성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현 교육청자리에 일인(日人)들의 교육도장인 남소학교(南小學校)가 들어선 후에도 교육청 뒤편은 뽕나무 밭이었고, 농협창고 근처에 띄엄띄엄 집이 몇호 있을 뿐이었다. 밀양손씨 손득은(孫得殷), 남평문씨 문종현(文淙鉉), 장수황씨 황광연, 함평모씨 모만기(牟萬基), 함평이씨 이동엽 등이 1930년대에 입촌한 사람들이다. 그 이전에는 이천서씨가 살았다고 하나 그 후손들이 모두 이주하여 정확한 입촌 연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한편 한때 영산강 농지개량조합 함평지소로 쓰였던 자리는 1911년에 지금의 함평초등학교의 전신인 공립 함평보통학교가 세워졌던 곳이고, 함평군 교육청 자리는 일본인들이 세웠던 남소학교 자리였다. 이곳은 6·25 한국전쟁 직후 함평경찰서로 쓰이다가 뒤에 함평여중학교로 쓰였던 곳이었으나 지금과 같이 함평군 교육청이 새로이 청사를 지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배출인물

·유판옥(庾判玉) : 함평 농협군지부장
·문종현(文淙鉉) : 제2대 함평면장
·이계손(李啓孫) : 제3대 함평면장
·손계용(孫桂溶) : 전 함평우체국장

(6) 구시장(舊市場)

○ 마을이름의 유래

옛날 시장이 서던 곳이라 하여 구시장이라 하고, 현재의 함평장이 열리는 곳을 시장 또는 신시장이라 한다.

구시장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밭	논	임야	기타	
296	145	151	141	29	112	16	2	14			벼 상업

○ 거주성씨

성 씨	김해김씨	함평이씨	기 타
가 호	25	20	96

○ 마을의 형성

신·구시장을 통털어 예전에는 기영리라 불렀다(1789년 호구총수 지명). 그러던 것이 후에 영수 천변에 위치해서 천변리(1914년 행정구역 개편명)라 개칭해 불렀다.

옛 시장은 처음에는 강정시(江亭市), 후에는 읍전시(邑前市)라 불렀고, 지금은 함평장 또는 함평시장이라 부르고 있다.

3) 내교리(內橋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이제(里制)를 실시하면서 내대리(內大里), 외대리(外大里), 신기리(申基, 新基里), 광교리(廣橋里), 서부리(西部里) 전역과 하주리(下朱里, 현 삼애원 쪽) 일부를 묶어 내대에서 '내(內)'자와 광교에서 '교(橋)'자를 따서 '내교리(內橋里)'라 부르게 된다.

(1) 서부(西部)

○ 마을 이름의 유래

예부터 불리어 오는 마을 이름인데 서부(西部)라는 이름은 동부(東部)의 반대편에 있다는 뜻이 담겨있다. 서부와 서로 상반되는 동부 마을은 현 기각리(箕閣里) 신기산인 함평교육청 근방의 마을로 1914년 행정구역 정리때 그 이름이 없어진 마을이다.

흔히들 서부를 '내바람'이라고 부르는데 내바람이란 말은 우리 지역사람들이 마중이나 전송을 하기 위해 나들이를 한다는 뜻으로 쓰이

고 있다. 서부는 옛 동헌으로 통하는 한(큰)길이었고, 외지로 나가고 들어오는 교차점이었다.

동헌에 귀한 손님이 오면 여기까지 마중을 나가 맞아들이고 갈때에도 이곳에서 전송을 했다는 뜻에서 내바람이란 지명이 생겼을 것으로 여겨진다.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331	162	169	142	93	49	21	2	19			벼 양파

○ 거주성씨

성 씨	김해김씨	밀양박씨	기 타
가 호	37	21	84

○ 마을의 형성

행정구역 명칭인 서부보다는 새정개(새정제)로 통용되는 마을이다. 현재는 함평읍 상권을 기각리와 함께 잡고 있다. 영수로 중 서부 네거리에서 함평골프고쪽 길은 1986년에 확장하여 포장했다.

○ 중요한 지명

·내바람 들 : 서부 앞쪽 들판 이름
·새정개 들 : 들샘쪽의 들판 이름
·새정개 : 새로 정자가 지어진 갯가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 서부의 별칭이다. 100여년 전까지만도 지금의 함평 군민화관까지 조그만한 배가 드나들었다고 하니 '개'라는 말이 붙여였을 것이다.
·섬 배미 : 장홍규 집터가 논(沓)일 때 논 가운데 섬같이 두둑한 곳이 있었는데 이 논을 섬배미라 하였다.

○ 배출인물

·박선구(朴先求) : 제3대 함평단협장
·리현석(里炫石) : 전남향토사연구협의회장, 동신대 객원연구원
·한원섭(韓元燮) : 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장

(2) 내대화(內大化)

○ 마을 이름의 유래

내대라는 이름보다 '구렁물'로 통해오는 마을이다. 구렁물은 구렁에 있는 마을(옛 몰), 즉 구렁이물이 변음된 것으로 보고 있다.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205	97	108	95	31	64	20	7	11		2	양파 복합영농

○ 거주성씨

성 씨	광산김씨	함평이씨	기 타
가 호	20	18	57

○ 마을의 형성

이 마을에는 처음에 장(張)씨들이 들어와 살았고 1600년대 초 선조 때 무과에 급제하고 수원부사를 역임한 경주이씨 이결(李潔)이 해보면 대각리 회화정에서 이주 정착했다. 경주이씨들은 1690년경 함평읍 장교리 칠언으로 이주했고, 장씨들은 그 후손이 해방 전까지 살았으나 지금은 모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 유물과 유적

·고인돌 : 옛 기록에 8기의 고인돌이 있다고 되어 있으나 지금은 없다.

·느티나무 : 함평초등학교 정문에 서 있는 나무로 수령 500년이 넘는다. 노거수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으며 부채꼴로 가지가 뻗어 있다.

○ 마을과 관련되는 미담과 전설

·호명산 전설 : 내대화 앞산을 예부터 호명산(呼名山)이라 불러오고 있다. 함평현감이 치정을 잘못하면 밤중에 이 산에 올라가 동헌을 향해 큰 소리로 고변을 하면 현감이 그 소리를 듣고 군정에 반영하여 고을 백성들의 소원을 풀어 주었다하여 호명산이라 부르게 되었다. 마치 조선조의 신문고와 같은 구실을 할 산이기도 하다. 호명산에서 욕을 하는 사람에게는 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서 있었다 한다.

○ 배출인물

·이국헌(李國憲) : 시인, 함평문림회장, 「수성보」 편집장

(3) 광교(廣橋)

○ 마을 이름의 유래

광교(廣橋)라는 마을 이름은 우리말의 '넓다리'; 를 한문으로 표기한 이름이다. 이 마을을 '넓다리', 또는 '넙태'라고 부른 것은 지금의 삼애원 정문 곁에 있는 시내(川)에 넓고 긴 돌다리가 놓여 있어 이 다리를 넓다리라 부른데서 유래한다.

이 돌다리는 수원부사를 지낸 이결(경주이씨)이 내대마을에 이주 정착해 살면서 나주에서 가져와 놓았다고 전해온다. 이결의 정착연대가 1600년대 초이니 넓다리라는 이름도 그 이후에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넓다리라 부르던 돌다리는 현재 함평 군민복지회관 정원에 옮겨져 보존되고 있다.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181	86	95	86	23	57	19	6	10		3	양파

○ 거주성씨

성 씨	김해김씨	함평이씨	기 타
가 호	30	25	31

○ 마을의 형성

이 마을에 대구서씨들이 이주 정착한 것은 대략 1600년대 초로 보고 있다. 기축옥사때 사간원 헌납관의 벼슬을 버리고 기산에 정착한 서세방(徐世芳)의 자손이 분가하여 이주한 것이다.

○ 공공건물

·삼애원 : 7~10대 국회의원이었던 윤인식(尹仁植)이 6·25 한국전쟁 이후 전쟁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 사단법인 삼애원을 창설하여 오늘날까지 고아들을 양육하고 있다. 현재 삼애원은 윤인식의 동생 윤한식이 윤영하고 있다.

○ 배출인물

·서상국(徐相國) : 2대 국회의원
·서 인(徐 仁) : 해군대령 예편, 인천해경대장
·정광욱 : 초등학교장
·박남수 : 초등학교장

(4) 신기(新基)

신기

○ 마을 이름의 유래

이 마을은 현재 함평중학교와 함평골프고등학교가 있는 마을로 일명 '새터'라고도 부르는 마을이다.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468	212	256	195	33	162	18	6	10		2	양파 상업

○ 거주성씨

성 씨	김해김씨	함평이씨	기 타
가 호	15	20	160

○ 마을의 형성

정유재란 때 왜적이 침입하여 현재 임씨들의 선산 자리에 있던 함평향교에 불을 지르고 이 마을도 초토화시켰다.

그 후 마을이 새로 형성되어 산직리(山直里; 임시들의 선산관계에서 따온 이름인듯함. 1789년 호구총수 지명)라 부르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는 '신기(申基)'로 바꿔 표기했다. 지금은 '새터(新基)'라고 부른다.

○ 유물과 유적

·함평향교 : 정유재란 후 함평향교는 초가로 초라하게 복구되었다가 1625년 지금의 대동면 향교리로 옮겨졌다. 향교 주위에 심어졌던 느티나무와 팽나무들도 향교숲쟁이로 이식되어져 지금은 천연기념무로 지정되어 있다.

·하마비(下馬碑) : 함평향교의 하마비는 현 창고가 세워진 네거리 갈림길에 세워져 있었으나 지금은 대동면 향교리 향교 외삼문 앞에 세워져 있다.

○ 배출인물

·이균범 : 전라남도 경찰국장, 부산시 경찰국장, 경찰대학장, 전라남도지사
·장현규 : 한국은행 이사
·김형태 : 초등학교장
·김병기 : 제4대 함평단협장

(5) 동부(東部)

○마을 이름의 유래 : 예부터 불러오던 마을 이름으로 서부(西部)와 반대되는 지역이어서 붙여진 지명이다. 서부와 서로 상반되는 동부 마을은 현 기각리(箕閣里) 신기산인 함평교육청 근방의 마을이다.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627	319	308	265	64	201	45	19	24		2	벼 상업

○거주성씨

성 씨	김해김씨	함평이씨	기 타
가 호	35	25	205

○ 마을의 형성

예부터 있었던 마을로 1789년 간행된 『호구총수』에 이미 마을 이름이 나타고 있어 마을의 오랜 유서를 짐작케 한다. 이후 1912년 간행된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도 마을 이름이 나오고 있어 읍내에 형성된 마을인지라 지속적으로 발전했던 것으로 보인다.

1914년 일제에 의해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질 당시 함평면 내교리에 편입되었고 1962년 11워 21일 함평면이 함평읍으로 승격되자 함평읍 내교 4리가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유물과 유적

· 줄다리기
· 함평천주교회

(6) 외대화(外大化)

○ 마을 이름의 유래

함평군에서 마을 터가 좋기로 첫째간다 하여 1대화(一大化) 2모평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 옛날에는 이 마을에 함평향교가 있었기에 군내에서는 대화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이 마을의 형국이 큰 새우 형국이므로 새우는 물이 있어야 했다.

그래서 예부터 마을 어귀에 못(池)을 팠다. 해방

후 마을 광장을 넓히기 위해서 이 못을 메웠는데 이상하게도 못을 메운 그 해부터 마을이 기울기 시작하여 집이 뜯겨 팔려 나가는 등 폐촌으로 치달았다.

마을회의에서 새우가 물이 없어 살지 못하는 격(格)이라며 옛 못을 다시 파냈다. 그후 다시 마을이 일어서기 시작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의 이름인 대화(大化)가 아닌 대하(大鰕)가 본래의 마을 이름이라고들 한다. 지금은 연못을 메워버려 옛 영화를 찾지 못하고 있다.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118	62	56	52	19	33	44	15	21	6	2	벼 양파

○ 거주성씨

성 씨	김해김씨	나주정씨	기 타
가 호	20	16	16

○ 마을의 형성

이 마을에는 500여년 전 함평모씨 시조 경의 15세손인 난(蘭, 1469~1545)이 해보면에서 이거하여 그 후손이 현달함으로서 유명해진 마을이다. 후에 진주강씨, 함평노씨가 들어와 살았다. 지금은 이들 성씨 외에 여러 성씨가 들어와 살고 있다.

○ 유물과 유적

·함평향교 : 함평의 향교는 당시 서현내면 대화촌(현 함평읍 내교리 외대화) 동쪽산(현재 나주임씨들의 세장산)에 건립되었는데 언제 세웠는가는 기록이 없다. 다만 나주임씨 선산 묘소 곁에 주춧돌 2개와 깨어진 기왓장 등이 노출되어 있다.

이 향교는 정유재란때 소실되어 1599년 7월 불탄 자리에 초가로 재건되었으나 지리가 불편하고 비좁아 인조 3년인 1625년 현감 박정청이 지금의 대동면 향교리에 터를 잡고 곧 착공하려 했다. 그러나 정묘호란으로 중단되어 방치 상태에 있다가 인조 8년에 다시 발기하여 이듬해에 예조의 지원과 향중의 모금을 완공하여 옮겨갔다.

대화촌의 향교는 이때 헐리고 나주임씨들의 세장산이 되었는데, 어떤 이들은 함평 향교터가 비좁다는 것은 근거없는 이유이고 임씨들이 명당지를 탐낸 소치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중요한 지명

·고두개(고둣개 재) : 외대화 마을 앞의 재

·대화봉 : 마을뒤에 있는 산

·산 당 : 외대화 서쪽에 있는 골짜기. 당집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옛날에는 이곳 산당에 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지금도 깨진 기왓장이 나오고 있다.

·성황당 : 외대화에서 평호로 넘어가는 고갯마루에 성황당이 있었으나 한국 전쟁 이후 없어졌

다.

○ 배출인물

·모진권(牟進勸) : 1501~1587. 진시과에 입격
·모세무(牟世茂) : 1675년 문과에 급제, 유곡찰방을 지냄
·모세번(牟世蕃) : 1669년 문과 급제, 제주목 교수를 지냄
·모경관(牟景觀) : 1750년 문과 급제, 통례원 좌통례를 지냄
·모달겸(牟達兼) : 1789년 문과급제, 제주도 대정현감을 지냄
·이옥범 : 미국에서 병원개업

(7) 동광아파트 · 거송라뷔랑아파트

○ 마을 이름의 유래

2개동의 동광아파트와 역시 2개동의 거송 라뷔랑아파트가 건립되어 많은 사람들이 입주하여 살게 되었다.

이들 아파트만으로도 세대수가 많아 독립된 마을로 아파트의 이름을 따서 동광아파트 거송라뷔랑아파트로 불리게 되었다. 함평읍 내교6리로 편입시켜 함평읍사무소 관할이 되었다.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652	323	329	204	18	186	11	6	4		1	

○ 마을의 형성

2000년대 중반에 동광아파트 바로 위에 거송라뷔랑아파트가 건립되자 많은 세대가 입주하여 살게 됨으로써 독립된 1개의 리(里)로 편성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8) 주공아파트

○ 마을 이름의 유래

2000년대 초반 함평읍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5년의 임대 기간에 걸쳐 살 수 있는 아파트가 건립되었다. 주택공사에서 지은 아파트로 5년 후 분양을 받는 조건으로 함평에서는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곳이 된 아파트가 주공아파트다.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887	424	463	299	33	266	15	6	7		2	

○ 마을의 형성

2000년대 중반 분양을 하자 함평 사람들이 모두 분양을 원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던 아파트다. 현재도 선거 유세나 무슨 행사가 있을시 가장 먼저 찾아오는 곳이다. 이에 1개의 독립된 리(里)인 내교7리가 되어 하나의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4) 대덕리(大德里)

원래 함풍현의 서현내면과 기성면에 속했던 지역으로 서현내면의 면 소재지가 있었던 곳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대 기성면의 고양(古良)을 비롯 덕흥(德興), 대천(大泉), 전역과 백곡(栢谷) 일부를 묶어 대천에서 '대(大)'자와 덕흥에서 '덕(德)'자를 따서 대덕리(大德里)라 하였는데 현재는 덕흥마을이 폐촌되고 없다.

(1) 고양촌(古良村)

○ 마을 이름의 유래

고양촌 마을은 해주최씨 최고양(崔高陽)이 입촌하여 살면서부터 '고양(高陽)'이라 표기했으며, 이후 1789년 『호구총수』에서도 같은 표기로 쓰였다.

그러던 것이 지금처럼 한자 표기가 바뀌게 된 것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이다. 이때 '고양(古良)'이라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고양촌에는 예로부터 선비가 많은 곳이라 하여 '고양촌(古陽村)'이라 불렀다는 얘기도 있다.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145	59	86	76	44	32	107	37	63	5	2	벼 양파

○ 거주성씨

성 씨	해주최씨	김해김씨	기 타
가 호	65	6	4

○ 마을의 형성

해주최씨가 이 마을에 들어와 산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450여년 전의 일이다. 그 이전에는 도강김씨들이 살았던 터라고 하나 지금은 그 후손들이 한집도 살지 않아 자세한 내력을 알 수 없다. 다만 해주최씨에 이어 100여년 전에 무안박씨 박동학(朴棟學), 그리고 70여년 전에 전주리씨가 들어와 세거하고 있다.

○ 유물과 유적

·고분 : 마을 앞을 지나는 23호선 국도 남쪽 저평한 구릉상에 2기의 고분이 있다. 1기는 도굴되어 돌널(石棺)의 잔편이 보이며 1기는 조그마한 동산을 이루고 있다. 봉분의 크기는 저변직경 20~30m, 높이 3m 정도며 돌방무덤(石室墳)으로 추정하고 있다.

무덤 정상부에는 이 마을에 사는 최씨들이 130여년 전에 선조의 묘를 써 현존한다. 한편 마을사람들의 전언에 따르면 도굴꾼들이 왔다간 흔적은 있지만 최씨들이 선조 묘가 자리하고 있어 파헤친 적은 없다고 한다.

·고인돌군 : 고인돌 7기가 있었는데 3기는 파괴되었고 4기만 남아 있다. 함평읍에서 신광면으로 가는 국도 23호선 도로변 서쪽에 위치한 이 고인돌군은 고양촌 마을의 북쪽 밭에 있다. 함평천을 사이에 두고 멀리 대동면의 아차동 고인돌군과 마주보고 있다. 현존하는 4기는 모두 정방형 내지 타원형의 개석에 판석이 노출되어 있어 하부구조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석으로 보이는 유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지하에 판석으로 석곽을 짜고 개석을 얹은 형태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석곽의 일부가 유실 혹은 파괴되어 있으며 도굴 흔적이 있다.

○ 풍수지리 및 중요한 지명

·마을 뒷산을 '영대산' 또는 '당하산'이라 한다. 이곳에 기암괴석이 있어 절경을 이루며 또한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내던 우단이 있었다고 한다.

· 정월 보름이면 마을 주민들이 모여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당산제를 지낸다.

○ 배출인물

·박행석 : 함평농지개량조합장 ·최종근 : 신광면장

·옥상호 : 안기부 서기관 ·최종오 : 조선대 교수

(2) 대천(大泉)

○ 마을 이름의 유래

마을에 샘이 둘 있는데 하나는 식수샘이고 또 하나는 약수샘으로 시원하기가 이를데 없다.

이 샘물을 마신 환자가 병이 나았다하여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 왔다고 한다.

물이 찬 샘이라 해서 '한(寒) 샘'이라 했는데, 그후 큰 샘이 있는 마을이라 하여 대천(大泉)으로 표기되었다.

대천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115	53	62	51	25	26	78	32	40	4	2	벼 양파

○ 거주성씨

성 씨	김해김씨	함평이씨	기 타
가 호	11	29	7

○ 마을의 형성

마을에서 500여 미터 가량 떨어진 '꾸서기'라는 곳에서 광산김씨가 살았다고 전해오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좀더 자세한 입촌 내용은 조선조 명종때 함평이씨 이령(李嶺)이 지금의 무안군 해제면에서 처가살이를 와 터를 잡았다는 내용이다. 임진왜란 때 전공을 세우고 순국한 이우춘(李遇春)이 이 마을 출신이며 그는 입향조 이령(李嶺)의 아들이다.

○ 중요한 지명

·마을 앞에 있는 한샘 방죽은 함평군에서 가장 오래된 저수지 가운데 하나이다. 이 방죽 바로 앞의 밭 가운데에 소나무가 몇그루 서 있는데 이곳에 서현내면의 치소가 있었다고 전해온다. 서현내면의 치소는 1906년 동현내면과 서현내면이 합쳐져 기성면(箕城面)이 될 때 기각리로 옮겨져 함평면이 되었다. 지금은 집이 한 채도 없으며 기와장만 남아있다.

○ 배출인물

·김하균 : 제4대 함평읍장

· 김형모 : 함평읍단위농협조합장

(3) 백곡(柏谷)

○ 마을 이름의 유래

옛 기록을 보면 이 마을은 잣나무가 많다 하여 마을 이름을 '잣골(柏谷)'이라 불렀다고

전해온다. 그런데 잣골이 작곡(作曲), 작국(作局)으로 엉뚱하게 변하면서 마을 앞에 있는 재(峙)가 '작곡재'로 변해버렸다.

그 후 마을 이름은 잣과는 다른 '동백쟁이(冬栢)'가 되고 말았다고 한다. 그러나 성(城)이 있는 재를 "城"자가 원래 "잣성"이므로 첫고개 또는 작고개라 부르는데 잣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기산성(箕山城)을 넘는 고개 즉 "잣고개(城峙)"에서 유래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된다.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41	17	24	32	21	11	28	12	11	3	2	양파

○ 거주성씨

성 씨	김해김씨	기 타
가 호	23	9

○ 마을의 형성

이 마을은 김해김씨가 자작일촌을 이루고 있으며 중종 29년경에 병조좌랑을 지낸 김광기(金匡器)가 입촌하여 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전해오고 있다.

○ 유물과 유적

· 사직단터 : 마을 어귀에서 약 50여 미터 지점의 구릉에 사직단터가 있다. 높이 1.5미터 가량의 흙과 돌을 합한 석축이 남아 있고 주위에 깨진 기와장이 흩어져 있다.

○ 배출인물

· 김봉수 : 제2~3대 도의원

5) 만흥리(萬興里)

만흥리 일대는 원래 영풍향에 속했던 지역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이제를 실시하면서 영풍면의 초동(草洞), 만년(萬年), 전역과 성북(城北), 기성면의 발산(鉢山) 각 일부 그리고 목포부 신로면 신흥마을 전역을 묶어 만년 마을에서 '만(萬)'자와 신흥마을에서

‘흥(興)’자를 따서 ‘만흥리(萬興里)’라 했다.

(1) 국산(國山)

○ 마을 이름의 유래

국산(國山)이란 마을 이름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국당’과 ‘발산’을 합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여기에서 국당(국댕이)이란 마을 이름은 연국당에서 유래되 이름이다. 북벌계획을 추진하던 효종대왕이 붕어하자 이 마을출신 박천주(朴天柱)가 마을 뒤 구릉에 여막을 짓고 부모상을 당한 듯 애도의 예를 다 했다고 한다.

후일 그의 충절을 가상히 여겨 숙종때 연국당(戀國堂)이란 당호(堂號)를 내렸기에 마을 이름을 국당이라 했다는 것이다.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113	50	37	37	26	11	63	23	26	12	2	벼

○ 거주성씨

성 씨	남평문씨	창녕조씨	경주이씨	기 타
가 호	8	6	10	13

○ 마을의 형성

1910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까지 영풍면의 면치소가 이 마을에 있었다. 이 마을은 1592년 임진왜란 때 무안박씨가 들어와 정착을 했고, 그 후 남평문씨와 경주이씨가 들어와 살았는데 지금은 씨족 중 제일 많은 호수를 차지하고 있다.

○ 배출인물

·조영복 : 서울 남대문 경찰서 수사과장 역임
·조옥현 : 영광군 백수면 중앙초등학교장 역임
·조삼현 : 함평군청 농산과장 역임

(2) 만년(萬年)

○ 마을 이름의 유래

이 마을의 이름은 마을 앞 저수지에 연꽃이 만발하게 피어 있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원래는 '만련(滿蓮)'이라 불렀다고 전해온다.

그 후 1789년 『호수총구』의 기록을 보면 '만년동(萬年洞)'이라 표기되어 있어 마을 이름을 만년(萬年)으로 표기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55	29	26	29	15	14	35	22	10	2	1	벼 고추

○ 거주성씨

성 씨	광산김씨	남평문씨	기 타
가 호	5	4	20

○ 마을의 형성

1789년에 만들어진 「호구총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미 이시기 이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초동(草洞)

○ 마을 이름의 유래

조선시대 선조 임금때 여막을 치고 생활하게 되면서 마을 이름을 '초막동'이라 부르다 지금처럼 초동(草洞)으로 명칭을 바꾸어 부르게 되었다고 하나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67	35	32	32	20	12	71	32	30	7	2	벼 양파

○ 거주성씨

성 씨	광산노씨	경주이씨	함평이씨	기 타
가 호	13	89	5	7

○ 마을의 형성

조선 선조 때부터 마을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 유물과 유적

·고인돌 : 4기가 있다.

6) 석성리(石成里)

석성리 지역은 원래 영풍향에 속했던 지역이다. 이곳 일대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영풍면의 성재(成才)를 비롯하여 석두(石頭), 성덕(成德) 전역과 묘동(廟洞)의 일부 그리고 기성면의 세은(細隱) 전역을 묶어 석두에서 '석(石)'자와 성덕에서 '성(成)'자를 따서 석성리(石成里)라 했다.

(1) 성재(成才)

○ 마을 이름의 유래

원래 이 마을의 이름은 신흥(新興; 1789 호구총수의 지명)이라 부른 것 같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이름을 쓰게 되었던 것은 이 마을 김용식 소유의 집터에 200여년전 까지만도 성재사(成才寺)라는 절이 있었기에 마을 이름을 성재동이라 했다고 한다.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80	34	46	46	21	25	48	24	12	10	2	벼 담배

○ 거주성씨

성 씨	광산김씨	해주최씨	기 타
가 호	11	5	9

○ 마을의 형성

이 마을은 지금으로부터 약 430여년 전 해주최씨 형제가 개촌했던 것으로 전해온다. 그 후 형은 이 마을에 정주했고 아우는 지금의 대덕리 고양촌으로 이거했다. 석성리의 여러 마을들 가운데 이 마을이 개촌 연대가 가장 앞선다.

현재 이 마을에서 살고 있는 성씨들 모두 입촌연대가 100여년이 넘지를 않는다. 김해김씨는 김정삼이 80여년 전에 입촌했고, 한양조씨는 조응원이 70여년 전에 신광면에서 이주해왔으며, 원주이씨는 80여년 전에 신안군 도초면에서 이거하였다.

○ 유물과 유적

·백제토기 : 현재 이 마을은 목장마을이 되어 있지만 1987년 목장을 만들 때 백제토기 여러 점이 발굴되어 신고된 바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일대에서 백제 때 사람들이 살았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2) 덕흥(德興)

○ 마을 이름의 유래

덕이 일어나는(일구어지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덕흥(德興)이라 했다고 한다.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51	29	22	31	15	16	42	25	12	4	1	담배

○ 거주성씨

성 씨	김해김씨	기 타
가 호	16	6

○ 마을의 형성

이 마을은 1900년대에 형성된 마을로 흔히 이민촌이라 부른다. 현재 김해김씨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개촌은 성재 마을의 해주최씨들이라고 한다.

(3) 주포(신설포 新說浦)

주포

○ 마을 이름의 유래 : 일제강점기 때 주포방조제가 건설되고 구주포가 포구의 구실을 못하게 되자 함평 유일의 해상 교통로로, 그리고 서해에서 잡은 어물의 집산지로 널리 알려진 포구다.

원래는 주항포(酒缸浦, 1865년 간행 대동지지지명)라 했고 1900년대 초부터 주포(1906, 1924, 1934년 간행 군지 지명)로 불렀으며 간척 공사 이후는 신설포라는 이름도 함께 섰다.

그러나 인근은 물론 먼 지역에서조차 널리 알려진 이름은 '수량개', 또는 '주포'라는 이름이다. '수랑개'란 바다를 막은 간척지여서 진흙탕 즉 수렁이었기에 수렁탕인 갯가라는 뜻으로 불리운 이름이다. 수랑개는 수렁개의 사투리 말이다. 그리고 '주포'라는 이름은 주막이 많은 포구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함평만에서는 이곳에서만 잡히는 엽삭이라는 특종 물고기가 있고, 황실이(강달어), 준치가 잡히며 칠산바다에서는 조기가 많이 잡혔다. 이러한 어획물이 집산되는 곳이 바로 주포였다.

따라서 어선이 대형화 되기 이전인 1955년까지는 크게 번창하여 수많은 주막이 있었다. 그래서 신설포는 주포라는 별명으로 불리었고 그 별명은 이제 본 지명으로 바뀌었다.

이곳 포구는 1955년 이후 사양길에 접어들어 거의 폐항이 되다시피 되었다. 그러나 1962년부터 돌머리 해수욕장이 개장되고 각종 횟집이 늘어나기 시작하자 본래 포구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온 마을이기 때문에 여러 성씨가 함께 살고 있다.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49	24	25	17	7	10	44	24	11	8	1	벼 고추

○ 거주성씨

성 씨	김해김씨	밀양박씨	진주강씨	기 타
가 호	6	4	5	49

○ 배출인물

·전 영 : 광주카톨릭대학 교수

(4) 석두(石頭)

○ 마을 이름의 유래 : 이 마을은 1789년 『호구총수』의 지명에 돌두리(乭頭里)로 표기되어 있다. 또 1912년의 행정구역명에는 석두(石頭)로 바뀌져 있다. 함평에서 오래된 포구인 석두포(石頭浦)가 있던 마을이다.

그러나 서해가 융기되므로 해서 모래가 밀려와 포구의 구실을 하지 못한지가 이미 수십년이 되었다.

돌두(乭頭)는 돌머리란 우리말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마을 서편 약 1km 지점에 기암괴석이 늘어서 있어 돌머리라 불렀다. 그러나 근년에 굴 양식장을 개장하면서 기암괴석을 폭파하여 운치를 잃고 말았다. 농바우 전설이 보는 이의 마음을 달랠뿐이다.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247	114	133	104	54	50	101	47	34	12	2	벼 고추

○ 거주성씨

성 씨	김해김씨	밀양손씨	기 타
가 호	21	10	73

○ 마을의 형성

석두마을에는 1710년 경부터 김해김씨 김대한(金大漢·1687년생)이 손불면 학산리에서 이주 정착하여 그 후손이 현재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1982년부터 돌머리 해수욕장이 개장됨으로 교통편이 좋아지고 민박촌이 형성되는 등 마을 모습을 크게 변모시켰다.

이 마을 출신 김사암이 해수찜과 숙박시설을 갖추어 바닷물 해수찜업을 개업중인데 부녀자의 건강에 좋다고 소문이 나 전국에서 해수찜을 하기 위해 모여드는 부녀자의 수가 많아졌다.

○ 유물과 유적

·옹관 : 석두마을 입구에서 대형 옹관이 출토된 바 있다. 이는 오랜 예부터 이곳에 어로와 농경생활을 하던 집단이 거주하였음을 입증하는 좋은 자료라 하겠다.

○ 특이한 민속제향과 놀이

·기우제단 : 이곳 돌머리에는 기우제를 지내던 우단이 있었는데 해안초소가 들어서면서 자취가 없어졌다.

○ 마을과 관련되는 미담과 전설

·농바위 전설 : 석두 마을에서 약 200여 미터 지점의 해안에 이르면 일명 돌머리 '코주배기'라 불리우는 유달리 바다를 향해 돌출되어 있는 해안이 있다. 여기는 항상 바닷물이 철썩이며 갯벌에는 굴, 고막, 양식장이 있어 갯마을 부촌을 이루고 있다. 석두 마을 코주배기 해안에는 괴이한 암반으로 형성된 바위가 있는데 이는 괴석이 차곡차곡 쌓여 농 모양을 이루고 있는 바위이다.

전설에 의하면 서해바다의 용신이 평상시에 바다의 보배를 이곳 농바위 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바다에 흉년이 들면 조금씩 급여하여 바다를 믿고사는 어촌마을의 기근을 면하게 해주었다고 한다. 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용신제를 올렸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지금도 제사를 올렸다는 제단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농바위 옆에는 '용샘'이라고 불리우는 옹달샘이 있다. 이 샘은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으며 바닷가에 있지만 물맛 또한 전혀 짠맛이 없는 괴이한 샘이다.

(5) 성곡(成谷)

○ 마을의 형성

이 마을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인 1920년경에 성촌(成村)된 마을로 원래는 석두(石頭)에 속했었다. 마을을 이룰 때 수많은 토기와 옹관묘가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오랜 옛날부터 사람이 살았던 곳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와 관련되는 자료가 없어 자세히 알 수 없다. 1920년경 김해김씨 김석운(金碩云)이 백년동에서, 밀양박씨 박길례가 성덕에서, 광산김씨 김종숙이 무안 해제에서 이주 정착했다.

이 마을은 현재 목장 마을이 되어 있다.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58	28	30	19	15	4	22	9	7	6		벼 고추

○ 거주성씨

성 씨	김해김씨	무안박씨	기 타
가 호	13	2	2

○ 유물과 유적

·옹관묘 : 김씨 소유 목장내에 대형 옹관이 매장된 옹관묘 1기가 있다.

(6) 청학동(靑鶴洞)

○ 마을 이름의 유래

이 마을 형성에 공이 많았던 이재권의 꿈에 학(鶴)이 마을에 앉아 푸른 서해인 함평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을 이름을 '푸른학'이라 이름 지었던 것이 후일 지금과 같이 청학동으로 바뀌어졌다고 전한다.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154	79	75	84	46	38	55	26	20	8	1	벼 담배

○ 거주성씨

성 씨	김해김씨	나주임씨	기 타
가 호	18	7	59

○ 마을의 형성

이 마을은 일명 '뙤밭등'이라는 황무지를 개간하여 생활해왔으나 1955년 외국의 봉사단체인 케아의 구호 지원으로 한국전쟁 때 난민 정착지로 선정되었다.

재산을 잃고 방황하는 난민을 정착시키기 위해 주택자재를 비롯하여 구호양곡을 지원받아 1

차 20호, 2차 13호, 3차 10호를 건립, 신생마을을 형성했다.

이 마을의 설립에는 설립자인 이재권의 숨은 공이 많았다.

30여년이 지나는 동안 이곳에 정착했던 난민들은 연고지를 찾아 뿔뿔이 떠나고 현재는 난민 정착민은 불과 10여호에 불과하다. 이 마을 주민은 황무지를 개간하면서 석성교 개교에 힘이 컸던 채희경 교사의 수산개발로 농외 소득을 올려 지금은 기존 마을에 못지 않은 소득마을로 탈바꿈하여 생활하고 있다.

채희경 교사는 수산개발의 유공자로서 1975년 12월 10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7) 성덕(成德)

○ 마을 이름의 유래

성덕

현재 이곳 마을 이름을 '성덕(成德)'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1789년 『호구총수』의 지명에는 한자 표기가 다른 '성덕(聖德)'으로 표기되어 있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임진왜란 때 이 마을 앞에서 토성(土城)을 쌓았기에 성안의 들을 '성들'이라 부르고 있기 때문에 마을 이름도 재성(城)자를 써야 옳을 것이라고 한다.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85	51	34	20	9	11	34	20	11	2	1	벼 담배

○ 거주성씨

성 씨	김해김씨	밀양박씨	기 타
가 호	4	7	9

○ 마을의 형성

이 마을을 개촌한 사람은 밀양박씨 박신윤(朴新允·1705년생)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함평읍 기각리 구기산에 터를 잡았다가 1730년경 이곳 마을로 이주 정착했는데 그가 구기산에 터를 잡은 여유는 그의 5대조가 함평현감을 지냈기 때문이란다.

그 뒤 함평모씨가 170년 전에 입촌하였고, 함평이씨는 이대섭(李大燮)이 80년 전에, 경주정씨는 정용대가 70년전에 입촌했으며, 장흥임씨(任氏)는 1962년에, 김해김씨는 김화숙(金花淑)이 1965년에 입촌 정착했다.

○ 배출인물

·김백룡 : 제9대 함평읍단협장

7) 성남리(城南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이제(里制)가 시행되면서 영풍면의 기성리(箕城里), 장지리(長支里) 전역과 신풍리(申豊里), 성북리(城北里), 소등리(小等里)와 기성면(箕城面)의 발산리(鉢山里), 목포부 신노변면 장동(壯洞) 각 일부와 기성면의 성남리(城南里) 전역을 묶어 기성면 성남마을의 이름을 그대로 리명(里名)으로 했다.

(1) 소등(小等)

○ 마을 이름의 유래

옛날에는 '소등라(小等蘿)'라고 했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지금처럼 '소등(小等)'으로 바꿔 부르게 되었다.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88	43	45	40	30	10	125	29	32	4	2	담배

○ 거주성씨

성 씨	금성나씨	함평노씨	기 타
가 호	25	11	4

○ 마을의 형성

이 마을은 1560년경 무안현감을 지낸 천안전시 응충(應忠)이 입촌했으며 인조 때인 1600년경에는 금성나씨 나무회가 입촌했고, 현재 그 후손이 11대에 이르고 있다.

나무회는 1625년 지금의 대동면 향교리에 함평향교를 세울 때 영건 별감의 직책을 가졌던 사람이기도 하다. 소등마을과 함께 성남리에는 장지(獐地)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은 1987년 1월 1일 행정구역 분할로 인해 지금의 엄다면 신계리로 이속되었다.

○ 배출인물

·전응충 : 무안현감, 정주목사 역임
·전계신 : 응충의 아들, 선무원종 1등 공신
·전여한 : 칠원현감 역임
·전여핵 : 선전관을 지냄
·전여시 : 무안현감 역임
·나위치 : 숙종 때 판관을 지냄
·나위순 : 훈련원 주부 역임
·나기대 :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2) 성북(城北)

○ 마을 이름의 유래

이 마을은 함평이씨 시조산이 인근에 있고 자작일촌을 이루고 있는지도 300여년이 되어 함평이씨의 본향이라 할 수 있다.

이 마을은 '성북'이라는 이름보다는 '깟대'로 널리 불리우고 있는데 이는 성북의 우리말 이름인 것이다.

성북이라는 이름은 영풍향(永豊鄕)의 경계였을 것으로 믿어지는 토석성 성터가 비아동 남쪽 무안의 보평산 능선에 남아 있는데 이 성의 북쪽에 있는 마을이라는데서 붙여진 이름인 듯 하다. 소등에는 창터(창고터), 원성남(元堂), 시장터(현 성남초등학교 옆)라는 지명이 전해오고 있으며 이는 영풍향 설치에서 비롯된 이름이라 볼 수 있다.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83	42	41	55	36	19	69	30	32	5	2	벼 양파

○ 거주성씨

성 씨	김해김씨	함평이씨	기 타
가 호	14	38	3

○ 마을의 형성

이 마을은 현재도 함평이씨의 자작일촌이라 볼 수 있으며 함평모씨는 모대진이 1900년경 장흥에서 이주 정착했다.

○ 배출인물

·이창범 : 영풍면장
·이건택 : 월야면장, 함평읍장
·김재길 : 제5대 함평읍장

(3) 지성(支城)

○ 마을 이름의 유래

이 마을은 함평이씨 시조산을 끼고 있는 마을로 원래 기성(箕城)이라 했다. 그러나 1789년 『호구총수』의 지명을 보면 기성이란 마을 이름은 없고, 다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의 지명에 기성이라는 이름이 나온다. 아마도 지금의 지성(支城)이라는 이름은 바로 기성에서 유래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진다.

원래 기성이라 부르던 마을이 중간에 폐촌되었다가 다시 개촌 된 것으로 믿어지는데, 이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거의 근세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것을 보고도 짐작할 수 있다. 현재는 함평이씨와 하동정씨, 창녕조씨 등이 살고 있다.

기성(箕城)이란 이름은 고려조 때 함풍현의 별호이고, 영풍향에 기성이라는 마을이 있는 것이나 함평이씨 5대조 이광봉이 기성군(箕城君)의 군봉을 받았던 것 등을 살펴보면 함평이씨의 본향인 점에서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이름이라 하겠다.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45	21	24	9	9		29	8	14	6	1	벼 담배

○ 거주성씨

성 씨	창녕조씨	하동정씨	기 타
가 호	4	3	2

○ 유물과 유적

·영풍향의 치소 : 함평이씨 시조산이 마을 옆에 있으며 마을 앞에는 '골샘'이라 부르는 샘이 있다. 이 골샘은 영풍향의 원님이 먹던 우물이라 전해오고 있으며 골샘을 중심으로 인근이 지금은 논으로 되어 있으나 논에서 옛 기왓장 파편이 무수히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영풍향 치소가 틀림없는 것으로 파악 되어진다.

8) 수호리(水湖里)

지금의 수호리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영풍면의 해동리, 대등리, 평호리 전역과 목포부 신노변면의 정양리, 중양리, 농은리, 용흥리, 그리고 함평군 기성면의 소등리, 송정리, 수산리 각 일부와 대명리,신기리 전역을 묶어 수산에서 '수(水)'자와 평호에서 '호(湖)'자를 따서 수호리(水湖里)라 했다.
목포부에서 편입된 신노변면의 4개 마을은 백제때는 물아혜현, 신라때는 무안군, 고려때는 물양군이었다가 무안군(성종조 991년)으로 다시 고쳐 조선조말까지 이르다가 목포부의 관할이 된 지역이다.

(1) 예동(禮洞)

○ 마을 이름의 유래

이 마을은 원래 영풍면(永豊面)에 속해 있던 마을이었다. 1789년에 간행된 『호구총수』의 기록을 보면 현 예동마을의 지명은 '연화동(連化洞)'이라 표기 되어 있다. 그 뒤 '반월동(半月洞)'이라 부르다 1945년 이후 지금과 같이 '예동(禮洞)'이라 개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57	28	29	35	22	13	28	9	11	7	1	양파

○ 거주성씨

성 씨	김해김씨	함평노씨	기타
가 호	14	19	2

○ 마을의 형성

이 마을은 김해김씨 김일(金鎰; 1614~1663)이 1640년경에 개촌했던 것으로 전해온다. 그 뒤 함평모씨, 그리고 나주정씨 정경서(鄭京西)가 지금으로부터 약 130 여년 전에 입촌했다.

○ 자생조직

명 칭	창립년도	인원	목 적	참 고
친목계	1978년	24호	마을민의 친목도모	

○ 배출인물

·김헌관 : 1907년부터 김태원의 의병부대에 가담하여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웠고, 일경에게 체포되어 악형을 당해 끝내 불구의 몸이 되어 여생을 마쳤다.

(2) 평호(平湖)

○ 마을 이름의 유래

마을 뒷산의 형태가 평사낙안(平沙落雁) 형이란데서 유래하여 최초 마을 이름을 '평동(平洞)'이라 했다. 그러던 것을 기러기는 호수를 만나야 제격이란 뜻에서 지금처럼 평호(平湖·1789 호수총수 지명)라 했다고 한다.

평호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49	20	29	24	14	10	24	8	11	4	1	벼 양파

○ 거주성씨

성 씨	김해김씨	경주이씨	기 타
가 호	10	6	8

○ 마을의 형성

이 마을은 이웃한 예동마을에 자리잡은 김해김씨 후손 김익성(金益星; 1660~1737)이 1680년 경에 개촌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 뒤 1860년경 함평모씨 모대달(牟大達)이 대화마을에서 이주해 왔다.

○ 배출인물

·김영창 : 함평군 번영회장

(3) 수산(水山)

수산

○ 마을 이름의 유래

수산(水山)이라는 마을 이름은 원래 마을 옆에 있는 '수산'이란 산 이름에서 유래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동국여지승람』 산천조에 수산(水山)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산 이름은 예부터 수산으로 불려졌던 것을 알 수 있다.

원래 이 산의 이름은 화산(火山)이었는데 불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금처럼 수산(水山)이라 했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이러한 내용을 증명이라도 하듯 지금도 이 산정상에는 분화구 형태가 남아 있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무안현감이던 이석우라는 사람이 해동(海洞)마을 앞 '직영제'에서 쉬면서 이 산을 보고 "청사초롱에 불 밝혀라."했다 해서 마을 이름이 화산(火山)이라 했다고도 한다.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31	20	11	16	6	10	28	8	10	8	2	벼 양파

○ 거주성씨

성 씨	나주정씨	함평이씨	기 타
가 호	8	6	1

○ 마을의 형성

1789년에 간행된 『호구총수』의 기록을 보면 이 마을은 신마노면(新乍老面; 현 엄다면의 일부)에 속해 있던 무안현의 땅이었다. 그러던 것이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는 기성면(箕城面; 현 함평읍의 일부)에 속해 함평군 땅이 되었다.

이 마을에는 원래 나주임씨 임영(林泳; 전라관찰사 및 대사헌 역임)의 후손들이 살았고 숙종 을축년(1685)에 수산사(水山詞)를 창건하여 임영을 배향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임씨들이 한집도 살고 있지 않아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다만 함평모씨 모규백(牟奎伯)이 1810년경에 입촌한 것과 이어 함평 이씨들이 들어와 살았다는 내용만이 확인될 뿐이다.

(4) 해동(海洞)

○ 마을 이름의 유래

이 마을은 영풍면에 속했던 마을로 연묵(硯墨)은 있으나 나오는 물이 없다하여 마을 이름을 '해동(海洞)'이라 했다고 마을 표석에 씌여 있다.

1789년에 간행된 『호구총수』의 기록에도 마을 이름이 해동(海洞)이라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마을은 적어도 조선후기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마을 이름을 해동(海洞)으로 표기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전에는 마을 앞까지 영산강을 타고 해수(海水)가 올라 왔다는 전설을 생각할 때 해동이란 마을 이름이 붙여질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든다.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41	26	15	20	20		35	12	14	7	2	벼 양파

○ 거주성씨

성 씨	창녕조씨	기 타
가 호	13	7

○ 마을의 형성

이 마을은 창녕조씨 조정(曺婷; 1610년생)이 개촌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1648년 입향조 조정이 문과에 급제함으로써 마을의 이름을 빛냈다. 대대로 자작일촌을 이루어 살아오고 있으며, 지금으로부터 약 70여년 전에 함평이씨 이세범(李世範)이 이주해와 그 후손들도 세거하게 되었다.

○ 배출인물

·조 정 : 1648년 문과급제
·조경유 : 1684년 문과급제
·조병화 : 학행으로서 도내에 널리 이름이 알려짐
·이갑수 : 도의원
·조홍현 : 제3대 함평읍장
·조근재 : 초등학교장
·조기근 : 초등학교장

(5) 대등(大等)

○ 마을 이름의 유래

이 마을은 원래 다래와 칡과 등나무 등의 덩굴이 얽혀져 있는 곳이라 해서 마을 이름을 '등라(藤蘿)'라 했다고 한다. 그러나 1789년에 간행된 『호구총수』의 기록을 보면 이곳 마을의 이름이 '대등라(大藤蘿)'로 표기되어 있어 조선후기에는 적어도 '대등라촌'으로 불려졌던 것을 알 수 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지금처럼 대등(大等)으로 표기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68	27	41	38	10	20	44	18	20	5	1	딸기 양파

○ 거주성씨

성 씨	금성나씨	함평이씨	기 타
가 호	21	10	7

○ 마을의 형성

이 마을은 처음 허(許)씨가 개촌했다고 전해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그 후손들이 살고있지 않다. 다만 그후 금성나씨 나덕선(羅德宣)의 둘째 아들인 나무삼(羅茂杉)이 1580년 경에 입촌한 사실이 밝혀질 뿐이다. 입향조 나무삼은 대화촌에 있던 함평향교가 정유재란때 불탄 후 지금의 대동면 향교리로 옮겨 짓는데 공을 세웠던 사람으로 전한다.

이어 함평이씨 이덕일(李德一; 임진란 공신·우국가 28장을 넘김)과 이덕인(李德仁;1552년생)이 1590년경 입촌했다. 이 가운데 이덕일이 금성나씨 나덕선의 사위였던 것을 보면 함평이씨는 처가와 함께 살기위해 이곳 마을로 이주 정착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밀양박씨는 박정호(朴挺豪; 1758년생)가 1780년경에 이주 정착해 그 후손들이 이곳에서 대대로 살게 되었다.

○ 배출인물

·나승포 :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나승병 : 전라남도청 과장
·이동범 : 함평읍 파출소장

(6) 송정(松亭)

○ 마을 이름의 유래

원래 이 마을의 이름이 '화전(花田)'이라 불렸다고 한다. 현재 쓰이고 있는 송정(松亭)이란 마을 이름은 1789년에 간행한 『호구총수』에 기록된 지명과 동일하여 예부터 송정이라 부른 것 같다.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밭	논	임야	기타	
44	21	23	20	8	12	58	22	29	6	1	벼 양파

○ 거주성씨

성 씨	금성나씨	기 타
가 호	13	7

○ 마을의 형성

이 마을은 개촌한 사람은 하동정씨 정기린(鄭麒麟; 1558년생)으로 알려진다. 정기린은 임진왜란때 김천일 장군과 창의하여 금산전투 등 여러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선무원종공신록에 책록된 사람이다.

그 후손이 대대로 세거하다 중간에 마을을 떠났다가 최근에 다시 입촌하여 살고 있다. 지금은 대등마을에서 이거 정착한 금성나씨들이 주종을 이루어 살고 있다.

○ 유물과 유적

· 고인돌 : 마을 어귀에 5기의 고인돌이 있다.
· 선돌 : 마을 앞 동각 옆에 2기의 선돌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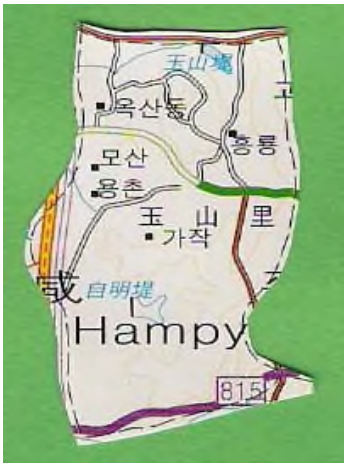
○ 특이한 민속제향과 놀이

·당산제 : 마을 앞 동각곁에 당산나무가 있다. 매년 정월에 당산제를 지내며 줄을 감는다.

○ 배출인물

·정기린 : 임란공신, 1585년 무과급제
·나승현 : 제1대 함평읍장

9) 옥산리(玉山里)



지금의 옥산리는 1914년 이제(里制)를 실시하면서 영풍면의 옥산(玉山)을 비롯 용촌(龍村), 흥룡(興龍), 가작(加作) 전역과 모산(帽山) 일부를 묶어 옥산마을의 이름을 이명(里名)으로 정한 곳이다.

(1) 흥룡(興龍)

○ 마을 이름의 유래

마을 형국이 용이 고개를 들고 일어나는 모양같다 하여 마을 이름을 '흥룡(興龍)'이라 했다고 한다.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103	45	58	37	2	15	50	25	21	3	1	벼 고추

○ 거주성씨

성 씨	밀양박씨	남평문씨	김해김씨	기 타
가 호	24	7	4	2

○ 마을의 형성

이 마을은 조선조 선조 때 무과에 급제하고 훈련원 주부를 지낸 박응주(朴應株)가 1581년(선조 14) 그의 두 아들 박대봉(朴大鳳)과 박대린(朴大麟)을 데리고 이주 정착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금도 이 마을에는 그 후손들이 주종을 이루며 살고 있다. 박대봉의 7대손 박우성이 식목한 소나무 2그루가 현재 당산나무로 마을 지킴이 역할을 하는데 둘레가 무려 5미터가 넘는다.

(2) 가작(佳作)

○ 마을 이름의 유래

이 마을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전해오는 자료가 없어 자세히 알 수 없다.

가작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48	28	20	31	20	11	22	6	7	8	1	벼 고추

○ 거주성씨

성 씨	밀양박씨	기 타
가 호	10	21

○ 마을의 형성

이 마을은 이웃한 흥룡마을에 입촌한 박응주(朴應柱)의 6대손이 개촌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유물과 유적

·효자각 : 1863년 효자 박영원(朴永源)을 기념하기 위해 박수성이 건립한 효자각이다. 효자 박영원은 박천응(朴天應)의 둘째 아들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성실 근면하게 가사에 전념하면서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다.

이웃 어른들 섬기기를 잘했으며 부친이 병마에 시달릴 때도 선약을 구하여 간호에 온 정성을 다 쏟았다. 그러나 그의 지극한 정성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3년간 묘 옆에 움막을 짓고 시묘(侍墓)를 하여 지역사회에서 효자로 소문났으며 칭송이 자자했다.

(3) 용촌(龍村)

○ 마을 이름의 유래

마을 형국이 방앗간 같다 하여 방아 '용(舂)' 자를 써서 처음에는 '용촌(舂村)'이라 했으나 그 뒤 '용계(龍溪·1789년 호구총수 지명)'라 고쳐 불렀고, 1910년 지적 정리때 지금처럼 '용촌(龍村)'이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마을에는 방아의 확에 해당되는 곳을 '확골들'이라 하는데 이곳 들판을 약 6정보 정도 된다.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69	32	37	29	15	14	30	15	12	2	1	양파 마늘

○ 거주성씨

성 씨	밀양박씨	남평문씨	기 타
가 호	16	9	4

○ 마을의 형성

이 마을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년 전에 김해김씨가 정착하여 형성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도 그 후손 몇호가 살고 있으며, 제일 많이 살고있는 성씨는 밀양박씨이다.

○ 유물과 유적

·효자각 : 1972년 효자 문사현을 기념하기 위해 문병섭이 건립한 효자각이다. 문사현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때부터 나무장사를 하며 부모를 봉양했으며 아버지가 병석에 눕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공급하여 수일간 연명케하기도 했다. 매년 음력 10월 19일이면 제향을 지내고 있다.

· 밀양박씨유적비

○ 풍수지리 및 중요한 지명

·확골들 : 방아의 확에 해당되는 곳에 있는 들판 이름

·설날이나 정월대보름 등 마을의 중요행사에는 꼭 농악놀이를 즐긴다.

○ 배출인물 – ·문성식 : 전라남도임업시험장장(서기관) (자료제공 : 김희삼)

(4) 모산(帽山)

○ 마을 이름의 유래

1789년에 간행된 『호구총수』의 기록을 보면 이 마을의 이름은 '모 읍(毛邑)'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던 것을 언제부터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이 마을의 모양이 머리에 쓰는 사모(紗帽)와 같다 하여 '모산(帽山)'으로 표기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모산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65	35	30	21	10	11	33	15	13	4	1	고추

○ 거주성씨

성 씨	밀양박씨	남평문씨	기 타
가 호	5	3	13

○ 마을의 형성

이 마을에 처음 입향한 사람은 1700년 경 남평문씨 문상주(文尙周; 1676~1740)로 알려진다. 현재도 이 마을에는 이들 남평문씨들과 뒤에 입향한 밀양박씨들이 주축을 이루며 살고 있다.

○ 유물과 유적

·효자각 : 1973년 효자 문만오(文晩悟)를 기념하기 위해 문영회가 건립한 효자각이다. 효자 문만오는 어릴때부터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고 웃어른 섬기기를 부모님에게 하는 것과 같이 했다. 아버지가 병석에 눕게 되자 추운 혹한에도 불구하고 얼음을 깨고 물고기를 잡아 병간호를 했고, 돌아가시려하자 즉석에서 단지주혈한 결과 아버지의 수명을 3일간 더 연장케 하는 등 효성이 지극하여 주위의 귀감이 되었던 사람이다.

○ 자생조직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가 있다.

○ 배출인물

·박병훈 : 서기관 역임

(자료제공 : 김희삼)

(5) 옥산동(玉山洞)

옥산

○ 마을 이름의 유래

옛날에는 마을 앞에 연(蓮) 방죽이 있어서 마을 이름을 '방죽안'이라 불렀으나 이후 마을에서 동쪽으로 약 300미터 지점에 옥녀봉(玉女峯)이 자리잡고 있어 '옥산동(玉山洞)'이라 고쳐 부르게 되었다.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22	13	9	17	10	7	33	16	13	2	2	마늘 양파

○ 거주성씨

성 씨	김해김씨	기 타
가 호	4	13

○ 마을의 형성

이 마을은 김해김씨 문경공파 파조(派祖)의 9대손인 김대기(金大器)가 중종 29년(1534년)에 입촌 정착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도 그 후손들이 마을에서 제일 많이 살고 있다. 이어 김해김씨가 입촌하여 현재도 그의 후손이 살고 있다.

○ 유물과 유적

·조선버드나무 고목 : 마을 앞 정자 옆에 조선 버드나무라는 약 500여년 된 고목 3그루가 있다. 이 나무의 수령과 최초 개촌연대가 거의 일치한다고 한다.

○ 자생조직

·노인회와 부녀회가 있다.

○ 배출인물

·김순모 : 국민은행장 역임
·김득수 : 국정원(서기관) 역임
(자료제공 : 김희삼)

10) 자풍리(自豊里)

자풍리는 원래 영풍향의 관할지역이었다. 그러나 영풍향이 언제 설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하는 기록이 없어 아직 정확히 밝힐 수 없다. 다만 향·소·부곡 제도가 신라시대부터 있었음을 볼 때 설치연대는 적어도 통일신라시대까지도 거슬러 갈 수 있으며, 훗날 함풍현에 편입시킬 수 없었던 강력한 토착 세력이 이 지역에 살았던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그런 강력한 세력이라면 함평이씨의 시조묘가 이곳에 있는 것으로 미루어 함평이씨가 아닐까 여겨진다.

1914년 이제(里制)가 실시되면서 영풍면의 가양리(加良里·1789년 호구총수 지명·桂山里), 신풍리(申豊里), 비아리(比牙里·1789년 지명 比化洞), 기성면의 발산리(鉢山里) 각 일부와 목포부 신로변면(新老卞面)의 금곡리(今谷里), 자연리(自然里), 노송정리(老松亭里) 전역을 묶어 자연의 자(自)자와 신풍의 풍(豊)자를 따서 자풍리(自豊里)라 했다.

(1) 신풍(新豊)

○ 마을 이름의 유래

이 마을은 감악산 아래에 자리 잡고 있으며 옛날에는 영풍향에 속했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는 '신풍리(申豊里)'라고 표기하였으나 일제가 행정구역명을 표기하면서 '신(新)'자를 '신(申)'자로 많이 바꾸었으므로 후에 지금처럼 다시 '신풍(新豊)'으로 바꿔 표기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61	30	31	25	15	10	65	32	24	7	2	벼 양파

○ 거주성씨

성 씨	파평윤씨	하동정씨	기 타
가 호	14	8	3

○ 마을의 형성

이 마을은 금곡마을의 하동정씨가 이주 개촌했다. 창녕조씨는 해동마을에서 이주 정착했고, 경주정씨는 130년 전에, 파평윤씨는 윤자영(尹滋英; 1829년생)이 1850년경에 입촌했다.

○ 유물과 유적

· 고인돌군 : 1군집은 마을 뒤 밭에 5기, 2군집은 마을 앞 밭에 11기가 있었는데 2군집은 1990년대 초에 모두 파괴되어 지금은 없다.

(2) 금곡(金谷)

○ 마을 이름의 유래

금곡

금곡마을은 원래 무안현에 속했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자풍리로 편입된 곳이다. 원래 감악산에서 금(金)이 나오는 골이라 하여 마을 이름을 '금곡(金谷)'이라 불렀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때 '금곡(今谷)'이라 고쳐 표기하다가 다시 지금처럼 '금곡(金谷)'으로 바꿔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금도 옛날 금을 캐던 굴이 남아 있다.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27	12	15	15	9	6	34	10	11	12	1	벼 담배

○ 거주성씨

성 씨	하동정씨	기 타
가 호	10	5

○ 마을의 형성

이 마을은 신풍 남동쪽에 위치한 마을로 1450년경 하동정씨 정수(鄭穟)가 입촌하여 마을을 형성한 이래 지금까지 하동정씨의 세거지가 되고 있다.

○ 마을과 관련되는 전설

·감악산 용굴 : <전설항을 볼 것>

○ 배출인물

·정　수 : 전북 산음현감. 고려말 왜구 토벌에 공이 많은 정지장군의 손자

(3) 노송(老松)

○ 마을 이름의 유래 :

마을의 터를 잡기 전에 늙은 소나무가 울창한 숲이었는데 그 솔밭을 제거하고 마을을 형성했다 하여 늙을 노(老)자와 소나무 송(松)자를 합해 마을 이름을 '노송(老松)'이라고 했다.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61	24	37	32	22	10	67	25	26	15	1	양파

○ 거주성씨

성　씨	하동정씨	이천서씨	기 타
가　호	16	11	5

○ 마을의 형성

1914년 이전에는 목포부 신노면 노송정마을이었다. 이 마을은 금곡마을에 정착한 하동정씨 정남(鄭楠; 1438년생)이 1470년경 분가 정착하여 개촌된 마을이며, 현재도 그 후손들이 살고 있다.

한편 고성이씨는 하동정씨와 거의 같은 시대에 입촌한 성씨이고, 전주리씨는 리문규(里文奎)가 130여년 전에, 그리고 광산김씨가 이어 들어와 살았다.

○ 유물과 유적

·동자상 : 당산할머니 나무가 있는 동각 부근에는 합장을 한 두 개의 소형 동자상이 있다. 돌로 만들어진 이 동자상의 얼굴은 거의 마모되어 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다. 이 가운데 동각 옆에 있는 동자상의 높이는 70cm, 두상 폭 25cm, 머리 길이 20cm 이며, 작은 당산나무 옆의 동자상은 높이 82cm, 두상 폭 23cm, 어깨 폭 23cm의 크기이다. 극락사에서 옮겨왔다고 하다.

○ 특이한 민속제향과 놀이

·당산제와 줄다리기 : 마을 앞 동각 옆에 '큰 당산나무'와 '작은 당산나무'가 있고, 이곳에서 동서쪽으로 약 50여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또 하나의 당산나무가 있다. 이 당산나무는 '당산 하나씨' 또는 '당산 할머니'로 불리우고 있다. 매년 음력 정월 보름이면 당산제를 지내고 줄다리기를 한 후 그 줄을 당산나무에 감는다.

○ 배출인물

·정찬동 : 제7·8대 함평단협장

(4) 비아(飛牙)

○ 마을 이름의 유래

이 마을은 무안군과 경계를 이루는 마을로 1789년에 간행된 『호구총수』에는 '비화동(比化洞)'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의 지명을 보면 '비아(比牙)'로 표기되어 있다. 지금은 날 비(飛)자 를 써서 '비아(飛牙)'라 표기해 쓰고 있다.

비아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35	20	15	15	15		44	20	11	12	1	벼 담배

○ 거주성씨

성 씨	남평문씨	김해김씨	기 타
가 호	5	3	7

○ 마을의 형성

이 마을은 최초 김해김씨가 개촌했다고 전해지나 현재는 그 후손들이 한 집도 살고 있지 않다. 다만 남평문씨 문맹석(文孟錫)이 지금으로부터 약 140여년 전에 이곳 마을로 입촌했고, 밀양박씨 박학순(朴學淳·李 和三·1837년생)이 1860년경에 이주 정착한 것으로 파악된다.

○ 유물과 유적

·고인돌 : 마을앞 저수지 곁에 12기의 고인돌이 있다.

·성 터 : 함평군과 경계를 이루는 보평산 능선(성재라 부름)에 영풍향의 경계였을 가능성이 있는 토석성의 성터가 약 150미터 가량 남아 있다.

11) 장교리(長交里)

장교리 일대의 지역은 원래 영풍향에 속했던 지역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이제(里制)를 시행하면서 영풍면의 자명(自明), 주교(舟交·배다리), 장동(長洞), 칠현(七玄·지금의 七彦)과 기성면의 산음(山陰), 월봉(月峰) 전역을 묶어 장동에서 장(長)자와 주교에서 교(交)자를 따서 장교리(長交里)라 했다.

(1) 산음(山陰)

○ 마을 이름의 유래

풍수지리학상 현재의 산음은 가야금의 몸통이라 하여 '금동골'이었다. 이 금동골은 구전해오면서 '금동굴', '금덩굴'로 변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후에 공식명을 산음(山陰)으로 표기했는데 이는 1789년에 간행한 『호구총수』에서도 동일한 표기의 지명이다. 산음마을의 뜻은 마을 바로 옆에 있는 산 그림자에 가려 해가 늦게 뜬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69	35	34	37	25	12	52	23	21	6	2	벼

○ 거주성씨

성 씨	진주강씨	평산신씨	함평이씨	기 타
가 호	4	3	9	21

○ 마을의 형성

원래 이 마을은 경주이씨 이대운(李大運)이 1680년경에 개촌하였으나 풍수지리학상 경주이씨 터가 아니라 하여 이웃한 칠언마을로 이거했다고 한다. 이어 이곳 마을에 함평이씨 이유신(李儒臣; 1705~1752)이 1720년경에 이거 정착했고, 그 뒤를 이어 정성화(鄭成和)가 입촌했는데 그 후손은 현재 한 집도 살지 않는다.

그 뒤 지금으로부터 약 130여년 전에 진주강씨 강병운(姜炳運), 평산신씨 신경국(申敬國), 광

산김씨 김행서(金行西)가 입촌했으며, 100여년 전에는 도강김씨 김제옥(金濟玉)이 들어와 살게 되었다.

○ 배출인물

·이유신 : 감찰

(2) 칠언(七彦)

○ 마을 이름의 유래

지금의 칠언(七彦) 마을은 원래 가야금의 일곱 줄이란 뜻이 담긴 칠현(七絃)이라 부르다가 후에 칠현(七賢)으로 바뀌고, 다시 1914년에는 칠현(七玄)으로 표기되었다. 근래에서야 지금처럼 칠언(七彦)으로 바뀌어 쓰이고 있다.

칠언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밭	논	임야	기타	
55	25	30	32	14	18	51	20	18	12	1	벼 고추

○ 거주성씨

성 씨	경주이씨	기 타
가 호	24	8

○ 마을의 형성

칠언마을은 경주이씨들의 자작일촌이나 다름이 없다. 이 마을에 처음 입촌한 사람은 이대운(李大運)이며 입촌 연대는 1690년 경이다. 현재 그의 후손들이 주종을 이루며 살고 있다.

○ 유물과 유적

·석장승 : 마을 앞에 석장승 1기가 있다.

○ 배출인물

·이대운 : 문과급제

·이승우 : 대통령선거인단 당선(평통위원)

(3) 월봉(月峰)·작동

○ 마을 이름의 유래

원래 기성면(箕城面)에 속했었던 마을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장교리에 편입된 곳이다. 마을의 모양이 달 형국이라서 '월봉(月峰)'이라 했다고 한다. 현재는 전의 장동(長洞)마을까지를 합해 월봉이라 한다.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119	57	62	61	36	25	83	39	36	6	2	담배

○ 거주성씨

성 씨	전주리!씨	김해김씨	기 타
가 호	19	15	27

○ 마을의 형성

1789년에 간행된 『호구총수』의 기록에 월봉마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면 이 마을은 그 이후에 형성된 마을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이 마을의 개촌자는 전주리씨 리량(李樑; 1798~1858)으로 전해지는데 이는 1810년경 신광면에서 이주 정착했다. 이어 경주이씨 이집호(李集鎬; 1864년생)가 1870년경에 칠언마을에서 이주 정착한 후 1876년 문과에 급제했다고 한다.

경주이씨 족보를 보면 이집호의 생년이 1864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집호가 20대에 문과 급제했다는 전언에 비추어 볼 때 1854년(甲寅)생이 1864년(甲子)생으로 잘못 오기된 듯하다.

○ 배출인물

·이집호 : 1876년 문과급제

(4) 자명(自明)

○ 마을 이름의 유래

자명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년 전 신흥터에서 광산김씨가 살면서 마을 이름을 '자명(子鳴)'이라 불렀고, 약 120여년 전에 본 마을로 옮겨와 김해김씨, 광산김씨, 경주김씨 등 20여 세대가 살았다 한다.

마을 동쪽에 '장터골' 이란 지명이 있는데 장터(닭우리)에서 닭이 자시에 울면 마을이 좋지 않다고 해서 지금은 스스로 자(自)자와 밝을 명(明)자를 써서 '자명동(自明洞)'이라 마을 이름을 고쳐 부르고 있다. 이 마을은 현재 무안군과 함평군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마을이다.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101	56	45	45	28	17	60	29	24	5	2	벼 양파

○ 거주성씨

성 씨	김해김씨	밀양박씨	기 타
가 호	21	6	18

○ 마을의 형성

지금으로부터 약 120여년 전에 광산김씨를 비롯한 김해김씨, 경주김씨 등 20여 세대가 이웃한 신흥터에서 살다 옮겨와 마을을 형성했다고 전한다.

○ 풍수지리 및 중요한 지명

·장터(닭우리) : 마을 동쪽에 있는 '장터골'이란 지명이다. 이곳 장터(닭우리)에서 닭이 자시에 울면 마을이 좋지 않다고 해서 마을 이름을 바꿔 불렀다.

○ 유적 · 유물 및 주요 문화재

·당산제 : 매년 2월 초하루면 마을의 안녕을 비는 당산제를 지낸다.

○ 배출인물

·김장백 : 제5·6대 함평단협장, 함평의료보험조합 이사장 역임.

12) 장년리(長年里)

이곳은 원래 영풍향에 속했던 곳으로 백제때부터 굴내포(屈乃浦·현 구주포)가 개항되어 교통의 요지가 되었던 곳으로 보여진다.
조선조말까지도 뱃길로 서울을 다녀오는 사람이 많았으며 이웃 손불면 석창리에는 새곡을 모아 서울로 보내는 창고가 있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영풍면의 장고(長古), 월선(月仙), 백여(白余) 전역과 연동(年洞)과 손불면의 죽림(竹林), 목교(木橋) 각 일부를 묶어 장고에서 '장(長)'자와 연동에서 '연(年)'자를 따서 장년리(長年里)라 부르게 됐다.

(1) 장고산(長古山)

○ 마을 이름의 유래

이 마을은 원래 영풍면(永豊面)에 속해있던 마을로 1789년에 간행된 『호구총수』의 기록을 보면 마을 이름이 '장고산리(長古山里)'라 표기되어 있다. 이는 마을 앞에 있는 산의 모양이 풍수지리로 볼 때 선녀의 장고같다고 하여 붙여지게 되었던 이름인데 악기인 장고(長鼓)가 장고(長古)로 바뀐 것이라고 한다.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124	64	60	51	29	22	108	47	51	8	2	벼 담배

○ 거주성씨

성 씨	경주이씨	함평이씨	기 타
가 호	10	6	35

○ 마을의 형성

이곳 마을은 이웃한 하느리(한나루·大津)로 통하는 길목이고 백제시대에 서남지역의 교통요로였던 굴내포가 가까이에 있어 일찍부터 마을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마을 앞에 있는 장고산이 고대의 무덤인 장고형분(일본은 전방후원분)으로 판명되었고, 마을과 불과 1km 지점인 금산리 삼거리에서도 노적고분이 발견되었다. 또한 하느리(대진) 마을 부근에서는 서해안 고속도로 개설로 인한 발굴조사에서 선사시대의 무덤과 집단 산상거주지가 발견되어 이곳 일대가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살았던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곳 일대에는 수많은 고대의 유적들이 산재되어 있다. 어쨌든 장고산마을의 형성은 고대로까지 소급되어지나 인류가 영위했던 삶에 대한 자세한 흔적은 파악할 수 없다.

다만 현재 세거하고 있는 성씨들로만 한정한다면 경주이씨는 이석영(李錫榮)이 1800년경에 입촌했고, 이어 광산김씨는 김장현이 1900년경에 이주해와 정착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 유물과 유적

·장고산 고분 : 신광면 유천리 미출마을 입구에서 손불면 방향으로 약 100미터 정도 가다보면 도로변에 형성된 일면 '떼등'이라 불리우는 표고 20미터 구릉상에 있다. 이 고분은 구릉 말단부에 장고 모양의 봉분이 자리하는데 동남쪽 1km 내에 미출고분을 비롯해 노적고분, 하느리고분(가·나군) 등이 있다.

○ 풍수지리 및 중요한 지명

·장고산 : 마을 앞에 있는 산으로 모양이 풍수지리로 볼 때 선녀의 장고같다 하여 붙여지게 된 이름이다.

○ 배출인물

·이석형(李錫炯) : 본관 경주. 부친 상민과 모친 이귀복 사이에 둘째로 태어난 그는 전남 대학교를 졸업하고 KBS PD를 거쳐 제 2 · 3 · 4대 민선 함평군수를 역임했다.

·이상흔(李相昕) : 본관 경주. 부친 인우와 모친 이재금 사이에 셋째로 태어난 그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 월선(月仙)

○ 마을 이름의 유래

이 마을은 둥그런 산의 형태가 달 모양으로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전해오고 있다.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65	32	33	31	22	9	33	12	15	4	2	벼 고추

○ 거주성씨

성 씨	금녕김씨	함평이씨	기 타
가 호	7	5	19

○ 마을의 형성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년 전에 이웃한 백년동에서 살던 금녕김씨가 이곳으로 이주해와 마을이 형성 되었다고 전해진다.

○ 유물과 유적

·광산김씨 절효비각 : 1926년 금녕김씨 문중에서 광산김씨의 절효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비각으로 비문은 <증 정부인 광산김씨절효비 (贈 貞夫人 光山金氏節孝之碑)>라 쓰여 있다.

광산김씨는 어려운 살림에도 시아버지가 병석에 눕게 되자 3년간 약초를 구입하여 정성껏 간호하고 위급하게 되자 단지주혈하여 수명을 연장케 했으며 시어머님께 대한 효성도 지극했다고 전한다.

(3) 구주포(舊酒浦)

○ 마을 이름의 유래

신설포(新設浦)가 개항되기 이전가지 포구였다고 해서 마을 이름을 '구주포'라 한다. 구주포는 함평에서 가장 오래된 포구였던 곳이다.

즉『여지승람』에 굴내포(屈乃浦)는 함평현 서쪽 15리에 있다 했고, 1800년대에 간행된『군지』에는 산내포(山乃浦)가 함평현 서쪽 15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지금의 구주포는 옛날 '굴내포' 였다가 뒤에 '산내포'로 바뀌고 지금에 와서 구주포로 불리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59	27	32	32	16	16	34	11	16	5	2	벼 담배

○ 거주성씨

성 씨	광산김씨	밀양박씨	기 타
가 호	9	14	9

○ 마을의 형성

포구의 기능을 잃게 되자 지역주민의 이동이 크게 일어난 곳이다. 포구가 대개 토박이보다는 이주민의 정착이 많은 곳이기는 하지만 구주포의 주민이동을 현재 토박이는 한 집도 살지 않고 거주 주민들 또한 모두 백여년 미만의 정착사를 보이고 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광산김씨는 김희문이 약 80여년 전에 나주 문평에서 이거해와 정착한 가문이고, 밀양박씨는 박상구라는 사람이 100여년 전에, 그리고 현풍곽씨는 80여년 전에 이주해와 살고 있다.

이곳 마을은 백제때 서남지역의 교통요로였던 곳으로 1960년대 까지만도 황석어, 엽삭 등 각종 해산물의 집산지였으나 지금은 들판의 한촌(寒村)으로 바뀌어져 있다. 옛날 바다였던 마을 앞에 일제감정기 때 전북 출신인 나용균(전 국회부의장)에 의해 간척답으로 변했다.

○ 유적과 유물

고려사 지제 창고조에 굴내창(屈內倉, 백제 때 굴내현-屈乃縣-이었으므로 屈乃라 표기되어야 하는데 屈內로 표기되어 있다)이 있다는 기록이 있으나 그 위치는 알 수 없다.

○ 배출인물

·임준환(任俊煥) : 본관은 풍천. 분친 봉식과 모친 주부례 사이에서 둘째로 태어났다.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 현재 변호사를 개업중이다.

(4) 백련(白蓮)

○ 마을 이름의 유래

마을 앞에 하얀 연꽃이 많이 있다 하여 흰 백(白)자와 연꽃 연(蓮)자를 써서 마을 이름을 '백련(白蓮)'이라 했다고 한다. 그러나 1789년에 간행한 『호구총수』의 기록을 보면 이곳 마을의 이름이 '백년동(百年洞)'이라 표기되어 있어 전하는 바와는 다른 것 같다.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110	64	46	53	32	21	33	10	15	6	2	벼 고추

○ 거주성씨

성 씨	함평이씨	김해김씨	기 타
가 호	17	11	25

○ 마을의 형성

지금으로부터 약 260여년 전에 금녕김씨 김기인(金琪仁)이 최초로 입향하여 마을을 형성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 가운데 일부가 이웃한 월선마을로 이거하여 월선마을이 개촌되었다고 한다.

○ 배출인물

·김규섭 : 대검차장 역임

13) 진양리(津良里)

진양리 지역은 함평현의 서현내면에 속했다가 1906년에 기성면(箕城面)에 속한 지역이다.
1914년 이제(里制)를 실시할 때 기성면의 중양(中良)과 대진(大津·현재는 두 마을을 합쳐 중량이라 함), 구성(九成), 양림(良林) 전역과 화동(化洞)의 일부를 묶어 대진에서 '진(津)'자와 양림에서 '양(良)'자를 따서 진양리(津良里)라 부른다.

(1) 양림(良林)

○ 마을 이름의 유래

원래는'양림(楊林)'으로 표기하였으나 1789년에 간행된『호구총수』의 기록을 보면 서현내면에 속한 '중양림(中良林)'으로 표기되어 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지금처럼 '양림(良林)'으로 표기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187	90	97	85	45	40	40	16	18	3	3	벼 딸기

○ 거주성씨

성 씨	인동장씨	기 타
가 호	76	9

○ 마을의 형성

이 마을은 문헌상 함평군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 가운데 하나이다. 고려 인종 4년(1150년) 문과에 급제하여 우참찬(右參贊)을 지낸 장백림(張百林)이 현 대동면 향교리에서 이곳으로 이주해와 정착했다고 전해지므로 지금으로부터 700여년 전에 마을이 형성된 셈이다. 지금도 입향조 장백림의 후손들인 인동장씨들이 자작일촌을 이루며 살고 있다.

○ 유물과 유적

·원모사(遠慕詞) : 인동장씨 문중 사우로 원래는 원모재 장백림만을 제향키 위해 1650년(효종 1년)에 건립한 사우였다. 그 뒤 대원군의 서원훼철령에 의해 한 때 훼철되었으나 1958년 문중의 협력으로 사우를 재건하고 1987년에는 새롭게 다시 사우를 신축했다.

·효자정려비각 : 마을 앞에 있는 비각으로 인동장시 장창윤의 효행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된 정려비각이다. 효자 장창윤은 1892년 왕명에 의해 정려(旌閭) 표창과 함께 통정대부 공조참의라는 증직 벼슬까지 하사 받았다.

(2) 가금(佳金)

○ 마을 이름의 유래

가금

이 마을은 1789년에 간행된 『호구총수』의 기록에 의하면 서현내면에 속한 '가금(加金)' 마을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는 언덕너머에 있던 구성(九成·九星)마을과 합쳐진 이유 때문인지 마을 이름이 빠져 있다. '가금(佳金)'으로 표기하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40여년 전의 일이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가금이라는 마을 이름보다는 '더쇠(加金)'라 부르고, 인근 사람들은 '작은도시'라 부르고 있다.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25	14	11	10	10		36	10	13	12	1	담배

○ 거주성씨

성 씨	경주이씨	기 타
가 호	3	7

○ 마을의 형성

이 마을은 마을앞 대동평야의 끝인 운교리에서 한양조씨가 이주하여 개촌한 마을로 개촌자는 조희민(趙希敏; 1621~1695)으로 알려진다.

한때 번성했던 이 마을은 마을터가 외져 도적들의 침입이 심했기에 폐촌되었다가 100여년 전부터 새 주민들에 의해 다시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김해김씨는 1932년에 입촌했고, 광산김씨는 100여년 전, 그리고 영성정씨(丁氏)는 정봉수가 1933년에 입촌했다. 예전에는 인동장씨가 한양조씨와 함께 많이 살았다고 전한다.

○ 유물과 유적

·효부 평산신씨 비 : 1980년 효부 평산신씨의 효성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이다. 마을 앞에 있다.

(3) 입동(笠洞)

○ 마을 이름의 유래 :

마을 모양이 삿갓처럼 생겼다 하여 '입동(笠洞)'이라 하였는데 순수한 우리말로는 '갓골'이다. 일명 '갑골'이라고도 한다.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10	4	6	4	4		26	10	7	8	1	벼 양파

○ 거주성씨

성 씨	인동장씨	기 타
가 호	3	1

○ 마을의 형성

이웃한 양림마을에서 인동장씨 장길상이 1890년경에 이주하여 와 마을을 형성했으며, 함평이씨는 1940년 경에 입촌했다고 한다.

○ 유물과 유적

·고인돌 : 함평읍에서 신광면으로 향하는 국도 23번 도로에 정부인 밀양박씨 묘 곁에 2기의 고인돌이 있었다. 이 가운데 원상을 보존한 1기는 장방형으로 개석 크기가 370cm×165cm, 두께 50cm로 서북-동남 방향이었다. 나머지 1기는 30○정도 기울어져 있었고 개석은 타원형으로 크기 278cm×185cm, 두께 60cm 정도이다. 현재는 서해안 고속도로 개설로 인해 발굴되어 대덕리 백곡마을 앞 도로변 묘제 공원 내로 옮겨져 있다.

(4) 중양(中良)

○ 마을 이름의 유래

옛날에는 중양(中良)과 대진(大津)이라는 두 개의 마을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이 두 개의 마을이 합쳐져 중양마을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대진(大津)이란 이름은 배형국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나 실은 큰 나루(한나루)에서 유래된 이름일 것으로 보이며 지금은 '한나루'의 변음인 '하느리'로 널리 알려져 있다. 마을 앞에 있는 함평천(咸平川)이 지금은 좁은 여울이 되었지만 옛날에는 아주 넓은 하천으로 대동면 윤교리까지 배가 왕래했다는 전설이 있는 것으로 보아 큰 나루터가 있었음직하다. 또한 박석(泊石)이란 지명이 있는 점도 이와 관련된 것임에 유의할 일이다.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151	70	81	89	46	37	77	27	40	8	2	벼 양파

○ 거주성씨

성 씨	함평노씨	함평이씨	기 타
가 호	44	24	20

○ 마을의 형성

이 마을은 원래 장년리쪽 한다리골에서 살던 원(元)씨가 600여년 전에 이거 정착했다고 하나 지금은 그 후손이 한 집도 살고 있지 않다.

500여년 전에 월야면에서 이주 정착한 함평노씨 13세손 노영(魯榮)의 후손과 함평이씨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 유물과 유적

·효자노허정려 : 이 정려는 노허의 효성을 기념하기 위해 1636년 명정을 받아 건립된 정려이다. 그 후 병자호란으로 인해 정려가 불에 타 없어지자 1804년에 다시 중수했고, 현재의 건물은 1864년에 지어진 것이다. <정려기(旌閭記)>는 기정진이 지었으며 정·측면 각각 1칸의 팔작지붕으로 되어 있다. 이 정려각 오른쪽에는 같은 함평노씨인 노영렬의 효자유허비(1918년 건립)가 있다.

○ 특이한 민속제향과 놀이

·당산제 : 마을 앞에 둘레 4.5m 정도의 느티나무가 있는 그 나무 아래에서 매년 정월 보름이면 당산제를 지낸다.

○ 마을과 관련되는 전설

·마을 앞에 축조한지 200년이 넘는다는 대진제(大津堤)가 있는데 함평노씨, 창녕조씨, 영양진씨가 쌓았다고 전해진다.

○ 배출인물

·노병설 : 광주지방검찰청 사무국장
·이돈배 : 송원전문대 교수
·김관휴 : 전남대 교수

(5) 화동(華洞)

○ 마을 이름의 유래

마을이 빛나는 곳이라 하여 '화표정(華表亭)'이라 불렀다 하나 그후 화표정을 사투리로 '해피재이'로 발음을 쓰는 등 정확한 표준음이 사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년 전에 노영준(魯泳駿)이 지금처럼 '화동(華洞)'으로 마을 이름을 고쳐 부르자고 제안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41	21	20	9	4	5	45	21	13	10	1	담배

○ 거주성씨

성 씨	함평노씨	기 타
가 호	6	3

○ 마을의 형성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년 전에 마을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유물과 유적

·고분 : 함평영화학교 남쪽 구릉에 2기의 무덤이 있는데 1기는 일제강점기에 도굴되었으며 마을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돌방무덤이다.

마을 주위의 밭에 대형독의 파편이 널려 있는 것을 보면 이곳 일대에 많은 독무덤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배출인물

·노병해 : 세무서장

(6) 폐촌마을, 구성(九成)

○ 마을 이름의 유래

전하는 말에 의하면 아홉 성씨가 사는 마을이라 해서 '구성촌(九姓 村)'이라 했다 한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구성(舊城)' 또는 '구성(九星)'이라 표기하여 쓰였으며, 인근 주민들은 가금마을 서쪽 재너머 마을이라 해서 '서치(西峙)'로 즐겨 불렀다.

○ 마을의 형성

이 마을은 이웃한 양림마을에서 인동장씨들이 지금으로부터 약 150여년 전에 이주해와 마을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전한다.

1960년대 10호 정도가 살던 이 마을은 이농으로 인해 1980년대는 4호로 줄었다가 이제는 폐촌이 되고 말았다. 1980년대에는 김해김씨와 남평문씨들이 살았다고 한다.

14) 함평리(咸平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상주리(上朱里·현 대사동), 동상주리(東上朱里·현 산성),동하주리(東下朱里·현 도화) 전역과 하주리(下朱里·현 빙현과 도화마을 일부) 누각리(樓閣里·현 도화 마을의 군청, 전 객사터 일부) 각 일부를 묶어 함평리라 부른다.

(1) 산성(山城)

○ 마을 이름의 유래

기산봉 밑에 위치한 마을로 1914년 이전에는 상주고(上朱庫)·동상주(東上朱)라 불렸으나 근래에 와서 기산성 밑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마을 이름을 '산성(山城)'이라 했다.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145	69	76	76	36	40	29	8	3	10		

○ 거주성씨

성 씨	김해김씨	밀양박씨	함평이씨	기 타
가 호	30	21	12	9

○ 마을의 형성

전해오는 구전이나 자료가 없어 정확히 마을이 언제 형성되었는지 알 수 없다.

○ 유물과 유적

·기산성(箕山城) : 성내에 백제토기 잔편이 많은 것으로 보아 백제때 축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성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돌로 쌓았고 주위가 1,850자(1.114m) 높이가 9자(5.4m), 성안에 우물 6개와 못 1개 및 군창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돌로만 쌓은 성이 아니고 돌과 흙을 섞어 쌓은 토석성이며, 현재 남아 있는 흔적은 길이 약 780m 가량이며, 높이도 2m에 이르는 곳이 있다. 군창터의 주춧돌도 1982년에 확

인했으며 수질과 수량이 풍부한 우물 두 곳과 연못터도 찾았다.

조선 선조때 사람이 노경덕(盧憬德·해보면 출신)과 서대근(徐大謹)의 행장에 의하면 1597년 정유재란때 왜적의 손에 의해 이 성이 붕괴 함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성은 보수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1982년 5월 기산봉의 공원화 계획에 따라 성문지(城門址)까지 도로가 개설되었다.

·고인돌 : 한글학회에서 펴낸 『지명총람』에 잣고개에 5기의 고인돌이 있다는 기록이 있으나 지금은 없다.

○ 중요한 지명

·잣고개(城峙) : 산성마을에서 대덕리 백곡마을에 이르는 국도 23호선에 있는 고개 이름이다. 이 고개를 부르는 이름은 많다.

예컨대 잣나무와 결부시켜 백치(柏峙·잣고개), 백곡치(柏谷峙·잣골재), 까치와 참새에 결부시켜 작치(鵲峙·까치고개), 작치(雀峙·참새고개), 심지어는 작별치(作別峙·작별고개)라고도 하는가 하면, 옛 읍지에는 작국치(作局峙)로 표기되어 있다.

어쨌든 이 고개의 이름은 성(城)이 있는 재라는 뜻이 담긴 잣고개라는 성치(城峙)가 원래 이름일 것으로 생각된다.

○ 배출인물

·조복윤(趙福允) : 학교면 우체국장　　·이춘묵(李春默): 제1대 함평읍단협장

(2) 도화(桃化)

○ 마을 이름의 유래

원래는 기산봉 밑에 있는 마을로 하주고(下朱庫), 하주(下朱), 동하주리(東下朱里)라고 불렸던 마을이다. 그러나 함평현의 동헌 부속 건물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고, 복숭아가 많이 심어져 그 꽃이 아름답게 보이므로 마을 이름이 '도화(桃化)'라고쳐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도화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101	47	54	46	10	36	15	2	7		6	

○ 거주성씨

성 씨	김해김씨	함평이씨	기 타
가 호	27	10	9

○ 마을의 형성

전해오는 구전이나 자료가 없어 정확히 마을이 언제 형성되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함평현의 치소 부속건물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현의 읍치로 조성될 때부터 마을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배출인물

·박정순(朴程淳) : 제2대 함평읍장 ·김추일(金秋一) : 학교면 우체국장

자료제공 : 이재숙(함평1리 이장)

(3) 대사(大寺)

○ 마을 이름의 유래

함평읍 곤봉산 지맥의 아래 마을로 1789년에 간행된『호구총수』에 의하면 이곳 마을의 이름은 '대사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뒤 "상주(上朱·1912년 행정구역 개편때의 이름)"라고 부르다가 현재는 다시 '대사동'이라 부르고 있다.

한편 옛날에 이곳에 큰 절이 있었다 하여 '대사동(大寺洞)'이라고 명명하였다는 사람들도 있다. 마을안 골짜기를 '한젓골(한절골)' 또는 '대사골'이라고 한다.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295	140	155	125	26	99	19	7	3	5	4	

○ 거주성씨

성 씨	김해김씨	함평이씨	기 타
가 호	23	20	82

○ 마을의 형성

이 마을에는 아주 옛날 임시들이 들어와 살았다고 전해지나 지금은 그 후

손들이 없다. 다만 『세종실록지리지』에 함풍현의 토성 가운데 임씨가 있는 것으로 보면 그들의 세거지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 뒤에 함평이씨를 비롯해 함평모씨, 인동장씨가 들어왔고 해방 전까지는 그들의 후손이 함평의 거부로 불릴만큼 넉넉하게 살았다. 지금은 여러 성씨들이 모여 살고 있다.

○ 유물과 유적

·보광사 범종 : 보광사는 원래 1942년에 창건된 사찰로 본래는 함평 출신 모진택의 별장이던 것을 여승들의 수도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범종은 보광사의 법당 전면 우측 종각에 보관되어 있고 현재도 타종한다. 원래 이 종은 무안군 해제면에 있는 원갑사에 있었으나 이 절이 폐사되면서 해보면의 용천사로 옮겼다가 6·25 한국전쟁 이후 이곳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이 종의 높이는 2.1m, 상대폭 둘레 2.0m, 하대폭 둘레 2.65m, 직경 0.83m인데, 조선 시대 종의 일반적인 특징이 상하대의 문향퇴조와 유곽대가 상대와 분리된 양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서상사지 부도 : 원래 신광명 송사리 송계마을 군유산 중턱의 절터에 있었던 것을 6·25 한국전쟁 이후 당시 산 주인이었던 이동범이 자기 집 정원에 옮겨놓아 현 위치에 있게 되었다. 사질이 많이 섞인 화강암의 재질이며, 전체 높이는 2.3m, 지대석 하단폭은 1.2~1.4m, 원상을 예상했을 때 상륜부터 부도신까지 94cm, 중태석 43cm, 하대석 59cm,로 여겨진다. 그리고 전체적인 조형 수법상 고려말기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육모정 : <3권 10편 문화재중 함평군의 문화재 자료를 볼 것>

○ 풍수지리 및 중요한 지명

·승현(僧峴) : 중재, 또는 한절골(한젓골)재라고도 하는 곳으로 한절골에서 장교리로 넘어가는 재의 이름이다.

○ 배출인물

·이동범(李東範) : 조선조말 은율군수
·이성우(李成佑) : 초대 국회의원
·이진연(李震淵) : 제9~10대, 12대 국회의원
·이정행(李正行) : 경북 농촌진흥원장
·이 학(李 鶴) : 전 국무총리 진의종씨 부인이며 한글 서예의 대가
·이일행(李一行) : 함평군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장우종(張羽鍾) : 서울 장우종합병원장
·이연행(李蓮行) : 전라남도의원 역임

(4) 빙현(氷峴)

○ 마을 이름의 유래

이 마을은 행정구역 개편 이전인 1914년에는 '하주(下朱)' 라고 불렸으나 행정구역 개편 이후부터는 지금처럼 '빙현(氷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었다.

이는 마을이 곤봉산 자락에 가리어 늦게까지 얼음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호(호)			면 적(ha)					특작물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밭	논	임야	기타	
184	84	98	77	22	55	21	5	6	6	4	

○ 거주성씨

성 씨	광산김씨	함평이씨	기 타
가 호	21	29	27

○ 마을의 형성

전해오는 구전이나 자료가 없어 정확히 마을이 언제 형성되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함평현의 치소와 가까운 곳에 있던 마을이었기에 현의 읍치가 조성될 때부터 마을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 유물과 유적

·군민회관내 석불입상 : 원래 해보면 해보리 모산 마을의 뒤에 있는 파평윤씨 문중산의 중턱, 즉 탑동이란 곳에 있었던 것으로 1982년 군민회관이 준공된 후 회관 정원에 옮겨 세웠다.

○ 배출인물

·정만길(鄭萬吉) : 육군소장 ·이 상(李 祥) : 전 함평문화원장

·김규동(金珪東) : 육군중령 예편

제2절 나산면 (羅山面)

집필 / 나 홍 채

구산리(九山里) / 368
나산리(羅山里) / 376
덕림리(德林里) / 382
삼축리(三柷里) / 386
송암리(松岩里) / 393
수상리(水上里) / 400
수하리(水下里) / 405
신평리(新平里) / 410
용두리(龍頭里) / 413
우치리(牛峙里) / 421
원선리(元仙里) / 426
월봉리(月奉里) / 430
이문리(二門里) / 436
초포리(草浦里) / 441

1. 연 혁

선사시대로부터 마한시대에 이르기까지 나산면 지역은 현재 발굴된 유물과 산재해 있는 유적으로 미루어 강력한 소국(小國)의 중심지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다.

구산리, 용두리, 월봉리, 초포리 등에 산재해 있는 고인돌군(群)과 초포리 사산의 원형 고분군과 사산·사촌에서 발굴된 옹관(사산 출토 : 전남대학교 박물관 소장·사촌 출토 : 국립광주박물관 소장) 등과 함께 사산 출토의 반월형 돌칼, 1987년 2월 22~27일에 사촌에서 발굴된 무려 26점이나 되는 청동기시대의 각종 유물들은 이 지역의 찬란했던 고대문화를 입증해 주고 있다. 따라서 마한·백제시대에 강력한 소국이 형성되어 그 중심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백제시대에는 다지현(多只懸)에 속했고 신라시대때는 다기현(多岐懸), 고려와 조선초에는 모평현(牟平懸)에 속했으며 1409년(태종 9년) 함풍현(咸豊懸)과 모평현(牟平懸)이 합쳐져 함평현이 되면서 함평현에 속하게 되었다.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인 1932년까지 지금의 나산면에는 평릉면(平陵面)과 식지면(食知面)의 두개의 면(面)으로 나뉘어 있엇다.

평릉면은 지금의 삼축리 상축(上丑) 마을 동쪽에 자리한 평릉(平陵)이라는 무덤의 이름에서 유래 되었다고 한다.

1789년 『호구총수(戶口總數)』에 나타난 평릉면의 관할 지역은 다음과 같다.

가식동리(可食洞里) 광령리(廣令里) 삼구령리(三龜洞里) 내천동리(內泉洞里) 양지리(陽地里) 돌거동리(乭巨洞里) 신기리(新基里) 내동리(內洞里) 구산리(龜山里) 평지리(平地里) 조산리(造山里) 모동리(莫洞里) 안덕동리(安德洞里) 백양동리(白羊洞里) 사동리(蛇洞里) 명금치리(鳴琴峙里) 월랑리(月郎里) 쌍령리(雙嶺里) 은선동리(隱仙洞里) 안영동리(安寧洞里) 부벽정리(浮碧亭里) 하축동리(下丑洞里) 동축동리(東丑洞里) 상축동리(上丑洞里) 외평릉리(外平陵里) 원촌리(院村里) 분토동리(分土洞里) 구초포(舊草浦) 하초포(下草浦) 수각리(水閣里) 남촌리(南村里) 남당리(南堂里) 화정리(花亭里) 금대리(金臺里) 천동리(川洞里) 호암리(湖巖里) 상중치리(上中峙里) 하중치리(下中峙里)

1789년 식지면이 관할했던 지역은 다음이다.

> 옹점(鏞店) 마흘산(馬屹山) 은기(銀基) 정양동(靜養洞) 대천동(大泉洞) 향수동(香樹洞) 서호정(西湖亭) 호암(湖巖) 신풍정(新豊亭) 동촌(東村) 방현(榜峴) 남호동(南湖洞) 기룡동(騎龍洞) 방하동(芳荷洞) 관동(冠洞) 입봉(笠峯) 연대(蓮臺) 신평(新平) 송학정(松鶴亭) 복연동(福蓮洞) 원정자(元亭子) 봉학산(鳳鶴山) 중함(中咸) 양선동(養善洞) 송계(松溪) 유동(柳洞) 장재동(壯才洞) 상촌(上村) 양지(陽地) 외서지(外鋤地) 동산(東山) 유리점(流離店) 성재동(聖才洞) 개복동(盖福洞) 유덕산(有德山) 선박(船泊) 용암(龍巖) 석령(石令) 음지(陰地) 이문내(里門內) 내증산(內甑山) 오호동(五湖洞) 오호남(五湖南) 사정(沙亭) 오서동(五西洞) 연암(蓮巖) 용두(龍頭)

당시 두 개의 면이 관할했던 지역을 현재와 비교해 보면 평릉면은 구산리, 원선리, 덕림리, 월봉리, 삼축리, 초포리, 우치리이다. 한편 식지면은 1914년 행정구역개편 당시 약간의 편입과 편출이 있었다.

편입된 지역은 우치리에 해보면의 성대(成大)와 계동(桂洞) 일부, 신평리에 나주군 용문면(用文面, 현 문평면) 월계촌(月桂村) 일부, 수상리에 나주군 도림면(道林面, 현 광주광역시 삼도) 수양(水良) 일부, 용두리에 도림면 수양, 함동(咸洞)일부가 편입되었다.

편출된 지역은 평릉면 공정(公亭)의 일부가 해보면 대창리로, 식지면의 은구(殷九), 평릉면의 죽림(竹林) 일부가 문평면 북동리에 편출되었다.

그후 일제강점기인 1932년 11월 1일 평릉면과 식지면이 합쳐져 지금의 나산면(羅山面)이 되었다. 나산면이란 이름은 나산리(羅山里)에서 따왔다고 한다. 그러나 원래의 나리뫼(나루뫼, 津山)란 지명에 "비단라(羅)"자를 붙임한 것이라고 전해온다.

현재 면사무소는 나산면 삼축리 282번지에 자리하고 있으며 2009.08.15 현재 면사무소 정원은 다음 표와 같다.

직명	면장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계	참고
정원	1	4	2	5	1	2	15	

2. 참 고

1) 1912년 지방행정구역 명칭

▶ 평릉면(44)

사정(沙丁) 공정(公丁) 우치(牛峙) 호암(虎岩) 강천(江川) 신동(申洞) 사산(士山) 초포(草浦) 입석(立石) 환곡(環谷) 분토(分土) 상축(上丑) 하축(下丑) 월평(月平) 생동(生洞) 관동(官洞) 안영(安永) 용산(龍山) 봉정(奉丁) 장양(長場) 월산(月山) 연동(蓮洞) 백양(白羊) 죽림(竹林) 하천(下川)

구암(九岩) 월암(月岩) 삼성(三星) 삼구(三九) 냉천(怜川) 구산(九山) 내동(內洞) 구평(九平) 광암(光岩) 유촌(柳村) 원산(元山) 쌍령(雙嶺) 국동(局洞) 답동(畓洞) 은선(隱仙) 광령(光嶺) 가식(可食) 복산(福山) 백야(百也)

▶ 식지면(44)

동촌(東村) 신풍(新豊) 호암(虎岩) 대천(大川) 정양(正良) 기용(奇用) 방하(方何) 장재(長才) 백인(白仁) 은구(殷九) 화전(花田) 마흘(馬屹) 대치(大峙) 도산(道山) 도장(道丈) 송산(松山) 연대(連大) 신평(新平) 봉출(奉出) 송암(松岩) 송계(松溪) 신기(申己) 덕림(德林) 학송(鶴松) 양산(良山) 동산(東山) 월산(月山) 계양(桂良) 소박(小泊) 성재(成才) 대안(大安) 유덕(有德) 용계(龍溪) 황산(黃山) 월현(月玄) 선박(船泊) 회룡(回龍) 성암(星岩) 회화(回化) 괴정(塊丁) 사정(沙亭) 이문(梨門) 외세(外細) 용두(龍斗)

2) 1914년 행정구역개편 이(里)의 편성

▶ 평릉면(平陵面)

리 명	개편 이전의 면리
구 산 리 (九山里)	평릉면(平陵面) 선암리(先岩里) 광령리(光嶺里) 방축리(方丑里) 삼구리(三九里) 삼성리(三星里) 구산리(九山里) 구평리(九平里) 월암리(月岩里) 조산리(造山里) 냉천리(冷川里)
덕 림 리 (德林里)	평릉면(平陵面) 하천리(下川里) 안덕리(安德里) 기동리(己洞里) 연동리(蓮洞里) 전역과 구암리(九岩里) 죽림리(竹林里) 각 일부
삼 축 리 (三丑里)	평릉면(平陵面) 장기리(場基里) 동축리(東丑里) 상축리(上丑里) 백야리(白也里) 전역과 하축리(下丑里) 안영리(安永里) 용산리(龍山里) 월선리(月仙里) 분토리(分土里) 식지면(食知面) 정량리(正良里) 각 일부
우 치 리 (牛峙里)	평릉면(平陵面 강천리(江川里) 중동리(中洞里) 우치리(牛峙里) 호암리(虎岩里) 전역과 공정리(公亭里) 사촌리(沙村里) 해보면(海保面) 성대리(成大里) 계동리(桂洞里) 각 일부
원 선 리 (元仙里)	평릉면(平陵面) 유촌리(柳村里) 원산리(元山里) 쌍령리(雙嶺里) 은선리(隱仙里) 국동리(局洞里) 답동리(畓洞里) 전역과 구암리(九岩里) 일부
월 봉 리 (月奉里)	평릉면(平陵面) 봉정리(奉丁里) 관동리(官洞里) 생동리(生洞里) 월평리(月平里) 전역과 월산리(月山里) 용산리(龍山里) 안영리(安永里) 하축동리(下丑洞里) 각 일부
초 포 리 (草浦里)	평릉면(平陵面) 입석리(立石里) 하관리(下官里) 사산리(射山里) 장송리(長松里) 초포리(草浦里) 환곡리(環谷里) 전역과 사촌리(沙村里) 분토리(分土里) 각 일부

▶ 식지면(食知面)

리 명	개편 이전의 면리
나 산 리 (羅山里)	식지면(食知面) 기용리(奇用里) 대천리(大川里) 나산리(羅山里) 신풍리(申豊里) 방하리(方何里) 전역과 정량리(正良里) 동촌리(東村里) 봉학리(奉學里) 각 일부
송 암 리 (松岩里)	식지면(食知面) 송암리(松岩里) 송계리(松溪里) 신사리(申巳里) 덕림리(德林里) 학송리(鶴松里) 양산리(良山里) 전역과 봉학리(奉學里) 일부
수 상 리 (水上里)	식지면(食知面) 용계리(龍溪里) 유덕리(有德里) 황산리(黃山里) 월현리(月玄里) 성재리(成才里) 대안리(大安里) 전역과 나주군(羅州郡) 도림면(道林面) 수량리(水良里) 일부
수 하 리 (水下里)	식지면(食知面) 백인리(白仁里) 장재리(長才里) 화전리(花田里) 마흘리(馬屹里) 내기리(內基里) 대치리(大峙里) 전역과 은구리(殷九里) 일부
신 평 리 (新平里)	식지면(食知面) 신평리(新平里) 송산리(松山里) 연대리(連大里) 도장리(道丈里) 도산리(道山里) 전역과 봉학리(奉學里) 동촌리(東村里) 나주군(羅州郡) 용문면(用文面) 월계촌(月桂村) 각 일부
용 두 리 (龍頭里)	식지면(食知面) 용두리(龍頭里) 외세리(外細里) 괴정리(槐亭里) 성암리(星岩里) 회화리(回化里) 회용리(回龍里) 선박리(船泊里) 전역과 나주군(羅州郡) 도림면(道林面) 수량리(水良里) 함동(咸洞) 각 일부
이 문 리 (二門里)	식지면(食知面) 동산리(同山里) 월산리(月山里) 계량리(桂良里) 소박리(小泊里) 이문리(梨門里) 사정리(沙亭里) 전역

3) 호구총수(戶口總數)

구분 / 면명	여지도서 호구총수(1759년)				호수총수(1789년)			
	호	구(口)			호	구(口)		
		계	남	여		계	남	여
평 릉 면	514	1,657	739	918	493	1,600	740	860
식 지 면	620	1,819	736	1,083	544	1,745	772	973

3. 면내의 10대 씨족(十代氏族)

2009년 8월 15일 현재

순 위	본관별(本貫別) 성씨	거주가구수	집단거주마을
1	함평이씨 (咸平李氏)	132	초포리
2	죽산안씨 (竹山安氏)	51	나산리, 수하리
3	상산김씨 (商山金氏)	102	이문리
4	광산김씨 (光山金氏)	54	월봉리
5	나주정씨 (羅州鄭氏)	30	이문리 (석지)
6	김해김씨 (金海金氏)	68	구산리
7	경주이씨 (慶州李氏)	32	덕림리, 구산리
8	광산노씨 (光山盧氏)	20	송암리
9	밀양박씨 (密陽朴氏)	58	삼축리
10	진주정씨 (晋州鄭氏)	18	우치리
11	영산신씨(靈山申氏)	23	송암리
12	전주이씨(全州李氏)	21	

4. 면의원(面議員)

1) 제1대(初代)

성 명	출 신	학 력	비 고
김영도 (金榮度)	우 치 리	한 학	의 장
이천구 (李天九)	우 치 리	한 학	부 의 장
이갑조 (李甲祖)	덕 림 리	중 졸	
이종규 (李鐘圭)	삼 축 리	한 학	일명 이종훈(李鍾勳)
오병대 (吳炳大)	삼 축 리	한 학	
이재우 (李載宇)	초 포 리	한 학	
정동연 (鄭東衍)	용 두 리	중 졸	
김홍기 (金洪基)	수 상 리	중 졸	
김기만 (金基萬)	이 문 리	한 학	
노정섭 (盧丁燮)	송 암 리	한 학	
안종구 (安鍾球)	나 산 리	한 학	
전복술 (全福述)	삼 축 리	한 학	
장수만 (張守萬)	구 산 리	한 학	

2) 제 2 대

성 명	출 신	학 력	비 고
이갑조 (李甲祖)	덕 림 리	중 졸	의 장
안종변 (安鐘卞)	나 산 리	중 졸	부 의 장
이계철 (李啓喆)	우 치 리	중 졸	
유희운 (柳熙雲)	월 봉 리	한 학	
이천구 (李千九)	우 치 리	한 학	
전복술 (全福述)	삼 축 리	한 학	
신을산 (辛乙産)	송 암 리	중 졸	
편봉환 (片鳳煥)	수 하 리	중 졸	

성 명	출 신	학 력	비 고
정동연 (鄭東衍)	용 두 리	중 졸	
김관남 (金判南)	이 문 리	중 졸	
김홍기 (金洪基)	수 산 리	중 졸	
김훈동 (金勳棟)	월 봉 리	국 졸	

3) 제 3 대

성 명	출 신	학 력	비 고
이용섭 (李瑢燮)	우 치 리	한 학	의 장
김호건 (金鎬健)	용 두 리	한 학	부 의 장
이상란 (李相蘭)	덕 림 리	국 졸	
이재욱 (李載郁)	초 포 리	국 졸	
김동술 (金棟述)	월 봉 리	국 졸	
정관섭 (鄭寬燮)	삼 축 리	국 졸	
남상복 (南相福)	수 하 리	중 졸	서울 경상상업학교
박태숙 (朴太淑)	수 하 리	국 졸	
조성근 (趙成根)	신 평 리	국 졸	
정칠연 (鄭七衍)	이 문 리	국 졸	
서동수 (徐東洙)	구 산 리	국 졸	
진동만 (陳銅滿)	용 두 리	한 학	

5. 역대면장(歷代面長) 명단

구분	성 명	학 력	출 신 지	재임기간
1 대	안종열(安鐘烈)		나 산 리	1945 ~ 1947
2 대	이재남(李載男)		초 포 리	1947 ~ 1948
3 대	이갑조(李甲祖)	중 졸	덕 림 리	1948 ~ 1949
4 대	김유태(金侑泰)		이 문 리	1949 ~ 1950
5 대	이오섭(李五燮)		월 봉 리	1950 ~ 1951
6 대	박남혁(朴南赫)		삼 축 리	1951 ~ 1952
7 대	이오섭(李五燮)		월 봉 리	1952 ~ 1953. 02. 18
8 대	이상길(李相吉)		삼 축 리	1953. 02. 19 ~ 1953. 11. 22
9 대	송정웅(宋正雄)		담양군무정면	1953. 11. 23 ~ 1955. 09. 06
10 대	이상길(李相吉)		삼 축 리	1955. 09. 07 ~ 1959. 09. 06
11 대	정동연(鄭東衍)	중 졸	용 두 리	1959. 09. 07 ~ 1960년
12 대	이덕행(李德行)		초 포 리	1960 ~ 1960. 12. 25
13 대	이상길(李相吉)		삼 축 리	1960. 12. 26 ~ 1961. 06. 06
14 대	신기린(辛基潾)		송 암 리	1961. 06. 07 ~ 1964. 05. 07
15 대	이상길(李相吉)		삼 축 리	1964. 05. 08 ~ 1973. 05. 09
16 대	안종칠(安鍾七)		수 하 리	1973. 05. 30 ~ 1986. 01. 14
17 대	이문행(李汶行)		초 포 리	1986. 01. 15 ~ 1993. 06. 30
18 대	이단행(李丹行)		초 포 리	1973. 07. 02 ~ 1996. 12. 31
19 대	정영화(丁永化)		학교 학교리	1997. 01. 17 ~ 1998. 07. 01
20 대	나홍채(羅紅埰)	고 졸	함평 가동리	1998. 07. 20 ~ 2002. 09. 09
21대	정영오(丁永吾)		함평 만흥리	2002. 09. 09 ~ 2003. 09. 27
22대	김양현(金良鉉)		함평 기각리	2003. 09 .27 ~ 2005. 08. 09
23대	정근욱(鄭根旭)		월야 월악리	2005. 08. 09 ~ 2008. 06. 30
24대	이환행(李桓行)		해보 문장리	2008. 07. 01 ~ 현재까지

6. 민간 자생단체 현황

2009. 5. 15 현재

일련번호	단 체 명	구성현황		대 표 자			비 고
		구성일	인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계	23개 단체		1,227	20명			
1	새마을협의회		29	최 연 석	011-632-8357	삼축리285-1	
2	새마을부녀회		29	유 복 남	010-6460-3377	우치리 491	
3	바르게살기협의회	96년	29	노 봉 년	019-619-8152	삼축 342-1	
4	노 인 회	85년	500	안 종 칠	010-9320-8104	수하리 432	
5	농업경영인회	81년	55	박 상 율	010-2683-8890	삼축리 496	
6	농촌지도자회	70년	40	김 석 호	011-757-8999	용두리666-5	
7	청 년 회	95.02월	70	이 건 감	011-326-9212	초포리1078	
8	조기축구회	98.05월	35	장 덕 균	322-8018	삼축 300	
9	번 영 회	93.10월	142	이 재 원	010-8811-8365	우치리491	
10	환경농업작목반	99.02월	34	양 상 민	322-8178	월봉 348	
11	농가주부모임	96.04월	33	노 영 숙	011-9604-8551	초포리 929	
12	자율방범대	91년	22	양 삼 성	011-605-2735	삼축리1212-7	
13	의용소방대	70년	30	최 칠 권	010-5625-5802	삼축 285-1	
14	나성산악회	97년	48	김 동 우	322-8333	이문 671	
15	나산산악회	88년	56	이 문 행	322-8345	초포 241	
16	함평천지시설채소영농조합법인	99.03월	25	정 맹 선	322-8877	용두 1118-12	
17	협 우 회	86년	50	기 성 섭	322-8493	수하 697	
18	예림산악회	97년	48	김 선 귀	322-8163	나산 454	
19	부부산악회	96년	29	이 필 서	322-8621	수상 151	
20	여자부녀산악회	88년	30	김 후 덕	322-8172	삼축 284-6	
21	자원봉사회			오 복 순	018-610-8689	초포리 907-4	
22	푸른환경지킴이			박 순 녀	010-8617-8650	초포리 600	
23	이장단협의회			김 태 준	010-4670-8851	용두리 832	

7. 마을사(史)

1) 구산리(九山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평릉면의 선암(先岩), 광령(光嶺), 방축(方丑), 삼구(三九), 삼성(三星), 내동(內洞), 구산(九山), 구평(九平), 월암(月岩), 조산(造山), 냉천(冷川) 전역을 합해 구산 마을의 이름을 이명(里名)으로 하였다.

구산은 원래 '龜山'으로 표기했는데 일제강점기부터 쓰기 쉬운 '九山'으로 표기했다. 현재 관내에 구산, 삼구, 냉천, 삼서, 삼성, 주동, 광령, 내동 마을을 두고 있다.

(1) 광령(廣嶺)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25	9	16	14	14		미맥	양파	미맥
성 씨								
계	밀양박	제주양	진주정	기타				
14	2	1	3	8				

○ 마을형성 및 지명 유래

지금으로부터 약 1750여년 경에 터가 형성되었다고 전할 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며 밀양박씨 남평문씨 제주양씨 등이 살고 있다. 불갑산에서 뻗은 큰 능선을 사이에 두고 대동면 강운리와 면계를 이루며 광령제(廣嶺提)에서 시작된 맑은 물이 마을 앞을 지나 구산천과 합류하여 고막천에 이른다.

이 마을은 산골이 깊고 능선이 많으며 산골짜기가 아흔 아홉 개나 된다. 이처럼 골짜기가 많은 마을이라 하여 '광령(廣嶺)'이라 하였다고 한다.

○ 유적·유물

·고인돌군 : 마을 입구에 2기가 있고, 동쪽 진주정씨 제각(29번지)앞 밭에 17기가 있다.
·고분군 : 진주정씨 제각(29번지) 뒷산 표고 80m정도에 산재되어 있다. 1988년에 토기 5점이 수습되어 광주 박물관에 보관중이다.

○ 전설

이 마을은 산골이 깊고 능선이 많아서 아흔아홉 골짜기이다. 백 골짜기를 만들기 위해서 거북산 하나가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마침 이것을 보고 '산이 간다'고 외쳤다. 산은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고 뇌성벽력을 하더니 여인은 벼락을 맞아 죽었다. 여인이 죽은 자리는 지금도 검정흙이 나오므로 잿더미라 부르고 광령 고랑은 백년이 지나고 천년이 지난 오늘에도 아흔아홉 골짜기 밖에 못되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 자생조직단체

·상여계(喪輿契) : 상제시 계원 상호간의 부조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100년 전 창립, 총 15가구가 참여.

○ 배출인물

·박영준(朴永俊) : 육군 소령 예편

(2) 구산(九山)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80	42	38	48	46	2	미맥	한우	미맥
성 씨								
계	함평이	김해김	광산노	인동장	기 타			
48	15	6	4	3	20			

○ 마을형성 및 지명 유래

원구산

마을의 윗 당산나무와 아랫 당산나무의 수령으로 짐작해 보면 마을 터가 생긴지는 약 1500년경으로 추정된다. 김해김씨(金海金氏)가 원선리 앵소산에 묘를 쓸 때에도 구산과 백양 등지에 살았으므로 김씨의 구산리 입주는 1500년경이다. 그 후 함평이씨는 1700년경 이시정(李時廷)의 증손 항림, 흥림, 회림 삼형제가 구산리에 입주하였다.

불갑산에서 맥을 이룬 마을 뒤에 비취산이 위치하고 광영제에서 흘러온 시냇물이 거북산을 끼고 흐르며 천주봉에서 시작된 맑은 물이 비취산을 돌아 흐르고 있다. 몇 아름이나 되는 수십그루의 큰 정자나무가 에워싸고 있는 마을의 경관은 가히 가관이라 극찬할 만하다.

본시 마을의 이름은 삼구동 앞산이 거북이 세 마리가 나란히 엎드린 것 같다 해서 '구산(龜山)'이라 했고 일설에 의하면 마을 형국이 "운중반월"형이고 뒷산 정상 주변에 마당 바위가 있어 달월(月)자와 바위 암(巖)자를 써 월암(月巖)이라 했는데 일제강점기부터 쓰기 쉬운 '九山'으로 바꿔 쓰고 있다.

○ 공공건물

건 물 명	규 모	건립년도	비 고
공동창고	35평	1973. 5. 1	
경로당	16평	1989.12.01	구산리373-1

○ 유적·유물

·함평이씨삼강비는 용계공 이시정의 충(忠)과 유일, 계상의 효(孝)를 기리기 위해 1934년에 후손에 의해 건립

·진무공신 절도사 김광립유허비(1913년건립)및 충효비로 최씨실행비와 김상빈영모비가 세워져 있다.

·고인돌군 : 원구산에서 내동으로 넘어가는 소로변 노인창씨 집 주변에 10여기가 있고, 마을

북동편에 6기, 열녀비 주변에 5기 등이 산재한다.

·고분 : 폐교된 나산서초등학교 뒷산(조산)에 규모를 알 수 없는 고분1기가 있다.

·노거수 : 마을 앞 당산목인 수령 350년생 팽나무가 마을나무(10-22-7-13-58)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를 할머니당산이라 일컬으며 마을 북편 노거수를 할아버지당산이라 부른다. 매년 정월 대보름날 남녀,노소 전주민이 참여하여 풍물을 치며 두나무사이를 5회 왕복 한 후 자정에 당산제를 모신다.

○ 지명

·구평(九坪) : 구산 앞쪽에 있었던 마을

○ 자생조직단체

·상복계(喪服契) : 상제시 계원 상호간의 부조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100년 전 창립, 총 29가구가 참여.

·회갑계(回甲契) : 무진생 회갑시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1943년 창립, 총8가구가 참여.

○ 특기사항

구산리 58-1번지에 1961. 5. 18 나산서초등학교 개교되었으나, 학생수 감소로 1995. 3. 1일 폐교되었다. 현재는 (재)동방문화재연구원이 들어서 있다.

대한예수교 장노회 소속 "구산중앙교회"(신도수 60명)가 있다.

○ 배출인물

·이재열(李載烈) : 민주평통위원

·이건환(李建煥) : 육군 중령

·노재윤 : 소방장

·이상오(李相五) : 육군 소령

(3) 내동(內洞)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7	4	3	5	4	1	미맥	양파	미맥
성 씨								
계	광산노	함평이	여산송	기 타				
5	1	1	1	2				

○ 마을형성 및 지명 유래

당초 함평이씨 자손들이 마을을 형성했다고 하나 자세한 내력은 알 수 없으며 그 후 광산노씨가 삼구동에서 입주하여 마을을 형성하고 현재까지 이 마을의 주종을 이루며 살고 있다. 천주봉, 구절봉, 연대산의 봉우리만이 우뚝 솟아 있는 바 그 경관이 빼어나고 골짜기 사이 깊은

내동

산속에 형성된 마을이라 해서 이름을 '내동(內洞)'으로 지었다고 한다.

○ 유적·유물

·덕수역터 : 고려때 모평현 지역에 있던 역으로 조선조에 폐역됨.(내동508번지일대)

○ 자생조직단체

·상복계(喪服契) : 상제시 계원 상호간의 부조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1939년 전 창립, 총 8가구 참여.

·혼인계(婚姻契) : 계원 자녀들의 혼례비를 도울 목적으로 1963년 창립되었다.

(4) 냉천(冷川)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13	6	7	8	7	1	미맥		미맥
성 씨								
계	함평이	남평문	기타					
8	3	3	2					

○ 마을형성 및 지명 유래

냉천

100여년전 남평문씨 문영호(文永灝)가 마을 뒷산에 부친을 안장 한 후 3년동안 시묘살이를 한 후 이곳에서 터를 잡고 생활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1789년 호구총수지명 당시 내천동(內泉洞)지명이 바로 이 마을로 확인됨에 따라 일찍이 이 마을이 있다가 폐촌된 후 다시 문영호가 마을을 이루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국도 24호선상에 위치한 이 마을은 대동면과는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면계를 이루고 있으며 마을 앞으로는 구산천이 흐른다. 동네 앞 샘물이 맛좋고 시원했던 까닭에 내천동(內泉洞·안샘마을)이라 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냉천동(冷川洞)'이라고 하였다. 지금도 물맛으로는 으뜸가며 가뭄에도 샘이 마르지 않는다고 하는데 물맛이 좋은 이유는 마을 사람들이 마을의 공동우물을 팔 때 구미산의 맑은 날씨에 오색 구름이 떠다니면서 사방으로 흩어져 생기가 감돌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 유적·유물

·효자 문영호(文永灝)정려 : 1888년 명정(命旌) 1892년 건립 마을 앞에 있으며, 정려앞에 냉천선돌이 있다.

○ 자생조직단체

·상복계(喪服契) : 계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제시 상호부조 목적으로 1910년 창립, 총 15가구가 참여.

○ 특기사항

마을입구에 노인요양시설이 2008년에 들어서 있다.

○ 배출인물

·문정구(文正九) : 경제학박사, 건국대교수
·이재병(李載炳) : 미공군대학졸업, 공군대령, 공군제2325부대장, 화랑무공훈장

(5) 삼구(三九)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55	24	31	27	27		미맥	양파	미맥
성 씨								
계	이천서	광산노	김해김	기타				
27	9	8	3	7				

○ 마을형성 및 지명 유래

삼구터에는 함평이씨가 가장 먼저 입촌했다고 하나 지금은 한 세대로 없으며 그 후 광산노씨가 정착했는데 구산파의 증조인 노찬원은 1579년(선조 12년) 출생해서 인조때 무과에 급제하여 절충장군이 된 인물이다. 그러므로 광산노씨는 약 400여년 전 삼구동에 들어왔다.

마을 모습이 거북이 세 마리가 물을 마시려고 엎드려 있는 형국이라 하여 삼구라 했다 한다. 앞 거북뫼와 마을 뒤의 잔등이 거북이의 모습이고 덕림교에 위치한 닭머리산도 옆에서 보면 거북이의 모습이어서 마을 이름을 세 마리의 거북형태라는 의미의 '삼구동(三龜洞)'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편의상 구(龜)자를 거북구자가 아닌 아홉 구(九)자로 바꾸었다고 전한다.

○ 공공건물

건 물 명	규 모	건립년도	비 고
공동창고	20평	1974. 4. 29	
경로당	21평·	2003. 2. 10	구산리 692

○ 유적·유물

·고인돌군 : 삼구동에서 주동으로 넘어가는 언덕에 6기가 있다.

·노거수 : 마을 앞 당산목인 수령 350년생 팽나무가 마을나무(10-22-8-1-11)로 1982년에 지정되어 있다.

○ 자생조직단체

·상복계(喪服契) : 계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제시 부조를 목적으로 100여년전 창립, 총 28가구가 참여.

○ 배출인물

·서성연(徐聖然) : 원주 한라 공과대학 교수 ·노택현(盧宅炫) : 초등학교 교장역임

·서혜경(徐惠京) : 조선대 약대졸, 약사 ·노재현(盧滓現) : 고려대 의대졸, 의사

·서지훈(徐智勳) : 전남대 법대졸, 사법고시합격,사법연수원

(6) 삼성(三星)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39	28	31	23	23		미맥	양파	미맥
성 씨								
계	광산노	이천서	남평문	김해김	기 타			
23	6	3	3	2	9			

○ 마을형성 및 지명 유래

마을 주변에 고인돌이 많이 산재해 있고 석기시대에 유물이 출 토된 점으로 미루어 석기시대부터 이곳에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추측되며 근세에 이르러서는 배씨가 터를 잡았다고 하나 구전일 뿐이고 현재는 광산노씨, 남평문씨, 이천서씨 등이 살고 있으며 400여년의 터를 본다.

삼성

삼성에서 북쪽을 바라보면 삼태성(三泰星)이 보인다고 하여 마을 이름을'삼성(三星)'이라 했다고 한다. 또한 원삼성, 앞삼성, 해바람 세마을을 합쳤기 때문에 삼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공공건물

건 물 명	규 모	건립년도	비 고
경로당	21평	1982. 12. 01	구산리 751-3

○ 자생조직단체

·상복계(喪服契) : 상제시 계원 상호간의 부조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100년 전 창립, 총 30가구가 참여.
·회갑계(回甲契) : 계해생 회갑시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1957년 창립, 총 7가구가 참여.
·경노회 : 경노효친을 목적으로 1960년 창립, 총 31가구가 참여.

○ 특기사항

대한예수교 장노회 소속 "구산제일교회"(신도수 25명)와 대한 조계종 소속 "달마정사"가 있다.

○ 배출인물

·서복실(徐福實) : 육군 소령 예편, 함평군 산림조합장, 함평문화원장 역임
·노병준(盧炳俊) : 서예가

(7) 주동(舟洞)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17	8	9	8	8		미맥	양파	미맥
성 씨								
계	광산노	파평윤	함평이	김해김				
8	2	1	2	1				

주동

○ 마을형성 및 지명 유래

이 마을의 형성과정에 대해서 어느 성씨가 먼저 정착했는지에 대해 정확히는 모르나 함평이씨 및 광산노씨의 선산이 이 마을 주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그들이 삼구동에서 살다가 이곳으로 이주해 온 것으로 추정되며, 19세기 중반에 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본다. 마을 형국이 배의 형국이라서 마을 이름을

‘주동(舟洞)’이라 했다 하며 샘을 파면 배의 밑을 뚫는 것이 되므로 샘을 못팠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지금도 물이 잘 나지 않고 가뭄에는 물이 귀한데 이는 배밑이 두꺼워서 그렇다고 한다.

○ 자생조직단체

·상부계(喪扶契) : 상제시 계원 상호간의 부조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1930년 전 창립, 총 9가구가 참여.

·친목계(親睦契) : 계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1965년도에 창립, 총 6가구가 참여하고 있다.

○ 배출인물

·이건환(李建煥) : 육군소령예편, 현고교교사

·김현박(金玹泊) : 목포 해양대졸, 현KBS전주 기술국장

2) 나산리(羅山里)

원래 식지면에 속했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기용(奇用), 대천(大川), 나산(羅山), 신풍(新豊), 방하(方河) 전역과 정양(正良), 동촌(東村), 봉학(奉學)의 각 일부를 합해 나산리를 신설했다. 현존하는 지명상 마을은 11개 마을로 독리(犢里), 모정(募亭), 정양(正良), 대천(大川), 호암(虎岩), 신풍(新豊), 동촌(東村), 방하(方河), 기룡(騎龍), 새뜸, 남호동(南湖洞)이나 통상적으로 대정(大正 – 독리, 모정, 정양, 대천), 동신(東新 – 호암, 신풍, 동촌), 방하(芳河 – 방하, 기룡, 새뜸, 남호동) 3개 마을로 불리워지고 있다.

1912년 지명에는 나산이 없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나산이란 지명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1912년 이후에 붙인 이름임을 알 수 있다.

전기특선이 군내에서 제일 먼저 인입한 마을로써 사단법인 함평군 향토문화연구회와 나산 마을사 편찬위원회 공동으로 나산마을사(1995, 세종출판사, P362, 양장케이스임)가 편찬되바 있다.

(1) 대정(大正)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101	45	56	62	60	2	미맥	딸기	미맥
성 씨								
계	죽산안	경주이	광산김	함평이	기 타			
62	18	5	8	7	24			

○ 마을형성 및 지명 유래

삼한시대에 개기(開基)된 옛터이며 누가 먼저 정착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거주한 것이 확실한 죽산안씨(竹山安氏) 이전에도 반남박씨(潘南朴氏), 영산신씨(靈山辛氏), 진주강씨(晋州姜氏), 연일정씨(延日鄭氏)가 거주하였다고 한다. 조선 중종때 남원부사 노극창(盧克昌)이 송암리 고향으로 오는 길에 광주 극락강에서 백면서생(白面書生) 안충달(安忠達)을 만날 글재주를 시험해보니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으로 여겨져 사위로 삼자 안충달이 이곳에 정착하여 마을을 형성하였으며 지금까지 이 마을은 죽산 안씨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1908년경 우리 의병을 토벌하기 위해 파견한 나산병참소(羅山兵站所)가 이인정(里仁亭)밑에 있었고 식지면(食知面) 사무소와 나산보통학교 등이 이 마을에 있었으므로 면내에서 가장 먼저 개화(開化)한 마을이며 더욱이 일인(日人) 모리형제(森 長治, 森 友太)가 대지주(大地主)로서 수탈(收奪)을 감행하여 곡식을 보관하던 5천석 창고 2개가 사현각 동편에 있었다.

1789년 호구총수 지명에 이 마을에는 정양동(靜養洞)과 대천동(大泉洞)이 있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는 '靜養洞'이 '正良'으로 大泉이 "大川"으로 바뀌었다.
대천의 앞글자 "大"와 정양의 앞글자 "正"을 취하여 대정이라 한다.

○ 공공건물

건 물 명	규 모	건립년도	비 고
마을회관	23평	1977. 4. 10	
경 로 당	34평	2003. 10. 09	나산리 695-1

○ 유적·유물

·이인정(里仁亭) : 1694년 죽산안씨 문중에서 창건하여 1832년 현위치로 이전. 공자께서 말씀한 "里仁爲美"라는 구절에서 유래

·나산사(羅山祠) : 안충달(安忠達) 안여해(安汝諧) 안치택(安致宅)의 넋을 기리기 위한 사우(祠宇)이나 서원 철폐령(1868년)에 훼철됨

·고분 : 대정 마을 뒤 소나무 숲속에 속칭 "말뫼똥", "말무덤"이라 부르는 원형고분이 남북 방향으로 있으나 도굴된 것으로 추정되며 규모는 지름 8.8m, 높이 1.5m다.

·사현각(四賢閣) : 안충달(安忠達), 안여해(安汝諧), 안여기(安汝器), 안치택(安致宅)의 넋을

기리기 위해 1908년 후손 안시용(安時鎔)이 건립했다.

·동섬(洞섬, 三台島) : 속칭 똥섬이라고 부른다. 나산리 안씨 집안은 삼홍칠백(三紅七白)이 났다는 가문으로 급제를 하여 금의 환향하면 솔대(입목)대신에 동섬을 만들어 가문의 경사를 기념하였다. 옛날에는 7개의 동섬이 있었는데 현재 3개만 남아 있다.

·나산제(羅山提, 나리뫼 방죽) : 마을 앞에 있는 저수지로 군내에서 두 번째로 일찍 만든 저수지다. 만든지가 250년이 되며 제방에 느티나무, 팽나무등이 우거진 노거수 숲이 있다.

·효자 안봉윤(安鳳胤)정각 : 1832년 명정(命旌)을 받아 그해에 건립됐다.

·노거수 : 마을 저수지 옆에 마을나무(10-22-7-7-38)로 1987년에 지정된 수령 300년생 느티나무를 비롯하여 여러 그루의 노거수가 제방 둑에 있다.

·기타 : 안절부 노유인 비각 (安節婦盧儒人碑閣), 안종욱 기실표 (安鐘旭記實表), 효자 죽산안공항석기적비각(孝子竹山安公恒錫紀積碑閣), 청운 안인수 애향공적비가 있다.

○ 문바위 전설·탕건바위 전설

마을 앞에 이인정 북쪽 7m 떨어진 곳에는 높이 3m 쯤 되는 우람한 바위가 풍상에 씻겨 연륜을 지핀 자태로 마을의 옛 이야기를 더듬케 해 주고 있다. 먼 옛날 승려 한 분이 공양미를 시주받기 위해 이따금 이 마을에 들리곤 하였다.

그러나 조선조 숭유배불사상이 심화된 안씨들인지라 중이 이 마을에 들어와 시주를 청할 때마다 어느 한집도 거들떠 보지 않고 시주는커녕 갖은 학대와 수모를 가했다. 화가 난 중은 어떻게 하면 앙갚음을 할까 하고 궁리하다 이인정을 지나면서 '어허, 저런! 이 마을도 저 바위 때문에 마을의 운세가 뻗지를 못하는 군. 훌륭한 인재를 얻으려면 저 바위를 깨뜨려야 할텐데'하고 중얼거렸다.

이 소리를 들은 안씨들은 문중회의를 열고 바위를 깨뜨려 몰골이 사납게 만들어 버렸다. 그러나 그 후 마을이 점점 기울고 폐허가 되자 그때서야 주민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뉘우친 끝에 지금은 중만 보면 극진히 대접하는 미풍이 조성되었다 한다.

지금도 이인정 앞에 깨진 크나큰 바위를 볼 수 있다.

○ 지명

·독리(犢里) : 백호등 북쪽 산자락과 지방도 825호 변에 연접한 마을

·모정(慕亭) : 독리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산리의 출입구다

·정양(正良) : 모정 동쪽에 있다. "제양동"이라고도 한다.

·대천(大川) : 정양 동쪽에 있다. 원래는 大泉으로써 마을내 질 좋은 우물이었다.

○ 자생조직단체

·상복계(喪服契) : 상제시계원 상호간의 부조를 목적으로 1927년 창립, 총 25가구가 참여.

·친목계(親睦契) : 계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1960년 창립, 총 17가구가 참여.

○ 특기사항

1999년 공공근로사업으로 마을 입구에 읍면장승 9기, 마을장승 14기, 산천장승 15기, 기타

장승 27기등과 솟대 49기와 원두막 3채등을 포함한 솟대·장승 가로공원을 조성하고 솟대·장승 한마당 행사를 1999. 9. 17~9. 19까지 함평군에서 개최한바 관광객 3만명이 운접했다.

또한 옥녀봉 자락(나산리 17번지)에 20여년전에 창건된 대한 불교 조계종 광주 향림사 말사인 천운사가 있으며 이는 옥룡사로 구전되어 오다가 20여년전부터 고쳐 부르게 되었다. 나산리 691번지에 소재한 나산제일교회는 21년전 나산면 삼축리에 소재한 나산교회에서 분립한바 신도수는 50여명이다.

○ 배출인물

·안종열(安鍾烈) : 1대 나산면장역임
·안석규(安錫奎) : 동력자원부 서기관, 가스안전공사 이사(현)
·안태수(安泰洙) : 해군준장(군의관)예편
·안두순(安斗淳) : 경제학 박사
·안학수(安鶴洙) : 이리농대교수, 농학박사
·안석두(安錫斗) : 강진군 교육장, 초등학교장 역임
·이정재(李正宰) : 광주교육대학 총장 역임
·안종영(安鍾映) : 함평군 농협지부 차장
·안동해(安東海) : 목사
·안창순(安昌淳) : 함동수리조합장 역임
·안 욱(安 旭) : 진해종합병원 신경과장역임
• 안종두 : 서울특별시 초등학교장 역임

(2) 동신(東新)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47	20	27	14	12	2	미맥	거베라	미맥
성 씨								
계	죽산안	김해김	함평이	기 타				
14	6	2	3	3				

○ 마을형성 및 지명 유래

이 마을은 삼한시대에 자리잡은 옛터로 추정되고 있다. 누가 먼저 정착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며 반남박씨(潘南朴氏), 영산신씨(靈山辛氏), 진주강씨(晋州姜氏), 연일정씨(延日鄭氏)가 먼저 입주하여 살았다고 전한다. 그 후 나산리 대정에 살던 안충달(安忠達)의 자손이 이 마을에 정착하여 세력이 확충됨에 따라 타성들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다.

동신

그래서 지금까지도 죽산안씨가 주종을 이루며 살고 있다.

대정 마을의 동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동촌(東村)이라고 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동촌의 "東"자와 신풍(新豊)의 "新"자를 따서 동신이라 부른다.

○ 유적·유물

·절부 노부인비(節婦盧婦人碑) : 절부 광산노씨는 죽산안씨 천섭(千燮)에게 출가하여 26세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으나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1남 1녀를 기르며 수절, 그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다.

○ 지명

·호암(虎岩) : 대천 동쪽에 위치한 마을, 호암(湖岩)에서 변이
·신풍(新豊) : 호암 동쪽에 위치, 신풍정(新豊亭)에서 변이
·동촌(東村) : 신풍 동쪽에 위치, 맨 동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

○ 자생조직단체

·상여계(喪輿契) : 계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제시 부조를 목적으로 1937년 창립, 총 34가구가 참여.
·부녀계(婦女契) : 부녀의 친목을 목적으로 1976년 창립 총 54가구가 참여.

○ 배출인물

·안동숙(安東淑)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장동양화가국전심사위원장역임
·안인수(安寅洙) : 함평군 농협장 역임
·안병균(安秉鈞) : 전 나산그룹 회장
·안병현(安秉玄) : 도서출판 현문사 사장
·안민수(安泯洙) : 삼화왕관(주) 상무
·안종복(安鍾福) : 목사

(3) 방하(芳荷)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78	36	42	35	35		미맥	고추	미맥
성 씨								
계	죽산안	함평이	밀양박	기 타	김해김			
35	16	7	2	7	3			

○ 마을형성 및 지명 유래

이 마을을 처음 이룬 성씨는 진주강씨, 광산정씨들이라고 하는데 개촌한 성씨들의 후손은 현재 한 집도 살고 있지 않다.

다만 이 마을을 이루었다고 말하는 진주강씨 후손들이 무안군 해제면에 살고 있으며 선대(先

방하

代)의 묘가 이웃인 신평(新平)에 있다.

이어 입촌한 성씨가 죽산안씨다. 나산리 대정(大正)에 입촌한 충달(忠達)의 둘째 아들 사면이 1570년경 분가하여 이 마을에 정착한 것이다.

현재의 방하 마을은 방하와 옛 기룡(騎龍·1789 지명)을 합한 마을이다.

뒷산은 옥녀봉, 앞산은 남산이라고 부르는데 이인정(里仁亭)앞 방죽이 거울에 비유되고 있다.

그래서 이 마을은 옥녀가 거울을 보며 거문고를 타는 형국에 비유 방하(芳荷)라고 했다한다. 그러나 입촌한 안씨들의 선조(先祖)의 고향이 광주 대촌동 송악의 방하(芳荷), 경기도 파주군 방하동(芳荷洞)인 점을 미루어 볼 때 선조들이 살았던 곳의 지명을 그대로 썼던 것 같다.

○ 공공건물

건 물 명	규 모	건립년도	비 고
마을회관	30평	1979. 4. 5	
공동창고	23평	1973. 3. 15	
경 로 당	24평	2007. 6. 27	나산리 299-1

○ 유적·유물

·고인돌군 : 방하마을에서 남쪽 400m가량 떨어진 나승선의 양계장 입구에 4기가 있었으나 훼손된 바 있다.

·송암정 : 경주 이종문이 세웠고 윤용구가 제액하였으며, 1979년 극락정으로 바꾸었고 현재는 마을쉼터로 이용되고 있다.

○ 민속제

·천룡제 : 1799년에 창계(創契)한 천룡제계안(天龍齊契案)에 의하면 기룡동 구릉에서 예부터 마을의 번성과 과거에 합격하는 인재가 나오기를 기원하던 제(祭)를 모셨는데 중간에 폐하였기에 오늘에 다시 마을 사람들과 상의하여 거행키로 하고 천룡계안을 작성한다고 되어 있다. 이 해부터 다시 거행된 천룡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선인들이 수백평의 논과 밭을 사들여 천룡제 재산으로 남겼는데 근래 새마을 사업을 벌이면서 사업비가 모자라 많은 공동 전답을 팔았다. 현재도 매년 빼지 않고 올리는 천룡제는 당년에 사주가 제일 좋은 마을 사람을 제관으로 삼아 제물을 장만케하고 정월초 이튿날 밤에 찬물로 목욕 한 후 보조인 2명과 함께 제단에서 제를 지낸다.

이튿날 마을 사람들 전체가 한 자리에 모여 마을 일을 의논한 후 농악 등 놀이를 하며 하루를 즐겁게 보낸다. 1799년 천룡제 창계안은 군내에 전해오는 마을단위 계의 문서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 지명

·기룡동(騎龍洞) : 삿갓봉에서 뻗어온 지맥이 마을 뒤에서 말잔등 모양을 이루고 있다해서 붙여진 이름, 원래는 입봉(笠鋒)리다.
·새뜸 : 1960년대 이후에 생긴 마을
·남호동(南湖洞) : 나리뫼 방죽 남쪽에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 천주교회가 있다.
·방현(榜峴) : 신평으로 가는 고갯길 아래 있던 마을인데 지금은 폐촌되어서 1호도 살고 있지 않다. 방고개란 이름은 옛날 안씨 문중에서 과거에 급제하는 사람이 나오면 옥녀봉에 올라가 풍악을 울리고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방고개는 방(榜)을 걸어 놓던 곳이다.

○ 특기사항

나산리 671-2번지에 소재한 함평천주교 나산공소는 원래 동신마을내에 있었으나 1960년대초에 현위치로 옮기고 1990년 10월에 본당을 완공 오늘에 이르는바 현재 신도수는 80여명이다.

○ 배출인물

·이영철(李瑩喆) : 나산우체국장 역임
·이경범(李京範) : 나산우체국장 역임
·이상권(李相權) : 해군 중령
·안현수(安鉉洙) : 건국대졸, 대한통운상임이사역임

3) 덕림리(德林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이제(里制)를 펴면서 평릉면의 하천(下川), 안덕(安德), 기동(己洞), 연동(連洞) 전역과 구암(九岩), 죽림(竹林) 각 일부를 합하여 안덕마을에서 '덕'자와 죽림마을에서 '림'자를 따서 '덕림리'라 하였다.

현재 관할 백양, 죽림, 귀암 세 마을을 두고 있다.

(1) 귀암(龜岩)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57	31	26	35	33	2	미맥		미맥
성 씨								
계	김해김	밀양박	경주이	인동장	진주정	기타		
35	13	6	6	4	2	4		

귀암

○ 마을형성 및 지명 유래

구산리 구산마을과 같은 시기에 형성된 한 마을이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인근에 있는 덕림리에 편입되었다.

(2) 백양(白羊)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86	46	40	52	49	3	미맥	딸기	미맥
성 씨								
계	경주이	김해김	해주정	파평윤	밀양박	기타		
52	29	4	5	4	2	8		

○ 마을형성 및 지명 유래

백양

이 마을은 2기의 지석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개촌 연대는 선사시대로 볼 수 있는데 현세에는 경주이씨 마을이며 경주이씨 이전에는 배씨가 살았다고 전할 뿐 확실한 연대는 모른다.

경주이씨가 이 마을에 들어온 것은 호군공파 천수(天壽, 증조 거명의 21세손)가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다가 1480년경 이주 정착했다.

김해김씨 족보를 보면 김광립(金光立) 후손의 세거지 였다고 한다.

마을 이름이 '백양동(白洋洞·1789년 호구총수지명)'이라 불리는 것은 '배양골'에서 온 말인 듯하며 배형국과 인연이 있음이 아닌가 한다. 주위에는 선치 닻머리 선밑으로 불리는 곳이 있고 치는 키의 방언인 듯하다. 또한 배형국이란 뜻으 로 부른 '배형골'이 변하여 '배영골''배양골'로 불리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며 이곳은 고막천에서 나산천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조그마한 선박이 정박했던 곳으로 추측된다.

안터와 새터를 합하여 '백양동'이라 부른다.

○ 공공건물

건 물 명	규 모	건립년도	비 고
마을회관	30평	1979. 4. 5	
경 로 당	36평	2004. 11. 2	덕림리 247-1

○ 유적·유물

·함양박씨 효열각 : 1888년 명정(命廷), 1895년 건립 이세철의 처 함양박씨

·백양영당(白羊影堂) : 경주 이회원(李會元, 1659~1720)의 영당, 영조가 정충보국(精忠報國) 어필과 함께 영당을 세웠다.

·팔모정 : 1893년에 경주 이시영이 세운정자. 팔모란 인의예지, 효제충신이란 뜻으로 현재는 마을쉼터로 사용되고 있다.

○ 자생조직단체

·상복계(喪服契) : 상제시 계원 상호간의 부조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100여년 전 창립, 총 38가구가 참여.

·동갑계(同甲契) : 갑신생 동갑나기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1972년 창립, 총 8가구가 참여

·회갑계(回甲契) : 병신생 회갑시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1953년 창립, 총 10가구가 참여.

○ 배출인물

·이규정(李圭正) : 광주 지방검찰청 검사장 변호사 역임

·이갑조(李甲祖) : 나산면장 역임(3대)

·이상길(李相吉) : 나산면장 역임(10,13,15대),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이연우(李連雨) : 광주고등법원 과장 역임 ·이원형(李元炯) : 육군 중장

·이택우(李宅雨) : 육군 소령 예편

·이상선(李相善) : 육군 준장 예편 국방부 군수처장 역임

(3) 죽림(竹林)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40	20	20	24	22	2	미맥	딸기	미맥
성 씨								
계	경주김	진주정	전주이	함평노	함평이	기타		
24	5	4	4	3	2	6		

○ 마을형성 및 지명 유래

지금으로부터 약 1800년경에 함평노씨가 살다가 모두 이거하고 현재는 경주김씨 진주정씨 등이 살고 있다. 진주정씨는 4대까지 살았으며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를 지낸 만양 정덕휴(鄭德休)를 기념한 정각이 건립되어 있다. 경주김씨 백촌 김문기(金文起)를 기념한 충의사가 건립되었는데 김태원 장군의 위패도 봉안되어 있다.

대동면 상옥리 옥동과 면계를 이루며 고막천을 사이에 두고 나주군 문평면 갈마지와 마주보며 군계를 일고 있다.

한때 대나무가 무성하여서 마을 경치 또한 수려하여 마을 이름을 '죽림(竹林)'이라고 했다고 한다.

○ 공공건물

건 물 명	규 모	건립년도	비 고
공동창고	18평	1973. 4. 15	

○ 유적·유물

·고인돌군 : 마을 앞 당산나무 주변에 3기가 있다.
·죽림사 : 구한말의병장 김태원 장군의 위패가 봉안된 사우로 영모사라고도 함.
·만양공정각 : 만양 정덕휴의 기념정각

○ 자생조직단체

·상여계(喪輿契) : 상제시 계원 상호간의 부조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150여년전 창립, 총 18가구가 참여.
·동갑계(同甲契) : 신사생 동갑나기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1957년 창립, 총 8가구가 참여.

○ 특기사항

아주 오래전에 이 마을에는 대나무가 무성히 자생하고 그 앞에는 배가 드나들 때 등대 역할을 했다는 큰 바위가 있는데 이곳 사람들은 이 바위를 등대바위라고 부르고 있다. 이 바위는 고인돌이며 이로 미루어 볼 때 선사시대부터 이곳에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알 수 있다.

4) 삼축리(三丑里)

원래 평릉면에 속했던 곳으로 세 쌀울(싸리골, 三丑 : 上, 下, 東丑)마을이 합쳐졌다고 해서 삼축리(三丑里)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이제(里制)를 실시하면서 평릉면 장기(場基), 동축(東丑), 상축(上丑), 백야(白也) 전역과 하축(下丑), 안영(安永), 용산(龍山), 월산(月山), 분토(分土), 식지면 정양(正良)마을 각 일부를 관할하였다.

이후 안영, 용산, 월산이 월봉리로 식지면 정양이 나산리 일부로 편출되고 백야마을은 이농으로 인하여 1980년대 중반에 폐촌됐다.

그 후 1992년부터 시행한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의해 문화마을이 조성되어 현재는 하장기, 상장기, 동축, 상축, 하축, 분토, 문화마을을 관할구역으로 두고 있다.

(1) 동축(東丑)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62	29	33	24	22	2	미맥	화훼	벼농사
성 씨								
계	신평송씨	밀양박	함평이	무안박	기 타			
24	5	8	3	2	6			

○ 마을형성 및 지명 유래

홍주의 속현인 신평에 살던 신평송씨 송긍(宋兢)이 임진왜란 때 피난처를 구한 끝에 이곳에 정착하였으며 마을의 당산나무도 그때 심었다 한다.

이 마을은 상축, 하축과 함께 예전에는 '쌀울(싸리골)' 이라고 불리어 왔는데 동쪽에 있는 쌀울마을이라 하여 동축(東丑)이라 하였다.

1789년 호구총수 지명에도 동축(東丑)으로 표기되어 있으니 오래전부터 불리어 온 이름이다.

1985년 4ha규모(비닐하우스 30동)의 동축 화훼단지가 군내 최초로 조성되었다.

○ 공공건물

건 물 명	규 모	건립년도	비 고
경 로 당	51평	1995. 5. 1	삼축리 1085-1

○ 유물

·자락정(自樂亭) : 한학자 박봉혁(朴奉赫 1873~1935)을 기리기 위해 1926년 제자들이 마을 가운데에 건립한 정자로 강학소로 사용되었으며, 박봉혁이 쓴 수제유고, 영언전이 저서가 전해오며 건물은 정면3칸, 측면3칸 규모의 팔작지붕이고 12개의 현판이 게액되어있다. 박봉혁은 함평의 여러마을에 대한 충효와 세거, 경관등을 집약 노래한 기성가(箕城歌)의 작자임.

·영사정(詠思亭) : 신평송씨 승은(承殷 1614~?)이 지은 정자. 남곡 송병화의 기(記)등 9개의 현판이 게액되어 있다..

·두산사(斗山祠) : 수제 박봉혁을 배향하기 위하여 1994년 후손과 유림이 세운 사우이다. 또한 지역개발에 공이 있는 인당 박종삼(朴鍾三)공적비가 마을앞에 있다.

○ 자생조직단체

·상부계(相扶契) : 계원 상호간의 부조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약 100여년전 창립 총 16가구가 참여.

○ 특기사항

이 마을 거주 박현순이 1,000여점의 옛 생활용구를 30여년 동안 수집하여 1999년 9월에 「함평생활유물전시관」 이란 200여평의 간이 전시장을 마련 일반인에게 공개하였다가, 2007년에 함평군에서 인수하여 동면 이문리에 함평생활유물전시관을 이전 건립되어 전시되고 있다.

○ 배출인물

·박영순(朴英淳) : 원광대학교 교수 ·송호준 : 전남대학교 치의학 교수

·박현순(朴賢淳) : 함평군민의 상 수상, 전남화훼협회장 역임.

(2) 분토(紛土)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46	21	25	22	22		미백	담배	미백
성 씨								
계	남평문	장흥고	함평이	기 타				
20	9	3	3	4				

○ 마을형성 및 지명 유래

분토

남평문씨 문명의(文命義)가 임진왜란 때 나산면 원선리 다랭이(石門)에서 피난왔다가 마을 산세가 거북이 몸같이 아담해서 이곳에 정착하였으며 약 400여년이 된 터이다. 흙색깔이 백색토질이라 '분토동(紛土洞)' 이라 하였다고 하며 예전에 묘를 쓸 때 양회대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전한다. 한자로 墳土(분토)라고 표기하는 지명은 대체로 고분이 많은 곳을 뜻 하는바 마을주위에 평릉, 사산의 백제 고분 분포지가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공공건물

건 물 명	규 모	건립년도	비 고
공동창고	20평	1977. 4. 5	

·노거수 : 마을 정자 옆에 수령 300년생 느티나무가 마을나무(10-22-7-1-33)로 1995년에 지정되어 있다.

(3) 상장기(上場基)·문화(文化)마을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308	160	148	150	47	103	미맥		미맥, 상업
성 씨								
계	밀양박	전주이	함평이	풍천임	진주강	창원황	기 타	
150	8	8	7	5	4	3	115	

상장기

○ 마을형성 및 지명 유래

상장기는 약 1800년경에 풍천임(豊川任)씨와 청주한(淸州韓)씨터를 잡았다. 그러나 이는 구전일 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1932년 이전에는 나산면의 시장이 이곳에 있었고 그 후 함평이씨(咸平李)가 정착하여 마을을 형성했으며 현재는 여러 성씨가 거주하고 있다.

현 장터의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상장기(上場基)라 하며 예전에 장터가 이 마을에 있었던 까닭에 구장터라 부르기도 한다.

문화마을은 1995년에 정부의 주택 현대화 정책에 의해서 상장기 북쪽 총 1,346평에 69가구 입주계획으로 도로, 전기, 수도, 공공시설 등을 정적하게 배분한 군내 최초의 현대 주거 생활에 알맞게 조성한 농촌 주택단지이다.

『문화마을』 이란 명칭은 정주권 개발계획의 세부 사업명으로 전국이 동일하다. 택지 조성후 인근 지역의 거주자들이 현대식 건물을 지어 입주했으나 일부는 도시에서 이거한 가구도 있다.

○ 공공건물

건 물 명	규 모	건립년도	비 고
마을회관	30평	1977. 04 .30	
경 로 당(나성)	35평	1978 04. 01	삼축리 산 94-4
경 로 당(금수)	29평	2003. 01. 09	삼축리 379-1

○ 유물과 유적

면민회관 광장에 면민회관 건립 기념비와 역대 면장 안종일(安鍾壹), 이오섭(李五燮), 김유태(金侑泰), 이상길(李相吉), 안종칠(安鍾七), 이문행(李汶行)의 공적비가 있으며, 백야산에 함평이씨의 양사제(養思齊)가 있다.

·노거수 : 삼축리 백야산내 함평이씨 세장산 노루명당에 군내 백일홍 중 가장 크고 오래된 것으로 약500년된 백일홍 5그루는 마을나무(10-22-7-1-66)로 1998년에 지정되어 있다.

○ 미담 전설

이문리와 접경해 있는 나산강 중류에 위치한 보(洑)가 있었는데 이 보가 자주 터지므로 보를 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돈네'라는 처녀를 신에게 바치는 제사를 지낸 후부터 이 보가 터지지 아니하고 마을앞 장파금 들을 옥토로 일구게 되어 보이름을 돈네보라 부른다.

○ 풍수지리

·노루명당 : 함평이씨 효우당 "접"(懾)의 묘로써 사냥꾼에게 쫓겨 위기에 처한 노루를 나무꾼이 구해 주었든바 그 보은의 뜻으로 노루가 묘터를 암시 한데서 유래 되었으며 이 묘를 쓴 후 효우당 후손들이 번성하였다 한다.

○ 특기사항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중앙교회(신도 400명)와 삼축리 438-1번지에 태고종 수명사(1970년 창건)가 있다.

현 나성노인당(구 신사터)에서 나산강에 이르는 지역에 '99공공근로 사업으로 전국에 산재한 장승 60여기를 기능별로 재현한 전통장승 공원을 조성하고 벗나무를 심고야외무대를 만드는 등 수변공원을 마련 면립공원화 하였다.

또한 나산면사무소가 1997년에 하장기에서 이거해왔고, 1999년에 나산 소방지소가 신축되었

으며, 2009년도에 보건지소를 신축 이전되었으며, 또한 나산초등학교는 1940년 나산리에서 이거하여왔다.

(4) 상축(上丑)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35	16	19	16	16		미맥		벼농사
성 씨								
계	진주정	해주정	함평이	기 타				
16	5	5	3	3				

○ 마을형성 및 지명 유래

상축

남원부사와 예조판서를 지낸 진주정씨 정이방(鄭以方)이 세조가 즉위하자 퇴임하여 낙향하면서 향리인 월야면 달애기를 떠나 이곳에 정착한 것으로 보아 이 마을의 형성된 시기를 최소한 1450년대로 볼 수 있다.

지형이 소 위 형국이어서 예전에는 싸리 축(丑)이 아닌 소 축(丑)을 써서 '三丑'이라 했다는 설이 있으며 마을이 생기기 전에는 비싸릿대가 무수히 자생한 곳으로 싸리나무를 베어내고 그곳에 마을 터를 잡았다는 설이 있다.

동축, 하축, 상축을 합쳐 '쌀울' 이라 하며 이 마을은 마을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윗쌀울(上丑)' 이라고 부른다.

○ 유적·유물

·평 릉 : 이 마을 뒷산에 비지정문화재인 평릉이라 부르는 고분군이 있는데 형태가 뚜렷한 것이 5기, 밋밋한 것이 3기며 대표적인 1기의 크기는 둘레 20m, 높이2m 정도다. 나산면이 되기 이전의 면인 평릉면이라는 면의 이름이 이 분묘 이름인 평릉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또한 약 1900년경에까지도 대추나무로 만든 급제솟대(솔대)와 해주 정(鄭)공 농암(農埯)초당이 있었다.

·두남재 : 1934년에 정태순이 세운 강학소로 농암 정태순의 농암실록이 전하고 있다.

·고인돌군 : 국도24호선 마을 진입로 맞은편 구릉에 5기가 있다.

○ 미담 전설

이 마을 뒷산에 평릉(平陵)이라는 고분이 있는데 구전에 의하면 이 분묘 중 1기는 왕 또는 부마묘라 전해오고 있으며 예전에는 묘각과 묘지기가 있었고 언제부터인가 묘각과 묘지기는

없어졌으나 이 묘를 잘 돌봐주고 벌초를 해 주면 큰 인물을 낳게 된다는 전설이 있어 여러 사람들이 남몰래 가꾸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나 짐승의 피해를 받지 않고 있으며 현재도 주인 있는 묘보다 더 잘 보존되고 있다. 묘의 봉토는 채로 친 것 같이 자갈하나 섞여 있지 않으며 잔디가 잘 심어져 풍우의 피해도 없다. 1930년 이 분묘의 동쪽 100m지점에 밭을 일구다가 주축돌과 기와편이 다량 발견됨으로써 옆에 묘각이 있었다는 전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 자생조직단체

·상부계(相夫契) : 계원 상호간의 부조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약 100여년전 창립, 총 17가구가 참여.

○ 특기사항

일제강점기에 축동에 거주하는 낙안 오영찬(吳永瓚), 진주 정일삼(鄭壹三)은 정흥숙(鄭興淑)등 수 십명의 동지를 규합 김태원(金泰元)장군 휘하에 들어가 담양 전투등 의병활동을 한 공로로 건국 훈포장을 받은바 있다.

○ 배출인물

·정헌춘(鄭憲春) : 광산경찰서 경감역임
·정일삼(鄭壹三) : 항일의병
·정기채(鄭基采) : 금호타이어 쿠웨이트 지사장등 역임.

(5) 하장기(下場基)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238	124	114	110	74	36	미맥		벼농사, 상업
성 씨								
계	전주이	밀양박	함평이	전주최	기 타			
110	6	7	6	4	87			

○ 마을형성 및 지명 유래

고막천 중류 나산강을 낀 저 평지의 수해(水害) 취약지로써 마을
이 언제 생성되고 어느 성씨가 먼저 정착했는지의 자세한 기록은 없으며 조선 숙종(1624-1720)때의 인물 함평이씨 이시정이 삼축리 태생이란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마을에 함평이씨가 가장 먼저 살았을 것으로 보이며 정착한지 백년이 넘는 성씨는 없고 여러 성씨가 모여 산다.

1932년 식지면과 평릉면이 나산면으로 개편되고 면소재지가 이곳에 정해지자 행정과 교통여건이 좋은 이곳이 번창하면서 장터를 형성하게 되었고 현재 나산면의 행정중심지로 발달하였다.

1932년 식지, 평릉이 합하기 이전에는 5일시장이 윗장터(성장기)에 있었으나 나산면으로 개편되면서 아랫 장터로 옮겨져 '하장기(下場基)'라고 부르게 되었다. 6.25 한국전쟁 때 월남한 난민들이 정착한 구호촌이 있다.

구름다리, 장파금들, 돈네보, 호만보, 다리목개, 새생이골, 물항골등 우리 말로 된 지명이 있으며, 지금의 노인당이 있는 산은 본래 금수산이었는데, 일제강점기시대에 명치산으로 고쳐부르게 하였으며, 일제가 신사을 세웠다.

○ 공공건물

건 물 명	규 모	건립년도	비 고
마을회관	30평	1979. 04. 05	
경 로 당(나심)	29평	2003. 05. 01	삼축리 234-4

○ 미담과 전설

산신령이 나산면에서 제일 넓은 들을 만들기 위해 이 마을에 있는 큰 바위가 흙을 운반하여 천주봉이라는 아름다운 산을 만들었다 하며 그 흙을 파낸 자리가 현재 장파금들이라 불리어 온다.

○ 특이사항

상장기, 문화마을과 함께 1995년에 도시계획이 수립된 행·재정의 중심지로써 다음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가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버스 정류소가 있다. 또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나산교회(신도수 230명)가 있다.

(단위 : 업소수)

계	의 류	식 당	이.미용	다 방	식육점	잡화(슈퍼)	농약	약국	병원	기타
51	1	12	6	3	4	5	2	1	1	16

○ 배출인물

·정진오(鄭鎭午) : 전라남도 기획담당관, 함평군수, 행정자치부 국장역임
·최병권(崔炳權) : 나산농업협동조합 초대, 고대 조합장 역임
·최형상(崔瀅翔) : 나산농업협동조합 24대 조합장 역임
·전철웅(全哲雄) : 서울 은평 드라이브타운 사장 ·이종기(李鍾基) : 한양상사 사장

(6) 하축(下丑)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79	37	42	31	30	1	미맥	화훼	미맥
성 씨								
계	신평송	죽산안	밀양박	기 타				
31	5	6	7	13				

○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이 마을은 동축마을과 같은 시대에 신평송씨 송긍(宋兢)이 임진왜란때 정착하여 4백여년이 된터이다. 경주이씨는 덕림리 백양골, 죽산안씨(竹山安氏)는 나산리에서 이거하여 10여대씩 났다. 마을이 생기기전 비싸릿대가 무수히 자생한 곳으로 이 싸리나무를 베어내고 터를 잡았기에 '쌀울'이라 했으며 아래쪽에 있어 '아랫쌀울(下丑)'이라고 불리운다.

○ 유적·유물

·낙안오씨 삼강비 : 1935년에 건립.

○ 자생조직단체

·상부계(相夫契) : 계원 상호간의 부조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약 100년전 창립, 총 25가구 참여.

·회갑계(回甲契) : 을해생 회갑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1945년에 창립, 총 3가구가 참여.

○ 배출인물

·오영찬(吳永瓚) : 독립유공자, 1983년에 대통령표창.

·박남혁(朴南赫) : 6대 나산면장 역임 ·박영혁(朴榮赫) : 나주세무서장 역임

·오병조(吳炳朝) : 함평군 민방위, 의회 사무과장 역임

5) 송암리(松岩里)

이 지역은 당초 식지면에 속했고 군내에서 선비 고을로 알려져 크고 작은 인물이 끊이지 않는다.

요즘에도 사법고시 또는 행정시험 합격자가 계속 나오고 언론인도 잇따르고 있다. 송계사(松溪

祠)와 송암사(松巖祠)가 있어 많은 선비를 배출했다.
관내에 죽리, 송암, 송계, 월악동, 상촌, 음지, 양지, 불매동, 양산동 등 9개 마을을 두고 있으나 불매동과 양산동은 최근 주민이 모두 떠나 버려 폐촌이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이제(里制)를 실시하면서 식지면의 송암(松岩), 송계(松溪), 신기(新基), 덕림(德林), 학송(鶴松), 양산마을 전역과 봉학 일부를 묶고 송암 마을의 이름을 따 송암리라 하였다.

이 지역은 땔감과 흙, 물이 좋아 질좋은 조선자기를 만들었던 곳이다.

(1) 상촌(上村) 월악동(月岳洞)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11	7	4	7	6	1	미맥		미맥
성 씨								
계	영산신	광산노	기 타					
7	2	2	3					

상촌

월악동

○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조선 성종 때 광산 노씨가 송암리 송계마을에 정착하자 송계 마을과 인접한 지금의 상촌마을도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송계마을보다 위쪽에 위치한 탓으로 상촌(上村)이라 부른다.

막석굴 또는 월악동을 상촌에 포함시키키도 하고 분리시키키도 한다.
여기서는 포함시켰다.

○ 지명

·월악동(月岳洞) : 송계 동쪽에 있는 마을로 옛 지명은 학송(鶴松)이다.

(2) 송계(松溪)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9	6	3	4	9	1	미맥		미맥
성 씨								
계	광산노	광산김	죽산안					
4	2	1	1					

○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송계

조선조 성종때 어모장군(御侮將軍)과 호군(護軍)을 지낸 광산노씨 (光山盧氏) 노상지(盧尙枝, 1461~1547)가 광주에서 송암리 음지에 정착하였다가 송계로 이주하면서부터 마을이 형성되었으니 마을이 생긴 지 400년은 넘는다. 지금도 대다수가 노씨여서 송계를 노씨 터라 부른다.

노상지의 아들이며 중종때 문과에 급제하여 남원부사를 역임했던 노극창의 호가 송계였던 까닭에 마을 이름을 '송계(松溪)'라 했다고 전하며 송계사(松溪祠)가 현존해 있다. 생계라고 불리기도 한다.

○ 유물·유적

·송계사(松溪祠) : 조선조 중종때 남원부사를 지낸 송계(松溪) 노극창(盧克昌)을 배향하는 곳이다. 1884년 창건, 1946년 복설

·학산처사 신공각금 의적비 (學山盧士 辛公却金 義跡碑) :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에서 양반층 노인들에게 작위(爵位)를 주거나 특별 하사금을 준 일이 있는데 이 마을사람 신성준(辛性準)만이 그들을 크게 꾸짖고 일제의 온갖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하사금을 거절하며 민족의 지조를 지킨 유덕을 기리기 위해 군내의 유림들이 이 비를 세웠다.

·송암리 도요지 : 불매마을 서쪽 20m지점에 위치, 제작 시기는 19C로 추정

○ 자생조직단체

·위친계(爲親契) : 계원 상호간의 친목과 부모상에 대비할 목적으로 1943년 창립, 총 5가구가 참여.

○ 배출인물

·노광섭(盧廣燮) : 나산 지서장 역임

·노준섭(盧俊燮) : 지서장역임

·노상필(盧祥弼)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장

(3) 송암(松岩)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25	14	11	16	13	3	미맥		미맥
성 씨								
계	영산신	함평이	밀양박	기 타				
16	11	1	1	3				

송암

○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이 마을은 고창현감 등 여러 고을 수령을 지낸 영산신씨 신함(辛諴)이 연산군(1495~1505) 말년에 나산리 동촌에서 살다가 이곳 송암에 터를 닦았으니 마을이 형성된 지는 줄잡아 500여년이 넘는다고 볼 수 있다.

이 마을 신씨 가문인 신유장, 신시만 부자가 진사를 지내는 등 인물을 배출하였으므로 이 마을을 신씨터라고 불리어 온다.

마을 건너편에 거대한 바위가 있고 입구에 몇 아름 되는 소나무가 있어 송암이라 했다 한다.

○ 공공건물

건 물 명	규 모	건립년도	비 고
경 로 당(송암)	21평	2002. 03. 01	송암리 493-1

○ 문화유적

·송암사지(松岩祠祉) : 영산신씨 3현을 기리기 위해 1847년(현종 13년)에 건립된 사우로써 마을 뒤쪽에 위치하였으며 신극례(축산군), 신극경(좌명공신), 신효돈(부사)을 배향한 곳이었으나 1868년 대원군 서원 훼철령에 의해 훼철되고 지금은 유허비와 주춧돌만 남아 있으며 신씨 종가에 1천여권의 고서가 있다.

·정단예가옥 : 19세기초쯤 건물로 3칸규모에 측면까지 툇간을 둔 것이 주목됨.

·신호열생가 : 1970년대에 '민족문화추진회'를 통해 한자유산의 번역 및 한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립 주도한 우전 신호열의 생가이다.

○ 풍수지리

옛날에 영산신씨가 풍수지리설에 의하여 비록 산촌이지만 석학명사가 많이 나을 것이라 해서 마을 뒷산을 문필봉(文筆峯)이라 했다하는데 실제로 옛날부터 석학명사가 많이 나고 있다.

○ 지명

·점골(송암요) : 조선조에 도자기를 만들었던 곳.
·문바위 : 송암에서 음지, 양지로 들어가는 길 양쪽에 두 바위가 문설주처럼 서 있었으나 1994년 도로 공사시 훼멸됨.
·건지봉 : 송암 서쪽에 있는 산으로 망곡단(望哭壇)이 있음.

○ 자생조직단체

·상부계(相夫契) : 계원 상호간의 부조와 친목을 목적으로 1935년 창립, 현재 총 12가구가 참여.

○ 배출인물

·신유장(辛裕章) : 성균관진사, 송암사 배향 ·신시만(辛時萬) : 유장의 아들, 성균관진사
·신성준(辛性準) : 유장의 손자, 우국지사 ·최정익 : 군 법무관(현)
·신경열(辛暻烈) : 함평향교전교 역임
·신호열(辛鎬烈) : 한학자이며 명필가. 바둑의 명인
·신기하(辛基夏) : 12, 13, 14, 15대 국회의원
·신종렬(辛種烈) : 전 신광지서장, 대한노인회 나산면 분회장
·신홍렬(辛洪烈) : 전라남도 유도회장 역임 ·신기린(辛基燐) : 14대 나산면장 역임
·신대규(辛大奎) : 광일토건(주) 사장, 광주향교 전교역임
·신식원(辛植元) : 명선설비(주) 사장 ·신형인(辛炯寅) : 금호그룹 부사장(현)

○ 노거수

·송암리 652번지 신종천 집 정원에 조선조 22대 정조4년(1780)에 심었다는 영산홍(映山紅) 나무가 있음.
·노거수 : 마을 당산목으로 수령 300년생 느티나무가 마을나무(10-22-7-7-34)로 1995년에 지정되어 있다.

(4) 양지(陽地)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5	3	2	3	2	1	미맥		음식점, 미맥
성 씨								
계	광산김	순흥안	기 타					
3	1	1	1					

○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이 마을에 터를 잡고 살았던 사람이 모두 다른 지방으로 이주 해 버려 형성된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옛 지명은 덕림(德林)이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중 3대 이상 살아온 사람도 없다.

음지의 터가 생긴 후로 추정되어 약 300여년전에 형성된 터로 본다. 산중이라 햇볕이 일찍 지는 것이 통례이나 이 마을은 볕이 오래동안 지지않아 마을 이 름을 '양지(陽地)'라 했다고 한다.

양지

○ 지명

·서당밭 : 옛날 글방이 한 군데 있었는데 이 자리에 밭을 일구면 수재가 많이 나온다해서 서당밭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다.

·불매동 : 양지의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80년대 초에 폐촌되고 빈 집만 남아 있다. 연화형 지세로 불모 명당이 있다하여 불매(佛梅)로 불렀다.

○ 자생조직단체

·상부계(相夫契) : 계원 상호간의 상부상조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1910년 창립, 총 6가구가 참여.

○ 배출인물

·양회철(梁會喆) : 광주 지방법원 판사 현 변호사

·김용달(金容達) : 청와대 노동담당 비서관(국민의정부)역임

·김정희(金正熙) : 행정고시 합격(93년)

(5) 음지(陰地)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9	6	3	5	4	1	미맥		미맥
성 씨								
계	낙안오	죽산안	함평이	기 타				
5	1	1	1	2				

음지

○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조선조 성종때 광산노씨(光山盧氏) 노상지(盧尙枝)가 광주에서 이주하여 마을을 형성했다고 하니 형성 시기는 500여년이 넘는다.

옛 마을은 덕림(德林)이다. 최초로 광산노씨가 살다 송계로 이주하였고, 그후 제주양씨(濟州梁氏)가 터를 잡았으나 모두 이주하였으며 지금은 각 성씨가 모여 살고 있다.

장시간 많은 응달이 지는 마을이라서 마을 이름을 '음지(陰地)'라 했다고 전하며 현재도 오후 2시만 넘으면 해가 진다.

※ 노상지는 盧克昌(1482~1568)의 아버지

○ 자생조직단체

·상부계(相夫契) : 계원간의 상부상조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1920년 창립 총 9가구가 참여.

○ 지명

·사기점터 : 음지에 있었던 사기점 자리

·문바위 : 송암에서 음지 양지로 들어가는 길목에 바위가 있는데 한 사람 정도만 드나들 수 있는 좁은 입석이었으므로 '문바위'라 이름지었다 한다.

○ 특기사항

조선조 중기때 분청사기 요지가 있었다. 그리고 1985년도에 양산마을터에 "양선암"이 창건되었다.

(6) 죽말(竹里)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23	11	12	15	14	1	미맥		미맥
성 씨								
계	해주최	선산김	기 타					
15	6	6	3					

○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조선조 선조 31년 해주최씨 최화(崔華)가 경기도 양주에서 임란을 피하여 전라도 무장(武長)에 일시 머무르다가 다시 남하하여 정착하면서 마을을 형성하였고 100여년전

선산김씨 김병규(金秉圭)가 입주하면서 최씨와 함께 주종을 이루었다.

죽말

당초 마을 뒤에 송죽림(松)竹林)이 무성하게 자라 두루미(황새)가 철따라 서식함으로써 '송학(松鶴)'이라고 불리었다가 이 철새가 떠나고 온 마을에 오죽(烏竹)이 무성하여 한때는 '죽천동(竹天洞)'이라 불리어지기도 했으며 구한말과 한일합방 후에 '죽동(竹洞)' 또는 '죽리(竹里)'라 불리어진 이래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오죽이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 공공건물

건 물 명	규 모	건립년도	비 고
경 로 당(송죽)	21평	2007. 11. 13	송암리 693-1

○ 유적·유물

·죽촌 최상만(崔相萬)선생 송덕비

○ 지명

·온정지 : 마을앞 농막 주변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이 솟았으나 경지정리로 폐쇄됨.

○ 자생조직단체

·상조계(相助契) : 계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제시 협력을 목적으로 100년 전 창립, 총 15가구가 참여.

○ 배출인물

·김봉석(金鳳錫) : 함평향교 전교 역임　　·김동석(金東錫) : 한학자
·김영배(金永培) : 함평농고 서무과장 역임　　·김영기(金泳錡) : 목포시청 과장 역임
·김영택(金泳澤) : 동아일보사 편집위원,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역임, 이학박사
·최상만(崔相滿) : 초등학교 교장 역임

○ 특기사항

마을 입구에 1967년에 개교한 나산동초등학교가 있었으나, 학생수 감소로 1996년에 폐교되어 현재는 광주 서문교회 수양관으로 활용되고 있음.

6) 수상리(水上里)

이 지역은 식지면에 속했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이제(里制)를 실시하면서 식지면의 용계(龍溪), 유덕(有德), 황산(黃山), 월현(月玄), 성재(成才), 대안촌(大安村) 전역과 나주군 도림

면(道林面, 현 광주직할시 삼도)의 수양(水良) 마을을 묶어 수상리(水上里)라 이름 하였는데 이곳은 나산면을 관통하는 나산강의 가장 위쪽에 있다고 해서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붙여진 이름으로 즉 "웃물골"이다.

현재 월현, 성재, 대안촌, 유덕, 신촌, 대포리마을을 관할하고 있으며 동으로 광주직할시 남으로 나주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1) 대안촌(大安村)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21	8	13	9	8	1	미맥	양잠	미맥
성 씨								
계	전주이	함평이	기 타					
9	3	3	3					

○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이 마을에 누가 먼저 살았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다섯 본관의 이씨(李氏), 전주(全州), 함평(咸平), 경주(慶州), 전의(全義) 고성이씨(固成李氏)가 살았으며 항일 의병장 김태원이 나주문평 갈마지에서 이거하여 살았던 마을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마을은 한말 의병의 격전지가 되었다. 박영근(朴永根) 오성술(吳成述) 이기손(李起巽)등의 전투사를 보면 유덕산(有德山)과 대안촌(大安村)을 수 없이 드나들며 싸운 내용이 실려 있다. 그것은 전술상 지세가 유리한 곳이기 때문이다. 대안촌(大安村)은 대한촌(大寒村)이 더 적격일 것으로 느껴지는 마을이다. 동구에 들어서면 둘레 4m, 높이 20m의 느티나무가 영락정을 우산처럼 덮고 있어 온 종일 햇볕이 들지 않아 정자 밑은 삼복(三伏)을 모르고 지낼 만큼 시원하기 때문이다.

○ 유적·유물

이 마을에 도요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한다.

·노거수 : 마을 정자 옆에 수령 400년생 느티나무가 마을나무(10-22-7-6-37)로 1995년에 지정되어 있다.

○ 전설

이 마을에는 수령이 약 400년 정도되는 느티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봄에 잎이 한꺼번에 피면 풍년이 들고 나누어 피면 흉년이 들어 농사의 길흉을 점치는 나무라 한다.

○ 자생조직단체

·상부계(相夫契) : 계원 상호간의 부조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1910년 창립되어 총 17가구가 참여하고 있다.

○ 배출인물

·김태원(金泰元) : 항일 의병장,건국훈장 국민장, 국립묘지77호에 안장.
·오성술(吳成述) : 항일 운동가 ·이기손(李起巽) : 항일 운동가
·이돈창(李敦昌) : 인류학 박사, 미국죠지아주립대학 교수

(2) 월현(月峴)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53	25	28	34	34	2	미맥	양잠	미맥
성 씨								
계	죽산안	상산김	나주오	기 타				
34	18	14	1	1				

○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선산김씨(善山金氏)가 배문이(용두리 선박)에서, 죽산안씨(竹山安氏)가 광주에서, 여양진씨 (麗陽陳氏)가 나주도야(현 광주시 광산구 삼도동)에서 거의 같은 시기인 200여년 전에 들어와 정착했다 고하며 그 후 경주김씨(慶州金氏)는 1870년 경 삼도면 삼거리에서 나주정씨(羅州鄭氏)는 유덕에서 옮겨 왔는데 지금은 안씨촌이라 할 만큼 안시 일가가 자작일촌하고 있다.

이 마을은 유덕산과는 고개 하나 사이인데 유덕산보다는 250년 정도 늦게 생긴 마을이다. 개기(開基)당시에는 '샛터'라고 부르다가 마을이 형성되면서 마을 앞산이 토끼봉이고 뒷산이 반달모양 같다고 하여 옥토망월(玉土望月)이란 뜻에서 월현(月玄, 月峴)으로 바꾸어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공공건물

건 물 명	규 모	건립년도	비 고
공동창고	25평	1975. 4. 10	
경 로 당(월현)	26평	2003. 12. 03	수상리 971-11

○ 자생조직단체

·상복계(喪服契) : 계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제시 부조를 목적으로 100여년 전에 창립, 총 29가구가 참여하고 있다.

·친목계(親睦契) : 계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1920년 창립하여 총 18가구가 참여.

○ 특기사항

·양잠없이 1980년부터 사양길에 접어들었으나 군내에서 이 마을만 유일하게 상전 11ha를 현재까지 보전하고 있으며 누에꼬치 생산보다는 건강 보조식품으로 누에가루를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1998년경에는 누에 동충하초를 생산하기도 했다.

○ 배출인물

·정병기(鄭炳基) : 신명그룹, 현대페인트(주) 회장(현), 국제라이온즈클럽 309지구 (한국)회장 역임

·안중섭(安仲燮) : 광주서구청 건설과장 역임 ·진용범(陳容範) : 여수경찰서장 역임

·정일용(鄭一龍)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역임 ·정다복(鄭多福) : 광주시 양동동장 역임

·안재풍(安在豊) : 광주 광역시 남구의회 2대, 3대 구의원 역임

·성행규(成行圭) : 목포역 공안실장 역임 ·진용태(陳庸泰) : 사법고시 합격, 변호사

·진석만(陳錫鏝) : 담양우리안과원장 ·진유남(陳有男) : 진치과원장

·안민철(安敏哲) : 군산대교수

(3) 유덕(有德)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72	31	41	43	40	3	미맥	양잠	미맥
성 씨								
계	나주정	김해김	나주나	절강편	함평이	기 타		
43	6	16	3	1	11	6		

○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1550년 경조선 명종(明宗)때 함양박씨(咸陽朴氏) 흠종(欽宗)이 광주에서 이거하여 터를 잡았

으며 지금은 나주정씨등 여러 성씨가 모여 사는데 모두 백년 전후에 입주하였다. 주민들이 선량하고 마을에 덕이 있다고 하여 마을 이름을 유덕(有德)이라 했다고 전한다.

1789년 호구 총수지명은 유덕산(有德山)으로 되어 있다.

○ 공공건물

건 물 명	규 모	건립년도	비 고
마을회관	30평	1980. 4. 30	
경 로 당(유덕)	31평	2003. 09. 09	수상리 756

○ 유적·유물

·궁평장(弓坪場) : 유덕마을 입구에는 옛날에 도강 김씨들이 설치한 궁평장터가 있었다. 유덕마을은 앞산이 높고 뒷산이 낮은 관계로 천옥으로 된 산촌이지만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이곳은 시장이 들어섰다가 없어지는 망평장(亡坪場)이 될 것이라고 하여 궁평장을 지금까지도 망평장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 장은 한말까지는 존속하였지만 지금은 김씨들 마을이 되고 시장터는 농경지로 변했다.

·유덕영당(有德影堂) : 1950년에 창건된 것으로 성리학자인 나도의(羅燾毅)를 배향

·나도의비 : 금와(錦窩)선생 나공지비(羅公之碑)와 효열부전주리씨기실비각(孝烈婦全州李氏紀實碑閣)이 마을 입구에 있다.

○ 지명

·대포리(大浦里) : 유덕마을 입구 궁평들 남쪽 지방 825호선 변에 있는 마을

·신풍(新豊) : 용계와 유덕마을을 통틀어 일컫는 말

·황산(黃山) : 유덕 동쪽에 위치하고 뒷산이 황토임

·괴바우등 : 고양이같이 생긴 바위

·불무깨, 선창이, 대청지, 삵재, 박정지(泊定地)등의 지명이 있음.

○ 특기사항

대한예수교 장노회 소속 “동부교회(신도수 40명)”가 있다.

○ 배출인물

·편무경(片茂景) : 항일의병 운동가

·박영근(朴永根) : 항일운동의병장

·이기헌(李基憲) : 한국제일입시학원이사장

·나공수(羅工洙) : 영남대교수

(4) 성재동(成才洞)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35	18	17	20	20		미맥	양잠	미맥
성 씨								
계	전주이	김해김	기 타					
20	12	5	3					

○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약 100여년 전까지 진주강씨(晉州姜氏)가 마을을 형성하여 살 았다고 하나 구전일 뿐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또 나주정씨(羅州鄭氏)가 들어와 10대를 살았으나 지금은 겨우 한 집이 살고 있고 함양박씨(咸陽朴氏)와 능주주씨(陵州朱氏)는 이곳에 옮겨 온지 백년 미만이다.

마을 뒤의 사실재는 항일의병과 왜 헌병이 접전한 전적지이며 재주를 이룰 수 있는 마을이라 해서 마을 이름을 성재동(成才洞·1789년 호구 총수지명은 聖才洞)이라 했다고 한다.

○ 지명

·사실재(沙實峙) : 성재 서쪽에서 이문리 석지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는데 이곳은 한말 의병들의 활동지로써 이곳에서 왜군들을 무찔렀다고 한다. 이곳은 신풍과 용계를 접하고 있어서 사실치라고 한다.

·대성(大成) : 대안촌과 성재를 통틀어 일컫는 말

7) 수하리(水下里)

당초 식지면에 속했던 구역으로 1914년 이제(里制)를 실시하면서 식지면의 백인(白仁), 장재(長才), 화전(花田), 마흘(馬屹), 내기(內基), 대치(大峙) 마을 전역과 은구(殷九) 일부를 묶어 수하리라 하였다.

수하리(水下里)란 나산면에서 물 아랫 마을 즉 나산강의 하류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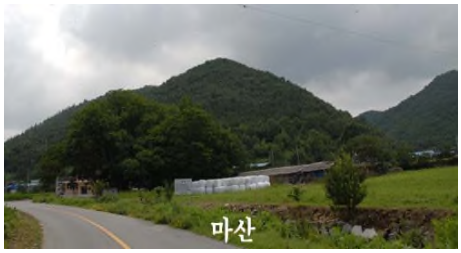
현재 관할에 화전 마산 장재 백인 마을을 두고 있다.

(1) 마산(馬山)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58	29	30	27	25		미맥		미맥
성 씨								
계	무안박	진주강	고흥유	광산김	함평이	달성배	기 타	
27	4	6	4	5	3	2	3	

○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마산

1400년경에 서씨(徐氏)가 처음 입주하였고 300여 가구 이상의 큰마을을 형성하여 여러성씨가 거주하였다고 하는데 지금도 안터(安基)골 큰뫼(大山)에 서장군 묘라는 무덤이 있고 또 절골에는 말 무덤이라 전해오는 무덤이 있다.

일제강점기 때 그 무덤에서 칼 2자루가 출토되었는데 그 칼은 당시 나산 주재소에서 가져갔다고 전한다. 당초에 입주한 성씨는 현재 한가구도 없으며 200여년전 풍수지리학에 능통한 무안박씨(務安朴氏) 박화진(朴華震)이 곳곳을 방랑하다가 이 마을을 적지로 생각하고 정착하였다 하며 현재도 그 후손들이 살고 있다.

이 마을은 뒷산인 국사봉(國士峯, 國駟峯)에 이어 매봉산을 주령으로 하여 산봉우리와 골짜기가 많은데 산의 형태가 말 형국과 같다 하여 마을 이름을 '마산(馬山)'이라는 설이 있으나 말무덤에서 유래 된듯하다. 1789년 호구 총수에는 마흘산(馬屹山),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는 마흘(馬屹)로 표기되어 있다.

○ 공공건물

건 물 명	규 모	건립년도	비 고
경 로 당(마산)	19평	2009. 09. 07	수하리 268-1

○ 유적·유물

·서장군묘 : 안터골에 있는 고분

·말무덤 : 절골에 있는 고분, 마산이라는 지명은 이 고분에서 유래된 듯하다.

·노거수 : 마을앞에 수령 600년된 느티나무가 면나무(10-22-7-6)로 1992년에 지정되어 있다.

○ 민속

·당산제(堂山) : 이 마을에서 가장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을 뽑아 제 올리기 15일 전부터 목욕

재계하고 뽑힌 사람 집에서 모든 음식을 준비하여 음력 정월 보름당산제, 국사봉 산신령제, 뒷산 천룡제, 팽나무제를 올리며 마을사람 전체가 밤새도록 불을 피우며 농악놀이를 한다.

이 행사는 마을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몇 년도에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음력 정월 유사는 내외의 생기복덕(生氣福德)으로 운을 맞추고 축관(祝官) 1명, 복직 1명도 생기복덕으로 정월초에 운을 맞추어 정하면 이 사람들은 마을에 당고가 있어도 가지 못하고 십오일 일몰이 되면 국사봉에 올라가 산신제를 모시고 뒷산에서 천룡제를 모신후 자정에 당산제를 끝으로 모두 마친다.

유사 축관 복직 3인은 1년 동안 초상집 조문을 금한다.

○ 지명

·호만보 : 이 마을에 살던 한씨들이 단독으로 만든 보라고 전해온다.
·절골 : 말뫼 안 골짜기에 절이 있었다.
·대치 : 마산 동쪽에 있었던 마을 뒤쪽에 큰 재가 있었음.

(2) 백인(白仁)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36	14	22	13	13		미맥		미맥
성 씨								
계	전주이	김해김	기 타					
13	5	2	6					

○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백인동

마을 입구에 5기의 고인돌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오래전부터 주거지가 형성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옛날부터 이곳에 백자기를 만들던 이주민이 정착해 살았다 하는데 지금은 한가구도 살지 않고 있다.

인근 마을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살고 지금도 마을 뒤에서 나는 고령토는 질이 좋기로 유명하다. 마을 앞산 국사봉을 주봉으로 하여 여러개의 봉이 이 마을을 감싸고 있고 이 골짜기에서 흘러내려 온 맑은 시냇물이 마을 앞을 흐르고 있다. 여기 뒷산에서 나는 고령토로 백자기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백인동(百人洞)'이라 불렀다고 하는데 고쳐서 '百仁洞'으로 쓰고 있다. 지금은 흙의 가치만 인정할 뿐 후계자도 없고 누가 그릇을 만들었는지도 알 수 없다.

○ 유물·유적

·고인돌군 : 마을 입구에 5기가 동-서 방향으로 지방도 825호와 인접한 평지상에 있다.

○ 지명

·은구 : 백인 남쪽에 있었던 마을

·호만평 : 백인 마을 동북쪽에 있은 들

(3) 장재(長才)-1789년 호구총수에는 壯才로 표기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69	33	36	32	31	1	미맥		미맥
성 씨								
계	인동장	해주최	김해김	함평이	잔쥬종	기 타		
32	4	6	7	4	2	9		

○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1740년경에 함평에서 살던 인동장씨(仁同張氏)가 개촌(開村)했다고 하며 1770년대에 고창에서 살던 남치엽(南致曄 ·1744~1803)이 이거 정착했다.

마산 화전에 비해 제일 늦게 마을이 형성되었으며 옛날 말뫼(馬山)에서 이 마을로 오는 도중 재가 너무 길어 장재(長峙)라 했는데 좋은 뜻이 담긴 '才'자로 바꾸어 표기했을 것으로 여기고 있다.

○ 공공건물

건 물 명	규 모	건립년도	비 고
공동작업장	32평	1976. 04. 15	
경 로 당(수하2리)	30평	2004. 12. 01	수하리 742-1

○ 유적·유물

·마을 앞에 의령 남세일(宣零 南世日)의 충효행을 칭송하는 영세불망비 및 송덕비가 있다.

·마을 앞 느티나무 노거수는 수관이 6개로 왕관처럼 가지가 나 있으며, 수령은 350년정도이다.

·고가인 남상복가옥은 1925년에 건립되었으며, 정면 5칸규모의 기와집이다.

○ 배출인물

·남상복(南相福) : 수하단위농협장 역임

·장관선 : 진숙건설 및 용암철강 대표

○ 자생조직

마을의 대소사를 논하는 촌계가 운영되고 있다.

(4) 화전(花田)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66	32	33	41	38	3	미맥		미맥
성 씨								
계	진주강	죽산안	광산김	밀양박	함평이	기 타		
41	10	9	8	2	4	8		

○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화전

대략1500년경에 마산마을에 살던 진주강씨(晋州姜氏)가 제일 먼저 정착하여 마을을 형성했다는 설이 있으나 자세한 내력은 알 수 없다.

지금은 죽산안씨(竹山安氏)가 마을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마을 앞 밭에 꽃이 많아 '화전(花田)'이라 했다는 설과 마을 뒷산에 화심혈(花心穴)이 있어 '화전'이라 했다는 설이 있다.

○ 공공건물

건 물 명	규 모	건립년도	비 고
마을회관	40평	1978. 4. 29	
공동창고	16평	1975. 4. 5	
경 로 당(수하)			수하리 417-1

○ 유적·유물

·송암정 : 동네 가운데에 송암정(松岩亭)이 현존한다. 경주 이종문(李鍾文) 서식조

·기우제 : 가뭄이 들었을 때는 국사봉에서 보리짚등으로 기우제를 지냄.

·마을 내 하천가에 있는 버드나무는 수령이 약600년정도로 둘레가 6m이다.

○ 지명

·무너미재 : 산맥을 넘어서 마산에서 장재로 가는 고개이름, 나산천 양수장(1960년대시절)물이 넘어간다.

·솔대거리 : 이남규, 철규 형제가 사마시에 합격하여 금의환향할 때 솔대를 세운 곳이라 하여

지금도 솔대거리라 부르고 있다.(농협 창고자리) 신광면 계천리 솔대거리도 이남규의 사마시 합격하여 솔대를 세운 곳임.

○ 자생조직

·촌　계 : 1903년 창립, 마을의 제반 대소사를 의결 40명
·부녀회 : 1970년 창립, 친목 및 애·경사 상부상조

○ 특기사항

·수하리는 화전 마을 출신인 안수복이 수하리 리동조합을 잘 운영하여 전국 최초로 새농민상을 수상함으로써 더욱 유명하였으나 1989년 나산농협으로 합병되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신촌교회(신도수 33명)가 있다.

○ 배출인물

·이남규(李南奎) : 항일 의병장
·안종칠(安鍾七) : 16대 나산면장 역임
·안태종(安泰鍾) : 나산초등학교 교장 역임
·안희수(安熙洙) : 나산초등학교 교장 역임
·안성수(安晟洙) : 나산초등학교 교장 역임
·안상수(安晌洙) : 초등학교 교장 역임
·안계수(安桂洙) : 순천대 교수역임
·안수복(安洙福) : 함평군 3대 농협장 역임
·강종수(姜鍾洙) : 전남방직(주)상무이사
·강종호(姜鍾皓) : 일신방직 부장 역임
·안병호(安병鎬) : 함평축산업협동조합장, 민선5기 함평군수

8) 신평리(新平里)

원래 식지면에 속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신평(新平), 송산(松山), 연대(連大), 도장(道丈), 도산(道山) 마을 전역과 봉학(奉學), 동촌(東村), 나주군 용문면(현 문평면), 월계촌(月桂村)마을 일부를 합하여 신평리(新平里)라 하였다.

현재 관할에 신촌, 죽사동, 고례동 세마을을 두고 있다. 저수지 위쪽에 점방이라는 마을이 있었으나 1970년대 이후 심해진 이농현상으로 거주자가 없어 폐촌이 돼 버렸다.

도산 이 점뱅이/점방, 연대가 고려동으로 신촌이 새말/신평으로 변하는 등 군내에서 옛 지명이 가장 많이 바뀐 곳이다.

(1) 고례동(古禮洞)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2	1	1	1	1		미맥		미맥
성 씨								
계	영산신							
1	1							

○ 마을형성 및 지명 유래

수원백씨가 먼저 정착했다는 설만 전해올 뿐 자세한 내력은 알 수 없으며 그 뒤에 영산신씨와 한양조씨가 입주했는데 입주자의 대부분이 임진왜란 및 6.25 한국전쟁 때 피난처로 이용했으며 마을의 당산나무는 영산신씨가 심었다고 전한다. 원래 이름은 연대다. 마을 뒷산의 구절봉 봉우리가 거북이처럼 마을을 감싸고 있어서 당초에는 마을 이름을 구례(龜禮)라 했는데 나중에 '고례(古禮)'로 바뀌었다고 전하며, 속칭 고려동으로 불리기도 한다. 현재는 1가구가 거주한다.

○ 지명

·절 터 : 마을 뒷산 구절봉 산중턱에는 절이 9개 있었다 하며 옛날 절터가 있다.

·구절봉 : 구 식지면에서는 구절봉, 평릉면에서는 천주봉이 제일 높을 뿐만 아니라 기우제를 지낸 무제봉이기도 하다. 그리고 구절봉이라는 명칭은 산의 봉만이 아홉이어서 구절봉이라 했다고도 하고 절이 아홉 개가 있어다 해서 구절봉이라 한다는 설이 전한다.

○ 배출인물

·조민형(趙珉衡) : 공군소령 예편

(2) 신촌(新村)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52	22	30	25	24	1	미맥	고추,담배	미맥
성 씨								
계	여양진	영산신	김해김	평산신	남양홍	기 타		
25	5	4	4	2	2	8		

○ 마을형성 및 지명 유래

대략1700년경에 마을이 형성되었는데 처음 입주한 성씨는 남양홍씨(南陽洪氏)와 진주강씨(晋州姜氏)이나 이들은 한 호도 살고 있지 않고 현재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여양진씨(驪陽陣氏)는 나주에서 이곳으로 온지 백년이 넘는다. 김해김씨(金海金氏)는 100여년전 입주해왔다. 1789년

신평 신촌

호구총수와 1914년 행정구역개편때 지명은 모두 신평(新平)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후 신촌(新村)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우리말로 새마을(새말·새몰)로 부르는 것으로 보아 마을이 오랫동안 폐촌됐다가 다시 형성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 공공건물

건 물 명	규 모	건립년도	비 고
공동창고	35평	1973. 5. 1	
경 로 당(신평)	26평	2009. 01. 07	신평리 539-1

○ 유적·유물

·고인돌 : 마을 입구에 7기가 있다. 마을 정자를 중심으로 원형으로 산재되어 있으나 1984년 마을 정자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파괴 매몰되어 실측이 불가능하다.

·도요지 : 신평 저수지 남동쪽 500m지점 “점뱅이”마을(폐촌) 산사면에 17세기 후반기로 추정되는 요지가 있다.

○ 전설

이 마을에서는 옛날부터 예쁘고 맛있는 고추를 재배해 오기 때문에 타지에서 고추를 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다.

또한 이 마을에 여섯 개의 큰 바위가 있는데 어날 여섯 개의 바위가 모두 이 마을을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바위가 걸어온다’라고 소리치니까 그 바위가 그 자리에 멈춰서 버렸다 한다.

그래서 이 마을에 놓여진 이 바위를 지금도 원님바위, 중바위, 말바위, 장대바위, 두꺼비바위, 동낭치바위라고 부르고 있다.

○ 지명

·금석동 : 도장동 서쪽에 있었던 마을

·도장동 : 점뱅이 남쪽에 있었던 마을

(3) 죽사(竹寺)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4	2	2	2	2		미맥		미맥
성 씨								
계	한양조							
2	2							

○ 마을형성 및 지명 유래

남양홍씨(南陽洪氏) 진주강씨(晋州姜氏)가 먼저 정착했다는 설만 전할 뿐 자세한 내력은 알 수 없고 그 후 여양진씨(驪陽陣氏)인 진종선(陳從善)이 풍수지리설에 의거하여 몇 백년은 안주(安住)할 만한 곳이라는 생각하에 정착하였다 하며 한양조씨(漢陽 趙氏)는 1900년 전 후에 입주하였다.

마을 뒷산에 있는 구절봉에는 기암절벽이 많은데 바로 밑에 절이 하나 있으며 이절 주위에는 대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을 정도로 많아 마을 이름을 '죽사(竹寺)'라고 불렀다 한다.

○ 특기사항 :

우람한 구절봉의 정상에는 수백년의 회환을 지니고 있는 노송이 한 그루 있었는데 일본사람들이 일본송(日本松)이라 일컬었으며 일본인들의 지조가 저 소나무와 같다고 자랑삼아 얘기 했다고 한다.

6.25 한국전쟁때 당시 서나주 빨치산들의 본거지가 되는 바람에 이로 인한 피해도 많았다고 한다.

○ 배출인물

·진종선(陳從善): 효성과 형제우애로 귀감이 되어 전남도지에 실려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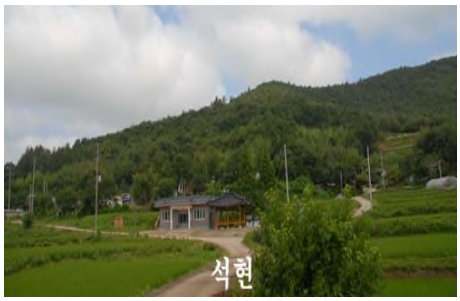
9) 용두리(龍頭里)

이 지역은 식지면에 속했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식지면의 용두(龍頭), 외세(外細), 괴정(槐亭), 성암(星岩), 회화(回化), 회룡(回龍), 선박(船泊, 배문이) 마을 전역과 나주군 도림면(道林面, 현 광주직할시 삼도)의 수양(水良), 함동(咸洞) 각 일부를 합쳐 용두마을의 이름을 이명(里名)으로 하였다. 현재 관할에 용두, 선박, 회룡동, 회화정, 오수, 선창, 석현 마을을 두고 있다.

(1) 석현(石峴,돌고개)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47	23	24	17	16	1	미맥		미맥
성 씨								
계	광주정	광산김	기 타					
17	8	2	7					



○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지금부터 약 1600년경 광산탁씨(光山卓氏)가 터를 잡고 살면서 탁부주 탁정승이 살았다고 하는데 기록이 없어 자세한 내력은 알 수 없으며 지금은 한 세대도 살지 않고 있다. 그 후 한씨(韓氏) 주씨(朱氏) 유씨(兪氏)등이 정착했고 나산리에서 살던 광산정씨(光山鄭氏)가 이곳으로 이거하여 정착한 후 현재 13대까지 살아오고 있다. 이 마을에서 안잔골(월야면 내세마을)로 가는 고개에 돌무더기(상황당터)가 있고 회화정(回化亭)과 고라실로 넘는 길에도 돌무더기가 있어서 '석현(石峴)' 즉 돌고개라 부르고 있다.

○ 공공건물

건 물 명	규 모	건립년도	비 고
경 로 당(원석현)	27평	2008. 09. 10	용두리 603-2

○ 지명

·고라실 : 돌고개와 사정 사이에 있는 마을로 "괴정"이라고도 한다.

○ 자생조직단체

·상복계(喪服契) : 계원 상호간의 친목과 부조를 목적으로 1920년 창립되었으며 총 15가구가 참여하고 있다.

○ 특기사항

지명 중에 홍살매와 솔대배미가 있는데 홍살문을 세웠다 해서 홍살매, 솔대를 세운 곳이라 해서 솔대배미라 했다고 한다.

이는 모두 탁씨의 전성기를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배출인물

·김용술(金用述) : 서울지방법원 민사과장 역임

(2) 선박(船泊)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44	20	24	16	15	1	미맥		미맥
성 씨								
계	광산김	선산김	진주최	기 타				
16	7	5	1	3				

○ 마을형성 및 지명 유래

선박

1498(연산군 4년) 무오사화 때 김종직(金宗直)이 부관참시 당하는 화를 입자 그를 사사(師事)하던 선산김씨(善山金氏) 석규(石圭)가 영남(嶺南)에서 난을 피해 이곳으로 와서 정착하여 김씨촌을 이루고 있는데 이보다 먼저 광산이씨(光山李氏)가 살았다고 하니 500년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배문이(船舶)는 배를 매었다는 뜻에서 온 말로, 옛날에는 고막천에서 이곳까지 배가 들어 왔으므로 '배문이'라 했다는 말 도 있다.

마을 형국이 배를 맨 형국이어서 선박이라고 했다는 말도 있는데 둘다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60년대까지만 해도 고막원 돌다리 밑가지 소금배가 들어왔고 짠물이 있었으며 고막천 유역의 지명중 소박등, 석지, 선창, 행주, 박정지 등과 배를 맨 곳이라는 말을 뒷받침해 주는 지명으로 돛대봉, 큰매등, 석화산, 조개재, 조판등, 깃대봉등이 이를 뒷받침해 주는 지명이 많이 있다.

또 석화산을 옆에 끼고 대봉산을 앞에 안고 있는 이 마을은 누가 보아도 배의 형국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와 경계 마을이다.

○ 공공건물

건 물 명	규 모	건립년도	비 고
경 로 당(선박)	26평	2008. 08. 07	용두리 63-2

○ 유적·유물

·선호사(船湖祠) : 1730년에 건립된 사우로 선산김씨(善山金氏) 점필제(佔畢濟)를 주벽으로 하고 용암 김석규(龍岩 金石圭 : 義), 죽포 김몽복(竹圃 金夢福 : 判書), 송포 김몽성 (松圃 金夢成 :), 삼석제 김여정(三惜濟 金汝淨 : 敎官), 모석제 김선창(慕惜濟 金善昌 : 敎官), 남은 김몽득(南隱 金夢得) 등 7위을 배향한다. 고종(高宗) 때 훼철되었다가 1982년 복원되었다.

김몽복과 김몽성이 선조때 무과에 급제 임진, 정유재란때 이충무공 막하에서 많은 전공을

세우고 노량해전에서 순절하였다. 정면3칸, 측면2칸의 맞배지붕건물이다.

·호은정(湖隱亭) : 선산김씨 호은 김해용(湖隱 金海容)이세운 누식 정자로 만년에 선호팔경(船湖八景)에 심취하여 금서(琴書)를 즐기며 속진(俗塵)을 멀리하고자 거처하던 곳이다. 송사 기우만(松沙 奇宇萬)이 정기(亭記)를 짓고 기봉현(奇奉鉉)이 상량문을 지었다. 1990년 건립하였다.

·유허비(遺墟碑) : 선산 김씨의 낙남(落南)선조인 김석규(金石圭)가 문장과 도학이 뛰어난 김종직(金宗直)의 덕을 추모하기 위하여 세운 선호사 유허비다.

·고인돌군 : 월야 용월리로 넘어가는 고개에 2기가 있다. “마당바위”라 불린다.

○ 자생조직단체

·상복계(喪服契): 계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제시 부조를 목적으로 1924년 창립되어 총 24가구가 참여하고 있다.

·혼인계 : 계원 자녀들의 혼인을 목적으로 1967년 창립되었으며 총 13가구가 참여하고 있다.

○ 특기사항

나산면 소재지에서 동쪽으로 삼도선을 따라 6km쯤 가면 참샘골이 나오는데 이곳을 물맞는 곳으로 여름철 한동안이면 수십리 안팎에서 부녀자들이 찾아와 장사진을 이루었다 한다. 요즈음 식당이 생겨 성업중이다. 배문이는 옛날에는 광산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어서 윗배문이는 광산배문이, 아랫배문이는 함평 배문이로 구분되어 함평에서 농사 지어 광산에 가서 먹었다는 말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광산배문이가 광주직할시로 편입되어 한 마을이 광주와 함평 관할로 나뉘어 있는 상태다.

○ 배출인물

·김교락(金敎洛) : 항일독립운동가,건국포상을 받음.·이용복(李溶馥) : 육군소령 예편

·김종달(金鍾達) : 국방부 방산국 무기실장 역임·김병용(金炳榕) : 육군중령 예편

·김기언(金起彦) : 현 육군대령·김중석(金重錫) : 대림산업 대표

·진용진(陳庸眞) : 현 육군소령

(3) 선창(船艙)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15	7	8	4	4		미맥		미맥
성 씨								
계	광산김	기 타						
4	2	2						

선창

○ 마을형성 및 지명 유래

한씨(韓氏)가 최초로 정착했다고 전하고 있으나 현재 한씨는 한 가구도 살지 않는다. 그 후 입주한 광산김씨(光山金氏)가 정착하여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옛날 영산강과 고막천을 따라 이곳까지 배가 다녔다고 해서 마을 이름을 '선창(船艙)'이라 불렀다고 전해 오고 있다.

○ 전설

옛날 이곳이 바다였을 때 어부가 고기를 잡아오면 도깨비가 나타나 모두 가져가 버리곤 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제를 올렸더니 도깨비가 그 정성에 보답하여 전마(錢馬)를 갖다주어 마을이 부자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지금도 이 마을은 잘 사는 마을이다.

○ 자생조직단체

·혼인계 : 계원 자녀들의 혼례비를 도울 목적으로 1961년도에 창립되었으며 총 6가구가 참여하고 있다.

(4) 오수(五水)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78	38	40	30	30	2	미맥	돗자리	미맥
성 씨								
계	상산김	김해김	기 타					
33	20	7	3					

○ 마을형성 및 지명 유래

오수

이문리 사정(沙亭)과 인접해 있는 마을이어서 약 1600여년 전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 상산김씨(商山金氏) 광산김씨(光山金氏) 등이 살고 있다. 이 마을 뒤에 있는 산의 본래 이름은 어수산(漁水山)이었으나 그 뒤 오수산(鰲岫山), 오수산(五水山)으로 바뀌고 지금 지도상에는 어수산(漁首山)으로 표기되어 있기도 한다. 이 이름은 어옹산망(漁翁散網)과 모두 관련되어 있다.

마을 이름은 당초 어수산의 명칭을 따서 '어수동(漁水洞)'이라 했다가 어수산이 오수산(五水山)으로 불려지게 되면서 오수동(五水洞)으로 바뀌었다. 1789년 호구총수 지명에도 오수(五

水)로 되어 있다.

○ 공공건물

건 물 명	규 모	건립년도	비 고
마을회관	37평	1980. 6. 10	
경 로 당	41평	2007. 12. 03	용두리 888-1

○ 유적·유물

·고인돌군 : 마을회관 뒷밭에 3기가 있다. 마을 주변에 고인돌 채석 흔적이 있다.

○ 특기사항

기암괴석(용바위, 서방바위, 각서바위, 거울바위, 농바위, 베틀바위, 가마바위, 이불바위, 치마바위, 달걀바위 등)이 많기로 유명한 오수산의 정경이 마을의 경관을 더해주고 장성군 삼서에서 시작된 고막천이 길고도 넓게 트인 기름진 마을 앞의 월야평야를 가로질러 흐르는 모습은 마치 한폭의 그림과도 같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토산물인 돗자리의 주산지이기도 하다. 용두마을과 함께 돗자리의 역사는 약 300여년으로 주산품은 간석(방에 맞춰 짠 돗자리), 요석(이불 또는 방석에 까는 돗자리), 꽃석(꽃무늬를 넣어 만든 것)등이다.

또한 대한예수교 장노회 소속 “오수교회”(신도수 60명)가 있다.

(5) 용두(龍頭)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99	45	54	38	36	2	미맥	돗자리	미맥
성 씨								
계	기계유	파평윤	선산김	기 타				
38	20	6	3	9				

○ 마을형성 및 지명 유래

돌고개와 대안촌에서 살다가 이거한 기계유씨(杞溪兪氏)가 정착하면서 마을을 형성했다고 전하며 영조때 과거에 급제하여 전적(典籍)을 지낸 유홍관(兪鴻觀)의 출생지라는 점으로 미루어 마을이 형성된 지 300여년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계유씨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흔히 ‘용머리’라고 부르는데 갈동 용머리와 식지 용머리로 구분하여 두 마을을 이루고 있다. 왜냐하면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는 지금의 월야면인 갈동면의 이곳 일부와 지금의 나산면인 식지면 이곳 일부가 합쳐 용두 마을이 되

었기 때문이다.

○ 공공건물

건 물 명	규 모	건립년도	비 고
마을회관	30평	1974. 04. 15	
공동창고	31평	1974. 04. 02	
경 로 당(용수)	17평	1992. 01. 20	용두리 1040

○ 유적·유물

·고인돌군 : 용두리 1015번지 함평이씨 문중 소유 밭주변에 12기가 산재해 있다.

○ 풍수지리

마을 뒤 오수산은 기암괴석이 장엄하여 감로사의 경관이 절경을 이루고 있었지만 취락 구조 개선산업으로 변형되고 난 뒤에는 보살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옛날부터 어옹산망(漁翁散網)을 찾는다는 풍수들의 발길이 그치지 않던 곳이다.

지금의 새마을회관에서부터 1.2m 간격으로 투망과 톳 모양으로 바위가 일자(一字)로 뻗어 있어 어옹산망이 분명하며 또한 앞들 가운데에 잉어등이란 낙산이 있다.

산업화의 영향으로 날로 이농 현상이 늘고 있지만 용머리는 매년 호수(戶數)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옹산망의 덕택이라고 한다.

○ 지명

·용수(龍水) : 용두와 오수를 통들어 일컫는 말

○ 특기사항

함평군의 특산물 중의 하나인 '함평돗자리'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 기술이 정교하고 세련미가 넘쳐 전국에서 제일가는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농가부업으로 정착된 지 오래되어 한 때는 가구당 평균소득이 군내에서 가장 높은 부자 마을이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인력난과 국산 외 수입 돗자리에 밀려 점점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 배출인물

·정동연(鄭東衍) : 전 나산면장(11대)　　·김영식(金泳植) : 제40회 사법고시 합격
·김영철(金泳喆) : 목포 중앙병원 방사선과 전문의

(6) 회룡동(回龍洞)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47	26	21	12	12		미맥		미맥
성 씨								
계	밀양박	광산김	기 타					
12	8	2	2					

○ 마을형성 및 지명 유래

회룡동

이순신 장군의 막하에서 많은 전공을 세워 선무원종공신에 오른 박의현(朴義賢)이 순직하자 처인 함평이씨(咸平李氏)가 지금의 초포리 사산에서 친정살이를 하다가 아들 형제와 함께 이곳에 터를 잡고 마을을 형성하였으므로 마을 형성시기는 1750년 이전으로 추정 할 수 있다.

마을 뒷산인 석화산(石花山)을 등지고 선박(船泊)에 있는 수양제(水陽堤)에서 흘러나온 시냇물이 마을을 돌아 박정지(泊停地)에 이르는 형국이 용이 굽이치는 모습과 흡사하다 하여 마을 이름을 '회룡동(回龍洞)'이라 했다 한다.

○ 공공건물

건 물 명	규 모	건립년도	비 고
경 로 당(석현)	17평	1997. 08. 01	용두리 768-4

○ 자생조직단체

·상부계(相夫契) : 계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1935년 성립되었으며 총 8가구가 참여.

○ 지명

·석치(席峙) : 옛날에 배가 드나들 때에 배가 쉬어가는 곳이었다.

(7) 회화정(回化亭)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52	25	27	28	27	1	미맥		미맥
성 씨								
계	광주정	밀양박	기 타					
28	10	9	9					

회화정

○ 마을형성 및 지명 유래

350년전 기계유씨(杞溪兪氏)가 대안촌(大安村)에서 이주하여 마을을 형성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 기계유씨는 마을 뒷산에 선산만 있을 뿐 광주정씨(光州鄭氏)가 마을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마을의 형국이 게(蟹)의 모양을 하고 있어 마을 앞을 흐르는 식지천(食知川)에 살고 있던 고기가 마을의 냇물로 올라오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게의 발이 고기를 물기 때문이라고 전해온다.

마을이 게의 형국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마을 이름을 해(蟹)자를 써서 '해화정(蟹化亭)'이라고 했으나 쓰기 쉬운 글자로 바꿔 '회화정(回化亭)'이라고 했다고 한다.

○ 공공건물

건 물 명	규 모	건립년도	비 고
마을회관	30평	1980. 4. 30	

○ 문화유적

·열녀각 : 기계유씨 경손(敬遜)의 처인 인동장씨(仁洞張氏)열행을 기념한 열녀각이 있는데 연산군9년(1503년)에 명정되어 세운 것이다.

○ 풍수지리

마을 생김이 거문고와 비슷한 모양이며 옥녀(玉女)가 이곳에서 거문고를 탔다 하여 옥녀포한(玉女抱翰)이라는 말도 전해지고 있다. 또한 회화정에는 백여년 전 심은 자작나무가 불이정을 감싸고 있다.

10) 우치리(牛峙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평릉면 강천(江川) 중동(中洞) 우치(牛峙) 호암(虎岩) 전역과 공정(公亭) 사촌(沙村), 해보면의 성대(成大) 계동(桂洞) 각 일부를 합쳐 우치 마을의 지명을 따 우치리(牛峙里)라고 하였다. 그후 사촌은 초포리로 편입됐고 나머지 마을들은 폐촌됐다.

지금은 우치 계동 신촌 화정 4개 마을만 관할에 두고 있다.

(1) 계동(桂洞)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69	34	35	28	28		미맥	딸기	미맥
성 씨								
계	진주정	나주정	광산김	함평이	기 타			
28	8	3	6	3	8			

계동

○ 마을형성 및 지명 유래

본래 마을명은 계목동(桂木洞)이라 칭하였고, 약 1500여년경에 개촌되어 천안전씨(天安全氏)등이 세거하다가 진주정씨(晋州鄭氏)가 360여년 전 마을을 이루기 시작하였다고 하나 확실히는 알 수 없으며 현재는 나주정씨(羅州鄭氏) 진주정씨(晋州鄭氏) 인동장씨(仁洞張氏)등이 살고 있다. 한 대는 200여가구가 거주하기도 하였다 한다. 1914년 행정구역개편때 해보면에서 나산면으로 편입된 마을이다.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예전에 계수나무가 많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계동(桂洞)'이라고 불리었던 것 같다.

○ 공공건물

건 물 명	규 모	건립년도	비 고
마을회관	30평	1979. 04 .05	
경 로 당	20평	2007. 12. 03	우치리 835

○ 유적·유물

·자양서원지(紫陽書院止) : 1726년에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이 서원은 주자와 함께 우암 송시열을 제향했다고 한다. 1868년 대원군 때 훼철되고 현재는 터마져 논이 되었다.

·하마비(下馬碑) : 이 마을 어귀에 이르면 높이 1m의 조그마한 비석이 하나 있다. 서원 입구에 세워진 하마비를 이곳으로 옮겨 온 것이다.

·농바위 : 마을 앞 매봉에 있는 등잔바위 아래에 농(籠)바위가 있는데 농바위 밑에 농이 있었으며 그 농속에는 서책(書冊)이 가득 들어 있었다고 전해 온다. 이 책은 고려시대의 난 때 비장했던 것이라고 하며 지금은 책은 없고 농 조각만 남아 있다. 이 마을은 수년전부터 하우스 딸기 재배에 성공, 부자마을로 탈 바꿈했다.

·모양사(牟陽詞)지 : 1760년이전 건립, 이유인(李有仁)배향, 1868이전에 훼철

·노거수 : 마을 정자옆에 있는 느티나무는 할아버지 당산으로 불리우며, 1995년에 마을나무(10-22-7-9-39)로 지정되었다.

○ 자생조직단체

·상복계(喪服契) : 계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제시 부조를 목적으로 100년 전에 창립,총 34가구가 참여하고 있다.

·촌계(村契) : 150년전에 결성, 친목도모 및 마을 최고 의결기관

○ 배출인물

·정후현(鄭厚鉉) : 김태원 의병부대에서 활약하다 체포되어 고문치사

(2) 신촌(新村)/구호촌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29	13	16	12	11	1	미맥	방울토마토	미맥
성 씨								
계	함평이	김해김	상산김	기 타				
12	3	4	3	2				

○ 마을형성 및 지명 유래

원우치(元牛峙)에서 살던 함평이씨 갑인(咸平李氏 甲寅)이 이곳에 있는 농토를 경작하여 편하게 살기 위해 이거하여 정착했다 하며 지금은 함평이씨(咸平李氏) 나주정씨(羅州鄭氏) 김해김씨(金海金氏) 상산김씨(商山金氏) 수원백씨(水原白氏)가 이주하여 가구를 이루어 거주하고 있다.

우치리에서 제일 늦게 생긴 마을이라 하여 '새터' 또는 '신촌'이라 부른다.

일설에는 1954년 강천제 축조시 취토장으로 사용함에 따라 터가 생겼다 한다.

그러나 마을 어귀의 고인돌군으로 보아 선사시대부터 삶터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 유적·유물

·고인돌군 : 마을입구 우치교회 옆에 19기가 있다.

○ 전설

마을 뒷산에 청판이 있는데 그곳에서 백년 묵은 흰 여우가 여자로 둔갑하여 물동이를 이고 다녔다는 전설이 전해 오고 있으며 지금도 이곳을 백여우집이라고 한다.

○ 지명

·장송(長松) : 세터 동쪽에 있는 마을, 진솔(큰 소나무)

○ 자생조직단체

·상복계(喪服契) : 계원 상호간의 친목과 부조를 목적으로 1969년 창립되었으며 총 14가구가 참여하고 있다.

○ 배출인물

·김광운(金光雲) : 함평엑스포 운영부장, 환경상하수도 과장

○ 특기사항

한국 기독교 장노회 소속 “우치교회”(신도수 30명)가 있다.

(3) 우치(牛峙)/소재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125	68	57	50	50		미맥	딸기	미맥
성 씨								
계	함평이	김해김	나주정	기 타				
50	20	10	8	12				

○ 마을형성 및 지명 유래

이 마을은 함평이씨(咸平李氏) 함풍군(咸豊郡) 10대손 전라좌수사 이조판서 이춘수(李春秀)가 정착한 곳이다. 춘수는 두 아들을 두었는데 큰 아들 긍(兢)은 기성군(箕城郡)에 봉하여 사산사에 제향되고, 둘째아들 접(慴)은 김종직(金宗直) 김굉필(金宏弼) 정여창(鄭汝昌)에게 강마하였으며 ‘효우선생’이라 불렀다. 효우공 이접의 자손이 이 마을에 40여가구 거주하고 있으며 군내에는다수의 가구가 살고 있다.

1789년 호구 총수 지명에는 상중치(上中峙) 하중치(下中峙) 두 마을이 나와 있는데 마을의 지형이 산에 오르는 소와 같다하여 우치(牛峙 :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전)라고 했으며 운만 따서 ‘소재’라 부르기도 한다.

우치동은 불갑산맥이 내려와 매봉(매峰)에서 기봉하여 남쪽으로 10리 밖 제당산 아래 와우형국으로 서출동류수하여 예부터 부자는 없으나 인물이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 공공건물

건 물 명	규 모	건립년도	비 고
마을회관	20평	1977. 04. 10	
공동작업장	45평	1975. 04. 16	
공동창고	20평	1973. 04. 02	
경 로 당	24평	2007. 11. 05	우치리 645-8

○ 유적·유물

·당산제석(碑) : 음력 2월 초하루 당산제를 지냈던 비석(우치선돌)

·노거수 : 마을 입구(국도24호선번) 수령 600년의 왕버들나무가 마을(10-22-7-9-8)보호수로 1982년에 지정되어 있다.

○ 지명

·술항샘 : 마을 앞 약 50여평의 논에 술항샘이 있는데 매년 음력 6월 15일이면 기곳에 제를 지냈다 한다. 그 이유는 만약 제를 지내지 않을 경우 큰 구렁이가 나와서 그 부근의 논밭을 모두 망쳐버린다는 전설이 있어 현재도 마을 바로 앞에 있는 술항샘제를 올리고 있다.

·강천(江川) : 세터위에 있던 마을로 강천제에 수몰

·공정(公亭) : 강천제 북쪽에 있는 마을로 우치와 합병

○ 자생조직단체

·상여계(喪輿契) : 계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제시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110년전 창립, 총 40가구가 참여하고 있다.

·함평이씨종친회 : 1955년 함평이씨 종친의 번영과 마을 친목도모를 위하여 창립, 25가구가 참여하고 있다.

○ 배출인물

·이재일(李載日) : 경기도 양평군수 역임, 진한통상 회장(현)

·김영도(金榮度) : 함동수리조합장 역임 ·김영채(金榮采) : 제15대 나산면 농협장 역임

·이천구(李千九) : 함평향교 전교 역임

·이기순(李基順) : 서울올림픽여자 핸드볼 금메달 획득

·이덕행(李德行) : 행정고시합격

·이종수(李鍾洙) : 서울 강서구 신정1동장 역임 ·정승남 : 육군대령

·김승태 : 육군대령 ·김준영(金俊瑛) : 전남대졸, 행정고시 합격

(4) 화정(花亭)·평장동(平章洞)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40	21	19	21	20	1	미맥	딸기	미맥
성 씨								
계	함평이	김해김	진주정	기 타				
21	4	6	4	7				

○ 마을형성 및 지명 유래

함평이씨(咸平李氏)가 대략 1600여년 경 마을을 형성하였다고 하며 현재는 함평이씨와 상산김씨가 거주하고 있다. 강천제에서 흐르는 맑은 시냇물이 마을 앞을 통과하고 있고 초포리(草浦里)와는 농로(農路)를 사이에 두고 이계(里界)를 이루고 있다. 이 마을에 매화락지(梅花落地)라는 명당이 있어 1800여년경부터 화정(花亭)이라 불리어 왔다고 한다. 그러나 화정보다는 평장동(平章洞)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평장동이란 마을이름은 고려 때 이 마을에서 평장사가 나왔기 때문이며 그 평장사가 함평모씨라는 전설이 전해 오고 있다.

○ 자생조직단체

·상부계(相夫契) : 계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1939년 창립, 총 8가구가 참여하고 있다.

11) 원선리(元仙里)

나산면에서 제일높은 천주봉(天柱峯) 한자락이 남서쪽으로 긴 계곡을 차지하고 있는 원선리는 철마산이란 명산이 있고, 쌍령재란 두고개가 있으며, 선(仙)자가 들어간 은선동, 원선, 금선동등이 있어선지 선인무수(仙人舞袖)를 찾아 피난처를 찾는다고 들어와 보면 선인무수는 눈에 띄지 않고 앵소산의 앵소를 보고 과연 명당이라며 무릎을 친다고 한다.

1960년대 이후부터 이농률(離農率)이 가속화 되었으며 80년대에는 군내에서 제일 높을 정도로 오지 마을이었다.

광령에서 쌍령을 넘는 오솔길이 전에는 국도(國道)였는데 지금은 산짐승도 넘나들지 않는 길이 되고 말았으나 93년부터 군내 경지정리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길이 확장 포장되고 논이 경지정리되는 바람에 옥답으로 변해 면내 제일 오지라는 불명예를 말끔히 씻어 버렸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대이제(里制)를 실시하면서 평릉면의 유촌(柳村), 원산(元山), 쌍령(雙嶺), 은선(隱仙, 폐촌됨), 국동(局洞·지금은 폐촌됨), 답동(沓洞·논골, 폐촌됨) 전역과 구암(九岩)의 일부를 합해 원산 마을에서 “元”자와 은선마을에서 “仙”자를 따 “元仙里”라고 하였다.

(1) 원선(元仙)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29	14	15	18	16	2	미맥	산나물	미맥
성 씨								
계	김해김	영성정	밀양박	기 타				
18	6	6	3	3				

○ 마을형성 및 지명 유래

이 마을은 약 400여년전의 터로 추정된다. 함평이씨와 김해김씨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원선리는 나산면의 다른 마을에 비해 면적은 넓으나 산이 많은 오지였다. 천주봉이 주봉을 이루고 남쪽으로 구산리 북쪽으로 월봉리와 인접하고 있다. 마을 뒤에 철마산이라는 명산이 있고 쌍령재라는 두 개의 재가 있으며 조선시대에 국도가 지나던 곳이다. 고을 원님이 쌍령재에 이르러서는 잠시 쉬어가게 되면서부터 가장 신선한 지역이라 칭했던 까닭에 '원선(元仙)'이란 마을의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

○ 전설

·철마산의 철마 : 철마산의 중턱 바위밑에 철마(鐵馬)가 있었는데 이 철마는 손만 대면 재앙이 겹치기 때문에 손을 대지 못했다고 하며 아이를 못낳는 아낙네들이 이 앞에서 금식기도를 올리면 옥동자를 낳았다고 전한다. 그런데 누가 언제 그랬는지는 모르나 옛날 것과 꼭 같은 토마(土馬)로 바꿔 놓아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으며 지금도 철마산을 찾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 공공건물

건 물 명	규 모	건립년도	비 고
공동창고	30평	1977. 04. 29	
경 로 당(원선)	21평	2006. 12. 11	원선리 55-5

○ 지명

·국동(局洞) : 은선암 서남쪽에 있었던 마을 6.25 한국전쟁 때 폐촌
·금선동(錦仙洞) : 원산 서쪽에 있었던 마을
·논골/답동(沓洞) : 은선암 서쪽에 있었던 마을
·쌍령(雙嶺) : 금선동 북쪽에 있는 마을 뒤에 쌍봉이 있음
·은선암 : 쌍령 북쪽에 있었던 마을, 은선암이란 절이 있었다 함

○ 자생조직단체

·상부계(相夫契) : 계원 상호간의 부조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1920년 창립, 총 14가구가 참여.

(2) 월랑(月郞)/다례(茶禮), 쌍령(雙嶺)-금성동(金城洞)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성 씨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계	김해김
13	9	4	4	4		미맥	산나물	미맥	4	3

○ 마을형성 및 지명 유래

다랭이

김해김씨가 먼저 정착했다는 말만 전 할뿐 자세한 내력은 알 수 없고, 지금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은 6.25이전에 입주한 화전민과 쌍령에서 이주한 주민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곳에서 제일 높은 산 천주봉에는 한발에도 물이 마르지 않은 용샘이 있고 100여명이 앉아 놀 수 있는 넓적바위가 있는데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용샘에서 목욕을 하고 넓적바위에 앉아 놀다 갔다는 설에 따라 마을 이름을 금선이라고 했으며, 1789년 호구총수지명에 나오는 명금치리가 이마을로 보이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는 명금치리도 금선지명도 없는데 당시는 폐촌이 되었다가 다시 마을이 형성된 때문이다.

(3) 유촌(柳村)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25	15	10	15	14	1	미맥	산나물	미맥
성 씨								
계	김해김	밀양박	함평이	기 타				
15	8	2	2	3				

○ 마을형성 및 지명 유래

이 마을 앞에 고인돌이 수십기(23기) 있고 마을 안길이나 농토에 백제 토기편이 수 없이 널려있는 것으로 보아 선사시대부터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헌으로는 김해김씨 경파의 낙남조인 김맹리는 세종 때 인물인데 이곳에 낙향하여 속세를 멀리하고 산수를 사랑하며

1450년경 이곳에 살았으므로 이 마을이 형성된 것은 김맹리의 입향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명당이라는 앵소산이 마을을 안고 있고 천주봉에서 흘러내린 원선천이 마을 앞을 지나 구산천에 으르는 모습을 보노라면 이 마을이 명당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전에 아름드리 버드나무 5그루가 있었던 곳이라서 마을 이름을 '유촌(柳村)'이라고 했다 하나 지금은 고목이 된 지 오래다. 6.25때 월남한 반민주택이 있다.

유촌이란 지명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이전부터 보인다.

○ 공공건물

건 물 명	규 모	건립년도	비 고
경 로 당(유촌)	13평	2005. 11. 17	원선리 714-2

○ 유적·유물

·고인돌군 : 마을의 배산(背山)인 앵소산 남쪽에 30여기가 있었으나 지금은 23기만 전해오고 있다. 마을사람들은 고인돌군을 일명 "꾀고리똥", "선독골" 등으로 부른다.

·1905년에 건립된 진무공신 김광립 신도비가 있다.

○ 전설

·앵소산 맹리의 전설

마을에 살고 있는 김해김씨의 파조는 목경이요, 입향조인 맹리는 세종때 인물인데 이곳에 낙향하여 속세를 멀리하고 산수를 사랑하며 살았는데, 그의 5대손인 망헌 김광립은 인조때 안주목사로 부임 중 이괄의 난을 맞아 도원수 장만의 휘하에서 공을 세웠으므로 진무공신에 올랐고, 그의 아들 속(涑)은 부산진 수군절제사를 지냈으며, 속의 아들 7형제가 모두 현달하여 무과에 급제하자 광해군이 국지관을 불러 현지를 답사하여 가문의 내력과 지세를 알아보게 하였다.

국지관이 현지에 임하여 내사한 결과 앵소산은 명당으로 계속 인재가 속출하고 가세가 비대하여 언젠가는 나라에 큰 화근이 될 징후가 엿보인다고 광해군에게 무고하여 이에 성미가 급한 광해군은 곧바로 앵소산의 선산을 파헤치고 지금의 쌍령재산혈을 끊고, 백양동으로 내려 뻗은 산맥을 절단하여 맹리의 비석을 쓰러뜨려 없애라고 명령하여, 지엄한 왕명으로 모든 산혈을 끊고 비석을 쓰러뜨리자 부녀자들까지 이에 항거하다가 유혈이 낭자하여 피가 사흘동안 흘렀다는 가슴 아픈 전설이 전해오고 있으며, 그 후 맹리의 후손들은 벼슬한 사람이 없다고 전해온다.

○ 자생조직단체

·상복계(喪服契) : 상제시 계원 상호간의 부조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100년전 창립, 총 19가

구가 참여.
·회갑계(回甲契) 신미생 회갑시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1952년 창립, 총 10가구가 참여.

12) 월봉리(月奉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이제(里制)를 실시하면서 평릉면의 봉정(奉丁) 관동(官洞) 생동(生洞) 월평(月平) 전역과 월산(月山) 용산(龍山) 안영(安永) 하축(下丑) 각 일부를 합해 가장 북쪽에 있는 월평에서 '月'자와 남쪽의 봉정에서 '奉'자를 따 '月奉里'라고 하였다.
지금은 봉정 월산마을은 폐촌 돼 없어지고 하축은 삼축리에 편입됨.

(1) 관동(官洞)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29	12	17	16	13	3	미맥	딸기	미맥
성 씨								
계	고성이	기 타						
16	4	12						

○ 마을형성 및 지명 유래

안동장씨가 지금부터 350여년전 마을을 형성하기 시작했으며 일제강점기를 전 후하여 진주정씨가 주축을 이루었으나 지금은 여러 성씨가 오순도순 모여 살고 있다. 천주봉에서 뻗어내린 서당산이 마을을 감싸고 있고 월봉제에서 흐르는 월봉천의 맑은 물이 마을을 끼고 돌아 월봉평야를 거쳐 고막천에 이르고 있어 마을의 터가 과연 으뜸이다. 마을의 뒷산의 형국이 황새의 형국이라서 관동(觀洞)이라 했으나 1912년 행정구역 개편 때 쓰기 쉬운 관동(官洞)으로 바꾸었다.

○ 자생조직단체

·상복계 : 계원간의 친목도모와 상제시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120년전 창립 총 24가구 참여
·친목계 : 계원 상호간의 친목 목적으로 1954년 창립, 총 12가구가 참여

○ 배출인물

·박현길(朴鉉吉) : 손불지서장 역임

·나병기(羅炳起) : 제3대 함평군 의회의장역임, 5대전라남도도의원

(2) 생동(生洞)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8	5	3	5	4	1	미맥		한우
성 씨								
계	고흥유	기 타						
5	2	3						

생동

○ 마을형성 및 지명 유래

마을 형성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00년전 고흥유씨가 형성한 것으로 추측되며 새로 생긴 마을이어서 생(生)자를 따 생동(生洞)이라 부른다는 설과 마을 형국이 초생달 모양이라서 생(生)자를 따서 생동이라 부른다는 설이 있다.

(3) 안영동(安永洞)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76	43	33	34	32	2	미맥	딸기	미맥
성 씨								
계	선산김	밀양박	광산김	현풍곽	함평이	기 타		
34	7	6	3	3	2	13		

○ 마을형성 및 지명 유래

안영동

마을 뒤 정자나무 근방에 여러 기의 고인돌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마을은 석기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근세의 마을형성은 약 4~5백 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자세한 기록은 없다. 가장 먼저 입주한 성씨는 초계정씨(草溪鄭氏)일 것으로 추측하며 그 다음에는 광산정씨

(光山鄭氏)가 광주 대촌면 입촌에서 이주하여 9대까지 났으며 또 다른 광산정씨는 3대째 났는데 모두 예조판서 정응종을 중조로 하고 있다. 그 후 배문이에서 들어온 선산김씨(善山金氏)와 광산김씨(光山金氏)는 2백년 내지 백년 전후에 입주한 성씨이다. 천주봉에서 뻗어내린 산이 서당봉에서 다시 우뚝 솟아 마을을 감싸고 있으며 월봉천이 쇄기뜰의 기름진 평야를 통과하여 고막천에 이른다. 마을 앞산이 기러기의 형국이며 당산뜰이 기러기의 머리, 이 마을이 기러기의 몸(밥통)에 해당되어서 마을의 형국이 기러기 모양과 같다 하여 "안영동(雁影洞)"이라 했는데 1789년 호구총수지명에는 안영(安寧)이라 표기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전부터 쓰기 쉬운 글자로 바꿔 "안영동(安永洞)"이라 쓰고 있다.

○ 공공건물

건 물 명	규 모	건립년도	비 고
마을회관	30평	1976. 04. 10	
공동창고	40평	1977. 03. 27	
이 발 관	5평	1976. 04. 06	
경 로 당(월봉)	30평	1996. 04. 01	월봉리 420-1

○ 유적·유물

·고인돌 : 마을 앞에 지석묘 13기가 있었다 하다 현재는 8기만 남아있다.

·노거수 : 마을 뒤에 있는 수령 800년 된 느티나무가 군나무(10-22-4)로 1982년에 지정 되었다.

·노거수 : 마을 초입에 있는 수령 300년 된 느티나무는 마을나무(10-22-7-11-50)로 1995년에 지정 되었다.

·줄나무군 : 마을 정자옆 안영고인돌군과 함께있는 여러그루의 느티나무가 줄나무군을 이루고 있는데 이 줄나무를 심은 것은 풍수지리학상 초포리 사산이 활이고 안영동은 기러기형이기 때문에 사산마을에서 쏘아 날아오는 화살을 막기 위해 심었다고 한다.

고목군의 7그루는 다른 마을에서 들어보지 못한 특별한 뜻을 지니고 있는데, 동네 앞의 한 그루의 마을나무인 느티나무는 마을의 수호신처럼 당산나무이지만 7그루의 고목들은 곶감나무라 불리 우나 곡반나무이다.

곡반나무(哭班나무)를 곶감나무라 부르는 것은 어음이 비슷하기 때문이며, 옛날에 국상이 날 때 마다 마을사람들이 불을 피워놓고 이곳에 모여 북쪽을 향해 망곡을 하였다하며, 곡반나무 밑에 7개의 곡반석은 실제 고인돌이다.

○ 민속제향

·당산제 :약 200여년전 여러 고을에 염병(장티푸스)이 돌았을 때 마을 사람들이 비슷하게 꾼 꿈속의 지시에 따라 주민들은 당산나무에서부터 빙둘러 마을 전체에 금줄을 쳤다. 마귀들이 마을에 들어오다 금줄에 걸려 들어올 수 없어 안영동에 사는 사람은 한사람도 이 병에 걸리지 않고 무사했다 한다.

그 후부터 안영·용산 마을 사람들은 “이사제계”를 조직하여 당산 할머니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현재까지 정월 대보름이면 당산제를 지내고 있다

○ 특기사항 :

곡반나무 밑에는 7개의 고인돌(보통곡반석이라부름, 넓이 2.5m2)이 있는데 옛날 국상(國喪)이 날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불을 피워놓고 서울이 있는 북쪽을 향해 망곡을 하였다.

이 곡반나무를 곶감나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이는 어음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 자생조직단체

·상여계(喪輿契) : 상제시 계원 상호간의 부조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100년 전 창립, 총 35가구가 참여.

·회갑계(回甲契) : 무진생 회갑시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1963년 창립, 총 11가구가 참여.

○ 배출인물

·김규동(金奎東) : 초등학교장 역임
·이태웅(李泰雄) : 초등학교장 역임
·김원기(金原基) : 한국병원장
·김인두(金仁斗) : 전라남도 교육위원회 장학관 역임, 서예가
·김형오(金亨午) : 안양역장 역임
·곽일환(郭一煥) :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곡동지점장

(4) 월평(月平)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72	36	36	38	37	1	미맥	젖소	미맥
성 씨								
계	함평이	평산신	고흥유	여산송씨	기 차			
38	10	6	4	2	16			

○ 마을형성 및 지명 유래

김해김씨가 500여년전 입촌했다고 전하나 확실하게는 알 수 없으며 지금은 여러 성씨가 모여 산다.

천주봉에서 뻗어나온 마을 뒷산(속칭 : 작은 천주봉)이 마을을 감싸안고 있으며 초포에서 흘러온 시냇물이 마을 앞의 좁고도 긴 평야를 가로질러 월봉천과 합류한다.

월평마을은 달의 형국이기 때문에 달의 한자음 '月'을 따고 동네의 들판이 '평평'하다고 하여 '平'을 붙여 '월평(月平)'이라고 했다 한다.

○ 공공건물

건 물 명	규 모	건립년도	비 고
마을회관	20평	1972. 04.	
경 로 당(월평)	26평	2002. 12. 01	월봉리 684-1

○ 유적·유물

마을에 고인돌 1기가 있다.

○ 지명

·입석굴(立石屈)/선바위굴 : 지금은 천주봉이 사화산이지만 예전에는 활화산이었는데 화산 폭발시 용암이 나산 일부와 대동면 일부로 흘렀다.

그후 용암이 굳어진 자연 동굴이 현재 마을 뒷산에 있는데 동굴 입구로부터 20m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불을 피우면 대동면 천주봉 줄기의 산에서 연기가 난다고 하는 것으로 미루어 동굴이 대동면까지 연결된 것으로 추측된다. 마을 주민들은 이 동굴을 입석굴 또는 선바위굴이라 한다.

·봉정(奉丁) : 관동 남쪽에 있었던 마을

○ 자생조직단체

·상복계(喪服契) : 계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제시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100여년전 창립, 총 35가구가 참여.

·친목계(親睦契) : 계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1964년 창립, 총 15가구가 참여.

○ 배출인물

·이오섭(李五燮) : 나산면장 역임(5·7대)　　·송기주(宋基柱) : 한국가방백화점 대표

·안이원(安二元) : 서울 중구세무서 총무과장 역임

(5) 와락(臥落)/와래기/신촌(新村)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25	12	13	5	5		미맥		한우
성 씨								
계	함평이	광산김	기 타					
5	2	2	1					

○ 마을형성 및 지명 유래

임란 전 이미 두 세 가구가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어 마을의 형성시기는 500여년 전으로 추

측된다. 장성댐에서 흘러나온 수로 좁다란 구거가 합해져서 월봉천으로 이어지는데 이 구거를 사이에 두고 초포리와 분리되고 있다. 임진왜란 때 왜적이 몰려와 천주봉에서 망을 보다가 선바위(입석)을 내려다보니 왜적에게 쫓기는 피난민이 수없이 와르르 몰려오다가 모두 몰사당하고 열사람만 살았다는 데서 '와락'이라고 했다 하며 주변에 "열산 밭"이라는 들명이 있다.

와락

○ 유적·유물

·고인돌군 : 7기가 있다.

○ 자생조직단체

·상복계(喪服契) : 상제시 계원 상호간의 부조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120년 전 창립, 총 8가구가 참여.

·혼인계(婚姻契) : 계원 자녀들의 혼수를 도울 목적으로 1955년도에 창립, 총 8가구가 참여하고 있다.

(6) 용산(龍山)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79	37	42	30	29	1	미맥		미맥
성 씨								
계	광산김	광산정	기 타					
30	10	5	15					

용산

○ 마을형성 및 지명 유래

월봉리 용산(龍山) 예전에 새터라고 했다는 마을 유래가 전해오고 있는데 1789년 호구총수 지명에 신기(新基)라고 표기한 마을이 이 마을이 아닐까 여겨진다. 현 용산마을 남쪽 100여 m 지점에 점골(鎭店 1789년 호구총수 지명)이 먼저 개촌되었기에 새터라는 지명이 붙여졌을 것으로 본다. 이 마을에는 당초 초계정(鄭)씨가 입촌했고 이어 광산김씨 광언(光彦·1711~1781)이 초계정씨 사위가 되어 이주 정착했다. 그후 200여년전 함평 이씨가 입촌했으며 비슷한 연대에 광산김씨 달용(達龍)이 입촌하여 오늘에도 그 후손이 번창하고 있다. 100여년 전 구름 한점없이 맑던 하늘에서 느닷없이

구름이 몰려 소나기가 퍼부우며 용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하며 그 후 용이 승천한 마을이라하여 마을 이름은 용산(龍山)이라 했다고 한다.

○ 유적·유물

·유점(鍮店) : 용산마을이 개촌되기 전에 유기를 만들었던 마을이며 지금도 점골로 전해오고 있으나 폐촌돼 지금은 없다. 광산정씨가 맨 먼저 입촌했다는 말만 전하고 있다. 현 용산 마을에서 남쪽으로 100m 떨어진 구릉에 유기그릇을 만들 때 불에 녹아내릴 쇠붙이 잔편(마을 사람들은 쇠똥이라 함)이 수없이 널려있다.
·고인돌군 : 월봉교(구름다리) 서북쪽 300여m지점 산 말단부(정규병 축사옆)에 13기가 있다.
·월산(月山) : 용산 앞 인근에 있던 마을로 일인(日人)들이 성촌(成村)하여 한 때는 15가구에 이르렀으나 6.25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폐촌, 지금은 1가구도 살지 않는다.

○ 자생조직단체

·상여계(喪輿契) : 계원 상호간의 친목과 부조를 목적으로 1957년 창립, 총 27가구가 참여.
·혼인계(婚姻契) : 계원 자녀들의 혼례비를 도울 목적으로 1956년 창립, 총 33가구가 참여.

○ 배출인물

·김정수(金正洙) : 광주광역시 국장 역임 ·유정덕(兪正德) : 신탁은행 광주지점장 역임
·이태웅(李泰雄) : 초등학교 교장 역임 ·이원식(李元植) : 제일은행 지점장

13) 이문리(二門里)

당초 식지면에 속했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식지면의 동산(東山), 월산(月山), 계양(계良), 소박(小泊), 이문(梨門), 사정(沙亭) 전역을 합해 중심인 이문 마을의 원래 표기인 "二門"으로 이명을 정했다고 한다.
현재 이문, 석지, 사정을 관할에 두고 있다.

(1) 사정(沙亭,시루뫼)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87	37	50	41	38	3	미맥	돗자리	미맥
성 씨								
계	상산김	기 타						
41	37	4						

○ 마을형성 및 지명 유래

사정

서남쪽으로 뻗어 내려온 노령산맥 중 한 연맥이 외치 칠봉산을 이루고 오수산에서 마무리되었다. 오수산 최 하단에 위치한 이 마을은 기름진 월야평야와 들이 툭 트여 한눈에 들어오고 장성 태청산에서 흐르는 맑은 시내가 이 평야를 가로지르고 있는데 이 시내에는 천렵군들이 군침을 삼키는 물고기들이 무리지어 논다.

고라실(鯨谷)과 사정(沙亭)마을은 조선조 세종때 상산김씨 증산 김덕생(金德生)의 아들 중명(仲明)이 조선조 세종때 터를 잡은 것으로 알려져 오고 있다. 이 마을에는 윗당산나무와 아랫당산 나무가 있는데 한 그루는 둘레 6m, 높이 30m로 수령이 600년으로 추정되고, 또한 그루는 둘레 4m, 높이 35m에 수령이 500년으로 추정되는데 이 정자나무와 마을의 정착유래가 같은 것으로 믿고 있다.

이 마을앞에 있는 산 이름이 재산(載山)이므로 마을 이름을 재산이라 하였는데 최초에 정착한 중명(仲明)이 부친인 김덕생(金德生)의 호가 증산(甑山) 이므로 '載山'을 '증산(甑山)'으로 고쳤다고 하며 1789년 호구총수지명에는 내증산(內甑山) 현재는 사정(沙亭)이라 부른다. 시루뫼라고도 한다.

○ 공공건물

건 물 명	규 모	건립년도	비 고
공동창고	50평	1978. 03. 05	
경 로 당(사정)	32평	2006. 03. 09	이문리 765-1

○ 함평생활유물전시관

생활물전시관은 나산면 삼축리의 박현순씨가 선조들의 숨결과 손때가 묻은 농기구등 각종 유물과 생활도구를 30여년간 수집한 것을 함평군에서 매입 전시관을 조성 2007년에 개관하였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슬기를 엿 볼 수 있는 곳으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고, 학습 체험 공간 및 농경문화의 산 교육장으로 안성맞춤이다.

1층은 생활상도구이며, 2층은 농사도구와 기타, 3층은 잊혀져가는 생활도구를 전시하여 두었으며, 하나 하나 세심히 관찰하면 옛날 우리의 조상들의 슬기로움을 감상할 수 있다.

○ 유적·유물

·증산사(甑山祠) : 증산사는 세종조 상산김씨 선조 3위인 충간공 증산 김덕생(忠簡公 甑山金德生:고려말-조선초,좌명공신,동지중추원사), 선계당김한로(善繼堂金漢老:1646-1687, 병조좌랑겸춘추관기주관), 최락당 김중선(最樂堂 金重璿:1659-1702,성리학자이며 효자)를 배향키 위하여 1693년 창건하였고 고종 5년(1868) 서원철폐령에 의해 훼철되었다가 1873년 복설된 사우로 건물배치는 전학후묘의 형식으로 제향과 강학구역이 일직선상이 아닌 사선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제향일은 음력 2월 20일이다.

군내의 최초의 향사우이다.

·비 : 기동10로(基東十老)유적비, 삼천리 김금남(三千里 金金南)선생추모비, 근암(謹菴)선생 경모비, 강산(江山) 나주오공 재용(在容)효행비, 상산김공기옥(商山金公基玉)효행비, 상산김공용로(商山金公容로)공적비 그밖에 열부3기, 효부1기를 포함하여 10기가 마을 앞에 있다.

·고인돌군 : 사정에서 돌고개로 넘어가는 고개에 4기가 있다.(이문리 811번지 주변)

·노거수: 마을뒤에 있는 느티나무는 수령이 약500년된 것으로 마을나무 (10-22-7-5-49)로 1995년에 지정되었으며. 또한 마을 중간에 있는 느티나무는 수령이 약 250년 정도로 마을나무(10-22-7-5-36)어로 1995년에 지정되었다.

○ 특기사항

이 마을에 소재한 이문초등학교(1934~1996)자리에는 이문간이학교(二門簡易學校)가 있었고 증산사 강당 자리에는 오산학교(五山學校)라고 하는 사립학교가 있었는데 항상 서로간에 반목과 질시가 심했었다.

왜냐하면 간이학교는 일제가 정식으로 인가한 학교이고 오산학원은 겉으로는 일제(日帝)에 순응하면서도 민족정신이 투철한 민족교육의 선구자인 삼천리 김금남(三千里 金今南)의 설립이념을 받들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삼축리 동축에 있던 함평생활유물전시관이 구 이문초교터에 건립되어 2007년에 개관하였다.

○ 배출인물

·김유태(金侑泰) : 전 나산면장(4대)　　·김판남(金判南) : 초등학교장 역임
·김연석(金鍊錫) : 중등학교 교장 역임　　·김수호(金秀鎬) : 공군대령 예편
·김현호(金賢鎬) : 의학박사, 전남대학병원 내과과장 역임
·김성해(金聖海) : 내과전문의　　·김경호(金暻鎬) : 지서장역임
·김영재(金煐載) : 의학박사, 치과병원장　　·김세창(金世昌) : 약사
·김갑술(金甲述) : 서울지방법원 서기관　　·김규채(金圭採) : 함평향교 전교
·김성두(金成斗) : 함평향교 전교역임　　·김도헌(金度憲) : 의학박사, 치과병원장

(2) 석지(石池)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92	43	49	34	32	2	미맥	담배	미맥
성 씨								
계	나주정	상산김	김해김	기 타				
34	15	3	3	14				

○ 마을형성 및 지명 유래

석지

마을 앞산과 뒷산의 여러 곳에서 고려자기가 출토된 점으로 미루어 600여년이 넘은 마을로 추정된다. 나주정씨(羅州鄭氏) 정중재(鄭重載)가 나주에 살다가 마을 뒷산의 아람드리 노송(老松)이 마을을 에워싸고 있고 수백년 묵은 백일홍이 활짝 피어 있어 마을의 경치가 아름다워 정착하였다고 한다.

1789년 호구총수 지명에는 석령(石令)으로 표기되어 있는 이 마을은 아주 오랜 옛날 에는 이곳이 바다였던 듯 마을 앞들이 염바대(鹽海)들이라 불리우고 있다. 배문이에서 배를 묵고 쉬어가다가 큰 바람을 만나면 바람을 피하고자 이 마을에 자리 (席)를 잡으러 들어와 배를 매었다고 해서 한때는 '석지(席池)'라 했으나 현재는 쓰기 쉬운 글자로 바꿔 석지(石池)라고하며 마을의 옛 지명이 주박골(船泊)이었다는 데서도 이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고려 충렬왕때 금자광록대부 설제 정가신이 원나라에 사신으로 갔을때 하사받은 금안장, 금대, 용현등 값진 유물을 보관되어 오고 있으며, 단종때 예조판서가 된 정국의 묘등은 다른곳에서 이장하였으며, 주위의 지명을 살펴보면 새절골, 점등, 모리들, 삼밭골, 사토골, 탑골재는 유덕산과 이 재를 사이를 두고 있으며, 탑골은 유덕산 마을 앞산인데 탑 머리돌이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절이 있었음이 확실하고 모리들은 일본사람 모리형제가 몇천석을 받은 대지주였으므로 모리들이 아닌가 생각하며, 점등은 석지부락 넘어 골짜기에 약16세기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조백자도요지다. 분청, 백자, 옹기요지와 야철지가 있다.

○ 공공건물

건 물 명	규 모	건립년도	비 고
마을회관	10평	1977. 03. 05	
공동창고	15평	1975. 04. 05	
경 로 당(석지)	19평	1996. 05. 01	이문리 66-1

○ 유적·유물

·돈성재(敦誠齋) 세덕비(世德碑) 용현각(龍현閣) : 나주 정씨 제각, 문중사우, 세전유물(世傳遺物)인 용현등이 보관 돼 있다.

·비(碑) : 애국지사 정윤면(鄭胤勉)충절비, 독립유공자 의암(義菴) 정기연(鄭琦衍)기적비, 효열부 광산노(盧)씨 기적비, 효장 농산(農山) 정병호(鄭昺琥) 선적비가 마을앞에 있다.

·도요지 : 석지 저수지 상당 100m지점 여시밭등의 기슭에 위치, 분청사기와 백자를 16C~17C에 걸쳐 제작한 것으로 추정

○ 지명

·계림(桂林)/계양(桂良) : 석지마을 중앙에 있는 마을

·동산(東山) : 석지 동쪽에 있는 마을

·월산(月山) : 석지 북쪽에 있는 마을
·소박(小泊)/소백이 : 석지와 원이문 사이 나산강(하천)변에 있었던 마을로 70년대 초에 폐촌 되고 1999년에 장승공원을 조성
·환곡교(環谷橋) : 소배기에서 초포리로 건너가는 나산강 상의 다리
·소백이장터 : 1910년 궁평장이 없어지면서 지금의 도천보 양수장 주변에 조그만 장이섰다.
·수박산/소박산(小泊山) : 석지 북쪽에 있는 산, 수박처럼 둥글다해서 붙여진 이름.

○ 자생조직단체

·위친계(爲親契) : 계원 상호간의 친목과 부모상제를 위해 100년 전에 창립, 총 31가구가 참여.
·회갑계(回甲契) : 계미생 회갑시 친목을 목적으로 1978년 창립, 총 11가구가 참여.
·동갑계(同甲契) : 계사생 동갑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1980년 창립, 총 5가구

○ 배출인물

·정윤면(鄭胤勉) : 애국지사 항일운동가, 건국공로 대통령표창
·정기연(鄭琦衍) : 함평의 3.1운동 주동, 독립유공자, 건국공로 대통령표창
·이연지(李連之) : 한말에 군 좌수 역임 ·정육연(鄭六衍) : 초등학교 교장
·정창연(鄭昌衍) : 제주지방법원 민사과 사무관 ·정병남(鄭昺男) : 미라핸드백 대표

(3) 원이문(原二門)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94	45	49	47	46	1	미맥		미맥
성 씨								
계	상산김	광산김	기 타					
47	37	2	8					

원이문

○ 마을형성 및 지명 유래

경북 상주에서 살던 상산김씨(商山金氏)가 풍수지리설에 따라 이 마을로 이주 해왔다는 말만 전할뿐 자세한 내력은 알 수 없으며 현재까지도 상산김씨가 자작일촌하고 있다. 이 마을은 본래 석문(石門), 이문(二門) 2개 마을이었다. 이문은 자연석(自然石)으로 된 돌문이 둘이 있어서 이문이라 하였고 석문은 좌우로 큰 바위가 문간처럼 서 있었으므로 석문이라 했는데 지난 1970년대 새마을운동에 의한 골목길 확장시 바위를 파손시켜버려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석문과 이문을 합하여 1789년 호

구총수 때 이문내리(二門內里)라 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이문(梨門)으로 표기했다가 지금은 원이문(元二門)이라 한다.
또한 땅모랭이라는 이름은 이문의 맨 끝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유래된 것으로 추측되며 이 마을에는 약 500년 된 정자나무가 있는데 성산김씨가 이주해 올 당시 심은 것이라 한다.

○ 공공건물

건 물 명	규 모	건립년도	비 고
공동창고	14평	1975. 04. 05	
경 로 당(삼리)	26평	1990. 02. 01	이문리 673-1

○ 유적·유물

·영사각(永思閣) : 상산김씨 세석(世奭) 향사
·팔도유람비 : 김금남(1906-1982)선생의 팔도유람을 기념하기위해 세운비다.
·노거수 : 마을의 정자나무인 느티나무는 마을나무(10-22-7-5-35)로 1995년에 지정되었다.

○ 전설

이 마을 상산김씨 제실 옆에 굴이 있는데 이 굴에서 호랑이가 새끼를 낳고 살았으나 바로 있는 산지기 집에는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지금도 이굴을 호랑이 굴이라 부르고 있다.

○ 지명

·우대미 : 이문안 위에 있던 마을
·땅모랭이 : 원이문을 칭하는 것으로 오수산 맨 끝자락 또는 이문리 맨끝 마을을 칭하는 것으로 추측됨.
·점등 : 남살매 서쪽에 있는 등성이, 전에 옹기점이 있음

○ 배출인물

·김창원(金昌源) : 전 노동청 감독관실과장 역심 ·김판남(金判南) : 초등학교 교장 역임
·김중호(金仲鎬) : 영광군 군서면 사찰 주지 ·김평호(金平鎬) : 외교통상부 근무
·김건원 : 서울지점 서기관 근무 • 김홍원 : 광주광역시 초등학교 교감 재임

14) 초포리(草浦里)

입석(立石) 마을의 고인돌군(群) 사산의 원형고분과 독무덤 그리고 사촌의 청동기시대 유물 출토등 초포리 일대는 선사시대 유적유물의 집중 분포되어 있는 초포리 일대는 이곳이 마한시재의 소왕국(小王國) 중심지일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어 앞으로 고고학의 활발한 조사 연구가 기대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평릉면 입석(立石·선들·선돌), 하관(下官), 사산(射山), 장송(長松), 초포(草浦), 환곡(環谷) 전역과 사촌(沙村), 분토(分土) 각 일부를 묶어 초포마을의 이름을 따 초포리(草浦里)라고 하였다. 그후 하관 장송 마을은 폐촌되고 분토는 삼축리로 편입됐다.

(1) 사산(射山)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106	46	60	41	40	1	미맥	마늘,양파	미맥
성 씨								
계	함평이	김해김	기 타					
41	21	3	17					

○ 마을형성 및 지명 유래

사장 뫼(射山)마을은 조선조 중종때 진사(進士)를 지낸 함평이씨(咸平李氏) 순지(舜枝, 1458~1519)가 이곳에 정착하였는데 그의 자손들 중 문과급제자 3명을 배출하고 함평이씨가 대를 이어 자작일촌을 이루고 있다. 뒷 뫼와 마을 대숲속의 독무덤, 돌방무덤 분포지에서 4세기 초의 것으로 추정되는 1970년 출토한 백제옹관은 전남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입석마을과 그 주변의 고인돌군에서는 1983년에 곡식의 열매를 따거나 요리를 할 때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반달돌칼 1점이 수습되어 광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등, 이 마을은 백제때는 다지현(多只縣)에 속했던 곳으로, 신라때는 다기현(多岐縣)이라 했고, 고려때는 모평현(牟平縣)이라 했으며, 마한(馬韓)의 소국(小國) 모수국(牟水國)이 이곳이 아닐까 여겨지는 곳으로 주위의 문화유적을 보면 인근 사촌(砂村)마을 돌널무덤에서, 근세 청동기유물 발굴사상 최고의 경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모두 26점의 각종유물이 수습됨으로써 가히 청동기 유물의 백화점이라 칭 할 수 있고, 마을의 반경 2km 내외에 214기의 고인돌이 집중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았고, 그 문화가 어느 지역보다 앞섰다는 것을 입증하여 주고 있다.

마을 뒷산에 평능면의 사장(射場)인 관덕정이 있었으며, 활모양과 같다 하여 '사정뫼'라 불리워 오던 마을 이름은 1914년 개편때부터 '사산(射山)'으로 바뀌 쓰고 있다. 1996년 문화체육부와 향토사 연구 전국협의회에서 한국의 전통마을 연구 보고서(1996, 도서출판 수서원)가 발간됐다.

○ 공공건물

건 물 명	규 모	건립년도	비 고
공동작업장	30평	1974. 04. 15	
공동창고	12평	1975. 03. 10	
마을회관	30평	1975. 03. 15	
경 로 당	31평	1991. 03. 01	초포리 722-1

○ 유적·유물

·돌널 : 이 돌널은 국도 24호선에서 사산마을로 들어가는 교차로 바로 옆의 산에 있는 형태로 뚜렷이 확인할 수 있는 원형고분 3기, 이외 형태를 거의 찾을 수 없는 1기에서 대형 돌널이 출토되어 현재 전남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옹관은 4세기초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고분군은 4세기 전후로 추정된다. 그리고 마을 뒤 대밭속에 6기의 고분이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다.

·이규행 가옥 : 400여년 전에 지은 일자(一字)형 7간 반 겹집인데 현재는 안채만 보존되어 있으나 기둥 및 기와등의 상태가 양호하다. 전남도 지정문화재 자료 150호로 1987년에 지정되어 있다.

·이건풍가옥 : 함평에서 가장 오래된 고가로 전남도 지정문화재 자료 251호로 2004년에 지정되었고, 기둥은 밤나무이고 일제강점기에 대수선을 한 흔적이 있다.

·사산사(射山祠)/사정촌사(射亭村詞) : 함평이씨의 시조 이언(李彦)외에 선조 6위를 배양하고 있다. 1790년 창건, 1868년 훼철, 1936년 복설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필본문집류(筆本文集類) : 1759년 영조때 이조정랑을 역임한 이명룡(李命龍)이 소지한 것.

·사산줄나무 : 마을 중앙에 폭 10~20m 길이 250m에 12종 81본의 나무가 식생한다.

·모원제(慕遠濟) : 마을입구에 함평이씨 사산 입향조 이순지(李舜枝)를 모신 제각, 묘갈명(墓碣銘)도 있다.

·노거수 : 이규행가옥 대밭에 수령이 약350년정도된 모과나무와, 300여년으로 추정되는 동백나무가 있다.

수령이 약 500년으로 추정되는 마을 앞 느티나무는 마을나무(10-22-7-10-57)로 1998년에 지정되었다.

·기타 : 마을앞에 효자 모암(慕菴)선생 함평이공 장헌(章憲)기적비, 절부 모(牟)씨 및 효부 김(金)씨 기실비, 정부 여산 송(宋)씨 기실비 및 절부 금성 나(羅)씨 기적비와 계일헌 이명룡의 비등이 있다.

○ 전설

사산(射山)은 지세가 활 형국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활(시위=사산마을)은 있는데 활대가 없어 제 구실을 못하여 마을이 크게 번창하지 못하므로 마을 주민들이 슬기 를 모아 마을 앞에 느티나무를 심은 지 몇 년이 지나자 마을이 번창하기 시작하였고, 마을 건너편 월봉리 안영(鴈影)마을은 그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기러기가 날고 있는 형국으로 사산마을은 번창하고 안영이 점점 쇠퇴해 가자 안영동 마을사람들이 의논 끝에 사산에서 활을 쏘아 안영동의 기러기가

죽기 때문이라 믿고 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패로 기러기 형국의 목 부근등 마을 주위에 수백 그루의 느티나무를 심게 되어 두 마을 사람들의 슬기로 마을의 지세를 극복하였으며, 지금도 사산과 안영동마을에는 수십 그루의 느티나무가 각 마을의 수호수로써 무성하게 자라고 있으며, 앞마을인 입석(立石)마을의 명칭은 사산의 줄나무군의 중간에 화살촉으로 상징하는 선돌을 배치하여서 그 선돌에 의해 유래되었다.

○ 지명

·뒷뫼 : 사산 뒷산 해발 64m 동남쪽은 솔챙이 서북쪽은 산주콧빼기다. 활처럼 생겨 사정뫼라 고도 부른다.

·사정(射亭) : 뒷산 활터에 있던 정자 지금은 없다. 평릉면의 활터였다.

○ 자생조직단체

·상복계(喪服契) : 상제시 계원 상호간의 부조를 목적으로 1941년 창립, 총 49가구가 참여.

·회갑계(回甲契) : 동갑나기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1964년에 창립, 총 8가구가 참여.

○ 배출인물

·이문행(李汶行) : 나산면장(역임), 함평향교 전교역임

·이홍길(李洪吉) : 전남대 명예교수(현) ·이재욱(李載郁) : 광주문성고등학교 이사장

·이우행(李友行)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역임

·이재승(李載承) : 초등학교 교장 역임 ·이태길(李泰吉) : 화가

·이계인(李啓仁) : 국회 사무처 과장 ·이방형(李方衡) : 나산농협 3선 조합장 역임

(2) 사촌(沙村)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14	6	8	8	8		미맥		미맥
성 씨								
계	함평이	진주정	상산김	기 타				
8	2	2	2	2				

○ 마을형성 및 지명 유래

개촌자가 조선시대 때 백자(白磁)를 굽기 위해 이곳에 정착했다

는 말만 전할 뿐 어떤 성씨인지 내력을 알 수 없으며 마을 주변에는 도자기 조각과 가마, 취토장(取土場)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다. 1850년대까지 자기를 굽다가 취토불능으로 인하여 지금은 자취만 있을 뿐이다. 도공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해 버리고 현재는 초포에서 함평이씨(咸平李氏)가, 이문리에서 상산김씨(商山金氏)가 이주하여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987년 2월 22일 새마을 사업을 하다가 발견된 돌널무덤(석관묘)에서 출토된 청동기 유물들로 미루어 보아 2,300여년전 청동기 시대에 이미 이 인근에 부족국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촌

마을 주변에는 자기 조각과 가마굴 취토장이 있었고, 해보천이 마을 동북쪽에 사구(砂丘)를 만들어 주변에 모래밭이 있어 사촌(砂村)이라고 하다가 후에 사촌(沙村)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 유적·유물

·청동기 유물 출토지 : 1987년 2월 22일 이 마을 주민들이 마을 진입로 확장공사를 하다가 석관묘를 발견, 신고하여 국립중앙박물관과 광주박물관 연구팀에 의해서 발굴되었다.

출토된 청동기 유물은 무려 26점이나 되어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마을에서 출토된 청동기 유물의 중요성은 그동안 산발적이던 청동유물의 편년 연구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남북한을 통틀어 이처럼 다양하고 또 다수의 청동기 유물이 한곳에서 출토되기는 처음 있는 일이다.

·도요지 : 마을 앞 수로와 동쪽 밭자락에 위치한다. 주로 백자 제작지로 19C로 추정된다.

·마을입구에 충무공과 임진왜란때 한산도에서 대승하고 노량전투에서 순절한 이성와충의비가 1934년에 세워져 있다.

○ 전설

·옛날 아무도 모르게 여승(女僧)이 초포산(草浦山)을 머리에 이고 사촌 마을쪽으로 오는데 이 마을에 살던 여인네가 문 밖으로 나오다가 이를 보고 '어머 초포산이 걸어오네' 하고 소리치니 산이 우뚝 멈춰 서 버려 사촌뒷산과 연결되지 못하여 마을이 계속해서 발전하지 못하고 인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 특기사항

마을에 있는 국사재(國思齋)는 애국지사 이인행선생께서 이 집에서 태어나 소년시절부터 독립운동에 헌신하시었고, 광복이후에는 통일을 염원하며 애국애족의 마음을 일시 도저버린적이 없이 사시다 타계하신 집으로 광주의 유림에서 선생의 그 깊은 뜻을 담아 국사재라 칭하여 현판을 걸어 주었다.

○ 지명

·매앵이 : 사촌 북쪽에 있는 마을 지금은 폐촌됨

○ 자생조직단체

·상여계(喪輿契) : 상제 계원 상호간의 부조를 목적으로 1961년 창립, 총 7가구가 참여하고

있다.

○ 배출인물

·이인행(李仁行) : 항일 독립유공자, 건국공로훈장 애족장을 받음.
·이우진(李瑀珍) : 원광대졸, 한의학박사, 서울민재한의원원장

(3) 입석(立石)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67	37	30	18	17	1	미맥	메주	미맥
성 씨								
계	함평이	광산김	김해김	기 타				
19	13	2	2	2				

입석

○ 마을형성 및 지명 유래

사산 마을에서 분가한 함평이씨가 이 마을을 형성했다는 말이 전할 뿐 자세한 내력은 알 수 없고 1932년 식지면과 평릉면이 합하여 나산면이 되기 이전에 이 마을에는 평릉면사무소가 있었던 면소재지였다.

지금도 함평이씨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나산면에서 제일높은 천주봉이 마을 뒤에 우뚝 솟아있고 마을앞에서는 사산 마을이 있고 그 마을뒤로 높지 않은 조그만 산이 있으며 마을은 사방이 광활한 들판이다. 선돌이 있어 마을 이름을 '입석(立石)'이라고 하였다 한다.

창등(별환미창터), 선독걸, 선두미, 흔행이, 꽃정지, 방아샘, 솔모랭이, 뒷뫼, 산주꼬배기, 주갱이들, 개방죽, 평지떰, 선바위등 우리말로 된 지명이 많다.

○ 공공건물

건 물 명	규 모	건립년도	비 고
경 로 당(입석)	32평	2003. 12. 27	초포리 928-8

○ 유적·유물

·입석고인돌군 : 마을 입구와 북쪽, 서쪽 세 군데에 고인돌이 무리를 이루어 분포되어 있었으나 1986년 경지정리사업으로 모두 철거되었고 다만 몇 개의 바위를 지금의 동각자리로 옮겨 놓았다. 반월형 석도가 수습되어 광주 박물관에 보관중이다.

○ 지명

·면사무소터 : 초포리 860번지 옛 평릉면사무소터
·선독거리 : 선돌이 있던 곳, 줄나무숲 중앙에 있다. 마을 이름이 여기서 유래되었다.
·바위배기 : 입석마을 주변 고인돌군을 칭한다.

○ 자생조직단체

·상복계(喪服契) : 상제시 계원 상호간의 부조를 목적으로 1952년 창립, 총 19가구가 참여.
·회갑계(回甲契) : 계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1935년 창립, 총 5가구가 참여.

○ 특기사항

나산리 방하마을과 더불어 전통 농악놀이가 연행되고 있다. 마을내에 게이트볼 체육시설과 전통메주공장이 들어서 있다.

(4) 초포(草浦)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44	18	26	36	26	10	미맥	딸기	미맥
성 씨								
계	함평이	고흥유	기 타					
36	14	3	19					

초포

○ 마을형성 및 지명 유래

조선조 중종때 무과에 급제하여 만호(萬戶) 벼슬을 했던 이순화(李舜華)가 정착(초포는 만호공파, 사산은 진사공파라 함)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으며, 마을이 형성된 지 약500여년으로 추정됨. 이 마을 앞에 있는 정자나무는 함평이씨(咸平李氏)가 이 마을에 입주하면서 심은 것이라 한다.

노령산맥을 따라 뻗어 내리다 우뚝 솟구친 천주봉의 정기가 서린 자그마한 수풀이 세로로 놓여 있으니 서편은 사산이요, 동편은 초포이다.

북으로 불갑산이 솟아 있고 동으로는 오수산이 마주 바라다보고 있으며 그 사이로 장성에서부터 툭 트인 길고도 좁다란 평야가 놓여 있다.

예전에는 마을 뒷산과 마을 앞 정자나무 사이에 수각(修閣, 水閣, 1789년 호구총수지명, 서당과 같은 곳으로 글을 읽고 강의를 하던 곳)이 있어 인근 마을에서 많은 인재들이 모여들었다 한다. 또한 마을 옆 동산에서부터 마을 앞 방죽 주위까지 수목으로 우거져 있었으며 예전에는 이곳이 작은 포구(浦口)였다고 하여 마을 이름을 '초포(草浦)'라 했다고 한다.

○ 공공건물

건 물 명	규 모	건립년도	비 고
경 로 당(원초포)	44평	2004. 12. 09	초포리 87-1

○ 유적·유물

·초포사(草浦祠) : 이순화(李舜華), 이유인, 이명룡을 배향, 1730년 창건, 1868년 대원군의 서원훼철령에도 훼철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건물은 정면2칸, 측면1칸으로 맞배지붕이다.
·진수당터 및 유허비 : 조선 중종조때 무과에 급제한 이순화의 강학소의 터와 유허비가 있다.
·노거수 : 마을 앞 당산나무인 수령 350년의 느티나무가 마을나무(10-22-7-10-9)로 지정되어 있다.

○ 자생조직단체

·상복계(喪服契) : 계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제시 부조를 목적으로 100여년 전 창립되었으며 총 38가구가 참여하고 있다.
·회갑계(回甲契) : 신미생(辛未生) 13명으로 맺어진 것으로 계원 상호간 친목과 부조를 목적으로 1972년 창립되었다.

○ 특기사항

초포리 376번지에 나산북초등학교가 1968년 9월 1일 개교했으나, 이농에 의한 학생수 감소로 1995년 3월 1일 폐교되었다.

○ 배출인물

·이호연(李浩衍) : 광주시 출장소장 역임
·이재남(李載男) : 전 나산면장(2대)
·이용근(李龍根) : 초등학교 교장 역임
·이건성(李建成) : 남양주 세무서장
·이경훈(李京勳) : 세무서장 역임
·이철행(李哲行) : 함평엑스포보좌관
·이건홍(李建洪) : 서울 금강운수사장
·이덕행(李德行) : 전 나산면장(12대)
·이두행(李斗行) : 서울시청 사회과장역임
·이수범(李洙範) : 육군중령 예편
·이광범(李光範) : 경무관 퇴임
·이 우(李 佑) : 건축시공기술사

(5) 환곡(環谷)

○ 기본현황

인 구(명)			가 구(호)			산 업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17	7	10	10	10	0	미맥		미맥
성 씨								
계	함평이	화음봉	기 타					
10	3	1	6					

환곡

○ 마을형성 및 지명 유래

함평이씨(咸平李氏) 이택헌(李澤憲)이 초포(草浦)에서 살다가 이곳에서
터를 잡았다고 한다.

마을 뒷산이 말(馬)의 형상으로 마굴안산인데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말의 꼬리는 옥(玉)의 고리라 한다. 그러므로 고리의 형국이 보통의 고리와는 달리 임금님을 모시는 특수한 고리의 형국이라 해서 마을 이름을 '환곡(環谷)'이라고 하였다 한다. "고실"이라고도 불린다.

○ 자생조직단체

·상부계(相夫契) : 계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1920년 창립, 총 8가구가 참여하고 있다.

○ 특기사항

옛날에 이곳은 전부 천수답(天水沓)이어서 깨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깻베미골'이라고 불렀다 하는데 장성댐의 영향으로 수리안전답이 된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다.

○ 배출인물

·이건리(李建莅) : 대검찰청 중앙수사본부 연구관
·이문광(李文光)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이단행(李丹行) : 제18대 나산면장 역임
·이건업(李建業) : 원광대졸, 한의학박사, 이건업한의원원장

제3절 대동면(大洞面)

집필 / 최권진

강운리(江雲里) / 457
금곡리(金谷里) / 463
금산리(金山里) / 466
덕산리(德山里) / 471
백호리(白湖里) / 475
상옥리(上玉里) / 481
서호리(西湖里) / 485
연암리(連岩里) / 489
용성리(龍城里) / 492
운교리(雲橋里) / 499
월송리(月松里) / 503
향교리(鄕校里) / 505

1. 연 혁

대동면

대동면은 이름과는 달리 함평군에서 면적이나 인구가 가장 작은 면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여러번의 행정구역 개편을 거친 오늘에 있어서는 이름 그대로 함평에서 가장 큰 고을이 되었다. 그래서 모두들 대동(大洞·큰 고을)이라는 이름의 불가사의를 이야기 하고 있다.

원래 대동면은 현 덕산리, 용성리, 운교리, 금산리, 서호리, 연암리 등 6개리로 출발하였다. 그러던 것이 1914년 기성면(현 함평읍)에 속해 있던 향교리와 강운리가 편입되었다. 이 지역은 백제시대에는 굴내현(屈乃縣)이라 했고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는 함풍현(咸豊縣), 조선시대에는 함평현(咸平縣)이 라 했다가 1895년에 함평군이라 했다.

1914년 이(里)가 생길 때 조종 소속된 대동면의 이와 마을은 다음과 같다.

▶ 강운리(江雲里)

기성면의 강정리(江亭里)·신흥리(申興里)·홍지리(弘池里)·호동리(虎洞里)·운대리(雲大里)·검천리(儉川里)·송정리(松亭里)·광치리(光峙里) 전 지역과 평능면(平陵面; 현 나산면)의 가식리(可食里)·복산리(福山里) 그리고 목포부 금동면 주평리(舟坪里) 각 일부 지역

▶ 금곡리(金谷里)

목포부 금동면의 남악리(南岳里)·서옥리(西玉里)·월곡리(月谷里)·금적동(金迪洞) 전 지역과 금동면의 비산리(飛山里) 전역과 옥산동(玉山洞)·금곡리(金谷里) 나주군 거평면 죽곡(竹谷) 각 일부 지역

▶ 금산리(金山里)

대동면의 감산리(甘山里)·금구리(金龜里)·노적리(老迪里) 전 지역

▶ 덕산리(德山里)

대동면 아차리(牙次)·고산리(高山里)·내덕리(內德里)·외덕리(外德里) 전역

▶ 백호리(白湖里)

목포부 금동면의 보동(保洞)·백연동(白蓮洞)·보화촌(保化村)·석호리(石湖里) 전 지역과 기성면 하교리(下校里) 일부 지역

▶ 상옥리(上玉里)

목포부 금동면(金洞面)의 매동리(梅洞里)·상옥동(上玉洞) 전역과 옥산동(玉山洞)·모산리(毛山里), 나주군 거평면(居平面; 현 문평면) 죽곡리(竹谷里) 각 일부 지역.

▶ 서호리(西湖里)

대동면의 성정리(成丁里)·호정리(虎丁里)·동호리(東湖里)·서변리(西邊里)·분매리(分梅里) 전 지역(이곳 지역은 1982년 목포 상수도 수원지로 수몰되었던 지역으로 산골짜기를 서쪽의 호수라 이름 한 것이 이름 그대로 호수가 되자 모두들 지명의 선견지명에 감탄하고 있다.)

▶ 연암리(連岩里)

대동면의 수현리(水峴里)·수암리(水岩里)·옥련리(玉連)·상금리(上今)·하금리(下今里) ·마치리(馬峙里)·구적리(九迪里)·장재리(長才里)·전 지역과 해보면 회화리(檜花里) 일부지역

▶ 용성리(龍城里)

대동면의 용연리(龍淵里)·괴정리(槐亭里)·정창리(正昌里)·금성리(金城里)·구룡리(九龍里) 전 지역과 기성면의 화동리(化同里) 일부 지역

▶ 운교리(雲橋里)

대동면의 운림리(雲林里)·판교리(板交里)·갈구리(渴龜里; 현 대동제에 잠김)·운제리(雲悌里)·용성리(龍城里)·전 지역과 신광면 장산리(長山里) 일부 지역

▶ 월송리(月松里)

목포부 금동면의 동암리(東巖里)·시랑동(侍郎洞)·학송정(鶴松亭)·옥림동(玉林洞)·우러암리(月巖里) 전 지역과 주평리(舟坪里) 일부 지역

▶ 향교리(鄕校里)

현 면사무소 소재지.

기성면(현 함평읍)의 상교리(上校里)·중교리(中校里)·동교리(東校里)·고이리(古耳里) 전역과 하교리(下校里)·기산리(箕山里)·천변리(川邊里), 목포부 좌촌면 화산리(花山里)·고시리(古市里) 각 일부 지역

그 뒤 1973년 3월 12일 대통령령 제 6542호에 의거, 같은 해 7월 1일 학교면의 상옥·월송·금곡·백호리 등 4개 리가 편입됨으로써 대동면의 법정리는 12개 리로 불어나 군내의 면 가운데 면적에 있어서는 가장 큰 면이 되었다.

편입된 4개 리는 백제때는 물아혜군(勿阿兮郡) 신라때는 면주(綿州) 고려때는 물양군(勿良郡)이

라 하다가 면성군(綿城郡)으로 바뀌 조선조 말에 이르렀으며, 1895년부터는 목포부 금동면(金洞面)이라 하다가 1914년에 함평군 학교면 금곡·상옥·월송·백호리였다.
이 가운데 서호리의 분매, 호정 일부와 서변(일명 은행정), 동호정 마을의 일부와 연암리의 수현과 호암, 수암마을 등은 1982년 목포시 상수원 공사로 지금의 대동댐에 수몰되었다.

2009년 6월 현재 대동면은 법정리 12, 행정리 30, 48개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강운리(江雲里): 송산·복산(1구)), 상강(2구), 주평(3구), 홍지·학송(4구)
▲금곡리(金谷里): 남악(1구), 금적(2구)
▲금산리(金山里): 감산·금구·녹파(1구), 노적(2구)
▲덕산리(德山里): 아차(1구), 고산(2구), 외덕(3구), 내덕(4구)
▲백호리(白湖里): 석호·용목(1구), 백련(2구), 보화(3구)
▲상옥리(上玉里): 옥동·매동·모산
▲서호리(西湖里): 성정·호정·동호정
▲연암리(連岩里): 옥연·상하금·마치·구적·장재
▲용성리(龍城里): 용연(1구), 구룡(2구), 정창(3구), 금성(4구), 괴정(5구)
▲운교리(雲橋里): 판교·운림(1구), 마량(2구)
▲월송리(月松里): 동암·시랑
▲향교리(鄕校里): 상교·동교(1구), 중교·남교(2구), 고시(3구), 서교·명교(4구)

본래 대동면사무소는 덕산3리(외덕마을)에 있었다.
그러던 것이 지금과 같이 향교리 863-1번지로 옮겨지게 되었던 것은 1975년2월7일이다.
그 시설 현황은 본관 90평(1층 50평, 2층 40평, 3층 35평)과 창고 27평, 숙직실 등 기타 부속건물 14.3평, 대지 369평이 였으며,

현재 신축건물은 나비모형 건물로 지상2층으로 2008. 12. 21. 대동면종합복지센터가 준공되었다.
시설현황은 부지4,305㎡로, 건축연면적2,043㎡로 (1층1,138㎡ , 2층905㎡) 신축되었음.
== 대동면종합복지센터 현황 ==
0 본관 : 면사무소, 보건지소, 대동면대, 주민자치센터, 회의실, 인터넷사랑방, 사랑방문고
0 별관 : 찜질방, 다목적 강당
0 본관과 별관 사이에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를 위하여 엘리베이터가 설치 되어있다

직원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구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고용인	합계
명	1	4	7	1	1	1	0	15

2. 경지면적·가구인구수

연번	리 별	자연마을명	경지면적(㎡)					가구수(호)	인구수(명)		
			계	전	답	과수	기타		계	남	여
계	30개리	48개 마을	1,225.5	272.3	949.7	18.4	3.5	1,561	3,327	1,631	1,696
1	상 옥	옥동,매동,모산	80.7	11.7	68.9	0.4	0.1	89	178	90	88
2	금곡1	남악	19.0	5.8	13.1	0.2	0.1	33	59	26	33
3	〃 2	금적	33.4	4.1	29.2	0.1	0.1	42	70	33	37
4	월 송	동암,시랑	39.8	11.3	28.5	0.0	0.0	65	135	62	73
5	백호1	석호,용목	57.7	10.5	47.2	0.0	0.0	57	131	65	66
6	〃 2	백년	30.6	6.2	24.1	2.7	0.3	57	121	66	55
7	〃 3	보화	65.1	18.1	46.9	0.4	0.1	29	61	31	30
8	강운1	송산,복산	28.3	4.4	23.4	0.9	0.5	43	76	45	31
9	〃 2	상강	38.7	14.4	24.1	0.3	0.2	38	84	38	46
10	〃 3	주평	38.0	8.2	29.8	0.0	0.0	53	90	43	47
11	“ 4	홍지,학송	46.3	16.9	29.3	0.9	0.1	42	91	49	42
12	향교1	상교,동교	32.4	11.9	20.5	0.0	0.0	95	222	115	107
13	〃 2	중교,남교	41.0	11.2	29.5	1.8	0.3	102	241	107	134
14	〃 3	고시	42.8	16.1	26.7	0.0	0.0	50	105	38	67
15	〃 4	서교,명교	41.8	10.6	30.9	1.6	0.3	120	265	125	140
16	덕산1	아차	36.9	7.6	29.3	0.0	0.0	53	124	63	61
17	〃 2	고산	21.5	8.0	13.3	4.0	0.2	37	64	28	36
18	〃 3	외덕	57.4	6.7	50.3	0.0	0.4	67	152	72	80
19	〃 4	내덕	25.8	3.3	22.5	0.0	0.0	24	54	28	26
20	용성1	용연	56.5	4.0	52.4	0.0	0.1	42	98	44	54
21	〃 2	구룡	30.5	2.9	27.6	0.0	0.0	28	68	38	30
22	〃 3	정창	21.4	3.6	17.8	0.4	0.0	38	79	44	35
23	〃 4	금성	41.0	7.5	33.5	0.5	0.0	65	143	71	72
24	〃 5	괴정	22.0	2.5	19.5	0.0	0.0	27	59	30	29
25	운교1	판교,운림	69.3	7.7	61.6	0.0	0.0	53	124	63	61
26	〃 2	마량	31.8	6.5	25.3	0.0	0.0	30	77	38	39
27	금산1	감산,금구,녹파	48.5	10.2	38.3	1.7	0.0	70	127	63	64
28	〃 2	노적	50.1	8.2	41.8	0.0	0.1	46	110	51	59
29	서 호	호정,성정,동호정	40.0	23.2	16.6	0.0	0.2	29	55	29	26
30	연 암	옥연,상하금,마치,구적,장재	37.2	9.0	27.8	2.5	0.4	37	64	36	28

3. 대동면의 10대 성씨

순위	씨 족 명	가 구 수	집 단 거 주 지
1	광산김씨(光山金氏)	188	덕신리 내·외덕
2	함평이씨(咸平李氏)	167	덕산리 고산동·금산리 감산
3	밀양박씨(密陽朴氏)	109	용성리 금성동
4	파평윤씨(波平尹氏)	108	상옥리 옥동
5	전주리씨(全州李氏)	104	강운리 주평·금산리 노적
6	한양조씨(漢陽趙氏)	96	운교리 판교
7	김해김씨(金海金氏)	82	용성리 용연, 정창, 금산리 노적
8	이천서씨(利川徐氏)	72	금곡리 금적·백호리 보화촌
9	낙안오씨(樂安吳氏)	52	월송리 동암·시랑
10	함평노씨(咸平魯氏)	49	운교리 판교

4. 역대 대동면장 명단

대(代)	성 명	출신지(리별)	재 임 기 간	비 고
1	이 종 석(李 鍾 錫)	대동 향교리	1946. 02. 05 ~ 1947. 03. 02	
2	노 재 천(盧 在 千)	함평 내교리	1947. 03. 02 ~ 1949. 05. 09	
3	박 경 학(朴 京 學)	함평 기각리	1949. 05. 09 ~ 1951. 01. 31	
4	김 대 규(金 大 圭)	손불 동암리	1951. 01. 31 ~ 1952. 05. 05	
5	이 강 산(李 江 山)	대동 향교리	1952. 05. 05 ~ 1952. 10. 13	
6	김 일 용(金 日 龍)	대동 향교리	1952. 10. 31 ~ 1953. 09. 28	
7	김 주 현(金 周 鉉)	대동 운교리	1953. 09. 28 ~ 1953. 12. 03	
8	김 봉 수(金 蓬 洙)	대동 금산리	1953. 12. 03 ~ 1955. 10. 14	
9	박 판 운(朴 判 云)	대동 용성리	1955. 10. 14 ~ 1957. 11. 13	
10	박 재 순(朴 載 淳)	대동 용성리	1957. 11. 13 ~ 1960. 10. 13	
11	박 재 순(朴 載 淳)	대동 용성리	1960. 11. 26 ~ 1961. 05. 15	
12	이 재 봉(李 載 鳳)	대동 월송리	1961. 06. 03 ~ 1961. 12. 31	
13	오 충 섭(吳 忠 燮)	대동 강운리	1962. 05. 21 ~ 1965. 09. 20	
14	조 병 팔(趙 炳 八)	대동 덕산리	1966. 06. 21 ~ 1969. 03. 18	
15	김 영 곤(金 永 坤)	대동 향교리	1969. 04. 21 ~ 1977. 04. 04	
16	주 영 훈(朱 榮 勳)	대동 덕산리	1977. 04. 08 ~ 1989. 10. 25	
17	김 한 수(金 漢 洙)	대동 덕산리	1989. 10. 26 ~ 1994. 10. 25	
18	김 규 준(金 奎 準)	학교 고막리	1995. 03. 09 ~ 1996. 05. 31	
19	박 형 필(朴 炯 弼)	대동 향교리	1996. 06. 01 ~ 1999. 01. 21	
20	이 주 헌(李 周 憲)	대동 덕산리	1999. 01. 22 ~ 2001. 01. 14	
21	고 홍 재(고 홍 재)	신안 도초면	2001. 01. 15 ~ 2002. 01. 20	
22	이 윤 성(李 允 聖)	함평 수호리	2002. 01. 21 ~ 2004. 07. 19	
23	김 영 학(김 영 학)	대동 향교리	2004. 07. 20 ~ 2006. 09. 21	
24	윤 행 식(윤 행 식)	대동 상옥리	2006. 09. 22 ~ 2007. 07. 19	
25	최 영 철(최 영 철)	대동 향교리	2007. 07. 20 ~ 현재	

5. 면의원(面議員) 명단

대(代)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직업	학력·경력	소속정당	비고
제1대	의장	김창수(金昌洙)	1905. 04. 05	덕산리 1073	농업	이장 3년	자유당	
	부의장	이삼범(李三範)	1909. 11. 06	향교리 546	〃	이장 5년	〃	
	의원	이대행(李大行)	1926. 09. 27	향교리 554	교원	중교사 3년	〃	
	〃	이원숙(李元淑)	1922. 08. 19	향교리 1186	농업	면서기 3년	〃	
	〃	전태현(田台鉉)	1914. 02. 12	강운리 893	〃	회사 서기	〃	
	〃	윤행기(尹行基)	1900. 01. 23	덕산리 608	〃	이장 2년	〃	
	〃	이야무(李也務)	1904. 08. 21	용성리 901	〃	이장 1년	〃	
	〃	김일용(金一容)	1914. 10. 20	용성리 185	〃	이장 4년	〃	
	〃	조병흡(趙炳翕)	1887. 09. 05	운교리 992	〃	이장 3년	〃	
	〃	이대헌(李大憲)	1910. 03. 08	금산리 304	〃	이장 3년	〃	
	〃	국복동(鞠福同)	1907. 03. 28	연암리 324	〃	이장 6년	〃	
	〃	이창섭(李昌燮)	1917. 12. 30	서호리 355	〃	전매서서기5년	〃	
제2대	의장	유정근(兪精根)	1928. 08. 03	강운리 675	〃	대2 중퇴	〃	한청단장2년
	부의장	이일범(李一範)	1914. 07. 20	서호리 714	〃	중졸,군청3년	〃	
	의원	이강산(李江山)	1910. 11. 02	향교리 1244	〃	중졸,군청5년	〃	
	〃	김국현(金局鉉)	1897. 05. 04	덕산리 312	〃	한학,이장2년	〃	
	〃	김일용(金一容)	1914. 10. 20	용성리 185	〃	국졸,이장3년	〃	
	〃	이계순(李啓順)	1916. 02. 16	덕산리 645	〃	보통졸,이장3	〃	
	〃	한덕심(韓德心)	1922. 10. 16	향교리 1005				
	〃	이상순(李相淳)	1926. 03. 05	향교리 526				
	〃	박재복(朴載福)	1921. 10. 28	용성리 491	농업	중졸,토목사업	자유당	토목사업2년
	〃	이민철(李敏喆)	1923. 11. 10	금산리 170	〃	대졸,군청2년	〃	
	〃	정갑동(鄭甲童)	1924. 04. 08	연암리 751	〃	중졸,군청3년	〃	
제3대	의원	신유석(申有錫)	1918. 06. 04	향교리 771				
	〃	조종원(趙種元)	1915. 09. 15	금산리 22				
	〃	이점순(李点淳)	1929. 04. 16	향교리 568				
	〃	이만도(李晩到)	1927. 06. 15	향교리 625				
	〃	박병옥(朴炳鈺)	1926. 03. 10	덕산리 603				
	〃	박재복(朴載福)	1921. 10. 28	용성리 491				
	〃	이향규(李香圭)	1926. 03. 10	용성리 730				
	〃	김민수(金敏洙)	1921. 01. 23	용성리 610				
	〃	유정근(兪精根)	1928. 08. 03	강운리 675				
	〃	이규백(李圭白)	1920. 03. 15	신광동정551				
	〃	이정헌(李禎憲)	1920. 10. 02	금산리 171				

6. 마을사(史)

이명: 가나다 순

1) 강운리(江雲里)

주평을 제외한 강운리 마을들은 조선중기때까지 함평현 동현내면에 속했던 지역이다. 그후 1906년에는 기성면에 속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지금과 같이 대동면에 편입되었다. 이때 원래 목포부 금동면에 속했던 주평마을도 대동면에 편입되었다.

강운리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이제(里制)를 실시하면서 기성면의 강정(江亭),신흥(申興),홍지(弘池),호동(虎洞),운대(雲大),검천(儉川), 송정(松亭), 광치(光峙) 전역과 평능면 가식(可食), 복산(福山), 목포부 금동면 주평(舟平)의 각 일부를 묶어 강정에서 '강(江)'자 운대에서 운(雲)'자를 따서 리명을 강운리로 하였다.

현재 강운리는 1구(송산,복산), 2구(상강), 3구(주평), 4구(홍지,학송)으로 나누어져 총 6개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1) 송산(松山)

【송산 · 복산 마을현황】

가 호			인 구			본 관 별 성 씨 (단위 : 가호)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김해김	진주정	최	기타				
43	39	4	76	45	31	12	3	6					

면 적			종 교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27.8ha	23.4ha	4.4ha			

o 마을 이름의 유래

송산마을의 원래 이름은 송정(松亭:1789년 호구종수지명)이었다.

그러던 것이 1910년경에는 송정(松丁)으로 표기되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에 이르 러서야 지금과 같이 평능면 복산(福山)과 합쳐지면서 송정의 송(松)자와 복산의 산(山)자

를 따서 송산이라는 마을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다.

o 마을의 형성

지금으로부터 500여년 전 해주최씨가 터를 잡고 거주하게 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한때 6.25전쟁으로 인해 소개되었으나 잠시 외지에 나가 살다 수복 후 다시 입주하여 마을을 이루어 오고 있다.

o 자생조직

명 칭	창립년도	인원	목 적	참 고
마을촌계	1890년	25호	마을의 발전 도모, 기금 확보	

o 공공건물

: 마을회관 : 25평, 1979년 준공

o 유물과 유적

·행주기씨효열비 : 근몽(勤夢) 유순기(柳順基)의 처 행주기씨(幸州奇氏)의 효열을 기리기 위해 1901년 세웠다.
·참봉유희석추념비(參奉柳熙奭追念碑) : 유희석의 선정을 기리기 위해 1941년 세웠다.
·김유최삼성술선계고적비(金柳崔三性述先契古蹟碑) : 1937년에 세워졌다.

o 배출인물

·손만수 : 육군대령
·정성훈 : 성균관대학교 서무과장 역임
·김일현 : 초등학교 교장 역임
· 김대성 : 조선대학 의과대학 졸업 (내과전문의)

(2) 복산(福山)

o 마을 이름의 유래

이 마을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까지는 지금의 나산면인 평능면에 속했던 마을이었다. 마을 이름은 마을 앞산을 조리봉이라 부르고 주위가 산으로 둘러 쌓여있다 해서 복조리의 복(福)자와 뫼 산(山)자를 넣어 복산(福山)이라 하였다.

복산

o 마을의 형성

마을의 형성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년 전으로 해주최씨가 이웃 송정마을로부터 이주 정착하게 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고, 현재 마을 앞에 서 있는 당산나무도 이때 심어졌던 나무라 전해지고 있다.

o 자생조직

명 칭	창립년도	인원	목 적	참 고
마을촌계	1890년	20호	마을의 발전 도모, 기금 확보	

(3) 상강(上江)

o 마을 이름의 유래

이 마을은 고산봉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여울에 예로부터 정자가 세

워져 있었기에 강정(江亭) : 1789년 호구총수 지명) 이라는 마을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그 후 1912년 한때 한자 표기만 달리한 강정(江丁)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는 다시 그 전의 이름인 강정(江亭)으로 표기했다. 그러나 그후 주민들이 강정을 '윗강정', 주평을 '아랫강정'이라 즐겨 부름에 따라 이를 한자 표기화하여 지금과 같이 상강(上江)이라는 이름으로 쓰이고 있다.

한편 이곳 마을은 별호로서 '삼등터'라는 이름이 있다. 이는 담양전씨와 홍덕장씨, 해주오씨 등 세 개 성씨가 득세하였던 연유에서 붙여지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o 마을 현황

가 호			인 구			본 관 별 성 씨 (단위 : 가호)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김해김	밀양박	장	한	기타			
38	35	3	84	38	46	11	3	7	4				

면 적			종 교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38ha	24ha	14ha			

o 마을의 형성

상강마을은 예로부터 담양전시, 흥덕장씨, 해주오씨, 연안이씨 등이 득세한 마을로 알려진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입촌한 성씨는 담양전씨로 전세균(田世畇)이 1570년경에 입촌하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전세균의 아버지 전실(田實)이 지금의 학교면 사포(沙浦)에 이시 세거하였던 행적이 있지만 상강마을 개촌은 묘소가 이곳에 있는 전세균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어쨌든 전세균은 상강마을에 정착한 이후 그의 딸을 나주 문평면의 호남 명족인 금성나씨 나세찬(羅世纘)에게 출가시기는 등 당대 함평지방의 명족으로 부상시켰다.

담양전씨의 뒤를 이어 상강에 정착한 성씨는 흥덕장씨이다. 장씨들은 장천구(張天龜:1761~1829)라는 사람이 그의 외가인 담양전씨를 찾아 입촌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흥덕장

씨 가문은 이 마을에 들어와 순조년간(1852년)에 장인택(張仁澤)이 문과에 급제하고 이후 광주부사를 역임하는 등 그 후손이 득세하게 된 성씨다. 한편 해주오씨는 지금으로부터 150여년 전, 그리고 연안이씨는 해주오씨의 뒤를 이어 상강마을에 입향한 성씨들이다.

o 자생조직

명 칭	창립년도	인원	목 적	참 고
촌중계	1965년	35호	마을 기금 확보, 상호부조	
위친계	1970년	35호	부모 유고시 부조	

o 공공건물

· 마을회관 : 1동(15평)　　· 시 정 : 1동(10평)

o 유물과 유적

·흥덕장씨 장갑동(張甲同) 소장 고문서 : 장갑동씨 집에 소장하고 있는 옛 문서류는 총29건이다. 시기적으로는 19세기 중엽으로부터 말기에 이르기까지 작성 수수되었던 문서들이다. 문서의 종류는 준호구와 교지 등이 주류를 이룬다.

·고인돌 : 2기가 있는데 1기는 마을 입구 밭에 있으며, 마을 정류소 건너편 밭에 1기가 있다. 이곳은 일명 '바우배기'라 불리우며 농경지가 넓게 펼쳐져 있다

o 배출인물

· 장인택 : 1852년 문과급제. 광주부사 역임
· 오충섭 : 13대 대동면장
· 오세중 : 육군 소령 예편, 보국훈장(광복장)
· 이건영 : 함평경찰서장 역임
· 장재형 : 대학 교수, 황록근정훈장

(4) 주평(周平)

o 마을 이름의 유래

풍수지리상 이곳 마을의 형상이 물에 떠있는 배와 같다하여 주평(舟平); 1912년 행정구역 개편 지명)이라 표기하여 불렸다고 전하는데 지금은 한자 표기만 달리한 주평(周平)으로 쓰이고 있다.

또한 마을 위쪽에 있는 도로를 경계로 하여 윗마을을 상강(윗강장이)이라 하고 이곳 마을을 아랫강정이라 즐겨 부르기도 한다.

주평

o 마을 현황

가 호			인 구			본 관 별 성 씨 (단위 : 가호)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김해김	밀양박	함평이	청주한	함평모	파평윤
53	50	3	90	43	47		1	10	5	2	

면 적			종 교			연 령 대 별 인구 구성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32ha	29ha	3ha							1	1	11		15	2

o 마을의 형성

지금으로부터 약 250여년 전 전주리씨 리경(1730년생)이 터를 잡아 마을을 형성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1789년에 간행한 『호구총수』에는 주평이라는 지명이 나오지 않고 다만 오소리(五所里)란 지명이 있어 아마도 주평이라는 이름을 쓰기 이전에는 이 마을의 이름이 오소리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이 마을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는 목포부 금동면에 속했던 마을이었다.

o 자생조직

명 칭	창립년도	인원	목 적	참 고
위친계	1970년	53호	부모 유고시 부조	

o 유물과 유적

· 유물산포지 : 마을 동쪽으로 300여 미터 거리에 있는 작은 구릉 남쪽경사면에서 회청색 경질토기편, 회색연질토기편, 기와편, 청자편 등이 확인 되었다.

o 배출인물

· 김남기 : 육균 소령

(5) 홍지(鴻池)

홍지

o 마을 이름의 유래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까지 동현내면에 속했던 이 마을은 한자 표기만 다른 홍지(弘池)라 불렸던 마을이다. 그러던 것을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 마을의 산 형상이 기러기와 연못과 같은 형국이라 하여 지금과 같이 기러기 홍(鴻)자와 못지(池)자를 써서 마을 이름을 홍지(鴻池)라 부르게 되었다.

【홍지 · 학송 마을현황】

가 호			인 구			본 관 별 성 씨 (단위 : 가호)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김해 김	밀양 박	함평이	고령신	진주강	광산김
42	40	2	91	49	42				4	4	3

면 적			종 교			연 령 대 별 인구 구성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이상
47ha	30ha	17ha	15	3	4	3	3				26	15	5	2

o 마을의 형성

마을의 형성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년 전으로 그때는 5세대가 정착하여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그 자세한 내력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다만 지금과 같은 마을의 규모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은 1950년대 말 정부가 이주 주택11동을 신축하여 난민들을 이주 정착시키므로 해서이다. 그래서인지 마을의 규모는 적으나 여러 성씨들이 살고 있다.

o 자생조직

명 칭	창립년도	인원	목 적	참 고
마을촌계	1890년	20호	마을의 발전 도모, 기금 확보	

o 공공건물

·마을회관 : 1동(25평), 1979년 준공 ·마늘창고 : 1동(50평), 1979년 준공

o 유물과 유적

· 고인돌 : 마을 앞 도로변에 고인돌 1기가 있다.

(6) 학송(鶴松)

o 마을 이름의 유래

학송

마을의 모습이 꼭 학이 소나무 밑에서 노니는 형국이라 하여 마을 이름을 학송(鶴松)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o 마을의 형성 : 입향 시조 및 유래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이 마을은 100여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전의 마을은 6.25 한국전쟁 때 불타버리고 지금의 마을은 그 이후 다시 정착하여 형성된 마을이다.

이 마을은 하천을 경계로 하여 이웃한 홍지 마을과 구별을 짓는데 얼른 보아서는 한 마을과 같이 보인다.

o 자생조직

명 칭	창립년도	인원	목 적	참 고
마을촌계	1965년	8호	계원 상호간에 친목도모, 목돈마련	

o 유물과 유적

·영모재(永募齋) : 낙안 오서(吳瑞)를 제사하는 곳, 1897년 건립

2) 금곡리(金谷里)

금곡리 지역은 백제시대때 물아혜현(勿阿兮縣) 신라때는 무안군(務安郡), 고려때는 물양군(勿良郡) 조선시대때는 무안군 금동면, 1906년에는 목포부 금동면에 속하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함평군 학교면에 편입 되었던 지역이다. 당시 이제(里制)를 실시하면서 금동면의 남악(南岳), 서옥(西玉),월곡(月谷), 금적동(金迪洞), 비산(飛山), 전역과 옥산동(玉山洞), 금곡(金谷), 나주군 거평면(현 문평면), 죽곡(竹谷)의 각 일부를 합쳐 금곡리로 하였다.

이후 1973년 7월 1일자로 행정구역 조정에 의해 대동면에 편입되어 지금과 같이 대동면 금곡리가 되었고, 현재는 1구 나막(羅幕)과 2구 금곡(金谷)등 2개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1) 나막(羅幕)

나막

o 마을 이름의 유래

마을을 안고 있는 뒷산 철성산(鐵城山)의 암벽이 비단병풍을 연상케 한다고 하여 마을 이름을 나막(羅幕; 1789년 호구총수 지명)이라 했다. 그 뒤 한일합방 후 일본인들에 의해 남악(南岳; 1912년 행정구역 개편지명)으로 바뀌 표기하였으나 지금은 다시 옛 표기와 같이 나막(羅幕)으로 쓰고 있다.

o 마을 현황

가 호			인 구			본 관 별 성 씨 (단위 : 가호)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함평노	광산김	하동정	함양박	기타
33	29	4	59	26	33	13	6	3	2	7

면 적			종 교			연 령 대 별 인구 구성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21ha	13ha	9ha		3					3	3	5	3	19	5

o 마을의 형성

이 마을은 마을 앞 도로변에 27기의 고인돌이 있고 마을 서쪽 200미터 지점의 동암으로 통하는 도로 고갯마루에 백제 돌널무덤 1기가 있는 등 주위의 문화유적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유서 깊은 마을이다.
이 마을에 맨 먼저 입촌한 성씨로는 함평 노씨이며 그 다음으로는 광산김씨로 알려진다. 이 가운데 광산 김씨 입향조는 병조좌랑을 지낸 학교면 월산리 입향조 김자보(金自普)의 현손인 김선(金銑;1562~1633)으로 그가 임진왜란 전에 입촌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o 자생조직

명 칭	창립년도	인원	목 적	참 고
친목계	1962년	20호	부녀자 상호간의 친목 도모	

o 공공건물

·마을회관 : 2008년 준공 ·칠 성 정 : 1994년 준공(노복현 · 노형현 기증)

o 유물과 유적

·칠성산성 : <1권 534쪽을 볼 것>
·고인돌 : 마을 앞 도로변에 17기의 고인돌이 군집을 이루고 있다. 지석이 확연한 것만도 10여기며 제일 큰 고인돌은 길이 490cm, 폭 230cm, 두께 150cm며 동서 장축이다.
·조선분청자 도요지 : 마을앞 약 300미터 지점의 저수지 곁에 있다. 이곳 도요지에서는 천목(天目)과 분청자를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기첨재(无添齋) : 함평 노권(魯權)을 제사하는 곳, 1888년 건립
·학공재(鶴孔齋) : 평산 신호균(申湖均) · 수균(守均)의 강학소, 지금은 없음
· 영모재(永慕齋) : 평산 신유(申裕)의 의이소(衣履所)
· 나막고분 : 월송리에서 나막으로 가는 고개마루 오른편에 있다. 현재는 유적의 대부분이 훼손되어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다. 규모는 지름 약 1미터, 높이 약 2미터 정도다.

o 풍수지리 및 중요한 지명

·나막(羅幕) : 나막이란 지명은 아마도 철성산성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정확한 자료가 아직 없어 신빙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나막마을 동남쪽 1.5Km 지점에 같은 금곡리에 속하는 동막동(東幕洞)이란 마을이 있다. 이 마을을 철성산성 동남쪽에 있는 막사여서 동막이라 했다면 나막 또한 철성산성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군내의 지명 가운데 '막(幕)'자가 붙어있는 곳으로는 현 학교면 대굴포 전라수영터의 동쪽에 있는 '동막(東幕)'과 대동면 금성산성의 북동편에 있는 동막(東幕) 철성산성의 동남쪽에 있는 동막(東幕), 그리고 이 마을 나막(羅幕)이란 지명이 있을 뿐이다.

o 배출인물

·노상근 : 대한건설 사장 ·정홍채 : 새마을금고 대표이사

·노일숙 : 교육부 부이사관
·김영호 : 함평군청 농산과장 역임
·김영학 : 현 함평군청 사회복지과장
·노진영 : 목포대 총장
·노복현 : 대동건설 이사
·정찬득 : 현 함평군청 친환경농산과장

(2) 금적(金績)

o 마을 이름의 유래

금곡

이곳 마을 뒷산을 주민들은 금곡산(金谷山)이라 부른다. 1789년에 간행된 『호구총수』의 기록을 보면 금곡산 아래 서쪽에 위치한 마을을 금적동(金積洞)이라 하고, 동쪽에 위치한 마을을 동막동(東幕洞)이라 표기 하였다

그러던 것이 1912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금적동(金積洞)은 한자 표기만 다른 금적동(金迪洞)으로 바뀌고, 동막동은 금곡(金谷)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1914년에 월곡(月谷)으로 바뀌었다. 그 후 금적동과 월곡을 합해 지금과 같이 금곡(金谷)이라 부르게 되었다.

o 마을 현황

가 호			인 구			면 적			종 교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42	38	4	70	33	37	33ha	29ha	4ha			

o 마을의 형성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년 이전에는 여산 송씨가 거주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그 후 이천서씨 익선공파인 서경개(徐景介; 1582년생)가 1600년경 무안지역으로부터 이거 정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또한 입향조가 서충조라는 설도 있음).

o 자생조직

명 칭	창립년도	인원	목 적	참 고
위친계	1953년	34호	부모 유고시 부조	
상포계	1955년	21호	부모 유고시 부조	

o 유물과 유적

· 쌍향정(雙香亭): 이천 서상기(徐相基)의 강학소로 마을 뒤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이천서씨 종중재각으로 쓰고 있다. 지금의 건물은 1994년 12월에 중건한 것이다.
· 쌍향재(雙香齋): 이천 서윤조(徐胤祖)·국주(國柱)·국평(國枰)·국상(國相)을 제사하는 곳, 1885년 건립
· 호은재(湖隱齋): 진주 정지소(鄭之韶)를 제사하는 곳, 1884년 건립

· 송씨열녀각 : 마을 동편에 세워져 있으며 세운지 약 70여년이 된다.
· 고인돌 : 금적동 입구 보호수 아래에 1기가 있다.
· 유물산포지 : 금적동 북쪽 구릉 동쪽 사면에 있는데, 수습된 유물은 격자문이 타날된 회색 경질토기편, 기와편, 분청자편 등이다.

o 중요한 지명

·금곡(金谷) : 이 마을은 지명 그대로 금(金)이 많이 나오는 곳으로 해방전까지만 해도 금을 캐는 광산이 여럿이었고 나형우 소유의 집이 금을 정선하던 곳이었다고 전해온다.

o 배출인물

·서인택 : 서광주 전신전화국장
·서윤택 : 육군소장 예편, 원호처장
·서상락 : 전라남도나주교육장
·서평렬 : 영암초등학교장
·서해봉 : 화순우체국장
·서상숙 : 소령
·서광수 : 학다리고등학교장

3) 금산리(金山里)

이 지역은 원래 대동면에 속했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이제(里制)를 실시하면서 금구(金龜)·감산(坎山)·노적(老迪) 전역을 묶어 금구에서 '금(金)'자와 감산에선 '산(山)'자를 따서 리명(里名)을 금산리(金山里)라 하였다.

(1) 감산(坎山)

감산

o 마을 이름의 유래

감산이란 마을 이름은 1789년에 간행한 『호구총수』의 기록을 보면 대동면의 35개리 가운데 하나로 감산리(甘山里)라 표기되어 있다. 그 후 1912년의 『지방행정구역명칭열람』이라는 책과 1984년에 간행한 『한국지명총람』에도 같은 표기의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만 『한국지명총람』에서는 금산리에서 으뜸되는 마을이라고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러던 것이 지금처럼 한자만 다른 감산(坎山)이란 명칭으로 표기된 최초의 기록은 1917년에 간행된『조선면리동일람』이란 책에서이다. 감산(甘山)이 감산(坎山)으로 바뀌게 된 연유에 대해서는 1989년에 간행된『함평군 마을 유래지』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조선시대때 어떤 감사가 마을앞을 지나다가 이곳 마을에서 흠쾌하게 쉬어갔다 하여 감산(甘山)이라 했는데, 1912년 행정구역 폐합 이후 함평현 북쪽 30리에 감산혈(坎山穴)이 있다는 옛 풍

수설에 의하여 마을 이름을 지금과 같이 감산(坎山)으로 바꾸어 표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이와는 조금 다른 설로 마을의 뒷산인 뜸댓봉 또는 갈음산(渴飮山=감산)은 말이 목말라 물을 마시는 형국이라 하여 이름을 갈음산(감살뫼)이라 부르고 마을 이름 또한 갈음산이라 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 갈음산이란 명칭의 변음을 따 지금의 감산이 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감산 · 금구 · 녹파 마을현황】

가 호			인 구			본 관 별 성 씨 (단위 : 가호)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김해김	밀양박	함평이	광산김	풍산홍	기타
70	65	5	127	63	64	5		14	4	3	4

면 적			종 교			연 령 대 별 인구 구성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48.5 ha	38.3 ha	10.2 ha	5	7	2		3			5	5	10	23	8

o 마을의 형성

구전에 의하면 이 마을에는 최초 창녕성씨(昌寧成氏)가 개촌했다고 하나 현재 그 후손들이 살고 잇지 않아 그 정황을 알 수 없다. 그리고 이들이 언제 어디서 이곳 마을로 들어와 살게 되었고 또 언제 어떤 연유로 하여 세거지를 옮겨가게 되었는지 조차도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다만 그들의 흔적이라 할 수 있는 선산과 묘소가 마을 남서쪽 작은 당산거리에 남아 있어 그들이 이곳 마을에 정착하여 세거하였던 것만은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감산마을에 입향한 성씨는 함평이씨(咸平李氏)로 알려진다. 함평이씨는 1630년대 이이현(李以玹; 1612~?)이 어떤 경로와 연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곳 마을로 들어와 정착하게 되었고, 이어 150여년 전 광산김씨 김기보와 풍산홍씨가 입촌하여 지금과 같은 마을을 형성하게 되었다.

o 자생조직

명 칭	창립년도	인원	목 적	참 고
상포계	1963년	49호	마을 초상시 부조	
작목계	1984년	20호	참외 딸기 재배 기술협력 및 공동출하	

o 공공건물

·새마을 창고 : 30평, 1972년 건립
·작업반 공동유통 창고 : 50평 1998년 건립
·마을회관 : 2004년 건립
·전화국 중계소

o 유물과 유적

· 이민호 소장 고문서 : 함평이씨 이민호(李敏虎) 집에 소장하고 잇는 고문서류는 주로 18~19세기에 작성 수수되었던 문서들로서 호구단자(戶口單子)또는 준호구)를 비롯하여 교지류(敎旨類)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외에도 거래·매매관련 문서인 명문(明文)과 혼례관련 문서인 사주단자(四柱單子)·연길단자(涓吉單子)·의제록송장(衣製錄送狀)·예장지(禮葬

紙)·호주상송문기(戶主相續文記)등도 있다. 이들 문서들을 보면 18세기말 이진항(李震恒)으로부터 약 150여년 동안 5대에 걸친 가족상황과 거주 이동 등을 파악하는데 좋은 자료이다. 이 가운데 호구단자(준호구)는 18세기 중엽에서 갑오경장 이후 신호적 자료까지 이어지고 있어 호적제도의 변천 등도 아울러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거주 이동시 가옥 전답 등을 매매하면서 작성 수수되었던 명문자료는 당시 이 가문과 함평지역민들의 사회상을 간접적으로나마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이라 하겠다.

·현감홍병위영세불망비(縣監洪秉瑋永世不亡碑) : 원래는 대동면 향교리에 1872년에 건립된 이 비는 현재 감산마을 동북쪽 풍산홍씨(豊山洪氏) 선산 입구 축대 위에 세워져 있다. 비의 크기는 높이 100cm, 폭 42cm, 두께 14cm로 호패형의 비다, 전면 비문은 <縣監洪秉瑋永世不亡碑, 發(莊)完(簿) 農不失時 一面勤勞 百年惠澤 >, 우측면은 <同治 十一年 四月 土橋狀 作人 竪>라 기록되어 있다.

현감 홍병위는 문천군수(文川郡守)의 직에 있다가 1868년 6월 13일 함평현감으로 발령을 받아 만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1871년 4월 25일 장성부사(長城府使)로 승배되어 갔던 사람이다. 전하는 말로는 그의 본관이 남양이었다고 한다.

·노거수 : 여자 당산이라 부르는 마을 서쪽의 느티나무 두 그루는 수령이 약 350년으로 추정되는데 1997년 읍·면나무 10-22-6-14로 지정되었고, 남자 당산이라 부르는 동쪽의 느티나무 두 그루는 정자와 함께 있는데 수령은 약 400년으로 추정되며 1997년 읍·면나무 10-22-6-13으로 지정되었다.

o 마을과 관련되는 미담과 전설

·감사와 감혈 : 조선시대 때 어떤 감사가 이곳 마을 앞을 지나가다 흠쾌하게 쉬고 길을 떠나게 되었다. 이때 감사가 마을의 지세를 보고 인물을 배출할만한 곳인데도 인물을 배출하지 못하는 까닭은 마을을 감싸고 있는 산 정상에 감혈(坎穴)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편히 쉬었다 갈 수 있게 한 인정에 보답하고자 그 혈을 찾아 칼로 十자 를 긋자 피가 흘러 나왔으며 그 후로부터 마을에서 인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o 특이한 민속제향과 놀이

·당산제 : 마을 앞에 수령이 400년은 되었음직한 느티나무의 줄나무가 있다. 이는 풍수학적으로 보면 마을 남동쪽에 보이는 산이 마을에 좋지 않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을의 악운을 막아준다 하여 심었는데 해마다 정월 초사흘 여기서 당산제를 지낸다. 현재는 10여 그루가 남아 있는데 숲을 이룬 고목들이 활모양을 하고 있다.

o 배출인물

·홍덕희 : 전라남도 운수과장
·홍태희 : 목사
·김문수 : 육군 소령 예편
·이영헌 : 광산군 식산과장
·이민권 : 대동면장
·이민철 : 면위원
·이민호 : 평통위원
·이계한 : 임학박사
·이계행 : '86아시안게임 금메달, '88올림픽 태권도시범경기 금메달 획득

(2) 금구(金九)

o 마을 이름의 유래

마을 뒤편에 있는 산의 모양이 금 거북이가 물을 찾아 내려오는 형국이라 하여 마을 이름을 최초 금구(金龜; 1789년 호구총수 지명)라 하였다. 그러나 거북구(龜)자가 쓰기에 까다로워 1912년 행정구역 개편 때 금구(今九)로 바꿔 표기하였으나 얼마 뒤 지금과 같이 다시 금구(金九)로 바꿔 쓰고 있다.

금구

o 마을의 형성

지금으로부터 약 300여년전 이웃한 운교리 판교마을의 한양조씨 일부가 이주해와 터를 잡으면서 마을이 형성 되었다고 한다. 그 후 각각 다른 성씨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으나 홍수 피해를 자주 입어 마을을 폐촌시키고 말았다. 지금의 마을은 본래의 마을에서 북쪽으로 약 1Km 정도 떨어진 수리봉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이 마을의 형성은 1979년 새마을사업 취락 개선사업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본래 마을에서 살던 주민 모두가 옮겨와 살고 있다.

(3) 녹파(錄坡)

녹파

o 마을 이름의 유래

이 마을 개촌자 김병섭의 호 녹파(錄坡)를 따서 짓게 되었다.

o 마을의 형성

1945년 해방 이전 녹파(錄坡) 김병섭이 자기 농장 땅에 집을 짓게 하고 소작료를 적게 받으니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 마을을 이루게 되었다. 이곳 마을에 거주하는 이씨는 자기 땅에 목장과 과수원을 개발하기 위해 입촌했다고 한다.

o 공공건물

·대광초등학교 : 1967년에 개교해서 학생들을 배출했으나 2008년 폐교했다.
·동광원

o 유물과 유적

·유물산포지 : 구 대광초교 맞은편 구릉 사면부 일대에 분포되어 있는데, 이곳은 신광 벽유 마을 진입로 일대로 대부분이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다량의 토기편이 산재해 있으며 수습 유물로는 단경호의 부연부편 등이 있다.

o 배출인물

·서경원 : 제13대 국회의원(평화민주당)

(4) 노적(露積)

o 마을 이름의 유래

원래 이 마을은 서편에 탑(塔)이 있어 탑동(塔洞·현재 대석만 남아있음)이라 했다. 이 후 탑동과 관련 지어 복덕동(福德洞·1789년 호구총수지명)이라 불렀고 다시 앞 산이 노적을 쌓은듯 보여 노적(露積)이라 했는데 일본인들이 토지대장을 정리하면서 지금과 같이 老迪(1912년 지명)이라 표기했으나 현재는 노적(露積)마을이라 한다.

노적

o 마을 현황

가 호			인 구			본 관 별 성 씨 (단위 : 가호)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김해김	밀양박	함평이	기타		
46	42	4	110	51	59	23	8		36		

면 적			종 교			연 령 대 별 인구 구성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57.2ha	49 ha	8.2 ha				7	12	8	12	8	21	16	17	4

o 마을의 형성

마을 북쪽 삼거리의 전주리씨 선산에 방대형이음돌고분(方臺形葺石墳)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곳에 일찍이 사람이 살았던 것 같다. 이 마을은 전주리씨 이수운(李守雲·1621년생)이 영광 묘량에서 이거 정착했고 이어 김해김씨 김제운(金濟運·1767년생)이 들어왔다. 현재 전주이씨와 김해김씨가 주축을 이루어 살고 있다.

o 자생조직

명 칭	창립년도	인원	목 적	참 고
상포계	1960	17호	부모 유고시 부조	
동계	1979	26명	친목도모	

o 공공건물

·마을회관 : 금산리 778, 779번지, 대지 172평, 건평 25평, 1998년 준공

o 유물과 유적

· 금산리방대형고분 : 지방기념물 제151호(금산리 산 84-2)

· 노거수 : 수령은 약280년으로 추정되며 1995년 마을나무 10-22-6-10-32로 지정됨
· 탑골 : 금산리 782번지 마을 남쪽 뒤쪽 구릉 아래 탑이 있었다고 전해오며 일명 '탑골'로 도 불리운다. 이 일대 주변에는 다량의 와편과 자기편이 산재되어 있다.

o 배출인물

·김봉수 : 8대 대동면장 역임
·리덕민 : 변호사
·리덕중 : 법무사
·리연옥 : 내과의사

4) 덕산리(德山里)

이 지역은 원래 대동면 지역이었고, 1994년까지 대동면 소재지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리제를 실시하면서 아차,고산, 외덕, 내덕 전역을 묶어 내외덕에서 '덕(德)'자와 고산에서 '산(山)'자를 따서 '덕산리'라고 이름하였다.

(1) 아차(衙次)

아차

o 마을 이름의 유래

이 마을은 1789년 호구총수 지명에는 아차동(牙次洞)으로 표기되어 있다. 구전에 의하면 함평 고을에 소식을 전하기 위한 통신수단으로 지금의 함평공원 자리에서 이 마을을 향해 나팔을 불면 그 나팔소리를 듣고 또 다른 마을에 그 뜻을 나팔로 전해주는 역할을 맡았던 곳이라 하여 아차동(衙次洞)이라 불렀다 한다.

o 마을 현황

가 호			인 구			본 관 별 성 씨 (단위 : 가호)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김해 김	경주 김	함평 이	한양 조	하동 정	전주 이	무안 박	죽산 안	청송 심
53	49	4	124	63	61	5	2	10	4	2	2	2	3	1

면 적			종 교			연 령 대 별 인구 구성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36.3ha	29.3ha	7ha	12	6		8	10	9	13	12	11	23	26	8

o 마을의 형성

지금으로부터 약 350여년 전 밀양박씨의 여산송씨가 정착하여 살아오다가 그 후 함평이씨, 김해김씨 등 여러 성씨가 이주해 와 거주하게 되어 현재의 마을 이루었다.

o 자생조직

명 칭	창립년도	인원	목 적	참 고
상여계	1972년	51호	마을 주민의 상제시 부조	

o 공공건물

·마을창고 : 20평, 1998년 준공 ·마을회관 : 40평, 1978년 건립

o 유물과 유적

·선 돌 : 총 3기가 있다. 마을 어귀 효열각 옆에 '딸미륵'이라 부르는 1기가 있고, 마을 정자 앞에는 '아들미륵'이라 부르는 1기가 있으며 당집을 지어 '미륵할매'라 부르며 정월 열나흘날 미륵제를 지내는 1기가 있다.

·지석묘군 : 마을 입구 밭과 마을에서 외덕 마을로 가는 도로 오른쪽 밭에는 13기가 산재해 있다.

·효 열 각 : 마을 입구 효열문 안에 두 개의 비가 나란히 있다. 두 개의 비는 모두 1943년 세운 것으로 좌측비는 송은김공효행실적비(松隱金公孝行實蹟碑), 우측비는 숙부인전 주이씨 효열비(淑夫人全州李氏孝烈碑)다

·삼인정(三印亭) : 여양 진만재(陣晩宰)가 세움, 지금은 없음

o 마을과 관련되는 미담과 전설

·미륵 할머니 당 : <전설항을 볼 것>

o 풍수지리 및 중요한 지명

이 마을은 풍수지리상 마을 형국이 키 모양이어서 마을 안 깊숙이 살아야 부자가 된다고 한다.

o 배출인물

·이용헌 : 고려대, 동신대 교수 역임 ·조병팔 : 14대 대동면장

(2) 고산(高山)

o 마을 이름의 유래

고산봉 기슭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고산동이라 하였으며, 지금은 상고산과 하고산으로 나뉘어졌다.

고산

o 마을 현황

가 호			인 구			면 적			종 교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37	30	7	64	28	36	21ha	8ha	13ha			

o 마을의 형성

고산동은 고려때부터 개기되어 전설에 의하면 마·장(馬·張)2성이 거주하였다 하는데 그때 사정(射亭)터와 과녁 세운터가 전해온다. 그리고 동내에 거대한 수목 2주가 있는데 한 주는 6.25한국전쟁때 소실되고 한 주는 지금 상하촌 중간에 건재하고 있는데 40여년전 사학과 황의돈(黃義敦)이가 와서 조사한 후 수령이 천년에 가깝다고 증언한 바 있다.

조선 선조때 김해김씨 화죽당(花竹堂) 김수(金遂)가 임진왜란을 피하여 이 마을에 거주하였고 지금까지 그의 성당터와 주택터가 있다. 그 후 영조때인 1770년경에 함평이씨 이희맹(李希孟), 이희증(李希曾),이희규(李希奎) 3형제가 나주 초동으로부터 입주하였다.

o 자생조직

명 칭	창립년도	인원	목 적	참 고
위친계	1970년	17호	부모 유고시 부조	

o 유물과 유적

·반환정(盤桓亭) : 함평 이유찬(李儒讚)의 강학소.한국전쟁 때 소실되었다가 1985년 복원
·죽백암(竹柏菴) : 함평 이희맹(李希孟) 이희증(李希曾)의 묘각
·삼물재(三物齋) : 공영계원(共榮契員)들이 건립함
·밀양박씨효열비각 : 효열부 밀양박씨(함평 이방서 처)를 기리기 위해 세움
·고인돌 : 마을 정자나무 동쪽으로 20미터 떨어진 밭둑에 1기, 이곳에서 북쪽으로 20여 미터 떨어진 밭가장자리에 1기가 있으며 이명헌 씨 댁 안에 1기가 있는데 마을 사람들 의하면 댁안의 고인돌은 10여년 전 이명헌 씨 소유의 밭에서 옮겨 놓은 것이라고 한다.
·푸조나무 : 수령은 약 400년으로 추정된다. 1995년 마을나무 10-22-6-7-48로 지정.
·느티나무 : 모두 3그루로 고산 경노당 옆에 있다. 수령은 세 그루 모두 약 600년으로 추정되며 1994년 군나무 10-22-6으로 지정.

o 중요한 지명

·구수천 : 마을 동편 고산봉 중턱에 있는 샘인데, 밀물일 때는 물이 불어 샘이 넘치고 썰물 일 때는 줄어들어 예부터 기이한 샘으로 전해오고 있다.

o 배출인물

·이영헌 : 함평향교 전교 역임
·이계수 : 전남대 문리대학원장 역임
·이시헌 : 동아일보 편집위원(조사부장)논설위원 역임
·이계문 : 광주시 공원관리소장 역임
·이기헌 : 초등학교 교장 역임

·이계룡 : 제6대 대동단위농협장 역임　　·김추일 : 대동우체국장 역임

(3) 내·외덕(內·外德)

o 마을 이름의 유래

처음에는 덕여촌 (德餘村)으로 불리우다가 자손이 번창하여 마을이 커지자 내덕여와 외덕여로 불렸으나 1912년 행정구역 개편 때 지금과 같이 내덕과 외덕으로 바뀌었다. 지금은 행정운영상 덕산 3구(외덕), 4구(내덕)로 분리하고 있다.

o 마을 현황

가 호			인 구			본 관 별 성 씨 (단위 : 가호)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광산 김	함평 이	무안 박	밀양 박	김해 김	혜진 임	한양 조	나주 정	기타
91	86	5	206	100	106	28	12	3	3	5	3	4	3	56

면 적			종 교			연 령 대 별 인구 구성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82.8 ha	72.8 ha	10 ha	5	33	3	2	5	4	5	8	15	20	29	29

o 마을의 형성

고려말기 여(余)씨가 덕여촌이라 명하고 살아왔다고 전하며 그후 조선조선조때인 약 400년전에 광산김씨 김택(金宅)이 전북 고창군 대산면 교리마을에서 임란을 피하기 위해 처가인 함평이씨를 찾아 향교리에 전입코자 하였으나 함평현이 근거리인지라 덕여촌에 정착하여 현재 18대의 자손까지 이어왔고 차츰 자손이 번창하여 200년전 내덕과 외덕으로 분리하였다. 대동면 소재지였으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1975년 2월에 현 면소재지인 향교에 이전되었다.

o 자생조직

명 칭	창립년도	인원	목 적	참 고
장학계	1970년	20호	자녀들의 입학금 보조	

o 유물과 유적

·청송심씨효열비각 : 효열부 청송심씨(광산 김재혁 처), 1960년 건립

·반환처사김공유적비 : 광산김씨 35세손 김재록의 비, 1959년 건립

·외덕 느티나무 : 마을회관 뒤에 있는 나무는 수령은 약 250년으로 1995년 마을나무 10-22-6-7-31-1로 지정되었으며, 마을회관 앞 정자에서 100여 미터에 있는 2그루

는 수령이 약 230년으로 1995년 마을나무 10-22-6-7-31-2로 지정되었다. 마을 정자목인 나무는 수령이 약 350년으로 추정되며 1994년 군나무 10-22-10으로 지정되었다.

·외덕 팽나무 : 덕산리 301번지에 있으며 수령은 약 250년으로 추정.

o 배출인물

·김강현 : 문교부 장학관
·김창곤 : 병무청 감사원 감사
·주영훈 : 대동면장
·김문석 : 경기도 병무청 선병과장
·김자현 : 초등학교 교장
·김춘현 : 공주사대 교수
·김가현 : 육군 소령
·김성 : 이학박사, 한국해양연구원
·김영춘 : 육군 소령
·김영숙 : 육군 소령
·김한수 : 대동면장
·김용권 : 농학박사
·김정희 : 초등학교 교장 역임
·김영주 : 육군 중령
·김용석 : 광주광산경찰서 경무계장
·김태균 : 전대의대 졸업, 외과의사

5) 백호리(白湖里)

이 지역은 금곡리 ,상옥리, 월송리와 더불어 1914년 이전에는 목포부 금동면에 속했던 지역이었다. 그러던 것이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함평군 학교면에 편입되어 당시 이제(里制)를 시행하면서 금동면 보동(保洞)을 비롯한 백련동(白蓮洞), 보화촌(保化村), 석호(石湖) 전역과 기성면(현 대동면) 하교(下校)마을 일부를 묶어 백련동에서 '백(白)'자와 석호에서 '호(湖)'자를 따서 백호리(白湖里)라 리명(里名)을 정한 곳으로 그후 1973년 7월 1일 일부 행정구역 조정 때 지금과 같이 대동면에 편입되었다.

(1) 석호(石湖)

석호

○ 마을 이름의 유래

마을 형국이 거북이가 물을 마시는 형국이라 하여 원래는 갈구지(渴龜池 : 1789년 호구총수 지명에도 동일하게 표기됨)라 했다. 그 뒤 갈구지라는 마을 이름은 중사지(中沙池)라 바뀌 불리게 되었고 이후 1912년 행정구역 개편 때 중사지와 석호(石湖) 두 마을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그러던 것이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다시 지금과 같이 석호로 통일 하여 부르게 되었는데 어째서 석호라 부르게 된 연유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없다.

【석호 · 용목 마을현황】

가 호			인 구			면 적			종 교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57	50	7	131	65	66	57.7ha	47.2ha	10.5ha			

o 마을의 형성

지금으로부터 약 370여년 전 황해도 풍천에 살던 자손이 귀한 풍천임씨 임기(任琦;1600~1659)가 비단 장사 차 이 마을에 들렀는데 당시 지관의 말이 거북이 명당(일설에는 쥐 명당이라고도 함)이라 이곳에 집을 짓고 살면 자손이 많겠다 하여 최씨와 함께 터를 잡고 마을을 이루었다고 전해온다.

o 자생조직

명 칭	창립연도	인원	목 적	참 고
위친계	1965년	19호	부모 유고시 부조	
친목계	1975년	23명	계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목돈마련	

o 마을과 관련되는 전설

·마당실(馬堂室) 전설 : 마당실이란 연못이 있었다. 중국의 목(睦) 정승이란 사람이 피난 길에 말을 타고 이곳을 지나다가 빠져 죽었다고 하는데, 그후 연못은 메워졌고 마당실이란 지명만 남아 전해 온다. 이와 관련한 목 정승의 묘는 현재 함평 노씨 선산에 있다고 전한다.

o 중요한 지명

·유점(鍮店) : 1789년 『호구총수』에 기록된 유점이라는 지명은 마을 앞 잔등, 즉 백련동 마을앞의 밭이다.

o 배출인물

·조귀판 : 한미은행 차장
·임민화 : 육군소령 예편
·조영재 : 육군소령 예편
·최용섭 : 목사
·박동수 : 목사
·최선기 : 목사
·윤기성 : 목사
·황상길 : 목사
·노경선 : 88올림픽 동메달 획득
·황성주 : 대통령선거인단 당선

(2) 용목동(龍沐洞)

o 마을 이름의 유래

용이 목욕을 하고 가던 자리에 터를 잡은 마을이라 하여 용목동(龍沐洞)이라 하며 그 용샘은 지금도 식수로 쓰고 있다.

o 마을의 형성

지금으로부터 약 300여년 전에 용이 목욕을 하고 간 샘이 있는 터라 하여 100여년 전 전주리씨 리재문의 부친이 터를 잡은 이후 한 때 18호에 이르렀으나 지금은 6호가 거주하고 있다. 이 마을은 1914년 이전에는 무안군 금동면에 속했고, 1973년 7월 1일자로 대동면 백호리 1구로 편입된 곳이다.

용목동

o 자생조직

명 칭	창립연도	인원	목 적	참 고
친목계	1965년	6호	계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목돈마련	

o 공공건물

·백호관광농원 : 마을 뒤쪽 야산에 숙박, 취사, 야영, 기타 오락시설 등을 겸비한 백호관광농원이 자리하고 있다.

o 유물과 유적

·백제시대 고분 출토유물 : 몇 년전 백호관광농원을 개발 하면서 땅 속에서 주로 백제시대의 고분에서 출토되는 호(壺)1개를 수습 관광농원에서 보관하고 있다. 백호관광농원과 학교면 표산리 고분군이 있는 지역이 지근거리여서 아마도 이는 백제시대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임에 틀림없다.

(3) 백련(白連)

o 마을 이름의 유래

백련

마을 한 복판에 연못이 있었는데 연못에는 하얀 연꽃이 피어 있었고, 흘러나오는 도수(導水)를 보고 지나던 도승이 사방을 살핀 다음 연화도수(蓮花導水)의 백련화(白連花)라 했다 하여 그 후 마을 이름을 '백련동'이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o 마을 현황

가 호			인 구			본 관 별 성 씨 (단위 : 가호)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풍천 임	광산 김	장수 황	창녕 조	전주 이	김해 김	평택 임	의령 남
57	52	5	128	66	55	10				3	1	2	1

면 적			종 교			연 령 대 별 인구 구성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30.3ha	24.1ha	6.2ha												

o 마을의 형성

본래 마을은 조선조 중종시대 때 풍산홍씨가 정착하면서 시작되었다고 전해진다. 그 후 풍천임씨를 비롯하여 광산노씨, 광산김씨, 김해김씨, 장수 황씨, 창녕조씨, 전주이씨, 진주정씨, 함평노씨, 평택임씨 무안박씨, 기타 성씨등이 입향하여 거주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마을 한 복판에는 마을이 생기면서 심은 것으로 추정되는 느티나무 1그루가 있는데 모둘레가 무려 4미터에 이른다.

o 자생조직

명 칭	창립연도	인원	목 적	참 고
친목계	1960년	21명	계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목돈마련	
백련노인회				
청년회				
부녀회				

o 유물과 유적

·장수황씨 황의범(黃義範)소장 고문서 : 황의범 집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서류는 총 46건이다. 이 문서류는 교지(敎旨) 7건을 비롯하여 대부분 19세기말에서 20세기에 작성 수수되었던 문서들로 민원 및 청원관련 문서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이외에도 신호적과 명문, 그리고 장례관련 문서인 장사택일지(葬事擇日紙) 등이다.

·백련제와 도자요지 : 마을 근처에 있는 저수지인 백련제(白連堤)는 1968년 한해대책사업으로 건설된 것으로 면적은 약 4,200여 평이다. 이 저수지 우측 구릉지에는 조선조 말기까지 천목(天目)등의 도자기를 구운 도자요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온다.

·고인돌 : 마을 입구 소나무로 이루어진 방풍림 사이에 1기가 있다.

·선돌 : 마을 어귀 삼거리 마을 표지석 옆에 있으며 '선독할매'라 한다.

·김봉원시혜비(金奉元施惠碑) : 김봉원의 선정을 기리기 위해 1936년 소작인들이 세웠다.

o 마을 전설

·마을 숲에 얽힌 전설 :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년전 마을이 형성되었는데, 마을에는 젊은이들이 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빈곤과 돌림병 등 재난을 면치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중 어느 도사(道師)가 "구림축복(坻林蓄福) 면액성인(免厄成人)이라. 이 마을은 음(陰)에 속하니 마을 입구에 언덕을 쌓고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면 복을 밖으로 못나가게 하고 모든 액(厄)이 밖으로부터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이중효과를 얻을 것이며, 선독할머니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주면 젊은이들도 성하게 될 것이요 마을이 융성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에 의하여 뚝을 쌓고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므로써 마을이 융성하게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 오면

서 선독거리 제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o 특이한 민속제향과 놀이

·선독거리 제사 : 마을 입구(마을에서 350미터)에 있는 선독은 매년 정월 대보름날 온 마을 사람들이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로 볏짚을 걷어서 줄을 들이고 남과 여 편을 짜서 줄다리기와 농악놀이(마당밟기)를 병행하면서 정월의 후보름을 즐겼으며 2월 초하룻날 선독할머니의 옷입히기 행사로 줄을 감아주고 제사를 모시며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2007년에 마을 출신인 독지가(任五淳)의 성금으로 높이 1.5미터의 원석에 선독할아버지 할머니 제단이라 새겨 세워놓고 지금은 줄감기 행사는 하지 않고 예년과 다름없이 제사를 모시고 있다.

o 중요한 지명

·돈짐이·부리등(釜利燈) : 마을 서북방에 '돈짐이'와 '부리등'이란 이름의 지명이 있으나 현재는 농토화되어 그 존재가 없어졌으나 이곳에서는 조선조 말기에 가마솥을 만들었던 '부리등'과 가마솥을 팔아서 돈을 짐으로 지고 들어온다하여 '돈짐이'란 이름이 붙여져서 조그만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토지대장상 대지로 되어 있는 그곳을 중심으로 소를 기르는 목장(1970년대)과 버섯을 재배하는 단지가 자리 잡고 있다.

o 배출인물

·조연호 : 육군 대령
·조철주 : 학교면 단위 농협장
·황한주 : 학교면 의회의장
·김한경 : 초등학교교장
·정종대 : 중등학교장
·김창섭 : 초등학교교장

(4) 보화(甫化)

o 마을 이름의 유래

해방전 마을 앞산에서 금을 캤으며 논에서도 사금을 채취하였다. 이리하여 오늘. 보화촌(寶化村, 1798년 호구총수 지명)이라 부르다가 1912년 행정구역 개편때 보화촌(甫化村)으로 바뀌어 표기된 이래 지금에 이르고 있다.

보화

o 마을 현황

가 호			인 구			본 관 별 성 씨 (단위 : 가호)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이천서	고성김	양산김	전주이	
29	25	4	61	30	31	9	2	1	3	

면 적			종 교			연 령 대 별 인구 구성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65ha	46.9ha	18.1ha		12										

o 마을의 형성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부터 평산신씨가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으며 그후 이천서씨 경인(景仁)이 1590년대에 무안 석진(石津)에서 이거해 터를 잡고 살았는데 지금도 그 후손이 주축을 이루며 살고 있다. 조선조 말에는 무안군 금동면이요 1914년부터는 함평군 학교면이었고 1973년 7월1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현재의 대동면 백호리 3구로 되었다.

o 자생조직

명 칭	창립연도	인원	목 적	참 고
유량계	1973년	25호	농한기 이용 마을주민 여행	

o 공공 건물

·마을창고 : 1동(건평 400평) ·시 정 : 1동

o 유물과 유적

·함평노씨세단(咸平魯氏世壇) : 노신(魯愼)의 둘째아들인 희안(希顔)과 그의 자손인 4세 7위에 대한 세단이다.

·느티나무 : 백련에서 보화 마을로 가는 도로 중간에 있는 석호교에서 약 70미터에 두 그루가 있는데 수령은 약 300년으로 추정.

·고인돌 : 마을 입구 도로변에 1기가 있는데, 마을 도로 공사와 농지정리를 하기 전에는 여러 개의 고인돌이 있었다고 함.

·특이한 유물과 유적은 없으나 광복 전까지 마을 안산에서 금을 채취했고, 앞들에서는 사금을 채취했다.

o 중요한 지명

·솔대거리: 이천서씨 경인(景仁)이 과거에 급제하여 솔대를 세웠다해서 솔대거리라 부른다고 한다.

·사기점등: 곡부공씨가 그곳에서 사기를 만들었다고 사기점등이라 한다. 이 일대 밭을 중심으로 한 산사면에는 많은 도편들이 산재해 있다.

o 배출인물

·서상균 : 문교부 연수원 과장 ·정종선 : 중학교장

·김원기 : LA올림픽 레스링에서 금메달 획득 ·김인규 : 세무사

·김보민 : 회계사　　·서신일 : 보건복지부 근무
·서준채 : 무안 현경초등학교장

6) 상옥리(上玉里)

상옥리 지역은 백제시대때 물아혜현(勿阿兮縣), 신라때는 무안군(務安郡), 고려때는 물양군(勿良郡), 조선시대 때는 무안군 금동면, 1906년에는 목포부 금동면에 속하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함평군 학교면에 편입 되었던 지역이다. 당시 이제(里制)를 실시하면서 금동면의 매동(梅洞), 상옥(上玉) 전역과 옥산(玉山), 모산(牟山)의 각 일부를 묶어 상옥리(上玉里)라 하였다. 이후 1973년 7월 1일자로 행정구역 조정에 의해 대동면에 편입되어 지금과 같이 대동면 상옥리가 되었고, 현재는 옥동을 비롯 매동, 모산 등 3개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1) 옥동(玉洞)

o 마을 이름의 유래

옥동마을의 최초 마을 이름은 옥산동(玉山洞: 1789년 호구총수에 기록된 지명)이었다. 이는 마을 어귀에 있는 5개의 산줄기가 옥녀탄금(玉女彈琴)형, 즉 여자가 거문고를 타고 있는 형국이라 하여 옥녀봉(玉女峯)이라 부르는데서 유래되었다. 이후 옥산동은 1912년 이전까지 마을이 커지면서 옥산동과 상옥(上玉)으로 구분하여 부르다가 지금에 와서는 하나로 합쳐 옥동 (玉洞)이라 부르고 있다. 옛 옥산동과 상옥의 구분은 현 옥산교회 부근을 기점으로 하여 좌측 금곡리 쪽으로 통하는 곳을 옥산동이라 불렀고, 우측 매동과 모산 쪽으로 통하는 곳에 분포되어 있는 마을을 상옥이라 불렀다고 한다

【옥동 · 매동 · 모산 마을현황】

가 호			인 구			본 관 별 성 씨 (단위 : 가호)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김해 김	밀양 박	함평 이	금성 나	광산 노	죽산 안	제주 고	전주 이	파평 윤	광산 김	나주 송
89	79	10	178	90	88	1			2	1	2	1	1	47	3	1

면 적			종 교			연 령 대 별 인구 구성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80.6ha	68.9ha	11.7ha	7	40	11	3	4	10	3	4	17	8	58	14

o 마을의 형성

파평윤씨 시조의 16세손 윤처중(尹處中; 이조정랑)이 개촌하였다. 그는 재직 할 때 직언을 잘하여 권신들의 미움을 사 능주로 귀양되었다가 귀양이 풀린 후인 1480년경 옥동에 들어왔으며 현달한 인물을 많이 배출하였다.

이 마을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목포부 금동면에서 함평군 학교면에 편입되었다가 다시 1973년 7월 1일자로 지금과 같이 함평군 대동면에 편입된 마을이다.

o 주산업 및 특산물 : 마늘, 양파

o 자생조직

명 칭	창립년도	인원	목 적	참 고
상포계	1963년	30호	부모 유고시 부조	현, 파계
장남계	1965년	6명	계원 상호간의 부조	

o 유물과 유적

· 고인돌 : 1980년대 중반까지 마을 북쪽에 8기의 고인돌이 남아 있었으나 현재는 밭을 일구면서 다 파내고 윤병광의 집안에 1기와 신흥댁 소유 밭에 2기 등 총 3기가 남아 있다. 이 가운데 윤병광의 집안에 있는 고인돌은 그 크기가 지석의 보존도 완연할 뿐만 아니라 군내에 분포되어 있는 고인돌 가운데 대표급에 속하는 것이라 하겠다. 동서장축인 이 고인돌은 길이 546cm, 폭 288cm, 두께 140cm이다.

· 석수암(石水庵)과 절터 : 마을 뒷편 철성산 줄기에 절골이라는 명소가 있는데 이곳에 석수암과 큰 절터가 있다. 이 가운데 석수암은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도 바위에서 물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있어 유명해졌다. 이 약수를 먹고 중병도 나았다하여 외지에서 많은 사람이 찾아왔으나 지금은 교통의 불편으로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 석수암에는 불상좌대 2기가 남아 있었으나 6 · 25 한국전쟁 때 없어졌고, 큰 절터에는 주초석과 석등이 남아 있다.

· 삼현유고(三賢遺稿) : 삼현유고는 정유재란 때 장성 남문창의의 주역이었던 노파(老坡) 윤황(1562-?), 몽파(夢坡) 윤길(1564-1615) 형제의 글과 창의사적, 윤황의 증손인 잠정자(岑鼎子) 윤제민(尹濟民 ; 1634-1690)의 시(詩) 등을 한데 엮은 책이다. 이 유고집은 1986년 파평윤씨 정장공파 옥동문중에서 국역 발간하였다.

· 삼현정(三賢亭) : 파평 윤황과 윤길, 그리고 윤제민(尹濟民)의 유지(遺址)

· 옥산정사(玉山精舍) : 파평 윤태종(尹泰鍾)의 휴식소. 경복궁의 경회루를 본떠 건물을 연못 가운데에 지었다.

· 모열재(慕烈齋) : 파평 윤길을 제사하는 곳

· 열부대구배씨정려 : 열부 대구배씨(윤황 처)를 기리기 위하여 1681년에 건립하였다.

o 마을과 관련되는 전설

· 쌍초상 전설 : 큰 절터와 관련한 전설로 큰 절의 승려들을 쫓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벌을 주자 승려들이 떠나면서 원래 '쌍(雙)'바위를 '쌍(雙)'바위라 불러 그 후로 마을에서는 쌍초상이 많이 났었다는 전설이 있다.

· 오룡진주(五龍珍珠)전설 : 오룡진주 전설은 함평의 철성산과 나주의 금성산 등 5개의 줄기가 옥동의 마을 어귀에 있는 낙산에 머무는데 5개의 줄기는 오룡이요. 낙산은 진주라 그 용들이 서로 다투매 서로 힘이 비슷하여 진주를 홀로 취하지 못한다고 한다. 지세가 수려하고 명당이 많아 주위에서 인재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도 전해 오고 있다.

o풍수지리 및 중요한 지명

· 잣두 : 현 매동마을을 잣나무가 많다고 해서 부른 이름이다.

· 구슬곡 : 옛날에 금이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기형목 : 비자나무로 수령400여년 된 흉고 60cm, 수간 10m 의 비자나무는 파평윤씨 옥동마을 선인들께서 영면하고 있는 선산인 대동면 금곡리 산 55-2번지에 소재한 나무로써 윤처중(尹處中)이 이조정랑 벼슬을 한 후 옥동에 입향하여 후손들이 입목하였던 나무로써 잎은 사철 푸르름을 갖고 줄기차게 뻣어가는 가지와 풍자한 자태로 끈기가 있어서 후손들이 번창함과 많은 인재가 나온다고 전한다.

o배출인물

· 윤 황 : 임진 · 정유왜란 때 창의, 서옥동(옥산동) 개촌자
· 윤 길 : 1589년 중랑시에 급제하여 구성부사를 지냄
· 윤제민 : 한시 시인
· 윤병주 : 도교육위원회 연구위원
· 윤병진 : 도 사회과장, 광주 애육원장
· 윤용상 : 기독교 방송국장
· 윤기술 : 무안교육장
· 윤경중 : 경찰총경
· 윤종상 : 중령 예편
· 윤재화 : 중령 예편
· 윤석규 : 외교관
· 윤인식 : 7 · 8 · 9 · 10대 국회의원
· 윤원중 : 국회의원
· 윤한식 : 삼애원장, 아동문학가
· 윤 기 : 목포 공생원 원장
· 윤이중 : 전대 체육대 교수
· 윤오상 : 대령 예편
· 윤경상 : 중령 예편
· 윤행식 : 24대 대동면장 역임 (사무관)

(자료제공 : 윤전중)

(2) 매동(梅洞)

o 마을 이름의 유래

풍수지리설상 매화낙지의 혈맥이 있다 하여 마을 이름을 지금과 같이 '매동'이라 했고, 이

외에 잣나무가 많아 '잣두' 라 부르기도 한다.
현재 북쪽 양지쪽에 위치한 마을을 '양지뜸'이라 부르고, 남쪽 음지쪽에 있는 마을을 '음지뜸'이라 부르고 있다.

매동

o 마을의 형성

지금으로부터 100여년 전 옥동에서 파평윤씨 일부가 이주하여 일촌을 이루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전해진다.

o 자생조직

명 칭	창립년도	인원	목 적	참 고
친목계	1970년	11호	계원 상호간에 친목도모	

o 풍수지리 및 중요한 지명

· 풍수지리상 매화낙지의 혈맥이 있다고 전해온다.

o 유물과 유적

· 고인돌 : 옥동에서 매동마을로 가는 도로 우측에 5기, 마을 입구 왼쪽 일명 '바우배기'라고 하는 곳에 9기가 있다.

o 배출인물

· 윤기봉 : 서기관(도청 과장)

(자료제공 : 윤전중)

(3) 모산(牟山)

모산

o 마을 이름의 유래

마늘모양 같은 산이 있는 마을이라 하여 지금과 같이 마을 이름을 모산(牟山)이라 했다.

o 마을의 형성

지금으로부터 400여년전 파평윤씨 일부가 옥동에서 이주해와 마을을 이루었다. 옛날에는 여러 호가 살고 있었으나 옆에 있는 옥동마을과 이웃면인 나산면 덕림리로 이주하여 지금은 작은 마을이 되었다

o 풍수지리 및 중요지명

· 바위백이 : 나산면 구산리와 경계를 이 바위로 하고 있음

(자료제공 : 윤전중)

7) 서호리(西湖里)

1914년 이제(里制)를 시행하면서 대동면 성정(城丁), 호정(虎丁), 동호(東湖), 서변(西邊), 분매(分梅) 전역을 묶어 서변에서 "西"자와 동호에서 "湖" 자를 따 서호리라 하였다.

이곳은 1982년 목포 상수원 대동댐이 완공됨에 따라 분매, 서변 마을과 동호, 호정의 일부가 수몰되고 1912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에 성촌(成村)되었던 호암(虎岩)마을도 수몰되었다.

이곳 서호리 일대는 함평읍을 생활권으로 하는 지역에서는 제일 오지의 산골로 알려져 있다. 산골에 '동호' 라는 이름과 '서변(일명 은행정)'이란 지명이 오랜 옛날부터 있어 "서호리" 란 지명이 나왔다. 그런데 이 곳이 지명 그대로 함평의 서쪽 호수가 되었고 동호는 호수의 동쪽이 되었으며 연암리의 수암과 수현마을은 그 이름을 찾아 이제는 물속바위, 물속고개가 되었다. 선인들의 앞을 내다보는 눈이 있어 모두 지명 따라 그 실체를 지금 보여주는 듯 해 불가사의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현재 대동댐 제방 곁에는 1983년 9월 16일 당시 장재필 군수와 주영훈 대동면장이 세운 <고향을 그리는 마음의 기념비>만이 홀로 서 있어 이주민들의 고향 그리는 마음을 위로해 주고 있다.

(1) 성정(成丁)

o 마을 이름의 유래

전하는 기록은 없으나 고려 때 창건하여 조선 중기에 폐찰되었다고 하는 성정사(聖亭寺)라는 절이 있었다 하는데 이는 1706년 제작되었다고 하는 여지도 함평현에는 용천사만 표시되어 있지만 1822년 이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동지도 함풍현에 보면 용천사와 성정암(聖亭庵)이 동시에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성정사 창건 때 스님이 심었다는 회화나무가 지금도 마을 앞에 있다. 둘레는 약 5미터이며 높이가 16미터 정도이다. 이 마을은 1789년의 호구총수 지명에는 성정(城丁)으로 표기되어 있고 1912년 행정구역개편명은 "성정(成丁)"으로 되어있어 마을 이름은 절이름에서 따온 것이 분명하나 성정 (聖亭)의 한자 표기를 어떤 연유에서인지 따르지 않고 있다. 앞으로 성정의 한자 표기는 성정(聖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성정 · 성정 · 동호정 마을현황】

가 호			인 구			면 적			종 교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29	26	3	55	29	26	39.8ha	16.6ha	23.2ha			

o 마을의 형성

고려 때 창건 된 성정사(聖亭寺)라는 절이 조선 중기에 폐찰되었다는 설과 1789년에 간행한 호구총수의 기록에 성정(城丁)이란 마을 이름이 나오며 호정마을 보다 먼저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하므로 조선중기 이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o 유물과 유적

· 성정사지(聖亭寺址) : 성정 마을 북쪽 중턱에 위치한다. 고려 때 창건해서 조선 중기에 폐찰 되었다고 하나 전하는 기록은 없다. 절터의 우물 옆에 대형 맷돌의 밑짝만이 남아있다. 1822년 이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동지도에는 성정암(聖亭庵)이란 표기가 있다.
· 회화나무 : 마을 정자나무로 바로 옆에 마을 와정이 있었으나 마을 도로 공사로 마을 공동우물 위로 이전.수령은 약 200년으로 추정되며 1997년 마을나무 10-22-6-7-31-1로 지정
· 함평지역 기독교 최초 선교지비 : 마을 입구 오른편 정봉곤씨 소유의 밭에 함평지역에서는 처음으로 1900년 전후로 이 마을에 기독교가 들어옴을 기념하는 비가 있다.

o 마을과 관련되는 전설

· 회화나무 : 성정사를 창건할 때 심었다고 전해지는 수령 약 350년의 회화나무가 마을 입구에 있으며 바로 옆 냇가에 돌다리가 있어는데 아무리 큰 물이 나도 떠내려가지 않고 소달구지도 다니던 마을 진입다리여서 전설을 이어오고 있었으나 새마을사업으로 다리를 확포장하면서 밑돌로 사용했다.

o 배출인물

· 정봉곤 : 제2대 함평군의회 의원. 5대 의장
· 박길수 : 함평중학교 서무과장

(2) 호정(虎亭)

o 마을 이름의 유래

마을의 형국이 범이 앉아 있는 형이며 꼬리를 정자나무 밑에 맺고 있다 하여 마을 이름을 지금 호정(虎亭)으로 쓰고 있으나 이는 마을의 정자나무인 느티나무가 노거수로 자리한 이후의 속설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 하는 것이 이 마을의 입향조인 최수강의 파보인 경주최씨 학주공파의 보첩에 보면 선산의 위치를 호정(虎頂) 안산 또는 후록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호정을 한자로 표기한다면 호정(虎頂)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1789년 호구총수 지명은 호정(好亭)으로 되어있고 1912년, 1914년 행정구역 개편지명은 호정(虎丁)으로 되어 있다.

o 마을의 형성

호정

나주와 함평 지역은 임진왜란 당시 타지에 가서 의병활동을 할 정도로 전화가 미치지 않았으나 정유재란 때는 영산강을 따라 침범한 왜구에 의해 피해가 극심했다. 나주 동강에 살던 경주최씨 최수강(崔守剛)이 피신을 와서 터를 잡고 마을을 이루었다.

o 공공기관 및 건물

· 나비생태학교 : 대동초교 서호분교 폐교 후 녹색녹촌체험마을 사업으로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만들었다.

o 유물과 유적

· 우우당(踽踽堂) : 경주 최윤(최윤)이 세운 강학소.1943년 중수 후 서당으로 사용하다가 현재는 경주최씨 문중 제각으로 쓰고 있다.
· 팽나무 군락 : 우우당 뒷산 아래 자락에 줄나무 형태로 7그루가 있는데 수령은 약 400년으로 추정.
· 느티나무 : 마을 정자나무로 수령은 약 350년으로 추정. 1996년 읍·면 나무 10-22-6-11로 지정 됨.

o 배출인물

· 최권진 : 시인
· 최상철 : 내과의사
· 최수성 : 법원 계장
· 최장전 : 나주배박물관 근무

(3) 동호정(東湖亭)

동호정

o 마을 이름의 유래

이 마을의 안골은 옛날에 한(大)골이라 했을 만큼 넓어서 천연 호수의 적지로 일컬어져 동호(東湖)라 했는데 이는 옛날 풍수지리설에 의한 것이었다. 이를 증명이나 하듯이 1982년 목포시민의 상수도용으로 댐이 축조되었고 현 대동댐의 동쪽에 위치 하고 있다.

o 마을의 형성

오랜 옛날부터 동호라는 마을 이름이 있어 서호리라는 이명을 짓게 되었다는 것을 보면 마을의 형성이 오래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나 아직 그 자세한 내력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4) 수몰마을(은행정 분매동 수현 수암 호암)

o 수몰마을 유래

수몰된 다섯 마을이 있었던 이곳은 함평읍을 생활권으로 하는 지역 중에서는 제일 오지의 산골로 1982년 목포 상수원 대동댐이 완공됨에 따라 수몰되었된 곳이다. 땅 이름에 선견지명이 있어서인지 함평의 서쪽 호수가 된 이곳. 수암(水岩)은 물속 바위가 되고, 수현(水峴)마을은 밀양박씨 박승운(朴承運)이 입촌하여 5대까지 번창한 가문을 열었었으나 그 이름대로 물속 고개가 되었다.

은행정(銀杏亭; 일명 서변)은 함평에서 제일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었다고 한다. 이 마을에는 한골초등학교가 있었고 이광수(교육장), 문제술(전라남도 교육위원회 장학관), 문태수(광주 석산고등학교장), 문창수(전라남도지사) 등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한 마을이기도 하였다.

호암(虎岩)마을은 1912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에 성촌(成村)되었던 마을이다.
후세 사람들이 이곳 물속에 잠겨버린 마을들이 있었다는 것을 일부나마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는 댐 곁에 세워진 <고향을 그리는 마음의 기념비>일 뿐이다.

o 수몰마을 기념비(고향을 그리는 마음의 기념비)

- 앞면내용 : 고향을 그리는 마음의 기념비
- 좌측면 내용 : 물에 잠긴 날 1982년 5월 15일
- 뒷면 내용 : 여기 이 대동호의 푸른 물 구비구비에는 은행정, 분매동, 수현, 수암, 호암 등 다섯 마을의 옛 꿈이 서려있습니다. 산과 물이 아름답고 인심이 너그럽고 오곡백과가 융성하여 살기좋고 풍요로운 고향이었습니다. 반 천년을 한결같이 순박하면서도 굿굿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비록 마을은 물속에 잠겼어도 이 고향을 지켜온 우리 선조들의 영혼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이에 옛 고향을 그리워하고 아쉬워하는 많은 분들이 간절한 뜻을 이 기념비에 새겨 길이 보존하고자 합니다.
- 우측면 내용 : 1983년 9월 16일 함평군수 장재필

8) 연암리(連岩里)

이 지역은 원래 대동면에 속했던 지역으로 함평읍을 주생활권으로 하는 지역 가운데는 가장 깊은 산골이다.

1914년 행정구역개편 때 이제(里制)를 시행하면서 수현(水峴 · 1789호구총수지명 水硯) 호암(湖岩) 수암(水岩) 옥련(玉連) 상금(上今) 하금(下今) 마치(馬峙) 구적(九迪) 장재(長才) 전역과 해보면 회화(檜花) 일부를 묶어 옥련에서 "連"자와 수암에서 "岩"자를 따 "連岩里"라 하였다.

1982년 목포 상수원인 대동댐 공사가 완공되면서 수현과 호암 수암 세 마을이 수몰되었다.

(1) 옥련 (玉蓮)

o 마을 이름의 유래

마을의 형국이 천상의 옥녀가 용둠벙에 내려와서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하고 12폭 치마를 갖춰 입고는 병풍산으로 병풍을 둘러치고 거문고를 타고 있는 모양이라 한다. 이런 연유로 마을 뒷산의 옥녀봉에서 옥(玉)자와 용이 승천하였다는 용둠벙(용지)에 고운 연꽃이 만발하였다는 용둠벙의 연화에서 연(蓮)자를 따 마을 이름을 "옥련"이라 하였다 한다.

【옥연 · 상하금 · 마치 · 구적 · 장재 마을현황】

가 호			인 구			본 관 별 성 씨 (단위 : 가호)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김해김	밀양박	함평이	신	오	고	배
37	32	5	64	36	28				3	2	2	1

면 적			종 교			연 령 대 별 인구 구성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36.8ha	27.8ha	9ha				10	8		20		10			

o마을의 형성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 오씨가 들어와 처음으로 마을이 형성되었다하며 마을 앞에는 약 300년생인 쐬나무와 200년이 되는 팽나무가 있다.

o 유물과 유적

· 팽나무 : 마을 입구에 있으며 수령은 약 300년이다.

o마을과 관련되는 전설과 지명

마을 주위에 우리말로 된 지명 중 화살봉, 용둠벙, 도내기샘, 뚝개비봉, 뱀산 등이 있다. 풍수지리설에 얽힌 전설로 마을 뒤 옥녀봉으로부터 기봉하여 청용등 후록에 금유동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마을 형상이 거문고 같이 생겼다하여 금유동이라 불렀다 한다. 백마등에는 12개의 골짜기가 있는데 이는 옥녀낭자의 12폭 치마 형상이요 동남간에는 있는 구릉은 화장하는 경대 모양이며 그 옆 병풍산은 흡사 병풍을 둘러친 듯 절경이었다. 더하여 그 곁에는 신선바위와 화살봉이 있으며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용둠벙에는 아름답고 고운 연꽃이 듬뿍 피어 있었다 한다.

o 배출인물

· 박갑재 : 경감　　· 이성남 : 사무관

· 조광형 : 변호사

(2) 상하금(上下今)

o 마을 이름의 유래

원래는 상금(上今)과 하금(下今)으로 구분하였는데(1912년 행정구역개편지명) 어떤 스님이 지나가다 마을을 합쳐야 부귀가 있을 것이라 하여 그후 “상하금(上下今)”으로 불렀다 한다.

상하금

o마을의 형성

지금으로부터 100여년전 무안박씨가 입주하여 살았는데 그 후 함평 이씨가 들어와 4~5호로 늘게 되었으며 또한 6 · 25 한국전쟁 때 피난하기 위해 이 마을로 찾아들었던 사람들이 정착하여 오늘의 마을을 이루었다.

o자생조직

명 칭	창립년도	인원	목　　적	참 고
위친계	1965	10	부모 유고시 부조	

o 배출인물

· 유동찬 : 도청근무　　· 정대성 : 우체국 근무

(3) 마치(馬時)

o마을 이름의 유래

1789년 호구총수지명에도 대동면 마치(馬峙)로 되어있다

마치

o 마을의 형성

지금으로부터 200여년 전 함평이씨 3세대와 풍산홍씨 2세대가 씨족을 형성하여 촌락을 이루다가 1900년 이후 광산김씨와 무안박씨 등이 이주하여 왔고 6 · 25 한국전쟁 무렵에는 도처의 피난민과 영세주민들이 모여들어 토착민과 이주민이 오늘의 마을을 이루어 살고 있다.

o 자생조직

명 칭	창립년도	인원	목 적	참 고
위친계	1965	8호	부모 유고시 부조	

o풍수지리 및 중요한 지명

마을 주위에 우리말 이름으로 된 지명으로 우렁골이 있는데 골짜기 형태가 겹겹이 쌓여 있으며 목적지까지 도달하려면 몇 개의 모퉁이를 돌 아가야 된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서당밭은 옛날 글방이 있던 자리에 밭을 일구면 수재가 나온다하여 서당자리에 밭을 경작 한데서 나온 말인데 실제로 서당밭을 경작 하여 재산이 불어난 사례가 있다.

o 배출인물

· 홍기갑 : 원광대 부총장 역임
· 홍석철 : 신경외과의사
· 이갑헌 : 전남대사회교육원장

(4) 구적(九積)

o 마을 이름의 유래

구적

마을에서 9명의 부자가 나올 터라 하여 마을 이름을 “구적 (九積)이 라 하였는데 마을 이름처럼 이 마을에서 9명의 부자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빈곤하다 하여 오래 거주하는 집안이 없는 것이 특색이어서 선조의 얼을 받아 대대로 살아오는 성씨는 1~2호에 불과하다.

o 마을의 형성

1789년 호구총수지명에 구적(九積)이 나오는 것을 보면 오래된 마을이나 오래전에 살았던 성씨들의 후손은 없고 지금으로부터 100여년 전 현 주민들의 선조들이 이주하여 오늘의 마을을 이루었다.

o자생조직

명 칭	창립년도	인원	목 적	참 고
위친계	1965	6호	부모 유고시 부조	

o 배출인물

· 김정동의 자...

(5) 장재(長才)

장재

o마을 이름의 유래

산세가 재능이 뛰어난 수재를 배출할 형국이라 하여 장재(長才)라 했다고 한다. 일명 장자태라고도 불린다.

o마을의 형성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김해김씨가 거주할 터를 찾던 중 주위의 산세와 위치가 장수하고 수재가 많이 나올 형국이라 판단하고 이곳에 자리를 잡고 마을 이름을 '장재(長才)'라 칭하고 살았다 한다.

o 자생조직

명 칭	창립년도	인원	목 적	참 고
위친계	1965	3호	부모 유고시 부조	

o 유물과 유적

· 돌무덤 : 마을 서편의 동막재 아래에 20여기의 돌무덤이 있는데 넓적 넓적한 돌로 차곡차곡 쌓아 무덤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정유재란 때 왜병과 함평 향교 출신 이덕일 장군의 의병대가 크게 싸운 전적지로 이 장군의 부대가 승전한 곳이다. 아직 이 무덤의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 조선조 도요지 : 마을에서 해보면 운암마을로 넘어가는 산길변에 있으며 일명 '장작터"라고도 하는데 이 일대 주변에는 분청사기편 요백편 등이 산재해 있다.

9) 용성리(龍城里)

이 지역은 원래부터 대동면에 속했던 지역이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이제를 시 행하면서 용연, 괴정, 정창, 금성, 구룡 전역과 기성면의 화동, 일부를 묶어 용연(龍淵)에서 '용(龍)', 금성(金城)에서 '성(城)'자를 따 용성리(龍城里)라 하였다.

(1) 용연(龍淵)

o 마을 이름의 유래

마을의 위치가 함평천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데 하천 옆에 큰 연못이 있어 그곳에 용이 살았다는 전설이 있으며 큰비가 내리면 하천물이 많아져 용이 나와 함평천 상류를 가로질러 누워있는 모습이 마치 하천에 제방을 막아 놓은 것처럼 하천물이 용의 몸뚱이를 넘는다는 전설 이 있어 마을 이름을 '용연(龍淵 : 1789년 호구종수 지명도 동일하게 표기함)이라 불렀다고 한다.

o 마을 현황

가 호			인 구			본 관 별 성 씨 (단위 : 가호)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김해 김	밀양 박	함평 이	한양 조	파평 윤	창녕 조	전주 최	청주 한	전
42	42		98	44	54	6		3	3	3	1	2	1	2

면 적			종 교			연 령 대 별 인구 구성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56.2ha	52.2ha	4ha	5	5	9	4	7	6	5	5	10	8	15	6

o 마을의 형성

이 마을에는 김해김씨 중태(重兌. 1719년)가 들어와 개촌했고, 이어 한양조씨가 들어오고 근년에 여러 성받이가 입촌하였다.

o 자생조직

명 칭	창립년도	인원	목 적	참 고
위친계	1965년	22호	부모 유고시 부조	
상조계	1965년	28호	계원 상호간의 친목	

o 공공건물

· 마을회관 : 1동(60평) 1991년 준공 · 마을경노당 : 1동(건평 25평) 2008년 건립

o배출인물

· 이돈길 : 전남대학교수 · 김정식 : 육군소령
· 조강형 · 육군소령 · 이정식 : 섹소폰 연주자

(자료제공 김판기)

(2) 구룡동(九龍洞)

구룡

o마을 이름의 유래

이 마을은 원래 현 괴정과 구룡을 합쳐 볼 때 주위의 산 모양이 두 마리의 용이고, 운교리 마량에 있는 갈구지(현 대동거수지에 수몰됨)는 거북이라 하여 거북 구자와 용자를 붙여 '구룡(龜龍)이라 불렀는데 조선 효종 때 이두삼이 마을을 이루면서 구룡동(九龍 洞)이라 이름하였다고 한다.

o 마을 현황

가 호			인 구			면 적			종 교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28	28		68	38	30	30.5ha	27.6ha	2.9ha			

o마을의 형성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인 효종때 괴정에 입촌했던 이두삼(李斗三, 1677~1728)이 현 괴정에서 살다가 이주 정착하여 마을을 이루었다.

o자생조직

명 칭	창립년도	인원	목 적	참 고
위친계	1960년	20호	부모 유고시 부조	

o공공건물

· 마을창고 : 1동(60평) 1975년 준공

o 유물과 유적

· 구곡정(九曲亭) : 함평 이돈(李敦)의 쉼터, 현재의 건물은 1971년 중건.
· 효열부김해김씨사실비 : 마을 안에 있으며 김해김씨의 열행을 기리기 위해 1933년 세움.
· 느티나무 : 마을회관 앞에 있으며 수령은 약 300년으로 추정

o 마을과 관련되는 전설

· 도둑질과 정자나무 전설 : 1830년 이재준이 심었다는 정자나무가 현재 있는데 전설에 의하면 도둑이 마을에서 도둑질을 하여 도주타가 정자나무 밑에서 더 이상 도주치 못하고 정자나무 주위만 뱅뱅 맴돌다가 아침이 되어 잡혔다는 전설이 있다.
· 청판전설 : 마을 뒷산 기슭에 청판이 있는데 그곳에는 백년 묵은 흰 여우가 여자로 둔갑을 하여 물동이를 이고 다녔다는 전설이 있다.

o중요한 지명

· 버림바다들 : 마을 서쪽에 버림바대들이라고 부르는 들이 있는데 이는 버림받은 바다들, 즉 갈대가 우거진 들을 말하며 이로 미루어 마을 앞까지 물이 흘려 넘쳤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o 배출인물

· 이두삼 : 양산군수

(3) 정창(正昌)

o 마을 이름의 유래

원래는 정창(定昌)을 썼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1789년 호구총수 지명에는 정창(丁倉)으로 표기되어 있어 당시 국가의 창고가 있었지 않나 여겨진다. 1912년 행정구역 개편 때부터 일인들에 의해 정창(正昌)으로 표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창

o 마을 현황

가 호			인 구			면 적			종 교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38	38		79	44	35	21.4ha	17.8ha	3.6ha			

o마을의 형성

마을 안골에 있는 고총들이 모두 남(南)씨의 선조묘라고 전해오는 등 오랜 옛적부터 남씨가 자작일촌하여 살았다는 전설이 있으나 후손이 없어 확인할 수 없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성씨로는 김해김씨가 200여년으로 가장 오래 되었고, 다음으로 전주리씨, 함평이씨가 각각 100년이고 경주김씨 밀양박씨 등은 50년 내외이다.

마을에 정주한 성씨들의 내역을 살펴 특기할 만한 일은 백년이상 뿌리를 내린 씨족은 모두 윗지역인 서호, 연암리에서 이주해 온 성씨며 50년 내외의 성씨는 아랫지역에서 이주해 온 성씨다.

전설에 의하면 금성동이 성의 역할을 할 때 이 마을에 향교와 같이 교육을 담당하는 큰 서당이 있었고, 그 서당 자리가 현 이건주(李建宙)의 집터였다고 하며 마을 앞 남쪽에서 논을 일구다가 토기 10여점을 발굴한 것을 보면 마을의 역사는 참으로 오랜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o자생조직

명 칭	창립년도	인원	목 적	참 고
위친계	1965년	15호	부모 유고시 부조	

o 공공건물

· 마을회관 · 1동(15평) 1970년 건립

o유물과 유적

· 완창 자기 · 도기소 : 세종실록 지리지에 현의 북쪽인 완창(完昌)에 자기소 한 곳과 도기소 두 곳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현의 북쪽 지명에 "昌" 자가 붙은 마을은 정창 뿐이며, 현재 '正昌이라 표기하기 이전에 '定昌' 으로 썼다는 전언에 따르면 '完昌' 은 '定昌'의 오기일 수 있어 이 마을로 추정하고 있는데 마을 안길에 분청자 등의 파편은 많으나 요지를 말해주는 불 먹은 흙이나 그릇구이 받침대 등의 자료를 아직 찾지 못했다.
· 고인돌 : 마을에서 신정저수지 방향으로 가는 길 북쪽 50미터 지점 밭에 1기가 있다. 기존에는 4기가 있었다고 한다.
· 느티나무 : 마을 입구 정자 옆에 있으며 '당산할매'라 부르는데 수령은 약 500년으로 추정되며 1982년 군나무 10-22-3으로 지정되었다.

o배출인물

· 김영남 : 86아시안게임 레슬링에서 금메달 획득, 제24회 서울올림픽 레슬링에서 금메달 획득
· 김정만 : 육군소령 · 김광철 : 무등일보 차장
· 김광석 : 농협중앙회근무

(4) 금성동(金城洞)

o 마을 이름의 유래

금성산(金城山)이 소쿠리 태처럼 에워싸고 있는 아늑한 마을로 산성의 유래가 정확히 나타난 문헌이 아직 없다. 단, 통일신라시대 왕자를 비롯한 왕족에게 지방의 군현을 녹봉으로 주어 살게 했는데 성명 미상인 녹봉을 받은 자가 이곳에 성을 쌓고 '쇠벽같이 튼튼한 성'이라는 뜻에서 이름을 금성(金城)이라 했다는 전설이 있다.

삼면이 산성으로 둘러 쌓이고 평지와 접한 마을 어귀에 문루가 있었을 성터가 지금도 완연히 남아 있고 옥터, 동헌 등의 이름이 전해오는데 마을을 에워싸고 있는 성의 길이는 4km에 달해 전남의 서남부 지방에서는 가장 큰 규모다. 이 마을에서 200여 미터 남쪽에 위치한 정창마을에 '향교'라는 지명이 전해오며 지금 그 위치는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금성동 주변에 읍두정(邑頭

亭 ·1789년 호구총수 지명)이란 자연부락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한 때 함평의 옛 현치소가 이곳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현 군청소재지인 함평읍 보다 금성동 남쪽 일대에 고인돌이 많이 있고 함평읍 소재지 거의가 전에는 물에 잠겨 있었다는 확증이 있으며 기산산성이 읍성이 아닌 산성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일면(一面)이 평지와 접한 금성은 읍성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현의 치소였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o 마을 현황

가 호			인 구			본 관 별 성 씨 (단위 : 가호)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김해김	밀양박	함평이	인동장	기타	
65	65		143	71	72	3	13	7	5	22	

면 적			종 교			연 령 대 별 인구 구성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41 ha	33.5 ha	7.5 ha		11		8	11	9	9	21	26	15	35	10

o 마을의 형성

이 마을은 고려초에 밀양손씨가 들어와 살았다는 전설이 있으나 확증할 자료가 없어 믿을 수 없고, 손씨에 이어 입촌하여 근 200여년간 살았다는 달성배씨는 그 후손이 모두 이 마을을 떴지만 배씨의 고총이라 전해지는 무덤이 있어 확증이 가나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다.

이어 밀양박씨가 들어 왔는데 박씨 입향조는 우혁(佑爀, 1710년생)이며, 1730년대이다. 박씨와 거의 함께 입촌 했던 최씨들은 그 후손이 10대를 이 마을에서 살다가 1980년 중반에 1호도 남김 없이 떠났다.

o자생조직

명 칭	창립년도	인원	목 적	참 고
위친계	1960년	48호	부모 유고시 부조	
친목계	1965년	32호	계원 상호간의 부조	

o 유물과 유적

· 함평모씨 모남용(牟楠容) 소장 고문서 : 모남용 집에 소장하고 있는 문서류는 총 32건이다. 이들 문서류는 대개 18~19세기에 걸쳐 작성 수수되었던 문서들로서 주종은 호적관련 문서인 준호구이나 이외에도 시권(試券), 교지(敎旨), 차첩(差帖) 등이 있다. 이 가문의 소장문서들은 18세기말~19세기초 모경장(牟景長)과 그의 아들 모시겸(牟時兼) 대(代)에 수수되었던 것들로 이후 약 110 여년, 5대(代)에 걸친 가족사항 등을 살필 수 가 있는 자료이다.

· 금성산성터 : <1권 530쪽을 볼 것〉

· 고인돌 : 텃논과 동구 남쪽으로 고인돌 5기가 있다가 1975년 경지정리로 매몰되고 동쪽으

로 고인돌 1기가 있었는데 그것마저 도로 확장으로 매몰되었다

· 느티나무 : 마을 입구 정자 옆에 있으며 수령은 약 500년으로 추정. 1997년 마을나무 10-22-6-8-53으로 지정됨.

· 남원양씨열행비 : 嘉義大夫를 추증받은 밀양 박연진의 처 貞夫人 남원양씨의 열행비.

· 밀양박씨세덕비 : 밀양박씨의 입향조인 박승율을 기리기 위해 1938년 세웠고 우측에 2002년 추가로 2기를 세움.

o 마을과 관련되는 전설

· 전설 : 주변 산 봉우리에는 장사바위가 있고 한편 산 봉우리에는 투구봉 바위가 있어 두 장수가 양쪽 산봉우리에서 공치기를 하다가 떨어졌다는 둥근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금사바위라 부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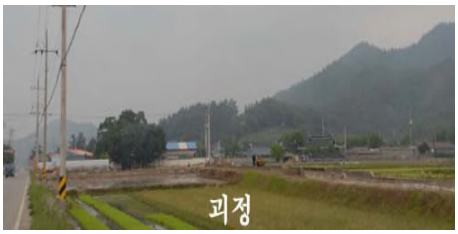
o배출인물

· 박정규 : 대학교수 및 고등학교 교장 · 박병기 : 현대건설 과장

· 박재순 : 10,11대 대동면장 · 박형규 : 육군소령

(5) 괴정(槐亭)

o 마을 이름의 유래



원래 이 마을 이름은 구룡(龜龍)이었다. 이두삼이 입촌하여 '구룡(九龍)'으로 바꾸었고 이두삼이 현 구룡마을로 이사하면서 마을 이름까지 가지고 가 그곳을 구룡 마을이라 하므로 해서 마을 앞에 심어진 네 그루 느티나무에 시원한 정 자가 있어 괴정(槐亭)이라 했다.

1789년 호구총수 지명에 보면 괴동(槐洞)으로 표기되어 있고, 1912년 지명에는 · '槐丁', 1914년 행정구역 지명에는 오늘과 같이 '槐亭'으로 표기되어 있다.

o 마을 현황

가 호			인 구			면 적			종 교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27	27		59	30	29	22.0ha	19.5ha	2.5ha			

o 마을의 형성

1703년(효종)에 문과에 급제하여 양산군수를 지낸 함평이씨 이두삼(李斗삼, 1677, 1728)이 1700년쯤 나산에서 이 마을로 이주하였고, 이어 이씨의 외손인 제주양씨가 거의 동년대에 이주했다. 또 밀양박씨는 박화연이 100여년 전에 입촌했다.

o 자생조직

명 칭	창립년도	인원	목 적	참 고
위친계	1965년	20호	부모 유고시 부조	
상여계	1955년	32호	부모 유고시 부조	

o 유물과 유적

· 느티나무 : 마을회관 앞에 있는 나무는 수령이 약 300년으로 추정되며 1995년 마을나무 10-22-6-8-47로 지정되어있으며 괴정선돌과 함께있는 3그루는 수령이 약 250년으로 추정되며 1997년 마을나무 10-22-6-8-47-2로 지정.

· 선돌 : 마을 정자 앞에 있으며 '당산할매'라고 한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약 150년전에 이 마을의 부자인 양판기씨가 산에서 옮겨와 당산할매로 모셨다고 한다.

· 고인돌 : 용성리 724번지(이완열 씨 댁) 대밭에 9기가 있다.

o 마을과 관련되는 전설

· 전설 : 고려때 풍수지리의 도사라는 최도선이 지나가면서 구룡정무 표시를 하기 위하여 느티나무 4주를 심어 놓은 것이 현재의 당산나무인 느티나무이고, 매년 음력 1월 15일이면 당산할머니제라 해서 제를 올리고 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나무가지 하나가 꺾어지면서 피를 흘렸고, 6·25 한국전쟁 때도 느티나무 큰 가지 하나가 꺾어지면서 피가 나왔다고 전해 온다. 이처럼 큰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당산할머니의 노여움이 있었다고 하며, 또 그 해에 물이 귀하려면 나무 4그루가 따로 잎이 피고 풍년이 들려면 나뭇잎이 다 함께 핀다고 하며 느티나무를 심은 이래 이 마을에서는 질병이 없고 불구자도 한 명도 없다고 한다.

o 배출인물

· 박판운 : 9대 대동면장 지냄
· 박병구 : 제2대 대동단위농협장 역임
· 이행만 : 해보초등학교장 역임

10) 운교리(雪橋里)

원래부터 이 지역은 대동면에 속했던 곳이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리제를 시행하면서 대동면 운림, 판교, 갈구, 운제, 용성 전역과 신광면 장산 일부를 합해 운림(雲林)에서 '雲'자와 판교(板橋)에서 '橋'자를 따 운교리(雲橋里)라 하였다.

(1) 판교(板橋)

판교

o 마을 이름의 유래

마을 앞에 천이 흐르는데 비가 많이 올 때 판자로 다리를 놓아 건너다녔다 하여 마을 이름을 '판교(板橋)'라 하였다 한다. 또 이 마을의 남쪽을 나마지, 북쪽을 북아시라 부르기도 한다.

【판교 · 운림 마을현황】

가 호			인 구			본 관 별 성 씨 (단위 : 가호)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청송심	한양조	도강김	함평노	제주양	
53	53		124	63	61	4	25	1	3	1	

면 적			종 교		
계	논	밭	불교	기독 교	기타
69.3ha	61.6ha	7.7ha			

o 마을의 형성

을사사화(1545)의 화를 피해 한양조씨 맹생(孟生, 문과급제)이 아우 계생(季生)과 함께 1546년 벼슬을 버리고 경남으로 낙향하였다가 부인 함평 이씨의 본향인 함평에 인연을 맺어 손불면 북성리 군유산하 조피골에 은둔하다가 맹생은 판교에 계생은 당시 대동면 매월촌에 정착했는데 계생의 후손은 뒤에 아차동으로 이거했고 맹생의 후손은 현재 판교촌의 주성을 이루고 있다. 맹생의 판교 입촌은 대략 1550년경으로 본다. 그후 함평노씨 급(汲, 1693년생)이 1720년경에 학교면 송산에서 이주했고 그 뒤 청송심씨가 입촌하였다

o 자생조직

명 칭	창립년도	인원	목 적	참 고
위친계	1960년	21호	부모 유고시 부조 목적	

o 유물과 유적

· 두암정(斗庵亭) : 한양 조상윤(趙相允)의 휴식소
· 한양조씨쌍효비 : 형 조기창(趙基昌)과 동생 조유창(趙有昌) 형제의 효를 기리기 위해 1933년 건립.
· 효자함평노공비 : 함평 노연윤(魯淵允)의 효를 기리기 위해 1933년 건립.
· 장예원사평조선생정절단비(掌隷院司評趙先生靖節壇碑): 1934년 건립한 것으로 한양조씨 정절단 앞에 있다.
· 한양조씨정절단 : 1935년 설단한 것으로 조평을 배향한다.

o배출인물

· 조용무 : 함평군 군의회의장
· 조혁 ; 육군 소령
· 조성배 :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상무이사
· 노인석 : 서울 종암서 계장
· 조성수 : 함평군 농협군지부장
· 조성백,국?:국민은행 지점장
· 김경우 : 서울 중부경찰서 경위
· 노일완 : 나주 한빛교회 목사

(2) 운림(雲林)

o마을 이름의 유래

임진란 이전부터 도술에 밝은 운림처사라는 사람이 살았다 하여 운림촌(雲林村)이라 불렀다.

운림

o마을의 형성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씨족으로는 한양조씨가 맹생의 후손인 홍손(洪孫)이 큰 조카 세황과 함께 판교에서 이주하였고, 1750년경에는 함평노씨 급(汲)의 후손이 입촌했으며 김씨가 뒤를 이어 거주하게 되었다.

o마을과 관련되는 전설

· 운림처사 전설 : 옛날 이 마을에 도술을 부리는 운림처사라는 분이 살고 있었는데 키는 9척에 풍채 또한 우람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감히 접근하기를 두렵게 하였다고 한다. 임란을 겪고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왜병들은 함평 고을에도 물밀듯이 쳐들어 왔다. 가로질러 대동면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는데 이를 미리 짐작한 운림처사는 마을 앞들을 바다로 만들어 왜병의 질주를 막았다. 왜병들은 깜짝 놀랐다. 방금까지도 눈앞에 넓은 들이 펼쳐져 있었는데 어느새 바다가 되어 있으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왜병들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망설이는 틈을 타서 운림처사는 마을 주민들을 모두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 놓았다. 왜병들은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은 하였으나 어찌할 수 없이 막무가내로 바다를 향해 말을 달렸다. 그런데 그 푸른 바다에서 먼지가 일었고 말을 탄 왜병들은 무사히 마을에 이를 수가 있었다. 그때야 왜병들은 운림처사의 도술임을 깨닫고 운림처사를 찾았으나 간곳이 없고 마을 사람들도 발견할 수 없었다. 왜병들은 할 수 없어 지금의 영광 방향으로 진격해 가고 말았다. 이리하여 이 마을을 '운림'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운림 마을 앞의 들판이 보름동안 바다가 되었다 하여 '보름바다들'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o유물과 유적

· 선돌 : 마을 어귀 정자 옆에 서 있는 2기의 선돌 중에 왼쪽은 '할매독', 오른쪽은 '할배독' 이라 부른다.

o배출인물

· 문 희 :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위원

(3) 마량(馬洋)

o마을 이름의 유래

마을 뒷산 형국이 목마른 말이 물을 찾아 고개를 늘어뜨리고 있는 형국이어서 마갈뫼라 불렀으니 마갈로 하자고 하였으나 협의 끝에 마량으로 마을 이름을 붙였다. 마을 앞 하천가에 물레방아간이 생기면서 마을이 생동하였다고 하며 물방아간 터는 말 구유터인데 물이 부어지므로 말이 물을 먹고 생동하여 마을이 번창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마을이 화목한 것은 말의 성질이 외면으로는 포악한 듯 하나 내면으로는 온유하여 사람을 등에 태워 주는 동물인데 마을이 이런 말의 형국이라서 주민들이 화목하게 살았다고 한다.

o 마을 현황

가 호			인 구			본 관 별 성 씨 (단위 : 가호)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김해김	밀양박	함평이	광산김	함평노	기타
30	30		77	38	39				6	5	9

면 적			종 교			연 령 대 별 인구 구성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31.8ha	25.3ha	6.5ha				10	6	3	9	10	17	14	11	1

o마을의 형성

1789년 호구총수지명에 마갈산리(馬渴山里)가 지금의 마량인데 그 후 1912년이나 1914년 지명에는 나오지 않은 것을 보아 일단 이 마을이 폐촌된 것을 알 수 있다. 그 후 대동제 축제시 수몰지구인 갈구지 마을 주민 4세대가 이곳에 정착하여 마을을 이루었다.

o 자생조직

명 칭	창립년도	인원	목 적	참 고
친목계	1965년	16호	계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o 배출인물

· 김주현 : 7대 대동면장 역임

· 김영관 : 항평군의회의장 역임

11) 월송리(月松里)

월송리는 이웃한 상옥리 금곡리와 더불어 1914년 이전에는 목포부 금동면에 속했던 지 역이었다. 그러던 것이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함평군 학교면에 편입되어 당시 이제(里制)를 시행하면서 금동면 동암(東巖)을 비롯한 시랑동(侍郎洞), 학송정(鶴松亭), 옥림(玉林), 월암(月巖) 전역과 주평(舟平) 일부를 묶어 월암에서 '월(月)'자와 학송정에서 '송(松)'자를 따서 월송리(月松里)라 리명(里名)을 정한 곳으로 그후 1973년 7월 1일 일부 행정구역 조정때 지금과 같이 대동면에 편입되었다.

(1) 동암(東巖)

o 마을 이름의 유래

지금의 동암마을은 맨 처음 평택임씨와 평택고씨가 거주할 때는 성암(聖巖 ; 1789년 호구총수 지명)이라 불렀던 곳이다. 낙안오씨 철검의 후손들이 성세하면서 성암이라 불렀던 곳이다. 마을 이름을 낙안오씨의 입향조인 오철검의 호를 따서 지금과 같이 동암(東巖)으로 바꿔 부르게 되었다.

【동암 · 시랑 마을현황】

가 호			인 구			면 적			종 교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65	60	5	135	62	73	39.8ha	28.5ha	11.3ha			

o 마을의 형성

철성산 아래에 있는 이 마을은 마을 주위에 크고 작은 고인돌이 있어 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550 여년전 평택임씨와 고씨가 터를 잡고 살다가 그 후 낙안오씨 오철검(吳哲檢 ; 1479년 생)이 평택임씨의 사위가 되어 남평으로부터 들어와 성촌하였으며 마을 앞에 있는 고목나무도 그때 심었다고 전해온다.

o자생 조직

명 칭	창립년도	인원	목 적	참 고
친목계	1965년	20호	계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o공공건물

· 월송초등학교 :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에 폐교되어 지금은 함평「학생의 집」으로 운영되고 있다.

o 유물과 유적

· 향양재(向陽齋) : 낙안 오경근(吳景根)의 강학소였으나 지금은 마을 동각으로 활용.

· 동암사(東巖祠) : 오철검 배향. 1868년 이전 훼철

· 효자오진의정려각 : 상옥리로 넘어가는 도로변에 있는 오진의 (吳震儀)의 효자 비각, 1890년에 건립.

· 고인돌 : 법흥사 동쪽의 구릉에 8기가 있으며 마을에서 금곡리 나막마을로 넘어가는 고개 200미터 지점의 밭 가장자리에 4기, 고개마루 도로변에 6기가 있었는데 이중 4기는 도로확장공사 때에 이동되었다고 한다. 월송초교 운동장 서편에 12기의 고인돌이 군집을 이루고 있다.

· 낙안오영주시혜불망비(樂安吳泳柱施惠不忘碑) ; 마을 정자 옆에 있는 3기의 비석 중에 가운데 있는 비석으로 1936년 건립.

· 전 참봉오경근불망비 : 마을 정자 옆에 있는 비석 중 가장 오른쪽에 있으며 1936년 건립

· 분청가마터 : 마을 앞을 지나는 지방도로변 좌측 야산 말단부에 위치한다. 조선 중기까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1934년 4월 야마다에 의해 처음 조사 되었다.

o 배출인물

· 오기홍 : 신한제약 사장 · 오기동 : 학다리중고교 이사

· 이동근 : 현대교통 부장

(2) 시랑동(侍郎洞)

o마을 이름의 유래

시랑동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년 전 시랑(侍郎) 벼슬을 한 사람이 입촌하여 마을을 이루었다하여 마을 이름을 시랑동(侍郎洞; 1789년 호구총수 지명)이라 했다고 전하나 그가 누구인지는 전하지 않고 있어 자세히 알 수 없다.

o 마을의 형성 : 현재 이 마을에 살고 있는 낙안오씨는 이웃한 동암마을에서 분가하여 들어왔고, 전주리씨는 리삼봉(李參鳳; 1784년생)이 주평마을에서 분가 입촌한 성씨이다.

o마을과 관련되는 전설

· 약바위 전설 : 마을 뒷산에 바위가 있고 이 바위 위에 물이 고여 있어 사람들은 고인물을

마시고 병이 나았다 하여 이 바위를 가르켜 '약바위' 라 부른다. 지금도 이 바위에는 언제나 물이 고여 있다.

o유물과 유적

· 오영균(吳泳昀)시혜불망비 : 오회선기념비와 함께 있으며 1936년 건립
· 오회선(吳淮善)기념비 : 1945년에 세웠다.

o배출인물

· 오석진 : 중학교 교장
· 오용선 : 장학사, 교장 역임
· 이영언 : 육군 대령
· 이재봉 : 제12대 대동면장
· 오현준 : 서울 백종합병원 부장

12) 향교리(鄕校里)

이 지역은 고시를 제외하고는 1906년까지는 동현내면에 속했고, 이후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전까지는 기성면에 속했다가 대동면에 편입되었으며, 고시는 1906년까지는 동현내면에 속했다가 1906년 행정구역 개편때 목포부 좌촌면에 편입되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대동면에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리제를 실시하면서 함평군 기성면 상교, 중교, 동교, 고이 전역과 하교와 기산, 천변, 목포부 좌촌면 화산, 고시 각 일부를 묶어 향교가 소재하는 마을이라 하여 향교리(鄕校里)라 이름하였다.

(1) 상교 · 동교 · 중교 · 남교 · 서교 · 명교

o 마을 이름의 유래

향교리는 함평향교가 자리하고 있다하여 불리게 된 이명(里名)이다. 자연마을 단위인 상교(上

校)·동교(東校)·중교(中校)·남교(南校)·서교(西校)·명교(明校) 등도 이처럼 모두 향교(鄕校)와 관련하여 붙여지게 된 마을 이름들이다.

o 마을 현황

가 호			인 구			면 적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계	논	밭
317	310	7	728	347	381	114.6ha	80.9ha	33.7ha

o마을의 형성

고려 때 현 향교리 중교 마을터의 원곡에 임(咸豊任氏)씨가 몇 가구 살았고, 지금으로부터 400여년 전 인조 때에 함평이씨 이양휴(李良休)가 향교 뒷산에 올라가 국지사와 함께 집터를 물색하는데 국지사가 현재의 향교 명륜당 자리가 중신이 나올 터라 하여 이곳에 함평읍 내교리에 있던 향교를 옮겨 짓고 명륜당 우측 북쪽 바위가 많은 곳(이 일대의 바위는 모두 고인돌이다)에 집을 지었으나 재앙이 있어 지금의 중교 마을에 천막을 치고 살게 되어 마을이 형성 되었으며, 지금까지 그 자손들이 대를 이어오고 있다. 현재는 자손들이 번창하여 터를 넓혀 나간 결과, 동교, 상교, 중교, 남교, 서교, 명교 6개 마을로 분리되었는데 1789년 호구총수 지명을 보면 하교와 중교뿐이다.

o자생조직

명 칭	창립년도	인원	목 적	참 고
일심계	1982년	33호	기금 조성을 목적, 위친계와 비슷	
이일계	1983년	21호	여행을 통한 친목도모	
편친계	1965년	33호	위친계 성격, 기금 조성 목적	
닭 계	1969년	15명	양계업 종사자 조직	
갑 계	1970년	11명	친목도모	
동창계	1984년	14호	친목도모	

o 공공건물

· 향교초등학교, 대동면사무소, 대동파출소, 나비골농협대동지점, 대동우체국

o 유물과 유적

· 팽나무, 느티나무, 개서나무의 줄나무 : 이양휴가 터를 잡은 뒤에 함평읍 수산봉이 화산이라 하여 마을을 가리기 위해 심어 놓은 나무가 이제 고목 수림이 되어 천연기념물 제108호로 지정되었다(향교리 948- 2외 13필지).
· 함평향교 : 전라남도유형문화재 제113호로 지정됨(향교리 590-1).
· 고인돌 : 24번 국도에서 나산과 법흥사로 갈라지는 삼거리 남쪽에 7기, 명교마을 뒷산을 중심으로 산말단부에 20기가 위치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마을 가옥 사이에 있어서 훼손이 심하다.
· 월산사지(月山祠址) : 월산사지는 남교마을 426번지에 있다. 월산사는 현재 복원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 사우는 충무공 이순신(李舜臣 : 1545~1598)과 칠실(漆室) 이덕일(李德

일 : 1561~1622)을 제향했던 곳으로 최초 건립의 단서가 마련된 것은 1712년(숙종 38)이덕일의 사당이 이 마을 북쪽에 건립된데에서 비롯된다. 이덕일(1561~1622)은 함평출신의 충절인물로 자는 경이(敬f紬). 호는 칠실(漆室)이며 본관은 함평이다.

· 월산사유허비 : 1911년 건립했으며 월산사지 내에 있다.

· 고산사지(高山寺址) : 고산사지는 함평향교에서 저수지를 지나 약 1.5km 가량 떨어진 고산봉(高山峰 : 해발 359. 1m) 중턱에 있다. 사지(寺士)의 현 상태는 뒤편에 민묘(민墓) 2기가 들어서 있고 숲이 우거져 정확한 현상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가로 약 50m, 세로 20m 규모의 평지가 남아 있다. 그리고 두께 25cm, 직경 120cm 되는 원형 석재가 숲속에서 발견되었으나 이 석재는 주초석으로 보기에는 너무 큰 것이어서 그 용도를 알 수 없다. 어쨋든 고산사지는 고려 초반기로 추정되는 마애불의 조성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창건했던 사찰이 아닌가 한다.

· 고산사지 마애여래좌상(磨崖如來坐像) : 고산사지에서 약 100m 떨어진 북쪽 바위벽에 새겨져 있는 마애불이다. 이 마애불의 규모로는 총고 365cm, 좌상고 203cm, 두고 42cm, 안고 30cm, 안폭 24에, 어깨폭 100cm, 무릎폭 185cm, 무릎고 42cm, 신광폭 220cm, 두광폭 19lCm, 대좌폭 245cm, 대좌고 40cm 등이다.

· 고산골정유재란전적지 : 임진왜란 이후 정유년에 왜적이 재침하여 호남의 각 고을을 침범할 때 이덕일 장군이 향병을 모아 승전할 곳으로 그 위치는 고산봉 초입으로 추정.

· 고산봉 우단터 : 고산봉 정상에 있는 기우제터로 기우제시에는 무녀의 가무도 있었다고 함.

· 남교 유물산포지 : 남교 마을에서 학교면 마산리로 가는 도로 400여미터 지점의 북쪽구릉에 위치, 확인유물은 회청색경질토기편, 회색연질토기편 등이다.

· 보진영당 : 함평 이세추(李世樞)의 영당으로 상교마을에 위치. 이세추의 유고 3권이 전함.

· 남교 느티나무 : 마을 중간 언덕에 있는데 수령은 약 240년으로 추정, 1995년 마을나무 10-22-6-6-30으로 지정되었으며 다른 두 그루 느티나무와 함께 있다.

· 향교 은행나무 : 함평향교 안에 있으며 수령은 약 450년으로 추정되며 1998년 마을나무 10-22-6-11-65로 지정, 이 나무 외에 두 그루의 나무가 더 있다.

· 교궁중수기념비(校宮重修紀念碑) : 함평향교 외삼문 앞에 있으며 1929년 건립.

· 오일정(五一亭) : 사우 51명이 오륜(五倫)의 뜻을 기리기위해 세운 것으로 함평향교 내 명륜당 뒤쪽에 있다.

o 풍수지리 및 중요한 지명

· 수가동(거시등) : 고기잡는 할아버지가 낚시를 물에 놓고 있는 형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o배출인물

· 이기채 : 경영학박사, 배제대학 교수, 학장역임
· 서용범 : 법원 사무관
· 이용섭 : 행자부 장관, 건교부 장관, 국세청장, 현 국회의원
· 이건조 : 행정고시 합격, 인천시청 건설국장, 부평시 부시장 역임.

· 이철환 : 변호사, 전대법대교수.
· 이선개 : 변호사
· 이종석 : 1대 대동면장 역임
· 김일용 : 6대 대동면장 역임
· 이현재 : 육군중령 예편
· 최윤상 : 육군소령 예편
· 김영곤 : 15대 대동면장 역임
· 이점순 : 제1대 대동단위농협장 역임
· 신인석 : 목포초등학교장 역임
· 이계행 : 전남도청 행정사무관.
· 이남행 : 전남도립뇌병원, 전남도청, 장흥 · 고흥
· 함평군보건소장 역임.
· 이진행 : 손불면장, 신광면장 역임.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 함평문화 원장
· 이건창 : 이학박사, 동신대학 교수.
· 이건철 : 이학박사, 원광대학 교수.
· 이원행 : 서울 무학중학교장.
· 박형필 : 대동면장 역임
· 이건호 : 한의학박사, 뉴욕코넬대 의과대학교 교수.
· 박인석 : 미국 오리건대 대학원 졸업, 현재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 박명기 : 노동부 근로감독관
· 박철기 : 국세청 여수세무서 사무관
· 이방행 : 관세법인 탑스 대감
· 최영철 : 현 대동면장
· 최진석 : 철학박사, 대학교수
· 최인석 : 공학박사, 대학교수

(2) 고시(古市)

o 마을 이름의 유래

원래는 마을 근처에 느티나무와 감나무가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하여 마을을 괴시(槐柿)라고 했다는 전설이 있고, 함평노씨 입향조 겸(謙)의 호 괴음(槐陰)에서 '槐'자를 땄다고도 한다.

고시

o 마을 현황

가 호			인 구			본 관 별 성 씨 (단위 : 가호)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김해 김	밀양 박	함평 이	전주 이	나주 김	평택 임	청성 심	함평 모	동복 오	금성 나	함평 노	남해 홍	흥덕 장	낙안 오
50	50		105	38	67	3	3		4	1	3	3	4	2	1	1	1	1	1

면 적			종 교			연 령 대 별 인구 구성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0--50	51--60	61--70	71--80	81-
21.3ha	13.3ha	8ha	2	27		3	6	4	6	4	4	16	22	11

o 마을의 형성

여양진씨와 창녕조씨가 먼저 터를 닦았다고 하나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고 함평노씨 겸(謙, 1507년생)이 1530년경에 입촌하였고, 약 200여년 전 함평모씨가 입주했으며 나주김씨가 다시

입주하여 오늘날의 마을이 형성되었다.
1789년 호구 총수 지명에 보면 이 마을은 동현내면에 속했고, 고시(古市)라 표기되어 있으며 그 후 무안현 좌촌면에 속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대동면 향교리에 편입되었다. 무안현에 편입될 때 마을의 일부는 고이(古耳)로 바뀌어 함평군 기성면에 편입된 듯 하다.

o 자생조직

명 칭	창립년도	인원	목 적	참 고
위친계	1945년	39호	부모 유고시 부조	
친목계	1960년	44호	마을 발전 도모	

o공공건물

· 마을회관 : 17평, 1980년 건립 · 마을정 자 : 13평

o유물과 유적

· 마을 앞에는 수령이 약 300년 되는 주엽나무 12그루가 있다

o배출인물

· 이강산 : 5대 대동면장 · 박 원 : 국토해양부 사무관
· 모길원 : 육군 대령 2009년 전역

제4절 손불면(孫拂面)

집필 / 고일석

궁산리(弓山里) / 519
대전리(大田里) / 525
동암리(冬岩里) / 529
북성리(北成里) / 535
산남리(山南里) / 538
석창리(石倉里) / 551
양재리(良才里) / 556
월천리(月川里) / 561
죽암리(竹岩里) / 569
죽장리(竹長里) / 573
학산리(鶴山里) / 580

1. 면사무소 소재지

1910년 한일합방후 면제도(面制渡) 가 실시된 초기 (1913~1919)에는 동암리 505번지 (통골)에 있던 망운제(望雲濟)를 빌려 쓰다가 1920년 현 소재지인 대전리 667번지에 면사무소를 신축하였고(당시 초가 3칸), 1940, 8. 15에 대전리 294~8번지에 이축(목조가 5칸) 하였다가 6.2전쟁중인 1950년 10월 소실되었다.

수복 당시에는 대전리 647번지 개인 집에서 집무하다가 1951.8.15에 종전 자리에 석조와가를 개축하여 현재의 면사무소로 옮기기 전까지 사용하였다.

현재의 면사무소는 대전리 223의 1번지에 있으며, 대지 734평에 벽돌 콘크리트조 2층 연건평 150평의 건물로 1983. 6. 7일에 착공하여 10.25에 준공되어 11. 21에 개소 (開所)하였다.

개소를 기념하여 면사무소 정원에 106명의 헌성록을 새긴 면소창연기념비 (面所倡捐 紀念碑 ; 현풍 곽충로 찬)를 세웠으며, 그 후, "면민복지회관"을 짓고 기금 기탁자 명단을 새긴 애향비(愛鄕碑)를 세웠으며, 1996년에 면사무소 건너편에 농혀 건물을 짓고 "조합장 호산이공왕기공적비(組合長湖山李公王基功績碑;영성 정관식 찬)를 세웠다.

o 1999. 7. 1 현재 면사무소 공무원 정원은 다음의 표와 같다.

직명	면 장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직	사 환	계	비고
정원	1	4	4	3	1	2	1	16	

2. 연혁(沿革)

군내(郡內)에서 불교와 관계되는 이름을 가진 유일한 면(面)이다. 면내에서 불교와 관계된 산 이름으로 군이산(君尼山→瑞祥산→君遊山), 노승봉(老僧峰), 승유산(僧遊山), 발봉산(鉢峰山) 등이 있고 신라와 고려 때의 절터로 군유사(殷國寺→瑞祥寺→君遊寺→烟興寺)등이 있으며 불교와 얽힌 전설로는 승선(昇仙), 은선독서(隱仙讀書), 백말목(白髮木), 불무산(佛舞山), 불무동(佛舞

洞), 불무초(佛舞草)등의 전설이 전해 오고 있다

면 이름을 "손불"이라 한 것은 풍수설에 손승배조(孫僧拜祖) 또는 손승배불(拜佛)이라는 명당이 있다고 해서 붙여졌다고 전해 오고 있다.

손불은 백제때는 굴내현(屈乃縣), 신라와 고려조에는 함풍현(咸豊縣), 조선조에는 함평현(咸平縣), 1895년 부터는 함평군에 속(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그간 여러번의 행정 구역 개편에도 크게 변동이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14년 이(里)가 행정 구역의 하부 조직으로 출현하면서 몇 마을이 조정되었을 뿐이다. 그 내용을 보면, 손불면이었던 죽림(竹林), 목교(木橋)의 일부가 함평면(현재읍) 장년리(長年里)에 편입되고, 장정(長田)마을 일부는 신광면 계천리(桂川里)로, 등촌(等村), 소명(昭明)으 l일부가 산광면 가덕리(加德里)에, 농암(籠岩)의 일부가 신광면 유천리(柳川里)에 , 장재동(長才洞)의 일부가 영광군 군남면 오동리(梧洞里)에, 완정(完丁)의 일부가 군남면 옥슬리(玉瑟里)로 편입되어 왔다.

* 참고 1. 1789년 호구총수(호구총수)에 나타난 관할 이(里) -41개리(마을)

묘동리(廟洞里), 가덕산리(加德山里), 화양리(花陽里), 운계동리(雲溪洞里), 해창동변리(海倉東邊里), 해창서변리(海倉西邊里), 산어리(山魚里), 감남지리(甘南只里), 기사리동변리(基士里東邊里), 기사리서변리(基士里西邊里), 수철동리(水鐵洞里), 기사리산직리(基士里山直里), 갈마동리(渴馬洞里), 신흥리(新興里), 저전리(楮田里), 구봉리(九峰里). 어전리(荎田里). 비천리(飛川里), 용산리(龍山里), 백여지리(白歟之里), 신기리(新基里), 백양동리(白良洞里), 돌포리(乭浦里), 완정리(完丁里), 영안동리(永安洞里), 외사기리(外沙器里), 호암리(湖岩里), 모량계리(毛良界里), 사기소리(沙器所里), 차경동리(且京洞里), 복암리(伏岩里), 백안동리(白安洞里), 벽초동리(碧草洞里), 최동동리(崔童洞里), 삼괴동리(三槐洞里), 복흥동리(卜興洞里), 죽림리(竹林里), 장동양지리(墻洞陽地里), 장동리(墻洞里), 장동등촌리(墻洞登村里). 우천리(牛川里)

.

* 참고2. 1912년 지방행정구역일람표(47개리);이(里)자는 생략함.

월산(月山), 신성(申成), 모량(毛良), 죽림(竹林), 소명(小明), 용암(龍岩), 죽사(竹寺), 석령(石令), 수철(水哲), 양지(良之), 장동(墻洞), 등촌(登村), 응암(應岩), 복암(伏岩), 벽초(碧草), 매곡(梅谷), 효동(孝洞), 최동(崔洞), 복흥(伏興), 석계(石溪), 감남(甘南), 해창(海倉), 어전(於田), 지호(芝湖), 장재(長才), 비천(比川), 신기(申己), 백옥(白玉), 금곡(今谷), 복학(伏鶴), 완정(完丁), 사기(沙己), 공북(拱北), 차경(且京), 용흥(用興), 기서(己西), 산직(山直), 죽동(竹洞), 가작(佳作), 저전(楮田), 대행(大行), 묘동(廟洞), 궁평(弓平), 조내(鳥乃), 덕산(德山), 목교(木橋), 장전(長田)

* 참고3. 1914년부터 시행한 이(里)의 관할 구역은 다음과 같다(11개리)

▶ 궁산리(弓山里)

손불면 묘동리(廟洞), 궁평리(弓坪), 덕산리(德山) 전 지역과 죽림리(竹林), 목교(木橋) 일부지역

▶ 대전리(大田里)

손불면의 저전리(楮田), 대행리(大行) 전 지역과 용흥리(用興), 가작리(佳作), 어전리(於田) 각 일부지역

▶ 동암리(冬岩里)

손불면의 복흥리(伏興), 최동리(崔洞), 매곡리(梅谷), 예등리(艾嶝), 효동리(孝洞), 동백리(冬柏), 벽초리(碧草), 예동(禮洞), 응암리(鷹岩), 전 지역과 양지리(良之), 신광면 중산리(中山), 하계리(荷溪) 각 일부 지역

▶ 북성리(北城里)

손불면 사기리(沙己), 홍북리(洪北), 차경리(且京) 전 지역과 신성리(申成)일부지역

▶ 산남리(山南里)

손불면 불무리(佛舞), 기서리(己西), 산직리(山直), 죽동리(竹洞), 감남리(甘南) 전 지역과 가작리(佳作), 용흥리(龍興), 조내리(鳥內) 각각 일부지역

▶ 석창리(石倉里)

손불면의 해창리(海倉), 석계리(石溪), 전 지역과 조내리(鳥乃) 일부지역

▶ 양재리(良才里)

손불면의 주호리(舟湖) 전역과 장재리(長才), 모양리(毛良), 각각 일부지역

▶ 월천리(月川里)

손불면의 비천리(比川), 월산리(月山), 신기리(申己), 백옥리(白玉), 전 지역과 신성리(申成) 모양리(毛良), 어전리(於田), 지호리(芝湖)의 각각 일부지역

▶ 죽암리(竹岩里)

손불면 석령리(石令) 전역과 소명리(小明), 등촌리(等村), 농암리(籠岩), 죽암리(竹岩), 신광면의 학천리(鶴川) 각각 일부 지역

▶ 죽장리(竹長里)

손불면의 장동리(墻洞里), 죽등리(竹等), 수철리(水哲), 전 지역과 응암리(鷹岩), 양지리(良之), 장전리(長田), 등촌리(等村) 각각 일부지역

▶ 학산리(鶴山里)

손불면의 복학리(伏鶴), 금곡리(金谷), 해은리(海隱), 소동리(小洞), 평산리(平山), 전역과 완정리(完丁), 지호리(芝湖), 영광군 육창면(六昌面·현 군남면), 소무리(小武) 각각 일부 지역

참고사항 ; 2009.11.17 현재 손불면 里의 관할 구역은 다음과 같다.(34개리)
> 궁산1리(弓山1里) : 상.중.하 新興, > 궁산2리(弓山2里) : 목교(木橋)
> 궁산3리(弓山3里) : 신편(新平). 묘동(廟洞), > 궁산4리(弓山4里) : 덕산(德山)
> 대전1리(大田1里) : 저전(楮田). 隱谷(은곡), > 대전2리(大田2리) : 소재(所在).
대행(大行), > 동암1리(冬岩1里) : 복암(伏岩). 동백(冬柏). 벽초(碧草),
> 동암2리(冬岩2里) : 봉동(鳳洞). 초동(草洞), > 북성리(北城里) : 승선(昇仙).
차경(且京). 사기(砂器), > 산남1리(山南1里) : 감남(甘南). 교감(敎甘). 조내(鳥內),
> 산남2리(山南2里) : 교촌(敎村). 대성(大成), > 산남3리(山南3里) : 용흥(龍興).
기서(己西). 산직(山直), > 산남4리(山南4里) : 수연(水蓮). 가작(佳作),
> 산남5리(山南5里) : 내감(內甘). 강석(鋼石). 부풍(富風),
> 산남6리(山南6里) : 청동(靑銅). 유록(柳錄), > 석창1리(石倉1里) : 석계(石溪).
농암(農岩), > 석창2리(石倉2里) : 해창(海倉), > 석창3리(石倉3里) : 대덕(大德).
해안(蟹眼), > 석창4리(石倉4里) : 대발(大發), > 양재1리(양재1리) : 장재(長才).
호암(虎岩), > 양재2리(양재2리) : 모량(慕良). 신촌(新村), > 월천1리(月川1里) : 농장(農場).
영월(迎月), > 월천2리(月川2里) : 신기(新基). 새마을(새마을). 안악(安岳),
> 월천3리(月川3里) : 월산(月山). 비천(飛川), > 월천4리(月川4里) : 저수(貯水).
어전(於田), > 월천5리(月川5里) : 백옥(白玉). 신옥(新玉), > 죽암1리(竹岩1里) : 죽림(竹林),
> 죽암2리(竹岩2里) : 석령(石嶺). 소명(小明), > 죽장1리(竹長1리) : 장동(담골), > 죽장2리(죽장2리) : 수철(水哲). 응암(鷹岩). 죽사(竹寺),
> 학산1리(학산1리) : 지호(芝湖). 평산(平山), > 학산2리(학산2리) : 금곡(金谷). 복학(伏鶴). 완정(完丁), > 학산3리(학산3리) : 새마을. 세곡(細谷). 소동(小洞)
> 학산4리(학산4리) : 해은(海隱). 금계(金溪)

인 구 (명)			면 적 (ha)			종 교(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								
계	남	여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이상
4.136	2.041	2.095	1,740	1,173	567	286	551	1,146	231	350	404	333	553	590	805	663	207

3. 면내의 10대 씨족(十代氏族)

순위	본관별(本貫別) 성씨	거주가구수	집단거주마을
1	김해김씨(金海金氏)	204	저전·복학·소재
2	천안전씨(天安全氏)	76	감남·신기·어전
3	광산김씨(光山金氏)	91	담골·용흥·벽초
4	수원백씨(水原白氏)	76	지호·소동·세곡
5	밀양박씨(密陽朴氏)	115	승선·차경·저전
6	나주임씨(羅州林氏)	66	저전·어전·대행
7	경주최씨(慶州崔氏)	51	석계·해창·대덕
8	전주리씨(全州李氏)	47	장재·감남·광석
9	경주김씨(慶州金氏)	62	덕산·저수·묘동
10	한양조씨(漢陽趙氏)	23	백옥·신옥·농장

1. 주산업 및 특산물 : 쌀, 보리, 굴, 숭어, 낙지, 바지락, 장어, 보리세우, 한우,
2. 공공기관 및 건물 : 면사무소, 면민복지회관, 농협, 파출소, 우체국, 중학교, 초등학교, 보건지소, 소방서

3. 마을별 경작 통계

법정동	행정리	농가수	합 계		전(실재지목)		답(실재지목)		과수(실재지목)		기타(실제지목)	
			필지수	면 적(m2)	필지수	면 적(m2)	필지수	면적(m2)	필지수	면적(m2)	필지수	면적(m2)
전체	소계	1.336	9.888	17,160,022	3,940	5,384,078	5,871	11,409,522	22	214,343	55	152,079
주민정보없음	소계	2	4	1,855	4	1,855	0	0	0	0	0	0
주민정보없음	1	1	3	1,419	3	1,419	0	0	0	0	0	0
주민정보없음	미지정	1	1	439	1	436	0	0	0	0	0	0
궁산리	소계	150	1,017	1,666,723	437	569,307	568	1,072,294	0	0	12	25,123
궁산리	1	49	372	640,723	164	230,560	204	402,805	0	0	4	7,444
궁산리	2	25	190	311,486	69	70,381	120	240,202	0	0	1	903
궁산리	3	24	140	219,454	70	96,196	70	123,259	0	0	0	0
궁산리	4	44	281	434,773	125	158,867	149	259,131	0	0	7	16,776
궁산리	A	1	1	1,753	0	0	1	1,753	0	0	0	0
궁산리	미지정	7	33	58,449	9	13,303	24	45,146	0	0	0	0
대전리	소계	163	751	1,418,060	256	409,489	490	923,507	1	68,023	4	17,040
대전리	1	61	326	537,983	106	132,914	219	404,390			1	

법정동	행정리	농가수	합 계		전(실재지목)		답(실재지목)		과수(실재지목)		기타(실제지목)	
			필지수	면 적(m2)	필지수	면 적(m2)	필지수	면적(m2)	필지수	면적(m2)	필지수	면적(m2)
									0	0		678
대전리	2	60	381	800,830	133	257,609	245	459,091	1	68,023	2	16,107
대전리	3	1	2	4,181	0	0	2	4,181	0	0	0	0
대전리	미지정	14	42	75,066	17	18,966	24	55,849	0	0	1	255
동암리	소계	45	360	521,723	122	144,853	238	376,870	0	0	0	0
동암리	1	28	226	335,915	81	101,581	145	0	0	0	0	0
동암리	2	12	119	170,056	37	38,058	82	131,998	0	0	0	0
동암리	미지정	5	15	15,752	4	5,214	11	10,538	0	0	0	0
북성리	소계	62	448	620,106	203	259,739	244	360,010	0	0	1	357
북성리	1	55	428	598,925	191	250,504	236	348,064	0	0	1	357
북성리	3	1	4	5,222	2	1,252	2	3,970	0	0	0	0
북성리	미지정	6	16	15,959	10	7,983	6	7,976	0	0	0	0
산남리	소계	273	2,000	3,843,389	802	1,100,304	1,177	2,637,332	10	64,566	11	41,187
산남리	1	54	426	787,030	146	165,102	270	567,833	6	25,040	4	29,055
산남리	2	41	277	533,111	112	158,651	162	370,358	0	0	3	4,102
산남리	3	44	278	436,803	108	157,180	167	272,798	0	0	3	6,825
산남리	4	36	305	645,203	151	266,617	149	337,855	4	39,526	1	1,205
산남리	5	50	337	709,184	155	186,353	182	522,831	0	0	0	0
산남리	6	28	292	593,550	92	118,349	200	475,201	0	0	0	0
산남리	미지정	20	85	138,508	38	48,052	47	90,456	0	0	0	0
석창리	소계	167	1,228	2,057,163	577	779,130	643	1,259,471	3	11,427	5	7,135
석창리	1	42	300	563,980	92	137,697	205	414,856	3	11,427	0	0
석창리	2	49	410	527,986	263	303,359	145	223,267	0	0	2	1,359
석창리	3	42	372	701,404	146	190,809	226	510,595	0	0	0	0
석창리	4	17	94	163,433	44	79,521	47	78,136	0	0	3	5,776
석창리	미지정	17	52	100,361	32	67,744	20	67,617	0	0	0	0
양재리	소계	68	576	1,054,826	134	252,448	441	800,447	0	0	1	1,931
	1	40	411	708,562	89	152,113	321	554,518	0		1	

법정동	행정리	농가수	합 계		전(실재지목)		답(실재지목)		과수(실재지목)		기타(실제지목)	
			필지수	면 적(m2)	필지수	면 적(m2)	필지수	면적(m2)	필지수	면적(m2)	필지수	면적(m2)
양재리										0		1,931
양재리	2	25	155	325,697	45	100,335	110	225,362	0	0	0	0
양재리	4	1	3	8,663	0	0	3	8,663	0	0	0	0
양재리	미지정	2	7	11,904	0	0	7	11,904	0	0	0	0
월천리	소계	219	,567	2,653,226	618	719,156	938	1,867,316	3	26,482	8	40,272
월천리	1	43	405	738,998	140	165,852	263	570,083	0	0	2	3,063
월천리	2	55	381	691,941	194	260,124	182	371,989	2	25,540	3	34,288
월천리	3	21	165	249,562	32	33,431	132	215,471	0	0	1	660
월천리	4	45	391	617,881	145	160,789	246	457,083	0	0	0	0
월천리	5	35	160	266,110	88	83,163	69	179,745	1	942	2	2,261
월천리	미지정	20	65	88,736	19	15,790	46	72,946	0	0	0	0
죽암리	소계	57	320	503,226	121	174,791	199	328,435	0	0	0	0
죽암리	1	29	158	262,948	61	76,239	97	186,709	0	0	0	0
죽암리	2	25	152	222,835	57	93,142	95	129,693	0	0	0	0
죽암리	미지정	3	10	17,443	3	5,410	7	12,033	0	0	0	0
죽장리	소계	67	555	887,969	189	235,546	361	642,551	2	7,719	3	2,152
죽장리	1	37	296	480,913	78	88,521	216	384,673	2	7,719	0	0
죽장리	2	25	241	387,234	106	143,091	132	241,991	0	0	3	2,152
죽장리	미지정	5	18	19,821	5	3,934	13	15,887	0	0	0	0
학산리	소계	150	1,062	1,931,757	477	737,458	572	1,141,290	3	36,126	10	16,883
학산리	1	36	287	462,249	141	201,401	139	238,401	1	10,013	6	12,434
학산리	2	38	326	621,755	127	195,000	197	400,642	2	26,113	0	0
학산리	3	40	272	482,499	151	243,114	117	234,936	0	0	4	0
학산리	4	21	121	276,674	36	67,946	85	208,728	0	0	0	0
학산리	미지정	15	56	88,579	22	29,997	34	58,582	0	0	0	0

5. 면의원(面議員)명단

1) 제 1 대 (初代)

성 명	출 신	학 력	비 고	성 명	출 신	학 력	비 고
김재봉(金載鳳)	동암리	고졸	의장	이성범(李成範)	죽장리	한학	
김기병(金基柄)	대전리	한학		이우만(李佑萬)	대전리	한학	
김복수(金福洙)	석창리	한학		이재관(李載官)	양재리	국졸	
김영남(金永南)	죽암리	한학		전대현(全大鉉)	산남리	한학	
김태종(金太宗)	죽암리	한학		최기신(崔基信)	궁산리	한학	
모춘기(牟春基)	월천리	국졸		최 웅(崔 雄)	석창리	국졸	
백남열(白南烈)	학산리	한학					

2) 제 2 대 (二代)

성 명	출 신	학 력	비 고	성 명	출 신	학 력	비 고
김재봉(金載鳳)	동암리	고졸	의장	김태종(金太宗)	죽암리	한학	
강종태(姜宗泰)	궁산리	한학		박양춘(朴良春)	북성리	국졸	
김기병(金基炳)	대전리	한학		백남열(白南烈)	학산리	한학	
김세련(金世鍊)	죽장리	한학		이종운(李鍾云)	양재리	한학	
김영남(金永南)	산남리	국졸		전순종(全順鍾)	산남리	한학	
김용련(金勇련)	월천리	국졸		최 웅(崔 雄)	석창리	국졸	

2) 제 3 대 (三代)

성 명	출 신	학 력	비 고	성 명	출 신	학 력	비 고
정대림(鄭大林)	동암리	국졸	의장	이왕기(李王基)	양재리	중졸	
김상훈(金相勳)	산남리	국졸		이윤범(李潤範)	동암리	국졸	
김세련(金世鍊)	죽장리	한학		임건택(林建澤)	대전리	한학	
김주성(金朱性)	대전리	국졸		전준채(全準彩)	산남리	국졸	
노병환(魯炳煥)	궁산리	국졸		조부석(趙富石)	월천리	국졸	
백영권(白永權)	학산리	국졸		최금동(崔金童龍	석창리	국졸	

6. 역대 면장(歷代面長) 명단

대	성 명	학 력	출 신 리	재 임 기 간
1	조장환(曺長煥)	한학	함평읍 수호리	1913. 04. 20~1915. 11. 10
2	전찬국(全贊局)	한학	손불면 산남리	1915. 11. 10~1917. 07. 01
3	김석하(金錫夏)	한학	〃 대전리	1917. 07. 01~1919. 12. 07
4	전찬국(全贊局)	한학	〃 산남리	1919. 12. 10~1925. 09. 20
5	김봉래(金鳳來)	한학	〃 죽장리	1925. 09. 25~1933. 11. 05
6	신완식(申完植)	수원농고	〃 산남리	1933. 11. 07~1943. 02. 22
7	김우영(金佑永)	국졸	〃 대전리	1943. 04. 28~1946. 06. 18
8	최병술(崔炳述)	한학	〃 석창리	1946. 06. 24~1948. 02. 19
9	김병량(金炳亮)	한학	〃 동암리	1948. 02. 24~1950. 07. 20

10	김우영(金佑永)	국졸	〃 대전리	1950. 11. 23~1952. 05. 04
11	남덕우(南德祐)	한학	〃 산남리	1952. 05. 09~1953. 04. 06
12	박흥식(朴興植)	한학	〃 산남리	1953. 04. 10~1954. 11. 05
13	이종삼(李鍾三)	국졸	〃 산남리	1954. 11. 19~1955. 11. 16
14	김대열(金大烈)	국졸	〃 궁산리	1955. 11. 18~1959. 11. 17
15	남덕우(南德祐)	한학	〃 산남리	1959. 11. 18~1959. 11. 17
16	남덕우(南德祐)	한학	〃 산남리	1959. 12. 09~1960. 12. 01
17	임동택(林東澤)	고졸	〃 대전리	1960. 12. 26~1961. 06. 26
18	이종삼(李鍾三)	국졸	〃 산남리	1961. 06. 30~1965. 10. 14
19	임경남(林暻男)	국졸	〃 대전리	1969. 11. 24~1975. 09. 17
20	박상철(朴相喆)	국졸	〃 대전리	1975. 09. 23~1979. 09. 21
21	김영열(金榮烈)	중졸	〃 학산리	1979. 09. 22~1983. 12. 04
22	임인규(林仁圭)	중졸	〃 대전리	1983. 12. 05~1988. 06. 30
23	나내균(羅來均)	고졸	〃 동암리	1988. 07. 01~1993. 06. 30
24	김상렬(金相洌)	고졸	〃 대전리	1993. 07. 03~1998. 05. 14
25	이진행(李辰行)	고졸	대동면 향교리	1998. 05. 15~1999. 01. 21
26	정수기(鄭洙基)	고졸	신광면 계천리	1999. 01. 22~
27	정영오(鄭永吾)	대졸	함평읍 만흥리	2001. 01. 15-2002. 09. 08
28	김영학(金永鶴)	고졸	대동면 금곡리	2002. 09. 09-2004. 07. 19
29	이윤성(李允聖)	고졸	함평읍 수호리	2004. 07. 20-2005. 08. 07
30	차주경(車柱京)	고졸	광주시 송정동	2005. 08. 08-2006. 01. 25
31	나명주(羅明柱)	고졸	함평읍 가동리	2006. 01. 27-2007. 07. 22
32	이건택(李建澤)	고졸	함평읍 성남리	2007. 07. 23-2008. 01. 13
33	박연수(朴連洙)	대졸	함평읍 기각리	2007. 02. 01- 현재

6. 마을사(史)

이명 : 가나다 순

1)궁산리(弓山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이제(里制)를 실시하면서 손불면 묘동, 궁평, 덕산 전역과 죽촌, 목교 각 일부를 합해 궁평에서 “弓”자와 덕산에서 “山”자르 따붙혀 궁산리라 하였으며 국내의 연근(蓮根)생산지로 이름이 높다.

(1) 덕산(德山)

호 구(세대)			인 구(명)			본관별 성씨 (단위 : 세 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경주김	함평이	창령조	밀양박	기타		
50	50		100	40	60	20	7	6	2	15		

면적(ha)			종교(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이상
42	26	16	3	30	17	5	8		8	20	4	30	17	8

1. 주산업 및 특산물

벼. 양파. 마늘

2. 공공기관 및 건물

마을회관, 마을공동창고

○ 마을 형성 및 지명유래

이 마을은 5백여년 전에 강(姜)씨 3호가 입주 하였는데 얼마간 살았는가는 모르며 강씨 이후 상산김씨가 들어왔는데 그들은 강씨가 처가(妻家)인 연유에서 덕산을 찾았다고 한다.

상산김씨에 이어 경주김씨가 입촌 했는데 첫 입촌자는 광양현감을 지낸 재규(載規)였다 마을 뒷산에 천제(天祭)를 모시는 기재(祈峙)가 있고 산의 모양이 덕을 담고 있다하여 마을 이름을 덕산이라고 했다 하며, 1789년의 지명에는 가덕산(加德山)이었다.

마을 주위에 있는 지명(地名)중 당산뫼는 옛날 동네 터며 당산나무가 있었기에 붙여진 이름이고 사장등(射場)은 동네 청소년들이 활을 쏘던 곳이라 한다.

○ 유적과 유물

마을 입구 대로변에 파평윤씨 세장비가 있고, 마을앞에 400년 가량 된 느티나무 12그루가 있으며, 광주이씨효열문(경주 김상경의처 정부인 광주이씨의 효열문으로 난와 오계수의 찬기-撰記)과 경주 김씨효자비가 있다.

○ 자생조직단체

마을상여계가 있어 애경사에 상부상조하고 있다.

○ 배출인물 :

·김항렬(金恒烈) : 신광면장 역임

(* 자료제공자 : 이장 김덕수)

(2) 묘동(苗洞)

가 호(세 대)			인 구 (명)			본관별 성씨 (단위: 세대)			
계	자가	기 타	계	남	여	경주김	광산김	함평이	
17	17		30	10	20	13	3	1	

면 적(ha)			종 교(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이상
15	8	7	10	1	6	3			2	3	8	10	4	

1. 주산업 및 특산물

벼. 양과

2. 공공기관 및 건물

마을회관

묘동

○ 마을 형성 및 지명유래

전언(傳言)에 의하면 고려 이전에 여(呂)씨가 1백호 살았다하나 지금은 1호도 살고 있지 않다.

조선조 중엽인 300년전에 광산김씨가 들어와 살았고, 바로 이어 경주김씨 3호가 입주 현재 그 가문이 거의 자작일촌하고 있다. 옛날에는 사당(祠堂)이 있어 제사를 모시는 곳이어서 "묘동(廟洞)"이라 했으나 , 8.15해방과 더불어 마을 주민의 결의에 따라 "묘동(苗洞)"으로 표기하였다. 절골(절이 있었다 함), 깻 배미 골(천수답이어서 깨를 많이 심었다 함), 토끼너메(산토끼가 많이 넘나드는 산)등 우리말 지명이 전해 오고 있다.

신선(神仙)이 춤을 추는 선인무수(仙人舞袖)의 명당과 스님이 춤추는 형국인 불무산(佛舞山)이 있다는 풍수지리설이 전해오고 있으며, 일제 때는 마을 동쪽 바로 곁에 있는 산에서 금을 채굴하였으나 지금은 폐광되었다.

○ 특기사항

마을 앞에 느티나무 3그루(수령 약400년), 팽나무 5그루(수령 약350년)가 있어 경치가 좋을 뿐 아니라 방풍(防風)의 효과를 얻고 있다.

마을 앞 도로변에 있는 비룡(飛龍 : 일명 비룡바우) 저수지는 1933년에 완성했고 면적은 약 9천평(29,999m2)이며 묘동앞들, 궁들, 죽림들에 물을 공급하고 있다.

마을입구 휴정각 겸 노인정을 1986년에 건축하면서 재경(在京), 재광(在光)향우들과 향리주민 애향인(愛鄕人)들 감영빈외 20여명이 성금을 각출하여 비룡정(飛龍亭)이라 명명하고 현판과 표석을 세웠으며, 그 옆에는 취은처사김공유허비(醉隱處士金公遺墟碑 ; 광산 김규일 찬 - 光山 金珪馹 撰)가 있다.

○ 배출인물 :

·김경수(金炅洙) : 서울 포시콤주식회사 대표.

(* 자료제공자 : 이장 김완규)

(3) 신평(新平) : 새태 -새티

가호 (세대)			인 구(명)			본관별 성씨 (단위 :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경주 김	청송 심	기타	
8	8		17	6	11	3	2	3	

면 적(ha)			종 교(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0-이상
7	4	3		1	7		2			2	5	4	3	1

1. 주산업 및 특산물

벼, 양파

○ 마을 형성 및 지명유래

이 마을은 옛날 계금산 비탈 궁 들 가에 있던 궁평(弓坪)마을이 없어짐과 동시에 새 터를 잡아서 형성된 마을이라 하여 신평(일명, 새터-새태)이라 부른다. 신평마을 노인에 의하면 위 나무사진 일대가 지목이 대지로 되어있는 필지가 많으며 자기 집도 이 근방에서 신평마을로 집을 지어 이사 왔다고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일대가 옛 궁평마을이 있지 않나 추정해 볼 수가 있다. 궁들가에 궁평이란 마을이 있었다고 하나 풍수지리학적으로 본다면 덕산에서

옛 궁평은 주막거리였던 것으로 전해오나밝힐 자료가 없고, 신평에는 경주김씨 김정한(金正漢)이 이웃묘동에서 1790년경 입촌한 후 연안차씨, 풍천임씨, 한양조씨 등 순으로 입촌하였다.

궁들은 옛날 장수가 활을 쏘았다하여 일명 장궁(將弓)들이라 부르기도 하며, 마을 뒷 석령쪽 고개를 여시고개 마을앞 묘동쪽 고개를 계금재(鷄禽峙)라 부르는 것은 마을 북쪽 저 멀리에 범(虎)산이 있기에 풍수객이 붙여준 이름이다.

마을 서쪽 약 1Km지점, 불무산(佛舞山) 밑에 있는 김정동(金井洞 ; 일명 짐정굴, 물무초고랑)의 역사도 퍽이나 오래된 듯하나 고증할 자료가 없고 영양천씨 천상길(千相吉:1890~1966의 후손 한집이 살고 있다.

(* 자료제공자 : 이장 김완규)

(4) 목교(木橋)

가 호(세대)			인구(명)			본관별 성씨(단위 :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김해 김	밀양 박	광산 김	전주 이	함평 이	기타		
32	30	2	72	29	43	10	5	4	4	2	7		

면 적(ha)			종 교(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0-이상
31	24	7	3	20	9	4	7		8	2	10	4	30	7

1. 주 산업 및 특산물

벼, 양파, 마늘

2. 공공기관 및 건물

마을회관, 마을공동창고

○ 마을 형성 및 지명유래

마을의 형성은 이웃 덕산 마을에 속해 있던 어촌으로 김해김씨가 살았다 하며, 경주김씨 김국진(金國振)이 1900년경 입촌한이 후 전주리씨, 광산김씨 등이 입촌하였다.

이 마을은 주포간척공사 이전 바닷가 상류(上流) 건널목에 나무다리가 있어서 목교라 부른 것이 그대로 마을 이름이 되었다. 맞은 편 고랑을 병골(甁谷 :뱅골)이라 부르고, 함평읍 장년리와 경계하고 있으며, 그쪽 높은 등을 황(黃) 갯등이라 부른다.

덕산 쪽 첫 고개는 따박 솥이 우거져 있어 "땃박골재"라 부르며 그 다음 재를 길다하여 "진등재"라 부르고 진등 재 주변 큰 바위에 발자국이 있어 "바우백이"라 부른다.

신흥 쪽 마을 끝을 "청룡 끝"이라 부르는 것은 덕산 마을에서 좌청룡 우백호의 지형상 붙여준 이름인 듯 하다.

○ 특기사항

1930년대 주포간처공사가 진행됨과 동시에 저수지를 막게되고 삼거리 손불간 도로가 개설되면서 돌다리(石橋)로 변하였고, 일제 때에는 일본인이 살면서 흥업회사와 동양척식회사 창고를 지어 육로수송의 거점(據點)이 되어 이웃 해창의 퇴락(頹落)을 가져왔다.

6.25한국전쟁 때 석교가 파괴되고 회사창고가 불타 버렸으며, 수복 후 1956년에 철근콘크리트 교량1)이 놓이고 60년대에 비료 보관창고가 '70년대에 양곡 보관창고가 들어서 궁산, 죽암, 신광, 함평읍 일부 주민이 이용하고 있다.

지금 저수지는 낚시터로 연꽃, 연근(蓮根)으로 유명하며, 대로변에 바다를 상징하는 배 한척이 떠 있고 함평장승축제의 일환으로 허수아비 수 백개가 서 있다.

목교는 다리와 창고와 주막거리로 인연이 있는 곳이며, 손불면의 관문(關門)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

○ 배출인물

·김대열(金大烈) : 제24대손불면장 역임. ·김성열(金成烈) :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장

·김창헌(金昌憲) : 변호사, 지방검찰청부장검사 역임.

(* 자료제공자 : 이장 이종길)

(5) 신흥(新興) 상신흥

가호 (세대)			인구(명)			본관별 성씨 (단위 :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경주김	김해김	진주강	기 타	
14	14		27	13	14	2	2	2	8	

면 적(ha)			종 교(세대)			연령별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이상
14	10	4		10	4		3	2				8	6	8

1. 주산업 및 특산물

벼, 양파, 한우

2. 공공기관 및 건물

교회

(* 자료제공자 : 이장 강대도)

(6) 중신흥

가 호(세대)			인구 (명)			본관별 성씨(단위: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밀양박	함평노	진주강	함평이	창령조	나주정	경주정	경주김	평산신
25	25		35	15	20	6	5	4	2	2	2	2	2	2

면 적(ha)			종 교(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									
계	논	기타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 60	61-70	71-80	81-90	
22	14	8	7	14	4	2	1	1	1	2	2	10	9	7	

1. 주산업 및 특산물

벼. 양파. 한우

2. 공공기관 및 건물

마을회관

(* 자료제공자 이장 강 대 도)

(7) 하신흥

가호(세대)			인구(명)			본관별 성씨 (단위 :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나주정	함평이	김해김	밀양박	진주강	나주임	기타		
27	27		44	23	21	6	5	4	4	3	2	3		

면적(ha)			종 교(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0 이상
27	16	11	10	17				5	19	5	3	10		1

1. 주산업 및 특산물

정미소, 횟집, 해수찜

2. 공공기관 및 건물

노인회관

(* 자료제공자 이장 강대도)

○ 마을 형성 및 지명유래

이 마을은 궁산리 1구로써 상신흥, 중신흥, 하신흥으로 나누어 부르기도 하며, 1930년대 주포 간척공사가 준공되어 101정보의 농지가 조성됨으로써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하여 신흥이라 부르게 되었다.

바우산 기슭에 첫 입주자는 안성이씨 이광삼(李光三)과 함평노씨 노성복(魯成福)이 전북 에서, 진주강씨 강대웅(姜大雄)이 해보면에서 입촌하였다고 전해오고 있다.

○ 특기사항

주포 배수갑문을 한계로 석성리와, 들 가운데 배수로를 한계로 장년리와 경계하고 있으며 해수찜2)[301] 과 토산물 낙지로 유명하다.

해수찜이란 유황성분이 들어있는 돌덩이를 장작불로 군 다음 해수(海水 ; 바닷물)탕속에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그 탕 속에 들어가 땀을 내는 일이다. 산후통 신경통 피부염 타박상 등에 특효가 있다하여 부인네들과 노인네들이 주로 찾으며, 도내는 물론 타 시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고 있다.

주포해수찜(대표 강갑수), 주포해수약찜(정영기), 신흥양찜(김순옥)등이 성업중이고, 신흥회관 가든등이 들어서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2) 대전리(大田里)

손불면 소재지가 되고 있는 이(里)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저전(楮田;딱밭),대행 전역과 용흥(用興), 가작(佳作), 어전(於田) 각 일부를 합해 대행에서 大자와 저전에 田자를 따 대전리라 했다.

“큰터”3)라는 전설이 있으며, 전에 배가 들어온 “배들이 4)라는 곳이 있고, 갯물이 들어온 수문(水門: 현 대전제1교 근방)이 있었기로 통상 “수문이”라고 부른다.

2) 배를 마(전마선, 땜마등)라고 부르는 연유와 “도깨비가 도토리묵을 좋아한다”는 전설등이 있어 흥미가 있다.<해창리 석계마을 항을 볼 것>[1]

(1) 대행동(大行洞) : 댕동 : 대전2리

가호 (세대)			인 구(명)			본관별 성씨 (단위 :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나주 임	김해 김	한양 조	밀양 박	기타	
20	18	2	38	16	22	7	3	2	2	6	

면 적(ha)			종 교(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도교	기타	0-11	2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0 이상
12	8	4		7	13	4	3	4	6	4	5	9		3

1. 주산업

벼

2. 공공기관 및 건물

파출소

○ 마을 형성 및 지명유래

1700년경 수문리에서 나주임씨 명하(明夏), 수하(守夏)형제가 분가(分家)하였고, 30년 후 남원양씨 양한량(梁漢良)이 입촌하여 마을을 형성해 오다가 1850년경 전염병이 집단 발생하여 많은 사망자를 내었다고 전해온다. 이 마을은 일면 댕둥이라 부르는데 등남산 중턱(댄등:잔등)에 형성된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한문표기 과정에서 원음에 가까운 대행동(大行洞)이라 부르게 된 듯 하다.

○ 특기사항

마을 뒷산 동쪽 정상에는 일제강점기에 신사(神社)당이 있었고, 6.25수복(收復)당시에는 산 서쪽 정상에 일명 "고지"가 있어 군·경이 주둔하여 많은 일화를 남긴 곳이며, 그런 연유인 듯 마을 앞 대로변에 손불 파출소가 있다.

마을 옆에 90년초에 400평 규모의 장어양식장 대주양만(대표 임인규)이 들어서 성업중이다.

3) 전설항 "수문리 불맥이 굿" 참조

4) 저전마을 동편 냇가, 그 위에 배미(배 매는 곳)가 있다.

○ 배출인물

·임동택(林東澤) : 제 17대 손불면장 역임 ·임인규(林仁圭) : 제 22대 손불면장 역임

(* 자료제공자 : 이장 김관철)

(2) 소재(所在)

가 호(세대)			인 구(명)			본관별 성씨 (단위: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김해김	광산김	밀양박	함평이	인동장	기타
98	80	18	122	50	72	25	10	7	7	2	61

면 적(ha)			종교(세대)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60	38	22	3	11	84	16	20	15	17	20	13	17		4

1. 주산업 및 특산물

벼

2. 공공기관 및 건물

면사무소, 농협, 우체국, 소방서, 초.중학교, 교회, 면민복지회관, 보건지소

소재지

○ 마을 형성 및 지명유래

1933년 월천 방조제가 완공되어 바닷가 상류가 완전 육지로 된 지역이며 1920년 면사무소와 더불어 각 기관이 들어가고 상가가 형성되어 손불면의 중심지로써 구실을 하기 시작하여 6.25한국전쟁 후 5일 시장이 개설되고, 60년대 중학교가 설립된 후 계속 번창하고 있다.

○ 특기사항

면 중심지로써 동암선, 상산남, 하산남, 월천, 송사리선등 5개선의 차도(車道)와 어전, 북성, 용흥, 청 등 4개선의 인도(人道)를 통해 사람과 물자가 모여들고 있으며, 기관단체로는 면사무소, 경찰파출소, 우체국, 농협조합, 지도소, 공의진료소,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의용소바대, 향토예비군 중대본부, 기독교회, 천주교회, 대서소등이 있고, 교통편으로는 택시부와 손불-광주간 9회의 직행, 50여회의 완행편이 있다.

○ 배출인물

·임경남(林璟男) : 19대 손불면장, 함평농지개량조합장, 한국자원재생공사전남지사장 등 역임
·박상철(朴相喆) : 제 20대 손물면장 역임 ·김영렬(金榮烈) : 제 21대 손불면장 역임
·최동균(崔東均) : 육군대령예편, 국가안전회의 비상근위원 역임
·최병보(崔炳輔) : 국토통일원 대변인 역임, 남북대화사무국 공보관
·김희준(金熙準) : 제32회 사법고시합격, 헌법재판소 부장검사
·윤서옥(尹西玉) : 제 38회 사법고시합격, 법률구조공단 근무
·김희준 : 판사 ·윤서옥 : 변호사
·임동오 : 사학연회 이사장
·김보성(金保床) :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관리관)

(* 자료제공자 : 이장 김관철)

(3) 저전(楮田)(수문) : 대전1리

인 구(세대)			인 구(명)			본관별 성씨 (단위 :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나주임	김해김	한양조	밀양박	기타		
74	72	2	137	59	78	30	25	5	3	11		

면적(ha)			종교(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0 이상
54	41	13	7	22	45		3			11	28	45	45	5

1. 주산업 및 특산물

   벼, 양파, 마늘

2. 공공기관 및 건물

   마을회관

○ 마을 형성 및 지명유래

이 마을은 본래 전주리씨가 살았다고 전해오나 밝힐 자료가 없고, 1550년경 나주임씨 임열(林悅)이 아들 설(渫)과 함께 입향하였고, 1750년경 김해김씨 김광재(金光載)가, 1790년경 밀양박씨 박중백(朴重佰)이, 1810년경 광산김씨 김기채(金箕采)가 입촌하였다. 은곡과 저전 마을로 분류되었으나 마을이 연결되어 한마을이 되었으며 지금은 수문리 또는 저전이라 부른다. 은곡(隱谷)이 먼저 형성된 마을로 은선독서형국(慇仙讀書形局)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마을 동편에 닥나무 밭이 있었기로 동편 또는 저전(楮田)이라 부르게 되었다.

마을 옆 나주임씨 선산을 풍산(豊山) 등이라 하는데 쥐혈(鼠穴)이라서 자손이 번창하는 한편 바로 밑에 초등학교와 교회가 생겨 사람이 많이 드나들고, 학교 운동장 주변을 진(陣)밭 등이라 부르더니 6.25수복 후로 지서가 새경 군·경이 진을 치더라는 일화가 있다.

○ 특기사항

마을 앞에는 김해김씨효자여(孝子閭 : 용곡 김승필의 효자정여각으로 면암 최익현의 찬기-撰記), 마을 상층에는 지송재(遲松齋;지송 김석환의 강마지소로 후석 오준선, 영빈김두삼의 기와 석촌 윤용구 제액), 은덕재(隱德齋;나주임씨 재실로 한양조상기 찬기), 나주임씨세장비, 은곡나주임공열유허비(한양조상기 찬), 학교앞에 용파김상만선생공적비(손불교 22회 졸업생들이 문생 전덕룡 김연수 찬으로 건립)가 있으며, 6.25한국전쟁 때 임시 학교로 사용한 바 있는 월파정(月坡亭)은 80년대에 철거되었다.

마을 입구에 손불초등학교와 기독교장로회 중앙교회가 있으며 마을 건너 월명산 등산로(月明山 登山路)의 산 중턱에는 90년초에 나주임씨가 세운 재실 영모재(永慕齋)와 길성각(吉星閣) 등

5-6동의 장엄한 건물이 서 있다.

이 마을의 임씨와 김씨 두 집안에서 대대로 인물이 끊기지 않고 석학(碩學)을 배출시켜 외지(외지)에서는 두 성씨가 용호상박(龍虎相搏)하는 실태라고 전해오고 있다.

마을 양쪽에 은곡제(隱谷堤 ; 뒷들 저수지)와 저전제(楮田堤 ; 용량굴 저수지)가 있어 육답(陸畓 : 간척답이 아닌 기존농지)을 몽리하고 있으며, 김씨들이 오래 전에 건금재 밑에 "건금동천(建金洞天)"이라는 표석(表石)을 세웠으며, 그 옆에 김해김씨, 밀양박씨, 경주최씨 세장비와 김해김씨 유허비등이 즐비하다. 표석이 있는 그 안골의 배미(배를 매던 곳인 듯) 언덕바지에 98년에 천장암(天藏庵)이 들어섰다.

* 수문이 "불맥이굿" 전설항 참조

○ 배출인물

·김석환(金錫煥) : 호 지송(遲松), 성리학자 ·김석하(金錫夏) : 제 3대 손불면장 역임
·김우영(金佑永) : 제 7대와 제 11대 손불면장 역임
·김상만(金相滿) : 초등학교 교장 역임 ·김사병(金四炳) : 순천사방과리소장 역임
·임홍택(林洪澤) : 경정, 무안서장등 역임. ·김갑환(金甲煥) : 사무관, 시군과장 역임
·김두수(金斗洙) : 합자회사 제주가금처리장 대표 역임
·김경우(金敬友) : 부이사관, 농촌진흥청 총무과장 역임
·김상렬(金相洌) : 제 24대 손불면장 역임 ·전상표(全相表) : 손불단위농협장
·임채을(林采乙) : 연초제조창 과장, 담배인삼공사 부장등 역임
·임동오(林東午) : 목포대학 교수 현 사학연합회 이사장
·김준곤(金俊坤) : 효성여대 교수, 심리학박사·김종천(金鍾千) : 국방부 차관
·김양안(金亮安) : 의학박사(피부과), 순천 피부과 원장
·김현선(金鉉善) : 제38회 사법고시합격,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임홍택 : 경정 ·김희곤 : 초등학교장

(* 자료제출자 : 이장 이정두)

3) 동암리(冬岩里)

동암리는 면의 동쪽에 위치하여 예부터 손불의 낙양지지(洛陽之地)2)로 죽장리와 더불어 손꼽히는 곳이다. 이(里)의 북족에 노승봉, 월명산, 백운봉, 봉당산, 승유산, 송안산 등이 성곽처럼 겹겹으로 뻗어 이어져 서출동유수(西出東流水)의 물길(水路)을 따라 한 일자 형국으로 2km정도 길게 뻗어 있는 촌락의 형태가 특색이며, 1914년 이제를 시행하면서 손불면 복흥, 최동, 예등, 효동, 동백, 벽초, 예동 전역과 응

암, 양지, 신광면 증산, 하계 각 일부를 합쳐 동백에서 “동”자와 복암에서 “암”자를 따 “동암리”라 하였고, 대전리가 소재지 구실을 하기 전에 면 소재지 였던 곳이다.

(1) 복암(伏岩) 동암1리

가 호(세대)			인 구(명)			본관별 성씨 (단위 :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함평이	광주정	남평문	기타		
7	7		12	6	6	2	2	1	2		

면적(ha)			종 교(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7	5	2		2	5						1	7	4	

○ 마을 형성 및 지명유래

천안 전이시(全以是)가 1600년경 입촌하여 그 후손이 2백여년을 살다 선산만 남겼고, 1750년대 입촌한 함평이씨, 광주정씨 50년후에 입촌한 남평문·광산김·청주한씨 등 전성기에는 30여호가 살았다.

동암제(冬岩堤) 밑에 바위가 갈려 있어 붙여진 이름이며, 보통 모라제(砂嶺)라 부르고 “한무덤”의 전설과 금성 나득길(邏得吉), 청주 한재기(韓在機)와 그 후손이 살다가 30여년 전에 폐촌된 노승골(老僧洞) 건너편에는 90년대에 대규모 양계장(대표 이동강)이 들어섰다.

○ 특기사항

유적으로는 1기의 지석묘와 1921~1926년대의 간이학교6)의 유적지가 있으며 마을 상류 동암제(冬岩堤) 노변에는 면민 일동이 세운 <전면장김봉래불망비(前面長金鳳來不忘碑)>와 추진위원들이 세운 <전면장매정거사김병량추모비(前面長梅亭居士金炳亮追慕碑)>가 저수지를 감시하면서 마을과 손불면을 수호하는 듯 서 있다.

○ 배출인물

·이재진(李載震) : 서울평통위원, 서울시의회 부의장 역임.

(* 자료제공자 : 이장 김상길)

(2) 동백(冬柏)

가 호(세대)			인 구(명)			본관별 성씨 (단위 :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김해김	광주정	기타				
7	7		19	8	11	2	2	3				

면 적(ha)			종 교(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9	6	3		2	5	2	3		3	4		3	4	

○마을 형성 및 지명유래

1800년경 광주 정이갑(鄭履甲)이 입촌한 후 뒤따라 김해김씨, 파평윤씨, 진주강씨 하동정씨 등이 입촌하였다. 지금은 6호가 살고 있으며, 이 마을은 동백나무가 많아서 동백마을이 되었고 속칭 통골(通谷)이라 부른다.

계곡주변의 전설을 요약하면 월명산에 월명사(月明寺)와 산삼이 있어 맑은 물에서 은어(銀魚)가 살았으나 절과 스님과 산삼과 은어가 함께 없어졌고 봉당산(蓬堂山) 기슭 용문안(龍門岸)이라는 샘에는 전(鱄 : 동정호-洞定湖)에 나는 물고기로 그 모양이 아름답고 괴상하였다. 魚之美煮 冬庭之鱄)이 살았으며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한다.

갑오농민운동 때에는 운월암(雲月庵-영빈 김두삼의 강학소)이 통골의 상류에 있어 많은 선비들이 계곡 산길을 따라 드나든 곳이다.

○ 특기사항

마을앞 계곡 주변에 5백여년 된 느티나무와 팽나무가 우거져 있고 60년전 까지 백양서당(白楊精舍)7)이 있었으며, 면(面)제도가 실시된 초창기(1913~1920)의 면사무소와 주재소 자리8)가 유적지로 남아 있고, 마을 입구에 백포선생정공경모비(栢圃先生鄭公敬慕碑 ; 광산이변근 찬으로 후학들이 건립) 가 있다.

90년대에 마을앞에 소 양축장(대표 김상길)이 들어서 번창하고 있다.

○ 배출인물

·정재중(鄭在重) : 제 25회 사법고시합격, 서울지법 판사

(3) 벽초동(碧草洞)

가 호(세대)			인 구(명)			본관별 성씨 (단위: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광주정	김해김	나주정	기타			
10	10		24	12	12	3	2	2	3			

면 적(ha)			종 교(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10	7	3	3	3	4	3			6	1		2	11	1

○마을 형성 및 지명유래

1600년대에 광주정씨, 1800년대에 양성이씨, 나주나씨, 광산김씨, 김해김씨 등이 입촌하였다.

마을 앞의 우마산(牛馬山)이 와우(臥牛) 형국이라하여 푸른 풀이 있어야 한다고 마을 뒷산의 마구청, 구수골 등의 지명과 함께 풍수객이 붙여준이름이라 전한다.

○ 특기사항

600년경 정 준의 서당인 월명정사(月明精舍)를 비롯한 여러 서당이 최근까지 존속했고, 효·열 등의 인물이 끊기지 않았으며 김해김씨효열문(孝烈門 효자 김탕화 열부 밀양박씨의 실적문으로 연안 이병관이 찬장-撰狀)과 인동장씨효열각(나주나용채의 아들 만지의 처 효행실적으로 성주이백순 찬) 이 있으며, 촌전 들 가운데 유선각과 수백년 된 물버들 나무가 있고, 1987년(정묘) 8월 16일에 준공된 동암정은 경로효진 시범마을 시상금에 힘입어 주미들과 뜻 있는 인사들의 성금으로 건축하였으며, 정원에는 명(銘)이 석각(石刻)되어 있다.

<동암정 명(冬岩亭 銘)>

어디가 있더라도 잊지 말라며　타이른 보람들이 열매 맺혔고
효동의 효생심이 뿌리 내려져　뜻모아 고향땅에 정자 세웠네
그정신 경로효친 다져 가면서　대이어 얘기하고 마냥 즐기며
높푸른 노승봉이 천년 가듯이　웅장한 동암정도 유규 하오리　　글 김 연 수

○ 배출인물

·정인근(鄭仁謹) : 덕천군수 역임
·정인영(鄭仁榮) : 충의교위(충의교위)역임, 선무원종공신
·정　준(鄭　浚) : 호 추원당(추원당), 사계 문인, 진사, 효자
·김병량(金炳亮) : 손불면 제9대 면장 역임　　·김재호(金載昊) : 초등교장
·김재구(金載球) : 사무관, 시군 과장 등 역임.
·나내균(羅來均) : 손불면 제 23대 면장 역임.　　·나종문(羅鍾文) : 경감.
·김성모(金性模) : 한국스치로폴 주식회사 대표

(4) 매곡(梅谷)

가호(세대)			인 구(명)			본관별 성씨 (단위 :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광주정	김해김	나주나	기타		
9	9		18	10	8	5	3	1			

면 적(ha)			종 교(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7	5	2	2	3	4				2	4		8	4	

○ 마을 형성 및 지명유래

1510년경 삼괴동(三塊洞;삼구동)에 입향했던 고부이씨의 터는 밭으로 변하였고, 소동(小洞)이라 부르다가 광주 정인근(鄭仁謹)이 1560년경 입향 한 후 효자가 많이 배출되어 효동이라 부르는 곳에 정씨, 나씨, 이씨 등이 살고 있으며, 분유골에는 1750년경 광산 김도제(金道濟)가 입촌한 후 뒤따라 입촌한 광주정씨, 파평윤씨 등 이 살고 있다.

이 마을은 보통 부르는 분유골, 효동 삼구동(옛 예동)까지 관할하고 있으며 마을 이름에 대한 유래가 복잡하다.

양성이씨 입향조의 묘가 있다하여 분유동(墳有洞;분유골) 또는 분묘동(墳墓洞), 항아리가 묻혀있는 형국이라 하여 분매동(墳埋洞), 광산김씨 입향조가 꿈에 매화를 안아 보았다하여 매곡(梅谷)이라 부른단다

○ 특기사항

유적으로는 1기의 지석묘가 있으며, 효동 마을 입구에 효열부양성이씨효열비가(광주 정제성의 처 실적비각으로 양주 조중묵의 찬기-撰記)와 마을 앞에 광주정씨유허비(덕천군수 둔헌 정인근의 유허비로 판서 홍순향 찬), 매판선생김공기적비(광산김재복 문생이 광산김규일 찬으로 건립), 나주나씨 세적비(후손 나내균 찬)와 1972년에 건축한 비료창고, 1977년에 건축한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있으며, 90년대에 양계장(대표 김송철)이 들어섰다.

○ 배출인물

·이기성(李奇聖) : 진사

·나종천(羅鍾千) : 육군중령예편, 사단참모 등 역임

(5) 봉동(鳳洞) (복흥伏興) : 동암2리

가 호(세대)			인 구(명)			본 관 별 성씨 (단위 :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함평이	진주정	양성이			
12	12		19	7	12	10	1	1			

면 적(ha)			종교(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 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14	11	3	6	1			1	2	1	3		2	10	

○마을 형성 및 지명유래

"엎드린 고랑에서 부자가 나온다"는 전설을 갖고 있는 이 마을은 먼저 형성된 이웃 최동골(崔洞)이 큰 화재를 입은 후 잡은 터라고 하며, 1600년경 함평 이사급(李士伋)이 입촌한이 후 자작 일촌이 되어 이씨 유씨 손씨등이 살고 있다. 바로 이웃에 신광면 복흥리가 있어서 지금은 복흥이라는 명칭보다는 새가 많이 날아든다 하여 봉동으로 개면되었다.

○ 특기사항

촌후에는 1960년에 준공한 저수지 복흥제(伏興堤)가 있으며, 촌전에는 효열부경주최씨기적비(함평 모찬원 찬)가 있다.

(6) 초동(草洞)

가호(세대)			인구(명)			본관별 성씨 (단위: 명)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함평이	강릉유	기타		
5	5		11	6	5	3	1	1		

면적(ha)			종 교(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3	2	1	2	1	2	2			2			2	5	

1. 주산물

벼,보리

○마을 형성 및 지명유래

초동은 본래 최동(崔洞)으로 최씨의 터라 하나 밝힐 자료가 없고 한때 온 마 을이 불타버렸다가 다시 일어난 마을 이라고 전해온다

석계촌(石溪村) 맞은편에 있었던 하계(荷溪)마을과 1630년경 나주 나돈소(羅敦素)가 입향했던 중산 (中山: 중뫼)과 예등(쑥등)까지를 관할 하고 있다.

1840년경 강흥 유현원(劉鉉源)이 아들 병세(秉歲)와 함께 입촌하여 후손이 번창하였고, 지금은 중뫼와 초동에 유씨, 이씨, 박씨, 최씨, 정(丁)씨 등이 살고 있다.

○ 특기사항

신광면과의 경계지점에 주막거리로 속칭 "쑥댕이"라 부르는 예등 마을이 오래 전부터 있었던듯 하나다 1980년데에 폐촌이 되었다가 90년대에 그 앞 동암평이 비닐 하우스단지가 되어있

다.

쑥댕이와 삼괴동 주변에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이 거주하면서 신광, 손불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고, 그들의 수탈(收奪) 정책에 신변의 위협을 느껴 동일에 주재소(駐在所)를 유치했었다 한다.

마을 입구에 취죽 함평이공재영공적비(영성 정현대 찬)가 있다.

4) 북성리(北成里)

면소재지에서 볼 때 북쪽에 위치해 있고 마을을 에워싸고 있는 산이 마치 성(城) 같다하여 복성리라 했다고 하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손불면 사기(沙器), 홍북(洪北), 차경(且京) 전역과 신성(申成) 일부를 묶어 홍복의 北자와 신성의 成자를 따 북성리라 했다.

왕건이 고려를 개국하기 전 태봉국의 장군 시절에 인근 군유산에서 군사를 조련하여 덕진포에서 견훤의 군사를 대파했다는 일화가 있고, 양재리에서 시작한 고려 청자기술이 이곳 북성리에서 분청자 제작기술로 모두어졌다고 전해오며 사기소 마을의 분청자는 함평 특산물에 끼었었다.

북성리 입구 대로변에 <효열부 정송심씨비>와 <밀양박씨 세덕비>가 있다.

(1) 사기소(砂器→沙器所→沙己) : 사구시

가호(세대)			인구(명)			본관별 성씨 (단위 :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함평이	진주강	한양조	김해김	밀양박	기타		
15	15		34	17	17	5	2	1	1	1	5		

면적(ha)			종 교(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이상	
15	8	7	7		8			3	6	15		6	4		

1. 주산물 및 특산물

   벼, 양파, 마늘

2. 공공기관 및 건물

   마을회관 1동

○ 마을 형성 및 지명유래

사기소 마을 정착에 대해 연대가 확실한 것을 간추리면 1533년에 김해김씨 수검(守儉)이 강원도 원주에서 이거 하였고, 1583년에 전주리씨 하손(夏孫), 1560년경에 한양조씨 맹생(孟生)이, 그후 1683년에는 진주강시 주태(柱台)가 이주하였으며 이어 달성배씨, 공(孔)씨, 밀양박씨 등이 들어와 살았다. 사기소 마을은 처음에 "사기소"라고 한문표기(表記)를 했는데 그것은 조선조 분청자기를 생산했기 때문이다 대략 임진란을 전후하여 폐요된 분청자기 도요지는 마을 북쪽의 산록(지금은 밭)에 있었다.

분청사기 도요지에서 서쪽으로 500m 지점인 사기봉(沙奇峰 또는 彌勒峰, 해발 357m) 등산 진입로에 토기의 잔편이 수없이 뒹구는 것으로 보아 이곳은 토기를 구웠던 곳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기도 한다.

1975년부터 마을 이름을 한자로 "沙奇所"라 표기한다. 그것은 기이한 것이 네가지 있다는 뜻이다. 그 네 가지란 군유산 무제단, 월명산 7대봉, 장군바위, 미륵암 석불이다. 주위 지명에 대한 전설로는 왜놈에게 항복을 받았다는 이항재(夷降嶺), 장군바위9), 구시골, 임진왜란때 조맹생등이 피란하면서 베틀을 놓고 아녀자들에게 베를 짜게 했다는 조피곡(趙避谷)의 배틀바위 등이 있다.

○ 특기사항

마을 주위에 있는 유적으로는 군유산의 무제단, 신라 때 창건했다가 폐절된 옥천사(玉泉寺) 미륵암의 터가 남아있고, 사기봉(沙奇峰) 상봉의 천연 암벽에 새긴 마애불10), 조선조 분청자 도요지, 수덕재(修德齋;한양조시 재실로 후손 병힐의 명-銘)가 있다. 1988년 마을 상류에 북성제를 축조하여 연흥사 가는 길의 경관을 돋구고 있다.

(2) 차경동(且京洞) : 채경동

가 호(세대)			인 구(명)			본관별 성씨(단위: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밀양박	함평이	진주강	죽산안	달성배	평택임	기타	
23	23		40	17	23	16	1	1	1	1	1	2	

면 적(ha)			종 교(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 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30	19	11	5	7	11		1		1	2	2	12	21	1

1. 주산업 및 특산물

벼, 양파, 복분자

2. 공공기관 및 건물

마을회관 1동

○ 마을 형성 및 지명유래

1963년경 밀양 박수만이 정착한 후 자작일촌이 되어 그의 후손과 강 · 배 ·안 · 임 · 이씨 등이 살고 있다.

군유산 서쪽 산밑의 옥녀채즐(玉女釵櫛 : 옥녀가 머리 빗는) 형국에 형성된 마을이라 하여 채경동(釵鏡洞)이라 부르다가 군유산에서 어떤 왕이 놀다 간 후 “여기가 또한 서울이 아니냐?”는 뜻에서 차경이라 부르게 되었단다.

○ 특기사항

이 마을은 집집마다 전래(傳來)의 돌담과 앵두나무가 특색이다.

(3) 승선동(昇仙洞) : 신선동

가 호(세대)			인 구(명)			본관별 성씨 (단위: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밀양박	달성배	인동장	김해김	진주강		
15	15		21	7	14	8	3	1	2	1		

면 적(ha)			종 교(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 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15	8	7	5	7	3				4		6		11	

1. 주산업 및 : 특산물

벼, 양파, 복분자

2. 공공기관 및 건물

마을회관

○ 마을 형성 및 지명유래

차경동에 정착한 박씨의 종항간 박선만이 1683년경 입촌한 이후 자작일촌이 되어 지금은 박씨, 장·백·정·김·공씨 등이 살고 있다.

차경동 아랫마을에 옛날 효녀(孝女)가 있어 아버지의 병환을 낫게 해달라고 뒷산에 올라가 지성으로 기도를 올리던 중 그 효심에 감동한 신선이 나타나 약을 가르쳐 주고 하늘로 올라갸T다 하여 신선동(神仙洞) 또는 승선동(昇仙洞)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그 후 앞 냇가에 다리를 놓고 이름을 “방선교(訪仙橋)”라 하였으니 이 마을을 방문할려면 그 다리를 건너야 하기 때문이며, 냇 중간에 막은 둑을 또한 “승선보(昇仙洑)”라 한다.

○ 특기사항

이 마을에서는 충·효열과 학자가 많이 배출되었으니 삼강문(三綱門 : 충신 밀양 박이상 의현 의선 효자 동근 권문 준엽 효부천안전씨 열부 김해김씨의 문으로 이변관 찬기), 갈수정(葛叟亭;박준엽의 수장지소). 1968년에 축조한 저수지가 있어 주변 사석답(사석답)을 동리하고 있다.

○ 배출인물

·박왕규(朴王圭) : 안전기획부 과장

5) 산남리(山南里)

산남은 손불면 11개리중 제일 큰 행정상 이명으로 16개 자연마을 600여세대와 광활한 간척지를 포용하는 곳으로 한때는 산남과 용산으로, 상산남과 하산남으로 구분되어 대동면과 비교한 바도 있었고 지금은 6구로 분구되었다.

월천 방조제가 되기 이전에는 해안선 주변 촌락으로 지곡, 기서, 산직, 가작, 수연, 조내, 감남, 의식등이 있었으며 여타는 50년 전후에 생긴 마을이다. 간척지 넓은 농장에서 소출이 늘고 고령토와 점토 등 지하자원이 있어 각광을 받고 있다.

(1) 용흥(龍興 : 지사리, 동편) 산남3리

가 호(세대)			인 구(명)			본관별 성씨(단위: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광산김	기타			
32	31	1	47	19	28	31	1			

면 적(ha)			종 교(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 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21	13	8			32					4	5	18	17	3

1.주산물 및 특산물

벼, 양파, 마늘

2.공공기관 및 건물

마을회관,시정

○ 마을 형성 및 지명유래

이 마을은 정·박·이씨등이 살았다 하나 밝힐 자료가 없고 1592년 임진란때 강원도 횡성에 살던 의령 남응련(南應連)이 피난 정착하여 100여년 후 우여곡절 끝에 그 후손은 서편(西便)으로 옮겨 살고 대동 덕산에서 이거 한 광산 김세옥(金世沃 : 1723~1787)의 후손이 자작일촌이 되어 30여호가 살고 있다. 지초(芝草;靈草)가 돋아나는 어룡산(魚龍山) 고랑 밑에 형성된 마을이라 하여 지곡(芝谷;지슬→지사리)이라 부르다가 지금은 용흥이라 부른다.

수철동으로 통하는 산을 듬산재(범산 : 호암산), 그 재를 듬산재(수철동재 : 지사리제), 그 밑 고랑을 갱이 라 부르며, 절(개운사:開雲寺)터가 있고 그 고랑 중앙에 1968년에 축조한 용흥제(龍興堤)가 있어 육답을 몽리하고 있다.

○ 특기사항

촌후에 초연재(초연재 : 기기순의 강미지소로 파평 윤용병의 시와 양주 조중묵의 찬장과 완산 이선호 제액), 마을 앞에 유선각과 광산김씨세적비와 효열비각(광산 김기원의 처 함평노씨효열비각으로 파평 윤태홍 찬기-撰記), 국헌동재욱추모비(김재욱의 문생들이 전주이학룡의 찬명으로 세움), 앞산 비산골(飛山)에 양사재(兩思齋; 사우 김명옥과 사공 김세옥의 재실로 족후 손태석 찬기)이 있다.

용흥마을 앞에는 500년된 느티나무와 물버들나무 및 큰 나무들이 마을 앞을 지키고 있어 마을이 더욱 아름답고 아늑하게 느껴지는 마을이다.

○ 배출인물

·김기순(金箕舜) : 호 초연재(초연재) 성리학자
·김기현(金炁鉉) : 광주삼성병원 행정원장 ·김완중(金完重) : 제24회 외무고등고시합격
·김환수(金煥洙) : 제31회 사법고시합격, 사법연수원 교수,
·김민일(金敏一) : 서울 초등학교 교장 ·김송욱(金松旭) : 나주김치과 원장
·김상수(金尙洙) : 서울은행 본첨 차장
·김형태(金亨泰) :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 근무
·김대권 : 서울경찰청 총경 ·김완중 : 외교통산부 과장

(2) 기서(己西) : 서편

가 호(세대)			인 구(명)			본관별 성씨(단위 :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이령남	나주임	강릉유			
8	8		19	9	10	6	1	1			

면 적(ha)			종 교(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6	4	2			8					4	1	14		

1. 주산업 및 특산물

벼, 양, 마늘

○ 마을 형성 및 지명유래

의령남씨들의 자작촌으로 한때 전염병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고 효·열과 인물이 배출되었으나 그들의 선산인 연화도수(蓮花濤水)11)의 명당에 일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비석을 세운 뒤에 씨족이 화를 입어 여러 곳으로 흩어졌다는 일화가 있다.

지곡마을에 입향했던 의령남씨 들이 자기들의 서편(西便)마을이라 하여 기서라 이름한 듯하다.

○ 특기사항

마을입구에 효열각(효자 남창회와 열부나주임씨 실적각으로 양주 조중묵 찬기-撰記)이 있으며, 마을입구 대로변에 <의령남씨세장비>와 1987년 추진위원들이 세운 "후곡 남덕우면장 불망비"(광산 김연수 찬서-撰書)가 대로변에 서 있다.

○ 배출인물

·신완식(申完植) : 제6대 손불면장 역임

·남덕우(南德祐) : 제11대, 제15대, 제16대 손불면장 역임

(3) 산직(山直) : 산정몰

가 호(세대)			인 구(명)			본관별 성씨 (단위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광산김	김해김	밀양박	함평이	한양조			
18	18		23	6	17	9	3	2	2	2			

면 적(ha)			종 교(세대)			연령대별 인 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11	7	4		2	16				1	3	4	15		

1. 주산업 및 특산물

벼, 양파, 마늘

○ 마을 형성 및 지명유래

산세가 수려하고 물이 맑아 좋은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는 이 마을은 지곡 앞산 정상에 있다 하여 속칭 산정몰(山頂村)이라 한 듯 하나 일설에는 산을 지킨다는 뜻에서 산직(山直)이라 했다 한다. 현재 광산김씨 4호, 김해김씨 3호, 배, 이, 조, 윤, 최씨 등 18호가 살고 있다.

○ 배출인물

·김성모(金誠模) : 현대중공업 이사

·김태수 : 서울 방배초등학교장

(4) 의식동(衣食洞) : 옷밥골, 옻밭

가 호(세대)			인 구(명)			본관별 성씨(단위 :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김해김	한양조	광산김		
8	8		13	6	7	3	3	2		

면 적(ha)			종교(세대)			연령대별 인 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1	71-80	80 이상
5	3	2			8				2	4	2	2	3	

1.주산업 및 특산물

벼, 마늘, 양파

○ 마을 형성 및 지명유래

이 마을은 부(夫)씨가 터를 잡았다하나 부씨는 없고 김·조·최씨 등 8호 안팎이 살고 있다.

이 마을 이름은 옷바위골→옷바우골→옷밥골로 변형되어 속칭 옷밥골로서 한문 표기 과정에서 의식동이 되었는데 옛날 이 마을 곳곳에 옻나무가 심어져 옻밭(칠전-漆田)을 이루었고 여기서 생산되는 옻은 나라에 바쳐졌다.

오늘의 지명 의식동과는 크게 다르다.

○ 특기사항

90년에 마을 앞에 죽장과 석창을 연결하는 포장도로가 생기면서 4거리가 되었으며, 양계장(대표 김영구)이 들어서고, 대로변에 <효자요헌무안박공용재기적비>가 서 있다.

(5) 수연봉(水蓮峰) 산남4리

가 호(세대)			인 구(명)			본관별 성씨(단위 : 세대)						
계	자가	계	계	남	여	김해김	창원황	밀양박	나주임	인동장	여산송	기타
29	29		67	32	35	7	3	2	2	2	2	11

면 적(ha)			종 교(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41	22	19	5	3	21	2	5	8	7	5	6	17	15	2

1. 주산업 및 특산물

벼, 양파, 보리

2. 공공기관 및 건물

마을회관, 시정

○ 마을 형성 및 지명유래

1933년 손불 간척지가 조성됨에 따라 송씨, 이씨, 김씨가 입촌한 후 계속 번창하고 있다.

연화도수의 명당자리가 있는 수연봉 밑에 형성 된 마을로 연꽃의 영험인 듯 마을 샘물이 항상 넘쳐흐르고, 수재(秀才)들이 태어 나고 있다.

○ 특기사항

유적으로 주정재(主靜齋;천안전씨 재실로 함평노민표 찬으로 유허비)가 있다.

○ 배출인물

·김상요(金相堯) : 손불농협장, 중대장, 통일주최국민회의 대의원 역임
·김남곤(金南坤) : 안전기획부 근무
·남성우(南晟佑) : kbs방송국 편성본부장
·이기권(李基權) : 제25회 행정고시합격, 노동부근로기준국장
·남선우(南宣祐) : 제33회 기술고시 합격. 동부건설주식회사 본사 기술국장.

(6)가작 (佳作) 가작(加作)

가 호			인구(명)			본관별 성씨 (단위: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달성서	김해김	나주임	기타		
15	15		41	19	22	4	2	2	7		

면 적(ha)			종 교(세대)			연령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 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20	12	8	1	10	4	7	5	3	6	2	4	8	2	4

1. 주산업 및 특산물

벼, 양파, 보리

○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옛날 자작나무 고향인데 자작 골이 가작 골로 변형되어 “佳作”이라 표기되어 호칭하고 있다. 이웃 청동마을 윗 고랑이 옛날에 쇠를 녹여서 무기를 만들었던 풀무고랑이었는데 새날재와 함께 풀무골에 숯을 공급한듯하며 자작나무가 성장하던 터라서인지 마을이 위아래로 옮겨져야 성한다는 일화가 있다. 한편 이마을을 가작(加作)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의령남씨가 1500년경에 이곳 손불에 정착하였는데 의령 남씨 묘비에 “墓加作洞亥坐雙封이란 묘비문이 있는 것을 보면 ”加作“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고 본다. 한편 마을 뒷산에서 흰 고령토가 나와 전국 각처의 도자기 공장에 공급되기도 한다.

○ 배출인물

김일남(金一南) 목포제일교회목사

가 호(세대)			인 구(명)			본관별 성씨(단위 :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천안전	광산김	함평이	한양조	기타	
39	36	3	87	43	44	29	4	2	2	2	

(7) 감남(甘南) : 감남구-(감남기) 산남1리

면 적(ha)			종 교(세대)			연령대별 인구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48	37	11		30	9	3	6	6	8	13	8	19	15	9

○ 마을 형성 및 지명유래

본래 함평이씨터라고 전해오나 지금은 모두 떠나고 나주 문평 남산에서 동암리 모라재에 입향했던 천안전씨 후손인 전만상(全萬祥)이 1700년경에 입촌하여 자작일촌이 되어 그 집안에서 충·효·열이 많이 배출되었다

개감등 아랫마을로 감나무가 많이 있는 마을이라 하여 감남구-감남기라 부르며 감산(甘南)으로 표기하고 있다.

○ 특기사항

유적으로 삼강문(三綱門;절의 천안전창권 효자 전석환 열부반남박씨의 문으로 울산김도중찬기-撰記)와 천안전씨유허비(주정재 전만상의 유허비로 함평노민표 찬기)가 있으며, 90년대 마을 상류 벌판에 2곳에 양돈장(대표 전평근, 안창수)이 생겨 성업을 하고 있다.

○ 배출인물

·전찬국(全贊國) : 제2대, 제4대 손불면장 역임.
·전만원(全萬源) : 미국 국가공인계리사.
·박종삼(朴鍾三) : 교회 목사
·전덕룡(全德龍) : 씨알의 소리 편집국장역임. 개운중학교 교장
·전명남(全明南) : 함평고등학교 이사장 역임. 영화학교 교장

(8) 교감(교甘)

가 호(세대)			인 구(명)			본관별 성씨 (단위 :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천안전	광산김	밀양박	기타		
15	12	3	25	11	14	3	3	3	6		

면적(ha)			종 교(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17	13	4		11	4					2	3	14	5	1

○ 마을 형성 및 지명유래

감남 바로 옆 마을로 일찍이 기독교가 전래되어 약 80년 전에 산남교회가 설립된 후 호구수도 차츰 늘어나 교촌과 감남 사이에 형성된 새마을을 교감이라 부르며 전씨, 임(林)씨, 박·배·오·최·우(禹)씨, 김해김·전주리·광주이·영성정·광산김씨 등이 살고 있다.

(9) 조내(朝來-鳥來-鳥內) : 새 낮 재-새날재

가 호(세대)			인구 (명)			본 관 별 성씨(단위: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천안전	경주김	기타	
9	9		25	14	11	4	3	2	

면 적(ha)			종 교(세대)			연령대병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0 이상
9	7	2	2	3	4	1	2	2	6	3	3	3	4	1

1. 주산업 및 특산물

벼, 양파, 마늘, 보리

○ 마을 형성 및 지명유래

마을은 오래 전부터 형성된 듯 하나 고증할 자료가 없고 본래 경주 김씨의 터라 전해오는 이 마을에 지금은 김씨3호, 전주리·천안전4·진주정씨 등 9호가 살고 있다.

감남 마을의 동쪽에 위치한 이 마을은 감남 마을이라하여 새 낮 재라는 일설이 있고, 또한 옛날에 감나무와 대나무 숲이 우거져 새가 많이 넘나들어 뒷 재를 조령(鳥嶺)이라 부른 것이 마을 이름도 새날재라 부르고 조내(鳥內) 새내골(1914년 행정구역 개편이전 표기)이라 부르기도 한다.

○ 특기사항

감남으로 이어지는 산 등어리에 예부터 산골[302]과 감이 생산되어 개감동(介甘洞)이라 부르며 바다가 퇴적되기 전(약 3백년 전)에는 마을 앞까지 배가 들어와 지금 노거수(감나무)에 배를 매었고, 감나무를 베어 숯을 구워 이웃 佛舞 골에 공급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 배출인물

·박홍식(朴洪植) : 제12대 손불면장 역임

·박기형(朴基炯) : 총무처 서기관, 공무원연수원 부장역임

(10) 교촌(敎村) 산남2리

가 호(세대)			인 구(명)			본관별 성씨(단위: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전주이	광산김	이천서	함평이	밀양박	기타	
30	28	2	66	32	34	4	4	3	2	2	15	

면 적(ha)			종 교(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27	19	8		22	8	5	5	7	6	10	9	10	6	8

1. 주산업 및 특산물

벼, 마늘, 양파, 보리

2. 공공기관 및 건물

마을회관, 시정, 교회, 민예학당(구 손불남초교)

○ 마을 형성 및 지명유래

1933년 삼양사의 간척 공사가 완공된 후에 형성된 마을로 감남교회가 성하여 신도들이 많아 이곳을 교촌이라 한 듯하다.

김해김씨, 해주김씨, 전주이씨, 배씨, 조(趙)씨, 조(曺)씨, 박씨, 서씨, 송씨, 윤씨, 최씨 등이 살고 있다.

○ 배출인물

·정팔홍(鄭八洪) : 교회 목사 ·김대자(金大者) : 교회 목사
·이성천(李誠天) : 해군대령 ·최창환 : 목사
·최천후 : 목사 ·이동남 : 목사
·이동석 : 목사 ·배내경 : 목사
·박종일 : 목사 ·이재근 : 목사

(11) 대성동(大成洞)

가 호(세대)			인 구(명)			본관별 성씨(단위: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나주임	상산김	남평문	기타		
26	26		45	18	27	5	3	2	16		

면적(ha)			종 교(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26	18	8	1	18	7	1				1	6	18	15	4

1. 주산업 및 특산물
   벼, 양파, 마늘, 보리
2. 공공기관 및 건물
   마을회관, 시정
3, 특이한 민속제향과 놀이

시름장(음력 7월 25일)

○마을 형성 및 지명유래

처음 삼양사 간척공사가 완료된 후 간척공사시 쓰던 한밭집(식당)으로 한 가정이 이사온 후 차차 호구수가 늘어 마을이 형성되어 가는 중 어느 날 마을 앞을 지나는 스님이 주민에게 이 마을은 앞으로 크게 될 것이라 하여 큰대(大) 이룰 성(成)을 써서 대성이라는 마을 명을 지어준 후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마을 옆에 1967년 손불남초등학교 설립되었다가 99년에 소규모학교로 폐교되었다.

대성교회가 들어서고, 1969년에 정부양곡 보관창고와 공판장이 개설되었으며, 70년대에는 해태양식업이 성행하다가 지금은 사라졌으며, 나주임씨, 경주김씨, 남평문, 전주리·광주이·김해김·광산김·영성정·진주정·평산신·진주하씨, 서·전·배·심·강·안씨 등이 살고 있다.

○ 배출인물

·김종해(金鍾海) : 경감, 장흥경찰서과장

(12) 내감(內甘) ; 안 감남기 감남5리

가 호(세대)			인 구(명)			본관별 성씨(단위 :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나주임	전주이	밀양박	압해정	광산김	기타	
18	18		35	19	16	3	2	1	1	1	10	

면 적(ha)			종교(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0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20	15	4		10	8	8			2		6	17	2	

1. 주산업 및 특산물

벼, 보리, 마늘, 양파

2. 공공기관 및 건물

시정, 대성교회

내감

○ 마을 형성 및 지명유래

약 410년 전 임진왜란 후 입주가 시작되었는데 함평이씨가 입주하여 이웃 감남으로 혼인하여 떠나고, 나주임씨, 박·배·최·우씨, 전주리·광주이·압해정·김해김·광산김씨 등이 살고 있다. 감남을 떠난 이씨가 이곳 마을을 잊을 수가 없어 "안감남기"라 불렀다고 한다.

○ 특기사항

마을 앞에 마을 공동용품을 보관 관리하고 있다.

○ 배출인물

· 이종삼(李鍾三) : 제13대, 제18대 손불면장 역임

(13) 강석(剛石) ; 어장밑

가 호(세대)			인 구(명)			본관별 성씨(단위 :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전주이	김해김	밀양박	함평이	광산김	기타
19	19		40	18	22	5	3	3	2	2	4

면 적(ha)			종 교(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령)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24	17	7		19			4		4	4	6	10	6	6

1. 주산업 및 특산물

벼, 양파, 마늘, 보리

2. 공공기관 및 건물

농기계보관창고

○ 마을 형성 및 지명유래

강석은 해안을 따라 뻗어 있는 산 등어리에 점박이처럼 몇호가 산재하던 지대가 간척지 개발로 인해 이주민들의 입주로 형성된 마을이다.

간척공사 때 마을 앞 석산을 떨어냈다하여 속칭 “어장 밑”이라 불렀는데 촌명 개정시 강석(剛石)이라 호칭했다. 촌향의 건전(健全)을 기원하는 뜻에서 주민의 심건(心健)을 강(剛)으로 하고, 체건(體健)을 석(石)으로 하여 강석(剛石)이라 했다.

○ 특기사항

주변 간척지에서 파내는 점토[303]의 중심부로 김모씨가 광권(鑛權)을 갖고 있다.

1972년에 “농지개량조합 손불출장소(92년 폐소)”가 설립되었으며 마을앞에 정자를 지어 “강석정(剛石亭)”이라 현판하고 9개 기둥에 주련(柱聯)[304]을 붙인 것이 특색이었으나 도로확장으로 90년대에 마을 뒤편으로 옮겼다.

농사철에는 수로원(水路院)과 농부들이 정자에서 한데 어울리니 주변의 주막(酒幕)이 흥성됐다.

(14) 부풍(富豊) : 북풍받이

가호(세대)			인구(명)			본관별 성씨(단위 :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김해김	진주강	이천서	나주임	밀양박	함평이	기타			
24	24		43	21	22	3	3	3	2	2	1	10			

면적(ha)			종 교(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27	20	7		7	17	3		8			2	15	13	2

1. 주산업 및 특산물

벼, 양파, 보리, 마늘

303) 점토(粘土) : 장석(長石)을 품고 있는 암석(巖石)의 분해로 생긴 토양. 도자기 재료

304) 목각((木刻)주련 : 기둥에 붙이는 시(詩)의 연귀(聯句). 1973년 이종선(李鍾善) 작. 유천 임유택(裕川 林裕澤) 세움.

2. 공공기관 및 건물

마을회관, 시정

○ 마을 형성 및 지명유래:

마을의 위치가 북풍이 와 닿는 곳이라 하여 속칭 '북풍받이'라 부른다.

갈마음수(渴馬飮水)의 명당 터가 있는 이 마을에 목마른 말에 물을 주려는 듯 마을 어느 곳이든지 맑고 깨끗한 수맥이 흐르고 있어 "샘꾸미" 또는 "갈마동"이라 부르기도 했으며 (1789년 호구 총수 지명에 渴馬洞으로 표기됨) 북풍(北風)이라는 어원에서 차고 냉엄한 인상을 씻기 위해 부풍(富豊)이라 부르기로 했다 한다.

○ 특기사항

80년대에 장어를 양식하는 서남양만장(대표 김만성-정효동)에 이어 90년대에 해주양만장(대표 최연고)이 성업을 이루고 있다.

○ 배출인물

·백영규(白永圭) : 교회 목사
·김만성(金萬成) : 손불단협장,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역임.
·김은영(金銀永) : DY건설(주) 대표이사, 재경함평향우회장

(15) 유록(柳綠) : 모래철, 산남6리

가 호(세대)			인 구(명)			본관별 성씨 (단위: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인동장	함평이	나주임	기타	
26	26		46	20	26	4	2	2	18	

면 적(ha)			종교(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39	31	8	4	6	16		1	3		3	3	26	8	2

1. 주산업 및 특산물

벼, 양파, 마늘, 보리

2. 공공기관 및 건물

마을회관, 시정

○ 마을 형성 및 지명유래

수양버들이 휘늘어져 버든(버드나무골-버드실-버든)골이었으나 속칭 모래촌, 모래철이라 부르는 이 마을은 사기촌, 갱변이라고도 했으며, 유록(柳綠)이라 호칭한다.

옛날 바닷가 상류라서 모래가 많이 밀려온 곳이며 월천저수지로는 120만여평의 간척답을 몽리할 수 없어 1960년경 유록 상류에 저수지 산남제(山南堤)를 막았다.

○ 특기사항

90년대에 쌀로만 만드는 발효주 "함평천지토속주"(대표 임종환)가 개발되고, 마을상류에 버든양돈장(대표 장종남)이 있다.

(16) 청동(靑銅)

가 호(세대)			인 구			본관별 성씨(단위 :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인동장	나주나	광산김	김해김	함평이	기타	
15	15		39	17	22	3	2	1	1	1	7	

면적(ha)			종 교(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 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21	17	4	4	8	3	2	4	3	2	3	2	17	5	1

1. 주산업 및 특산물

벼, 양파, 보리

○ 마을형성 및 지명유래

마을 윗고랑이 옛날에 쇠를 녹여서 무기와 도구를 만들었던 불무(풀무) 고랑이었는데 불무에서 구리쇠가 있어야 흥한다는 뜻에서 "청동"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한때 불무의 이름을 씻으려고 청사초롱을 뜻하는 청등(靑燈)이라 개칭했다가 마을에 피해가 있어 다시 "청동"으로 부르게 되었다는 일화가 있으며 속칭은 청등머리이다.

○ 특기사항

불무의 전설은 묻혀버리고 간척지가 생긴 후 마을이 인동장씨, 광산김씨, 김해김씨, 나주나씨 등이 살고 있다.

농사철의 휴식처로 1947년에 건축한 마을앞 목조건물 인수정(仁壽亭)을 도로확장으로 인하여 최병환 등 유지들의 성금으로 98년에 현 위치로 옮기면서 철근조로 하였고, 헌성록을 새겨 표석을 세웠다.

1789년 호구 총수의 지명 수철(水鐵) 부락과 1914년 행정구역개편 때의 불무(佛舞)부락의

지명이 바로 청동의 옛 지명일 것으로 보고 있다.

6) 석창리(石倉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옛날 조세창(漕稅倉)이 있던 해창(海倉)과 석계 전역과 조내 일부를 합해 석계의 石자와 해창의 倉자를 따 석창리라 하였다.

(1) 석계(石溪) : 석창1리

가 호(세대)			인구(명)			본관별 성씨(단위: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경주최	김해김	죽산안	기타	
38	38		43	18	25	30	3	3	2	

면적(ha)			종 교(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47	36	11		7	31				3	3	8	10	16	3

석계

1. 주산업 및 특산물
   벼, 양파, 석화, 낙지
2. 공공기관 및 건물
   마을회관, 시정, 교회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돈배"를 얻은 마씨의 터라고 전해오는 이 마을에는 마(馬)씨는 살지 않고 경주 최만희(崔萬熙 : 1668~ ?)가 1690년경에 입촌하여 자작일촌이 되었고, 백년 전에 죽산 안숙환(安淑煥)과 경주 김학장(金學章)이 입촌하여 살고 있다.

함평읍 석성리 석두를 "돌머리"라 하고,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이는 이 마을을 돌 꼬리(돌고지)라 부르다가 산맥의 흐름을 볼 때, 군유산과 두류봉(頭流峰)으로 이어쳐 이 마을 돌 꼬리로 유유히 뻗어나가 바다에 빠져버리는 듯한 시냇물 같은 형국이라 하여 석계(石溪)라 부른다고 전해온다.

o 특기사항

돌 꼬리부분(바닷가)에 전마꼴(전마골:錢馬谷)이 있다. 옛날에 어부(漁夫)가 고기를 잡아오면 도깨비가 가져가곤 함으로 궁리 끝에 도토리로 묵을 만들어 도깨비에게 정성껏 제사를 올렸더니 그 정성에 보답하여 돈배(錢馬)17)를 끌어다 주어 부자(富者)가 되었었다는 전설이 있는 이 마을은 지금도 손불면에서 손꼽히는 부촌이다.

o 배출인물

·최병술(崔炳述) : 제8대 손불면장 역임 ·최덕균(崔德均) : 손불면 단위 농협장 역임.
·최팔균(崔八均) : 삼양사 손불주재간사, 국민회의 제 18지구당 부위원장 역임

(2) 농암(農岩)

가호(세대)			인구(명)			본관별 성씨(단위 :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경주최	김해김	죽산안	기타	
9	7	2	15	7	8	3	3	2	1	

면적(ha)			종교(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9	6	3			9						2	1	7	5

1. 주산업 및 특산물

벼, 석화, 낙지, 바지락

2. 공공기관 및 건물

시정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1933년 삼양사 간척공사 후에 서계 옆에 생긴 마을로 농토주변에 바위가 깔려 있는 마을이라 하여 농암(農岩)이라 부른 듯 하다. 최씨, 김·안·이·노·조·송·홍씨 등이 살고 있다.

(3) 대덕(大德) : 석창3리

가호(세대)			인구(명)			본관별 성씨(단위 :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경주최	김해김	밀양박	함평이	기타	
32	32		66	26	40	11	5	2	2	12	

면적(ha)			종교(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49	35	14	4	16	12		11	7	10	4	15	10	6	3

1. 주산업 및 특산물

벼, 양파, 마늘

2. 공공기관 및 건물

마을회관, 시정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1933년 삼양사 간척공사 후에 형성된 서계 댄등(잔등)마을로 대덕(大德)이라 표기하였으며, 마을 남쪽으로 함평만을 끼고 있어 주민 일부가 굴양식 등 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외 소득을 올리고 있다.

최씨, 김씨, 정(丁,鄭)·안·이·서·신(申)·노(盧)·박·조(曺)·배·장·채·송·홍씨 등이 살고 있다.

o 특기사항

90년대 포장도로가 생기면서 도로변으로 마을이 뻗어가고 있으며, 80년대에 양곡보관창고가 건립되었고, 대로변에 경주최씨세장비(陰記;후손 최병용 찬)와 경주최공팔균유적비(함평 이용헌 찬)가 있다.

o 배출인물

·홍성욱(洪成旭) : 서울 대성식품 대표.

(4) 해안(蟹眼)

가호(세대)			인구(명)			본관별 성씨(단위: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천안전	함평이	김해김	한양조	기타	
17	17		41	14	27	9	3	2	2	1	

면적(ha)			종 교(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21	16	5		15	2	2	3	2	4	4	2	8	13	3

1. 주 산업 및 특산물

벼, 양파

2. 공공기관 및 건물

시정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1933년 삼양사 간척공사 후에 형성된 마을로 게눈 형국이라 하여 속칭 기눈골(기누꼴)이라 부르며, 전(全)씨, 김·이·조·장씨 등이 살고 있다.

o 특기사항

1986년 마을 옆의 밭을 논으로 바꾸다가 주기지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회(灰)로 자져 만든 굴을 발견한 바 있는데 이로 미루어 본다면 연구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옛날에 마을이 형성되어 번창하다가 폐촌 된 곳이 아닌가 여겨진다.

(5) 해석(海石) : 해창(海倉) : 석창2리

가호(세대)			인 구(명)			본관별 성씨(단위: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김해김	밀양박	경주최	인동장	밀양손	함평이	기타		
62	62		163	79	84	8	8	7	7	6	5	21		

면적(ha)			종교(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52	22	30	12	20	30	2	12	8	10	25	30	40	21	15

1. 주산업 및 특산물

   벼, 양파, 마늘

2. 공공기관 및 건물

   마을회관, 시정, 교회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말과 관계되는 전설이 많은 이 마을은 마한(馬韓)이후 마(馬) 씨가 터를 잡아 살았다 하나, 그 후손은 없고 1700년대에 경주최씨, 밀양박씨, 밀양손 씨 등이 들어와 전성기에는 100여호가 되었다.

조선조 때 밭곡식 조세분(租稅分)을 보관 하던 해창(海倉-바닷가 창고)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옛 함평군지 참조)

이 마을은 서해의 함평만에 위치한 마을이며 마을 뒤에 두류봉(頭流峰)이 있는데 마마산 이라고도 한다. 마재(馬峙-큰재)에 이르면 마당(뜰)같이 넓은 바위가 있는데 옛 한 장수가 담배를 피우며 쉬어 갔다는 전설이 있고 말의 발자국 모양이 현재도 남아 있다.

돌재(돌재·성황당, 똘개)는 조선조때 조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다른 마을 사람들이 많이 넘더재며 고개를 넘을 때만다 돌과 솔잎을 던져 돌무더기를 이룬 일종의 성황당 마을로 3호가 살고 있다.(대발 참조)

초달아지 : 마을 앞 해안의 모래밭을 말하는데 그 모양이 초생달과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모래밭에서 모래찜을 하면 신경통 등 여려 질병을 다스린다 하여 매년 여름에 많은 사람이 외지에서 찾아오고 모래밭 곁에 "물둠벙"이라 부르는 바다 바닥에서 솟아나는 샘이 있는데 한 여름에도 2분 이상을 물속에서 견딜 수 없이 차갑다. 마을의 명소며 외지에 대한 자랑거리다.

o 특기사항

마을 앞 갯벌에서 잡는 낙지는 인근에서 맛이 좋기로 이름이 나 있고, 1967년부터 양식(養殖)하는 굴과 71년부터 양식하는 고막은 석창 해변의 명물로 등장하여 채집 수확하는 기간에는 생산지에서 직접 구입하려는 외지 차량의 행렬이 장관이며, 석창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다.

80년대에 재경향촌회원 최옥술 등 20여명이 마을앞에 애향정(愛鄕亭)을 짓고 표석을 세웠으며, 이어 해석노인정이 건립되었다. 마을어구에 경주최씨세장비와, 증,병조판서월포김해김공신도비명(여흥 민병승 찬)과, 90년대에 김종철의 양계장이 들어서 있다.

o 배출인물

·김정숙(김正淑) : 경감

(6) 대발(大發) : 석창4리

가 호(세대)			인구(명)			본관별 성씨(단위: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밀양박	해주최	충주지	김해김	청주한	나주나	한양조	기타
31	30	1	75	35	40	4	4	3	2	2	2	2	12

면적(ha)			종 교(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16	8	8	2	24	5	8	5		4	10	12	19	12	5

1. 주산업 및 특산물

벼, 양파, 마늘, 대파, 고추, 낙지, 양식어장, 양계

2. 공공기관 및 건물

마을회관, 시정

3. 유물과 유적

성황당(돌무지)

대발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1940년대에 충주지씨(池化信)와 청주한씨(韓大者)등이 입촌하여 한때는 고구마 주산단지였으나 작목이 양파 마늘로 바뀌고, 술독을 비롯하여 옹기도요지가 있었으나 김수남이 광권(鑛權)을 갖고 있을뿐 70년대에 폐요 되었으며 80년대에 해성교회가 들어섰다.

원래는 궁산리와 통하는 돌갯재(똘갯재 -돌갯재)밭에 있어 마(馬)들의 마을로 일제 강점기 해창의 전성기에는 성황당이 있는 돌갯재를 넘나드는 길손이 많아 주막집이 성행하였으나 지금은 그 주변에 3호가 살고 있다.

비룡승천(飛龍昇天)의 명당터가 있다는 이 마을은 해석에서 신흥을 오가는 바닷가 도로변 황토벌에 마을이 형성되어 크게 발전 될 곳이라는 뜻에서 대발이라 명명했다고 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의 지명에 죽동(竹洞)으로 표기된 것을 보면 대밭 마을의 뜻이 있어 생긴 이름인 것 같다.

대발은 위 대발과 아래 대발로 나누는데 위 대발에는 3000여평의 저수지가 있고, 아래 대발에도 2000여평의 저수지가 있다. 대발은 6.25 사변 후 정부에서 지어준 구호주택으로 여러 곳에서 살던 독가촌 사람들이 입주하여 30여세대의 부락으로 1980년 석창2리에서 석창4리로 분구되엇다.

o 특기사항

90년초에 이 마을 춘신 재경 최대숙 등 20여명의 성금으로 도로변에 시정(時亭;목조2칸)을 건립하고 표석(標石)을 세웠다.

o 배출인물

·최순실(崔順實) : 손불예비군중대장,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역임.

·지 풍(池 豊) : 손불면 농협조합장 역임

7) 양재리(良才里)

함평군의 도자기 제조 발상지로 주목되는 곳이며, 함평군내에서 고려청자를 마들었던 곳은 이곳뿐으로 현재 가마터 5곳을 확인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손불면의 주호 전역과 장재, 모량 각 일부를 묶어 모량의 良자와 장재의 才자를 따 양재리라 하였다.

(1) 장재동(長才洞) : 양재1리

가호(세대)			인 구(명)			본관별 성씨(단위: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전주이	김해김	진주강	밀양박	함평이	인동장	기타
29	29		60	23	37	15	4	3	1	1	1	4

면적(ha)			종 교(세대)			연령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46	36	10		1	28	2	2	5	3	6	13	19	10	

1. 주산업 및 특산물
   벼
2. 공공기관 및 건물
   마을회관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확실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옛날 이 마을에 장부자(張富者)가 살았는데 솔대[305]18)까지 세운 당당한 가문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장자동이라 했는데 후에 장재동으로 바꾸어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장부자가 살았다고 전하는데 1968년 완공된 제방 길이 210m 의 호암제19)에서 많은 기와와 주추가 저수지 축조공사 때 나와 전설이 사실임을 입중 해 준 바 있다.

장씨 이후에 진주강씨와 밀양박씨가 터를 잡고 살았다고 하며, 1700년대에 전주리씨가 월야면에서 이곳으로 이사해와 현재도 자작일촌이나 다름이 없다.

마을앞 들을 "배들이 들"이라 하는데 지금은 농토가 되었으나 옛날 여기까지 배가 들어와 주호(舟湖)마을이 있던 터며, "장들"은 옛날에 시작이 섰던 곳이라 전해 온다.

1789년의 호구총수 지명에 장재동이 없는 것을 보면 당시는 호암(湖岩)과 병합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는 호암의 지명이 없고 장재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호암이 장재동에 병합된 듯하다.

o 특기사항 : 유적으로 옥천재(玉泉齋;애일당 리문일과 그 아들 위섭, 운섭, 지섭, 영섭의 수양처로 극재 송병관의 찬기와 6대손 종선 찬 애일당 유허비, 5대손 용헌 찬으로 송정이공위섭효행비. 방손 화헌 찬으로 월정이공영섭기적비. 정촌이공운섭유적비. 5대손 화헌 찬으로 석정이공지섭행정비), 김해김씨 열행비각(전주 이상연 처의 열행비로 이경섭 찬), 밀양박씨효행비(후한당 박동환의 효행실적비로 은진 송병관 찬), 밀양박씨세장비등이 있다.

1982년에 마을앞 동편 밭과 서편 산록에서 고려청자 도요지가 발견되었는데 동편 밭에서는

305) 사마시, 문 · 무과 급제자가 나왔을 때 세운 대나무

질이 좋은 순청자 파편이 많이 수거되었고 서편 산록에서는 고려초로 추정된다는 청자 파편을 또 한 많이 수거 하였다.

또 남동쪽 산록에는 분청자 도요지가 5곳이 있었음에도 확인되었다. 전설로 임진왜란 때 많은 자기를 가마에 묻어둔 채 도공들이 왜적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고 한다.<조선시대유적유물을 볼 것>

o 배출인물

·리왕기(李旺基) : 손불 단협장 역임 ·강희성 : 목사

·리용현 : 국회의원 비서관 역임

19) 제방길이 210m, 1968 완공

20) 풍천서당(豊川 牟順豊)을 이어 지금은 운천(雲泉 牟鍾圭)서당

(2) 호암(虎岩;湖岩)

가 호(세대)			인구(명)			본관별 성씨(간위 :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전주이	김해김	진주강	밀양박	
13	13		23	11	12	8	2	2	1	

면적(ha)			종교(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25	20	5			13		3		7	5	5	3		

1. 주 산업 및 특산물

벼

2. 특이 민속제향과 놀이

당산제 음력 1월 18일

3. 주요지명

월암산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장재마을 바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로 장재마을과 함께 터가 형성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지형으로나 지리적 위치로 보아 풍수설에 깊은 관련이 있는 듯 하며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산이 깊고 험하여 호랑이가 많이 살았다고 한다.

마을 뒷산에는 호랑이들이 앉아 놀았다는 바위가 있는데 마을 이름도 이 바위 이름을 따서 호암(虎岩)이라 했다 하는데 1789년 호구총수 지명에는 호암(湖岩) 으로 표기되어 있다. 1968년 완공된 길이 210m 호암제가 있다.

(3) 모량(모린개→毛良→慕良) ; 양재2리

가호(세대)			인구(명)			본관별 성씨 (단위 :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함평모	진주강	밀양박	죽산안	
25	25		86	47	39	21	2	1	1	

면 적(ha)			종교(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22	15	7	5	10	10	6	6			3	5	40	16	10

1. 주산업 및 특산물
   벼
2. 공공기관 및 건물
   마을회관
3. 유물과 유적
   지방기념물 제117호 이팝나무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1400년대 행주기씨가 정착하여 3백 여년을 살았다고 전하며 함평모씨 모세빈(牟世彬;1630~1693)이 아들 3형제와 함께 1680년경 함평읍 대화에서 옮겨 살게 된 후 자작일촌이 되어 살고 있다.

이 마을은 장재동 "배들이 들" 아랫마을로 1930년대 월천 저수지가 생기기 전까지는 갯가의 마을로 "모린개"라 하였으며 모씨가 입촌한 후 한문으로 표기할 때에 어진 것을 숭상하자는 뜻에서 모량(慕良)이라 한 듯 하다.

풍수설에 따르면 모란이 반쯤 핀 형국(牧丹半開穴)이며, 왼쪽 정지등은 중의 목탁이고 오른쪽 모랭이는 목탁 채며 이웃 마을 승선(昇仙)동은 중이고 완정재(完丁峙)는 중의 연줄이라 한다.

마을 위쪽 산 고랑을 방죽골이라 하였는데 1967년 모 부대가 주둔하게 된 후로 방적골(防敵洞)을 잘못 불러온 것으로 판단하고 이제는 "방적골"이라 부른다.

1970년 새마을 사업 우수마을(전국2등)로 뽑혀 국무총리 상을 받은 바 있다.

유서 깊은 이 마을에는 지금도 방학중에 서당[306]이 열리고 있다.

o 특기사항

정지등에 있는 노거수(老巨樹), 이팝나무[307], 일명 백발목(白髮木)은 전설이 얽혀 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백발도사가 쉬고 있기에 나무 이름을 물으니 가지고 있던 손 칼로 "위엄(危

306) 풍천서당(豊川 牟順豊)을 이어 지금은 운천(雲泉 牟鍾圭)서당
307) 수령 200년으로 추정되며, 봄에 피는 꽃의 형태로 그 해의 풍년과 흉년을 예측하기도 한다.

掩)"이라고 새겼다고 하는데 자라면서 그 자리가 움푹 패여 난리 때 그 속에서 사람이 피신하여 위험을 막았다는 영험을 보여 주었고 그 도사의 백발을 따 백발목이라 한다.

유적으로 수정재(守靜齋;모수택의 서식소로 영빈 김두삼, 석전 이병수, 진사 김병규의 시와 극재 송병관 기가 있다.)와 효열각(孝烈閣;효자 함평모대규와 효열부 한양조시 실적비각으로 한긍호의 찬기-撰記)마을입구에 청송심시효열비(함평 모영두의 아들 안기 처의 효열사적으로 모찬원 찬)등이 있다.

o 자생조직단체

·향우계(鄕友契)-마을단합을 목적으로 1970년에 설계 하였다.

o 배출인물

·모귀기(牟貴基) : 광주 송원여고 교장 역임 ·모근배(牟根培) : 보해씨름단 감독 역임
·모강인(牟康仁) : 치안본부 정보과장, 인천지방경찰청장
·모계원(牟桂源) : 호남대학교 서무과장 역임, 전남씨름협회 이사
·모봉수(牟奉洙) : 함평읍장 역임 ·모경배(牟敬培) : 사무관 광주북구청 건축과장
·모과균(牟科均) : 광동제약 기획이사 ·모경구(牟耿求) : 전자공학 박사
·모경주(牟耿州) : 화학공학 박사

(4) 신촌(新村)

가 호(세대)			인구(명)			본관별 성씨 (단위 :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김해김	밀양박	함평이	고성이	창녕조	함평모	전주이	경주이	기타
10	10		23	10	13	1	1	1	1	1	1	1	1	2

면적(ha)			종 교(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11	8	3		9	1				1			20	2	

1. 주 산업 및 특산물

벼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모량 마을 앞들에 6.25한국전쟁 후 문화주택단지인 신촌이 형성되어 20여 호가 입주했으나 이농으로몇 호 남지 않았다.

8) 월천리(月川里)

1914년 이제(里制)가 실시되면서 손불면의 비천, 월산, 신기, 백옥마을 전역과 신성, 모량, 어전, 지호의 각 일부를 묶어 월산의 月자와 비천의 川자를 따 월천리라 하였다.

(1) 농장(農場) : 월천1리

가 호(세대)			인구(명)			본관별 성씨(단위: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김해김	밀양박	함평이	기타	
35	35		71	30	41	12	9	8	6	

면적(ha)			종 교(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47	37	10	10	2	23				10	10	15	21	10	5

1. 주산업 및 특산물
   벼, 보리, 한우축산
2. 공공기관 및 건물
   마을회관 1동
3. 노인회, 부녀회, 청장년회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1933년 삼양사(三養社)[308]에 의해 백옥 마을에서 석계 마을에 이르는 3,850m의 방조제가 완공되어 4백ha에 가까운 농토가 조성됨으로 하여 이루어진 마을로 1963년 조용선(曺龍善, 창녕). 장인학(張仁學, 인동), 박내옥(朴乃玉, 밀양) 이 처음 입촌하였다.

(2) 영월(迎月)

가 호(세대)			인 구			본관별 성씨 (단위 :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김해김	밀양박	함평이	인동장	기타		
15	15		36	16	20	5	2	2	2	4		

면적(ha)			종교(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27	20	7			15					10	7	10	6	3

308) 김연수(金季洙) 사장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 김사장은 부통령을 역임한 김성수(金性洙)의 아우며 삼양사는 지금 삼양식품 등을 거느린 대기업으로 번창했다.

1. 주산업 및 특산물
   벼, 보리, 한우축산

2. 공공기관 및 건물
   마을회관, 미곡종합처리장(RPC)

3. 자생조직
   노인회, 부인회, 청장년회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간척공사가 완공된 1933년에 형성된 마을로 강, 장, 조, 임, 서 김씨 등이 입촌하였다. 지형이 군유산하의 낙산으로 뻗어있는 칡꽃 형국이라 그 동령(東嶺)의 월출(月出) 광경이 장관을 이루어 영월(迎月)로 명명했다 한다.

(3) 신기(新基) : 월천2리

가호(세대)			인 구(명)			본관별 성씨(단위 :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김해김	밀양박	함평이	천안전	해주오	신평송	죽산안	
39	37	2	83	40	43	2	7	8	7	6	3	6	

면적(ha)			종교(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33	20	13	12	10	7	3	14	3	8	5	8	12	22	8

1. 주산업 및 특산물
   한우, 양파, 벼

2. 공공기관 및 건물
   미곡종합처리장(RPC)

3. 유물과 유적
   300년된 정자나무(구술나무)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이웃 안애기의 마을 터로 신기(新基;1789년 호구총수 지명 에는(申己)라 불렀다고 전해오며, 문씨 보다 100여년 후에 정착한 천안 전시원(全時元)의 후손이 자작일촌하고 있었으나 1933년 삼양사에 의해 간척사업이 이루어 진 후 여러성씨가 입촌하여 살고있다.

o 배출인물

·임영규(任營奎) : 총경, 장흥경찰서장 등 역임

(4) 안락(安樂-雁岳) : 안애기

가호(세대)			인 구(명)			본관별 성씨(단위: 명)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김해김	밀양박	함평이	죽산안	한양조	풍천임	
42	18	24	52	23	29	4	6	3	20	2	7	

면적(ha)			종교(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30	17	13	14	7	25		4		14	8	18	8		

1. 주산업 및 특산물

양파, 한우, 낙지, 바지락

2. 공공기관 및 건물

해수욕장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이 마을은 평산마을과 더불어 기러기[309]와 인연이 있는듯, 마을 이름도 안래기(雁來基→안애기) 또는 안락(雁落→안악)이 변형되어 1990년대 해수욕장이 개장되면서 안락(雁樂-안악-편안하고 즐거운 곳)으로 표기 호칭하며 오래된 어촌(漁村)이다.

문헌상으로는 남평 문맹추(文孟秋:1613~ ?)가 1640년경에 정착하여 그 후손이 번창, 새터(새터)를 잡아 살다가 전염병으로 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어 일시 폐촌이 되었다가 얼마후 안·전씨 등이 입촌하였다 한다.

1975년 20여세대의 문화촌(文化村;새마을)이 형성되고, 월천간척지[310] 40여정보의 농토가 조성되어 경작하고 있다.

지금은 안씨 10호, 풍천임·김해김·나주임씨, 전·장·이·송·오·백·정씨 등 30여호가 살고 있다.

o 특기사항

무안군 해제반도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는 이곳 바닷가에는 모래가 많이 밀려와 여름엔 해수욕장으로 한몫을 하며, 연중(年中) 생선(生鮮)이 떨어지지 않고, 해태양식장의 적지로 겨울철에는 주변에 해태항목이 숲처럼 우거져 김배(海苔船)가 쉴 틈 없이 움직이는 곳이다.

309) 학산리 평산마을 참조

310) 1965년 미공법 480호의 의한 "월천자조근로간척사업장"(대표:백형인)으로 시작하여, '73년에 함평군수가 인계받아 "월천미완공간척사업"을 시해, '78년에 개답(개답:40정보)

(5) 월산(月山) : 월천3리

가호(세대)			인 구(명)			본관별 성씨(단위 :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천안전	김해김	진주정	전주이	함평이	함평모	기타	
31	29	2	76	30	40	7	4	3	3	2	2	10	

면적(ha)			종교(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22	19	3	10	10	11	4	6		5	10	12	9	26	4

1. 주산업 및 특산물

   벼, 영파

2. 공공기관 및 건물

   저온저장창고, 정부양곡보관창고, 마을회관

3. 친목계

   1970년 설립하여 마을 친목도모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옛날 노승봉의 도승(道僧)이 복호산(伏虎山) 밑의 저 마을은 반달(半月)형국이라며 월산(月山)이라 명명했다는 전설이 있으며, 정유재란 후 1600년 경 월야면의 진주정씨 후손 치(穉)가 정착하여 마을을 이루었으며 지금은 여러 성씨가 함께 살고 있다.

뒷산은 호랑이가 엎드려 있는 형국이라서 "伏虎山"이라 부르며, 모효자(牟孝子)의 시묘생활 중에는 호랑이가 감싸주었고(虎衛), 무지개빛이 하늘로 이어졌다(虹彩連天)는 일화도 있고, 1941년 호암산 밑에 설립된 손불서초등학교는 호랑이가 외출하고 없었기에 6.25한국전쟁 중 소각 당하는 참변을 겪었다는 얘기가 있다.

o 특기사항

월산은 손불에서 영광 염상으로 통하는 지방도(地方道)의 중심마을로 1953. 4. 1 손불서초등학교가 복교(復校)되고 상가가 조성되었으며, 1964년 정부양곡 보관 창고와 정미소, 교회, 공의진료소, 약국, 도정공장(대표 최재근), 80년대에 농산물포장쎈타, 간이집하장, 장어를 양식하는 비천양만(대표 이길구)등이 생겨 손불 서지구(西地區)의 중심지로 제 2소재지 구실을 하고 있다. 마을 앞에는 양재천, 북성천, 월천천(月川川)이 한데 어우러져 예부터 월산보(月山洑)가 있었고 함평에서 크기로 둘째 번인 "월천제"의 수원(水源)이 흘러들어가고 있다

o 배출인물

·정동신(鄭東信) : 육군소령 예편　　·이기노(李基魯) : 손불단협장, 함평군의원 역임

(6) 비천(飛川)

가호(세대)			인구(명)			본관별 성씨(단위 :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김해김	경주김	
3	3		5	2	3	1	2	

면적(ha)			종교(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4	3	1			3						2	1	2	

1. 주산업 및 특산물

벼, 양파

2. 공공기관 및 건물

정부양곡보관창고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옛날엔 포구(浦口)로써 외지(外地)에서는 "비천포구(1798년 호구초수지명에는 비천-比川)라 하면 알 정도로 성황을 누렸으나 포구가 월천제(月川堤)로 바뀌고, 이웃에 저수촌(貯水村)과 월산이 생긴 후 본래의 김씨 터에 경주김·김해김·밀양박씨 등 몇 호만 남아 있다

o 특기사항

지금도 개울물이 흘러 내리고
있는 이곳에서 용이 승천(昇天)하여 하늘로 날아 갔다는 전설로 보아 비천(比川)이 비천(飛川)으로 바뀐 듯하다.

o 배출인물

·이채홍(李采洪) : 서기관 목포보훈지청장역임 ·이길구(李吉求) : 평통대의원 역임
·이춘배(李春培) : 육군중령예편, 남해화학 비상기획부장

(7) 저수지(貯水池) : 월천4리

가호(세대)			인구(명)			본관별 성씨(단위 :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경주김	천안전	함평이	나주임	남원양	기타	
38	38		93	48	45	15	8	3	2	2	8	

면적(ha)			종교(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42	30	12	34	4		5	2	8	7	10	22	20	11	9

4. 주산업 및 특산물
벼, 양파, 마늘

5. 공공기관 및 건물
마을 회관

10. 자생조직
영농회, 부녀회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1932년 월천저수지가 생긴 후 광활한 농토를 배경으로 비천에서 경주김씨 경태(景泰)가 입촌한 후 형성된 마을로 그 이름도 저수지라 부른다.

o 특기사항

월천저수지는 규모도 크려니와 여수(濾水)가 바다와 연결되어 전국적인 유명한 낚시터로 각광을 받고 있다.

o 배출인물

·김희남(金喜南) : 고등고시합격. 광주고등법원 판사. 검사 등 역임
·김영채(金永彩) : 초등장학사. 초등교장등 역임. ·김준안 : 손불농협장

(8) 어전(於田 : 늘밭)

가호(세대)			인구(인명)			본관별 성씨(단위 :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천안전	나주임	남원양	기타	
22	22		49	22	27	9	7	1	5	

면적(ha)			종교(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20	16	4	20	2		3	5	6		12	2	10	7	4

4. 주산업 및 특산물
벼, 마늘, 양파

8. 특이한 민속제향과 놀이
정월대보름 당산제

11. 배출인물
·임희구 : 함평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임인택: 함평군의회 부의장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전해오는 바에 따르면 고려 때 이 마을에는 배(裵)씨가 살았는데 삼별초 난에 배씨가 역적이 되자 생명을 구하고자 마을에서 떠났다고 한다.

그 후 1600년경 나주 임씨 후손이 이 마을에 정착하였고 뒤이어 천안 전(全)씨가 들어왔다.

땅이 기름지고 또 논과 밭이 많아서 이곳에서 살면 자손과 생활이 날로 번창해 간다는 뜻에서 늘밭이라 불렀다고 한다.

1789년 호구총수 지명에는 얼전(孼田)으로 표기되어 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이전부터 어전(於田)으로 표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마을 주위에는 서낭뫼, 괴양지기, 가재밭골, 성젓골, 빕새골, 새삿골, 내락골, 까장물, 장작골등 우리말 지명이 전해오고 있다.

풍수지리에 얽힌 전설로, 마을 형국은 "소쿠리 태"며 마을 앞의 산은 노적봉이며 그 아래 무시 뱀이라 부르는 돌샘(野井)은 노적된 곡식을 씻는 샘이란다. 노적봉의 곡식을 씻어 소쿠리에 담으니 이 마을에서는 속히 흥하고 또 속히 망한다(速成速破)고 한다

o 특기사항

90년대에 마을앞에 광장이 조성되고 주변에 나주임씨세적비(이천 서상은찬)와 천안전씨 세장비가

(9) 백옥(白玉) : 백학동 : 월천5리

가 호			인 구			본관별 성씨(단위:가호)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김해김	밀양박	함평이	한양조	천안전	오	최	백	문	기타
55	55	0	141	76	65	9	6	2	12	3	2	2	2	2	15

면 적(ha)			종 교			연령대별 인구 구성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45	24	21	9	13	8	2	17	12	15	26	24	22	19	4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일제시대 백옥~석창간 간척공사를 하면서 1공구 2공구 3공구로 나누어 공사를 하면서 속칭 일공구(一工區)가 마을의 이름으로 변하였다.

주변 마을로 백학(白鶴)이 노는 곳이라 하여 백학동→배학동이라 부르다가 삼양의 양감독이 방조제(防潮堤) 갑문을 "백옥갑문(白玉閘門)"이라 명명(命名)한 후 학이 옥으로 변하여 백옥이라 부른다.

마을 앞에 수문이 만들어진 후 그 영향으로 배들의 입출항이 용이하여 선착장이 형성 되었는

데 현재 함평에서 어선의 척수가 많아 어로활동이 가장 활발한 마을이다.

더불어 회집이 많이 형성되어 미식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어 마을 주민소득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본래 임학사(林學士)의 터라고 전해오나 밝힐자료가 없고, 복성리 사기소에 입향했던 한양조씨의 후손 중 조성창(趙聖昌)이 1760년경 입촌하여 마을 앞의 학다리를 거닐었다고 "한양조씨 학선제(漢陽趙氏 鶴仙濟)"란 유적비를 세웠음이 이채롭다.

이 마을은 와우(臥牛) 형국으로 갑문이 설치된 곳이 소의 머리요, 마을 중심부가 소의 몸동, 뒷등이 소의 꼬리부분이라 하며, 뒷 고랑이 혼창곡(渾蒼谷)이다.

o 특기사항

석산(石山) 밑의 수박재는 월천제의 여수토(餘水土)가 되었으며, 그 석산이 수박처럼 생겼다고 "수박등"이라 불러왔는데 두 차례의 간척공사 때 남포에 의해 석산을 무너뜨렸으나 수박등 속에서 먹는 수박이 아닌 금싸라기 같은 돌(石)만 쏟아져 나왔다는 "흥부전"같은 일화가 있다.

일공구(一工區)에는 해태가공 공장이 들어서 해태가 성업(盛業)으로 바뀌자 한때 번창했던 선창은 퇴색되어 가고 있다.

o 주산업 및 특산물

벼, 낙지, 해산물(회감)

o 세시풍속

20여년 전부터 5월8일-마을청년들의 어버이 잔치.

(10) 신옥(新玉) : 코주백이

가 호			인 구			본 관 별 성씨(단위: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김해김	밀양박	함평이	기타				
35	35		71	30	41	12	9	8	6				

면 적			종 교			연령대별 인구 구성								
계	논	밭	북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47	37	10	10	2	23				10	10	15	21	10	

4.특산물

벼. 보리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수박산 뒷 편 월천저수지 둑가에 코처럼 날름한 곳, 전에 배가 닿았던 선창을 속칭, 코주백이 →코쟁이 선

창이라 부르다가 신옥으로 호칭하고 있다.

천안전, 산김·함평이·나주임·모·전·박·배씨 등이 살고 있다

9) 죽암리(竹岩里)

죽암리는 면 소재지에서 동남쪽 끝에 위치하여 신광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손불면의 석령 전역과 소명, 등촌, 농암, 죽림, 신광면 학천 각 일부를 묶어 죽림의 竹자와 농암의 岩자를 따서 죽암이라 하였다.

통정동(通井洞;통샘골)에도 마을이 형성되었다가 농암과 더불어 폐촌되었고, 90년대에 통정동 근처에 젖소 목장(대표 임춘빈)이 생겼다.

죽암리 죽림의 길제(路祭)는 본군에서 유일하게 전승되는 민속신앙제(民俗信仰祭)이다.

(1) 죽림(竹林) : 죽암1리

가 호			인 구			본관별 성씨 (단위 : 가호)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김해김	밀양박	함평이	광산김	인동장	나주임	기타			
37	36	1	72	34	38	5	6	2	4	4	6	10			

면 적			종 교			연령대별 인구 구성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 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42	24	18				1	8		2	3	14	25	8	11

4.특산물

벼,양파

5.공공기관 및 건물

시정, 마을회관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최초의 입촌은 절강편씨(截江片氏)로 전해오고 있으며 임씨, 박씨, 송씨, 하씨, 최씨, 김씨, 진씨 등이 입촌하여 전성기에는 100호 안팎이 되었었다.

이 마을은 옛날 농암(籠岩)마을의 후신(後身)이며, 대나무가 우거져 있어 죽림이라 하였고 전설에 의하면 궁(弓)들에서 활을 쏘면 새날들(坪)의 새가 날아 죽림으로 들어와 살게 되는 형국

이라 대나무가 우거져야 마을이 융성 발전한다는 것이다.

1941년 주포간척사업 이전에는 배가 마을 입구에 닿게 되어 해상교통의 시발점이라는 지리적인 조건과 토질관계 등으로 약 300년 전 인 조선숙종때부터 옹기제조업이 시작되어 전성기에는 멀리 제주도에서까지 상선(商船)이 드나들어 주변의 주막이 흥청거렸으며 점차 그 기술이 발달하고 무역이 활발해져 수요가 급증하자 3개소의 가마가 있었으나, 최근 플라스틱 제품에 밀려 겨우 명맥을 유지하여 오다가 30여년 전 폐요(廢窯) 되었다.

o 민속제향

· 석신제(石神祭) – 농(농)바위에 지내던 제사로 불가에서 바다와 육지에 있는 외로운 혼령과 마귀를 위하여 올렸던 제로 수륙제(水陸祭)라고도 하는데 지금은 지내지 않고 있다.

· 길제(路祭) – 길제는 그 역사가 수백년이 되었다고 하며 6·25 한국전쟁 후 3년간 중단했다가 부활했다. 70년대 새마을 사업과 더불어 미신타파 차원에서 중단했는데 마을 곳곳에서 불이나는 일명,<도깨비불> 사건과 재앙이 잇따라 다시 부활하여 지금도 지내고 있다.

음력정월과 2월 사이 길일을 택하여 지내는데 15일전에 40세 이상의 유고가 없는 사람을 제관으로 택하여 음식과 출행을 삼가고 제관의 집에는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통제한다.

제단과 위패도 없으며 조와굿, 샘굿, 당사나무제를 끝내고, 동서남북 4곳에서 지내는데 3거리나 4거리 되는 지점을 택한다. 제문의 원문은 전하는 것이 없고 현대의 제문에 맞추어 당일 정하는데 4방 시에게 제수를 흠향하고 마을의 안녕을 지켜달라는 내용이다.

제사의 비용은 마을 공동 부담하여 쌀 또는 현금으로 거두는데 각 가정의 성의에 따른다.

· 99년에 마을 뒤편 농경지가 온통 서해안 고속도로로 편입되었음은 특기할 사항이다.

o 배출인물

· 송기만(宋基萬) : 광주조대부중 교장 역임.

(2) 석령(石嶺→석룡) : 죽암2리

가호(세대)			인구(명)			본관별 성씨(단위 :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광산김	양성이	강릉유	기타	
16	16		30	13	17	6	3	2	5	

면적(ha)			종교(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14	8	6	10	6				1	2	2	2	9	12	2

4. 주산업 및 특산물

벼, 양파, 마늘

5. 공공기관 및 건물

시정 용암분교(폐교됨)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이 마을은 발봉산 남쪽 기슭에 있어 담골로 통하는 석현(石峴:돌갯재)과 죽사동으로 통하는 석령재 밑에 있어 돌과 재와 관련이 있어 석령이라 하였다 .본래 박진사의 터로 큰 부자였다가 동학 농민운동 때 생계가 어려워져 그 터를 광산김씨(金秉來)에게 팔고 이촌(移村)했는데 그 후손은 종적을 알 길이 없으며, 1790년경 양성이씨 중영(李重英)과 시광(始光)부자가 죽사동에서, 강릉유씨 유일성(劉日星 1767~?)이 실뫼에서, 뒤이어광산김씨, 파평윤씨, 김해김씨 등이 입촌하여 지금은 광산김씨, 강릉유씨, 이·윤·장·노·최·배씨등이 살고 있다.

o 특기사항

1962년 손해선(손불 해보 선)에서 죽장, 죽암을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됨과 동시에 마을 동쪽 300m지점, 도로변 달걀봉(卵峰) 중턱에 용암 김남국이 그 아들 영식 영진 영희의 힘을 빌어 용암분교장을 유치(誘致)하여 손불동초등학교[311]로 발전하여 한때는 500여명의 학생을 수용하다가 농촌 이농과 더불어 학생수의 감소로 적정학급 유지가 어려워 1994년 9월 1일자로 손불초등학교 용암분교로 편입되었고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로 1996년 3월 1일 손불초등학교 용암분교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유지하다가 2005년 3월 1일자로 손불초등학교에 통폐합되었다. 학교앞 신생촌(新生村)이 형성 5호가 살고 있으며, 용암 김남국흥학비(金南局興學碑)가 서있다.

마을 중앙에 저수지(石嶺堤)가 있어 앞들과 배암등 죽림 뒷등을 몽리하고, 마을 앞 누예머리(잠두산:蠶頭山)에는 1940년에 쌓은 우풍단(雩風壇)이 있어 가뭄때에 기우제를 지낸바 있으며, 마을 뒷산 봉정산(鳳頂山)에는 국상(國喪) 때 전간재 문인인 소산(小山 金秉來)선생 문생들이 북망곡배(北望曲拜)하던 제단이 있고, 광산김씨 삼강문(三綱門;절의 김종도. 효자 김두규. 열부 청송심씨의 문을 완산 이승욱 찬기-撰記)와 소산정(小山亭)이 10여 그루의 노거수 벚나무와 향나무에 에워싸여 있다. 마을 사진과 소산정

o 배출인물

·김병찬(金秉燦) : 간재문인, 호 소산(小山) 성리학자
·김남국(金南局) : 호 용암(龍巖), 손불초등학교 설립 기성회장
·김갑손(金甲孫) : 전남도 농무과장 역임
·김영식(金永殖) : 나중동신대학 총무, 경리과장(서기관대우) 역임
·김영진(金永鎭) : 문학박사, 목포대학장. 전남도교육위원회 역임. 성신간호대학장
·김영희(金永熙) : 부이사관, 전남대학교사무국장. 사립학교 연금관리공단 상무이사

311) 1962. 12. 31 용암분교 설립. 1963. 10. 10 동교로 승격되었으며, 교정 앞에 설립유공자 「용암 김남국 흥학비」를 학구민 일동이 건립하였음.

(3) 소명동(小明洞;昭明洞)

가호(세대)			인구(명)			본관별 성씨(단위: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제주양	경주김	광산김	기타	
11	11		25	11	14	2	2	2	5	

면적(ha)			종교(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이상
8	5	3	8	3				1		2	1	14	6	1

4. 주산업 및 특산물

벼, 마늘, 양파

5. 공공기관 및 건물

시정

6. 유적과 유적

서해안고속도로 휴게소, 옹기그릇 출토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해창(海倉)이 생긴 후에 형성된 마을로 조씨가 먼저 입촌 한 듯 하나 확실한 자료가 없고 김해김씨 사군파의 후손 김석덕(金錫德 : 1766~?)이 1800년경에, 광산김씨 문정공파의 후손 김수련(金壽鍊)이 1900년경에, 뒤따라 양씨, 박씨, 임씨, 백씨, 배씨, 이씨 등이 입촌하여 살고 있다.

이 마을은 소와 관련이 있다. 풍수설에는 소가 풀 뜯어 먹는 형국, 뒷산 봉우리가 범머리(虎頭)요, 옆 산은 개 형국, 저 건너 동교 뒷산은 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 마을 건너 학천은 학(鶴)형국이라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동 3면에서 해창으로 가는 길목[312]인 이곳이 소맬등, 조금 더 가면 소 짐짤등과 관련이 있어 소맬등→쇠맬등→쇠멩동→소명동으로 변화했고, 소 짐짤등→소 짐멜등→소시메등→소심(小尋)등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마을 옆 인내골(인내동;仁川洞)에 1977년 새날제(제)가 축조되었다.

1999년 서해안고속도로가 마을 뒤편을 통과하면서 방구등(嶝)에 인천을 올라가는 상행선 휴게소가 생기니 옆의 인내골(仁川洞)과 인천 가는 고속도로와 전생에 인연이 있는 듯, 소명(小明)이 소명(昭明)으로 밝은 세상을 만난 듯, 새날재가 새날을 맞는 듯, 주위의 지명이 자못 흥미로우며, 특히 지난 날 소에 짐을 싣고 가다가 풀을 뜯어 먹이며 쉬어가던 곳에 고속도로 "소명휴게소"가 건설되어 번창할 것으로 자못 기대된다.

o 특기사항 : 마을앞 400여평의 광장주변에 <모선례동회관 창건공적비><양금영공도로포장공적비>가 있고 김한진 외 32명의 성금으로 96년에 건립한 송죽정(松竹亭)앞에는 표석에 명단과

312) 1700년대에 개설된 국고창고 해창(海倉)으로 가는 길목으로 동 3면에서 동막재를 넘어 신촌→가리→소명, 농바우→해창재→해창으로 갔다.

더불어 양회복(梁會福)찬으로 명(銘)이 새겨 있다.

송죽정 명(松竹亭 銘)
발봉산 준령따라 아늑한 우리마을, 소명에 힘찬기상 방구등에 진동하네
조상들 세운고장 우리가 가꾸면서, 뭉쳐진 힘찬소리 펴져가는 우리마을
순박한 소명사람 하늘에 도움받아, 씨뿌려 풍년되어 부자마을 되어가네
힘모아 세워놓은 송죽정 바라보니, 마을에 얼굴됨이 천년만년 가리로다.

10) 죽장리(竹長里)

죽장리는 손불면 동쪽 낙양지지(落陽之地)로 신광면과 경계하고 있으며 근동(近東)의 명산인 스님의 바랑형인 발봉산(鉢峰山: 179.9m)을 중심으로 형성된 촌락이며 죽등[313] (竹嶝:죽사)과 장전(長田)의 첫 자를 따서 죽장이라 했다. 장전마을은 지금의 담골입구 장밭 근방 일면 바깥 슬뫼 주변으로 1,720년경 강릉 유시후평(劉后平)이 입촌하여 백여년을 살다가 그 후손이 이웃 슬뫼(瑟山:실산)와 석령으로 떠나고 그 후 박씨, 김씨, 임씨 등이 살았으나 6.25한국전쟁 후 폐촌 되었다.

99년에 서해안고속도로가 산 1번지와-22번지 사이 호두산에 "신광터널이 뚫려 담골의 서당골(書堂洞) 일대와 인내골(仁川洞) 저수지를 끼고 통과하게 되었으며, 행정상 1·2구 7개 자연마을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1) 장동 (墻洞) ; 담골 : 죽장1리

가호(세대)			인구(명)			본관별 성씨(단위 :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광산김	양성이	함평이	공주이	김해김	기타	
42	42		72	29	43	9	9	4	4	3	13	

면적(ha)			종교(세대)			연령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47	38	9	7	20	15	1	9	5	10	10	12	11	9	5

4. 주산업 및 특산물

벼, 보리, 양파, 마늘, 구추, 시설원예

313) 죽 등 : 옛날 절이 있을 때 대나무가 많아서 죽등이라 했던 것 같으며 죽장리는 마을마다 대가 성하고 특히 죽사의 오죽(烏竹)은 유명하다.

마을 뒤 장씨와 이씨의 힘겨루기 바위

5. 공공기관 및 건물
교회, 보건진료소, 마을회관

6. 유물과 유적
군보호수 은행나무, 팽나무, 느티나무

7. 마을관련 전설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문헌상으로는 양성이씨 이암손(李巖孫) 은 부친 이중신이 남평현감 재직중 세조 왕위 찬탈로 복위운동에 참여하여 1456년(세조 2) 사육신 이개등 처남인 이휘도 처형되고 4종질인 이중신도 화를 당하여 아들 이암손에게 (성균관 생원 교수) 모든 관직과 재산을 버리고 낙향하여 조용한 곳에 살라는 유언을 남겨1460년경 이암손은 부친의 뜻에 따라 관직을 버리고 외가(함평이씨)가 있는 팔봉산 자락 죽사절이 있는 죽사에 입촌하여 그 자손이 곧바로 옮겨 산 듯 하며, 1705년에 광산김씨 구일(金九一)이 나주에서 모친과 함께 입촌하였고, 1760년경 파평윤씨, 공주이씨, 함평이씨 등이 1800년대에 김해김씨, 평강채씨, 광주정씨, 진주정씨, 전주리씨, 경주김씨, 임·신씨등이 입촌하여 1960년 전성기에는 130여호로 손불면에서 제일 큰 마을이었으나 현재는 42호만 남아있다.

등촌, 잿물, 양지, 골몰로 나눌 수 있으나 통상 담골로 총칭한다. 이 마을은 연대를 밝힐 자료가 없으나 고목인 은행나무로 볼 때 발봉산 서쪽 중턱에 천년전 “죽사”라는 절이 있어 그 절에 샘골재(생굴재)를 넘어 산 동쪽 중턱의 용천(龍泉)샘과 깻샘(荏泉)[314]을 약수로 사용한 듯 한다.

담골은 발봉산과 계동산(桂東山), 호두산(虎頭山), 우마산(牛馬山)등이 담장처럼 에워싸고 있어 “담골(墻洞)”이라 부른다.

이 마을은 500년이래 20년 전 까지 서당[315]이 끊이지 않았고, 200년이래 15년전까지 명의(名醫:한의사)[316]가 끊이지 않아 인근 영광, 장성, 무안, 나주, 광주 등지에서까지 스승을 찾아 학도들이 모여들고, 명의를 찾아 환자들이 몰려왔다.

o 특기사항 : 유적으로는 진주강씨열행비각(공주 이재양의 처), 전이이씨효열비각(공주 이달진의 아들 영채 처의 효열비각으로 광산김규일 찬), 양성이씨세적비(광산김규일 찬), 광산 김씨의 세적비(후손 김연수 찬), 능암선생김공추모비(김해김정숙의 문생들이 광산김연수 찬으로 건립)가

314) 약 10m 거리에 있는 두 샘으로 지금도 약수로 쓰고 있다. 이 물을 쓰기 위하여 용천샘 위와 깻샘 아래에 옛날 서당과 강습소가 있었다.
315) 우산정사(牛山精舍)와 영양재(潁陽齋), 영빈정사(潁濱精舍) 등.
316) 윤약방계 : 파평윤씨의 윤 상경(尹相卿)과 장남 수병(秀炳) 증손 돈식(燉植)
이약방계 : 함평이씨 이 승헌(李昇憲)과 3남 상규(像奎), 증손 재납(載男)
316) 옛날에는 이 표석(標石) 앞에서 말에서 내려 걸어가다가 맞은 편 하마석 앞에서 다시 타고 갔다. 이 규칙을 어기면, 촌장(村長) 앞에 불려가 호되기 벌을 받기도 하고 마을 정장들에게 시달림을 당하기도 했다.

도로변에 서 있고, 삼일사(三一祠;영빈김두삼과 현재김규일을 배향, 우하 김정재의 제액), 한말의 자선가로 손꼽히는 김염소 묘소가 있으며, 마을 중앙선 도로 입구 양쪽에는 하마석(下馬石)[317]31)이 있어 마을 앞에서는 아무도 말을 타고 다니지 못하도록 약 300m구간을 엄격히 통제하였다.

장동팔경(墻洞八景)이 전해 오는 이 마을에는 옛 서당 영양정사의 후신인 영빈정사(潁濱精舍;영빈선생과 현재선생의 강마지소로 동강김녕한의 찬기, 윤용구 제액)가 있으며, 등촌 골몰 양지 등 3개소에 유선각(遊仙閣;동각)이 잇어 노거수 느티나무를 자랑하고 있고, 중앙 유선각 밑에는 1968년 8백여 평의 인공 호수를 만들어 방화수와 농업용수로 쓰고 있고, 마을 앞에는 이른바 청학동을 방불케 한 전래의 유교 마을에 해방전 후 파고 들어와 개호의 일익을 담당한 기독교 장로회죽장교회와 70년대에 설치한 도정동장인 정미소, 80년대에 건립한 보건진료소가 있고, 2기의 지석(支石)과 1980년에 조선대학교 석유 탐사진이 시굴작업을 했던 3개공의 시굴(試掘)터가 있다.

발봉산 정상에 해발 고도를 측정하는 좌표가 묻혀있고 헬기장이 있으며, 산 남쪽 능선에는 옛날 국상을 당할 때와 기우제를 지내던 잿장터(祭場址)가 있고, 산 중턱 여러 곳에 선인들이 산신(山神) 기도를 올리던 제단(祭壇)이 있다.

90년대에 205번지 일대에 대규모 도우리축산(돼지사육장:대표 강태수)이 들어서고, 미맥(미맥)위주의 이 마을에 90년대 초 김일남(金一南)이 비닐하우스를 시작하자 김한균 이재오 김한복 이동현 이찬문 김병헌 이인상 등이 몇 동(棟)씩의 하우스 영농(營農)을 하게 되고, 98년에는 이운상(李雲相)이 농어촌 정책사업인 유리온식 4,294평을 약 22억원에 건립하여 년 중 도마도 오이 고추 파푸리카를 수경재배(水耕栽培)하는 특용작물을 재배하고 기업영농을 하는 마을로 탈바꿈되었음은 특기할만하다.

<장동팔경 (墻洞八景)>

연사효종(煙寺曉鍾)에 마산창적(馬山唱笛)이요
오두모운(烏頭暮雲)에 갑산귀운(甲山歸雲)이로다.
발봉청남(鉢峰靑嵐)에 주포귀범(酒浦歸帆)이요
사천어화(沙川漁火)에 장평낙안(長坪落雁)이로다.
(연흥사 새벽 종소리에 우마산 피리 젓대 소리,
오두산 저믄 비에 불갑산 봉우리 뭉개구름들
발봉산 자락 뭉실 뭉실한 저녘노을, 주포항에 돌아오는 돛단 배들,
사천에서 고기 잡는 아련한 불빛, 장생들에 내려앉는 짝지은 기러기떼..)

o 자생조직단체

오래 전부터 촌계(村契)가 조직되어 향약(鄕約)을 실천하고, 촌중 공동 소유 전답이 있어 그 수입으로 마을의 기금을 조성하여 유사시에 쓰고 있다.
현재의 계책(契冊)은 1960년(庚子年) 이후의 것이다.

o 배출인물

<전대인물> - 가나다 순

·이 보(李 寶) : 중종20년 생원시에 입격.
·이 빈(李 儐) : 인조조에 첨지중추부사 역임.
·이 암(李 馣) : 인조조 진사 입격. ·이 욱(李 旭) : 6조의 정랑과 황해도사 역임.
·이 준(李 遵) : 명종조 원종공신 ·이 진(李 進) : 명종조 원종공신.
·이 필(李 馝) : 절충장군 용양위부호군 역임.
·이원상 : 임란시 의주 선조호위, 왜적참살, 선무원공신, 군수제수
·이 후(李 垕) : 숙종25(1699)년 식년문과급제, 찰방, 성균관적적 역임.
·이경상(李景詳) : 주부 역임. ·이덕린(李德麟) : 첨지 역임.
·이덕남(李德南) : 주부역임, 광해6(1614)년 선무원종 공신 2등 녹훈. 공신가자판관
·이덕림(李德林) : 선조조 만호 역임, 선무원종2등공신(녹권)
·이덕수(李德秀) : 선조조에 무과에 급제, 봉사 역임.
·이병구(李炳龜) : 호 곡천(곡천) 성리학자.
·이석삼(李錫三) : 숙종15(1689)년 연벽진사 입격, 황해도사 역임.
·이성의(李成義) : 세작익위사 위솔 역임. ·이성인(李成仁) : 중종조 상장 역임.
·이성헌(李成憲) : 진원, 정읍현감,, 한성부 판관 등 역임.
·이암손(李巖孫) : 문종조 성균관, 생원, 교수 역임.
·이양태(李陽泰) : 정시문과 급제, 군수 등 역임. ·이응복(李應福) : 첨지중추부사 역임
·이의철(李宜喆) : 영조20(1744)년 식년문과에 급제, 성균관 전적 역임.
·이화백(李華白) : 선무랑 역임. ·이희복(李希福) : 장례원 사평 역임.
·이화진(李化辰) : 본명 경진(경진) 함평군 동학 접주 역임
·이휴삼(李休三) : 숙종15(1689)년 증광시 연벽진사 입격
·이병훈(李炳訓) : 夫婦敎旨, 통정대부 좌승지 겸 경연참찬관
·이종학(李宗學)(1849-1892) 夫婦敎旨, 가선대부 호조참판 겸 오위도총부 부총관

<현대인물> - 가나다 순

·김경희(金京姬) : 의학박사(마취과)
·김규일(金규일) : 영빈, 후계문인. 호 현재(弦齋) 성리학자
·김두삼(金斗三) : 연재 문인, 호 영빈(潁濱). 성리학자
·김명현(金明鉉) : 경우전기주식회사 회장.
·김병련(金丙鍊) : 제12회 보통고시합격, 지방노동청 소장 등 역임. 노무사사무소 소장
·김봉래(金鳳來) : 손불면 제5대 면장 역임.
·김상오(金相午) : 1급 건축기사, 동아건설 부장.
·김성수(金聖洙) : 광주서구의원 역임.
·김연수(金淵水) : 교육행정사무관, 교육청과장, 행정실장 등 역임. 녹조근정훈장
·김한정(金漢楨) : 경우전기주식회사 상무이사 ·김호현(金浩鉉) : 초등학교 교장

·이가상(李佳相) : 교회 목사 ·이경환(李庚桓) : 변환전자 주식회사 대표
·이공근(李孔根) : 치의학 박사, 상아치과원장, 조대교수
·이기상(李起相) : 건축설계사무소 소장 ·이재천(李載千) : 대한생명 상무이사
·이정식(李正植) : 한국은행 부산지점 차장, 한국은행 감독관 역임
·이행만(李行晩) : 국립공원 관리공단본부 부장
·정정남(鄭貞男) : 진성전력주시회사 대표
·이행만(李行晩) : 국립공원관리공단 예산부장 자원협력처장, 행정지원처장, 북한산 국립공원사무소장

(2) 수철동(水哲洞) : 죽장2리

가호(세대)			인구(명)			본관별 성씨 (단위 :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함평이	광주정	압해정	기타	
15	14	1	39	23	16	2	2	2	9	

면적(ha)			종교(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20	12	8		15				6	2	5	8	10	3	5

4. 주산업 및 특산물

벼, 한우

5. 공공기관 및 건물

마을회관, 축협생축장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이 마을은 손불면 73개 자연마을 중 해발상제일 높은 마을로 “남수철”이라는 사람이 살았다하여 “수철동”이라 부른다는 전설이 있으나 고증할 자료가 없다. 문헌상으로는 1790년경 풍천임씨 임상문(任相文)이 입촌하였고 1800년대에 전주리씨, 압해정씨, 이천서씨, 광주정씨, 김해김씨 등이 입촌하여 10여호가 살고 있다.

이웃 죽사와 관련된 듯한 이름 모를 절터에 탑(塔)이 있었던 듯 마을 맞은편 고랑 탑골에서 기왓장과 토기기들이 발견되고 있으며, 풍수설에 전해오는 서출동유수(西出東流水)의 근원지인 이 마을 앞에도 1기의 지석묘가 있다.

o 특기사항

1990년대에 도로가 확장 포장되고 함평축협생축장(대표 안병오)이 생기면서 축산 붐이 일어나 대농축산대표 정윤렬을 비롯 정형기 임강빈 김귀남 등이 수백 수십 두씩 소를 기르고 있어 천여 마리의 소가 100여명의 사람과 공존 공생하고 있는 마을이 되었다.

o 배출인물

·임영일(任永日) : 사무관, 광주시청 관광과 근무.

(3) 죽사동(竹寺洞)

가호(세대)			인 구(명)			본관별 성씨 (단위: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광주정	한양조	김해김	나주임	양성이	기타	
8	7	1	16	6	10	2	1	1	1	1	2	

면 적(ha)			종교 (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11	7	4		8		4				2	1	4	1	4

4. 주산업 및 특산물

벼. 양파

5. 공공기관 및 건물

시정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죽사라는 절과 더불어 형성된 마을인 듯 하나 고증할 자료가 없고 문헌상으로는 양성이씨가 1460년경 입촌하여 전성기에는 30여호가 되었으나 지금은 10여호가 살고있다

마을 상류로 윗동(으슥진 모퉁이의 준말)을 지나면 버든(버드나무가 있는 마을, 버드실의 준말)이라는 마을터가 있고 그 위에 저수지 죽장제(竹長堤)가 있다.

저수지 위에 마을 터가 감적굴(금이 묻혀잇는 금적굴-金積窟-의 준말)의 옛 터로 여러 차례 금을 파기도 했고 지금도 모인이 광권(鑛權)을 갖고 있다.

o 특기사항

마을 중간 대밭에 오죽(烏竹)이 솟아나고, 뒷산 중턱에 죽사(竹寺) 절터가 있으며, 동리입구에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세웠던 이원상(李元祥)의 솔대 자리가 있으며, 1기의 지석묘가 있다.

마을이 서북향(西北向)이라 마을 앞 100여m에 선인들이 방풍림으로 심어놓은 노송군(老松群)이 마을의 운치를 돋구었으나 90년대 경지정리와 도로가 확장 포장되면서 다 없어지고 그 대신 조길동이 헌성한 30여 그루의 벚꽃나무가 무성하고 있다.

o 배출인물

·이원상(李元祥) : 선조조 무과급제, 이산군수역임. 선무원종공신

·이경옥(李炅玉) : 목사 ·정양식(鄭良植) : 목사

(4) 응암(鷹岩) : 당뫼

가호(세대)			인 구(명)			본관별 성씨(단위 : 명)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광주정	김해김	고부이	함평이	인동장	
8	7	1	12	5	7	3	2	1	1	1	

면적(ha)			종교(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7	5	2		3	5						2	3	3	4

4. 주산업 및 특산물

벼, 양파

5. 공공기관 및 건물

시정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동암리 삼괴동(三槐洞)에 입촌한 고부이씨의 사당이 있어 당뫼(堂山간)라 부르다가 뒷산 매봉(응봉;鷹峰)으로 인하여 "응암"이라 부르게 된 듯 하다.

고부이씨 후손 진사 이세영(이세영)이 1670년경에 정착하였고, 1700년대에 역시 동암리로부터 천안전씨, 광주정씨, 1800년대에 압해정씨, 함평이씨, 김해김씨 등이 들어와 10여호가 살고 있다.

o 특기사항

마을 어귀에는 1기의 지석묘와 노거수(老巨樹)인 당산나무(느티나무)가 있으며, 특히 마을 앞산 우마산 전체가 500년 이래 내려오는 양성이씨의 세장산으로 수세기에 걸친 묘와 비석의 전시장 같기도 하다.

o 자생조직단체

·마을 친목계-1975년에 창립 마을 내 친목과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o 배출인물

·이세영(李世泳) : 진사
·이성일(李成一) : 서울 <경우기업주식회사> 대표
·이성춘(李成春) : 서울 <경우프라스틱주식회사> 대표

11) 학산리(鶴山里)

이 지역은 백제 때는 굴내현, 신라와 고려때는 함풍현, 조선조에는 함평현에 속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손불면의 복학, 금곡, 해은, 소동, 평산 전역과 완정, 지호와 영광군 육창면의 소무각 일부를 묶어 복학의 鶴자와 평산의 山자를 따 학산리라 하였다.

육지로는 영광 염산면과 바다로는 무안 해제반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장차 학산과 무안 해제 도리포를 연결하여 함평만을 농경지화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학산리는 "학"의 형국이라 도처에 학의 전설이 많으며, 1970년이후 해태양식업이 시작되고, 1980년이후 양계업과 축산업, 수산양식업등이 성행하며, 복하과 해은 사이에 방조제가 구축되어 넓은 농지가 조성됨에 따라 3·4구에 외지에서 이주해오는 사람이 많아 인구가 불어나고 있으며, 영산강 5단계사업 여하에 따라 변형될 소지를 갖고 있다.

(1) 지호(芝湖) : 학산1리

가호(세대)			인구(명)			본관별 성씨(단위: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수원백	김해김	밀양박	함평모	
43	42	1	84	43	41	38	3	1	1	

면적(ha)			종교(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41	22	19	7	9	27		8			18		53		5

4. 주산업 및 특산업
   벼, 양파

5. 공공기관 및 건물
   마을회관 1동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임진란을 피하여 임(林)학사등 8학사(八學士)가 터를 잡고 살았다 하며 그중 백학사(수원·白述)의 후손이 번성하여 살고 있다. 마을 뒷산(월암산:봉굴)이 비옥하여 풀이 무성한 곳에 지초(芝草)가 많고 마을 앞 바다가 호수(湖水)같다 하여 "지호(芝湖)"라 했다고 전해온다.

지호 위쪽 마을 석포는 예부터 산억덕에 석간수(石間水)가 있어 석파(石坡)라 불렀으며, 식수

로 쓰다가 인구가 늘어나자 식수가 부족하여 바위를 깨서 확장을 하는데 혈수(血水)가 솟아올랐다. 그후 석파(石坡)라 부르다가 지금은 석포(石浦)로 부른다 한다.

상습적(常習的)인 한해(旱害)지구였으나 68년 한해 때에 석포앞에 석포제(石浦堤)를 막아 육답(陸畓)을 몽리 하고 있다.

o 특기사항

70년대 설치한 학산 도정공장(대표 정상문-김진익)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으며, 교회 기독교장로회 학산교회가 건실하고, 마을 뒤 대로변에는 수원백씨 세장비와 함평모씨세장비와 증 판관수원백공기석묘천비(墓阡碑;함평 모찬원 찬) 등이 있다.

90년대에 백형갑 이영길등이 50-100여두 씩의 소를 기르고 있다.

o 자생조직단체

·금융 협력계 - 계원 상호간의 부조를 목적으로 11명이 1975년에 창립하였다.

(2) 평산(平山)

면적(ha)			종교(세대)			연령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 80	81 이상
3	2	1	1	1	4							5		4

가호(세대)			인구(명)			본관별 성씨(단위: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수원백	
6	6		9	4	5	6	

4.주산업 및 특산물

벼, 양파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지호 아래쪽 마을을 평산이라 부르는데 "평사낙안(平砂落雁)"이라는 명당터가 있다고 전해 오며, 백·이씨 등이 살고 있다 1930년경 마을앞 바닷가 상류를 막아 20정보의 간척농지32)가 조성되어 9천평의 평산제(平山堤)가 몽리하고 있다.

o 특기사항

유적으로 흥덕장씨열행비(興德張氏烈行碑;수원백충흠의 처 일행비로 제주 양희갑 찬)가 있다.

(3) 복학동(伏鶴洞) : 학산2리

면적(ha)			종교(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36	24	12	3	7	16				10	15	20		2	2

가호(세대)			인 구(명)			본관별 성씨(단위: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김해김	남평문	한양조		
26	26		49	23	26	23	2	1		

4. 주산업 및 특산물

벼, 양파

5. 공공기관 및 건물

마을회관1동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조선조 영조때인 1720년 등과하여 전의현감(全義縣監),황주목사(黃州牧使)를 역임하다 은퇴한 김덕희(金德希)가 풍류객(風流客)으로 전국을 돌다가 이 곳에 이르러 조그마한 암자[318]를 짓고 수양하게
되었는데 당산지선(堂山支線)에 있는 복학(伏鶴)의 형국을 보고 1792년에 처일(處一)과 처율(處律)을 불러 이곳에 살게 하였다 한다.

엎드린 학, 학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라는 풍수지시설의 “복학(伏鶴)”을 마을 이름으로 정했다고 하며, 복학동의 학의 알은 현재 마을이 들어선 주택지라고 전해온다.

o 특기사항

유적으로 효열비각(孝烈碑閣 : 김영봉의 처 효열부 광산김씨의 실적비각으로 황주 변시연 찬기), 이 마을 입구에 있다.

이곳 마을의 영향으로 90년대에 양계업을 시작하여 김봉호, 김희용, 김양길, 정송묵등이 4-5만수씩 기르고 있으며, 김종호, 조석만 등은 50여두씩의 소를 기르고 있다.

o 자생조직단체

·상부계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23명이 참여하고 있다.

318) 불당사(佛堂寺)라 했다 하는 절터가 남아있다.

(4) 금곡(金谷←劍谷←今谷)

면적(ha)			종교(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18	12	6		4	9		9		3	2	5	3		2

가호(세대)			인구(명)			본관별 성씨(단위: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김해김	밀양박	달성배		
13	10	3	24	11	13	3	1	9		

4. 주산업 및 특산물

벼

6. 유물과 유적

2백년된 정자나무

7. 마을과 관련된 전설

금이 많이 나와 금곡이라 지명함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연대를 밝힐 자료는 없으나 북성의 한양조(趙)씨가 입촌하여 2백여년 살다가 모두 떠나고 김해김씨 우경(佑　　慶;1608년생)이 1730년경 영광 군남에서 이주하여 살았으며 이어 달성배씨 등이 들어와 살고 있다.

전에는 마을 앞의 산이 칼과 같이 생겼다 하여 검곡(劍谷)이라 했다는데 조선조 성종때 산에 금이 묻혔다하여 금곡(金谷)이라 이름을 바꿨다한다.

o 특기사항

아직 묻혀있다고 구전(口傳)되는 금은 발굴하지 못하고, 70년대에 도자기돌(陶石)을 캐는 석산(石山)이 개발되었다가 중단 되었으며, 마을 입구에는 달성배씨세적비(분성 기석환의 찬)와 김해김씨 시중공파 세장비가 우뚝 서있다.

o 자생조직단체

·마을계 - 마을 전체의 단합을 목적으로 1890년경에 창립 지금에 이르고 있다.

o 배출인물

·배동문(裵東文) : 목사

(5) 완정(完丁 – 完井)

면적(ha)			종교(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6	4	2			4					1		3		1

가호(세대)			인구(명)			본관별 성씨(단위: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김해김	밀양박	달성배	
4	3	1	5	2	3	3		1	

4. 주산업 및 특산물

벼

5. 공공기관 및 건물

모정 1동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복학동 재 넘어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 완정(完丁)마을로 이 마을의 중간지점, 완정교(完丁橋)가 영광, 함평의 군계(郡界)가 되어 한마을이 두 갈래로 분동(分洞)되었으니 함평 땅에 6호가 살고 있어 복학동과 같이 관리하고 있다.

o 특기사항 : 옆 마을이 영광 염산면의 소무슬, 대무슬이며, 주민의 일부가 이웃 주민들과 같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어 이웃군관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으며, 90년대초에 해안선 제방이 소무(小武)에서 해은(海隱)까지 연결되어 바다를 격(隔)했던 양군(兩郡)이 육지로 연결되어 더욱 화합하는 분위기 속에 생업에 종사하고 있음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6) 소동(小洞) : 학산3리

가호(세대)			인구(명)			본관별 성씨(단위: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수원백	전주이	함평이	
20	20		36	15	21	17	2	1	

면적(ha)			종교(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24	12	12	10	4	6						10	15	10	1

4. 주산업 및 특산업

벼

5. 공공기관 및 건물

마을회관 1동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이 마을은 학의 작은 날개 형국이라하여 “작은 나래”라고 부르다가 “소동(小洞)”으로 표기 호징하고 있으며 1800년경 지호의 수원백씨 후손이 이주 정착한 이후 지금은 백씨 17호
전주리씨, 함평이씨 등 20여호가 살고 있다.

o 특기사항

이웃 마을의 영향인 듯 90년대에 백형률 백형룡 백봉인등이 4-5만수씩의 양계업을 하고 있다.

(7) 세곡(細谷) : 가는 골

가호(세대)			인구(명)			본관별 성씨(단위: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수원백	전주이	함평이	밀양박	해주오	기타	
10	10		24	13	11	5	1	1	1	1	1	

면적(ha)			종교(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12	6	6	4		6					10	14			

4. 주산업 및 특산물

벼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이 마을은 “안애기의 뒷등과 연결된 제방 끝에 1930년경에 생긴 어촌(漁村)으로 가는 모래(細砂)가 많이 쌓이는 곳이라 하여 가는굴→가늘골 또는 안사동(雁砂洞)이라 부르며 “세곡(細谷)”으로 표기하다.

o 특기사항

90년대 이후 최근에는 축산분야 한우 양축농가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해변도로 개설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해변이어서 도시민들이 하루쯤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아늑하고 조용한 바닷가 마을이다.

(8) 경기동(景基洞) : 문화촌, 새마을

가호(세대)			인구(명)			본관별 성씨(단위: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수원백	김해김	함평이	
10	10		20	10	10	7	1	2	

면적(ha)			종교(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12	6	6	10							10	10			

4. 주산업 및 특산물

벼, 양파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이 마을은 학의 큰 날개 형국이라 하여 장(長)골, 또는 진골(긴골)이라 부르는 곳이며 1950년대 전주 리씨가 터를 잡아 살다가 1972년 주택단지가 형성되어 문화촌 또는 경기동, 새마을로 부르게 되었다 한다.

o 특기사항

70년대에 전 가구(家口)가 해태양식업을 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었으나, 80년대에 이기종이 양계업을 시작하자 뒤따라 백형룔 백형원 등의 5~6만수의 양계장이 즐비하여 학산리 전역과 파급하는 전진 기지로 마을 이름 그대로 빛이 나는 기지로 발전하고 있다.

(9) 해은동(海隱洞) : 학산4리

가호(세대)			인구(명)			본관별 성씨(단위: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달성배	진주정	해주최	김해김	수원백	밀양박	함평이	전주이	기타
26	26		86	34	52	6	3	4	3	2	1	2	2	3

면적(ha)			종교(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20	15	5	9	16	1	6	8	4	3	10	8	19	21	7

4. 주산업 및 특산물

해태, 바지락, 낙지, 농산물

5. 공공기관 및 건물

어민회관, 마을시정

8. 특이한 민속제향과 놀이
어촌 풍어제

10. 자생조직
청년회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200여년전에 달성배씨가 입촌했다고 전해오는 이 마을 입구에는 "달성배씨 세장산"이라는 비석이 서 있고, 현재 배씨, 김·최·이·문씨 등 20여호가 살고 있다. 학산만(鶴山灣)의 돌출부분, 해제면 도리포와 마주하는 곳으로 소아구(소구)가 숨어있는 형국이라 하여 해은동이라 부른다 한다.

o 특기사항

1965년 백영권(白永權)에 의해 시도 되었던 『학산자조근로간척사업장』은 4~5년을 끌다가 미결상태에 있으며, 1980년대에 혜은교회가 들어왔다.

1965년 해상간첩 침투 방지 시범훈련을 한 곳이기도 하다.

(10) 금개동(錦開洞);금계(金溪)

면적(ha)			종교(세대)			연령대별 인구 구성(명)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8	6	2	4	10			3	2	6	3	17	9	4	1

가호(세대)			인구(명)			본관별 성씨(단위: 세대)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김해김	함평이	진주강	해주최	달성배	수원백	기타	
14	14		45	21	24	3	3	1	1	2	1	3	

4. 주산업 및 특산물
해태, 내수면 민물장어

5. 공공기관 및 건물
수산물간이집하장

6.유물 유적
1965년 해상간첩침투 방지 시범훈련장

7. 특이한 민속놀이와 민속제향
어촌 풍어제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이지역 땅은 모두 달성 배씨 정현의 산이었다. 1970년 김종규가 이곳 산을 매입하여 독립가옥을 짓고 삽과 굉이로 개간하여 살고 있었다. 때마침 함평수산업협동조합에서 앞 바다 함평항에서 해태 시험 발을 설치하여 성공하자 주민은 물론 각지에서 해태양식을 목적으로 특히 완도 진도 신안등지에서 이주하여 오면서 마을이 형성하게 되었다. 지금은 전업하여 양계 양만어업에 轉業(전업)하고 몇 가구만 해태 양식을 하고 있다.

마을 유래는 구전에 의하면 많은 풍수들이 이곳을 답사하여 한결같이 장차 큰 터가 되는 형국이라 하였다 한다. 이곳 지명은 진개, 사유 등 불구지라 불렀다. 불구지는 옛적에 불을 피워 무안군 도포리 나룻배를 건너오게 하는 불 信號(신호)를 하였다 하여 불구지라 한다. 조그마한 평산 불구지봉에 앉아보면 무안군 도포리로 뻗은 산맥은 병풍처럼 휘감아 서남풍을 막아주고 영광군 옥실리 향화도는 북풍을 막아 마을의 훈훈함과 아름다움을 더하여 준다. 사람들이 함평항 조객수를 이렇게 노래하였다고 전해온다.

만조금반수(滿潮金盤水)를 세세풍만가(世世豊萬家)요 한조청계류(汗潮淸溪流)하니 백학사서동(白鶴沙逝洞)이라 하였으니 위 글은 장차 큰 터로서 만가가 풍요롭게 살며 많은 인파가 모여 백사장 쉼터에서 춤을 추며 여가를 즐긴다 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 금(金)자와 계(溪) 자를 빌려 마을 명을 금계라 하였다.

o 특기사항

70년대 말에 이정석 형제와 강대열 배기태 정지수등이 133ha에 2,460책의 해태양식장을 인가박아 호황(好況)을 누려 1980년 이후 3개소에 해태가공공장이 건축외었고, 주위의 모래사장을 이용하여 해수욕장을 개장(開場)한 바도 있으며, 김종규등이 양계를 시작하여 90년대에는 장용주 김길영 백천보 배복묵 배귀태 등이 4-5 만수씩 양계업이 성행하고, 지재갑이 장어 광어 전복 등 수조식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함평에서 제일 큰 양만장이다.

o 배출인물

·김현도(金現濤) : 제38회 사법시험합격, 광주지검 판사. 현재 변호사

제5절 신광면(新光面)

집필 / 이 이 행

가덕리(加德里) / 595
계천리(桂川里) / 597
동정리(東井里) / 601
백운리(白雲里) / 604
보여리(甫余里) / 607
복흥리(伏興里) / 610
삼덕리(三德里) / 612
송사리(松士里) / 617
원산리(元山里) / 620
월암리(月岩里) / 624
유천리(柳川里) / 628
함정리(咸井里) / 630

1. 면사무소 소재지

월암리 211-1번지. 시설로는 사무실 160평, 창고 35평, 숙직실 등 부속시설 7평이며 1983년 8월 법원장을 역임한 이종표가 복지회관을 독담 건립해 주었다.

o 1999. 7. 1 현재 면사무소 공무원 정원 다음의 표와 같다.

사무관	행정주사	행정주사보	농업주사보	보건주사보	별정7급	행정서기	토목서기	기능직9급	고용
1	4	3	0	0	0	2	1	2	0

2. 연혁

백제때는 굴내현, 신라와 고려때는 함풍편, 조선시대에는 함평현 땅이었고 신광면이란 이름이 바뀜이 없이 오늘에 이르렀으며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당시 54개 마을을 관할하였는데 관할구역도 몇 개의 마을이 조정되었을 뿐 큰 변동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중산과 하계마을 일부가 손불면 동암리로, 학천 일부가 손불ㄹ면 죽암리로 편입되었으며, 손불면의 농암 일부가 유천리에 편입되었고 손불면의 장전 일부가 계천리로, 등촌·소명 각각 일부가 가덕리로 보전 일부가 영광군 군남면 대덕리로 영광군 불갑면의 암촌 일부와 구봉 전역이 함정리에 편입되었다. 동쪽은 해보면과 대동면, 남쪽은 대동면과 함평읍, 서쪽은 손불면, 북쪽은 영광군 군남면과 불갑면에 접해 있다

* 참고1. 1789년 호구 총수 관할 지명(地名) - 여기서 리(里)는 자연부락임(41개마을)

미출동리(米出洞里), 벽류동리(碧柳洞里), 가리(加里), 서목동리(西目洞里), 장산리(長山里), 월성리(月城里), 월흥리(月興里), 유암리(流巖里), 신천리(新川里), 용암리(用巖里), 연천리(燕川里), 연서리(延西里), 산동리(山洞里), 산저리(山底里), 가야동리(加也洞里), 산직리(山直里), 사천리(沙川里), 유덕목리(柳德木里), 박치리(朴峙里), 복령리(福令里), 덕림리(德林里), 백오개리(白午介里), 운제리(云梯里), 덕천리(德川里), 초내동리(草乃洞里), 신산직리(新山直里), 입점리(笠店里), 원남(元南), 좌야(佐也), 청계동리(淸溪洞里), 하촌리(下村里), 동산리(東山里), 용천리(用村里), 용호동리(用虎洞里), 구판교리(舊板橋里), 신여리(新余里), 보여리(甫余里), 송계리(松溪里), 해안리(海安里), 수장동리(水長洞里), 송정동리(松亭洞里)

*참고2. 1912년 행정구역 관할 지명(48개) – 리(里) 생략함

미출(米出), 벽유(碧柳), 학천(鶴川), 가리(加里), 호덕(虎德), 사동(士洞), 당산(棠山), 장산(長山), 상월흥(上月興), 하월흥(河月興), 신천(申川), 내동(內洞), 용암(龍岩), 연천(燕川), 가야(加也), 종곡(宗谷), 사천(沙川), 하계(河溪), 석계(石溪), 유덕(有德), 복치(伏峙), 신흥(申興), 덕천(德川), 덕산(德山), 덕암(德岩), 입점(笠店), 화산(化山), 원남(元南), 백오(白午), 운제(雲梯), 저동(苧洞), 좌야(佐也), 소금(所今), 함봉(咸峯), 연화(蓮花), 무송(茂松), 청계(淸溪), 동산(東山), 기동(己洞), 구여(九余), 보전(甫田), 사간(士干), 송계(松溪), 삼천(三泉), 갈은(葛銀), 해안(海岸), 수정(水井), 신여(申呂)

* 참고3. 1914년 행정구역 관할

리 명(리 명)	개 편 이 전 의 면 리(면 리)
가덕리(가덕리)	신광면(新光面) 호덕리(虎德里) 가리(加里) 전역과 손불면(孫佛面) 등촌리(等村里) 소명리(小明里) 각 일부
계천리(계천리)	신광면(新光面) 사천리(沙川里) 실산리(實山里) 계월리(桂月里) 사동리(寺洞里) 전역과 손불면(孫佛面) 장전리(長田里) 일부
동정리(동정리)	신광면(新光面) 신여리(申呂里) 용호리(龍虎里) 강변리(江邊里) 동산리(東山里) 수정리(水井里) 전역과 삼천리(三泉里) 일부
백운리(백운리)	신광면(新光面) 산정리(山丁里) 백오리(白午里) 종곡리(宗谷里) 저동리(苧洞里) 전역과 운제리(雲梯里) 좌야리(佐也里) 각 일부
보여리(보여리)	신광면(新光面) 구여리(九余里) 기동리(己洞里) 전역과 보전리(甫田里)일부
복흥리(복흥리)	신광면(新光面) 신흥리(新興里) 복치리(伏峙里) 석계리(石溪里) 유덕리(有德里) 전역과 하계리(荷溪里) 중산리(中山里) 각 일부
삼덕리(삼덕리)	신광면(新光面) 덕천리(德川里) 덕산리(德山里) 덕암리(德岩里) 좌야리(佐也里) 운제리(雲梯里) 각 일부
송사리(송사리)	신광면(新光面) 사간리(沙干里) 계동리(桂洞里) 송계리(松溪里) 갈마리(渴馬里) 해안리(海岸里) 전역과 삼천리(三泉里)일부
원산리(원산리)	신광면(新光面) 화산리(化山里) 원남리(元南里) 입점리(笠店里) 학동리(鶴洞里)전역
월암리(월암리)	신광면(新光面) 가야리(加也里) 연천리(燕川里) 신천리(新川里) 용암리(龍岩里) 내동리(內洞里) 상월흥리(上月興里) 하월흥리(下月興里) 전역과 장산리(長山里)일부
유천리(유천리)	신광면(新光面) 벽유리(碧柳里) 미출리(米出里) 전역과 학천리(鶴川里) 손불면(孫佛面) 용암리(龍岩里) 각 일부
함정리(함정리)	신광면(新光面) 연화리(蓮花里) 청계리(淸溪里) 무송리(茂松里) 월산리(月山里) 함봉리(咸峰里) 금정리(金井里) 전역과 좌야리(佐也里) 영광군(靈光郡) 불갑면(佛甲面) 암촌리(巖村里) 각 일부와 구봉리(九峰里) 전역

3. 논, 밭 면적과 가구수(家口數) 및 인구수 일람표

99년 7월 1일 현재

구분 / 리별	마을 이름	면 적(ha)			가구수	인 구 수		
		답	전	계		남	여	계
보여리	보 전	28	14	42	23	30	25	55
〃	장 전	15	8.5	23.5	4	4	4	8
〃	기 동	7	1.9	8.0	6	9	6	15
〃	텃 굴				7	7	10	17
송사1리	송 계	18	19	37	2	26	18	44
〃	사 간	15	19.8	34.8	14	22	16	38
송사2리	삼천동	14	10.2	24.2	16	16	17	33
〃	해 안	17	9	36	15	13	15	28
동림1리	범 천	29	14	43	27	28	30	58
〃	삼 향	15	8.0	23	20	26	28	54
동림2리	수 정	29	13.2	42.2	8	22	26	48
〃	신 여	25	13	38	16	20	23	43
함정1리	구 봉	16.8	12	28.8	35	43	39	82
〃	연 화	12.3	10.2	22.5	24	39	27	66
〃	지 경	6.3	5.7	12	4	7	6	13
함정2리	무 송	14	7.2	21.2	15	16	14	30
〃	청 계	15	7	22	12	15	13	28
원산1리	원 남	19	17.3	36.3	22	28	25	53
〃	지 호	10	8	18	11	16	17	33
원산2리	덕 동	14.5	10	24.5	18	25	27	52
〃	학 동	15	12	27	18	25	27	52
삼덕1리	덕 산	27	23.2	50.2	42	53	50	103
삼덕2리	덕 천	26	15.1	41.1	71	92	105	197
삼덕3리	좌 야	22	5	27	49	68	72	140
〃	원 골	3	2	5	3	3	4	7
〃	가늠정	2	1	3	5	8	6	14
백운1리	운 제	10	5.2	15.2	18	20	25	45
〃	저 동	16.2	11.7	27.9	16	19	17	36
〃	백 오	10	6	16	8	12	13	35
백운2리	신 기	14	6.8	20.8	17	21	26	47
〃	종 곡	15	5	20	41	72	68	140
복흥1리	복 치	43	20	63	28	35	34	69
복흥2리	유 덕	10.1	2.7	12.8	3	1	3	4
〃	괴 치	15.9	6.6	22.5	21	23	21	44
〃	석 계	15.3	5.8	21.1	12	8	12	20
계천1리	계 월	26.8	7.1	33.9	40	44	23	67
〃	사 동	16.2	4.6	20.8	13	15	18	33
계천2리	사 천	27.3	7.2	34.5	33	29	23	52
〃	실 산	16.1	5.1	21.2	10	8	13	21
월암1리	연 천	12.1	12.3	24.4	45	39	37	76
〃	신 혼	1.2	14.8	16.0	4	4	6	10
〃	매 월	0.6	7.2	7.8	1	1	1	2
〃	월 성	2.5	0.5	3.0	6	4	7	11
월암2리	가 야	4.1	0.1	4.2	100	99	114	213
가덕1리	가 리	16.7	17.1	33.8	33	24	28	52

구분 / 리별	마을 이름	면 적(ha)			가구수	인 구 수		
		답	전	계		남	여	계
가덕2리	매 산	17.3	17.8	35.1	29	36	34	70
〃	호 덕	16.1	16.3	32.4	11	9	12	21
유천1리	벽 유	11.5	8.7	20.2	29	23	29	52
유천2리	미 출	12.6	9.2	21.8	38	35	38	73
유천3리	학 천	10.4	8.2	18.6	33	26	36	62

4. 면내의 10대 씨족(十代氏族)

순 위	본관별(본관별) 성씨	거주가구수	집 단 거 주 마 을
1	김해김씨	105	송사리 송계
2	청송심씨	92	복흥리 복치
3	함평모씨	85	삼덕리 덕천
4	광산김씨	67	백운리 운제
5	함평이씨	45	함정리 연화
6	좌평윤씨	34	삼덕리 덕산
7	평강채씨	25	보여리 보전
8	함평노씨	24	유천리 미출
9	달성배씨	23	유천리 학천
10	밀양박씨	18	가덕리 가리

5. 면의원(面議員) 명단

1) 제 1 대 (初代)

직 위	성 명	출 신	직 위	성 명	출 신
의 장	김 석 용	계 천 리	의 원	박 규 현	원 산 리
부의장	심 기 태	복 흥 리	〃	김 차 용	삼 덕 리
의 원	김 필 현	보 여 리	〃	김 영 두	백 운 리
〃	이 재 향	송 사 리	〃	김 판 옥	월 암 리
〃	노 동 채	동 정 리	〃	조 순 용	가 덕 리
〃	김 상 근	함 정 리	〃	노 만 길	유 천 리

2) 제 2 대 (二代)

직 위	성 명	출 신	직 위	성 명	출 신
의 장	김 덕 근	함 정 리	의 원	모 창 기	유 천 리
부의장	심 기 동	복 흥 리	〃	백 인 선	월 암 리
의 원	박 정 희	보 여 리	〃	심 판 섭	백 운 리
〃	노 동 채	동 정 리	〃	임 재 관	가 덕 리
〃	김 석 용	계 천 리	〃	이 병 길	월 암 리
〃	윤 옥 병	삼 덕 리	〃	홍 남 식	유 천 리

3) 제 3 대 (三代)

직 위	성 명	출 신	직 위	성 명	출 신
의 장	오 근 필	백 운 리	의 원	윤 병	유 천 리
부의장	김 문 현	송 사 리	〃	장 안 수	계 천 리
의 원	채 희 원	보 여 리	〃	김 영 철	〃
〃	노 장 섭	동 정 리	〃	심기혁(종)	가 덕 리
〃	김 용 학	월 산 리	〃	홍 정 섭	월 암 리
〃	모 국 원	삼 덕 리			

6. 역대 면장(歷代面長) 명단

대	성 명	출 신 리	재 임 기 간
제1대	배 진 명	유 천 리	한국전쟁시 소각으로 재임기간 불분명
제2대	심 관 택	복 흥 리	한국전쟁시 소각으로 재임기간 불분명
제3대	이 화 여	월 암 리	한국전쟁시 소각으로 재임기간 불분명
제4대	이 화 여	월 암 리	한국전쟁시 소각으로 재임기간 불분명
제5대	이 화 여	월 암 리	한국전쟁시 소각으로 재임기간 불분명
제6대	심 기 철	복 흥 리	한국전쟁시 소각으로 재임기간 불분명
제7대	김 동 욱	유 천 리	한국전쟁시 소각으로 재임기간 불분명
제8대	김 낙 섭	유 천 리	한국전쟁시 소각으로 재임기간 불분명
제9대	이 병 길	월 암 리	한국전쟁시 소각으로 재임기간 불분명
제10대	김 덕 근	월 암 리	1947. 10. 22 ~ 1949. 01. 17
제11대	김 동 표	유 천 리	1949. 01. 18 ~ 1951. 09. 09
제12대	이 경 우	월 암 리	1951. 09. 10 ~ 1952. 05. 04
제13대	김 동 표	유 천 리	1952. 05. 05 ~ 1956. 01. 06
제14대	김 동 근	함 정 리	1956. 01. 16 ~ 1958. 06. 03
제15대	이 종 하	월 암 리	1958. 07. 08 ~ 1960. 12. 25
제16대	김 동 표	유 천 리	1960. 12. 26 ~ 1961. 06. 01
제17대	이 경 우	월 암 리	1961. 06. 30 ~ 1973. 05. 03
제18대	강 두 규	함 평 읍	1973. 06. 22 ~ 1974. 05. 02
제19대	심 기 백	복 흥 리	1974. 05. 03 ~ 1974. 12. 26
제20대	김 길 용	삼 덕 리	1975. 01. 07 ~ 1975. 12. 11
제21대	조 종 연	가 덕 리	1976. 01. 28 ~ 1992. 10. 08
제22대	배 도 연	유 천 리	1992. 10. 10 ~ 1997. 10. 04
제23대	정 수 기	계 천 리	1997. 10. 07 ~ 1998. 01. 19
제24대	김 풍 호	장 성 군	1998. 01. 20 ~ 1999. 01. 21
제25대	이 진 행	대 동 면	1999. 01. 22 ~ 2000. 01. 23
제26대	정 영 오	나 산 면	2000. 01. 24 ~ 2001. 01. 14
제27대	정 수 기	계 천 리	2002. 01. 15 ~ 2002. 09. 09
제28대	심 재 신	복 흥 리	2002. 09. 09 ~ 2005. 04. 13
제29대	김 광 현	나 주 시	2005. 04. 13 ~ 2006. 01. 26
제30대	강 형 석	곡 성 군	2006. 01. 27 ~ 2006. 09. 12
제31대	김 우 성	손 불 면	2006. 09. 22 ~ 2007. 07. 22
제32대	이 건 섭	화 순 군	2007. 07. 23 ~ 2008. 01. 23
직무대리	이 천 수	계 천 리	2008. 02. 01 ~ 2009. 07. 01
제33대	정 기 복	월 야 면	2009. 07. 02 ~ 현 재

7. 마을사(史)

1) 가덕리(加德里)

이 지역은 신광면과 손불면에 속했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이제(里制)를 펴면서 신광면에 속했던 호덕(虎德), 가리(加里)전역과 손불면에 속했던 등촌(等村), 소명(小明) 각 일부를 편입 가리에서 “加”자와 호덕에서 “德”자를 따 가덕리(加德里)라 하였다.

(1) 가리(加里)

인 구(명)			가 구(호)			면 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71	38	33	32	32		175	29	25	109	12
산 업				성 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계	김해김씨	경주김씨	기타			
벼,보리	고추,마늘	벼		32	16	4	12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고려 때부터 조선조까지 역참제에 의한 파발마를 갈아타던 역이었다. 또 450여년 전부터 100여년간 가로사(加露寺)라는 절이 있었는데 절의 후문에 높이 2m, 넓이 1.5m의 돌을 세웠다고 하며 그 돌이 일명 ‘동장군비’로 불리었고 지금은 선돌백이(박이)라 부른다. 이 선돌에는 비문이 잇었으나 풍상에 마멸되어 알 수 없고 가로사가 폐찰된 후 한양조씨들이 절터 부근에 터를 잡아 마을을 이루었다고 전하나 지금은 이곳에 마을은 없다.
뒤이어 밀양 박씨와 제주 양씨가 살았으며 그 뒤에 풍천 임씨가 입향 했다.

o 문화유적과 지명

·가리역터 : 고려때는 가풍역(街豊驛)이라 했고 조선조때는 청암도찰방에 딸린 가리역터였다. (관리 – 官吏 6, 말 – 馬 9, 노 – 奴 9)
·탑터(塔址) : 속칭 사랑대태 동부쪽 골짜기에 있었다.
·선돌 : 높이 1.45m, 폭 1.30m, 두께 0.6m의 선돌 2기가 있다.
·솔대 : 도청배미 동쪽 들에 솔대를 세웠다. 지금은 도청배미가 아니라 솔대배미라 한다.

o 배출인물

·안영노(安榮老) : 목사
·박요일(朴嶢日) : 목사
·박요섭(朴嶢燮) : 목사
·정 부 : 광주보건대학장 역임
·최봉기 : 사법고시 35회 합격 변호사
·김재용(金在龍) : 선교사(캐나다)
·나종학(羅種學) : 목사
·박양전(朴良田) : 목사
·정영태 : 광주보건대학교수 역임

(2) 매산(梅山)

인 구(명)			가 구(호)			면 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81	43	38	38	36	2	123	18.6	17.4	87	
산 업				성 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계	김해김씨	창녕조씨	밀양박씨	기타		
벼,보리	고추,양파		벼	38	16	8	6	8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300여년 전에 가리 마을에 살던 한양조씨와 무안에서 이주해 온 김해김씨가 입향 정착하였다 하며 구한말에는 마을 이름을 오산동(烏山洞)이라 칭하였고 일제강점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신광면과 대동면 경계에 매산제가 있다 하여 "매산(梅山)"이라 부르고 있다.

매산

o 자생조직단체

·촌중계 : 마을의 화합과 친목 및 상호 부조 목적으로 조직
·위친계 : 부모 당고시, 회갑때 상호부조 목적으로 조직

o 배출인물

·조종연(趙鍾淵) : 신광면장 역임
·안종열(安鍾烈) : 목사
·임인혁(任寅爀) : 목사
·양명안(梁明安) : 목사
·양정자(梁貞子) : 서울가정법원 부소장
·배성용(裵成龍) : 목사
·최정남(崔正男) : 목사

(3) 호덕(虎德)

인 구(명)			가 구(호)			면 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46	20	26	16	15	1	75.4	9.7	13.7	46	6
산 업				성 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계	김해김씨	창녕조씨		밀양박씨	기타	
벼,보리	고추,마늘		벼	16	8	2		2	4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마을 형성의 연대를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약 300여년 전에 가리에서 살던 창녕조씨가 입촌하여 정착하게 되었으며 이 마을 뒷산에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의 형상이 범같이 생겼다 하여 호덕(虎德)이라 하였다는 설과 옛날에 이 마을에서 호랑이 덫을 놓았다 하여 "범덕굴"이라 하였다 하는 설이 있 으나 지금은 호덕으로 부르고 있다.

o 지명

·오두산(烏頭山) : 텃골 북쪽에 있는 산으로 까마귀 머리처럼 생겼다 하여 오두산이라 하였으며 그곳에는 고인돌이 있었다 한다.

·영계배미 : 진샘거리 서쪽에 있는 논으로서 어느 흉년에 논과 영계 한 마리와 바꾸었다 하여 이 논을 영계배미라 하였다 한다.

o 배출인물

·김두섭(金斗燮) : 신광농협장 역임

2) 계천리(桂川里)

이 지역은 원래 신광면에 속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대 사천(沙川), 실산(實山), 계월(桂月), 사동(寺洞) 전역과 손불면 장전(長田) 일부를 합해 계월에서 "桂"자와 사천에서 "川"자를 따서 계천리(溪川里)라 하였다.

(1) 계월(桂月)

인 구(명)			가 구(호)			면 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78	42	36	29	27	25	70.5	6.5	23	32	9
산 업				성 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계	김해김씨	전주이씨	양성이씨	기타		
벼,보리	고추,마늘		벼	29	6	4	4	15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뒷산이 반달 형국이라 하여 마을 이름을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계월(桂月)”이라고 하였다 한다.

1789년 호구총수 지명에는 장산(長山)으로 나오는데 이는 이곳에 장승이 있어 장승 또는 장생이라 부르던 것을 장산으로 표기한 것 같다. 200여년 전에 처음으로 전주이씨가 입촌했으며 그 후 진주강씨, 함평이씨 등 8개 성씨가 들어와 살고 있다. 마을 어귀에 장승이 서 있었기에 마을 앞 다리 이름이 장승교라 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리 이름을 장산교로 바꾸었으며 장승도 없어진지 오래 된다.

o 특기사항

·전원마을 : 계월 마을을 쾌적한 환경으로 가꾸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어귀부터 곳곳에 꽃과 나무를 심어 아름다운 마을로 변모시켰다.

o 지명

·노리갯재 ; 신광 소재지에서 함평쪽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는데 고개모양이 노루의 목처럼 생겼다 하여 "노리갯재"라 하였다 한다.

o 배출인물

·이명수(李明洙) : 제 39회 사법고시 합격
·이병철(李炳澈) : 제 42회 사법고시 합격

(2) 사동(寺洞)

인 구(명)			가 구(호)			면 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47	26	21	17	15	2	32.4	4.4	10	13	5
산 업				성 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계	광산김씨	해동정씨	김해김씨	기타		
벼,보리	고추,마늘		벼	17	4	4	3	6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뒷산 형국이 베를 짜는 북의 형국이라 해서 사동(梭洞)이라 표기 했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는 사동(士洞)으로 표기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절골(寺洞)"이라 하였다 하며 150여년 전에 김해김씨가 처음으로 들어와 터를 잡았다 한다.

o 전설

·장산들 백비 전설 : <전설항 참조>

o 배출인물

·김재선(金在善) : 사무관. 행정 안전부 과장

(3) 사천(沙川)

인 구(명)			가 구(호)			면 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42	83	41	35	32	3	134	17	33	70	14
산 업				성 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계	흥성장씨	밀양박씨		나주임씨	기타	
벼,보리	토마토,마늘		벼	35	14	3		3	15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조선조 선조때 흥성장씨 이길(以吉)이 1580년경 나주에서 이거 정착하여 마을 앞 냇가에 모래가 많다 하여 "사천(沙川)"이라 하였다 한다. 그가 이조참판의 벼슬을 받기 직전 낙향한 후 교지가 왔으나 사망으로 인해 반려되었다. 그가 죽은 후에도 그의 뒤를 이은 자손들에 의해 사천이란 마을이 계속 유지되었다. 마을의 모양이 새가 저녁에 둥지를 찾아 날아드는 형국이므로 마을 앞에 숲이 있어야 하나 숲이 형성되지 않아 장씨가 크게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o 문화유적

·돈목재(敦睦齋) : 1895(고종32년) 건립, 흥성장씨 종회소

·우송재(友松齋) : 흥성장씨 문중 재실

o 지명

·장목재 : 사천에서 면소재지로 넘어가는 고개인데 장구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사천장(사납장,계천장) : 이 마을에 5일 장이 있었으나 애들 교육상으로나 도의적으로 퇴폐된다 하여 어른들의 반대로 신광소재지로 옮겼다 한다. 신광 소재지 다리 이름이 사천교인 것을 봐도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하마석 : 마을 앞 깃대봉에 하마석 2개가 있었는데 지나가던 나그네는 말에서 내려 걷다가 다시 말을 타고 갔다 하는데 현재는 하마석이 한 개 밖에 없다.
이조판서 장이길이 살았던 마을이라서 유래한 것이다.
·천주교 : 일찍이 천주교가 들어왔으나 심한 박해로 인하여 없어졌다 한다.

o 자생조직

·촌중계 : 참여인원 30명 주민화합 목적
·상포계 : 참여인원 23명 부모 당고시 상호부조 목적

o 배출인물

·장이길(張以吉) : 이조 참판
·장익수(張益洙) : 목사
·장귀생(張貴生) : 인조때의 좌통례
·장안용(張安用) : 인조때의 장령
·장경삼(張慶三) : 동학 농민 혁명의 기수 동학 접주

(4) 실산(實山)

인 구(명)			가 구(호)			면 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23	8	15	8	8		36	4.8	9	19	3.2

산 업			성 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계	강릉유씨	김해김씨	밀양박씨	기타
벼,보리	마늘	벼	8	3	3	1	1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임진왜란때 강릉유씨 병기가 난을 피해 이곳에 정착하였으며 뒷산의 형태가 옥녀가 거문고를 타고 있는 것 같다 하여 “슬산(瑟山)”이라 하였다 한다.
"실매" 라고도 함

실산

o 문화유적

·절터(寺址) : 사천 남쪽 오두산 밑에 있었다고 전해온다.

o 배출인물

·박동주(朴東珠)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원 역임.

3) 동정리(東井里)

원래 이 지겨은 신광면에 속했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이제(里制)를 시행하면서 신여(申呂), 용호(龍虎), 강변(江邊), 동산(東山), 수정(水井) 전역과 삼천동(三泉洞) 일부를 합해 동산에서 "동(東)"자와 수정에서 "정(井)"자를 따 동정리(東井里)라 하였다.

(1) 냉천(冷泉)

인 구(명)			가 구(호)			면 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58	28	30	27	22	5	124.1	14	29	71	10.1
산 업				성 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계	청송심씨	양성이씨	함평이씨	기타		
벼,보리	양파,마늘		벼	27	14	4	4	5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마을의 노거수(느티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래 전부터
이 곳에 마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의령여씨가 거주하면서 동산(동산, 1789년 호구 총수 지명, 1914년 행정구역개편 지명에도 동산으로 표기됨)마을이라 칭하였으나 청송심씨가 입향하고 근세에 동산마을을 정정하여 냉천(冷泉)이라 하였다.

청송심씨 일가가 시원한 물을 찾아 휴양지를 택한 것이 마을을 형성하게 된 배경이며 어느 곳을 파도 시원한 지하수가 나오기 때문에 마을 이름을 냉천이라 하였다 한다.

o 노거수

·당산나무 : 동정리 119번지에 있는 느티나무로 수령 400년, 높이 11m, 둘레 4m로서 보호수로 지정돼 있다.

o 지명

·망월동(望月洞) : 장목재 동남쪽에 있는 산으로 해마다 정월 대보름이면 이 봉우리에서 달맞이를 한다.

·함정머리 : 용호동 서쪽에 있는 산으로 범을 잡는 함정을 팠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o 배출인물

·심기용(沈棋庸) : 함평군 내무과장 역임.

(2) 삼양동(三陽洞)

인 구(명)			가 구(호)			면 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54	26	28	20	18	2	71	8.0	23	31	9.0

산 업			성 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계	청송심씨	광산노씨	창녕조씨	기타
벼,보리	고추,양파	벼	20	6	6	5	3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삼양동

이 마을은 원래 키(치)명당이라 칭하였는데 키명당이라는 명칭은 노구봉이란 산의 위치가 키의 끝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 후 이 지역을 노들강변, 키명당, 개무리라는 세 마을을 합쳐 부르는 이름이 "삼양동(三陽洞)"이며 45년 전에 창령 조씨가 터를 잡은 마을이다.

o 자생조직

·상포계 : 참여인원 17명 부모 당고시 상호부조 목적
·정조계 : 참여인원 7명 자녀 교육 및 치가 목적

o 배출인물

·노영환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함평군 JC회장 역임
·김옥섭 ; 제 40회 사법 고시 합격

(3) 수정동(水井洞)

인 구(명)			가 구(호)			면 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48	22	26	18	15	3	117.4	13.2	29	8	7.2

산 업			성 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계	김해김씨	광산노씨	기타
벼,보리	고추,마늘	벼	18	9	6	3

수정동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물이 맑다하여 마을 이름을 수정동(水井洞)이라 했다 한다.

500여년 전에 제주양씨가 들어와 성촌했다고 전하나 그 자손은 살고 있지 않다. 그 후 400여년 전에 광산노씨 기벽(起壁)과 1750년경 김해김씨 윤재(允載)와 원재(元載)가 송계에서 이주한 이

래 그 자손이 번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o 특이한 민속 제향

·당산제 ; 매년 정월 대보름이면 노씨와 김씨가 입향한 기념으로 심었다는 느티나무에서 마을의 번창과 풍년을 기원하는 당산제를 올린다.

o 배출인물

·이기홍(李基洪) : 국회의원 비서관, 나산그룹 문화담당 이사 역임

·이용헌(李龍憲) : 1대 함평군의원 역임.

(4) 신여(申呂)

인 구(명)			가 구(호)			면 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43	20	23	16	13	3	97	13	25	53	60

산 업			성 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계	김해김씨	풍천임씨	영성정씨	기타
벼,보리	고추,양파	벼	16	5	2	2	7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마을의 뒷산에 학(鶴)명당이 있다고 알려졌으며 노들강변 서북쪽에 위치한 마을로 신씨와 여씨가 많이 살았다 하여 “신여(申呂)”라고 전하나 1789년 호구 총수 지명에는 신여(申余)로 되어 있다. 근래에 마을 동편에 동정제가 축조되어 낚시와 보트놀이 등 여가 선용(레저) 휴양명소로서 인근 도시와 경상도에서까지 관광객과 태공들이 몰리고 있다. 그리고 마음 놓고 물 걱정 없이 풍년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신여

o 특기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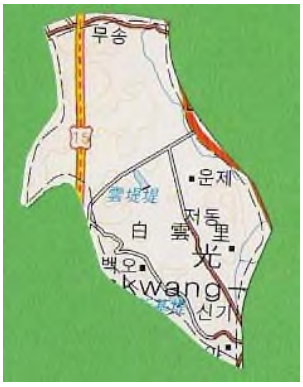
가난을 몰아내고 잘 살아 보자는 일념으로 전 주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마을 가꾸기에 발 벗고 나섰다. 특히 퇴비증산에 주력한 결과 1986년에 도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그 뿐 아니라 주민들이 심성이 바르고 인심이 순후해서 3년 연속(‘96, ’97, ‘98)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돼 법무부장관 표창과 광주지방검찰청장의 표창을 받았다. 각 일천만원씩 상금을 받음

o 배출인물

·한상국(韓相國) : 국회의원 비서관 역임

·노장섭(盧長燮) : 신광농협조합장 역임. 시가계 국창 전국 시가경연대회 심사위원

4) 백운리(白雲里)



원래 신광면에 속했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이제(里制)를 실시하면서 산정(山丁), 백오(白午), 종곡(宗谷), 저동(苧洞) 전역과 운제(雲梯)와 좌야(佐也) 각 일부를 합쳐 백오에서 "백(白)"자와 운제에서 "운(雲)"자를 따서 백운리(白雲里)라 하였다.

(1) 백오(白午)

인 구(명)			가 구(호)			면 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25	12	13	8	8		48.5	6	10	30	25

산 업			성 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계	청송심씨	경주김씨	기타
벼,보리	고추	벼	8	6	1	1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흰 소가 하늘을 보고 울었다 해서 마을 이름을 "백우(白牛)"라 하였는데 부르기 쉽게 "백오(白午)"로 부르고 있다.

1789년 호구 총수 지명에 백오개(白午介)로 표기된 것을 보면 배우개라는 우리말을 한자로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 같다. 이 마을 주변에 고인돌 등 청동기시대의 유적들이 있었던 것으로 선사시대에도 이 곳에 사람이 살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지금은 청동기시대 유적들의 흔적은 없다. 광산김씨가 입향하여 정착생활 을 시작한 이래 350여년전에 청송심씨 안평이 입향하여 살았다. 그 후손들이 지금도 이 마을에 주로 많이 살고 있다.

o 특기사항

·우물 : 이 마을 앞에는 샘이 있는데 광산김씨가 이 마을에 입촌하게 된 동기는 이 샘물이 너무도 맑고 시원했기 때문에 정착했다고 한다. 마을사람들은 이 샘물을 겨울에는 온천수로 사용하고 여름에는 냉수로 이용하였다. 1968년의 한해 때에도 이 샘물만은 가뭄을 타지 않아 인근 주민까지도 혜택을 봤다한다.

(2) 운제(雲梯)

인 구(명)			가 구(호)			면 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45	20	25	18	14	4	43.2	52	10	26	2
산 업					성 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계	해주최씨	창녕조씨	해주오씨	기타	
벼,보리	고추·양파		벼		18	7	3	3	5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운제

마을이 풀무형이라 하여 마을 이름을 “운제(雲悌)”라 하였다고 하는데 1789년 호구 총수에는 운제(云悌)로 표기되어 있다.

저동마을보다는 터가 먼저 생겼으며 200여년 전 해주최씨가 처음으로 입촌하여 마을을 형성하고 살던 중 뒤이어 많은 성씨가 들어와 함께 살고 있다.

o 문화유적

·절터(寺址) : 태봉산 골짜기에 있었음.

(3) 저동(苧洞)

인 구(명)			가 구(호)			면 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36	19	17	16	12	4	89.6	11.7	16.2	56.7	6.0
산 업					성 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계	해주최씨	창녕조씨	해주오씨	기타	
벼,보리	고추·마늘		벼		16	7	2	2	5	

저동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마을 형국이 개가 잠자는 형국이라 해서 “숙굴(宿狗)”이라 하였다. 하나 그보다는 이 마을에서 숯을 구웠기 때문에 마을 이름이 숯굴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후에 모시가 많이 나는 마을이라 해서 “저동(苧洞)”이라고 하였다.

지금은 숙굴이란 촌명은 행정상 사용하지는 않지만 외부 사람들에게는 “저동”보다는 더 익숙해져 있는 편이다.

광산김씨 유(瑜)가 월암리 연천에 터를 잡았다가 1620년경 이곳에 정착함으로써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o 문화유적

·숯터(炭址) : 저동에서 숯을 구웠다 함.
그래서 옛 지명 그대로 숯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o 배출인물

·최희영 : 은행지점장 역임
·최규영 : 엠파이어 대표 역임
·김영균 : 신광농협장 역임
·김영호 : 전남도의회 의원 역임
·김영우(金映佑) : 제32회 기술고등고시 합격
·김영웅(金英雄) : 토지개발공사 대불공단 단장 역임. 토지개발공사 박물관장

(4) 종곡(宗谷)

인 구(명)			가 구(호)			면 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140	72	68	20	15	5	63.6	5	15	37.2	6.4

산 업			성 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계	해주최씨	창녕조씨	해주오씨	기타
벼,보리	고추·양파	벼	20	6	4	3	7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종곡

신기마을과 면소재지 북서쪽 1km지점에 위치한 마을로 마을 앞의 당산나무(감나무)로 보아 오래된 마을로 추정되나 기록으로는 300여년전에 흥성장씨와 광산김씨가 입향 정착하여 지금도 그 두 성씨가 살고 있으며 그 외 성씨도 살고 있다. 최근 들어 면소재지 부근에 상가가 조성됨으로써 주민의 편익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택시부를 비롯하여 정미소, 슈퍼, 약방, 파출소가 있어 다른 마을보다는 편리한 생활을 해오고 있는 편이다.

o 문화유적

·수존재(修尊齋) : 함평노씨 노창종, 노현참의 분필소

o 특기사항

이 마을에는 각시 감나무(암감나무)가 있는데 수령350년, 높이 9m, 둘레3m이며 마을 당산나무로 여기고 있다 .매년 정월 대보름에 제를 올리고 농악놀이로 하루를 즐기는 풍습이 있으며 감나무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크다고 한다. 감 열매가 잘 보이지 않는다 하여 암감나무로 불리우며 현재도 감이 열린다. 그리고 수진바위라 하는 넓은 바위와 그 옆에 수 백년 묵은 팽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삼국전쟁 때 백제군사가 파수를 섰다 하여 수진(守陳)바위라는 설도 있는데 이 바위는 지금도 여름에 주민의 피서지가 되고 있다.

(5) 신기(新基)

인 구(명)			가 구(호)			면 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47	21	26	17	15	2	127.6	6.8	14	33.8	6.2
산 업					성 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계	광산김씨	함평이씨	함평모씨	기타	
벼,보리	고추·양파		벼		17	8	4	2	3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종곡마을로부터 갈라져 나와 100여년 전 흥성장씨가 입향하여 새로 형성된 터라 하여 "새터"라고 부르고 있다.

한문 표기로는 "신기(新基)"라고 한다. 뒤로는 군장산(軍藏山)이 둘러싸고 앞으로는 들 건너 신광천이 흐르고 면소재가 가까워 살아가는데 편리한 곳이다.

o 지명

· 마을 뒷산의 이름이 군장산(軍藏山)인데 삼국시대 김유신의 군사가 전략상 매복해 있었다고 하여 군장산(軍藏山)이라고 불리어 진다고 한다.

o 배출인물

·유동인(庾東仁) : 목포향토문화관장 역임
·이준범(李俊範) : 신광면장 역임

5) 보여리(甫余里)

원래 이 지역은 신광면에 속했으나 1914년에 이제(里制)를 시행하면서 구여(九余), 기동(己洞) 전역과 보전(甫田) 일부를 합해 보전에서 "보(甫)"자와 구여에서 "여(余)"자를 따 보여리(甫余里)라 하였다.

(1) 보전(甫田)

인 구(명)			가 구(호)			면 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55	30	25	23	20	3	108	14	28	62	4

산 업			성 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계	평강채씨	김해김씨	신안주씨	기타
벼,보리	고추·양파	벼	23	15	6	2	

보전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300년 전에 김해김씨가 지장골이라는 곳에 들어와 살았다고 하며 그 후 100여년전에 평강채씨 덕인이 무안군 망운면에서 입향하여 정착하였다.

지금도 덕인의 효자문이 보존되고 있다.

평산동에 있는 고인돌로 미루어 보아 마을의 역사는 선사시대 때부터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와 터"라는 말이 지금도 전해오고 있는데 개구리가 물에 떠 있는 형국, 즉 부와(浮蛙)가 원래 이곳의 지명이었다고 한다.

o 문화유적

·이 마을 서쪽 100m 지점에 선사시대로 추정되는 고인돌(장축 9.10m, 단축 2.15m, 높이 0.7m)이 있다. 또 고인돌 앞에 선돌 1기가 있다.

o 노거수·민속제향·전설

·이 마을에 350여년전으로 추정되는 느티나무 10여 그루가 있다가 7그루가 고목이 되어 베어지고 둘레 3m의 느티나무 3그루만 보존되고 있는데 정월 대보름이면 마을 전 주민이 당산제를 지내고 있다. 마을 형국이 물 위에 떠 있는 개구리 모양인데 물이 없어 활동을 못했다 한다. 즉 마을이 번창하지를 못했다. 그런데 동정리, 보여리 일부에 걸쳐 큰 저수지(東井堤)가 축조됨으로써 개구리가 물을 만나게 되어 마을이 크게 발전하였다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o 자생조직단체

·촌중계 : 부모 당고시 상호부조 목적으로 조직

·상포계 : 부모 상사시 상조 목적으로 조직

o 배출인물

·채양기(蔡良基) : 군법무관 역임

·채수용(蔡洙庸) : 한학자

·채정오(蔡正吾) : 조선조 한학자

·채경희(蔡京熙) ; 신광농협조합장 역임

(2) 기동(基洞)

인 구(명)			가 구(호)			면 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15	9	6	6	4	2	19.5	1.9	7	8.4	2.2
산 업					성 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계	평강채씨	밀양박씨	김해김씨	기타	
벼,보리	고추·양파		벼		6	2	2	2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기동

1836년경 신안주씨 수자(秀者)가 입향 정착하여 마을 이름을 처음에는 텃골이라 칭하였으나 후에는 기동(己洞)이라 부르다

그 후 다시 "기동(基洞)"으로 바꾸었다 한다.

영광군 군남면 송암리 송림마을과 보전마을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봉마을과 경계에 있다.

마을 뒤로는 달봉산이 있고 동정제가 축조되어 마을의 부를 가져오게 되었다 한다.

o 지명

·노가배미 : 텃골 북쪽에 있는 논으로 노가가 일구었다 하여 노가배미라 부른다.

·퇴 낏 재 : 놋등 동남쪽에 있는 고개로 토끼처럼 생겼다 하여 불리어진 이름

o 배출인물

·박공섭(朴公燮) : 한학자 ·주진홍(朱振洪) ; 한학자

(3) 장전(長田)

인 구(명)			가 구(호)			면 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8	4	4	4	4		58.1	8.5	15	28.8	5.8
산 업					성 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계	평강채씨	김해김씨	기타		
벼,보리	고추·양파		벼		4	2	2			

장전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항간에서는 장밭이라고 불리운다.

평산 등에 있는 고인돌로 미루어 보아 마을의 역사는 선사시대부터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1680년경에 김해김씨가 지장골이라는 곳에 정착해 살았다.

그 후 1750년경에 현재의 이곳으로 이동해서 살았다고 전해진다.

영광군 군남면 광암마을과 경계에 있으며 송사리 사간마을과 보전마을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6) 복흥리(伏興里)

이 지역은 원래 신광면에 속했던 지역이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이제(里制)를 펴면서 신흥(興申), 복치(伏峙), 석계(石溪), 유덕(有德) 전역과 하계(荷溪), 중산(中山) 각 일부를 묶어 복치에서 "伏"자와 신흥에서 "興"자를 따 복흥리(伏興里)라 하였다.

(1) 복치(伏峙)

인 구(명)			가 구(호)			면 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69	35	34	28	25	3	136	20	43	63	10

산 업			성 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계	청송심씨	기 타
벼,보리	고추·마늘	벼	28	28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마을 이름을 놀란 꿩이 엎드려 있는 형국이라 해서 원래는 "복치(伏雉)"라고 했으며 지금은 복치(伏峙)로 표기하는데 1789년 호구 총수에는 복령(福令)으로 표기되어 있다.

1600년경에 청송심씨가 이주해와 지금은 청송심씨 자작 일촌을 이루고 있으며 본면에서 가장 많은 청송심씨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마을 입구에는 수령 300년으로 추정되는 당산나무(느티나무)가 있다.

o 문화유적

·산정사(山亭祠) : 청송심씨 심안평, 심지선 모셨음
·영모재(永慕齋) : 1915년 건립 심안평 수장소

o 배출인물

·심관택(沈官澤) : 신광면장 역임
·심기천(沈棋千) : 신광면장 역임
·심기백(沈棋栢) : 신광면장 역임
·심기남(沈棋南) : 행정 사무관
·심재신(沈載信) : 신광면장 역임, 함평군 건설과장
·심기환(沈棋煥) : 한국정신문화원 관리과장 역임

·심연섭(沈演燮) : 한일은행 지점장 역임　　·심국종(沈國鍾) :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
·심기혁(沈棋爀) : 인천 영진공사 사장

(2) 유덕(有德)

인 구(명)			가 구(호)			면 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5	2	3	3	2	1	28.2	3	8	15	2.2

산 업			성 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계	청송심씨	기 타
벼,보리	고추·양파	벼	3	3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마을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형성되었는지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지만 복치마을의 청송심씨들이 이주하여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마을에 버드나무가 많다 하여 "유덕목(柳德木, 1789년 호구 총수 지명)"으로 표기했는데 오늘날에는 유덕(遺德)으로 쓰고 있다.

유덕

o 문화유적

·용두비(龍頭碑) : 1777년(정조1년)에 세운 나주임씨(林氏), 상주공(尙州公), 임타(林타)의 묘비임. 형태와 크기(높이 2m, 폭 0.8m)가 같은 비(碑) 2기는 용을 새긴 비수(碑首)나 비신(碑身)의 재질이 특이함. 비신(碑身)은 임금이 하사한 것으로 전함

o 풍수지리

·복치혈 명당 : 복치혈이라는 명당이 있다고 하는데 그 명당은 나주임씨의 선산이라고 전해 오고 있다.

(3) 괴치(槐峙)

인 구(명)			가 구(호)			면 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43	27	16	14	14		69	7	19	38	5

산 업			성 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계	청송심씨	나주임씨	기 타
벼,보리	토마토·마늘	벼	14	8	6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유덕 마을에 나주임씨 묘소가 있는데 형국을 보고 삼정평(三丁坪)의 들이 낮으니 괴목을 많이 심어야 묘소가 좋다 하여 수십 주를 심어 300년 후에 그 괴목이 있다 하여 "괴치(槐

괴치

峙)"라 하였다 하며 1789년 호구 총수 지명에는 박치(朴峙)로 표기되어 있고, 복치와 유덕에서 이주해 온 나주임씨와 청송심씨가 마을을 이루었다 한다.

(4) 석계(石溪)

인 구(명)			가 구(호)			면 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38	20	18	15	13	2	51.4	5.4	15	28	3
산 업				성 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계	청송심씨	김해김씨	기 타			
벼,보리	고추·마늘		벼	15	9	3	3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마을 앞으로 시냇물이 흐르는데 냇가에는 돌이 많기 때문에 마을 이름을 "석계(石溪)"라고 하였다 하며 흥성장씨가 처음으로 입촌하여 살았으나 지금은 장씨는 없고 청송심씨와 김해김씨가 주축을 이루며 살고 있다.

석계

o 지명

·임파싯골 신파장골 : 남산동 서쪽에 있는 골짜기인데 임씨가 살다가 망했다 하여 임파싯골이라 하고 신씨가 살다가 망했다 하여 신파장골이라 하는데 두 가지의 지명을 가지고 있다 한다.

·삼정평(三丁坪) : 석계 마을 서남쪽에 있는 들로 동학농민혁명의 거사를 앞두고 동학 접주였던 장경삼(張慶三), 옥삼(玉三), 공삼(公三) 삼형제가 장정들을 모아 훈련시켰다고 전해온다.

7) 삼덕리(三德里)

원래 이 지역은 신광면에 속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이제(里制)를 시행하면서 덕천(德川), 덕산(德山), 덕암(德岩)전역과 좌야(佐也), 운제(雲梯) 일부를 합해 "덕(德)"자가 들어 있는 마을이 셋이 있다고 하여 삼덕리(三德里)라 하였다.

(1) 덕산(德山)

인 구(명)			가 구(호)			면 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기타										
산 업				성 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	계	파평윤	함평이	함평모	기 타		
벼,보리	고추·양파		벼	42	30	8	4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이 마을은 함평이씨 덕봉(德鳳, 1575년 무과 급제)이 개촌하였고 이어 파평윤씨 상오(商五, 1668년생)가 해보면에서 이거 정착했고 지금은 함평이씨, 파평윤씨가 주로 많이 살고 있다. 1789년 호구 총수 지명에

지금은 폐촌이 된 마을 앞의 초내동(草乃洞) 지명은 나오고 덕산이 없는 것을 보면 초내동에 합해졌던 것 같다. 1912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부터 덕산(德山)으로 바꾼 듯 하다. 현재 항간에서는 덕산이라는 마을 이름보다 새낙골(새날골 즉, 조비동-鳥飛洞)으로 더 알려져 있다. 마을 형국이 새가 날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o 문화유적

·저존재(著存齋) : 파평윤씨 윤대성 부인과 나씨 분필소

·열녀각 : 덕산에 있는 이유인의 아내 진주 강씨와 이유선의 아내 수원 최씨의 열행비

o 전설

·방울바위 : 마을 앞에 매봉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산에는 금슬 좋은 매 한쌍이 살고 있었다. 매 부부는 둥지를 틀고 옥구슬 같이 예쁜 알을 낳았다. 새끼 매가 깨어나기를 고대하며 정성껏 알을 품고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마을에 심술궂은 초동이 산골짜기 깊숙이 들어가 풀을 베고 있었는데 어디서 이상한 방울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기이하게 여긴 초동은 조심스레 방울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 보았다. 그러자 푸드득 매가 날더니 그 자리에 예쁜 매 알 두 개가 놓여 있었다. 초동은 알이 너무도 예쁘고 귀여워 한 개를 가지고 내려오다 그만 떨어뜨려 깨뜨리고 말았다. 그 후 매 부부는 남은 알이 불안스러워 옮겨가다 마을 앞 들가에서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로부터 그 자리에 놓여 있는 바위를 두드리면 이상하게도 방울소리가 나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 바위를 방울바위라 부르게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오고있다. 지금은 경지 정리로 인하여 바위가 흙에 묻혀 방울소리는 전설로만 들려올 뿐이다.

o 특기사항

·퇴비증산 우수마을 : 85년도 퇴비증산 우수마을로 선정 각종 시상금 및 공동작업으로 얻어진 이익금을 마을 공동자산으로 축적해 잘 사는 마을로 만들기 위해 주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o 자생조직단체

·화목계 : 부모 당고시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40여년 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다.

·위친계 : 부모 당고시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직

o 배출인물

·이계운(李啓云) : 국세청 사무관

(2) 덕암(德岩)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덕산 동쪽에 있는 마을로 200여년 전에 진도에서 이주해 온 김해김씨들이 터를 닦았다 하는데 그 후손은 살지 않는다. 어떤 연유로 덕암(德岩)이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주위에 산과 바위가 많음을 미루어 보아 덕암이라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마을이 높은 산들로 에워싸고 있어 항상 조용하고 공기가 맑아 장수마을로 소문 나있다. 애석하게도 예비군 교육장과 부대시설이 조성되면서 89년도에 폐촌되었다.

o 배출인물

·박정래(朴正來) : 전북 옥구군 부군수 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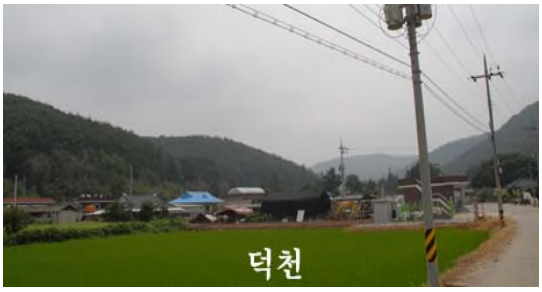
(3) 덕천(德川)

인 구(명)			가 구(호)			면 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197	92	105	71	68	3	158.2	15.1	26	107	10.1

산 업			성 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계	파평윤씨	함평이씨	함평모씨	기 타
벼,보리	고추·삼베	벼	71	50	3	3	14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이 마을에는 400여전 전에 고씨가 터를 잡았다고 하나 그 후손은 살고 있지 않으며 고씨에 이어 함평모씨 유추(有秋,1615년생)가 월암리 연천에서 이주하여 이룬 마을로 모씨 자작일촌이다. 마을에 얼음을 저장한 빙고(氷庫)가 있었다고 전하며 마을 앞의 국도 23호선 다리 이름이


덕천

지도에서 빙고교로 기재되어 있으나 어디에 빙고가 있었는지는 확실히 모른다.

마을 앞산에 베틀을 놓을 수 있을 정도로 큰 굴이 있는데 변란이 있을 때마다 주민들이 피신했다고 하며 여름에도 몸이 오싹할 정도로 한기가 엄습해 온다. 여기가 빙고가 아닌가 한다.

o 문화유적

·덕천사 : 1947년 세움. 모순 모유추를 모신 사우

·고인돌 : 장축 3.10m, 단축 2.40m, 높이 1.10m인 6기의 고인돌이 있었는데 농경지 정리 때 모두 매몰됐다.

·선 돌 : 높이 1.06m, 폭 0.33m의 신앙 입석으로 2기가 분포되어 있다.

·금석당(金石堂) : 모유추의 영당

·효열비 : 모종표의 아내 함평이씨의 효열비, 모경기의 아내 광산정씨의 효열비, 조병섭의 아내 함평모씨의 효열비가 있다.

·신라 흥무왕 유허비 : 김유신 장군이 백제 조헝 새룍(백제군)을 격파한 곳이라는 전설을 기념하여 1921년 김해김시들이 세운 비인데 이 비문에는 흥무왕의 가계와 행적 그리고 전해오는 흥무왕의 기적이 적혀 있다.

o 특기사항

·서군교(석은다리, 誓軍橋) : 신라군들이 백제의 저항세력(백제군)을 무찌르자는 맹세를 했다고 전해온다. 또 왕건이 서군을 했다는 전설도 있다.

o 노거수

·당산나무 : 둘레9.40m, 수령 800년, 높이 13m로서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데 같은 크기의 두 나무가 나란히 서 있어 해마다 정월 초하루날 당산제를 지내며 할머니 당산나무 할아버지 당산나무에 줄을 감아준다. 이당산나무가 울면 나라에 변란이 생긴다 하여 신령스런 나무로 여기고 있다.

o 배출인물

·모유추(牟有秋) : 무과급제 성천진관(성천진관)

·모상풍(牟相豊) : 유도회장, 전교(함평향교) 역임

·모영규(牟永圭) : 대통령 선거인다, 신광농협조합장 역임

·모효신(牟孝信) : 통상산업부 사무관 ·모효신(牟孝信) : 신광초등학교 교장

(4) 좌야(佐也)

인 구(명)			가 구(호)			면 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140	68	725	49	42	6	147	5	22	107	13
산 업				성 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계		파평윤씨	함평이씨	함평모씨	기 타	
벼,보리	고추·양파		벼	49		28	10	4	7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이 마을을 개촌한 성씨가 한(韓)씨라 전하나 그 후손이 1호가 살다가 이주하고 없다. 그 후 함평모씨 일성(一成,1678년생)이 월암리 연천에서 이거 정착했고 입촌자 일성(一成)은 1705년(숙종4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진해, 언양(彦陽) 현감을 역임했다.

모씨에 이어 함평이씨 그리고 김해김씨가 80여년전에 입촌 오늘에 이르고 있다. 좌야(左也)라는 지명은 마을을 에워싼 산의 형국이 이끼 "야(也)"자를 왼편으로 돌려놓은 듯한 모양 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o 문화유적

·석옹루 : 현감 모일성이 건립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승계제(松溪齊) : 1924년 건립, 진주 정시 정충랑 분필소(芬苾所)

o 배출인물

·모 원(牟 源) : 함평향교 유도회장 역임, 현 함평향교전교, 군청과장 역임
·김길용(金吉龍) ; 신광면장 역임
·김영욱(金寧旭) ; 중학교, 고등학교장 역임
·김대원 : 현재 초등학교 교장

(5) 원골

인 구(명)			가 구(호)			면 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7	3	4	3	3		13.2	2	3	7	1.2
산 업				성 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계		파평윤씨	함평이씨	함평모씨	기 타	
벼,보리	고추·양파		벼	3		1	1	4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좌야 마을 북쪽에 있는 마을로 조선조 때 유현원(杻峴院)이 있었다. 원(院)이 폐쇄된 후 마을

원골

도폐촌된 후 마을도 폐촌되었다. 150여년전에 청송심씨 기연등이 입촌 새로 마을이 형성되었으며 작은 마을이다.

o 문화유적

·유현원(杻峴院) : 조선조 때의 원(원)이다. 마을 앞 국도와 접하는 곳에 그 터가 있으며 깨진 기와장 등이 출토 된다.

(6) 가늠정(佳늠亭)

가늠정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청송심씨가 입향 정착하여 마을을 형성하였다. 지금은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1호가 거주하고 있으며 함평이씨 광산김씨 김해김씨 함평모씨가 각각 거주하고 있다. 항간에서는 "가는정"이라 부른다.

o 배출인물

·심한섭(沈漢燮) : 건간관리 공단 부장 역임

8) 송사리(松士里)

이 지역은 원래 신광면에 속했으며 1914년 이제(里制)를 시행하면서 사간(士干), 계동(桂洞), 송계(松溪), 갈마(渴馬), 해안(海岸) 전역과 삼천(三泉) 일부를 묶어 송계에서 “송(松)”자를 따고 사간에서 “사(士)”자를 따 송사리(松士里)라 하였다.

(1) 송계(松溪)

인 구(명)			가 구(호)			면 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44	26	18	22	21	1	129.1	19	18	87	5.1
산 업				성 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계	김해김씨		함평이씨		기 타	
벼,보리	고추·양파		벼	22	12		6		4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김해김씨 세동(世東, 1602년생)이 영광군 군남면에서 1630년경 이주 정착했다 하며 그 후

함평이씨 전주이씨가 들어와 살았다 한다. 현재에도 김해김씨가 제일 많은 호수를 차지하고 있다. 마을 서쪽 뒤편에 있는 군유산은 상봉(上峯)이 송사리에 속해 있으며 함평에서 두 번째 높은 산이고 남쪽에는 매봉산이 자리하고 있다. 소나무가 울창하고 물맑은 계곡이 있다 하여 송계(松溪)라 했다 한다.

o 문화유적

·군유사지 : 군유산 중턱에 있었으며 옛 이름은 서상사(瑞祥寺)였다. 부도(사리탑)가 있었으나 함평읍 함평리로 옮겨졌다.

·산제당(山祭堂) 터 : 남닥골에 산제당이 있었다.

·기우제단(祈雨祭壇) : 군유산 상봉에 있었다.

o 민속제향

·당산제 : 이 마을에는 수령 150년으로 추정되는 당산나무가 있는데 매년 정월 대보름이면 풍년과 마을의 평온을 빌며 당산제를 올린다. 또 당산나무에 줄을 감고 농악놀이를 하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낸다.

o 특산물

·비자 열매 : 비자 열매를 상당량 수확했으나 6.25 한국 전쟁 후에 베어서 팔아버렸다.

o 자생조직

·상포계 ; 부모 당고시 상호 부조 목적으로 조직

o 배출인물

·김영수 : 광주국세청 직세과장 역임

·김재병(金在炳) : 강진, 영광, 목포 경찰서장 역임

(2) 사간(士干)

인 구(명)			가 구(호)			면 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38	22	16	14	13	1	111.9	19.8	15	73	4.1
산 업					성 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계	김해김씨	영성정씨	달성배씨	기 타	
벼,보리	고추·양파		벼		14	7	2	2	3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임진왜란 이전부터 황씨가 들어와 이 마을을 개척했다고 전해내려오고 있으나 확실하지 않고 또한 그 후손들도 현재 거주하지 않고 있다.

o 문화유적

·당산제 : 이 마을 앞에는 큰 바위(당산바위)가 있는 데 정월 대보름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온 마을 주민이 당산바위 주위에 모여 줄감기와 농악놀이로 한 해의 풍년과 평온을 빌며 당산제를 지내고 하루를 즐기는 풍속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3) 삼천동(三泉洞)

인 구(명)			가 구(호)			면 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33	16	17	16	13	3	78.41	10.2	14	47	7.2
산 업				성 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계	화순최씨	김제김씨	달성배씨	기 타		
벼,보리	양파	벼		16	8	6	2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옛부터 심한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 샘이 셋이 있다 하여 삼천동(三泉洞)이라고 했다는 전설이 있다. 산52의 1번지 내에 고인돌이 있는데 이로 미루어 보아

이곳에는 선사시대부터 촌락이 형성되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o 문화유적

·고인돌 : 장축3.4m, 단축2.5m, 높이 0.6m 산52의 1번지에 있음

o 전설

·삼천동(三泉洞)과 삼천동(三千洞) : 신광면 송사리에 삼천동이란 마을이 있다.

옛부터 샘이 셋이 있었는데 이따금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하고 노닐다 간 샘이 셋이라 하여 삼천동(三泉洞)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전설이 있고 또 하나는 고려태조 왕건이 태봉국의 장수이던 때 이곳에 기마병 삼천명을 주둔하여 조련하였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으며 지금도 이 마을 뒷산 군유산 골짜기에 마구청이라는 곳이 있는데 마초가 무성히 자라고 있다.

마구청이란 지명도 기마병 주둔군이 말을 먹인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o 특기사항

·조선조 고종때 상궁이었던 최씨 부인이 이 마을 출신으로 영친왕이 태어날 때 아기를 받아 뒷수습을 했다 하며 이 지역에서는 "최마마"라 불렀으며 “송설당”이란 당호를 받았다. 경북 김천 중·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이 학교에 동상과 공적비가 세워져 있다. 또 고려 때의 절인 사상사가 인근에 있었는데 조선조때 폐사되고 현재는 비자나무만 무성하게 우거져 있다.

이 마을에는 150여년 된 당산나무가 있는데 이 마을 주민들은 해마다 정월 대보름이면 당산나무에 줄감기와 농악놀이로 당산제를 올리고 한해의 풍년과 마을의 평안을 빌며 하루를 즐기는 풍습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4) 해안(海岸)

인 구(명)			가 구(호)			면 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28	13	15	15	12	3	86	9	17	54	6

산 업			성 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계	김해김씨	죽산안씨	파평윤씨	기 타
벼,보리	고추·양파	벼	15	5	3	2	5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옛날에 이 마을과 손불면 인접지가지 바닷물이 들어왔다 하여 “해안(海岸)”이란 마을 이름이 붙여졌으며 약 200여년전 김해김씨가 들어와 마을을 개척했다는 설이 있고 현재에도 김해김씨가 5호로 제일 많다.

o 마을을 공동 이념

50여년 전만해도 본 면에서 제일 가난한 마을로 유명했으나 마을 주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난을 극복하자는 비장한 각오로 도박을 퇴치하고 마을에 있는 주막을 없애면서 오직 빈틈없는 노력과 근검절약하는 생활로 일관한 결과 어느 마을 못지않게 잘 사는 마을로 탈바꿈 했다.

9) 원산리(元山里)

이 지역은 원래 신광면에 속했던 지역이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이제(里制)를 시행하면서 화산(化山), 원남(元南), 입점(笠店), 학동(鶴洞) 전역을 묶어 원남에서 “원(元)”자와 화산에서 “산(山)”자를 따 원산리(元山里)라 하였다.

(1) 원남(元南)

인 구(명)			가 구(호)			면 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53	28	25	22	20	2	121.4	17.3	19	80	5.1
산 업					성 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계	고성이씨	광산김씨	김해김씨	기 타	
벼,보리	고추		벼		22	10	5	4	3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이 마을은 문화유씨가 개촌했다고 하는데 그 후손이 한 집도 살고 있지 않아 정확한 입촌연대를 알 수 없으며 마을 뒤편에 유정승 묘라고 전해오는 고분이 있으나 옛 기록에 함평출신이라는 유정승이 없어 전설을 확인할 수도 없다. 유씨에 뒤이어 입촌한 성씨는 고성이씨로 이우송(李友松, 1738년)이 문화유시 극명(克明)의 사위가 되어 아버지인 덕보(德輔)와 함께 1760년경 무안 대호동(大虎洞, 현 함평군 엄다면 성천리 와촌)에서 이거 정착했으며 또 150여년 전에 광산김씨 구현이 들어와 살았다. 으뜸이 되는 마을이라 해서 원남(元南, 1789년 호구 총수 지명)이라고 했다는 전설이 있을 뿐 정확한 지명의 유래가 전하지 않고 있다.

o 문화유적

·김병현의 효자비가 있다.

·어름박골 : 바금정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깊숙하고 응달져 초여름까지 얼음이 녹지 않는다고 한다.

o 배출인물

·이주태(李柱泰) : 목사 ·이남섭(李南燮) : 광주국세청 과장 역임

(2) 지초(芝草)

인 구(명)			가 구(호)			면 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33	16	17	11	9	2	62	8	10	41	3
산 업					성 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계	고성이씨	광산김씨	김해김씨	기 타	
벼,보리	고추·양파		벼		11	5	3	3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원래 화산(化山, 1912년 행정구역개편 이전 지명)이라 했는데 지초라는 한약제가 자라다 하여 1914년 행정구역개편 후 지초(芝草)로 바꾸었으며 원남에서 고성이씨가 분가했고 신광장(사납장)의 질서유지에 공이 컸던 장호랑이라는 사람이 이 마을에서 살았다고 한다.
이 마을은 고성이씨가 제일 많이 살고 있다

지초

o 지명

·문바위 : 가랑굴에 있는 바위로 양족에 대무처럼 서 있다 하여 문바위라 하였다 한다.

(3) 학동(鶴洞)

인 구(명)			가 구(호)			면 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51	23	28	18	17	1	82.4	12	15	50	5.4

산 업			성 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계	김해김씨	함양박씨	수원백씨	기 타
벼,보리	고추·양파	벼	18	5	4	2	7

학동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이 마을은 함양 박씨 이완(履完, 1705년생)이 1740년경 월야면 용암리 은암에서 이거 개촌하였고 그 후손 일부가 신광면 가덕리로 옮겨갔고 일부가 남아 있다.

이완의 현손 윤상의 처 연일 정씨의 흉열이 탁월했고 그의 아들 찬문의 효행이 널리 알려졌다. 원래 이 마을은 덕동과 한 마을이었던 듯 1789년 호구 총수 지명에는 나오지 않는다. 1912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부터 덕동에서 분리하여 학동으로 불렀고 학동이라는 이름은 마을 뒤에 있는 산이 학의 형상과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o 문화유적

·고인돌 : 마을 앞에 6기가 있었는데 모두 훼손된 채 도로변으로 옮겨놓았다.(경지정리로 훼손됨)

o 지명

·괸들 : 학동과 덕동 사이에 조그마하 마을이 있었는데 마을 이름을 괸들이라 한다. 마을 앞에 고인돌(괸돌)이 있는지라 괸돌이 괸들이 변한 것 같다.

(4) 덕동(德洞 = 갓점 ‘ 갓店)

인 구(명)			가 구(호)			면 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52	25	27	18	16	2	87.5	10	14.5	57	6

산 업			성 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계	김해김씨	수원백씨	광산김씨	기 타
벼,보리	고추	벼	18	7	2	2	7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덕동

학동 동쪽에 있는 마을로 조선조 때 갓(笠)을 만들었기 때문에 “갓점”이라고 했다. 마을 어귀인 학동에 6기의 고인돌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1960년대에 마을 이름을 덕동으로 바꾸었다. 임진왜란 때 이 마을에는 윤씨와 이씨, 백씨가 살았으며 의병에 가담하여 활동을 하다가 멸족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그 후 김해김씨 창성(昌成, 생졸 연대 미상 아들 ; 純鎰 – 순일, 1780년생)이 1800년경에 이주 정착하였고 한때는 114호가 살았다고 하나 심남일 의병장이 기병한 곳이라 하여 일본인들이 마을전체를 불태웠다 한다. 현재는 김해김씨가 상당수 거주하고 있다.
그 외 성씨도 거주하고 있다.

o 문화유적

·항일의병 전적지 : 1907년 의병장 심남일(수택)장군이 창의하여 의병을 훈련시키고 왜적을 토벌키 위해 첫 진격의 함성을 울린 곳

o 노거수

·당산나무(느티나무) : 수령 500년, 높이 15m, 둘레 5m, 면적 130m2의 노거수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으며 당산나무 앞이 모두 피면 홍수가 나고 일부만 피면 가뭄이 든다고 전해 오고 있다.

10) 월암리(月岩里)

이 지역은 원래 신광면에 속했던 지역이며 1914년 이제(里制)를 시행하면서 가야(加也), 연천(燕川), 신천(新川), 용암(龍岩), 내동(內洞), 상월흥(上月興), 하월흥(下月興) 전역과 장산(長山) 일부를 합해 월흥에서 "월(月)"자와 용암에서 "암(岩)"자를 다 월암리(月岩里)라 하였고 면소재지를 낀 리(里)가 되었다.

(1) 연천(燕川)

인 구(명)			가 구(호)			면 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115	63	52	43	39	4	136.5	18.5	25	80	13
산 업				성 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계		경주이씨		진주성씨		기 타
벼,보리	고추·양파		벼	43		35		3		5

연천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마을 안골이 제비 형국이라 해서 마을 이름을 제비내 즉 "연천(燕川)"이라 하였다.

이 마을은 큰 인물이 날 터라고 전부터 전해져 많은 성씨들이 들고 났다.

맨 처음 이 마을에 입촌한 성씨는 함평모씨로 수남(秀南, 1551년생)이며 임진란 이전에는 고성정씨 개청이 터를 잡으려 했으나 엄다면 제동에 눌러 살았고 400여년 전에 경주이시가 입촌하여 지금은 거의 자작 일촌을 형성하고 있다.

1610년 경에는 광산김씨 유(瑜)가 입촌했다가 백운리 저동으로 이사했다. 마을 입구에 500년이 훨씬 넘은 느티나무가 즐비하게 서 있고 이 느티나무(당산나무)에 매년 당산제를 올린다.

o 문화유적

·연천사(燕川祠) : 건립연대 미상, 이송제(李松齊)를 모심

·애오재(愛吾齋) ; 경주이씨 이태희(李泰熙)의 소요소(逍遙所)이던 것을 훼철되어 애석하게 여기던차 7세손 정인(正仁)이 2006년 3월에 거금을 들여 새로 복원 건립하였다.

·구충사(舊忠祠) : 건립연대 미상 이송제, 이창석, 이태희, 이치오 모심

·절터 : 연천 동쪽에 절이 있었음

·현제정(玄齊亭) : 경주이씨, 이집구(李集龜), 서식소 윤용구(尹用求)의 제액(題額)이 있음

o 자생조직단체

·촌중 위친계 : 참여인원 54명 부모 당고시 상호부조 목적

·상여계 : 참여인원 8명 상호부조 및 장학금 지급 목적
·돼지계 : 참여인원 27명 주민화합 목적

o 배출인물

·이화여(李化汝) : 신광면장 역임, 도평의원
·이경우(李景雨)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신광면장 역임
·이병길(李炳吉) ; 신광면장 역임.
·이종성(李鍾成) : 초등학교장 역임
·이상도(李相道) : 검사 역임
·이관일(李貫一) : 외과 전문의
·이지원(李芝源) : 등기소장 역임
·이종하(李鍾河) : 신광면장 역임
·이필형(李弼炯) : 의학박사, 산부인과원장
·이종만(李鍾萬) : 방송국장 역임
·이종표(李鍾豹) : 범원장 역임
·이정인(李正仁) : 수협중앙회 관리부장 역임

(2) 가야(加也)

인 구(명)			가 구(호)			면 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250	129	121	90	35	45	63.3	7.8	12	29	14.5
산 업				성 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계	김해김씨	경주이씨	광산김씨	기 타		
벼,보리	고추·양파		벼	90	13	10	7	50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군청으로부터 서북방 12km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도23호선 좌우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이 마을은
면소재지로서 각급 기관인 면사무소, 중학교, 초등학교, 농협, 우체국, 중대본부 등이 있으며 선조때 장이길의 후손들이 사천장(사납장)을 개시(개장)하였다 한다.

가야(加也)라는 마을 명칭은 1789년 호구 총수 지명에도 나오는데 유래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런데 지금도 가야라는 마을 이름은 외지 사람에게는 생소하고 “사납장”이란 이름이 더 친근감이 간다. 국도변 좌우로 상가, 식당, 이발소, 미장원등이 있어 면민에게 생활의 편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성시(盛市)를 이루어 흥청거리던 유명한 "사납장"(5일장)은 폐장된 지 오래다.

(3) 신촌(新村)

인 구(명)			가 구(호)			면 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13	7	6	5	1	4	13	2	1.2	8	1.8
산 업					성 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계	경주이씨	함평이씨	진주정씨	기 타	
벼,보리	고추·담배		벼		5	2	2	1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대동저수지 상류에 위치한 마을로 본 면에서 제일 후미진 곳이고 1789년 호구 총수 지명에는 신천(新川)으로 표기된 마을이며 마을 어귀에 선돌이 2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래 전에 마을이 형성되었으리라 추측된다. 정월이며 이 선돌에 제를 지냈으나 지금은 지내지 않고 있다.

탁씨(卓氏) 가 제일 먼저 정착하여 살았다고 하나 그 후손은 살고 있지 않고 연천에서 분가한 경주이씨 몇 호와 그 외 성씨가 살고 있다.

예전에는 꽤 큰 마을이었는데 저수지축조로 인해 수몰되어 이주했다.

o 지명

·숯굴터(炭址) : 방구등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에서 숯을 구운 가마터가 있다.

·동막재(東幕峙) : 마을에서 동쪽으로 1.5km 지점에 동막제가 있는데 임진란때 이덕일(李德一)장군이 왜군과 싸워 크게 이긴 곳이라 한다.

o 유적·유물

·선돌 : 마을 앞에 2기가 있다.

(4) 월성(月城)

인 구(명)			가 구(호)			면 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25	15	10	8	8		48	7.2	4.8	30	6
산 업					성 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계	김해김씨	파평윤씨	기 타		
벼,보리	고추·양파		벼		8	5	2	1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계월 마을 남동쪽에 있는 마을로 국도 23호선을 끼고 있다.

1789년 호구 총수 지명에 나오는 것을 보면 오래된 마을이나 전에 살던 성씨의 유래는 알 수 없고 100여 년 전에 청송심씨가 이주해 왔으며 지금은 김해김씨, 경주이씨 등 그 외 몇몇 성씨

가 살고 있으며 “월매(月梅)”라 부르기도 한다.

o 지명

·아들바위 : 노리갯재 동남쪽에 있는 바위인데 돌을 던져서 얹히면 아들을 낳는다 하여 아들바위라 하였다 한다.

o 자생조직단체

·촌중계 ; 마을의 화합과 번영을 목적으로 조직

(5) 매월촌(梅月村)

인 구(명)			가 구(호)			면 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3	2	1	1	1		35.6	5.4	4	21.4	4.8

산 업			성 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계	홍성장씨	기 타
벼,보리	고추	벼	1	1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평강채씨가 터를 잡아 정착한 마을로 일제강점기만 해도 30호가 넘게 살았으나 대동저수지 축조 공사로 인해
대동면 매월촌과 신광면 매월촌으로 분리 되었다 한다.

그 당시 대동저수지 공사 때문에 전답, 집들이 수몰되어 삶의 터전을 잃고 대부분 주민들이 이주하였고 지금은 불과 몇 호만이 남아 퇴락일로를 거듭하여 적막이 감돌뿐이다.

(6) 조산(釣山)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연천 마을 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정확한 마을 형성과정이나 연대는 미상이며 마을 뒷산 형국이 낚시대를 드리운 태공같다 해서 “조산(釣山)”이라 했
다는데 대동제를 축조하고 승상공사로 인해서 마을 앞이 물에 잠기게 돼 조산(釣山)이
란 마을 이름이 맞아 떨어진 것이다.

거주 성시를 보면 함평노씨2호, 함평이씨2호 양성이씨1호, 영광김씨1호, 평산신씨1호, 기타 3호 등 10여호가 살았는데 대동제 승상공사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1986년도에 폐촌되었다.

o 지명

·뜬봉 : 마을 동쪽 대동제 상류에 있는 섬인데 저수지 물이 만수가 되면 물위에 떠 있는 봉우리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11) 유천리(柳川里)

이 지역은 본래 신광면에 속했던 지역이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벽류(壁柳), 미출(米出) 전역과 학천(鶴川), 손불면의 용암(龍岩) 각 일부를 합해 벽류에서 “유(柳)”자와 학천에서 “천(川)”자를 따 유천리(柳川里)라 하였다.

(1) 벽류(碧柳)

인 구(명)			가 구(호)			면 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86	40	46	37	33	4	70.4	8	19	31	12.4
산 업					성 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계	풍산홍	김해김	해주오	기 타	
벼,보리	마늘·양파		벼		37	13	9	3	12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지명 유래에 대한 확실한 기록은 없지만 학천 동쪽에 있는 적당뫼(笛峰)에서 신선이 한가롭게 냇가의 푸른 버들을 바라보면 피리를 불고 있다는 뜻에서 벽류동(碧柳洞)이라 했다고 한다.

이 마을은 제일 먼저 풍산홍씨 한신(漢信)이 정착했다 하고 그 후 김해김씨가 이주 정착했다 한다.

o 문화유적

·귀래정(歸來亭) : 김해김씨 봉수가 세움. 송겸순의 기문(記文)이 있다.
·유천솔대 : 도틀골(공동뫼) 서쪽 들에 솔대를 세웠다 한다.

o 자생조직단체

·관광계 : 친목 도모 및 관광 목적으로 조직함

o 배출인물

·김재익(金在翊) : 의학박사 병원장역임
·김동승(金東承) : 국민은행 지점장 역임
·김동표(金東杓) : 신광면장, 통일주체 대의원
·김낙섭(金洛燮) : 신광면장 역임
·김명섭(金明燮) : 문공부 부이사관
·홍양희(洪陽憙) : 서울 아마존 사장
·홍남희(洪南憙) : 법원 서기관 역임
·김동욱(金東旭) : 신광면장 역임
·김한섭(金漢燮) : 교통부 사무관 역임
·오종봉(吳宗奉) : 신광농협장 역임

(2) 학천(鶴川)

인 구(명)			가 구(호)			면 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93	52	41	35	33	3	61.2	9.2	17	25	10

산 업			성 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계	달성배씨	광산김씨	기 타
벼,보리	토마토·고추	벼	35	23	4	8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학천

마을 앞에 있는 개울가 버드나무에 수십 마리의 학이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살았다 하여 “학천(鶴川)”이라고 했다 하며 도 다른 지명은 “외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마을은 달성배씨 위(緯)가 1590년경에 입주 정착하였으며 지금도 그 후손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다. 그 뒤를 이어 김해김씨가 들어왔다.

o 배출인물

·김동희(金東憙) : 초등학교장 역임
·김동현(金東炫) : 텍사스 주립대학교 교수 역임
·배진명(裵鎭明) : 신광면 초대면장 역임
·배상오(裵相五) : 초등학교 교장
·배강희(裵康憙) : 함평교육청 학무과장 역임
·배도연(裵道連) : 신광면장 역임

(3) 미출(米出)

인 구(명)			가 구(호)			면 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105	55	50	38	35	3	56	14	22	12	8

산 업			성 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계	함평노씨	함양조씨	기 타
벼,보리	마늘·양파	벼	38	24	14	2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벽류동 남쪽에 있는 마을로 땅이 기름져서 쌀이 많이 난다고 하여 “쌀난골” 즉 한문 표기로 “미출(未出)”인데 쌀난골의 발음이 변형되어 “사랑골”로 부르게 되었다 한다.

지금도 마을 이름을 미출보다는 사랑골로 부르는 것이 친근감이 있고 알아듣는 사람이 더 많다.

이 마을은 400여년 전에 한양조씨가 입향하여 마을을 개척하였으며 그뒤 함평노씨가 입촌했다 한다. 지금은 함평, 대동, 손불면과의 경계지점이다.

o 배출인물

·조성수(趙成壽) : 지방행정사무관 역임
·홍종후(洪淙厚) : 하와이 총영사 역임
·노성숙 : 중령
·조성천 ; 목사
·노진성 : 신광농협조합장 역임

12) 함정리(咸井里)

영광군 불갑면 우곡리(牛谷里)와 경계를 이루는 이(里)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이제(里制)를 시행하면서 함평군 신광면의 연화(蓮花), 청계(淸溪), 무송(茂松) 월산(月山), 함봉(咸峯), 금정(金井) 전역과 삼더리의 좌야(佐也), 영광군 불갑면의 암촌(巖村) 각 일부와 구봉(九峯) 전역을 묶어 함봉에서 “함(咸)”자와 금정에서 “정(井)”자를 따 함정리(咸井里)라 하였다.

(1) 연화(蓮花)

인 구(명)			가 구(호)			면 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66	39	27	24	21	3	159.5	10.2	12.3	41.2	4.0
산 업				성 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계	함평이씨	김해김씨	평강채씨	기 타		
벼,보리	고추·양파		벼	24	8	6	3	1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연화도수의 풍수설에 의해 마을 이름을 “연화”라 지었다 한다. 평강채씨가 맨 처음 입촌

연화

했다고 하나 정확한 연대는 미상이다. 그 후 약 250여년 전에 함평이씨가 정착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다. 마을 앞에 저수지(연화제)가 축조돼 연꽃이 물을 만났으니 생기가 돌고 활력을 되찾아 마을이 날로 번창하고 있다.

풍수지리설 연화도수가 적중한 것이다. 또 예부터 구전되어 오던 산기슭에 있던 낚시바위가 저수지 물이 차오르니까 무릎을 칠 정도로 맞아 떨어졌다.

o 특기사항

연화, 함봉, 지경, 새터(폐촌)를 한테 묶어 연화(등록된 자연마을)라 부른다. 연화마을 남쪽에 "새터"란 마을이 있었으나 40여년 전에 폐촌되었다. 13호가 살았다.

o 자생조직단체

·위친계 : 부모 당고시 상호부조 목적으로 조직. 명맥이 끊김.

·등 계 :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때는 계원들이 지등을 하나씩 가지고 가서 상가 여기저기에 걸어 놓고 밝혀주는 계. 지금은 모두 명맥이 끊긴 상태다.

o 민속제향

·당산제 : 정월 대보름이면 당산나무에 풍년 농사와 마을 평안을 기원하는 당산제를 올렸다. 남자와 여자가 편을 갈라 줄다리기도 하고 당산나무에 줄을 감고 농악놀이로 하루를 즐겼다. 지금은 아쉽게도 명맥이 끊긴 상태다.

※ 당산나무(느티나무) : 수령 400년으로 추정

o 배출인물

·이재석(李載錫) : 공학박사(동경대), 전남대교수 역임. 현재 과학기술원 교수

·이재웅(李載雄) : 목사 역임

·이근행 : 서울 MBC PD

·이이행 : 시인, 한국문협회원, 전남문협시분과 이원장. 전남 시인협회 수석 부회장.
한국자유시인협회이사 역임. 광주시인협회 이사.
전남문학상, 전남시문학상 수상. 함평군민의상(문화교육부문) 수상.

·이화여 : 동학접주. 나주에서 처형됨

·이재일(李載日) : 한국판유리상사 영업부장 역임

·이현욱(李賢郁) : 교육학박사(전남대) 교육대 겸임 교수

·이영길 : 천지개발 사장

(2) 구봉(九峯)

인 구(명)			가 구(호)			면 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82	43	39	35	32	3	94.3	12	16.8	59	6.5

산 업			성 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계	영동김씨	진주강씨	함평모씨	기 타
벼,보리	고추·양파	벼	35	7	4	4	20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구봉

뒷산이 아홉 봉우리여서 마을 이름을 “구봉(九峯)”이라 하였다 한다.

최초에 흥성장씨가 입촌해 터를 닦은 후 최씨, 강씨가 들어와 살았다고 하는데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며 그 후 영산(永山)김씨 김황이 들어와 세거 하였으며 이 마을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대 영광군 불갑면에서 함평군 신광면으로 편입되었다.

o 문화유적

·도요지 : 조선 분청자기(편필화문기)를 제조하였음

o 자생조직단체

·촌중계 : 주민의 화합과 상부상조의 목적으로 온 마을 주민이 참여함. 지금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o 배출인물

·김 철(金澈) : 상해 임시정부 국무위원(호 : 一江, 본관 : 永山, 1886-1934), 상해임시정부 수립 발기인, 여운형과 신한청년당 조직, 손병희와 3·1운동 거사 모의, 군무장으로서 김구와 함께 애국당활동 지원, 교통, 재무, 군무장 역임

·김 석(金晳, 1911-1983): 상해한인독립연맹 위원장, 임시정부외교부 비서실장 역임 전남건국준비위원, 광주치안대장 역임

·김동근(金東根) : 신광면장 역임

·김덕근(金德根) : 신광면장 역임

·김병권(金炳權) : 목사

·김병남(金炳南) : 육군 중령 예편

(3) 무송(茂松)

인 구(명)			가 구(호)			면 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30	16	14	15	13	2	66.6	7.2	14	39.6	5.8

산 업			성 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계	광산김씨	양성이씨	밀양박씨	기 타
벼,보리	고추·양파	벼	15	12	2	1	

무송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이 마을은 청계 마을과 인접해 있는 마을로 광산김씨 응명(應鳴)이 장성군 삼서면에서 1750년경에 이거 정착했으며 무송 남쪽에 월산이란 마을이 있었는데 1호가 있을 뿐이다.

청계 마을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하촌(下村, 1789년 호구 총수 지명)이라 부른 것 같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 무성한 소나무가 우거져 있는 마을이라 하여 무송이라 했다.

o 유적·유물

항생이 골짜기라 부르는 곳에 조선조 도요지가 있다.

o 배출인물

·김종호 : KBS 보도부장

(4) 함봉(咸峯)

인 구(명)			가 구(호)			면 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39	21	18	10	9	1	38	6	6	23	3

산 업			성 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계	평강채씨	김해김씨	김산김씨	기 타
벼,보리	고추·양파	벼	10	3	2	2	3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함봉

이 마을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는 영광군과 경계를 이루는 마을이었다. 그래서 뒷산을 함봉(咸峯)이라 했고 마을 이름도 함봉(1789년 호구 총수 지명)으로 쓴 것 같다. 이 마을은 광산김시취상(就商, 1636-1711)이 1670년경에 개촌 했으나 그 후손이 손불면 죽장리 담골로 이거 했으며 그후 좌수를 기낸 평강채(蔡)씨 규욱(奎旭, 1817년

생)이 1840년경에 입촌했으며 이어 김해김씨가 들어왔다. 구전에 의하면 100여호가 넘었으나 이곳을 지나던 암행어사에게 행패를 부려 폐촌 되었다가 그 후 다시 마을이 형성 되었다고 한다.

(5) 지경(地境)

인 구(명)			가 구(호)			면 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13	7	6	4	3	1	22.5	5.7	6.3	9.2	1.3
산 업				성 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계	해주최씨	함평이씨	기 타			
벼,보리	고추·양파		벼	4	2	1	1			

지경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함평군과 영광군의 경계를 이루는 마을로 그래서 마을 이름도 지경(地境)으로 부르고 있다.

상해 임시정부 요직을 두루 역임한 김철의 승모비가 세워져 있다.

o 특기사항

함봉 마을 동쪽에 금정(金井)마을 이 있었는데 현재는 폐촌되었다. 지금도 금정 마을이 있었던 골짜기를 “바금정”이라 부른다.

마을 터 서쪽에 조선 요요지가 있었는데 구전에 의하면 살인사건으로 후환이 두려워 한가마 그릇을 구어 놓고 모두 뿔뿔이 도주했다고 전한다

(6) 청계(淸溪)

인 구(명)			가 구(호)			면 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28	15	13	12	10	2	67.8	7	15	37.4	8.4
산 업				성 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 소득원	계	광산김씨	김해김씨	기 타			
벼,보리	고추·양파		벼	12	6	4	2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원천수가 펑펑 솟아 오르는 샘이 세 군데나 있다. 항상 맑은 시냇물이 흐른다 하여 청계(淸溪)라 부르고 있으나 실은 마을의 형국이 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마을 이름을 바꾸어야 한다는 말들을 하고 있다 .

이 마을은 양성이씨 태기(泰紀, 1664년생)가 1700년경 나주 영산동에서 이주 정착했고 그 다음에 김해김씨가 150여년 전에 입촌했다.

청계

o 민속제향

·당산제 : 정월 대보름이면 마을 어귀에 있는 당산나무(모과나무)에 당산제를 지냈으나 1987년 모과나무가 고사했다. 수령300년.

o 유적 유물

·항생이 골이라 부르는 곳에 조선 도요지가 있다.

제6절 엄다면 (嚴多面)

집필 / 김 창 훈

삼정리(三亭里) / 643
성천리(星泉里) / 647
송로리(松路里) / 650
신계리(新溪里) / 655
엄다리(嚴多里) / 658
영흥리(永興里) / 669
학야리(鶴野里) / 673
화양리(花陽里) / 677

1. 면사무소 소재지와 규모

1) 소재지 : 엄다면 엄다리 822번지

2) 규모

·대지면적 : 2.812m2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 2층
·부대시설 : 창고 36.6m2
·준공년월일 : 1층 283.8m2
1979. 12. 27
2층 214.5m2
1982. 6. 27

2. 연혁

엄다면은 1914년까지 현 무안군에 속해 있었는데 무안군은 백제시대에는 물아혜군(物阿兮郡), 신라시대(757)에는 무안군(務安郡), 고려때는 물양군(勿良郡·944)이라 잠시 부른 적이 있으나 무안군(務安郡·991)으로 바꾸어 조선말까지 불러 왔으며 1895년에는 목포부, 1914년에는 무안군이라 하였다. 엄다면에는 1789년 호구총수의 지명에 의하면 2개의 면이 있었다. 엄다산면(嚴多山面), 신마로면(身乃老面)1) 이었다. 1914년에 이들 2개의 면을 합하여 엄다면을 새로 만들었고 함평군에 편입시켰다. 엄다산면은 관할구역이 지금의 송노, 학야, 엄다, 삼정, 영흥리며, 산마로면은 지금의 화양, 성천, 신계리와 함평읍 수호리 수산, 만흥리 국산(당신 國堂)이 관할구역이었다. 1914년 이제(里制)가 시행되면서 면간(面間) 조정이 있었던 곳은 다음과 같다. 기성면(箕城面·현 함평읍)의 수산(水山)일부 지역이 화양리2)에 편입되었고, 영풍면(永豊面·현 함평읍)의 송정(松亭)일부 지역이 성천리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신로면의 신흥(新興) 일부 지역이 함평면 만흥리에, 신로면 장동(壯洞)이 성남리에, 신로면의 금곡(金谷), 자연(自然), 노송정(老松亭)전역이 자풍리에 속하게 되었다.

1) 대동지지에는 신개로면(新介老面)으로 표기되어 있고 조선조 말기에는 신변로면(新卞老面)으로 표기 되어 있으며 1912년 행정구역 개편명에는 신로면(新老面)으로 되어 있다.
2) 수산은 1789년 호구지명에 신마로면 지역이었으나 후에 현 함평읍 지역인 기성면에 속했다가 엄다면 화양리에 편입된 것이다.

* 참고 1. 1789년 호구총수(戶口總數) 지명

▶ 엄다산면(嚴多山面, 24개 마을)3) - 원문에는 노상리(路上里), 광보리(廣保里)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이(里)는 자연마을 이므로 생략함.

노상(路上), 광보(廣保), 석천종(石泉洞), 월천동(月泉洞), 해정(蟹井), 야리(野里), 불암(佛岩), 거제동(巨濟洞), 성산(星山), 운흥동(雲興洞), 송촌(松村), 평촌(平村), 신촌(新村), 수정동(水井洞), 수천(水川), 복영촌(伏永村), 흥룡동(興龍洞), 월산(月山), 직촌(直村), 상정(上亭), 삼정(三亭), 삼정동(三亭洞), 벽류동(碧流洞), 벽류정(碧流亭)

▶ 신마로면(新乜老面, 25개마을)

수산(水山), 포향정(抱香亭), 귀산(龜山), 쌍천(雙川), 호연정(浩然亭), 와촌(瓦村), 신촌(新村), 용암(龍巖), 칠성촌(七星村), 갈동(葛洞), 용흥동(龍興洞), 옥매동(玉梅洞), 장지촌(長之村), 수정동(水淨洞), 상신기(上新基), 석문내(石門內), 노송정(老松亭), 신기(新基), 국당(國堂), 중촌(中村), 신흥동(新興洞), 신정(新亭), 연국당(戀國堂), 북산(北山), 사양동(士良洞)

* 참고 2. 1912년 행정구역 명칭

▶ 엄다면(嚴多面, 25개 마을) - 이(里)자는 생략

노상(路上), 장내(墻內), 해정(海亭), 야리(野里), 토교(土橋), 비석(碑石), 번동(番洞), 불암(佛岩), 정동(亭洞), 송암(松巖), 윤암(允岩), 거제(巨濟), 성산(星山), 송촌(松村), 신기동(新基洞) 송정(松亭), 벽류정(碧流亭), 영화정(永化亭), 삼정(三亭), 수정동(水汀洞), 용호동(龍虎洞), 월산(月山), 영천(永川), 흥룡(興龍), 사호포(沙湖浦)

▶ 신노면(新老面, 23개 마을)

우평(牛坪), 중갑기(中甲基), 지동(芝洞), 장동(壯洞), 화계(化溪), 용흥(龍興), 성암(星岩), 용암(龍岩), 대천(大川), 쌍천(雙川), 귀산(龜山), 영화정(永化亭), 농은동(農隱洞), 행정촌(杏亭村), 중양(中陽), 정양(正陽), 월봉(月峯), 중흥(中興), 자연(自然), 금곡(今谷), 노송정(老松亭), 생곡(生谷), 석문내(石門內)

3) 엄다산면의 한자표기는 1759년의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嚴多山面으로 1789년 호구총수에는 嚴多山面으로 되어 있고 1912년 행정구역 개편명은 嚴多面으로 바뀌어 있다.

* 참고 3. 1914년 행정구역명

이(里)이름	관 할 마 을
삼정리(三井里)	목포부 엄다면 송정(松亭), 삼정(三亭), 수정(水汀), 벽유정(碧柳亭), 신로면 영화정(永化亭) 전역
성천리(星泉里)	목포부 신로면 성암(星岩), 용암(龍岩,) 전역과 용흥동(龍興洞), 쌍천동(雙川洞), 대천동(大川洞,) 엄다면 천동(泉洞,) 화정(花亭,) 해정(海亭,) 함평군 영풍면 송정(松亭)각 일부
송로리(松路里)	목포부 엄다면 노상(路上), 장내(墻內,) 송촌(松村), 신기동(新基洞)전역과 해정(海亭), 비석동(碑石洞,) 번동(番洞) 신로면 화계(花溪) 각 일부
신계리(新溪里)	목포부 신로면 지동(芝洞), 우평(牛坪), 중신기(中申基)전역과 화계(花溪,) 장동(壯洞,) 함평군 영풍면 비아(比牙) 각 일부 목포부 엄다면 생곡(生谷) 석문내(石門內) 전역
엄다리(嚴多里)	목포부 엄다면 성산(星山,) 거제(巨濟,) 정동(亭洞,) 송암(松巖), 윤암(允巖), 불암(佛巖)전역과 비석동(碑石洞), 번동(番洞) 각 일부
영흥리(永興里)	목포부 엄다면 월산(月山,) 영천(永川), 용호(龍虎,) 흥룡(興龍,) 사호포(沙湖浦) 전역
학야리(鶴野里)	목포부 엄다면 신야(新野,) 학교(鶴橋), 야리(野里) 전역과 신로면 대천동(大川洞) 일부
화양리(花陽里)	목포부 신로면 구산(龜山), 행정촌(杏亭村)전역과 정양(正陽), 중양(中陽,) 농은(農隱,) 쌍천(雙川), 엄다면 천동(泉洞,) 화정(花亭) 함평군 기성면 수산(水山) 각 일부

3. 논·밭 면적과 가호·인구수

2007. 12. 31 현재

이명 \ 구분 / 마을이름		논·밭 면적(ha)			가호수	인 구 수			참 고
		논	밭	계		남	여	계	
삼정1리	원삼정,수정동	13.9	5.3	19.2	36	15	34	49	
2리	영화정,벽유정,송정	22.2	22.9	45.1	45	33	46	79	
성천1리	성암	53.9	15.7	69.6	53	28	49	77	
2리	와촌, 용동	47.9	18.2	66.1	44	34	45	79	
송로1리	노상	37.4	28.3	65.7	62	62	60	122	
2리	해정, 비석동	49.4	12.3	61.7	63	45	68	113	
3리	송촌	16.2	11.7	27.9	34	30	32	62	
4리	배다니, 담안	14.0	14.9	29.9	39	39	48	87	
선계1리	화계	42.3	21.8	64.1	41	54	65	119	
2리	장동, 생곡(없어짐)	36.8	15.5	52.3	24	25	30	55	
3리	우평	12.7	9.0	21.7	20	14	19	33	

이명 / 구분 / 마을이름		논·밭 면적(ha)			가호수	인 구 수			참 고
		논	밭	계		남	여	계	
엄다1리	성산	29.7	20.5	56.5	61	63	62	125	
2리	번동	25.4	8.9	34.3	68	185	102	187	
3리	불암, 송암	47.8	10.5	58.3	39	33	41	74	
4리	제동, 정동	29.4	14.8	47.8	34	39	46	85	
5리	신양동	13.2	4.4	17.6	37	43	45	88	
영흥1리	영천, 송현, 용호동	58.2	15.7	73.9	54	34	54	89	
2리	흥룡동, 월산	47.6	13.2	60.8	52	40	43	83	
학야1리	토교, 야리	62.3	0.8	63.1	37	39	50	89	
2리	대천동, 죽월촌	44.5	0.9	45.1	34	20	31	51	
화양1리	영화정,농은동,포향정	33.7	12.1	45.8	45	32	48	80	
2리	정양, 중양	34.2	5.2	39.4	45	35	53	88	
3리	쌍천	31.3	0.6	31.9	25	22	25	47	

4. 인구의 변동

엄다면의 가호와 인구수가 기록된 가장 오래된 문헌은 1757년부터 1765까지 간행한 여지도서며 가호와 인구는 1759년을 기준으로 하였다고 한다.

당시 현 엄다면 관내에 있던 엄다산면과 신마로면은 엇비슷한 면세였는데 신마로면이 가호와 인구수가 약간 많았음을 볼 수 있으며, 이때의 남녀 구성 비율을 보면 남자 42.72%, 여자 57.28%로 여자가 많았으나 1996년의 구성 비율을 보면 남자 49.1%, 여자 50.9%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으며 2007년에는 남자48.5%, 여자51.5%이다.

이는 함평군의 읍·면 남녀 구성비와 큰 차이가 없다.

1) 여지도서·호구총수의 가호와 인구

면명 / 구분	여지도서(輿地圖書) : 1759년				호구총수(戶口總數) : 1789년			
	가호수	인 구 수			가호수	인 구 수		
		남	여	계		남	여	계
엄다산면	296	431	513	944	361	492	523	1,015
신마로면	343	578	708	1,286	265	551	526	1,077
계	639	1,009	1,221	2,230	626	1,043	1,049	2,092

* 여지도서에는 신변로면(新卞老面), 호구총수에서는 신마로면(新乍老面)으로 되어있다.
* 신마로면은 여지도서 보다 호구총수가 크게 가호와 인구가 줄어든 것을 보면 관할구역 개편이 있었던 것 같다.

함평군의 인구 최성장년은 1965년이다.

따라서 엄다면의 인구 최성장년도 1965년이며, 1789년 호구총수와 1965년 인구 최성장년과 비해보면 170여년동안 5배 가까이 늘었으며 1965년과 1996년을 비교해 보면 1965년 10,144

명에서 1996년 3,051명으로 30여년 동안에 7,063명이 줄어 감소율이 69.93%에 이르며 2007년에는 2,471명으로 1965년 대비 감소율이 76%이다. 이는 군내 읍·면 감소비율 순위 중간이다.

2) 문헌 기록의 엄다면 인구 변동

년	전거(典據)	가호수	인 구 수			참 고
			남	여	계	
1759	여지도서	639	1,009	1,221	2,230	
1789	호구총수	626	1,043	1,049	2,092	
1965	함평군통계연보	1,569	5,090	5,064	10,144	
1996	함평군통계연보	1,092	1,498	1,553	3,051	
2007	함평군통계연보	1,161	1,198	1,273	2,471	

엄다면에서 인구가 가장 많았던 해는 1965년으로 10,144명이며 1996년에는 무려7,051명이 줄어 3,051명, 2007년에는 2,471명으로 1965년도와 비교하면 7,673명이 줄어들었다. 69%이상 줄어든 리는 아래표에서 보듯이 4개리이며 가장 감소율이 높은 리는 76.4%인 성천리이다. 가장 감소율이 낮은 리는 송로리인데 1965년 대비 43.19%이다.

3) 인구 감소율 69% 이상인 리(里)

구분 / 리명	1965년 인구수			1965년 대비 감소수 ( )속 숫자 감소율 %	1996년 인구수	2007년 인구수
	남	여	계			
성 천 리	680	672	1,352	1,034(76.48)	318	156
화 양 리	574	547	1,121	820(73.15)	301	215
신 계 리	498	511	1,009	722(71.56)	287	207
영 흥 리	502	536	1,038	717(69.08)	321	161

5. 면내 10대 씨족

순위	1998년			2007년		
	씨족 명	가호수	집단거주	씨족 명	가호수	집단거주
1	김해김씨(金海金氏)	92		함평이씨(咸平李氏)	90	송로리
2	전주리씨(全州李氏)	74	송로리	김해김씨(金海金氏)	82	
3	나주김씨(羅州金氏)	60	신계리	밀양박씨(密陽朴氏)	67	
4	파평윤씨(坡平尹氏)	58	엄다리	파평윤씨(坡平尹氏)	50	엄다리
5	나주정씨(羅州鄭氏)	55	송로리	이천서씨(利川徐氏)	42	성천리
6	압해정씨(押解丁氏)	51	성천리	나주정씨(羅州鄭氏)	26	송로리
7	밀양박씨(密陽朴氏)	41		경주정씨(慶州鄭氏)	26	삼정리
8	이천서씨(利川徐氏)	40	성천리	전주이씨(全州李氏)	23	송로리
9	함평이씨(咸平李氏)	38	송로리	나주김씨(羅州金氏)	23	신계리
10	무안박씨(務安朴氏)	27		인동장씨(仁同張氏)	22	영흥리

6. 역대 면장 명단

대(대)	이 름		학 력	출생리	재 임 기 간	
	한 글	한 문			취 임	퇴 임
명 예 직	장 기 홍	張 冀 洪		송 로 리		
1	장 기 회	場 冀 會		영 흥 리	4년	
2	김 태 일	金 太 一	국 졸	성 천 리	17년	
3	박 형 화	朴 亨 和	광주농업	화 양 리	3년	
4	김 성 남	金 成 男	함평농업	신 계 리	7년	
해방 후 1	박 형 화	朴 亨 和	광주농업	화 양 리	1946. 3. 1	1946. 12. 15
2	정 동 수	鄭 東 秀	전문학교	성 천 리	1946. 12. 30	1948. 1. 20
3	이 승 재	李 昇 宰	국 졸	신 계 리	1948. 3. 1	1948. 12. 10
4	윤 득 주	尹 得 珠	〃	삼 정 리	1949. 1. 18	1952. 5. 5
자치법후1	이 택 헌	李 宅 憲	〃	송 로 리	1952. 5. 5	1956. 7. 12
2	〃	〃		〃	1956. 8. 8	1960. 12. 26
3	천 기 홍	千 冀 洪	대전공업	엄 다 리	1960. 12. 26	1961. 6. 26
4	조 성 도	趙 成 道	순천사범	삼 정 리	1961. 6. 30	1964. 3. 31
5	윤 현 대	尹 鉉 大	국 졸	〃	1964. 4. 1	1966. 2. 3
6	지 홍 재	池 弘 在	〃	학 야 리	1966. 2. 3	1969. 3. 18
7	이 찬 규	李 贊 圭	〃	송 로 리	1969. 4. 1	1973. 4. 30
8	박 기 태	朴 淇 台	고 졸	화 양 리	1973. 5. 7	1981. 7. 9
9	윤 여 홍	尹 汝 洪	〃	엄 다 리	1981. 8. 25	1990. 2. 3
10	윤 충 일	尹 忠 一	〃	〃	1991. 5. 1	1996. 4. 30
11	정 영 화	丁 永 和	〃	송 로 리	1996. 5. 1	1998. 8. 4
12	정 란 희	鄭 蘭 姬	〃	성 천 리	1998. 9. 5	2000. 3. 16
13	김 양 수	金 良 洙	〃	월야면	2000. 3. 17	2002. 9. 8
14	노 진 관	魯 鎭 官	〃	전남고흥	2002. 9. 9	2005. 8. 7
15	박 상 석	朴 相 錫	〃	전남무안	2005. 8. 8	2006. 9. 21
16	김 양 현	金 良 鉉	〃	함평읍	2006. 9. 22	2008. 7. 27
17	이 윤 성	李 允 聖	〃	함평읍	2008. 7. 28	현 재

7. 면의원 명단

대	이 름		학 력	대	이 름		학 력
	한 글	한 문			한 글	한 문	
1	김 주 현	金 胄 現	국 졸	2	장 주 환	張 周 煥	국 졸
	박 영 춘	朴 永 春	〃		임 경 택	林 景 澤	〃
	서 상 일	徐 相 一	〃		천 기 홍	千 冀 洪	공업학교
	정 병 규	鄭 炳 奎	〃		이 남 주	李 南 柱	국 졸
	지 용 무	池 龍 武	중 졸				
	김 인 택	金 仁 澤	국 졸	3	김 원 호	金 元 鎬	국 졸
	방 팔 만	房 八 萬	〃		리 찬 규	李 贊 圭	〃

대	이 름		학 력	대	이 름		학 력
	한 글	한 문			한 글	한 문	
	장 경 회	張 暻 會	〃		이 만 기	李 萬 基	〃
	천 기 홍	千 冀 洪	공업학교		정 병 석	鄭 炳 錫	〃
	윤 학 병	尹 鶴 炳	국 졸		정 중 구	鄭 仲 九	〃
	조 대 형	趙 大 衡	〃		임 용 택	林 龍 澤	〃
2	정 병 규	鄭 炳 奎	〃		김 상 안	金 相 安	〃
	서 상 일	徐 相 一	〃		정 병 길	鄭 炳 吉	〃
	정 막 동	鄭 莫 同	〃		서 판 용	徐 判 用	〃
	지 용 무	池 龍 武	중 졸		김 주 현	金 冑 現	〃
	김 병 량	金 炳 亮	국 졸		정 병 관	鄭 炳 冠	〃
	정 병 관	鄭 炳 冠	〃				

8. 마을사(史)

리명 : 가나다 순

1) 삼정리(三亭里)

1914년까지는 목포부 엄다산면에 속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이제(里制)를 실시하면서 엄다산면의 송정(松亭), 삼정(三亭), 수정(水汀), 벽류정(碧流亭), 신변로(新卞老)면의 영화정(永化亭) 전역을 묶어 삼정 마을명을 이명(里名)으로 하였다.

(1) 원삼정(元三亭)

o 마을현황

가 호			인 구			본관별 성씨(단위:가호)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김해김	함평이	선산김	경주정	파평윤	밀양박	이천서
32	32		44	14	30	1	2	7	12	4	1	2

면 적(ha)			종 교			연령대별 인구 구성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이상
26.1	15.9	10.2	4	8	20		1		2	4	2	10	24	1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이 마을은 경주정씨 정윤창(鄭胤昌, 1635년생)이 무안군 몽탄에서 이주 정착하였고 또 선산김씨 김익려(金益礪, 시조로부터 27대손)가 250여년 전에 입촌하였고 오늘에는 8개 성씨가 모여 산다.(파평윤씨, 밀양·무안박씨, 전주이씨, 제조고씨, 영성정씨 등으로 지금은 윤씨가 주성촌을 이룸) 벽유정, 송정, 수정의 3개 마을의 중심지라는 뜻에서 원삼정(元三亭)이라고 했다고

원삼정

한다.

o 주산업 및 특산물 : 벼, 양파, 마늘

o 자생조직단체

·혼인계 : 계원 자녀들의 혼인을 목적으로 1978년에 창립, 총 18가구가 참여함.

o 배출인물

·김경환(金京煥) : 서울경미의원 원장
·김창환 : 국민은행 본부장
·윤상혁 : 순천대학교수
·윤득주(尹得珠) : 엄다면장 역임
·윤현대(尹鉉大) : 5대면장 역임
·김교석 : 총무처 근무
·김교인 : 육군 대령

(2) 벽유정(碧柳亭)

o 마을현황

가 호			인 구			본관별 성씨(단위:가호)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김해김	함평이	나주정	경주정	영성정	이천서
13	13		19	7	12	2	1	1	7	1	1

면 적(ha)			종 교			연령대별 인구구성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9.0	4.0	5.0		1			1		2	2	2	1	10	1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지금은 벽유정, 영화정, 송정을 합해 삼정2리라 한다.

벽유정

이 마을에는 경주정씨 정유신(鄭維新,1579년생)이 1600년대에 맨먼저 입촌했으며 150여년전에 선산김씨, 130여년전에 영성정씨 그 후에 나주정씨, 무안박시, 문화유씨, 안동장씨, 이천서씨, 나주나씨 등이 들어와 살고 있다.

마을 뒷산 정상이 무안군과 함평군의 경계가 되며 마을에 맑은 물이 흐르는 개천이 있어 벽류(碧流)라 했다는 설이 있고 마을앞 개천에 버드나무가 줄지어서 있어 벽류(碧柳)라 했을 것이라는 설이 있는데 1789년 호구총수지명에는 벽류동(碧流洞)과 벽류정(碧柳亭)으로 부르는 두 마을로 나누어 적혀 있다.

o 주산업 및 특산물 : 벼, 양파

o 중요한 지명

·서당골 : 옛날에 서당이 있었다고 하여 서당골이라 명하여졌으나 현재 서당자취는 없다

·승지골 : 마을 뒷산 중턱에 절이 있었다고하나 현재 절은 없으며 절터로 추측되는 곳에서 가끔 기와장이 나오고 있다.

o 자생 조직단체

·삼동계 ; 1935년에 창립되어 마을 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목적으로 지속되어오고 있다.

o 배출인물

·조성도(趙成都) : 제4대 엄다면장 역임 ·조성수(趙成洙) : 초등학교교장 역임

·조한형(趙漢衡) : 광주 중흥초등학교교장 역임

·조성욱(趙成郁) : 법무부 차관 역임, 信 법무법인 대표

·정수길(鄭秀吉) : 국민은행 성남시 지점장 역임

·조성기(趙成淇) : 성한 제련광업주식회사 영월 광업소장 역임

·조성환(趙成煥) : 해태제과 전북지점장 역임

(3) 영화정(永化亭)

o 마을현황

가 호			인 구			본관별 성씨(단위:가호)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김해김	함평이	밀양박	한양조
11	11		20	7	13	2		1	9

면 적(ha)			종 교			연령대별 인구구성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이상
10.0	2.0	8.0		1		1	2		1	2	1	1	10	1

영화정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영원히 자손이 번창하고 화합하라는 뜻에서 영화라고 했다고 한다.

벽유정, 송정과 함께 삼정(三亭)을 이루고 있어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이명(里名)을 삼정(三亭)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곳에 정자가 많았던 것은 무안현의 치소와 가깝고 맑은 물이 흐르고 있어 옛날에는 무안현의 경승처로 휴식과 풍월을 즐기던 곳이 아니었던가 하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다.

o 주산업 및 특산물 : 농업, 양파, 벼
o 자생조직 : 영진회 : 1965년에 자생됨
o 배출인물 : 조성욱 : 법무부 차관

(4) 송정(松亭)

o 마을현황

가 호			인 구			본관별 성씨(단위:가호)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김해김	함평이	경주정	제주양	풍천임	영성정	영산정	무안박
21	21		40	19	21	6	2	6	1	1	2	2	1

면 적(ha)			종 교			연령대별 인구구성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17.0	11.0	6.0	1	4		3			3			15	16	3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이 마을은 영성정(丁)씨가 8대째 살아오고 있으며 지금은 경주정, 온양정, 무안박, 김녕김, 나주임, 청주한, 함평이씨 등이 살고 있다.

옛날 마을의 송림(松林)에 정자가 있어 송정(松亭)이라 했다는 유래가 전해 온다.

송정

o 주산업 및 특산물 : 농업, 벼 양파, 마늘

o 자생조직

송정계 : 1957년에 자생하여 현재까지 운용

o 배출인물

정병술 : 삼진음료 사장

(5) 수정동(水亭洞)

o 마을현황

가 호			인 구			본관별 성씨(단위:가호)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나주정	밀양박	경주정	함평노				
4	4		5	1	4	2	1	1	1				

면 적(ha)			종 교			연령대별 인구구성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3.0	2.0	1.0	1	1							2		3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이 마을은 제동의 고성정씨들이 이주해와 터를 닦았고 제동의 입향조 곤재 정개청이 제동에 입촌하면서부터 맑은 샘이 있어 식수로 개발하였다.

이에 마을명도 수정(水井)이라 했다는데 후에 수정(水汀)(1914년 행정구역 개편이전 지명)이라 했고 지금은 원래의 뜻과는 달리 수정(水亭)으로 쓰고 있다.

현재 이 마을에서는 수정이라 부르는 마을에 고성정씨가 살고 있고 한양조씨 선산이 있어 산직(山直, 1789년 호구총수지명)마을에 역시 고성정씨가 살고 있다.

o 주산업 및 특산물 : 벼, 양파, 마늘

(* 자료제공자 : 김교성)

2) 성천리(星泉里)

송정을 제외하고는 1914년까지 목포부 업다면과 신로면에 속하던 지역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이제(里制)를 시행하면서 목포부 신로면의 성암(성암), 용암(龍岩) 전역과 용흥(龍興), 쌍천(雙川), 대천(大川)과 엄다면의 천동(泉洞), 화정(花亭), 해정(海亭) 그리고 함평군 영풍면의 송정(松亭) 각 일부를 합해 성암에서 "星"자와 천동에서 "泉"자를 따 성천리(星泉里)라 이름하여 함평군 엄다면에 편입시켰다.

(1) 성암(星岩)

o 마을현황

가 호			인 구			본관별 성씨(단위:가호)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김해김	밀양박	함평이	금성정	나주정	임씨	고씨	조씨	송씨
53	50	3	77	28	49	5	5	7	6	9	2	2	2	1

면 적(ha)			종 교			연령대별 인구구성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51.2	42.8	8.4	15	20			10	2	1	4	9	8	40	3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나주정씨가 이 마을에 정착한 이래 10대(약 250여년)에 이르고 있으며 여러 성씨들이 모여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마을 뒤에 있는 칠성봉 지명에서 성(星)자와 마을 앞에 게바위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바위 암자(岩)를 따서 "성암(星岩)"이라고 했다고 하며 또 하늘에서 별바위(별똥)가 떨어졌기 때문에 성암이라 하였다는 전설도 있다.

o 주산업 및 특산물 : 마늘, 양파

o 공공기관 및 건물 : 마을학습회관

o 전설

·칠성촌 연못 : 고려때 이곳의 행정구역이 면성현 신호망으로 되었을 당시 마을 북쪽 칠성봉 산밑에 칠성촌이라는 번창한 마을이 있었는데 마을에 화재가 빈번이 일어났다고 한다.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화산이 마을에서 바로 보이면 화재가 자주 일어난다고 하는데 칠성촌에서 바로 보이는 화산이 영암 월출산이라 하여 마을 앞에 나무를 심어 숲을 만들어 보이지 않게 하고 마을 가운데에 큰 연못을 팠다고 한다. 그러나 그 후 마을은 점점 쇠퇴되고 지금의 성암마을로 옮겼다고 전하며 칠성촌 마을이 배 형국인데 연못을 팜으로서 배에 구멍을 냈기 때문에 마을이 쇠퇴하였다하여 그 당시 매몰해버려 현재는 흔적이 없다.

o 자생 조직단체

·혼인계 : 계원자녀의 결혼시 혼수비를 도울 목적으로 1975년에 창립, 26호가 참여하고 있다.

·상조계 : 계원 상호간의 부조를 목적으로 1970년에 창립, 21호가 참여하고 있다.

o 배출인물

·김창현(金昌鉉) : 군청과장 ·김재란(金在鸞) : 학다리고등학교 역임.

·김사현(金泗鉉) : 목포대학교 교수 ·김태일(金太一) : 엄다면장 역임

·김구현(金球鉉) : 치안본부 전산계산소장 역임, 총경

·배상선 : 해군중령 전역 ·배인태 : 인천시초등학교장 역임

·배문태 : 법성포 초등학교장 재임

(2) 와촌(瓦村)

o 마을현황

가 호			인 구			본관별 성씨(단위:가호)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김해김	함평이	밀양박	이천서
38	38		70	30	40	1	1	1	35

면 적(ha)			종 교			연령대별 인구구성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이상
55.0	50.0	5.0				10	4	6	5	14	13	19	17	6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와촌

마을 앞과 뒤에 팽나무 세그루가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랜 역사를 지닌 마을인 것으로 추측되는데 구전에 의하면 고성이씨가 마을터를 잡고 농사와 토기와를 구우며 살았다고 하나 현재는 거주하지 않고 있다. 임진왜란때 병조좌랑을 지낸 이천서씨 경춘(景春)이 낙향하여 이곳에 정착한이래 현재 14대를 내려오면서 서씨촌을 이루고 있다.

마을 뒤를 병풍처럼 칠성봉이 둘러 있고 주봉인 천자봉 밑에 용바위가 있어 처음에는 "용암(龍岩, 1914년 행정구역편전 지명)"이라고 하였으나 그후 이곳에서 토기와를 만들게 되어 남쪽은 용암, 북쪽은 와촌(瓦村)이라고 불러오다가 현재는 와촌으로 통일하여 부른다.

o 주산업 및 특산물 : 벼, 마늘 양파

o 마을과 관련된 전설

천자봉 중턱에 용바위가 있는데 옛날에 용이 살았다고 전하여짐.

o 자생 조직단체

·삼양장학회 : 이 마을 출신 중·고등학교 학생중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을 선발하여 매년 장학금을 지급코자 1986년에 설립

o 배출인물

·서희환(徐喜煥) : 세종대교수, 서예가, 작고
·정풍호(丁豊鎬) : 육군중령 ·서삼빈(徐三彬) : 광주은행 백운동지점
·서종호(徐鍾鎬) : 육군대령 예편 ·서충환(徐忠煥) : 육군소령
• 서양숙 : 육군소령

(* 자료제공자 : 서상민)

(3) 용동(龍洞)

o 마을현황

가 호			인 구			본관별 성씨(단위:가호)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김해 김	영성 정	고성 이	기타
6	6		9	4	5		4	1	

면 적(ha)			종 교			연령대별 인구구성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45.0	3.0	1.5	1	8						2	3	3	1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지금으로부터 300여년전인 1703년 영성정씨 묘제가 영광 묘량에서 이곳에 정착하여 현재 12대에 이르고 있으며 영성정씨촌을 이루고 있다. 마을 뒷산이 용이 솟아오르는 모양으로 생겼다하여 처음에는 용흥동(龍興洞, 1914년 행정구역 개편전)이라고 불러오다가 지금은 "용동(龍洞)"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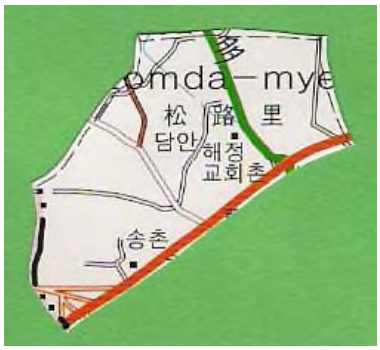
o 주산업 및 특산물 : 벼, 양파, 목화

o 배출인물

·정창업(丁昌業) : 국창, 서편제의 종장으로 추대 받고 있다.
·정영탁(丁永卓) : 전남도 지역경제개발계장
·정원옥(丁原玉) : 조선대조교수, 국사편찬위원
·정북실(丁北實) : 육군중령
·정맹수(丁孟秀) : 경위역임
·정남수(丁南秀) : 경위역임

3) 송로리(松路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이전에는 목포부 신변노변(新卞老面변, 신로면)과 엄다면에 속했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신로면의 노상(路上), 장내(墻內), 송촌(松村), 신기동(新基洞) 전역과 해정(海亭), 비석동(碑石洞), 번동(番洞), 신로면의 화계(花溪) 각 일부를 합쳐 송촌에서 "송"자 노상에서 "노"자를 따 송노리라하여 엄다면에 편입시켰다.



(1) 노상(路上)

o 마을현황

가 호			인 구			본관별 성씨(단위:가호)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김해 김	영일 정	함평 이	나주 나	인동 장	광산 김	남양 홍	경주 이	전주 최	전주 이	남원 양	기타
62	62		122	62	60	1	6	10	2	4	2	5	3	5	2	3	4

면 적(ha)			종 교			연령대별 인구구성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이상
85	70	15				3	13	4	7	20	22	20	16	8

노상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지금으로부터 약 450여년전 흥덕장씨 장호가 나주에서 이곳으로 이주 정착하여 마을을 형성하였으며 현재는 함평이씨가 주성을 이루고 있다.

예부터 신계리로 통하는 길이 있고 길 위쪽에 있다하여 노상이라고 하였다 하며 일설에 의하면 마을 뒤 산세가 해오라기 형상이라 하여 노상(鷺上)이라 쓸 것을 잘못하여 노상(路上)이라 했다고 한다. 그리구 마을앞고 옆에 석천동(石泉洞, 1914년 행정구역 개편전까지 함평군 영풍면이었음) 작은 마을이었으나 노상으로 통하여 주민이 근면하여 소득이 높은 마을이다.

o 주 산업 및 특산물 : 벼, 마늘, 양파, 배

o 특이한 민속제향과 놀이

· 설(구정)명절에는 마을회관에서 마을민 전체가 모여 공동으로 세배를 드린다.

o 자생 조직단체

·친목계 ; 계원 상호간의 축산기술보급과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1978년에 창립, 24호가 참여

o 배출인물

·이계석(李啓奭) : 육군 중령
·이택헌(李宅憲) : 1·2대 엄다면장 역임
·이두헌(李斗憲) : 호남석유화학 과장
·이기헌(李奇憲) : 기업은행 본부차장
·이부헌(李富憲) : 엄다면 농협조합장, 군의원

(2) 해정(海亭)

o 마을현황

가 호			인 구			본관별 성씨(단위:가호)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김해김	밀양박	함평이	기타	
63	26	37	113	45	68	9	4	7	37	

면 적(ha)			종 교			연령대별 인구구성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이상
85	70	15				3	13	4	7	20	22	20	16	8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지금으로부터 300여년전 전주리씨가 터를 닦고 살았으며 100여년 후에는 나주나씨가 이주하여 왔다.

그후 금성정씨가 이주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1977년에 새마을사업으로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군내에서 처음으로 시행하여 마을환경 개선사업에 앞장선 모범마을이며 현재는 여러 성씨가 모여 살고 있다.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마을 모양이 게의 형국이기 때문에 “해정(蟹井, 1789 호구 지명)“이라 마을 이름을 명하였으나 그후 게에서 나오는 거품이 일시에 없어짐으로 살림도 당대에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 마을이름을 ”해정(海亭, 1912년 행정구역 개편지명)으로 고쳤다 한다.

o 주 산업 및 특산물 : 벼, 마늘, 양파

o 특기사항

마을 앞에는 수령 300여년이 되는 느티나무가 있으며 마을 앞은 넓은 평야가 함평에서 제일 넓은 엄다평야이며 광목간 국도가 마을앞을 지나고 있다.

o 자생 조직단체

·혼인계 : 자녀들이 결혼시 상호간의 협조를 목적으로 1979년에 창립, 18호가 참여

o 배출인물

·이찬규(李贊圭) : 제7대 엄다면장 역임
·김삼남(金三男) : 육군중령
·김종화(金綜和) : 수필가, 육군중령예편

(*자료제공자 : 김계선)

(3) 송촌(松村)

o 마을현황

가 호			인 구			본관별 성씨(단위:가호)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김해김	밀양박	나주정	기타
34	27	7	62	30	32	4	3	10	10

면 적(ha)			종 교			연령대별 인구구성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25.0	9.0	16.0	1	4	57	7	4	3	4	2	6	10	26	

송촌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구전에 의하면 오래전부 터 오씨가 터를 잡고 마을을 형성하여 살았다고 하나 정확한 유래는 알 길이 없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여년전에 나주정씨가 무안에서 이곳으로 이주하여 자작일촌을 이루며 살아왔으나 현재는 여러 성씨가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o 주산업 및 특산물 : 벼, 양파, 마늘

o 문화유적

·삼강문 : 마을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충신 월봉공, 효자 선중, 열녀 순천박씨등 세분을 모신 곳이다.

• 제실 :

o 민속제향

·당산제 : 마을앞에 약 500년 된 당산나무가 있다. 음력 정월 보름날이면 각호에서 짚을 한 두짐씩 거두어 줄을 꼬아 동네를 양편으로 나누어 줄다리기를 한 다음 그 줄을 당산나무에 감고 상을 차려놓고 마을의 번영과 각 가정의 행운을 빌며 당산제를 지낸다.
전설에 의하면 당산나무 잎이 일시에 돋으면 풍년이 들고 그렇지 못하면 가뭄을 예고한다고 한다.

o 자생조직단체

·상조회 : 계원 상호간의 부조를 목적으로 1981년 창립, 마을의 전 가구 참여

• 촌계 :

o 배출인물

·정병률(鄭炳律) : 경찰총장

·정인섭(鄭仁燮) : 목포역 운전사무소 조역

·박태영(朴泰永) : 원광대학교 교수

• 정송학(鄭松鶴) : 현 광진구청장

·정병남(鄭炳南) : 조선대학교 공업전문대학 교수 • 정대우(鄭大宇) : 교감
• 정병선(鄭炳善) : 천지농협조합장역임

(4) 담안(墻內)

o 마을현황

가 호			인 구			본관별 성씨(단위:가호)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김해김	밀양박	함평이	한양조	금성나	풍산홍	노	서	정
17	17	7	35	19	16	1	3	1	4	2	1	1	1	1

면 적(ha)			종 교			연령대별 인구구성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이상
33.0	19.0	14.0	3	5	9	1	3	4		11	5	1	10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담안

임진왜란 당시 난을 피하려고 한양에서 전주리씨가 이곳으로 이주하여 마을을 형성하였다.

그 후에 한양조씨가 이주하여 살았으며 현재는 여러 성씨가 모여 마을을 이루고 있다.

감방산 지혈의 줄기를 받아 오선박주의 능선을 등지고 사방이 산으로 둘러져 있으며 옛날에는 마을 뒤에 송죽이 울창하였다

하나 현재는 흔적만 있을 뿐이며 사방의 산을 담장으로 비유하여 담장안 마을이라는 뜻으로 마을 이름을 장내(墻內,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이전 지명)라 명하였다. 즉 우리말로 담안이다.

o 주 산업 및 특산물 : 마늘, 양파

o 배출인물

·서원식(徐元植) : 육군중령

·이창규(李昌圭) : 무안운남우체국장 역임
(*자료제공자 : 홍경이)

(5) 교회촌(敎會村)

o 마을현황

가 호			인 구			본관별 성씨(단위:가호)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김해김	밀양박	함평이	파평윤	차	마	노	유	서
21	21		52	20	32	2	3	1	1	1	1	1	1	1

면 적(ha)			종 교			연령대별 인구구성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이상
12.0	7.0	5.0	2	19		5	4	4	2	5	3	12	15	3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마을의 최초 형성 시기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당초에 4~5가구가 산재해서 거주하였는데 8·15 해방직후 이곳에 엄다교회가 건립되면서 주민이 이주해와 현재의 마을이 형성되었다 한다.

또한 엄다중학교가 건립됨으로써 선도마을로 탈바꿈 되었다.

옛날에는 "잿등: 배단이(배다리)"라 하였으나 이곳에 교회가 건립되면서 "교회촌"이라 하였다.

o 주 산업 및 특산물 : 쌀, 보리, 양파, 마늘

o 공공기관 및 건물

- 엄다교회
- 엄다어린이집

o 배출인물

·이춘헌(李春憲) : 광주 도봉교회목사

4) 신계리(新溪里)

1914년까지는 목포부에 속하였던 지역이다.

1914년 이제(里制)를 시행하면서 신로면의 지동(芝洞), 우평(牛坪), 중신기(中新基) 전역과 화계(花溪), 장동(壯洞), 함평군 영풍면 비아동(比牙洞) 일부와 엄다면 생곡(生谷), 돌문안(石門內)전역을 묶어 중신기에서 "신"자와 화계에서 "화"자를 따 신계리라 하였다.

(1) 화계(花溪)

o 마을현황

가 호			인 구			본관별 성씨(단위:가호)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김해김	밀양박	함평이	전주이	나주김	제주양	정	홍	기타
41	41		119	54	65	2	3	1	10	16	3	2	1	

면 적(ha)			종 교			연령대별 인구구성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62.8	34.4	18.4				4	7	15	5	13	19	17	19	10

화계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지금으로부터 약 450년전에 고성김씨가 이곳에 이주하여 사다리방죽 위쪽에 터를 잡고 살았다. 농경지가 넓고 수리가 용이하여 여러곳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제법 큰 마을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곳은 함평읍 성남리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으며 시내(엄다천)양편에는 아름다운 들꽃이 무성하여 꽃내라 불렀던 곳이고 현재 부르고 있는 화계는 행정구역이 개편될 대 고쳐 부르게 된 이름이다.

당초에 터를 잡은 곳은 사다리 방죽 위쪽이었으나 어느 해 큰 가뭄이 들어 물이 마른 방죽에서 귀가 달리 큰 가물치(승천을 기다리던 이무기로서 마을의 수호신이었음)를 잡아 동네 사람들이 끓여 먹은 후 이유 없이 하나둘씩 죽어가고 동네에 우환이 그치지 않으므로 방죽을 피해 현재의 위치로 옮겨와 새로운 마을을 형성하였다.

그 후 마을 주변에 나무를 심어 울타리를 침으로서 마귀의 출입을 금하였다하며 현재에도 마을 뒤쪽에는 그때 심은 노거수가 남아 있다.

o 주산업 및 특산물 : 벼, 마늘, 양파

o 공공기관 및 건물 : 함평천주교 엄다공소

o 배출인물

·김의택(金義澤) : 경찰국장, 국회의원 민권당 당수역임
·김우근(金禹根) : 시군과장
·김우종(金禹鍾) : 전라북도 자연재생공사 지사장
·김지원(金智元) : 서울세무서과장, 회계사소장
·김주형(金柱衡) : 속초법원장, 서울지법부장판사, 변호사
·김우창(金禹昌) : 서울 고려대교수
·이승재(李昇宰) : 엄다면장 역임
·이부일(李富一) : 국회의원 비서관, 교육학박사
·이길재(李佶宰) : 초등학교 교장 역임
·정영배 : 여수수산대 교수

(*자료제공자 : 이정관)

(2) 장동(壯洞)

o 마을현황

가 호			인 구			본관별 성씨(단위:가호)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김해김	밀양박	함평이	전주이	광산김	제주양	전씨	지씨	기타
24	24		55	25	30	2		2	5	8	5	2	1	

면 적(ha)			종 교			연령대별 인구구성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24.2	20.0	4.2	4	5		1			2	2	5	20	20	5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지금으로부터 약 350년 전에 광산김씨 2세대가 처음으로 이주하여 정착하였다. 그 후 10년 후에 전주리씨가 이주하여 마을을 이루어오다 현재는 7개 성씨가 아담하고 조용한 농촌 마을을 이루고 있다.

지명유래는 전하여지는 말이 없어 알 길이 없다.

이 마을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이전에는 목포부 신노면이었고 마을일부가 함평읍 성남리로 편입되었다.

o 주산업 및 특산물 : 벼, 양파, 마늘

o 공공기관 및 건물 : 마을회관

(3) 생곡(生谷)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장동마을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형성에 대한 것은 전해오는 말이 없다.

고려시대때 선비들이 활을 쏘며 즐기던 곳이라 하며 "사장촌(射場村)"이라 불리어져 왔으나 해방 후 산 좋고 물 좋은 곳이라 하여 "생곡"이라 하였다.

* 이 마을은 2007년 광주-무안간 공항고속도로 개설로 마을전체가 없어졌음.

(4) 우평(牛平)

o 마을현황

가 호			인 구			본관별 성씨(단위:가호)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김해김	나주김	고성김	제주양	인동장	영성정	홍씨	기타
20	20		33	14	19	1	3	1	2	1	2	2	

면 적(ha)			종 교			연령대별 인구구성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24.2	20.0	4.2	3	4			4	4	1	6	4	5	8	1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조선조 성종때인 1550년경 병조참의를 지낸 고성김씨 김익경이 무안에서 입향하여 마을을 형성한 이래 그 후손들이 주종을이루며 현재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마을의 형세가 소가 누워있는 형상이라하여 "우평(牛坪)"이라 했으며 지금은 우평(牛平)으로 쓰고 있다.

o 문화유적

·열녀각 : 지금으로부터 50여년전에 건립, 진주정씨의 행적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계승시키고 있음.

·동백림(桐栢林) : 수령이 500년에 가까운 동백림이 있다.

o 전설

마을의 산세가 소가 누워있는 형상이므로 소의 혈이 흐른다하여 우물을 파면 소가 죽으니 우물을 파서는 안된다고 전해오고 있다.

o 자생조직단체

·상조계 : 계원의 제상 시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1979년에 창립, 21호가 참여

o 배출인물

·김 명 : 임신현감을 지냄
·김무국 ; 공조참의를 지냄
·이준이 : 하동부사를 지냄
·김동규(金東奎) : 서울동규안과 병원장
·김성남(金成男) : 엄다면장역임
·김성균 : 검사 현재 변호사
·정영철(丁永哲) : 장성경찰서장, 총경역임
·정영배 : 순천대교수
·김길동(金吉童) : 목포시립보건소 소장 역임

(* 자료제공자 : 양길남)

5) 엄다리(嚴多里)

1914년 이전에는 목포부 엄다산면(嚴多山面→엄다면)에 속했으며 1914년 행정구역개편 때 이제(里制)를 실시하면서 엄다면의 성산(星山) 거제동(巨濟洞), 정동(亭洞), 송암(松巖)과 윤암(允巖), 불암(佛巖) 전역과 비석동(碑石洞), 번동(番洞) 각 일부를 묶어 엄다면의 소재지로 삼고 이명(里名)도 엄다리라 하였다.

(1) 성산(星山) : 별뫼

o 마을현황

가 호			인 구			본관별 성씨(단위:가호)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파평윤	김해김	밀양박	함평이	한양조	성산김	경주이
61	54	7	125	63	62	40	3	1		1	1	1

면 적(ha)			종 교			연령대별 인구구성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이상
43.47	28.14	15.33	5	14		10	2	11	20	10	11	31	25	5

별뫼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파평윤씨 시조 윤신달의 22세손 윤제(尹濟)가 은거를 목적으로 무안군 청계면 송구(松丘)로부터 이주해 온 이래 그 후손이 번창하여 윤씨 일촌을 형성하였다.

구전에 의하면 윤제가 이주하기 전에는 김씨 황씨 등의 성씨가 마을을 형성하고 살았다고 전하나 현재는 거주하지 않고 있다.

옛 선인의 꿈에 마을앞 깊은 연못(현저수지)에서 구름이 일어나고 용이 승천하였다하여 마을 동편을 운흥동(雲興洞, 1789년 호구총수지명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으며 윤제가 송구에서 이곳에 정착하여 산세가 별같다하여 서편을 별뫼(별뫼)라 하였는데 마을이 점차 번창하여 두 마마을이 합쳐져 별뫼라 불러지고 있다. 마을 주민들 사이에는 아직도 동편을 운흥동이라 부르는 이가 있다. 무안천이 마을 앞을 유유히 흘러 영산강으로 가는 것을 보고 서천동류 병화불입(西川東流兵火不入)이란 풍수설에 의한 말도 있다. 산수가 수려하여 엄다면의 낙양이라고도 한다.

성산을 비롯한 엄다리 모든 마을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이전에는 목포부 엄다산면(嚴多山面)이었다.

엄다면의 낙양(洛陽 진, 당, 서울)이라고도 하는 별뫼(星山)에 파평윤씨(坡平尹氏) 시조 윤신달(尹辛達)의 22세손이신 윤제(尹濟)께서 청운의 뜻을 품고 동방의 거유이신 문청공 곤재 정개청(文淸公 困齋 鄭介淸) 선생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1587년 선조20년 해보면 모평(牟平) 에서 이주하시던 밤 꿈에 마을 앞 깊은 연못(현저수지)에서 용이 승천하는 것을 보시고 마을 동편은 운흥동(雲興洞), 서편은 산세가 밤하늘에 빛나는 별자리 형상과 같다하여 별뫼(星山)라 부르게 하시고 무안천이 마을 앞을 지나 영산강으로 유유히 흐르니 서천동류 (西川東流)는 병화불입(兵火不入)의 요지이기에 삶의 터전으로 삼으셨으며 구전(口傳)에 의하면 김씨, 황씨가 살았다고 전하나 거주하지는 않았다고 하며 1589년 곤재선생께서 정여립(鄭汝立)역모사건인 기축옥사(己丑獄死)에 무고(無故)로 연루되어 함경도 아산보로 유배되시어 제자들 에

게도 그 화가 미칠 것을 염려하시어 무안군 청계면 송구리(현 태봉인근)토담집에 숨어 학문에 집념하시다 세상이 평온해지자 1611년 광해군 3년 별뫼로 다시 오시니 후손들의 만년 세거지(萬年世居地)가 되었으며 세태의 변화로 지금은 빈집과 마을 주변에 타성씨인 김씨등 7호가 이주하여 살고 있다.

o 주산업 및 특산물 : 벼, 마늘, 양파, 배

o 공공기관 및 건물

• 성산교회 : 기독교장로회
1963년 4월 26일 신축
1996년 10월4일 엄다리 1142번지로 이전 증축

• 마을회관 : 1982년 문중재원과 주민들의 성금으로 건립, 시설이 노후 되어 2008년 군비 지원으로 내부 개조함. 운동기구와 편의시설은 군과 주민들의 기탁으로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음,

• 광성정(光星亭) : 1997년 군비지원과 주민의 성금으로 건립하여 숭조돈목의 종훈을 지켜 조상을 받들고 일가간에 화목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하며 서로간의 지혜와 견문을 교환하고 기술 영농의 꿈을 펼치는 희망의 장이요, 편안한 휴식처가 됨.

• 쉼터 : 2001년 농업기술센터 지원으로 '파고라'를 설치하였고 주민의 협조로 비가림과 평상을 설치하여 무더운 삼복지절에 노인과 부녀자들의 안락한 쉼터로 이용되고 있다.

o 유물과 유적

·효자정문(孝子旌門) : 윤행덕의 효자문
순조조에 부모에게 효도하여 교관으로 중직되었으며 가산을 크게 일으켜 천석꾼의 거부가 되었다.

·효열비(孝烈碑) : 윤상식의 처 서금도의 효열비
이천서씨, 순종조에 유림의 추천으로 효열부로 지정

·송덕비(頌德碑) : 학파 윤학병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종중과 주민이 세움.

·운성재(運星齋) : 서기1585년 철종9년 문중과 종친들의 성금협조로 운성제를 세워 인근의 많은 유생들을 배출하였으며 후학(後學)들이 결성한 노성계(老星契) 시사계(詩社契)등이 있어 엄다 창수유고(嚴多唱酬遺稿)가 전해오며 개화기 신문학의 산실(産室)로 활용되어 오늘날의 학교의 전신이 되었으나 건물이 노후하여 1972년에 철거하여 그 명성만 남아 있다.

• 수정제(守貞齊) : 수정공께서 천산제(天山齊)란 초옥을 지어 곤재 학문인 역학연구에 몰두하시며 후진양성과 문집정리 그리고 시와 가사(심덕성가)에 심취하시다 여생을 마치셨고 공께서 저술하신 교재집(喬梓集)은 오늘날 성리학과 역학(易學)을 주제로 한 가사문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으며 공을 기리기 위해 서기 1931-1932년 천산재 자리에 수정재를 중건하여 현존하고 있으며 숙종께서 내리신 사액자산서원(賜額紫山書院)에 봉안(奉安)되고 있다.

• 세거지유래비(世居地由來碑) : 서기2002년 수정공(守貞公)께서 별뫼(星山)에 정착하신 지 어

언 400년의 성상이 되어 경향각지에서 생업에 쫓겨 근원을 망각한 딱한 현실속에 살고 있는 1,200여 종친들에게 그 뿌리를 알려야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4-H의 상징인 '크로바회'의 헌성으로 유래비를 세워 자손만대에 영구보존하며 한 뿌리에서 태어난 것을 우리 모두의 자랑과 긍지로 여기고 있으니 별뫼는 영원히 빛날 것이다.

- 강학비 : 만송 윤자후 문하생들이 1991년 세움.
- 기실비 : 무안박씨 태님, 일찍 상부하고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자녀들을 훌륭히 성장시킨 공이 지대하여 주민들이 세움.
- 기적비 : 운여흥면장 면정에 지대한 공적을 기리기 위해 면민이 세움.

o 특이한 민속제향과 놀이

- 마을공동이념

I. 우리는 대한민국의 단일민족으로서 국가발전에 총력을 경주한다.
I. 우리는 수정선조의 동일자손으로서 상호이해하며 화목을 원칙으로 한다.
I. 우리는 동거마을 동일족으로서 부조리는 배격하고 적선을 권장한다.
I. 우리는 전력을 다하여 생업에 종사하고 상호 잘 살 수 있는 역군이 된다.
I. 우리는 마을 새마을사업에 상호협도하며 조기에 문전 십보이상을 청소한다.

- 성산가(작사 윤충병, 윤필중 공저 곡 김철수)

사이산중 깊은곳에 경치좋은 성산일세
백두산이 내려와서 별뫼뒷산 되었도다
앞으로는 맑은시내 사시사철 흘러가고
남산위에 내린눈은 삼월에도 남아있고
뒷동산의 이른꽃은 정월에도 피었도다
우리성산 만만세 만세

o 주요지명

- 조산 : 마을 가운데 사헌공묘소 (동산)
- 까꿀재 : 경사 70도 가파른 고개 (엎드려 오른다는 뜻 제동가는 고개)
- 오얏골 : 이씨 삼형제가 살았다고 전함 (정동가는 고개 양지 바른곳)
- 큰재, 작은재 : 본골가는 고개(번동가는 길)
- 장바땅 : 옛날장터였다고 전함 (오성로프 공장터)
- 덕문대앞 : 덕문이라는 부자가 살았다고 함 (CJ 젓갈공장)
- 구한길 : 옛 큰길 (1호선 뒤편)
- 초장골 : 말, 소 건조풀 보관소가 있었다고 전함.
- 장승백이 : 큰 장승이 서 있었다고 전함 (옛길과 국도가 합친 곳)
- 모세철 : 무안천 물과 모래가 쌓이는 곳
- 함복정 : 모두 누워있는 정자라는 뜻 (광성정 있는곳)
- 도내기 : 들샘(들 가운데 있는 우물)

o 자생조직단체

·수정회 : 1975년 윤제(尹濟)의 호를 따서 조직한 수정회는 충요사상과 선행, 근면, 지조, 용기, 우애등 5개항의 수칙으로 매년 1월15일에 온 주민과 출향종친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해를 반성하고 새로운 다짐을 하고 있다. 매년 3월 마지막주를 정기총회로 정하고 애국애족의 정신과 국가발전에 총력을 경주하며 또한 타의 모범이 되는 회원 및 자녀를 표창하고 있다.

o 배출인물

·윤제, 윤정우(尹濟, 尹挺宇) : 교재집(喬梓集)유고를 남김
·윤세태(尹世泰) : 진사 (조선조 숙종 기묘년)
• 윤 순(尹 巡) : 완원군 사위, 첨지중추부사
• 윤학병(尹鶴炳) : 한림종회장 역임 • 윤원병(尹元炳) : 삼학양조 전무이사 역임
·윤원중(尹沅重) : 해병중령(예편) • 윤갑현(尹甲鉉) : 해군대령(예편)
·윤항병(尹恒炳) : 전남도청 감사과장 역임
·윤맹술(尹孟述) : 전남도 산림연합회장 역임
·윤갑병(尹甲炳) : 광주시 건설과장 역임 • 윤홍중(尹洪重) : 충북 천원군 부군수 역임
·윤준병(尹俊炳) : 농수산부 종자시험장 차장
·윤 표(尹 杓) : 함평군의회의장 역임 • 윤기술(尹奇述) : 광주시 초등학교교장 역임
·윤해병(尹海炳) : 조흥은행 이촌 지점장 역임
• 윤갑현(尹甲鉉) : 해군대령 (예편) • 윤종일(尹鍾鎰) : 인천 정밀공업 대표이사
·윤관종(尹寬宗) : 고려시멘투(주) 대표이사
·윤여상(尹汝尙) : 한국증권9주) 기회부장 역임
·윤맹식(尹孟植) : 삼성조선소 부장 • 윤영재(尹永在) : 동원 탄좌 구매부장
·윤길전(尹吉田) ; 광주일보 사진부장 역임 • 윤여홍(尹汝洪) : 엄다면장 역임
• 윤길중(尹吉重) : 엄다면장 역임 • 윤충일(尹忠一) : 엄다면장 역임
• 윤칠중(尹七重) : 도성개발 회장
• 윤명규(尹明圭) : 한국투자신탁광주농성동지점장 역임
• 윤 영(尹 瑛) : 교육보험 경인지역총본부장 역임
• 윤용명(尹龍明) : 성우개발 대표이사, 광주북구의원
• 윤필중(尹弼重) : 영광, 해남 경무과장 역임 • 윤태연(尹泰衍) : 해양경찰청 경정
• 윤수병(尹守炳) : 삼호교회 목사
• 윤교중(尹敎重) : 서울은행 퇴계로 지점장 역임
• 윤 범(尹 凡) : 외환은행 영국런던 지점장 역임
• 윤삼중(尹三重) : 중소기업은행 춘천지점장 역임
• 윤석조(尹錫朝) : 보건직사무관 역임 • 윤정중(尹正仲) : 광주새순교회 담임목사
·윤병원(尹炳元) : 서울서교우체국장역임

o 마을 공동이념

• 수정회 회칙에 다섯가지 강령이 명기되어 있다.

1. 우리는 대한민국의 단일 민족으로서 국가 발전에 총력을 경주한다.
2. 우리는 수정 선조의 동일자손으로서 상호이해하며 화목을 원칙으로 한다.
3. 우리는 동거마을 동일족으로서 부조리는 배격하고 적선을 권장한다.
4. 우리는 전력을 다하여 생업에 종사하고 상호 잘 살 수 있는 역군이 된다.
5. 우리는 마을 새마을 사업에 상호 협조하며 조기에 문전 십보 이상을 청소한다.

(* 자료제공자 : 윤 표)

(2) 번동(番洞)

o 마을현황

가 호			인 구			본 관 별 성 씨 (단위 : 가호)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영양 천	밀양 박	함평 이	제주 양	영선 정	광산 김	고성 정	진주 강	탐진 최	하동 정
68	68		187	85	102	3	2		2	6	4	3	3	2	2

면 적(ha)			종 교			연령대별 인구 구성								
계	논	밭	불교	기독 교	카톨 릭	0-1 0	11- 20	21- 30	31- 40	41- 50	51- 60	61- 70	71- 80	81이 상
43.4	30.0	13.4	13	29	11	11	25	20	25	38	30	22	18	9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번동

구전에 의하면 700여년 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었다하나 자세한 것은 기록이 없어 알길이 없다. 현재는 엄다면의 소재지로서 면사무로를 비롯한 각 기관이 소재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대부분이 이주해와 정착하여 마을을 이루고 있다.

이 마을은 예부터 "본골(본동)"이라 불리어졌으며 마을의 터가 오선박주에 매일 배라하여 식수샘을 마을 밖에 파고 음료수로 사용하였다. 현재의 마을 이름이 생기게 된 유래에 대해서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예부터 불러온 본동이 와전되어 번동(番洞,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이전의 지명)이라 표기하게 되지 않았나 싶다.

o 지명과 풍수지리

·오선박주 : 엄다면 학야리에서 소재지쪽을 바라보면 불암마을 뒤에서부터 해정마을 앞까지 넓은 엄다평야 저편에 마치 바다에 떠 있는 배모양의 5개의 산이 있어 이것은 오선이라 하고 이것을 매어둔 박주(泊柱)가 음택과 양택이 있어 거부가 될 명당자리라는 풍수설이 있다.

o 주산업 및 특산물 : 쌀, 양파, 마늘

o 공공기관 및 건물

엄다면사무소, 천지농협엄다지소, 엄다초등학교, 엄다우체국,

o 자생조직단체

·상조계 : 계원의 친목도모와 부모상제시 상호간의 부조를 목적으로 1972년에 창립, 18호가 참여하고 있다.

o 배출인물

·김두천(金斗千) : 목포시 부시장역임 ·김용일(金龍一) : 광주 기독병원장
·천학실(千鶴實) ; 도지정 인간문화재(노동요) ·조길형(趙吉衡) : 서울초등학교장역임
·김홍일(金洪一) : 서울공대졸, 석탄공사사장역임

(* 자료제공자 : 김화중)

(3) 불암(佛岩)

o 마을현황

가 호			인 구			본 관 별 성 씨 (단위 : 가호)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김해 김	밀양 박	함평 이	영양 천	전주 이	인동 장	제주 양	청주 정	맡을 임	수원 백	천안 전
39	39		74	33	41	4	1	6	10	3	2	1	3	1	1	1

면 적(ha)			종 교			연령대별 인구 구성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카톨릭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이상
52.0	45.0	7.0	6	15	11	2		10	3	4	15	17	21	4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이 마을을 개촌했다는 영양천씨가 후손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천태진(千泰進, 1603년생)이 1660년경에 경남 고성군 장도면 장자리에서 이곳으로 이주 했다고 함.

천씨에 이어 김씨가 들어왔고 120년전에 임주열이 입촌했으며 1947년에 대동면향교에서 양(梁)씨가 들어와 살고 있다.

마을 후록이 오선박주(五船泊柱)형국이어서 불상을 모셔야 한다는 풍수설에 의해 불암(佛岩)이라고 했다는 설과 또 마을에 불상을 닮은 돌이 많아 불암이라고 했다는 설이 있다. 실지 불암이라 전해오는 바위가 마을에 지금도 있다.

o 지명과 풍수설

마을 지형이 배형국이라 해서 마을내에다 우물을 파지 못하고 내(川)건너 산 밑에다 우물을 파서 돌다리를 건너다니며 식수를 해결하여 왔으나 1970년에 정부지원과 주민부담으로 상수도 시설을 완공하여 식수를 해결하고 있다.

o 주 산업 및 특산물 : 벼, 양파, 마늘

o 공공기관 및 건물

노동요전수관 : 시도무형문화재 제5호, 1977년 10월20일 문화재로 지정됨, 위치는 전남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 270번지에 있다.

o 특이한 민속제향과 놀이

남도 노동요 : 노동요는 민요의 한 종류로 논이나 밭에서 일을 하면서 피로를 잊고 능률을 올리기 위해 부르는 노래이다. 남도 노동요는 매우 느리지만 힘찬 느낌을 주며, 천학실씨에 의해 전승되었으나 천학실씨가 죽고 난 이후 남도 노동요 전승이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무안·함평·나주 등지에서 천학실씨가 부른 남도 노동요가 온전히 전승되고 있다

o 자생조직단체

·상여계 : 계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제시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1972년에 창립 26호가 참여.

o 배출인물

• 천학실 : 시도무형문화재 제5호

·천보배(千寶培) :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전라남도연합회장 역임

·천기길(千冀吉) : 축협 전남지부장 역임 ·천기홍(千冀洪) : 3대 엄다면장 역임

(4) 제동(濟洞)

o 마을현황

가 호			인 구			본 관 별 성 씨 (단위 : 가호)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김해김	밀양박	함평이	고성정				
17	39		41	20	21	6	3	3	15				

면17(ha)			종 교			연령대별 인구 구성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이상
17.6	14.6	3.0	6	10	5	2	6	4	1	8	7	7	3	3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제동

이 마을 뒷동산에 위치한 천문대에서 최근에 발굴한 마한 시대의 옹관유물이 출토된 것을 보아 아주 옛날부터 마을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자세한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

선조 초기에 제주고씨, 황씨, 나씨 등이 주성씨를 이루며 마을을 형성하여 오다가 1570년경 고성정씨 곤재 정개청이 나주군 곡강촌에서 이 마을에 이주한 이래 현재는 고성정씨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여러 성씨들이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처음에는 거유(巨儒)가 나왔다는 뜻에서 "거제동(巨濟洞, 1789년 호구총수지명)이라 불렀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이후부터 제동(濟洞)으로 불러오고 있다.

o 주특산물 : 양파, 마늘

o 문화유적

·자산서원 : 고성정씨 곤재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세운 사액(賜額)서원으로 천문, 지리, 역학, 수리에 관한 그의 저서 우득록 각판(전라남도 유형문화재 146호)이 보관되어 있으며 당시 각처에서 수많은 제작가 모였으며 지금도 송암, 불암을 제자거리라 부르고 있다.

·천문단 : 마을 뒷산 윤암산(제봉산) 산상에 위치, 조선조 선조대의 학자 곤재 정개청이 천기를 관찬하여 주민들의 재해를 예방하였다. 높이 1m, 가로·세로 약 8m의 방형 (方形) 천문단으로 1940년경 유물은 도굴당하였다 하는데 1986년 고성정씨들이 정화작업 중 이 천문단에서 마한으로 이어지는 대형옹관 1기를 발견하였으며 후일 정확한 조사를 하기 위해그대로 묻어두었다. 곤재가 천문을 연구했다는 천문단은 원래 옹관이 묻힌 고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지리풍수설에 도통했다는 곤재가 고분임을 몰랐을리 없는데 여기에 천문단을 설치한 것은 고분을 길이 보존키 위한 속셈이 있었지 않는가 하는 말을 하고 있다.

o 중요한 지명과 전설

·한문교 : 조선조 선조때 병마사가 제동마을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다리앞에서 말이 발을 떼지 않자 연유를 알아본즉 곤재 정개청 선생을 뵙고 가야 말이 움직인다는 말을 듣고 말에서 내려 곤재 정개청선생을 뵙고나니 말이 움직여 다리를 건너갔다하여 하마교(下馬橋)라 명하여졌으나 그 후 와전되어 한문교라 불려지고 있다. 기실 전설보다는 곤재 정개청의 학덕을 기리기 위한 사액 자산서원이 세원진 입구여 서 하마표시석이 서있었던 곳으로 하마교란 지명이 옳음을 알 수 있다. 다리옆에 근래에까지 하마석이 있었다.

·쇳등들 : 제동 앞들을 쇳등들이라 하는데 옛날에는 소가 들에서 일을 하다 갑자기 죽은 사례가 많았는데 이것을 우역이라 한다. 곤제 정개청이 이 우역칼을 부러뜨린 후 쇳(쇠,소,

牛)등 들에는 우역이 없어 소가 죽는 일이 없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다.

·전 : 전이란 머리는 용이고 꼬리는 잉어인 물고기를 뜻한다. 마을 뒷동산에 서원골이 있는데 현재 생존자 중 이 고기를 보았다는 사람이 있다. 이 전은 이곳에 두 마리가 살았는데 한 마리는 곤재 정개청이 잡아먹고 남은 한 마리가 현재까지 이곳에 있다고 한다.

o 중요지명

·하임교(하마교) : 말에서 내려 선생을 경의를 표하고 뵙고 간다는 뜻

o 자생조직단체

·혼인계 : 계원 자녀의 결혼시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1969년에 창립, 13호가 참여

o 배출인물

·정개청(鄭介淸) : 조선조 선조때의 대학자로 퇴계 이황과 버금갔으며 주정자 뒤의 한사람이라는 평을 받음

·정대청 : 개청의 아우로 형에 못지않은 학자였다.

·정태수 : 대한적십자 전남지부사무국장 역임 • 정병수 : 초등학교 교장

·정래수 : 무안군 민족통일협의회장, 고성정씨 대종회장

• 정윤정 : 행정고시 청렴위원회 사무관 • 정현주 : 사법고시 순천지검검사

• 이명재(李明宰) : 중앙대문화대학겸사회개발대학원장역임, 문학박사, 문학평론가

·정경환(鄭京煥) : 전남체육회 육상경기지도위원

·정재환(鄭在煥) : 경기도초등학교장 역임 • 정길환(鄭吉煥) : 양주초등학교장

(*자료제공자 : 정길남)

(5) 정동(亭洞)

o 마을현황

가 호			인 구			본 관 별 성 씨 (단위 : 가호)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김해 김	밀양 박	함평 이	나라 정	파평 윤	나주 임	창원 황	해주 최	기타
17	17		44	19	25	3	2	2	3	2	1	2	1	1

면17(ha)			종 교			연령대별 인구 구성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이상
11.0	7.0	4.0	10	5	2	5	5	1	2	1	3	4	9	14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구전에 의하면 처음에 터를 잡고 정착한 성씨는 황씨라고 전해지고 있다.

그 후손들이 현재는 살고 있다. 지금으로부터260여년전에 창원황씨가 입향하여 현재 9대에 이르고 있으며, 80여년전에 무안박씨, 탐진최씨가 입향했으며 그 후에 한양조씨, 영성정씨등이 약 50여년전에 입향하여 타성씨와 함께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마을 이름을 처음에는 “정진해”라 불렀다고 전하나 그 연유는 알 수 없고 1912년 지명부터 정동(亭洞)이라고 표기되었음을 볼 수 있다.

o 주산업 및 특산물 : 벼, 양파, 마늘

o 자생조직단체

·진흥계 : 1948년 마을의 모든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목적으로 창립하여 전주민이 참여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자료제공자 : 황대길)

(6) 신양동(新養洞)

o 마을현황

가 호			인 구			본 관 별 성 씨 (단위 : 가호)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무안박	모금도유	파평윤	전주이	해주최	기타
37	37		88	43	45	3	5	3	3	2	34

면 적(ha)			종 교			연령대별 인구 구성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이상
23.9	7.0	16.9				6	11	9	9	10	12	13	11	7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1950년 6·25 한국전쟁 때 월남한 난민을 수용하기 위하여 1955년 4월 20일 주택건립공사를 시작 1956년 5월 5일 완공하여 실향민50세대를 입주시켰고 1957년 3월 5일 2차공사를 시작 1957년 11월 15일 완공하여 30세대를 입주시켜 총 80세대가 마을을 형성하였다.

현재는 40여 세대만이 살고 있으며 엄다면 소재지인 번동마을과 엄다초등학교와 인접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전쟁 난민들이 새로이 마을을 형성하였으므로 새로운 고향이이라는 뜻에서 1967년 9월 15일 각 기관장 및 유지가 참석하여 “주택마을”이라고 불러오던 마을이름을 “신양동(新養洞)”으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o 주요산업 및 특산물 : 벼, 양파, 마늘

o 공공기관 및 건물

영광소방서엄다소방파출소, 남부지구대엄다지소

o 자생조직단체

·촌계 :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1964년에 창립, 14호가 참여

o 배출인물

·이종영(李鍾暎) : 함평제일병원장 역임

(* 자료제공자 : 유영두)

6) 영흥리(永興里)

1914년까지는 목포부 엄다산면에 속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이제(里制)를 시행하면서 엄다산면의 월산(月山), 영천(永川), 용호(龍虎), 흥룡(興龍), 사호포(沙湖浦) 전역을 묶어 영천에서 "永"자와 흥룡에서"興"자를 따 영흥리(永興里)라 하였다.

(1) 영천(永川)

o 마을현황

가 호			인 구			본 관 별 성 씨 (단위 : 가호)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밀양 박	함평 이	인동 장	광산 김	나주 김	한양 조	나라 정	기타
28	28		38	14	24	5	1	12	3	2	1	2	2

면 적(ha)			종 교			연령대별 인구 구성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이상
30.9	27.0	3.0		38							6	14	15	3

o 마을 형성 및 지유래

지금으로부터 약 250여년전 함평노씨가 학교면 마산에서 이곳으로 이주 정착하였으나 현재 그 후손들은 거주하지 않고 있다.

150여년전 인동장씨가 무안군 몽탄면에서 이곳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이래 현재 인동장씨가 주성을 이루며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이 마을 앞에는 영산강이 유유히 흐르고 호남선이 마을 뒤를 지나고 있으며 양옆으로 갯벌 옥답의 넓은 영천평야가 펼쳐있다. 마을 주위와 영천평야를 굽이굽이 감아도는 천이 길게 이어

져 영산강으로 흐른다 하여 “영천(永川, 1789년 호구총수지명)이라 했다고 한다.
영천을 비롯한 영흥리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이전에는 목포부 엄다산면에 속했었다.

o 주산업 및 특산물 : 벼, 양파, 마늘

o 공공기관 및 건물

• 마을회관 • 보건진료소

o 자생조직단체

·상조계 : 마을주민의 부모상제시 부조를 목적으로 1980년에 창립, 전주민이 참여

o 배출인물

·장만옥(張萬玉) : 초등학교교장 역임 ·장기회(張冀會) : 엄다면장 역임
·장주형(張周衡) : 병원원장 ·장신회(張信會) : 전남 소방 본부장(경무관)
·서기행(徐紀行) : 서울대성교회 목사

(2) 용호동(龍虎洞)

o 마을현황

가 호			인 구			본 관 별 성 씨 (단위 : 가호)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밀양박	인동장	광산김	맡을임	전주이	나라정	노씨
18	18		36	15	21	2	7	3	1	2	2	1

면 적(ha)			종 교			연령대별 인구 구성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이상
12.0	11.0	1.0	5	30							1	21	12	1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영천과 함께 인동장씨가 150여년전에 마을을 형성하고 있던 차에 한양조씨가가 100여년전에 이주해 왔다.

마을 양편에 있는 산의 형세가 용과 호랑이의 형상이라 하여 마을이름을 “용호동(龍虎洞, 1912년 행정구역 지명)“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o 주산업 및 특산물 : 벼, 양파, 마늘

o 배출인물

·허종철(許鍾哲) : 경기도에서 초등학교 역임 ·장명하(張明夏) : 외교부 교민부장
·장원택(張元澤) : 목포지방법원 과장 역임 ·장주식(張周植) : 엄다 농협장 역임

·장주옥(張周玉) : 전북경찰국장 역임, 경무관　　·정종수 : 서울 영흥교회 목사
·장일보(張一寶) : 병원장

(3) 송현(松峴)

o 마을현황

가 호			인 구			본 관 별 성 씨 (단위 : 가호)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밀양박	인동장	광산김	나주임	수원최	함평노	달성배
8	8		14	5	9	1	2	1	1	1	1	1

면 적(ha)			종 교			연령대별 인구 구성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이상
9.0	7.0	2.0	5	6	3						4	2	5	3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본 마을은 남궁씨가 60여년전에 개촌하였다고 하나 그 후손은 모두 이거했고 근래에 영천에서 인동장씨가 분가하여 마을을 이루었으며 그후에 나주임, 수원최, 달성배, 남평문씨가 입촌하여 살고 있다.

영천에서 본마을에 이르는 길목에 소나무가 많은 언덕(재)을 넘어 다닌다하여 소나무재 즉 소나무 송(松)자와 재 현(峴)자를 써서 마을 이름을 "송현(松峴)"이라 하였다.

송현

o 주산업 및 특산물 : 벼, 양파, 마늘

o 유물과 유적
·고인돌 2기가 있음

o 배출인물
·배인태(裵仁泰) : 기술고시합격, 해보 종자보급소 부소장 역임, 국립식물검역원장

(4) 흥룡동(興龍洞)

o 마을현황

가 호			인 구			본 관 별 성 씨 (단위 : 가호)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나주김	창녕조	나주정	나주임	오씨	이씨
19	19		34	18	16	2	4	2	9	1	1

면 적(ha)			종 교			연령대별 인구 구성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이상
15.0	12.0	3.0	5	7	3		4	3		5	2	9	11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나주임씨 장수공(長水公)의 4대손 언(焉, 1608년생)이 1630년경에 정착하면서 마을을 형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그후에 나주정, 나주김, 창녕조씨들이 들어와 살았고 나주임씨가 주성을 이루고 있다.

임진왜란 당시 군량미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었는데 이것에 연유하여 동창마을로 불러왔다고 하며 현재의 "흥룡동(興龍洞)"이라는 마을 이름이 1789년 호구총수 지명에도 동일하게 표시된 것을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불러온 이름임을 알 수 있다.

서쪽으로는 무안군 봉전, 남쪽으로는 나주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마을이다.
1912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는 목포부 석진면 봉산리에 속했었다.

o 주산업 및 특산물 : 파프리카, 토마토

o 마을과 관련된 전설

·임진왜란때 군량미 보관창고 있었다 하여 동창마을이라 불림

o 자생 조직 단체

·혼인계 : 계원 자녀의 결혼을 목적으로 1981년에 창립. 총 14호가 참여.

o 배출인물

·임만택(林萬澤) : 해군대령 ·임석환 : 영산포 통운소장 역임
·임종태(林鍾泰) : 무안교육청 교육장 역임 ·조석현 : 강원대학 서무부장(사무관)
·임채영(林采榮) : 농업진흥공사 전남지부 관리부장
·임희택 : 서울 제1지구 의료보험조합 총무부장 ·임태완 : 48회 사법고시 합격
·임창문 : 서울대 물리대졸업, 물리학박사
·임채균 : 초등학교장 ·김만환 : 군의회 의장역임
·임창문(林昌文) : 현대하이닉스연구조정부장, 이학박사
·임 용(林 榕) : 광주시장학사, 교육학박사 ·임현택(林炫澤) : 소설가/문학사상당선

(5) 월산(月山)

o 마을현황

가 호			인 구			본 관 별 성 씨 (단위 : 가호)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밀양박	나주임	나주정	한씨	인동장	조씨	장씨
33	33		39	12	27	2	9	3	1	1	1	1

면 적(ha)			종 교			연령대별 인구 구성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이상
13.0	10.0	3.0	8	7			8	1	3	3	3	6	10	5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현 정오종 소유의 밭에 칠성암(七星岩)이라 부르는 고인돌 7기가 있어 선사시대부터 이 마을에 사람이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오랜 옛날에 추(秋)씨가 개촌했다는 전설과 함께 뒷산에 추씨묘로 전해오는 고총이 있으나 그 후손을 알 길이 없으며 현재 마을을 이루고 있는 성씨중에는 밀양박씨 언부(彦夫:1536년생)의 아들 응삼(應參,1560년생)이 1590년대에 이거 정착 자작일촌을 이루었고 그후에 나주정씨 한경(漢京, 1870년생)이 100여년전 구리고 나주임씨가 역시 100여년전에 입촌하여 그 후손이 살고 있다. 마을 이름을 월산(月山)이라고 한 것은 뒷산에 달같이 생긴 바위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마을은 흥룡동과 함께 영흥리 2리에 속하며 엄다면과 무안군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o 주산업 및 특산물 : 마늘, 양파

o 문화유적

·고인돌 : 현재 정여종 소유의 밭에 있으며 모두 7기이다.
마을 사람들이 칠성암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보존 상태는 2기가 원형 그대로 있다.

o 배출인물

·임성택 :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서기관

7) 학야리(鶴野里)

1914년까지는 목푸부에 속했다.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이제(里制)를 시행하면서 엄다면의 신야(新野), 학교(鶴橋), 야리(野里) 전역과 신로면의 대천동(大川洞)일부를 합해 학교에 “鶴”자와 야리에서 “野”자를 따 학야리라 하여 함평군 엄다면에 편입했다.

(1) 야리(野里)

o 마을현황

가 호			인 구			본 관 별 성 씨 (단위 : 가호)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밀양박	김해김	함평이	충주지	인동장	최씨	문씨
29	29		74	31	43	3	8	3	8	2	3	2

면 적(ha)			종 교			연령대별 인구 구성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천주교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이상
24.3	24.1	0.2	4	10	6	2	6	3	2	9	8	18	18	8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지금으로부터 300여년전 충주지씨 26세손인 경생(敬生, 1683년생)이 당시 황무지인 이곳에 터를 닦고 마을을 형성하여 충주지씨 일촌을 이루어 왔으나 그 후 타 성씨가 입향하였다.

마을 앞에 있는 300년된 멀구슬나무(정자나무)가 이 마을의 긴 역사를 말해 주고 있다.

각고의 노력과 희생으로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어 들 가운데 마을을 형성하니 인근마을 주민들이 들 가운데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들말"이라고 부른것을 야리(野里, 1789년 호구총수 지명)라고 한문으로 표기한 것이다. 이 마을은 1914년 행정구역개편이전까지는 목포부 엄다산면이었다.

옛날 지영일씨 집 근처에 서당이 있었다하여 지금도 그곳을 서당터라 부른다.

o 주산업 및 특산물 : 벼, 보리

o 중요한 지명

·서당터 : 본촌의 서북쪽에 위치하며 위로는 대천동, 아래로는 숲밖, 토교를 연결하는 마을의 사실상의 중심구역으로 수많은 선비와 인재를 배출 시켰다.

·숲밖 : 역사 이래 오랜기간 동안 불모지로 내버렷던 지역이었다. 주민이 정착하기 전에는 대단한 원시림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간주된다. 기후조건이 양호하고 강수량이 풍부하여 수림이 무성했던 역사와 더불어 한때는 수종에 이르는 학들의 요람으로 알려졌다.

o 자생조직 단체

·촌계 : 상제시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전주민이 참여하여 1963년에 창립한 이래 지속되어 오고 있다.

o 배출인물

·지병주(池炳周) ; 농촌진흥원 사무관. • 지택상 : 이학박사 경북김천대 교수

• 지의상 : 공학박사, 농학박사, 안산공대 교수　　• 지연상 : 조대교수

(2) 토교(土橋)

o 마을현황

가 호			인 구			본 관 별 성 씨 (단위 : 가호)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밀양박	김해김	함평이	충주지	정씨	송씨
8	8		15	8	7	1	3	1	1	1	1

면 적(ha)			종 교			연령대별 인구 구성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천주교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이상
38.8	38.2	0.6			2	1	2			4	3	2	3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토교

이 마을은 동국여지승람에 이제포로 적혀 있는 마을로 고려조에 이미 개포(開浦)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나 그때 살았던 성씨의 후손이 지금은 살지 않고 있어 알 길이 없다.

현재 살고 있는 성씨로는 충주 지(池)씨가 먼저 입촌했는데 야리에서 250여년전에 분가 입촌했고 그뒤 김해김씨, 나주임씨가 들어 왔는데 임씨들은 30여년전에 학교면 학교리로 이거 이 마을에 살지 않는다.

한일합방 후 일인 고력(高力)이 이 마을에 정착 학야평야와 곡창동 학교면 전역에 농토를 넓혀 지주노릇을 하다가 해방과 더불어 일본으로 돌아갔다.

이 마을은 함평천 하류에 자리잡은 마을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이제포(泥悌浦)로 나와 있다.

또 지금은 학야교(鶴野橋)로 바뀐 다리는 이제포 곁에 있는 다리라하여 이제교(泥悌橋)라 했는에 후에 발간된 무안현읍지에 “학포(鶴浦)”는 현의 동쪽 15리 토교(토교)에 있고 토교는 돌로 놓았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제포에서 학포로 이름이 바뀌었고 근세에는 학포가 토교포로 바뀌었으며 30여년전부터 배가 드나들 수 없는 곳이 되자 지금은 토교라 부른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는 토교라는 지명이 학교(鶴橋)마을로 되어 있는데 행정구역 개편이후에 옛 지명인 토교로 바꾸어 부르고 있다. 포구일 때의 선착장은 현 김창기 소유의 집 뜰이었다.

o 주산업 및 특산물 : 벼농사

o 배출인물

• 윤현규 : 판사

(3) 대천동(大川洞)

o 마을현황

가 호			인 구			본 관 별 성 씨 (단위 : 가호)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밀양박	김해김	함평이	한양조	나주임	경주최	함풍모	문평문	기타
27	27		44	17	27	2	3	2	3	2	1	1	2	11

면 적(ha)			종 교			연령대별 인구 구성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이상
37.0	37.0		10	17	20	2		1	2	2	5	9	18	5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충주지씨가 야리에서 분가하여 이곳에 터를 잡고 있을 무렵 남평문씨, 김해김씨가 이곳으로 이주해와 마을을 형성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농경지 정리전에는 현재의 함평천이 두 갈래로 흐르다가 마을에서 합류되어 큰내를 이루기에 큰내가 흐르는 마을이라 하여 "대천동(大川洞)이라 하였다.

o 주산업 및 특산물 : 벼농사

o 배출인물

·지상용(池相龍) : 서울 성동세무서 과장
·문홍덕(文弘德) : 조선대학교 교수
·지홍재(池弘在) : 엄다면장 역임
·지홍두(池弘斗) : 시군과장, 함평농조장 역임
·지영화 : 송정시에서 목사역임
·조성태 : 대우(주) 전무이사

(4) 죽월촌(竹月村)

o 마을현황

가 호			인 구			본 관 별 성 씨 (단위 : 가호)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밀양박	김해김	함평이	충주지	나주나	경주최
7	7		7	3	4	1	1	2	1	1	1

면 적(ha)			종 교			연령대별 인구 구성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이상
2.0	2.0		4	2	1	2							7	

o 마을 형성 및 지명유래

야리에서 충주지씨가 분가하여 마을을 형성하였고 이어 밀양박씨가 들어왔으며 평산신씨는 1900년대에 입촌했다.

야리와 입접해 있는 마을이다.

죽월촌이란 본래 죽촌과 월천(月泉,1789년 지명)이 합해 생긴 촌명으로 죽촌은 대(竹)가 많아서 생긴 이름이고 월촌은 마을 옆으로 흐르는 냇이 반달모양으로 굽어 흐른다하여 월촌이라 하였다.

o 주산업 및 특산물 : 벼농사

8) 화양리(花陽里)

수산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1914년까지는 모두 목포부 신로면에 속했다.

1914년 이제(里制)를 시행하면서 신로면의 구산(龜山), 행정촌(杏亭村) 전역과 정양(正陽), 농은(農隱), 쌍천(雙川), 중양(中陽)과 엄다면 천동(泉洞), 화정(花亭), 그리고 함평군 기성면 수산(水山) 각 일부를 합해 화정에서 "화"자와 정양에서 "양"자를 따 이명을 화양리(花陽里)라 하였고 함평군 엄다면에 편입시켰다.

(1) 영화정(永化亭)

o 마을현황

가 호			인 구			본 관 별 성 씨 (단위 : 가호)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밀양박	김해김	함평이	정씨	신씨	서씨	황씨	모씨	기타
29	28	1	46	17	29	6	6	1	4	1	2	2	1	6

면 적(ha)			종 교			연령대별 인구 구성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이상
47.0	40.0	7.0				2	1	5	3	6	5	10	8	5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1700여년경 나주정씨 정광발이 처음으로 마을터를 잡고 정착하여 마을을 이루어오다 그로부터 40여년 후 탐진최씨가 이주해 왔으며 현재는 12성씨가 살고 있다.

사면이 산으로 둘러쌓인 영화정 마을은 봄이 되면 온산이 꽃으로 만발하여 꽃동산으로 되는 것에 연유하여 "영화정(永花亭)"으로 명명 되어졌으나 영원히 변치말자는 뜻으로 마을 이름에서 화(花)자 를 화(化)자로 바꾸어 현재는 "영화정(永化亭)"으로 불려지고 있다.

영화정을 비롯 화양리의 마을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전까지는 목포부 신노면 이었다.

o 자생 조직 단체

·촌계 : 마을주민의 화합과 단결,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100여년전부터 창립되어 현재 마을 전가구 28호가 참여하고 있다.

o 배출인물

·김갑영(金甲永) : 초등학교장 역임 • 김명호(金明浩) : 광주자동차부속공장 사장
·김갑재(金甲在) ; 농협중앙회 수원지점장 • 박종균(朴鍾均) : 의학박사, 외과병원장
·박상규(朴祥圭) : KBS서울중앙방송국 기술부차장
·황민연(黃敏淵) : 내무부 행정기획실 과장 역임
• 정학주 : 농업기술관 • 신덕환 : 서부청 지도관
• 김항국(金恒國) : 진도지산서초등학교장 역임
• 신덕찬 : 광주광역시 서구청 총무과장
• 서인석 : 중소기업은행 광주지점장

(2) 농은동(農隱洞)

o 마을현황

가 호			인 구			본 관 별 성 씨 (단위 : 가호)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밀양박	함평이	정씨	나씨	염산송	문씨	한씨	기타
9	9		16	6	10	1	2	2	1	1	1	1	

면 적(ha)			종 교			연령대별 인구 구성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이상
19.0	12.0	7.0					2	2	4	7	6	2	3	1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무안박씨 시조 박진승의 23세손인 박정호(朴挺豪)가 1758년 영조때 무안군 면성면 매곡리 수반으로부터 정착하여 무안박씨 5호가 마을을 형성한 후 1871년 고종때 전주 정씨 정군칠(鄭君七)이 이주하였고 점차 각
성씨가 모여 23호가 되었다가 1979년부터 도시진출로 인하여 현재는 14호만이 마을을 이루고 있다.

엄다평야의 크고 넓은 들이 거침없이 펼쳐지는데 천자봉(天子峯)과 칠성봉(七星峯)이 병풍처럼 줄이어 조배(朝拜)하고 마을 앞산은 말봉(馬峯), 옆산은 개봉(犬峯), 뒷산은 쇠봉(牛峯)이 있다.

이 삼봉(三峯)은 가축을 뜻하며 삼봉 중간에 샘을 팠는데 그 들샘물(野井水)은 세 짐승의 젖줄기라 하였으며 그 물이 여름 삼복더위에도 어름같이 차다하여 한천샘(寒泉井)이라고 하고 마을 이름도 “한천동(寒泉洞)”이라 명하여 불러져 왔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부터 “농은동”으로 부르고 있다.

o 주산업 및 특산물 : 벼, 마늘, 양파

o 공공기관 및 건물

·마을회관 : 2009.8.28 건립

o 자생 조직 단체

·촌계 : 1912년에 창립하여 전 마을 주민의 윤리도덕과 상부상조, 친목을 도모하여 오다가 1985년 2월초에 선진조국 창조 이념아래 자조자립하고 새로운 미풍양속으로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서문과 계칙 제7장 부칙 제2조를 수정 통과하고 서민생활의 길을 개척하여 마을주민 천체의 선봉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정약하였다.

o 배출인물

·박연록(朴然錄) : 통일주체 무안군대의원 대표
·박연석(朴然碩) : 광화문세무서 법인세 과장, 용산세무서장역임
• 정인식 : 학다리고 서무과장

(3) 포향정(抱香亭)

o 마을현황

가 호			인 구			본 관 별 성 씨 (단위 : 가호)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김해 김	밀양 박	함평 이	무안 박	창녕 조			
7	6	1	18	9	9				3	2			

면 적(ha)			종 교			연령대별 인구 구성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이상
15.0	10.0	5.0							1	6	2	2	4	3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지금으로부터 약 300여년전에 무안박씨가 마을을 형성하여 무안박씨 일촌을 이루며 살았으나 그 후 여러 성씨가 입향 하여 현재는 10개의 성씨가 살았고 한때는 호당 1명꼴의 공무원을 배출하여 공무원촌으로도 이름난 마을이며 면장직에 재직한 사람을 2명이나 배출 했다.

명산인 곤봉산맥이 뻗어 내린 줄기에 삼면으로 둘러져 있으며 마을 앞에 노적봉으로 보이는 개봉이 위치하고 있다.

옛날 스님이 마을에 시주하러 왔다가 마을형태를 두루 살펴보고 향기로운 보자기에 싼 형태라 하여 "포향정"이라고 마을 이름을 지어주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불러오고 있다.

o 전설

·포향정 소나무 전설 : <전설항을 볼 것>

o 배출인물

·박형화(朴亨和) : 엄다면장 역임
·박인재(朴仁載) : 광주공업전문대 교수
·박기태(朴淇台) ; 8대 엄다면장 역임
·조석원(趙石元) : 나주경찰서장 역임
·박유상(朴儒相) : 함평군 민방위과장 역임
·박희재 : 곡성옥과 지서장 역임

(4) 정양(正陽)

o 마을현황

가 호			인 구			본 관 별 성 씨 (단위 : 가호)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밀양박	김해김	함평이	함평모	해주최	하동정	의령옥	신안주	기타
45	43	2	88	35	53	3	9	2	3	1	2	2	2	21

면 적(ha)			종 교			연령대별 인구 구성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이상
29.0	26.3	2.7	3	9	33	5	6	4	5	9	12	18	22	7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마을형성시기와 지명 유래에 대하여 전하여 오는 말이 없어 알 수 없으나 마을앞에 함평들이 넓게 펼쳐있어 오래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함평읍 수호리 곤봉산 줄기를 따라 연화봉을 뒤로 하고 앞에는 수산봉이 위치하고 있어 아담한 마을을 이루고 있으며 옛날부터 인심이 후하여 많은 각성씨가 마을을 이루고 있음에도 6·25한국전쟁 때 한 명의 희생자도 없었다.

정양

o 특기사항

대동 저수지로부터 약 6km 떨어져 있는 평야지 마을로서 극심한 한해때도 물 걱정을 하지 않고 농사를 짓고 있어 마을에 양수기가 없는 것이 특이하다.

o 자생조직단체

·꼬갈계 : 상제 부조를 목적으로 1930년에 창립하여 현재 23호가 참여

(5) 쌍천(雙川)

o 마을현황

가 호			인 구			본 관 별 성 씨 (단위 : 가호)							
계	자가	기타	계	남	여	김해 김	밀양 박	함평 이	무안 박	이천 서			
25	25		47	22	25	1	6		1	1			

면 적(ha)			종 교			연령대별 인구 구성								
계	논	밭	불교	기독교	기타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이상
22.9	31.0	1.9	3	7	1		4		1	1	5	24	4	8

쌍천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지금으로부터 400여년전 다시 함평천 제방이 없어 조금만 비가 와도 농사는 물론 집을 지어 마을을 형성할 수 없는 곳이었으나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나주에 살던 밀양박씨 30대손 박선규가 선견지명이 있어 이곳에 터를 잡으면 후대에 옥토가 이룩되어 풍요를 누릴 것을 예측하고 집터를 2m 가량 돋구어 정착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박병렬의 집터에 400여년 된 팽나무 두 그루가 있어 정착 년대를 입증하여 주고 있다. 마을형성 당시 동쪽으로는 함평천이 흐르고 서쪽으로는 앞내(前川)이라고 하는 중천(中川)이 흘렀다. 그 사이에 마을이 형성된 연유로 (雙)자와 (川)자를 합하여 마을 이름을 "쌍천"이라 하였다고 한다.

o 노거수

·팽나무 : 마을형성과 함께 식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수령이 400여년을 둘레가 3m가 되며 마을의 상징수로서 우뚝 솟아 있어 마을에서 보호수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o 특기사항

·풍수지시설상 쌍천 마을은 들 가운데 배(船)모양으로 자리잡고 있어 바다위에 뜬 배형국이며 토질은 사질양토로 농사짓기에 좋은 땅이다.

o 배출인물

·박말갑(朴末甲) : 초등학교장, 교육장, 전남교육회장 역임,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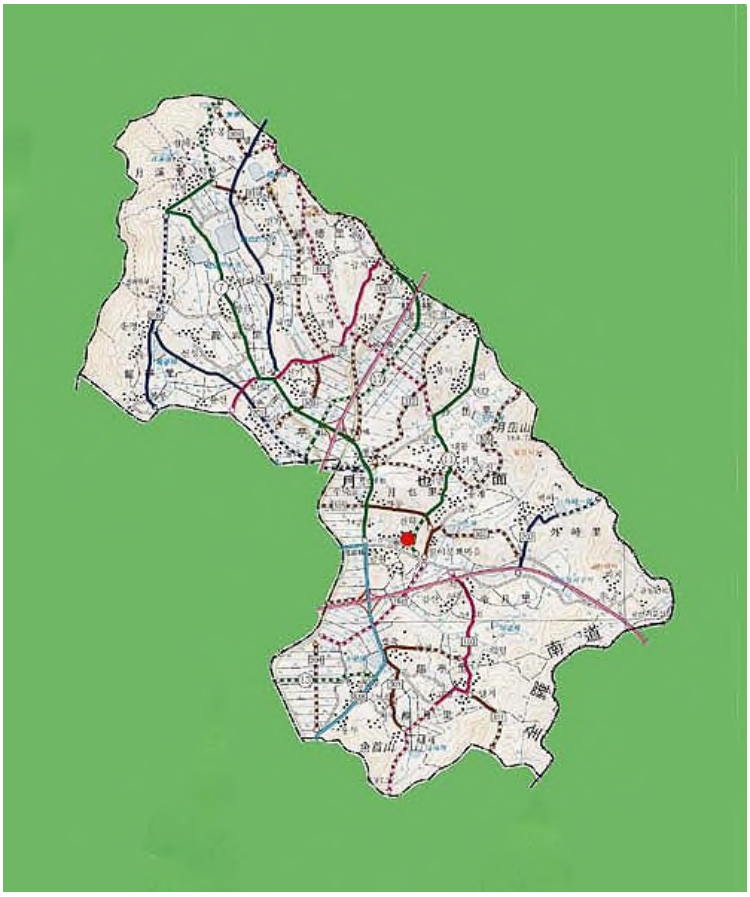
·정갑수(鄭甲洙) : 환경부장관 보좌관

(* 자료제공자 : 서춘만)

제7절 월야면 (月也面)

집필 / 정 현 철

계림리(桂林里) / 691
양정리(陽亭里) / 696
영월리(令月里) / 700
예덕리(禮德里) / 702
용암리(龍岩里) / 708
용월리(龍月里) / 713
용정리(龍亭里) / 720
외치리(外峙里) / 723
월계리(月溪里) / 726
월악리(月岳里) / 730
월야리(月也里) / 739
정산리(亭山里) / 747



1. 면사무소 소재지와 규모

1) 소재지 :

월야면 월야리 205-67번지

2) 규 모 :

- 대지면적 : 2,369m2
- 건물구조 : 콘크리트스라브 2층
  (1층 사무실 206.7m2,
  2층 회의실 194.7m2)
- 부대시설 : 창고 1동 116.8m2
  문서고 1동 48.9m2
- 착공·준공년월일 :
  -1982년 7월 8일 착공
  -1982년 10월14일 준공

2. 연 혁

백제시대에는 다지현(多只縣), 신라때는 다기현(多岐縣), 고려 때는 모평현(牟平縣)에 속하다가 조선조 태종 9년(태종, 1409) 함풍현과 모평현이 합하여 함평현이 됨으로써 함평현에 속했다. 조선조 때 현 월야면 지역에는 월악(月岳), 갈동(葛洞), 대야동면(大野洞面, 大也面)이 있었는데 월악면의 관할구역은 현 외치, 월야, 월악리였고, 갈동면의 관할구역은 용월, 양정, 영월리였으며 대야면의 관할구역은 계림, 예덕, 정산, 용암, 용정, 월계리 였다.

1914년 월악, 갈동, 대야면을 합쳐 월야면이 신설되었고, 이제(里制)가 시해되면서 면간, 군간의 조정이 있었는데 이 때에 월야면에서 다른 면으로 편출된 곳은 월악면 용촌(龍村)일부가 해보면 용산리로, 대야면 복룡(伏龍) 일부가 해보면 금덕리로 갈동면 내기(內基) 일부와 월악면 외치(外峙) 일부가광산군 삼도면 양동리로, 월악면 고와(古臥), 복만(福萬) 일부가 본양면 덕림리로, 월악면 주곡(舟谷) 일부가 장성군 삼서면 금산리로, 대야면 연정(連丁)용계(龍溪), 신월(申月), 신평(新坪), 팔기(八奇)전역이 영광군 묘량면 연암리로 편출되었다.

한편 편입된 지역은 해보면 성산(成山) 일부가 용월, 양정리로, 해보면 문암(文岩)일부가 정산리로 장성군 삼서면 반학(伴鶴) 일부가 예덕리로, 죽산(竹山) 일부가 월악리로, 삼가면(현 삼

도면)의 치암(雉岩) 일부가 외치리로 편입되었다.
현재 12개 법정리에 31개 운영리 58개 마을이 있다.

참고 1. 1789년 호구총수에 적혀있는 마을 이름

호구총수 지명에는 “용촌리(龍村里)”, “월봉리(月峯里)”로 표기되었는데 여기서의 “이(里)”는 자연 마을을 뜻하기에 “이”를 생략하였다.

▶ 갈동면 : 16개 마을

용촌(龍村), 월봉(月峯), 오수촌(五水村), 외세동(外細洞), 내세동(內世洞), 백운동(白雲洞) 고정자(高亭子), 음지(陰地), 양지(陽地), 동산(東山), 덕산(德山), 덕령(德令), 난산(卵山), 검산(劒山), 장항(獐項), 덕리(德里)

▶ 월악면 : 25개 마을

당장동(堂丈洞), 외치(外峙), 고와동(古瓦洞), 동촌(東村), 상촌(上村), 중촌(中村), 남촌(南村), 동산(東山), 지변(池邊), 내동(內洞), 순촌(蓴村), 평촌(坪村), 금석동(金石洞), 송계촌(松溪村), 연월촌(延月村), 괴정촌(槐亭村), 율리(栗里), 이인촌(里仁村), 부소(釜所), 중보(中堡), 녹동(祿洞), 봉덕(鳳德), 연당(蓮塘), 복룡촌(伏龍村), 옹점(瓮店)

▶ 대야동면 : 26개 마을

가차암(加次巖), 호동(狐洞), 내정자(內亭子), 마분정(馬墳亭), 노송(老松), 덕산(德山), 주저(舟底), 석계(石溪), 성산(城山), 장내(墻內), 연화동(連花洞), 상방하(上方下), 하방하(下方下), 국정(局亭), 마감동(馬甘洞), 분토동(分土洞), 송정(松亭), 괴동(槐洞), 대농소(大農所), 서촌(西村), 동촌(東村), 신기(新基), 춘부동(春夫洞), 와촌(瓦村), 죽산(竹山), 팔음교(八音橋)

참고2. 1912년 행정구역 명칭

* 한자 표기는 일제가 고증 없이 마음대로 쓴 것이어서 많은 마을이 1914년 해정구역개편 대고증을 거쳐 바로
잡았다.

▶ 갈동면(葛洞面) : 20개 마을

용산(龍山), 노장(老壯), 월봉(月峰), 월령(月令), 오수(五水), 외세(外細), 방축(方丑), 기전(己田), 월현(月玄), 옥미(玉米), 덕령(德令), 석보(石堡), 내세(內細), 운곡(雲谷), 운동(雲洞), 고정(古亭), 음지(陰地), 양지(陽地), 동산(東山), 내기(內基)

▶ 월악면(月岳面) : 21개 마을

송계(松溪), 괴정(槐亭), 순촌(蓴村), 금석(今石), 신흥(新興), 전하(田下), 평촌(平村), 봉덕(鳳德), 노동(老洞), 죽산(竹山), 연동(連洞), 신기(申己), 내동(內洞), 지변(地邊), 동산(東山), 백야(白也), 외치(外峙), 복만(伏萬), 고와(古臥), 나서(羅西), 가내(加內)

▶대야면(大也面) : 37개 마을

서촌(西村), 복룡(伏龍), 용산(龍山), 용수(龍岫), 송정(松丁), 신성(申成), 은암(殷岩), 용강(龍江), 방하(芳荷), 연화(蓮花), 석계(石溪), 덕산(德山), 월계(月溪), 무선(武仙), 봉산(奉山), 발산(鉢山), 신덕(新德), 주평(舟平), 화산(花山), 신기(新基), 동촌(東村), 내정(內丁), 예동(禮洞), 죽동(竹洞), 죽림(竹林), 금치(金峙), 가차(加次), 시목(柿木). 주전(舟田), 와촌(瓦村), 춘부(春夫), 연정(蓮亭), 팔음(八音), 용계(龍溪), 신월(申月), 신평(新平), 죽산(竹山)

참고 3. 1914년 이제(里制) 시행 때 조정된 이(里)의 관할 마을은 아래와 같다

* 지명의 한자(漢字)는 당시 표시 한자임

이 명	관 할 마 을
계 림 리 (桂林里)	대야면의 주전(舟田) 가차(加次) 금치(金峙) 죽림(竹林) 시목(柿木) 와촌(瓦村) 전역과 죽동(竹洞) 내정(內丁) 월악면 주곡(舟谷) 각 일부와 대치(大峙) 전역
양 정 리 (陽亭里)	갈동면의 고정(古亭) 기전(己田) 음지(陰地) 전역과 월현(月玄) 양지(陽地) 월악면 내기(內基) 전하 해보면 성산(城山) 각 일부
영 월 리 (令月里)	갈동면의 덕령(德令) 옥미(玉米) 전역과 석보(石堡) 양지(陽地) 월현(月玄) 각 일부
예 덕 리 (禮德里)	대야면의 예동(禮洞) 신덕(新德) 주평(舟平) 발산(鉢山) 무선(武仙) 월악면 백기(白器) 신촌(申村) 봉산(峰山) 전역과 대야면 화산(花山) 죽동(竹洞) 영광군 삼서면 반학(伴鶴) 각 일부
외 치 리 (外峙里)	월악면 백야(百野) 전역과 외치(外峙) 복만(福萬) 송계(松溪) 갈동면 석보(石堡) 나주군 삼가면 치암(雉岩) 각 일부
용 암 리 (龍岩里)	대야면의 연화(蓮花) 방하(芳荷) 용산(龍山) 신성(申成) 은암(殷岩) 전역과 복룡(伏龍) 송정(松亭) 각 일부
용 월 리 (龍月里)	갈동면 월령(月令) 월봉(月峰) 노장(老莊) 내세(內細) 외세(外細) 전역과 방축(方丑)월악면 용촌(龍村) 해보면 성산(成山) 각 일부
용 정 리 (龍亭里)	대야면 용수(龍崇) 괴정(槐丁) 전역과 복룡(伏龍) 송정(松亭) 각 일부
월 계 리 (月溪里)	대야면의 월계(月溪) 덕산(德山) 석계(石溪) 용강(龍江) 전역
월 악 리 (月岳里)	월악면 내동(內洞) 연동(蓮洞) 봉덕(鳳德) 잠동(蠶洞) 대야면 죽산(竹山) 전역과 신기(新基) 월악면 지변(池邊) 갈동면 동산(東山) 영광군 삼남면 죽산(竹山) 각 일부
월 야 리 (月也里)	월악면 평촌(平村) 신흥(新興) 금석(金石) 순촌(蓴村) 괴정(槐亭) 전역과 전하(田下) 송계(松溪) 지변(池邊) 대야면 신기(新基) 갈동면 방축(方丑) 동산(東山) 각 일부
정 산 리 (亭山里)	대야면 동촌(東村) 서촌(西村) 춘부(春夫) 전역과 화산(花山) 내정(內丁) 해보면 문암(文岩) 리 각 일부와 월악면 영가(永佳) 신지(新池) 전역

3. 논·밭 면적과 가호·인구수

구 분		논, 밭 면적(㎡)			가호	인 구			참고
이명	마을명	논	밭	계		남	여	계	
계림1리	주전, 가차, 시목	374,390.80	46,411.00	420,801.80	76	86	84	170	
2리	금치, 죽림	320,501.20	106,642.99	427,144.19	53	44	51	95	
양정1리	양지	322,483.76	151,395.72	473,879.48	66	80	73	153	
2리	기전, 고정, 방축	258,664.60	79,828.50	338,493.10	69	80	58	138	
영월1리	덕령	268,064.20	71,679.70	339,743.90	35	27	36	63	
2리	석보	182,427.60	61,073.00	243,500.60	52	47	47	94	
예덕1리	예동, 신촌	472,709.17	192,091.30	664,800.47	55	53	55	108	
2리	만가, 신덕,발산,무봉	327,354.70	251,594.00	578,948.70	57	66	50	116	
외치1리	백야	495,283.78	236,833.80	732,117.58	129	160	157	317	
2리	외치	302,978.30	139,290.00	442,268.30	99	118	116	234	
용암1리	방하, 연화	402,672.56	162,625.31	565,297.87	60	61	45	106	
2리	음암, 신성, 용산	633,801.54	105,743.13	739,544.67	55	64	56	120	
용월1리	내세. 외세	407,461.86	111,422.00	518,883.86	70	76	66	142	
2리	노장, 월봉	567,855.33	64,358.80	632,214.13	55	53	56	109	
3리	용두	357,817.70	75,313.33	433,131.03	34	42	33	75	
용정1리	송정, 용수	151,369.63	68,553.00	219,922.63	33	31	36	67	
2리	복룡	194,253.10	83,958.00	278,211.10	31	31	27	58	
월계1리	석계, 용강	248,560.97	177,814.80	426,375.77	62	62	54	116	
2리	덕산, 월계	285,952.47	148,648.00	434,600.47	58	58	60	118	
월악1리	지변, 내동, 성주	382,590.90	127,132.10	509,723.00	75	71	73	144	
2리	봉덕, 노동	425,218.00	78,430.33	503,648.33	46	57	47	104	
3리	연당, 죽산	258,216.90	82,523.00	340,739.90	58	68	61	129	
월야1리	전하	412,362.30	68,028.70	480,391.00	139	152	153	305	
2리	순촌, 송계, 동산	305,389.90	127,047.00	432,436.90	72	86	78	164	
3리	평촌, 장동	436,148.95	90,849.00	526,997.95	116	118	108	226	
4리	금석	174,428.30	34,377.80	208,806.10	72	71	94	165	
5리	전하	366,548.85	106,830.50	473,379.35	129	164	157	321	
정산1리	내정, 화산	443,129.45	78,617.40	521,746.85	56	62	62	124	
2리	동촌	266,783.60	74,325.00	341,108.60	59	82	75	157	
3리	장교, 서촌, 고실, 영가	480,318.82	66,526.56	546,845.38	60	65	64	129	
4리	신기	414,201.30	61,128.00	475,329.30	35	35	32	67	
계		10,939,940.54	3,331,091.77	14,271,032.31	2,066	2,270	2,164	4,434	

4. 인구의 변동

월야면의 가호와 인구수를 기록한 가장 오래된 문헌은 여지도서며 여지도서는 1757년부터 1765년 사이에 발간되었고 가호와 인구는 1759년을 기준했다고 전한다. 당시 3개면 중 대야동면이 갈동면과 월악면을 합한 면세(面勢)였음을 볼 수 있다.

여지도서 보다 30년 후인 1789년에 간행된 호구총수의 면세가 약화되었는데 이 시기에 면간의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에 대한 기록은 아직 찾지 못했다.

여지도서·호구총수의 가호와 인구

구분 / 면명	여지도서(輿地圖書) : 1759년				호구총수(戶口總數) : 1789년			
	가호수	인 구 수			가호수	인 구 수		
		남	여	계		남	여	계
갈 동 면	169	246	295	541	155	249	285	534
월 악 면	223	363	403	766	226	335	346	681
대야동면	452	679	788	1,467	313	451	730	1,181
계	844	1,288	1,486	2,774	694	1,035	1,361	2,396

* 여지도서에는 대야동면(大也洞面), 호구총수에는 대야동면(大野洞面)으로 표기되었다.

월야면의 가호·인구수 최성장기는 1965년이다.

1789년과 최성장기인 1965년 인구 변동을 살피면 180여 년간에 6.3배가 증가하였다.

1965년과 감소기인 1996년을 비교하면 15,107명에서 9,332명이 줄어 5,875명으로 30여년간에 61.11%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 감소율은 함평군에서 가장 적은 감소율이다.

문헌 기록의 월야면 인구변동

년	전거(전거)	가호수	인 구 수			참 고
			남	여	계	
1759	여지도서	844	1,288	1,486	2,774	
1789	호구총수	694	1,035	1,361	2,396	
1965	함평군통계연보	2,422	7,621	7,396	15,107	가호,인구 최성장기
1996	함평군통계연보	2,020	3,034	2,841	5,875	
2009	함평군통계연보	2,066	2,270	2,164	4,434	

월야면에서 가장 인구 감소율이 많은 이(里)는 월계리로 1965년에 1,048명이었는데 1996년에 267명으로 781명이 줄어 감소율 74.53%를 보이고 있다. 인구감소율이 가장적은 이(이)는 월야리로 1965년에 2.278명이었는데 1996년에 1,564명으로 714명이 줄어 감소율 31.35%를 보이고 있다. 감소율 65% 이상인 이는 5개 리이다.

인구감소율 65% 이상인 이(里)

구분 / 이명	1965년 인구수			1965년 대비 감소수 ( )속 숫자 감소율 %	1996년 인구수			2009년 인구수		
	남	여	계		계	남	여	계	남	여
월계리	523	525	1,048	△ 781(74.53)	267	133	134	234	120	114
예덕리	540	512	1,052	△ 722(72.53)	289	158	131	224	119	105
양정리	535	520	1,055	△ 737(69.86)	318	165	153	291	160	131
용정리	378	361	739	△ 514(69.56)	225	115	110	125	62	63
용암리	591	582	1,173	△ 782(66.67)	391	148	143	226	125	101

5. 면내 10대 씨족

1998. 12월 말 현재

순위	씨 족 명	가호수	집단 거주지
1	진주정씨(晋州鄭氏)	360	월야리, 월악리, 외치리
2	나주정씨(羅州鄭氏)	154	용월리
3	전주리씨(全州李氏)	135	정산리
4	함평이씨(咸平李氏)	114	정산리
5	광산김씨(光山金氏)	109	월계리
6	김해김씨(金海金氏)	102	
7	인동장씨(仁同張氏)	82	용정리
8	죽산안씨(竹山安氏)	79	예덕리
9	동래정씨(東萊鄭氏)	66	월악리
10	천안전씨(天安全氏)	40	양정리

6. 역대 면장 명단

대(代)	성 명	학 력	출생지	재 임 기 간	
				취 임	퇴 임
1	장 효 섭 (張 孝 燮)	한 학	월야면 월계리	1943. 04. 20	1948. 03. 20
2	이 계 운 (李 啓 運)	한 학	월야면 용암리	1948. 05. 20	1949. 06 20
3	정 달 수 (程 達 洙)	중 졸	월야면 월야리	1949. 06. 25	1950. 05. 02
4	장 동 섭 (張 東 燮)	중 졸	월야면 월야리	1947. 09. 10	1948. 05. 03
5	안 창 순 (安 昌 淳)	중 졸	월야면 월야리	1951. 12. 20	1952. 05. 05
6	정 갑 남 (鄭 甲 男)	중 졸	월야면 외치리	1952. 05. 05	1954. 11. 05
7	정 시 연 (鄭 時 衍)	중 졸	월야면 용월리	1954. 11. 05	1956. 01. 05
8	안 부 덕 (安 富 德)	중 졸	월야면 예덕리	1956. 01. 14	1956. 07. 20
9	정 수 모 (鄭 壽 謀)	고 졸	월야면 월악리	1956. 10. 29	1957. 04. 13
10	장 은 기 (張 銀 基)	중 졸	월야면 월계리	1957. 05. 20	1960. 05. 20
11	정 시 연 (鄭 時 衍)	중 졸	월야면 용월리	1960. 07. 16	1960. 12. 26
12	정 진 우 (鄭 鎭 雨)	전문대	월야면 월악리	1960. 12. 26	1961. 06. 26
13	정 시 연 (鄭 時 衍)	중 졸	월야면 용월리	1961. 06. 30	1962. 02. 28
14	오 충 섭 (吳 忠 燮)	고 졸	대동면	1962. 03. 01	1962. 04. 30
15	신 재 철 (申 載 喆)	중 졸	월야면 월악리	1962. 05. 12	1965. 10. 05
16	이 재 후 (李 載 厚)	대 졸	월야면 정산리	1965. 11. 16	1968. 04. 15
17	정 진 재 (鄭 鎭 在)	대 졸	월야면 월악리	1968. 07. 25	1972. 11. 26
18	정 태 선 (鄭 泰 善)	중 졸	월야면 외치리	1972. 11. 26	1978. 02. 27
19	안 종 원 (安 鍾 源)	중 졸	월야면 계림리	1978. 03. 01	1986. 04. 21
20	김 재 병 (金 在 炳)	대 졸	월야면 월악리	1986. 12. 01	1993. 05. 14
21	정 기 정 (鄭 基 正)	고 졸	월야면 외치리	1993. 07. 02	1998. 07. 02
22	정 휴 진 (鄭 烋 鎭)	대 졸	월야면 외치리	1998. 07. 03	1998. 09. 04
23	정 근 욱 (鄭 根 旭)	대 졸	월야면 월악리	1998. 09. 05	2003. 09. 26
24	윤 영 식 (尹 鈴 植)	고 졸	해보면 대창리	2003. 09. 27	2006. 01. 26
25	오 금 렬 (吳 錦 烈)	대 졸	월야면 정산리	2006. 01. 27	2006. 09. 26
26	이 민 성 (李 敏 聖)	고 졸	월야면 월야리	2006. 09. 22	2007. 12. 31
27	이 건 택 (李 建 澤)	고 졸	함평읍 성남리	2008. 07. 28	현 재

7. 면의원 명단

대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출신지	직업	학력·경력	소속정당	참고
1	의 장	안 부 덕 (安富德)	1909. 11. 12	예덕리	농업	면장 3년	자유당	
	부의장	김 재 강 (金在崗)	1909. 06. 22	월계리	농업	부면장 2년	자유당	
	의 원	이 삼 형 (李三衡)	1911. 02. 13	월야리	농업	자유당 위원장	자유당	
	의 원	정 병 수 (鄭炳壽)	1909. 11. 19	양정리	농업	자유당 간부	자유당	
	의 원	정 길 휴 (鄭吉休)	1918. 04. 05	외치리	농업	자유당 간부	자유당	
	의 원	정 진 우 (鄭鎭雨)	1914. 12. 30	월악리	농업		자유당	
	의 원	정 의 근 (鄭毅根)	1926. 01. 10	월악리	농업	한청단장	자유당	
	의 원	노 현 상 (魯賢相)	1912. 09. 11	계림리	농업	이장 3년	자유당	
	의 원	이 재 형 (李載炯)	1914. 09. 07	정산리	농업	이장 5년	자유당	
	의 원	정 진 산 (鄭眞珊)	1920. 03. 10	용암리	농업	면서기 7년	자유당	
	의 원	장 몽 렬 (張夢烈)	1906. 07. 21	용정리	농업	이장 6년	자유당	
	의 원	정 종 동 (定宗童)	1902. 02. 08	영월리	농업	면협의원 4년	자유당	
	의 원	정 병 화 (鄭炳華)	1911. 09. 22	양정리	농업	중졸, 이장 3년	자유당	
2	의 원	정 시 연 (鄭時衍)	1914. 12. 05	용월리	농업	중졸, 면장	자유당	
	의 원	전 경 종 (全庚鍾)	1909. 05. 23	양정리	농업	국졸, 이장 8년	자유당	
	의 원	정 종 동 (鄭宗同)	1902. 02. 08	영월리	농업	국졸, 이장 5년	자유당	
	의 원	정 춘 식 (鄭春植)	1922. 01. 07	외치리	농업	중졸, 교육위원	자유당	
	의 원	정 완 섭 (鄭完涉)	1914. 08. 07	월야리	농업	중졸, 부면장 2년	자유당	
	의 원	정 재 철 (鄭在哲)	1920. 07. 28	월야리	농업	중졸, 소방대장	자유당	
	의 원	정 영 길 (鄭永吉)	1909. 06. 01	월악리	농업	국졸, 면서기 3년	자유당	
	의 원	김 상 렬 (金相烈)	1913. 07. 01	계림리	농업	국졸, 이장 3년	자유당	
	의 원	김 재 수 (金在洙)	1912. 03. 19	예덕리	농업	중졸, 면서기 2년	자유당	
	의 원	안 귀 종 (安貴種)	1908. 01. 05	정산리	농업	한학, 이장5년	자유당	
	의 원	김 상 곤 (金相坤)	1923. 04. 23	용암리	농업	국졸, 이장 3년	자유당	
	의 원	장 길 섭 (張吉燮)	1923. 03. 10	월계리	농업	군청 2년	자유당	
3	의 원	정 백 연 (鄭栢衍)	1923. 01. 02	용월리				
	의 원	이 인 하 (李仁夏)	1927. 12. 01	월야리				
	의 원	김 순 지 (金純池)	1924. 06. 13	영월리				개명
	의 원	정 진 재 (鄭鎭在)	1928. 05. 15	월야리				
	의 원	정 계 진 (鄭季鎭)	1928. 04. 01	외치리				
	의 원	정 민 찬 (鄭旻璨)	1930. 03. 25	월악리				
	의 원	노 흥 룡 (盧興龍)	1929. 11. 07	계림리				
	의 원	안 종 섭 (安鍾燮)	1917. 06. 16	예덕리				
	의 원	전 종 팔 (全鍾八)	1926. 05. 15	양정리				
	의 원	정 진 하 (鄭鎭河)	1928. 07. 21	용암리				
	의 원	장 규 상 (張圭祥)	1922. 03. 20	용정리				
	의 원	배 종 만 (裵鐘萬)	1915. 09. 20	월계리				

8. 마을사(史)

1) 계림리(桂林里)

조선조때는 대야면(大野·大也面)에 속했으며 대야면의 주전(舟田), 가차(加次), 금치(金峙),죽림(竹林), 시목(柿木), 와촌(瓦村) 전역과 죽동(竹洞), 내정(內丁) 월악면의 주곡(舟谷) 각 일부와 대치(大峙) 전역을 묶어 계림리라 하였고 계림리라 부른 까닭은 자세히 전하지 않는다.

(1) 주전(舟田)

인 구(명)			가 호 수			성 씨(호)					
계	남	여	계	자가	타가	계	김해김	상산김	광주노	문화류	기타
59	31	28	30	30		30	6	2	2	2	18

주전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언제 어느 성시가 맨 먼저 터를 닦았는지는 전하는 바 없어 알 수 없다. 다만 현존 성씨 중에서는 1900년대 초경에 동래정씨, 김해김씨, 광산노씨, 현풍곽씨가 입촌했으며 상산김씨, 밀양박씨, 영성정씨, 금성오씨, 문화유씨, 칠원윤씨, 경주리씨, 남양홍씨 죽산안씨 등이 살고 있다.

풍산지리설에 의하면 이 마을은 행주(行舟)라는 명당설에 배를 매두는 선창가라 하여 주전(舟田)이라 했다.

o 문화유적

·선돌 : 주곡으로 불리우는 곳에 1기가 있으며 높이 276cm, 둘레 214cm로 30°가량 기울어져 있다.

o 전설

주전과 주곡 사이에 우물이 있었는데 옛날 옥녀(玉女)라는 처녀가 총각과 사랑을 나누다가 부모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이 우물에 투신하여 죽어다 하여 옥녀정(玉女井)이라고 했으나 지금은 우물이 매워져 논이 되었으며 그 논을 옥녀배미라 부르고 있다.

o 공공건물

·장함노인정(長咸老人亭) : 1966년에 건립, 25평

o 자생조직단체

·촌계 : 1964년 마을 주민의 친목을 목적으로 창립, 23호가 참여 부녀회 : 1968년 마을 부녀 친목을 목적으로 창립. 20여명이 참여

o 기타

·대한예수교장로회 성남교회 : 1966년 설립

o 배출인물

·노준헌(盧春憲) : 명동외한은행 차장

·노양진(盧亮珍) : 철학박사, 전남대학교 교수

(2) 가차(加次)

인 구(명)			가 호 수			성 씨(호)				
계	남	여	계	자가	타가	계	전주리	장흥임	진주강	기타
34	18	16	18	18		18	2	2	2	12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가 차

대치(大峙)라 불리우는 곳에 250여 년 전 전주리씨가 터를 잡았다고 전해오는데 확인한 바 효령대군 보(補)의 13세손으로 진사를 지낸 홍오(洪吾)가 영광군 묘량면에서 옮겨왔으며 그 후손들이 현재 장성읍에 거주하고 있고, 규룡목 야산에 선대 묘12기가 있다. 그 후 진주강씨 강낙원(姜洛元)이 인근 마을인 계림리 죽림(옛 竹洞)에서 1800년대 중순경에 옮겨왔으며, 김해김씨가 1900년경에, 죽산안씨가 1910년경에 입촌했다.

풍수설에 의하면 마을 주변 일대가 달리는 배형국(행배)이라 하는데 이 마을은 큰 배의 키(치)로 배에 키를 하나 더 달았다해서 가치라 했다 하는데 후에 가차(加次)로 표기되었다 한다. 그런데 1789년 호구총수 명에 가차암(가차암)으로 표기된 것을 보면 이 지명이 상당히 오래된 것을 알 수 있다. 예전에는 가치, 대치로 나뉘어 불러오다가 가차로 통일했는데 대치는 큰배의 키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현재 3호가 거주하고 있다.

이 마을은 행주(行舟)란 명당 집터가 있다해서 많은 부자들이 집터를 잡아 욕심을 낸 곳인데 옛적에 어느 중이 나타나 타지의 물이 마을 앞을 흐를 때 터 바람이 날 것이라 했다고 하며 영산강유역 개발로 인하여 큰 용수로가 생겨 물이 흐르게 되었으니 이제 터 바람이 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o 자생조직단체

·위친계 ; 당고시 계원 상호간의 부조를 목적으로 1959년에 창립, 23명 참여

·부녀회 : 마을 부녀 친목을 목적으로 1975년에 창립, 21명 참여

o 공공건물

·마을창고 : 1972년 건립, 15평

o 배출인물

·안종원(安鍾源) : 제 19 대 월야면장 역임

·강춘식(姜春植) : 정광중학교 교장 역임

(3) 시목(柿木)

인 구(명)			가 호 수			성 씨(호)					
계	남	여	계	자가	타가	계	죽산안	밀양박	함평이	광주노	기타
70	37	33	28	28		28	3	2	2	2	19

시 목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야산이었던 이 마을에 처음 터를 잡은 성씨는 함평이씨로 이석헌(李錫憲)이 1800년대 말경 월야면 정산리 서촌 마을에서 옮겨왔다. 그 후 마을 앞 들판에 와촌(瓦村)이란 마을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왜촌(倭村)이라 부르던 곳으로 1901년(辛丑年) 홍수로 인해 거주하기가 어려워지자 맨 먼저 홍성장씨 장성오(張成五) 일가족이 옮겨왔으며 그 후 연차적으로 천안전씨, 청송심씨, 제주양씨 등이 그곳에서 옮겨왔다. 와촌마을은 6·25 한국전쟁 이후 폐촌되었으며 마을 앞 논들은 1972년과 1973년에 경지정리가 되었다. 일제 때 이 마을에 일본인 1호가 살았다 한다.

감나무가 많아 "시목(柿木)"이라 했다하나 마을이 형성될 당시에는 이 마을에 몇 그루 밖에 없었다하며 시목(柿木)이라 하기보다는 마을 형국이 활이기 대문에 화살 시(矢)자를 써서 "시목(矢木)"이라 해야 옳지 않겠느냐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다. 이 마을은 옛 대야면 관할 구역으로 1911년 대야면 2기 "호세장부"를 보면 시목에 16호, 외촌에 4호가 거주한 기록이 있다.

o 문화유적

· 선돌 : 마을 앞 대로변에 2기가 있다.

o 자생조직단체

·친목계 : 1964년에 계원간의 친목으로 창립. 22명이 참여

·부녀회 : 1976년 마을 부녀의 친목을 목적으로 창립. 20명이 참여

o 공공건물

·마을창고 : 1974년 건립, 10평

o 배출인물

·노규호(盧奎鎬) : 사법고시 합격,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안병훈(安秉勳) : 건설교통부 건설기술교육원운영지원본부장(부이사관)

·임근춘(林根春) : 육군 중령

(4) 금치(錦峙)

인 구(명)			가 호 수			성 씨(호)					
계	남	여	계	자가	타가	계	죽산안	장흥임	청송심	광산김	기타
41	17	24	23	23		23	3	2	2	2	14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금 치

흥덕정씨가 300여 년 전에 입촌하여 정착했다고 전해오고 있으며 150년 전 그 후손 중에서 판관벼슬을 한 사람이 있었다하며 계동(桂洞)이라는 마을에서 성(成)씨가 천석군
부자로 3대를 살았다 한다.

1912년 1914년 행정구역명을 보면 금치(金峙)로 표기되어 있는데 마을 뒷산이 옥녀형국이고 산봉우리를 옥녀봉이라 부르는데 옥녀가 비단을 짜는 곳이 마을 터라 하여 현재는 비단 금(錦)
자를 넣어 마을 이름을 “금치(錦峙)”라 했다. 마을 앞들을 옥녀가 베짜는 북이라 해서 신저골(新杼谷)이라 했는데 신주굴로도 부르고 있다. 마을 내 지명 중 구룡목(龜龍)은 장성군 삼서면 수해리와 접하고 있는데 거북형국과 용 형국이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현재 6호가 거주하고 있다.

o 자생조직단체

·위친계 : 40년전 당고시 계원 상호간의 부조를 목적으로 창립. 20호가 참여

o 공공건물

·계림보건지로소 : 1986년 건립, 23평

·마을창고 : 1976년 건립. 14평

o 배출인물

·김성균(金成均)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지원과 행정팀 사무관

·김양수(金良洙) : 전라남도청 종합민원실 민원봉사담당 사무관

(5) 죽림(竹林)

인 구(명)			가 호 수			성 씨(호)				
계	남	여	계	자가	타가	계	함평노	나주임		기타
54	27	27	30	30		30	11	2		17

죽 림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함평노씨 노택동(魯宅東)이 1700년대 중순경 함평읍 진양리에서 옮겨와 처음 터를 잡았으며 현재 그의 후손들이 주종을 이루며 살고 있다. 함평노씨 다음으로는 하동정씨가 약 100년전에 나주임씨가 약 80년전에 입촌했다.

함평노씨가 터를 잡았을 때 어느 지관이 “이곳은 물버큼 터며 북풍이 강하여 살기 어려울 터이니 대나무를 심어 북풍을 막으라”고 하였다.

그래서 대나무가 많은 마을이 되었고 대숲이 죽림(竹林)이라는 마을 이름이 되었다. 이 마을은 원래 “죽동(竹洞·1912년 지명)”과 “죽림”으로 나누어 불리었으나, “죽림”으로 통일하였으며 1911년 대야면 2기 “호세장부”를 보면 죽동에 12호, 죽림에 14호가 거주한 기록이 있다.

o 자생조직단체

·부녀회 : 1997년 마을 부녀 친목을 목적으로 창립. 15명이 참여

o 공공건물

·마을회관 : 1973년 건립. 66평

·마을창고 : 1974년 건립. 10평

o 배출인물

·노희옥(魯熙玉) : 미니골드 회장

·노영대(魯榮大)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장 역임,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노병유(魯炳裕) : 광주CBS방송부장 역임

·노병양(魯炳亮) : 월야농업협동조합장 역임

2) 양정리(陽亭里)

원래 갈동면 관할구역이었고 1914년 이제(里制)를 실시하면서 갈동면 관할의 고정(古亭), 기전(己田), 음지(陰地), 전역과 갈동면 방축(方丑), 월현(月玄), 양지(陽地) 그리고 월악면(月岳面)의 내기(內基), 전하(田下), 해보면의 성산(成山) 각 일부를 관할하게 되었다. 양지에서 "양(陽)"자 고정에서 "정(亭)"를 따 양정리라 했다.

(1) 양지(陽地)

인 구(명)			가 호 수			성 씨(호)					
계	남	여	계	자가	타가	계	천안전	나주정	죽산안	함평이	기타
95	53	42	40	40		40	28	3	2	2	5

양 지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이 마을은 마(馬)씨가 번창히 살았다는 전설이 있으며 부자로 살았기에 99칸 집이 있었다한다. 그 후 입향한 성씨는 나주정씨인데 시조의 11세손인 정지아(鄭之雅)가 서울의 남산 밑 입정동에서 태어나 세종때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정랑, 호남경차관을 지내던 중 아버지 훈(薰)이 단종 복위에 연루되어 남해도로 귀양되자 귀양지까지 따라가 봉양하다가 10년만에 귀양이 풀려 관악산중으로 옮겼으며 아버지가 타계한 후 3년 복을 마친 다음 1475년 고향과 가까운 양정리 석화산 아래에 은거 정착했다. 이어 1680년경에 천안전씨 이제(里制)가 현 나주시 문평면 산호리 남산 마을에서 옮겨와 정착 그의 후손들이 자작일촌 하고 있다.

마을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햇볕이 잘 드는 쪽은 양지(陽地), 햇볕이 들지 않는 쪽은 음지(陰地)라 하였으나 지금은 이를 합쳐 양지(陽地)마을이라 한다.

o 공공건물

·마을작업장 : 1982년 건립

·마을회관 : 1998년 건립

o 노거수

마을 중앙에 수령이 500년쯤 되었을 느티나무 2그루가 있는데 1그루는 몇 년 전 태풍으로 인해 죽고 현재는 1그루만 있으며 마을의 당산나무로 여기고 있다. 그 나무가 울고 피를 흘리면 그 해에 난리가 난다고 전해오고 있는데 8·15해방과 6·25한국전쟁 때에는 그런 사실이

있었다 한다.

o 특기사항

·참샘 : 마을 뒤의 재를 넘어가면 조그마한 샘(둠벙)이 있는데 이를 참샘(眞泉)이라 고하며 물이 차기가 이를 데 없어 한 여름 뙤약볕일 때도 물속에 1~2분도 있을 수가 없다. 이 샘은 전에는 인근에 이름이 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땀띠 등을 치료했다. 1996년 전성웅이 참샘골 약수터를 개발 운영하고 있다.

·돗자리 : 이 마을 특산물은 왕골돗자리로 농한기를 이용하여 가내 부업으로 소득을 올렸으나 현재는 생산하지 않는다.

o 자생조직단체

·위친계 : 40년 전 당고(當故)시 계원 상호간의 부조를 목적으로 창립, 40명이 참여

·부녀회 : 1971년 마을 부녀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창립. 40명이 참여.

·양지재향친목회 : 1990년 창립, 20명이 참여.

o 배출인물

·전관섭(全貫燮)·전상회(全相繪)·전성섭(全晟燮) : 1905년 11월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이 마을 출신 전관섭은 숙부 상회와 형 상섭과 함께 전해산(全海山)의 진영으로 달려가 신명을 받쳐 많은 공을 세웠는데 세인(世人)이 숙부와 형과 더불어 일문삼의사(一門三義士)라 하여 칭송이 자자했다. 1982년 4월 이 마을에 「천안전씨삼의사기적비」가 후손들에 의해 건립됐다.

·전광웅(全光雄) : 강원대 교수 역임 ·전갑성(全甲成) : 공군대령

·전승구(全勝久) : 대전 신탁은행지점장

·전세정(全世政) : 제45회 사법고시 합격, 율산법율사무소 소장

·전일용(全一鎔) : 제33회 기술고시 합격, 특허청 공업서기관

(2) 기전(基田)

인 구(명)			가 호 수			성 씨(호)					
계	남	여	계	자가	타가	계	광산김				기타
22	13	9	11	11		11	2				9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나주정씨 월야 입향조 정지아(鄭之雅)의 후손인 정운택(鄭雲澤)이 1800년대초 경에 양정리 양지만을에서 이 마을로 이주해왔으며 그의 현손 열(說)은 천석군 부자로 이름이 났다. 마을 내의 지면 중 "노루목"이라 부르는 곳에 3호가 거주하고 있는데 마을이 번창할 때는 20여호가 거주하던 때도 있었다 한다.

마을 지형이 키(치)같이 생겼다 해서 키 기(箕)자를 써서 기전(箕田)으로 바뀌었는데 그 연유

는 “기”자를 계속 사용 할 경우 쑥대밭이 된다해서 고쳤다. 이 마을 뒤에 “노루목”이라 불리우는 곳이 있는데 200년 전 호구총수 지명에 “장항(獐項)“이라 기록되어 있다. 즉 노루의 목같이 생겼다 해서 노루 장(獐), 목 항(項)을 썼으며 노루가 꼬리를 돌아보고 있다하여 장고미(獐顧尾)라 불리우는 지명이 인근에 있으며 흔히 장귀미라 부르고 있다.

기 전

o 문화유적

·나주정씨삼강문 : 마을 뒷등에 위치하고 있으며 임란 충신 정응(鄭膺)과 정응의 8세손이며 효행으로 군자 감정에 증직된 정진복(鄭震復)과 정진복의 처인 열부 죽산 안씨(안중로-安仲魯-의 딸)의 유향(遺鄕)을 추모하기 위해 명정을 받아 1899년에 건립하였다.

o 공공건물

월야남초등학교(1971년 3월 5일 개교, 1996. 2. 28 폐교)와 양정보건지료소가 이 마을에 있다.

o 전설

이 마을에서 바라다 보이는 오수산에 용바위가 있었는데 100여년 전 이 마을 청년들(8 장사-장사)이 이곳에 놀러 갔다가 이 바위를 벼랑으로 밀어버렸다. 그 후부터 마을이 쇠퇴해지기 시작하였다고 하며 그 이유는 기전마을이 돼지 형국인데 오수산의 용(용바위)이 마주보고 있어 무서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가 용이 없어지자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라 하며 그후 다시 용바위를 제 자리에 옮겨 놓았다.

(3) 고정(古亭)

인 구(명)			가 호 수			성 씨(호)					
계	남	여	계	자가	타가	계	나주정	함평이	김해김	선산김	기타
36	22	14	18	18		18	6	4	1	1	6

고 정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1700년경에는 마을이 없어 정자 한 채가 지어져 휴양처로 쓰이고 있었다고 한다. 1789년 호구총수 지명에 고정자리(高亭子里)가 보임으로 야산을 일구어 농토로 하려는 농경 정착자가 마을을 이미 이루었음을 알수 있다. 현존 성씨 중에는 나주정씨가 맨 먼저 입촌했는데

항일 의병활동을 했던 정헌면(鄭憲冕, 1846~1921)이 이 마을 태생이다. 함평이씨가 1906년에, 나주임씨는 1949년에, 선산김씨는 1955년에 들어와 살고 있다.

1912년 지명에는 고정(古丁)으로 표기되어 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옛 정자가 있었던 곳이라 하여 "고정(古亭)"으로 고쳤다.

o 자생조직 단체

·위친계 : 1956년 계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창립. 12명이 참여

o 배출인물

·정헌면(鄭憲冕)·정석면(鄭錫冕) : 항일 의병으로서 함께 김태원 부대에 가담하여 1907년 11월 장성 백양사 전투, 담양, 대치, 고창, 고산 등지에서 전공을 세웠다. 특히 1909년 3월 26일 순창에서 왜군 토벌대 부대장 오가다를 사살하였다.

(4) 방축(方丑)

인 구(명)			가 호 수			성 씨(호)					
계	남	여	계	자가	타가	계	광주이	진주하	충주지	김해김	기타
80	45	35	40	40		40	5	4	3	3	25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삼한 때부터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전하나 확실한 기록은 없고 현존 성씨 중에서 전주리씨가 200여년전에 맨 먼저 입촌했으며 그 후 남양 방씨가 160년 전에, 충주지시가 150년 전에 옮겨와 정착했다. 현재는 14성씨가 살고 있다.

조선조말까지는 갈동면 "갈월(葛月)"이라 했으며 현재는 "방축(方丑, 1912년 지명)"으로 쓰고 있는데 처음에는 "방축(芳築)"으로 썼다. 마을 이름에 대한 자세한 유래는 알 수 없으나 마을 앞에 방축제(方丑堤:1945년 설치)가 있는데 예전에는 현재의 규모보다 훨씬 큰 방축이 있었다 하며 방축이 있으므로 해서 지명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o 특기사항

조선 중기 때부터 생활용품 옹기류를 생산한 요지가 이 마을에 있었는데 수백년 전통의 옹기는 강도, 빛깔, 모양에 있어 뛰어난 제품으로 외지에 널리 팔렸으며 1965년에 폐요 되었다.

o 자생조직 단체

·부녀회 : 1974년에 마을 부녀의 친목을 목적으로 창립. 34명이 참여

o 공공건물

·마을회관 : 1998년 건립

o 배출인물

·이경률(李京律) : 항일 의병
·방응오(房應五) : 항일 의병
·이현수(李賢洙) : 수원시 이현수한의원장
·이규섭(李奎涉) : 서울가락초등학교장

3) 영월리(令月里)

원래 가롱면 관할구역이며 1914년 이제(里制)가 시행되면서 덕령(德令)·옥미(玉米) 전역과 석보(石堡), 양지(陽地), 월현(月玄)의 각 일부를 관할하게 하였고 덕령에서 "령(令)"자와 월현에서 "월(月)"자를 따 이명(里名)을 "영월(令月)"으로 하였다.

(1) 덕령(德令)

인 구(명)			가 호 수			성 씨(호)					
계	남	여	계	자가	타가	계	나주정	제주양	천안전		기타
63	27	36	35	35		35	21	3	2		9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정지아(鄭之雅)의 후손인 나주정씨 정이상(鄭以商)이 인근 양정리 양지마을에서 거주하다가 광산김씨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후 1500년대 초경에 이 마을로 옮겨와 터를 잡았다. 그리고 마을 북쪽 700m쯤에 지아막골(기와막골)이라 부르는 마을이 있는데 덕령 마을에 거주하고 있던 성막동(成莫同)이 1958년 그곳에 집을 짓고 살면서 큰 마을이 되라는 뜻에서 대성동(大成洞)이라 하였으며 예전에 이곳에서 기와를 구웠다 하며 현재는 1호도 살지 않는다. 마을 뒤 덕령제(堤) 옆에 "알매(알뫼, 卵山, 1789년 호구총수 지명)"라 부르던 마을이 있는데 그 곳에 현재의 마을이 형성되기 훨씬 이전에 사람들이 살았다고 전해오며 만석군, 천석군부자가 살았다 한다. 지금도 그곳에 옛 사기그릇 파편과 기와 조각 등이 발견되고 있으며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를 역임한 나주정씨 진(肆, 1719~1791)이 1786년 현 양정리 노루목(장항-獐項)에서 난산(卵山, 알뫼)마을로 이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준호구가 발견되어 알뫼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었다.

칠봉산(七峯山)의 한자락이 마을 뒷산을 이루고 있는 마을로 칠봉산 너머에 유덕군자(有德君子)가 날 터라 해서 큰 덕(德)자와 재 령(嶺)자를 써서 "덕령(德嶺)"이라 했었으며 1840년과 1855년에 발행된 나주정씨 행지(幸之)의 중호구에도 주소가 갈동면 덕령(德嶺)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지금은 원뜻과는 다른 덕령(德令)으로 표기하고 있다.

o 전설

마을 뒤에 바웃골(바위골)이라는 곳이 있는데 해가 뜨면 이 곳에서 햇빛이 반사하여 십리 밖까지 빛났다고 하며 십리 밖에서 이 반사된 햇빛을 보던 처녀들이 정신착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동내 사람들이 바위를 흙으로 덮어버려 그 후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어졌다고 전해오고 있다.

o 자생조직 단체

·촌 계 : 마을 주민들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90년 전에 창립, 33호 전가구가 참여
·부녀회 : 마을 부녀의 친목을 목적으로 1975년에 창립, 33명이 참여.

o 공공건물

·마을회관 : 1999년 건립 ·동 각 : 1999년 건립
·마을창고 : 1973년 건립. 30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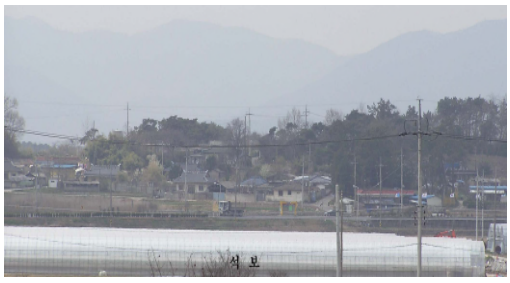
o 배출인물

·정성진(鄭成鎭) : 육군 준장 예편 ·정광용(鄭光容) : 건설교통부 부이사관
·양귀중(梁貴仲) : 광주광역시 동구청 구세담당 사무관

(2) 석보(石堡)

인 구(명)			가 호 수			성 씨 (호)					
계	남	여	계	자가	타가	계	나주정	한양조			기타
94	47	47	52	52		52	11	2			39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석 보

마을이 형성되기는 400년쯤 된 것으로 전해오며 어느 성씨가 처음 터를 잡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현존 성씨 중에서는 나주정씨 정창후(鄭昌候)가 1600년대 말경 월야면 양정리 양지마을에서 맨 처음 들어왔으며 이 마을에 살던 하동정씨 한사람이 외곡(外穀) 5百여석을 받고 살았다 한다.

이 마을은 칼같이 생겼다 하여 검뫼(劍山, 1789 호구총수지명)라 부르던 마을이 먼저 생겼는데 뒤에 옥미리(玉米里, 1912년 지명)라 고쳤고 월턱산 북쪽에 돌로 된 보가 있어 석보(석보,

돌보)라 불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이 두 마을을 합쳐 석보(石堡)라 했다.

o 지명

이 마을은 주산이 학굴산이며 학굴산을 노인봉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노인봉 앞에 있는 작은 산은 노인이 밥상을 받은 모양이라 하여 밥상뫼라 하고, 밥상뫼 북쪽에는 조선조대 사창(社倉)이 있었다 해서 사창들이라고 부르고 있다.

o 자생조직 단체

·촌 계 : 1956년 마을 주민의 친목을 목적으로 창립. 40호가 참여.
·부녀회 : 1974년 마을 부녀의 친목을 목적으로 창립. 32호가 참여

o 공공건물

·마을회관 : 1978년 건립. 25평 ·마을창고 : 1977년 건립. 26평

o 배출인물

·나성후(羅成候) : 육군 대령
·나태종(羅兌鍾) : 육군 중령

4) 예덕리(禮德里)

조선조 때는 대야면에 속한 곳이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대야면의 예동(禮洞).신덕(新德), 주평(舟坪), 발산(鉢山), 무선(武仙), 월악면 백기(白器), 신촌(新村), 봉산(蜂山·鳳山) 전역과 대야면 화산(花山) 죽동(竹洞), 영광군 삼서면(현 장성군), 반학(伴鶴)의 각 일부를 묶어 예동에서 "禮"자와 신덕에서 "德"자를 따 "신덕리"라 하였다.

예덕리의 일대는 마한으로 그 맥이 이어지는 독무덤과 돌방무덤이 군집되어 있는 곳으로 인근의 고인돌군과 연결해 볼 때 선사시대부터 농경문화의 정착지였음을 알 수 가 있으며, 영산강 유역의 고대문화를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가 있어 하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 예동(禮洞)

인 구(명)			가 호 수			성 씨(호)					
계	남	여	계	자가	타가	계	죽산안	함평이			기타
74	35	39	39	39		39	21	2			16

예 동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500여년 전 지금의 불흥사 자리에 주(周)씨들이 터를 잡고 살았는데 화적의 피해가 심해 폐촌 되었다.

그 후 지금의 예동에 심씨가 터를 잡아 세거하였다는데 마을 안에서 '심망석(沈亡石)'이란 글이 새겨진 돌이 나온 후 심씨는 이촌했으며 죽산 안씨 안희민(安希閔)이 1580년경 광산군 서창면 매월리에서 이거해온 이래 그의 후손들이 자작일촌을 하고 있는 샘이다.

죽산안씨 외에 함평이, 신평송, 능성구, 곡부공, 밀양손, 김해김, 이천서, 청주한, 남원양, 대구배씨등이 살고 있다.

마을 지형이 여우 같이 생겼다고 해서 호동(狐洞, 1789년 호구총수 지명, 1801년간행 죽산안씨 족보 지명)이라 불렀는데 뒤에 우리 말로 여우골, 여시골이라 부른 것이 예동으로 변한 것 같다.

o 특기사항

·불흥사(佛興寺) : 1965년 안정안(安定安)이 창건

o 공공건물

·마을창고 : 1. 1974년 건립. 20평
2. 1977년 건립. 50평

o 배출인물

·안형직(安衡稷) : 조선시대 정조조때 문과에 급제. 호조참의 역임
·안부덕(安富德) : 제8대 월야면장 역임
·안종일(安鍾一) : 광주광역시 초대 교육감, 광주·전남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의회장
·안수웅(安秀熊) : 서울구치소 약국장
·안득수(安得洙) : 의학박사, 전북대학 의과대학 교수 겸 병원장
·안진수(安鎭洙) : 영문학박사, 단국대학교 인문과학대학 학장 역임
·김현명(金賢明) : 제13회 외무고시 합격, 중앙공무원교육원 국제교육협력관
·안택순(安澤淳) : 서울대졸업 행정고시 32회 합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안경환(安敬煥)·안후덕(安厚德) : 안경환은 당대의 천석군으로서 민족자본을 형성하여 그의 장손 안후덕으로 하여금 상해임시정부에 거액의 운영자금(당시 4,500원)을 헌납케 한 숨은 애국자이며 1924년과 1925년 두 해에 걸쳐 대흉년이 들었을 때 수 백석의 규휼미를 기민(飢民)에게 나누어준 자선가로 마을 입구에 자선비가 즐비하게 서 있다. 안후덕은 한인청년동맹 상해지부장 및 집행위원으로 활약하다가 자금난 때문에 1929년 2월에 다시 모금차 귀국하던 중 기밀서류가 발각되어 신의주에서 체포되었다. 1929년 6월 일제의 공판에

서 징역 5년을 언도 받고 복역한 후에 감시를 피하여 전국을 전전하다가 1949년 11월 25일 45세로 타계하였다.

·안용호(安龍鎬) :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관, 금당초등학교장 역임
·안명수(安明水) : 광주축산업협동조합장
·안상선(安相善) : 의학박사, 안상선내과의원장
·안용덕(安龍德) : 이학박사, 조선대학교 체육대학 교수
·안영선(安營善) : 한의학박사, 세종한의원 원장
·안종천(安鍾天) : 공학박사, 디트로이트 포드자동차회사 연구원
·안광욱(安珖昱) : 화학박사, 뉴욕트로안 페터링 연구원
·안영욱(安永旭) : 생물학박사, 스타워스 의학연구소 연구원

(2) 신촌(新村)

인 구(명)			가 호 수			성 씨(호)					
계	남	여	계	자가	타가	계	죽산안				기타
34	18	16	16	16		16	6				10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250년전 죽안안씨가 인근 예덕리 예동 마을에서 들어와 살기시작했다고 전해오고 있으나 누가 처음 입향한지는 알 수 없고 현존 성씨 중에서는 죽산안씨 다음으로 인동장씨가 120년 전에, 순흥안씨가 90년전에 들어왔다.

예전에는 "망태골"이라 불렀는데 이는 망대골(望大谷)의 발음이 잘못 된 것이며 망대(望大)라 한 것은 고려 충혜왕 때인 1314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문하시중 평장사에 올랐고 죽성군(竹城郡, 죽산의 옛 이름)에 봉작된 신 죽산안씨의 1세조 안원형(安元衡)의 16세손인 안형직(安衡稷)이 참의벼슬을 한 것을 기념하여 예동마을의 입구인 이 마을에 솟대(솔대)를 세웠는데 이 솟대가 높이 세워져 있어 근처에서 우러러보니 큰 것을 바라본다는 뜻에서 망대로 했다 한다. 그 후 160년 전에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해서 "신촌(新村)"이라 부르게 됐으며 예동 마을과는 한 마을이었으나 자연 마을이 되면서 신촌이라 불러 분리시켰다.

(3) 만가(萬家)

인 구(명)			가 호 수			성 씨(호)					
계	남	여	계	자가	타가	계	김해김	제주양	남평문	함평이	
9	5	4	4	4		4	1	1	1	1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이 마을 구릉에 마한의 전통을 이어 받았을 고분군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마을이 형성된 시기는 원삼국시대까지 거스를 수 있다.

1911년 "대야면 경비" 문서에 주평(주평)에 18가호가 거주한 기록이 있으며 1921년에 제작한 지도에 "주평(주평)"으로 표기되어 있다.

1984년 5월에 개업한 신성연와산업이 입주하기 전에는 7호가 살고 있었으나 공장이 들어서면서 헐리고 2가호가 남았다가 공장사택에 종원이 입주함으로서 1986년에는 30가호가 거주하기도 하였으나 1991년 공장이 폐업되면서 2가호가 있다가 1995년 마을 남쪽에 오리 사육농장이 들어서면서 현재 5가호가 살고 있다.

전언에 의하면 불갑산(佛甲山) 동쪽 십리밖에 가히 만인이 살 곳이라 해서 "甲洞十里 可活萬人之也"라 했다하며 노씨, 이씨, 장씨가 만호를 이루고 살 것이라 하여 "魯李張 萬家村"이라 했다한바 만가(萬家)라는 지명이 여기에서 연유된 듯 하며 1789년 호구총수와 1914년 조선면리동일람 책자에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때 폐촌되었다가 일제강점기 때부터 다시 마을이 들어선 것 같다. 우리 군의 주요한 문화 유적지인 예덕리 고분군을 축조하였던 당시는 이곳 일대에 큰 세력 집단이 응거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o 문화유적

·만가고분군(萬家古墳群) : <마한·백제시대 유적유물을 볼 것>

(4) 신덕(新德)

인 구(명)			가 호 수			성 씨(호)					
계	남	여	계	자가	타가	계	광산김	인동장	전주리	안동장	기타
83	45	38	30	30		30	6	4	3	2	15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이 마을 서북쪽 약 100m 지점과 남쪽 300m 지점에 백제시대에서 마한으로 이어지는 고분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오래 전부터 이곳 주변 일대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지금도 밭을 갈 때에 깨진 옛 기와조각이 발견되고 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장과부가 부자로 살았다하며 이 마을 출신으로 150여년전 함평이씨 이돈하(李敦夏)는 함평 향교 도유사를 지냈으며 100년전 이장옥(李章玉)은 한의사로 멀리까지 이

름이 났다 한다.

현존 성씨 중에는 90여년전에 광산김씨 김상진(金相震)이 월계리 덕산마을에서 맨 처음 옮겨왔다. 예전에는 마분정(馬墳亭·1789년 호구총수지명)이라 했는데 말무덤 몰무덤 등으로 불리워오고 있는 지명으로 고분지대로 밝혀지고 있으며 현 신덕 마을에도 고분이 있었다고 한다. 마분정이란 지명은 고분에서 유래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중간에 폐촌되었다가 100여년 전 새로 마을이 형성되어 "신덕(新德·1912년 지명)"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마을 동쪽 들을 "흥정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흥씨의 정자가 있었다는 지명으로 예전에 이 마을에 흥씨가 살았음을 알 수 있으며, 현재는 예덕제(堤)에 잠겼는데 흥시암이라 부르는 샘도 있었다 한다.

o 문화유적

·신덕고분군 : <마한·백제 유적유물을 볼 것>

o 자생조직단체

·촌　계 ; 1975년 마을민의 친목을 목적으로 창립. 40호가 참여
·부녀회 : 1975년 마을 부녀의 친목을 목적으로 창립. 28명이 참여
·청년회 : 1997년 마을 청년들의 친목을 목적으로 창립. 11명이 참여
·친목계 : 1997년 주민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창립. 20명이 참여.

o 배출인물

·김장환(金長煥) : 공군 중령 예편
·김정훈(金正勳) :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 서기관

(5) 발산(鉢山)

인 구(명)			가 호 수			성 씨(호)					
계	남	여	계	자가	타가	계	김해김	광산김	밀양박	진주정	기타
28	16	12	12	12		12	3	2	2	2	3

발산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1984년에 마을 주민에 의해 반월형 석도가 발견됐으며 마을입구 야산에 고인돌이 분포된 것으로 보아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존 성씨 중에서는 김해김씨 김학표(金學杓)가 130년 전에 광산군 동곡면 유계리에서 맨 처음 옮겨왔으며 밀양박씨가 100여년 전에 입촌했다. 예전에 금성나씨와 안동권씨가 살았다 하며 금성나씨 한 사람이 일제강점기 때 이 마을에서 한

약방을 했으며 60년 전에 떠났다 한다.

o 지명유래

원래 마을 한 가운데에 있는 샘에서 용이 승천했다하여 “용연(龍淵)”이라 했으며 대야면 관할구역일 때는 발산리(鉢山里)라 했는데 “발산(鉢山)”은 바리대(나무로 된 중의 밥그릇)처럼 생긴 산밑에 있는 마을이어서 부르게 됐다 한다. 이 마을 윗 쪽에 흰 그릇을 굽는 곳이라 해서 백기(白器)라 부르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릇을 만들어 많은 돈을 벌어 보기 좋은 담을 쌓았다 해서 돔담이라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폐촌된지 오래되었다.

o 문화유적

·발산고인돌군 : 마을 입구 야산에 3기가 있으며 예전에는 8기가 있었다 해서 팔바우등으로 불렀다.

·조선자기도요지 : 조선시대 말기부터 눈박이 사발, 등잔 등을 생산해오다가 6·25한국전쟁 후 폐요가 된 조선자기 도요지가 마을 뒤(백기마을)에 있었다.

o 자생조직단체

·위친계 : 50여년전 당고시 계원 상호간의 부조 및 협력을 목적으로 창립. 12명이 참여

o 공공건물

·마을창고 : 1977년 건립. 20평

(6) 무봉(武奉)

인 구(명)			가 호 수			성 씨(호)					
계	남	여	계	자가	타가	계	광산김	파평윤	전주리		기타
9	5	4	4	4		4	2	1	1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무 봉

파평윤씨 윤상술(尹相述)이 월야면 월계리 덕산(서당골)마을에서 살았었는데 1800년대 말경 영성 정씨의 딸을 아내로 맞아 소유하고 있는 농경지가 이 마을에 있어 경작에 편리하도록 이곳에 처음 터를 잡았다. 그러나 봉산(奉山·1912년 지명)으로 불리우는 곳에 마을이 먼저 형성됐다 하며 이곳에서 옹기그릇을 생산했는데 6·25 한국전쟁 후 폐요되었으며 지금은 단 1호도 거주하지 않는다. 무봉에는 전에 최씨, 문씨, 이씨, 박씨 성을 가진자들이 거주했었다 한다.

원래는 무선(武仙·1912년 지명), 봉산(奉山·1912년 지명)으로 각각 불리어오다가 1959년 이 마을 북쪽에 무봉제(武奉堤)가 설치되면서부터 “무봉(武奉)”이라 부르게 됐는데 무선은 두 선녀가 춤추는 형국, 즉 선인무수(先人無水)라 해서 무선동(武仙洞)이라 불렀다 한다.

5) 용암리(龍岩里)

조선조에는 대야면에 속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이제(里制)를 실시하면서 대야면 연화(蓮花), 방하(芳荷), 용산(龍山), 신성(申成), 은암(殷岩) 전역과 복룡(伏龍), 송정(松亭) 각 일부를 묶어 용산에서 “龍”자와 은암에서 “岩” 자를 따 “龍岩里”이라 하였다.

(1) 방하(芳荷)

인 구(명)			가 호 수			성 씨(호)					
계	남	여	계	자가	타가	계	나주정	함평이	광산김	청도김	기타
64	37	27	35	35		35	3	3	2	2	25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고려 대 임양덕(林陽德) 장군이 개촌(開村)했다는 전설과 함께 지금도 마을 후록에 임장군묘로 전해 오고 있는 고총이 있으나 그 후손이 현재는 살고 있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임씨 입촌 후 광산노씨 성연(成連)이 광주의 일곡동에서 이거 입촌했다고 하는데 성연은 정유재란때 불타버린 함평학교(당시 함평읍 내교리 외대 소재)를 새로 짓고 자기집 노복들을 향교의 교직으로 하였던 경덕(경덕. 1562~1612)의 9세조로 생존 연대가 정확히 기록되지 않아 정확히는 말 할 수는 없으나 대략 1400년대 말경에 입촌했음을 알 수 있다.

경덕의 조부 사종(嗣宗)이 동래부사를 역임하는 등 번창한 집안이었다.

광산노씨 다음으로는 청주한씨와 김해김씨가 입촌했었다. 마을이 생기기 전에 골짜기에서 항상 방아 찧는 소리가 들려 부자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정착했다고 전해오는데 마을 이름은 방아와는 거리가 먼 방하(方下, 上方下,下方下 두 마을. 1789년 호구총수 지명) 후에는 “방하(芳荷·1912)”로 표기되고 말았다.

이 마을은 월야면이 신설되기 전에는 대야면 방하리라 했는데, 대야면이라 부르게된 연유는 방하 마을이 “야(也)”자 형국이고 정산리 서촌마을이 “대(大)”자 형국이라서 이 두 글자를 합하여 면명으로 하였다고 전한다.

o 전설

마을 앞에 당산나무(느티나무, 귀목) 3그루가 있었는데 10년 전 태풍으로 인해 가운데 나무가 죽었으며 수령이 4백~5백년 가량으로 추정되며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여겨 음력 정월 초 굿을 하고 농악을 울려 당산제를 지냈는데 몇 해 전부터 실시치 않고 있다. 3그루 중 북쪽에 있는 나무에서 먼저 잎이 피기 시작하면 풍년이 들고 가운데 나무에서부터 잎이 피기 시작하면 흉년이 드는 것을 점칠 수 있다 한다.

o 지명

마을 내(內) 지명 중 "천수갓"으로 부르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월야북초등학교(1933년 6월 10일 개교. 1999. 9. 30 폐교)가 있으며 천수답 가(邊)라는 뜻에서 부르게 된 지명인데 학교가 들어서고 보니 천수가 있는 곳이라는 뜻에서 부르게 됐지 않았나 여겨지고 있으며 이곳에 5호가 살고 있다. 마을 앞에 "국정자"라는 곳이 있는데 국(鞠)씨의 정자가 있었다 하며 옛 대야면사무소가 이곳에 있었다 한다.

o 공공건물

·마을창고 : 1977년 건립. 30평

o 배출인물

·노사종(盧嗣宗) : 조선시대에 문과에 급제하여 한성판윤, 동래부사를 행직하였다.
·안기현(安基鉉) : 마산 제일외과의원장
·정부선(鄭富善) : 육군 중령 예편
·정석규(鄭錫圭) : 육군 중령 예편
·정진갑(鄭鎭甲) : 동강대학장, 학교법인 후성학원 상무이사 역임
·정항곤(鄭杭坤) : 육군 중령 예편
·진희선(陳熹善) : 23회 기술고시 합격. 서울시청 건설본부 과장.
·정방수(鄭芳洙) : 제 40회 사법고시 합격

(2) 연화(蓮花)

인 구(명)			가 호 수			성 씨(호)					
계	남	여	계	자가	타가	계	동래정	전주리			기타
42	24	18	25	25		25	5	4			16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고려말부터 마을이 이루어졌다고 하나 확실한 기록이나 전하는 바가 없어 정확히는 알 수 없으며, 현존 성씨 주에서는 동래정씨가 맨 먼저 입촌했는데 1700년대 중순경 영광군 염산에서 정윤조(鄭潤朝)가 옮겨왔고, 동래정씨 다음으로는 전주리씨가
70년 전에 들어왔다.

연 화

그러나 마을 뒷산에 고인돌이 분포된 것으로 보아 선사시대에도 이 마을에 사람이 살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

조선조 때 마을 안에 묘한 지정(池井)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많은 연꽃이 화려하게 피어 마을 이름을 "연화(蓮花)"라 했다고 전하나 1789년 호구총수 지명에는 이와는 뜻이 다른 연화동(連化洞)으로 표기되고 1912년 지명에는 연화(蓮花)로 표기 되었다.

o 문화유적

·지석묘 : 마을 뒷산(광산노씨 문중산)에 5기가 있다.

o 자생조직단체

·영화번영회 : 1984년 마을의 번영을 목적으로 조직하였으며 20호가 참여

·부 녀 회 : 1980년 마을 부녀의 친목을 목적으로 창립. 18명이 참여

o 배출인물

·정진팔(鄭鎭八) : 광주봉주초등학교장 역임.

·정광우(鄭光愚) : 월야농업협동조합장

(3) 은암(殷岩)

인 구(명)			가 호 수			성 씨(호)					
계	남	여	계	자가	타가	계	함양박	원주김	광산김	밀양박	기타
32	17	15	15	15		15	4	3	2	2	4

은 암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처음에 황(黃)씨가 거부(巨富)로 황씨촌을 이루고 살았다하나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며 다만 마을 좌측에서 마을 앞을 가로질러 흐르는 하천이 있었는데 그하천을 마을 옆으로 흐르게 해서 황씨는 망하고 그 후 임씨가 살았으며 1700년대 말 경 김해김씨 김성국(金聲國)이 용암리 방하 마을에서 옮겨 왔으며 김해김씨 다음으로 원주김씨 김달옥(金達玉)이 1800년대 초경 해보면 발미 마을에서 옮겨 왔다. 그 후 함양박씨 박한풍(朴漢豊)이 인근 송정 마을에서 살다가 1870년경 입촌했다. 함양박씨, 원주김씨, 밀양박씨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나주정씨, 진주정씨, 하음봉씨, 김해김씨, 전주리씨, 인동장씨, 연안유씨 각각 1호씩 살고 있다.

원래 마을 뒷산이 토끼 형국이라 해서 “분토동(奔兎洞)”이라 불러 왔는데 1789년 호구총수 지명에서 음만 따서 분토동(分土洞)이라 기록해 왔으며 근래 이 마을 출신인 한학자 박한표(朴漢標)의 호인 은암(殷岩)을 따서 마을 이름을 “은암(殷岩)”이라고 했다.

o 문화유적

·함양박씨 효행비 : 마을 앞에 있는 효자 박동진(朴東鎭)과 박수진(朴秀鎭)의 효행비로 증병조판서 박성오(朴省吾)의 7세손이다. 1907년 후손들에 의해 건립됐다.

o 자생조직단체

·촌계 : 마을 주민들의 친목을 목적으로 1958년에 창립. 17호가 참여

o 공공건물

·마을창고 : 1975년 건립. 27평

o 배출인물

·정한영(鄭漢泳) : 조선대학교 사무처장 역임

·정선종(鄭善宗) : 광주광역시청 문화예술과 사무관

(4) 신성(申成)

인 구(명)			가 호 수			성 씨(호)					
계	남	여	계	자가	타가	계	함평이	김해김	진주강	밀양박	기타
69	36	33	31	31		31	5	4	2	2	18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신 성

마을 주변에 고인돌이 분포된 것으로 보아 선사시대 때부터 이미 주거지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마을이 이루어진 것은 마을 앞에 명지동(明池洞)이라 부르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처음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단 1호도 거주하지 않으며 전하는 바에 의하면 해주최씨가 400년 전에 터를 잡고 살다가 70년 전에 현재의 마을로 옮겨왔다 하는데 전주최씨와 전의이씨도 살았다 한다.

원래는 마을 형국이 말(馬)같다하여 마감동(馬甘洞·1789년 호구총수 지명·고분과 관계가 깊은 지명)으로 불러오다가 대야면 관할구역일 때는 “신성리(申成里·1912지명)”라 했으며 신성(申成)에 대한 지명유래는 전하는 바 없어 알 수 없다.

o 문화유적

·고인돌군 : 마을 북서쪽 150m 지점에 4기, 동북쪽 구릉상에 3기가 있고 성혈(性穴)도 있다.

·독 무 덤 : 마을 뒷 편의 구릉상(용암리 산 24번지)에 1기가 있다.

o 자생조직단체

·촌 계 : 1955년에 마을 주민의 친목을 목적으로 창립. 24호가 참여

·부녀회 : 1972년에 마을 부녀의 친목을 목적으로 창립. 20명이 참여

o 공공건물

·마을회관 : 1973년 건립. 20평

o 배출인물

·정인술(鄭寅述) : 항일의병<인물편을 볼 것>

·김진안(金鎭安) : 초등학교 교장 역임

·김종호(金鍾湖) : 중학교 교장

·이계운(李啓運) : 제2대 월야면장

·이영범(李永範) : 청주대 교수

(5) 용산(龍山)

인 구(명)			가 호 수			성 씨(호)					
계	남	여	계	자가	타가	계	인동장				기타
19	11	8	9	9		9	2				7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마을이 언제 형성되었는지 어느 성씨가 먼저 터를 잡았는지는 전하는 바가 없어 알 수 없으며 다만 현존 성씨 중에서 전주최씨 최수필(崔壽弼)이 130년 전에 무안군 일로면에서 옮겨왔으며 그 후 인동장씨가 116년 전에. 김해김씨가 51년 전에, 함평이씨가 34년 전에, 진주정씨가 1984년에 입촌했다

이 마을 좌측에 안골이라 부르는 곳이 있는데 전하는 바에 따르면 함평노씨가 이곳에 터를 닦아 살다가 본면 계림리 죽림마을로 이주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마을 뒷등이 용의 형태를 닮아 흘러 내려와 이 마을은 용의 꼬리에 해당된다하여 마을 이름을 "용산(龍山)"이라 하였다 한다. 마을 사람들의 식수로 사용중인 우물이 마을 앞에 있어 농사철의 농업용수로 쓰이고 있는데 이 우물을 용의 음부라하고 우물물을 용의 오줌이라고 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o 문화유적

·고인돌 : 마을 좌측 인접한 곳에 3기가 있다.

6) 용월리(龍月里)

원래 갈동면(葛洞面)에 속했던 곳이며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이제(里制)실시에 따라 갈동면의 월령(月令), 월봉(月峯), 노장(老壯), 내세(內細), 외세(外細)전역과 방축(方丑), 월악면의 용촌(龍村)과 해보면의 성산(成山) 각 일부를 관할케 되었다.

용촌의 "용(龍)"자와 월봉의 "월(月)"자를 따 "용월(龍月)"이란 이명을 지었다.

(1) 내세(內細)

인 구(명)			가 호 수			성 씨(호)					
계	남	여	계	자가	타가	계	나주정				기타
76	41	37	38	38		38	15				23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오랜 옛날 마씨들이 번창하게 살았다는 전설이 있으며 마을주변에 마(馬)씨들의 묘라하여 마총(馬塚)으로 불리 우는 옛 무덤들이 분포되어 있다.

마씨 다음으로는 정지아(鄭之雅) 후손인 나주정씨 정진(鄭縉)이 1500년대 중엽 양정리 양지마을에서 옮겨와 정착했으며 현재 그의 후손들이 자작일촌하고 있다.

그러나 칡텃밭(葛田)으로 전해오는 곳에 고인돌이 분포된 것으로 보아 선사시대에도 이미 주거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존 성씨 중 나주정씨 다음으로는 함평이씨가 80년전에 입촌했으며 전주리씨와 김해김씨 등 타 성씨는 근래에 들어왔다.

원래는 갈동면 내장동(葛洞面 內藏洞·안장골)이라고 했다는데 후에 "안잔골"로 알고 "내세동(內細洞·1789년 호구총수 지명)"이라 기록한 것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o 유물과 유적

·고인돌군 : ① 칡텃밥으로 불리우는 곳에 4기가 있었으나 농경지 개발로 모두 훼손되었는데 그 중 1기는 2중 덮게돌 형식이었다.

② 오수목장 위에 1기가 있었으나 현재는 없다
③ 차일등 고인돌 : 마을 입구 도로 왼쪽에 2기가 있다.
④ 오수목장 가기 전 오른쪽 밭에 1기가 있다.

·선돌 : 마을 앞 도로변에 1기가 있다.

o 특기사항

·나주정씨삼효여(羅州鄭氏三孝閭) ; 마을 입구의 오른편에 있으며 나주정씨 3효자(정형시. 정수영. 정수현)의 효성을 기리는 정문이다. 효자 정형시(鄭亨蓍)는 1873년에 명정되고 1885년에 사헌부감찰에 증직되었고, 수영(洙英), 수현(洙賢)은 1885년에 명정을 받았다 효자문은 정면 1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이다.

o 전설과 지명

·마장터 : 마을 앞에 대강논(大江沓)이 있는데 전설에 의하면 대강논 자리에 마씨들이 마장(馬場)터로 이용하였다는 전설이 있으며, 칡텃밭에서 나온 칡나무를 해보면 용천사 대웅전 대들보로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

·시묘샘 : 정수영이 부모의 거상(居喪) 6년간을 시묘하였는데 시묘 때 마신 샘을 시묘샘이라고 불러오고 있다. 정수영은 시묘생활 때 토끼와 일거일동을 하였는데 하루는 토끼가 옷을 물고 당겨 따라가 보니 현재 시묘샘 자리를 토끼가 발로 파고 있어 이상하 게생각하고 파보니 물이 솟아 그 물을 마시면서 시묘하게 되어 "시묘샘"이라 하였다 한다.

·사방가경 : 이 마을 동쪽에 석화산(石花山)이 있는데 그 아래에 작소등(鵲巢嶝)과 분토 동(粉土洞)이 있고 남쪽에는 석현제(石峴)가 있는데 그 아래에 함동(函洞)이 있고, 서쪽에는 칡텃밭(葛田)이 있고 북쪽에는 차일등(遮日嶝)과 장등(長嶝, 긴등)이 있는데 이것을 내세의 사방가경(四方佳景)이라 하며 마을 안에 식수샘이 있는데 마을 뒷산이 갈마산(葛馬山)이며 식수샘은 마통(馬筒)으로 말이 목이 말라 음수(飮水)하는 형태라 한다.

o 특산물

완초가 재료인 돗자리를 생산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완초(莞草)도 재배하고 있다.

o 자생조직단체

·촌 계 : 1934년 마을민의 친목을 목적으로 창립. 28호가 참여
·부녀회 : 1972년 마을부녀 친목을 목적으로 창립. 23호가 참여

o 공공건물

·마을회관 : 1976년 건립. 25평

o 배출인물

·정 진(鄭 縉) : 선조 16년(1583년) 무과에 급제하였으며 임진, 정유재란의 충의사로 1598년 11월 노량해전 때 순국하였으며 1801년에 병조참의에 추증됐다.
정진의 아내 옥천설(薛)씨는 죽사동(竹寺洞) 3열부의 한사람으로 정유재란 때 정흥의

아내 광산김씨와 함께 왜적이 월야, 해보로 밀려 들자 첩첩한 산골인 죽사골(나산면 용두리 소재)로 피난을 하였으나 죽사동 깊은 골짜기까지 침입한 왜적에게 붙들리는 몸이 되자 이들은 "살아서 수모를 겪는 것보다 죽는 것이 옳다"며 자결하였다.

·정시연(鄭時衍) : 제 7, 11, 13대 월야면장
·정상연(鄭相衍) : 논산, 흥성, 영동, 해남세무서장 역임
·정래연(鄭來衍) : 신안동장 역임
·정지연(鄭芝衍) ; 은행 감독원 조사국장 역임
·정충흥(鄭忠弘) : 서울지방세무서 징세국장
·정병길(鄭炳吉) : 화순군 이양지서장 역임
·정무경(鄭茂暻) : 전 월야단협장
·정현웅(鄭鉉雄) ; 함평군의회의원 역임
·정현욱(鄭顯旭) ; 2009년 행정고등고시 합격

(2) 외세(外細)

인 구(명)			가 호 수			성 씨(호)					
계	남	여	계	자가	타가	계	나주정	전주리	선산김	진주정	기타
64	35	29	32	32		32	13	2	2	2	13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외 세

오랜 옛날 마씨들이 번창히 살았다는 전설이 있으며, 그 후 입향한 성씨로는 나주정씨로 정응(鄭應)은 임진, 정유재란 충신으로 월야면 양정리 양지에서 태어나 1500년대 말경 옮겨왔으며 이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성씨 중에서는 광산김씨가 190년전에, 언양김씨와 선산김씨가 100년 전에, 기계유씨가 80년 전에 입촌하였고 광산김씨, 경주최씨 진주정씨도 살고 있다.

이 마을 역시 내세마을과의 사이인 칡텃밭에 고인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선사시대부터 마을을 이루고 살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

외세 마을은 산 안쪽에 있는 마을이란 뜻으로 산의 옛말 '받', 즉 '받안골'인데 '밧장골''밧잔골'로 불리어지게 되어 한자로 표기하면서 원뜻과는 달리 밧장골(外藏洞)로 표기하였고 다시 '잔'이 '가늘다' '작다'로 변하여 '세(細)로 바뀌어 "외세(外細, 1789년 호구총수 지명)"가 되었다.

이 마을은 오수산이 중심 안쪽에 자리하고 있다.

o 문화유적

·오산사(鰲山祠) : 고려 고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벽상삼한삼중대광수사도(壁上三韓三重

大匡守司徒)를 지낸 정가신(鄭可臣)과 그의 후손이며 단종 때의 충신 훈(薰), 임진·정
유재란의 충신 응(應), 홍(鴻), 진(縉), 회(繪), 민수(民秀) 등을 배향하는 사우로서 1778년에 건립, 1868년에 훼철, 1929년 복설하였다.

o 노거수

·당산나무(느티나무) : 마을 앞에 수령이 500년쯤으로 추정되는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나무 둘레가 7.6m였으며,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 장교가 이 나무에 총을 쏘았는데 즉사했
다고 하며 1999년 태풍 올가의 피해를 입어 죽어 없앴다.

o 자생조직단체

·촌 계 : 마을 주민들의 친목을 목적으로 창립. 23호 전 가구가 참여
·부녀회 : 1972년 마을부녀 친목을 목적으로 1972년에 창립. 22명이 참여

o 공공건물

·공동작업장 : 1996년 건립, 32평

o 배출인물

·정홍기(鄭洪基) : 전 갈동면장
·정경주(鄭京柱) : 전 기독교 광주방송국 방송부장, 광주직할시의회 의장 역임
·정부진(鄭富珍) : 제 10회 서울 아시안 게임 필드하키 경기에서 금메달 획득
·정경현(鄭炅玄) ; 광주고등법원 판사
·정차범(鄭次範) ; 사법고시 제 31회 합격, 변호사
·정득채(鄭得采) :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8호 광산농악보존회 이사장

(3) 노장(老壯)

인 구(명)			가 호 수			성 씨(호)					
계	남	여	계	자가	타가	계	나주정	이천서	광산김	기계유	기타
52	25	27	26	26		26	7	4	4	2	9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이 마을 역시 마(馬)씨가 살았다고 전해오고 있으며, 그 후 이천서씨가 입촌했는데 이천서씨 보첩에 의하면 서희찬(徐希贊, 1232년생)이 기산(箕山, 현 함평읍)의 동쪽 3십리 오수산(五水山) 아래 노장 마을에 입촌했다는 기록과 고려 고종조때 유무의란(惟茂之亂)을 평정한 공으로 기성군(箕城君)에 봉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

아 입향년대는 1200년대 말경에 입향한 것으로 여겨지며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의 열녀조에 실려 있는 박씨의 남편 서중원(徐仲元)과 또 한 사람 박씨의 남편 서윤중(徐允仲)이 서희찬의 후손으로 조선조 이전에 명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천서씨 다음으로는 현존 성씨 중에서 나주정씨, 광산노씨, 청송심씨, 함평이씨가 차례로 입주해 왔다. 그러나 마을 뒤 찰방등에 고인돌이 분포된 것으로 보아 이미 오래전분터 마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예로부터 나이 많은 장사들이 많이 나온 마을이라 해서 노장(老壯, 노장골)이라 했다 하며 마을이 길다 해서 "길주군"이라는 별칭도 갖고 있다.

o 문화유적

·효열비각(孝烈碑閣) : 마을에서 월라선(月羅線, 지방도 838호선) 도로변에 있으며 이천서씨 서중원(徐仲元)의 아내인 반남박씨와 서윤중(徐允仲)의 아내인 충주박씨의 비각으로 1506년(중종 1년)에 두 부인에게 정려(旌閭)가 명해져 향리에 정문이 세워졌으나 세월이 흘러 퇴폐되고 후손 서응록(徐應祿)이 1879년(고종 16년) 정려각이 세워졌던 현재의 자리에 다시 세웠다.

·영사정(永思亭) :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동지들과 더불어 왜적과 싸우다 순절한 서봉관(徐鳳寬)이 1898년 건립했다.

o 특기사항

300여년 전부터 짜왔다는 왕골돗자리를 전호가 생산했으나 지금은 3호만 참여하고 있다.

o 자생조직단체

·촌　계 : 마을 주민들의 친목을 목적으로 1965년에 창립. 23호가 참여

·부녀회 : 1972년 마을부녀 친목을 목적으로 1972년에 창립. 22명이 참여

·위친계 : 1972년 당고시 서로 돕기 위해 창립. 16호가 참여

o 공공건물

·수창노인정 : 1975년 건립 27평(마을회관을 노인정으로 개조)

o 배출인물

·정도연(鄭道衍) : 경찰 경정

(4) 월봉(月奉)

인　구(명)			가 호 수			성　　씨(호)					
계	남	여	계	자가	타가	계	나주정	이천서	상산김	창녕성	기타
57	28	29	29	29		29	8	3	2	2	14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전언에 의하면 이천서씨(노장 마을 입항조 서희찬 후손)가 맨 먼저 입촌했다 하며 그 후 박

씨가 살았다고 하나 자세한 입향 유래는 알 수 없다. 박씨 이후 광산김씨, 창녕성씨, 한양조씨, 나주정씨, 상산김씨가 차례로 입촌했다

마을 앞에 한새들이라 부르는 넓은 들이 펼쳐 져 있어 농경생활에 적합한 곳으로 옛적부터 사람들이 살았음을 인근 노장마을과의 사이에 고인돌이 분포된 것으로 알 수 있다.

마을의 생김새가 달 같이 생겼다하여 월봉(月峰)이라 불렀으며 1789년 호구총수지명에도 같은 표기이다. 1914년 행정구역개편 때부터 월봉(月奉)으로 표기 하고 있다.

o 문화유적

·월봉고인돌군 : 도지정 기념물 158호 <선사시대 유적과 유물을 볼 것>

o 전설

마을 앞에 있는 잉어등(鯉魚燈)이라고 부르는 조그마한 산에 예전에는 마을 주민 몇 가구가 살고 있었다. 어느날 스님(僧)이 이 마을에 시주하러 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시주는 커녕 스님에게 콩태를 씌우고 행패를 부려 쫓아 버렸다. 후일에 그 스님이 찾아와서 마을 사람들에게 명당자리를 잡아 준다고 속여 잉어눈에 묘를 쓰게 했는데 마을 주민들이 그곳에 묘지를 쓰자 잉어가 죽어버려 마을이 폐촌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으며 지금도 잉어등에 가면 개미가 많이 있다.

o 민속제향

마을 정자 옆에 수령이 3~4백년쯤 됐을 당산나무(소나무)1그루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 마을에 12그루의 당산나무가 있었다 한다. 매년 정월(음력)이면 당산제를 지내고 있다.

o 특산물

왕골돗자리를 생산하는데 전 호가 참여하여 높은 소득을 올렸으나 현재는 생산하지 않고 있다.

o 자생조직단체

·촌　계 : 마을 주민의 친목을 목적으로 1927년에 창립. 26호가 참여
·위친계 : 1967년 당고시 서로 돕기 위해 조직했으며 21호가 참여하고 있다.
·부녀회 : 1972년 부녀자의 친목을 목적으로 창립. 21명 참여

o 공공건물

·마을창고 : 1973년 건립. 50평
·완초작업장 : 1988년 건립. 50평
·마을회관 : 1999년 건립. 17평

o 배출인물

·정병만(鄭炳萬) ; 국가정보원 부이사관 역임

(5) 용두(龍頭)

인 구(명)			가 호 수			성 씨(호)					
계	남	여	계	자가	타가	계	기계유	나주정	광산김	김해김	기타
75	42	33	34	34		34	13	5	2	2	12

용 두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마을 내에 고인돌이 분포되어 있으며 마을 앞에서 청동기 시대의 유물인 돌촉, 돌칼이 발견되었는데 이로 미루어 볼 때 선사시대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존 성씨 중에서 맨 처음 입촌한 성씨는 기계유씨로 유덕주(兪德柱)가 1600년대 말경 나산면 용두리 석현마을에서 옮겨왔다. 그러나 기계유씨가 입촌하기 전에 고성이씨, 천안전씨, 동래정씨가 살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마을 뒷산이 오수산(鰲水山, 魚水山, 五水山)인데 이 산에 용머리같이 생긴 바위가 있어 "용두(龍頭)"라 했다 한다. 오수산맥이 뻗어내려 월야면과 나산면의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산맥이름을 용의 코라 하여 "용두코재이"라고 부른다. 그 산맥 양편 마을을 월야용머리, 나선용머리로 가각 부르고 있으며 1914년 월야면이 신선되기 전에는 갈월(葛月)용머리, 식지(食知) 용머리로 불렀는데 지금의 월야면이 갈월면이었고 나산면이 식지면이었기 때문이다. 옛날부터 어옹산망(漁翁散網)이라는 명당집터를 찾는다고 풍수(風水)들이 발길이 그치치 않던 곳이다.

o 공공건물

·마을회관 : 1976년 건립. 20평

o 문화유적

·용두고인돌군 : 마을의 입구와 가옥 내에 있는데 모두 6기이다. 2기는 축대로 이용되고 개석 위에 건물이 들어서 있으며 2기는 개석이 지면과 접해있다. 그리고 이 가운데 1기는 담장의 초석과 장독대로 이용되고 있으며 1기는 마을입구 농로 밑에 반쯤 묻힌 상태이다. 이 가운데 실측이 가능하며 가장 대형은 길이 7.4m, 폭 4.6m, 두께 1.9m이다.

o 특기사항

·돗자리 ; 이 마을 특산물은 왕골 돗자리(인피석)로 농한기를 이용 전가호가 참여하여 높은 소득을 올렸으나 현재는 3가호만 생산하고 있다.

·어수산(魚水山, 오수산-五水山) : <1권 함평군의 산 항을 볼 것>

o 자생조직단체

·촌 계 : 1965년에 마을 주민의 친목을 목적으로 창립. 34호가 참여

·부녀회 : 1974년 마을 부녀자의 친목을 목적으로 창립. 30명이 참여

o 배출인물

·유 윤(兪 潤) : 중학교장 역임

·모지영(牟志咏) : 제10회 서울 아시안 게임 필드하키 경기에서 금메달 획득.

7) 용정리(龍亭里)

조선대는 대야면에 속했으며 1914년 이제(里制)가 실시되며서 대야면의 용수(龍岫) 전역과 복룡(伏龍), 송정(松亭)의 각 일부, 괴정(槐丁)전역을 합해 용수에서 "용(龍)"자와 송정에서 "정(亭)"자를 따 "용정리"라 하였다.

(1) 송정(松亭)

인 구(명)			가 호 수			성 씨(호)					
계	남	여	계	자가	타가	계	인동장	함평이			기타
33	15	18	16	16		16	8	4			4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함평모씨가 이 마을 서쪽에 있는 괴동(槐洞)에 처음 터를 잡았다 하며 정확한 입향년대는 알 수가 없다. 그 후 입향한 성씨는 인동장씨로 장우각(張宇珏)이 1700년대 중순경 이곳이 만인이 응거할 터라 생각하며 영광군 묘량면 운당리 영당 마을에서 옮겨와 정착한 이래 그의 후손들이 오늘날까지 거주하고 있다.

풍수지리설에 따르면 마을 형국이 학(鶴)이기 때문에 학과 관계되는 소나무를 택해 마을 이름을 "송정(松亭·1789년 호구총수명도 동일함)이라 했다.

마을 이름에 맞게 마을 앞 용정제(1966년 완광) 옆에 200년 이상 됐을 벽송 1그루가 있는데 예전에 인동장씨들에 의해서 수백 그루가 심어졌고 그 나무 위에는 많은 학이 앉았다 한다. 현재 남아있는 소나무는 나뭇가지가 부채살 모양으로 10여가지로 자라나 마을에 위기가 있으면 활짝 펴진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으며 그 나무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삼고 정월 대보름날이면

당산제를 지냈으나 몇 해 전부터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o 문화유적

·선돌(立石) : 마을 앞 논두경에 선돌 1기가 있다.

o 특기사항

함평현읍지(1871년 간행)의 기록에 의하면 1867년에 건립한 옛 대야면의 창고(별환미창-別還米倉)가 있었다 하는데 현존치 않음.

o 자생조직단체

·촌 계 : 150년 전에 마을 주민들의 친목을 목적으로 창립하였는데 용수 마을과 함께 운영해 나가가 있다.

·부녀회 : 1978년 마을 부녀자의 친목을 목적으로 조직. 16명이 참여

o 공공건물

·마을창고 : 1978년 건립. 40평

(2) 용수(龍岫)

인 구(명)			가 호 수			성 씨(호)					
계	남	여	계	자가	타가	계	인동장	함평이			기타
34	16	18	17	17		17	6	6			5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마을 앞에 "팽남제"라 부르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매년 정월 대보름이면 마을 당산제를 지내던 팽나무 1그루가 있었는데. 임진왜란을 포함 세 번의 난리를 겪었다 한다. 이로 미루어 마을 형성 시기를 400년 전으로 보고 있다.

현존 성씨 중 인동장씨가 맨 먼저 입촌했는데 인근 송정 마을에서 1880년대 중순경 장현국(張鉉國)이 이천서씨의 딸을아내로 맞이하여 분가하면서 이 마을에 터를 잡았으며 그 후 함평이씨 이창헌(李昌憲)이 1853년경 장성군 황룡면 아곡기 아치실에서 어머니 행주기씨와 함께 들어왔다.

예전에는 대농소(大農所)라 불렀다는데 1789년 호구총수에 기록되어 있다. 1912년 지방행정구역명칭열람 책자에 용수(龍岫) 마을이 표기된 것으로 보아 용수란 마을명을 사용한지는 오래되지 않는 것 같으며, 마을 뒤 석각골에서 용이 승천했다 해서 용수라 했다 한다.

o 문화유적

·선돌(立石) : 송정 마을과의 사이 들판논두렁에 선돌 1기가 있다.

·인동장씨효열비각 : 마을 어귀에 열부 금성오씨(장현명의 처)와 안동장시 장재원(張在源)의 비로 향도에서 예조에 천보하여 예조완문이 내려왔으며 1899년에 건립했다.

o 자생조직단체

·부녀회 : 1978년 마을 부녀자의 친목을 목적으로 창립. 17명이 참여

o 배출인물

·장현국(張鉉國) ; 1892년 효행학행으로 동몽교관에 천망되었으며 1894년에 호소참판에 제수되었고 70세 이상 수직(壽職)으로 가선대부를 직첩을 받았다.

·장종진(張鐘鎭) : 월야 단위농협장 역임

(3) 복룡(伏龍)

인 구(명)			가 호 수			성 씨(호)					
계	남	여	계	자가	타가	계	창원황	광산김	김해김	밀양박	기타
58	31	27	31	31		31	5	5	4	4	13

복 룡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이 마을 지명 중 냉천동(冷泉洞)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신(辛)씨가 맨 먼저 터를 잡았다하여 그 후 현 위치에 제주양씨 양서용(梁瑞龍)이 1700년대 중순경 광산구 박호동에서 살다가 이 마을로 옮겨와서 400년은 안주(安住)할 것이라 하여 영산신씨의 딸을 아내로 맞아 정착하였다.

마을 지형이 용이 엎드려 있는 형국이라 해서 엎드릴 복(伏)자와 용룡(龍)자를 써서 “복용(伏龍, 1789년 호구총수)”이라 부르고 있다. 마을 앞 장성호 1호 간선 아래에 용의 꼬리라하여 “용호철”이라 부르는 곳이 있으며 용머리는 인근 용수마을 쪽으로 향해 있다고 한다.

o 노거수

마을 앞에 수령이 2백~3백년쯤 됐을 팽나무(당산나무) 1그루가 있다.

o 자생조직단체

·상부계 : 당고시 계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100년 전 창립. 34명이 참여하고 있다.

·부녀회 : 마을 부녀자의 친목을 목적으로 1973년에 창립. 35명이 참여

o 공공건물

·마을창고 : 1973년 건립. 20평　　·마을회관 : 1975년 건립. 20평

o 배출인물

·이강산 : 항일의병장<항일의병 항을 볼 것>　　·장동섭(張東燮) : 제4대 월야면장

·박치일 : 이강산 부대의 의병<항일의병 항을 볼 것>

8) 외치리(外峙里)

조선조에는 월악면 관할이었고 1914년 이제(里制) 시행 때 백야(百野) 전역과 외치(外峙), 복만(福萬), 송계(松溪)와 갈동면 석보(石堡), 나주군 삼가면(三加面), 치암(雉岩)의 각 일부를 묶어 외치 마을 이름을 이명으로 했다.

(1) 백야(百野)

인 구(명)			가 호 수			성 씨(호)					
계	남	여	계	자가	타가	계	진주정	김해김			기타
203	103	100	83	83		83	53	5			25

백 야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500여년 전에 장(張)씨가 들어와 마을을 이루었다고 전한다. 그 후 진주정씨 충장공 황(璜)의 후손 함일(咸一)의 아들 정경득(鄭慶得)이 1500년대 말경에 본　　면 월악리에서 옮겨왔는데 현재 그의 후손들이 자작일촌하고 있으며 군내에서 진주 정씨 집단마을로는 으뜸이다.

원래 마을 형국이 반월체(半月體)라 해서 달이 뜨니 밝다는 뜻에서 흰백(百)자와 밤야(夜)자를 써서 "백야(百夜)"라 했다는데 1789년 호구총수 지명에는 동촌, 남촌, 상촌, 중촌으로 되고 있고 지금도 일부는 그렇게 부르고 있다. 1912년 행정구역 개편 때는 백야(白也)로 표기했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백야(百野)로 썼으며 "온백미"라고 흔히들 부르고 있다.

마을 주위에 있는 외치제(外峙堤)는 "남생이방죽"이라고 하는데 남생이가 많이 살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장작매, 도롱굴이라 부르는 곳이 있는데 그 중 장착매는 장자가 살았다 해서 부르게 된 지명이다.

o 문화유적

·백야사(百野寺) : 마을 안에 소재하고 있는 백야사는 1765년 향내 문하생들이 삼근당 정도성(三近堂 鄭導誠)을 추모하여 영당(影堂)을 건립하고 제향해 오다가 1868년에 훼철되었고 1950년 복설하였으며 현 위치에 1978년에 개축하였다.
배향된 정도성은 1725년 출생하여 평생동안 후진 양성에 온갖 힘을 기울인 성리학자며 후에 수직(壽織)으로 통정대부(通政大父)에 올랐다. 제향시 임시 접빈실로 이용하는 죽림당(竹林堂)은 삼근당의 증조부인 정릉(陵)을 제향하는 재실이며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이다.

·월악사(月岳祠) : 1906년 유림과 문인들이 한학자 이당 정경원(以堂 鄭經源)을 추모하며 건립하였으며 정경원은 면암 최익현 선생의 문인으로 1853년 월악리 내동마을에서 출생하였다.

·사기원(四岐院) ; 백야에서 500여m 떨어진 외치 못미쳐 원골이라 부르는 곳이 있고 주위에 기왓장이 딩군다. 청암동(靑岩道) 11역의 하나인 신광 가리역의 관할로 함평에는 5개의 원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사기원이고 옛기록에 현의 동쪽 40리에 있다고 하여 바로 이곳이 사기원터이다. 이 원은 워낙 인적이 드문 곳이어서 후에 해보면의 귀밀로 옮겼고 귀밀원도 1871년 강행 현 읍지에 금폐(今廢)라고 했으나 상당히 오래 전에 폐원 되었음을 알 수 있다.

o 기타

·만사록(萬死錄) : 정경득 지음. 1597년 9월 동생 희득(希得)과 함께 일본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지낸 일과 시 등을 기록한 것으로 정유재란을 연구하는 생생한 증언이 되고 있다. 만사록은 1986년 번역 간행 되었다.

·월성사(月城寺) : 마을 뒤 월악산하에 1962년 이영산(李靈山)이 창건하였다.

o 자생조직단체

·두레문중계(斗禮門中契) : 1896년 진주정씨 두례문중의 친목을 목적으로 창립. 65호가 참여

·촌 계 : 90년 전 마을 주민의 친목을 목적으로 창립. 104호가 참여

·위친계 : 700년 전 당고시 계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목적을 창립. 40명이 참여하고있다.

o 공공건물

·공동작업장 : 1973년 건립. 50평
·백야독서실 : 1975년 건립. 20평
·마을창고 : 1977년 건립. 50평
·마을회관 : 1977년 건립. 50평
·백야노인정 : 1992년 건립

o 배출인물

·정건주(鄭建周) : 조선조 효종조때 문과에 급제. 성균관 사예 역임

·정봉주(鄭封周) : 조선조 인조조때 무과에 급제
·정　칭(鄭　稱) : 조선조 인조조때 무과에 급제
·정갑남(鄭甲南) : 제6대 월야면장
·정용식(鄭龍植) : 월야단협장 역임
·정병섭(鄭炳燮) ; 나주시장, 전라남도 농산국장 역임
·정을섭(鄭乙燮) ; 조선대 학생과장 역임
·정강환(鄭康煥) : 광주체신청 관리국장 역임
·정양섭(鄭穰燮) ; 특허청 심판원장 역임(제7회 기술고등고시 합격)
·정동진(鄭東鎭) : 대전시 서광병원장
·정운룡(鄭運龍) : 행정고시 합격, 광주교육청 근무
·정익환(鄭益煥) : 육군 군수처 중령
·정영섭(鄭泳燮) : 고흥 금산중학교 교장

(2) 외치(外置)

인　구(명)			가 호 수			성　　씨(호)					
계	남	여	계	자가	타가	계	진주정	밀양박	함평이		기타
130	66	64	55	55		55	32	4	3		16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외 치

이 마을을 처음으로 이룬 성씨는 봉(奉)씨였고 자작일촌을 이루고 살았다고 하나 현재 그의 후손들은 단 1호도 없고, 봉씨 다음으로 오씨가 살았으며, 현존 성씨 중에서는 1600년대 말경 진주정씨 정수증(鄭遂曾)이 본면 월악리에서 옮겨와 정착했다. 그의 후손들이 주종을 이루며 살고 있다.

현존 성씨 중에서는 진주정씨 다음으로 함평이씨가 260년 전에 여양진씨가 50년 전에 입촌했다.

처음에는 마을형국이 꿩 5마리가 앉아있는 것 같다 해서 오치(五雉)라 했었다 하며 1789년 호구총수 지명에 외치(外峙)로 표기돼 있다. 이 마을은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마을로 면내 자연마을 중 유일하게 재(峙)를 넘어야만 가게 되는데 재(峙)밖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외치(外峙)라 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o 문화유적

·고인돌군 : 고인돌이 있는 곳을 '팔바우등'으로 부르는 것을 보면 8기가 있었던 것으로 여기는데 현재는 2기만 남아있다.
·백화정 : 칠봉산 아래에 있는 정자로 화정처사 정휴동(鄭休東)이 1746년에 건립하였으며

이 정자는 한 때 후학을 가르치던 글방으로 쓰였고 우국충정에 불타오르는 선비들의 담론장으로도 쓰였다. 당신 전라도 관찰사가 현란한 화초와 울창한 수목을 상찬하 여 백화정(白花亭)이라는 정자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하며 이 정자는 1943년경에 현재의 한옥으로 개수하였고 주위 경관이 빼어나 휴식의 장소와 명승지로서 구실을 다하고 있다. 정자 아래에 수령이 350년쯤 되었을 팽나무 2그루가 있다.

o 사찰

·백련암(白蓮庵) : 주지 정성수가 1973년에 청룡사(靑龍寺)라 하여 창건하였고 1999년 주지 자혜사(慈慧寺)로 2009년에 백련암으로 사찰명을 바꿈.

o 배출인물

·정태선(鄭泰善) : 제 17대 월야면장
·정창선(鄭昌先) : 공군 대령 예편
·정광선(鄭光善) : 내무부 사회지도과장 역임
·정기정(鄭基正) ; 제 21대 월야면장
·정휴진(鄭休鎭) : 제 22대 월야면장, 전남보건환경연구원 관리과장
·정현철(鄭鉉喆) : 함평군의회 의장 역임, 현 함평군의회의원
·정인오(鄭仁午) : 전문의사
·정승현(鄭承鉉) : 행정•사법고시 양과합격, 국토해양부 행정사무관
·정연희(鄭筵熹) : 사법고시 합격, 법률사무소근무 변호사

9) 월계리(月溪里)

조선조때는 대야면 관할이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이제(里制)가 시행되면서 대야면의 월계(月溪), 덕산(德山), 석계(石溪), 용강(龍江) 전역을 합해 월계마을의 이름을 이명(里名)으로 하였다.

(1) 석계(石溪)

인 구(명)			가 호 수			성 씨(호)					
계	남	여	계	자가	타가	계	광산김	인동장	죽산안	무안박	기타
86	46	40	44	44		44	14	9	4	2	15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이 마을 구릉상에 선산시대의 유적인 고인돌이 분포된 것을 볼 때 오래 전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존 성씨 중에서 맨 먼저 입촌한 성씨는 광산김씨 양간공파로 시조의 28세손인 응삼(應三)형제가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에서 살다가 1730년경 이거 정착했으

며, 광산김씨 다음으로 무안박씨가 정착했는데 1780년경 중소(重素) 5형제가 무안군 청계면에서 이거해 왔다.

무안박씨 보다 먼저 입촌한 광산김씨 문정공파가 있는데 정확한 입촌연대를 알지 못하며, 무안박씨 다음으로 함평이씨가 160년전에 들어왔다. 인동장씨는 인근 덕산에 살던 참찬공파의 후손들이 들어와 살고 있다.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이 마을은 배(舟)형국으로 마을 뒷산에 "큰뱃재", "작은뱃재"라 부르는 고개가 있으며 이 마을은 배의 밑 부분에 해당되므로 "배밑"이라고 불러 왔으며 대야면의 관할구역 때에는 석계리(石溪里·1789년 호구총수 지명)라 했다.

이 마을은 고인돌 등 돌이 많이 있으며 지금 마을 상수도 물로 쓰이고 있는 박시암(밖샘)이라는 샘이 돌로 되어 있고 돌사이에서 시원하고 맑은 물이 나와 흘러 내려간다 해서 석계(石溪)라 불렀다 한다. 마을 안에 쇠점고랑이라 부르는 골짜기가 있는데 그곳에 쇠점이 있었다고 하며 김씨가 살았다 해서 김정동(金定洞)이라고도 한다.

o 문화유적

·석계고인돌군 : 마을 구릉산에 12기가 분포되어 있으며 개석의 생긴 모형에 따라 동량치바위, 유선바위, 말바위, 도끼바위, 거북바위 등으로 지칭되고 있다.

·자형정(紫荊亭) : 가선대부 이조참판 광산김씨 김상순(金相純)과 김상린(金相隣)의 서식소(棲息所)로 1903년에 건립됐다.

·선돌 : 마을입구 중심 도로변에 선돌1기가 세워져 있다.

o 사찰

·보림정사(菩林精舍) : 1995년 주지 보정(普正, 장웅-張雄)이 창건했다.

o 자생조직단체

·석계대종계 : 1898년에 마을 사람들의 친목을 목적으로 창립. 39호가 참여

·부녀회 : 1976년 마을 부녀의 친목을 목적으로 창립. 37명이 참여

o 공공건물

·동각 : ① 1958년 건립. 12평
② 1994년 건립. 12평

·마을창고 : 1978년 건립. 20평

o 배출인물

·장원식(張源植) : 조선시대 고종조때 사마시에 입격

·김영오(金永午) : 한국투자신탁 부장 ·김성수(金性洙) :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인수(金寅洙) : 행정고시 합격
·장학기(張學基) : 광주광역시청 문화산업과장
·이호재(李虎宰) : 육군 중령
·이임재(李林才) : 경감

(2) 용강(龍江)

인 구(명)			가 호 수			성 씨(호)					
계	남	여	계	자가	타가	계	대구배	정송심	전주리		기타
30	16	14	18	18		18	7	2	2		7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용 강

이 마을은 파평윤씨가 처음 터를 잡았다 하며 이어 여양진씨가 현재의 마을 위치보다 100여m 위쪽에다 300년 전에 터를 잡고 살았다고 전해오고 있으며 그곳을 못갓골이라 부르는데 쉬나무정자가 있었다 한다.

그 후 입향한 성씨로는 대구배씨로 1800년대 중순경 신광면 보여리에서 배환채가 옮겨 온 이래 그의 후손들이 주종을 이루며 살고 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고려 말경 표현대사가 마을 뒷산(가재봉) 중턱 등잔골이라는 곳에 절을 창건하면서 주변 일대를 살펴보고 이 지역은 후세에 강이됨과 동시에 용이 승천할 것이라 하여 마을 명칭을 "용강(龍江·1789년 호구총수 지명에는 없음. 1912년 지명)"이라고 지어 주었다고 전해오고 있다. 그래서 용은 물이 없으면 살수 없는데 마을 앞에 용강제가 1940년에 설치되었으며 영산강 유역 개발 때 장성호 1호 간선이 생겨 물이 많이 흐르고 있어 명실상부하게 용강이라는 마을 명칭이 합당하게 되었다.

o 자생조직단체

·위친계 : 마을 사람들의 친목을 목적으로 1964년에 창립. 17호가 참여

o 공공건물

·마을창고 : 1974년 건립. 20평
·동 각 : 1993년 건립

o 배출인물

·김판열(金判烈) : 육군 중령

(3) 덕산(德山)

인 구(명)			가 호 수			성 씨(호)					
계	남	여	계	자가	타가	계	인동장	광산김	풍양조	남원양	기타
77	33	34	38	38		38	13	11	3	2	9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인근 만가촌 신덕, 석계에 고분군이 있는 것을 보면 이 마을도 참으로 오래 전에 사람들이 살았음을 알 수 있다.

현존 성씨 중에서 맨 먼저 입촌한 성씨는 인동장씨로 1700년대 초경 만걸(萬傑)이 영광군 묘량면에서 처가(광산김씨 석계마을 입향조 익삼-益三)와 가까운 이곳으로 들어왔으며, 다음으로는 광산김씨로 석계마을에서 유가 1700년대 중순경 이거했다. 이어서 풍양조씨 용진(龍鎭)이 1780년경 전북 무장에서 이거했으며, 남원양씨, 함평이씨, 청송심씨, 의령남씨 등이 살고 있다.

원래 이 마을은 서당(書堂)이 많이 있는 곳이라 해서 "서당골"이라 했으며 월야면이 신설되기 전에는 대야면 덕산리였다. "덕산(德山·1789년 호구총수 지명)"이라 부르게 된 연유에 대해서는 전래되어 오는 이야기가 없어 알 수 없다.

o 특기사항

·영사재(永思齋) : 1914년 4월 8일 선치시장(文場)에서 일제에 항거하여 독립만세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사전모의를 하고 태극기 1천개와 격문을 만들었던 장소인 영사재 (인동장씨 제실)가 이 마을에 있었다. 당시 영사제를 본거지로 하여 한학을 가르치고 있던 김기택(金箕澤), 장효섭(張孝燮), 정재남(鄭在南), 정용섭(鄭龍燮) 등이 주도하였으며 주모자들이 모두 검속되었는데 그 중에서 이윤상, 정재남, 장효섭, 정용섭은 광주 지방법원 목포지청으로 이송되었으며 이 가운데 정재남, 김기택은 대구형무소로 이감되어 혹독한 옥고를 치렀다.

o 전설

마을 앞에 수령이 4백~5백년쯤 됐을 귀목나무 5그루와 상수리나무 2그루. 팽나무 1그루가 있는데 이 나무들은 마을의 당산나무다. 전설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이 마을에 집을 짓고 첫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 백의노인이 나타나서 "앞마당에 당산나무를 심어주면 재앙이 날 때는 미리 '웅'하고 울어줄 터이니 미리 재앙을 막도록 하라" 했다고 전해오고 있으며 마을의 질병과 재앙을 막아주는 신성한 나무로 여기고 있다.

o 문화유적

·선돌 : 마을 앞에 1기가 있다.

o 배출인물

·장효섭(張孝燮) : 제1대 월야면장　　·장은기(張銀基) : 제10대 월야면장

·조남석(趙南錫) : 육군 중령

(4) 월계(月溪)

인 구(명)			가 호 수			성 씨(호)					
계	남	여	계	자가	타가	계	광산김	파평윤	죽산안		기타
39	18	21	17	17		17	3	1	1		12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이 마을이 언제 형성되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현존 성씨 중에서는 1700년대 말경 광산김씨 규찬(圭燦)이 대동면 강운리에서 옮겨와 정착했는데 현재는 그의 후손이 1가호만 살고 있다. 같은 광산김씨인 보현이 1974년 광산구 본양면 양산리에서 이거하였고 기타 성씨는 1998년 이후에 입촌했다.

이 마을 북쪽에 칠봉산이 있는데 그 산하에 이왕골이란 지명이 있고 조선조때 이곳에 절이 있었다하며 월계제(1940년 설치)의 윗산에도 옛 절터가 있는데 언제 창건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며 약 80여년 전만해도 3층 석탑이 있었다 한다. 지금도 그곳을 탑이 있는 있는 절이 있었다 해서 탑선이(탑순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절이 있었을 당시에 절과 가까운 이 마을에 사람들이 살았지 않았을까 여겨진다.

예전에는 마을의 지형이 소가 꼬리를 돌아보고 있는 형국이라 해서 “우고미(牛顧尾)”라 했으며 또한 마을에 동백나무가 많이 있어 “동백정(冬柏亭)”이라고도 불렀는데 지금도 수 백년 된 동백나무가 여러 그루가 있다. 대야면 관할구역 때에는 월계(月溪·1912년 지명)라 했는데 1911년 대야면 2기 “호세장부”를 보면 7호가 거주한 기록이 있다.

10) 월악리(月岳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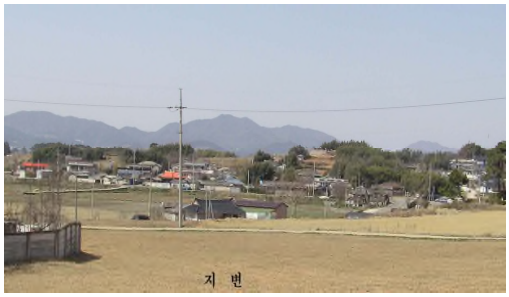
조선조 때는 월악면에 속했고 함평노씨가 최초 정착했던 곳이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처음으로 이제(里制)를 실시하면서 월악면 내동(內洞), 연동(蓮洞), 봉덕(鳳德), 노동(鷺洞), 대야면 죽산(竹山)마을 전역과 신기(新基), 월악면 지변(池邊), 갈동면 동산(東山) 영광군 삼남면 죽산(竹山) 각 일부를 묶어 월악리하 했으며

월악리란 이름은 월악면의 소재지였음을 상기하기 위해 붙여

진 이름이며 월악면이라는 지명은 월악산에서 유래한다.

(1) 지변(池邊)

인 구(명)			가 호 수			성 씨(호)					
계	남	여	계	자가	타가	계	동래정	진주정			기타
63	31	32	30	30		30	20	4			6


지 변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동래정씨 정운길(鄭雲吉, 의금부도사)은 임진왜란때 상주에 살면서 정기룡(鄭起龍) 장군과 합세하여 상주성을 지키기 위해 지략을 다했는데 1595년경 외가에 있는 내동 마을에 와 살다가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마을의 우치(현 장성군 삼서면 우치리)에 왜적이 침입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인근 청장년들을 모아 진군하여 싸우다 아들 돈(燉)과 함께 전사하였다. 손자 재흥(在興)은 왜적에게 붙들려 일본으로 끌려갔다가 7년만인 1604년에 귀국하여 현 지변마을에 터를 잡았으며 동래정씨 세거지로서 자작일촌하고 있다.

예전에 마을 앞에는 깊고 넓은 남생이 연못이 있었고 연못 주변에는 정자나무가 자라고 있어 마을을 형성하는데 적격인 이곳에 터를 잡게 되었다고 하며 연못가에 있는 마을이라해서 마을 이름을 “지변(池邊. 못갓)”이라 했다 한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엄청난 화를 막기 위하여 월악산이 스스로 무너져 연못은 매몰되었고 정자나무도 연못과 함께 매몰되었다가 1그루(느티나무)가 존속되어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연못이 매몰되면서 마을에 화가 없었던 마을이라 명촌으로 전해오고 있으며 연못이 매몰된 주변들을 “강변들”이라 부르고 있다.

o 문화유적

·팔열부정각(八烈婦旌閣) : 마을 앞에 있는 8열녀의 정문, 정유재란 때 뱃길로 피난을 가다가 영광 칠산바다에서 왜적을 만나 순절한 동래 정운길(鄭雲吉)의 아내 함양오씨. 진주 정주일(鄭主一)의 아내 함평이씨, 주일의 아들 절(嶄)의 아내 영광김씨, 호인(好仁)의 아내 함평이시의 3고부와 정함일(鄭咸一)의 아내 함평이씨, 함일의 아들 경득의 아내 순천박씨, 희득(希得)의 아내 함평이씨의 3고부 및 함일의 딸 처녀 정씨 모두 8열녀를 배향하는 곳으로 숙종 7년(1681년)상소에 의하여 국포명정(國褒命旌)되고 1681년, 현재 보존된 정열각이 세워졌다. 1974년 5월22일 지방 기념물 제 8호로 지정됐다.

o 특기사항

·월악면사무소 : 1914년 월야면이 신설되기 전 월악면의 소재지로 월악면사무소가 이 마을에 있었으며, 1871년에 간행된 함평읍 읍지를 보면 1867년에 건립한 별환미창(別還米倉)

이라는 옛 월악면 창고가 있었다 하나 현존하지 않는다.

·인목제(忍睦齊) : 1680년에 인목제라는 서당을 진사벼슬을 한 동래정씨 정여우(鄭汝佑)가 마을 앞 서당촌이라 불리우는 곳에 설립하였으며 민족문화 창달과 많은 인재를 배출했다. 승지벼슬을 한 정동후(鄭東後)의 어사화와 장령공(掌令公), 정화석(鄭華錫)의 어사화 등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40여 년 전 화재로 건물과 함께 불타버리고 1970년 지변마을에 동래정씨 후손들이 중건했다.

o 자생조직단체

·진흥회 : 1920년 마을 진흥과 친목을 목적으로 창립. 27호가 참여

·부녀회 : 1980년 마을 부녀자의 친목을 목적으로 창립. 25명이 참여

o 공공건물

·마을창고 : 1977년 건립. 50평 ·팔각정 : 1999년 건립. 6.5평

o 배출인물

·정여우(鄭汝佑) : 조선시대 효종조때 사마시에 합격

·정여숙(鄭汝俶) : 병자호란 때 정색, 정적과 함께 창의

·정동엽(鄭東曄, 1642~1693) : 경사와 예학에 밝았으며 부모상을 당하여 6년간 시묘하니 사람들이 그곳을 “시묘골(백야마을 뒤)”이라 일컬었다.

·정동후(鄭東後, 松崖公) ; 조선시대 효종조때 문과에 장원 급제하였으며 사헌부 장령, 제주목사 등을 거쳐 동부승지(同副承旨)를 행직하였다.

·정수모(鄭壽謨) : 제9대 월야면장

·정진우(鄭鎭雨) : 제11대 월야면장

·정진명(鄭鎭溟) : 전대 대학원장 역임

·정재수(鄭在洙) : 무안중학교장 역임

·정진감(鄭鎭坎) : 해남중학교장 역임

·정진희(鄭鎭喜) : 광주 그랜드 호텔 대표이사

·정진숙(鄭鎭淑) : 광주 그랜드 호텔 이사

·정화영(鄭花泳) : 와이즈맨 클럽 남부지점 총재 역임

·정진형(鄭鎭炯) : 기술고시 합격, 농업진흥공사 근무

·정근호(鄭根浩) : 이학박사, 전남대학교 사법대학장 역임

·정상우(鄭相愚) : 의학박사

·정창영(鄭昌泳) : 의학박사, 전남대학병원 마취과장, 광주보훈병원장

·정우남(鄭禹南) : 공학박사, 전난대학교 공과대학장

·정남수(鄭南洙) : 광주지방법원 판사, 변호사 역임.

·정태환(鄭台煥) : 월야농협장 역임

·정상영(鄭相泳) : 전남대학병원 내과과장, 소아혈관외과 과장

·정근욱(鄭根旭) : 월야면장, 함평군청 총무과장, 나산면장 역임

(2) 내동(內洞)

인 구(명)			가 호 수			성 씨(호)					
계	남	여	계	자가	타가	계	진주정				기타
43	21	22	20	20		20	15				5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내_동

이 마을은 고려 때 충의사인 함평노씨 신(愼 咸豊君)이 고려의 멸망을 한탄하며 은거하던 곳으로 매월 초하룻날이면 산에 올라가 멀리 북쪽의 송도를 바라보며 곡배하고 돌아오니 마을 사람들이 이 산을 월망악(月望岳)또는 월악(月岳(현재의 지명)이라 불렀다 한다. 함평노씨 다음으로는 진주정씨 충장공 황파(忠莊公 璜派)가 군내에서 첫 입향한 곳으로 황의 아들 함도(咸道)가 함평노씨 신(愼)의 아들인 유안(有顔)의 사위가 되어 내동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정함도는 1353년(고려 공민왕 2년) 송도(현 개성)에서 태어나 1421년(세종 3년) 월악리 내동에서 타계했는데 그가 1400년에 함종현령을 역임했으며 관직을 그만두고 내동에 입촌한 것은 1405년 경이 된다.

다래기 12동네 중앙에 있어 "안동네(내동·內洞)로 부르게 되었다. 내동, 지변, 순촌, 송계, 괴정, 연당, 죽산, 봉덕, 전하, 금석, 백야, 외치를 다래기 12동네라 부르며 이 지역은 옛 월악면 관할귀역으로 월악(月岳)을 달 월(月)자의 색음을 따서 "달악(다래기)"이라 불렀다.

o 문화유적

·월악고분 : 몰무덤으로 불리우는 원형고분 2기가 있다.

·성성사지(聖城寺址) ; 월악산 상봉에 신라때 창건하여 폐사된 성성사 절터가 있다.

·월악산성(月岳山城) : 백제 때 쌓은 토성으로 옛 「함평현읍지」에는 길이 600m 높이 3.6m였다는 기록이 있다. 폐성된 시기는 고려조인 듯 하며 현재는 거의 훼손되었으며 폭포의 잔적인 유수가 성안에 있다.

·사인정(四印亭) : 진주정씨의 입향 선조 4부자(四父子)의 사인(四印)을 기념한 사인정이 후손들에 의해 1936년 월악산하에 증건되었다.

※ 4부자 : 아버지 정함도(鄭咸道)는 함종현령, 장자 유(維)는 고산현감, 차자 면(綿)은 횡성현감, 삼자 주(紬)는 무안현감을 지냈다.

·사인정(舍人亭) : 의정부 사인(舍人)을 지낸 노득평(魯得平)의 서식지소(棲息之所)가 이 마을에 있었으나 현존치 않다.

o 특기사항

·월악산 : 높이 164m로 태청산 혈맥이 꿈틀거리면서 내려와 이룬 산이다. 이 산은 함평군과 장성군, 광산군과의 경계를 이루는데 이 산의 정기를 받아 월악리에 인재가 많이 난다

는 이야기도 전한다. 밋밋한 자세가 안정된 인품을 심어주는 산이라 하겠다.

월악산 상봉에 있는 바위에는 장군이 오줌을 쌀 때 선 자리와 오줌이 흘러내린 형태가 있다 하여 '장군바위'라 부르는 바위가 있으며, 바위의 구멍에서 옛 성성사(聖城寺) 승려들이 먹을 만큼의 쌀이 나왔는데 욕심 많은 한 승려가 한꺼번에 많은 식량을 얻기 위해 더 크게 구멍을 뚫은 후부터 쌀이 한톨도 나오지 않아 절이 망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으며 쌀이 나온 바위라 해서 "쌀바위"라 부르는 바위가 있다

o 자생조직단체

·위친계 : 50년 전 당고시 계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창립. 20명이 참여
·부녀회 : 1980년 마을 부녀자의 친목을 목적으로 창립. 15명이 참여

o 공공건물

·월악노인정 : 1975년 건립. 15평(당초 창고를 개조함)

o 배출인물

·정함도(鄭咸道) ; 함종현령. 그의 아들 유(유). 면(면), 주(주)는 현감을 지냄
·노득평(魯得平) : 조선 태종조 때 문과에 급제. 의정부 사인(의정부 사인)
·정윤석(鄭崙石) : 조선 세종조 때 시흥도 찰방 벼슬을 하였다.
·정 억(鄭 億) : 조선 중종조 때 수운판관(수운판관) 원종공신(원종공신)
·정 절(鄭 崱) : 임진왜란 때 장성 남문 창의에 공을 세웠음
·정호인(鄭好仁) : 정유피란기 저자
·정호례(鄭好禮) : 양성현감 역임하고 병자호란대 창의하는 충성을 보였다.
·정 성(鄭 晟) : 숙종 때 문과에 급제
·정 수(鄭 遂) : 정조 때 문과에 급제
·정충섭(鄭忠燮) : 광주서광초등학교장, 월야초등학교장 역임
·정재석(鄭在淅) : 전라남도교육위원회 중등교육과 인사담당 장학관 역임
·정지병(鄭地炳) : 육군 중령 예편
·정한기(鄭漢基) : 국세청 감사관실 세무감사관 역임
·정한식(鄭漢植) : 월야농업협동조합장 역임
·정한철(鄭漢澈) : 변호사
·정한갑(鄭漢甲) : 광주광역시 건설교통국 기술담당 사무관

(3) 성주(城州)

인 구(명)			가 호 수			성 씨(호)					
계	남	여	계	자가	타가	계	진주정	광산김	밀양손	제주양	기타
21	10	11	10	10		10	7	1	1	1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진주정씨 정의원(鄭義源)이 1800년대 중순경 인근 내동 마을에서 옮겨와 처음 터를 잡았다.

원래 이 마을은 대동마을에 속해 있었으나 1980년에 분리되면서부터 마을 이름을 "성주(城州)"라 부르게 됐는데 성주라 한 것은 마을 동쪽 500여m 쯤에 월악산이 있고 그 산에 월악산성이 있어 성(城)자와 이 마을에서 진주정씨가 많이 살고 있어 주(州)자를 따서 성주라 했다. "밭다래기"라고도 부르는데 다래기인 내동, 지변 마을 밖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o 자생조직단체

·성주진흥회 : 1980년 마을 주민의 친목을 도모하고 마을 진흥을 목적으로 창립. 18호가 참여

o 공공건물

·월악노인정 : 1975년 건립. 15평(당초 창고를 개조함)

·부녀회 : 1980년 마을 부녀자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창립. 18명이 참여

o 배출인물

·정윤철(鄭允哲) : 제1대 함평군의원 역임

(4) 봉덕(鳳德)

인 구(명)			가 호 수			성 씨(호)					
계	남	여	계	자가	타가	계	진주정	청송심			기타
50	27	23	23	253		23	14	2			7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300여년 전 평산신씨가 마을을 이루었다고 전해오고 있으며 그 후 진주정씨 황의 후손 정종길(鄭鍾吉) 삼형제가 160년 전 장성군 삼서면 금산리에서 옮겨와 그의 후손들이 주종을 이루고 살고 있다. 이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성씨중에서는 진주정씨 다음으로 남평문씨가 60전에 입촌했으며 그 후 청송심씨, 광산김씨, 남평문씨, 영동김씨 등이 들어와 살고 있다. 마을지형이 봉황새처럼 생겼다 해서 마을 이름을 "봉덕(鳳德, 1789년 호구총수 지명)"이라 했으며 마을 뒤 부봉산 중턱에 1906년부터 50여년 동안 성암 정병휴(鄭炳休)가 학장을 한 봉산재(鳳山

齋)가 있는데 지금도 흔히들 봉덕서당이라고 부른다.

o 문화유적

·고인돌 : 봉산재 앞에 3기가 있고 일명 “미영시바우”라 부른다.

o 자생조직단체

·상부계 : 1964년 초상시 서로 돕기 위해 조직됐으며 20호가 참여

o 배출인물

·정동운(鄭東雲) : 1961년 전라남도의원 당선
·정재훈(鄭在勳) : 광주 동아병원장
·정계석(鄭桂錫) : 제10회 서울 아이안 게임 필드하키 경기에서 금메달 획득

(5) 노동(鷺洞)

인 구(명)			가 호 수			성 씨(호)					
계	남	여	계	자가	타가	계	김해김	평산신	도강김		기타
54	30	24	23	23		23	11	4	3		5

노 동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1600년대 말경 김해김씨 김처기(金處基)가 함평군 손불면 대전리에서 살다가 열세살 때 부모를 여의고 방황하던 끝에 이 마을에 터를 잡았는데 천년은 안주할 곳이라 생각하고 열 다섯 살 때 전주리씨의 딸과 결혼하여 삶의 보금자리를 이루고 살았으며 현재 그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

예전에는 신성(新城)이라 불리어 오다가 지금으로부터 200여년 전 어떤 지관(地官)이 이 마을의 지형이 백로(白鷺, 해오라기)형국이라 하여 “노동(鷺洞, 1914년 행정구역 지명)”이라 했으며 마을 이름에 걸맞게 백로가 마을 앞에 둥우리를 치고 많이 살았다 한다.

o 문화유적

·선돌 : 이 마을과 마주보고 있는 장성군 삼서면 죽산마을 사이 도로변과 농로변에 각각 2기가 있다.

o 자생조직단체

·상부계 : 150년전에 당고시 계원 상호간의 부조를 목적으로 창립. 25명이 참여
·부녀회 : 1972년에 마을 부녀의 친목을 목적으로 창립. 25명이 참여

o 배출인물

·신재철(申載喆) : 제14대 월야면장 역임
·김재병(金在炳) ; 제20대 월야면장 역임
·신일호(申一鎬) : 육군 대령
·이언우(李彦雨) :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방재기획팀장

(6) 연당(蓮塘)

인 구(명)			가 호 수			성 씨(호)					
계	남	여	계	자가	타가	계	진주정	김해김	인동장	해평길	기타
86	44	42	31	28	3	31	28	1	1	1	

연 당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이 마을 첫 입향조는 진주정씨 정태일로 그의 아버지 정종순이 영광군 대마면 군동에 살면서 아들 5형제를 낳았다. 그 중 막내가 월악리 내동마을로 옮겨왔다가 다시 이 마을로 이거하여 광산김씨의 딸을 맞아 정착했는데 그 때가 1500년대 중순경이다. 현재 이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성씨 중에서는 김해김씨 1호가 1910년에 입촌했으며 해평길씨와 인동장씨가 1호씩 살고 있는데 근래에 들어왔다.

이 마을은 오목한 소쿠리 형이며 마을 앞에 연못이 있는데 그곳에서 연꽃이 피어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해서 연꽃 연(蓮)자와 못 당(塘)자를 써서 마을 이름을 “연당(연당, 1789년호구총 지명)”이라 했다.

o 자생조직단체

·상부계 : 당고시 계원 상호간의 부조를 목적으로 1961년에 창립. 31호가 참여
·부녀회 : 1972년에 마을 부녀의 친목을 목적으로 창립. 31명이 참여

o 공공건물

·연당노인당 : 1974년 건립. 20평(당초 창고를 개조함)

(7) 죽산(竹山)

인 구(명)			가 호 수			성 씨(호)					
계	남	여	계	자가	타가	계	진주정				기 타
42	22	20	19	19		19	17				2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죽 산

진주정씨 충장공 황(璜)의 후손인 정성(鄭晟)은 월악리 내동마을에서 출생하여 조선시대 선조조대 문과에 급제하였고 시강원 설서(侍講院 設書)로서 세자(世子)를 강의 하였는데 인조조때 하향하여 고향인 내동 마을에서 거주하다가 1600년대 초경 이 마을로 옮겨왔으며 그의 후손들이 자작일촌하고 있다. 마을 앞 고인돌군이 있는 곳을 돌뫼, 그 옆들을 청계동(淸溪洞)이라 부르고 있는데 이곳에 마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오고 있으며 지금도 논을 갈 때 깨진 기와조각이 발견되고 있다. 이곳은 1985년에 경지정리가 됐으며 솔대를 꽂는 돌이 발견되었다. 아마도 이곳 일대는 고인돌이 분포된 것으로 보아 선사시대에 주거지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대나무가 많은 마을이라 해서 "죽산(竹山)"이라 했으며 "대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월악리 죽산마을을 함평 대매라 하며 인근 삼서면 금산리 죽산 마을을 장성 대매라 부르고 있다.

o 문화유적

·돌뫼고인돌군 : 마을 앞 석산(石山·돌뫼)에 6기가 있으며 규모가 큰 것은 말바우, 시렁바우, 개바우 등으로 지칭되고 있다.

·돌뫼고분 : 돌뫼고인돌군에서 북서쪽 약 20여m 지점에 고분 1기가 있다.

·선돌 : 마을 앞 도로 및 농로변에 3기가 있는데 마을의 재앙을 막아주는 신성한 돌로 전해온다.

o 자생조직단체

·부녀회(개미회) : 마을 부녀의 친목을 목적으로 1983년에 조직하였으며 마을 부녀자 전원이 참여

o 공공건물

·노인정 : 1974년 건립. 20평(당초 창고를 개조함)

o 배출인물

·정규선(鄭圭善) : 농산물 검사소장 역임

·정 란(鄭 鑾) : 단국대 교수

·정재열(鄭載烈) : 제26회 행정고시 합격
·정주현(鄭軸鉉) : 조선대학 교수
·정연호(鄭衍昊) : MBC 문화방송국 사업부 국장 역임

11) 월야리(月也里)

월야면 면소재지를 이루는 이(里)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이제(里制)를 시행하면서 월악면의 평촌(平村), 신흥(新興), 금석(金石),순촌(蓴村)과 괴정(槐亭) 전역과 송계(松溪). 지변(池邊) 그리고 대야면의 신기(新基). 갈동면의 방축(方丑), 동산(東山) 각 일부를 합해 월야면의 소재지로 묶어 이명(里名)도 월야리(月也里)라 했다.

(1) 전하(田荷)

인 구(명)			가 호 수			성 씨(호)						
계	남	여	계	자가	타가	계	진주정	나주정	전주리	김해김	광산김	기타
626	316	310	268	268		268	49	13	12	12	11	171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언제 마을이 형성되었는지는 문헌이나 전하는 바가 없어 알 수 가 없다. 다만 이 마을 좌측에 "광대모실"이라는 지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았을 것으로 믿어지며 이곳에 "장터시암"이라 부른 둠벙이 있는바 장(場)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존 성씨들의 입향년대는 진주정씨, 광산김씨가 맨 먼저 입촌했고 이어 함평이씨, 풍산홍씨, 전주리씨, 동래정씨, 하남정씨가 1800년대 말경부터 일제강점기에 걸쳐 입촌해왔다. 1789년 호구총수지명에 나타나지 않아 오래된 마을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1922년에 마을 앞으로 광주~법성간의 도로(국도22호선)가 트이고 6·25 한국전쟁 후 면소재지가 평촌 마을에서 이 마을로 옮겨옴으로 해서 20여호의 조그만한 마을이 260호가 넘는 마을로 번창하게 되었다.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연잎에 이루어진 마을로 연잎 둥글둥글할 "전(田)"자와 연 "하(荷)"자를 써서 전하뫼(田荷山, 1891년에 발부한 진주정씨 종철-鍾喆-의 준호구 지명)라 부르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마을 뒤 진주정씨 경득(慶得)의 묘소가 연꽃이 거꾸로 있는 연하도수혈(蓮荷倒水穴) 명당이라고 전해오는 것을 볼때 마을 이름이 연꽃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뜻과는 달리 "田下"(1912년 지명)로 표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월야 입구(入口)란 지명은 면사무소가 평촌마을에 있을 때 면소재지로 가는 길목이어서 부르게 된 지명이다.

o 문화유적

·월야 5일 시장 : 월야장(5, 10)은 독굴이라 부르는 곳에 1950년대 초에 개장되었으나 몇 년 안돼서 폐쇠되었으며 현재는 월야 입구에 있는데 1981년에 개장했다. 이곳에서 왕골로 만든 돗자리가 외지로 팔려가고 있어 돗자리시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 데 현재는 거래되지 않고 있다.

·구밀교(求密橋) : <1권 1편 자연환경 중 다리 항을 볼 것>

o 공공건물

·면사무소 : 현재의 면사무소는 월야리 205-67번지에 위치하며 목재로 지은 건물(1951년 건립)이 부실하여 현 건물을 1982년 7월 8일에 착공하여 그 해 10월 14일에 준공하였다.

·청학노인정 : 1982년 건립. 50평. 월야농협 구 건물을 개조함

·월야파출소 : 1993년 건립. 45.4평

·월야소방차고 : 1994년 건립. 26.2평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 : 1997년 건립. 지상2층, 지하1층. 총 207평

·보건지소 : 199년 건립. 지상 2층. 건평 104평

·월야복지회관 : 1999년 건립. 지상 2층. 66평

o 교회

월야교회(1947년 세움), 월야서교회(1984년 세움)가 있다.

o 자생조직단체

·상조회(相助會) ; 1980년 당고시 계원 상호간의 협력을 목적으로 창립. 160여명 참여

·명륜계(明倫契) : 근린상조와 미속 향상을 목적으로 1946. 9. 10 조직 38명이 참여

o 공공건물

·전하복지회관 : 1979년 건립. 59평

o 배출인물

·정달수(鄭達洙) : 제4대 월야면장

·정경렬(鄭敬烈) : 새마을 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1981년 근면장을 수상

·정태석(鄭泰錫) : 제21회 행정고시 합격, 광주은행장 역임

·김환기(金煥基) : 1996년 자랑스런 신학국인상 수상

·정용기(鄭龍基) : 법성고등학교 교장

·정승도(鄭承燾) : 행정안전부 근무 서기관
·정득수(鄭得洙) : 순천우체국장

(2) 순촌(蓴村)

인 구(명)			가 호 수			성 씨(호)					
계	남	여	계	자가	타가	계	진주정	전주리	김해김	함평이	기타
82	42	40	37	37		37	12	13	2	2	8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순 촌

원래 이 마을은 함평 노(魯)씨가 이루었는데 진주정씨 황(璜)의 아들 함도(함평 입향조)가 노씨 집안으로 장가들어 순촌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과 한다. 함평노씨 다음으로는 진주정시 정희득(鄭希得, 해상록 저자) 후손들이 2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으며 약 30년 전에 마을 가운데에 500년 이상 되었을 느티나무 1그루가 있었는데 고사(枯死)하고 없다. 이러한 일들로 미루어 볼 때 적어도 마을이 형성 되기는 500년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해오는 바에 따르며 이 마을은 풍수지리의 형국이 운중반월(雲中半月)이며 노(魯), 정(鄭), 이(李)씨의 터라고 한다.

예전에는 이 마을에 밤나무가 많아 "율촌(栗村, 밤까실 1789년 호구총수지명)"이라 했으며, 그 후 마을 앞 저수지에서 순채(蓴菜, 1789년 호구총수 지명)"으로 바뀌었다. 지금도 저수지에 순채가 자생하고 있다. 예전에 이곳은 영광에서 광주로 가는 도로변으로 앞주막, 뒷주막이 있었으며 마을 또한 번창했다. 벼슬한 사람은 별로 없지만 양반 마을로 유명하다.
※ 1789년 호수총수 지명, 율촌과 순촌이 함계 따로 나오는 것을 보면 당시에는 두 마을이었음을 알 수 있다.

o 문화유적

·월호정(月湖亭) : 본 정자는 호산 정경득(湖山 鄭慶得)과 월봉 정희득(月奉 鄭希得)을 배향했던 월호사(月湖祠. 1804년 건립)가 1868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인하여 훼철되자 진주정씨 문중에서 월호사가 철훼될 때 그 건물의 목재로 1871년 마을 앞에 정자를 짓고 서당과 겸하여 강학소(講學所)로 이용하였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기와집이며 정자 바로 뒤편 월호사가 있던 자리에 월호사유허비(1965년 건립)를 세웠다.

o 특기사항

·옹점 :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에는 예전에 옹기를 굽던 가마터가 있는데 이곳 가마속에 많은 그릇이 남아 있다는 소문을 들은 어떤 사람이 도굴할 계획으로 그곳을 파다가

뇌성벽력에 놀라 파내지 못하고 다시 묻어버렸다는 전설이 있으며 그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물이 잘 난다는 샘이 있는데 그 샘물을 길러다 그릇을 빚었다 하여 샘 이름을 점샘이라 하고 그릇을 굽던 자리를 점등 혹은 굴등(1789년 호구총수 지명. 옹점-瓮店)라 부르고 있다.

·해상록(海上錄) : 1579년 9월 왜적의 화를 면하고자 피난 가던 중 칠산 앞바닥에서 적에게 붙들려 일본으로 끌려간 정희득이 포로생활의 일기와 일본의 지리 병력관계 등을 기록한 저서다.

o 자생조직단체

·월야2리번영회 : 1958년엔 순촌, 송계, 동산, 괴정 4개 마을 주민의 친목과 번영을 목적으로 창립. 4개 마을 전 주민이 참여

·상부계 ; 1959년 당고시 계원 상호간의 부조를 목적으로 창립. 23명이 참여

·부녀회 : 마을 부녀친목을 목적으로 1972년에 창립. 마을 전 부녀자가 참여

o 공공건물

·마을회관 "1975년 건립 26평(당초 창고를 개조함)

(3) 송계(松溪)

인 구(명)			가 호 수			성 씨(호)					
계	남	여	계	자가	타가	계	진주정				기타
22	12	10	10	12		10	8				2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마을이 형성된 것은 약 250년 전으로 전해오고 있는데 70여년 전 인근 괴정마을에서 진주정씨 정종악(鄭鍾岳)의 손자인 용근(龍根)과 동교(東敎)가 옮겨왔으며 그들이 입주하기 전에 최(崔)씨, 파평윤씨 등이 거주하고 있었다 한다.

이 마을은 소나무만 무성한 야산이었다. 그래서 마을 이름을 송계(松溪, 1789년 호구총수지명)라고 하였다.

o 자생조직단체

·부녀회 : 1972년에 마을 부녀의 친목을 목적으로 창립. 마을 전 부녀자가 참여

o 배출인물

·정명선(鄭明善) : 목포 해양대학교 총장

·정봉택(鄭鳳澤) : 조선대 교수

·정인선(鄭仁善) : 조선대학교 병설 공업전문대학 교수
·정양진(鄭良鎭) : 법무부 행정사무관
·정흥선(鄭興善) ; 전 월야농협장 역임
·정낙규(鄭洛奎) :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4) 동산(東山)

인 구(명)			가 호 수			성 씨(호)					
계	남	여	계	자가	타가	계	진주정	함평이			기타
11	5	6	8	8		8	3	2			3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조선조 중종 때 무과에 급제하여 어모(禦侮)장군을 역임 한 정종문(鄭宗文)이 당시 인근 마을인 내동에서 분가하여 이 마을에 처음 터를 잡았다.

이 마을에서는 6·25 한국전쟁 전만해도 20여호 이상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전화로 불 타버리고 지금은 겨우 8호만이 마을을 유지하고 있다.

이 마을은 내동 마을의 동쪽산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마을 이름을 동산(東山, 1789년 호구총수지명)이라고 했다 한다.

(5) 평촌(坪村)

인 구(명)			가 호 수			성 씨(호)					
계	남	여	계	자가	타가	계	함평이	진주정	반남박	전주리	기타
94	61	33	31	31		31	7	4	2	2	16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이 마을은 월악면 평촌리였는데 1914년 군·면 폐합에 따라 월야면 월야리가 됐으며 몇 호에 불과했던 마을이 한일합방 이후부터 6·25 한국전쟁 전까지는 월야면 소재지로 면사무소, 함평경찰서 월야주재소, 월야 보통공립 학교가 있어 번창했으나 전화로 불타 소재지가 전하로 옮겨갔으며 6·25 한국전쟁 이후 월야중학교(1953년 4월 7일 개교)가 세월질 때 28호가 떠나고 월야종합고등학교(1972년 12월26일 개교)가 세워질 때 8호가 떠나는 등 마을이 줄어들었다.

이 마을은 어느 성씨가 먼저 터를 잡았는지는 알 수 없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성씨 중에는

함평이씨가 60여년 전에, 밀양박씨가 1930년경, 진주정씨가 1933년경, 전주리씨가 1943년, 동래정씨가 1950년경, 반남박씨가 1963년에 각각 입촌했다.

평평한 들에 위치한 마을이라 해서 마을 이름이 평촌(坪村, 1789년 호구총수 지명)이라 불렀으며 "중보(中堡, 1789년 호구총수 지명)"라고도 불렀는데 고막원천에 있는 지와보와 소림보의 중간에 위치한 마을이라 해서였다.

1789년 호구총수 지명에 두 마을이 나온 것을 보면 당시에 두 마을로 분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o 자생조직단체

·상부계 : 1960년 마을민의 상호 협조를 목적으로 창립. 31호가 참여하고 있다.
·친목계 : 1980년 계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창립. 12명이 참여하고 있다.
·부녀회 : 1978년 마을 부녀의 친목을 목적으로 조직. 31명이 참여

o 공공건물

·마을회관 : 1974년 건립. 20평

o 배출인물

·이민성(李敏聖) : 제26대 월야면장 역임

(6) 장동(長洞)

인 구(명)			가 호 수			성 씨(호)					
계	남	여	계	자가	타가	계	밀양박	함평이	반남박	전주리	기타
128	66	62	65	65		65	6	5	4	3	47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장 동

일제 대 국도 22호가 면소재지 앞으로 트이기 전에는 광주·영광간 도로가 마을 앞에 있었으며 수박동(水泊洞)이라 부르는 곳에 장(場)이 있었다 하는데 현 문장시작이 이곳 장에서 구장터(용암리 용산 마을 뒤)로 옮겨갔다가 해보면 문장리 무내미(매래미장)에 다시 옮겨졌으며 1927년 현재의 위치로 옮겨와 개장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장(場)이 있었을 당시인 100여년 전에도 사람들이 살았을 것 같으나 정확히는 알 수 없으며 현존 성씨 중에서 밀양박씨 박우현(朴禹玄)이 50여년 전에 해보면 중귀마을에서 옮겨와 수박동에 맨 먼저 터를 잡았다 하며, 장석골이라 부르는 곳에 인근 평촌마을 임장춘(林長春)의 둘째 아들 임석원(林碩源)이 결혼 후 분가하면서 1930년대말 경에 처음 터를 잡았다. 그 후 나주정씨와 평산신씨가 1940년 경에 진주정씨가 일제강점기 말경에 들어왔으며 그리고 평촌교(1969년 완공) 건너 들판에 춘부동(春夫洞, 1789,

1912지명, 대야면) 마을이 있었는데 수해로 인해 거주하기가 어려워지자 1963년 장성굴과 수박동 사이에 20여호가 이주해 옴으로 해서 현재의 마을 규모를 이루게 됐다. 춘부동은 1971년 경지정리로 폐촌됐다.

이 마을은 장석굴, 수박동으로 각각 나누어 불러오다가 춘부동에서 여러 호수가 이주해 온 후부터 "장동(長洞)"이라 했다.

o 문화유적

·장동고분 : 마을 뒷산 정상부에 원형분 1기가 있다.

o 자생조직단체

·위친계 : 1936년 당고시 계원 상호간의 협조를 목적으로 창립. 47명이 참여

·부녀회 : 1982년 마을 부녀의 친목을 목적으로 창립. 40명이 참여

o 공공건물

·마을회관 : 1995년 건립. 23평

o 배출인물

·박홍기(朴洪基)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환경과장

(7) 금석(金石)

인 구(명)			가 호 수			성 씨(호)					
계	남	여	계	자가	타가	계	함평노	함평이	나주정	김해김	기타
165	71	94	72	72		72	7	6	4	3	52

금 석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이 마을은 함평노씨 노신(魯愼)의 후손인 노연길(魯淵吉)이 1850년경 함평읍 진양리에서 살다가 이 마을로 옮겨와 터를 잡았으며, 예전에 조씨가 마을 뒤편에 터를 잡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으나 자세한 입향 유래는 알 수 없다. 함평노씨 다음으로는 동래정씨가 1909년에 진주정씨가 1910년에 입촌했다. 어떤 지관이 이 마을에 금이 놀고 있다해서 마을 이름을 "금석(金石, 1789년 호구총수 지명)"이라 했다. 짐석동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마을은 1985년 3월 1일 행정구역 조정으로 월야리 4구가 됐는데 이전에는 월야리 1구 였다.

o 특기사항 : 월야초등학교(1925년 2월 2일 개교)와 몽리면적 2,816.1ha, 조합원 2,796명, 관할지역 월야, 해보, 나산면, 저수지 24개소, 보 10개소, 장성호 간선중 월야간선 4km, 장함간선 41km를 관리하고 있는 영산강 농지개량조합 월야출장소, 그리고 함평군 농촌지도소 월야

지소가 이 마을에 있었다.

일제강점기 때 본사가 일본에 있는 종련방주식회사(鍾淵紡績株式會社) 소유의 양잠장(養蠶場)이 이 마을에 있어 약 15년간 누에를 길러 고치를 생산했기에 흔히들 '종방(鍾紡)'이라 부른다.

o 자생조직단체

·상조계 : 60년 전 당고시 계원 상호간의 부조를 목적으로 창립. 34호가 참여

·청금회 : 마을 청년들의 찬목 및 번영을 목적으로 1975년에 창립. 16명이 참여

o 공공건물

·마을회관 : 1974년 건립. 25평 ·공동작업장 : 1995년 건립. 34평

o 배출인물

·신계륜(申溪輪) : 제 14대 국회의원, 서울특별시 부시장 역임

·노재숙(魯在塾) : 광주북구청 사회산업국장

·정진두(鄭鎭斗) : 전라남도교육청 과학기술과장 역임

·정양수(鄭良洙) : 정남성병원장

·정기복(鄭基福) : 함평군 신광면장

·정재근(鄭在根) :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약품과장

·노흥숙(魯興塾) : 광주광역시청 투자유치기획단 국내기업유치담당

(8) 괴정(槐亭)

인 구(명)			가 호 수			성 씨(호)					
계	남	여	계	자가	타가	계	동래정	진주정	죽산안	문화류	기타
6	2	4	4	4		4	1	1	1	1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괴 정

진주정씨 정희득(鄭希得)의 아들인 적과 아(我)가 마을 가운데 길을 사이에 두고 윗마을을 노상(路上), 아랫마을을 노하(路下)로 부르면서 살았다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400년 전에는 마을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정희득도 아들들이 살았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마을에서 살았지 않았나 여겨진다. 그리고 지금은 거주 호수가 7호에 지나지 않지만 40여년 전에는 15호가 살았으며 이제 마을 규모가 작아 "송계(松溪)"마을에 속해 있는 마을이다.

지금으로부터 600여년 전에 진주정씨 선조 삼형제가 아버지의 수연일(壽宴日)에 느티나무정

자(괴정-槐亭)에 병괘사인(倂掛四印)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당시 아버지인 함도(咸道)는 함종현령이며, 장자인 유(維)는 고산현감이고 차자 면(綿)은 횡성현감이며 삼자 주(紬)는 무안현감으로 사부자(四父子)가 이 정자에 인(印)을 걸었다하여 사인정(四印亭)이라 하였다 하는 유래가 있는 바 정자 이름이 괴정(槐亭)이란 마을 이름이 된 것 같다. 정자는 현존치 않으며 수령이 600년 이상 됐을 느티나무 1그루가(고사됨) 마을 앞에 있다. 조선조 철종조 때 승지(承旨)를 역임한 정종악(鄭鍾岳)의 아들인 복원(復源)과 손자인 성근(成根)이 천석군 부자로 이름이 났는데 이 마을이 풍수지리설에 가마형국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있다.

o 배출인물

·정 유(鄭 維) : 조선시대 정조조 때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사헌부(司憲府)장령(掌令)과 통례원 좌통례(通禮院 左通禮)를 역임했다.
·정 적(鄭 摘) :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 수성(守城)에 큰 공을 세웠다.
·정종악(鄭鍾岳) : 조선시대 철종조 때 문과에 급제하여 승지(承旨)역임
·정진재(鄭鎭在) : 제17대 월야면장. 월야단위농업협동조합장 역임
·정홍규(鄭洪奎) : 육군 대령예편
·정양진(鄭梁鎭) : 법무부 서기관

12) 정산리(亭山里)

조선조대는 대야면에 속했고 1914년 이제(里制)를 시행하면서 대야면의 동촌(東村), 서촌(西村), 춘부(春夫) 전역과 화산(花山), 내정(內亭), 해보면 문암(文岩) 각 일부, 월악면 영가(永佳), 신지(新池), 전역을 묶어 내정에서 "亭"자와 화산에서 "山"자를 따 "정산리"라 하였다.

(1) 내정(內亭)

인 구(명)			가 호 수			성 씨(호)					
계	남	여	계	자가	타가	계	전주리				기타
80	39	41	36	36		36	20				16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1600년대 초경에 정종대왕(定宗大王)의 현손인 화림부수(花林副守)가 임진란 때 출전하여 전사하고 미망인 백천조씨가 아들 인과 의를 데리고와 정착하였는데 현재 그의 후손들이 자작 일촌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 북쪽에 있는 바우등은 고인돌이며, 예덕리 민가촌 고분군과는 1km 거리에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곳 일대는 마한 때부터 농경 집단이 정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을 앞에 정자나무가 많다 하여 마을 이름을 "내정자(內亭子·1789호구총수지명)"라 하였다 하는데 지금은 경지정리 사업으로 인해 정자나무가 없어졌다.

o 문화유적

·고인돌 : 마을 북쪽 200여m 지점에 2기가 있으며 일명 바우등으로 부르고 있다.

·고 분 : 마울 북쪽 300m 지점에 왕무덤으로 부르는 무덤이 있었으나 도굴되었고 논이 되었다. 마을 동편 뒤 밭과 연접된 산에 2기의 원형고분이 있다. 역시 왕무덤으로 부르고 있다.

·선 돌 : 마을 앞 도로변에 1기, 마을에서 150m 쯤 떨어진 농로변상에 1기가 있다.

o 자생조직단체

·촌계 : 1958년 마을면의 친목을 목적으로 창립. 33호가 참여

·기묘생갑계 : 마을내 기묘생의 친목을 목적으로 1984년에 창립. 6명이 참여

o 공공건물

·마을공동작업장 : 1973년 건립. 35평

·마을창고 : 1977년 건립. 40평

·마을회관 : 1977년 건립. 30평

o 배출인물

·이은묵(李殷默) : 월야단협장 역임

·이규하(李圭夏) : 의학박사

·이영하(李永夏) : 철학박사

·이환주(李鍰周) : 월야농협장 역임

·이동하(李東夏) : 공학박사

(2) 화산(花山)

인 구(명)			가 호 수			성 씨(호)					
계	남	여	계	자가	타가	계	전주리	나주오	김해김	밀양박	기타
44	23	21	21	21		21	4	3	3	3	8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전주리씨 리상인(李象寅)은 리이원(李以遠)의 4남으로 인근 내정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장흥임씨의 딸과 결혼하여 분가하면서 처음 터를 잡았다. 그 때가 1880년경이며 전주리씨 다음으로 나주오씨가 1800년대 말경 입촌했다.

예전에는 마을 지형이 한쌍의 누에머리 형국이라 하여 "잠두(蠶頭)"라고 했었으나 이 마을

이 칠봉산의 한 자락이 뻗어내려 온 곳에 형성된 마을이고 칠봉산의 그 자락을 진등이라 부르고 있는데 이 진등은 칡넝쿨 형국이며 이 마을은 칡넝쿨에 핀 칡꽃(葛花)에 해당되기 때문에 마을 이름을 "화산(花山)"으로 해야 된다는 어느 지관의 말에 따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 한다.

화 산

o 특기사 항

이 마을은 범죄없는 마을로 일제강점기 때부터 지금까지 재판이나 소송한번 해본적이 없는 모범적이고 단결된 마을로 6·25 한국전쟁 때는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었다.

o 자생조직단체

·촌 계 ; 80년 전 마을민의 친목을 목적으로 창립. 20호가 참여

·부녀회 : 1972년 마을 부녀의 친목을 목적으로 창립. 20명이 참여

o 배출인물

·오금렬(吳錦烈) : 제25대 월야면장, 함평군 문화관광과장

(3) 동촌(東村)

인 구(명)			가 호 수			성 씨(호)					
계	남	여	계	자가	타가	계	형풍곽	밀양박	김해김	인동장	기타
138	70	68	52	52		52	12	6	6	4	24

동 촌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 이 마을은 언제 어느 성씨가 터를 잡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다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성씨 중에서는 1700년경에 광산군 하남에서 현풍곽씨 곽희수(郭禧守)가 처음 입촌하여 정착했으며, 그 후 김해김씨가 1800년대 중순경 들어왔다.

원래 이 마을의 서쪽에 서촌(西村·1789년 호구총수지명) 마을이 있어서 "동촌(東村)"이라 했다 그리고 마을뒤에 절의 강당(講堂)이 있던 곳이라 해서 강당밭이라 부르는 지명이 있는데 그곳에서 사용하던 북이 현재 영광군 불갑사(佛甲寺)의 북이라고 전해온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o 문화유적

·선돌 : 마을 앞으로 이어지는 도로변(군도 3호선)에 2기가 있는데 이들 입석을 당산 할아버지, 당산할머니라 부르고 있으며 정월 대보름이면 줄다리기를 하고 선돌에 줄을 감아 놓는다. 그러나 몇 해 전부터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마을내에는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우물이 있다. 매년 정월 대보름이면 그해 농사에 물이 넉넉하고 샘물이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마을 우물물을 길러오는 일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

o 특기사항 : 정산보건진료소가 이 마을에 있다.

o 자생조직단체

·부녀회 : 1978년에 마을 부녀의 친목을 목적으로 창립. 35명이 참여

o 공공건물

·마을회관·건강관리실 : 1층 회관 1997년 건립. 30평

·2층 건강관리실. 1999년 건립. 20평

o 배출인물

·서성학(徐成學) : 이강산 의병부대에서 활동 <항일의병 항을 볼 것>

·서수정(徐水亭) : 제 2대 함평군의원. 5대 함평군의회 부의장 역임

(4) 장교(長橋)

인 구(명)			가 호 수			성 씨(호)					
계	남	여	계	자가	타가	계	함평이	인동장	전주리	수성최	기타
36	18	18	18	18		18	3	3	2	2	8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장 교

전 대야면장을 지낸 함평이씨 이계송(李啓宋)이 인근 정산리 서촌 마을에서 살다가 1920년경 이 마을로 옮겨와 처음 터를 잡았으며 그 후 죽산안씨, 동래정씨 등이 입촌하여 방앗간, 한약방 등을 운영하였다. 이 마을은 장성 방면에서 문장(文場)으로 통하는 국도 24호선변에 위치한 마을로서 월야면 상구 일원의 교통 및 상업의 중심지로서 6·25 한국전쟁 이후 연차적으로 조성된 마을이다.

1960년대 초경에 동촌마을에서 분리되면서 돌로 된 긴 다리가 이 마을에 있었다 해서 “장교(長橋)”라 했으며 흔히들 진다리라 부르기도 하는데 예부터 이 곳이 달(月)이 진 형국이라 해서 “진달”이라 불렀다는 설도 있는데 이 마을 동편에 동촌마을과 신기마을을 넘어 다니는 재를 월령재(月嶺峙)라 하며 달이 넘어가는 고개라는 뜻인바 진달이 진다리로 변한 것이 아닌가 한다.

o 자생조직단체

·촌계 : 1964년 마을 주민의 친목을 목적으로 창립. 18호가 참여

o 공공건물

·대야 노인정 : 1985년 건립. 17평

(5) 서촌(西村)

인 구(명)			가 호 수			성 씨(호)					
계	남	여	계	자가	타가	계	함평이	전주리			기타
54	28	26	25	25		25	18	2			5

서 촌

o 마을 형성

진주정씨가 처음 터를 잡았다고 전하나 자세한 유래는 알 수 없으며 그 후 1700년대 초경 함평이씨 이경익(李慶益)이 나산면 우치리에서 이거하여 정착했으며 타 성씨가 있긴 하나 자작일촌하고 있는 셈이다.

마을 형국이 서반월(西半月), 즉 서쪽에 떠 있는 반달같다 해서 "서촌(西村)"이라 했으며 소쿠리형으로 아담하고 조용한 마을이다.

o 특기사항

마을 앞 모정 옆에 수령이 400년쯤 되었을 정자나무(미루나무)가 있다.

o 자생조직단체

·촌 계 : 1975년 마을 주민의 친목을 목적으로 창립. 25호가 참여

·부녀회 : 1985년 마을 부녀의 친목을 목적으로 창립. 2명이 참여

o 배출인물

·이계송(李啓宋) : 전 대야면장 역임 ·이재후(李載厚) : 월야면장 역임

·이주범(李周範) : 전주시 신성여객 자동차합자회사 회장 역임

·이재호(李載鎬) : 조선 부속중학교 교장

(6)고실(古實)

인 구(명)			가 호 수			성 씨(호)					
계	남	여	계	자가	타가	계	진주정				기타
12	5	7	7	7		7	2				5

o 마을 형성

마을이 언제 형성되었는지 전하는 바 없어 알 수 없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여러 성씨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였으므로 오합촌이 되고 있으며 현존 성씨중에서는 진주정씨가 맨 먼저 입촌했는데 정수송(鄭秀松)이 해보면 금덕리 고두 마을에서 50년 전에 옮겨 왔으며 광산김씨, 함평이씨, 전주리씨 상산김씨, 나주나씨 등이 살고 있다.

원래는 마을 형국이 북치고 비파를 탄다 해서 고(鼓)자와 실(瑟,슬)자를 따서 고실(鼓瑟)이라 불렀었는데 원뜻과 다른 "고실(古實)"로 표기되었다. 월야면에 편이보디기 전에는 대야면 고신리(古申里)였으며 1911년 "대야면 2기 호세장부"를 보면 3호가 거주한 기록이 있다.

o 자생조직단체

·촌중계(村中契):1984년에 마을 사람들의 친목을 목적으로 창립, 7호가 참여

(7) 영가(永加)

인 구(명)			가 호 수			성 씨(호)					
계	남	여	계	자가	타가	계	함평이	죽산안			기타
17	8	9	8	8		8	2	2			4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마을이 언제 형성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다만 수령이 300년 이상된 정자나무(감나무)가 있었는데 고목이 되자 15년 전에 파버렸기 때문에 마을 형성 시기는 300년 전쯤 되었을 것이라고 주민들은 추측하고 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풍수지리설에 옥녀포금(玉女抱琴)의 명당이 있는데 이 마을은 노래 부로고 있는 형국이라 해서 "영가(詠歌)"라 했는데 일제 때 쉽게 쓰기 위해 원래의 뜻과 다른 "영가(寧加)"로 표기했으며 1914년 월야면이 신설되기 전에는 해보면 문암리의 일부였다.

o 자생조직단체

·촌계:1961년 마을 주민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립. 12호가 참여

(8) 신기(新基)

인 구(명)			가 호 수			성 씨(호)						
계	남	여	계	자가	타가	계	인동장	여양진	연안김	전주리	고흥유	기타
67	35	22	35	35		35	9	3	3	3	3	14

o 마을 형성 및 지명 유래

신 기

이 마을은 영광, 장성, 함평 어디에서 보아도 사방 칠봉이라는 내룡맥(來龍脈) 하단에 위치한 마을로서 1789년에 발행한 호구총수 지명에 신기(新基) 마을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200년 전에도 마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1800년대 초경 함평이씨 이진택(李鎭宅)이 장성군 삼서면 두월리 두동 마을에서 살다가 함께 입촌하였으며 차남 유순(孺淳)이 진사벼슬을 했다. 그 후 130년 전에 정산리 내정 마을에서 동래정씨 1호, 장성군 삼서면 수해리에서 청송심씨 2호, 영광군 묘량면 연암리에서 여양진씨 1호, 정산리 내정 마을에서 전주리씨 1호가 각각 들어 왔으며 일제 강점기 때는 일본의 북천(北川), 평목(平木) 성을 가진 자들이 들어왔다가 해방 후 떠났고, 영광군 불갑면 순룡리 용매 마을에서 불갑저수지 건설로 1920년경에 고흥유씨 1호가 이주해 오자 계속 7·8호가 들어 왔으며 1922년 경에 인동장씨가 월계리 덕산 마을에서 옮겨 왔다. 이어서 여양진씨 2·3호가 들어오고 연안김씨가 1938년에 영광군 백수면 장산리에서 옮겨왔으며 밀양박씨, 한양조씨, 심해김씨, 영성정씨, 나주오씨, 나주정씨. 진주강씨, 현풍곽씨도 각각 1호씩 살고 있다.

새 터라는 뜻으로 신기(新基)라는 마을 이름이 생겼음을 알 수 있으며 120여년전 여러 성성씨들이 입촌하여 마을 규모를 갖추게 되면서부터 마을 중 상촌에 좌청룡으로 쉬나무를 심었고 하촌(산정동)과의 사이에 우백호로 석비를 세움과 동시에 정자나무와 백일홍나무를 심고 그 옆에 동각(洞閣)도 지었으나 8·15해방 후 없어지고 쉬나무와 석비만 남아 있다.

o 자생조직단체

·친목계:계원들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1960년에 창립. 13명이 참여

o 공공건물

·마을회관:1975년 건립.15평

·마을 노인회관:1998년 건립. 20평

o 배출인물

·심수택(沈守澤, 호:南一) :1908년 후반기와 1909년 중반기까지 의병사를 이끌었던 심남일 의병대장은 전진(轉戰) 3년에 왜적 수백급을 잠적하였으며, 1910년 적의 교수대에서 향년 40세로 순의하였다. 그에게 국민장(國民葬)이 추서되었고 그를 추모하는 비가 광주공원에 있으며 유품으로 진지록(盡知錄·의병일지)이 있다.

전주리씨 건모(建謨)와 나주정씨 필성(必成)도 의병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다.

제8절 학교면 (鶴橋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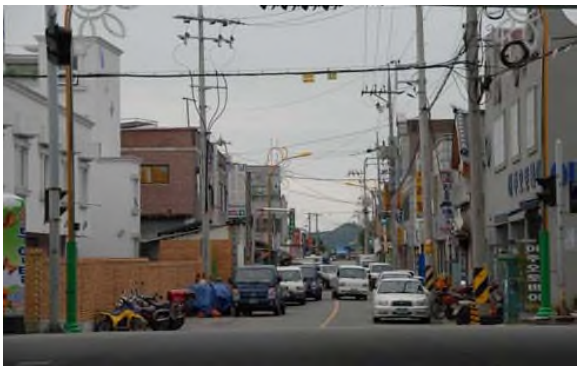
집필 / 박 광 웅

고막리(古幕里) / 763
곡창리(谷昌里) / 768
금송리(錦松里) / 774
마산리(馬山里) / 781
복천리(伏泉里) / 787
사거리(四街里) / 796
석정리(石亭里) / 803
월산리(月山里) / 810
월호리(月湖里) / 818
죽정리(竹亭里) / 826
학교리(鶴橋里) / 833

1. 면사무소 소재지(面事務所 所在地)

학교면사무소의 위치는 학교리(鶴橋里) 468-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첫 사무실은 1915년 3월 2일 목조(18평)로 지었고 그 후 1929년 10월 3일(15평)을 건립하였으나 벽돌조의 사무시로가 숙직실을 무너뜨리고 1985년 현대식 2층 콘크리트 건물로 8월 13일 완공하였고 창고는 1월 8일 조립식(82.8m2)으로 준공하여 사용하고 있다.

2. 연혁



학교면(鶴橋面)은 1914년까지 무안군(務安郡)에 속해 있었는데 무안군은 백제시대에는 “물아혜군(勿阿兮郡)”, 신라시대에는 “면주(綿州)”, 고려(高麗) 때는 “물양군(勿良郡)”이라 잠시 부른 적이 있으나 “면성군(綿城郡)”으로 바뀌어 조선조 말까지 불러 왔으며 1910년에는 목포부(木浦府)에 편입되었으며 학교면에는 조선조 때 금동(金洞), 진례(進禮), 좌촌면(佐村面)이라는 3개의 면이 있었는데 1914년에 이들 3개 면을 합쳐 학교면을 신설하였고 관할 이(里)는 고막(古幕), 복천(복천(伏泉), 마산(馬山), 월송(月松), 백호(白湖), 금곡(金谷), 상옥리(上玉里)였으며 1973년 7월 1일 면(面)간의 조정에 의하여 월송, 백호, 금곡, 상옥의 4개리가 대동면(大洞面)에 편입되었다.

진례면(進禮面)은 관할구역이 현재의 곡창(谷倉), 월호(月湖), 금송(錦松), 석정리(石亭里)였고 좌촌면(佐村面)은 관할구역이 학교(鶴橋), 월산(月山), 사가(四街), 죽정리(竹亭里)였으며, 11개의 법정리(法政里)로 계속되다가 85년도에 11개 법정리에 30개 운영리(運營里)로, 87년도에 11개 법정리에서 34개 운영리로, 현재는 법정리 11개리에 35개 운영리 61개 마을로 운영되고 있다.

1789년 호구총수(戶口總數)에 나타난 지명은 다음과 같다.

※ 여기서의 리(里)의 의미는 자연마을을 뜻한다.

▶ 진례면(進禮面)] 17개 자연마을

광진리(廣津里), 화지리(花枝里), 석정리(石井里), 동림동리(東林洞里), 반송정리(盤松亭里), 백인동리(白仁洞里), 선암리(仙巖里), 동금산리(洞錦山里), 중촌리(中村里), 임강리(臨江里), 배야리(背野里), 대곡리(大谷里), 사호포리(沙湖浦里), 고창산리(古昌山里), 신기리(新基里), 영촌리(永村里), 월명동리(月明洞里)

▶ 금동면(金洞面) 30개 자연마을

고막원리(古幕院里), 상지동리(上旨洞里), 두지동리(斗之洞里), 복산촌리(伏山村里), 내동리(內洞里), 금적동리(金積洞里), 동막동리(東幕洞里), 옥산동리(玉山洞里), 희방리(希方里),나막리(羅幕里), 양동리(陽洞里), 석령리(石令里), 성암리(星巖里), 오소리(五所里), 사랑동리(寺郎洞里), 학송정리(鶴松亭里), 신흥동리(新興洞里), 백연동리(百蓮洞里), 유점리(鍮店里), 죽총리(竹叢里), 갈구지리(渴龜池里), 보화촌리(寶化村里), 산직총리(山直村里), 대천동리(大川洞里), 옥련동리(玉蓮洞里), 신기리(新基里), 청수원리(淸水院里), 옥마동리(玉馬洞里), 호암동리(虎巖洞里), 삼거리(三巨里)

▶좌랑촌면(佐郎村面) 19개 자연마을

귀래촌리(歸來村里), 이암리(耳巖里), 호양촌리(湖陽村里), 쌍교리(雙橋里), 용계동리(龍溪洞里), 명암리(銘岩里), 소신기리(所新基里), 경화동리(京化洞里), 신경동리(新慶洞里), 송정리(松亭里), 송산리(松山里), 신흥동리(新興洞里), 반송동리(盤松洞里), 금동촌리(金洞村里), 산직촌리(山直村里), 월명촌리(月明村里), 덕산리(德山里), 정자동리(亭子洞里), 상곡리(上谷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현재의 리에 병합되었던 이전의 면과 리

고막리(古幕里)

목포부 금동면의 고막원(古幕院) 영천동(永川洞) 송암리(松岩里)
진례면 광진리(廣津里) 전역

곡창리(谷昌里)

목포부 진례면의 고창리(高昌里) 대곡리(大谷里) 사포리(沙浦里) 전역과
좌촌면 회춘동(回春洞) 일부 지역

금송리(錦松里)

목포부의 진례면의 방우동(放牛洞), 반곡동(反谷洞), 금산동(錦山洞), 향동(香洞),
반송리(反松里)의 전역과 기동(基洞) 일부

마산리(馬山里)

목포부 금동면의 표산리(杓山里), 신평리(新坪里), 신기리(新基里), 청수원(淸水院)
옥마동(玉馬洞), 호암리(虎岩里) 전역
좌촌면의 반암리(磻巖里), 덕산리(德山里) 각 일부 지역

복천리(伏泉里)
목포부 금동면의 내동리(內洞里), 목단동(牧丹洞), 복암리(伏巖里), 외치리(外峙里)
석천동(石泉洞), 두서리(斗西里) 전역과
신노면(新老面·엄다면) 장동(壯洞)
나주군 거평면(居平面) 죽곡리(竹谷里), 고호리(古湖里) 각 일부 지역
사거리(四街里)
목포부 좌촌면의 월천리(月川里), 죽천리(竹川里), 석교리(石橋里), 명암리(銘岩里),
청정리(靑亭里), 율동(栗洞), 성산리(星散里), 경화동(京化洞) 전역과
송정리(松亭里), 정자동(亭子洞), 월봉리(月峯리) 각각 일부 지역
금동면의 사거리(四街里)전역
석정리(石亭里)
목포부 진례면의 동호리(東胡里), 흥용동(興龍洞), 건피촌(乾皮村), 석정리(石亭里)
화지동(化枝洞) 전역
월산리(月山里)
목포부 좌촌면의 신흥리(新興里), 송산리(松山里), 당산등리(堂山登里) 전역과 화산리
(花山里), 고시리(古市里), 송정리(松亭里), 반암리(反岩里), 덕산리(德山里)
월봉리(月峰里)와
함평군 기성면(현 함평읍)의 천변리(川邊里) 각 일부 지역
월호리(月湖里)
목포부 전례면의 망월동(望月洞), 배야동(背野洞), 용호동(龍虎洞) 전역과 기동(基洞)의
일부지역
죽정리(竹亭里)
목포부 좌촌면 둔기리(屯基里), 죽림동(竹林洞) 전역과 덕산리(德山里), 정자동(亭子洞),
쌍교리(雙橋里), 월봉리(月峰里) 와 금동면 호암리(虎岩里) 각 일부
진례면 부흥리(夫興里) 전역
학교리(鶴橋里)
목포부 좌촌면 이암리(耳岩) 전역과 쌍교리, 회춘동(回春洞) 각 일부 지역
진례면 영화촌(永化村)전역
☞ 상옥(上玉)·금곡(金谷)·월송(月松)·백호리(白湖里)는 대동면을 볼 것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면에서 학교면에 편입된 지역은 기성면(箕城面·현 함평읍)을 천변(川邊·현 기각리) 일부 지역이 월산리(月山里)로 신노면(新老面·현 엄다면), 장동(壯洞)이 복천리(伏泉里)로, 나주군 거평면(居平面·현 문평면) 죽곡(竹谷), 고호(古湖) 일부 지역이 복천리에 편입되었다.

조선조 초부터 1440년까지 대곡(大谷)에 대굴포(大堀浦) 전라우수영(全羅右水營)이 있었다.

3. 논·밭 면적과 가구수(家口數) 및 인구수 일람표

부락면 / 리별		면 적			가구수	인 구 수		
이명	마을명	밭	논	계		남	여	계
복천1	두 동	6.4	32.0	38.4	22	26	26	52
	외치동	2.0	8.0	10.0	7	6	6	12
	소 계	8.4	40.0	48.4	29	32	32	64
복천2	장 동	8.0	42.0	50.0	34	39	38	77
복천3	복 산	5.0	9.0	14.0	16	16	21	37
	내 동	7.0	10.0	17.0	10	8	9	17
	소 계	12.0	19.0	31.0	26	24	30	54
고막1	원고막	5.7	7.0	12.7	41	33	35	68
	신 촌	6.0	1.0	7.0	20	18	17	35
	장미마을	1.0	2.0	3.0	19	17	17	34
	소 계	12.7	10.0	22.7	80	68	69	137
고막2	광 진	15.0	18.0	33.0	18	16	20	36
	송 암	5.0	11.0	16.0	6	7	7	14
	소 계	20.0	29.0	49.0	24	23	27	50
석정1	원석정	12.9	34.0	46.9	37	35	39	74
	화 지	1.1	28.0	29.1	12	6	10	16
	소 계	14.0	62.0	76.0	49	41	49	90
석정2	건 지	5.5	20.0	25.5	14	26	10	36
	동 림	7.1	15.0	22.1	15	7	25	32
	흥 림	1,5	29.0	30.5	14	11	16	27
	소 계	14.1	64.0	78.1	43	44	51	95
금송1	반 곡	8.0	22.0	30.0	32	30	40	70
	반 송	8.2	27.0	35.2	12	12	12	24
	소 계	16.2	49.0	65.2	47	42	52	94
긍송2	금 산	5.3	36.0	41.3	40	23	40	63
	방우동	6.0	15.0	21.0	23	12	26	38
	향 동	3.0	5.0	8.0	25	17	26	43
	소 계	14.3	56.0	70.3	88	52	92	144
월호1	망월동	14.0	25.0	39.0	29	16	23	39
	배 야	10.0	26.0	36.0	20	15	17	32
	기 동	5.0	15.0	20.0	15	10	16	26
	소 계	29.0	66.0	95.0	64	41	56	97
월호2	용 호	20.0	68.2	88.2	59	43	58	101
곡창1	원 곡	26.0	47.0	73.0	68	76	74	150
	사 포	0.5	0.5	1.0	4	3	3	6
	소 계	26.5	47.5	74.0	72	79	77	156
곡창2	서당매	5.0	9.0	14.0	22	40	28	68
	대 곡	5.0	6.0	11.0	6	4	5	9
	신 곡	5.0	6.0	11.0	4	10	10	20
	소 계	15.0	21.0	36.0	32	54	43	97
학교1	큰동네	8.0	20.0	28.0	81	74	71	145

리별 \ 부락면		면 적			가구수	인 구 수		
이명	마을명	밭	논	계		남	여	계
학교2	이 암	20.0	32.0	52.0	61	63	62	125
학교3	영화촌	20.0	26.0	46.0	41	30	49	79
학교4	신 학	1.0	16.0	17.0	72	87	90	177
학교5	쌍 교	6.0	15.0	21.0	67	111	112	223
학교6	백 학	1.0	9.0	10.0	64	73	68	141
학교7	회춘동	8.0	24.0	32.0	41	54	47	101
학교8	달배기	5.0	18.0	23.0	77	73	79	152
사거1	명 암	13.2	37.0	50.2	132	148	145	293
사거2	경화동	8.0	17.0	25.0	46	55	59	114
	율 동	6.0	13.0	19.0	38	40	45	85
	소 계	14.0	30.0	44.0	84	95	104	199
사거3	원사거	1.2	15.8	17.0	146	185	188	373
	신시장	0.0	5.0	5.0	18	22	23	45
	소 계	1.2	20.8	22.0	164	207	211	418
사거4	청 정	7.3	30.9	38.2	77	101	87	188
월산1	송 정	14.1	24.0	38.1	42	31	49	80
	송 산	10.0	17.0	27.0	46	59	56	115
	소 계	24.1	41.0	65.1	88	90	105	195
월산2	신 흥	27.0	55.0	82.0	75	111	74	185
	화 산	10.0	7.0	17.0	23	14	23	37
	소 계	37.0	62.0	99.0	98	125	97	222
월산3	월 봉	9.0	21.0	30.0	41	42	34	76
	반 암	3.0	5.0	8.0	6	4	4	8
	소 계	12.0	26.0	38.0	47	46	38	84
죽정1	정자동	19.0	34.0	53.0	51	52	47	99
	죽 림	2.0	3.0	5.0	5	7	8	15
	소 계	21.0	37.0	58.0	56	59	55	114
죽정2	덕 산	12.0	42.0	54.0	52	57	48	105
	회초동	2.0	5.0	7.0	3	4	2	6
	소 계	14.0	47.0	61.0	55	61	50	111
죽정3	선 암	18.0	20.0	38.0	39	51	61	112
죽정4	둔 기	10.0	14.0	24.0	18	18	15	33
죽정5	호 암	10.0	7.0	17.0	44	35	40	75
마산1	청수원	10.0	30.0	40.0	42	49	46	95
	옥마동	0.0	7.8	7.8	8	6	6	12
	신 기	8.8	11.2	20.0	19	14	23	37
	소 계	18.8	49.0	67.8	69	69	75	144
마산2	표 산	10.0	50.0	60.0	43	45	46	91
	신 평	10.0	11.0	21.0	14	12	8	20
	소 계	20.0	61.0	81.0	57	57	54	111
계(35)	계	499.8	1,216.4	1,716.2	2,179	2,309	2,389	4,698

4. 면내의 씨족(씨족)

순 위	씨 족 명(씨족명)	집 단 거 주 지	비 고
1	함평노씨(咸平魯氏)	두동·장동	
2	진주정씨(晉州鄭氏)	표산·정자동	
3	김해김씨(金海金氏)	영화촌	
4	밀양박씨(密陽朴氏)		
5	이천서씨(利川徐氏)		
6	광산김씨(光山金氏)		
7	천안전씨(天安全氏)	광진	
8	평산신씨(平山申氏)		
9	남원량씨(南原梁氏)	월호리	
10	전주리씨(全州李氏)	석정리	

5. 역대 면의원(面議員) 명단(名單)

1) 제1대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직업	학력	소속 정당	비고
의장	주 영 국(朱永國)	1911. 04. 28	학교리 511	농업	대졸	자유당	
부의장	노 윤 근(魯潤槿)	1916. 02. 20	복천리 672	농업	중졸	자유당	
의원	어 윤 수(魚潤水)	1917. 09. 28	곡창리 757	상업	중졸	자유당	
〃	김 형 태(金瀅台)	1914. 08. 26	학교리 475	의사	대졸	자유당	
〃	박 연 식(朴連植)	1910. 11. 04	고막리 116	농업	중졸	자유당	
〃	이 좌 형(李佐珩)	1904. 07. 22	석정리 134-2	농업	중졸	자유당	
〃	노 상 범(魯相範)	1902. 09. 23	대동면 금곡리 796	농업	국졸	자유당	
〃	구 용 대(具用大)	1918. 12. 15	죽정리 542	농업	중졸	자유당	
〃	정 연 규(鄭然奎)	1913. 09. 04	마산리 460	농업	중졸	자유당	
〃	정 동 기(鄭同其)	1909. 09. 09	금송리 274	농업	중졸	자유당	
〃	양 태 경(梁泰京)	1914. 01. 20	월호리 428	농업		자유당	
〃	김 두 현(金斗玹)	1896. 05. 16	곡창리 599	농업		자유당	
〃	윤 병 준(尹炳俊)	1913. 11. 19	대동면 상옥리 382	농업	중졸	자유당	
〃	김 삼 채(金三采)	1916. 11. 19	학교리 878	상업		자유당	(補選)
〃	한 기 갑(韓基甲)	1908. 02. 16	월산리 695	농업		자유당	(議員免職)

2) 제2대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직업	학력	소속 정당	비고
의장	채 주 섭(蔡周燮)	1901. 04. 10	월산리 1265	농업	국졸	자유당	
부의장	양 연 옥(梁連玉)	1902. 02. 14	월호리 368	농업	국졸	자유당	
의원	노 차 석(魯且石)	1911. 01. 13	복천리 355	농업	국졸	자유당	
〃	박 우 성(朴又聖)	1911. 12 .22	마산리 199	농업	중졸	자유당	
〃	정 찬 홍(鄭燦洪)	1919. 12. 16	대동면 상옥리 571	농업	중졸	자유당	

〃	노 수 천(魯洙千)	1905. 09. 27	마산리 195	농업	중졸	자유당	
〃	김 형 태(金瀅台)	1914. 08. 26	학교리 475	농업	대졸	자유당	
〃	정 연 일(鄭然日)	1921. 05. 07	죽정리 791	농업	중졸	자유당	
〃	황 한 주(黃漢周)	1915. 11. 29	대동면 백호리 189	농업	국졸	자유당	
〃	김 재 을(金在乙)	1921. 11. 11	금송리 527	농업	중졸	자유당	
〃	박 봉 춘(朴逢春)	1926. 11. 09	학교리 667	농업		자유당	(補選)
〃	김 두 현(金斗玹)	1917. 06. 22	학교리 150	농업	중졸	자유당	(死亡)
〃	노 장 식(魯壯植)	1904. 04. 20	학교리 470	농업		자유당	(補選)
〃	어 윤 수(魚潤水)	1917. 09. 28	곡창리 757	정미업	중졸	자유당	(議員免職)

3) 제3대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직업	학력	소속 정당	비고
의원	노 상 열(魯翔烈)	1921. 09. 03	복천리 511				
〃	정 찬 홍(鄭燦洪)	1919. 12. 16	대동면 상옥리 571				
〃	정 창 수(鄭昌洙)	1930. 08. 20	대동면 백호리 259				
〃	김 서 철(金西鐵)	1925. 02. 20	사거리 390				
〃	김 기 천(金綺千)	1905. 07. 05	죽정리 1066				
〃	윤 인 상(尹寅相)	1926. 01. 11	대동면 상옥리 152				
〃	양 재 윤(梁在允)	1914. 09. 15	월호리 206				
〃	이 보 형(李甫珩)	1922. 10. 13	석정리 483				
〃	한 만 섭(韓萬燮)	1926. 04. 07	곡창리 289				
〃	지 영 오(池永五)	1908. 09. 28	사거리 260				
〃	박 정 규(朴正奎)	1929. 04. 27	고막리 55				
〃	채 영 기(蔡永基)	1906. 09. 28	월산리816				

6. 역대면장(歷代面長)

대	성 명	출 신 리	재 임 기 간
1	정규항	무안읍 성남리	1914. 04. 01 ~ 1922. 08. 20
2	한봉섭	학교면 월산리	1922. 08. 20 ~ 1926. 03. 10
3	정규항	무안읍 성남리	1926. 03. 10 ~ 1934. 03. 20
4	노기수	학교면 복천리	1934. 04. 12 ~ 1936. 05. 20
5	김태일	엄다면 성천리	1936. 05. 20 ~ 1937. 06. 26
6	서종윤	대동면 금곡리	1937. 06. 26 ~ 1946. 03. 31
7	김용호	학교면 석정리	1946. 04. 04 ~ 1947. 03. 06
8	정인식	학교면 죽정리	1947. 03. 06 ~ 1950. 03. 31
9	노윤근	학교면 복천리	1950. 03. 31 ~ 1950. 10. 30
10	김용호	학교면 석정리	1950. 11. 22 ~ 1952. 05. 05
11	한기갑	학교면 월산리	1952. 05. 05 ~ 1954. 11. 30
12	김유원	힉교면 월호리	1954. 12. 07 ~ 1958. 12. 06
13	지영빈	학교면 죽정리	1958. 12. 08 ~ 1960. 12. 01
14	지영빈	학교면 죽정리	1960. 12. 26 ~ 1961. 06. 26
15	정순호	학교면 죽정리	1961. 10. 12 ~ 1965. 01. 27
16	정재구	학교면 사거리	1965. 02. 01 ~ 1969. 03. 19
17	노상열	학교면 복천리	1969. 03. 21 ~ 1972. 02. 28
18	오순기	학교면 학교리	1972. 03. 21 ~ 1973. 10. 15
19	김재광	학교면 금송리	1973. 11. 03 ~ 1974. 12. 26

대	성 명	출 신 리	재 임 기 간
20	정경수	학교면 학교리	1975. 01. 04 ~ 1978. 06. 03
21	노명규	학교면 학교리	1978. 06. 05 ~ 1985. 06. 13
22	정종남	학교면 죽정리	1985. 07. 02 ~ 1993. 06. 30
23	정영화	학교면 학교리	1993. 07. 02 ~ 1997. 01. 16
24	노두근	학교면 복천리	1997. 01. 17 ~ 1998. 09. 05
25	김광호	함평읍 석성리	1998. 09. 05 ~ 2000. 01. 24
26	이건택	함평읍 성남리	2000. 01. 25 ~ 2003. 09. 26
27	고홍재	신안군	2003. 09. 27 ~ 2005. 01. 31
28	박연수	함평읍 기각리	2005. 02. 07 ~ 2006. 09. 22
29	이환행	해보면 문장리	2006. 09. 25 ~ 2008. 07. 21
30	정택규	학교면 마산리	2008. 07. 28 ~ 현 재

7. 마을사(史)

이명 : 가나다순

1) 고막리(古幕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당시 목포부(木浦府)에서 함평군(咸平郡)에 편입된 지역으로 이제(里制) 실시에 따라 목포부 금동면(木浦府 錦東面)의 고막원(古幕院), 영천동(永川洞), 송암(松岩), 진례면(進禮面)의 광진(廣津)을 합해 고막원 마을명에서 고막을 따 고막리(古幕里)라 하였다.

(1) 원고막(元古幕)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고호(古湖) →원고막(元古幕)	군에서 13.0km, 면에서 8.0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68	33	35	41	41		17.7	7.0	5.7	5.0		미맥

거주 성씨	여산 송	무안 박	김해 김	밀양 박	남	해주 최	천안 안	광산 김	함평 이	파평 윤	나주 정	광산 강	광산 노	천안 전	평산 신	이천 서	청주 한	동복 오	이천 차
가호	1	1	10	9	1	1	1	2	2	3	4	1	1	2	1	2	2	2	1

o 마을의 형성

지금으로부터 약 800여년 전에 해주최(海州崔)씨가 개촌했다는 전언(傳言)이 있으나 그 후손이 지금은 1호도 살지 않고 있으며 뒤를 이어 청주한(淸州韓)씨 양혜공파(襄惠公派) 천신(天信)이 1650년경에 입촌(入村) 그 후손이 주종을 이루었고 한씨의 입촌 이후에 밀

원고막

양박(密陽朴)씨등 여러 성씨가 입촌했다.

한천신(韓天信)의 고막원(古幕院) 입촌은 함평군(咸平郡)에 청주한(淸州韓)씨가 입향한 최초가 되기도 한다.

이 마을의 지명은 1789년 호구총수 지명에 보면 고호(古湖)로 되어 있다. 현 영산강(榮山江)의 옛 지명이 사호(沙湖)인 것을 생각하면 고호(古湖)의 뜻을 짐작할 수 있다. 고막(古幕)에 원(院)자가 붙은 것은 고려와 조선조 때 이곳에 원이 있기 때문이며 고막이란 이름은 고막대사(古幕大師)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고막대사는 약 700여년 전에 마을 앞에 돌다리를 놓은 대사로 전해오고 있다.

1924년 간행 무안군지(務安郡誌)에 의하면 고막원(古幕院)에는 원루(院淚)가 있었고 중앙관청에서 내려오는 관원이나 지방수령이 순시를 할 때 휴게소로 썼고 또 신구 수령의 교대 장소로 썼다고 한다.

o 자생 조직

·동　　계 : 1962년 마을 발전과 사업계획의 실천 반성을 위해 조직

·청소년회 : 1979년 청소년간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조직

o 공공건물

·새마을 창고 : 마을 비품 및 비료, 벼 등 보관

·마을회관 : 2002년에 세워 노인정과 마을회의장소로 활용

·동각 : 고막천 석교 옆에 고막천을 내려다보게 세워졌다.

·함평천지 뷔페 휴게소 : 광목간을 오가는 이의 쉼터로 명소가 됨

o 유적과 유물

·고막천석교 : 고막천은 고려시대 이래 중요한 포구로서 큰배가 드나들고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했던 곳이기에 고막대사가 동서를 가로지르는 목조가구식 길이 20.1m, 너비 1.8m, 높이 2.1m의 널판형 돌다리를 설치하여 한양 길을 편리하게 하였으며 2001년 발굴조사를 통해 고려말에서 초기에 설치된 돌다리로 확인되어 2003년 3월 14일 보물 1372호로 지정되었다.

·고막원터(古幕院址) : 박고흥씨댁을 중심으로 한 일대를 고막원터로 추정하고 있으며, 고막원은 고려, 조선시대까지는 무안현에 속했던 원으로써 고막천변 고막석교 부근에 설치되었다.

· 고막대사비(古幕大師碑) : 고막천변 길가에 위치하여 고막대사비로 전해오고 있으나 비면이 마모되어 내용을 판독할 수 없다.(높이 96cm, 너비 55cm, 두께 18cm)

· 현감조규순청덕비(縣監趙奎淳淸德善政碑) : 동학혁명의 장본인 고부군수 조병갑의 아버지로 무안현감 재직시에 세운 호패형 비이다.

· 고막석교유적비(古幕石橋遺蹟碑)

· 묵헌밀양박공동규효행실적비(默軒密陽朴公東圭孝行實蹟碑)
· 석당밀양박종민기행비(石塘密陽朴鍾珉記行碑) <그 밖의 유물은 고려시대 유적과 유물을 볼 것>

o 노거수

·팽나무 : 고막천석교와 고막교 중간에 위치한 220년 수령의 높이18m, 폭4.3m로 수관이 2개이며 역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 노거수로 정월대보름에 당산제를 지내고 있다.(마을나무로 지정)

o 배출인물

·한갑웅 : 육군대령
·박상열 : 의학박사
·김동식 ; 나산고등학교 교장
·김규준 : 함평군 기획 예산 실장
·박창남 : 담양경찰서 정보과장
·김동준 : 함평천지 뷔페 휴게소 사장
·서재열 : 서울 신림1동 파출소장

(2) 신촌(新村)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샛 터 → 신 촌 (新村)	군에서 12.5km, 면에서 7.5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35	18	17	20	20		9.0	1.0	6.0	2.0		미맥

거주 성씨	나주정	김해김	나주임	광산고	수원황	이천서	밀양박	제주양	파평윤	청주한	금성오
가 호	1	4	1	1	1	1	5	1	1	1	1

o 마을의 형성

이 마을은 약 200년전 경주김(慶州金)씨가 입향하였다고 하나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고 당시는 금동면(錦東面) 영천동(永川洞)이라 불렀고 현재는 여러 성씨가 모여 살고 있으나 원래 원고막(元古幕)에서 살았던 사람이 매년 반복되는 홍수를 피해 새로운 마을을 형성하여 정착하였다 하여 마을 이름을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이후에 “신촌(新村)”이라 하였다 한다.

신촌

o 자생 조직

·공동회 : 1979년 마을의 공동 관심의 해결을 위해 조직

o 공공건물

·함평천지 뷔페 휴게소 : 광목간을 오가는 이의 쉼터로 명소가 됨
·함평천지 예식홀 : 함평군민을 비롯 인근 시군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예식홀이다.

(3) 장미마을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재생원(再生院) – 장미마을	군에서 12.0km, 면에서 7.0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34	17	17	19	19		3.0	2.0	1.0			축산 미맥

거주 성씨	구	김	백	송	이	임	장	정	조	최
가 호	1	5	1	2	1	1	3	3	1	2

o 마을의 형성

이 마을은 1963년초부터 개촌(開村)되었다.

군내 각지를 떠돌던 음성 나환자(陰性 癩患者)를 정착시켜 재생(再生)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하에 정착했는데 1982년 보조금과 융자를 비롯한 주민 자체부담으로 11동의 가옥이 신축되고 취락 개선사업(聚落 改善事業)이 펼쳐졌다. 교육시설로 학다리중앙초등학교 신성분교장이 있다.

o 공공건물

·마을 시정 : 1980년에 세워져 휴식처가 됨

(4) 광진(廣津)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고호(古湖) →광진(廣津)	군에서 14.0km, 면에서 9.0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36	16	20	18	18		62.0	17.0	15.0	30.0		미맥

거주성씨	천안 전	광산 김	전주 이
가 호	10	5	2

o 마을의 형성

부옛적 맹 처음에 기씨가 마을의 터를 잡아 살았고, 그 후로는 장씨가 살았다하며, 그 후로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에 천안전씨(天安全氏)가 입촌 정착하여 살고 있다고 한다. 정착하게

된 천안전씨(天安全氏)인 전경후(全景厚)가 입향한 후 광산김씨(光山金氏)와 전주이씨(全州李氏)가 입향하여 마을을 이루었으며 전경후(全景厚)가 입촌을 기념하여 심었다는 팽나무 두 그루가 지금도 그 자태를 뽐내며 마을을 지키고 있다. 그 당시는 마을 앞의 영산강 줄기가 바다같이 넓은 곳이었는데 건너편 나주땅과 왕래하는 나룻터를 만들어 그 이름을 광나루라 하였기에 마을 이름 또한 광진(廣津)이라고 하였다 한다.

광진

o 자생 조직

·상조계 : 1980년에 상호간의 애경사시 협력을 목적으로 결성

o 공공건물

·마을회관 및 창고 : 1998년 마을사 회의장과 마을 공동 비품을 보관하는 창고였던 옛 건물을 철거하고 2009년 재건축하여 마을회관 및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음.

·마을시정 : 1987년 마을 앞에 건립한 시정으로 마을민들의 쉼터로 활용되고 있음

·광진경로당 : 2009년 세워 노인들의 휴식 공간이 되고 있음.

o 유적과 유물

·효열문 : 1880년에 송파공 전익서(松坡公 全益瑞) 유은공 전사진(幽隱公 全仕鎭)의 효행과 열녀인 인동장(仁同張-天安全氏 영진의 처)씨를 기리기 위해 세웠다.

·효열문 : 1930년 효부(孝婦) 제주양(濟州梁 - 전장업의 처)씨를 기리기 위해 세움

o 마을과 관련되는 전설

·범바위 : 옛적에 범과 소가 싸웠는데 소가 이겨서 범이 억울하여 울다가 굳어진 바위라는 전설이 있다.

·곽씨바위 : 산 중턱에 곽씨바위가 있는데 곽씨가 떨어져 죽었다는 곳으로 현재도 떨어질 때 박힌 발자국이 있다.

o 노거수

·팽나무 : 마을 앞 들판에 위치하고 6개의 수관을 형성한 마름모꼴 형태의 300년 된 노거수로 높이20m, 폭4.5m(마을나무로 지정)

o 배출인물

·전기숙 : 우체국장 역임
·전종갑 : 경찰청 총경 역임
·전현식 : 부산 세무과장
·전대홍 : 부산 동래구 우체국장

(5) 송암(松岩)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호장 → 용현 → 샛터 → 松岩	군에서 13.5km, 면에서 8.5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14	7	7	6	6		23.0	12.0	5.0	6.0		미맥

거주성씨	청주 한	이천 서	김해 김	함양 박	광산 노
가 호	2	1	1	1	1

o 마을의 형성

지금으로부터 300여년전에 청주한씨가 입촌하여 김해김씨와 기타의 성씨와 함께 한 마을을 이루었다.

그 후 고막(古幕)에는 어선이 드나들고 상인이 많아 거처가 불편 부족하여 1835년(헌종 1년)에 지금의 마을을 개촌(開村)하였다고 한다.

o 공공건물

·동각 : 1994년 마을길 옆에 세워져 오가는 이의 휴식처가 되고 있다.

o 유적과 유물

·교지(敎旨) : 학교면 고막리 2구 광진마을에 조선왕조시 진사시 시서(進士試 試書) 순조 어인(御印)찍힌 교지와 서류를 한상태가 보관하고 있음.

· 남계전기숙공적비(南溪全淇琡功績碑)

o 배출인물

·한철리(韓轍履) : 1783. 3. 8 호남유림문장(湖南儒林文章)으로 진사시에 입격하였고 당시 장성의 변만리(邊萬里), 고산의 백운기(白雲起), 만경의 어득경(魚得頃) 등과 함께 이름을 떨쳤다.

2) 곡창리(谷昌里)

이 지역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는 목포부 진례면(木浦府 進禮面)과 좌촌면(左村面)에 속했었다.

당시 이제(里制)를 시행하면서, 진례면(進禮面) 고창(古昌), 대곡(大谷), 사포(沙浦)와 좌촌면(左村面) 회춘동(回春洞) 일부를 묶어 대곡(大谷)의 "곡(谷)"자와 고창(古昌)의 "창(昌)"자를 따 곡창리(谷昌里)라 하였다.

(1) 사포(沙浦)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사 포(沙浦)	군에서 10.0km, 면에서 3.0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6	3	3	4	4		31.0	1.0	27.0	3.0		오디

거주성씨	함평 이	회진 임	경주 최	김해 김	진주 정
가 호	2	1	1	1	1

사포

o 마을의 형성

이 마을은 대굴포(大堀浦)가 군사기지로 전함(戰艦)이 드나들던 때부터 사포 나루가 있었던 곳으로 사공(沙工)이 손님이 있을 때만 건너 주곤 하던 차에 어느 날 명풍(名風)이 나루를 건너오며 하는 말이 그대가 하는 일이 너무 복받을 일이로되 내가 그대에게 명당(明堂)자리를 하나 잡아 주겠노라며 나루터가 바로 내려다보이는 곳에 묘터를 정해 주어 지금도 금성나(錦城羅)씨의 선산묘(先山墓)가 나루터를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그 뒤 일본사람 강부차랑(康府差郎)이 나루터를 관장하면서 전성기를 맞아 선표(船票)를 팔며 운영하였던 곳이 1985년 나주시 동강면으로 가는 확포장 된 도로와 튼튼한 다리가 놓이게 되어 교통이 편리하게 되면서 관광지로 변화되고 사포관광지구 종합개발 계획(沙浦觀光地區 綜合開發 計劃)이 수립 그 추진이 가속도를 얻고 있는 마을로 관광지에 맞는 업종으로 주민 전체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원곡마을민들과 어울려 생활하고 있다.

o 유적과 유물

·옥수봉 우단터(玉岫峯 雩壇址) : 함평천이 영산강 본류와 합류하는 사호강변으로 전라수군처치사영의 병사들의 군막이 설치되었던 곳으로 한발시는 기우제를 지냈던 곳이기도 하다.

(2) 원곡(元谷)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고창산(古倉山) → 곡창(谷昌) → 원곡(元谷)	군에서 9.0km, 면에서 2.0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150	76	74	68	68		127.0	47.0	26.0	54.0		미맥 양파

거주 성씨	장흥 고	청주 한	김해 김	장수 황	함평 이	남평 문	밀양 박	무안 박	인동 장	장흥 유	해남 윤	교동 인
가호	2	3	9	2	1	1	9	2	8	1	2	1

o 마을의 형성

원곡

이 마을을 최초에 이룬 성씨는 고(高)씨며 이어 김해김(金海金)씨 김여경(金汝慶, 1589년생)이 1600년대 초에 나주군 공산면(公山面)에서 이거 정착하였고 1850년경에 밀양박(密陽朴)씨 박영진 (朴永 震)(1822~1894)이 입촌했으며 100여년 전에 인동장(仁同張)씨 장흥서(張興緖)가 이주(移住) 정착(定着)하여 그 후손(後孫)들이 살고 있다.

이 마을은 예전(壬辰亂前)에 군량미(軍糧米)를 저장했던 창고가 있었기에 고창산(古倉山)이라(1789년 호구총수 지명에도 고창산(古倉山)으로 표기됨) 일제강점기에 "창(倉)"을 창(昌)"으로 바꾸어 표기하고 있다.

이 마을에 창고(倉庫)가 있었던 것은 전에는 영산강이 깊어 이곳까지 큰배가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o 자생 조직

·원곡총회 : 1930년 79명이 마을의 발전계획과 친목도모 및 품삯 결정

o 공공건물

·농기계 보관창고 : 1997년에 300m를 건축 마을의 농기계를 보관관리
·동각 : 2001년 군의 지원을 받아 마을민이 건립하여 휴식처로 활용함.
·곡창경로당 : 2001년에 세워져 마을 노인분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다.

o 유적과 유물

·고인돌 : 학교면 곡창저수지 인근 여우골에 8기가 현존하여 목포대학 탐사진이 답사 조사 연구 중임.
·장수황부인효열비(長水黃夫人孝烈碑)

o 풍수지리 및 중요한 지명

·원곡 둑방의 솔숲 : 원곡 마을의 앞에는 호남선 철도가 남북으로 쭉 뻗어있고 마을 중앙에는 저수지가 주택지와 인접해 있으며 그 둑에는 150여년 된 소나무가 마을을 온화한 마을로 감싸주고 있는데 찬 대륙풍을 막아주며 마을의 복을 오래도록 나가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송림이라며 마을 보호림이며 이중 10그루는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o 배출인물

·김동진 : 경감역임
·박순구 : 육군중령 예편
·김영윤 : 육군소령 예편
·한재관 : 이비인후과의원장
·김한구 : 국무총리상 수상
·김동규 : 나주우체국장

(3) 대곡(大谷)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대 곡(大谷)	군에서 110km, 면에서 4.0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9	4	5	6	6		89.0	6.0	5.0	75.0	3.0	미맥

거주성씨	함종 어	밀양 박	김해 김
가 호	2	3	3

o 마을의 형성

이 마을은 1408년 전북 옥구(全北 沃溝)에서 옮겨온 전라도수영(全羅道水營)이 1432년까지 존속한 수영터로 대굴포 전라수영(大堀浦全羅水營)이라고 불렀다.

마을 동편에는 대굴사(大堀寺)라는 고려 때의 절이 1667년까지 있었고 지금 마을 상수원으로 쓰고 있는 샘은 옥천(玉泉)이며 창골은 강소창(舡所倉)터로 보고 있으며 수통막(水統幕)은 배가 들고나는 것을 통제(統制)하던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곳에 마을이 형성된 것은 전라수영의 설치로 미루어보아 아주 오래된 것이 사실일 것 같으나 개촌 했던 성씨들의 유래는 전하여지지 않고 지금으로부터 약200여년전에 밀양박(密陽朴)씨와 김해김(金海金)씨, 함종어(魚)씨가 들어와 살았다.

함종어씨의 입촌은 대곡(大谷)의 유적 대굴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안현감(務安縣監)을 지낸 어진열의 아들 묘소와 관계가 있다.

이곳이 원래는 대굴포(大堀浦)였다. 우리말에 골과 굴이 혼동되어 쓰임에 따라 언제부터인가 대굴(大堀)이 대곡(大谷)으로 바꾸어 표기(1789년 호구총수 지명에도 대곡이라 표기됨) 되었다.

대굴이 대곡으로 바뀌어 부름에 따라 이곳이 옛 수영터였던 것을 까마득이 모르고 있다가 근년에야 여러 기록에 의해 확증을 얻어 옛 수영터였던 사실이 밝혀졌다.

함종어씨(咸從魚氏)가 대곡마을에 들어온 것은 동지공휘사충(同知公諱史忠)이 1725년 5월 16일에 서울에서 타계하여 당시 무안현 대곡마을에 매장하였다는 묘비문의 기록으로 보아 그의 아들 휘유호(諱有浩)에게 무안현감 어진열(魚震說)이 선점한 땅을 멀다고 버리지 말고 본인을 묻어달라는 유언에 따라 일찍 타계한 모친을 1717년에 먼땅 이곳에 이장(移葬)하는 지극한 효성심을 보인 함종어씨가 대를 이어온 점과 휘유호(諱有浩)와 휘석이(諱錫履) 함께 시묘살이를 시작한 1725년에 개촌하였다는 주장도 있다.

o 자생 조직

·촌계 : 1962년도에 14명이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목적으로 조직.

·친목계 : 1984년도에 12명이 동네 애경사시 동참과 친목도모 목적으로 조직.

o 공공건물

·동각 : 2002년에 군의 지원을 받아 마을민이 힘을 합하여 세워 휴식처가 됨

o 유적과 유물

·대굴포 전라수영터(大堀浦 全羅水營址) : 전라수군처치사영(1408~1432)터로 정유재란 때 무안군 출신 김충수(金忠秀·대종손은 대동면에 살고 있음)휘하의 의병과 왜병이 크게 싸운 전적지이다.

·대굴사터(大堀寺址) : 대굴산 아래에 있던 절로 고려 때는 원근에 널리 알려져 크게 번창하였던 절이다.

대굴사는 일명 옥천암이라고도 하여 절을 철거하면서 불상들의 기물은 (무안군 몽탄면 대치리에 있던 대가람으로 1810년 전후 폐찰됨)로 보내고 산은 어진열이 소유했다고 하며 지금도 어진열의 아들 묘가 있다.

·고려 명종 때 시인 김극기(金克己)의 시 :

서호(西湖, 지금의 영산강)의 흥취를 따라.
멀리 백연(白蓮)스님을 찾네.
대숲 동산(竹院)에 가을 일찍 맞이하고
소나무 가린 창문은 새벽빛을 늦게 보내네.
푸른 이끼는 깨끗한 길에 다투어 자라고
푸른 덩굴은 성긴 울타리를 기웠네.
돌아가는 말고삐 재촉해 무엇하라.
인간의 길은 평탄치 않은 것을.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 됨

·김대유(金大有)의 시 :

강상에는 전조의 절이 있고
층층 바위에는 빨간 기운서렸네
학사가 분명 기록하거늘
천년실은 탑이 구름 뚫은 절을 보네.
(江上前朝寺 層層赤氣氣 分明學士記 千載浚雲餘佛子)

무안 현읍지에 수록 됨

o 풍수지리 및 중요한 지명

·수 문 개 : 대굴포의 수영터 앞 수문장이 서 있던 위병소

·홀엄씨굴 : 홀어머니까 남의 눈을 피해 깎아지른 듯한 산 중턱의 굴속에서 베를 짜았다는 곳으로 베틀 자리와 둥잔대의 자리가 바위틈에 선명하게 남아 있는 굴이다.

·호랑이 골 : 호랑이와 할머니가 함께 지냈다는 전설로 호랑이 상을 한 한 할머니가 호랑이로부터 영을 받아 마을로 내려와 예언을 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4) 신곡(新谷)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신 곡(新谷)	군에서 10.0km, 면에서 3.0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20	10	10	4	4		23.0	6.0	5.0	12.0		미맥

거주성씨	무안 박	광산 김	제주 양	함종 어	기 타
가 호	2	1	1	1	

o 마을의 형성

신곡

이 마을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여년 전 밀양박(密陽朴)씨가 입향(入鄕)하였으며, 거의 동시에 제주양(濟州梁)씨가 입향하였고 지금은 기타 성씨와 함께 살고 있다

폭이 좁고 골짜기가 길어 옛날에는 “가는(細)골”이라고 불렀으나 100여년전부터 세월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계곡(溪谷)에 마을이 생겼다 하여 여기에서 “신곡(新谷)”이라고 하였다. 한다.

신곡에는 함평다이나스티 골프장이 2000년에 세워져 27홀 규모의 전국적으로 유명한 양잔디 골프장 조성으로 일 년 내내 골프마니아들이 푸른 잔디광장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있기도 한다.

o 자생 조직

·촌계 : 1962년도에 20여명이 마을 대소사시의 처리에 대한 의사 결정

o 공공건물

·신곡 기도원 : 정신박약자 수도원

o 유적과 유물

·고인돌 : 신곡 세방저수지 제방 아래와 ‘가늠골’ 부근에 모두 17기의 고인돌이 타원형 형태로 배치되어 있으며 그 중 6기가 확인되고 있음

(5) 서당매(書堂山)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서당매(書堂山)	군에서 9.0km, 면에서 2.0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68	40	28	22	22		20.0	9.0	5.0	5.0	1.0	미맥

거주 성씨	순천 박	나주 김	전주 이	무안 박	배	전	정	임	신	나	어	송
가호	3	4	3	1	1	2	1	2	1	1	2	1

o 마을의 형성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년 전 순천박(順天朴)씨가 입향한 후 전주이(全州李)씨와 김해김(金海金)씨가 뒤를 이어 입향하였으며 현재는 이 세 성시가 마을의 주축을 이루며 살고 있다.

80여년 전만 해도 무명촌(無名村)이였으나 옛날에 한 선비가 열심히 글을 가르치던 매화꽃이 울창한 서당이 조그마한 산에 있었다고 해서 마을명을 "서당매(書堂山)"라고 하였다 한다.

신곡에 세워진 함평다이나스티 골프클럽의 영향으로 마을 도로변을 따라 식당이 많이 생겨나 성업중으로 보다 다양한 생활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마을이다.

o 자생 조직

·위친계 : 1970년도에 21명이 애경사시 상부상조하기로 결성

·촌중계 : 1971년도에 22명의 가호가 마을민의 친목도모와 마을 발전 협조

o 공공건물

·동각 : 2002년에 군의 지원을 받아 마을민의 힘으로 세워 휴식처가 되고 있음.

·경로당 : 2005년에 군의 지원을 받아 노인분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음.

3) 금송리(錦松里)

이 지역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는 목포부 진례면(進禮面)이었다가 함평군 학교면(鶴橋面)에 편입된 지역이다.

당시 이제(里制)에 따라 진례면(進禮面), 방우동(放牛洞), 반곡동(反谷洞), 금산동(錦山洞), 향동(香洞), 반송(反松), 기동(基洞)의 일부를 묶어 금산동(錦山洞)에서 "금(錦)"자와 반송에서 "송(松)"자를 따 금송리(錦松里)라 하였다.

(1) 반송(盤松)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반 송(反松)	군에서 11.0km, 면에서 4.0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24	12	12	12	12		50.2	27.0	8.2	15.0		미맥 양파,마늘

거주성씨	고령 신	정	이	조
가 호	5	4	2	1

o 마을의 형성

이 마을은 1789년 호구총수 지명에 보면 반송정(盤松亭)으로 되어 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의 지명은 반곡(反谷)과 반송(反松) 두 마을로 나뉘어져 있으며 한자(漢字)표기도 다르다.

지금은 후동, 반곡, 반송을 합해 옛날과 같이 반송(盤松)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 마을에는 맨 먼저 고령신(高嶺申)씨 냉(冷)이 1526년경(冷은 1506년생)에 입촌했으며 이어 금성나(錦城羅)씨 창서(昌署, 1568년생)가 1590년경에 입촌했고 이어 인평대군(麟坪大君) 준(濬)의 후손인 전주리(全州李)씨 무림군(茂林君)이 1650년경 귀양(歸養)왔다가 정착하여 그 후손이 대대로 살아오고 있다.

마을 이름을 반송(盤松)이라 정한 전설은, 마을이 생긴 얼마후 한 대사(大師)가 지나며 마을 이름이 무어냐고 물었는데 없다고 하자 조그마한 연못가에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음을 보고 연못이 소반(小盤)처럼 생겼으니 “반송(盤松)”이라 하라 했다고 한다.

연못은 지금 방앗간이 들어서 있는 자리다.

o 자생 조직

·촌중계 : 1956년도에 36명이 문중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조상의 얼을 되새겨 선행에 힘씀
·부녀친목회 : 1975년에 35명이 친목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직

o 공공건물

·마을 시정 : 1998년도에 20m2를 건축하여 마을민의 휴식처로 사용
·마을회관 : 함평군의 보조와 출향인사 마을민의 출연으로 7,000여만원을 들여 2005년 5월 완공하여 마을회관 및 경로당으로 활용함
·금송경로당 : 2001년에 세워 마을의 노인분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음

o 유적과 유물

·선돌 : 입향조 신 영의 후손 한 아낙이 자식을 얻으려고 공을 드리기 위해 치마폭에 싸 가지고와 마을 동각 옆에 세운 돌이라 한다.

·반환재(盤桓齋) : 반곡마을 북쪽 산 말단부에 고령 신국조(申國操)와 신우조(申佑操)가 건립하였고 반환재 현판과 송철현의 시가 게액되었다.

·노거수 : 학교면 금송1리에 1640년경 식수한 수령 360년 된 느티나무이다.

o 배출인물

·신세장 : 조선조 숙종때 부호군을 지냄 ·신천련 : 함평군청 과장 역임

·신영우 : 경감 역임 ·신주호 : 광주시청 과장 역임

·신봉호 : 파출소장 ·신순호 : 서울에서 약국 경영

·신계륜 : 14대 국회의원, 현 서울시부시장 ·김천규 : 수원검찰청 사무관

(2) 반곡(盤谷)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반 곡(盤谷)	군에서 11.5km, 면에서 4.5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70	30	40	32	32		41.0	22.0	8.0	11.0		미맥

거주성씨	금성 나	전주 이	인동 장	광산 김	배	정
가 호	9	1	1	2	1	1

o 마을의 형성

이 마을은 1510년경 금성나(錦城羅)씨가 개촌하여 전주이(全州李)씨, 인동장(仁同張)씨, 무안박(務安朴)씨가 함께 오순도순 살면서 마을을 이루고 있으나 금성나씨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반곡

o 자생 조직

·촌계 : 1930년 마을민 전체가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조직

o 공공건물

·시 정 : 주민의 휴식처로 마을민 전체가 힘모아 세움

·반곡제 : 1650-1659 조선조 효종때 교관 나위환이 개축(改築)한 군내에서 가장 오래된 저수지로 400여년의 문헌상 기록이 남아있다.

원래의 이름은 반송정제(盤松亭堤) 둑의 길이 272보(步)로 창주사(滄州祠)에 속하게 하였고

원래 두 개의 저수지였는데 1924년 하　나로 합하여 반곡제(盤谷堤)라 했다.

o 노거수

·팽나무 : 학교면 금송리 반곡에 1550년도 식수한 450년 된 팽나무이다.

·느티나무 : 마을 우물가에 2그루가 위치하고 있으며 수관은 4개이며 수령은 360년 정도이다.

o 배출인물

·나학주(68) : 초등학교장 역임　　·나문채(36) : 변호사

·나광채(66) : 학원장　　·나정주 : 농협중앙회 대리

·나관채(52) : 전남대학교 교수　　·나병철 : 한일은행 차장

(3) 향동(香洞)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상 동(上洞) → 향 동(香洞)	군에서 11.0km, 면에서 4.0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43	17	26	25	25		13.0	5.0	3.0	5.0		미맥

거주 성씨	영성 정	이천 서	무안 박	전주 최	제주 양	창녕 황	함평 이	광산 김	파평 윤	함평 모	손
가호	7	4	3	3	2	1	1	1	1	1	1

o 마을의 형성

이 마을은 지금으로부터 400여년 전 제주양(濟州梁)씨가 최초로 입촌하였다고 하나 정확히는 알 수 없고 양씨가 신안군 지도면(智島面)으로 이거한 후 전주최(全州崔)씨가 약 250여년전에 입촌하였으며 약 170여년 전에는 압해정(押海丁)씨와 이천서(利川徐)씨가 무안군 몽탄면(夢灘面)에서 이거 정착했고 지금은 영성정(靈城丁)씨가 많이 살고 있다.

그리고 이 마을에는 학다리초등학교 금송분교장(錦松分校場)이 위치하여 이 고장 영재교육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약 400여년 전 제주양(濟州梁)씨가 입촌하여 옆 마을인 금산(錦山)보다 윗 쪽에 위치한다 하여 “상동(上洞)”이라 불렀는데 그 후손이 거부장자(巨富壯者)로 살았다 하여 지금도 “장자터(壯者址)”라 부르기도 한다. 그 후 전주최(全州崔)씨가 입촌하면서 기념으로 심은 향나무(香木)가 잘 자랐기 때문에 마을 이름을 “향동(香洞)”으로 개칭했다 한다.

o 자생 조직

·문중계 : 1975년도에 15명이 창계하였고 문중의 우의와 친목도모

·위친계 : 애경사시 상호협력

o 공공건물

·금굴 앞 정자

o 유적과 유물

·향곡거사정순현기념비(香谷居士丁順鉉紀念碑)

o 배출인물

·정영승 : 보건사회부 행정서시관 ·정영호 : 암태중학교교장

·최 강 : 육군 중령 예편 ·최기선 : 국민회의 총무국장

(4) 금산(錦山)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금 산(錦山)	군에서 10.5km, 면에서 3.5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63	23	40	40	30	10	61.3	36.0	5.3	20.0		미맥

거주성씨	광산 김	나주 김	전주 최	무안 박	김해 김	함평 이	연안 차	전주 이
가 호	12	7	6	3	2	2	1	2

o 마을의 형성

금산

마을 앞에 고인돌이 있는 점으로 보아 이 마을의 정착년대가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된다.

그러나 옛날에는 이(李)씨가 살았다는 말만 전할 뿐이다. 확실한 것은 약 500여년 전에 전주최(全州崔)씨가 정착하였으며, 이어 광산김(光山金)씨 자분(自芬)의 손자(孫子)인 혼(混,1470-1534)이 1500년대에 학교면 월산리(月山里)에서 이주 정착하였고 약 160여년 전에 나주김(羅州金)씨, 약 140년 전에 무안박(務安朴)씨 그리고 약 90여년 전에는 김해김(金海金)씨가 정착하는 등으로 여러 성씨가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속금산(束金山)이라는 마을 뒷산의 명칭을 다서 마을 이름을 "금산(錦山)"이라고 하였다고 하며(1789년 호구총수 지명 속금산) 속금산의 우뚝 솟은 봉우리를 멀리서 보면 학이 날개를 펴고 있는 듯 하다.

속금산(束錦山)은 원래 용금산(湧錦山)이라 했는데 그 이름처럼 금광(金鑛)이 많이 있으며 풍수지리설에 따라 전하는 바에 의하면 전승(戰勝)한 개선장군형(凱旋將軍形)이라고도 한다.

o 자생 조직

·촌중계 : 1972년도에 40명 촌민의 우의와 친목도모
·친목계 : 1980년도에 20명의 동갑나기들의 친목도모
·관광계 : 1975년도에 18명이 친목과 관광으로 식견 높이기

o 공공건물

·창고 3동 : 농산물 정부양곡 보관 창고
·진례보건진료소와 찜질방 겸 건강센타 2동
·동각 : 2009년 마을민과 군의 협조하에 새로이 세워짐
·금산경로당 : 1980년에 마을민의 힘으로 세워져 노인들의 휴식공간이 되고 있음.

o 유적과 유물

·금우사(錦宇祠)와 양세삼강문(兩世三綱門) : 금송리 금산촌에 조선 숙종 19년 (1639년) 금우사와 양세삼강문을 내림
  – 이조좌랑(李朝佐郞) 김경온(金景溫)
  – 종성부사(鐘城府使) 김자분(金自芬)
  – 보령현감(保寧縣監) 김 혼(金 混)
  –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 김수연(金壽淵)
  – 군기감(軍器監) 김몽룡(金夢龍)
  – 나주수문장(羅州守門將) 김기택(金箕澤)
·효부남원양씨기행비(孝婦南原梁氏紀行碑) : 금송리 금산마을에 있음
·증교관동몽최공숙인전주이씨효행비(贈敎官童蒙崔公淑人全州李氏孝行碑): 금송리 금산마을에 있음
·마을 앞 밭에 고인돌군이 있었는데 도로확포장과 보건센타 신축으로 땅속에 묻어버림
·서당골 : 마을 뒤편 속금산 자락에 옛날 서당이 있었다하여 서당골이라 함
·정서우여사공적비(鄭瑞佑女史功蹟碑)
·호정거사양공봉구송덕비(湖亭居士梁公奉九頌德碑)
·광산김씨양세삼강비(光山金氏兩世三綱碑)
·속금산 우단터(束錦山 雩壇址) : 속금산 정상에 위치한 기우제 터이다.

o 풍수지리 및 중요한 지명

·속금산(束錦山) 한 자락 : 함평군 학교면 금송리의 속금산은 전승한 개선 장군형이라 한다. 월호리와 석정리의 경계에 있는 마산(馬山)은 물을 마시고 있는 장군의 애마(愛馬), 이며, 기동(基洞)의 뒷등 칼등은 장군의 칼이요, 향동(香洞)옆의 제장곡(諸將谷)은 장군을 따르는 장수들이며 석정리 건지산(乾支山)은 장군의 깃발이다. 그래서 속금산을 중심으로 한 주변

에 장군대좌(將軍臺座)의 명당이 있다하여 지관들이 많이 드나들었는데 속금산 정기를 받은 장군대좌의 명당이 바로 학다리 초등학교 금송분교장터라고 말하고 있다.

o 배출인물

·김수연 : 정유재란의 충신, 무과급제, 사헌부의 집의
·김재당 : 제19대 학교면장 역임
·김재수 : 육군 대령 예편
·김회현 : 육군 중령 예편
·김국성 : 민주평통자문위원
·김인구 : 지서장 역임
·김경현 : 육군소령 예편
·김영도 : 육군중령 예편
·김제윤 : 고등학교장 역임
·김철현 : 육군소령 예편

(5) 방우동(放牛洞)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방우동(放牛洞)	군에서 10.0km, 면에서 3.0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38	12	26	23	23		33.0	15.0	6.0	12.0		미맥

거주성씨	하동 정	김해 김	무안 박	나주 김	함평 이	금성 나	전주 이
가 호	15	3	2	1	1	1	1

o 마을의 형성

지금으로부터 약150여년 전 하동정(河東鄭)씨 정두경이 입촌하였고 지금은 여러 성씨가 모여 살고 있으며 마을의 뒷산 형태가 고삐 풀린 소가 풀을 뜯는 모습이라 해서 마을 이름을 “방우동(放牛洞)”이라고 하였다 한다.

그리하여 현재 함평천지 한우를 기르는 농가가 많은데 왠지 모르게 소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 마을의 큰 소득원이 되고 있다.

o 자생 조직

·촌중계 : 1975년도에 21명이 창계하였고 마을과 문중의 우의와 친목도모

o 공공건물

·함평군위생환경사업소 : 함평군 축산폐수 처리장
·동각 : 1992년 마을민의 힘으로 세워져 오가는 이의 쉼터가 되고 있음.
·방우동경로당 : 2009년 군의 지원을 받아 마을민이 합심하여 세워 노인휴식공간이 됨

o 유적과 유물·노거수

·고인돌 : 방우동 서편 2Km 지점 도로변에 6기와 동서축 선상에 3기가 있음.
·노송1그루 : 마을 어귀에 있고 수령 250년
·방우저수지 : 마을 어귀에 오래된 저수지가 있다.
·통훈대부운계하동정공두경유허비(通訓大夫雲溪河東鄭公斗璟遺墟碑) : 금송리 방우동에 있음
·일암정공숙인이천서씨효열비(逸庵鄭公淑人利川徐氏孝烈碑): 금송리 방우동에 있음

o 배출인물

·정윤채 : 장항병원 의사
·정중채 : 변호사
·정영용 : 육군중령
·정찬선 : 검찰청 사무관
·정찬기 : 공군중령

4) 마산리(馬山里)

이 지역은 1914년까지는 목포부(木浦府)에 속했다.

1914년 이제(里制)를 실시하면서 금동면(錦洞面)의 표산(杓山), 신평(新坪), 신기(新基), 청수원(清水院), 옥마동(玉馬洞)과 호암(虎岩), 좌촌면(左村面),의 반암(磻巖), 덕산(德山), 각 일부를 합해 옥마동(玉馬洞)에서 "마(馬)"자와 표산(杓山)에서 "산(山)"자를 따 마산리(馬山里)라 하였다.

(1) 옥마동(玉馬洞)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옥마동(玉馬洞)	군에서 5.0km, 면에서 4.0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12	6	6	8	8		29.0	6.0	3.0	18.0	2.0	미맥

거주성씨	무안 박	밀양 박	함평 노	경주 이	김해 김	강
가 호	3	1	1	1	1	1

o 마을의 형성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년 전 임진왜란 때 무안박(務安朴)씨가 은신처로 삼기 위해 입향하여 마을을 형성하였고 이후 다른 성씨가 입향하였으며 지금은 여러 성씨가 살고 있다.

마을 뒷산의 형국이 말(馬)이 옥(玉)을 신고 있는것같다고 하여 옥마산(玉馬山)이라 이름 붙였다고 하며 여기에서 연유하여 마을 이름도 "옥마동(玉馬洞)"이라고 하였다.

옥마동

o 공공건물

·동각 : 1950년에 마을민의 힘으로 세워 마을민의 휴식처가 되고 있음.

o 유물 유적

·진주정씨 제실 : 진주정씨의 제실이 웅장하다.

·효·열·현모 고로순여사 사모비(孝·烈·賢母 高路順女史 思慕碑)

o 배출인물

·박석천 : 광주지검 사무국장역임

·박종일 : 전라북도에서 목사

·박천재 : 도의회부의장역임

(2) 청수원(淸水院)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청수원(淸水院)	군에서 5.0km, 면에서 4.0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95	49	46	42	42		94.3	30.0	10.3	54.0		미맥

거주 성씨	함평 노	밀양 박	무안 박	김해 김	광산 김	진주 정	해남 김	전주 최	함평 이	인동 장	파평 윤	이천 서	풍산 홍	평산 신	오
가호	17	4	3	4	2	2	1	1	1	1	1	1	1	1	1

o 마을의 형성

청수원

지금으로부터 450여년 전 함평노(咸平魯)씨와 밀양박(密陽朴)씨가 입촌하여 마을을 형성한 것으로 전해오고 있으며 이 마을에 이주해 온 사람들은 원래 현 죽정리(竹亭里)인 새터에서 살았으나 잡귀(雜鬼) 때문에 살지 못하고 이 마을로 옮겨 왔다 한다.
현재는 노시와 박씨 외에 여러 성씨가 모여 함께 살고 있다.

함평노씨와 밀양박씨가 이곳에 이주해 와서 사는데 식수(食水)가 좋아 병이 없고 불구자가 생기지 않아 마을 이름을 '청수원(淸水院)'이라고 하였다 한다. "원(원)"이 붙은 곳은 역원(驛院)이 있던 곳인데 역원의 이름에 청수원(淸水院)이란 이름이 없어 고증하지 못하고 있다.

o 자생 조직

·동계 : 1961년도에 41명이 마을의 새해 설계 및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조직.

·노인회 : 1993년도에 43명이 노인 건강증진 및 친목도모를 위해 조직

o 공공건물

·창고 : 1972년 165m2를 건축하여 농산물 및 비품보관

·청수원경로당 : 1997년 66m2를 건축 노인 휴식처로 활용

·동각 : 1989년 마을민의 힘으로 세워져 오가는 이의 휴식처가 되고 있음.

o 유물 유적

·청수원 고분군 : 청수원교회와 인접한 서쪽 구릉 상에 위치하고 대형의 전용옹관묘

o 노거수

·팽나무 : 마산리 청수원 시정 옆에 수령 450년 된 노거수로 3개의 수관을 형성

o 배출인물

·김유장 : 국토유지관리사무소 서기관 관리과장 ·노민식 : 초등학교장 역임

·박종상 : 육군중령 예편 ·윤덕중 : 기독교 목사

·박중겸 : 청주한국병원장 ·노영배 : 기독교 목사

·노창수 :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 문학박사 ·정진오 : 제주도 병무청장

(3) 신기(新基)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신 기(新基)	군에서 4.5km, 면에서 4.0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37	14	23	19	19		52.0	11.2	8.8	32.0		미맥

거주성씨	함평 노	무안 박	이천 서	밀양 박	김해 김	수원 최	양성 이	정	신안 주
가호	4	4	3	1	4	1	1	1	1

o 마을의 형성

지금으로부터 약 350여년 전 함평노(咸平魯)씨가 “복천리 두동(伏泉里 斗洞)”마을로부터 입향하여 세거지(世居地)를 이루며 살았는데 이어서 이천서(이천서)씨와 기타 성씨가 입향하여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이 마을은 새로운 터에 마을을 형성하였다 하여 마을 이름을 “신기(新基)”라고 하였다 한다.

o 자생 조직

·동계 : 1969년도에 20명이 마을민 화합과 단결을 위해 조직
·노인회 : 199년도에 15명의 노인 친목과 건강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조직

o 공공건물

·신기경로당 : 1997년 50m2를 건축하여 노인 휴식처로 제공
·동각 : 2008년에 군의 지원을 받아 마을민의 힘으로 세워 휴식처가 되고 있음.

o 노거수

·물버드나무 : 마을 안 도로변에 위치하며 2개의 수관을 형성하고 300여년 정도의 수령을 가지고 있다.

o 배출인물

·노삼영 : 학교농협장 역임 ·서권익 : 초등학교장 역임

(4) 신평(新坪)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신 평(新坪)	군에서 4.0km, 면에서 4.5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20	12	8	13	13		36.0	11.0	10.0	15.0		미맥

거주성씨	무안 박	김해 김	한양 조	함평 노	밀양 박	진주 정	나주 김	광산 노
가호	6	1	1	1	1	1	1	1

o 마을의 형성

이 마을은 근대(近代)에 와서 생긴 마을로 김해김(金海金)씨 무안박(務安朴)씨 나주김(羅州金)씨 등이 살고 있다.

김해김씨는 110여년 전에, 나주김씨는 약 60년 전에 사창(四昌)에서 이거 정착했다. 벌판에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하여 신평(新坪)이라 이름하였다.

o 자생 조직

·신평계 ; 13명이 마을의 발전협의와 친목도모를 위해 조직

o 노거수

·주엽나무 : 마을 안 도로변에 있으며 수령은 200년 정도이다.

o 공공건물

·동각 : 2003년에 군의 지원을 받아 마을민이 세워 휴식처가 되고 있음.

(5) 표산(杓山)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표 산(杓山)	군에서 3.5km, 면에서 5.0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91	45	46	43	41	2	109.0	50.0	10.0	49.0		미맥

거주성씨	진주 정	함평 노	함평 이	전주 이	나주 나	김해 김	밀양 박	한양 조	광산 김
가호	40	1	1	1	1	1	1	1	1

표산

o 마을의 형성

지금으로부터 약 220여년 전 1779년 진주정(晉州鄭)씨 충장공 분파(忠壯公 苯派)의 표은(瓢隱) 정관충(鄭寬忠)이 풍수지리학상(風水地理學上)이 마을은 동남으로 갈암산(葛岩山)과 서남으로 우등산(牛嶝山)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겨울추위를 막을 수 있고 양지가 될 수 있음을 좋게 생각하고 입향한 이래 지금까지 진주정씨촌(晉州鄭氏村)을 이루고 있다.

고산봉(高山峰)의 산맥이 뻗어 내린 박덩굴 형국이며 이 마을은 그의 열매가 맺힌 곳이라 하여 마을 이름을 바가지 표(瓢)자를 써서 "표산(瓢山)"이라고 명명하였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쓰기 편하게 하기 위해 표(杓)자로 바꾸어서 "표산(杓山)"이라고 하였다 한다.

o 자생 조직

·동 계 : 53명이 마을 발전의 종합적 추진을위해 조직
·향우계 : 1953년 마을의 발전지원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

o 공공건물

·건강관리실 : 1997년 99mm2에 농업에 종사하는 마을민의 건강관리 센타
·새마을 회관 : 1972년 66m2에 마을회의장으로 신축함
·마을 창고 2동 : 1075년 198m2에 마을의 비품과 농산물 보관
·농업 기술센터 : 함평군내 농업경영인의 선진교육센터가 1997년 세워졌다.
·동각 : 2002년에 군의 지원을 받아 마을민이 세워 휴식처가 되고 있음.
·표산경로당 : 1975년 마을민의 힘으로 세워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됨

o 유적과 유물

·표산사 (杓山祠) : 1867년에 마산리 표산마을의 충신각 뒤편에 세움
·충신각(忠信閣) : 임진왜란때 일등공신 신재 정감이 진주싸움에서 김천일 장군을 도와 왜병 수백명을 살상하고 장렬하게 전사하자 후에 그를 일등 선무원종 공신으로 책록하였으며 그의 공적을 후세에까지 길이 빛내기 위해 1867년에 마산리 표산 마을에 세웠음.

·고인돌, 돌방무덤, 독무덤 ; 이 마을 주변에 많았던 고인돌이 지금은 파묻히고 부서져 버려 정자나무 아래등에 1기만 남아있지만 고인돌이 많이 있었고, 마을 뒷산인 함평 노씨, 진주정씨 문중산에는 돌방무덤과 독무덤이 다수 있다.
이 중 돌방무덤은 왕묘, 왕능이라 구전되어 오고 있는데 일제강점기에 모두 도굴되었다. 1호 돌방무덤에서 서북쪽으로 500m 지점에 장군뫼라 전해오는 묘가 있는데 이는 "장군의 무덤이다"라는 말과 전쟁때 여러 사람을 합장한 무덤이라고 전하는데 지금은 헬리콥터 이착륙장이 되어 있다.

·느티나무 2그루 ; 충신각 신축시 심은 것으로 추정되는 느티나무 2그루와 소나무 2그루가 푸르게 자라고 있으며 소나무와 충신각 사이에 1기의 무덤이 있는데 언제 누구의 묘인 지는 알 수 없으나 소나무에 소를 매는 사람이 있었고 소가 무덤 위를 밟아도 잔디가 상한적이 없다고 하며 지금도 그 무덤이 남아있다.

·표은정공유허비(瓢隱鄭公遺墟碑)

·임란순절정장군공적기(壬亂殉節鄭將軍公績記)

·표산마을유래비(杓山마을由來碑)

이 마을은 鄭茶忠莊公愛日堂 12代 後孫 鄭寬忠께서 玉馬山에 先祖侍墓살이 끝에 북쪽 멀리보이는 高山峯 精氣받을 陽宅地를 發見 1789년(己酉) 봄에 안주하였으며 左靑龍, 右白虎에 박넝쿨 우거진 形局이라 하여 村名을 杓山(瓢山)이라 하였다.
이 마을은 人心 좋고 豊饒하여 子孫萬代 永遠히 繁榮할 고장이다.

·증 통정대부애귤재진주정공효행기적비(贈 通政大夫愛橘齋晋州鄭公孝行記蹟碑)

·망유정(望有亭)

우리 마을은 옛부터 산 좋고 물 맑으며 깃들어 사는 사람들의 인심이 또한 덧없이 후하고 맑았다. 1789년 기유년(己酉年) 봄 비로소 표산(杓山)이라는 이름을 얻어 더불어 사는 삶의 꿈을 부리기 시작하였다. 그 때의 풍류(風流) 깊으신 옛 어른들의 조촐한 초막(草幕)을 동구(洞口)에 지어 더러는 농사의 땀을 씻고 더러는 시(詩)와 가무(歌舞)를 즐기기도 하였으니 이는 우리 호남(湖南) 모정(茅亭)이 지닌 소박한 아름다움의 한 전형이라 부름직한 것이다. 오호라, 꽃 많이 피고 새들은 소리 높여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이 땅 위에서 우리들은 오래오래 조상(祖上)의 덕(德)을 기리고 새로 태어난 어린 것들의 손을 듬쑥잡고 세세손손(世世孫孫) 번영(繁榮)의 꿈을 누리고자 함이니 이 정자에 불어오는 바람소리 하나, 귀뚜라미 울음소리 하나 어찌 소중하지 않음이었으랴, 이에 마을이 일어선지 2백년도 더 지난 2002년 가을에 마을사람들 모두의 덕과 꿈을 모아 망유정(望有亭)을 짓고 하늘의 별을 우러러 보노라.

o 배출인물

·정 감 : 선무원종 1등공신

·정원강 : 1931. 3. 8 완도, 신안, 광양, 해남군수, 민선초대 함평군수, 전남체육회 상임부회장 역임

·정현두 : 1932. 11. 1 의학박사, 광주동산의원 원장 ·정수길 : 보해양조 순천공장장

·정경수 : 1926. 11. 3 학교면장, 학교농협장 역임
·정병섭 : 1935. 2. 22 서광주 전화국 총무과장
·정득근 : 1935. 3. 1 농업통계청 사무소장 ·정정남 : 1943. 4. 24 함평읍장 역임
·정종하 : 1944. 2. 12 대한공업진흥공사 익산사업소장
·정재곤 : 1944. 4. 16 새만금종합개발 부안사업소장
·정종진 : 1953. 5. 12 행정안전부 서기관 ·정안철 : 서울중앙병원 내과전문의
·정현화 : 1931. 10. 18 중학교장 역임
·정형배 : 1957. 2. 13 베를린공대 박사. 목포대 교수
·정권수 : 1957. 1. 23 순천대 사범대 교수
·정정원 : 서울사업대 건설구조공학과 강사 ·정호웅 : 전매청 과장
·정용진 : 사찰 주지 ·정용균 : 기독교회 목사
·정송본 : 월남참전 화랑무공훈장 ·정국기 : 1938. 3. 1 해남 삼산초등학교 교장 역임
·정정대 : 서울영등포 형제약국 ·정택규 : 학교면장 재직
·정진호 : 1963. 3. 25 행정안전부 사무관 ·정태연 : 함평천지농협조합장
·정영춘 : 영풍건설 대표이사 ·정대권 : 광산구청 사무관
·정영섭 : 신안군 도초면장 역임 ·정진우 : 구례우체국장 역임

5) 복천리(伏泉里)

1914년 이제(里制)를 시행하면서 목포부 금동면(錦東面)내동(內洞), 모란동(牧丹洞), 복암(伏岩), 외치(外峙), 석천동(石泉洞), 두서(斗西)와 신노면(新路面, 현 엄다면) 장동(壯洞) 그리고 나주군 거평면(居平面, 편 문평면) 죽곡(竹谷), 고호(古湖) 각 일부를 합해 복암(伏岩)에서 "복(伏)"자와 석천(石泉)에서 "천(泉)"자를 따 이명(里名)을 복천리(伏泉里)로 하였다.

(1) 두동(斗洞)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두지동(斗之洞) → 두서(斗西) → 두동(斗洞)	군에서 13.0km, 면에서 8.0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52	26	26	22	22		45.4	32.0	6.4	7.0		미맥 부추

거주성씨	함평 노	
가 호	22	

o 마을의 형성

조선초(朝鮮初) 초기 1395년경 함평노씨(咸平魯氏) 7세 신(愼)이 동지들과 더불어 두문동(斗門洞)으로 은신하였으나 조선조 예외 출사를 권유하는 태도가 차츰 치열해 지자 지금의 함평군 월야면 월악(月也面 月岳)으로 피신하여 여생을 마치니 그의 소생삼형제중 둘재인 희안(希顔)이 이곳 두동 부근에 정착하였다고 전하여지고 있으며, 지금의 대동면 금곡(大洞面 金谷) 마을과 학교면 두동(斗洞) 마을 사이에 노장자 터라고 전하여 지는 곳이 있는데 과연 사람이 거처하고 산 흔적이 보이고 있으며, 1590년경 함평노씨(咸平魯氏) 22세 노태신(魯泰臣)이 이곳 고막천(古幕川)이 흐르고 옛 주의 금강 백룡산(白龍山)이 지척에 보이며 4개의 산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어 그 안이 마치 곡식을 되는 말(斗)과 같다가 하여 마을 이름을 두지동(斗之洞) 두서(斗西)라 하다가 두동(斗洞)으로 불리우게 되는 곳의 언덕에 집을 지어 육영재(育英齋)라는 명칭을 붙이고 후예교육에 대한 정성을 다하였다. 1970년대에 학교 – 나산선(鶴橋 – 羅山線)의 포장도로가 마을을 지나 개통되어 중요한 통로로 사용타가 1995년에 인근 내동(內洞)마을에서 백호리(白湖里)를 지나 함평읍으로 가는 도로가 개통됨으로 더욱 편리하여졌다.

o 자생 조직

·문중계(門中契) : 1930년경에 20명이 조상을 위하여 조직
·촌중계(村中契) : 1930년경에 25명이 조직하였다.
·서당계(書堂契) ; 1940년 전후하여 20명이 창계하였고 두동육영회(斗洞育英會)로 발전하다.
·딸기 작목반 : 1985년도에 30명 딸기 재배기술 습득 및 적기출하 조정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조직

o 공공건물

·마을회관 : 1975년에 45m2를 마을회의장으로 건축
·마을창고 : 1977년에 66m2를 마을의 비품보관을 위해 건출
·두동농기계 보관창고 : 1996년 300m2를 신축하여 농업용 기자재의 보관
·마을동각 : 1909년에 세워진 2동의 동각이 큰 느티나무 밑에 자리하고 있다.
·두동경로당 : 2006년에 리모델링하여 노인휴식공간으로 제공됨

o 유적과 유물

·육영재동각(두동 서당) : 두동의 서쪽 산기슭에 위치하며, 태신(泰臣)이 후진양성을 위해 건립하여 문중에서 관리하며 많은 후학을 길러냈다.
·정 자 : 두동마을의 노거수 밑에 1905년에 2동의 정자를 지어 한 동은 어르신들이 한 동에는 젊은이들이 쉬었다 함.
·체화재(棣花齋) : 수남 노효명을 기리기 위한 재각으로 체화정, 수남정이라고도 한다.

·선돌 : (1) 마을 촌중마당 입구에 위치하며 도로포장으로 상당부가 파묻혔으며 '할미당산' 이라 불리 운다.
(2) 체화재(棣花齋) 입구에 있으며 원래 내동마을에서 옮겨왔다.
·세효각(世孝閣) ; 효자(孝子) 봉채(鳳采), 영숙(榮璹), 재홍(在弘)을 기리기 위해 세움
·세덕비(世德碑) : 함평 노씨 10여명의 포덕(布德)이 새겨 있다.
·농계처사노공유적비(聾溪處士魯公遺蹟碑)
·유남처사노선생경모비(悠南處士魯先生景慕碑)
·동리처사노공영모비(東里處士魯公永慕碑)
·송헌처사노공추모비(松軒處士魯公追慕碑)
·괴헌처사노공유적비(槐軒處士魯公遺蹟碑)
·육영재노선생태신경모비(育英齋魯先生泰臣敬慕碑)
·함평노씨세덕비(咸平魯氏世德碑)

o 특이한 민속 제향과 놀이
·당산제 : 매년 음 1월 14일 밤 자정에 징을 소리 높여 울리고 꽹과리를 두드리면서 제사를 지낸다.
·줄다리기 : 매년 음 1월 14일 밤을 기점하여 전촌이 남녀 대항 경기를 하는데 이때 남자들은 경기에 응하는 수가 연소한 자들만 모여서 남자측이 대부분 패전한다.

o 노거수
·노거수(老巨樹) : 수령이 약 550년인 노거수 전국번호 제 1689호 느티나무와 전국번호 제 2806호 감나무가 있다.

o 배출인물
·노봉채·노영숙·노재홍 : 효자로서 1887(丁亥) 왕으로부터 명정(命旌)이 내려 세효각(世孝閣)을 건립함.
·노태신 : 육영재 건립.
·노준수 : 조흥은행장 역임
·노상열 : 학교면장 역임
·노승행 : 1939. 12. 20 광주지검장 역임
·노승길 : 1941. 2. 14 전라남도 농촌기술원장
·노봉구 : 1941. 10. 16 나주봉황중학교장 역임
·노광을 : 1952. 9. 28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노승재 : 1944. 3. 11 조선이공대 교수 역임
·노인근 : 1928. 3. 17 초등학교장 역임
·노영근 : 1970. 8. 9 검사
·노정연 : 1967. 2. 6 검사
·노경완 : 1971. 6. 1 조선대학교 교수
·노점석 : 1945 대한건설 부사장

(2) 외치동(外峙洞)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외치골(外峙谷) → 외치동(外峙洞)	군에서 13.0km, 면에서 8.0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12	6	6	7	7		15.0	8.0	2.0	5.0		미맥

거주성씨	함평 노	밀양 박	이천 서	배
가 호	4	1	1	1

o 마을의 형성

외치

언제 어느 때 누가 입향하였는지 정확한 것은 알 수 없고 두동(斗洞)마을의 함평노씨(咸平魯氏)가 팽창함에 따라 300여년 전에 함평노씨 일부가 이 마을에 입행하였으며 밀양박(密陽朴)씨가 약 150여년 전에 장성군 황룡면(長城郡 黃龍面)에서 입촌하여 6대째 함평노씨와 함께 정답게 살아가고 있으며 이 마을의 기운은 1960년대 최성기(最盛期)로 25호에 이르다가 현재는 몇 호 되지 않고 있다.

지명유래(地名由來) 또한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어원에 따르면 마산리 청수원(馬山里 淸水院)에서 재너머 동네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산마을로 갖가지 산새들의 지저귐이 요란한 송림(松林)속의 조용한 마을이다.

o 유적과 유물

·동 각 : 1959년에 건립한 마을민의 휴식처가 노후화됨
·제 각 : 함평이씨의 제실

o 배출인물

·신판술 : 1944 종로경찰서 과장, 경정 ·노희천 : 1960 전남대학교 교수. 철학박사
·박광웅 : 1944 대동향교초등학교장 역임, 함평군민의상 수상, 대한노인회 효자상 수상
·노희정 : 1963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교육학박사
·이인성 : 광주광역시 남구청과장 역임 ·정요순 : 한국효도회 장한어버이상 수상
·노수문 :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경정

(3) 장동(壯洞)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장자동(壯者洞) → 장동리(新老面 壯洞里) → 장동(壯洞)	군에서 12.0km, 면에서 7.0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77	39	38	34	34		126.2	42.0	14.2	6.0	10.0	미맥 부추,딸기

거주성씨	함평 노	청주 한	김해 김	전주 최
가 호	30	1	3	2

장동

o 마을의 형성

마을 앞 동쪽을 가로지르는 고막천(古幕川)을 사이에 두고 나주시(羅州市) 문평면(文平面)과 접해 있으며 고막천의 양편 비옥한 들판을 터전으로 북쪽으로는 같은 리의 두동(斗洞)마을과 그 위로는 대동면 금곡리(錦谷里)를 인접하고 남쪽으로는 고막리(古幕里)를, 서쪽 산 넘어에는 죽정리 호암(竹亭里 虎岩)마을의 가운데로 1914년 행정구여 개편 이전까지는 목포부 신로면(新老面, 현 엄다면) 장동리(壯洞里)였다가 학교면 복천리(伏泉里)에 편입(編入)되었다.

주위 마을은 모두 금동면(金洞面)에 속했었는데 장동(壯洞)만은 신로면(新老面)에 속하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이 마을은 400여년전부터 부자(富者), 장자(壯者)가 끊이지 않는다 하여 장자울 또는 장자동(壯者洞)이라 불리워오다가 그 뒤 장동(壯洞)이라고 하면서 함평노씨(咸平魯氏)가 입주하여 오늘에 이르렀는데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함평노씨 가문(家門)은 물이 서(西)에서 동(東)으로 흘러가는 곳에서 살아야 번성한다는 말이 있는 그 대표적인 곳이 장동(壯洞)마을이라고 하며 배출인물 또한 많은 마을이다.

마을의 윗 쪽에 석천동(石泉洞)이라고 하는 별개의 마을이 있었으나 지금은 한 마을이 되었다.

o 자생조직

·장동 촌중계 : 1946년 56명이 마을 대소사 관리를 위해 조직
·장동 청년회 : 1970년 13명이 웃어른 숭배정신과 마을 발전을 기하려고 조직
·장동 노인회 : 1990년 15명이 노인의 친목도모 건강유지를 위해 조직
·장동 부녀회 : 1975년 35명이 친목도모와 협동생활을 위해 조직
·장동 부추 작목반 : 1991년 10명이 고품질 생산과 홍수출하 방지를 위해 조직
·장동 쌀 작목반 : 1995년 37명이 체계적인 영농으로 소득증대를 기하려고 조직

o 공공건물

·보건 진료소 : 1980년에 60M2를 신축하여 고막리와 복천리 주민의 보건진료
·창고 : 1965년 400M2를 건축하여 정부양곡을 보관관리
·폐교 학교 : 1950년 15,000M2에 학다리동초등학교를 세워 교육하다가 1994년 폐교되었

음

·한일전기기술학원 : 2002년 한국전력공사 지정 교육기관으로 세워져 광주지방노동청으로부터 제1차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배전활선전공기능향상)지정 받아 전기공사업체 소속 상근전공 및 일반전공의 배전전기공사 기능인력을 연간 1,000여명씩 양성하고 있다.

·마을회관 : 2001년 1월 10일 마을 앞마당에 함평군의 지원과 출향인사와 마을민의 출연으로 8,000여만원을 들여 현대식으로 건립하여 민박을 겸할 수 있는 회관 및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음.

여기 敬老孝親思想과 美風良俗을 繼承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마을 住民과 出鄕人士들의 精誠을 모아 壯洞마을 會館 겸 敬老堂을 짓다.

이곳에서 마을주민들이 모여 德談을 나누고 諸般事 意見을 集約하여 마을의 豊饒와 發展을 약속받는 터가 되길 祈願하며 아울러 同參한 분들의 愛鄕心을 기리고자 이 碑를 세운다.

2001. 1. 10 壯洞마을 靑年會

·장동경로당 : 2001년에 군의 지원을 받아 세워져 노인휴식공간이 되고 있음

·마을 시정각 : 2008년 군 지원과 마을 자금을 들여 옛 시정 터에 건립

o 유적과 유물

·영모각 : 1957년 학교면 복천리 장동마을에 세움

·효자각(孝子閣) : 1890년(고종27년)에 노영훈처사의 효행과 학문을 기리기 위해 세움

·증 동몽교관조봉대부 석천함평노공영훈효행비(贈 童蒙敎官朝奉大夫 石泉咸平魯公榮勳孝行碑)

·시정 : 노거수 밑에 마을민의 휴식을 위해 1955년 세웠던 시정의 노후화 및 도로확장으로 인하여 약간 들 쪽으로 옮겨 2008년 다시 세움

·노거수 : 느티나무 2주가 1620년경에 심어져 마을을 지키고 있음. 해송 1주가 느티나무와 함께 마을을 보호하고 있음

·흠재노상열공적비(欽齋魯翔烈功績碑) : 1985년 이민들이 공적을 기리리 위하여 복천리 입구에 세움

·을산노근후선생송덕비(乙山魯根厚先生頌德碑) : 광주학생독립운동가이자 훌륭한 교육자이시기에 제자들이 세움

·효열비(平康蔡氏) : 노득수씨의 처의 효열을 기리기 위해 1986년 세움.

o 특이한 민속 제향과 놀이

·당산제 : 정월 대보름날 풍물을 치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를 올림

o 마을과 관련되는 미담

·어른 공경 : 마을 청년회를 조직한 후 어버이날을 기하여 28회(2008년)째로 매년 경로 잔치를 열어 하루라도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음으로 어른들께서는 흐뭇함을 느끼시게 하며 청년들에게는 협동 단결과 상호 화목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o 배출인물

·노근후 : 1909 광주학생독립운동가, 초등학교장 역임
·노행환 : 1947 육군 대령 예편 ·노장갑 : 1950 공군대령, 공학박사
·노국근 : 1942 전라남도교육청 장학사, 목포한빛초등학교장 역임
·노철균 : 1948 함평군농협지부장 역임 ·노차근 : 국세청 과장
·노두근 : 1951. 함평군 사무관, 복지과장, 전라남도 서기관
·노강수 : 1937 전라남도여성복지과장 역임 ·노강수 : 1942 함평손불초등학교장 역임
·노인수 : 1950 사법, 행정 양고시 합격 부장검사 역임. 변호사
·노봉근 : 1946. 목포공업고등학교장 역임 ·노동수 : 1947 함평월야초등학교장 역임
·나길주 : 1949 완도초, 보성초등학교장 ·노생수 : 1955 삼호중공업주식회사 상무

(4) 내동(內洞)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내 동(內洞)	군에서 140km, 면에서 90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17	8	9	10	10		26.0	10.0	7.0	9.0		미맥, 딸기

거주성씨	무안 박	고성 김	경주 김	함평 이	진주 강
가 호	4	1	1	3	1

o 마을의 형성

지금으로부터 500여년전 무안박씨(務安朴氏) 목정승이 귀향살이를 하게 되어 복암산줄기를 따라 지형을 살피던 차 사방이 산으로 병풍처럼 둘러 쌓인 가운데 남향하고 있어 사람이 살기 좋을 듯 싶어 살기 시작한 무안박씨촌이 되어 있다.

들녘에서 멀리 떨어진 깊숙한 산 속 마을로 내동(內洞)이란 이름이 걸맞아 보이는 조용한 마을에 포장도로가 마을 앞을 지나게 되어 편리함 또한 뒤지지 않는 곳이다.

o 자생조직

·촌계 : 1940년에 마을민 전체가 마을의 발전과 화합단결을 위해 조직함

o 공공건물

·동각 : 1985년에 마을민의 힘으로 느티나무 옆에 세워짐
·내동경로당 : 2009년 군의 지원을 받아 세워져 노인들의 휴식공간이 되고 있음.

o 유적과 유물

·입석 : 마을입구에 오래전부터 마을을 지키며 서있었으나 지금은 풀 속에 묻혀있다.

·복천리내동부락유래비(伏泉里內洞部落由來碑)

이곳 內洞마을이 形成됨은 至今으로부터 約600年前 高麗末에 咸平魯氏의 中始祖 魯希顔生員이 月也面 月岳里에서 이곳으로 定着하시었고 累代가 지난 西紀 1507년 李朝 中宗 2年에 入鄕하신 務安 朴彦徵 參奉께서 周圍環境의 山水가 秀麗함을 보고 定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을 앞에 느티나무 두 그루를 심었고 其後 朴氏의 後孫이 繁昌하자 魯氏들은 고개넘어 斗洞마을로 移住하고 其後에 晋州 姜氏가 入鄕하여 世居하고 다시 慶州 李氏가 入鄕하여 世居하고 다시 固城 金氏가 入鄕하여 世居하였다. 其後 各其 氏族들이 繁盛하여 마을의 薰氣는 가득하고 茂盛한 느티나무는 포근하고 아담한 마을을 象徵하는 堂山나무가 되었으니 和睦한 住民들은 한자리에 모여 相議하니 住民들은 幸福과 無病長壽하여 安逸하고 每年 豐農을 祈願하는 守護神을 삼고 堂山祭를 每年 陰曆 正月 15일에 享祀하였다. 그리고 內洞 안골에는 절터가 있고 洞口에는 절이 있다는 표시돌인 無勳石 셋이 서있으며 뒷산 넘어에 馬塘이 있다. 이러한 傳說과 現存하는 느티나무 樹齡을 豫測하드라도 內洞마을의 由來는 大略 600년 以上으로 推算된다. 그러나 西紀 1960年代 以後로는 西歐 文物이 流入됨에 따라 堂山祭는 撤廢되었다.

·제각 : 함평노씨의 제각이 있다.

o 노거수

·느티나무 : 마을 앞 시정 옆의 2그루로 수령 500년과 300여년 가량이다.(마을나무로 지정)

o 배출인물

·이집호 : 과거급제자
·김영권 : 공군중령
·김홍여 : 진사 입격자
·노인철 : 생물학박사
·노대홍 :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5) 복산(伏山)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복암(伏岩) → 복산(伏山)	군에서 13.5km, 면에서 8.5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37	16	21	16	16		20.0	9.0	5.0	6.0		미맥 부추,딸기

거주성씨	함평 이	함평 노	무안 박	진주 최	진
가 호	4	3	2	1	1

복산

o 마을의 형성

지금으로부터 250여년 전에 함평이(咸平李)씨가 최초로 집단이거하여 길따라 기다랗게 마을을 이루었고 지금은 함평노(咸平魯)씨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일찍이 1970년대 마을 앞 도로가 포장되어 생활하기에 편리한 점이 많은 마을이며 복암산(伏岩山)이 깍아 지른듯 하여 아늑한 감이 덜하기도 하지만 들녘 마을로 살기에 아주 좋은 곳이다.

o 공공건물

·동각 : 2002년에 마을민의 힘으로 세워져
노송과 함께 마을민의 휴식처가 되고 있다.

o 유적과 유물

·고인돌(훼손됨) ; 복천리 복산마을의 박삼래 집에 있었으나 생활하기 곤란하여 텃밭으로 활용코자 차츰 제하게 되었다.

·복산마을유래비(伏山마을由來碑)

복산(伏山)마을은 咸平郡 鶴橋面 伏泉里 斗洞마을과 內洞마을 사이에 수박등 峻嶺으로 뻗어내린 伏岩山下에 東向으로 자리 잡고 古幕平野를 안고 白龍山을 멀리 바라보면서 농사일 편하고 人心 좋은 아담한 살기 좋은 富者마을이다.

行政區域은 韓末까지 務安郡 金洞面에 속하였으나 단기 4243년 행정구역개편으로 함평군 학교면에 속하게 되었다. 伏山마을은 원래 洞內를 形成할 만한 다수세대가 거주치 아니하고 2,3세대가 자주 移動하면서 永久定着없이 居住하곤 하였다. 그리하여 마을이름도 山下마을 또는 伏山마을 뒷산에 神仙바위가 있어서 그 바위로 인한 伏山 또는 伏岩이라 부르기도 하였으나 4227년 甲午革命이 勃發하자 壯洞마을에서 300년간 代代로 살아오던 咸平李氏家門 靑年들이 革命에 加擔하여 그해 10월 官軍의 指名手配로 討伐帶狀이 되자 避身하여 외딴집에 隱身하였었다.

그때 官軍이 壯洞마을에서 搜索을 마치고 金谷을 거쳐 玉洞으로 가는 길에 伏山마을 앞을 지날 때 때마침 짙은 안개로 외딴집이 가리게 되어 咸平李氏 靑年들은 無事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咸平李氏家門에서는 祖上이 保護하고 陰德의 福을 주신 터라하여 壯洞마을에 살던 咸平李氏 靑年들 一部가 移住와 성주를 하고 마을을 形成하면서 福山이라 불리었으나 기록으로는 伏山이라 하고 있다.

李敦喜氏 李敦華씨 李敦湖씨 가족과 함께 移住를 왔고 4277년 마지막으로 日本에서 돌아온 李啓棟씨가 집을 城主하여 現在와 같은 伏山마을을 形成하였다.

세월이 흐름이 따라 마을을 형성하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他界하시고 4293년대이후 産業社會와 더불어 後孫들이 대부분 都市로 進出함으로써 一部 後孫과 새로운 後代들이 이 터를 이어가고 있다. 이곳은 咸平李氏 先祖의 얼이 깃들고 祖上으로부터 祝福받은 터전으로써 대

대로 이어나갈 이 터 위에 後孫들의 無窮한 繁榮과 함께 榮光의 꽃이 피리라.
4303. 10. 18.

복산가(伏山歌)

1. 伏岩山 靈峰 精氣받아 躍動하는 伏山은 내가 태어나 자랐던 정다운 故鄕이라네
古幕들 넓은 들판의 豊年歌 노래 소리에 五穀百果도 豊盛한 富者마을이라네
祖上이 물려준 億萬年 이어나갈 이 터 위에 한 마음으로 굳센 前進 繁榮의 꽃 피우세.
2. 白龍山 아침 해가 뜨면 참새들 지저귀고 모두들 한 뜻되어 즐겁게 일터로 나가세
古幕川 다리보와 중보물에 農事를 지어 黃金들판 이루니 제비들도 춤을 추네
농사일 편해 人心 좋고 살기 좋은 이 터에 오순도순 和合協同 子孫萬代 繁榮하세

·복산함평이계선애향비(福山咸平李啓善愛鄕碑)
·옥계무안박공경재공적비(玉溪務安朴公敬載功績碑)
·노송 : 마을 앞에 250여년의 수령을 자랑하며 서있다.

o 배출인물

·이계선 : 1932년생으로 광주광역시청 과장 역임
·이계국 : 1938년생으로 전매청 과장 역임
·노갑춘 : 1960년생으로 목사

6) 사거리(四街里)

1914년까지는 목포부 죄촌면(木浦府 左村面)과 금동면(金洞面)에 속하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좌촌면(左村面)의 월천(月川), 죽천(竹川), 석교(石橋), 명암(銘巖), 청정(靑亭), 율동(栗洞), 성산(星山), 경화(京化) 전역과 송정(松亭), 정자동(亭子洞), 월봉(月峰) 각 일부와 금동면(金洞面) 사거리(사거리)를 합쳐 사거리(四街里)라 하여 학교면(鶴橋面)에 편입시켰다.

사거리(四街里)란 국도1호선의 광주, 목포간의 국도 23호선의 나주 동강(洞江)과 함평읍의 도로가 십(十)자를 이루는 곳이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인데 1998년 국도 23호선을 넘는 국도1호선 고가도로가 개통되어 소통의 원활과 주민안전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으며 학교역사가 명암 앞으로 옮겨지는 터 다듬기에 여념이 없는 곳이다.

근래에 학교리에 소재하던 5일 시장이 사거리로 옮겼고 학다리중·고등학교와 영창초등학교가 세워졌고 학교농협 사거리지소와 버스 정류장이 소재 하고 있어 번창 일로에 있는 이(里)이다.

(1) 명암(銘岩)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동 창(東倉) → 명 암(銘岩)	군에서 6.0km, 면에서 2.0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293	148	145	132	132		53.2	37.0	13.2	3.0		미맥 양파

거주 성씨	박	김	정	장	이	손	윤	최	임	전	유	오
가 호	23	25	6	6	14	3	2	3	6	4	2	4

거주 성씨	신	강	나	한	노	곽	주	성	송	지	맹	기타
가 호	3	4	3	3	2	1	3	1	3	2	1	22

o 마을의 형성

지금으로부터 약 250여년 전 김해김(金海金)씨가 입향하여 김해김씨촌(金海金氏村)을 이루었으나 현재는 많은 성씨가 살고 있다.

옛날 이곳이 무안군 좌촌면(左村面)에 속해 있을때 정부양곡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었고 무안군에서는 동쪽에 있는 창고(倉庫)라 하여 "동창(東倉)"이라 하였는데 그 별호는 옛날 '창지기 동네'라는 의미에 내포되어 있다하여 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탐탁치 않게 여겨 오던 중 마을이 서에서 동으로 기다란 잿등, 골모실, 동창, 초장동, 민등, 방아촌 등의 작은 마을 뒷산에 줄줄이 바위산이 있다는 뜻의 좋은 이름인 명암(銘巖)으로 하였으나 '동창'이 본명보다 더 널리 불리우는 마을로 '88년도에는 마을중앙에 승무 빌라를 세워 짜임새 있는 마을로 머지않아 국도1호선 건너에 학교역이 덩그랗게 서게 되는 마을이다.(창터(倉址)는 현 학다리 중·고 뒷산)

o 자생조직

·마을계 ; 마을의 발전과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키 위해 결성

o 공공건물

·학다리중·고등학교 : 지방인재양성을 위해 1945. 12. 5. 초급중학교 개교와 1951. 9. 1 학다리고등학교 개교

·마을회관 : 2007년 함평군의 지원금과 마을주민의 출연금으로 7,000여만원을 들여 마을민의 쉼터이며 경로당으로 활용되고 있음.

·창고 : 정부양곡 보관 창고

·명암경로당 : 2000년에 세워져 노인들의 휴식공간이 되고 있음.

o 유적과 유물

·사거리 동창터(四街里 東倉址) : 현 학다리중·고등학교 터로 조선후기 무안현의 진례, 좌촌, 금동면의 환곡창고였다.

o 노거수

·이팝나무 : 학다리중학교 남쪽 담장 옆에 일제시대에 심은 나무로 수관이 3개를 형성함

o 배출인물

·한기혁 : 육군 중령역임

·박기춘 : 초등학교 교장 역임

(2) 경화동(京化洞)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잡가동 (雜角洞) → 경화동 (京化洞)	군에서 4.0km, 면에서 3.0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101	55	59	46	46		28.0	17.0	8.0	3.0		미맥 양파

거주성씨	김해김	밀양박	함평이	한양조	충주지	수성최	나주정	금성오	나	문	임	배	전
가 호	9	4	3	2	3	1	2	2	1	1	1	1	1

o 마을의 형성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년 전 충주지(忠州池)씨가 입향하여 마을을 형성하였으나 현재 충주지씨는 몇 호 에 지나지 않고 여러 성씨가 모여 살고 있다.

처음에는 “잡각동(雜角洞)”이라 불러오다가 서울이 될 거라고 하여 마을 이름을 경화동(京化洞, 1789년 호구총수지명)이라 하였다 한다.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마을 우측의 구릉(丘陵)이 천동무학(千童舞學)의 터라고 하는데 1970년도에 영창초등학교(永昌初等學校)가 여기에 설립되어 풍수지리설이 맞아 떨어지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농산물 정노 창고인 호남물산이 근년에 세워져 이 고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처장이 편리하게 되었다.

o 자생조직

·장학계 ; 1982년 자녀들의 장학금 마련을 위해 결성

o 공공건물

·영창초등학교 : 1970년 공립초등학교 개교

·호남물산 : 농산물 저온보관창고

·동각 : 1980년 마을민의 힘으로 들길에 세워 휴식처가 되고 있음

·경화경로당 : 2007년 군의 지원을 받아 세워져 노인들의 휴식공간이 되고 있음.

o 배출인물

·장재구 : 제 16대 학교면장 역임

·최창균 : 향교초등학교장 역임

·지춘상 : 순천대학교 교수

(3) 율동(栗洞)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율 동(栗洞)	군에서 3.0km, 면에서 4.0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85	40	45	38	38		29.0	13.0	6.0	10.0		마늘 미맥

거주 성씨	김해김	파평윤	나주정	여산송	밀양박	수성최	신	노	천안전	청주한	흥	고
가 호	9	7	3	2	1	2	2	3	1	1	1	1

율동

o 마을의 형성

지금으로부터 약 300여년 전 파평윤(坡平尹)씨가 입향하였고 진주정(晉州鄭)씨와 나주김(羅州金)씨가 뒤이어 입향하여 지금은 여러 성씨가 모여 살고 있다.

300여년 전에 밤나무가 마을 어귀에 있었기 때문에 마을 이름을 “율동(栗洞)”이라고 하였다 한다. 그리고 약 100여년 전 까지만 해도 밤나무가 고목이 되어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없다.

율동은 낙천동(落天洞)과 율동(栗洞), 두 개 마을을 말하는데 낙천동에는 함평현감(咸平縣監)이 부임할 때 꼭 들러가는 이름난 서당(書堂)이 있었다고 전하나 서당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o 자생조직

·동계 : 1978년 마을민 전체가 총화단결하여 마을을 발전시키고자 결성

o 공공건물

·대선농산 : 1970년경 농산물 저온창고를 건축함
·청우농산 : 1970년경 농산물 저온창고를 건축함
·흥업정미소 : 1970년경 정부양곡 도정공장을 건축함
·동우제분 : 1970년경 농산물 가공공장을 건축함
·농협창고 : 정부양곡 보관창고
·동각 : 2005년 군이 지원을 받아 마을민이 세워 휴식처로 활용하고 있음.
·율동경로당 : 2005년 군의 지원을 받아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됨.

o 배출인물

·최명규 : 변호사 개업중
·박현철 : 농식품산업 정책실장

(4) 원사거(元四街)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원사거(元四街)	군에서 5.3km, 면에서 1.7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373	185	188	146	146		18.0	15.8	1.2	1.0		쌀

거주성씨	김	이	박	정	신	윤	전	최	나	한	조	노	주	배	서
가 호	24	15	11	19	8	5	4	5	4	3	3	3	3	3	3

o 마을의 형성

이 마을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년 전에 교통이 편리하여 인근의 마을로부터 한 사람 두 사람 모여 살면서 마을을 이루게 되었다.

1914년까지는 인근 마을 모두가 함평군 좌촌면(左村面)인데 반해 원사거(元四街)만은 금동면(金洞面)에 속하는 특징을 가졌었다.

1980년대에 두어 원사거(元四街)에 함평간 도로가 새로이 만들어져 확포장되면서 구도로에 상가가 형성되어 점차 농촌형 마을에서 상가형(商街形) 마을로 변하여 갔다.

면소재지보다 오히려 원사거 마을이 교통의 요지가 되면서 면민의 생활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고 국도1호선인 광목간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주민의 안정을 위해 1998년 국도23호선을 넘는 고가도록(高架道路)가 개통되었다.

또한 '함사거리'라는 함평의 관문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이름이다.

o 유적과 유물

·청년회 : 1979년 마을의 발전을 도모코자 결성

·원사거(元四街) 노인복지회관 : 2006년 도·군·마을이 뜻으모아 건립

우리 마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되었다. 이는 도·군비 지원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찬조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주민들은 화합된 마음으로 편안함과 즐거움을 나누는 쉼터로 활용하면서 다음 세대들을 사랑과 관용으로 이끌어갈 것이며 대를 이을 다음 세대들은 공동체적 삶의 바탕이 되는 사랑과 너그러움 그리고 서로 돕는 정신을 이어받아 인심 좋고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를 만들려고 노력하여 이 마을을 자손만대 번영된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 가기를 염원하면서 이 기념비를 세운다.

o 자생조직

·노인회 : 1978년 원사거 노인 65세 이상의 단합과 건강유지를 위해 결성

·청년회 : 1979년 마을의 발전을 도모코자 결성

·부인회 : 1997년 부녀들의 협동단결을 기하고자 결성

o 공공건물

·면민복지회관 : 1992년에 세워 면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생활에 도움을 줌

·농협 사거지소 : 1992년에 세워 경제생활의 봉사센타 구실을 함

·함평보건소사거지소 : 1990년에 세워 주민의 응급 의료센타 역할을 하던 지소를 2003년 다시 자리를 장터로 옮겨 세웠다.

·버스터미널 : 군민의 교통편리 제공

·함평역 : 학교리에 있던 학교역이 2001년 12월 옮겨오면서 함평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원사거경로당 : 2005년 군의 지원을 받아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됨

o 배출인물

·윤상래 : 1908 초등학교장 역임 ·김재란 : 1912 학다리중,고등학교장 역임

·전양권 : 1938 초등학교장 ·전병두 : 1942 경찰청 근무

·김인식 : 1945 농협중앙회 함평지부장 ·이덕례 : 1927. 4. 16 열녀상 수상

·고일석 : 1941 학다리중학교장 역임 ·김준기 : 1944. 4. 16 학다리고등학교장 역임

(5) 중앙동(中央洞)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신시장(新市場) → 중앙동(中央洞)	군에서 6.5km, 면에서 0.5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45	22	23	18	18		5.0	5.0				미곡 상업

거주 성씨	광산 김	남양 홍	전주 이	해주 오	나주 임	김해 김	무안 박	전주 최	인동 장	남평 문	진주 정	압해 정	한양 조	청주 한
가 호	2	1	2	1	1	2	2	1	1	1	1	1	1	1

o 마을의 형성

이 마을의 형성 연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100여년 전부터 몇호되지 않게 사람이 살고 있었던 들녘의 조그마한 마을이었으나 학교리 쌍교(雙橋)에 있었던 학다리 5일 시장이 옮겨오게 되면서부터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주 정착하게 되어 마을이 형성되어 면민 복지회관이 마을앞에 세워졌으며 학교역이 길건너 앞으로 옮겨오게 되어 편리함이 한 층 더하게 되었다.

당초에는 학다리 5일 시장이 새로이 생겼다 하여 신시장(新市場)이라 부르다가 학다리와 사거리의 중앙에 위치한 마을이라 하여 중앙동(中央洞)으로 부르기로 하였다.

o 공공건물

·면민 복지회관 : 1988년에 면민의 복지증진에 기어코자 건립

·함평역사(鶴橋驛舍) : 학교역이 2005년 함평역으로 개명되었다.

o 유적 및 유물

·애향비(愛鄕碑) : 면민복지회관 건립을 기하여 고향사랑의 정신이 깃든 비이다.

(6) 청정(靑亭)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꽃쟁이 → 코재이 → 신경동 → 청 정 (花亭) (鼻亭) (新慶洞) (靑亭)	군에서 4.5km, 면에서 2.5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188	101	87	77	76	1	40.7	30.9	7.3	2.5		미맥

거주 성씨	김	이	박	전	문	양	채	노	강	윤	한	황	조	강	기타
가 호	4	7	10	6	3	2	2	5	3	3	2	1	2	7	8

o 마을의 형성

고려시대에 함평이(咸平李)씨가 입향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후 여려 성씨가 이주정착하였는데 자세한 입향유래는 알 수 가 없으며 지금은 여러 성씨가 모여 하나의 커다란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이 마을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전에는 목포부 좌촌면(左村面)에 속했으며 조선조 초기에는 “화정(花

亭)" 또는 "비정(鼻亭)", ""신경동(新慶洞)"(1789년 호구총수지명)으로 불리었으며 1912년 이전부터 "청정(靑亭)"이라고 하였다.
이 마을에는 전 좌촌면(左村面)의 면사무소(面事務所)가 있었다.

o 공공건물

·마을 회관 : 1930년 마을회의장 건립
·동각 : 1997년 마을민의 힘으로 세워 휴식처로 활용하고 있음.
·청정경로당 : 1980년에 세워져 노인분들의 휴식공간이 되고 있음.

o 유적 및 유물

·혜단조병연교장기적비(彗丹趙炳然校長記績碑)

o 마을과 관련되는 전설

·새로 만든 연방죽 : 옛 청정에는 좌랑 벼슬을 한 함평이씨 후손이 세거하였는데 그들이 너무나 교만하게 산다는 소문이 있은 후 하루는 중이 지나며 화정앞에 못을 파고 연을 심으면 이씨가 더욱 번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을 믿고 방죽을 파고 연을 심은 후 함평이씨는 망했다는 전설이 있다. 그래서인지 현재 이 마을에는 함평 이씨의 후손이 1호도 살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

o 배출인물

·정규환 : 학교면장 역임
·노종기 : 초등학교장 역임
·노영남 : 철도청 근무 옥조근정훈장 수상
·홍성기 : 초등학교장 역임
·조병연 : 학다리중앙초등학교장 역임
·전종진 : 육군중령 예편

7) 석정리(石亭里)

원래 이 지역은 목포부 진례면(進禮面)에 속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학교면(鶴橋面)이 신설됨과 동시 함평군에 편입되었으며 이제(里制)가 시행됨에 따라 목포부 진례면 동호(棟湖), 흥용(興龍), 건피촌(乾皮村), 석정(石亭), 화지(化支)를 묶어 석정(石亭) 마을의 이름을 이명(里名)으로 하였다

(1) 화지(花枝)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화 지(花枝)	군에서 14.5km, 면에서 7.5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16	6	10	12	12		39.1	28.0	1.1	10.0		미맥

거주성씨	광주 이	제주 양	김해 김	광산 김	무안 박	온양 정	영성 정
가 호	2	4	1	1	1	2	1

o 마을의 형성

지금으로부터 약 350여년 전 순흥안(順興安)씨가 입향하였다고 하나 지금은 1호도 없으며 그 후 광주이(光州李)씨, 제주양(濟州梁)씨가 입향하여 정착하면서 현재는 여러 성씨가 모여 살고 있다.

구전(口傳)에 의하면 마을 주변에 화심(花心)이란 명당혈(明堂穴)이 있었는데 좌청룡은 당산골, 우백호는 동백골이라 하여 동백꽃과 무성한 당산가지를 연관 시킨데서 "화지(花枝)"라는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1914년 이전에는 목포부 진례면(進禮面)에 속했었다.

o 자생조직

·촌 계 : 1970년 전주민이 화합과 소득향상을 도모코자 결성

·친목계 ; 1975년 친목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결성

o 공공건물

·동각 : 1983년 마을민의 힘으로 세워져 휴식처가 되고 있음

o 유적과 유물

·광주이씨효열비(光州李氏孝烈碑) : 1946년 마을 앞에 세움

o 배출인물

·정성화 : 제1대, 제3대 함평군의원 역임

(2) 원석정(元石亭)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석정(石井) → 석산정(石山亭) → 원석정(元石亭)	군에서 13.5km, 면에서 6.5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74	35	39	37	37		68.9	34.0	12.9	22.0		미맥

거주성씨	전주 리	한양 조	밀양 박	무안 박	광산 김	광산 노	이천 서	제주 량	경주 김
가 호	10	6	3	3	2	1	2	1	1

o 마을의 형성

이 마을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년전 순흥안(順興安)씨가 최초로 입향했다고 하나 지금은 1호도 없고, 후에 전주리(全州李)씨 무림군(茂林君)이 1650년경 귀양왔다가 이 곳에 정착하여 전

주리씨촌(全州李氏村)을 이루었으나 약 90여년 전부터는 여러 성씨가 마을을 이루며 살고 있다.

본래 목포부 진례면(進禮面)의 지역으로서 1789년 호구총수 지명에는 석정(石亭)으로 표기했으나 마을에 석산정(石山亭)이 있었으므로 "석정(石亭)"또는 "똘쟁이"라 하였는데 1910년 목포부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부터 여기 마을명을 "석정(石亭)"이라고 하다가 학교면에 편입되었다.

원석정

o 자생조직

·상포계 : 1970년부터 애경사시 쌀을 거출 부조
·위친계 : 1975년부터 부모님 상을 당할시 부조

o 공공건물

·양수장 : 영산강 개발사업으로 진례들의 가뭄으로 말라죽어 가는 벼논에 물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 위해 1983년 새로이 만들어 가뭄 없는 옥토로 만들었다. 이전에도 일제 강점기부터 이 자리에 양수장이 있었다.
·석정경로당 : 1999년 노인 휴식처, 마을회의장으로 건립 활용하고 있음.
·공동창고 : 1978년 건립하여 마을 비품 보관 창고로 활용
·동각 : 1980년 마을민의 힘으로 세워져 오가는 이의 휴식처가 되고 있음.

o 유적과 유물

·고인돌, 정자나무 : 원석정 마을 입구에 있음
·균성진사석천리공유적비(均成進士石川李公遺蹟碑) : 1946년 이선우가 석정리 원석정에 세움
·조선전주리씨삼강비(朝鮮全州李氏三綱碑) : 1877년 이선우가 1충(一忠) 3효(三孝) 2열(二烈)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함. 1충(忠)은 정유노란(丁卯虜亂)의 배종공신(陪從功臣)-리상질(李尙質), 3효(三孝)-이상질(李尙質)의 세손 맹석(맹석), 숙석(숙석) 형제와 맹석의 현손(현손) 경구(경구)로 구이부모치효(俱而父母致孝)하고 임극에 상분험증(嘗糞驗症)과 혈지주구(血指注口)한 효자이며 2열(二烈)-리정훈(李正薰)의 처 낙안오씨(樂安吳氏)와 자부(子婦) 이천서씨(利川徐氏)로 남편의 병극(病劇)에 지혈화유견효(指血和油見效)하였다.
·문화류씨효부각(文化柳氏孝婦閣) : 1983년 석정리 원석정 이대성이 세움
·남포송계이선생장루유지비(南圃松溪李先生杖屨遺址碑) : 1951년 석정리 원석정 이선우가 세움
·월보이남형선생송덕비(月甫李南衍先生頌德碑) : 1982년 석정리 원석정 이남형이 세움
·남파전주이씨공적불망비(南波全州李氏功績不忘碑) : 1994년 석정리 원석정 이두형이 세움
·창파이계성선생영모비(昌波李桂成先生永慕碑)
·춘강전주이좌형유허비(春崗全州李佐珩遺墟碑)

·효열부서씨실적비(孝烈婦徐氏實蹟碑)
·금성정해국공적비(錦城丁海國功績碑)
·전주이씨효열비(全州李氏孝烈碑) : 효자 성헌거사(省軒居士) 이신구와 김해김씨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세움.

· 이별바위 – 임진왜란 당시 왜군들이 일시 영산강변의 이 바위산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식량과 가축 등을 약탈하면서 마을의 부녀자들까지 닥치는 대로 납치하여 끌고 갔던 곳으로 이별을 상징하는 이별바위로 이름 붙여졌다.
· 진로(進路)길의 전설 (일명 지로길) – 학교면 석정리 원석정의 마을 앞 길로 임진왜란 당시 금석사(金石寺–원석정 뒷산 무재봉 소재)에 머무르고 있던 우리 수군(수군)이 왜군을 무찌르기 위하여 조포, 창, 낫 등의 무기를 들고 진격하였던 길이다.
· 복군(伏軍) 고개의 전설 – 우리 수군이 잠복했던 곳으로 무기창이 있어 출정을 하기위한 주둔지로 지금도 땅을 파헤치면 쇠붙이가 가끔씩 나오고 있음.
· 독군(督軍)마당 전설 – 지금은 마을 쉼터로 느티나무 세그루가 서 있는 곳으로 옛날에는 1,000여평되는 이곳에서 사기충천한 우리 수군이 전술을 익혔던 곳으로 지금도 이곳을 독군마당이라고 부르고 있다.
· 금석사(金石寺)의 전설 – 백제 때의 사찰로 추정되는 이 사찰의 터에서 지금도 빗살무늬 기와가 땅속에 파묻혀 있는 곳으로 절터는 600여평 남짓하고 축대의 높이는 6m, 길이는 50m의 언덕위에 자리 잡은 절로써 우리 수군이 주둔하고 있다가 진격하곤 했던 곳이다. 임진왜란 때 왜군에 의해 소실되었다고 전함.
· 서당동(書堂洞)의 전설 – 금석사의 주변 골짜기를 서당동이라 부르고 있는데 이 절의 강당에 주변의 학동들을 모아 불경을 외우게도 하고 스님이 직접 무료로 글을 가르쳤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원석정마을의 역사적 조명을 한다면 선조 25년 임진왜란 당시 영산강 대굴포를 우리 수군이 전초기지(前哨基地)로 삼고 있었기에 인근의 이곳 석정리 소재 금석사(金石寺)에 우리 수군을 지원키 위한 우리 지원군이 주둔하면서 복군(伏軍)고개의 병기창에서 무기를 만들어 각종 무기를 손에 들고 독군(督軍)마당에 모여 사기충천(士氣衝天) 전열(戰列)을 가다듬어 진로길로 돌격하여 영산강변의 곡창리 대굴포에 진을 치고 있던 우리 수군과 합세하여 왜군을 섬멸하는데 많은 공을 세운 역사적인 곳이다.

· 월치(越峙)고개 전설 – 임진왜란(1529년, 선조25년) 당시 대굴포의 우리 수군을 지원하기 위해 장성군, 월야면, 해보면, 나산면 등에서 지원군이 이 고개를 넘어 아군과 합세하였다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자료제공 : 향토사학자 李桂成님)

·이금성 가옥 : 마을 위쪽 높은 곳에 있는 고가로 안채와 죽담구조 측간채로 구성, 기둥 도리 모두가 거칠게 다듬은 원형재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나귀례 가옥 : 좁은 대지에 안채만 남아있는 전형적인 일자형 3칸 구조의 흙벽처리

o 배출인물

·이낙현 : 지방행정사무관 역임　　·이달호 : 목포시의원 국민회의 사무국장

·김용호 : 제 7, 8대 학교면장 역임　　·박준석 : 육군대령 예편

(3) 건지(乾枝)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건　지(乾枝)	군에서 13.0km, 면에서 6.0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36	16	20	14	14		55.5	20.0	5.5	30.0		미맥

거주 성씨	이천 서	무안 박	온양 정	동복 오	한향 조	밀양 손	고령 신	광산 노	전주 최	김해 김	밀양 박	나주 임
가 호	7	1	1	2	1	3	1	1	1	1	1	1

건지

o 마을의 형성

지금부터 약 200여년 전쯤 해서 이천서(利川徐)씨가 입향하여 이천서시 마을을 이루며 살았는데 약 60년 전부터 여러 성씨가 모여 함께 살고 있다.

옛날에 오랫동안 조금만 비가 오지 않을 때마다 물이 쉬 고갈된 관계로 땅이 메말라져서 작물은 물론 심어져 있던 나무의 가지까지도 메말랐으며 모든 작물이 잘 되지 않고 메말라 죽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마을 이름을 "건지(乾枝)"라 불렀다고한다.

1914년 이전까지는 목포부 진례면(進禮面)에 속했었다.

o 자생조직

·친목계 : 1970년 계원간의 친목ㅇ르 도모코자 결성

·위친계 : 1979년 애경사시 상호간 부조와 협력을 목적으로 결성

·동계 : 1975년 마을의 발전과 주민의 화합을 목적으로 결성

o 공공건물

·농휴각 : 1993년 주민의 여름철 휴식을 목적으로 건립함.

·새마을 창고 : 마을 재산 보관

o 유적과 유물

·열녀비 : 1970년 서충열이 세움

·호정양공봉구공적비(湖亭梁公奉九功績碑) : 1988년 석정리 건지마을에 세움

·덕겸이천서공규종공적비(德謙利川徐公圭鍾功績碑)
·절부고성이씨열적비(節婦固城李氏烈蹟碑)

(4) 흥룡(興龍)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흥 룡(興龍) → 흥 림(興林) → 흥룡	군에서 13.5km, 면에서 6.5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27	11	16	14	14		39.5	29.0	1.5	9.0		미맥

거주성씨	인동장	장흥고	김해김	전주최	전주이	하동정	함평이	제주양	이천서
가 호	9	1	1	1	1	1	1	1	1

o 마을의 형성

흥룡

이 마을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년 전 인동장(仁同張)씨가 입향하였는데 마을 뒤로 2개의 상봉우리가 만나고 있어 풍수지리학상 겨울 북풍을 막고 서있는 남향이므로 이곳에 정착하였다.

이것이 마을 형성의 출발이었으며 약 40년 전까지만 해도 인동장씨 마을을 이루고 살았으나 지금은 장흥고씨, 전주 리씨와 함께 여러 성씨가 살고 있다.

인동장씨가 입촌하여 마을의 형국을 보니 좌우측 산과, 마을 뒤쪽의 산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어 마을 입구에서 보면 용(龍)이 도라리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마을이 흥하게 될 것이라고 하여 마을명을 “흥룡(興龍)”이라고 하였다고 하는데 1789년 호구총수 지명에 보면 무안현 진례면 동림(進禮面 東林)은 나오나 흥룡(興龍)은 없어 당시에는 동림(東林)마을로 부른 것 같다.

현재 이웃 마을인 동림(東林) 마을의 림(林)자를 붙여 흥림(興林)으로 부르기도 하여 위에 언급한 바를 추측할 수 있게 한다.

o 자생조직

·촌 계 : 1976년 마을민의 마을 발전을 위한 융화단결을 위해 결성
·인동장씨 문중계 : 1962년 상호융화 단결과 조상의 얼을 기리기 위해 결성
·친목계 : 1981년 마을민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하기 위해 결성

o 공공건물

·농휴각 : 1985년 마을주민의 휴식공간으로 건립
·흥룡경로당 : 2009년 군의 지원을 받아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되고 있음.

o 유적과 유물

·동호정(東湖亭) : 1830년 인동장씨가 후학양성을 위해 강학소로 건립함

o 지명

·열부인동장씨비(烈婦仁同張氏碑) : 이병일의 아내 열부 인동장씨의 열행을 기리기 위해 계사년(癸巳年)에 세움

·올치재 : 학교면 석정리 마을의 뒤에 있는 꽤 높은 산골짜기 재로써 옛날 진례면이 존속하던 시절 인근 3개 리민이 고막원으로 통하는 유일한 재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으나 약 30여년 전부터 새로운 도로의 개설과 함께 교통수단이 발달하여 사람의 발길이 줄어들자 숲이 우거져 길조차 없어져 지금은 한사람도 넘나드는 사람이 없지만 성적골, 배딱골 등의 지명이 전해오기도 한다.

o 배출인물

·장 록 : 함평사법서사회장 역임

(5) 동림(東林)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동 림(東林)	군에서 13.5km, 면에서 6.5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32	7	25	15	14	1	39.1	15.0	7.1	17.0		미맥

거주성씨	장흥 고	김해 김	금성 나	고령 신	전주 최	제주 양	정
가 호	7	1	1	1	1	1	1

동림

o 마을의 형성

이 마을은 약 300여년 전 장흥고(長興高)씨가 입향하였는데 지금도 장흥고씨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기타 성씨가 모여 함께 살아가고 있다.

옛날에 어떤 도사(道師)가 영산강 줄기에 위치한 석관정(石觀亭)에 나타나 사방을 둘러보고 현재의 이 마을을 향하여 발길을 옮김 후 도착하여 하는 말이 석관정에서 본 바와 같이 동쪽의 나무와 터가 나무랄 데 없이 좋은 곳이로구나 하며 “동림(東林)”이란 글자를 새겨 놓은 후 배를 타고 사람지 다음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다.

그리하여 도사가 새겨놓은 글자가 마을 이름이 되었는데 석관정에서 보아 동쪽에 위치한 나무가 많은 마을이라는 뜻에서 마을명을 “동림(東林)”이라고 하였다 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이전에는 목포부 진례면(進禮面)에 속했던 마을이다.

o 자생조직

·촌중계 : 마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 운영함

·삼동회 : 건지마을 , 동림동마을, 흥룡동마을 등 3개 마을이 지역발전을 꾀하고자 조직

·친목계 : 1981년 마을민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하기 위해 결성

o 공공건물

·동각 : 20041년 마을민과 군의 지원을 받아 세워짐

·동림경로당 : 2008년 군의 지원을 받아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되고 있음.

o 지명

·서당골 : 마을 오른쪽 뒤편의 동흥저수지 골짜기에 서당이 있었다하여 서당골이라고 부르고 있다.

·배작골 : 배를 만들었다하여 배작골이라 함.

·성적골(城績谷) : 성터가 있었으므로 성적골이라 부르게 됨.

o 유적 및 유물

·고인돌 가군 : 동림저수지 북쪽에 위치한 밭 가장자리 민묘 주변에 5기

·고인돌 나군 : 배작골 계곡의 중앙부 민묘역 가장자리에 1기

·고인돌 다군 : 석정리와 금송리의 경계를 이루는 곳의 구릉 정상부에 7기가 있다.

o 배출인물

·고일석 : 학다리중학교 교장

·최병록 : 초등학교 교장 역임

·고재흥 : 통계사무소장 역임

·고수석 : 조선대학교 교수

·고유창 : 사법고시 합격 연수중

8) 월산리(月山里)

이 지역은 천변(川邊)을 제외하고는 1914년까지는 목포부 좌촌면(左村面)에 속했다가 1914년 이제(里制)를 시행하면서 좌촌면(左村面) 신흥(新興), 송산(松山), 당산등(堂山嶝) 전역과 덕산(德山), 화산(花山), 고시(古市), 송정(松亭), 번암(磻巖), 월봉(月峰), 기성면(箕城面)의 천변 일부를 합해 월봉(月峰)에서 “월(月)”자와 송산(松山)에서 “산(山)”자를 따 월산리(月山里)“라 명명(命名)하여 학교면에 편입했다.

(1) 송정(松亭)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송 정(松亭)	군에서 4.5km, 면에서 3.5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80	31	49	42	42		45.1	24.0	14.1	7.0		미맥

거주 성씨	창영 창	청주 한	나주 김	상산 김	평강 채	함평 노	충주 지	함평 이	동복 오	다학 김	이천 서	밀양 박	무안 박	광산 김	영성 정	금성 나	함평 모	평산 신
가호	1	5	3	2	2	3	9	3	1	1	1	2	2	2	1	1	1	3

송정

o 마을의 형성

이 마을 널무덤(토광묘-토광묘)에서 청동기(青銅器) 유물인 꺽창(동과-동과)이 출토된 것을 미루어 볼 때 선사시대(先史時代)부터 사람이 살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문헌상 확인할 수 있는 성씨로는 광산김씨가 제일 먼저 입촌했다. 첫 입촌자는 태종때 이조좌랑(李朝佐郎)을 지낸 김경온(金景溫)이며 그는 아들 자분(自芬, 1419년생), 자보(自普, 1421년생), 자궤(自櫃, 1424년생)등 3형제와 더불어 1450년경에 입촌했다.

그의 후손은 이 마을에서 4~5대 동안 현달한 인물을 배출하여 살았으며 자분의 후손은 현 학교면 금송리 금산(錦松里 錦山)으로, 자보의 후손은 대동면 금곡리 나막(大洞面 金谷里 羅幕)으로, 자궤의 후손은 장흥군 관산으로 떠나 지금은 그 후손이 이 마을에 단 1호도 살지 않는다.

이후 본관을 알 수 없는 박씨가 들어와 살았다고 하는데 그 후손이 하나도 없어 밝힐 수가 없으며 박씨에 이어 충북 충주에서 낙향한 충주지(忠州池)씨들이 약 300여년 전에 들어왔고 그 뒤에 청주한(淸州韓)씨등 여러 성받이가 입촌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마을은 원래 무안현 좌랑촌면(佐郎村面)에 속했기에 좌랑촌(佐郎村)이라 불렀는데 그 유래는 이렇다.

이 마을을 개촌(開村)한 김경온(金景溫)이 이조좌랑(李朝佐郎)을 역임했고 큰아들 자분(自芬)이 1438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종성 부사를 역임했으며 둘째 자보(自普)가 병조좌랑(兵曹佐郎) 셋째 자궤(自櫃)가 음사(蔭仕)로 이조좌랑(李朝佐郎)을 역임했다.

한 마을에서 좌랑 벼슬 셋이 나오고 부사(府使)벼슬이 나왔다하여 촌명(村名)을 좌랑촌(佐郎村)이라 했고 면명(面名)도 좌랑면촌(佐郎村面) 후에 좌랑면(1789년 호구총수지명)이라 했다고 한다.

현달한 인물을 배출했던 광산김씨들이 마을에서 떠난 후 송정(松亭, 1789년 호구총수지명)이라 했는데 이는 마을 주위에 아름드리 소나무가 무성한데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그 때 무성했던 소나무 중 현재 2그루가 남아있어 매년 정월 대보름 때 당산제(堂山祭)를 지냈는데 근년에 이르러 제를 지내지 않는다.

o 자생조직

·위친계 : 1976년 애경사시 상호간에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결성

·동계 : 일년동안 마을의 발전을 위한 예산집행 및 결산을 행한다.

o 공공건물

·미군 통신소 : 1981년 서해안권 통신관장을 기하기 위해 건립
·항만청 무선표식소 : 미국 통신소를 인수하여 1989년 서남해안 통신 통제를 위해 건립
·창고 : 1971년 새마을사업 신축으로 마을재산 보관창고
·학교농협 저온창고 : 농산물 저온 보관 창고
·학교농산물 간이 집하장 : 면내의 출하농산물을 모아 제값 받기를 위한 시설
·학교농협 미곡종합처리장 : 면내의 미곡을 종합적인 처리를 하여 특산품으로 출하하기 위한 시설
·대선제분공장 : 우리 쌀로 만드는 쌀가루 공장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규모의 공장이다.
·송정경로당 : 2004년 군의 지원을 받아 세워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음.
·동각 : 1989년 마을민의 힘으로 세워져 휴식처가 되고 있음.

o 유적과 유물

·한씨정각 : 1880년 항규흥이 세월 한상철이 관리하고 있다.

o 배출인물

·지춘상 : 전대 인문사회과학 학장
·한재관 : 이비인후과의원 원장
·한기갑 : 제 11대 학교면장 역임
·한규홍 : 함평향교 전교 역임
·지학상 : 지서장 역임

(2) 송산(松山)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송 산(松山)	군에서 4.0km, 면에서 4.0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115	59	56	46	46		42.0	17.0	10.0	15.0		미맥

거주 성씨	평강 채	담악 김	이천 서	인동 장	김해 김	제주 양	화순 오	밀양 박	순흥 안	진주 강	대구 배	한양 조	보성 선
가 호	9	3	3	3	2	3	2	2	1	1	1	1	1

o 마을의 형성

송산

이 마을은 지금부터 약 500여년 전 여산송씨가 입향하였다고 하나 그 후손은 없고 1560년경 함평노(咸平魯)씨 철계(哲季, 1531년생)가 입촌하여 살다가 그 후손이 판교촌으로 이거했으며 약 300여년 전 평강채(平康蔡)씨, 뒤를 이어 동복오(同福吳)씨가 입향하였으며 송산 마을하며 평강채씨촌(平康蔡氏村)이라 불리우기도

하나 그 이전에 월봉(月峰)과 낙월촌(落月村)에 거주하던 파평윤(坡平尹)씨와 사거리 청정(四街里 靑亭)에 거주하던 남양 홍씨가 이거하여와 살았다고 한다.

그리고 해남김(海南金)씨는 60~70년 전에 입향하였으며 현재는 다수의 성씨가 살고 있다.

옛날 솔메등이라고 하는 별로 높지 않은 언덕에 많은 소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소나무 송(松)'과 '뫼산(山)'을 써서 마을 이름도 송산(松山, 1789년 호구총수지명)이라고 하였다 한다.

o 자생조직

·촌계 : 1917년 마을의 발전과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결성

·선도회 : 1983년 소득향상과 청소년 지도에 앞장서기로 하여 결성

o 공공건물

·마을창고 : 마을재산 보관창고

·송산경로당 : 2004년 군의 지원을 받아 세워 마을회의실 및 노인휴식 공간으로 제공

·동각 : 2006년 군의 지원과 마을민의 힘으로 세워져 휴식처가 되고 있음.

o 유적 및 유물

·우산정사(牛山精舍) : 한상철씨 댁내에 위치하며 부친인 청주 한봉섭이 건립하였다.

·효열부선산김씨기적비(孝烈婦善山金氏記蹟碑)

·조선국 이조참의평강채공경유허비(朝鮮國 吏曹參議平康蔡公卿遺墟碑)

o 배출인물

·채소부 : 중앙 고충처리위원회 총무과장 역임.

·김규병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역임, 변호사

·채광철 : 인천해양경찰청 경정

(2) 학교문화마을(文化)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문화마을(文化)	군에서 4.0km, 면에서 4.0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41	20	21	12	12		5.0	3.0	2.0			미맥

거주 성씨	권	김	박	양	유	이	정	진					
가 호	1	2	2	1	1	2	2	1					

o 마을의 형성

함평학교문화마을은 2003년 함평군으로부터 시행하는 농어촌지역의 중심마을을 대상으로 주택단지를 개발하여 신규택지 51호를 생태적으로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현대적 주거 생활환경으로 조성하여 생산·소득시설까지를 종합적으로 연계 추진하여 소득과 생활환경이 조화된 활력있고 미래지향적인 집단화된 농촌마을을 조성하게 되어 목포대학교 박유순 총장을 비롯하여 사회 유명인사들의 주거환경으로 각광을 받는 곳이다.

2008년 광주-무안 국제공항간 고속도로가 마을 북단으로 개통하게 되어 약간의 소음이 있어 이를 기피하는 사람이 있어 입주 및 건축이 약간 부진하였다.

o 유적과 유물

·유물산포지 : 학교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부지정리 작업과정에서 철기시대와 삼국시대의 주혈주거지 14기와 도랑이 확인되었으며 출토유물로는 호형토기, 완 주구토기, 방추차, 시루, 장란형토기, 철겸, 소옥 등이다.

o 공공건물

·마을공동작업장 : 마을민이 다함께 작업하는 곳
·마을회관 : 마을회의실 및 노인휴식 공간
·놀이터 및 체육시설 : 어린이들의 놀이시설 및 운동기구설치 공간

(3)화산(花山)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꽃나무골 → 화 산(花山)	군에서 3.0km, 면에서 4.5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37	14	23	23	23		20.0	7.0	10.0	3.0		미맥 양파,마늘

거주성씨	평택 임	해주 오	진주 정	달성 서	김해 김	광산 김
가 호	7	1	1	1	2	2

o 마을의 형성

이 마을은 1760년대에 평택임(충공공파)씨와 임우배(林宇培, 피조의 14세손)가 개촌하였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는 말과 같이 마을의 운세(運勢)가 50년을 주기로 꽃의 생태를 따라 움직이듯이 약간씩 변화한다는 마을이다.

화산

o 자생조직

·문중계 : 평택임씨들이 마을의 발전과 상호 화합을 공공히 하기 위해 만듬

·느타리버섯 작목반 : 양질의 느타리버섯을 재배하기 위한 단체

o 공공건물

·농촌기술센타 : 농업선지화 교육장, 생태학습장으로 활용

·한국농산 : 농산물 저온보관 창고

·동각(쉼터) : 마을민은 물론 오가는 이의 휴식처로 만듬

o 유적과 유물

·평택임씨정각 : 마을 앞에 있음

o 특이한 민속 제향

·산재등 : 인근 마을민이 가뭄과 수해가 심할 때마다 다같이 모여 신령님께 제를 지낸곳이다.

·열녀마을 : 마을 개촌이래 과부가 생겼어도 개가한 일이 한번도 없는 마을이다.

o 배출인물

·임상필 : 진사시에 입격함

·임춘평 : 임피부과 원장,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역임

·임재상 : 1950년생으로 학교농협장을 연 3대 연임을 역임

(4) 신흥동(新興洞)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신흥동(新興洞)	군에서 3.0km, 면에서 4.0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185	111	74	75	75		99.0	55.0	27.0	17.0		미맥 양파

거주성씨	평강 채	무안 박	함평 이	화순 오	장흥 고	한양 조	죽산 안	광산 김	기타
가 호	8	8	4	4	2	1	1	4	40

o 마을의 형성

지금으로부터 약 300여년 전 평강채(平康蔡)씨가 입향한데 이어 무안박(務安朴)씨가 입향하였고 그 후 약 250여년 전 장흥고(長興高)씨가 입향하였으며 현재는 여러 성씨가 모여 살고 있다.

옛날에 서로 다른 두 성씨가 입향하여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입향한 성씨가 먼저 살고 있던 성씨보다 더 부자가 되었기에 마을 이름을 "신흥동(新興洞)"이라 하였다 한다.

o 공장·공공건물

·행천자기 : 생활도자기 공장
·금평전자 : 전자제품 조립공장
·경로당 : 1997년 노인당과 마을회관을 겸하여 건축하여 적극 활용함.
·창고 : 마을 재산 및 비료 보관
·마을 시정 : 2005년에 새로이 세워져 여름철과 큰일 치룰 때 손님 맞는 곳으로 활용되고 있음.

o 유적과 유물

·유물산포지 : 신흥마을 북쪽 완만한 경사의 구릉지 일대에 회청색경질토기편과 방추차편이 출토되었다.
·효열부청송심씨 기행비(孝烈婦 淸松沈氏 紀行碑) : 학교면 월산리 신흥동에 있음

o 배출인물

·최석만 : 장학사, 초등학교장 역임
·박인재 : 초등학교장 역임
·박민재 : 장흥남초등학교장 역임
·채희태 : 영광 원자력발전소 자재과장
·채희경 : 과학기술고시 합격

(5) 월봉(月峰)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담 안(墻安) → 월 봉(月峰)	군에서 9.0km, 면에서 4.0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76	42	34	41	41		37.0	21.0	9.0	7.0		미맥

거주성씨	평강 채	전주 이	이천 서	파평 윤	김해 김	청주 한	밀양 박	한양 조
가 호	2	4	3	5	3	1	4	1

o 마을의 형성

이 마을에는 약 1500년경에 광산김(光山金)씨 경온(景溫)의 후손이 최초로 입향하여 월명촌(月明村)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겨우 명맥(命脈)만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며 그 후 1908년 입향

한 평강채(平康蔡)씨 기성(奇成)과 전주리(全州李)씨(1908), 이천서(利川徐)씨(1908년)에 이어 파평윤(坡平尹)씨가 입촌하여 살아오고 있다.

마을 앞 시냇물에 지는 달빛이 은빛 찬란하게 아름다운 서반월(西半月, 서쪽의 달밤)이라 하여 마을 이름을 "월봉(月峰, 1912년 행정구역개편 지명)"이라고 하였다 한다.

월봉

o 자생조직

·장구계 : 1920년 시초에는 상조형식의 마포계였으나 위친계의 성격으로 변화됨

o 공공건물·공장

·우성식품주식회사 : 1979년 가축 도축장으로 건립
·학교석재 : 1985년 비석 제작공장으로 건립
·마을회관 : 1981년 마을사의 회의장이었던 마을회관을 2003년 5월 함평군의 지원과 마을민의 출연으로 새롭게 단장함.
·마을시정 : 2005년 8월 함평군의 지원금과 마을민의 출연으로 새롭게 단장함.
·월봉경로당 : 2006년 군의 지원을 받아 세워 노인들의 휴식공간이 되고 있음.

o 유적과 유물

·학교면 공동묘지 : 월산리 월봉 앞 남산
·좌랑 벼슬비(김경온 후손) : 사거리 8번지 (월봉마을 입구)
·월봉선유정(月峰仙遊亭)

우리 마을이 交通과 施設面에서 落後를 벗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지면서 주민들은 老朽된 洞閣을 現代式 건물로 改築하려는 意志로 한마음이 되어 모금을 하고 國庫의 支援을 받아 200여평의 敷地를 확보하였으며 새로운 모습의 月峰仙遊亭을 建立하게 되었다.

月峰人들의 뜨거운 고향 사랑과 協同團結의 정신을 기리고자 건립내력을 기록한 記念碑를 세운다.

2002. 8.

o 지명과 전설

·신선등(神仙嶝) : 월봉 마을 서편 능선으로 소가 누워있는 형국이라는 설도 있고, 산너머는 공동 묘지터로서 어느 한자리의 명당이 있으리라고 믿는 이가 많다.

o 배출인물

·서광언 : 초등학교 교장 역임
·윤태중 : 고시합격, 감사원 과장
·윤해중 : 외무고시합격, 동경 총영사 역임
·이만근 : 함평군 제2대 의원 역임
·서창호 : 목포대학교 교수, 정치학 박사
·이삼섭 : 금호그룹 사장

·이대원 : 육군소령 예편
·윤환중 : 초등학교장
·이만석 : 광주시 계림새마을금고 이사장
·황치남 : 해군 중령
·서연수 : 초등학교장

(6) 반암(磻岩)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돌 반 → 반 암(磻岩)	군에서 6.0km, 면에서 5.0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8	4	4	6	6		12.0	5.0	3.0	4.0		미맥

거주성씨	노	박	이	윤	염
가 호	2	2	1	2	1

반암

o 마을의 형성

이 마을은 약 110여년 전에 학교면 사거리 율동(四街里 栗洞)에서 파평윤(坡平尹)씨가 입촌하여 5대째 살아오고 있으며 이어 함평노(咸平魯)씨가 입촌했다.

반암(磻岩)이란 지명보다는 "돌밭"이라는 이름으로 더 널리 부르고 있으며 근래에는 이농현상에 따라 단 몇 호가 살아가고 있다.

o 유적과 유물

·고분군 : 표산마을 쪽 나지막한 구릉성산지에 동쪽과 남쪽 경사면을 따라 10여기의 소형 분구가 분포되어 있다.

o 배출인물

·윤은중 : 감사원 기획차장, 의원 역임

9) 월호리(月湖里)

이 지역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는 목포부 진례면(進禮面)에 속했었다.

이제(里制) 실시에 따라 진례면 망월동(望月洞), 배야동(背野洞), 용호동(龍湖洞)과 기동(基洞) 일부를 묶어 망월동(望月洞)에서 월(月)자와 용호동(龍湖洞)에서 호(湖)자를 따 이명(里名)을 월호리라 했다.

월호리는 배야(背野), 망월동(望月洞), 기동(基洞), 용호(龍湖)의 4개 마을이다.

용호의 고인돌(支石墓), 망월동의 독부덤군(甕棺墓群)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지대는 선사시대(先史時代)부터 사람들이 살았음을 알수 있으며 배야는 고려 때부터 지세(地勢)에 등쳐 흐르는

3대강의 하나인 곡강(曲江, 영산강의 옛 이름)의 배류지를 이룬다. 일제 때 일본사람의 정착이 군내에서 제일 빠른 곳이 이 마을이며 일본사람 아사노(淺野)는 1500석 지기가 되었다 한다.

마을 앞에 있는 빈정포(賓亭浦)에서는 근세까지 조곡(租穀)을 받아 수송했다는데 이 보다는 약 500여년 전 대굴포(大堀浦)에 수영(水營)이 있었을 때 손님을 맞아들이는 정자(亭子)가 있어 빈정(賓亭)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나주시 공산면으로 가는 나루터가 있어서 후에 빈정포(賓亭浦)라 했고 조곡도 받아 수송했었다고 한다.

(1) 기동(基洞)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기 동(基洞)	군에서 14.0km, 면에서 7.0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26	10	16	15	15		33.0	15.0	5.0	13.0		미맥 배추 양파

거주 성씨	압해 정	수성 최	이천 서	상주 방	은진 송	광산 김	이천 서	해주 오	나주 김	김해 김	남원 양
가 호	1	1	1	1	1	2	2	1	5	5	2

기동

o 마을의 형성

이 마을은 약 300년전 전주이씨 응주가 배야마을에 입촌하면서 식솔인 추계추(秋季秋)씨가 이곳으로 들어왔다고 하나 현재 그 후손은 1호도 없으며 그 후 나주김(羅州金)씨와 이천서(利川徐)씨가 들어와 마을을 형성하였으며 현재는 여러 성씨가 모여 살고 있다.

옛날에 어떤 도사(道師)가 마을 앞을 지나가면서 말하기를 사방이 조그만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고 앞으로 강이 흐르고 있어 마을 터로서는 아주 좋은 터라고 하였다 하여 마을 명을 "기동(基洞)"이라고 하였다 한다.

옛날에는 영산강과 접해있는 마을이라 하여 임강촌(臨江村, 1789년 호구총수지명)이라고도 했다.

마을 앞 중천포 양수장에서 올려지는 농업용수를 월호리, 금송리, 석정리, 곡창리, 학교리의 농토에 공급되도록 지상으로 높이 2~4m 정도에 가설한 용수로 몇 십Km 가설하여 현대식 영농을 하도록 하고 있는 농업용수 공급지이다.

o 공공건물

·마을시정 : 2006년 5월 31일 군과 면의 행정지원금과 마을민의 출연금 총2,500여만원을 들여 마을민의 휴식처로 활용함.

·마을회관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그리고 마을민의 출연으로 1,600여만원을 들여 2008년 6월 30일에 완공하여 마을의 중심부가 되고 있다.

·기동경로당 : 2009년에 세워 마을 노인들의 휴식공간이 되고 있음.

o 자생조직

·친목계 : 1978년 계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생활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결성

o 유적과 유물

·고인돌(支石墓) ; 기동마을 뒷산 50m지점의 낮은 구릉(丘陵)에 고인돌 5-6기가 있었으나 도괴(倒壞)되고 매몰되어 1기만이 원형을 유지함

·중천포(中川浦) : 마산(馬山) 밑에 있는 나루터로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新谷里)로 건너가는 나룻배가 있었던 곳으로 1983년 영산강 유역 개발사업으로 이 지역 3,000정보 의 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양수장이 건립되어 가동 중이다.

지금은 단 몇 호만 살고 있지만 옛날에는 많은 사람이 살기도 한 곳으로 중촌(中村, 1789년 호구총수지명)이었던 곳이다.

·일본가옥 : 함평군지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 일제시대에 일본인 천야가 1,500석의 곡물을 받아서 일본으로 보내던 곳으로 그 때에는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야에게 고개를 숙이며 논 한마지기라도 더 받아 경작하려고 아부하던 지역이며 지역주민들은 천야에게 논을 팔드래도 우리나라가 해방되어 천야가 일본으로 쫓겨 가게 되면 도로 팔았던 사람이 다시 되찾는다는 소문에 지금도 일본인 명의의 국유지가 많은 지역이다.

· 성문재(城門)재 고개 전설 : 임진왜란(1529년, 선조25년) 당시 영산강으로 침입해온 왜군이 약탈행위를 일삼고 있었기에 이를 막기 위해 양쪽의 산골 길목을 중심으로 성문을 쌓았었는데 성문은 소실되었으나 지금도 이 고개를 성문재 고개라 부르며 월호리 들어가는 입구 길로 2차선 도로길이 되어 있다.

·유물산포지 : 이별바위산 남동쪽 중천포 나루터의 북쪽 산기슭의 민묘 부근에서 옹관편, 회청색경질토기편, 회색연질토기편이 출토되었다.

·지석묘군 : 마을 뒤편의 나주임씨 문중산에 6기의 지석묘가 있었으나 매몰 파괴되고 1기만 남아있다.

o 민속제향과 놀이

·마당밟기 농악놀이 : 정월 대보름이면 마을사람이 모두 나와 한바탕 어울려 놀면서 새해의 강녕을 기원하는 놀이이다.

o 배출인물

·정영강 : 화순 호남광역주식회사 사장

(2) 배야(背野)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배 야(背野)	군에서 14.0km, 면에서 7.0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32	15	17	20	20		56.0	26.0	10.0	20.0		미맥 배추, 감

거주 성씨	무안 박	한양 조	해주 오	나주 김	함평 이	전주 유	진주 강	제주 양	상산 김	의령 남	김해 김	광산 김	남원 양
가 호	3	1	1	1	2	1	1	3	1	1	2	1	1

o 마을의 형성

이 마을은 약 300년전 전주이씨 응주가 입촌하여 이 마을을 개척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전주리씨는 없다. 그 후 무안박(務安朴)씨 와 상산김(商山金)씨가 입촌하였으며 이곳에는 옛 진례면(進禮面)의 경찰주재소, 면사무소와 관사, 그리고 시장(市場)이 있었다고 하며 마을 주위에 대나무 밭이 많아 한 때는 황금밭이기도 하였던 곳이다.

금송평야(錦松平野)에 등져있는 평야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 마을이름을 배야(背野)라고 했다고도 하나 그보다는 마을 앞에 펼쳐져 있는 영산강 중류를 고려 때는 곡강(曲江)이라 불렀는데 그 까닭은 물이 지세(地勢)에 등져 흐르기 때문이었다는 설(說)이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곡강의 배류지(背流地)가 바로 마을 앞이며 배류지를 끼고 있는 평야라는 뜻으로 마을 앞의 평야를 배야(背野)라고 했고 마을 이름도 배야(背野)라고 하였다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o 자생조직

·마을촌계 : 1970년 마을공동체 의식과 품삯 결정

o 공공건물

·새마을 창고 : 1970년 마을비품과 농산물 보관용

·마을회관 : 2002년에 함평군의 지원을 받아 건립하였던 회관의 노후화로 전라남도, 함평군의 지원과 마을민의 출연금 5,000여만원을 들여 2009년 7월 31일 완공하였다.

·마을 시정각 : 2005년 3월 31일 함평군의 지원과 마을민의 출연으로 총2,500여만원을 들여 건립하였다.

·배야경로당 : 2003년에 세워 노인들의 휴식공간이 되고 있음.

o 유적 및 유물

·호은거사양공규상송덕비(湖隱居士梁公奎祥頌德碑)

·제주양공회상지효행비(濟州梁公會常之孝行碑)

·증 통정대부비서감승행효능참봉제주양재득 배 숙부인밀양박씨정렬비(贈 通政大夫秘書監丞行 孝陵參奉濟州梁在得 配 淑夫人密陽朴氏貞烈碑)

·고인돌 : 망월동 넘어가는 고개마루 정상부에 있으며 5기중 1기만 남아있다.

o 특이한 민속 제향과 놀이

·배야 농악놀이 : 풍년기원 마당밝기와 샘굿을 친다.

·당산제 : 정월 대보름에는 당산나무에 제를 지내며 풍년을 기원드린다.

o 배출인물

·김유원 : 제12대 학교면장 역임, 함평노인학교장 역임, 함평향교 전교 역임

(3) 망월동(望月洞)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망월동(望月洞)	군에서 14.0km, 면에서 7.0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39	16	23	29	29		76.0	25.0	14.0	37.0		미맥 마늘 양파

거주 성씨	무안 박	동복 오	남원 양	압해 정	의령 남	김해 김	전주 이	흥덕 장	제주 양	창녕 조	함평 이
가 호	4	6	5	1	1	2	3	1	2	1	1

o 마을의 형성

이 마을은 지금으로부터 약400여년 전 동복오(同福吳)씨가 입향하였고 이어 무안박(務安朴)씨와 남원양(南原梁)씨가 입향하였다 하며 지금은 여러 성씨가 마을을 형성하여 살고 있다.

마을 어귀로부터 마을 안에 이르기까지 당산나무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당사골(堂祠谷)”이란 이름으로 불리었는데 흉년과 가뭄으로 비오기만 기다리던 마을 사람들이 마을 옆에 있는 월출봉(月出峰)에 올라가 옛 이야기를 나누며 하늘을 쳐다보고 천문을 연구하며 천기를 점치기도 하고 장마와 가뭄을 이야기 하면서 달뜨는 시간을 기다렸다 하여 “망월동(望月洞)”이라고 하였다 한다.

또한 일설(一說)에는 마을 옆 월출봉에서 달을 관찰하여 풍년과 흉년, 가뭄과 비 올 때를 알아냈다 하여 "망월동(望月洞)"이라고 이름 붙였다 하기도 한다.

망월동에는 선사시대의 묘문화의 유물인 옹관묘가 남원양씨의 선산에 잘 보존되어 있어 그 시절의 장례문화를 엿볼 수 있으며 망월동은 옥태 망월의 지명이라는 풍수지리설에 걸맞게 지난 6.25사변 때에는 영산강이 앞을 가로 막고 있어 반란군들이 도망가는 길목이 여의치 않아 오지 않았기에 피난지로써 알려졌으며 인명피해 또한 한명도 없었던 곳이다.

o 공공건물

·마을시정 : 2003년 4월 30일 군의 지원을 받아 마을민의 출연금 2,000여만원을 들여 마을민의 휴식처를 마을 앞 뜰에 세움

·마을회관 : 2005년 5월 31일 군의 지원과 마을민의 출연금 4,000여만원을 들여 건립하여 마을회관이면서 경로당으로 활용함.

o 자생조직

·마을촌계 : 1970년 마을공동체 의식과 품삯 결정을 위해 창계하였다.

·위친계 ; 1980년 애경사시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결성함

o 유적과 유물

·독무덤군(甕棺墓群) : 월호리 망월동 뒷산에 소재(所在)한 독무덤군으로 봉분(封墳)의 형태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특색이다. 마을 사람들이 묘를 쓰기 위해 파헤쳐 많이 파손되었다. 대형, 소형 독널의 잔편(殘編)이 산 위에 많이 널려있다.

·빈정포(賓亭浦) : 학교면 소재지에서 7Km쯤 떨어진 영산강변의 마을로 함평군의 최남단을 이룬다.

·고인돌 : 마을 뒤산 양씨 선산에 위치하며 속금산의 지맥이 남쪽으로 뻗어내린 사면으로 해발 60m정도에 나주시 동강면과 무안군 몽탄면을 내려다보는 형태이다.

·선돌 : 마을 북쪽 길가에 세워졌으며 동막골에 세워졌던 것을 옮겨왔으며 수구맥이라고도 불리운다,

o 특이한 민속 제향과 놀이

·줄다리기 : 정월 대보름날 남자:여자, 웃춤 : 아랫춤의 대결로 여자가 이기면 농사가 풍년이 든다.

o 배출인물

·김양기 : 함평군 부군수 역임

(4) 용호(龍湖)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용 호(龍湖)	군에서 15.0km, 면에서 8.0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101	43	58	59	59		113.2	68.2	20.0	25.0		미맥

거주성씨	남원 양	김해 김	수성 최	
가 호	57	4	1	

o 마을의 형성

고인돌의 문화유적으로 미루어 선사시대(先史時代)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확실하나 기록이 없어 정확히는 알 수 없고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년 전에 남원양(南原梁)씨 양근(梁근)이 무오사화(戊午士禍) 때 경기도 시흥군 부곡면에서 이 곳 망월동(望月洞)이란 마을에 은신을 목적으로 왔다가 자손들이 번창하자 용호(龍湖)마을로 이주하여 남원양씨 마을을 형성하였으며 현재도 이 마을은 몇 호를 제외하고는 남원양씨가 자작일촌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망월동이란 마을에서 새로운 터로 이주하였다 하여 한 때는 마을 이름을 신기(新基, 1789년 호구총수지명)라 했다가 앞산(古文山) 및 영산강 줄기인 호수에서 용이 살았다 하여 마을 이름을 "용호(龍湖)"라 하였다 한다.

용호는 속금산(束錦山) 남쪽에 있는 마을이며 이 마을에서 강 건너 동남쪽으로 보이는 곳이 나주시 공산면 덕음 광산(公山面 德陰鑛山)이고 남서쪽은 고문산(高文山)이며 강 안쪽 함평땅은 옥수봉(玉岫峰)이다.

이처럼 사방이 산으로 쌓인 분지(盆地)를 이루고 있어서 영산강 하구언(河口堰)공사 이전에는 영산강이 범람하면 이곳은 마치 호수를 방불케 하며 가물면 바닷물처럼 짰었다고 한다.

현재는 민물이 되었다. 또한 친환경농법으로 무농약 영농기법을 시도하여 벼농사, 채소재배, 과일 야채재배 등을 1차적 지력강화기법으로 1994년부터 친환경농업(유기, 무농약농법)을 도입하여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특별한 영농으로 인근 대도시의 500여 가정의 소비자와 함께 풍년기원미사 및 영농발대식을 마을회관 앞 광장에서 실시하여 소비자가 직접 농촌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도·농 직거래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쌀값에 있어서는 미리 받는 선수금제도를 정착시켜 년말이내에 농가에 완전지불하고 쌀은 필요할 때마다 친환경 우리 정미소에서 그때 그때 도정 가공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완전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 영농으로 우수품질의 쌀을 생산 공급하는 안심하고 농사지어 제값 받고 공급하는 서로 믿는 직거래 농사를 하고 있는 친환경 영농 선도마을이다.

o 공공건물

·용호경로당 : 1984년 세워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음.

·창고 : 1965년 마을의 비품보관

·친목계 : 1992년에 세운 농휴각과 2005년 마을 시정을 증축하여 큰 마을민의 휴식처로 활용하고 있다.

o 유적과 유물

·쌍효문(雙孝門) : 1893년 효자(孝子)인 양주헌(梁柱憲)과 양하환(梁河煥)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

·효자비(孝子碑) : 1926년 효자(孝子) 양윤석(梁尹錫)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

·남원양씨삼강비(南原梁氏三綱碑) : 1976년 효자인 공조정랑 남원 양근(梁근)과 절의인 증병참 남원 양운수 (梁運壽), 그리고 열부인 나주임씨(양운수의 아내)를 기리기 위해 세웠다.

·효자오헌남원양공림환기적비(孝子梧軒南原梁公琳煥記蹟碑)

·유물산포지 : 마을 서쪽 구릉 말단부의 솟아오른 칼봉에서 남서쪽으로 흘러내려오는 지맥 말단부에서 대형옹관편과 회청색타날문토기편, 회색연질타날문토기편이 출토되었다.

o 특이한 민속 제향과 놀이

·용제단(龍祭壇) : 10여년 전까지만 하여도 용신(龍神)께 제사 지내던 제단(祭壇)으로 마을 앞 500m 떨어진 밭에 있었으며 지금도 흔적이 6평가량 남아 있는데 가뭄이 들었 을 때 용신에게 가뭄을 막아달라고 제를 지낸 제사 터였다고 한다.

o 자생조직

·상조회 : 남원양씨 촌으로써 애사시에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o 배출인물

·양한모 : 1950 이비인후과의원 개원 ·양성우 : 1944 서울 양천구 국회의원

·양상원 : 1960. 6. 8 해군 중령 ·양귀님 : 1948. 3. 9 국무총리상 수상

·양광모 : 광주 동·서부교육청 장학관, 무등초등학교장

·양성일 :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장 ·양봉원 : 광주하남초등학교장

10) 죽정리(竹亭里)

1914년까지는 목포부(木浦府)에 속했던 지역이다.

1914년 이제(이제)를 시행하면서 좌촌면(左村面) 둔기(屯基), 죽림(竹林), 덕산(德山) 전역과 정자동(亭子洞), 쌍교(雙橋), 월봉(月峰), 금동면(金洞面) 호암(虎岩) 각 일부와 진례면(進禮面) 부흥(復興)을 합쳐 죽림(竹林)에서 "림(林)"자와 정자동(亭子洞)에서 "정(亭)"자를 따 죽정리(죽정리)라 하였다.

(1) 죽림(竹林)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노적골(露積谷) → 죽 림(竹林)	군에서 10.0km, 면에서 3.0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15	7	8	5	5		8.0	3.0	2.0	3.0		미맥

거주성씨	정	신	박	편	강
가 호	2	2	3	2	1

o 마을의 형성

이 마을은 광산김(光山金)씨가 개촌(開村)했다고 전하는데 그 후손은 없고 80여년 전에 영성정(靈城丁)씨가 입촌하여 다시 마을을 이루게 되었다.

마을 동편에 대숲이 많아 죽림(竹林)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죽림보다는 풍수지리 학상의 노적동(露積洞)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2) 정자동(亭子洞)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상곡(上谷) → 정자동(亭子洞)	군에서 8.5km, 면에서 3.0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99	52	47	51	51		73.0	34.0	19.0	20.0		미맥

거주성씨	진주정	한양조	무안박	영성정	해남김	광산김	제주양	이천서	풍산홍	여산송	함평노	파평윤	함평이	풍천임	나주임	평강채	진주강	청주한
가호	10	6	4	4	2	2	3	2	3	1	1	1	2	1	1	2	1	1

o 마을의 형성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년 전 지주정(晉州鄭)씨가 입향하였고 약 200여년 전 한양조(漢陽趙)씨가 입향하였으며 그 후에 여러 성씨가 입향하였으나 현재는 진주정씨가 마을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 마을은 조선 선조때 양반이 많이 사는 마을이며 죽정리(竹亭里)에서 으뜸이라고 해서 "상곡(上谷, 1789년 호구총수지명)"이라고 마을명을 해오다가 마을 입구에 정자나무가 많이 있을뿐더러 망우정(望友亭)이란 정자가 건립되면서 마을 이름을 "정자동(亭子洞, 1912 행정구역개편지명)"이라고 하였다. 본래 이 마을은 무안군 좌촌면(左村面)의 지역인데 1910년 목포부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에 편입되었다.

o 자생조직

·백중계 : 마을민 상호간의 우정을 돈돈히 하기 위해 결성
·촌중계 ; 마을의 발전을 기하기 위한 총화단결을 목적으로 결성

o 공공건물

·마을회관 : 정종기씨의 자녀 일동이 마을의 중앙지에 자리한 부지 300평을 기증하여 함평군의 지원금과 마을민의 출연으로 총 5,000여만원을 들여 2000년 5월 5일 완공하여 마을사의 의논장이며 경로당으로 활용중임.
·마을시정 : 1918년 건립하여 2개소의 시정이 강학소와 함께 활용되고 있음.
·창고 : 마을 비품의 보관관리를 목적으로 세움
·정자동경로당 : 2004년에 세워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음.

o 유적과 유물

·충효각(忠孝閣) : 1870년 임란공신인 충신 정현보(鄭賢輔)와 효자 정인겸(鄭仁謙), 정윤진(鄭胤晋)을 기리기 위해 3문구조의 솟을대문 안에 상곡사와 함께 있다.
·망우정(望友亭) : 학교면 죽정리 정자동에 다정한 사람을 기다리는 상곡사 왼편의 정자로 정윤진(鄭胤晋) 300여년전에 세운 개방형 강학소로 정자나무 4그루가 함께하며 바로 옆의 저수지 둑에는 대나무 숲이 우거져 있다.
·상곡사(上谷詞) : 진주정씨삼세충효문(晋州鄭氏三世忠孝門) 좌측에 있으며 1870년 진주정씨 문중에서 세운 사우로써 조선시대 단종때 우의정을 지낸 정분(鄭苯)을 주벽으로 하고 손자인 진주정씨 무안파 시조인 정지소(鄭之韶)와 정계충(鄭繼忠)을 배향하고 있다.
·인헌공정계충구세공적비(忍軒公鄭繼忠救世功績碑)
·동암공정현보호국충혼비(東庵公鄭賢輔護國忠魂碑)

·송고거사정병일기념비(頌皐居士鄭炳日記念碑)
·진주정씨유래정착비(晋州鄭氏由來定着碑)
·지주정씨충장공파세거비(晋州鄭氏忠莊公派世居碑)
·죽사거사진주정공덕중송덕비(竹史居士晋州鄭公德仲頌德碑)

o 배출인물

·정순호 : 제15대 학교면장 역임
·정종남 : 학교면장 역임
·정인식 : 제8대 학교면장 역임
·정상용 : 국회의원 역임
·정윤기 : 우체국장 역임
·정선규 : 초등학교장 역임
·정종기 : 초등학교장 역임
·권상호 : 부천초등학교장
·정영균 : 해남초등학교장 역임
·조용성 : 초등학교장 역임
·정석균 : 육군대령 예편
·정용호 : 함평선광의원장
·정춘기 : 대학교 교수
·정진우 : 중,고등학교장 역임
·정진암 : 의학박사
·정용득 : 의학박사
·정정호 : 무역회사 대표이사
·홍승리 : 재림장학재단 대표이사, 대명금융 대표

(3) 덕산(德山)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덕 뫼 → 덕 산(德山)	군에서 5.0km, 면에서 4.0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105	57	48	52	38	14	86.0	42.0	12.0	32.0		미맥 복분자

거주성씨	나주 김	행주 기	장흥 고	기타
가 호	13	8	5	22

덕산

o 마을의 형성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년 전 압해정(押海丁)씨가 입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약 200여년 전 나주김(羅州金)씨 김박환(金博煥)이 무안읍(務安邑)에서 이주 입향하였으며 뒤이어 행주기(幸州奇)씨, 광산김(光山金)씨, 무안박(務安朴)씨, 장흥고(長興高)씨 기타 여러 성씨가 입향하여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마을 뒷산이 덕(德)있게 생겼다 하여 “덕산(德山, 1789년 호구총수지명)”이라 하였다는 설(說)이 있고, 또한 나주김씨 김박환이 마을 뒤에 큰산이 없으므로 멀리 있는 산의 덕이라도 보아야 하므로 모든 마을 민들은 덕을 베풀며 살라는 뜻으로 마을 이름을 덕산(德山)이라고 하였

다 하는 설(設)도 있다. 후동마을이 있었으나 저해 있기에 한 마을로 합했다.

o 자생조직

·촌계 : 1968년 마을민의 화합과 마을의 발전에 동참하기로 결성

o 공공건물

·파인텍스 : 섬유수출 전문업체
·기성산업 : 화학섬유 공장
·수풀나라 버섯공장 : 친환경 버섯을 직접 종균을 배양하여 재배하는 유일한 공장이다.
·동각 : 덕산마을에 2003년에 세워진 마을 시정과 2007년에 농휴각이 있으며 후동마을에도 2005년에 세워진 동각이 있어 마을민의 휴식처로 활용되고 있음.
·덕산경로당 : 1991년에 세워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음

o 유적 및 유물

·의사죽헌나주김공용언 효열부함평노병례여사 기실비
·참봉나주김공휘용기 유인김해김씨례동댁 추모비(參奉羅州金公諱用驥 孺人金海金氏禮洞宅 追慕碑)

o 마을과 관련되는 전설

·주엽나무 : 마을의 중간에 둘레 4.5m, 높이 15m되는 수령이 약 400년 가량의 주엽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숯은 어떤 나무의 숯보다 불이 잘 붙고 화력이 세기 때문에 화살촉을 만드는 땔감의 숯으로 쓰기 위해 장개문이 심었다 전한다.

o 배출인물

·기우성 : 정형외과원장
·김용언 : 함평의 3·1운동 주도자
·정영조 : 함평의 3·1운동 주도자
·고재문 : 영암종남, 신광초등학교장
·김두천 : 6·25때 완도서장으로 공을 세움
·김기천 : 초등학교교장 역임
·김우숙 : 목포해양대학교 대학원장
·김기수 : 서울수도사령관 육군중장

(4) 회초동(回草洞)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회초동(回草洞)	군에서 5.0km, 면에서 4.5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6	4	2	3	3		10.0	5.0	2.0	3.0		양파 미맥

거주성씨	나주 김	기타
가 호	3	

o 마을의 형성

이 마을은 약 60여년 전에 김윤의가 대동면 강운리 강정(大洞面 江雲里 江亭)에서 이거 정착한 후 생긴 마을이다.

죽정리(竹亭里)에서 가장 후에 생긴 마을이라고 하여 이름도 후동(後洞)이라고 하였다가 이 곳의 벌거숭이 황토 밭에 다시 풀이 돗아나듯 새로운 마을이 번창한다는 뜻의 회초동(回草洞)으로 개명하였다.

접해 있는 노리골마을까지를 한마을로 합하였다.

(5) 선암(仙岩)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선 암(仙岩)	군에서 10.5km, 면에서 3.5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112	51	61	39	39		45.0	20.0	18.0	7.0		미맥 특용작물

거주성씨	평산 신	나주 임	진주 정	밀양 박	함평 이	광산 김	장	윤	양
가 호	9	6	8	1	3	3	1	1	1

o 마을의 형성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년 전 한양조(漢陽趙)씨가 입향하여 마을을 형성하였다고 하나 오늘날 그 후손은 없고 평산신(平山申)씨와 나주임(羅州林)씨, 밀양박(密陽朴)씨, 함평이(咸平李)씨, 광산김(光山金)씨 등의 성씨가 모여 살고 있다.

이 마을 뒷산에 신선바위(神仙岩)라는 바위가 있는데 여기에서 마을 이름을 따 "선암(仙岩)"이라고 하였다 한다.

o 자생조직

·동계 : 1979년에 조직하여 고속득작물 재배를 위한 동미느이 모임으로 배, 사과, 포도, 딸기 등의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기술습득으로 주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함

·청소년회 : 1979년에 조직하여 청소년들의 화합과 마을의 발전도모

o 공공건물

·집하장 : 1996년 농산물 집하장으로 건립함

·마을 시정 : 1970년과 2003년에 세워진 마을 시정이 있어 휴식처로의 활용도가 높은 편

이다.

·선암경로당 : 2001년에 세워져 마을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음.

o 지명

·각시바위 : 바위 모양이 다소곳한 새색시의 숙인 머리 모양이어서 각시바위라 한다.

(6) 둔기(屯基)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둔 기(屯基)	군에서 7.0km, 면에서 1.0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38	18	20	15	15		27.1	10.0	7.0	10.1		미맥 마늘,양파

거주성씨	충주 지	남원 최	밀양 박	함평 이	전주 이	옹진 임	죽산 안
가 호	7	2	5	4	1	2	1

둔기

o 마을의 형성

이 마을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년 전 밀양박(密陽朴)씨가 입향하였다고 하나 임진왜란 때 마을 민이 몰살 당하고 이어서 충주지(忠州池)씨가 입향한 이래 현재까지 지씨가 주종을 이루며 살고 있으며 이 마을은 조선조 때 군인들이 군막(軍幕)을 치고 있었던 곳이어서 마을 이름을 "둔기(屯基)"라고 하였다 한다.

마을 주변을 개간하다가 토기와 돌, 절구 등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오랜 예부터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기도 한다.

1914년 이전까지는 목포부 좌촌면(左村面)이었다.

o 자생조직

·부녀회 : 1991년 마을 부녀들의 화목과 상부상조 정신을 굳게 하고자 결심

·동계 : 1970년 마을민의 화합과 마을의 발전을 도모코자 결성

o 공공건물

·마을회관 ; 마을민의 출연으로 아담하게 건립함.

·동각 ; 1910년에 지었던 구 건물을 철거하고 1999년 재건축하여 마을민의 휴식처가 되고 있음.

·둔기경로당 : 2005년 군의 지원을 받아 세워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음.

o 노거수

·주엽나무 : 수령이 400여년 된 주엽나무가 있음.
·느티나무 : 수령이 250여년 된 느티나무가 있음.

o 마을과 관련되는 전설

·용굴 : 마을 어귀를 용굴이라고 한 것은 옛날에 근처에 살던 용이 승천하려 할 때 마을사람들의 눈에 띄어 용으로 승천하지 못한 이무기가 화가 나서 굴을 뚫은 것이 사포까지 연결되었다고 하나 지금은 형체가 없으나 그 지명만은 지금까지도 불리우고 있다.

o 풍수지리 및 중요한 지명

·매봉 : 산모양이 매 같이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o 배출인물

·지만호 : 조선조때 좌수 역임
·지영빈 : 1915 제13대 학교면장 역임
·지종상 : 1948 육군대령
·지원상 : 1944 교도소 과장

(7) 호암(虎岩)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호 암(虎岩)	군에서 10.0km, 면에서 4.0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75	35	40	44	44		23.0	7.0	10.0	6.0		고추,양파 미맥

거주성씨	함평 노	함평 이	고령 신	기타
가 호	2	6	9	12

o 마을의 형성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년 전 함평노(咸平魯)씨가 입향한 후 함평이(咸平李)씨와 고령신(高嶺申)씨가 입향하여 마을을 형성하여 현재는 많은 성씨가 모여 살고 있다.

이 마을 뒷산에 호랑이 모양을 하고 있는 바위가 있다고 하여 마을 이름을 "호암(虎岩)"이라고 하였다 한다.

광주, 목포간의 국도 1호선 변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함에 1986년 함평농공단지(咸平農工團地)가 건설되어 주민소득에 기여하고 있다.

이 마을은 1914년 이전에는 목포부 금동면(金洞面) 이었다.

o 자생조직

·촌　　계 : 1964년에 결성하였고 마을운영 전반에 관하여 협의하는 기구이다.
·상수도계 : 1972년 마을 간이 상수도 운영 관리를 위해 결성함
·부 녀 회 : 1975년 마을의 공동 물품구입과 봉사 기금 마련 위하여 결성함

o 공공건물

·동각 : 1975년에 마을민의 힘으로 세워져 휴식처가 되고 있음.
·호암경로당 : 2006년에 군의 지원을 받아 세워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함

o 산업체

·함평농공단지 : 1986년 군민소득증대 및 주민일자리 마련을 위해 조성함
·마을 회관 : 마을 회의 및 창고

o 유적과 유물·노거수

·느티나무 : 수령이 300여년 된 노거수
·열부양성이씨행적비(烈婦陽城李氏行蹟碑) : 학교면 죽정리에 있음
·청파이선생흥학기념비(淸波李先生興學記念碑)
·함평이공삼강비(咸平李公三綱碑) : 광목간 도로변에 있으며 1879년 임진왜란때 노량진전투에서 순절한 선무원종3등공신 이분(李芬)과 이한익(李漢翼)의 처 열부 영광김씨와 효자 영추재(永追齋) 이성린(李聖隣)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

o 배출인물

·노공명 : 1951 육군대령
·이준범 : 1947. 10. 1 파출소장
·노갑부 : 동양의료기 대표
·신임식 : 삼호재활용 대표
·이계일 : 1944. 4. 16 국무총리상 수상
·이장웅 : 인쇄소 대표

11) 학교리(鶴橋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까지는 목포부(목포부)에 속했던 곳이다.

1914년 이제(里制)를 시행하면서 좌촌면(左村面)의 이암(耳岩) 전역과 쌍교(雙橋), 회춘동(回春洞)의 각 일부와 진례면 양화촌(進禮面 永化村)을 합쳐 학교리(鶴橋里)를 편성하였다.

이명(里名)은 소학교(小鶴橋), 대학교(大鶴橋)를 합쳐 쌍교(雙橋) 마을이라 붙인데 근하여 "학교(鶴橋)를 따 학교리(鶴橋里)라 했다.

1915년 10월 4일 금동(金洞), 좌촌(左村), 진례(進禮)의 3개면을 통합한 학교면사무소를 건

립하였는데 1985년 8월 13일에 현대식 2층 건물로 재 단장하게 되었다.

1913년에는 호남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학교역이 세워졌는데 1983년에는 학교역사가 현대식 2층 건물로 건립되었으나 로선직선화 및 고속전철화 사업에 의해 학교역이 학교면 사거리로 옮기면서 학교역을 함평역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1930년에는 기독교 교회가 세워졌고 1950년에는 학다리초등학교가 설립되어 영재양성에 이바지하다가 학교면내 3개초등학교 통합의 일환으로 2008년 8월 31일자로 학다리중앙초등학교로 통폐합되어 그 자리에 새로운 학다리중앙초등학교를 신축하여 2009년말 영창초등학교까지를 통폐합하여 학교면의 유일한 단일학교로 함평군내 제2규모의 학교로 거듭나게 된다.

1987년에는 학교농협이 학교 4리에서 학교 6리로 이전하여 현대식 2층 건물로 건립되었으며 단위농업협동조합의 통폐합사업에 의해 엄다농업협동조합을 통합하여 200년 3월 함평천지농협으로 이름을 바꾸어 운영하게 되었다.

(1) 큰동네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큰동네(큰동네)	군에서 7.0km, 면에서 0.0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145	74	71	81	81		29.5	20.0	8.0	1.5		미맥

거주 성씨	흥덕 장	인동 장	밀양 박	광산 김	김해 김	탐진최	신안주	이천서	경주김	천안전	진주 정	무안 박	양천 하	고성 김	함평 이
가 호	2	2	5	2	14	3	5	8	8	1	10	5	2	9	3

o 마을의 형성

1562년 흥덕장(興德張)씨의 의(懿)가 이주 정착하였으며 1800년대에는 신안주(新安朱)씨 계춘(啓春)이 이주하여 마을을 형성하였고 이 후 여러 성씨가 모여 살면서 인구수가 많아지고 지역이 넓어짐에 따라 운영리가 분할되어 현재 학교1리 큰동네, 학교4리 신학, 학교6리 백학으로 나뉘어 많은 성씨가 살고 있다.

학다리라는 이름은 마을의 형국이 학(鶴)과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하고 또한 옛날에 마을 앞까지 호수처럼 물이 찼을때 학이 많이 날아와서 노닐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하는 등 장수하는 학을 으뜸으로 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정확한 유래는 잘 알 수가 없지만 1789년 호구총수지명에는 호양촌(湖陽村)으로 되어있으며 지역이 넓어진 지금은 학교1리 큰동네, 학교4리 신학(新鶴), 학교6리 백학(白鶴)으로 정하여 각각의 마을 이름으로 부르기로 하면서 나뉘게 되었다고 한다.

o 자생조직

·촌　계 : 1980년 마을재산 공동관리와 마을민 화합을 목적으로 결성
·장학계 : 1982년 자녀의 학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결성
·노인회 : 1983년 노인 상호간의 친목과 청소년 훈도 목적으로 결성

o 공공건물

·권 종 각 : 1975년 마을 앞 들의 논을 보면 휴식
·경 로 당 : 노인들의 건강유지 휴식처로 제공
·체육공원 : 주민의 등산로 산책코스로 건강증진에 기여

o 유적과 유물

·유덕비(遺德碑) : 학교리 큰동네 마을 앞 동쪽 500m 지점에 옛날 동네 할아버지묘(墓)라고 하는 묘지가 하나 있는데 전하는 말에 의하면 1592년까지 이 마을에 살았던 윤내국(尹乃局) 부부는 슬하에 자손이 없었으므로 마을일에만 헌신 하는 덕을 베풀었으므로 마을민이 그 분의 유덕을 기리기 위하여 유덕비(遺德碑)를 세우고 매년 음력 3월 20일에는 마을 사람 모두가 모여 제사를 모시고 있다고 한다. 처음의 비는 1924년 3월 15일에 세웠는데 이 비가 파손 마멸되자 1967년 3월 15일에 다시 세웠다.

o 지명

마을의 주위에 순수 우리말 지명들이 많다. 그 옛날 학다리 평야가 바다였을때 선박의 닻을 맺다는데서 붙여진 닻배기, 골짜기의 형국이 칼을 감춘 듯하다는 도장골, 중이 북을 치는 형국이라는 승고실, 그 외에도 가마골재, 망가리, 한우재 등이 있다.

o 배출인물

·강길봉 : 변호사
·김사중 : 철도청 역장 역임
·노명규 : 제21대 학교면장 역임
·노인규 : 노인규외과의원 원장
·주상섭 : 경감 역임
·주용섭 : 파출소장 역임
·정희성 : 1951 육군사관학교 졸업. 육군준장
·주동필 : 1955 육군사관학교 졸업, 대령
·장산웅 : 1951 육군소령 예편
·서애련 : 1974　40회 사법고시합격
·김승규 : 1935. 지방서기관으로 광산구청 총무국장 역임
·김덕규 : 1944 서울성동공업고등학교장 역임
·김종윤 : 1953 육군지휘관 및 참모 역임
·김종팔 : 1958 광주 한빛안과원장
·김종철 : 1971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검사
·주형동 : 1951 서울시 송파구 장지중학교장
·주동철 : 1955 육군대령

(2) 이암(耳岩)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이 암(耳岩)	군에서 8.0km, 면에서 1.0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125	63	62	61	61		56.0	32.0	20.0	4.0		미맥

거주 성씨	진주정	김해김	함평이	인동장	밀양박	동복오	압해정	제주고	해남윤	이천서	제주양	평산신	밀양손	남양홍
가 호	10	7	5	4	6	2	2	2	2	1	1	1	1	1

o 마을의 형성

이암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년 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고 전하나 어느 성씨가 최초로 입향하여 살았는지는 모르며 약 300여년 전에 진주정(晉州鄭)씨와 진주강(晉州姜)씨가 입향 한 후 김해김(金海金)씨와 광산김(光山金)씨, 기타 성씨가 입향하여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마을 뒤 산등에 귀(耳)모양의 바위가 있고 또 마을 모퉁이에 귀걸이를 방불케 하는 돌이 점덤이 놓여 잇어 옛날 함평에서 나주 동강(洞江)을 거쳐 영암으로 가던 길손들이 점점의 암석위에서 쉬어 하는 말이 “귀바위 모둥이를 돌아 얼마 안가면 망월동(望月洞) 나루터가 나온다” 라며 ‘귀바위 귀바위’ 라고 불렀기 때문에 널리 알려진 “귀바위” 즉 이암(耳岩, 1789년 호구총수지명에도 동일하게 표기됨)을 마을 이름으로 하였다 한다.

또 일설에 의하면 옛날에는 회양촌(回陽村)이라고도 했다 하는데 마을 앞 하천에 큰 돌다리(石造築)가 있었는데 아낙들의 빨래터로 쓰기도 하고 논농사용 보(洑)역할로도 사용하던 중요한 시설이었으나 경지정리로 인해 그 흔적이 없어졌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는 목포부 좌촌면(左村面)이었다.

o 자생조직

·친목계 : 1980년 마을민의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결성
·혼인계 : 1976년 자녀 혼인시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결성
·이암동계 : 1991년 마을 경조사에 봉사의 목적 및 공동물품 보관관리를 목적으로 결성

o 공공건물

·회관 : 1995년 마을민의 회의실로 건립
·창고 : 1974년 마을 물치장으로 건립
·체육공원 : 주민의 등산로 산책코스로 건강증진에 기여
·동각 : 1995년 마을민의 힘으로 세워 마을길을 오가는 이에게까지 휴식처로 제공하고 있음.

·이암경로당 : 2003년 군의 지원을 받아 세워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함

o 배출인물

·김다물 : 지서장 역임 ·정헌진 : 해군소령 예편

(3) 영화촌(永化村)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영촌(永村) → 영화촌(永化村)	군에서 9.0km, 면에서 2.0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미맥
79	30	49	42	41	1	74.0	26.0	20.0	28.0		양파,마늘

거주성씨	김해김	함평이	능주구	무안박	광산김	이천 서	기타
가 호	9	4	1	4	5	1	26

o 마을의 형성

마을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확실한 것은 알 수 없고 그나마 확실한 연대를 알 수 있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여년 전 김해허(金海許)씨 '기회(奇會)'가 입향하였으며 이어 창녕창(昌寧昌)씨, 그리고 김해김(金海金)씨인 상구(상구)와 상칠(상칠) 두 형제가 입향해서 마을을 형성하였다. 그 후 처가(妻家)인 능성구(綾城具)씨와 함께 살았다고 하며 현재는 김해허(金海許)씨, 김해김(金海金)씨, 안동김(安東金)씨, 광산김(光山金)씨, 상산김(尙山金)씨, 창녕창(昌寧昌)씨, 능성구(綾城具)씨, 전주이(全州李)씨, 함평이(咸平李)씨, 청주한(淸州韓)씨, 무안박(務安朴)씨, 밀양박(密陽朴)씨, 인동장(仁同張)씨, 이천서(利川徐)씨, 나주임(羅州林)씨, 영성정(靈城丁)씨, 진주정(晉州鄭)씨, 전주최(全州崔)씨, 낭주최(郎州崔)씨, 담양전(潭陽田)씨, 천안전(天安全)씨, 창녕조(昌寧曺)씨, 한양조(漢陽趙)씨, 광산노(光山盧)씨,함평노(咸平魯)씨 등이 모여 살아가고 있다.

원래는 영촌(永村, 1789년 호구총수지명 무안군 진례면 영촌)이라 하였으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12년 행정구역 개편 때 마을명을 "영화촌(永化村)"으로 바꾸어 불러 현재에 이르고 선돌골, 조소곡, 우유목장 등의 우리말 지명이 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는 목포부 진례면(進禮面)에 속했다.

o 자생조직

·동 계 : 마을민 52명 전체가 친목도모와 화합을 목적으로 조직함

·부녀회 : 25명이 애경사시 서로 돕고 친목을 도모함

·경노회 : 1999년 35명의 노인 건강증진과 친목을 도모코자 결성함

o 공공건물·산업체

·마을회관 : 1968년 마을회의와 경조사시 사용
·창　　고 : 1969년 마을 비품의 보관을 목적으로 건립
·파인택스 : 플라스틱 욕조 제작제조 공장
·동각 : 1955년 마을민의 힘으로 세워 휴식처가 되고 있음.
·영화촌경로당 : 1999년에 세워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음.

o 유적과 유물

·선　돌 : 학교리 산 37-4번지 영화촌마을의 동쪽 밭에 4기의 선돌이 현존하고 있다.
·고인돌 : 학교리 영화촌 동남쪽 700m 지점 한길가 구릉지에 10여기와 마을앞 150m 지점에 6기가 있어 청동기 시대에도 사람들이 살았다는 증거가 되고있다.
·숙천인여산송씨열효비(淑天人礪山宋氏烈孝碑) : 마을 앞에 1903년에 김수성의 처인 여산송씨를 기리기 위해 세움
·영화촌장학회설립기념비(永化村奬學會設立紀念碑)
·송암김용규송공비(松菴金容圭頌功碑)
·죽당박재수공로비(竹堂朴載洙功勞碑)
·새마을사업공덕불망비(새마을事業功德不忘碑)
·청암김종환선생기공비(淸菴金鍾煥先生紀功碑)

o 배출인물

·김문현 : 진례면장 역임　　·김문경 : 진례면장 역임
·구재학 : 초등학교 교장 역임
·김민수 : 제 1~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평통회장 역임
·임봉주 : 육군소령　　·김동만 : 육군소령

(4) 신학(新鶴)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신　학(新鶴)	군에서 7.5km, 면에서 0.5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177	87	90	72	72		25.0	16.0	1.0	8.0		미맥

거주 성씨	김	박	안	조	노	유	천	양	최	고	이	이	송	오	정	선	지	어	윤	임	나
가호	13	10	1	2	4	2	1	4	2	1	8	3	2	7	1	2	2	2	1	1	1

o 마을의 형성

1562년 흥덕장(興德張)씨 의(懿)가 이주 정착하였으며 1800년대에는 신안주(新安朱)씨 계춘

(啓春)이 이주하여 마을을형성하였고 이 후 여러 성씨가 모여 살면서 인구수가 많아지고 지역이 넓어짐에 따라 운영리가 분할되어 현재 학교1리 큰동네, 학교4리 신학, 학교6리 백학으로 나뉘어 많은 성씨가 살고 있다.

o 자생조직

·장학계 : 1983년 자녀의 학자금 지원과 친목을 도모코자 결성함

o 공공건물

·학교역사 : 1983년에 새로 지었으나 2001년 사거리의 함평역으로 이전하면서 철거되었다.
·대한통운 : 1975년 재건축하여 지역 생산 농산물 및 기타 물류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나 사거리로 옮겨가면서 철거되었다.
·농협창고 4동 : 정부양곡 및 농산물 보관관리
·동각 : 2002년 군의 지원을 받아 세워짐
·신학경로당 : 2008년에 군의 지원을 받아 세워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음.

o 배출인물

·김사중 : 철도역장 역임

(5) 쌍교(雙橋)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쌍 교(雙橋)	군에서 8.0km, 면에서 1.0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223	111	112	67	67		21.0	15.0	6.0			미맥

거주성씨	조	정	김	서	나	윤	이	최	박	고	한	양	신	지	장	전	원
가호	12	10	1	2	4	2	1	4	2	1	8	3	2	7	1	2	2

거주성씨	백	노	곽	손	설	홍	표	주	허	유	임	진	함	목	오	인	채
가호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o 마을의 형성

지금으로부터 약 300여년 전 광산김(光山金)씨가 입향한 후 한양조(漢陽趙)씨, 진주정(晉州鄭)씨가 입향하였으며 지금은 누가 먼저이고 누가 뒤에 입행하여였는지 알 수 없는 많은 성씨가 모여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1789년의 호구총수지명에도 쌍교(雙橋)로 표기되고

있는 이 마을은 마을 양옆으로 하천이 있어 소학교(小鶴橋), 대학교(大鶴橋)로 불리우는 다리가 두 개여서 “쌍교(雙橋)”라 하였다는 것과 학의 다리가 두 개여서 마을 이름을 “쌍교”라 하였다는 설이 있으나 다리가 두 개여서 마을 이름을 쌍교(雙橋)라 하였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o 자생조직

·부인계 : 1985년 애경사시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직

·청년회 : 1982년 지역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조직

o 공공건물

·시온원 : 불우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동각 : 2003년 군의 지원을 받아 마을민이 힘을 모아 세워 휴식처로 활용하고 있음.

·경로당 : 2002년에 세워 마을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음.

o 유적과 유물

·학림사(鶴林寺) : 학교면 학교리 쌍교마을에 있는 학림사는 건립년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3,600평의 대지에 건립되었고 절 뒤 울타리는 희귀한 오죽(검정 대나무)이 자라고 있었으며 모과나무, 감나무, 귀목나무 등의 수목이 많이 있었다고 하며 큰 수양버들 한 그루가 있었는데 여기에 그네를 만들었고 그 그네를 뛰는 처녀의 붉은 댕기는 하늘로 오르고 버드나무는 춤을 추는 마을사람들의 좋은 놀이터였다.

그러나 6.25한국전쟁 중 학림사를 지서로 사용하면서 대나무 울타리를 석축으로 변모시켰고 학림사 대웅전은 내부가 변경되어 건물만 남아있으며 2층 종찹은 학교 뒷산으로 옮겨 노인당으로 사용하였으나 여기에서 목매어 죽은 젊은이가 많아 마을 사람들의 뜻에 의해 파괴되었다.

현재 학림사 터에는 50여년전부터 사단법인 단체인 함평 시온원이 자리하여 어려운 고아들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보통학교가 학림사 앞 터에 위치하였으나 해방 후 학다리초등학교로 개칭되면서 역적으로 이전되었고 보통학교터에는 5일 시장과 도축장이 설립되었으나 홍수피해지로 5일 시장은 사거리 중앙동으로 옮겨가고, 도축장은 월산3리 월봉마을 앞으로 1979년도에 옮겨지고 시장터에는 주택이 들어서 마을이 확대되었다.

o 풍수지리 및 중요한 지명

·백학귀소형(白鶴歸巢形) : 조선조때 도승(道僧)이 지나다가 현 학교면사무소 자리에 이르러 좌우를 살피며 지세를 보더니 백학귀소형(白鶴歸巢形)이 분명하나 야학(野鶴, 지금의 엄다면 학야리)을 보고 날아 가버리려 하니 학의 양다리에 교량(橋梁)을 놓아 학의 다리를 묶어 놓으면 영생불변(永生不變)할 마을이 될 것이라며 빈자(貧者)를 돕는 덕망(德望) 높은 자가 나오리라 하며 지나갔다고 한다.

그리하여 양다리를 놓고 영생불변할 마을을 만들어 왔다 한다.

·학다리 장터 : 옛 학다리 장터로 조그만 비에도 범람이 잦아 중앙동 신시장으로 옮긴 뒤 주택지가 되었다.

(6) 백학(白鶴)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백 학(白鶴)	군에서 7.0km, 면에서 0.0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141	73	68	64	48	16	10.0	9.0	1.0			미맥 상업

거주성씨	김해김	밀양박	하동정	경주이	압해정	금성나	윤	강	전	죽산안	주	최
가호	10	8	5	7	4	4	3	3	2	5	2	2

거주성씨	문	충주지	오	권	염	서	장	배	남	조	채	표
가호	2	4	1	1	1	1	1	1	1	1	1	1

o 마을의 형성

1562년 흥덕장(興德張)씨 의(懿)가 이주 정착하였으며 1800년대에는 신안주(新安朱)씨 계춘(啓春)이 이주하여 마을을 형성하였고 이 후 여러 성씨가 모여 살면서 인구수가 많아지고 지역이 넓어짐에 따라 운영리가 분할되어 현재 학교1리 큰동네, 학교4리 신학, 학교6리 백학으로 나뉘어 많은 성씨가 살고 있다.

o 자생조직

·촌계 : 마을민의 융화단결과 마을 발전을 도모코자 조직

o 공공건물

·학교면사무소 : 1985년에 지었고 면민생활에 봉사 센타

·함평천지농협 : 1987년에 지었고 면민의 경제생활에 봉사

·학다리중앙초등학교 : 1948년 2세 교육의 도장으로 개교한 학다리초등학교는 2008년 8월 31일자로 면내 3개교를 통폐합 결의에 의해 학다리중앙초등학교로 통합되어 2009년말 재건축된 함평군내 제2의 규모학교로 거듭나게 되었다.

·마을회관 : 2002년 10월 8일 함평군과 학교면의 지원과 마을민의 출연으로 총 5,500여만원을 들여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 활용함.

o 유적과 유물

·구 학교역 급수탑 : 호남 서남부 지역의 유일한 것으로 일제강점기 때(1913년) 철도를 개설함에 있어 1918년 간이급수시설로 이용하다가 1921년 시설을 완공하여 기관차 급수용

시설호 활용하다가 디젤기관차의 출현으로 1955년 10월 폐쇄되었다. 급수탑의 상단부 물탱크 부분은 소실되었고 하단부는 장방형으로 다듬은 석재를 품(品)자형으로 정연하게 쌓아올린 첨성대와 같은 모양의 원통형이다. 등록문화재 제63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학교면장정규환불망비(鶴橋面長丁奎桓不忘碑)

·학교역터(鶴橋驛址) : 호남선 철도역으로 1913년 건립되어 2001년 새로운 철도가 개설되면서 역이 사거리로 이전되어 함평역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고 역사는 철거되어 급수탑만 덩그러니 남아있다.

o 배출인물

·노계룡 : 육군본부 및 해군본부 대령 예편 (현) 국방부 안보교육 강사

·문호상 : 화물자동차 공제조합 광주,전남 조합장 역임

·박진춘 : 육군대령 ·박효명 : 전남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교수

(7) 회춘동(回春洞)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 치
귀래촌(歸來村) → 구래촌(舊來村) → 회춘동(回春洞)	군에서 8.5km, 면에서 1.5km

인 구			가 호			면 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101	54	47	41	41		54.0	24.0	8.0	22.0		미맥

거주성씨	광산김	순흥안	이천서	평산신	해남윤	정	함평이	김해김	밀양박	유
가호	9	3	5	5	1	2	1	2	2	2

o 마을의 형성

광산김(光山金)씨 회춘당 김대연(回春堂 金大衍, 1690 – 1783)이 1720년경 무안읍 고정(務安邑 高節)에서 이거 정착했으며 약 100년전 평산신(平山申)씨와 이천서(利川徐)씨, 순흥안(順興安)씨가 입향하여 마을을 형성하여 지금은 여러 성씨가 모여 살고 있다.

옛날에는 귀래촌(歸來村, 1789년 호구총수지명)이었으며 지금도 이 이름의 음이 변형되어 “구래촌(舊來村)”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귀래촌의 내력은 알 수 없고 동구 밖 좌측, 지금의 당산나무 자리에 약 500년 된 팽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이 나무는 1837년 강한 폭풍우(暴風雨)에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는데 그 고목의 뿌리에서 새순이 다시 돋아 나와 지금의 당산나무가 상서롭게 자라므로 새롭게 봄이 돌아왔다는 뜻으로 마을 이름을 회춘동(回春洞)이라고 불리어오고 있다고 하며 또한 일설(一說)에는 개촌자 김대연(開村者 金大衍)의 호(號)인 회춘당(回春堂)을 따 회춘동(回春洞)이라고 했다고도 한다.

o 자생조직

·위친계 : 1970년 애경사시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결성

·촌중계 : 1960년 마을민의 단합과 마을의 발전을 위하여 결성

o 공공건물

·회춘동 경로당 : 1998년 9월 30일 군의 지원과 마을민의 출연으로 총4,500여만원을 들여 마을 노인의 휴식처인 경로당을 건립하였다.

o 유적과 유물

·광산김씨세덕비명(光山金氏世德碑銘) ; 1947년 세움

·회춘거사광산김공거정비(回春居士光山金氏居亭碑) ; 1987년 세움

·은곡광산김공용안선덕불망비(隱谷光山金公容安善德不忘碑) : 마을 앞에 세움

·순흥안씨효열각(順興安氏孝烈閣) : 일제강점기에 세운비로 내부에 2개의 비가 있으며 그중 효자 안형권(安馨權)과 그 아내 효부 광산김씨(光山金氏)의 비와 효자 안형국(安亨國)과 그 아내 효부 완산이씨(完山李氏)의 비이다.

·동복오씨유적비(同福吳氏遺蹟碑) : 일제강점기에 세움

·유명조선이조참판광산김공위대연지묘 배정부인이천서씨좌(有明朝鮮吏曹參判光山金公諱大衍之墓, 配貞夫人利川徐氏左)

·유명조선국통정대부증승정원좌승지광산김공위상양지묘 배숙부인한양조좌(有明朝鮮國通政大夫贈承政院左承旨光山金公諱相養之墓 配淑夫人漢陽趙左)

·선 돌 : 마을 앞 당산나무 아래에 있으며 정월 대보름날의 당산제 할매당산이다.

o 노거수

·팽나무 : 마을 동편 도로변에 200여년 된 팽나무가 3개의 수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나무아래에는 선돌이 세워져 정월 대보름날이면 당산제를 지낸다.

o 특이한 민속 제향과 놀이

·당산제 (堂山祭) : 지금의 마을 앞 당산나무 자리에 큰 고목이 있었는데 1837년 강항 폭풍우에 견디지 못하여 쓰러진 이 고목은 팽나무로 둘래 10m, 높이 30m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쓰러진 이 고목의 뿌리에서 돋아난 새순이 한창 자랄 무렵인 60여년 전에 마을에 온갖 질병이 나돌아 죽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나무 앞을 지나던 한 선비가 “영험스런 나무에 제사를 모시지 않아 폐촌이 되는구나”하며 지나갔다 한다. 그 후 마을에서는 가가호호 볏짚 1단씩 모아 새끼줄을 고아 줄을 만들어 꾸세기(웃촌)와 아랫촌이 두 패로 나위어 줄다리기를 실시한 뒤 그 줄을 나무에 감은 다음 풍년(豊年)과 국태민안(國泰民安)을 기원하는 당산제를 나무 밑에 있는 평퍼짐한 돌에서 지내고 있다.

제관은 나이 많은 마을 어른이 되며 유고가 없는 한 정월 대보름날에 당산제를 지내며 이 날은 밤이 깊도록 농가놀이를 계속하여 마을터를 다잡아 준다고 한다. 그래서 인지 6.25한국전쟁 중에도 한 사람의 사상자도 없었다고 한다.

o 지명

이 마을에는 개안골, 점심골, 대면등, 고래실, 황장둑, 도장골, 서남재, 금은돌 등의 옛 지명이 전해오고 있다.

o 배출인물

·김용안 : 철도역장역임
·김대식 : 대학교수
·김선명 : 김의원원장
·김삼중 : 육군소령 예편
·김용복 : 파출소장 역임
·김유중 : 초등학교장 역임
·김길중 : 전라남도교육청 서기관, 연수원총무부장, 광주,전남 교육행정직회장
·김전중 : 철도청 행정서기관
·김산중 : 중학교장
·서오근 : 전라남도문학상 수상
·오순기 : 제18대 학교면장 역임
·김태민 : 서울경찰청 경감 역임
·서을상 : 동아전기 사장 역임
·김경중 : 전라남도보성교육청교육과장, 화순초등학교장

(8) 달배기

마을 이름 변천 과정	위치
닻배기 → 달배기	군에서 7.2km, 면에서 0.2km

인구			가호			면적					특작물
계	남	여	계	자가	기타	계	논	밭	임야	기타	
152	73	79	77	77		26.0	18.0	5.0	3.0		미맥

거주성씨	김	이	나	노	박	배	장	정	안	주	조	한	염	채	유	설	허	강
가호	16	6	1	2	4	3	6	2	3	4	3	2	1	1	1	1	1	1

달배기

o 마을의 형성

이 마을은 학교리에서 분구(分區)된 마을로 예전에는 마을의 동북쪽 철길 안쪽에 어선이 닻을 내렸다는 마을로 여느 포구와 마찬가지로 주택들 모두가 낮은 곳을 피해 산등성이에 자리하고 있어 경관(景觀)이 좋으며 학교평야의 수해(水害)시에도 피해가 없었던 마을이나 교통이 불편한 것이 흠이라 할 수 있는 마을이지만 자연스럽게 여러 성씨들이 모였다 헤어지고 또 모이여 살아가는 마을이다.

o 공공건물

·함평경찰서남부지구대 : 2004년도부터 엄다파출소와 대동파출소를 학교파출소에 통합하여 남부지구대로 운영하다가 대동면지역을 중앙지구대로 재편하고 엄다파출소 관할까지를 관장하는 남부지구대로 주민의 안전생활을 담당한 봉사 센터로 운영 중이다.

·마을회관 : 1998년에 건립한 새마을창고를 함평군의 지원을 받아 리모델링하여 마을회관으로 활용중임

·달배기경로당 : 2006년에 군의 지원을 받아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

제9절 해보면 (海保面)

집필 / 고 송 주

광암리(光岩里) / 853
금계리(金溪里) / 856
금덕리(琴德里) / 859
대각리(大角里) / 866
대창리(大倉里) / 871
문장리(文場里) / 875
산내리(山內里) / 879
상곡리(上谷里) / 882
용산리(龍山里) / 892
해보리(海保里) / 898

1. 면사무소 소재지와 규모

1) 소재지 :

해보면 금덕리 495-1

2) 규모

·대지면적 : 4,865m2
·부대시설 : 창고 1동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 2층
·착공·준공년월일
1997. 12. 11 ~ 1998, 8, 22

2. 연혁

원삼국시대(原三國時代, 삼한시대)는 마한(馬韓)에 속했고, 백제 때는 다지현(多只縣)에 속했다. 신라 때는 다기현(多岐縣), 고려와 조선조 초는 모평현(牟平縣, 별호 모양-牟陽)에 속했고, 모평현의 현청이 상곡리 상모(上牟)에 있었는데 동헌 등의 유적이나 유물은 남아있지 않고 관아의 식수원(食水源)이었던 "안샘" 또는 "골샘"으로 불리는 샘이 남아있다.

조선조 태종 9년(太宗, 1409) 함풍현(咸豊縣)과 모평현을 합해 함평현(咸平縣)이 설치됨에 따라 함평현에 속하게 되었고, 면제(面制)가 시행된 후 행정구역의 조정이 거의 없었던 면이다.

*참고 1. 1789년 호구총수 지명(戶口總數 地名)에 기재된 해보면의 관할 마을은 아래와 같다. (총 58개 마을)

계동(桂洞, 현 나산면 우치리), 자양(紫陽, 자양서원 터 , 현재 논), 병암(屛巖, 현 대동면 연암리), 도연지(倒連池, 현 연암리), 송산(松山), 안인산직(安仁山直), 안인동(安仁洞), 각공(角公), 월대(月岱), 오두치(烏頭峙), 분매동(分梅洞, 현 대동면 연암리), 용흥동(龍興洞, 현 나산면), 운암(雲巖), 광동(廣洞), 선치(蟬峙), 신산직(新山直), 산내(山內), 금산직(今山直), 신계(新溪), 지족동(知足洞), 연암(連巖), 월라(月奈), 월선동(月仙洞), 옹점(瓮店), 상발미(上發美), 하발미(下發美), 사장(沙場), 내대(內代), 천변(川邊), 수각(水閣, 현 나산면 초포리), 지변(池邊), 중촌(中村), 상평지(上平池), 중평지(中平池), 하평지(下平池), 칠성(七星), 성대(星岱), 원축동(元築洞),

사창(社倉), 성산(城山), 창남(倉南), 연동(鳶洞), 경덕(京德, 현 월야면), 용반동(龍反洞, 현 월야면), 이성(鯉城, 현 월야면), 방축내(防築內), 주현(舟峴), 석교(石橋), 신귀밀(新歸密), 상귀밀(上歸密), 가오지(加五旨), 신교(新橋), 선장(蟬場), 만연동(萬延洞), 명암(鳴巖), 화촌(花村, 현 월야면)

* 참고 2. 1910년 행정구역지명 : 48개 마을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면서 각 면의 마을 이름을 수록한 것으로 누대로 내려온 우리나라의 지명에 혼동을 주기 위해 고증을 거치지 않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한자표기(漢字表記)를 하였는데 예를 들면 "신(新)"자를 "신(申)"으로, "구(龜)"자를 "구(九)"자로, "성(城)"자를 "성(成)"자로 쓴 것이다.

따라서 1879년 호구총수지명과 비교하여 폐촌되고 새로 생긴 마을을 알아보는데 참고가 될 뿐 한자 표기는 참고가 되지 않는다.

계동(桂洞), 사창(士昌), 성대(成大), 창서(昌西), 상모(上牟), 하모(下牟), 운곡(雲谷), 발미(發味), 가작(佳作), 월현(月玄), 지족(知足), 연암(連岩), 송계(松溪), 신계(申溪), 신성(申成), 금산(今山), 연동(年洞), 산내(山內), 가정(可丁), 운암(雲岩), 오두(五頭), 기동(己洞), 회화(回花), 안인(安仁), 각궁(角弓), 송산(松山), 노선(老仙), 도연(道連), 원축(元丑), 성산(星山), 신대(申大), 가오(佳午), 백옥(白玉), 주현(舟現), 하귀(下歸), 중귀(中歸), 상귀(上歸), 문암(文岩), 선장(先場), 만년(萬年), 대천(大泉), 구계(九溪), 경덕(京德), 화촌(化村), 하고(下古), 금곡(今谷), 유정(有丁), 모산(茅山)

*참고 3. 1914년 이제(里制)가 시행되면서 아래의 마을이 면간(面間)에 조정되었다.

그리고 1910년 지면 표기에 이의가 많아 대체로 고증을 거쳐 한문표기를 했다고 한다.

▶ 평릉면(平陵面, 현 나산면 일부)

공정(公亭) 일부가 대창리에, 월악면(月岳面, 현 월야면 일부) 용촌(龍村) 일부가 용산리에, 대야면(大也面, 현 월야면 일부) 복룡(伏龍)일부가 금덕리에 편입되었다.

▶ 성대의 계동(桂洞)

일부가 나산면 우치리(牛峙里)로, 성산 일부가 월야면 용월리(龍月里)와 양정리(陽亭里)로, 문암의 일부가 월야면 정산리(亭山里)로, 대수(大水)가 영광군 묘량면 연암리(連岩里)로 편출되었다.

*참고 4. 1914년 이제 시행때 조정되어 오늘에 이르는 각 이(里)의 관할 마을은 아래와 같다.
*지명의 한자(漢字)는 당시 표기 한자임

▶ 광암리(光岩里)

해보면의 광동(光洞)·운암(雲岩)·가정(柯亭) 전역과 산내 일부 지역

▶ 금계리(金溪里)

해보면의 금산(金山)·송계(松溪)·지족(知足)·연암(連岩)·연동(連洞) 전역

▶ 금덕리(琴德里)

해보면의 구계(九溪)·금곡(琴谷)·화촌(花村)·유정(柳亭) 전역과 경덕(京德)·만년(萬年)·하고·선장·상귀·대야면의 복룡 각 일부

▶ 대각리(대각리)

해보면의 기동(基洞)·오두(烏頭)·각공(角公)·안인(安仁) 전역과 회화(檜花) 일부지역

▶ 대창리(大倉里)

해보면의 창서(倉西)·사창(社倉) 전역과 상귀(上歸)·주현·문암·선장(蟬場)·하고(下鼓) 각 일부 지역

▶ 산내리(山內里)

해보면의 송산(松山) 전역과 도광(道光)·산내(山內) 각 일부지역

▶ 상곡리(上谷里)

해보면의 상모(上牟)·하모(下牟)·운곡(雲谷) 전역과 계동·성산·도노(道老)·월현(月峴)의 각 일부지역

▶ 용산리(龍山里)

해보면의 신대(新岱)·백토(白土)·가오(加午) 전역과 성산(成山)·주현(舟峴)·월악면의 용촌 각 일부 지역

▶ 해보리(海保里, 당시 면 소재지)

해보면의 가작(佳作)·발미(發美)·모산(茅山) 전역과 월현 일부 지역

3. 논·밭 면적과 가호수 및 인구수

2008. 12. 31 현재

리명 \ 구분 \ 마을명		논, 밭 면적(ha)			인 구			참고
		논	밭	계	남	여	계	
광암리	광 암	17.5	34.2	51.7	45	41	86	
금계리	금 산	18.5	18.6	37.1	50	56	106	
금덕 1리	시 장	22.0	15.6	37.6	292	261	553	
금덕 2리	유 정	47.6	11.0	58.6	92	100	192	
금덕 3리	금 곡	23.0	9.5	32.5	78	62	140	
금덕 4리	고 두	34.7	8.3	43.0	69	51	120	
금덕 5리	구계·만년	40.9	13.7	54.6	64	56	120	
대각 1리	오 두	15.1	24.0	39.1	25	19	44	
대각 2리	각궁·회화	22.5	22.5	45.0	20	25	45	
대창 1리	창 서	59.0	12.0	71.0	49	56	105	
대창 2리	성 대	33.6	7.0	40.6	50	42	92	
문장 1리	문 암	30.8	5.5	36.3	20	25	45	
문장 2리	상 귀	38.0	12.1	50.1	45	39	84	
문장 3리	중 귀	54.5	6.0	60.5	41	53	94	
문장 4리	하 귀	55.8	5.3	61.1	85	89	174	
산내 1리	원 산	21.0	16.7	37.7	32	29	61	
상곡 1리	상 모	57.0	19.5	76.5	92	88	180	
상곡 2리	하모·운곡	35.0	18.0	53.0	53	45	98	
용산 1리	주 현	40.6	11.8	52.4	128	121	249	
용산 2리	소 성	60.5	16.0	76.5	42	36	78	
용산 3리	대 성	40.6	12.0	52.6	41	43	84	
용산 4리	백 토	38.5	4.8	43.3	55	57	112	
해보 1리	모 산	37.9	8.9	47.8	55	45	100	
해보 2리	발미·가작	38.3	16.9	55.4	90	85	175	
해보 3리	월 현	46.6	18.2	64.8	33	44	77	
계	36 마을	349.1	930.7	1,279.8	1,646	1,568	3,214	

4. 인구의 변동

해보면의 가호와 인구수가 기록된 가장오래된 문헌은 1757년부터 1765년까지 간행한 『여지도서』 이며 가호와 인구는 1759년을 기준으로 했다고 한다.

이 때 남녀 구성비율을 보면 여자가 55.63%로 남자에 비해 많음을 볼 수 있다.

1965년에 이르러 남녀구성비는 동률이나 다름없으나, 여성이 약간 많음을 보인다. 1996년 통계를 보면 역시 동률을 이루고 있으나 남자가 20명 이내에서 많다. 2008년 통계에서는 남자 1,646명 여자 1,568명으로 10%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남자가 많았음을 볼 수 있다.

1) 문헌 기록의 해보면 인구 변동

년	전 거(典據)	가호수	인 구 수			참 고
			계	남	여	
1759	여지도서	698	2,391	1,061	1,330	
1789	호구총수	745	2,353	1,054	1,299	
1965	함평군통계연보	1,925	11,264	5,618	5,646	인구, 가호 최성장 년
1996	함평군통계연보	1,549	4,226	2,119	2,107	
2008	함평군통계연보	1,530	3,214	1,646	1,568	

해보면의 인구 최성장년은 1965년이다

1965년과 1996년의 인구 변동을 살펴보면 면 전체의 인구는 1965년 남 5,618명 여 5,646명 계 11,264명이에서 2008년에는 남 1,646명 여 1,568명 계 3,214명으로 8,050명이 줄어 줄어든 비율이 72. 47%이다.

이별 변동을 살펴보면 70% 이상이 감소된 이(里)가 5개리며 가장 감소율이 많은 대각리는 1965년에 비해 무려 90.29%가 감소했다.

인구 감소의 평균 비율이 62.48%가 되었다. 이 가운데 75%이상의 인구 감소율을 보인 이(里)가 5개 이(里)나 되어 급진적인 산업사회로의 전환을 느낄 수 있다.

2) 인구 감소율 70% 이상인 이(里)

구분 / 이명	1965년 인구수			1965년 대비 감소수 ( )속 숫자 감소율 %	2008년 인구수		
	남	여	계		남	여	계
대각리	475	442	917	828(90.29)	45	44	89
광암리	238	250	488	402(82.37)	45	41	86
산내리	351	328	679	618(91.01)	32	29	61
대창리	467	513	980	783(79.89)	99	98	197
해보리	744	709	1,453	1,101(75.77)	178	174	352

5. 면내의 10대 씨족

순위	씨 족 명	거주 가호수		집 단 거 주 지
		1983년	2008년	
1	파평윤씨 (坡平尹氏)	218		상모, 하모, 소성, 대성
2	진주정씨 (晉州鄭氏)	209		발미. 월현
3	함평이씨 (咸平李氏)	185		상·중·하귀
4	김해김씨 (金海金氏)	174		
5	광산김씨 (光山金氏)	125		
6	밀양박씨 (密陽朴氏)	114		중귀
7	이천서씨 (利川徐氏)	43		만년, 금산
8	여양진씨 (驪陽陳氏)	36		화회, 각궁
9	진주강씨 (晉州姜氏)	35		
10	죽산안씨 (竹山安氏)	33		

6. 역대 면장 명단

대(代))	성 명		출 신 지	재 임 기 간		참 고
	한 글	한 문		취 임	퇴 임	
4	서기문	徐基文	금덕리	1951. 01. 03	1952. 05. 05	
5	이명헌	李明憲	문장리	1952. 05. 06	1953. 01. 07	
6	정완모	鄭完謨	용산리	1953. 01. 19	1954. 04. 13	
7	이계인	李啓寅	〃	1954. 04. 15	1958. 04. 15	
8	윤완중	尹完重	상곡리	1958. 04. 16	1961. 06. 14	
9	윤갑병	尹甲炳	용산리	1961. 06. 30	1964. 05. 07	
10	유기원	柳起元	해보리	1964. 06. 08	1968. 06. 10	
11	정정근	鄭正根	〃	1968. 11. 05	1969. 09. 02	
12	윤종규	尹鐘圭	상곡리	1969. 09. 18	1974. 02. 16	
13	이찬형	李燦衡	문장리	1974. 02. 22	1979. 08. 25	
14	정남혁	鄭南赫	해보리	1979. 09. 01	1985. 10. 11	
15	정우철	鄭宇喆	〃	1985. 12. 26	1990. 12. 26	
16	윤석진	尹錫鎭	용산리	1991. 04. 25	1996. 04. 24	
17	이계춘	李啓春	〃	1996. 05. 01	1998. 09. 04	
18	김철규	金喆圭	광산구 하남	1998. 09. 05	1999. 01. 21	
19	이건택	李建澤	성남리	1999. 01. 22	2000. 01. 23	
20	이환행	李桓行	문장리	2000. 01. 24	2002. 09. 23	
21	위귀계	魏貴啓	나주시	2002. 09. 24	2003. 09. 26	
22	오금열	吳錦烈	정산리	2003. 09. 27	2006. 01. 26	
23	윤영식	尹鈴植	대창리	2006. 01. 27	2006. 09. 21	
24	강강만	姜康萬	해남군	2006. 09. 22	2008. 06. 30	
25	윤영식	尹鈴植	대창리	2008. 07. 28	현재	

7. 면의원 명단

대(代)	구분	이 름		생년월일	학력	직업	경 력	소속정당	참 고
		한 글	한 문						
1	의장	정극모	鄭克謨	1906. 12. 06	중졸	농업	면서기	자유당	
	부의장	유재수	柳在洙	1909. 02. 14		〃	이 장	〃	
	의원	이홍렬	李洪烈	1904. 04. 29		상업	약종상	〃	
	〃	서병준	徐丙埈	1928. 01. 18	중졸	〃	이 장	〃	
	〃	심장수	沈長壽	1909. 04. 06	국졸	농업	농회장	〃	
	〃	윤호중	尹浩重	1915. 08. 14		〃	부면장	〃	
	〃	윤정룡	尹正龍	1903. 05. 02		〃	이 장	〃	
	〃	오근열	吳根烈	1910. 09. 01		〃	〃	〃	
	〃	송차남	宋次男	1918. 02. 12		〃	〃	〃	
	〃	박상옥	朴相玉	1910. 04. 06	중졸	〃	〃	〃	

대(代)	구분	이름		생년월일	학력	직업	경력	소속정당	참고
		한 글	한 문						
	〃	정정근	鄭正根	1917. 09. 14		〃	면서기	〃	
	〃	정판근	鄭判根	1916. 07. 01		〃	이 장	〃	
2	의장	서병준	徐丙埈	1928. 01. 18	중졸	비료업	군청2년	자유당	
	부의장	김재섭	金在燮	1923. 04. 20	중중퇴	농업	경찰7년	〃	
	의원	정극모	鄭克謨	1906. 12. 02	중졸	〃	면서기2년	〃	
	〃	정동훈	鄭東勳	1911. 05. 03	국졸	〃	면서기8년	〃	
	〃	진정식	陳廷植	1897. 11. 29	국졸	〃	이장5년	〃	
	〃	윤순배	尹順培	1915. 09. 14	중졸	〃	면서기3년	〃	
	〃	정정근	鄭正根	1917. 09. 14	−	〃	면서기	−	
	〃	박상옥	朴相玉	1916. 04. 01	중졸	〃	이장8년	자유당	
	〃	이계춘	李啓春	1923. 10. 03	〃	〃	면서기5년	〃	
	〃	윤영대	尹永大	1907. 05. 01	−	〃	−	−	
	〃	심장수	沈長壽	1909. 04. 06	국졸	〃	면서기2년	자유당	
3	의원	서병준	徐丙埈	1928. 01. 18	중졸	상업	군청2년		
	〃	노영섭	盧永燮	1926. 01. 10					
	〃	정종실	鄭宗實	1909. 10. 24					
	〃	김성묵	金成默	1923. 02. 25					
	〃	진태섭	陳泰燮	1890. 02. 04					
	〃	윤방중	尹邦重	1923. 02. 16					
	〃	정병학	鄭炳學	1922. 03. 16					
	〃	윤원중	尹愿重	1927. 06. 25					
	〃	윤상옥	尹相玉	1903. 07. 12					
	〃	박악보	朴岳甫	1905. 02. 09					일명동욱
	〃	이준길	李俊吉	1933. 08. 15					

8. 마을사(史)

이명 : 가나다 순

1) 광암리(光岩里)

이 지역은 원래부터 해보면에 속했으며 1789년 호구총수지명을 보면, 광동(廣洞)·운암(雲岩) 두 마을이 있었다. 1910년 행정구역 지명에는 광동이 빠지고 운암·가정(可丁)이 보인다. 1914년 이제(里制)를 실행할 때 광동(光洞)·운암(雲岩)·가정(柯丁) 전역과 산내 일부를 묶어 광동에서 "光" 운암에서 "岩"자를 따 "光岩里"로 했다.

2008년 현재 광암리는 행정 마을로는 광암리 운암의 1개 마을만 기재되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도 광동마을과 가정마을은 존재하고 있으며 광암리라는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통계는 전체적으로 하고 운암과 함께 광동마을과 가정마을을 함께 소개하기로 한다.

(1) 운암(雲岩)

운암

o 마을 이름의 유래와 마을 형성 : 마을 뒤에 동굴이 있는 굴바위가 있는데 굴이 삼중으로 되어 있어 멀리서 보면 구름과 같이 보여 마을 이름을 운암이라고 했다고 한다.

마을이 형성된 것은 용천사가 창건된 당 현종조(712~756)로 보고 있으나 산간벽지에 자리 잡은 마을이고, 정유재란 등 난리에 큰 피해를 입은 곳이어서 예부터 살았던 씨족에 대해 전하는 바가 없다. 현존하는 성씨 중 가장 먼저 입촌한 씨족은 광산김씨 필인(必寅)이 300여년 전, 그 뒤를 이어 밀양박씨가 입촌하여 9세손을 보았고, 150년 전에 해남윤씨가 대동면 운교리에서 이주하였으며 여타 성씨는 근래에 들어왔다.

1950년 11월 6·25 한국전쟁으로 마을 전체가 불탔으며, 1960년대에 100여가호 19개 성씨가 살았고 인동장씨 필진은 부호가 되어 인근의 부러움을 샀으나 그 후손이 모두 떠났으며 지금은 23가호가 살고 있다.

o 기본현황

인구(명)			가구(호)			면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93	49	44	48	25	23	237.3	8.9	20.4	162.3	45.7
산 업						성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소득원						기타
벼										

o 유물과 유적

·기와굴 : 대사(大寺)굴 이라고 부르는 박득수 소유의 집터에 있었고 용천사 기와를 구웠다고 전한다.

·주물지(鑄物址) : 박대복과 윤병옥 소유의 밭에 있으며 솥 등의 기물을 만들었다고 한다.

·분청자요지 : 사기 터라고 부르기도 하며 밀양박씨 문중산인 광암리 산 89번지에 있으며 조선 중기 때 분청 사발 민간 소용의 그릇을 만들었다.

o 풍수지리 및 중요한 지명

·운중반월(雲中半月) : 예부터 운중반월의 천하명당이 있다고 전해오고 있다.

·시묘터 : 박창섭 소유의 논에 있었고 전에 시묘를 살았다고 한다.

·운암제(雲岩堤) : 용천사 입구인 광암리 404번지에 있는 저수지로 넓이가 3천평가량 이며 1942년에 완공했다.

o 배출인물

·김몽표(金夢標) : 통정대부를 지냈다.　　·박선태 : 페루대사관 사무관으로 있다.

(2) 광동(光洞)

광동

o 마을 이름의 유래와 마을 형성 : 운암마을과 함께 용천사 창건 때 개촌되었을 것으로 보나 전하는 바가 없으며, 1789년 호구총주지명에 광동(廣洞)으로 표기된 것을 보면 원래 "廣洞"이었던 것 같으며 1914년 일제 강점기에 이제를 실시하면서 "광동(光洞)"으로 표기하였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까닭을 용천사 터에서 용이 승천하면서 이 마을 부근에서 빛을 발했다는 전설에 의해 "광동"으로 쓰게 되었다는 것이다. 입촌 240년 가량인 파평윤씨 후손들은 1950년대 중반에 떠났고, 입촌 210년 가량인 창녕조씨 후손들 또한 1950년대 말 서울로 떠났으며,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은 근래에 입촌하였다.

o 유물과 유적

·용천사(龍泉寺) : 용천사 이름은 대웅전 앞에 있는 샘에서 유래한다.
원래 이 샘에는 용이 살았고 그 근원은 서해에 이른다고 전하며 용이 살았던 곳에 세워진 절이라 하여 용천사라 했다고 한다. 통일신라 초기에 세웠다.

·용천사 석등(石燈) :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84호, 1685년 6우러에 만들었으며, 조선조 석등으로는 대표급이다. 높이 2.37m

·용천사 해시계 : 가로·세로 39cm, 두계 14cm 정사각형의 반쪽으로 낮 시간 분만 남아 있으며, 석등을 만들 때 같이 만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돌방무덤 : 용천사 입구 다리 밑 개울가에 있다.
서벽과 동벽은 냇돌로 기단을 삷고 그 위에 길이 190cm, 폭 40cm, 두께 36cm의 장대석을 올렸으며, 북벽은 냇돌로 삷았는데 반쯤 유실되었고, 묘도가 있었을 법한 남벽은 완전 훼손되어 있다. 묘 바닥도 훼손되었으며 뚜껑돌은 2매로 추정되는데 1매는 유실되었다. 오래 전에 도굴된 것으로 보이며 수습한 유물은 없다.

(3) 가정(柯亭)

o 마을 이름의 유래와 마을 형성

마을 형국이 도끼자루에 해당하며 "가정"이라 했다고 하는데 1789년 호구총수지명에 "가

가정

정"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이 때는 마을이 없었던 것 같다.

장수황씨들이 개촌했고 큰 부자가 되어 살았다는 전설이 있을 뿐 그 후손은 살지 않고 있으며, 현존 성씨로는 인동장씨들이 200여년 전에 입촌하여 8세손을 보고 있다.

인동장씨에 이어 입촌한 김해김씨는 1950년대 말에 김하중(일명 점동)이 마지막으로 서울로 이거하였으며 그의 아들이 공군준장을 지냈다고 하나 마을에서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다.

o 풍수지리 및 중요한 지명

·배틀바우 : 마을 서쪽에 있는 바위로 베틀과 같이 생겼으며, 베실을 넣는 북은 폐교된 해보서초등학교라고 전한다.

o 배출인물

·김상금 : 해보초등학교 교장을 지냈다.

2) 금계리(金溪里)

금계리는 불갑산 동쪽과 남쪽을 휘감아 돌고 있으며, 1789년 호구총수지명에 오른 마을을 보면, 신산직(新山直)·금산직(今山直)·신계(新溪)·지족동(知足洞)·연암(連岩) 마을이며, 1910년 행정구역 지명에는 지족(知足)·연암(蓮岩)·송계(松溪)·신계(申溪)·신성(申成)·금산(今山)·연동(年洞)이 올라 있고, 이제가 시행된 1914년 행정구역 지명에는 금산(金山)·송계(松溪)·지족(知足)·연암(連岩)·연동(連洞) 전역이 금계리라 했다.

금계리란 이름은 금산에서 "金" 송계에서 "溪"자를 따 "金溪里"라 했다.

현재 금계리는 금산 단일 마을로 구성되었다.

(1) 금산(金山)

o 마을 이름의 유래와 마을 형성 : 현재의 금산마을은 1789년 호구총수지명의 신산직·신계·금산직, 1910년 행정 지명의 금산·신성·신계 마을이 지명이 바뀌고, 새로 개촌되어 합

금산

한 과정에서 붙여진 마을 이름이다.

신산직은 현재 진주정씨 제각이 있는 곳으로 남양홍씨와 함평이씨가 개촌했는데, 남북으로 마을 중앙을 흐르는 개울 서쪽에 자리잡은 신계와 합했다. 금산직은 한국전쟁 때 작전상 주민을 퇴촌시켜 폐촌되었는데 1910년 지명에서는 "今山"으로, 1914년 행정 지명에서는 "金山"으로 표기가 바뀌었다.

신성은 개울 동편 마을로 현 신기(新基)라 부르는데 이 마을에서 거주한 서복남의 호구단자에 의하면 "신성리(新城里)"로 표기되어 있다.

지금의 금산이란 마을 이름은 1789년 호구총수지명의 "금산직"이 1914년부터 "금산"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500여년 전에 밀양박씨가 개촌했다고 하나 그 후손이 1945년까지 마을을 모두 떠나 개촌자를 알 수가 없다.

밀양박씨에 이어 파평윤씨가 250여년 전에 입촌했고 1850년대에 이천서씨 윤옥(崙玉, 1822년 생)·성옥(成玉, 1834년) 형제가 무안군 몽탄면에서 이거 정착했고, 110여년 전에 전주리씨 석원(錫元)이 월야면 정산리에서 이거 정착했다.

o 기본현황

인구(명)			가구(호)			면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111	54	57	67	32	35	167.1	11.3	27.4	75.7	52.7
산 업						성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소득원						기타
벼										

o 공공건물

·마을회관 : 건평 30평, 1975년 마을 자체 자금으로 건축.

o 유물과 유적

·고인돌 : 현 금산회관 터에 2기가 있었는데 1992년 훼손되었다.

·월봉제각(月峰祭閣) : 진주정씨 희득(稀得, 정유재란 때 포로가 되어 일본으로 끌려가 3년간 포로생활을 한 수기 만사록을 남김)의 재실.

·느티나무 ; 신기에 있으며 수령이 500년 이상으로 전해오며 둘레가 5m가 넘는다.

o 마을과 관계되는 전설

·용운사 모과나무 : 신령의 은거지라 전해오고 있어 제를 올린다.

o 풍수지리 및 중요한 지명

·금계포란(金鷄抱卵) : 금계리에는 금닭이 알을 품고 있는 명당이 있다고 전해오며, 이 때문에 마을 주위에 많은 성씨들의 선조 묘가 산재해 있다.
또 이 풍수설에 의해 이(里) 이름도 한자로 "金鷄"라 쓰는 것이 옳다고들 말한다.

·투구봉·은장골·칼바우·물통바우 전설 : 불갑산의 동쪽 일맥이 금산 마을 뒷산 봉우리와 그 주위의 지명으로, "투구봉"은 장수가 벗어 놓은 투구며, "은장골"은 투구봉 아래 계곡인데 장수가 숨어 있어 은장(隱將)골이며, "칼바우"는 장수의 칼이고, "물통바우"는 장수의 말먹이 통인데, 언젠가 "은장골"에 숨은 대장수가 세상에 나와 나라를 빛낼 것이라고 전해오고 있다.
불갑산 상봉이 동쪽인 금산으로 머리를 틀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영험한 기운이 솟아 금산 마을 쪽산에서는 산짐승이 잡히지 않으며, 전쟁이 나도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다고 전하는데 한국전쟁 당시 인근 마을이 모두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유독 금산만은 소실을 면했다고 한다.

·울문암굴 : 전 송계 마을에 있는 세 개의 바위굴을 말하며, 그 중 1개의 굴은 넓이가 30평 정도며 높이는 2m 정도가 된다.

o 자생조직

·부녀회 : 회원 상호간의 부조를 목적으로 1979년에 창립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o 배출인물

·서기문(徐基文) : 제 1대 해보면장을 지냈다.
·서항종(徐恒鍾) : 육군 중령

▶ 금계리에 있던 마을로 폐촌된 마을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송계(松溪) : 금계리 361번지 일대에 있던 마을로 이천서씨들이 무안군에서 이주하여 이룬 마을로 10여가호가 살았는데 1950년 한국전쟁 때 소실되어 폐촌되었다.
·지족(知足) : 진주정씨들이 개촌한 마을이며 1946년 저수지 완공으로 폐촌되었다.
·연암(蓮岩) : 저수지 밑 지산사지(芝山祠址) 쪽에 있던 마을로 저수지 완공으로 폐촌되었다.
·연동(年洞) : 현 진주정씨 신묵재의 제각이 있는 곳에 위치한 마을이며, 진주정씨가 개촌했는데 한국전쟁 당시 소실 폐촌되었다.
·석사동 : 현 용문사 아래 금산제에 위치하던 마을로 서·윤·김·여씨들이 살았으며 한국전쟁 당시 소실 폐촌되었다.

3) 금덕리(琴德里)

복룡(伏龍) 마을 일부를 제외하고는 원래 해보면에 속했던 마을이다.

1789년 호구총수지명에 오른 마을 이름을 살펴보면 신교(新橋)·만연동(萬延洞)·선장(蟬場)·명암(鳴巖)·화촌(花村)·하고두(下庫頭)·유정(柳亭)이며 1910년 행정구역 지명에는 선장(先長)·만년(萬年)·대천(大泉)·구계(九溪)·경덕(京德)·화촌(花村)·하고(下古)·금곡(今谷)·유정(有丁)이 기록되어 있고, 1914년 이제를 시행한 행정구역 지명에는 구계(九溪)·금곡(琴谷)·화촌(花村)·유정(柳亭) 전역과 경덕(京德)·만년(萬年)·하고(河鼓)·선장(蟬場)·상귀(上歸)·대야면의 복룡(伏龍)각 일부를 묶어 금곡에서 "琴" 경덕에서 "德"자를 따 "금덕리"라고 했다.

(1) 시장(市場)

시 장

o 마을 이름의 유래와 마을 형성

이 마을은 1789년 호구총수지명에 나오는 신고 마을을 기점으로 퍼져나간 현재의 해보면 소재지다.

이 마을은 1927년 고두 동쪽 문암 입구에 있던 시장(1789, 1914년 지명 선장- 선장)이 옮겨오고 또 해보면 소재지가 됨으로 당시 20여가호의 영세 농가가 살던 마을이 점차 커져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원근(遠近) 사람들에게 옛 장의 이름인 선자의 우리말인 "밀래시장""맬래미장"으로 더 많이 알려졌고, 요즘은 "문장장"이라 통칭되고 있다.

"금덕장"이라 하지 않고 "문장장"으로 통칭된 것은 옛 선장터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문장리와 금덕리로 나뉘었는데 문장리에 더 많은 지역이 편입되어 선장의 명성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문장장은 함평군 뿐만 아니라 인근 군까지를 포함하여 큰 장으로 성장했고, 특히 돗자리 시장은 전국에서 유명하다.

이 마을은 시장터로 또 면소재지로 근세에 번성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들고 나갔으며 잡다한 성씨를 이루고 있어 어떤 성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명확하게 정리할 수가 없다.

o 기본현황

인구(명)			가구(호)			면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553	292	261	242	89	153	138.3	8.2	23.6	61.6	44.9
산 업						성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소득원						기타
벼										

o 유물과 유적

·죽림사지(竹林寺址) ; 구 면사무소 동쪽 대숲에 있었고, 고려 때의 절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이름이 나온다.

o 자생조직

·822회 : 상호간의 친목과 부족를 목적으로 1981년에 창립했다.

o 배출인물

·장광휘(張光輝) : 제 4대 해보면장을 지냄

(2) 유정(柳亭)

유정자

o 마을 이름의 유래와 마을 형성 : "노고구(老姑狗)"라 불렀다는 전설이 있고 모평입구의 재를 "쌍구령(雙狗嶺)"이라 부르는 것을 보면 연관성이 있어 전설만의 지명이 아닌 것 같으나 전거할 문헌이 아직 없고, 1789년 호구총수지명에 "柳亭"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면 오랜 지명임이 확실하다

옛날 마을 앞에 줄지어 버드나무가 서있고, 버드나무 아래에 정자를 지어 쉼터를 만드니 그 정취가 일품이어서 마을 이름을 유정이라 했다고 전해오는데 지금도 마을 앞에 수 백년 된 고목이 있고, 새로 지었으나 정자가 있어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이 마을은 광산김씨 26세손 몽성(夢成)이 1580년대에 영광군 대마면 남산에서 이거 개촌했으며, 그는 1576년 무과에 급제하여 판관과 주부를 지냈고 문정공파 함평군 입향조다.

그 후 진주정씨 등 여러 성씨가 들어와 살았다.

o 기본현황

인구(명)			가구(호)			면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221	105	116	92	51	41	128.8	7.7	20.5	58.3	42.3
산 업						성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소득원						기타
벼										

o 자생조직

·촌중계 : 마을의 발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1982년 창립

·위친계 : 계원 상호간의 친목과 위친을 목적으로 1966년 창립

o 배출인물

·김몽성(金夢成) : 1576년 무과급재, 주부를 지냄 ·심병섭(沈炳燮) : 육군 중령

(3) 금곡(琴谷)

o 마을 이름의 유래와 마을 형성

해보면 소재지에서 영광으로 가는 국도 22호선의 선치(蟬峙, 맬래미재) 오르막길 오른편에 자리잡고 있는 마을이다.

풍수지리를 연구한 함평이씨 돈한(敦翰)이 옥녀포금(玉女抱琴) 지형의 옥녀 거문고 자리라며 "琴谷"이라 이름붙여 개촌한 마을로 전해온다.

옥녀는 발미 동쪽에 있는 "옥녀봉"이라 한다.

1789년 호구총수지명에는 보이지 않고 1914년 이제를 시행할 때의 행정구역 지명에 "琴谷"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을의 별호는 두루샘, 가래방죽, 생각목, 압구정자 등이다.

함평이씨에 이어 김해김씨, 압해정씨가 들어와 살았다.

o 기본현황

인구(명)			가구(호)			면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137	77	60	66	36	30	143.4	8.6	23.6	64.3	46.9
산 업						성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소득원						기타
벼										

o 풍수지리 및 중요한 지명

·신선바위 : 금곡에서 구계간 중간에 있는 바위로 아주 옛날 신선들이 내려와 노닐던 바위라 전한다. 지금은 “바위쟁이”라고 부른다.

·두루샘 : 마을 가장자리 구계입구에 있는 샘으로 물이 맑고 시원하며 질병에 효험이 있어 약수샘으로 주위에에 일려졌고, 금곡 마을 사람들이 식수로 활용하였는데, 물이 나오던지 두루미들이 해질 무렵에 날아와 아침에 떠나니 사람들이 “두루미샘”으로 불렀고, 오랫동안 구전되면서 “두루샘”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1970년대 간이상수도 설치로 지금은 빨래터로 전락되었다.

o 자생조직

·부녀회 : 부녀간의 공동작업을 목적으로 1975년 회를 만들었다.

·촌중계 : 마을 공동자산 관리 및 번영을 위해 1979년 계를 만들었다.

o 배출인물

·이청우(李淸友) :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청교육장 역임

(4) 구계(九溪)

o 마을 이름의 유래와 마을 형성 : 금곡과 해보리 가장 중간지점, 옛 밀재 오르막길이 시작되는 오른쪽인 수양산 남동쪽 기슭에 자리잡은 마을로 아홉골짜기가 있어 구계라 했다하며, 200년 전에 김해김씨가 터를 닦았고, 1840년대에 전주이씨 춘경(春敬, 1820년생)이 이거하고, 이어 나주정씨, 진주강씨, 여양 진씨들이 들어와 살았다.

구계

o 기본현황

인구(명)			가구(호)			면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48	27	21	34	18	16	132.7	7.9	21.8	59.6	43.4
산 업						성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소득원						기타
벼										

o 마을과 관계되는 전설

먼 옛적에 신선들이 첫 번째 골짜기에서 도를 닦기 시작하여 아홉 번째 골짜기에서 도를 닦은 후 하늘로 올라갔다고 한다.

o 중요한 지명

·밀재주막 : “밀재”는 해보면 소재지에서 수양산 중턱을 넘어 영광군 묘량에 이르는 국도 22호선의 재인데. 여름에 각종 매미(선-蟬)가 아주 많아 나그네의 귀를 즐겁게 해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미의 전라도 사투리인 “밀래미재”·“맬래미재”라 불렀고, 구전되면서 “밀재”가 되었다.
1970년대 새 길이 뚫려 밀재의 오르막 길이 지금은 금곡 마을에서 시작되지만 전에는 구계 마을에서 시작되었고, 영광을 내왕하는 보부상 등 많은 길손들이 구계 마을의 주막에서 쉬어갔기 때문에 “밀재주막”이라면 원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o 자생조직

·부녀회 : 상호간의 부조 목적으로 1979년에 창회되었다.

(5) 고두(鼓頭)

고두

o 마을 이름의 유래와 마을 형성

마을의 형국이 북의 머리처럼 생겼다하여 “鼓頭”라 하였다고 하나, 1789년 호구총수지명에 “하고(下庫)”로 표기된 것을 보면 “아래창고”로 불렸던 창고가 있었던 것 같다.

1914년 행정구역 지명에는 “고두”로 표기 되었다.

이 마을은 해주최씨 천두(天斗, 1499 -1545)가 해보면 산내리에서 1530년대에 입촌 정착하였고, 그의 증손 길헌(吉憲)이 보성군 복내면으로 이거하는 등 후손들이 마을을 모두 떠났고, 천두를 비롯한 후손들의 묘소가 마을 옆에 지금도 자리하고 있다.

이어 파평윤씨, 함평이씨, 김해김씨, 전주최씨 등 여러 성씨가 들어와 살았는데 파평윤씨는 그 후손이 200여년 전에 광산군 삼도면 등 여러 지역으로 모두 떠났다.

옥녀가 치는 북소리처럼 많은 사람을 감동시킬 인물이 내리 내리 배출될 것이라는 전설이 있으나 해주최씨들이 배출한 인물 이외에는 큰 인물을 배출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o 기본현황

인구(명)			가구(호)			면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112	65	47	48	27	21	150.9	9.1	24.7	67.7	49.4
산 업						성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소득원						기타
벼										

o 유물과 유적

·고분(古墳) : 4기의 고분이 있다.

1호 무덤 → 마을 정자를 지으면서 1/3가량을 훼손함, 봉분형태 원형
크기 지름 16m, 높이 1.5m. 대형 경질독(甕棺) 파편 수습

2호 무덤 → 정자에서 북서쪽 500여m 구릉 소나무 숲 속에 위치한다.
봉분형태 원형, 크기 지름 18m, 높이 2m

3호 무덤 → 2호 무덤 곁에 있다.
봉분형태 원형, 크기 지름 20m, 높이 2.5m

4호 무덤 → 두레섬이라 부르는 신현호 소유의 밭에 있다.
봉분형태 원형, 크기 지름 12m 높이 3m

o 자생조직

·부녀회 : 상호간의 부조를 목적으로 1983년에 창회했다.

o 배출인물

·최준남(崔峻南) : 1559 ~ 1599 시조의 18세손, 천주의 손자, 무관에 급제하여 선전을 지냈다.

·최길헌(崔吉憲) : 1585~1628 준남의 아들. 통덕랑을 지냈다.

·최복수(崔福壽) : 1588~? 준남의 둘째 아들. 전력부위(展力副尉)를 지냈다.

(6) 만년(萬年)

o 마을 이름의 유래와 마을 형성

만년동

어느 풍수가가 이 마을 앞을 지나면서 "어허 ! 1만 가호가 1만년은 좋이 살 곳이구나!" 감탄하여 마을 이름을 "萬年"이라고 했다고 한다.

1789년 호구총수지명에는 "만연(萬延)"으로 1914년 행정구역 지명에는 "萬年"으로 표기되어 지명이 전설과 상통하고 있다.

6·25 한국전쟁 때 빨지산이 마을에 쳐들어왔는데 "만년 동안 번창할 마을에 피해를 줄 수 없다"며 그냥 지나쳐 인근 마을은 전소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으나 만년 마을은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고 한다.

이 마을은 이천서시 채옥(彩玉, 1778년 생)이 210여년 전 에 개촌하였고, 후에 밀양박씨, 80여년 전에 인동장씨가 들어와 살고 있다.

o 기본현황

인구(명)			가구(호)			면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63	35	28	23	14	9	133.2	9.0	22.1	57.2	44.9
산 업						성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소득원						기타
벼										

o 유물과 유적

·고분(古墳) : 만년 마을 입구 구렁에 있으며 이 고분은 우리나라에서 유사한 봉분형태를 찾지 못한 독특한 고분으로 타원형 무덤의 앞뒤에 긴 꼬리가 달려 있고, 구렁에 위치하고 있어 약간의 비만 와도 물에 잠기나 보존상태가 극히 양호하다.

크기 : 장축 11m, 단축 7.5m. 높이 1.8m 장축방향 동-서

꼬리 길이 서쪽 3m, 동쪽 현재 1.5m(안씨들이 묘를 쓰면서 일부 훼손)

o 풍수지리 및 중요한 지명

·조선(朝蟬)바우 : 밀재(밀래미재, 매미재·선치-蟬峙) 바로 동쪽에 있는 바위라 하여 "조선바우"라 했다고 하는데, 자연석으로 된 높이 5m 정도로 5층 석탑과 비슷하게 생겼었고 풍수가들은 매미가 나무에 붙어 일생을 지내는 영험스러운 바위며 훼손한 사람은 화를 입게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1960년대 모인(某人)이 이 돌을 잘라 비(碑)를 만들어 윗부분만 제자리에 남게 되었다.

후에 비를 만든 모인은 가세가 기울었고, 끝내 나무에 줄을 걸어 목매달아 자살 하였다.

·나팔봉 : 옥녀가 거문고를 탈 때 나팔을 부는 곳이라 하여 나팔봉이라 했다고 한다.

·매미명당 : 예부터 매미명당이 있다고 전해오는데 그 매미 명당이 마을 입구에 있는 매미처럼 생긴 고분이 아닌가 한다고 말한다. <위 유적 유물 참조>

근년에 죽산안씨들이 매미명당이라며 고분 고리 밑에 묘를 썼다.

o 자생조직

·부녀회 : 상호 친목과 마을 상점 운영을 목적으로 1977년에 창회하였다.

o 배출인물

·서송주(徐松柱) : 민정당 정책조정실 부장을 지냈다.

▶ 금덕리에서 폐촌된 마을

·명암(明巖), 화촌(花村), 대천(大泉) 세 마을이다.

4) 대각리(大角里)

대각리에 속한 마을은 원래 해보면에 속했던 지역이며, 1789년 호구총수지명에 오른 마을 이름을 살펴보면, 안인산직(安仁山直)·인안동(安仁洞)·각공(角公)·월대(月垈)·오두치(烏頭峙)며, 1910년 행정구역 지명에는 오두(五斗)·기동(己洞)·회화(回花)·안인(安仁)·각궁(角弓)이 기재되어 있고, 1914년 이제를 시행한 행정구역 지명에는 기동(基洞)·오두(烏頭)·각공(角公)·안인(安仁) 전역과 회화(檜花)일부 지역을 묶어 각공 마을에 "대(大)"자를 붙여 "大角里"라 하였다고 하였다.

(1) 오두(烏頭)와 기동(基洞)

오두

o 마을 이름의 유래와 마을 형성

기동은 폐교된 해보서초등학교와 보건진료소가 있는 곳으로 현재 오두에 살고 있는 수성최씨 갑주의 7대조가 불갑사의 지주로 있다가 환속하여 초분터를 없애고 개촌했다고 하는데 1965년에 7가호, 지금은 2가호(파평윤씨 1가호, 함평이씨 1가호)가 살고 있을 뿐이어서 오두와 합쳐 설명한다.

1789년 호구총수지명을 보면 오두가 오두치(烏頭峙)로 표기되어 있고, 1914년 행정구역 이름에는 오두·기동이 기재되어 있다.

원근 사람들이 거의가 오두치라 부르고 있고, 현재 행정구역 지명으로 "오두"라 쓰고 있는데 원래 지명이 "烏頭峙"임이 분명하다

기동

기동은 수성최씨가 개촌했다는 연대를 보면 호구총수지명에 실려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을 보면 당시에는 오두치와 합쳐 있었던 것으로 본다.

오두 마을은 마을 터가 풍수지리설에 까마귀 머리 형국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며, 까마귀의 반포지효(反哺之孝)로 효자와 효부가 많이 배출 될 것이라는 전설에 의하여 기동보다 훨씬 전에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하며, 개촌 성씨는 장수황씨였으나 그들은 모두 산내리 원산으로 이거하였고, 뒤 이어 광산김씨가 입촌했으나 역시 산내리 원산으로 떠났고, 그 뒤를 이어 함평이씨가 입촌했는데, 입촌자는 완진(完鎭,

1782~1824)이며 1810년경 장성군 삼계면 백산촌(白山村)에서 옮겨왔다.

1975년에 75가호였던 오두는 현재 30가호로 줄었다.

1950년 한국전쟁 때 마을이 전소되었고, 1995년부터 마을 앞 동·서쪽의 산이 보병학교 훈련장이 되었다.

o 기본현황

인구(명)			가구(호)			면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44	25	19	30	16	14	201.9	11.1	29.8	104.4	56.6
산 업						성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소득원						기타
벼	양파									

o 공공건물

·대각보건진료소 ; 1984년에 세웠다. 부지 430m2, 건평 69m2

o 유물과 유적

·해보서초등학교 : 기동에 있으며 1940. 4. 1에 개교했고, 1994. 3. 1에 폐교했으며 건물은 교회 수양관으로 팔렸다.

·열녀각(烈女閣) : 함평이씨 시조의 23손 여규(璨圭)의 아내 남평문씨의 열녀각으로 열행 사실이 해동삼강록에 오르고 나라에서 정려의 은전이 내려 1734년 장성군 삼계면 백산촌에 세웠었는데 오두 입촌자 완진이 1820년대에 오두로 옮겼다.

o 특이한 민속제향과 놀이

·당산제 : 정월 보름에 줄다리기를 하고 당산나무에 줄을 감는다.

·기우제 : 1960년대 말까지 마을 동쪽 산 정상 말바우에서 농악과 곁들여 불피우기 의식을 가졌다.

o 풍수지리 및 중요한 지명

·오두재(烏頭峙) ; 오두 마을과 산내리 송산 사이에 있는 고개로 풍수설에 까마귀 머리 부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지금은 이 길을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말바우 : 마을 동쪽 산의 정상에 있는 말 형국의 바위로 기우제를 지내면 영험이 있었다.

·꽃밭잔등(화전등) : 부녀자들이 봄에 진달래꽃으로 전을 부쳐먹었다.

·장태굴 : 마을에서 1Km 떨어진 마을 뒷산의 바위 밑에 있는데 굴의 길이가 7m 정도며 입구에서 기어 들어가 약간 위로 올라가면 7~8평 넓이의 공간인 굴이 된다.
6·25 한국전쟁 때 이 굴에서 피란한 사람이 많았다.

·나부성국 : 오두 서쪽에 있는 산에 "나비성국"이라는 명당이 있다고 전해오고 있다.

·지장골 : 오두재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기장을 많이 심었다고 전한다.

o 자생조직

·부녀회 : 1987년에 창회하였고 전 가호에서 각 1명이 회원이 된다.

o 배출인물

·이재권(李載權) : 보성득량중학교 교장을 지냈다.

·이재순(李載淳) : 목포시에서 초등학교 교장을 지냈다.

(2) 각궁(角弓)과 상각궁(上角弓)

하각궁

o 마을 이름의 유래와 마을 형성 : 옛날 마을 주위에 "각궁사(角弓寺)"가 있어 마을 이름을 각궁(角弓)이라 했다는 전설이 있고, 1910년 행정구역 지명에 "角弓"이라 표기되었으며 "각궁"이라는 이름의 활도 있어 지명의 유래로 생각할 수 있으나, 아직도 "각궁사"라는 절터를 알지 못하며, 1910년 행정구역 지명은 고증 없이 일제가 마구잡이로 표기한 것이어서 오기된 바가 크므로 믿을 수 없고, "각궁"의 지명은 정확히 밝힐 수가 없다.

1789년 호구총수지명에 "각공(角公)"으로 표기되고, 1914년 이제를 시행할 때 행정구역 지명은 많은 고증을 거쳐 1910년 행정구역 지명의 오기를 바로 잡았다고 하는데, 이 지명에서 "角公"으로 표기한 것을 보면 어떤 유래가 있었는가는 모르나 예부터 "角公"으로 써온 것 같다

따라서 현재 쓰고 있는 "角弓"보다는 "角公"이 원래의 지명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마을은 여양진씨 흠(欽, 1487~1583)이 온양현감을 지내고 1540년경 나주에서 이거하여 마을을 이루었고, 그 후 만재(晩宰, 1650~1695)가 1684년에 입촌하였으며, 뒤를 이어 파평윤씨가 입촌했는데 그 후손은 1950년 후반에 서울 등지로 모두 떠났고, 1900년경 거창신(愼)시와 현풍곽씨가 들어와 살았다.

상각국

상각궁은 각궁보다 먼저 갈(曷)씨가 개촌했다고 하며, 그 뒤 현풍곽씨, 나주오씨, 밀양박씨들이 들어와 성촌하였고, 쇠를 만든 점터가 있다.

지금은 곽근태 1가호가 살고 있을 뿐이다.

o 기본현황

인구(명)			가구(호)			면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38	20	18	13	8	5	201.3	10.8	29.2	106.2	55.1
산 업						성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소득원						기타
벼	양파									

o 유물과 유적

·월계사(月溪祠) : 진흠(陳欽)·진만재(陳晩載)·진국환(陳國煥)·진윤량(陳允良)을 배향하던 사우로 1826년에 창건되어 1868년 서원철폐령에 훼철되었다가 1972년에 복설되었다.

o 풍수지리 및 중요한 지명

·부처바우 ; 국사봉에 있는 바위로 주위에서 손가락 크기의 금부처가 발굴되었는데 일본사람들이 가져갔다고 한다.

·벼락바우 : 각궁 동남쪽에 있는 바위로 벼락을 맞았다.

o 자생조직

·부녀회 : 회원 상호간의 부조를 목적으로 1983년에 조직되었다.

o 배출인물

·진 흠(陳欽) : 온양현감을 지냈다.

·박이동 : 함평군청 과장을 지냈다.

·진만재(陳晩載) : 문과에 급제하여 제주교수를 지냈다.

(3) 월대(月垈)·회화(檜花)

회화정

o 마을 이름의 유래와 마을 형성

월대는 1789년 호구총수지명에 나오는 마을로 여양진씨들이 개촌하고 1900년대에 천안전씨가 들어와 살았으며, 1960년대에 10가호가 넘었으나, 지금은 광산김씨 1가호, 거창신씨 1가호가 살고 있을 뿐이다.

회화 마을은 1789년 호구 지명에 나오지 않고 안인동(安仁洞)과 안인산직(安仁山直)마을이 나오는데, 1789년 호구총수지명의 안인동은 현재의 회화 마을이고, 안인산직은 1991년 상무대 보병소대 사격장이 되어 폐촌된 안인동으로 부르던 마을인 것 같다.

1914년 행정구역 지명에 회화(檜花)로 표기되었는데, 마을 앞에 수 백년이 된 회화(檜花)나무가 있어서 마을 이름을 "檜花"라 했다고 전한다

수령 수 백년이 넘는 회화나무는 고목이 되어 죽었으나 이 마을 주위에는 여러 그루의 회화나무가 자라고 있다.

회화 마을은 창녕성씨가 개촌했으며 1970년대 대전으로 떠난 성삼자의 선대가 1630년대에 들어왔고, 뒤이어 여양진씨 만취(晩就, 1641년 생)·만일(晩一) 형제가 1660년대에 들어왔으며 그 뒤에 해주최씨, 1889년에 함평이씨 돈팔(敦八)이 가동에서 이거 정착했다.

월대

1949년 추석 무렵 빨치산 대원들에 의해 마을이 전소되고 1951년에 새로 입주했으며, 1960년대에 45가호에 이르렀으나 지금은 11가호가 살고 있다.

o 기본현황

인구(명)			가구(호)			면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11	4	7	11	7	4	199.0	12.6	32.4	89.7	64.3
산 업						성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소득원						기타
벼	양파									

o 마을과 관계되는 미담과 전설

·학산의 절터와 무학대사 전설 : 학산은 회화 마을 앞에 있는 산이며 조선조 초기 까지 "한골사"도는 "불당사(佛堂寺)"라 부르던 절이 있었는데 무학대사가 기거했던 절이며, 학산에 있는 창녕성씨 선산에 무학대사의 어머니 묘라는 고총이 전했왔고, 벌초를 하면 복을 받는다고 전해와 마을에 여러 가호가 살 때는 주인이 있는 묘보다 더 잘 보존되었었다.

o 특이한 민속제향과 놀이

·병풍산 기우제 : 1970년대 초까지 가뭄이 들면 온 마을 사람들이 기우제를 지냈다.

o 풍수지리 및 중요한 지명

·함박금 : 안인동 앞에 있는 지명으로 금이 한 바가지가 나왔다고 한다.
·병풍바우 : 병풍산 정상에 있고 병풍을 친 것처럼 보이는데 높이가 10여 m가 넘는다.
·부채바우 : 회화 마을 뒷산에 있는 바위로 부채와 같이 생겼다.

o 특기사항

·남한에서 마지막 호랑이 사냥 : 1921년 마을에 사는 최옥진이 코골바위에서 풀을 베는데 호랑이 새끼가 있어 잡으려 하자 어미 호랑이가 달려들었다.
낫으로 어미 호랑이를 힘껏 찍으니 낫이 부러졌으며, 호랑이와 뒤엉켜 싸우다 낭떠러지로 떨어졌는데 천행으로 바위틈에서 자라던 나무에 걸려 생명을 구했다.

이 소문을 듣고 목포에서 일본 사람 사냥꾼이 몰려와 그 호랑이를 잡았는데 부러진 낫 조각이 박혀 있었으며, 그 호랑이의 가죽이 목포유달초등학교에 기증되어 남한에서 잡힌 마지막 호랑이로 밝혀지게 되었다.

·산모시와 이슬마 : 자생하는 산모시는 회화 골짜기에 아직도 많이 자라며, 이 모시로 베를 짜면 질이 좋아 호평을 받았으며, 마을 사람들이 "이슬마"라 부르는 마는 덩이 뿌리가 아주 커 흉년에 목숨을 부지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o 자생조직

·촌계 : 마을 사람들의 친목과 부조를 위해 1960년대 초에 창계하였다.

o 배출인물

·진박하(陳朴夏) ; 1841~1921. 원근에서 이름 높은 학자로 서당을 열어 수백의 후학을 배출했으며 제자들이 마을 앞에 공적비를 세웠다.

▶ 대각리의 폐촌은 아래와 같다.

·안인동 : 옛 안인산직 마을로 해주최씨가 개촌하였고 1960년대에 17가호에 이르렀으며 1991년 상무대 보병소대 사격장이 되었다.

·돌정이(石井) : 200여년 전에 파평윤씨가 개촌했고 10여가호에 이르렀으나 마지막으로 윤상래가 장성으로 떠난 후 폐촌되었다.

·오두동(烏頭洞) : 200여년전에 파평윤씨가 개촌하였고, 전한수, 윤기병, 송영만, 윤백구 등이 살았고, 1990년 송평섭이 함평읍 기각리 구기산으로 이거한 후 폐촌되었다.

5) 대창리(大倉里)

1789년 호구총수지명에 오른 마을 이름을 살펴보면, 칠성(七星), 성대(星岱), 원축동(元築洞), 사창(社倉), 창남(倉南)이며, 1910년 행정구역 지명에는 사창(士倉, 1789년 지명 창남이 포함됨), 성대(星大), 창서(昌西)·원축(元丑)이 올라있고, 1914년 이제를 시행하면서 해보면의 창서(倉西)·사창(社倉) 전역과 성대(成大)·평릉면의 공정(公亭) 일부지역을 묶어 성대에서 "大"자, 사창에서 "倉"자를 따 "大倉里"라 이름했다.

(1) 창서(倉西)

창서

o 마을 이름의 유래와 마을 형성

원래의 마을은 대창리 산 333번지 주위에 형성되어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고 전하며, 1960년경에 33번지 일대에서 깨진 사기 조각이 무수히 발견되어 구전이 사실인 것으로 인정된 바 있다.

1789년 호구총수지명의 "사창"마을은 함평현의 관용 곡식창고인 "社倉"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며, "倉西"는 사창의 서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은 "사창"과 "창서" 마을이 합쳐 한 마을이 되었고 "倉西"라 한자로 표기한다.

원래 마을을 개촌한 성씨는 전해오지 않으며, 임진란 이후 새 마을을 이룬 사람은 함평이씨 시우(時佑, 1596~1684)로 1620년대에 입촌했으며, 1760년대에 영광군 묘량면에서 영성정(丁)씨 곡(焜, 1737년 생)이, 거의 때를 같이하여 진주강씨가 이주 정착했다.

마을에 가장 주민이 많이 살았던 때는 1965년도로 96가호 650명이 살기도 했다.

o 기본현황

인구(명)			가구(호)			면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98	47	51	54	38	16	230.8	16.4	35.7	99.1	79.6
산 업						성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소득원						기타
벼	양파	딸기								

o 공공건물

·동 각(洞 閣) : 마을 사람들의 쉼터인 정자로 1971년에 지었다.
·집하장(集荷場) : 200평이며 1995년에 지었다.
·협업장(協業場) : 완초 가공 협업장으로 200평이며 1996년에 지었다.

o 유물과 유적

·창남재(倉南齋) : 파평윤씨 함평군 입향조 길(吉)의 재각이다.

o 특이한 민속제향과 놀이

·당산제 : 마을 중앙에 있는 수령 300여 년의 팽나무가 있는데 음력 정월보름에 마을의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당산제를 지냈으나 근년부터 지내지 않는다.

o 풍수지리 및 중요한 지명

·마을 형국이 풍수지리설에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이라 전하며, 현재

의 마을이 형성되기 전에 387번지 부근의 계령(鷄嶺)에다 초저녁에 달걀을 묻어두면 새벽녘에 수탉의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그래서 인근에서 창서가 제일가는 명당 터라고 말했다.

o 자생조직

·위친계 : 계원 상호간의 친목과 위친을 위해 1968년에 만들었다.
·청년회 : 회원 상호간의 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1970년에 창립했다.

o 배출인물

·이시우 : 당대 호남의 석학이며 정묘·병자호란 때 창의했다.
·이홍직(李弘稷) : 1735년 문과에 급제하여 함평현감·영광군수를 지냈다.
·이재호(李載鎬) : 해군대령
·이양호(李亮昊) :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이종인(李鍾仁) : 삼성전관 종합연구소 부장
·윤하중(尹河重) : 함평군 교육장 역임
·윤창중(尹倉重) : 예비역 육군 중령
·윤도병(尹棹炳) : 사무관을 지냈다.
·정병규(丁炳奎) : 함평군청 기획실장 등 역임
·정완성(丁完聲) : 국무총리실 근무(3급 공무원)
·정일성(丁一聖) : 학다리초등학교 교장 역임
·정남식(丁南植) : 조선대학교병원 과장
·정종훈(丁鍾勳) : 전문의. 조선대학교병원 근무

(2) 성대(成大)

성대

o 마을 이름의 유래와 마을 형성 : 지금의 창서 마을은 1789년 호구총수지명의 성대와 칠성·원축동(현재 지명 방죽안), 그리고 1914년 이제를 시행하면서 편입한 나산면 공정을 포함하는 마을이다.

1789년 지명에 "성대(星垈)"로 표기되고 "칠성(七星)"을 합한 마을이기 때문에 고증대로 한다면 1789년 지명의 "星垈"로 표기하는 것이 옳은데 1914년 행정구역 한자 표기에서 "成大"로 표기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성대"라는 마을 이름의 유래에는 안동김씨들이 들어와 터를 잡고 살았고 전한다. 그들은 나라에 작은 죄가 있어 외부와의 접촉을 금하며 살았기 때문에 큰 성안에 갇혀 사는 것과 같다 하여 "성대(城大)"로 썼다고 한다.

그후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成大”로 변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옛날에는 마을 앞 벌판까지 마을이 이루어졌던 큰 마을이어서 “成大”라고 했다고도 한다. 하지만 “성대”와 “칠성”의 지명은 지금도 마을의 밭 가운데 남아 있는 “칠성바우”라 부르는 고인돌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래 7기의 고인돌이 있었는데 지금은 5기가 남아 있으며, 엄다면 영흥리에 있는 7기의 고인돌도 마을 사람들이 “칠성바우”라 부르고 신성시하는 예를 볼 수 있다. 고인돌 7기는 북두칠성 숭배사상으로 승화하여 붙여진 지명이며, 1789년 호구총수지명 “星垈” 또한 칠성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이 마을은 안동 김씨 숙(淑)이 1550년 나주시 금산면에서 이거 개촌하였고, 1900년경 인동 장씨 운여(雲如)가 영광군 백수면에서 옮겨왔고, 이어 나주정씨, 60년 전에 함평이씨 내이가 창서에서 이거 정착했다.

안동김씨의 자작일촌이라 할 만큼 안동김씨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o 기본현황

인구(명)			가구(호)			면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85	46	39	40	26	14	233.2	15.2	37.1	106.4	74.5
산 업						성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소득원						기타
벼	양파	딸기								

o 공공건물

·마을회관 : 50평이며 1974년에 지었다.

·마을창고 : 3동 50평→1974년에 지음. 40평→1980년에 지음. 50평→1994년에 지었다.

·방죽안 동각 : 1970년 남당산나무 곁에 지었다.

·성대 동각 : 마을이 생기면서 지었던 것을 계속 중보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o 유물과 유적

·말무덤 : 왕소나무 곁에 자리하고 있는 말무덤은 고분(古墳)으로 확인되었다.
원래 봉분이 직경 15m가 넘는 둥그런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경작자들이 파고 들어 지금은 가로·세로 10m 정도의 네모형으로 바뀌고 말았다.

·고인돌 : 2개소에 군집(群集)을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
1군은 방죽안 동각 주위에 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경작으로 인해 파손 인멸되었고, 동각 옆에 1기가 남아있는데 원위치에서 20m 가량 옮겨졌다고 한다.
장축 : 180cm, 단축 : 150cm, 두께 24cm.
2군은 원래 7기였다고 하는데 “칠성바우” 또는 풍수설의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금계포란”의 달걀(일설은 병아리)이라고 전해오며, 파손하면 마을과 개인에게 손해가 있다고 전해온다.

현재 밭 가운데 5기가 남아 있으며 모두 남·북 장축이고 장축 300cm, 단축 140cm, 두께 80cm의 1기가 가장 크다.

·열녀각(烈女閣) : 안동김씨의 아내 창녕조씨 열녀각으로 1910년대에 세웠다.

o 특이한 민속제향과 놀이

·당산제(堂山祭) : 방죽안 동각의 고목나무를 남당산(男堂山)이라 부르며 1995년까지 정월 보름에 당신제를 지냈다.

o 중요한 지명

·팽나무샘 : "장자물샘" 이라고도 부르며 현 국도 23호선에서 방죽안 마을로 들어서는 입구에 있는 샘이다. 옛날 장씨 성의 부자가 살면서 샘을 파고 팽나무를 심어서 붙여진 이름이며 1967~1968년의 극심한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았으며 지금은 양수장이 설치되어 있다.

o 자생조직

·촌계 : 마을 협동 정신을 고취하고자 1945년에 만들었다.

o 배출인물

·김 숙(金 淑) : 사헌부 감찰을 지냈다.

6) 문장리(文場里)

문장리에 속해 있는 마을들은 모두 원래 해보면에 속했던 마을들이다.

1789년 호구총수지명에 오른 마을 이름을 살펴보면, 신귀밀(新歸密)·상귀밀(上歸密)·가오지(加五旨)이며, 1910년 행정구역 지명에는 하귀(下歸)·중귀(中歸)·상귀(上歸)·문암(文岩)·선장(先長)이 나오고, 1914년 이제를 시행하면서 해보면의 중·하귀(中下歸) 전역과 상귀(上歸)·주현·문암·선장(蟬場)·하고(下鼓) 각 일부 지역을 묶어 문암에서 "文"자 선장에서 "場"를 따 "文場里"라 하였다.

(1) 문암(文岩)

o 마을 이름의 유래와 마을 형성 : 1789년 호구총수지명에 문암은 나오지 않고 1910년 지명부터 문암 마을이 나온다.

문암이라는 마을 이름의 유래가 마을 동북 편에 조선조 초기까지 있었던 문암사(文岩寺)에서

따온 것이라고 전한다니, 개촌 연대로 보아 1789년 호구총수지명 신귀밀(新歸密)이 이 마을이며, 후에 문암으로 개칭된 것 같다.

이 마을은 진주 정씨 덕정(德亭, 1641년생)이 1660년대에 나산면 구산리에서 이거하여 개촌하였으며, 그 후 함평이씨 봉헌(鳳憲, 1852년 생)이 1880년경에 입촌했고 , 이어 나주정씨가 들어왔다.

o 기본현황

인구(명)			가구(호)			면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45	25	20	32	23	9	197.0	14.3	38.5	66.2	78.0
산 업						성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소득원						기타
벼										

o 유물과 유적

·고분(古墳) : 국도 24호선에서 3·1 만세 기념탑 뒤 문암 마을길을 200m가면 길 왼쪽 지름 18m에 이르는 고분이 있다.

·문암사 터 : 마을 동북편에 있고 조선조 초기에 폐사되었다고 전한다.
절 입구에 있던 비를 현재 마을 앞에 옮겨 놓았는데 글씨가 마모되어 내요을 살필 수가 없다.

·귀밀원(歸密院) : 1781년 간행 함평현읍지에 “현 동쪽 40리에 귀밀현이 있는데 금폐(今廢)”라고 하였다.
조선조의 원은 절 근방에 많이 있고 절의 승려가 많이 원주였던 것을 볼 때, 현 문암제 곁 석장승이 서있던 곳으로 믿어지며, 1871년 이전에 폐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석(石)장승 : 2기가 있는데 작은 장승은 광주 쪽을 향해 문암제 너머에서 있던 것을 마을 어귀로 옮겼다고 하며 문관석 모양을 한 특이한 장승은 절 입구에 있던 것을 옮겨 작은 장승과 함께 세웠다고 한다.

o 마을에 관계되는 전설

옛날 해보면의 장인 선장(蟬場, 현3·1만세 기념탑이 있는 곳)이 곁에있고, 광주로 통하는 국도가 있어 장터 객주집에서 많이 묵어갔다고 한다. 그런데 도둑 떼가 있어 밤중에 닭우는 소리를 내어 새벽인 줄 알고 길을 떠나는 행인을 해치고 시체는 방죽에 빠뜨렸다고 한다.

그래서 “여보소들 무내미재(文岩峙)를 넘지말소. 그 닭은 참 닭이 아니고 인(人)닭이라네. 여보소들 닭우는 소리 제발 믿지 말고 무내미재를 넘지말소. ”하는 노래까지 나왔다고한다.

o 중요한 지명

·구밀헌병파견소(求密憲兵派遣所) : 문암과 상귀 중간에 일제가 항일의병을 소탕하기 위해 구밀헌병파견소를 설치하였으며 1920년대까지 존속했는데 지금은 그 터가 밭이 되었다.

o 자생조직

·부녀회 :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1980년에 창회하였다.

o 배출인물

·이찬형(李燦衡) : 10대 해보면장을 지냈다.

·이상범(李祥範) : 육군 소령 예편

(2) 상귀(上歸)

o 마을 이름의 유래와 마을 형성

상귀

문장리에서 제일 먼저 개촌한 마을이다.

선조 22년(1589)년 백양사의 노승이 이곳을 지나며 "큰 인물이 많이 나올 거북의 꼬리, 즉 "귀미형국(歸尾形局)"이 여기에 있구나!" 라고 감탄했다는 말을 듣고 개촌하여 마을 이름을 "龜尾"라 했다는 전설이 있으나, 최초 입향자가 어떤 성씨였는가는 전하지 않는다.

귀미가 전언되면서 귀밀(歸密, 1789년 호구총수지명)로 바뀌어 표기되고, 한말과 일제강점기 중 한때는 "龜"자가 "귀"와 "구"로 쓰임으로 "구밀"로 발음되어 엉뚱하게 "求密"로 표기된 적이 있으나 1910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1789년 호구총수지명 "上歸密"을 약하여 "上歸"로 쓰고 있다.

거북의 고리 형국에서 나온 원래의 지명을 찾아 쓴다면 "龜密"로 쓰는 것이 옳을 것이다.

문헌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이 마을의 최초 입촌자는 함평이씨 시진(時晉, 1616년생)으로 1640년경 용산리 백토에서 이주 정착했다.

뒤이어 진주정씨 등이 들어와 살게 되었으나 함평이씨 자작일촌으로 보아도 무리가 아니게 주종을 이루고 있다.

o 기본현황

인구(명)			가구(호)			면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77	39	38	41	28	13	197.7	13.9	37.8	69.8	76.2
산 업						성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소득원						기타
벼										

o 자생조직

·부녀회 : 회원 상호간의 부조를 목적으로 1976년에 창립하였다.

(3) 중귀(中歸)

o 기본현황

인구(명)			가구(호)			면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95	42	53	47	32	15	185.8	14.6	39.1	52.5	7936
산 업						성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소득원						기타
벼	딸기									

o 자생조직

·부녀회 : 부녀 계원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1980년에 창립했다.

·청년회 : 회원간의 단결과 상호 상조를 목적으로 1981년에 창립했다.

(4) 하귀(下歸)

o 기본현황

인구(명)			가구(호)			면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188	92	96	76	39	37	202.4	15.7	40.3	61.2	85.2
산 업						성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소득원						기타
벼										

o 자생조직

·촌계 : 마을 번영과 회원간의 상호 상조를 목적으로 1980년에 만들었다.

o 배출인물

(상·중·하귀 인물을 같이 수록했음)

·이재관(李載寬) : 일신중기 사장. 재광함평군향우회장을 역임함

·이영일(李英一) : 국회의원, 새정치국민회의 대변인. 함평읍에서 출생하여 유·소년기를 지냄

·박래옥(朴來玉) : 전라남도의원

·이기행(李箕行) : 경찰공무원 경감

·이명헌(李明憲) : 제 2대 해보면장을 지냄

·이근범(李根範) : 육군 중령

·이안식(李安息) : 전라남도청 약무·위생계장 역임

·이성행(李聖行) : 제 5대 해보농업협동조합장을 지냄

·임학천(林鶴天) : 미국에서 목사 역임

·이안철(李安喆) : 서울교회 목사

·이정행(李正行) : 경찰공무원. 경감

7) 산내리(山內里)

1789년 호구총수지명에 오른 마을 이름을 살펴보면 송산(松山)·산내(山內) 두 마을 이며, 1910년 산내(山內)·송산(松山)·노선(老仙)·도연(道連)마을이 나오고, 1914년 이제를 시행하면서 해보면의 송산(松山, 노선마을이 포함됨) 전역과 도광(道光)·산내(山內) 각 일부 지역을 묶어 "산내" 마을의 이름을 따 이명(里名)으로 했다.

2000년에 송산제(松山堤)가 준공되어 원산(元山, 산내의 개명)1개 마을만 남고 모두 수몰지가 되어서 1998년까지 다른 마을은 철거되었다.

(1) 원산(元山)

o 마을 이름의 유래와 마을 형성 : 이 마을은 군내에서 드문 산속 마을이다.

해방 후 산내(山內) 마을과 연등골(連嶝, 1910년 지명 도연, 1914년지명 도광)을 합쳐 원산이라고 하였다.

원산이란 이름은 해방 후 군내에서 생산된 담배와 누에고치가 질이 좋기로 군내에서 1위였는데 으뜸가는 담배와 누에고치를 생산하는 산내(산안) 마을이라는 뜻에서 "元山"이라 했다고

한다.

산내의 지명 유래는 마을 형국이 뱀의 알이어서 “사란(巳卵)”이라 했는데 구전되면서 “산안”으로 바뀌고, 한문으로 “山內”라 표기되었는데, 산에 에워싸인 산속 동네니 “山內”도 옳은 이름이 되고 말았다고 한다.

이 마을을 개촌한 성씨는 장수황씨로 400여년 전에 오두에서 이거 원산안 안골에서 살았는데 아주 오래 전에 후손들이 모두 떠나고 선산도 찾아오는 후손이 없어, 선산의 석물을 1950년대 고물 장사들이 가져갔다.

뒤를 이어 350여년 전에 역시 오두에서 광산김씨들이 들어 왔는데 그들의 후손도 모두 영암군 시종면 등 각지로 떠났다. (지금 살고 있는 광산김씨는 파가 다르며 근년에 들어왔다.)

300여년 전에 함평이씨가 들어왔으며, 뒤를 이어 인동장씨 원석(遠錫, 시조의 28세손)이 나주 호장촌에서 이거 정착했다.

1950년 한국전쟁 때 마을이 전소되고 1951년에 입주가 시작되었다.

o 기본현황

인구(명)			가구(호)			면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59	34	25	25	14	11	181.9	11.7	31.1	79.4	59.7
산 업						성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소득원						기타
벼										

o 공공시설

·공동 놀이터 겸 건조장 : ① 산내리 345번지 495m2 마을 공동 경비로 마련
② 〃 392번지 902m2 이내성 희사
③ 〃 446번지 432m2 긴재천 희사

o 유물과 유적

·선돌 : 정자 곁에 있다. 높이 217cm, 하부 폭 50cm, 두께 32cm

·돌방고분 : 김창균의 밭에 있다. 1995년 밭을 일구며 돌방이 훼손되고 덮게돌만 10m 북쪽으로 옮겨 놓았다. 밭 주인이 유물은 없었다고 하는데 주위에서 토기편을 수습하였다.

·분청자 가마터 : 조선 중기의 가마터로 이재홍 소유의 밭에 있다.

o 특이한 민속제향과 놀이

·선돌제 : 경제적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출연하여 연회비를 마련하여 정월보름에 마을 안녕을 기원하는 제를 지낸다.

전에는 농악을 치며 제를 올린 다음 줄 감기를 하였으나 지금은 농악없이 제만 지내고 줄도 감지 않는다.

o 마을과 관계되는 전설

마을 앞 당산나무 밑에 여자의 음부형인 돌이 있는데 사이에 방앗고를 끼우면 마을에 음란한 사고가 꼭 난다.

o 중요한 지명

·가제명당 : "게명당"이라고도 하는데 황씨들 선조 산소를 말한다.
·고랭이골 : 노루의 일종인 고라니가 많이 살아 붙여진 이름이다.
·봉화산 : 마을 앞산인데 가물 때 봉화를 올리고 기우제를 지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송산제 공사로 폐촌된 마을

·송산(松山)

300여년 전에 광산김씨가 개촌하였으며, 소나무가 울창하여 송산이라고 하였고, 1998년 마을조사를 할 때 26가호가 147명이 살았으며, 개촌과 함께 심었다는 300여년 수령의 팽나무는 모내기철에 비가 알맞게 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적게 올 것인가를 짐작하게 하는 영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 팽나무는 두 개의 큰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한꺼번에 잎이 피면 그 해에는 모내기철에 알맞게 비가 오고, 아래가지의 잎이 먼저 피고 윗가지의 잎이 나중에 피면 모내기 철에 두 번 이상에 걸쳐서야 흡족한 비가 내렸다.

- 사그점재 : 조선조 말 사기를 구었던 가마터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며 1990년 광주박물관에서 조사한 바가 있다.
- 문골의 물맞이 : 옥녀봉 중턱에 7~8m 높이의 폭포가 있어 여기서 물을 맞으면 약이 된다하여 인근은 물론 영광 등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맞으러 왔다.
- 신도비(神道碑) : 충정공 윤발(忠靖公尹潑)의 신도비가 마을 앞에 있다.

·노적(老迪)과 한골

노적은 1910년 지명 노선(老仙)마을의 개명이며 150여 년 전에 개촌된 마을이고, 1960년대에 15가호가 살던 마을이다.

고인돌 9기가 마을 앞에 있어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았음을 알 수 있다.

<1권 선사시대의 유적 유물항을 볼 것>

한골 마을은 근래에 개촌된 마을로 한자 표기가 없는 우리말 이름이다.

1960년대에 10여 가호가 살았으며, 마을 주위에 15기의 고인돌이 산재해 있어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았음을 알 수 있다. <1권 선사시대의 유적 유물항을 볼 것>

일명 "마당바우"라 부르던 가장 큰 고인돌의 규모는 아래와 같다.

장축 480cm, 단축 450cm, 두께 90cm 장죽 방위 남·북

이 두 마을은 1998년에 철거를 마쳤기에 주민들이 모두 떠나 마을의 유래와 형성등을

조사할 수가 없었다.

8) 상곡리(上谷里)

이 지역은 백제 때는 다지현(多只縣), 신라 때는 다기현(多岐縣)에 속했고, 고려 때로부터 조선조 태종 9년(1409) 함평현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모평현(牟平縣, 별호 모양-모양)에 속했으며, 문헌 기록 등 여러 자료에 의해 현의 치소(治所)로 보고 있다.

1789년 호구총수지명에 오른 마을 이름을 살펴보면 지변(池邊)·중촌(中村)·상평지(上平地)·중평지(中平地)·하평지(下平地)이며, 1910년 행정구역 지명에는 상모(上牟)·하모(下牟)·운곡(雲谷)·세 마을이 올라 있고, 1914년 이제를 시행하면서 해보면의 상모(上牟)·하모(下牟)·운곡(雲谷) 전역과 계동(桂洞)·성산(成山)·도노(道老)·월현(月峴)의 각 일부 지역을 묶어 상모에서 "上" 운곡에서 "谷"자를 따 "上谷里"라 하게 됐다.

(1) 상모(上牟) 와 하모(下牟)

상모

o 마을 이름의 유래와 마을 형성

현재의 행정리(行政里)와 반(班)의 편성을 보면 상곡1리는 상모를 1·2 반으로 나누었고, 상곡2리는 하모와 운곡으로 반이 짜여 있다.

상모와 하모를 합쳐 모평(牟平)으로 통칭하고 있고, 고려 때 모평현의 치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모와 하모를 묶어 언급하기로 한다.

지금의 해보·나산·월야면은 백제 때는 다지현, 신라 때는 다기현이었고, 고려 때는 모평현이었는데, 지명에는 꼭 유래가 있는 것이지만 어떤 연유에서 고려 때 모평현이라 했다는 지명의 유래는 전하지 않는다.

김정호(金正浩)가 지은 대동지지(大東地志)에 의하면 모평현이란 이름은 고려 태조 23년(940)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붙여졌다.

고려 현종 9년(1018)에 시행한 지방제도 개편 때 중앙정부·상서성(尙書省) → 나주목(羅州牧) → 지사군·영광군(知事郡靈光郡) → 속현(屬縣)·함풍현(咸豊縣) 모평현(牟平縣)으로 체계화 되었다.

하모

근래 학계에서 모평현의 지명 유래를 모씨와 연관하여 그 실체를 밝히려는 연구가 태동하고 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점은 "모(牟)"자는 지명(地名)이며 국명(國名)이었다는 사실이다. 즉 고창의 옛 이름은 "모양부리(毛良夫里)"라고 이두(吏讀) 표기를 한 바 있고, 마한때 이곳 부족국가 이름은 "모노비리국(牟盧卑離國)"으로 추정하고 있다. 모평은 고려 때 영광군의 속현이었으나 인접 고을 고창이 모니비리국이었던 점. 도 하나의 마한국(馬韓國) "모수국(牟水國)"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함평모(牟)씨"와 관련 해 규명해 봄직한 과제다. 오늘날 함평군 해보면 모평의 상류 계곡에는 수많은 지석묘가 있다 .어쩌면 모씨는 중국 귀화족이 아니라 마한 이전부터 이곳을 중심으로 살아온 토족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다만 중국 산동성에 있는 모평과 상관관계를 살펴 볼만한 일이다」

모수국을 "물뜸"으로 해석하여 경기도 수원(水原)으로 비정(比定)한 학자도 있었지만 수원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유적이나 유물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옛 모평현 지역에서는 나산면 초포리 사촌의 정동기 유물 발굴지를 비롯 수많은 고인돌과 고분이 군집을 이루고 있어 마한 소국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보여 주고 있고, "모평(牟平)"도 "물뜸"과 통하며, 현재의 면명인 "해보(海保)"도 "물뜸"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으니, 고려 때 "모평현(牟平縣)"의 지명이 마한의 "모수국(牟水國)"에 연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모수국이 모씨의 나라라면 함평모씨의 근원이 중국에 있지 않고 마한에 있으며, 모평의 중심 세거지였다고 추정할 수가 있다.

모평이 현명(縣名)이 아닌 마을 이름으로 기록되어 전하는 가장 오래된 문헌은 단종 2년인 1454년에 간행된 세종질록지리지인데,

"옛 모평이 현의 동쪽 30리에 있다.(古牟平 在縣東三十里)"고 하였고, 1481년에 간행된 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覽)4) 과 1765년에 완간한 여지도서(與地圖書)에는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록을 그대로 옮겨 썼다.

1789년 호구총수지명에는 상평지(上平地)·중평지(中平地)·하평지(下平地)로 나뉘어 실려 있는데, 여지도성 모평이란 지명이 실려 있는데도 34년 후에 호구총수짐영을 기록하면서 "상모평(上牟平)"이라 하지 않고, "상평지(上平地)"라 한 것은 이 기간 중에 지명이 바뀐 것을 의미하는데 그 까닭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어 1865년에 김정호 쓴 대동지지에는,

"고읍(古邑) 모평이 동으로 30리에 있다. 본래 백제의 부지현(夫只縣)이었는데 당나라가 백제를 멸망시키고 다지현(多只縣, 일명 다지-多支)으로 바꾸어 사반주(沙泮州)의 여현으로 하였다. 신라 경덕왕 16년 다기현(多岐縣)으로 바꾸어 무안군의 영현으로 하였고, 고려 태조 23년(940) 모평현이라 이름을 바꾸었으며, 현전 9년 영광군의 속현으로 삼았다. 본조 태종 9년 함풍현과 합쳤다"라고 모평의 마을 지명과 모평현에 대한 설명을 곁들였으며, 그가 1834년에 그린 청구도(靑丘圖)에 모평의 위치를 그려 넣었다.

1910년과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牟”자를 넣어 상모(上牟)·하모(下牟)로 나누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하기를 모평을 개촌한 성씨가 함평모씨(원래 모평모씨로 불렀으나 1409년 함풍현과 모평현을 합해 함평현을 설치하면서 함평모씨로 개칭함)라고 하며, 함평모씨의 족보에 보면, 시조 경(慶, ?~1143)

3) “수(水) 와 ”평(平)”자의 뜻을 새겨 볼 때 “水”자가 “고르다(횡평준-橫平準)”는 뜻을 가지고 있고, “平”자 또 한 고르다(均也)“는 뜻을 가지고 있어 수평(水平)이란 말을 이루고 있어 상응하고 있다.

4) 「동국여지승람」은 조선조 성종 12년인 1481년에 간행되었으나 전하지 않고, 1485년부터 1530년까지 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을 보강하고 또 편제를 바꾸어 발행한 「신증동국여지승람」이 전하며, 동국여지승람에 없던 내용을 보강한 것은 “신증”이라는 표를 하였는데 “고모평조”에 이 표가 없어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으로 보고 있다.

이 1126년 이자겸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모평군에 군봉되고, 모평 마을 북쪽에 있는 침천산 간좌(林泉山 艮坐)에 묻힌5) 이래 모평은 함평모씨의 세거지가 되었으며, 10세손 순(恂)이 익천(益阡)과 수천(秀阡) 두 아들을 두었는데, 익천은 고향에 남아 살게 하고 수천을 데리고 진양으로 옮겼으며, 익천은 현손(시조의 15세손) 난(蘭, 1469~1545)이 함평읍 내교리 외대화로, 난의 아우 인(闉)의 손자인 학영(鶴泳, 시조의 17세손. 1529~1605)이 마지막으로 모평을 떠나 대동면 향교리에 정착했다.

함평모씨 족보 기록으로 함평모씨가 모평에 세거한 햇수는 400여 년이 된다.

함평모씨 외에 모평과 연관되는 성씨로 함평정씨, 함평오씨, 함평김씨가 있는데, 이들 성씨의 족보상 기록 “모평”이 현재의 모평 마을인지, 그렇지 않고 모평현에 속했던 어떤 마을인지는 분명히 가릴 수 가 없다.

때문에 이들 성씨의 족보상 기록 “모평”을 현재의 모평 마을로 간주하고 여기에선 언급한다.

함평정씨 족보에는 시조 언겸(彦謙)이 문과에 급제하여 병부상서·문하시중을 지냈는데 1126년 이자겸의 난 때 모평에 퇴거하였으며, 늦은 나이에 아들 형(亨)을 낳았다고 하였으니6) 형을 모평에서 낳았다고 볼 수 있다.

언겸은 족보 기록으로 보아 함평모씨 시조 경과 같은 연대의 인물인데, 문하시중의 높은 벼슬에 있던 그가 모평으로 퇴거한데는 그와 연관이 있는 세력이 모평에 세거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시조의 3세손 현수(賢守)가 공부시랑(工部侍郞) 평장사를 지내고 영풍부원군(永豊府院君, 현 함평읍 일부, 옛 영풍향-永豊鄕)에 봉작되고, 5세손 함(緘. 일명 함-涵)이 좌정승에 올라 충렬

왕 때 함성군(咸城君, 함풍을 달리 부르는 이름) 군봉을 받았으며, 8세손 안의(安義)가 공양왕 때 문하찬성사·보문각 대제학을 지내다가 1392년 조선조의 개국과 함께 벼슬을 버리고 귀향하여 여생을 보냈다.

안의의 증손 숙륜(叔倫)7)이 면천군수(沔川郡守, 현 충남 당진군 일부지역)를 지낸 후 면천에 정착하니 함평군의 정씨들이 당진군으로 모두 이거하게 되었다.

이거 연대를 대략 세종·세조 연간(年間)으로 보고 있으니 함평정씨의 모평 세거 연대는 300여년간이 된다.

"정"씨는 세종실록 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의 모평현, 함풍현, 영풍향의 토성조에 올라있어 함평군의 토반세력임을 알 수 있으며, 문헌비고에 모평정씨, 함풍정씨, 영풍정씨가 나오는데, 함평정씨가 배출한 인물에 영풍부원군 정현수, 함성군 정함이 있어서 이들이 한 집안인 것을 알 수 있다.

함평오씨는 시조 잠(岑)이 고려 원종(元宗, 재위 1259~1274)때 문과에 급제하여 태자태사 문하시중(太子太師門下侍中, 종1품)에 오르고 함풍군(咸豊君)에 봉해졌으며 3세 사총(思摠)이 충렬왕 때 좌복야(左僕射)에 오르고 모평군(牟平君)에 봉해 졌다.

5) 묘 실전함

6) 함평정씨 시조 조(脩) : 인종 4년 척준경난시 퇴거우 모평 만생 일자(仁宗四年拓俊京亂時退居于牟平晩生一子)

7) 숙륜 : 태종4년(1404) 진사과에 입격하고 사헌부 지평을 지낸 구명(耉明)의 둘째 아들. 시조의 11세손

함평오(吳)씨는 본래 모평오씨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시조가 함풍군에 봉해졌기 때문에 함풍오씨였다고 할 수 있으나, 오씨가 세종실록지리지나 동국여지승람의 모평현 토성조(土姓條)에 올라 있어 오씨가 모평현 토호 세력이며, 3세 사총이 모평군에 군봉된 연유가 여기에 있을 것으로 보여 본래 모평오씨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모평 오씨는 1409년 함풍현과 모평현을 합쳐 함평현을 신설하였기에 함평오씨로 개칭하였다.

함평오씨는 현재 공주시 우성면 상서리 자작일촌을 비롯하여 공주시에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데, 족보에 6세조 적(迪)의 공주 거주, 형(衡)의 전주 거주를 적고 있으니 5세조까지 모평에 세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적의 아들인 7세 헌(憲)이 고려말경 중랑장을 지냈고, 조선조 개국과 함께 출사 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사양하였다고 하니, 7세조 활동기로 보아 함평오씨는 1390년대 이전에 이미 모평을 떠났다고 볼 수 있어 함평오씨의 함평 세거는 150여 년 안팎으로 볼 수 있다.

함평김씨(金氏, 원래 모평김씨)는 세종실록 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 모평현 토성조에 속성(續姓, 조선조 개국 후 입향한 성씨)으로 기록되어 있다.

후손들이 평남 대동군과 황해도 해주에 집성촌을 이루고 산다고 하는데 모평에 언제 들어와 언제 떠났는지 족보가 입수되지 못하여 자세히 알 수가 없다.

파평윤씨 모평 입촌자는 길(吉, 1368~1462. 시조의 15세손)이다.

그는 고려 우왕 12년인 1386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한림을 거쳐 탐라병사를 지내다가 1392년 고려가 망하자 벼슬을 버리고 평산의 영풍 상운봉(祥雲峯)에 집을 짓고 송도를 사모한다는 뜻으로 모송당(慕松堂)이라 편액하고 매양 송도를 바라보며 통곡하는 충절을 보였고 두문의 선비와 사귀었으며, 세조 2년인 1457년 절재 김종서의 제문(祭文)에.

"공은 죽을 곳에서 죽었도다. 천년의 긴 역사가 공으로 하여금 다시 밝아지리라.(公死於死千載之下 春秋之史 由公更明)" 이라 한 것이 세조의 노여움을 사 90세의 노령에 제주도로 귀양갔다.

귀양이 풀려 아들 덕생(德生)과 함께 평산으로 가던 중 해보면 상곡리에 이르러 산명수려(山明秀麗)함에 흠취하여, 마을 뒷산을 임천산(林泉山), 앞산을 자양산(紫陽山), 서쪽산을 월량산(月陽山), 계곡을 무이천(武夷川)이라 부르게 하였으며, 주자(朱子)를 제사할 사당을 짓고 여생을 보냈다.

그의 후손들이 번성하여 모평에서 자작일촌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경남 함양, 광주광역시 대촌, 담양군 창평면, 장성군 삼계면, 무안군 해제면, 신광면 삼덕리, 엄다면 엄다리 성산 등으로 퍼져 살고 있다.

o 기본현황

① 상모

인구(명)			가구(호)			면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169	86	83	86	52	34	219.5	16.2	38.5	79.6	
산 업						성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소득원						기타
벼		딸기								

② 하모

인구(명)			가구(호)			면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53	29	24	31	23	8	207.8	15.2	37.6	80.5	74.5
산 업						성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소득원						기타
벼		딸기								

o 유물과 유적

·동헌(東軒)터 : 현재 윤선식의 가옥이 있는 상곡리 230번지 일대로 동헌터라 구전되고 있고, 1998년 전남대학교 지표조사반이 토기편과 기와편을 수습했는데 토기편은 대부분 고려와 조선조에 해당하나 일부는 통일신라까지 소급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었고, 기와편은 거의 조선조에 해당하나 고려조까지 소급될 수 있는 것이 섞여있었다.

·내아(內衙)터 : 현재 윤석언의 가옥이 있는 상곡리 652번지 일대로 내아터라 구전되고 있다.

·객사(客舍)터 : 현재 윤태수의 가옥이 있는 상곡리 249번지 일대로 객사터라고 구전되고 있다.

·골샘 : 안샘이라고도 부르는 샘으로 상곡리 230번지와 652번지 사이의 얕은 계곡에 위치한다. 샘의 구조는 사방 평면 1.7m 내외, 깊이 1m 내외로 석축되고 샘 주변도 가공된 돌로 쌓았으며, 모평현청과 내아에서 이용하던 샘이라하여 골샘 또는 안샘으로 전해온다.

·자양서원(紫陽書院)터 : 주자와 송시열을 배향하던 서원으로 1726년에 창건했고 1868년 서원철폐령에 의해 훼철되었다.

모평면 나산면 우치리 계동 사이에 자리했고 지금은 서원터 모두가 논이 되었으며, 하마비(下馬碑)만 계동 마을 입구에 옮겨 세워져 전한다.

·임천사(林泉祠) : 파평윤씨 길(吉)·덕생(德生)·형필(衡弼)을 배향했으며, 건립연대는 전하는 기록이 없고 1868년 서원철폐령에 훼철되었다.

·수벽사(修闢祠) : 윤관(尹瓘)을 배향하며 1957년에 건립하였고, 1980년에 보수 증측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신천강씨 열녀각(信川康氏 烈女閣) : 우부장(右部將)을 지낸 윤해(尹海, 1541~1597, 9. 19)의 아내로 정유재란 때 왜적이 모평에 침입하자 남편과 함께 화산으로 피난을 하게 된다. 산중에서 왜적을 만나 포위되고 적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자 남편을 호위하여 손으로 칼을 막다가 전신이 잘려 남편과 함께 순절했다. 1822년 정려의 은전이 내려 열녀각을 세웠다.

·느티나무·팽나무 등 줄나무 : 마을 서편 해보천변에 심어진 20여 그루의 방풍림으로 수령이 200~300년에 이른다.

o 마을과 관계되는 전설

어느 여승이 아무도 모르게 임천산을 머리에 이고 남쪽에 있는 성대 마을 쪽으로 오는데 모평 마을 아낙이 문밖으로 나오다가 이를 보고 어머, 임천산이 걸어오네"라고 소리를 쳤다.

여승은 "이크 들켰구나. 저 망난이가 모평 마을 장래를 망쳤구나!"하면서 머리에 이고 오던 임천산을 지금의 위치에 내려 놓아버렸다.

그 때에 돌이 튀어 성대 마을과 현재 국도가 지나는 곳까지 이어지다가 멈추었다.

만약 임천산과 성대 마을 뒷산이 이어졌다면 아주 큰 터가 되었을 텐데 마을 여인의 눈에 띄어 큰 터가 되지 못했다고 한다.

o 자생조직

·나락계 : 계원 상호간의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1970년에 창립했다.

o 배출인물(성씨별 입촌 순위로 배열함)

·모 경(牟 慶) : ?~1143. 함평모씨의 시조. 인종의 부마(駙馬), 1126년 이자겸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모평군에 봉군되었다.

·모광정(牟光烶) : 경의 아들, 고려 예종 8년인 1154년 문과에 급제하여 밀직부사 평장사를 지냈다.
·모정린(牟挺麟) : 광정의 아들. 고려 명종 2년인 1215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평장사를 지냈다.
·모진로(牟震老) : 원기의 아들. 고려 고종 28년인 1241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전서·시중을 지냈다.
·모여장(牟汝長) : 진로의 아들. 고려 원종 15년인 1274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평장사를 지냈다.
·모 호(牟 皓) : 1265~1343 호 충모재(忠慕齋) 여장의 아들. 충렬왕 32년인 1305년 에 문과에 급제하여 부원수·평장사를 지냈다.
·모시영(牟時靈) : 호의 둘째 아들. 공민왕 원년인 1351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영동정을 지냈다.
·모세택(牟世澤) : ?~1418 호 송암(松菴). 시영의 아들. 시조의 9세손. 공민왕 9년인 1360년 문과에 급제하여 군기시 첨정을 지냈으며, 고려가 망하고 향리로 돌아와 여생을 보냈다.
·모 순(牟 恂) : 1373~1459 호 절강(截江), 세택의 맏아들. 태종 17년인 1417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수판사재감사(守判司宰監事)를 역임하였고 아들 수천(秀阡)을 데리고 진양으로 이거하여 정착했다.
·모익천(牟翊阡) : 1392~1478 호 월탄(月灘). 순의 아들. 태종 12년인 1412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좌찬성을 지냈다. 權謚
·모 규(牟 珪) : 1414~1481 익천의 아들. 세종14년인 1432년에 급제하여 한성판윤을 지냈다. 町珪
·모수진(牟受璡) : 1429~1492 호 석정(石汀). 규의 아들. 세조 6년인 1460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안주목사를 지냈다.
·모방양(牟方良) : 1446~? 수진의 맏아들. 1470년 진사과에 입격하였다.
·모방선(牟方善) : 수진의 둘째 아들. 1480년 진사과에 입격하였다.
·모방익(牟方益) : 1454~1516 수진의 셋째 아들. 1474년 성균관 진사에 입격하였다.
·모 형(牟 亨) : 방선의 아들. 중종 9년인 1514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통정대부를 지냈다.
·모 란(牟 蘭) : 1469~1545. 방익의 맏아들. 시조의 15세손. 함평읍 내교리 외대화로 이거 정착했다.
·모 인(牟 闉) : 1482~1544 호 죽계(竹溪). 방익의 둘째 아들. 중종 11년인 1516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한성판윤을 지냈다.
·모웅걸(牟雄傑) : 호 죽은(竹隱). 형의 아들. 명종조에 정자를 지냈다.
·모태산(牟泰山) : 1510~1600 호 지곡(智谷). 인의 맏아들. 중종 27년인 1532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선무랑을 지냈다.
·모경직(牟敬直) : 1513~1604 인의 둘째 아들. 교동수사로 있다가 충남 홍주로 유배되고

유배가 풀린 후 유배지에 정착하였다.

·모학영(牟鶴泳) : 1529~1605 호 지효재(至孝齋). 태산의 아들. 시조의 17세손. 명종 5년인 1550년 문과에 급제하였고 지극한 효자로 명성이 높았으며 대도면 향교리로 이거 정착했다.

·정언겸(鄭彦謙) : 함평정시 시조. 문과에 급제하여 병부상서 문하시랑을 지내고 1126년 모평에 퇴거하여 여생을 보냈다.

·정 형(鄭 炯) : 언겸의 아들. 문과에 급제하여 공부시랑 평장사를 지냈다.

·정현수(鄭賢守) : 형의 아들. 문과에 급제하여 호부상서 문하시중을 지냈으며 영풍부원군(永豊府院君)군봉을 받았다.

·정신량(鄭臣良) : 현수의 아들. 예부상서를 지냈다.

·정 함(鄭 緘) : 일명 정함(鄭涵). 신량의 아들. 시조의 5세손. 충렬왕 때 좌정승을 지냈고 함성군(咸城君)에 봉작되었다.

·정공민(鄭恭敏) : 함의 맏아들. 병부상서 문하시랑을 지냈다.

·정공밀(鄭恭密) : 함의 둘째 아들. 문과에 급제하여 첨의평리사(僉議評理事)를 지냈다.

·정을룡(鄭乙龍) : ? ~ 1370 공민의 아들.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진현관 대제학을 지냈다.

·정안인(鄭安仁) : 을룡의 맏아들. 공조전서를 지냈다.

·정안의(鄭安義) : 을룡의 둘째 아들. 시조의 8세손. 호 청유(靑遊). 문과에 급제하여 공양왕때 문하찬성사·보문각 대제학을 지냈으며 1392년 고려 패망과 함께 벼슬을 버리고 귀향하여 여생을 보냈다.

·정지유(鄭知遊) : 안의의 아들. 진사과에 입격하였고 호조전서를 지냈다.

·정구명(鄭耉明) : 태종 4년인 1404년에 진사과에 입격하였고, 사헌부 지평을 지냈다.

·정숙륜(鄭叔倫) : 구명의 둘째 아들. 시조의 11세손. 현 충남 당진군의 일부 지역인 면천군수를 지냇고, 면천에 정착하여 그 후손이 현재 당진군에 집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다.

·오 잠(吳 岑) : 함평오씨 시조. 고려조에서 문과에 급제하였고, 좌명공신으로 태자태사를 지냈으며 함풍군(咸豊君) 군봉을 받았다.

·오진후(吳進厚) : 잠의 아들. 이부상서를 지냈다.

·오사총(吳思摠) : 진후의 아들. 좌복야(左僕射)를 지냈고 모평군 군봉을 받았다.

·오공효(吳公孝) : 사총의 아들. 상식국 직장(尙食局直長)을 지냈다.

·오손계(吳孫啓) : 공효의 아들. 시조의 5세손. 문과에 급제하여 집현전 학사를 지냈다.

·윤 길(尹 吉) : 1368~1462 시조의 15세손. 1386년(우왕 12)에 문과에 급제하여 한림·탐라병사를 지냈으며 파평윤씨 함평군 입향조다.

·윤덕생(尹德生) : 1396~1469 길의 아들. 호 광수(狂叟). 1420년 사마시에 입격하였고, 아버지와 함께 모평에 입촌하였다.

·윤 만(尹 蔓) : 1418~1491 덕생의 맏아들. 사헌부 감찰을 지냈다.

·윤 완(尹 莞) : 1425~1489 덕생의 둘째 아들. 단성현감(丹城縣監)을 지냈다.

·윤자중(尹自中) : 1450~1511 만의 아들. 음사로 출사하여 좌랑을 지냈다.
·윤경중(尹敬中) : 완의 아들. 통덕랑을 지냈다.
·윤승문(尹承文) : 1466~1545 자중의 아들. 사과(司果)를 지냈다.
·윤 열(尹 說) : 시조의 19세손. 무과에 급제하여 전라도병마절도사를 지냈다.
·윤언상(尹彦商) : 1481~1551 승문의 아들. 성주 등 13개 고을 수령을 지냈다.
·윤영상(尹榮商) : 1481~1568 호 이성(怡性). 승문의 둘째 아들. 1534년 학행으로 천거되어 건릉원 참봉에 제수되고. 용산리 대성으로 이거하여 정착했다.
·윤희상(尹希商) : 1487~1555 승문의 셋째 아들. 별제를 지냈다.
·윤사상(尹思商) : 1498~1568 승문의 넷째 아들. 장흥부사 등 9개군의 수령을 지냈다.
·윤천승(尹天承) : 열의 아들. 임진란 때 왕을 호종하며 호종 2등공신에 올랐다.
·윤인형(尹仁衡) : 1517~1580 사상의 맏아들. 경흥부사 등 7개군 수령을 지냄.
·윤형수(尹衡袖) : 1521~1587 호 임곡(林谷). 희상의 아들. 검상을 지냈다.
·윤예형(尹禮衡) : 1522~1592 호 임천(林泉). 사상의 둘째 아들. 무과에 급제하였고, 명천부사 재직 중 임진란이 일어나 부원수로 출정 삭녕. 철원전투에서 큰 공을 세우고 아들과 함께 전사했다. 선무원종 2등공신에 올랐다.
·윤은형(尹隱衡) : 1526~1586 사상의 셋째 아들. 부장을 지냈다.
·윤형록(尹衡祿) : 1536~1582 언상의 둘째 아들. 사과를 지냈다.
·윤 의(尹 漪) : 1538~1591 형수의 아들. 진사과에 입격하였다.
·윤 섭(尹 涉) : 1538~1605 호 성암(城巖). 형좌의 아들. 유진장을 지냈다.
·윤 해(尹 海) : 1541~1597 형수의 둘째 아들. 우부장(右部將)을 지냈다.
·윤 원(尹 愿) : ? ~ 1592 호 애재(愛齋). 예형의 아들. 무과에 급제하였고. 임진란 때 유도대장(留都大將)이 되었고, 아버지와 함께 전사했다.
·윤 덕(尹 悳) : 1543~1609 호 유정(柳亭). 예형의 둘째 아들. 남해현감을 지냈다.
·윤 헌(尹 憲) : 1551~1627 은형의 아들. 주부를 지냈다.
·윤 붕(尹 鵬) : 1553~1605 형록의 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이순신 휘하 함대 일령장(일령장)을 지냈고, 선무원종 2등공신에 책록되었다.
·윤정생(尹挺生) : 1556~1617 의의 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첨추를 지냈다.
·윤덕훈(尹德勳) : 1565~1627 섭의 아들. 호조 좌랑을 지냈다.
·윤신립(尹信立) : 1568~1653 호 야은(野隱). 덕의 아들. 진사과에 입격함.
·윤원빈(尹元賓) : 정간의 맏아들. 숙종조에 무과에 급제하여 주부를 지냈다.
·윤성진(尹聖鎭) : 1810~1852 호 만포(晩圃). 시조의 30세손. 1845년 문과에 급제하여 성현도찰방(省峴道察訪)을 지냈다.
·윤자화(尹滋華) : 1825~1884호 국포(國圃). 시조의 31세손. 1855년 문과에 급제하여 대사헌을 지냈다.
·윤의병(尹誼炳) : 1886~1958 시조의 33세손. 항일운동가
·윤완중(尹完重) : 1920~작고. 호 청파(淸波). 농어촌진흥공사 전남지사장을 지냈다.

·윤우중(尹雨重) : 1929. 6. 9 호 초원(草原). 시조의 34세손. 함평교육청 교육장을 지냈다.
·윤종규(尹鐘圭) : 1929~작고. 시조의 34세손. 해보면장을 지냈다.
·윤경중(尹炅重) : 1937. 8. 16 시조의 34세손. 서예가, 문예가
·윤득중(尹得重) : 1939.6. 16 해보농업현동조합장을 지냈다.
·윤종열(尹鍾悅) : 1924. 9. 29 호 화원(和園). 시조의 35세손. 인천시 경찰서장을 지냈다.
·윤석언(尹錫彦) : 1924. 10. 24 호 용암(龍岩). 시조의 35세손. 초등학교 교장을 지냈다.
·윤선식(尹宣植) : 1932. 5 .30 시조의 35세손. 해보농협농업협종조합장을 지냈다.
·윤석규(尹錫圭) :1938. 10. 25 한국선교총회 신학대학교 학생처장 역임
·윤석윤(尹錫允) : 1955. 5. 25 인천시개발단장(부이사관)을 역임했다.
·윤여은(尹汝垠) : 1945. 5. 27 제2대 함평군의회 의장을 지냈다.
·윤여윤(尹汝潤) : 1947. 2. 19 제일은행 지점장으로 있다.
·윤명수(尹明洙) : 1952. 2. 4 종열의 아들. 로켓트건저지주식회사 전무이사
·윤영수(尹永洙) : 1954. 1. 18 종열의 아들. 선경그룹 부장

(2) 운곡(雲谷)

o 마을 이름의 유래와 마을 형성

이 마을은 월양산 남쪽 자락에 위치하며 모평의 파평윤씨 입촌조(入村祖) 길(吉)이 자욱한 그름이 서린 이곳을 보며 “운곡”이라 했다는 전설에 의해 붙여진 지명이라고 한다.

이 마을은 파평윤씨 만진(萬鎭. 1805년생)이 1830년대에 개촌한 마을이다.

이어 평강채씨 남식(南植)의 아버지가 100여년 전에 들어 왔고 기타 성씨는 근년에 이주해 왔다.

o 기본현황

인구(명)			가구(호)			면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37	19	18	15	9	6	207.8	15.2	37.6	80.5	74.5
산 업						성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소득원						기타
벼		딸기								

o 공공건물

·동각 ; 10평. 1940년에 지었는데 태풍에 훼손되어 1946년 7월에 다시 지었으며 낡아

서 1990년에 보수 증축하였다.
·창고 : 1동. 20평. 19970년대 초에 지었다.

o 유물과 유적
·운곡 고인돌군 : 운곡에서 한골로 향하는 도로를 따라 400m 쯤 가면 도로 왼편의 정병준 소유 밭에 22기가 군집해 있다.
가장 큰 고인돌은 장축 300cm·단축 250cm·두께 150cm이다.
·선돌 : 군도 13호선에서 마을로 들어서는 어귀 왼편에 있고 삼각형 추과 같이 생겼으며, 크기는 높이 110cm·삼각 밑변 43cm이다.
·돌방 고분 : 지름 30m, 높이 5m 가량의 원형봉토분을 닮은 속칭 "두꺼비봉" 남쪽자락에 위치하며 돌방을 구성한 석재가 노출되어 있다.

o 풍수지리 및 중요한 지명
예부터 운곡 일대가 명당이라 전하기 때문에 파평윤씨, 상산김씨들의 선대묘가 많다.
·사두(蛇頭) : 뱀의 머리 형국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지금의 동각이 서있는 자리다.
·왕곡 : 동각 옆 계곡인데 전에 함평모씨들이 살았다고 전한다. 항곡 지명에 대한 유는 전하지 않는다.

o 자생조직
·촌계 : 1900년대 초에 창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6·25 한국전쟁 때 마을이 소실되면서 전해오던 계 장부도 불탔다.

9) 용산리(龍山里)

현재 용산리 구역 중 1789년 호구총수지명에 오른 마을 이름을 살펴보면 성산(城山)·연동(鳶洞)·용반동(龍反洞)·이성(鯉城)·신교(新橋)·주현(舟峴)·석교(石橋)·가오지(加五旨)이다. 1910년 행정구역지명에는 성산(星山)·신대(申大)·가오(佳午)·백옥(白玉)·주현(舟峴)의 네 마을이고, 1914년 이제를 시행 하면서 해보면의 신대(新垈)·백토(白土)·가오(加午) 전역과 성산(成山)·주현(舟峴)·월악면의 용촌(龍村) 각 일부 지역을 묶어 용촌에서 "龍"자 성산에서 "山"자를 따 "龍山里"라 이름 했다.

2009년 현재 용산리는 용산1리 주현(舟峴) 용산2리 소성(小城). 용산3리 대성(大城). 용산4리 백토(白土)의 행정리로 나뉘어 있다.

(1) 주현(舟峴)

o 마을 이름의 유래와 마을 형성

풍수지리설에 마을 주위가 호수며 현재 마을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떠 있는 배의 형국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한다.

이 마을은 밀양박씨가 개촌 했다고 하며, 뒤이어 죽산 안씨 충달(忠達. 1525년 문과 급제)의 손자 덕후(德厚. 사려-士勵-의 둘째 아들)가 1600년경에 입촌하였고, 이어 동래정씨 23세손 동구(東龜)의 셋째 아들인 양태(陽泰, 1687년생)가 1710년경에 들어왔으며, 1933년에 함양여(呂)씨 규용(圭用. 1880년생)이 금계리에서 이거 정착하였다.

o 기본현황

인구(명)			가구(호)			면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257	131	126	100	54	46	180.4	12.1	30.5	81.1	56.7
산 업						성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소득원						기타
벼										

o 공공건물

·창고 1 : 100평. 1979년 준공. 새마을 사업으로 지음
· 〃 2 : 30평. 1980년 준공. 〃
·회 관 : 10평. 1979년 준공. 〃
·동 각 : 8평. "우상각"이라 부르며 1990년에 복원했다.
·공동우물 : 개촌되면서부터 이용했고 일제 강점기에 우물집을 지었다.

o 유물과 유적

·효자각 : 정한표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1886년에 지었다.
·소나무 : 효자각 옆에 있으며 수령은 400년이 넘는다.

o 특이한 민속제향과 놀이

·당산제 : 매년 정월 보름에 지내는데 수령 400년이 넘는 소나무를 할아버지 당산. 현재 해보중학교가 있는 천재등(天財嶝. 또는 天才嶝. 사제등)의 고목을 할머니당산이라 부르며 제를 모셨으나. 지금은 할아버지 당산에만 석양에 줄감기를 하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를 올린다.

o 중요한 지명

·주뱅이등 : 배의 돛대에 해당한다.
·똥뫼 : “뚝뫼”라고도 하며 배의 중심이다.

o 자생조직

·위친계 : 위친을 목적으로 1950년에 창립하였다.

o 배출인물

·정호석(鄭昊錫) : 1763~? 문행으로 출사하여 중추부사를 지냄
·정한표(鄭漢彪) : 1784~? 사헌부감찰을 지냈고 효자 정려가 내렸다.
·정인용(鄭寅瑢) : 1891~? 해보면장을 지냈다.
·정완모(鄭完謨) : 제 3대 해보면장을 지냈다.
·정병모(鄭秉謨) : 1929. 12.19 서울중부세무서장 역임
·정진우(鄭鎭宇) : 환경청 사무관 역임
·정진원(鄭鎭元) : 1956. 12. 15 육군중령
·김삼금(金三今) : 해보초등학교 교장을 지냈다.

▶ 주현 인근의 폐촌(廢村)

·용촌(龍村) : 1789년 호구총수지명의 용반촌(龍反村)으로 원래 월악면(月岳面, 현 월야면의 일부지역)이었으며 일부가 주현에 편입되었다.
·신교(新橋) : 용산리 1번지. 현 해보시장에서 주현으로 오는 전 국도 24호선에 있는 다리로 1789년 호구총수지명에 마을 이름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이전에 마을이 형성된 듯하나. 지금은 논이 되어 있다.
·석교(石橋) : 마을 남쪽 입구에서 황새들로 가던 황새암(황새샘) 곁에 있던 돌다리 주위에 전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으나 1978년 경지정리 때 논이 되었다.
·이성(鯉城) : 주현 앞 들 가운데 있는 “잉어등”에 있던 마을로 1789년 호구총수지명에 나온다. 아주 오래 전에 폐촌되었으며 숲이 무성하다.

(2) 소성(小城)

소성

o 마을 이름의 유래와 마을 형성

원래 성산에서 대·소로 갈려나온 마을이며 마을 동쪽에 있던 가오지(加五旨. 1789년 호구총수지명)와 합쳐 성산가오지라 하다가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부터 소성으로 개칭했다고 하며, 최근에

펴낸 25000:1지도에는 소성산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마을은 파평윤씨 시조의 24세손 백(伯. 삼거-三擧-1644~1718-의 아버지)이 1640년경 개촌했으며, 이어 나주임(林)씨. 청송심씨 등이 들어와 살았다.

o 기본현황

인구(명)			가구(호)			면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77	40	37	37	21	16	136.8	9.2	23.2	62.5	41.9
산 업						성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소득원						기타
벼										

o 유물과 유적

·선돌 ; 마을 앞에 1기가 있다. 크기·높이 149cm. 하부 폭 45cm. 두께 30cm

·사매당(四梅堂) : 윤삼거가 세웠으며, 편액은 송시열의 글씨다. 1983년부터 복원 사업을 진행해 1999년에 마무리됐다.

<조선시대 유적유물 항을 볼 것>

o 특이한 민속제향과 놀이

·당산할매 옷입히기 : 매년 정월보름 또는 2월 1일에 마을 앞 선돌에 줄 감기를 하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를 지낸다.

o 배출인물

·윤삼거(尹三擧) : 1644~1718. 당대의 호남 석학으로 이름 높았다.

·윤천교(尹天敎) : 1737~1810 승지를 지냈다.

·윤성호(尹聖浩) ; 1765~1825 이조좌랑을 지냈다.

·윤석택(尹錫澤) : 기산초등학교 교장 역임

·윤여연(尹汝連) : 평화민주당 중앙당 노동분과위원장 역임

·윤재철(尹在喆) : 행정고시에 합격. 전라남도청 근무

(3) 대성(大城)

o 마을 이름의 유래와 마을 형성

대성과 소성을 에워싸고 있는 산 능선을 따라 전에 성을 쌓았기 때문에 "성산(城山. 1789년호구총수지명에도 같은 표기임)" 이라 했다고 하며, 지형상 모평현에 속한 성이 있을 법한데도 아직 성이라고 단정 지을 유적을 찾지 못했다.

현재 마을 터를 마장 터라고 부르는데 옛날 마을 타는 연습을 이곳에서 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지금의 대성 마을은 인근의 쌍구령(雙狗嶺)을 포함하며, 최근에 간행한 25000:1 지도에는 “대성산”이라 표기되어 있다.

이 마을은 아주 옛날 최씨가 개촌했고, 마을 옆 계곡이 “최씨 터”라 전해 오지만 본관이 어디고 언제 들어와 언제까지 살았다는 것은 전하지 않는다.

최씨에 이어 파평윤씨 영상(榮商. 1484~1568)이 모평에서 이거 정착했으며 자손이 번성하고 현달한 인물을 많이 배출했다.

그 뒤 밀양박씨, 함평이씨가 들어와 살았다.

o 기본현황

인구(명)			가구(호)			면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83	41	42	49	28	21	15735	10.7	26.5	70.7	49.6
산 업						성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소득원						기타
벼										

o 유물과 유적

·성산사(城山祠)터 : 1806년에 세웠고 윤영상, 윤형필을 배향했으며 1868년 서원훼철령에 의해 훼철되었다.

·은행나무 : 수령 500년이 넘으며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o 중요한 지명

·통샘 : 최씨들이 팠다고 전하는 샘으로 1967~1968년 대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았다

·토끼망등 : 정월 대보름에 달을 보던 등성이다.

o 배출인물

·윤영상(尹榮商) : 1484~1568. 1534년 학행으로 건원릉 참봉에 제수되고 1806년 호남사림의 논의에 의해 성산사에서 배향 하였다.

·윤형필(尹衡弼) : 1586년 무과에 급제. 선무원종 1등공신

·윤형임(尹衡任) : 형필의 동생. 임진란 때 공을 세워 통례원 찬의에 올랐다.

·윤 추(尹 湫) : 1549~1598 주부를 지냈다.

·윤 사(尹 嗣) : 형필의 양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동추를 지냈다.

·윤필중(尹弼重) : 1918. 1. 19 서울시경 경무국장을 지냈다.

·윤갑병(尹甲炳) : 제 6대 해보면장을 지냈다.

·윤길병(尹吉炳) : 1921. 8. 22 경기도 농촌진흥원장 역임

▶ 대성 인근의 폐촌(廢村)

·연동(鳶洞) : 대창리 창남과 용산리 대성 사이 솔개등에 있던 마을로 1910년 지명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그 이전에 폐촌된 것으로 보인다.

(4) 백토(白土)

o 마을 이름의 유래와 마을 형성

개촌 역사가 오래인데도 1789년 호구총수지명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는 주현과 합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910년 행정구역 지명에는 백옥(白玉)으로 나와있고 1914년 행정구역지명에는 지금의 백토(白土)로 나와 있어 1910년 이후에 개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백토라는 지명은 마을 뒤편 천재등에서 하얀색의 고령토가 나오기 때문에 붙여졌다.

이 마을은 함평이씨 시태(時泰. 1608년생)·시영(時榮) 형제가 1630년경에 개촌하였고, 함평이씨와 거의 같은 연대에 밀양박씨가 들어와 살았는데 박씨의 후손은 지금은 한집도 살지 않는다.

뒤이어 죽산안씨 만집(晩集. 1720년생)이 1740년대 중반에 입촌했다.

지금은 20여 성씨가 살고 있다.

o 기본현황

인구(명)			가구(호)			면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118	60	58	56	36	20	124.8	8.4	21.3	56.3	38.8
산 업						성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소득원						기타
벼										

o 유물과 유적

·청동기~철기시대 유적 : 국도22호선 확포장공사로 인한 유적 유물 발굴조사에서 목포대학교 발굴진이 “방잔등”에서 1999년 7월 돌널무덤(석관묘-石棺墓)과 돌방무덤(석실분-石室墳) 등 다수의 유적과 유물을 발구하였다.

<제10편 문화재와 노거수 중 1999년 발굴 유적을 볼 것>

·선돌 : 1기. 높이 2m

o 특이한 민속제향과 놀이

·선돌제 : 1990년 초까지 정월 보름에 당산제와 함께 선돌제를 올렸다.

o 풍수지리 및 중요한 지명

·천재등 : 현재 해보중학교가 있는 등성이로 풍수지리설에 배의 화물창고다. 또 "사제등"이라고도 부르는데 학교가 서고 보니 "사제등(師弟嶝)"과 맞아 떨어지는 지명이라고 한다.

o 배출인물

·안서노(安瑞魯) : 1843~? 효행으로 향도천을 받았다.
·이원범(李元範) : 1947. 8. 27 조달청 외자총괄과장 역임
·이계인(李啓寅) : 제 4대 해보면장을 지냈다.

10) 해보리(海保里)

1789년 호구총수지명에 오른 마을 이름을 살펴보면 경덕(京德)·월선동(月仙洞)·월내(月柰)·옹점(瓮店)·상발미(上發美)·하발미(下發美)·내대(內代)이며 1910년 행정구역 지명에는 발미(發味)·가작(佳作)·월현(月玄)·모산(茅山) 네 마을이 올라 있고, 1914년 이제를 시행하면서 해보면의 가작(佳作)·발미(發美)·모산(茅産) 전역과 월현(月峴)일부 지역을 합쳐 발미에 해보면사무소를 설치하고, 면의 이름을 따 "海保里"라 했다.

발미와 월현 마을 주변의 지명에 "선챙이(선창)", "닻줄 골" 등이 전해오는 것을 보면 고막천의 소지류인 해보천의 상류인 이곳까지 옛날에 배가 드나들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은 면사무소를 금덕리로 옮겼다.

(1) 모산(茅産)

o 마을 이름의 유래와 마을 형성 : 이 마을은 경주최씨가 개촌했다고 하나 그 후손들이 오랜 옛적에 마을을 떠나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갔는지 알 수가 없다.

뒤이어 광주노(盧)씨 시조의 29세손 수복(壽福. 1583~1644)이 1610년대에 월야면에서 이거 정착했으며, 그 후 밀양박씨 자중(自重. 남규-南圭-의 아버지)이 130여 년전, 전주리씨 강현의 아버지가 120여년 전, 나주오씨 근술의 아버지가110여 년 전에 입촌하였다.

광주노씨들의 전언에 따르면, 본래 마을 이름을 광주노씨 수복의 할아버지 이름을 따 "경덕

모산

(憬德)"이라 했다고 하는데, 1789년 호구총수지명에 보면 현재의 "모산(茅山)" 지명은 없고, "경덕(京德)"이라 표기된 마을이 있어 표기는 다르나 광주노씨 들의 전언이 사실로 여겨진다.

1910년 행정구역지명부터 "경덕(京德)"이 빠지고 "모산(茅山)"이 나오는 것을 보면 적어도 1910년 이전에 개명된 것으로 보며 "모산(茅山)"이란 이름은 마을 뒷산 등성이에 띠가 아주 많이 덮여있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중국 산동성 모평현(牟平縣) 곁에 모산현(牟山縣)이 있고 모(牟)씨와 관련되며, 고려때 "모평현(牟平縣)"의 처소가 "모평(牟平)"에 있었으며 그 곁에 "모산"이 있고 함평모(牟)씨와 관련이 있는 것 을 볼때. "모산"의 한문 표기는 "모산(牟山)"이 옳을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의 모산은 근년에 개촌된 새터를 포함한다.

o 기본현황

인구(명)			가구(호)			면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90	47	43	39	23	16	198.6	13.6	27.1	92.5	65.4
산 업						성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소득원						기타
벼										

o 공공건물

·마을회관 : 1997년 9월 30일 준공. 44평. 농어민 건강관리실의 표본형으로 지었으며 남·녀 휴식실. 교양실. 목용실. 노인 체육실 등을 갖추고 있다.

o 유물과 유적

·탑골과 석불입상(石佛立像) : 해보리 산 51번지 파평윤씨 문중산, 속치 탑골에 탑과 석불입상이 있었고, 석불입상에 아들을 낳아 달라고 기원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정남용(작고, 생존했다면110세) 의 일화가 전한다.
탑과 석불을 갖춘 절이라면 이름이 널리 알려진 절이었을 것인데 어쩐 연유에서인지 절의 이름이 전하지 않는다.

·석불입상 : 1980년 8월 도굴꾼에 의해 반출 위기에 처했으나 함평군과 도 당국의 긴급 조치로 도외(道外)반출을 예방하였고, 1982년 4월 25일 함평군민복지회관 뜰로 옮겨 보관하고 있으며, 도 유형문화재 제 117호로 지정되었다. 조성연대는 11~12세기로 추정하고 있다. <1권 고려시대의 유적유물을 볼 것>

·석탑 : 한 말에 파평윤씨 문중에서 동여정(同余亭. 모산 저수지 북쪽에 위침함)을 증보수

하면서 탑을 헐어 주춧돌로 사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조성연대는 석불임상과 동대로 추정하고 있다. <1권 고려시대의 유적유물을 볼 것>

·원후재(遠厚齋) : 광주노씨 제각

o 마을과 관계되는 전설

·잠자리 형국 : 마을 형국이 잠자리 형국이어서 자손이 번창하고 잘살았으나 1926년 광주 노씨들이 잠자리 꼬리에 해당하는 부위에 제실을 짓고부터 부유하던 마을이 토지 300두락이 외지 사람들에게 팔려나가는 등 빈촌의 길을 걸었다. 모두들 잠자리 꼬리에 제실을 지어 잠자리가 활동을 못하게 한 때문이라고 말했다.

·느티나무 노거수 : 수령 300여 년이 넘는 나무로 땅위에 바짝 붙어 네 가지가 나와 자랐으나 지금은 고목이 되어 세 가지는 큰 바람에 꺾어지고 한 가지만 남아있다. 이 나무가 땅위에 바짝 붙어 가지를 뻗게 된 것은 옛날 마을의 한 아낙이 김을 매러 가는데 아이가 울면서 따라오자 꺽어서 매를 했기 때문이라고 하며, 수년 전까지 당산제를 지냈었다. 이 나무가 잎이 한꺼번에 피면 그 해에는 풍년이 들고, 나누어 피면 그 해에는 흉년이 들어 풍년과 흉년을 미리 알 수가 있게 되었다.

o 자생조직

·노(盧)씨문회 : 문중사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1926년에 창립하였다.

·청년회 ; 마을 공동 작업 및 회원 상호간 부조를 위해 1970년에 창립하였다.

·부녀회 : 회원 상호간 부조를 목적으로 1975년에 창립하였다.

o 배출인물

·김영숙(金永淑) ; 1926. 1. 3 초등학교 교장을 지냈다.

·김영종(金永鍾) : 1942. 7. 4 함평군청 기획감사실장(4급)으로 있다.

·노만주(盧滿柱) : 사법고시 합격, 변호사

·노재옥(盧載玉) : 대법원 형사과장 역임

·노병우(盧炳雨) : 전라남도 연초조합 전무 역임.

(2) 발미(發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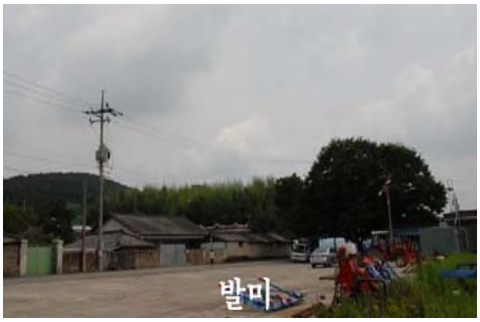
o 마을 이름의 유래와 마을 형성

원래의 이름은 우리말 이름 발밑이었고, 본래의 뜻을 한자로 표기한다면 염저(簾底)로 써야 한다.

발(염-簾)이란 가늘게 쪼갠 대오리나 갈대 등을 엮어 만든 것으로 햇볕을 가리거나 통풍이 잘되게 하기 위해 드리우는 것이다.

마을 이름을 발밑으로 한 것은 풍수지리설에 이곳에는 옥녀가 거문고를 타고 있는 명당이 있다고 하여 지명 중에 하염봉(下簾峯. 옥녀의 모습을 가리기 위해 친 발), 비녀봉. 횡

금등(橫琴嶝, 거문고) 등이 있다.



발밑이란 옥녀의 모습을 가리기 위해 친 말, 즉 하염종 밑에 있는 마을이란 뜻에서 붙여진 이름인데 한문으로 표기하면서 본래의 뜻과는 달리 미인이 난다는 "발미(發美, 1789년 호구총수지명)"로 표기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동각을 중심으로 위쪽을 웃몰(상발미-上發美), 아래쪽을 아랫몰(하발미-下發美)이라고 한다.

이 마을은 진주정씨 민득(敏得, 1577~1597)의 아버지 복일(復一)이 1570년대에 입주 개촌하여 후손들이 자작일촌을 이루었고, 밀양박씨 경삼과 김해김씨 춘해가 100여년 전에 들어왔으며, 1950년대에 인동장씨 홍태가 입촌하였다.

o 기본현황

인구(명)			가구(호)			면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154	83	71	50	27	23	225.0	15.7	26.4	106.8	76.1
산 업						성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소득원						기타
벼										

o 공공건물

·창고 : 50평. 1970년대 새마을사업 때 지었다.

o 유물과 유적

·미와초당(薇窩草堂) : 정덕요가 세웠으며 봄·가을에 강회(講會)를 열었고, "비례부동(非禮不動)"이란 숙종의 어필을 보관했다.

·미암(薇菴) : 정덕요가 지곡(芝谷, 현 월현)에 지었고, 1873년 종헌(鍾憲), 주필(柱弼) 등이 발미로 이건하였다.

·느티나무·노거수 : 정훈 소유의 대밭에 있고 수령이 500년이 넘으며 둘레가 7~8m에 이른다.

o 풍수지리 및 중요한 지명

·배형국 : 풍수지리설에 발미를 배형국의 배 밑으로 보고 있어 샘을 파면 배 밑창을 뚫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샘을 판 당사자는 물론 마을이 망한다고 전해오는데. 해보면장을 지낸 정영태가 집안에 작두샘을 설치했다가 궂은 일이 자주 일어나 철거한 일이 있다고 한다.

·들 샘 : 마을 앞에 있던 샘으로 발미의 유일산 식수원이었다.

·옥녀봉 : 마을 동쪽에 있는 산

·큰절터 : 정기영 소유의 밭 주위를 말하며 큰 절이 있었다고 한다.

·선창들 : 발미와 월현 사이의 들. 옛날에 배가 드나든 선창이 있었기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한다.

o 배출인물

·정민득(鄭敏得) : 1595년 무과에 급제. 도총부 도사에 올랐고 남원전에서 순국하였다.
·정 직(鄭 稷) : 1595~1641 호 묵우(默愚). 별제를 지냈고 정묘·병자호란 때 창의하였다.
·정택주(鄭宅周) : 1633~1716 호 한취당(寒翠堂). 1676년 무과에 급제. 구례현감을 지냈다.
·정덕요(鄭德曜) : 1658~1736 호 미와(薇窩). 통덕랑을 지냈다.
·정용신(鄭龍臣) : 1681~1754 1735년 사마시에 입격했다.
·정익신(鄭翊臣) : 1694~1751 1733년 무과에 급제. 우후를 지냈다.
·정영신(鄭英臣) : 호 묵와(默窩) 1688년 진사과에 입격했다.
·정필신(鄭弼臣) : 1712~1783 1756년 무과에 급제하여 4개읍 수령을 지냈다.
·정석좌(鄭錫佐) : 1745~1787 무과에 급제했다.
·정남혁(鄭南爀) : 해보면장, 전라남도의원을 역임했다.
·정경근(鄭京根) :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정형윤(鄭炯允) : 조선대학교 공업전문대학 교수
·정경섭(鄭敬燮) : 조선대학교 공업전문대학 교수
·정정근(鄭正根) : 제 8대 해보면장을 지냈다.
·정우철(鄭宇喆) : 제 12대 해보면장을 지냈다.
·유기원(柳起元) : 제 7대 해보면장을 지냈다.

(3) 가작(佳作)

가작

o 마을 이름의 유래와 마을 형성

1789년 호구총수지명에 나오지 않는 마을이다.

지금의 가작 마을은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듬해인 1951년 산내리 등 산중에 살던 김제동 등 여러 가구를 소개하여 집단 이주시킨 신촌(新村)을 포함한다.

o 기본현황

인구(명)			가구(호)			면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35	16	19	26	14	12	66.6	5.8	14.8	39.4	26.6
산 업						성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소득원						기타
벼										

o 배출인물

·정기원(鄭起元) : 해보면장을 지냄

(4) 월현(月峴)

o 마을 이름의 유래와 마을 형성 : 월현 마을의 유래와 형성을 알려면 먼저 현재 행정구역상 금계리에 속하며 1946년 금계제가 완고되면서 수몰 폐촌된 지족동(知足洞, 1789년 호구총수지명)과 연암(連巖. 1789년 호구총수지명)의 유래와 형성, 인물 배출 등을 살펴야 한다.

그것은 월현의 진주정씨들이 이들 수몰마을을 개촌했던 사람들의 후손이고 서로 접(接)해 있었으며, 또 이들 수몰 마을 사람들이 이주하여 번성한 마을이기 때문이다.

지족은 범(范)씨가 개촌했다고 하는데 이를 증거하는 "범가골"이라는 지명이 전해오나 정확한 기록은 전하지 않으며 그 뒤 조선조 초에 최(崔)씨가 만호 벼슬을 하면서 왜구를 물리치는 공을 세워 지족실(知足室)이란 호를 왕에게 받았다고 하나 그 후손이 아주 옛날에 모두 떠나 사실 여부를 알 수가 없다.

그 후 진주 정씨로 사촌간인 충량이 1580년대에 입촌하였고, 득량이 1590년경에 들어와 자손이 번성하고 현달한 인물을 많이 배출하였다.

연암은 지족의 남쪽에 있던 마을로 진주정씨가 개촌했으며, 한렬(漢烈)·주언(周彦)의 효자와 열부 양성이씨(시현의 아내)를 배출하여 삼강문을 세우는 등 많은 인물을 배출하였다.

현재 월현 마을은 1789년 호구총수지명에 월내(月奈)로 나오고, 1914년 해정구역지명부터 월현(月峴)으로 개칭되어 나온다.

월현을 개촌한 사람은 지족과 연암이 혼동되어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진주정씨 외 타성인 장흥고씨는 영선의 아버지, 안동권씨는 병태·오술이. 김해김씨는 연식이 100여년 전에 입촌했다.

마을 형국이 활짝 핀 매화 같다고 하여 "감매(甘梅)", 정대면의 호를 따 "지곡(芝谷)"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인근 사람들이 행정구역지명인 "월현(月峴)"보다는 "감매(甘梅)"와 "지곡(芝谷)"이라는 지명을 더 많이 부르고 있다.

o 기본현황

인구(명)			가구(호)			면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전	답	임야	기타
80	35	45	52	29	23	86.6	5.8	14.8	39.4	26.6
산 업						성씨(호)				
주산물		특산물		주소득원						기타
벼										

o 공공건물

·마을회관 : ① 가운데회관 ·20평. 1970년 새마을사업으로 준공
② 서편회관 ·30평. 1996년 마을 자체기금으로 준공

·백인정(百忍亭) : 마을 정자. 1990년 복원

o 유물과 유적

·고인돌 : 지적동에 칠융바위라 부르던 7기를 비롯 수 십기가 있었고, 금계제 밑에 1980년대까지 9기가 있었으나 지금은 1기만 남아있다.

·선돌 : 1기가 정충량 신도비 곁에 있다.

·지산사 유허비(芝山祠 遺墟碑) ; 지족동에 위치하고, 충량·득량·대명을 배향함
1801년 창건하였으며 1868년 훼철령에 훼철하고 유허비를 세움.

·정충량 신도비(神道碑) : 선무원종 2등공신 정충량의 신도비. 마을 서편 입구에 있다.

·월양사지(月良寺址) : 마을 앞 월양산 중턱에 있던 고려 때 절터, 신등동국여지승람에는 월양사(月良寺)로 표기 되어있다.

·선무원종공신록권(宣武原從功臣錄券) : 2등공신에 책록된 정충량의 녹권으로 지금도 결락이 없이 정광원(鄭光源) 집에 보관되어 있다.
<1권 조선조의 유적 유물 중 전적(典籍)항을 볼 것>

·축성대(祝聖臺) : 진주정씨들이 수양산(首陽山) 중턱에 쌓은 대(臺)로 종묘사직의 보존과 태평성세를 기원하는 제를 올렸었다.

o 특이한 민소제향과 놀이

·당산제 : 1980년대 까지 정월 보름에 지냈다.

o 마을과 관계되는 미담과 전설

·충의의 마을 : 임진·정유재란 때 공을 세워 선무원종 2등공신에 오른 정충량, 정득량과 병자호란 때 창의하여 호남 6호장(六虎將)중 한 사람이 된 정대명을 배출하였고, 또 축성대를 쌓고 국가의 안녕을 기원한 마을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자랑스런 이름이다.

·뜸바위 : 월양산에 있는 펀펀한 바위인데 이 바위가 보이는 마을에서는 장님이 많이 나온다는 전설이 있어 뜸바위 주위의 나무는 절대 베지 않는다.

o 풍수지리 및 중요한 지명

·닻줄골 : 배의 닻줄을 매던 곳.

·땅바대 : "땅바다"라는 말로 지족의 별칭이었는데 이곳이 저수지가 되니 지명과 기이하게 맞아 떨어졌다고 한다.

·장방골 : 월양산 밑으로 장씨와 방씨가 살았기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수암(修菴)터 : 절의 암자 이름이다.

o 자생조직

·부녀회 : 1960년에 창립했다.
·청년회 : 1960년에 창립했고 마을 회관 보수, 마을에 전기 인입 등의 사업을 하였다.
·정씨문중계 : 씨족간의 우의와 상호 부조를 위해 1975년에 창립했다.

o 배출인물

·정충량(鄭忠良) : 1556~1614 호 송계(松溪). 선무원종 2등공신
·정득량(鄭得良) : 1569~1598 호 죽포(竹圃). 노량해전에서 순국, 선무원종 2등공신
·정대명(鄭大鳴) : 1584~1647 충량의 아들. 호 지곡(芝谷). 병자호란의 호남창의 대장 중 한 사람이다.
·정 근(鄭 瑾) : 1609~1672 통덕랑을 지냈다.
·정진방(鄭震邦) : 호 삼외재(三畏齋). 철종 때 호남의 문장가로 이름이 높았다.
·정평서(鄭平西) : 일명 평오(平旿). 동학농민군 접주.
·정동주(鄭東柱) : 함평부군수·전남 건축협회장 역임
·정동용(鄭東湧) : 광양군 교육장 역임
·정동수(鄭東秀) : 광주 백운동장 역임
·정동희(鄭東熙) : 농학박사, 국립농산물시험장장 역임
·정동문(鄭東文) : 중앙 서시관 역임
·정은환(鄭銀煥) : 고등법원 부장판사
·정국환(鄭國煥) : 청와대 경제 비서관
·정우석(鄭宇錫) ; 중앙의료공단 부장 역임
·정영훈(鄭永勳) : 행정고시 합격

▶ 월현 인근의 폐촌(廢村)

·사장(沙場. 1789년호구총수지명) ; 월현과 상곡리 운곡 중간 하천변에 있던 장터인데 “모라
태장“모래내장”이라는 지명이 전하며, 지금은 논이 되었고 언제 폐장 된지는 모른다.
·천변(川邊, 1789년호구총수지명) : 사장 곁에 있던 마을로 “갱변(강변의 사투리)”이란 지명이
전하며 개촌과 폐촌 연대는 모른다.
·월선동(月仙洞. 1789년호구총수지명) ; 현 정종배 소유의 논에 위치하여 분청자를 굽던 도공들이 살던 마을로 전하는데 폐촌연대는 모른다.
·내대(內代. 1789년호구총수지명) : 어딘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다.